

한국야구사연표

한국 야구사 연표

The Chronicles of Korea Baseball

1896 ~ 1979

홍순일 편저



체육진흥 투표권 수익금 지원사업



한국 야구사 연표

The Chronicles of Korea Baseball

1896 ~ 1979

홍순일 편저



체육계의 한 인사가 조롱하듯 말했다. “야구는 역사가 100년이 넘었는데, 연표가 없다니 참으로 신기하다”고 했다. 그가 한 말은 야구가 아무리 인기 높아도 속 빈 강정이라는 뜻이기도 했다. 그랬다. 야구는 경기 외엔 무엇 하나 내놓을 게 없었다. 얼굴이 붉어졌다. 야구가 한 세기를 넘겼지만 속을 채울만한 게 없었다. 정말, 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야구 연표는 나 역시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아니, 연표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는 이런 내 속 마음을 꿰뚫듯 한마디 더 했다. “뺏다면 내가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야구에 관한 한 문외한이나 다름 없는 그가 이 정도로 나오면 이진 솟제 모욕이었다. 그래서 한 마디 했다. “아, 늦었지만 우리도 준비 중이었어. 곧 나올 거야”

이래서 시작된 게 ‘한국야구사 연표’다. 순전히 오기가 뻗쳐서 손을 댔다는 게 옳다. 대한야구협회 윤정현 전무이사가 힘을 보탤다. 그리고 막 취임한 한국야구위원회 양해영 사무총장이 아낌없이 뒤를 밀어줬다. 우선 암흑시대였던 해방전의 야구부터 찾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막막했다. 부끄럽게도 연표 편찬에 필요한 사료나 자료가 없었다. 우선은 내가 움켜쥐고 있던 보잘 것 없는 자료들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을 매일 출근하듯 찾아가 옛 신문 속에서 한국야구의 흔적을 더듬어 나갔다.

1년여를 씨름한 끝에 해방 전 우리 나라에서 벌어졌던 야구의 실체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정리를 거듭한 끝에 프린트를 해보니 A4 용지로 190여 페이지가 됐다. 내용을 훑어본 한국야구위원회 이상일 특보가 책으로 출판할 것을 제의했다. 1년 전 이맘 때였다. 하지만 책으로 내기에는 내용이 너무 부실했다. 그래서 해방 직후부터 1979년까지 옛 신문을 한장 한장 들춰가며 숨겨진 사실들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 지방 신문사들을 수 없이 찾아가 담당자를 괴롭히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옛날 실업야구에서 유격수로 이름을 날렸던 하일 씨가 귀한 사진을 찾아주기도 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기를 2년. 1896년부터 1979년까지의 야구 연표가 비로서 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 사실들은 이번에 바로 잡았음을 밝혀둔다.

끝으로 이 책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뜻밖의 자료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야구위원회 구본능 총재님께 고마움을 전한다.

2013년 11월 30일
편저자 홍순일

한국야구사 연표

발간사



한국야구는 1904년 봄, 미국인 선교사 질레트에 의해 이 땅에 싹을 틔운 이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스타들이 명멸하였고 수많은 명승부와 기록들이 탄생하였습니다.

어느새 우리 국민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스포츠로 성장한 한국야구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 110년의 발자취를 정리하여 한국야구사 연표로 집대성하게 되었습니다.

한 세기가 넘는 역사에서 야구는 국민들과 희로애락을 같이 하며 변변한 배트와 글러브도 없을 만큼 열악했던 도입기를 지나 일제 치하에서는 나라 잃은 설움과 울분을 달래주었고 6.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재건의 의지를 굳건히 하여 주었습니다. 1960년대 시대의 격랑 속에서 실업야구가 꽃을 피웠고 1967년에는 뜨거웠던 고교야구 전성시대가 열리며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1980년대 프로야구가 출범한 이후부터 전산화가 되면서 연감 등으로 사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만 1896년부터 1979년까지의 야구사는 한국 근대사를 다룬 책이나 서류 등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서 야구 관계자들과 야구팬에게 한국야구의 변천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야구의 발자취와 당시의 시대상을 함께 정리한 한국야구사 연표는 수많은 관계자들에게 증언을 구하고 각지의 도서관, 학교 등에 묻혀 있던 당시 자료를 발굴한 끝에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연표가 귀중한 역사적 사료임과 동시에 단절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가교로서 한국야구가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한 좌표를 제시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한국야구사 연표 발간을 위하여 전국 방방 곡곡을 누비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묻혀진 사료를 수집,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홍순일 위원과 한국야구사 연표 발간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야구계 원로,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11월 30일
KBO 총재 구본능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야구사를 정립하는 것은 야구계의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국 야구 도입 110주년을 앞두고 『한국야구사 연표』를 발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 야구사의 기술은 물론, 각각의 역사적 사건들이 품은 의미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이번 『한국 야구사 연표』 발간은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세기가 넘는 역사에도 『한국 야구사 연표』 제작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년 6개월여의 작업을 통해 잘못된 기록은 바로 잡고 누락되었던 기록은 추가하는 등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발간되는 『한국 야구사 연표』는 야구 박물관에도 전시되는 등 소중한 가치가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한국야구는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 등 어려운 시기 속에서 국민의 설움을 달래 주었으며 다시 일어날 의지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에는 국제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국위를 선양하고 국민들을 위로 하였으며, 특히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파죽의 9연승으로 금메달을 획득해 최고의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한국 야구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한야구협회는 각종 야구 유물과 사료에 대한 영구적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확한 야구 역사를 정립하여 다음 세대에 남겨주기 위해 2011년 4월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공동으로 야구박물관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최근 야구 역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야구가 최초로 도입된 시기가 1905년이 아니라 1904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야구협회에서는 한국야구 도입 시기를 1904년으로 바로잡기 위하여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이 관리·관장하고 있는 각종 자료 중 야구 관련 정보에 한국야구 도입 시기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한국 야구사 바로 잡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3년을 한국 아마추어 야구의 르네상스로 만드는 등 한국 야구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대한야구협회는 앞으로 보다 밝은 한국 야구의 미래를 펼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한국 야구사 연표』 제작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한국야구위원회 구본능 총재님과 편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11월 30일

대한야구협회 회장 이병석

한국야구사 연표 차례

제1부 한국야구 이식과 접목(1896~1944년)

제1장 한국야구의 태동

■ 제1절 미국야구와 서재필

교육칙서 반포 2 / 미국인 조선 최초 야구경기 2 / 미해병과 미국거류민 야구경기 2 / 마영 야구경기 2 / 야구경기 예고 기사 2 / 서재필 박사 중견수로 첫 출전 2 / 미해병과 선교사들의 야구경기 3

■ 제2절 질레트와 황성기독교청년회(YMCA)

필립 질레트 내한 3 / 필립 질레트 평양에서 캐치 볼 3 / 황성기독교청년회(YMCA) 창립 총회 3 / 필립 질레트, 조선 최초 야구 보급 3 / YMCA 운동부 설치 4 / YMCA 야구단 결성 4 / 조선 최초 유니폼 착용 4 / 황성기독교청년회-대한의원부속학교 대전 5 / YMCA-한성고 첫 경기 5 / YMCA-한성고 2차전 5 / YMCA 지방 원정경기 5 / 필립 질레트 선교사 추방 7 / YMCA 야구단 해산7 /허성(許城), YMCA 운동부 간사 취임 16

■ 제3절 일본야구의 접목

일본인 조선 최초 야구경기 3 / 관립중학 야구 수업 개시 3 / 일본어-영어학교 야구경기 4 / 한성고(현 경기고) 야구부 결성 4 / 전조선야구대회(일본인 최초 공식 야구대회) 7 / 조선 최초 야구대회 개최 8 / 부산 최초 야구대회 개최 8 / 경성중-경성구락부경기 9 / 경성중-동양협회 연습경기 9 / 경성중-한양야구단경기 9 / 부산중-부산세관경기 9 / 대구연합야구대회 개최 12 / 경성운동장 공사 착공 19 / 지방 최초 대교(對校)경기 22 / 조선 최초 종합운동장(경성운동장) 준공 22 / 일본어판 조선야구사(朝鮮野球史) 발간 60 / 이영민, 전일본 국가대표 발탁 67 / 박현명(朴賢明), 오사카(大阪) 입단 83 / 유완식(劉完植), 한큐(阪急) 입단 84

■ 제4절 조선야구 탄생

조선인 최초 야구경기 4 / 휘문의숙(徽文義塾) 야구부 결성 4 / 고종(高宗) 황제 어장전(御場前)시범경기 4 / 경신학교 야구부 창설 5 / 휘문의숙-중앙기청(YMCA)경기 5 / 오성구락부 탄생 7 / 조선 최초 중학대회 개최 8 / 오성구락부 해체-YMCA야구단 재결성 8 / 조선 최초 중학대회 개최 8 / 전조선소년대회 개최 11 / 연희전문 야구부 창설 13 / 조선야구심판협회 창립 16, 46 / 제1회 고려-배재대항전 19 / 연희전문 야구부 재결성 19 / 조선 최초 여자경기 20 / 조선 최초 야구심판 강습회 21 / 중앙고보-휘문고보대항경기 24 / 이길용, 조선야구사(朝鮮野球史) 신문 연재 43

■ 제5절 지방야구의 발전

평양 숭실학교 야구부 창설 5 / 대구 계성(啓聖)학교 야구부 창설 6 / 광주 송일(崇一)학교 야구 도입 8 / 대구청년회, 야구단 조직 9 / 인천 한용단(漢勇團) 조직 10 / 광주 제1회 소년대회 개최 10 / 대구청년회 마산 첫 원정경기 10 / 대구고보(현 경북고) 야구부 창설 10 / 배재고보 인천에 첫 원정, 한용단과 첫 경기 10 / 대구소년야구대회 13 / 전인천소년대회 13, 28, 33 / 대구소년야구대회 개최 20 / 배재고보 인천원정경기 20 / 대구상업 야구부 창설 31 / 전마산소년야구대회 40 / 배재고보, 대구원정경기 41 / 휘문고보-대구상업 친선경기 42 / 연희전문, 대전-대구원정경기 55 / 중앙고보 야구부, 황해도 순회경기 57 / 관서연식야구대회 59, 67, 73 / 연희전문, 함남(咸南)원정경기 71

■ 제6절 도쿄유학생모국방문경기

제1차 방문경기 4 / 제2차 방문경기 6 / 제3차 방문경기 7 / 제4차 방문경기 8 / 제5차 방문경기 10 / 제

6차 방문경기 11 / 제7차 방문경기 16 / 제8차 방문경기 34 / 제9차 방문경기 70 / 제10차 방문경기 79

■ 제7절 해외야구 교류

조선야구 최초 일본원정경기 6 / 미해군과 최초 경기 10 / 메이저리그 올스타팀 초청경기 14 / 하와이교포학생 모국방문경기 16 / 휘문고보, 전국중등우승야구대회 첫 출전 17 / 중앙기독교청년회(YMCA) 하와이원정경기 18 / 미국 시카고대초청경기 23 / 미국여자야구단 초청경기 24 / 미국 흑인야구단 로열 자이언츠 초청경기 28, 59 / 다렌(大連)실업초청경기 30

제2장 조선의 민족야구대회

■ 제1절 전조선야구대회

제1회 대회(배재고보, 전배재 우승) 11 / 제2회 대회(휘문고보, 반도청년단 우승) 12 / 제3회 대회(배재고보, 중앙체육단) 우승 14 / 제4회 대회(휘문고보, 중앙체육단) 우승 15 / 제5회 대회(배재고보, 대구청년회) 우승 17 / 제6회 대회(배재고보, 연희전문) 우승 23 / 제7회 대회 소학단 첫 연식 공 사용(진남포공보, 중앙고보, 고려구락부) 우승 26 / 제8회 대회(진남포공보, 휘문고보, 연희구락부) 우승 28 / 제9회 대회(교동공보, 휘문고보, 전휘문) 우승 32 / 제10회 대회(경 전조선경기대회, 배재고보 5년간 출전 정지, 조선 최초 감독 제명(공옥보교, 휘문고보, 전배재) 우승) 39 / 제11회 대회(공옥보교, 중앙고보, 경전전차) 우승 43 / 배재고보, 경기출전 정지 해제 48 / 제12회 대회(공옥보교, 배재고보, 전배재) 우승 50 / 제13회 대회(공옥보교, 중앙고보, 월성구락부) 우승 55 / 제14회 대회(휴회) / 제15회 대회(멕시코) 우승 68 / 제16회 대회(멕시코) 우승 73

■ 제2절 조선일보 주최 중등학교리그

제1회 리그(중앙고보) 우승 20 / 제2회 리그(중앙고보) 우승 24 / 제3회 리그 재개(휘문고보) 우승 38 / 제4회 리그(휘문고보) 우승 44 / 제5회 리그(배재고보) 우승 53

■ 제3절 4구락부연맹전

제1회 연맹전(배재) 우승 25 / 제2회 연맹전(휘문) 우승 31 / 제3회 연맹전(중앙) 우승 35 / 한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 35 / 제4회 연맹전(배재) 우승 37 / 제5회 연맹전(휘문) 우승 42 / 제6회 연맹전(휘문) 우승 46 / 제7회 연맹전(휘문) 우승 49 / 연맹전(배재) 우승 99 / 연맹전(배재) 우승 107 / 연맹전(무승부) 115 / 32회 연맹전(중앙) 우승 163 / 33회 연맹전(휘문) 우승 172 / 34회 연맹전(3팀 동률) 184 / 35회 연맹전(중앙) 우승 198 / 36회 연맹전(배재) 우승 208

■ 제4절 중앙고보 주최 전조선보통학교아동대회

제1회 대회(공옥보교) 우승 36 / 제2회 대회(청운공보) 우승 42 / 제3회 대회(교동공보) 우승 47 / 제4회 대회(재동공보) 우승 53 / 제5회 대회(주교공보) 우승 56

■ 제6절 연희전문-경성의전 정기대항전

제1회 대항전(연전) 우승 27 / 2회 대항전 이영민, 경성운동장 첫 홈런(연전) 우승 33 / 제3회 대항전(경의전) 우승 38 / 제4회 대항전(경의전) 우승 51 / 제5회 대항전(경의전) 우승 54 / 제6회 대항전(경의전) 우승 61 / 제7회 대항전(연전) 우승 65 / 제8회 대항전(연전) 우승 69

■ 제5절 연희전문 주최 전조선중등학교대회

제1회 대회(배재고보) 우승 51 / 제2회 대회(최장 17회 연장전, 중앙고보) 우승 55 / 제3회 대회(휘문고보) 우승 61 / 제4회 대회(휘문고보) 우승 68 / 제5회 대회(휘문고보) 우승 70 / 조선 최초 노히트노런 70 / 제6회 대회(선린상업) 우승 75 / 제7회 대회(선린상업) 우승 78

제3장 조선의 일본야구대회

■ 제1절 조선중등학교대회겸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 조선예선전

제1회 대회(부산상업 우승) 12 / 제2회 대회(경성중 우승) 13 / 제3회 대회(휘문고보 우승) 16 / 제4회 대회(경성중 우승) 18 / 제5회 대회(부산중 우승) 22 / 제6회 대회(경성중 우승) 25 / 제7회 대회(경성중 우승) 29 / 제8회 대회(경성중 우승) 34 / 제9회 대회(평양중 우승) 40 / 제10회 대회(대구상업 우승) 44 / 제11회 대회(경성상업 우승) 51 / 제12회 대회(평양중 우승) 57 / 제13회 대회(선린상업 우승) 62 / 한 경기 최단시간(1시간 17분) 경기 기록 62 / 제14회 대회(경성상업 우승) 66 / 제15회 대회(신의주상업 우승) 72 / 제16회 대회(인천상업 우승) 76 / 제17회 대회(용산중 우승) 79 / 제18회 대회(인천상업 우승) 82 / 제19회 대회(인천상업 우승) 85 / 제20회 대회(평양1중 우승) 87

■ 제2절 일본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

제7회 대회(부산상업 2회전 탈락) 12 / 제8회 대회(경성중 1회전 탈락) 14 / 제9회 대회(휘문고보 3회전 탈락) 17 / 제10회 대회(경성중 1회전 탈락) 19 / 제11회 대회(부산중 2회전 탈락) 22 / 제12회 대회(경성중 2회전 탈락) 25 / 제13회 대회(경성중 2회전 탈락) 29 / 제14회 대회(경성중 2회전 탈락) 35 / 제15회 대회(평양중 2회전 탈락) 41 / 제16회 대회(대구상업 1회전 탈락) 45 / 제17회 대회(경성상업 2회전 탈락) 52 / 제18회 대회(평양중 1회전 탈락) 58 / 제19회 대회(선린상업 1회전 노히트노런 패) 63 / 제20회 대회(경성상업 3회전 탈락) 66 / 제21회 대회(신의주상업 2회전 탈락) 72 / 제22회 대회(인천상업 2회전 탈락) 76 / 제23회 대회(용산중 1회전 탈락) 80 / 제24회 대회(인천상업 2회전 탈락) 83 / 제25회 대회(인천상업 1회전 탈락) 86 / 제26회 대회(평양1중 2회전 탈락) 88

■ 제3절 전조선야구쟁패전

제1회 쟁패전(경중 우승) 19 / 제2회 쟁패전 김중세 첫 홈런(경희 우승) 22 / 제3회 쟁패전(경희 우승) 26 / 경성전기 야구부 창설 27 / 제4회 쟁패전(경희 우승) 30 / 제5회 쟁패전(경성전기 우승) 35 / 제6회 쟁패전(평양철도 우승) 41 / 제7회 쟁패전(체신국 우승) 46 / 제8회 쟁패전(체신국 우승) 52 / 제9회 쟁패전(체신국 우승) 59 / 제10회 쟁패전(식산은행 우승) 63 / 제11회 쟁패전 고려구락부 첫 출전(식산은행 우승) 66 / 제12회 쟁패전(식산은행 우승) 72 / 제13회 쟁패전(경성부청 우승) 77

■ 제4절 조선실업연맹전겸 전국도시대항우승대회 조선예선전

조선실업야구연맹 창립 28 / 제1회 대회(식산은행 우승) 34 / 제2회 대회(경성부청 우승) 39 / 제3회 대회(평양철도 우승) 44 / 제4회 대회(용산철도 우승) 51 / 제5회 대회(전경성 우승) 56 / 제6회 대회(전경성 우승) 62 / 제7회 대회(전경성 우승) 65 / 제8회 대회(전경성 우승) 71 / 제9회 대회(전경성 우승) 75 / 제10회 대회(전경성 우승) 78 / 제11회 대회(전경성 우승) 82 / 제12회 대회(전경성 우승) 85 / 제13회 대회(전경성 우승) 87 / 제14회 대회(전경성 우승) 89 / 제15회 대회(전경성 우승) 90

■ 제5절 흑사자기쟁탈 전국도시대항우승대회

1회 대회(용산철도 1회전 탈락) 29 / 제2회 대회(식산은행 3회전 탈락) 35 / 제3회 대회(전경성 준결승전 탈락) 40 / 제4회 대회(평양철도 1회전 탈락) 45 / 제5회 대회(용산철도 1회전 탈락) 52 / 제6회 대회(전경성 2회전 탈락) 58 / 제7회 대회(전경성 준우승) 62 / 제8회 대회(전경성 준우승) 66 / 제9회 대회(전경성 2회전 탈락) 72 / 제10회 대회(전경성 1회전 탈락) 76 / 제11회 대회(전경성 출전 포기) / 제12회 대회(전경성 준우승) 83 / 제13회 대회(경성성 준결승전 탈락) 85 / 제14회 대회(전경성 우승) 88 / 제15회 대회(중지) / 제16회 대회(전경성 2연패) 90

■ 제6절 경성실업연맹전

추계(식산은 우승) 30 / 춘계(식산은 우승) 32 / 추계(경전 우승) 36 / 춘계(식산은 우승) 37 / 추계(체신 우승) 41 / 춘계(전적 미상) 43 / 추계(식산은 우승) 46 / 춘계(철도 우승) 48 / 추계(철도 우승) 53 / 춘계(철

도 우승) 54 / 추계(체신 우승) 59 / 춘계(식산은 우승) 61 / 추계(무기연기) 63 / 춘계(철도 우승) 64 / 추계(경전 우승) 67 / 춘계(식산은 우승) 69 / 추계(철도 우승) 73 / 춘계(식산은 우승) 74 / 추계(부청 우승) 77 / 춘계(결승전 중지) 78 / 추계(식산은 우승) 80 / 춘계(식산은 우승) 81 / 추계(체신 우승) 83 / 춘계(체신 우승) 84 / 추계(식산은 우승) 86 / 춘계(부청 우승) 87 / 추계(철도 우승) 88 / 춘계(식산은 우승) 89

■ 제7절 조선의 일본야구 초청경기

게이오(慶應)대·도쿄(東京)구락부 17 / 다카라즈카(寶塚) 운동협회 21, 37, 43 / 게이오(慶應)대유니온 22 / 코료(廣陵)중학 25, 33 / 마이니치(毎日)신문 27, 29, 31 / 아와타(八幡)제철 29 / 신코(神港)상업 30 / 전후쿠오카(全福岡) 30 / 마쓰야마(松山)고상 33 / 카이소우(海草)중학 36, 43 / 릿쿄(立教)대 45, 66 / 주쿄(中京)상업 48 / 미국알라메다야구단 50 / 간사이(關西)대 50, 54, 72 / 도쿄(東京)제국대 52 / 모지(門司)철도 54, 65, 85 / 메이지(明治)대 75, 82

제4장 조선의 일본 각종 야구대회

■ 제1절 전조선전문학교·대학대회및 연맹전

제1회 대회(경성고공 우승) 18 / 제2회 대회(경성고상, 경성대예과 공동 우승) 21 / 제3회 대회(경성대예과 우승) 50 / 제1회 연맹전(연전 우승) 61 / 제2회 연맹전(경의전 우승) 65 / 제3회 연맹전(연전 우승) 69 / 제4회 연맹전(경성대 우승) 74 / 제5회 연맹전(경성의전 우승) 77 / 제6회 연맹전(연전 우승) 82 / 제7회 연맹전(연전 우승) 84

■ 제2절 조선신공중등학교대회

제1회 대회(경성사범 우승) 31 / 제2회 대회(평양중 우승) 36 / 제3회 대회(경성사범 우승) 42 / 제4회 대회(대구상업 우승) 47 / 제5회 대회(대구상업 우승) 53 / 제6회 대회(인천남상업 우승) 59 / 제7회 대회(경성상업 우승) 63 / 제8회 대회(인천상업 우승) 68 / 제9회 대회(용산중 우승) 73 / 제10회 대회(인천상업 우승) 77 / 제11회 대회(용산중 우승) 81 / 제12회 대회(선린상업 우승) 83 / 제13회 대회(인천상업 우승) 86 / 제14회 대회(선린상업 우승) 88 / 제15회 대회(용산중 우승) 89

■ 제3절 부산지역 춘·추계대회및 조선중등학교선발대회

춘계(부산중 우승) 34 / 제1회 선발대회(용산중 우승) 45 / 제2회 선발대회(사가상업 우승) 52 / 추계(부산중 우승) 53 / 춘계(동래고보 우승) 57 / 제3회 선발대회(사카이대상업 우승) 58 / 추계(동래고보 우승) 60 / 춘계(부산1상 우승) 60 / 추계(부산1상 우승) 63 / 춘계(부산1상 우승) 64 / 추계(부산1상 우승) 67 / 춘계(부산1상 우승) 69 / 추계(부산1상 우승) 78 / 춘계(동래고보 우승) 81

■ 제4절 호남중등학교야구대회

제1회 대회(군산중 우승) 36 / 제2회 대회(광주중 우승) 38 / 제3회 대회(광주중 우승) 42 / 제4회 대회(전주 고보 우승) 44 / 제5회 대회(목포상업 우승) 47 / 제7회 대회(군산중 우승) 56

■ 제5절 경성중등학교춘계리그

경성중등학교야구연맹 발족 48 / 제1회 춘계(용산중 우승) 48 / 제2회 춘계(경성상업 우승) 54 / 제3회 춘계(경성상업 우승) 60 / 제4회 춘계(경성사범 우승) 64 / 제5회 춘계(경성상업 우승) 69 / 제6회 춘계(용산중 우승) 74 / 제7회 춘계(대회 중단) 77 / 제8회 춘계(선린상업 우승) 81 / 제9회 춘계(경성사범 우승) 84 / 제10회 춘계(성동중 우승) 86 / 제11회 춘계(선린상업 우승) 89

■ 제6절 평남중등학교춘·추계리그

추계(광성고보 우승) 74 / 춘계(평양상업 우승) 78 / 추계(평양중 우승) 80 / 춘계(평양1중 우승) 82 / 춘계(평양2중 우승) 84 / 추계(평양1중 우승) 86 / 춘계(평양1중 우승) 87 / 추계(평양1중 우승) 88 / 춘계(평양1중 우승) 89

■ 제7절 조선의 일본 각종 야구대회

대구춘계쟁패전(대구상업 우승) 33 / 제1회 전조선연식우승대회 58 / 대구중등리그(대구고보 우승) 64 / 대구중등리그(대구상업 우승) 71 / 제1회 전조선연식도시대항대회 77 / 체육데이 보통학교대회 80 / 스포츠 활동 정지 90

한국야구사 연표 차례

제2부 한국야구 재건과 도약(1945~1959년)

제1장 광복후 초기야구와 각종 단체들

■제1절 조선야구협회 창립과 각종 단체들의 탄생

조선체육동지회 결성 91 / 조선체육회 부활 92 / 서울구락부 결성 93 / 조선야구협회 창립 93 / 조선학생야구연맹 발족 93 / 중앙실업야구부 창설 94 / 조선연식야구협회 창립 준비총회 95 / 한성실업연맹 창립 95 / 조선연식야구협회 정식 발족 96 / 식산은행 야구부 부활 99 / 남선전기야구단 창단 100 / 대한구락부결성 101 / 야구규칙 첫 발간 105 / 금융조합야구부 결성 108 / 조선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개명 113 / 대한연식야구협회 대한체육회 정식 가입 127 / 아시아야구연맹 창립 총회 129 / 대한야구협회 서울 환도 134 / 대한야구협회 헌장 개칭 135 / 대한학생야구연맹 발족 137 / 서울시연식야구협회 창립 141 / 대한야구협회 야구규칙 발간 148 / 고려대야구부 창설 157 / 농업은행야구단 창단 174 / 교통부야구단 창단 175

■제2절 광복 초기의 야구경기

전배재-전휘문 올스타대항전 91 / 자유신문 4대 야구대회 발표 92 / 야구실전지도회 개최 93 / 고 김정식(金貞植)추도대회 93 / 귀환군 환영친선대회 95 / 부·마(釜·馬)야구대항전 95 / 조선연식협회 창립기념대회 96 / 하와이교포회초청 원정야구단 결단 104 / 하와이원정경기 연기 104 / 하와이원정 환송경기 106, 108 / 조선운수, 영남원정경기 108 / 하와이원정야구단 해산 109 / 이영민, 올림픽대회 참가 환송경기 111 / 경기·영남선발대회 111 / 정부수립 경축 전국선발국민학교대회 112 / 전국소년선수권대회 118 / 세계야구대회 준비회의 참석 124 / 제2회 광복절 경축 기념대회 127

■제3절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제26회 대회(계림) 92 / 제27회 대회(경기, 상대, 전주, 부산) 100 / 제28회 대회(경기, 성대, 대전, 조선화재) 107 / 제29회 대회(경남, 성대, 광주, 대구) 115 / 제30회 대회(동래, 성대, 서울, 남대문) 122 / 제32회 대회(광주, 조선운수) 125 / 제33회 대회(인천, 인천, 조선방직) 126 / 제34회 대회(인천, 금융조합, 대신, 동양) 128 / 제35회 대회(인천, 한대, 조선운수, 경남, 인천) 135 / 제36회 대회(대전, 동아, 인천, 광희, 삼한) 145 / 제37회 대회(동산, 동아, 인천, 경동, 대구) 156 / 중학37이닝 연속완투 신기록 156 / 제38회 대회(인천, 성대, 남전, 경동, 남선전기) 162 / 한국 최초 퍼펙트 게임 수립 162 / 제39회 대회(경기공, 성대, 전인천, 동인천, 부산전화) 170 / 김양중, 대한민국 체육상 수상 174 / 제40회 대회(경기공, 서울, 대신, 경주) 184 / 김희련, 대한민국 체육상 수상 187 / 제41회 대회(경동, 성동, 동아) 197 / 제42회 대회(대신, 성동, 연세) 207 / 제43회 대회(배문, 대구상, 동아) 219 / 제44회 대회(충남, 대구상, 한전) 230 / 제45회 대회(경상, 마산, 동아) 244 / 제46회 대회(배문, 중앙, 한양) 259 / 제47회 대회(대구, 대구상, 한양) 271 / 제48회 대회(개성, 중앙, 고려) 281 / 제49회 대회(경북, 대구상, 동아) 294 / 제50회 대회(대구상, 한양, 농협) 307 / 제51회 대회(경북, 한양, 한은) 320 / 제52회 대회(군산상, 한양, 한은) 333 / 제53회 대회(군산상, 동아, 한전) 346 / 제54회 대회(대전, 한양, 육군) 361, 김영춘 노히트노런 362 / 제55회 대회(대구상, 영남, 경기) 375 / 제56회 대회(군산상, 육군) 390 / 제57회 대회(군산상, 육군) 407 / 제58회 대회(선린상, 경남) 419 / 제59회 대회(인천, 동아) 435 / 제60회 대회(전주, 육군) 456, 박흥식(朴興植) 노히트노런 447

■제4절 한·미친선대회

45 조·미(朝·美)친선대회(조선) 91, 동(미24군) 92 / 46 대회(조선) 97 / 47 대회(고려) 101, 해방경축(전한국) 105 / 48 대회(고려) 111, 동(조선선발 승리) 112, 동(미주둔군 우승) 113 / 49 대회(고려, 미군) 116, 동(대학선발) 117, 동(전연희, 미고문) 119, 흥병창, 광복후 첫 홈런 119 / 53 광복 경축대회 127 / 54 환송대회 131 / 56 대회(해군, 미군) 149, 동(전서울, SMP) 150, 동(미24사, 5공군) 153 / 57 대회(해군, SAC) 159 / 58 대회(미1군단) 169 / 59 대회(육군, SAC) 177 / 60 대회(미군) 182, 동(육군) 191 / 61 대회(육군) 202 / 62 대회(농협) 212, 한·미올스타전 216 / 63 대회(상은) 227 / 64 대회(해공) 241 / 65 대

회(크라운) 254 / 66 대회(미2사) 267 / 67 대회(미2사) 277 / 68 대회(한은, 미2사) 289 / 69 대회(패스컴) 303 / 70 대회(제일은) 314

제2장 성인야구대회 탄생

■ 제1절 전국4도시대항대회 및 전국도시대항대회

제1회 4도시(경성) 93 / 2회 4도시(인천) 101 / 제3회 4도시(부산) 110 / 제4회 4도시(서울) 117 / 제5~8회 4도시(6.25전쟁) / 제9회 4도시(인천) 137 / 제1회 도시대항(대구) 94 / 제2회 도시대항(인천) 104 / 제3회 도시대항(대구) 110 / 제4회 도시대항(서울) 119 / 제5회 도시대항(서울) 124 / 한 경기 최소 투구 노히트 노런 124 / 제6회 도시대항(6.25 전쟁) / 제7회 도시대항(서울) 126 / 제8회 도시대항(인천) 128 / 제9회 도시대항(서울) 134 / 제10회 도시대항(서울) 144 / 제11회 도시대항(인천) 155 / 제13회 도시대항(부산) 171

■ 제2절 한성실업연맹전과 전국실업연맹전

제1회 춘계(중앙실업) 97 / 제2회 추계(식산은행) 99 / 제3회 춘계(조선운수) 101 / 제4회 추계(조선운수) 106 / 제5회 춘계(조선운수) 109 / 제6회 추계(조선운수) 113 / 제7회 춘계(금융조합) 116 / 제8회 추계(조선운수) 121 / 제9회 춘계(금융조합) 123 / 제10~16회 춘·추계(6.25전쟁) / 제17회 춘계(금융조합) 129 / 춘계실업(조선운수) 109 / 추계실업(조선운수) 114 / 춘계실업(조선운수, 남선전기) 117 / 추계실업(금융조합) 121 / 춘계실업(조선운수) 124 / 8.15경축(조선운수) 132 / 춘계실업(무기 연기후 폐지) 137

■ 제3절 백호기쟁탈 전국군·실업쟁패전

제1회 쟁패전(육군, 금융조합) 138 / 제2회 쟁패전(육군) 143 / 제3회 쟁패전(공군) 150 / 제4회 쟁패전(육군) 155 / 제5회 쟁패전(육군) 157 / 제6회 쟁패전(조운) 163 / 제7회 쟁패전(중지) / 제8회 쟁패전(육군) 165 / 제9회 쟁패전(육군) 179 / 제10회 쟁패전(육군, 교통, 농은) 195 / 제11회 쟁패전(농은 우승) 203 / 제12회 쟁패전(농협) 213 / 제13회 쟁패전(해공) 226 / 제14회 쟁패전(상은) 237 / 제15회 쟁패전(크라운) 250, 김설권 노히트노런 250 / 제16회 쟁패전(한은) 265 / 제17회 쟁패전(육군) 282 / 제18회 쟁패전(육군) 284 / 제19회 쟁패전(해병) 297, 김병우 노히트노런 298 / 제20회 쟁패전(한전) 309 / 제21회 쟁패전(한전) 324 / 제22회 쟁패전(한은) 336 / 제23회 쟁패전(제일은) 352 / 제24회 대회(제일은) 367 / 제25회 대회(육군) 381, 강용수 퍼펙트게임 수립 381, 김봉연 3연타석 홈런 381 / 제26회 대회(한은) 393 / 백창현(白昌鉉), 노히트노런 394 / 제27회 대회(한국화장품) 413 / 제28회 대회(공군) 425 / 제29회 대회(성무) 443

■ 제4절 NBC배정탈 전국선수권대회

국제야구연맹(N.B.C) 가입 135 / NBC트로피 인수 141 / 제1회 대회(조선운수) 143 / 제2회 대회(조선운수) 154 / 제3회 대회(육군) 162 / 제4회 대회(육군) 170 / 서울운동장 개장 170 / 제5회 대회(육군) 185 / 제6회 대회(농은) 196 / 제7회 대회(육군) 208 / 제8회 대회(농협) 220 / 제9회 대회(중지) 233 / 제10회 대회(한전) 247 / 제11회 대회(기은) 259 / 제12회 대회(한은) 271, 김윤겸 노히트노런 272 / 제13회 대회(한은) 276 / 제14회 대회(상은) 295 / 제15회 대회(중지) / 제16회 대회(기은) 316, 유백만 노히트노런 317 / 제17회 대회(한전) 329, 김병우 퍼펙트게임 329 / 제18회 대회(상은) 343 / 제19회 대회(한은) 362 / 제20회 대회(기은) 370

■ 제5절 지방의 성인야구대회

제1회 인천4도시(부산) 106 / 제2회 인천4도시(인천) 115 / 제1회 경·인대항(서울) 111 / 제2회 경·인대항(인천) 116 / 제3회 경·인대항(서울) 119 / 제4회 경·인대항(서울) 123 / 제5회 경·인대항(서울) 129 / 제6회 경·인대항(서울) 137 / 제1회 마산4도시(서울) 102 / 제2회 마산4도시(마산) 112 / 제3회 마산4도시(서울) 120 / 제4회 마산4도시(부산) 164 / 부·마(釜·馬)대항(전마산) 116 / 부산4도시(전대구) 135 / 부산4도시(인천, 부산) 146 / 호남3도시(대전) 146 / 제1회 전국초청(광주) 131 / 제2회 전국초청(서울) 139 / 제3회 전국초청(광주) 154 / 제4회 전국초청(서울) 158 / 제5회 전국초청(인천) 165

■ 제6절 그 밖의 야구대회

46 구락부(배재) 99 / 47 구락부(배재) 107 / 48 구락부(재배, 중앙, 휘문) 115 / 49~56 구락부(중지) / 제

32회 구락부(중앙) 163 / 제33회 구락부(휘문) 172 / 제34회 구락부(3팀 동률) 184 / 제35회 구락(중앙) 198 / 제36회 구락부(배재) 208 / 연·고(延·高)대항전 156 / 연·고체육대회 198 / 연식도시대항 98 / 연식 협회 창립기념 103 / 제3회 춘계연식연맹전 109 / 제5회 춘계연식연맹전 124 / 경남연식대회 130 / 제2회 연식도시대항 133 / 제3회 연식도시대항 141 / 제9회 연식도시대항 150 / 제1회 문화인대회 173 / 제2회 문화인자선대회 174 / 제3회 문화인대회 185 / 제4회 문화인대회 198 / 서울시실업연식대회 211 / 제1회 최고회의의장배쟁탈 3군대항대회 218 / 제2회 실업초청 236 / 여자연식경기 246 / 서울시여대춘계연맹전 252 / 제4회 여대연식연맹전 276

제3장 학생야구의 창설과 재건

■ 제1절 전국대학선수권대회

제1회 대회(기전) 96 / 제2회 대회(약대) 105 / 제3회 대회(성대) 113 / 제4회 대회(상대) 120 / 제5~8회 대회(6.25전쟁) / 제9회 대회(성대) 133 / 제10회 대회(성대) 145 / 제11회 대회(중지) 154 / 제12회 대회(성대) 163 / 제13회 대회(성대) 171 / 제14회 중지 / 제15회(동아) 192 / 제16회 대회(연대) 201 / 제17회 대회(성대) 218 / 제18회 대회(성대) 226 / 제19회 대회(연대) 247 / 제20~30회 대회(중지) / 제31회 대회(한대) 407 / 제32회 대회(연대) 419 / 제33회 대회(한대) 435 / 제34회 대회(동아) 451

■ 제2절 서울시대학연맹전

조선학생야구연맹 창립 기념 춘계연맹전(약전) 94 / 추계(한대) 100 / 춘계(한대) 102 / 추계(3팀 동률) 107 / 춘계(성대) 109 / 춘계대학(성대) 109 / 추계대학(성대) 115 / 춘계대학(성대) 116 / 추계(연대) 122 / 춘계(성대) 139 / 추계(상대) 146 / 추계(성대) 148 / 춘계(성대) 157

■ 제3절 고교(중등) 연맹전

조선학생야구연맹 창립 기념 춘계연맹전(휘문) 94 / 추계(경남) 100 / 춘계소년(광신상) 123 / 춘계고교(경기) 139 / 선린상고 최운식(崔雲植) 첫 빈볼 사망 140 / 고 최운식선수 추도대회 141 / 서울시4고교(경기) 142 / 추계고교(경동) 146 / 추계고교(중앙) 148 / 춘계고교(경북) 157 / 춘계고교(중지) 164 / 추계고교(중앙) 172 / 춘계고교(경동) 175 / 추계고교(경기공) 186 / 춘계고교(경동) 188

■ 제4절 청룡기쟁탈 전국중등(고교)선수권대회

제1회 대회(부산상) 98 / 연속 탈삼진 신기록 98 / 광복후 첫 노히트노런 기록 99 / 첫 라디오실황 중계 방송 99 / 제2회 대회(경남) 102 / 제3회 대회(경남) 110, 서울예선(경기) 109 / 제4회 대회(광주서), 서울예선(휘문) 118 / 제5회 대회(대구상) 124 / 제6~7회 대회(6.25전쟁) / 제8회 대회(인천) 128, 서울예선 127 / 제9회 대회(인천), 서울예선 130 / 제10회 대회(동산) 138, 서울예선 137 / 제11회 대회(동산) 149 / 신인식, 노히트노런 149 / 12회 대회(동산 3연패) 158 / 제13회 대회(경기공), 서울예선(경기공), 고교 첫 퍼펙트 게임 164 / 제14회 대회(동산), 서울예선 177 / 경기공고 어지홍(魚之洪) 감독 제명 178 / 고순선(高順先), 노히트노런 178 / 제15회 대회(경동) 191, 부산예선 190, 서울예선 190 / 제16회 대회(성동) 201 / 제17회 대회(부산) 211 / 서울예선 210 / 제18회 대회(부산공) 226 / 서울예선 225 / 제19회 대회(부산상) 240 / 서울예선 239 / 제20회 대회(동대문상) 253 / 서울예선 252 / 제21회 대회(동산) 266 / 서울예선 265 / 제22회 대회(경북) 276 / 서울예선 276 / 제23회 대회(경북) 287 / 서울예선 286 / 제24회 대회(선린상) 301 / 서울예선 300 / 제25회 대회(대구상) 313 / 서울예선 312 / 제26회 대회(경북) 328 / 제27회 대회(중앙) 339 / 제28회 대회(경남) 353 / 제29회 대회(경북) 368 / 제30회 대회(경북) 382, 이길환 퍼펙트 게임 381 / 박인중 노히트노런 381 / 제31회 대회(경남) 398 / 제32회 대회(대구상) 414 / 제33회 대회(부산) 426 / 제34회 대회(부산) 445

■ 제5절 황금사자기쟁탈 전국지구대표·지구별초청중등(고교)쟁패전

제1회 쟁패전(경남) 105 / 야구규칙서 발간 105 / 제2회 쟁패전(경남) 114 / 제3회 쟁패전(경남 3연패) 121 / 제4~7회 쟁패전(6.25전쟁) / 제8회 쟁패전(인천) 134, 서울예선 132 / 제9회 쟁패전(경남) 145, 서울예선 144 / 서울운동장 야구장 개수 공사 156 / 제10회 쟁패전(중지) 156, 서울예선 155 / 제11회 쟁패

전(동산) 161 / 제12회 쟁패전(경기공) 171, 서울예선(경기공) 169 / 제13회 쟁패전(경동) 183 / 이선덕(李善德), 노히트노런 183 / 제14회 쟁패전(경동) 196, 서울예선 196 / 제15회 쟁패전(성동) 205 / 제16회 쟁패전(경기공) 217 / 제17회 쟁패전(선린상) 232 / 제18회 쟁패전(성남) 246, 서울예선 245 / 제19회 쟁패전(중앙) 260 / 제20회 쟁패전(선린상) 270 / 제21회 쟁패전(경남) 281, 서울예선 280, 한장철 퍼펙트게임 280 / 제22회 쟁패전(경북) 295, 서울예선 294 / 제23회 쟁패전(선린상) 307, 서울예선 306 / 제24회 쟁패전(성남) 320, 고교 최장 27회 연장전 320, 노길상 노히트노런 320 / 제25회 쟁패전(경북) 333 / 제26회 쟁패전(군산상) 341 / 제27회 쟁패전(대구상) 359, 유종겸 노히트노런 354 / 제28회 쟁패전(경남) 369 / 제29회 쟁패전(부산상) 383, 이진우 한 경기 최다 22탈삼진 383 / 제30회 쟁패전(신일) 400 / 제31회 쟁패전(광주상) 414 / 제32회 쟁패전(신일) 429 / 제33회 쟁패전(경북) 455

■ 제6절 쌍룡기·화랑기쟁탈 전국중등(고교)대회

제1회 쌍룡기 대회(경남) 120 / 제2~4회(6.25전쟁) / 제5회 대회(인천) 126 / 제6회 대회(경남) 132 / 제7회 대회(인천) 141 / 제8회 대회(동산) 153 / 제9회 대회(경북) 158 / 제10회 대회(경남) 166 / 제11회 대회(중지) / 제12회 대회(경동) 193 / 제13회 대회(동산) 203 / 최관수 노히트노런 203 / 제14회 대회(부산) 213 / 제15회 대회(부산) 228 / 제16회 대회(동대문) 241, 방한경 노히트노런 241 / 제17회 대회(부산) 255 / 제18회 대회(부산) 268 / 제19회 대회(대구상) 278 / 제20회 대회(경남) 289 / 제21회 대회(선린상) 303 / 제22회 대회(경북) 316 / 제23회 대회(경북) 330 / 제24회 대회(경북 쌍룡기 보관) 341 / 제25회 대회(중지), 권영호 퍼펙트게임 수립 355 / 제26회 대회(화랑기 부상상) 370, 임호균 노히트노런 371 / 제27회 대회(경남상) 384 / 제28회 대회(부산상) 401 / 제29회 대회(세광) 416 / 제30회 대회(부산) 430 / 제31회 대회(부산) 449

■ 제7절 인천4도시초청고교대회

제1회 대회(대구상) 131 / 제2회 대회(인천) 144 / 제3회 대회(동산) 155 / 제4회 대회(동산) 162 / 제5회 대회(인천) 171 / 제6회 대회(경동) 184 / 제7회 대회(경동) 197 / 제8회 대회(동산) 206 / 제12회 대회(경남) 250 / 제13회 대회(경남) 263 / 제14회 대회(인천) 274 / 제15회 대회(경북) 284 / 제16회 대회(성남) 298 / 제17회 대회(성남) 310

■ 제8절 전국4도시초청고교대회

제1회 대회(인천) 164 / 제2회 대회(동산) 178 / 제3회 대회(경동) 192 / 제6회 대회(부산공) 225 / 제8회 대회(부산) 254 / 제9회 대회(대구상) 267 / 제10회 대회(대구상) 276 / 제11회 대회(경북고) 286 / 제12회 대회(경북) 300 / 제14회 대회(대구상) 325 / 제15~16회 대회(중지) / 제17회 대회(중앙) 364 / 제18회 대회(부산) 382 / 제19회 대회(경남고) 397 / 제20회 대회(부산) 410

■ 제9절 문교부장관기쟁탈 전국4도시고교대회

제1회 대회(대구상) 200 / 제2회 대회(경기공) 210 / 제3회 대회(대구상) 224 / 제4회 대회(성남) 237 / 제5회 대회(대구상) 253 / 제6회 대회(동산) 264 / 제7회 대회(성남) 275 / 제8회 대회(경북) 287 / 제9회 대회(성남) 300 / 제10회 대회(경북) 312 / 제11회 대회(경북) 329 / 제12회 대회(대구상) 340 / 제13회 대회(대건) 352 / 제14회 대회(대건) 366 / 제15회 대회(대건) 379, 오태섭 노히트노런 379 / 제16회 대회(경북) 395 / 제17회 대회(부산) 411

■ 제10절 국회의장배쟁탈 전국6도시고교대회

제1회 왕자전(성남) 271 / 제2회 왕자전(미상) / 제3회 대회(대구상) 295 / 제4회 대회(경북, 중앙) 306 / 제5회 대회(경북) 322 / 제6회 대회(배문) 333 / 제7회 대회(군산상) 345 / 제8회 대회(대건) 360 / 제9회 대회(경북) 375, 임호균 노히트노런 375 / 제10회 대회(경남) 391 / 제11회 대회(경북) 404

■ 제11절 그 밖의 고교대회

제1회 문교부장관배(동산) 151 / 대구·부산교환경기(대구상) 278 / 제1회 4도시초청(경남) 280 / 제2회 6도시초청(경북) 288 / 제1회 우수고교(경북) 346 / 제2회 우수고교(경북) 361 / 제3회 우수고교(경북) 374 / 제4회 우수고교(경남) 387 / 최동원 노히트노런 388 / 제5회 우수고교(대구상) 406 / 제1회 대붕기(배재)

■제12절 이영민 타격상과 수상자들

이영민 부회장 피살 131 / 고 이영민추도대회 134 / 이영민 타격상 제정 165 / 제1회 김동주(金東柱) 수상 174 / 제2회 백인천(白仁天) 수상 187 / 제3회 최관수(崔寬洙) 수상 199 / 제4회 조정일(趙正一) 수상 208 / 제5회 정찬성(鄭燦聖) 수상 222 / 제6회 이철화(李喆華) 수상 235 / 제7회 김영생(金榮生) 수상 249 / 제8회 이광환(李廣煥) 수상 262 / 제9회 박용해(朴龍海) 수상 273 / 제10회 오금복(吳今福) 수상 283 / 제11회 김영신(金永信)수상 296 / 제12회 정장헌(鄭長憲) 수상 309 / 제13회 신중국(辛重國) 수상 323 / 제14회 정현발(鄭鉉發) 수상 335 / 제15회 정순명(鄭淳明) 수상 345 / 제16회 김일권(金一權) 수상 363 / 제17회 박명선(朴明善) 수상 376 / 제18회 이효헌(李孝憲) 수상 393 / 제19회 임정면(林禎勉) 수상 409 / 제20회 이만수(李萬洙) 수상 421 / 제21회 김남수(金男洙) 수상 436 / 제22회 김이수(金利秀) 수상 458

제4장 중학및 국민학교 야구

■제1절 대통령친서우승기쟁탈 전국중학선수권대회

제1회 대회(대신) 131 / 제2회 대회(경남) 142 / 제3회 대회(개성), 중학 최장연장전 32이닝 완투 신기록 151 / 제4회 대회(대신) 161 / 제5회 대회(경동) 166 / 제6회 대회(경주) 179 / 제7회 대회(동인천) 192 / 제9회 대회(동대문) 216 / 제10회 대회(경상) 228 / 제11회 대회(경상) 246, 한장철 퍼펙트게임 246 / 제12회 대회(대구) 260 / 제13회 대회(대구) 269 / 제14회 대회(경북) 280 / 제15~16회 대회(미상) / 제17회 대회(대건) 321 / 제18회 대회(경상) 334 / 제19회 대회(선린) 346 / 제20회 대회(동성) 356 / 제21회 대회(선린) 373 / 제22회 대회(동성) 386 / 제23회 대회(선린) 399 / 제24회 대회(청주) 417 / 제25회 대회(충남) 426 / 제26회 대회(경상) 445

■제2절 서울시중학연맹전

54 추계(경기) 132 / 55 춘계(경동) 137 / 추계(광희) 143 / 56 춘계(선린) 149 / 57~58 춘·추계(미상) / 59 춘계(경동) 176 / 추계(청량) 187 / 60 춘계(중지) / 추계(청량) 197 / 61 춘계(선린) 200 / 추계(미상) 207 / 62 춘계(청운) 210 / 추계(배문) 219 / 63년 춘계(배문) 223 / 추계(선린) 231 / 64 춘계(배문) 237 / 추계(미상) / 65 춘계(배문) 250 / 추계(미상) / 66 춘계(성남) 264 / 추계(미상) / 72 춘계(미상) 335 / 추계(미상) 346 / 73 춘계(동대문, 선린) 348 / 추계(선린) 362 / 74 춘계(신일) 364 / 추계(배문) 376 / 75 춘계(미상) 377 / 추계(선린) 392 / 76 춘계(미상) 393 / 추계(선린) 407

■제3절 문교부장관기쟁탈 전국중학초청대회

제1회 대회(대신) 169 / 제2~4회 대회(미상) / 제5회 대회(배문) 212 / 제6회 대회(배문) 225 / 제7회 대회(배문) 242 / 서울예선(동대문) 239 / 제8회 대회(배문) 253 / 제9회 대회(동성) 268 / 제10회 대회(대신) 282 / 제11회 대회(경북) 288 / 제12회 대회(선린) 304 / 제13회 대회(대성, 대건) 314 / 제14회 대회(경상) 331 / 제15회 대회(선린, 경상) 344 / 제16회 대회(선린) 357 / 제17회 대회(대구) 374 / 제18회 대회(대신) 391 / 제19회 대회(춘천) 404 / 제20회 대회(무효) 415 / 제21회 대회(한밭) 429 / 제22회 대회(선린) 446, 이상훈 노히트노런 447, 배시혁 노히트노런 447

■제4절 그 밖의 중학대회

제2회 서울시선수권(경동) 151 / 제3회 서울시선수권(경동) 161 / 제5회 서울시선수권(경동) 179 / 제8회 서울시선수권(경동) 202 / 제9회 서울시선수권(배문) 212 / 8.15 경축(동대문) 229 / 제11회 서울시선수권(배문) 254 / 8.15경축대회(선린) 269 / 제1회 김세영 회장기(동성) 278 / 제2회 김세영 회장기(상인천) 290 / 제3회 김세영 회장기(경북) 301 / 제16회 중학선수권 서울예선(장충) 302 / 제1회 조서희기(대성) 312, 이동수 퍼펙트게임 312 / 제3~4회 조서희기(미상) / 제4회 조서희기(대구) 351

■제5절 국민학교대회

48년 제1회소년선수권(광희) 104 / 제1회 전국선발(부산사범) 112 / 59 동도중개교기념(금양) 187 / 60

동도중개교기념(서강) 199 / 64 제1회 재향군인회장기(서림) 239, 65 제2회 재향군인회장기(서림) 251 / 66 제3회 재향군인회장기(서대전) 264 / 69 연맹창립기념(미상) 306 / 71 제2회 조서희기(신흥) 327 / 제1회 회장기(이문) 334 / 한국국민학교야구연맹 발족 335 / 72 제3회 조서희기(신흥) 338 / 제2회 회장기(사대·대연) 343 / 73 제4회 조서희기(창영) 351 / 제3회 회장기(대연) 354 / 74 제4회 회장기(봉천) 373 / 75 제5회 회장기(군산) 386 / 76 제6회 회장기(군산남) 399 / 77 제7회 회장기(군산남) 417 / 78 제8회 회장기(중지) / 79 제9회 회장기(중앙) 442 / 제1회 전국선수권(대연) 452

제5장 해외교류와 재일교포모국방문대회

■ 제1절 아시아선수권대회

한국 최초 해외 원정경기 136 / 제1회 대회(3위) 136 / 제2회 대회 선수선발전 144 / 제2회 대회 파견 환송 대회 147 / 제2회 대회 대표선수단 결단식 147 / 아시아연맹 부회장에 이홍직 회장 147 / 제2회 대회(3위) 147 / 제3회 대회 반납 158 / 제3회 대회(준우승) 178 / 제4회 대회(준우승) 209 / 제5회 대회(첫 우승) 230 / 제6회 대회(준우승) 262 / 제7회 대회(준우승) 279 / 제8회 대회(4위) 308 / 제9회 대회(우승) 332 / 제10회 대회(준우승) 349 / 제11회 대회(우승) 383 / 제12회 대회(중지)

■ 제2절 재일교포모국방문대회

이팔룡(李八龍), 일본 프로야구 첫 퍼펙트게임 수립 125 / 가네다(金田正一) 노히트노런 125 / 제1회 교포학생(9승3패) 151 / 제2회 교포학생(13승2무1패) 159 / 제3회 교포학생(12승1무1패) 166 / 제1회 교포성인(4승2무3패) 175 / 제4회 교포학생(13승1무2패) 180 / 제2회 교포성인(7승3무2패) 188 / 제5회 교포학생(13승2무1패) 193 / 제6회 교포학생(9승2무5패) 203 / 신평길(申平吉), 노히트노런 205 / 제1회 교포중학(미상) 214 / 제7회 교포학생(9승2무5패) 215 / 제3차 교포성인(9승3무4패) 227 / 제8회 교포학생(13승3무1패) 228 / 제9회 교포학생(12승2무2패) 242 / 제10회 교포학생(10승3무4패) 255 / 제11회 교포학생(4승7무5패) 290 / 제12회 교포학생(11승2무3패) 303 / 제13회 교포학생(6승2무6패) 317

■ 제3절 해외야구 초청·원정경기

필리핀야구단초청경기 125 / 자유중국원정경기 파견 대표선수선발전 130 / 자유중국원정야구단 대표선수 최종 선발 131 / 자유중국초청 한·중친선대회 140 / 사우스 캘리포니아대 내한 142 / 오하이오주립대친선 경기 151 /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초청경기 172 / 이승만 대통령 첫 시구 172 / 육군야구단 필리핀원정경기 173 / 미국소년야구연맹 유니폼 기증 175 / 필리핀야구단 초청경기 178 / 미국소년야구단 부에나파크 올스타 내한경기 183 /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방한 220 / 전미대학선발 초청 248 / 필리핀 칸루방 초청 300 / 미국대학선발 빅토리 초청 303 / 미국대학 올스타 초청 384 / 어슬레틱스 메이스 리 초청 401 / 미대학선발 초청 한·미대학선수권 430 / 자유중국 합작금고 초청 443 / 미선교사절단 빅토리 초청 446

한국야구사 연표 차례

제3부 한국야구 전성시대(1960~1979년)

제1장 실업야구

■ 제1절 대한야구협회와 대한연식야구협회

60년 야협 대의원대회(회장 이홍직) 187 / 야협 임원 개선(회장 서민호 선출) 191 / 서울시교연맹 발족 193 / 61년 야협 대의원대회(서민호 회장 재선임) 199 / 야협 사무실 이전 200 / 서민호 회장 공직 박탈 201 / 임원 개선(회장 최두선 선출, 취임 거부) 202 / 연협 임원 개선(회장 이호 선임) 203 / 아시아야구연맹 총회 205 / 야협 새회장에 선우인서 207 / 야협 규약 개정 208 / 오윤환 국제야구연맹 위원 피선 209 / 백인천 일본 프로야구 진출 209 / 62년 배문중, 농협 대한민국 체육상 우수단체상 수상 209 / 야협 전국대의원대회(선우인서 회

장 재신임) 221 / 63년 연협 대의원 총회(회장 김세영 선임) 222 / 64년 서울시고교연맹 대의원 총회 234 / 야협 대의원대회(회장 전의용 선임) 235, 김응룡 대한민국 체육상 최우수선수상 수상 235 / 연협 대의원 총회(회장 이경구 선임) 236 / 서울시여대연식연맹 결성 239 / 연협 대의원총회(회장 김세영 선임) 249 / 65년 전국고교연맹 창립 261 / 66년 야협 대의원대회(회장 김종락 선임) 262 / 연협 상임이사 개선(전무이사 임광정 선임) 263 / 세계야구연맹 결성 269 / 이원국 도쿄 오리온스 입단 267 / 야협 창립 20주년 기념(33명 표창) 272 / 야협 대의원대회 272 / 67년 야협 집행부 선임(회장 김종락) 273 / 연협 임시 대의원총회(김세영 회장 재선임) 273 / 68년 연협 임시 대의원 총회(김세영 회장 유임) 283 / 69년 연협 심판장 임광정 선임 296 / 야협 집행부 총사퇴 309 / 야협 대의원대회(김종락 회장 유임) 309 / 한국리틀리그 창설 319 / 70년 야협과 연협 통합 의결 323 / 71년 대한고교연맹 발족(회장 조서희) 323 / 통합 야협 출범(회장 김종락, 부회장 임광정, 최인철, 오탁근) 323 / 72년 국민학교연맹 발족 335 / 73 김영조 '野球教室' 발간 356, 일본고교연맹사이키(佐伯)회장에 국민훈장 358 / 세계연맹 가입 363 / 74년 한국직업야구 위원회 결성(위원장 홍윤희) 376 / 75년 대한중고연맹 신입행부 구성(회장 조선희) 376 한국실업연맹 집행부 유임 376 / 77년 야협 대의원대회(회장 김종락) 409 / 78년 이선희 대한민국 체육상 수상 422 / 79년 야협 통합 새집행부 구성(회장 김종락) 436 / 야협 창립 30주년 기념(86명 표창) 440 / 박철순, 미프로야구 스카우트 제의 457

■ 제3절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서울실업야구연맹 발기인 총회 182 / 1차리그(농은) 185 / 2차리그(농은) 186 / 춘계(한운) 190 / 추계(농은) 196 / 춘계(농은) 200 / 추계(한운) / 206 / 춘계(미창) 210 / 추계(농협) 218 / 한국전력 창단 222 / 한일은행 창단 222 / 상업은행 창단 222 / 제일은행 창단 222 / 해운공사 창단 223 / 춘계(기은) 224 / 추계(상은) 231, 유백만 노히트노런 233, 김성근 노히트노런 233 / 한일은행야구단 해체 234 / 장기 페넌트 레이스 도입 235 / 크라운맥주 창단 238 / 연맹전(기은) 238, 한 경기 최소 투수(69) 신기록 238, 김병기 노히트노런 241, 유영수 노히트노런 241, 고순선 실업야구 첫 퍼펙트게임 246, 김영덕 실업야구 퍼펙트게임 246 / 해운공사 해체 249 / 연맹전(크라운) 251, 최관수 노히트노런 252, 김윤겸 노히트노런 253, 김영덕 노히트노런 257, 박현식 실업야구 첫 100홈런 258 / 연맹전(제일은) 263, 서울운동장 야구장 나이더 점등 정병섭 첫 홈런 270 / 연맹전(한은) 275, 김영덕 노히트노런 280 / 연맹전(육군) 285, 김영덕 노히트노런 295 / 연맹전(해병) 299, 실업야구 첫 감독 퇴장 300, 유백만 노히트노런 301, 김윤겸 노히트노런 306, 유백만 노히트노런 329 / 연맹전(한은) 311, 한국야구 첫 3연타석 홈런 312 / 연맹전(한은) 325, 김호중 노히트노런 328 / 연맹전(해병) 337, 백창현 퍼펙트게임 수립 338, 한광홍 노히트노런 343 / 춘계(육군) 353, 조흥기 노히트노런 353 / 하계(한은) 354 / 추계(한전) 358, 공군야구단 창단 362 / 춘계(육군) 364, 주성노 노히트노런 365 / 하계(육군, 기은) 368 / 추계(한은) 367 / 춘계(한전) 378, 롯데 창단 감독에 김동엽 내정 379 / 추계(상은) 390 / 춘계1차(한은) 394 / 춘계2차(롯데) 397, 한국화장품야구단 창단 403 / 추계(롯데) 406 / 전기(한화) 410, 실업야구 풀 시즌제 환원 409, 코리언시리즈제 채택 409, 이선희 노히트노런 412 / 후기(육군) 414 / 코리언 시리즈(육군) 420 / 전기(경리) 423, 계형철 노히트노런 424, 김우열 6경기 연속 홈런 신기록 425 / 후기(롯데) 427, 이선희 노히트노런 428 / 코리언 시리즈(경리) 435 / 춘계(롯데, 경리) 439 / 지방시리즈(성무) 442, 이원녕 실업야구 31경기 연속 안타 443 / 회장기(성무) 444 / 하계(상은) 446, 성무야구단 교통사고 451 / 추계(한전) 451 / 코리언 시리즈(롯데) 453

■ 제4절 실업야구 올스타전

제1회(실업 3승) 245 / 제2회(금융 2승1패) 257 / 제3회(금융 2승1패) 266 / 제4회(실업 3승) 281 / 제5회(금융 3승2패) 293 / 제6회(금융 2승1패) 305, 국산 야구공 실업야구 올스타전 첫 사용 305 / 제7회(금융 2승1무) 315 / 제8회(실업 2승1패) 329 / 제9회(금융 3승) 340 / 제10회(실업 2승1패) 355, 지명타자제 시범 경기 356 / 제11회(금융 4승1패) 368, 지명타자 정식 채택 368 / 제12회(금융 2승1패) 388 / 제13회(실업 2승1패) 394 / 제14회(실업 2승1패) 415 / 제15회(백군 3승) 428 / 제16회(라이온스 2승1패) 454

제2장 학생야구의 전성시대

■ 제1절 서울시고교연맹전

60 창립 기념(성동) 192 / 추계(경동) 197 / 61 춘계(휘문) 200 / 추계(중앙) 207 / 62년 춘계(선린, 배문) 209

/ 창립기념(선린) 213 / 추계(배문, 경기) 219 / 63년 춘계(선린, 휘문) 223 / 창립기념(성남) 226 / 추계(선린) 231, 이영선 노히트노런 232 / 64 춘계(배문) 236 / 창립기념(성남) 248, 이원국 노히트노런 248, 김호 노히트노런 248, 김윤겸 노히트노런 248 / 65 춘계(동대문) 249 / 추계(성남) 260 / 66 춘계(성남) 264 / 창립 기념(배명) 272 / 67 춘계(광신) 273 / 추계(미상) / 68 춘계(선린) 283, 윤동균 노히트노런 284 / 창립기념(성남) 289 / 69 춘계(성남) 297 / 추계(동대문) 307 / 70 춘계(선린) 309 / 창립기념(선린) 315, 임영식 노히트노런 315 / 추계(동대문, 성남) 322 / 71 춘계(성남) 323, 정순명 고교야구 첫 21탈삼진 324, 양한철 노히트노런 330 / 추계(배명) 334, 김정무 노히트노런 334 / 72 춘계(충암) 335, 송범섭 퍼펙트게임 수립 336 / 추계(배명) 346, 이창호 퍼펙트게임 수립 347, 이창호 노히트노런 347 / 73 춘계(휘문) 348, 황기선 노히트노런 348, 김정남 퍼펙트게임 수립 348, 이자원 노히트노런 348, 윤병석 노히트노런 362, 이길환 노히트노런 362 / 추계(대광) 362, 유종겸 노히트노런 363, 이길환 퍼펙트게임 수립 363, 이진우 노히트노런 364, 박창선 노히트노런 364 / 74 춘계(중앙) 364 / 추계(배문) 376 / 75 춘계(보성) 377 / 추계(유한) 392, 황기선 퍼펙트게임 수립 393 / 76춘계(신일) 393 / 추계(신일) 407, 김충렬 노히트노런 408 / 77 춘계(미상) 추계(신일) 419 / 78 춘계(신일) 421 / 추계(신일) 436 / 79 춘계(신일) 437, 이석승 노히트노런 438 / 추계(배재) 457

■ 제2절 대통령배쟁탈 전국고교대회

1회 대회(경북) 274, 김영찬 퍼펙트게임 273 / 제2회 대회(경북) 285 / 제3회 대회(선린상) 299 / 제4회 대회(경북) 311 / 제5회 대회(경북) 326, 이창희 노히트노런 327 / 제6회 대회(경북 3연패) 337 / 제7회 대회(대구상) 349 / 제8회 대회(경북) 366 / 제9회 대회(광주일) 380, 강만식 퍼펙트게임 수립 376, 김윤환 고교야구 첫 3연타석 홈런 380 / 제10회 대회(군산상) 396 / 제11회 대회(공주) 412 / 제12회 대회(부산) 424 / 제13회 대회(선린상) 440

■ 제3절 봉황기쟁탈 전국고교대회

제1회 대회(경북) 331 / 제2회 대회(배명) 342, 강정일 노히트노런 343 / 제3회 대회(대구상) 357, 김한용 노히트노런 357 / 제4회 대회(대구상) 372 / 제5회 대회(경북) 385 / 제6회 대회(부산상) 401 / 제7회 대회(충암) 416 / 제8회 대회(서울) 431 / 제9회 대회(광주상) 450

■ 제4절 대통령기쟁탈 전국중학대회

제1회 대회(경북, 경상) 326 / 제2회 대회(경상) 338 / 제3회 대회(조대부) 350 / 제4회 대회(송의) 365, 구명중 노히트노런 366 / 제5회 대회(송의) 379 / 제6회 대회(전남) 395 / 중학 70이닝 경기 채택 409, 제7회 대회(청주) 412 / 제8회 대회(월성) 424 / 제9회 대회(경상) 442

■ 제5절 전국대학연맹전

61 춘계(연세, 성대) 201 / 추계(동아) 206 / 62 춘계(성대) 212 / 추계(동아) 220 / 63 춘계(동아) 223 / 추계(연대) 232 / 64 춘계(성대) 237 / 추계(성대) 248 / 65 춘계(성대) 252 / 추계(중지) / 66 춘계(성대) 265 / 추계(연대) 270 / 67 춘계(성대) 273 / 추계(중지) / 68 1차(고대) 284 / 2차(고대) 287 / 69 춘계(경희) 297 / 추계(중지) 306 / 70 춘계(한대) 310, 나유찬 노히트노런 314 / 추계(성대) 321 / 71 1차(한대) 328, 정기혁 대학야구 첫 퍼펙트게임 328 / 2차(고대) 332, 김영목 노히트노런 332, 건국대야구부 창설 334 / 72 1차(연대) 339 / 2차(한대) 344 / 73 춘계(건대, 동아) 350, 김홍곤 노히트노런 351, 김봉연 노히트노런 351 / 추계(한대) 359, 김봉연 대학야구 첫 3연타석 홈런 360 / 74 춘계(고대) 365 / 추계(한대) 373, 정성만 노히트노런 374 / 75 춘계(영남) 378, 석주옥 노히트노런 379 / 추계(연대) 387 / 76 춘계(영남) 394 / 추계(한대) 405 / 77 춘계(연대) 411, 천창호 노히트노런 411 / 추계(영남) 418 / 78 춘계(고대) 422, 박해중 대학야구 3연타석 홈런 423 / 추계(고대) 433 / 79 원광대 야구부 창설 437 / 79 춘계(고대) 441 / 추계(한대) 448, 스피드건 서울운동장에 첫 등장 450

■ 제6절 대통령기쟁탈 전국대학초청대회

제1회 대회(성균관) 258 / 제2~3회 대회(중지) / 제4회 대회(경희) 321 / 제5회 대회(한양) 327 / 제6회 대회(경희) 345 / 제7회 대회(고려) 348 / 제8회 대회(건국) 374 / 제9회 대회(한양) 389 / 제10회 대회(연세) 398 / 제11회 대회(연세) 413 / 제12회 대회(연세) 426 / 제13회 대회(한양) 438, 대학 지명타자 첫 도입

438 / 전국대학초청대회(건국) 390 / 전국대학초청대회(연세) 410 / 제1회 통일기(연세) 422 / 제2회 통일기(연세) 452 / 부산시장기(한양) 427 / 제1회 부산시장기(동아) 440

제3장 한국야구의 약진

■제1절 해외 원정경기

청량중 대만 첫 원정 187 / 경동고 일본 첫 원정 199 / 서울시고교선발 일본 원정 221 / 중학선발 일본 원정 233 / 영남지구고교선발 일본 원정 234 / 해운공사 대만 원정 234 / 상업은행 필리핀 첫 원정 248 / 상업은행 자유중국 첫 원정 248 / 대학선발 첫 일본 원정 261 / 경기지구고교선발 일본 원정 261 / 서울시고교선발 일본 원정 278 / 서울시대학선발 일본 원정 282 / 부산시고교선발 일본 원정 292 / 실업선발 일본 원정 296 / 경북고교선발 일본 원정 308 / 대구중 일본 원정 318 / 한국고교선발 일본 원정 335 / 한국고교선발 일본 원정 347 / 대학선발 일본 원정 363 / 한국고교선발 일본 원정 372 / 한국고교선발 일본 원정 402 / 한국대학선발 일본 원정 403 / 한국화장품 일본 원정 418 / 슈퍼 월드컵대회 첫 우승 420 / 한국대표 호주원정경기 457 / 한국고교선발 대만원정경기 458

■제2절 세계및 국제대회 출전

제1회 하와이 세계선수권대회 269 / 제3회 세계리틀 극동예선 342 / 제4회 세계리틀 극동예선 준우승 356 / 제5회 세계리틀 극동예선 / 370 / 제2회 대륙간컵 세계대회 385 / 제6회 세계리틀 극동예선 386 / 제9회 네덜란드 할렘 국제대회 준우승 399 / 제7회 세계리틀 극동예선 401 / 한·미·니카라과친선대회 405 / 대만 국제실업대회 405 / 니카라과친선경기 408 / 제21회 세계선수권대회 408 / 제8회 세계리틀 극동예선 416 / 제9회 세계리틀 극동예선 431 / 제10회 네덜란드 할렘 국제대회 432 / 제25회 세계선수권대회 432 / 제10회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준우승 434 / 제2회 한·미대학선수권대회 444 / 미국 빅토리(VICTORY)내한 한·미친선대회 446 / 제2회 크라운배쟁탈 국제초청대회 447 / 한국실업선발 캐나다 원정경기 448 / 제10회 세계리틀극동예선 448

■제3절 일본 고교팀 초청 및 한·일고교대회

오사카(大阪)지구선발 217 / 야마구치(山口)현선발 229 / 지바(千葉)현선발 244 / 후쿠오카(福岡)선발 258 / 시마네(島根)현선발 279 / 미에(三重)현선발 292 / 제1회 대회(한국 1승1무1패) 318 / 제2회 대회(한국 3전 전패) 343 / 제3회 대회(한국 3승2패) 355, 일본고교연맹 사이키(佐伯) 회장에 국민훈장 수여 358 / 제4회 대회(한국 1무2패) 388 / 제5회 대회(한국 2승1패) 404 / 제6회 대회(한국 1승1무1패) 418 / 제7회 대회(한국 2승1패) 433 / 제8회 대회(한국 3전 전승) 454

■제4절 일본 대학및 사회인 팀 초청경기

신(新)미쓰비시(三菱)중공업 207 / 메이지(明治)대 211 / 도에이(東映)·고쿠데스(國鐵) 220 / 도요(東洋) 레이온 224 / 도에이(東映)·다이요(大洋) 233 / 여자연식 사론 파스 233 / 도에이(東映)·다이요(大洋) 239 / 게이오(慶應)대 240, 254 / 다이쇼와(大昭和)제지 251 / 후쿠오카(福岡)선발 258 / 혼다(本田)기연 264 / 와세다(早稻田)대 267, 277, 288 / 긴키(近畿)대 268, 289, 316, 342, 369, 400, 429 / 니혼(日本)대 272 / 도에이 주니치(中日) 282 / 규슈(九州)6대학선발 285, 336 / 야와타(八幡)제철 298 / 호세이(法政)대 301 / 가고시마(鹿兒島)현선발 305 / 네쓰가쿠(熱學) 306, 322 / 도에이(東映) 플라이어스 307 / 구라시키(倉敷) 레이온 310 / 주오(中央)대 313 / 가네후치(鐘淵)화학 319 / 롯데 오리온스 322 / 릿쿄(立教)대 330 / 고니시(小西)주조 337 / 산쿄(三協)정기 345 / 일본체육대 354 / 주쿄(中京)대 356 / 교토(京都)사회인선발 360 / 에어로 마스터(Aero Master) 361 / 한신(阪神)지역대선발 372 / 듀플로(Duplo) 377 / 프로핏 교포선발 391 / 도쿄(東京)올스타 399, 432 / 아오야마(青山)학원대 438 / 간사이(關西)사회인선발 451 / 미쓰비시(三菱)중공업 456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1839.		<p>■더블데이 야구 창안 미국 뉴욕 쿠퍼스타운에서 애브너 더블데이(AbnerDoubleday)가 야구를 고안(미국 축의 주장)</p>
1845.		<p>■미국 최초 야구 팀 ‘니커보커’ 탄생 뉴욕 유니온뱅크 은행원 알렉산더 카트 라이트가 게임 규칙을 창안, 니커보커(Knickerbokers)라는 야구 팀을 창설. 미국 쿠퍼스 타운 ‘명예의 전당’에 ‘현대 야구의 아버지’ 라는 칭호로 헌액</p>
1846.		<p>■06.19 미국 최초 야구 경기 미국 뉴저지주 보호켄의 엘리지안 구장에서 벌어진 뉴욕 나인-니커보커스의 경기. 야구 규칙을 만든 알렉산더 카트라이트가 주심을 맡은 이 경기에서 뉴욕 나인이 12-1 승리.</p>
1869.		<p>■미국 최초 프로야구 팀 ‘해리 라이트’가 1866년 신시내티에서 1,200달러로 ‘레드 스타킹 클럽’ 이라는 야구팀을 창단, 1869년 프로야구 팀인 ‘신시내티 레드스타킹스’ 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 1870년 6월 14일 ‘뉴욕 애틀랜틱스’에 7-8로 패할 때까지 81승 1무로 연전 연승</p>
1871.		<p>■03.17 프로야구선수협의회 탄생 뉴욕 브로드웨이 13번가 ‘콜리에 카페’에 10명의 구단대표들이 모여 선수 보호 차원에서 선수협의회 결성</p>
1873.		<p>■일본 야구의 효시(嚆矢) 일본 메이지(明治) 5년 미국인 영어 교사 호레이스 윌슨(Horace Wilson)이 ‘가이세이(開成)학교(현 도쿄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야구 경기를 최초로 지도한데서 유래</p>
1876.		<p>■02.02 내셔널리그 창립 뉴욕 센트럴 호텔에서 ‘시카고 화이트 스타킹스’ 구단 대표 ‘윌리엄 헐버트’와 다른 구단 대표들이 내셔널리그 창립 발표</p>
1878.		<p>■일본 최초 야구팀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히로오카 히로시(平岡 熙)가 일본 최초 야구 팀인 니이바시(新橋) 어슬레틱 클럽(俱樂部) 창설</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1881.		<p>■아메리칸 어소시에이션리그 탄생 내셔널리그에서 축출 당한 시카고의 주도로 창설, 10년 뒤인 1891년 적자 누적으로 해체</p>
1894.		<p>■野球(야구)의 명칭 도쿄 제일고등중학교에서 감독겸 선수로 뛰던 주마 카노에(中馬 庚)가 'Ball in Field' 를 야구(yakyu)로 번역 사용한다해서 유래</p>
1895. 02.02	<p>■교육 칙서(勅書) 반포 고종(高宗)은 교육입국을 위해 덕육(德育), 지육(知育), 체육(體育)을 3대 강령으로 삼고, 체육활동을 통해 근육과 뼈대를 튼튼히 하여 건강 무병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강조,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체조 과목을 도입</p>	<p>■10.08 명성황후 시해 일본공사 미우라(三浦梧樓)의 주도로 낭인 20명이 경복궁에 침입, 명성왕후를 참혹하게 시해</p>
1896. 04.25	<p>■미국인 조선 최초 야구경기 오후 2시 30분 서대문 밖 모화관 근처 공터에서 한성(漢城)에 거주하는 미국인들과 미해병대원들이 야구경기 개최, 해병대 팀이 1점 차로 승리(독립신문 영문판 The Independent 보도)</p>	<p>■04.06 제1회 아테네올림픽대회 13개 국에서 10종목에 295명 출전(그리스)</p> <p>■04.07 독립신문 창간 서재필(徐載弼) 박사가 국배판 크기로 한글전용 3면, 영문전용 1면 등 4면을 격일간으로 주 3회 발행</p>
05.02	<p>■미해병대와 미국인 야구경기 오후 2시 훈련원에서 미해병대와 미국인 거주자들이 야구경기 개최, 미해병대가 6점 차로 승리</p>	<p>■05.02 조선 첫 근대 운동회 영어학교 영국인 교사 허치슨(Hutchison)이 동소문 밖 삼선평(三仙坪·현 삼선교 부근)에서 화류회(花柳會)를 개최한 게 효시</p>
05.09	<p>■미·영(美·英) 야구경기 토요일 오후 2시 한성에 거주하는 미국인들과 영국인들이 야구 경기를 개최, 미국인들이 4점 차로 승리</p>	
06.23	<p>■야구경기 첫 예고기사(記事) 독립신문 영문판 'The Independent' 가 화요일(6월 25일), 오후 3시 훈련원에서 미 해병대원들과 한성 거주 미국인들의 야구경기를 예고</p>	 <p>서재필 박사</p>
06.25	<p>■서재필 박사 선수로 첫 출전 서재필(Philip Jaisohn) 박사가 제이슨(Jaisohn)이라는 미국인 신분으로 미국인 팀 S.A.C(Seoul Athletic Club) 중견수로 출전, 해병대 팀(U.S.S. Yorktown)에 16-23으로 패배</p> <p>▲Seoul Athletic Club(16득점)=①Reynolds(투수 3득점) ②Harrison(2루수 2득점) ③Hulbert(포수 1득점) ④Allen(유격수 1득점) ⑤Belkapp(1루수 3득점) ⑥Jaisohn(중견수 3득점) ⑦Bell(우익수 1득점) ⑧Miller(3루수 2득점) ⑨Gifford(좌익수 1득점)</p> <p>▲U.S.S. Yorktown(23점)=①Lindsay(좌익수 1득점) ②Anthon(포수 2득점) ③Keene(1루수 3득점) ④Adams(2루수 3득점) ⑤Peterson(우익수 4득점) ⑥Feeney(3루수 3득점) ⑦Sharp(중견수 2득점) ⑧</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Garwood(유격수 2득점) ⑨Stevens(투수 3득점)	<p>■ 1897. 영국 수병 조선에 축구 첫 선 인천에 상륙한 영국 함선의 수병들이 궁내부 참리들과 어전 통역관 등에게 축구 경기를 선보임</p>
1899. 02.03	<p>■ 일본인 조선 최초 야구경기 인천에 있는 일본영어야학회(日本英語夜學會)에 다니던 후지야마 후지사(藤山 藤芳)가 2월 3일(음력) 일기장에 “3시 근무가 끝난 다음 4시경부터 나카야마(中山) 군을 불러내어 일연종(一蓮宗:인천 옛 신흥초교 옆의 절) 앞 광장에서 아카마쓰(赤松) 선생, 후지무라(藤村), 사토(佐藤) 씨, 히라이(平井) 선생, 나카야마 군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베이스 볼’이라는 서양식 공치기를 하고 5시경에 돌아와 목욕탕에 갔다”고 쓴 내용을 소개(仁高 100年史)</p>	<p>■ 1898.05.01 서재필 출국 갑신정변에 연루, 정부의 탄압을 받아 미국으로 출국. 윤치호(尹致昊)가 뒤를 이어 독립신문 주필 겸 실질적인 경영자로 취임</p> <p>■ 1898. 07.01 독립신문 매일 발행 격 일간에서 일간으로 변경하고 매일 발행</p>
1901. 09.	<p>■ 필립 질레트(Phillip L. Gillett), 내한 조선 YMCA 창설 책임자(실무 간사)로 선임되어 선교 활동과 회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내한</p>	<p>■ 1900. 아메리칸 리그 탄생 1892년 신문기자 출신인 ‘반 존슨’과 신시내티 레즈 감독인 ‘찰리 코미스키’가 새로운 ‘웨스턴 리그’를 발족, 1900년 아메리칸 리그로 개칭한 이후 현재에 이름</p>
1902. 여름	<p>■ 필립 질레트, 평양에서 캐치 볼 필립 질레트가 평양에서 열린 여름 하령회(夏令會·여름철 목회자들의 수련 및 휴가 모임)에 글러브와 공을 지참하고 참석, 숙소인 송실학교 기숙사에서 선교사 및 학생들과 캐치 볼</p>	<p>■ 1901.07.15 매튜슨 No Hit No Run 뉴욕 자이언츠 크리스 매튜슨이 세인트 루이스를 상대로 노히트 노런을 기록</p>
1903. 10.28	<p>■ 황성기독교청년회(YMCA) 창립 총회 필립 질레트를 정식으로 YMCA 총무에 임명, 11월 11일 태화관에 사무실을 정하고 체육실과 친교실을 겸한 강당을 설치한 뒤 회관 건립에 착수(1909년 12월 3일 고종 황제의 하사금과 외국인 단체들로부터 모금한 기금으로 회관 완공)</p>	<p>■ 1903.10.03 미국 월드시리즈 첫 선 아메리칸 리그의 우승 팀 ‘보스턴 아메리칸스(현 보스턴 레드삭스)’가 내셔널리그서 우승한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 도전, 9전 5선승제로 치른 첫 월드 시리즈에서 보스턴 아메리칸스가 5승 3패로 우승</p>
1904. 봄	<p>■ 필립 질레트, 조선 최초 야구 보급 필립 질레트가 야구장비를 도입해 청년운동의 일환으로 태화관(泰和館) 앞 마당에서 청년회원들인 허성(許城), 김연호(金璉鎬), 김종상(金鍾商), 박덕상(朴德相), 현동순(玄東淳), 현동진(玄東軫) 등에게 야구 룰과 장비 다루는 방법 등을 사사</p>	<p>■ 05.05 아메리칸리그 첫 퍼펙트 게임 보스턴 필그림스의 투수 사이 영(Cy Young)이 필라델피아 애슬레틱스를 상대로 사상 첫 퍼펙트게임(Perfect Game, 3-0) 수립</p>
09.23	<p>■ 미해병-선교사 야구경기 미국영사관을 경비하는 해병대원들과 선교사들이 동대문 옆 운동장에서 야구경기를 가져 미해병대 팀이 17-14로 승리 (The Korea Daily News)</p>	<p>■ 07.01 제3회 올림픽 대회 미국 세인트 루이스에서 21개 국, 12개 종목에 554명 참가</p>
1905. 03.	<p>■ 관립중학(경기고 전신) 야구 수업 개시 음력 2월 10일 교관(체육교사)으로 부임한 일본인 다카하시 토오루(高橋 亨)가 신체 단련의 한 방법으로 학생들인 강정식(姜貞植), 홍정록(洪正祿), 남궁벽(南宮璧), 김종상(金鍾商), 이형식(李亨植), 이희승(李熙承), 이영복(李永馥), 정구충(鄭求忠) 등에게 야구를 지도</p>	<p>■ 02.22 일본 독도(獨島) 강점 일제가 독도를 강점한 뒤 다케시마(竹島)로 명명</p> <p>■ 11.17 을사늑약 체결 일본이 강압적으로 ‘한일협상조약’을 체결하고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1906. 03.15	<p>■ 조선인 최초 야구경기 독어학교와 황성기독교청년회(YMCA)가 훈련원(현 중앙의료원 자리) 동마산(馬東山)에서 첫 야구 경기를 개최, 독어학교가 3점 차로 승리. 3월 17일 재경기에 서도 독어학교가 2점 차로 승리</p>	<p>■ 03.11 대한체육구락부 조직 현양운(玄暘運), 신봉휴(申鳳休), 한상우(韓相宇), 김기정(金基正) 등 30여 명이 발기, 축구를 중심으로 한 조선 최초 체육단체 결성</p>
04.07	<p>■ 일본어-영어학교 야구경기 서대문 밖 모화관 공터에서 일본어학교와 영어학교가 야구경기를 가져 영어학교가 2점 차로 승리</p>	
04.11	<p>■ YMCA 운동부 설치 황성기독교청년회가 정식으로 운동부를 설치한 뒤 허성, 김종상, 박덕상, 현동진 등을 사립학교에 파견해 야구를 보급</p>	<p>■ 04.22 조선 최초 자전거경기 권원식(權元植)과 일본인 요시카와(吉川)가 훈련원에서 첫 자전거(사이클) 경기를 개최</p>
1907.	<p>■ 휘문의숙(徽文義塾), 야구부 창설 김찬호(金贊鎬), 이선규(異宣圭), 현두섭(玄斗燮) 등이 주축이 되어 휘문의숙 야구부 창설, 황성YMCA와의 경기에서 연패 끝에 모처럼 이기자 황성(皇城)신문이 '휘승청패(徽勝靑敗·휘문이 황성기독교청년회를 이겼다)'라는 제호로 보도</p>	<p>■ 필립 질레트 농구 도입 황성기독교청년회(YMCA) 청년회원들에게 최초로 농구를 지도</p> <p>■ 07.23 조선 최초 농구 경기 사상 최초로 도쿄유학생 팀과 외국인연합팀이 태화관에서 농구 경기 개최</p>
1908. 08.19	<p>■ 한성고(현 경기고) 야구부 결성 요코지 스테지로(橫地 捨次郎)가 한성고 체육교사로 부임, 야구를 본격적으로 지도하는 한편 야구부를 만들어 각종 대교(對校) 경기에 출전</p> <p>■ 고종(高宗)황제 어장전(御場前) 시범경기 고종황제의 요청으로 선수들을 불러 어장전에서 야구 시범경기를 개최</p>	<p>■ 08.27 제4회 런던 올림픽대회 22개 국에서 20개 종목에 2,034명이 출전한 가운데 개최</p> <p>■ 10.02 아메리칸리그 퍼펙트게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에디 조스가 필라델피아 필리스를 상대로 아메리칸리그 사상 두번째 퍼펙트 게임(1-0) 수립</p>
1909. 07.21	<p>■ 제1차 도쿄유학생모국방문경기 유학생 야구단이 훈련원에서 선교사들과 혼성 팀을 구성한 황성 YMCA와 첫 경기, 19-9로 승리한 뒤 7월 24일 한성을 출발, 개성, 평양, 선천, 안악, 철산 등 서북지방을 순회하며 시범경기 개최 △유학생=단장 윤기현(尹冀鉉 좌익수) 및 유동수(柳東秀 투수), 옥정경(玉定景 포수), 김찬영(金贊泳 1루수), 변봉현(邊鳳現 2루수), 김일(金一 3루수), 이규정(李圭廷 유격수), 유용탁(柳容鐸 중견수), 민충기(閔忠基 우익수)</p>	<p>■ 12.03 YMCA회관 개관 서울 종로 2가에 사무실과 강당, 체육실을 갖춘 3층 벽돌 양옥인 YMCA 회관 준공</p>
10.	<p>■ YMCA 야구단 결성 도쿄유학생 모국방문야구단에 자극을 받아 YMCA가 야구 팀을 조직, 질레트가 야구와 축구단을 이끌고 개성에 원정</p>	<p>■ 10.26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사살 만주 하얼빈역에서 안중근(安重根) 의사가 조선통감부 초대 통감이었던 추밀원 원장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p>
1910.	<p>■ 조선 최초 야구 유니폼 착용 황성기독교청년회 야구단이 최초로 'YMCA' 로고가 새</p>	<p>■ 미 대통령 윌리엄 태프트 첫 시구 워싱턴 세너터스-필라델피아 어슬레틱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겨진 야구 유니폼 처음 착용	의 시즌 개막전에서 사상 최초로 윌리엄 태프트 대통령이 시구
02.05	■ YMCA-대한의원부속학교 대전 훈련원에서 대결, 대한의원부속학교가 1점 차로 승리	
02.16	■ 황성YMCA-한성고 첫 경기 음력 2월 16일(양력 3월 26일) 한성(漢城)고 요코지 스테지로 교사의 인솔로 훈련원에서 황성기독교청년회(YMCA)와 첫 경기, 다카하시(高橋 亨)가 심판을 본 이 경기에서 한성고가 6점 차로 승리 △한성고=강정식, 홍정록(이상 투수), 남궁벽(포수), 이희승(유격수), 이형식(3루수), 김종상(1루수), 이영복 등이 출전 △한성기청=현동순, 허성(이상 투수), 김수성(金壽成 포수), 김연호(1루수), 현홍운(玄鴻運 3루수), 현동진(중견수) 등이 출전	
05.14	■ 황성YMCA-한성고 2차전 황성기독교청년회(YMCA)와 한성고가 훈련원에서 재경기를 개최, 황성 기독교청년회가 6점 차이로 1차전의 패배를 설욕	■ 08.29 한-일병합 늑약 체결 일본의 강압으로 한일병합 늑약 체결로 조선총독부 설치, 10월 1일 제3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寺内正毅) 부임
1911. 03.	■ 경신학교 야구부 창설 미국인 교장 훈스(한국명:군예빈 君芮賓)가 김춘식(金春植 투수), 광경(郭景 포수), 차효련(車孝鍊 1루수), 이호반(李鎬伴 3루수), 안성운(安聲允 유격수) 등과 함께 야구부를 만든 뒤 직접 지도. 이어 배재학당, 보성학교, 오성학교, 중앙학교 등도 야구부 창설	■ 사이 영 통산 511승 달성 메이저리그 22년간 역대 최다승(511승 · 내셔널 리그 289승, 아메리칸 리그 222승·역대 1위)과 7,377이닝 투구 기록
04.	■ 평양 송실(崇實)학교 야구부 창설 안세환(安世桓) 교사 주도 아래 부원 34명으로 야구부 창설, 7월 7일 유니폼 정식 착용	■ 05.05 제5회 스톡홀름 올림픽대회 28개 국에서 14종목에 2,504명 출전
10.17	■ 중앙YMCA 지방 원정 경기 중앙기독교청년회(YMCA) 선수들 정식 유니폼을 입고 질레트의 인솔로 평양과 선천에 원정, 대성 및 송실학교와 친선경기 △YMCA=감독 김린(金麟) 및 현동순(투수), 허성(포수), 김연호(1루수), 김영환(金永煥 2루수), 현홍운(3루수), 현동진(중견수) 및 이정옥(李貞鈺), 낭승만(浪承翼), 송춘근(宋春根), 박영근(朴寧根), 김영제(金永濟), 김완혁(金完赫), 유용탁(柳容鐸), 김유(金鈕), 장용승(張容昇)	
11.07	■ 휘문의숙-중앙기청(YMCA) 야구경기 훈련원에서 현동순 심판 아래 경기를 가져 휘문의숙이 YMCA에 17-8로 승리	일본 원정을 앞두고 평양과 선천 원정 길에 오른 YMCA야구 및 축구 선수들. 앞 줄 오른쪽부터 질레트 이정옥, 낭승익, 송춘근, 박영근, 김영제, 김린 총무. 아래 앉아 있는 왼쪽이 김연호, 맨 뒤 오른쪽부터 현동순, 유용탁, 그 앞 허성, 그 뒤부터 김영환 한 사람 건너 현동진, 현홍운, 그 앞에 김유, 그 뒤가 장용승.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1912.	<p>■ 대구 계성(啓聖)학교 야구부 창설 1910년 송실학교에서 야구를 익힌 김태술(金泰述)이 계성학교(현 계성고) 교사로 부임 한 뒤 야구부를 비롯해 축구, 정구부를 창설. 오재숙(吳載淑), 최을동(崔乙童), 김보술, 박태준(朴泰俊) 등과 계몽단체인 강의원(講義院)을 통해 야구를 보급</p>	
07.	<p>■ 제2차 도쿄유학생모국방문경기 중앙기독교청년회(YMCA) 팀과 혼성 팀을 구성, 일본인 팀인 동양협회 전문학교 경성분교(東洋協會專門學校 京城分校)를 상대로 1승1패 △YMCA 혼성팀=유용탁(투수), 허성(포수), 김일(1루수), 김영환(金泳煥 2루수), 현홍운(3루수), 이규정(유격수), 김영제(좌익수), 김유(중견수), 김춘식(우익수)</p>	<p>도쿄유학생모국방문 초기 사진. 유학생들이 2차 방문 때 YMCA 선수들이 유니폼을 차려 입고 훈련원 앞에서 찍은 기념 사진으로 알려지고 있다.</p>
10.28	<p>■ 조선야구 최초 일본 원정경기 10월 28일 오전 일본 기독교청년회(YMCA) 초청으로 중앙기독교청년회 소속 일본견학단 일행 21명(야구부원 11명 포함)이 남대문역에서 열차편을 이용, 인천에 도착한 뒤 제물포항에서 배편으로 출국, 10월 31일 일본 교토(京都) 경유 도쿄(東京) 신바시(新橋) 도착 ▲11월 1일=오후 2시 유료(입장료 10전)로 열린 와세다(早稻田)대와의 경기에서 0-23으로 참패. 와세다대에 13안타, 볼넷 16개를 허용, 조선군은 변봉현이 1안타 △조선군=단장겸 감독 김인(金麟) 및 변봉현(유격수), 이규정(2루수), 유용탁(투수), 김일(1루수), 현홍운(3루수), 김춘식(金春植 우익수), 김유(중견수), 유동수(좌익수), 허성(포수) ▲11월 4일=오후 2시 에바라(荏原)중학 경기에서 출전, 1-9로 패배. 이어서 열린 아자부(麻布)중학전은 일몰로 7회 2-2 무승부(8일 재경기 합의) ▲11월 7일=오후 3시 시바우라(芝浦)구장에서 열린 세이소쿠(正則)중학 경기에 이일봉(李一鵬 2루수), 현홍운(3루수), 김일(좌익수), 유용탁(1루수), 유공탁(柳公鐸 유격수), 허석(포수), 김춘식(우익수), 김유(중견수), 변봉현(투수)이 출전, 투수 변봉현의 역투에 힘입어 10-5로 첫 승리. ▲11월 8일=오후 2시 아자부중학과의 재경기에서 3-7로 패배 ▲11월 9일=오후 3시 메이지(明治)대 경기에서 1-11로 패배. 밤 11시 열차편으로 도쿄 출발 교토로 직행 ▲11월 11일=오후 2시 도시샤(同志社)대 경기에서 이규정(유격수), 김춘식(우익수), 현홍운(3루수), 유용탁(투수), 허성(포수), 김유(중견수), 김영제(좌익수), 김영환(2루수), 김연호(1루수) 등이 출전, 1-10으로 패해 방일 전적 7전 1승 1무 5패를 기록 ▲11월 12일=고베(神戸)항 출항 ▲11월 14일=제물포항을 거쳐 경성 남대문역 도착</p>	<p>일본 원정중인 YMCA 야구선수들</p>  <p>1912년 11월 2일 도쿄 아시히신문이 소개한 조선 YMCA야구 선수들. 앞줄 왼쪽부터 김영제, 김연호, 김춘식, 이규정, 김영환. 그 앞 앉은 사람(왼쪽) 뒷줄 왼쪽부터 김유 한 사람 건너 허성, 김일, 유용탁, 변봉현, 현홍운</p> <p>와세다(早稻田)대 구장의 어제와 오늘</p>   <p>일본에서 중앙기독교청년회 선수들이 와세다대와 경기를 가졌던 와세다대 구장(위)과 현대적 시설을 갖춘 현재의 모습(아래)</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1913. 06.01	<p>■ 전조선야구대회(일본인 최초 공식 야구대회) 일본인 신문 경성일보사 주최로 6월 1일 성남구락부, 동아연초, 조선은행 및 경성중학 전신인 총독부중학 등 4개 일본인 팀들이 출전한 가운데 훈련원에서 개최, 총독부중학이 2승으로 우승 ▲총독부 중학 14-3 성남구락부 ▲총독부 중학 8-7 동아연초</p>	
06.	<p>■ 필립 질레트 선교사 추방 조선총독부가 '105인 사건'을 문제 삼아 질레트를 국외로 추방, 중국으로 건너가 난징(南京),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지에서 YMCA 총무로 활동하다 1938년 11월 26일 고향(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심장마비로 타계</p>	
10.	<p>■ 중앙YMCA야구단 해산 질레트가 중국으로 떠나자 YMCA야구단의 실질적인 리더인 허성(포수)과 김유(중견수)가 미국 유학, 김일(좌익수)은 중국 장춘(長春)으로, 유용탁(투수)은 일본으로, 이규정(유격수)은 러시아 모스크바로 유학을 떠나 지도자와 선수 부족으로 야구단 해체. △YMCA선수단=유용탁(투수), 허성(포수), 이원용(李源容 1루수), 현창운(玄彰運 2루수), 현홍운(3루수), 박천병(朴天秉 유격수), 이태훈(李泰薰 좌익수), 박영근(朴寧根 중견수), 김영제(우익수), 송태근(宋泰根), 김주호(金周鎬 이상 후보)</p>	<p>1912년 일본 원정 후 '1212' 팀을 만든 중앙 YMCA (왼쪽부터 후보 송태근, 우익수 김영제, 좌익수 이태훈, 1루수 이원용, 유격수 박천병, 3루수 현홍운, 2루수 현창운 후보 김주호, 중견수 박영근, 투수 유용탁, 포수 허성)</p>
1914.	<p>■ 오성(五星)구락부 탄생 오성학교 출신들이 주축이 되어 중앙 YMCA 잔류 선수들과 경신, 중앙 출신 선수들을 보강, 홍준기(洪駿基), 장두칠(張斗七 이상 투수), 박천병, 이상호(李相鎬 이상 포수), 이원용(1루수), 이운호(李潤鎬 2루수), 이석찬(李錫贊 3루수), 황영일(黃榮一 유격수), 방한룡(方漢龍), 이태훈(이상 좌익수), 박승철(朴勝喆 중견수), 이관수(李觀洙 우익수) 등으로 팀을 결성</p>	
07.05	<p>■ 제3차 도쿄유학생모국방문경기 7월 5일 도쿄유학생야구단이 '타이거'라는 이름으로 모국을 방문, 오성구락부와 가진 첫 경기에서 19-12로 승리한 뒤, 7월 6일 벌어진 2차전에서 8-9로 패해 1승 1패를 기록 △도쿄유학생=변봉현(투수), 유용탁(포수), 김석진(金錫晉 1루수), 김완(金玩 2루수), 서상국(徐相國 3루수), 유공탁(유격수), 박영근(중견수), 김상훈(金相勳 우익수), 최○○(좌익수), △오성구락부=황영일(유격수), 박천병(포수), 홍준기(3루수), 이석찬(좌익수), 이관수(우익수), 박승철(중견수), 장두칠(투수), 이운호(2루수), 이원용(1루수)</p>	<p>도쿄유학생 타이거야구단과 오성구락부선수들. 앞줄(왼쪽부터) 황영일, 홍준기 박승철, 이관수, 박대병, 가운데 줄(왼쪽부터) 서상국, 변봉현, 김완 한 사람 건너 김석진, 유공탁, 이원용, 뒷줄(왼쪽부터) 박영근 한 사람 건너 유용탁, 김영제, 현동순, 이상호, 이운호, 장두칠</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1915. 04.	<p>■ 광주 송일(崇一)학교 야구 도입 미국 남장로교파 선교사들이 1908년 2월 1일 2년제 보통학교로 개교(1912년 고등과 4년제와 보통과 6년제 병설), 1915년 4월 보통과 학생 들인 장남규(張南圭), 양우홍(梁又洪 이상 투수), 최인봉(崔仁峯 포수), 김요한(金要韓), 김태봉(金泰奉), 강대혁(姜大赫), 조순초(趙淳楚), 김철주(金哲柱), 차학봉(車學奉 이상 내, 외야수) 등에게 광주지역에서 최초로 야구를 지도</p>	
06.14	<p>■ 조선 최초 야구 대회(7이닝 경기) 개최 조선공론사(朝鮮公論社) 주최 전조선야구대회(6월 13~15일 용산 철도구장에 철도청년단, 체신구락부, 조선은행군, 경성중학, 경성실업군, 철도소년단 등 6개의 일본인 팀 외에 조선인 팀으로 유일하게 오성(五星)구락부가 출전, 1회전에서 철도소년단을 12-6, 2회전에서 조선은행을 15-14로 격파하고 결승전에 올랐으나 철도청년단에 1-4로 패해 준우승 ▲1회전=경성실업 8-7 경성중, 오성 12-6 철도소년, 철도청년 16-1 체신소년 ▲2회전=철도청년 15-8 경성실업, 오성 15-14 조선은행 ▲결승전=철도청년회 4-1 오성구락부 △오성구락부=황영일(유격수), 박천병(포수), 유용탁(3루수), 신흥우(申鴻雨 투수), 홍준기(2루수), 방한룡(우익수), 이태훈(중견수), 이관수(좌익수), 이원용(1루수)</p>	<p>■ 조선 최초 야구대회 기념 사진</p>  <p>■ 08.15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 일본 오사카(大阪) 아사히(朝日)신문사 주최로 도요나카(豊中) 구장에서 일본 73개 중등학교가 출전, 제1회 전국중등학교우승 야구대회를 개최. YMCA가 조선대표로 출전 의사를 타진했으나 조선야구는 과도기에 있다는 이유로 출전 불허</p>
11.	<p>■ 조선 최초 중학대회 개최 중앙 YMCA(1913년 황성 YMCA를 개칭)가 '경성 시내 중등학교야구대회'를 훈련원에서 최초로 개최, 배재학당, 보성학교, 휘문의숙, 청년학관 등 4개 교가 출전한 가운데 홍준기, 이원용이 활약한 청년학관이 우승</p>	
1916.	<p>■ 오성구락부 해체, 중앙 YMCA야구단 재결성 해체된 오성구락부 선수들을 주축으로 중앙기독교청년회(YMCA)야구단 재결성 △중앙YMCA=김영제, 이태훈(李泰薰), 윤치영(尹致暎), 방영기(方永起), 홍준기, 박천병, 이원용, 이성재(李聲載), 방한룡, 권승무(權承武), 신기준(申基俊)</p>	<p>■ 03.25 조선 최초 배구 도입 중앙 YMCA에서 반하트 선교사가 청년회원들에게 배구를 소개하면서 시작</p>
1917. 07.	<p>■ 제4차 도쿄유학생모국방문경기 도쿄유학생 반도야구단은 마산에서 1승을 올린 뒤 대구에서 대구청년회와 1승1패, 경성으로 상경한 유학생 팀은 재결성된 중앙YMCA에 대패(스코어 미상) △도쿄유학생 = 이중국(李重國 매니저), 및 박석윤(朴錫胤 주장), 김연수(金季洙), 서상국, 김도연(金度演), 신흥우, 전의용(全義鎔), 안재홍(安在鴻), 김종원(金鍾遠), 정상호(鄭尙好), 강종섭(姜鍾燮)</p>	 <p>제4차 도쿄 유학생 반도야구단이 YMCA와 경기 후 훈련원에서 기념 촬영</p>
1918. 06.09	<p>■ 부산야구대회(일본인 최초 부산 공식대회) 6월 9일 오전 11시 대정(大正) 공원에서 부산일보사 주최로 부산상업전문학교, 부산중학, 부산세관, 부산</p>	<p>■ 연식(軟式)야구 탄생 일본 교토(京都)의 학교 선생인 이토이(井淺次郎), 이시다(石田 秀次郎), 아리타(有</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실업 등 4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일본인 최초로 부산 야구대회를 개최했으나 부산세관이 결승전을 앞두고 선수 교체를 요청, 부산중학의 거부로 중지 ▲1회전=부산세관 7-6 부산상전, 부산중학 10-1 부산실업 ▲결승전=부산중학 (중지) 부산세관</p>	<p>田 辰三) 등이 어린이들에게 위험하지 않은 ‘스폰치 볼’ 창안</p> <p>■메이저리그 무홈런 타격왕 브루클린 다저스의 자크 휘트가 단 한 개의 홈런도 없이 타율 .335로 내셔널리그 타격왕에 등극</p>
06.22	<p>■경성중-경성구락부경기 경성중학과 경성구락부가 경성중 운동장에서 야구경기를 개최, 경성구락부가 6점을 리드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쏟아지는 비로 경기를 중단</p>	
1919. 05.05	<p>■경성중-동양협회 연습경기 경성중대 동양협회의 연습경기가 5월 5일 오후 3시 경성중 운동장에서 개최, 경성중이 14-12로 승리한 가운데 경기를 종료 △경성중=오구치(大口 3루수), 이치가와(市川 포수), 요코야마(横山 1루수), 시오야(鹽谷 유격수), 이와사(巖狹 좌익수), 쓰에(津江 중견수), 스다(須田 우익수), 니와(丹羽 2루수), 세토(투수) △동양협회=스즈키(鈴木 포수), 사쿠라(佐倉 우익수), 야마구치(山口 1루수), 카노(加納 유격수), 마나베(眞鍋 3루수), 히라타(平田 좌익수), 오다(和田 2루수), 고쿠오카(國岡 중견수), 이시구로(石黒 투수)</p>	<p>■02.08 도쿄유학생 독립선언서 발표 도쿄유학생 600여 명이 기독교청년회관에 모여 조선청년독립단 명의로 ‘독립선언서’ 발표</p> <p>■02.18 조선체육협회 발족 일본인들이 일본체육협회 조선지부 형식으로 발족</p> <p>■03.01 ‘3.1독립운동’ 손병희(孫秉熙) 등 민족대표 33인이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 발표</p>
06.15	<p>■경성중-한양야구단경기 경성중학대 한양야구단의 연습경기가 6월 15일 오전 10시부터 경성중 운동장에서 개최, 경성중이 9-3으로 한양야구단을 격파</p>	
10.31	<p>■부산중-부산세관 연습경기 부산중-부산세관의 연습경기가 10월 31일 오후 3시 대정(大正)공원 빈터에서 개최, 5이닝 경기로 치러진 이 경기에서 부산세관이 부산중에 6-0으로 승리 △부산세관=요시와라(吉原 兄 유격수), 요시와라(吉原 弟 포수), 다나카(田中 1루수), 임(林 투수), 다이토(大東 3루수), 에노시마(江島 우익수), 우치노(内野 2루수), 사사키(佐佐木 좌익수), 아오야마(青山 중견수) △부산중=마루오(丸尾 1루수), 이노우에(井上 2루수), 토요다(豊田 유격수), 아이코(愛甲 3루수), 이모가와(芋川 투수), 미요시(三好 포수), 세노(妹尾 우익수), 스자쿠(朱雀 중견수), 사이토(齊藤 좌익수)</p>	<p>■09.28 메이저리그 최단 경기시간 뉴욕 자이언츠가 필라델피아 필리스를 51분 만에 6-1로 꺾어 메이저리그 사상 최단 경기 시간 기록</p> <p>■블랙삭스 스캔들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신시내티 레즈의 월드 시리즈에서 몇몇 선수들이 승부를 조작</p>
1920. 01.24	<p>■대구청년회 야구단과 축구단 조직 1월 24일 대구청년회를 창립한 뒤 4월 11일 운동부에서 14명의 선수들로 야구단과 축구단을 최초로 조직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 △선수=김종현(金宗鉉), 박금진(朴肯鎭), 손만수(孫萬洙), 정학준(鄭鶴俊), 김동학(金東學), 최학득(崔學得), 장만호(張萬鎬), 정원조(鄭元祚), 김영규(金永奎), 이창달(李昌達), 마달출(馬達出), 이경진(李敬珍), 이종범</p>	<p>■01.30 베이브 루스 트레이드 보스턴 레드삭스의 프레이지 구단주가 펜웨이 파크 건설 자금 융자 조건을 붙여 뉴욕 양키스에 할값인 12만5,000 달러에 트레이드</p> <p>■메이저리그 첫 커미셔너 탄생 블랙삭스 스캔들 담당 대법원 판사 ‘케네스 랜디스’를 초대 커미셔너로 영입. 첫 조</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李鍾範), 김인출(金仁出)	치로 블랙삭스 스캔들에 연류된 시카고 화이크삭스 선수 8명을 제명, 야구계에서 영구 추방
04	■ 인천 한용단(漢勇團) 조직 인천 거주 경성 통학생들의 친목 모임인 '경인기차통학생회'를 중심으로 한용단을 결성한 뒤 인천 최초 조선인야구단을 만들어 단장 곽상훈(郭尙勳), 주무 박창한(朴昌漢) 및 최영업(崔榮業 주강겸 투수), 함용화(咸龍華 포수), 장건식(張健植 1루수), 박태성(朴泰星 2루수), 이기만(李其萬 3루수), 박안득(朴安得 유격수), 이수봉(李壽奉 좌익수), 박용남(朴容男 중견수), 문백수(文伯壽 우익수) 등과 초청 선수 김정식(金貞植), 전의용(全義鎔), 이경구(李鯨九), 장의식(張儀植), 한기호(韓麒鎬), 김종세(金鍾世), 정인규(鄭麟奎) 등으로 팀을 운용	■ 03.05 조선일보 창간 친일경제단체 대정실업친목회 기관지로 허가, 사장 조진태(趙鎭泰), 발행인 예종석(芮宗錫), 편집인 최강(崔岡) 등으로 출범, 1924년 9월 신석우(申錫雨)가 경영권 인수 후 민족지로 전향 ■ 04.01 동아일보 창간 김성수(金性洙), 박영효(朴泳孝) 등이 창간
04	■ 광주 제1회 소년야구대회 개최 전남 광주 YMCA 주최로 북동(北東), 양림(楊林), 남동(南東), 대인(大仁)동 팀들이 출전한 정식 야구대회를 광주 목정발(현 전남대병원 자리)에서 개최	
04.11	■ 대구청년회야구단 마산 첫 원정경기 4월 12일 정학준, 김태술, 김종현, 이상래, 서상철, 백기주, 정원조, 김기조, 김명갑, 마달출 등이 창신학교에서 마산구락부와 경기 끝에 2-17로 참패	
04.18	■ 배재고보 인천에 첫 원정, 한용단과 첫 경기 오전 11시 인천 윗터골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한용단과의 첫 경기에서 10-3으로 승리한 뒤 오후에 열린 라이온스 팀에 2-16으로 패배	■ 04.20 제7회 안트워프 올림픽대회 29개 국에서 19개 종목에 2,591명 출전 (벨기에)
05.11	■ 대구고보(현 경북고) 야구부 창설 일본인 교사 선계 다카노부(千家 尊宜)와 스에노브 이치로(未延 一郎)의 주도 아래 김명갑, 배소엽, 손관성(孫觀星), 이규현(李圭鉉), 이상오(李相旻), 이원복(李元福), 이희철(李熙徹), 주덕근(朱德根), 차희순(車喜淳), 최경희(崔慶熙), 편무조(片茂祚) 등을 선수로 야구부 창설	■ 06.16 조선체육회 창립 발기인 대회 인사동 명월관에서 조선체육회 창립 발기인 대회를 열고 창립 준비위원으로 윤익현(尹翼鉉), 변봉헌, 원달호(元達鎬), 이동식(李東植), 김병태(金丙台), 이병국(李秉國), 유문상(劉汶相), 이원용, 김동철(金東澈), 김규면을 선임, 6월 26일 오후 7시 10명이 모여 창립 취지서와 규칙서 등을 제정하고 설립 방침 협의
07.01	■ 미해군과 최초 야구경기 오후 3시 30분 배재고보 운동장에서 인천항에 정박중인 미국 군함 알바니아호 해군들과 배재고보 선수들이 친선경기, 배재고보가 대패(스코어 미상)	
07.17	■ 제5차 도쿄유학생모국방문경기 도쿄 유학생야구단이 기독교학생 야구단이라는 이름으로 모국을 방문, 7월 17일부터 8월 7일까지 부산, 대구, 경성, 개성, 평양, 진남포를 순회하며 경기를 가진 끝에 8승1무 △유학생야구단=매니저 유억겸(俞億兼) 및 박석윤, 이익상(李益相), 서상국, 윤치영, 김성호(金聖浩), 정문	제5차 도쿄유학생모국방문단과 YMCA야구단이 좀 더 세련된 모습으로 훈련원 앞에서 촬영한 기념 사진?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기(鄭文基), 박준삼(朴準三), 정학준(丁鶴俊), 박석기(朴錫紀), 박태호(朴泰鎬), 박태웅(朴泰雄), 이장화(李章和), 문재근(文在瑾), 박승배(朴承培), 전의용, 김찬성(金贊成)</p> <p>▲1차전(부산)=유학생 7-4 초량구락부 ▲2차전(부산)=유학생 4-2 부산진 ▲3차전(대구)=유학생 대승 대구청년회 ▲4차전(경성)=유학생 7-6 배재구락부 ▲5차전(경성)=유학생 6-3 스탠다드석유 ▲6차전(경성)=유학생 4-5 용산철도 ▲7차전(개성)=유학생 18-1 고려청년회 ▲9차전(진남포)=5-4 쿠하라(久原 일본인 팀)</p>	<p>■07.13 조선체육회 창립 오후 8시 인사동 중앙예배당에서 75명이 모여 조선체육회 창립 총회를 갖고 초대 회장에 장두현(張斗鉉), 이사장에 고원훈(高元勳)을 선출하고 첫 행사로 11월 4일부터 3일간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 개최 결정</p> <p>■08.16 메이저리그 최초 빈볼 사망 사건 클리블랜드 유격수 레이 채프먼이 뉴욕 양키스전에서 투수 칼 메이스가 던진 공에 머리를 맞아 이튿날 사망</p>
11.04	<p>■제1회 전조선야구대회 조선체육회가 창립 첫 사업으로 조선 최초 유료 경기(대인 10전, 소인 5전)이자 전국체육대회의 효시인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를 11월 4일부터 3일간 배재고보 운동장에서 개최. 이 대회에서 이중국(李重國)이 번역한 일본 전국중등학교우승야구대회(1915년 창설) '야구 규칙'을 최초로 적용해 경기를 운용</p> <p>◇중학단=경신학교, 배재고보, 보성고보, 중앙고보, 휘문고보 등 5개 팀이 출전, 배재고보가 결승전에서 경신학교를 4-2로 물리치고 첫 우승</p> <p>▲준결승전=배재고보 2-1 중앙고보, 경신학교 부전승 ▲결승전=배재고보 4-2 경신학교</p> <p>◇청년단=전경신, 천도교청년회, 전배재, 삼한(三韓)구락부, 중앙YMCA 등 5개 팀이 출전, 11월 6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전배재가 전경신을 제치고 우승</p> <p>▲준결승전=전경신(부전 승(추첨), 전배재 4-0 삼한구락부 ▲결승전=전배재 0-X 전경신</p>	<p>■11.01 인천 윗터골 운동장 준공 인천부가 윗터골 7,798m²(2,363평)의 부지에 기부금 5,250원의 예산으로 공설운동장을 준공</p>  <p>전조선야구대회 개막 경기에서 시구를 하고 있는 이상재(李商在) 선생(오른쪽)</p>
1921. 06.23	<p>■전조선소년대회 개최 소년잡지 '새동무' 사 주최, 조선체육회 후원으로 6월 23일부터 16세 이하(보통학교 3학년년부터 중학 2학년)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전조선소년야구대회가 1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배재고보 운동장에서 이상재(李商在)의 시구로 개최, 6월 25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성서(城西)가 배재를 4-2로 격파하고 우승기를 차지했으나 패한 배재학생 400여명이 관중들을 구타하는 등 난동, 중상자 5~6명에 경상자 수십명 발생</p>	<p>■02.12 제1회 전조선축구대회 조선체육회 주최로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배재고보 운동장에서 개최</p> <p>■05.19 제1회 전조선축구대회 평양기독교청년회 주최로 평양에서 개최</p>
07.15	<p>■제6차 도쿄유학생모국방문경기 7월 9일 도쿄 유학생들이 기독교 학생들 위주로 야구단을 조직, 7월 11일 김준연(金俊淵) 인솔로 부산항에 도착, 7월 15일 경성에서 천도교군을 11-2로 격파한 뒤 7월 16일에는 휘문군을 7-2로 꺾고 2연승</p> <p>△도쿄유학생=매니저 김준연 및 박석기(朴錫紀) 유격수겸 포수, 윤치영(尹致暎) 포수겸 1루수, 정문기(鄭文基) 3루수겸 유격수, 박석윤(朴錫胤) 투수, 김성환(金星煥) 우익수, 황의찬(黃義燦) 1루수, 안익조(安益祚) 유격수, 차경수(車景洙) 2루수, 문태주(文泰柱) 좌</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익수), 홍명철(洪命喆 3루수), 이태웅(李泰雄 중견수) △천도교=정훈(鄭勳 유격수), 손희운(孫熙運 좌익수), 박점수(朴點壽 포수), 김정식(중견수), 김전호(金銓鎬 투수), 김원태(金源泰 우익수), 이장화(2루수), 임병설(林炳堯 1루수), 신봉균(申鳳均 3루수)</p>	<p>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p>
07.24	<p>■ 제1회 조선중등학교대회 제7회 전국중등우승대회 조선예선전 일본 오사카(大阪) 아사히(朝日)신문사 경성지국 주최로 7월 24일부터 용산 만철구장에서 열린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全國中等學校優勝野球大會) 조선예선대회인 제1회 조선중등학교대회에 일본인 학생들로 구성된 부산상업(현 부경고), 경성중, 용산중, 인천상업(현 인천고) 등 4개 팀이 출전, 7월 25일 끝난 결승전에서 부산상업이 인천상업을 17-5로 꺾고 우승, 조선대표로 제7회 전국중등우승야구대회 출전권 확보 ▲준결승전=부산상업 9-5 경성중, 인천상전 6-5 용산중 ▲결승전=부산상업 17-4 인천상전 △부산상업=후쿠다(福田 유격수), 요코시마(橫島 3루수), 무라타(村田 2루수), 미요시(三好 좌익수), 시라이(白井 1루수), 야마모토(山本 투수겸 우익수), 니키(二木 포수), 시모조(下条 우익수겸 투수), 스즈키(鈴木 중견수)</p>	<p>■ 조선체육회 임원 개선 제2대 회장에 고원훈(보성전문 교장) 취임</p> <p>■ 08.25 메이저리그 최초 중계 방송 KDKA방송사의 해럴드 앨런 아나운서가 사상 최초로 야구경기를 중계방송</p> <p>■ 뉴욕 양키스 아메리칸리그 첫 우승 베이브 루스(홍련 59)와 27승(최다승 타이)을 올린 칼 메이스의 활약으로 아메리칸리그를 제패한 뒤 월드시리즈에 진출, 4년 만에 내셔널리그서 우승을 차지한 뉴욕 자이언츠와 '지하철 시리즈'를 벌였으나 3승 5패로 패배</p>
08.14	<p>■ 제7회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 아사히신문사가 오사카 나루오(鳴尾)구장에서 개최한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에 부산상업(현 부경고)이 조선대표로 출전, 8월 14일 열린 1회전에서 기쓰키(杵築)중학을 17-8로 격파한 뒤 2회전에서 와카야마(和歌山)중학에 1-21로 패해 탈락 ▲1회전=부산상업 17-8 기쓰키중 ▲2회전=와카야마중 21-1 부산상업</p>	
08.18	<p>■ 대구연합야구대회 대구청년회 주최로 8월 18일부터 이틀간 조선불교청년회, 해성(海星)체육단, 체진단(體進團) 등 3개 단체가 출전한 가운데 계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 8월 19일 열린 최종일 경기에서 첫 날 해성군을 물리친 체진군이 불교군을 물리쳐 2전 전승으로 우승</p>	
10.31	<p>■ 제2회 전조선야구대회 조선체육회가 10월 31부터 4일간 학생단과 청년단 16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중과 용산 철도구장에서 개최, 학생단에서는 휘문고보가, 청년단에서는 반도청년단이 우승 ▲학생단=경신학교, 개성학당, 중앙고보, 휘문고보, 송도고보, 보성고보, 오산학교 등 휘문고보가 결승전에서 경신학교의 기권으로 우승 ▲청년단=서울청년회, 필운(弼雲)운동부, 송실대학, 전경신, 천도교청년회, 한용단, 맹신(猛身)운동부, 반</p>	 <p>제2회 전조선야구대회 학생단에서 경신학교의 기권으로 우승을 차지한 뒤 응원단과 함께 신축 공사중인 교사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한 휘문고보 선수들과 학생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도청년회, 대구청년회 등 9개 팀이 출전, 반도청년단이 전경신(몰수 패)을 제치고 우승	
11.19	■ 대구소년야구대회 대구청년회 주최로 11월 19일부터 이틀간 조선불교청년회 소년야구부, 광진단, 해성학교, 희원(喜媛)학교, 무광(武光)단 등 6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칠성정 만철 운동장에서 개최, 11월 20일 열린 결승전에서 불교군이 광진군을 물리치고 우승	■ 12.18 대구운동협회 창립 대구 서성정 대구청년회관에서 창립 총회를 갖고 임원을 선출 ▲회장=박기돈(朴基敦) ▲부회장=서병주(徐炳柱) ▲총무=남정구(南廷九)
1922.	■ 연희전문 야구부 창설 송도고보 출신 최규남(崔奎南)의 주도로 이채홍(李彩洪 2루수), 이계원(李桂元 중견수), 김익중(金翊重 유격수), 최규남(투수), 유영일(劉英一 포수), 이정근(李晶根 3루수), 임병설(1루수), 윤기성(尹基誠 우익수), 김기환(金奇煥 좌익수) 등이 야구부를 결성, 제3회 전조선야구대회(10월 14~17일 배재구장) 청년단부에 출전했으나 1회전에서 배재구락부에 3-5로 패한 뒤 해체	■ 04.30 아메리칸리그 퍼펙트 게임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찰리 로버트슨이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를 상대로 아메리칸리그 사상 세번째로 퍼펙트 게임(2-0)을 수립
05.06	■ 대구소년야구대회 대구운동협회 주최 동아일보 대구지국 후원으로 5월 6일 체진단(體進團), 성진단(聖進團), 광진단(光進團), 노동야학(勞動夜學), 희원(喜媛)학교, 순도(順道)학교, 대구공보(公普) 등 7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동운정(東雲町) 공설운동장에서 1회전을 개최한 뒤 우천으로 순연, 5월 13일 칠성정 만철운동장에서 2회전(준결승)과 결승전을 개최, 해성단이 성진단을 8-5로 물리치고 우승 ▲ 준결승전=광진 3-2 체진, 해성 13-11 대구공보 ▲ 결승전=해성 8-5 광진	
06.04	■ 제1회 전인천소년대회 6월 4일 오전 9시 윗터골(산근정·山根町) 운동장에서 열린 전인천소년야구대회에 12~16세 소년들로 구성된 공보(公普), 용호(龍虎), 인보(仁普), 공용(共勇), 복음(福音), 미용(美勇), 인배(仁培), 기호(起好), 기봉(起蜂), 활려(活麗), 한용(漢勇), 한흥(漢興), 한기(漢起), 용보(龍普), 의법(懿法), 건아(健兒) 등 16개 팀이 출전, 6월 11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기봉이 한용을 5-3으로 제치고 우승	■ 07.11 조선공술연구회 창립 경성 황학정(黃鶴亭)에서 35명의 발기인들이 모여 조선공술연구회(현 대한공도협회의 모체) 창립 ■ 08.25 메이저리그 한 경기 49점 시카고 컵스가 필라델피아 어슬레틱스를 26-23으로 꺾어 메이저리그 사상 최다 스코어 기록
07.25	■ 제2회 조선중등학교대회겸 제8회 전국중등우승대회 조선예선전 조선체육협회 주최, 아사히신문사 경성지국 후원으로 7월 25일부터 부산상업, 부산중, 경성중, 용산중, 인천상업, 선린상업 등 6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용산 만철구장에서 개최, 8월 5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경성중이 인천상업을 6-0으로 격파하고 우승 ▲준결승전=인천상업 3-1 용산중, 경성중 5-2 부산	■ 08.28 마산체육회 창립 하오 4시 마산구락부 회관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여병섭(呂柄燮)을 회장으로 선출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중 ▲결승전=경성중 6-0 인천상업	
08.13	<p>■제8회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p> <p>아사히신문사 주최로 8월 13일 나루오구장에서 열린 제8회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에 경성중학이 조선대표로 출전, 1회전에서 고베(神戸)상업에 3-8로 패해 탈락</p> <p>△경성중=스즈키(鈴木敬 중견수겸 2루수), 다카하시(高橋 투수), 시게다(重田 포수), 히오키(日置 3루수), 야마다(山田 1루수), 구보(久保 유격수), 스즈키(鈴木 忠 2루수겸 중견수), 나카미치(中道 우익수), 이시(石 좌익수)</p>	<p>■아메리칸리그 MVP 첫 시상</p> <p>아메리칸리그가 최우수선수(MVP)를 선정하는 제도를 최초로 도입, 세인트루이스 브라운스의 조지 시슬러에게 첫 시상</p>
10.14	<p>■제3회 전조선야구대회</p> <p>전조선야구대회 사상 처음으로 임원 선수들이 보성고보를 출발, 종로-을지로-대한문-배재고보 운동장까지 가두 행진, 10월 14일부터 4일간 배재고보 운동장에서 개최</p> <p>◇중학단=송실학교(평양), 송도고보(개성), 오산고보(정주), 계성학교(대구) 및 경신학교, 휘문고보, 배재고보, 중앙고보 등 8개 교가 출전, 결승전에서 배재고보가 송실학교를 5-2로 물리치고 우승</p> <p>▲준결승전=배재고보 3-0 휘문고보, 송실학교 8-4 계성학교 ▲결승전=배재고보 5-2 송실학교</p> <p>△배재고보=정원복(鄭元福 3루수), 윤경호(尹敬皓 2루수), 장의식(張儀植 투수), 함용화(유격수), 송세범(宋世範 포수), 박정근(朴正根 중견수), 한홍이(韓虹伊 좌익수), 박태성(朴泰星 중견수), 서병수(徐丙守 1루수)</p> <p>△송실학교=권정규(權正奎 우익수), 장병태(張炳泰 유격수), 옥종민(玉鍾珉 1루수), 김재신(金載辛 3루수), 장병선(張炳善 포수), 안익태(安益泰 2루수), 임용업(林龍業 중견수), 이학영(李鶴永 투수), 김찬전(金贊銓 좌익수)</p> <p>◇청년단=중앙체육단 배재구락부 송실대 연희전문 반도청년회 대구청년회 등 6개 팀이 출전, 중앙체육단이 배재구락부를 12-5로 격파하고 우승</p> <p>▲준결승전=중앙 부전 승, 배재 10-0 송실대학 ▲결승전=중앙 12-5 배재</p> <p>△중앙체육단=박천병(포수), 손희운(1루수) 이태훈(3루수), 박석윤(투수), 김성환(金星煥 중견수), 김주호(金周鎬 유격수), 정훈(2루수), 김낙현(金洛顯 우익수), 한익수(韓益洙 우익수)</p> <p>△배재구락부=마춘식(馬春植 투수), 박점수(1루수), 신봉균(3루수), 한기호(韓麒鎬 중견수), 왕명구(王命求 유격수), 김순영(金淳英 2루수), 정영태(鄭榮泰 포수), 묵영근(墨永根 좌익수), 박위병(朴韋秉 우익수)</p>	<p>■10.10 안창남(安昌男) 고국 방문 비행</p> <p>오전 10시부터 5만 관중이 열광하는 가운데 노량진과 여의도 상공을 비행기로 최초 순회 곡예 비행</p> <div data-bbox="989 828 1260 1276" data-label="Image"> </div> <p>전조선야구대회 중학단 우승기</p> <div data-bbox="965 1344 1476 1668" data-label="Image"> </div> <p>제3회 전조선야구대회 중학단에서 우승한 배재고보 선수들</p> <div data-bbox="965 1758 1476 2004" data-label="Image"> </div> <p>일본 순회경기 끝에 조선을 찾은 미국 프로야구 올스타 선수들</p>
12.08	<p>■메이저리그 올스타팀초청경기</p> <p>일본에 원정중인 미국 프로야구 올스타(Pacific Coast League 트리플 A급 선수들이 주축) 팀을 초청하기 위해 이원용과 박석윤이 12월 4일 일본으로 출국, 허브</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헌터(Herb Hunter) 감독을 만나 출전료 1,000원과 조선 체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내한 일정을 최종 합의(출전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정석 5원, 1등석 3원, 2등석 2원, 3등석 1원, 학생 50전을 징수, 총 입장 수입 1,700백여 원)</p> <p>▲12월 7일 하오 7시 50분 미국 올스타 일행 25명이 제물포항을 거쳐 남대문역에 도착하여 조신히텔에 투숙</p> <p>▲12월 8일 오후 3시 용산 만철구장에서 조선대표팀이 도전했으나 2-23으로 참패</p> <p>△조선대표=마춘식(馬春植 중견수), 박천병(포수), 이석찬, 정원복(이상 3루수), 김태술(金泰述 1루수), 이태훈, 김중세(이상 2루수), 함용화, 김정식(이상 좌익수), 손희운(孫熙運), 장익식(이상 우익수), 안익조(유격수), 박석윤(투수)</p>	 <p>메이저리그 올스타팀을 초청한 이원용</p>
<p>1923. 05.18</p>	<p>■제4회 전조선야구대회</p> <p>조선체육회가 10월에 열던 대회를 5월로 옮겨 5월 17일부터 중학단에서 5개 팀(오산고보, 휘문고보, 배재고보, 중앙고보, 청년회관), 청년단에서 5개 팀(대구청년회, 중앙체육단, 세브란스의전, 배재구락부, 경성의전)이 출전한 가운데 배재고보 운동장에서 개최, 5월 19일 끝난 중학단 결승전에서 휘문고보가 오산고보를 14-3로, 청년단에서는 중앙체육단이 대구청년회를 17-12로 물리치고 우승</p> <p>▲중학단 준결승전=휘문고보 16-0 청년회관, 오산고보 22-11 중앙고보 ▲동 결승전=휘문고보 14-3 오산고보</p> <p>△휘문고보=정인규(鄭麟奎 유격수), 이경구(李鯨九 좌익수), 김정식(金貞植 포수), 김중세(金鍾世 투수), 왕명구(3루수), 김종윤(金宗允 1루수), 심운영(沈雲榮 2루수), 유재춘(柳再春 중견수), 이순재(李櫛宰 우익수)</p> <p>△오산고보=이창정(李昌鼎 유격수), 변봉소(邊鳳韶 3루수), 박윤진(朴潤珍 포수), 최재음(崔載蔭 1루수), 이만익(李萬益 좌익수), 임기순(任琦淳 중견수), 한용호(韓龍鎬 우익수), 이명호(李明鎬 투수), 마기징(馬奇徵 2루수)</p> <p>▲청년단 준결승전=대구청년회 17-2 경성의전, 중앙체육단 17-4 배재구락부 ▲동 결승전=중앙체육단 17-12 대구청년회</p> <p>△중앙체육단=박천병(포수), 정훈(유격수), 이태훈(1루수), 박석윤(투수), 김성환(중견수), 현홍운(玄鴻運 2루수), 김주호(金周鎬 3루수), 차세진(車世進 좌익수), 한익수(韓益洙 우익수)</p> <p>△대구청년회=서병언(徐丙彦 2루수), 정용준(丁龍俊 유격수), 이인복(李仁福 3루수), 김태술(金泰述 포수), 최세원(崔世元 1루수), 정학준(丁學俊 투수), 정원조(鄭元祚 좌익수), 김기조(金基祚 중견수), 이병렬(李炳烈 우익수)</p>	<p>■01.20 조선 최초 빙상경기 동아일보사 평양지사 주최로 대동강에서 빙상대회 개최</p> <p>■04.18 뉴욕 양키 스타디움 개장 '뉴욕 양키스가 베이브 루스가 지은 집'으로 불리는 전용구장 양키 스타디움 완공</p>  <p>제4회 전조선야구대회가 열린 배재고보 운동장. 이 대회에는 서북지방의 강호 오산학교가 처음 출전, 준우승을 차지했다.</p>  <p>제4회 전조선야구대회 결승전에서 막강한 전력을 갖춘 휘문고보가 오산고보를 14-3으로 꺾고 우승. 휘문의 이 멤버들은 8월 일본에서 열린 전일본중등학교우승대회 준준결승전까지 진출했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5.21	■허성(許城), YMCA 운동부 간사 취임 YMCA 요청으로 미국에서 귀국, YMCA 운동부 간사에 취임	 YMCA 운동부 간사를 맡은 허성
05.26	■마산소년야구대회 마산체육회 주최로 5월 26일 창신공보 및 보통학교 1, 2팀을 비롯해 주일학교, 사해(四海), 수원(壽元), 비룡(飛龍) 등 8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구락부 운동장에서 개최, 5월 29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창신공보1팀이 주일학교를 물리치고 우승	
06.21	■조선야구심판협회 결성 오후 8시 종로 중앙YMCA회관에서 창립 총회를 갖고 회장으로 허성을 선출하고 심판원을 다음과 같이 선임 △심판원=윤치영(尹致暎), 이원용(李源容), 허성, 마춘식, 전의용(全義鎔), 박천병(朴天秉), 현홍운, 러들러(Ludlow)외 8명	■6.20 조선 최초 전조선여자정구대회 동아일보사 주최로 열린 전조선여자정구대회가 학부형과 임원 외에 남자들의 경기장 입장이 금지된 가운데 개최 ■06.21 조선체육회 제4차 대의원 총회 6월 21일 오후 4시 명월관에서 제4차 대의원 총회를 열고 고원훈(高元勳) 회장을 재선임 △이사=임경재(任璟宰), 엄주익(嚴柱益), 정대현(鄭大鉉), 현상윤(玄相允), 이중화(李重華), 허성, 원달호(元達鎬), 서병의(徐丙義)
07.02	■하와이교포학생 모국방문경기 7월 2일 23명으로 구성된 하와이교포학생야구단과 합창단이 부산항에 도착, 급행열차편으로 상경하여 중앙YMCA '1912 팀' (7월 5일 경성 22-16 승)을 비롯해 배재고보(7월 7일 경성 7-6 승), 휘문고보(7월 9일 경성 1-7 패), 도쿄유학생야구단(경성 26-19 승), 인천상우회(인천 13-7 승), 재령청년회(재령 13-6 승), 오산고보(정주 17-5), 송실야구단, 서울군과 경기를 가져 8승1패를 기록 ◇하와이교포=매니저 김영우(金永遇), 주장 유진봉(劉振奉) 및 한기찬(韓基瓚 2루수), 김천룡(金天龍 유격수), 유진봉(투수겸 3루수), 이경수(李慶壽 우익수겸 투수), 김원도(金源道 3루수), 김학성(金學成 1루수), 공도연(孔道淵, 신영근(辛永根 포수), 김영의(金永義 중견수), 위인선(魏仁善 우익수), 조해리(趙海理 좌익수)	■07.04 조선육상경기연구위원회 구성 조선체육회에서 육상경기에 대한 연구와 실행을 위해 육상경기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 ▲위원=허성, 서병의(徐丙義), 원달호(元達鎬), 강낙원(姜樂遠), 이중국(李重國)
07.05	■제7차 도쿄유학생모국방문경기 7월 3일 오후 8시 조선기독교청년회(YMCA)라는 이름으로 도쿄를 출발, 7월 5일 마산에 도착한 뒤 마산군과 가진 1차전에서 9-6, 2차전(7월 6일)에서도 12-8로 승리. 7월 9일 대구에서 대구청년회를 15-8로 꺾고 상경, 7월 10일 배재고보에 6-11로 패배 △유학생=매니저 이태웅, 코치 서상국 및 박석기(유격수), 김여준(金麗俊 중견수), 이태웅(투수), 서상국(1루수), 김창선(金昌鮮 좌익수), 이상오(우익수), 차경수(2루수), 홍명철(포수), 이장화(3루수)	 도쿄유학생야구단과 배재고보의 경기, 유학생은 예상을 뒤엎고 6-11로 패했다.
07.24	■제3회 조선중등학교대회 제9회 전국중등우승대회 조선예선전 아사히신문사 경성지국 주최로 7월 24일부터 8개 중학 팀(경성중, 인천상업, 선린상업, 휘문고보, 대전중, 용산중, 부산상업, 부산중)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중은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동장에서 개최, 7월 27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휘문고보가 경성중을 10-1로 격파하고 우승</p> <p>▲1회전=경성중 6-3 부산상, 부산중 10-2 선린상, 용산중 21-1 대전중, 인천상 1-6 휘문고보</p> <p>▲준결승전=경성중 2-0 부산중, 휘문고보 5-1 용산중 ▲결승전=휘문고보 10-1 경성중</p> <p>△휘문고보=감독 박석윤(朴錫胤) 및 정인규(鄭麟奎 유격수), 왕명구(王命求 3루수), 김정식(金貞植 포수겸 중견수), 김광수(金廣洙 중견수), 김종세(金鍾世 투수), 이경구(李鯨九 좌익수), 심운영(沈雲榮 2루수), 김종윤(金宗允 1루수), 유재춘(柳再春 중견수겸 포수), 이순재(李櫛宰 우익수)</p> <p>△휘문고보=감독 박석윤(朴錫胤) 및 민병길(閔丙吉 유격수), 이경구(李鯨九 좌익수), 김정식(金貞植 포수), 김종세(金鍾世 투수), 왕명구(王命求 3루수), 심운영(沈雲榮 2루수), 유재춘(柳再春 중견수), 김종윤(金宗允 1루수), 이순재(李櫛宰 우익수)</p>	 <p>제3회 조선중등야구대회에서 우승한 휘문고보 선수들</p> <p>■07.22 메이저리그 최초 3,000탈삼진 워싱턴 세너터스 소속 월터 존슨이 메이저리그 사상 최초로 개인 통산 3,000 탈삼진 기록</p> <p>■10.28 제1회 중학육상경기대회 개최 연희전문 주최,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8개교가 출전한 가운데 연희전문 운동장에서 3일간 개최</p> <p>■11.28 조선체육회 임원 개선 조선체육회가 이사회를 열고 제3대 회장에 최린(崔麟)을 선출</p>
08.01	<p>■ 게이오(慶應)대·도쿄(東京)구락부초청경기 경성일일신문사(경성일보사 전신) 주최로 8월 1일부터 8일까지 용산 만철구장에서 개최, 게이오대가 2전 전패, 도쿄구락부는 2전 전승을 기록</p> <p>▲1차전=만철 10-1 게이오대 ▲2차전=전배재 1-17 도쿄구락부 ▲3차전=전휘문 5-2 게이오대 ▲4차전=전휘문 3-12 도쿄구락부</p> <p>△전휘문=정인규(유격수), 이경구(좌익수), 김정식(포수), 김종세(투수), 왕명구(3루수), 심운영(2루수), 김종윤(1루수), 유재춘(중견수), 이순재(우익수)</p>	
08.17	<p>■ 휘문고보, 중학야구 첫 전국중등우승대회 출전 아사히신문사 주최로 8월 17일 오사카 나루오(鳴尾)구장에서 벌어진 제9회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8월 17~20일)에 휘문고보가 조선대표로 출전, 2회전에서 만주대표 다렌(大連)상업을 9-4로 격파하고 3회전인 준준결승전에 진출, 8월 18일 벌어진 리츠메이칸(立命館)중과의 3회전에서 주전 포수이자 강타자인 김정식이 전 날(다렌상업전) 입은 부상으로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채 역전 패(5-7)를 당해 탈락</p> <p>▲1회전=부전승 ▲2회전=휘문고보 9-4 다렌상업 ▲3회전 리츠메이칸(立命館)중 7-5 휘문고보</p> <p>△휘문고보=감독 박석윤 및 정인규(鄭麟奎 유격수), 왕명구(3루수), 김정식(포수겸 중견수), 김광수(金廣洙 중견수), 김종세(투수), 이경구(좌익수), 심운영(2루수), 김종윤(1루수), 유재춘(중견수겸 포수), 이순재(우익수)</p>	 <p>일본 오사카 나루오(鳴尾)구장에서 열린 제9회 전일본중등우승대회 2회전 다렌상업과 경기중인 휘문고보 덕 아웃.</p>
1924. 05.15	<p>■ 제5회 전조선야구대회 조선체육회 주최로 5월 15일부터 배재고보운동장에서 열린 제5회 전조선야구대회부터 소학단(초등학교)을 신설, 1회전서 부전승으로 결승전에 진출한 인천공보가 협성보교를 10-7로 꺾고 첫 우승. 중학단에서는</p>	<p>■01.07 제1회 샤모니 동계올림픽대회 프랑스 샤모니에서 16국 5개 종목에 294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p> <p>■01.18 경성운동장 건설 예고</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배재고보가, 청년단에서는 대구청년회가 첫 우승 ◇소학단=인천공보, 협성보교, 공옥보교 ▲1회전=인천공보 부전승, 협성보교 13-5 공옥보교 ▲결승전=인천공보 10-7 협성보교 △인천공보=최점석(崔點石 유격수), 김순성(金順成 중견수), 안석창(安石昌 포수), 김정하(金鼎河 3루수), 안재순(安在順 투수), 김순봉(金順奉 1루수), 장석원(張錫源 좌익수), 서한조(徐漢祚 2루수), 김동혁(金東赫 우익수) ◇중학단=중앙고보, 배재고보, 휘문고보 ▲1회전=휘문고보 부전 승, 배재고보 25-2 중앙고보 ▲결승전=배재고보 22-2 휘문고보 △배재고보=김낙현(유격수), 박정근(중견수), 이영민(李榮敏 3루수), 백기주(白基柱 투수), 함용화(포수), 최소준(崔小俊 1루수), 한홍이(좌익수), 이보운(李寶運 2루수), 김지환(金子煥 우익수) ◇청년단=조선야구단, 세브란스의전, 태화교청년단, 대구청년회 ▲준결승전=대구청년 13-0 태화교청년, 조선야구단 10-6 세브란스 ▲결승전=대구청년회 10-3 조선야구단 △대구청년회=서병언(徐炳彦 2루수), 최세원(1루수), 서상철(徐相喆 유격수), 김명갑(金命甲 3루수), 김기조(우익수), 이인복(좌익수), 정원조(중견수), 백효득(白孝得 포수), 정용준(丁龍俊 투수)</p>	<p>경성부가 동대문 안 훈련원 자리에 운동장 건설을 예고</p> <p>■01.26 조선 최초 탁구대회 개최 일본인 경영 경성일일신문사 주최로 경성 공회당에서 제1회 탁구대회를 개최</p> <p>■05.03 제8회 파리 올림픽대회 프랑스 파리에서 44개국 19종목에 3,075 명이 출전한 가운데 개최</p>  <p>제5회 전조선야구대회 결승전에서 이영민, 백기주, 함용화가 포진한 배재고보가 휘문고보를 22-2로 격파하고 우승을 차지했다.</p> <p>■06.14 제1회 전조선육상대회 개최 조선체육회 주최로 3일간 휘문고보 운동장에서 개최</p>
06.02	<p>■ 중앙기독교청년회(YMCA) 하와이 원정경기 6월 2일 허성을 단장으로 매니저 김영술(金永述), 주장 윤치영 및 박석윤(투수), 박석기(포수), 박천병(1루수), 박안득(朴安得 2루수), 서상철(3루수), 정인규(유격수), 이경구, 마춘식, 김성환, 차세진(車世進 이상 외야수) 등이 남대문역 출발, 하와이에서 미해군, 중국인, 일본인, 원주민 및 포르투갈 연합팀과 9차전을 가진 끝에 2승1무6패(전적 미상)를 기록한 뒤 9월 9일 귀국</p>	 <p>하와이에 도착한 YMCA 원정야구단. 이들은 현지 교포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p> <p>■06.24 조선체육회 정기 총회 오후 3시 돈의정 명월관에서 이상재(李商在)를 회장에 선임했으나 7일간 재직 후 사임</p>
06.27	<p>■ 제1회 전조선전문학교야구대회 경성일보사 주최, 조선체육협회 후원으로 경성고등공업, 경성고등상업, 경성의학전문 등 3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중 운동장에서 개최, 6월 28일 열린 결승전에서 경성고등공업이 경성고등상업을 28-14로 격파하고 우승 ▲1회전=고등공업 14-3 경성의전 ▲결승전=고등공업 28-14 고등상업</p>	<p>■07.01 조선체육회 회장 선임 조선체육회가 이사회를 열고 제4대 회장에 박창하(朴昌夏)를 선임</p>
07.26	<p>■ 제4회 조선중등학교대회 겸 제10회 전국중등우승대회 조선예선전 조선체육협회 주최로 7월 26일부터 3일간 경성중, 배재고보, 인천상업, 평양중, 부산상업, 용산중 등 6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용산 만철구장에서 개최, 결승전에서 경성중이 심판의 편파 판정에 경기를 포기한 배재고보에 기권 우승, 제10회 전국중등학교우승야구대</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회 출전권 획득 ▲2회전=경성중 5-0 용산중, 배재고보 9-8 부산상업 ▲결승전=경성중 9 (기권 승) 0 배재고보 △배재고보=백기주(투수), 박정근(중견수), 함용화(포수), 이영민(유격수), 최재은(崔在殷 1루수), 이보운(2루수), 김상윤(金尙潤 3루수), 최소준(우익수), 한홍이(좌익수)	
08.13	■ 제10회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 아사히신문사가 8월 13일 오사카 고시엔(甲子園)구장에서 개최한 제10회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에 경성중학이 조선대표로 출전, 1회전에서 돛도리(鳥取)중에 0-10으로 패해 탈락 △경성중=이와키(岩城 유격수), 쓰치야(土谷 우익수), 모리모토(森元 중견수), 이시(石 포수), 다카하시(高橋 투수), 후쿠나가(福永 2루수), 하시노(箸野 3루수), 요코야마(横山 1루수), 요시모토(吉本 좌익수)	■ 08. 일본 고시엔(甲子園) 야구장 완공 1924년 8월 한신(阪神)전기철도가 효고(兵庫)현 니시노미야(西宮)시 고시엔에 건설한 고시엔구장이 완공 ■ 10.15 월간 ‘朝鮮體育會’ 창간 조선체육회에서 체육 기관지를 처음 발행 ■ 10.30 이영민, 전조선축구대회 출전 조선체육회가 주최한 제5회 전조선축구대회(10월 30일~11월 2일 배재구장)에 배재고보 라이트 윙으로 출전, 결승전에서 평양고보를 3-0으로 꺾고 우승
09.14	■ 제1회 전조선야구쟁패전 경성일보사 매일신보사 공동 주최로 9월 14일부터 조선 각 도에서 예선을 거쳐 올라온 경중구락부, 전대구, 전평양, 함흥체협 등 4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용산 만철구장에서 개최, 9월 15일 열린 결승전에서 경성중 OB팀인 경중구락부가 전대구를 2-1로 물리치고 우승 ▲1회전=전대구 12-1 전평양, 경중구락부 30-2 함흥체협 ▲결승전=경중구락부 2-1 전대구	■ 내셔널리그 MVP시상 제도 채택 내셔널리그도 최우수선수(MVP) 시상 제도를 채택, 다승(28)과 탈삼진(262) 부문에서 타이틀을 차지한 브루클린 다저스의 대지 밴스가 최초로 수상 ■ 11.13 조선체육회 임시 총회 조선체육회가 제8차 임시 총회를 열고 새 임원 20명을 선출 △회장=이동식(李東植) △부회장=김규면(金圭冕), 이병의(李丙義)
11.10	■ 제1회 고려-배재야구대항전 정동 배재고보 운동장에서 고려구락부와 배재고보의 대항전이 아펜셀라의 시구로 개막, 고려구락부가 8-2로 리드한 가운데 일몰로 5회에 경기 종료 ▲고려구락부 8-2 배재고보 △고려구락부=이경구(중견수), 정훈(2루수), 김정식(포수), 김종세(유격수), 이순재(우익수), 차세진(좌익수), 유재춘(1루수), 민용규(閔鏞圭 2루수), 박석윤(투수) △배재고보=김낙현(좌익수), 백기주(투수), 함용화(포수), 이영민(유격수), 최재은(1루수), 조태순(趙泰淳 2루수), 김상윤(3루수), 최소준(우익수), 박정근(중견수)	
1925. 03.	■ 연희전문 야구부 재결성 연희전문이 유억겸(俞億兼) 학감의 적극적인 후원하에 힘입어 이영민(李榮敏)을 스카우트, 투수 최규남(崔奎南)을 축으로 이보운(포수), 이한상(李漢相 1루수), 박병하(朴炳夏 2루수), 변봉소(邊鳳韶 3루수), 이기동(李基東 좌익수), 이용겸(李用謙 중견수), 김영성(金永成 우익수) 등과 야구부를 재건	■ 02.27 관서(關西)체육회 창립 평양기독교청년회에서 창립 총회를 개최, 회장으로 정세윤(鄭世胤)을 추대한 뒤 야구, 정구, 축구, 육상경기, 빙상, 배구, 농구부를 설치
03.	■ 경성운동장 건설공사 착공 1923년부터 훈련원 기념 그라운드 건설을 위해 대지 2만5,000여평 가운데 2,500평을 평당 8~17원에 매입, 3월초 경성부가 공사비 25만원을 들여 공사 착수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3.05	<p>■ 조선 최초 여자야구경기 마산 의신(義信)여학교 졸업생 14명이 진주에서 시원(柴園)여학교 학생들과 야구경기를 가져 48-40으로 승리</p>	<p>■ 03.30 조선체육회 임원 개선 제6대 회장에 김규면(金圭冕) 취임, 3개월 4일 재임</p>
05.30	<p>■ 대구소년야구대회 개최 대구운동협회 주최 동아일보 대구지국 후원으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8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동운정(東雲町) 공설운동장에서 개최, 결승전에서 수창학교가 3년 연속 우승으로 우승기 영구 보관 ▲ 준결승전=수창(壽昌), 2-0 아동(亞東), 해성(海星), 6-4 보통(普通) ▲ 결승전=수창 4-3 해성 △ 수창=박의원(朴義元 투수), 하익경(河益景 포수), 백상기(白商基 1루수), 도돌소(都斗鎬 2루수), 박성학(朴盛學 3루수), 편순윤(片順潤 유격수), 김세문(金世文 좌익수), 구재문(具在文 중견수), 이동수(李東守 우익수) △ 해성=김계석(金季錫 투수), 박상룡(朴相龍 포수), 최웅렬(崔雄烈 1루수), 현달도(玄達道 2루수), 이말술(李末述 3루수), 백남식(白南植 유격수), 오무조(吳武祚 좌익수), 김이도(金以道 중견수), 김태암(金泰岩 우익수)</p>	
06.11	<p>■ 배재고보 인천원정경기 6월 11일 인천에 원정, 산근정(山根町) 공설운동장에서 인천남상업과 경기를 가진 끝에 9-0으로 승리</p>	
06.17	<p>■ 제1회 중등학교 야구리그 창설 조선일보사 주최 제1회 중등학교야구리그가 6월 17일부터 배재, 중앙, 휘문, 경신, 양정고보 등 5개 교가 출전한 가운데 배재고보운동장에서 풀 리그로 개최, 6월 30일 휘문고보운동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중앙고보가 4전 전승으로 우승 ▲ 종합 전적=①중앙고보(4전 전승) ②배재고보(3승1패) ③양정고보(2승2패) ④휘문고보(1승3패) ⑤경신고보(4전 전패) △ 중앙고보=김태호(金泰浩 3루수), 문갑돌(文甲鬪 투수겸 1루수 및 좌익수), 김영길(金榮吉 유격수), 전돈(全燾 중견수), 최삼준(崔三俊 1루수겸 좌익수), 우재석(禹在奭 우익수), 문국(文國 1루수), 정완기(鄭完基 2루수), 김형량(金亨亮 2루수겸 우익수), 박칠복(朴七福), 이양선(李暘善 이상 포수), 김수영(金壽永 투수) △ 배재고보=박정근(중견수), 이세문(李世文 1루수겸 우익수), 백기주(유격수겸 투, 포수), 정용준(투수겸 유격수), 김낙현(포수), 장병선(張炳善 포수겸 1루수 및 유격수), 이윤식(李允植 좌익수), 박기수(朴玟壽 2루수), 이광래(李光來 유격수), 이용식(李龍植 우익수), 김상윤(金尙潤 3루수), 홍봉기(洪鳳基 3루수겸 좌, 우익수)</p>	<div data-bbox="970 1218 1474 1518" data-label="Image"> </div> <p>조선일보사가 창설한 중등야구리그, 배재고와 휘문고보(결승전) 운동장에서 열린 제1회 대회는 중앙고보가 4전 전승으로 우승했다.</p> <div data-bbox="970 1688 1474 2011" data-label="Image"> </div> <p>제1회 중등학교야구리그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중앙고보 선수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양정고보=송한홍(宋漢鴻 중견수), 손팔조(孫八祚 우익수), 백남식(白南植 포수), 김윤권(金潤權 1루수), 서병인(徐丙麟 유격수), 김기동(金基東 3루수겸 투수), 지성룡(池成龍 투수겸 3루수), 신용훈(辛龍薰 좌익수), 윤명환(尹命煥 2루수겸 중견수)</p> <p>△휘문고보=민용규(閔鏞圭 유격수), 최장춘(崔長春 중견수), 오용건(吳龍乾 2루수), 오봉은(吳奉殷 2루수겸 좌익수), 이진형(李璉亨 투수), 조을범(趙乙範 1루수겸 3루수), 양삼식(梁三植 3루수), 유학곤(柳學坤), 안복암(安福岩 이상 포수), 경재창(景在昶 좌익수), 홍순철(洪淳哲 우익수), 전형필(全滢弼 1루수)</p> <p>△경신고보=김남규(金南奎 포수겸 투수), 임종남(林鍾南 투수겸 포수), 송세영(宋世英), 김순희(金淳熙 이상 유격수), 강태훈(姜泰勳 3루수겸 포수), 황백수(黃白壽 1루수겸 좌익수), 이인호(李仁浩 1루수), 이창준(李昌俊 좌익수), 함시영(咸始永 우익수), 김병호(金炳鎬), 이현재(李炫宰 이상 2루수), 이영선(李永善 중견수)</p>	 <p>제1회 중등야구리그에서 우승한 중앙고보 주장에게 우승 컵을 시상하고 있는 조선일보사 이상재(李商在) 사장</p>
06.22	<p>■ 조선 최초 야구심판 강습회 조선체육회 주최로 6월 22일 오후 1시 기독교청년회에서 일본 다카라즈카협회 고노(河野) 심판을 초청, 조선 최초로 야구심판 강습회를 개최. 참가비 50전</p>	
06.23	<p>■ 다카라즈카(寶塚)운동협회 초청경기 조선신문사 초청으로 6월 23일부터 국내 실업 및 중학선발 팀과 용산 철도구장에서 5차전을 개최, 6월 29일 열린 최종일 경기에서 경희군을 11-3으로 꺾고 5전 전승을 기록</p> <p>▲1차전=다카라즈카 5-0 용산철도 ▲2차전=다카라즈카 5-4 용산철도 ▲3차전=다카라즈카 18-3 조선 중학선발 ▲4차전=다카라즈카 3-0 경희(慶熙 경성중 OB) ▲5차전=다카라즈카 11-3 경희</p> <p>△다카라즈카=가타오카(片岡 포수), 노하라(野原 유격수), 손효준(孫孝俊 중견수), 오이(大井 투수), 정인규(鄭麟奎 3루수), 도미츠카(富塚 2루수), 함용화(咸龍華 1루수), 오쿠무라(奥村 우익수), 김정식(金貞植 좌익수), 마에다(前田 포수), 마루야마(丸山 투수)</p> <p>△조선중학선발=박정근(중견수), 유재춘(포수) 백기주(투수), 이영민(3루수), 정용준, 민용규(이상 유격수), 김남규(좌익수), 김영길(2루수), 김태호(우익수), 김수영(투수)</p>	
06.30	<p>■ 제2회 전조선전문학교야구대회 조선인 전문학교인 연희전문과 세브란스의전이 불참한 가운데 일본인 전문학교만 출전, 결승전에서 경성고상과 경성대 예과가 7-7로 비겨 공동 우승</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7.28	<p>■ 제5회 조선중등학교대회 제11회 전국중등우승대회 조선예선전 조선체육협회 주최로 7월 28일부터 3일간 7개 중학 팀(경성, 인천상, 경성사범, 배재고보, 용산, 부산, 원산 중)이 출전한 가운데 용산 만철구장에서 개최, 7월 30 일 끝난 결승전에서 부산중이 경성중을 4-2로 꺾고 우승, 제11회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 진출권 획득 ▲준결승전=경성중 21-13 배재고보, 부산중 23-3 원산중 ▲결승전=부산중 4-2 경성중 △부산중=아사노(淺野 유격수), 요코미치(横道 3루 수), 마쓰나가(松永 투수), 다나카(田中 좌익수), 요코 야마(横山 1루수), 노무라(野村 우익수), 나데(名出 2 루수), 미야마에(宮前 포수), 마츠노(松野 중견수)</p>	 <p>제5회 전국중등대회에서 우승한 부산중 선수들</p>
08.17	<p>■ 게이오(慶應)대유니온초청경기 전조선야구단과 경성중운동장에서 벌어진 이 경기에 다카라즈카의 손효준, 함용화, 정인규, 김정식이 전조 선군에 합류, 게이오대를 10-4로 격파 △전조선군=이경구(중견수), 유재춘(우익수), 정인규 (유격수), 김정식(포수), 함용화(투수), 김영석(金永奭 2 루수), 민용규(3루수), 전형필(1루수), 이진형(유격수), 이순재(좌익수)</p>	
08.18	<p>■ 제11회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 아사히신문사 주최로 8월 18일부터 고시엔구장에서 열린 제11회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에 부산중학이 조 선대표로 출전, 1회전에서 대만 타이베이(臺北)공업을 6-4로 제치고 2회전에 진출했으나 야나이(柳井)중에 3-4로 패해 탈락 ▲1회전=타이베이공업 4-6 부산중 ▲2회전=야나이 중 4-3 부산중</p>	
08.30	<p>■ 제2회 전조선야구쟁패전, 김종세 첫 홈런 경성일보사 매일신보사 공동 주최로 8월 30일부터 3 일간 경성중 운동장에서 개최, 9월 1일 열린 결승전에 서 첫 출전한 전전주(全全州)군의 김종세(金鍾世)가 대 회 첫 홈런 기록 ▲준결승전=전전주 23-4 함흥, 경희 7-4 미쓰비시 ▲결승전=경희 10-8 전전주(8회 일몰)</p>	<p>■ 09.11 조선체육회 임원 개선 제7대 회장에 신흥우(申興雨) 취임</p>
09.27	<p>■ 지방 최초 대교(對校) 경기 전주고보대 이리농업의 야구경기를 전주에서 개최. 전 주고보가 3-2로 이긴 이 경기는 지방 학교가 최초로 학교끼리 맞선 대교 경기의 효시</p>	
10.15	<p>■ 조선 최초 종합 운동장(경성운동장) 준공 조선 최초 종합 운동장이 2만 5천평의 대지에 건설 비 14만 4천 49원의 공사비를 들여 야구장(수용 인원 5,800명)을 비롯해 육상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 5개 경기장을 갖춘 경성운동장 준공. 10월 15일 운동장</p>	 <p>10월 15일 준공을 본 훈련원운동장 야구장</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개장식을 갖고 첫 대회로 일본인들이 제1회 조선신궁(神宮)경기대회(일본인 체육단체인 조선체육협회가 경성운동장 준공을기념, 제1회 대회를 조선인들이 불참한 가운데 일본인들끼리 개최)를 개최</p>	
10.15	<p>■ 제6회 전조선야구대회, 연희전문 첫 우승 조선체육회 주최로 10월 15일부터 13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배재고보 운동장에서 개최, 10월 17일 열린 결승전에서 진남포공보(소학단)와 배재고보(중학단)가 우승, 전문단과 청년단에서는 첫 출전한 연희전문과 서울구락부가 우승 ◇ 소학단=인천공보, 신명학교, 진남포공보 등 3개 교가 출전, 결승전에서 진남포공보가 인천공보를 14-12로 제치고 우승 ▲ 1회전=진남포공보(부전 승), 인천공보 22-1 신명학교 ▲ 결승전=진남포공보 14-12 인천공보 ◇ 중학단=양정고보, 경신학교, 배재고보 등 3개 교가 출전, 결승전에서 배재고보가 양정고보를 21-6으로 격파하고 우승 ▲ 1회전=배재고보(부전 승), 양정고보 7-2 경신학교 ▲ 결승전=배재고보 21-6 양정고보 △ 배재고보=김낙현(포수), 박정근(중견수), 백기주(유격수), 정용준(丁龍俊 투수), 권정규(權正奎 좌익수), 장병선(1루수), 김성두(金性斗 우익수), 김상윤(金尙潤 3루수), 최인봉(崔仁峯 2루수) ◇ 전문단=연희전문, 세브란스의전이 출전, 연희전문이 세브란스의전을 18-1로 격파하고 우승 ▲ 연희전문 18-1 세브란스의전(6회 기권 패) △ 연희전문=변봉소(3루수), 이보운(포수), 최규남(투수), 이영민(유격수), 이용겸(중견수), 박병하(2루수), 김영성(우익수), 이한상(1루수), 이기동(좌익수) ◇ 청년단=전개성, 서울구락부, 전경신, 대구청년회, 고려구락부 등 5개 팀이 출전, 결승전에서 서울구락부가 대구청년회를 11-5로 제치고 우승 ▲ 2회전=서울(추첨 승), 대구 10-4 고려 ▲ 결승전=서울 11-5 대구 △ 서울구락부=정훈(2루수), 박점수(1루수), 마춘식(유격수), 한기호(韓麒鎬 3루수), 김범산(金範山 투수), 최기복(崔基福 중견수), 김영석(우익수), 박수억(朴壽億 좌익수)</p>	 <p>배재고보 운동장에서 벌어진 전개성-서울구락부 1회전 경기. 배재 출신들이 주축이 된 서울구락부는 10-0으로 전개성을 격파하고 2회전에 진출.</p>
10.22	<p>■ 미국 시카고대초청경기 와세다대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한 시카고대학 팀이 와세다, 메이지, 게이오대 등과 경기를 펼쳐 7승2무5패 후 인본인 체육단체인 조선체육협회 초청으로 내한, 대구(10월 22일), 경성(10월 23~26일)에서 일본인 팀들과 경기를 가져 5전 전승, 10월 28일 경성운동장에서 열린 조선대표 경성군과의 경기에서도 11-2로 승리해 내한 전적 6전 전승을 기록 ▲ 1차전(10월 22일 대구 동운정운동장)=시카고대</p>	<p>■ 10.16 조선축구단 최초 일본 원정 이영민을 비롯한 일행 18명이 일본에 원정, 도쿄고등사범을 비롯해 8개 팀과 경기를 가진 뒤 10월 31일 5승3무의 전적을 안고 귀국</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9-1 전대구 ▲2차전(10월 23일 경성운동장)=시카고대 9-6 다카라즈카(寶塚 손효준, 정인규, 김정식 출전) ▲3차전(10월 24일 경성운동장)=시카고대 14-4 전경성(일본인) ▲4차전(10월 26일 경성운동장)=시카고 7-4 다카라즈카 ▲5차전(10월 27일 경성운동장)=시카고 4-3 철도국 ▲ 6차전(10월 28일 경성운동장)=시카고 11-2 전경성군</p> <p>△경성군=정인규(鄭麟奎 유격수), 마춘식(馬春植 우익수), 손효준(孫孝俊 포수), 서상국(徐相國 중견수), 김정식(金貞植 좌익수), 함용화(咸龍華 1루수), 이경구(李鯨九 2루수), 김수영, 백기주(이상 투수), 이영민(李榮敏 3루수)</p>	 <p>시카고대와 전경성군의 경기를 보기 위해 경성운동장 야구장을 찾은 많은 관중들. 시카고대학 팀이 11-2로 승리</p>
11.23	<p>■ 미국여자야구단초청경기 일본어 신문 조선신문사가 초청, 동아일보의 주선으로 방한한 미국여자야구단은 미국(4명) 일본(5명) 선수가 뒤섞인 미국과 일본의 혼성팀. 조선 국가대표 급인 서울군에게 5-7로 패배</p> <p>△서울군=박점수(朴點壽 1루수), 백기주(유격수), 이영민(3루수), 서상국(중견수), 이태웅(李泰雄 좌익수), 백효득(白孝得 포수), 김태호(2루수), 김범산(金範山 우익수), 김수영(金壽永 투수)</p>	 <p>미국여자야구 선수들의 경기를 보기 위해 경성운동장 야구장에 운집한 관중들</p>
1926. 05.22	<p>■ 중앙고보-휘문고보대항경기 조선일보사 주최로 5월 22일 휘문고보 운동장에서 개최, 중앙고보가 10-4로 승리</p>	<p>■ 04.26 순종(純宗)황제 승하(昇遐) 오전 6시 10분 창덕궁 대조전에서 53세를 일기로 승하하자 인산(因山·6월 10일)이 끝날 때까지 모든 체육행사 중지</p>
06.20	<p>■ 제1회 전인천소년대회 동아일보 인천지국이 주최하고 인천조선소년군이 후원한 제1회 전인천소년야구대회가 6월 20일 오전 9시부터 산근정(山根町) 운동장(웃터골)에서 의용(義勇), 사정(寺町)소년대, 소년(少年), 을봉(乙蜂), 만석정(萬石町)소년대, 타이거, 용승(勇勝), 노봉(怒蜂) 등 8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개최, 오후 4시에 열린 결승전에서 만석정소년대가 용승군을 17-4로 격파하고 우승</p>	<p>■ 06.10 '6.10 만세 사건' 순종의 인산(因山) 일 오전 8시 30분경 순종의 상여가 종로 3가 단성사 앞을 지날 때 중앙고보 학생 300여명이 '조선독립만세'를 부르고 격문을 뿌리며 시위를 감행한 학생들의 항일독립만세 사건</p> <p>■ 06.13 이영민, 육상 400m 신기록 제2회 조선·만주대항육상선수권대회(경성운동장)</p>
06.27	<p>■ 제2회 중등학교야구리그 조선일보사 주최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양정고보, 중앙고보, 휘문고보가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더블 리그로 개최, 중앙고보가 3승1패로 휘문고보를 누르고 대회 2연패</p> <p>▲종합 전적=①중앙고보(3승1패) ②휘문고보(2승2패) ③양정고보(4패)</p> <p>△중앙고보=김태호(유격수), 박칠복(포수), 문갑돌(투수), 김영길(3루수), 최삼준(중견수), 우재석(우익수), 강원(姜元 1루수), 이수출(李秀出 2루수), 홍문길(洪文吉 좌익수)</p> <p>△휘문고보=민용규(유격수), 최장춘(崔長春 중견수), 오봉은(좌익수), 유학곤(포수), 강세희(姜世熙 3루수),</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박영희(朴瑛熙 투수), 배진업(裴進業 2루수), 안복암(安福安 1루수), 경재창(ung익수)	
07.07	■ 코로(廣陵)중학초청경기 경성일보사가 일본 전국중등학교선발야구대회 우승 팀 코로중을 초청, 7월 7일부터 경성운동장에서 전조선중학리그 우승 팀 중앙고보 등과 6차전을 가진 끝에 3승3패를 기록 ▲1차전=코로중 14-1 중앙고보 ▲2차전=코로중 14-13 전인천 ▲3차전=코로중 6-8 식산은행 ▲4차전=코로중 4-2 철도국 ▲5차전=코로중 7-18 경희구락부 ▲6차전 코로중 4-5 경희구락부	■ 메이저리그 사상 최연소 대타 뉴욕 자이언츠의 멜 오프가 메이저리그 사상 최연소인 17세의 어린 나이에 대타로 출전
07.29	■ 제6회 조선중등학교대회 제12회 전국중등우승대회 조선예선전 조선체육협회 주최로 7월 28일부터 10개 중학 팀(대구, 이리농림, 경성, 부산, 원산, 경신학교, 부산상업, 용산, 경성사범, 인천상업)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8월 4일 열린 결승전에서 경성중이 부산상업을 5-2로 제치고 우승 ▲준결승전=경성중 3-0 부산중, 부산상업 5-3 용산중 ▲결승전=경성중 5-2 부산상업 △경성중=요코야마(橫山 포수), 스즈키(鈴木 좌익수), 고스기(小杉 투수겸 유격수), 고스기(小杉 2루수), 이와키(岩城 유격수겸 투수), 시미즈(清水 중견수), 아라이(新井 2루수), 마쓰무라(松村 3루수), 나가토모(長友 1루수), 미와(三輪 우익수)	■ 08.26 더블 헤더 연속 완투 승 클리블랜드의 더치 레브슨이 하루에 벌어진 더블 헤더에 연속으로 등판하여 2연속 완투승을 기록  제6회 전조선중등야구대회 결승전에서 부산상업을 5-2로 꺾고 우승을 차지한 경성중 선수들
08.17	■ 제12회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 아사히신문사 주최로 8월 17일부터 열린 제12회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에 경성중이 조선대표로 출전, 1회전에서 아사히카와(旭川)상업을 16-8로 꺾고 2회전에 진출, 8월 18일 열린 2회전에서 만주대표 다렌(大連)상업에 3-17로 패해 탈락 ▲1회전=경성중 16-8 아사히카와상업 ▲2회전=경성중 3-17 다렌상업	
08.25	■ 제1회 4구락부연맹전 동아일보사가 경성의 4개 사립중학 재학생과 졸업생이 출전하는 4구락부 연맹전을 창설, 고려구락부(휘문), 중앙구락부(중앙), 경신구락부(경신), 서울구락부(배재)가 출전한 가운데 휘문고보운동장(8월 25~28일)과 경성운동장(8월 29일~9월 1일)에서 더블리그로 개최, 9월 1일 열린 최종일 경기에서 서울구락부(배재)가 고려구락부를 8-6으로 꺾고 6전 전승으로 우승 ▲종합 전적=우승 서울구락부(6승), 준우승 고려구락부(4승2패), 3위 중앙구락부 2승4패(3위), 4위 경신구락부(6패) △서울구락부=감독 마춘식(馬春植) 및 마춘식(중견수 겸 3루수), 박점수(1루수), 이영민(李榮敏 3루수겸 유	 첫 선을 보인 제1회 4구락부연맹전. 휘문고보 운동장에서 열린 고려(휘문)군-경신군 경기에서 고려의 정인규가 공격을 하고 있다. 경신의 포수는 김남규, 심판은 손효준. 이 경기에서 고려군은 15-6으로 꺾고 승리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격수및 포수), 함용화(咸龍華 포수겸 투수), 백기주(유격수겸 투수), 김낙현(金洛顯 2루수겸 우익수및 포수 겸 중견수), 권정규(權正奎), 박수억(朴壽憶 이상 좌익수), 한기호(韓麟鎬), 김성복(金聖福), 박수억(朴壽憶 이상 우익수), 송세범(宋世範 중견수겸 2루수), 정훈(鄭堧), 최기복(崔基福), 백효득(白孝得 2루수), 김영석(金永奭 투수겸 우익수), 김범산(金範山), 이혜택(李惠澤 이상 투수)</p> <p>△고려구락부=감독 박필호(朴弼浩) 및 정인규(鄭麟奎), 강세희(이상 3루수), 이경구(李鯨九), 홍순철(이상 좌익수), 김정식(金貞植 포수겸 우익수및 중견수), 김종세(金鍾世 2루수겸 투수및 우익수겸 1루수), 왕명구(王命求), 김진석(金振奭), 최장춘(이상 2루수), 한기준(韓基俊 2루수겸 투수및 1루수), 홍명철(洪命喆 투수겸 우익수및 중견수), 민용규(중견수겸 유격수), 이순재(李櫛宰 유격수겸 우익수), 이진형(투수겸 우익수), 김광수(金廣洙 우익수겸 투수), 유학곤(포수), 유재춘(柳再春 1루수겸 포수)</p> <p>△중앙구락부=감독 서상국(徐相國) 및 김태호(투수겸 유격수및 좌익수), 박석기(朴錫紀 포수겸 투수및 2루수), 김문량(金文亮 좌익수겸 포수), 서상국(2루수겸 투수및 중견수겸 유격수), 김영길(金榮吉 3루수), 박천병(朴天秉 중견수겸 우익수), 김수영(金壽永 투수겸 2루수및 포수), 조용림(趙容林 우익수), 홍문길(우익수겸 중견수), 문동표(文東彪 2루수겸 투수), 정문기(鄭文基 2루수겸 우익수), 최계순(崔季淳 포수), 문갑돌(文甲墺 1루수)</p> <p>△경신구락부=김주식(金洲植 중견수겸 포수), 이석효(투수겸 우익수및 2루수), 이종호(李鍾鎬), 백인봉(이상좌익수), 이태훈(李泰薰 2루수겸 좌익수), 황백수(1루수), 이진규(李眞圭 좌익수겸 1,2루수및 투수), 강태훈(康泰勳 중견수겸 2루수), 정보라(중견수겸 좌익수), 차세진(車世進 우익수겸 투수), 임종남(林鍾南 우익수겸 중견수및 투수), 함시영(우익수겸 중견수), 송기우(宋基宇 유격수), 김희천(金熙天), 김재신(金宰辛), 김철만(이상 3루수), 김남규(포수)</p>	<p>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p>  <p>제1회 4구락부연맹전 고려-서울구락부전에서 고려구락부의 김정식이 도루에 성공하는 순간</p>  <p>4구락부연맹전 최종일 경기를 보기 위해 몰려든 관중들과 스코어 보드</p> <p>■09.24 평양공설운동장 개장 평양 기림리(箕林里)에 건설중이던 운동장을 완공. 9월 29일 개장 기념 야구대회 개최</p> <p>■09.26 메이저리그 최단시간 더블 헤더 세인트루이스 브라운스와 뉴욕 양키스가 2연속 경기를 2시간 7분만에 끝내 메이저리그 사상 최단시간 더블 헤더로 기록</p>  <p>경성운동장에서 처음으로 열린 제7회 전조선야구대회 입장식. 1925년 10월에 완</p>
08.29	<p>■제3회 전조선야구쟁패전 경성일보사 매일신보사 공동 주최로 8월 29일부터 용산철도, 경희구락부, 울전주, 부산철도, 전함흥, 검이포, 전대구 등 7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8월 31일 열린 결승전에서 경희구락부가 울전주를 2-1로 제치고 우승 ▲준결승전=울전주 8-0 전대구, 경희구락부 14-0 용산철도 ▲결승전=경희구락부 2-1 울전주</p>	
10.21	<p>■제7회 전조선야구대회 (소학단 조선 최초 연식 공 사용) 조선체육회 주최로 10월 21일부터 3일간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중학단에선 중앙고보가, 청년단에선 휘문</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고보 계열인 서울구락부가 각각 첫 우승 ▲소학단=진남포공보, 정동공보, 수송공보, 죽첨공보 등 4개 교가 출전, 결승전에서 진남포공보가 수송공보를 4-2로 물리치고 우승 △진남포공보=김서봉(金瑞鳳 포수), 김원모(金元模 투수), 박응봉(朴應鳳 2루수), 오명환(吳明煥 1루수), 이동고(李東古 유격수), 임성운(林成雲 좌익수), 임양운(林養雲 3루수), 고운환(高雲煥), 박명신(朴明信 이상 중견수), 최명근(崔明根 우익수) ▲중학단=경신고보, 배재고보, 중앙고보, 양정고보 등 4개 교가 출전, 결승전에서 중앙고보가 경신학교를 4-2로 격파하고 대회 첫 우승 △중앙고보=김태호(유격수겸 좌익수), 우재석(禹在奭 좌익수), 김영길(2루수겸 유격수), 김수영(투수), 박칠복(朴七福 포수), 홍문길(좌익수), 최삼준(崔三俊 중견수), 이수출(李秀出 우익수겸 2루수), 강원(姜元 3루수), 문갑돌(文甲璜 1루수겸 좌익수) ▲전문단=연희전문 1개 교가 출전, 부전승으로 우승 ▲청년단=서울구락부, 고려구락부 2개 팀이 출전, 고려구락부가 결승전에서 서울구락부를 14-2로 꺾고 대회 첫 우승 △고려구락부=이경구, 홍순철(이상 좌익수), 유재춘(1루수), 정인규(3루수), 김진규(金眞圭), 김찬성(이상 2루수), 이진형(투수), 민용규(유격수), 안복암(포수), 최장춘, 오봉은(이상 중견수), 이순재(우익수)</p>	<p>공된 경성운동장은 1년이 지난 뒤에 조선인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됐다.</p>  <p>제7회 전조선야구대회 청년단부에 단독 출전, 부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한 연희전문 선수들. 이 사진은 대회 출전을 앞둔 6월에 찍은 것으로 최진(崔震 최인식 선수의 장남)씨가 제공</p>  <p>제7회 전조선야구대회 중등부에서 우승을 차지한 중앙고보 나인들</p> <p>■월드시리즈 한 경기 최다 홈런 뉴욕 양키스의 베이브 루스가 카디널스와의 월드시리즈 4차전에서 3홈런을 터뜨려 한 경기 최다 홈런을 기록, 베이브 루스는 이 시리즈에서 4개의 홈런을 날려 시리즈 최다 홈런도 기록</p>
10.28	<p>■오사카 마이니치(毎日)신문초청경기 조선일보사 주최로 10월 28일 4구락부 선발 조선군과 마이니치가 경성운동장에서 대결, 7회를 마친 뒤 일몰로 조선군이 3-18로 콜드 게임 패 △조선선발군=마춘식(2루수겸 투수), 이경구(좌익수) 손효준(3루수겸 중견수), 서상국(중견수겸 3루수), 백효득(포수), 김수영(우익수겸 2루수), 김영석, 유재춘(이상 1루수), 이진형(투수겸 우익수), 민용규(유격수)</p>	<p>■02.16 조선 최초 경성방송국 개국 경성 정동에 호출부호 JODK, 출력 1KW, 주파수 690kHz로 일본인에 의해 조선 최초로 방송국 개국</p>
1927. 03.25	<p>■경성전기주식회사 야구부 창설 와세다(早稻田)대를 비롯해 야마구치(山口), 경성고상, 후쿠시마(福島)상업, 마쓰야마(松山)상업 등에서 선수들을 스카우트, 야구부를 창설하고 연습에 돌입</p>	
05.18	<p>■제1회 연희전문-경성의전 정기대항전 연희전문-경성의전의 정기대항전을 5월 18일 연연구장에서 개최, 연희전문이 10-4로 경성의전을 격파하고 우승 △연희전문=박정근(朴正根 중견수), 백기주(투수), 이영민(李榮敏 포수), 김영길(3루수), 이영선(李永善 좌익수), 김진석(金振奭 2루수), 최인봉(崔仁峯 우익수), 박칠복(朴七福 1루수)</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5.18	<p>■ 미국 흑인야구단 초청경기 경성일보사가 미국 흑인야구단 '로열 자이언츠(일행 17명)' 를 초청, 5월 18~22일까지 대구, 부산, 경성에서 5차전을 개최한 끝에 전승을 기록, 5월 20일 경성운동장에서 열린 식산은행전에서 캐디가 운동장 개장 이래 처음으로 스코어 보드 앞 펜스를 넘기는 대형 홈런을 기록</p> <p>▲1차전(5월 18일 대구)=자이언츠 14-2 전대구 ▲2차전(5월 19일 부산)=자이언츠 10-0 전부산 ▲3차전(5월 20일 경성)=자이언츠 22-4 식산은행 ▲4차전(5월 21일 경성)=자이언츠 6-0 용산철도 ▲5차전(5월 22일 부산)=자이언츠 17-2 용산철도</p>	
06.03	<p>■ 제8회 전조선야구대회 조선체육회 주최로 6월 3일부터 이틀간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전문단은 연희전문이 2년 연속 단독 출전, 연희전문이 부전승으로 3연패를 달성했으나 전문단 대회는 제8회를 끝으로 폐지</p> <p>▲소학단=진남포공보, 죽첨공보, 정동공보, 공옥보교, 계산보성학교 등 5개 교가 출전, 진남포공보가 결승전에서 정동공보를 7-2로 꺾고 대회 3연패</p> <p>△진남포공보=김천식(金天植 좌익수), 김원모(투수), 고운환(포수), 오명환(1루수), 박응봉(유격수), 이준택(李俊澤 2루수), 박표익(朴彪翼 3루수), 손정만(孫貞萬 중견수), 조창현(趙昌鉉 우익수)</p> <p>▲중학단=경신고보, 배재고보, 양정고보, 중앙고보, 휘문고보 등 5개 교가 출전, 결승전에서 휘문고보가 중앙고보를 3-2로 제치고 1923년 이후 4년 만에 3번째 우승</p> <p>△휘문고보=민용규(유격수), 최장춘(중견수), 유학곤(1루수), 이진형(투수), 강세희(姜世熙 3루수), 안복암(포수), 홍순철(洪淳哲 좌익수), 오용건(우익수), 백용득(白龍得 2루수)</p> <p>▲청년단=고려구락부, 서울구락부, 전연희구락부 등 3개 팀이 출전, 전연희구락부가 결승전에서 서울구락부를 10-8로 물리치고 첫 우승</p> <p>△연희구락부=김태호(유격수), 박정근(朴正根 중견수), 백기주(투수), 이영민(李榮敏 포수), 김영길(3루수), 이영선(李永善 좌익수), 김진석(金振奭 2루수), 최인봉(崔仁峯 우익수), 박칠복(1루수)</p>	 <p>1927년 경성운동장. 많은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8회 전조선야구대회가 열리고 있다.</p>
06.11	<p>■ 조선실업야구연맹 창립 경성 소재 일본인 실업 팀이 조직한 단체로 6월 11일부터 이틀간 용산 철도구장에서 창립 기념 대회 개최 (1932년 2월 연맹 해산)</p>	
06.26	<p>■ 제2회 전인천소년대회 동아일보 인천지국 주최, 인천소년군 후원으로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화평리(花平里)1부, 화평리2부, 사정(寺町)1부, 사정2부, 타이거, 용승(勇勝), 선인(善</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仁), 신화수리(新花水里), 도산(桃山)소년단 등 9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산근정 운동장에서 개최. 결승전에서 신화수리군이 사정1부군을 11-5로 격파하고 우승</p>	
07.17	<p>■ 일본 야와타(八幡)제철초청경기 일본인이 경영하는 조선신문사 주최로 7월 17일부터 철도국, 연희전문, 평양철도와 4차전을 개최한 끝에 야와타가 2전2패를 기록 ▲1차전(7월 17일 용산)=야와타 0-6 철도국 ▲2차전(7월 18일 경성)=야와타 2-3 연희전문 ▲3차전(7월 19일 경성)=야와타 6-4 철도국 ▲4차전(7월20일 평양)=3-2 평양철도 △연희전문=김태호(유격수), 김영길(3루수), 백기주(투수), 이영민(포수), 박정근(중견수), 최인봉(1루수), 이영선(중견수), 김진석(2루수), 박철복(우익수)</p>	<p>■ 07.14 조선체육회 임원 개선 조선체육회가 이사회를 열고 회장에 유억겸(俞億兼)을 선임</p> <p>■ 07.19 타이 콥 개인통산 4000안타 필라델피아 어슬레틱스의 타이 콥이 디트로이트 샘 김슨으로부터 개인 통산 4,000안타 기록</p>
07.19	<p>■ 오사카 마이니치(毎日)신문초청경기 조선신문사 주최로 7월 19일부터 오사카 마이니치신문사 초청경기를 개최, 7월 28일까지 7차전을 개최한 끝에 마이니치신문사가 7전 6승1패를 기록 ▲1차전(7월 19일 경성)=마이니치 6-4 철도국 ▲2차전(7월 22일 경성)=마이니치 8-0 철도국 ▲3차전(7월 23일 경성)=마이니치 9-4 체신국 ▲4차전(7월 24일 경성)=마이니치 3-1 식산은행 ▲5차전(7월 25일 평양)=마이니치 10-0 평양철도 ▲6차전(7월 26일 검이포)=마이니치 10-0 미쓰비시 ▲7차전(7월 28일 경성)=2-4 전경성</p>	
07.29	<p>■ 제7회 조선중등학교대회 제13회 전국중등우승대회 조선예선전 조선체육협회 주최로 7월 29일부터 부산중, 인천남상(현 인천고), 부산1상(현 부경고), 경성중, 청주농업, 휘문고보, 대구중, 용산중, 경성사범, 평양중, 진남포상공, 부산중, 부산2상(현 개성고), 광주중 등 13개 중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8월 2일 열린 결승전에서 경성중이 경성사범을 2-0으로 물리치고 우승 ▲준결승전=대구중 2-5 경성사범, 경성중 2-1 휘문고보 ▲결승전=경성중 2-0 경성사범</p>	
08.05	<p>■ 제1회 흑사자기쟁탈 전국도시대항우승대회 창설 오사카 일일(日日)신문사(현 마이니치신문사)가 성인들을 대상으로 제1회 흑사자기쟁탈 전국도시대항우승대회를 창설하여 일본 12개 지역 예선대회에서 우승한 팀이 출전, 조선예선대회에선 용산철도국이 우승, 조선대표로 본선에 진출했으나 8월 5일 열린 1회전에서 만주 다렌(大連) 만철(滿鐵)구락부에 7-8로 패해 탈락</p>	
08.15	<p>■ 제13회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 아사히신문사 주최로 8월 15일 고시엔구장에서 열린 제13회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에 경성중학이 조선대</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표로 출전, 1회전에서 부전 승으로 2회전에 진출했으나 마쓰모도(松本)상업에 1-8로 패해 탈락	
08.22	■ 일본 신코(神港)상업초청경기 조선매일신문사 매일신보사 공동 주최로 8월 22일부터 일본 신코상업초청경기를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8월 28일 인천 산근정구장에서 열린 전인천과의 경기에서 13-4로 이격 1승1무4패를 기록 ▲1차전(8월 22일 경성)=신코상업 1-3 체신국 ▲2차전(8월 23일 경성)=신코상업 1-2 식산은행 ▲3차전(8월 24일 경성)=신코상업 3-3 경희 ▲4차전(8월 25일 용산)=신코상업 4-6 용산 철도 ▲5차전(8월 27일 용산)=신코상업 2-4 경성전기 ▲6차전(8월 28일 인천)=신코상업 13-4 전인천	
08.28	■ 제4회 조선야구쟁패전 경성일보 매일신보사 공동 주최로 8월 28일부터 7개 팀(경희구락부, 철도국, 체신국, 전대구, 전원산, 평양철도, 울전주)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9월 1일 열린 결승전에서 경희구락부가 김영석(金永奭)이 마운드를 지킨 체신국을 3-1로 꺾고 대회 4연패 ▲ 준결승전=경희 14-0 전원산, 체신 4-2 울전주 ▲ 결승전=경희구락부 3-1 체신국	■ 08.28 경성방송국 첫 야구중계 방송 조선실업야구쟁패전 경기를 일본어로 첫 실황 중계
09.10	■ 전후쿠오카(全福岡)초청경기 일본인 체육단체인 조선체육협회 초청으로 9월 10일부터 7일간 경성운동장과 용산구장에서 체신국, 철도국, 경성전기, 식산은행 등과 5차전을 가진 뒤 마지막 경기에서 연희전문을 9-5로 꺾어 3승 2무 1패를 기록 ▲1차전=전후쿠오카 4-6 체신국 ▲2차전=전후쿠오카 0-0 철도국 ▲3차전=전후쿠오카 6-0 경성전기 ▲4차전=전 후쿠오카 3-3 철도국 ▲5차전=전후쿠오카 7-1 식산은행 ▲6차전=전후쿠오카 9-5 연희전문 △연희전문=김태호(3루수), 박철복(우익수), 백기주(투수), 이영민(포수), 김영길(유격수), 김영선(좌익수), 최인봉(1루수), 김진석(2루수), 박정근(중견수)	
09.29	■ 경성실업추계연맹 경성에 거주하는 일본 야구인들이 결성한 경성실업연맹 첫 대회를 9월 29일부터 철도국, 체신국, 경성전기, 식산은행 등 4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10월 23일 끝난 마지막 경기에서 철도국이 식산은행을 3-2로 꺾고 4승1무3패로 대회 첫 우승	
10.06	■ 만주 다렌(大連)실업초청경기 경성일보사 초청으로 10월 6일부터 부산과 경성운동장에서 전부산, 철도국, 체신국, 경성전기, 식산은행 등과 5차전을 개최, 10월 11일 열린 마지막 경기에서 식산은행을 14-0으로 격파하고 5전 전승을 기록 ▲1차전(10월 6일 부산)=다렌 12-0 전부산 ▲2차전	■ 10.14 조선 최초 마라톤 공인기록 제3회 조선 신궁경기대회에서 마봉옥(馬鳳玉)이 정규 풀 코스(42.195km)를 3시간 29분 37에 달려 조선 최초 마라톤 기록을 공인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10월 7일 경성)=다렌 3-1 철도국 ▲3차전(10월 8일 경성)=다렌 2-1 체신국 ▲4차전(10월 9일 경성)=다렌 3-2 경성전기 ▲5차전(10월 11일 경성)=다렌 14-0 식산은행</p> <p>△전부산=토자키(戸崎 2루수), 히로세(廣 중견수), 다카다(高田 3루수), 나카다(長田 우익수), 타미야(民谷 좌익수), 요시하라(吉原), 키노시다(木下 이상 유격수), 미타니(三谷 포수), 이데(井手) 키무라(木村 이상 투수), 사사키(佐佐木), 후쿠다(福田 이상 1루수)</p>	
10.16	<p>■제1회 조선신궁중등학교대회 조선체육협회 주최로 10월 16일부터 경성사범, 인천상업, 대구중, 휘문고보 등 4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10월 17일 열린 결승전에서 경성사범이 대구중을 18-1로 격파하고 우승</p> <p>▲준결승전=경성사범 10-5 인천상업, 대구중 15-10 휘문고보 ▲결승전=경성사범 18-1 대구중</p> <p>△경성사범=토바시(土橋 중견수), 바바(馬場 2루수), 미야자키(宮崎 좌익수), 나카타니(中谷 포수), 스즈키(鈴木 유격수), 시라하마(白浜 투수겸 1루수), 에비스다(戎田 1루수겸 투수), 기와키(木脇 중견수), 호소야(細田谷 우익수)</p>	<p>■베이브 루스 메이저리그 첫 60홈런 뉴욕 양키스 베이브 루스가 메이저리그 사상 처음으로 한 시즌 60홈런을 기록, 양키스를 제외한 아메리칸리그 7개 팀의 홈런을 합친 수를 능가</p>
10.28	<p>■오사카 마이니치(毎日)신문초청경기 조선신문사 주최로 10월 28일 내한 중인 오사카(大阪) 마이니치신문야구단과 4구락부선발 조선군과의 경기를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조선군이 7회 3-18로 패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몰로 경기를 종료</p> <p>△조선군=마춘식(2루수), 이경구(좌익수), 손효준, 서상국(이상 중견수), 백효득(포수), 김수영(우익수), 유재춘(1루수), 김영석(3루수), 이진형(투수), 민용규(유격수)</p>	<p>■12.10 '삼진의 제왕' 월터 존슨 은퇴 메이저리그 최초 3,000 탈삼진을 기록한 워싱턴 세너터스의 월터 존슨이 3,509 탈삼진과 110완봉승의 기록을 남기고 은퇴.</p>
1928. 03.	<p>■대구상업 야구부 창설 일본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창설, 조선 학생은 편순윤(片順潤), 표문철(表文哲), 오명오(吳命五) 등이 외야수로 활약</p>	<p>■02.11 제2회 동계올림픽대회 스위스 생모리스에서 25국 6종목에 491명이 출전한 가운데 개최</p>
05.01	<p>■제2회 4구락부 춘계연맹전 동아일보사 주최로 5월 1일부터 14일간 전배재, 전중양, 전취문 등 3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더블 리그로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전취문과 전배재가 3승1패로 동률, 5월 14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전취문이 전배재를 2-1로 제치고 우승</p> <p>◇종합 순위=①전취문(4승1패) ②전배재(3승2패) ③전중양(0승4패)</p> <p>◇개인상 ▲ 타격상=①장귀남(張貴男 배재 .556), ②김정식(취문 .500), ③이경구(취문 .348) ▲ 본루타상=이영민(배재 2개)</p> <p>△전취문=민용규(유격수), 이경구(좌익수), 김정식(포수), 김중세(1루수), 최장춘(중견수), 백용득, 이승우(이</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상 2루수, 이진형(우익수), 한기준(1루수겸 투수), 박석윤(투수), 안복암(1루수), 강세희(3루수)</p> <p>△전배재=김낙현(유격수), 박정근, 장귀남(이상 우익수), 마춘식(중견수), 이영민(포수), 이영선(좌익수), 김태봉(金泰奉 2루수), 송세범(宋世範), 김복실(金福實 이상 3루수), 조점룡(趙点龍 1루수), 김영석(金永奭 투수), 지성룡(池成龍 투수겸 1루수)</p>	
05.08	<p>■ 경성실업준계연맹전</p> <p>경성실업야구연맹 주최로 5월 8일부터 6일간 체신국, 경성전기, 철도국, 식산은행 등 4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6월 9일 끝난 최종일 경기에서 식산은행이 경성전기를 5-3으로 꺾고 5승3패로 우승</p> <p>◇종합 순위=①식산은행(8전 5승 3패) ②경성전기(9전 5승 4패), 철도국(9전 5승 4패) ④체신국(8전 2승 6패)</p>	
05.18	<p>■ 제9회 전조선야구대회</p> <p>조선체육회가 5월 18, 19일 이틀간 소학, 중학, 청년단에서 모두 7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소학단에선 교동공보가, 중학단에서는 휘문고보, 청년단에서도 전휘문이 우승</p> <p>▲소학단=교동공보, 죽점공보가 출전, 결승전에서 교동공보가 죽점공보를 14-13으로 꺾고 우승</p> <p>△교동공보=조학원(趙學源 유격수겸 투수), 이황수(李黃洙 2루수), 손주룡(孫周龍 1루수), 임사섭(林駟燮 포수), 석완균(石完均 3루수), 한형식(韓亨植 좌익수), 한상옥(韓相玉 중견수), 손흥성(孫興成 우익수), 송재경(宋在暲 투수겸 유격수)</p> <p>▲중학단=중앙고보, 휘문고보, 배재고보가 출전, 결승전에서 휘문고보가 중앙고보를 20-1로 격파하고 우승</p> <p>△휘문고보=민용규(유격수), 최장춘(중견수), 이진형(투수), 안복암(포수), 백용득(2루수), 이승우(3루수), 박영희(朴瑛熙 1루수), 홍순철(좌익수), 오용건(우익수)</p> <p>△중앙고보=박차득(朴且得 3루수), 배재묵(裴在默 중견수겸 포수), 김대벽(金大璧 유격수), 김수영(金壽永 투수), 이동이(李同伊 1루수), 임성옥(林成玉 좌익수), 손해룡(孫海龍 우익수), 한영근(韓永根 포수겸 중견수), 김상만(金相萬 2루수)</p> <p>▲청년단=전휘문, 연희구락부가 출전, 결승전에서 전휘문이 10-3으로 연희구락부를 물리치고 우승</p> <p>△전휘문=정인규(유격수겸 3루수), 유재춘(1루수), 김정식(포수), 이경구(좌익수), 한기준(중견수), 왕명규(2루수), 강세희(3루수겸 유격수), 이순재(우익수), 박석윤(투수)</p> <p>△연희구락부=김태호(3루수), 서상국(투수), 이영민(포수), 이영선(좌익수), 송세범(2루수), 김영길(우익수), 박정근(중견수), 심운영(沈雲榮 1루수), 김낙현(유격수)</p>	<div data-bbox="970 864 1241 1366"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970 1384 1439 1415">1928년 연희전문 유격수로 활약한 김낙현</p> <div data-bbox="970 1460 1473 1787"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970 1796 1473 1944">조선체육회 윤치호 회장이 제9회 전조선 야구대회 결승전에서 중앙고보를 꺾고 우승을 차지한 휘문고보 주장에게 우승기를 수여하고 있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5.24	<p>■ 대구춘계쟁패전 경북체육협회 주최로 5월 21일부터 계성학교, 대구고보, 대구상업, 대구실업, 대구중 등 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동운정 운동장에서 개최, 5월 26일 열린 결승전에서 대구상업이 대구실업을 8-2로 격파하고 우승 ▲준결승전=대구상업 7-4 대구고보, 대구실업 11-8 대구중 ▲결승전=대구상업 8-2 대구실업 △대구상업=스기하라(杉原 포수), 니헤이(二瓶 투수), 야츠즈카(八塚 유격수), 양일득(楊一得 1루수), 오명오(吳命五 우익수), 편순윤(片順潤 좌익수), 다나카(田中 2루수), 가지타니(梶谷), 세마노(瀨間 이상 3루수), 시요미(鹽見 중견수)</p>	<p>■ 05.22 조선축구심판협회 창립 오후 8시 청년회관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회장에 신기준(申基俊) 선출</p>
05.29	<p>■ 일본 코료(廣陵)중학초청경기 5월 27일 코료중학야구단이 2년 만에 내한, 5월 29일 휘문구장에서 열린 코료중과의 경기에서 전휘문이 10-7로 승리 △전휘문=민용규(유격수), 최장춘(좌익수), 김정식(포수), 김종세(2루수겸 우익수), 박석윤(우익수겸 투수), 안복암(1루수), 이진형(투수겸 중견수), 이승우(李承雨 3루수), 이순재(우익수겸 중견수), 백용득(2루수)</p>	
06.08	<p>■ 이영민, 경성운동장 첫 홈런 제2회 연전-경의전 정기대항전(6월 8일 경성운동장)에 연희전문 3번 타자로 출전한 이영민이 1회말 2사후 상대 투수의 제2구를 때려 경성운동장 개장 이래 조선과 일본선수로는 첫 홈런(370척=약 112m)을 기록, 주최 측인 동아일보사가 이를 기념키 위해 본루타(홈런)상을 수여 ▲연희전문 3-2 경성의전</p>	
06.08	<p>■ 일본 마쓰야마(松山)고상초청경기 철도국 야구부 초청으로 6월 8일부터 대구, 용산, 평양에서 5차전을 개최, 마쓰야마고등상업이 1승4패를 기록 ▲1차전(6월 8일 대구 동운정구장)=마쓰야마 4-5 대구군 ▲2차전(6월 10일 용산 철도구장)=마쓰야마 5-8 철도국 ▲3차전(6월 11일 용산 철도구장)=마쓰야마 2-12 체신국 ▲4차전(6월 14일 용산 철도구장)=마쓰야마 6-2 연희전문 ▲5차전(6월 16일 평양구장)=마쓰야마 1-2평양철도 △연희전문=김태호(3루수), 송세범(2루수), 이영민(투수), 이영선(좌익수), 김영길(유격수), 심운영(1루수), 박정근(중견수), 강원(우익수), 김낙현(포수)</p>	
06.10	<p>■ 제3회 전인천소년대회 동아일보 인천지국 주최로 6월 10일 1부(15세 이상)에서 용승, 화평, 송림, 사정, 신화수리 등 5개 팀이, 2부(15세까지)에서는 금별, 화평리, 영화, 신화수리, 견호, 봉용, 중앙, 인보, 사정, 용승 등 10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산근정 운동장에서 개최 ▲1부 준결승전=사정 10-2 송림, 화평 8-3 신화수리</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1부 결승전=사정 8-7 화평 ▲2부 준결승전=인보 9-5 봉용, 사정 4-2 화평 ▲2부 결승전=인보 7-4 사정</p>	
07.01	<p>■ 부산중등학교 춘계리그 경남체육협회 주최로 7월 1일부터 이틀간 대신정 운동장에서 개최, 7월 2일 열린 결승전에서 부산중이 부산1상을 10-3으로 격파하고 우승 ▲준결승전=부산중 9-6 철도기관고, 부산1상 9-3 부산역 ▲결승전=부산중 10-3 부산1상</p>	
07.08	<p>■ 제1회 전조선실업연맹전경 제2회 전국도시대항우승대회 조선예선전 조선실업연맹 주최로 7월 8일부터 3일간 부산철도, 식산은행, 평양철도 등 3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제1회 전조선실업연맹전을 개최, 7월 10일 끝난 결승전에서 식산은행이 평양철도를 5-0으로 꺾고 우승, 8월 6일부터 일본 메이지 진구(明治 神宮)구장에서 열린 도쿄 일일신문사 주최 제2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출전 티켓 확보 ▲1회전=평양철도 4-1 부산철도 ▲2회전=식산은행 5-0 부산철도 ▲결승전=식산은행 5-0 평양철도</p>	
07.16	<p>■ 제8차 도쿄유학생모국방문경기 7월 16~17일 대구청년회에 11-10, 7-5로 승리한 뒤 7월 18일 일본인 팀인 전대구를 9-4로 꺾고 상경, 7월 22일 배재고보에 8-5, 7월 24일 일본인들로 구성된 강호 용산철도국을 4-3으로 꺾어 5전 전승, 7월 25일 전휘문군을 2-1로 물리친 뒤 7월 26일 평양 송실전문에 0-2로 패해 7전 6승1패를 기록 △유학생=노용호(盧龍鎬 중견수), 최인식(崔仁植 1루수), 백기주(유격수겸 투수), 안익조(安益祚 포수겸 유격수), 유약한(劉約翰 우익수), 전돈(全燾 좌익수), 오봉은(2루수), 서병규(徐丙圭 3루수), 박석기(투수겸 포수)</p>	 <p>도쿄유학생들이 전국 최강 용산철도국 팀과 야구경기에 앞서 찍은 기념 사진을 남겼다.</p>
07.28	<p>■ 제8회 전조선중등학교대회 제14회 전국중등우승대회 조선예선전 조선체육협회 주최로 7월 28일부터 5일간 18개 중학팀(경성사범, 용산, 군산, 휘문고보, 청주농업, 목포상업, 평양, 경성상업, 부산, 배재고보, 원산, 경성중, 인천남상, 부산1상, 대구상업, 대구, 대구고보, 진남포상공)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과 용산 만철구장(1회전)에서 개최, 8월 1일 경성운동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경성중이 평양중을 10-1로 격파하고 3년 연속 우승 ▲준결승전=경성중 7-부산 1상, 휘문고보 4-6 평양중 ▲결승전=경성중 10-1 평양중 △휘문고보=민용규(유격수), 최장춘(崔長春 중견수), 이진형(투수), 안복암(포수), 오용건(우익수), 이승우(3루수), 손희준(2루수), 이종택(1, 2루수겸 대타), 백용득(2루수겸 1루수), 홍순철(좌익수), 박영희(朴瑛熙 대타)</p>	<p>■ 08.18 조선체육회 임원 개선 조선체육회가 이사회를 열고 제9대 회장으로 윤치호(尹致昊)를 선임</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8.06	<p>■ 제2회 흑사자기쟁탈 전국도시대항대회 도쿄(東京) 니치니치(日日)신문사 주최로 8월 6일부터 9일까지 메이지 진구(明治 神宮)구장에서 열린 제2회 전국도시대항대회에 식산은행이 조선대표로 출전, 1회전에서 다카사키(高崎) 고양구락부, 2회전에서 나고야(名古屋)철도를 꺾고 3회전(준준결승)에 진출했으나 도쿄(東京)구락부에 1-2로 패해 탈락 ▲1회전(8월 6일)=식산은행 5-3 고양구락부 ▲2회전(8월 8일)=식산은행 8-3 나고야 철도 ▲3회전(8월 9일)=식산은행 1-2 도쿄구락부</p>	 <p>고시엔구장에서 열린 제14회 중등학교우승대회 쓰루가상업-경성중학의 경기</p>
08.12	<p>■ 제14회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 아사히신문사 주최로 8월 12일 고시엔구장에서 열린 제14회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에 경성중학이 조선대표로 출전, 1회전에서 쓰루가(敦賀)상업을 6-5로 물리치고 2회전에 진출, 코요(甲陽)중에 3-4로 패해 탈락 ▲1회전=쓰루가상업 5-6 경성중 ▲2회전=코요중 4-3 경성중 △경성중=스즈키(鈴木 좌익수), 코야마(兒山 유격수), 다하라(田原 중견수), 하시노(箸野 포수), 세키(關 투수), 이노우에(井上 1루수), 오가와(小川 3루수), 야마네(山根 2루수), 다케야(竹屋 우익수)</p>	
08.26	<p>■ 재5회 전조선야구쟁패전 경성일보사 매일신보사 공동 주최로 8월 26일부터 경희구락부, 경성전기, 체신국, 평양일당(日糖), 대전철도, 전목포, 대구동운(東雲), 부산철도, 전함흥, 신의주 등 10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장마로 연기를 거듭한 끝에 9월 2일 열린 결승전에서 경성전기가 경희구락부를 3-0으로 꺾고 우승 ▲준결승전=경희구락부 9-4 신의주, 경성전기 8-0 대구 ▲결승전=경성전기 3-0 경희구락부</p>	
09.10	<p>■ 제3회 4구락부추계연맹전 경신이 불참한 가운데 3개 구락부(배재, 중앙, 휘문)가 9월 10일부터 더블 리그로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9월 17일 벌어진 마지막 경기에서 전배재가 4-0으로 전휘문을 꺾고 준우승, 전중앙이 4전 3승1패로 대회 첫 우승 ◇종합 순위=①전중앙(3승1패) ②전배재(2승2패) ③전휘문(1승3패) ◇개인상 ▲타격상=①김정식(휘문 .538) ②백기주(배재 .412) ③오용건(휘문 .400) △전중앙=김문량(金文亮 좌익수), 김태호(3루수), 박철복(포수), 김대벽(金大壁 2루수), 서상국(중견수), 김수영(투수), 김영길(유격수), 최용준(崔容俊 1루수), 임성옥(林成玉 우익수), 손해룡(孫海龍 우익수겸 좌익수)</p>	
09.12	<p>■ 한 경기 최다 탈삼진(22개) 기록 경성운동장 제3회 4구락부추계연맹전(9월 10~17</p>	<p>최다 탈삼진 기록을 세운 한기준(왼쪽)과 배재의 전천후 포수 함용화.</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일)에서 휘문구락부 소속 한기준(韓基俊)이 배재구락부를 상대로 탈삼진 22개를 기록, 와카야마(和歌山) 중학의 오가와(小川)가 세운 일본 최고기록(21개)을 경신</p>	
09.15	<p>■ 제1회 호남중등학교대회 이리체육협회 주최로 9월 15, 16일 2일간 이리농림, 군산중, 전주고보, 강경상업, 목포상업 등 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이리 철도운동장에서 개최, 결승전에서 군산중이 목포상업을 4-2로 물리치고 우승 ▲ 2회전=목포상업 12-2 강경상업, 전주고보 0-2 군산중 ▲ 결승전=군산중 4-2 목포상업 △ 군산중=요시오(吉尾 2루수), 후지타(藤田 - 중견수), 츠지모토(辻本 1루수), 나카니시(中西 투수겸 우익수), 마시코(益子 유격수), 김(金 좌익수), 마루이(丸井 3루수), 후지타(藤田 茂 포수), 미나미무라(南村 우익수겸 투수)</p>	<p>■ 미 프로야구 타이 콥 은퇴 1905년 아메리칸리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에 입단한 타이 콥은 1928년 필라델피아 어슬레틱스에서 은퇴할 때까지 통산 타율 .367에, 2,245득점, 4,190안타, 892도루, 1,933타점을 기록</p>
09.16	<p>■ 경성실업추계연맹전 경성실업연맹 주최로 9월 16일부터 10월 7일까지 5개 팀(경성부청, 경성전기, 식산은행, 체신국, 철도국)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10월 7일 끝난 결승전에서 경성전기가 철도국을 7-1로 꺾고 4승 1패로 우승, 식산은행이 3승 2패로 준우승 ◇ 개인상 ▲ 타격상=① 타케우치(竹内 경전 .437) ② 쇼우자쿠(將積 경전 .384) ③ 요시노(吉野 경전 .353) ④ 니키(二木 체신 .313) ⑤ 나스(那須 식은 .300)</p>	
10.16	<p>■ 제2회 조선신공중등학교대회 조선체육협회 주최로 10월 16일부터 경기사범, 대구상업, 대구중, 인천상업, 평양중, 휘문고보 등 6개 중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10월 18일 열린 결승전에서 평양중이 경성사범을 4-3으로 제치고 우승 ▲ 준결승전=평양중 3-2 대구상업, 경성사범 18-1 대구중 ▲ 결승전=평양중 4-3 경성사범</p>	
10.17	<p>■ 제1회 전조선보통학교아동대회 개최 중앙고등보통학교 주최,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10월 17일부터 공옥보교, 미동보교, 정동보교, 죽첨보교, 송이보교, 청운보교 등 6개 교가 출전한 가운데 중앙고보 운동장에서 개최, 10월 20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공옥보교가 미동보교를 16-9로 물리치고 우승 △ 공옥보교=이수산(李壽山 유격수), 정용준(포수), 김도복(金道福 투수), 문제창(文濟昌 중견수), 최용성(崔龍成 우익수), 조해수(趙海洙 좌익수), 장순용(張順用 3루수), 김순도(金順道 2루수), 박준희(朴俊熙 1루수)</p>	<p>■ 11.14 원산공설운동장 개장 원산부가 군관민 다수를 초청한 가운데 공설운동장 개장식을 갖고 개장 기념 야구대회도 개최</p> <p>■ 12.02 부산체육회 창립 부산 기영당(耆英堂)에서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 총회를 갖고 회장에 김준식(金準植)을 추대</p>
1929. 04.10	<p>■ 일본 카이소우(海草)중학초청경기 경성부청 야구부 초청으로 4월 6일부터 12일까지 체</p>	<p>■ 04.01 여의도비행장 개장 일본이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 여의도에 건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신국, 경성전기, 전휘문, 경성부청과 4차전을 개최, 4월 12일 열린 최종일 경기에서 경성부청에 2-6으로 패해 2승2패를 기록</p> <p>▲1차전=카이소우 1-6 체신국 ▲2차전=카이소우 8-7 경성전기 ▲3차전=카이소우 3-2 전휘문 ▲4차전=카이소우 2-6 경성부청</p> <p>△전휘문=민용규(유격수), 최재은(2루수), 정인규(3루수), 김종세(1루수), 이경구(중견수), 이진형(우익수), 오용건(좌익수), 안복암(포수), 박석윤, 김정식(이상 투수)</p>	<p>한 비행장을 완공</p> <p>■04.16 메이저리그 첫 타석 최초 홈런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얼 애버릴이 메이저리그 첫 타석에서 홈런을 기록한 최초의 선수</p>
04.19	<p>■일본 다카라즈카(寶塚)운동협회초청경기 조선신문사가 초청으로 4월 19일부터 국내 실업 팀 체신국(투수 김영석), 식산은행(투수 이영민), 경성부청(포수 조점룡, 중견수 김정식, 우익수 이경구)등과 경성운동장에서 4차전을 개최, 4월 24일 열린 최종일 경기에서 경성부청에 3-13으로 패해 내한 전적 3승1패 기록</p> <p>▲1차전(4월 19일)=다카라즈카 7-5 철도국 ▲2차전(4월 21일)=다카라즈카 0-2 체신국 ▲3차전(4월 22일)=다카라즈카 13-3 식산은행 ▲4차전(4월 24일)=다카라즈카 1-5 경성부청</p> <p>△다카라즈카=와타나베(渡邊 중견수), 가와사키(川崎 2루수), 오누키(大貫 우익수), 함용화(咸龍華 1루수겸 포수) 가가와(香川 좌익수), 손효준(孫孝俊 좌, 우익수겸 1루수), 코다마(小玉), 고다마(兒玉 이상 3루수), 가타오카(片岡 3루수겸 포수), 하라구치(原口), 야마구치(山口 이상 투수), 무라카미(村上), 오이데(大井手 이상 유격수)</p>	
04.28	<p>■경성실업준계연맹전 경성실업연맹 주최로 4월 28일부터 경성전기, 식산은행(이영민 투수, 2루수, 좌, 우익수로 출전), 경성부청(포수 조점룡, 중견수 김정식, 우익수 이경구), 체신국(투수 김영석, 포수 함용화), 철도국 등 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더블 리그로 개최, 7월 2일 끝난 결승전에서 식산은행이 경성전기를 7-1로 격파하고 우승</p> <p>▲우승=식산은행(7승2무3패) ▲준우승=경성부청(7승1무4패)</p> <p>◇개인상 ▲타격상=①이와다(岩田 식산은행 .409) ②니시무라(西村 철도국 .333) ③사다케(佐武 체신국 .323) ④와타나베(渡邊 경성부청 .319) ⑤우에무라(上村 경성부청 .324)</p>	
05.01	<p>■제4회 4구락부준계연맹전 4구락부연맹 동아일보 공동 주최로 5월 1일부터 전배재, 전중양, 전휘문 등 3개 구락부가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5월 8일 열린 최종일 경기에서 전휘문이 전중양을 5-2로 꺾고 2승2패로 준우승, 전배재가 3승1패로 우승</p> <p>◇종합 순위=①전배재(3승1패) ②전휘문(2승2패) ③전중양(1승3패)</p>	<p>4구락부연맹전을 앞두고 피칭 연습중인 오윤환. 백기주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개인상 ▲ 타격상=①김문량(중앙.439) ②이진형(휘문 .439) ③김태호(중앙 .333)</p> <p>△전배재=감독 김태원(金泰源), 코치 마춘식 및 문충근(文忠根 1루수), 박정근(중견수겸 우익수), 김태봉(좌익수겸 2루수), 오윤환(유격수겸 투수), 마춘식(포수겸 중견수및 좌익수), 장귀남(우익수겸 좌익수), 김일배(3루수겸 좌익수및 중견수), 정원석(우익수), 지성룡(투수겸 유격수및 2,3루수), 김영석(투수), 나조화(2루수겸 좌익수), 엄점득(우익수)</p>	
05.17	<p>■ 제3회 연희전문-경성의전 정기대항전</p> <p>경성의학전문 축의 제의로 5월 17일과 20일 경성운동장에서 2연전을 개최, 경성의전이 2승1패로 우승</p> <p>▲ 1차전=연전 2-5 경의전 ▲ 2차전=연전 0-7 경의전 ▲ 3차전=연전 0-7 경의전</p> <p>△ 연희전문=감독 이순탁(李順鐸), 코치 신기준 및 김태호(3루수겸 유격수), 김태봉(2루수), 오용건(좌익수), 이진형(투수겸 우익수), 이영선(대타), 김수영(1루수겸 투수), 심운영(沈雲榮 유격수겸 3루수), 박정근(중견수), 홍문길(1루수겸 우익수), 김영길(포수)</p>	<p>■ 05.15 월간 '체육계' 창간호 발간</p> <p>대구 동성정 조선체육계사가 서상철(徐相喆) 씨를 주간으로 월간 잡지 '체육계(體育界)' 창간호를 5월 15일자로 발간. 정가 30전</p>
06.08	<p>■ 제2회 호남중등학교대회</p> <p>이리체육협회 주최로 6월 8일 광주중, 군산중, 전주고보, 이리농림 등 4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이리 철도운동장에서 개최, 6월 9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광주중이 4-3으로 이리농림을 꺾고 우승</p> <p>▲ 1회전=이리농림 9-7 전주고보, 광주중 9-4 군산중</p> <p>▲ 결승전=광주중 4-3 이리농림</p>	
06.10	<p>■ 제3회 중등학교야구리그 재개</p> <p>조선일보사가 2년(1927~28년)간 중지했던 대회를 6월 10일 경신, 배재, 중앙, 휘문등 4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휘문고보 운동장에서 재개, 6월 15일 배재고보가 제10회 전조선야구대회에서 심판 폭행으로 제명당해 일정을 재조정된 끝에 6월 17~21일 까지 경신, 중앙, 휘문만 경기를 치러 휘문고보가 4승으로 우승</p> <p>◇ 종합 순위=①휘문고보(4승) ②중앙고보(2승2패) ③경신고보(4패)</p> <p>△ 휘문고보=이경환(李慶煥 3루수), 손희준(孫禧俊 유격수), 이승우(투수), 이종택(李鍾澤 포수), 홍순철(중견수겸 좌익수), 유승목(俞升穆), 손문창(孫文昌 이상 1루수), 윤진해(尹鎭海), 이신득(이상 우익수), 최정희(崔正熙 2루수), 신형균(申滢均 좌익수겸 중견수)</p> <p>△ 중앙고보=박차득(유격수), 임성옥(투수겸 우익수), 진성섭(2루수), 손해룡(우익수겸 투수), 이준용(중견수), 한영근(포수), 구자정(좌익수), 이두만(3루수), 이동이(1루수)</p> <p>△ 경신고보=박흥홍(좌익수), 조종표(포수), 채금석(투수겸 2루수), 김성태(3루수), 이창보(유격수), 김덕중(1루수), 이상득(중견수겸 투수), 김귀남(우익수겸 중견수)</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수), 서학선(중견수), 강준(2루수겸 우익수)	
06.13	<p>■ 제10회 전조선야구대회겸 전조선경기대회 조선체육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제10회 전조선야구대회 및 제9회 전조선정구대회, 제4회 전조선육상경기대회를 통합, 지금의 전국체육대회 전신인 제10회 조선경기대회를 6월 21일까지 12일간 개최 ◇소학단=청운공보, 교동공보, 미동공보, 혜화공보, 영화보교, 죽참공보, 주교공보, 공옥보교 등 8개 팀이 출전, 결승전에서 공옥보교가 혜화공보를 13-4로 격파하고 우승 ▲준결승전=혜화공보 5-1 청운공보, 공옥보교 4-3 영화보교 ▲결승전=공옥보교 13-4 혜화공보 △공옥보교=이수산(유격수겸 투수), 정용준(포수), 배경돈(裴庚燾 좌익수), 이계학(李燾鶴 우익수겸 투수), 김순도(유격수겸 3루수), 최수광(崔壽光) 홍순영(洪淳榮 이상 중견수), 김일권(金一權 2루수), 이흥서(李興瑞 3루수겸 우익수), 박한룡(朴漢龍 1루수) ◇중학단=배재고보, 중앙고보, 휘문고보 등 3개 팀이 출전, 결승전에서 배재고보가 휘문고보에 1-2로 리드 당하던 9회초 심판 판정에 불복, 휘문고보에 기권패를 당하자 배재 응원단이 김태호(金泰浩) 루심을 폭행, 중상으로 병원에 입원 ▲1회전=휘문고보 부전 승, 배재고보 12-8 중앙고보 ▲결승전=휘문고보 2-1 배재고보(기권 패) △휘문고보=이경환(3루수), 손희준(유격수), 이종택(1루수), 안복암(포수), 신형균(중견수), 홍순철(2루수), 유승목(우익수), 윤진해(좌익수), 이승우(투수) ◇청년단=전배재, 경전전차 등 2개 팀이 출전, 결승전에서 전배재가 10-8로 경전전차를 물리치고 우승 ▲전배재 10-8 경전전차 △전배재=마춘식(포수), 김태봉(3루수), 백기주(유격수), 최세원(1루수), 김영석(투수), 김과손(金科孫 좌익수), 최영신(崔永信), 조점룡, 한태준(韓泰俊 이상 우익수), 이기봉(李己奉 2루수), 박정근(중견수)</p>	 <p>전조선경기대회에 두 팀이 출전한 청년단에서 경전전차를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한 전배재 선수들.</p>  <p>주교공보-공옥보교의 경기(1회전)에서 주교의 길수창(吉壽昌)이 홈인하는 순간. 심판이 세이프를 선언하고 있다.</p>
06.15	<p>■ 배재고보 5년간 출전 정지 중징계 조선체육회가 제10회 전조선야구대회에서 판정에 불만을 품고 심판을 폭행한 배재고보를 5년간 협회 주최 대회에 출전 정지 처분</p>	
06.15	<p>■ 조선 최초 야구 감독 제명 조선체육회와 4구락부연맹이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전조선경기대회에서 배재고보 응원단이 난동을 부린 책임을 물어 배재고보 팀은 5년간 야구경기 출전 정지, 마춘식 감독은 제명 처분</p>	
07.06	<p>■ 제2회 전조선실업연맹전겸 제3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조선예선전 조선실업연맹 주최로 7월 6일부터 경성부청, 전대구,</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식산은행, 미쓰비시(三菱) 등 4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7월 8일 열린 최종일 경기에서 경성부청이 식산은행을 6-0으로 격파하고 3전 전승으로 우승, 8월 4일부터 일본 도쿄 메이지진구(明治神宮)구장에서 열리는 도쿄 일일신문사 주최 제3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진출 티켓 확보</p> <p>◇종합 순위=①경성부청(3승) ②식산은행(2승1패) ③미쓰비시(1승2패) ④전대구(3패)</p> <p>▲경성부청=다테이시(立石 유격수), 시마자키(島崎 2루수), 김정식(金貞植 중견수), 와타나베(渡邊 1루수겸 투수), 스즈키(鈴木 좌익수) 조점룡(趙點龍 포수), 호타(保田), 우에무라(上村), 야스다(安田 이상 3루수), 나베시마(鍋島 투수겸 1루수), 우치야마(内山 우익수)</p>	
07.22	<p>■ 제1회 전마산소년야구대회</p> <p>마산 수원(壽元)야구단 주최로 7월 22일부터 9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마산공립보통학교 운동장에서 개최, 7월 23일 열린 결승전에서 개신(改新)군이 동심(同心)군을 12-5로 물리치고 우승</p>	
07.28	<p>■ 제9회 조선중등학교대회겸 제15회 전국중등우승대회 조선예선전</p> <p>조선체육협회 주최로 7월 28일부터 북부리그 12개 중학(용산중, 경성상, 경성사범, 신의주상, 경성중, 진남포상공, 인천남상, 나남중, 청주고보, 선린상, 평양중, 배재고보), 남부리그 9개 중학(대구중, 대구고보, 대구상, 동래고보, 부산중, 부산1상, 부산2상, 군산중, 광주중) 등 총 21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 및 대구 운동장에서 개최, 8월 3일 경성운동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북부대표 평양중이 남부대표 대구상업을 5-0으로 격파하고 우승</p> <p>▲준결승전=평양중 3-0 경성사범, 대구상업 22-6 부산중 ▲결승전=평양중 5-0 대구상업</p> <p>△대구상업=야쓰즈카(八塚 중견수), 카지타니(梶谷 유격수), 스기하라(杉原 포수), 오명오(吳命五 좌익수), 양일득(楊一得 1루수), 니헤이(二瓶 투수), 시오미(鹽見 우익수), 편순윤(片順潤 3루수), 다나카(田中 2루수)</p>	
08.04	<p>■ 제3회 흑사자기쟁탈 전국도시대항대회</p> <p>도쿄(東京) 니치니치(日日)신문사 주최로 8월 4일부터 9일까지 메이지 진구(明治 神宮)구장에서 열린 제3회 전국도시대항대회에 경성부청이 예산 긴축으로 출전을 포기하자 급조된 '전경성(全京城)'이 조선대표로 출전, 1회전에서 삿포로철도국, 2회전에서 도쿄구락부를 꺾고 3회전(준결승)에 진출했으나 도쿄(東京)구락부에 1-2로 패해 탈락</p> <p>▲1회전=전경성 22-4 삿포로(札幌)철도 ▲2회전=전경성 4-3 도쿄구락부 ▲준결승전=전경성 4-8 다렌(大連)구락부</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8.13	<p>■ 제15회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 아사히신문사 주최로 8월 13일부터 오사카 고시엔구장에서 개최된 제15회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에 평양중이 조선대표로 출전,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 8월 15일 벌어진 2회전에서 헤이안(平安)중에 0-3으로 패해 탈락</p> <p>△평양중=사메지마(鮫島 포수), 토다(戸田 중견수), 히구치(樋口 2루수), 우치다(内田 兄 투수), 콘도(近藤 유격수), 쿠보(久保 우익수), 기다가와(北川 좌익수), 우치다(内田 弟 1루수), 아마다(山田 3루수)</p>	
08.18	<p>■ 제6회 전조선야구쟁패전 경성일보사 매일신보사 공동 주최로 8월 18일부터 경성전기, 대전철도, 전광주, 신의주도청, 체신국, 부산철도, 전대구, 평양철도, 전함흥 등 9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8월 31일 열린 결승전에서 평양철도가 체신국을 4-2로 꺾고 우승</p> <p>▲준결승전=평양철도 6-0 전함흥, 체신국 3-0 전대구 ▲결승전=평양철도 4-2 체신국</p>	
09.07	<p>■ 경성실업추계연맹전 경성실업야구연맹 주최로 9월 7일부터 15일까지 체신국(포수 함용화 투수 김영석), 식산은행(3루수 이영민), 경성전기, 철도국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9월 18일 벌어진 최종일 경기에서 체신국이 식산은행을 7-6으로 제치고 3전 전승으로 우승</p> <p>◇종합 순위=①체신국(3전 3승) ②경성전기, 식산은행, 철도국(이상 1승2패)</p> <p>◇개인상 ▲타격상=①김영석(체신국 .385) ②다나카(田中 .385) ③야나기(柳 철도국 .375) ④이시바시(石橋 철도국 .375) ⑤구마가야(熊谷 경성전기 .375)</p> <p>△체신국=사타케(佐武 2루수), 요코야마(横山 1루수), 나리마츠(成松 3루수), 히라시마(平島 투수겸 우익수), 함용화(咸龍華 포수), 시미즈(清水 중견수), 다나카(田中 좌익수), 김영석(金永奭 우익수겸 투수), 아사노(淺野 유격수)</p>	 <p>경성실업추계연맹전에서 3전 3승으로 우승을 차지한 체신국 선수들</p>
09.14	<p>■ 배재고보, 대구원정경기 조선체육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배재고보가 대구에 원정, 9월 14, 15일 오명오(좌익수), 양일득(1루수), 편순윤(유격수)이 뛴 대구상업과 1승1패(9-8, 1-5)를 한 뒤 9월 21일 경성에서 결승전을 치르기 위해 상경한 대구상업을 6-2로 꺾어 2승1패를 기록</p> <p>△배재고보=문충근(1루수), 나조화(2루수), 장귀남(중견수), 오윤환(유격수), 김일배(3루수겸 우익수), 송기우(우익수겸 3루수), 엄점득(좌익수), 이명복(李命福 포수), 원소자(대타), 지성룡(투수)</p> <p>△대구상업=오카와(八川 중견수), 스기하라(杉原 포수), 오명오(좌익수), 니헤이(二瓶 투수), 카지타니(梶谷 3루수), 양일득(楊一得 1루수), 시오미(鹽見 우익수)</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수), 편순윤(片順潤 2루수), 사다(佐田 유격수)	
09.16	<p>■ 제5회 4구락부 추계연맹전 배재고보 징계로 중앙고보, 휘문고보만 출전, 9월 17일 경성운동장에서 1, 2차전을 치른 뒤 9월 19일 벌어진 3차전에서 휘문고보가 중앙고보를 5-2로 꺾고 3전 2승1패로 우승 ◇개인상 ▲ 타격상=①김정식(휘문고보 .444) ②김태호(중앙 .417) ③이승우(휘문 .375) △휘문고보=이경구(좌익수), 민용규(2루수겸 3루수), 김정식(우익수겸 투수및 포수겸 중견수), 손효준(1루수겸 중견수), 최재은(崔在殷 중견수겸 투수), 안복암(포수겸 1루수), 이경환(3루수겸 2루수), 이승우(투수겸 우익수), 손희준(유격수), 강세희(투수겸 우익수), 이종택(우익수) △중앙고보=김태호(유격수), 박철복(2루수), 김문량(좌익수), 김수영(우익수겸 투수), 김순구(金順九 투수겸 우익수), 이양선(李暘善 포수), 최용준(1루수), 이동이(李同伊 우익수겸 대타), 서상국(대타), 임성옥(3루수), 홍문길(중견수)</p>	
09.22	<p>■ 제3회 호남중등학교대회 익산군체육협회 주최로 9월 22일부터 5개 중학 팀(광주, 대전, 이리농림, 전주고보, 군산중)이 출전한 가운데 이리농림 운동장에서 개최, 9월 23일 끝난 결승전에서 광주중이 전주고보를 8-4로 제치고 우승 ▲준결승전=광주중 7-6 군산중, 전주고보 10-6 이리농림 ▲결승전=광주중 8-4 전주고보</p>	
09.22	<p>■ 휘문고보-대구상업 친선경기 9월 22일 휘문고보가 경성운동장에서 오명오(좌익수), 양일득(1루수), 편순윤(우익수)이 일본인 선수들과 함께 뒀 대구상업에 7-17로 참패</p>	
10.05	<p>■ 제2회 전조선보통학교아동야구대회 중앙고보 주최로 10월 5일부터 인천 영화(永化)보교를 비롯해 8개 교가 출전한 가운데 중앙고보 운동장에서 개최, 10월 9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청운공보가 교동공보를 12-1로 격파하고 우승 △청운공보=김배권(金培權 유격수), 이용진(李龍振 포수), 김홍문(金洪文 1루수), 이규동(李揆東 투수겸 3루수), 김명환(金明煥 3루수겸 투수), 이순행(李順行 우익수), 김만배(金萬培 2루수), 이용덕(李容德 중견수), 홍창수(洪昌洙 좌익수), 장영림(張永林 중견수), 김진호(金振鎬 대타)</p>	<p>■ 11.03 광주학생항일운동 광주고보 학생과 일본인 중학생과의 사소한 충돌이 도화선이 되어 전국으로 번진 애국적 항일운동, 전국에서 194개 학교에 5만4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p>
10.12	<p>■ 제3회 조선신궁중등학교대회 조선체육협회 주최로 10월 12일부터 경성사범, 대구상업, 배재고보, 용산중, 인천상업, 평양중 등 6개 중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10월</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15일 열린 결승전에서 경성사범이 대구상업을 3-2로 누르고 우승 ▲준결승전=용산중 0-7 대구상업, 배재고보 2-10 경성사범 ▲결승전=경성사범 3-2 대구상업</p>	
1930. 04.02	<p>■ 이길용, 조선야구사(朝鮮野球史) 신문 연재 동아일보사 운동부 이길용(李吉用) 기자가 동아일보 창간 10주년을 맞아 4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14회에 걸쳐 연재</p>	<p>■ 01.24 김좌진(金佐鎭) 장군 순국 북만주 중동철도선 산시(山市)역 부근 정미소에서 고려공산청년회 김봉환(金鳳煥)의 감언이설에 빠진 박상실(朴尙實)이 쓴 총탄에 맞아 순국</p>
04.10	<p>■ 일본 가이소우(海草)중학초청경기 경성부청 초청으로 4월 6일부터 일본 팀과 3차전을 가진 뒤 4월 10일 경성운동장에서 전취문과 경기를 가진 끝에 3-2로 승리 △전취문=이경구(좌익수), 최재은(중견수), 김정식(1루수), 오용건(우익수), 이진형(투수), 민용규(유격수), 강세희(3루수), 이승우(2루수), 안복암(포수), 안익조(2루수)</p>	<p>■ 03.15 경성부청 야구부 해산 경성부청이 경비 문제로 야구부 해산을 결의, 정오 선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고마타(駒田) 감독이 통고, 1931년 9월 부활 경성실업연맹전 출전</p>
04.29	<p>■ 경성실업춘계연맹전 경성실업연맹 주최로 4월 29일부터 6월 22일까지 경성전기, 식산은행, 철도국, 체신국 등 4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과 용산 만철구장에서 1, 2차전으로 나누어 개최(전적 미상)</p>	
04.19	<p>■ 다카라즈카(寶塚)야구단 내한경기 조선신문사 초청으로 내한, 4월 19일부터 24일까지 철도국, 이영민이 투수로 뛴 식산은행, 체신국, 김정식(중견수), 이경구(우익수), 조점룡(포수)이 몸 담고 있는 경성부청과 4차전 끝에 2승2패</p>	
06.12	<p>■ 제11회 전조선야구대회 조선체육회 주최로 6월 12일부터 3일간 소학단(4개교), 중학단(4개교), 청년단(6개 팀) 14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과 용산 철도구장(결승전)에서 개최, 공옥보교(소학단), 중앙고보(중학단), 경전전차(청년단)이 각각 우승 ▲소학단=교동보교, 공옥보교, 매동보교, 혜화보교 등 4개 교가 출전, 결승전에서 공옥보교가 15-2로 매동보교를 꺾고 2년 연속 우승 △공옥보교=김일권(유격수), 이흥서(투수), 백용주(白龍珠 2루수), 박영기(朴榮基 포수), 김흥인(金興仁 3루수), 김충유(金忠裕 좌익수), 신용균(申龍均 중견수), 이재목(李在木 우익수), 박복동(朴福童 1루수) ▲중학단=경신고보, 송도고보, 중앙고보, 휘문고보 등 4개 교가 출전, 결승전에서 중앙고보가 4-3으로 휘문고보를 제치고 4년 만에 우승 △중앙고보=이준용(李駿鎔 중견수), 한영근(韓永根 1루수), 임성욱(2루수), 진성섭(陳性燮 유격수), 이두만(李斗萬 3루수), 구자정(具滋貞 포수), 이기경(李起卿 투수), 김선균(金善均 좌익수), 박경원(朴慶元 우익수),</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청년단=경전전차과, 전연희, 전희문, 럭비구락부, 개성상사, 군산척우단 등 6개 팀이 출전, 경전 전차과가 결승전에서 전연희를 5-4로 물리치고 대회 첫 우승</p> <p>△경전 전차과=장경환(유격수), 김점만(金點萬 좌익수), 강세희(투수), 장귀남(우익수), 안석창(安錫昌 포수), 위명환(魏明煥 중견수), 안삼복(安三福 2루수), 나주연(羅柱連 3루수), 김낙현(1루수)</p>	
06.16	<p>■제4회 중등학교야구리그, 휘문고보 우승</p> <p>조선일보사 주최로 경신, 중앙, 휘문고보 등 3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휘문고보 운동장에서 더블리그로 개최, 6월 22일 열린 휘문고보-중앙고보의 최종일 경기가 난투극으로 노 게임이 선언됐으나 휘문고보가 확보한 4전 전승으로 우승</p>	
06.21	<p>■제4회 호남중등학교대회</p> <p>익산군체육협회 주최로 6월 21일부터 7개 중학 팀(강경상업, 고창고보, 광주, 대전, 전주고보, 이리농림, 군산중)이 출전한 가운데 이리철도구장에서 개최, 6월 23일 끝난 결승전에서 전주고보가 이리농림을 18-2로 격파하고 우승</p> <p>▲준결승전=전주고보 13-0 고창고보, 이리농림 6-5 광주중 ▲결승전=전주고보 18-2 이리농림</p> <p>△전주고보=고노(河野 3루수), 야부타(藪田 유격수), 나카모토(中本 투수), 마키노(牧野 좌익수), 윤(尹 우익수), 이케다(池田 1루수), 다케시다(竹下 중견수), 유(劉 2루수), 송(宋 포수)</p>	
07.25	<p>■제3회 전조선실업연맹전경 제4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조선예선전</p> <p>조선실업연맹 주최로 7월 25일부터 3일간 전대구(남선), 식산은행(중부), 평양철도(서선) 등 3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제3회 전조선실업연맹전경 제4회 흑사자기쟁탈 전국도시대항대회 조선예선전을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7월 27일 최종일 경기에서 평양철도가 전대구를 7-0으로 격파하고 2전 전승으로 우승, 8월 5일부터 일본 메이지 진구(明治 神宮)구장에서 열릴 도쿄 니치니치(日日)신문사 주최 제4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진출 티켓 확보</p> <p>▲1회전=평양철도 3-2 식산은행 ▲2회전=식산은행 12-4 전대구 ▲3회전=평양철도 7-0 식산은행</p> <p>◇종합 순위=①평양철도(2승) ②식산은행(1승1패) ③전대구(2패)</p>	
07.28	<p>■제10회 조선중등대회경 제16회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 조선예선전</p> <p>조선체육협회 주최로 7월 28일부터 26개 중학 팀(용산중, 부산2상, 동래고보, 철도중, 광주중, 전주고보, 경성상업, 청주고보, 부산중, 평양중, 선린상업, 청주농업, 대구중, 신의주상, 목포상업, 대전중, 나남중, 이리농림, 대구상업, 대구고보, 경성사범, 진남포상, 배</p>	<p>제16회 전국중등우승대회 조선예선전에서 우승, 본선 진출권을 따낸 대구상업 선수들.</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재고보, 경성중, 부산1상, 인천남상업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과 용산 철도구장에서 개최, 8월 2일 경성운동장에서 끝난 결승전에서 양일득(1루수), 편순윤(3루수), 오명오(좌익수), 최달수(우익수) 등이 활약한 대구상업이 용산중을 2-0으로 물리치고 우승</p> <p>▲준결승전=대구상업 2-1 경성사범, 인천남상 1-15 용산중 ▲결승전=대구상업 2-0 용산중</p> <p>△대구상업=양일득(1루수), 편순윤(3루수), 오명오(좌익수), 최달수(崔達壽 우익수), 니헤이(二瓶 투수), 스기하라(杉原 포수), 나이토(内藤 2루수), 미토(三戸 중견수), 카메이(亀井), 야다(矢田 이상 대타), 사다(佐田 유격수)</p>	
08.03	<p>■제16회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p> <p>아사히신문사 주최로 오사카 고시엔구장에서 8월 3일 열린 제16회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에 대구상업이 조선대표로 출전, 1회전에서 요나코(米子)중학을 4-0으로 격파하고 2회전에 진출했으나 마쓰야마(松山)상업에 2-4로 패해 탈락</p>	
08.05	<p>■제4회 흑사자기쟁탈 전국도시대항대회</p> <p>도쿄(東京) 니치니치(日日)신문사 주최로 8월 5일부터 메이지 진구(明治 神宮)구장에서 열린 제4회 전국도시대항대회(8월 5~10일)에 평양철도가 조선대표로 출전, 1회전에서 도쿄(東京)구락부에 6-1로 패해 탈락</p> <p>△평양실업=오키(沖 2루수), 무로가(室賀 좌익수), 구로다(黒田 투수겸 유격수), 고니시(小西 중견수), 요시다(吉田 1루수겸 유격수), 히라마스(平松 3루수), 조점룡(趙點龍 포수), 이케다(池田 우익수), 다나카(田中 우익수겸 1루수), 후시미(伏見 2루수), 다코(多胡 포수), 사와다(澤田 1루수), 무네이시(宗石 투수)</p>	
08.05	<p>■일본 릿쿄(立教)대초청경기</p> <p>경성일보사 초청으로 8월 5일부터 14일까지 경성을 비롯해 겸이포(兼二浦), 광주, 전주를 순회하며 7차전을 개최, 조선인들로 구성된 고려군을 비롯해 7차전을 가져 식산은행에 패했을 뿐 6승을 올려 7전 6승1패를 기록</p> <p>▲1차전=릿쿄대 6-0 고려군 ▲ 2차전=릿쿄대 5-4 용산철도 ▲ 3차전=릿쿄대 3-1 체신국 ▲4차전=릿쿄대 7-5 미쓰비시제철 ▲ 5차전=릿쿄대 1-2 식산은행 ▲ 6차전 릿쿄대 32-5 전광주 ▲7차전=릿쿄대 21-1 전전주</p> <p>△고려군=코치 서상국 및 이영민, 김영석, 백기주, 강세희, 김수영, 함용화, 조점룡, 유재춘, 최세원, 김영길, 정인규, 김태호, 민용규, 이경구, 김정식, 김문량, 이영선, 유약한(劉約翰), 최재은(이상 후보)</p>	 <p>도쿄 유학생 출신들로 국가대표 격인 최강의 고려군을 편성, 릿쿄대에 도전했으나 역부족, 6-0으로 패배.</p>
08.15	<p>■제1회 조선중등학교선발대회</p> <p>경남체육협회 주최로 8월 15일부터 일본에서 야나이(柳井), 사가(佐賀), 도요쿠니(豊國), 오쿠라(小倉), 호후(防府)중을 비롯해 인천남상, 부산1상, 부산2상, 부</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산중, 동래고보, 용산중, 경성사범 등 12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공설운동장과 철도운동장에서 개최, 8월 18일 끝난 결승전에서 용산중학이 경성사범을 4-2로 누르고 우승</p> <p>▲준결승전=경성사범 8-2 부산2상, 용산중 8-0 부산1상 ▲결승전=용산중 4-2 경성사범</p> <p>△용산중=이토(伊藤 좌익수), 우라타(浦田 2루수), 하세가와(長谷川 투수), 하시베(橋邊 3루수), 오카모토(岡本 포수), 와다(和田 유격수), 기가(氣賀 1루수), 노자와(野澤 중견수), 아리마(有馬 우익수)</p>	
08.24	<p>■ 제7회 전조선야구쟁패전</p> <p>경성일보사 매일신보사 공동 주최로 8월 24일부터 평양철도, 전신의주, 평양실업, 흥남, 체신국, 경희구락부, 대전철도, 전전주, 전대구, 부산철도 등 10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8월 28일 열린 결승전에서 체신국이 전신의주를 10-2로 격파하고 우승</p> <p>▲준결승전=체신국 9-0 대전철도, 전신의주 1-0 경희구락부 ▲결승전=체신국 10-2 전신의주</p>	
09.13	<p>■ 조선야구심판협회 창립</p> <p>9월 13일 밤 조선일보사 회의실에서 조선야구심판협회 창립 총회를 열고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출</p> <p>▲위원장=이순탁(李順鐸) ▲상무위원=서상국(徐相國), 이원용(李源容) ▲위원=박석윤(朴錫胤), 이순재(李櫟宰), 이길용, 이영민, 함용화, 이경구, 정문기(鄭文基), 헌정주(玄正柱), 경신, 휘문, 중앙, 배재고보의 야구부장 ▲회원=안익조(安益祚), 김영석, 차세진(車世進), 김찬성(金贊成), 서민호(徐珉濠), 김태호(金泰浩)</p>	
09.14	<p>■ 경성실업추계연맹전</p> <p>경성실업연맹 주최로 9월 14일부터 철도국, 체신국, 식산은행, 경성전기 등 4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9월 21일 이영민이 활약한 식산은행이 전승으로 우승. 함용화(포수) 김영석(투수)이 뛴 체신국은 1승2패로 3위</p> <p>◇종합 순위=①식산은행(3승) ②철도국(2승1패) ③체신국(1승2패) ④경성전기(3패)</p> <p>△식산은행=시노하라(市村 중견수), 스즈키(鈴木 忠 좌익수), 사카이(坂井 2루수), 가토(加藤 1루수), 다카하라(高原 투수), 스즈키(鈴木 政 3루수), 나스(那須 우익수), 삿소쿠(早速 포수), 이마하라(磯部, 카지야마(梶山 이상 2루수), 이영민(李榮敏 투수겸 포수)</p>	
09.25	<p>■ 제6회 4구락부추계연맹전</p> <p>배재고보가 징계로 묶인 가운데 9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휘문과 중앙구락부가 출전한 가운데 더블 리그로 휘문고보 운동장에서 개최, 휘문이 2승1패로 우승</p> <p>▲전휘문 6-3 전중앙 ▲전중앙 5-2 전휘문 ▲전휘문 9-5 전중앙</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개인상 ▲ 타격상=신형균(전희문 .400) △전희문=최재은(중견수겸 좌익수및 2루수), 손희준(유격수), 김정식(1루수겸 중견수및 포수), 안복암(포수겸 우익수), 이경구(좌익수), 강세희(3루수겸 투수), 이신득(우익수), 배기협(裴基協 좌익수), 신형균(2루수겸 우익수및 중견수), 유재춘(2루수), 이쾌대(李快大 3루수), 민용규(3루수) △전중양=김문량(중견수), 김태호(3루수), 김수영(우익수겸 투수및 2루수), 김영길(포수), 홍문길(좌익수), 김순구(투수겸 우익수), 임성옥(2루수겸 투수및 우익수), 이기경(투수겸 2루수및 우익수), 진성섭(유격수), 최용준(1루수), 이준용(우익수겸 대타)</p>	
09.27	<p>■ 제5회 호남중등학교대회 익산군체육협회 주최로 9월 27일부터 6개 중학 팀(군산중, 전주고보, 이리농림, 고창고보, 대전중, 목포상업)이 출전한 가운데 이리 철도구장에서 개최, 9월 28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목포상업이 이리농림을 6-4로 꺾고 우승 ▲ 준결승전=전주고보 9-10 목포상업, 이리농림 10-3 고창고보 ▲ 결승전=목포상업 6-4 이리농림 △ 목포상업=야마구치(山口 유격수), 사사다(笹田 중견수겸 투수), 고우다(畠田 1루수), 오노(大野 투수겸 중견수), 기야마(木山 2루수겸 3루수), 쿠미하시(組橋 3루수겸 2루수), 노(魯 2루수), 하시모토(橋本 3루수), 가문(加門 포수), 모로이(師井 우익수), 나카타(永田), 아라키(荒木 이상 좌익수)</p>	
10.14	<p>■ 제4회 조선신궁중등학교대회 조선체육협회 주최로 10월 14일부터 전국에서 8개 중학 팀(경성사범, 경성상업, 대구상업, 배재고보, 부산2상, 용산중, 인천상업, 평양중)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10월 17일 열린 결승전에서 대구상업이 평양중을 3-2로 제치고 우승 ▲ 준결승전=경성상업 1-6 평양중, 경성사범 5-6 대구상업 ▲ 결승전=대구상업 3-2 평양중 △ 대구상업=양일득(1루수), 편순윤(3루수), 오명오(좌익수), 니헤이(二瓶 투수), 최달수(崔達壽 우익수), 스키하라(杉原 포수), 미토(三戸 중견수), 나이토(内藤 2루수), 사다(佐田 유격수)</p>	
10.17	<p>■ 제3회 전조선보통학교아동야구대회 중앙고보 주최로 10월 17~21일 효창, 미동, 정동, 죽참, 교동, 공옥, 재동, 혜화, 청운공보 등 9개 교가 출전한 가운데 중앙고보 운동장에서 개최, 주최측 사정으로 11월 6일 열린 결승전에서 교동공보가 미동공보를 4-1로 꺾고 우승 ▲ 준결승전=교동공보 12-8 혜화공보, 미동공보 3-1 정동공보 ▲ 결승전=교동공보 4-1 미동공보 △ 교동공보=구경서(具暻晝 유격수), 이덕하(李德河 중견수), 안호연(安浩然 3루수), 박용래(朴容來 포수),</p>	<p>■ 내셔널리그 마지막 4할 타자 뉴욕 자이언트의 빌 테리가 .401의 타율로 타격왕에 오르면서 내셔널리그의 마지막 4할 타자가 되다.</p> <p>■ 메이저리그 시즌 최다 타점 시카고 컵스의 핵 월슨이 메이저리그 사상 최초로 한 시즌 190 타점을 기록, 1927년 루 게릭이 수립한 메이저리그 최다 175타점을 경신</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박찬백(朴燦栢 1루수), 신대철(申大澈 2루수), 김순모(金舜模 우익수), 한영수(韓榮洙 좌익수), 김선익(金善益 투수)	
1931. 04.18	■ 주교(中京)상업초청경기 조선신문사 주최로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국내 실업 및 중학 팀과 경성운동장에서 3연전을 개최, 함용화(포수)와 김영석(투수)이 뛴 체신국 및 식산은행과 경성상업까지 꺾고 3전 전승을 기록 ▲1차전=주교상업 5-0 체신국 ▲2차전=주교상업 6-0 식산은행 ▲3차전=주교상업 9-0 경성상업	■ 03.21 관서체육회 회장에 조만식 3월 21일 오후 8시 평양부내 백선행(白善行) 기념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에 조만식(曹晩植)을 선임
04.29	■ 경성실업준계연맹전 일본인 단체인 경성실업연맹 주최로 4월 29일부터 체신국, 철도국, 식산은행, 경성전기가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6월 10일 철도국이 5승2패로 우승이 확정된 가운데 끝난 최종일 경기에서 김영석(투수)과 함용화(포수)가 뛴 체신국이 경성전기를 11회 연장전 끝에 2-1로 꺾고 4승3패로 이영민이 활약한 식산은행과 공동 준우승 ◇종합 순위=①철도국(5승2패) ②체신국, 식산은행(이상 4승3패) ③경성전기(1승6패) ◇개인상 ▲타격상=①오시마(大島 체신국 .364) ②산소쿠(早速 식산은행 .357) ③다카하라(高原 식산은행 .354) ④마츠모토(松本 식산은행 .333) ⑤시미즈(清水 체신국 .333)	■ 04.11 조선농구협회 창립 4월 11일 하오 3시 백합원에서 열린 창립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 ▲회장=안재홍(安在鴻) ▲부회장=김규면 ■ 04.21 조선농구심판협회 창립 4월 30일 창립 이사회를 열고 정, 부회장 및 고문을 선출 ▲회장=유억겸 ▲부회장=현동완 ▲고문=반하드
05.09	■ 배재고보 경기 출전 정지 해제 조선체육회가 5월 9일 이사회를 열고 1929년 6월 17일 결의한 배재고보에 대한 5년 간의 출전 정지 처분을 2년 만에 해제	
05.14	■ 경성중등학교야구연맹 발족 경성 본정 메이지(明治)제과 3층 홀에서 일본인 중등학교 교장 및 야구부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총회를 열고 정식 출범, 첫 행사로 경성부내중등학교리그전(5월 16일~6월 9일)을 경성운동장과 용산 철도구장에서 개최하기로 의결	
05.17	■ 제1회 경성중등학교리그 경성중등야구연맹 주최로 5월 17일부터 경성부내 6개 일본인 중학 팀(경성사범, 경성상업, 경성중, 선린상업, 용산중, 철도학교)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과 용산 철도구장에서 개최, 6월 14일 용산중이 5전 전승으로 우승한 가운데 폐막 ◇종합순위=①용산중(5승) ②경성상업(4승1패) ③경성중(3승2패) ④경성사범(2승3패) ⑤선린상업(1승4패) ⑥철도학교(5패) ◇개인상 ▲타격상=하시베(橋邊 용산중 .424) ▲본루타상=야마나카(山中 경성상업)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5.23	<p>■ 제7회 4구락부춘계연맹전 4구락부연맹 주최로 5월 23일부터 전배재를 비롯해 전경신, 전중양, 전희문 등 4개 교가 출전한 가운데 휘문고보 운동장에서 더블 리그로 개최 6월 4일 전희문이 5승1패로 우승한 가운데 폐막</p> <p>▲ 1차전=전배재 15-2 전경신, 전희문 9-4 전중양, 전중양 20-3 전경신, 전희문 3-2 전경신, 전희문 6-3 전배재, 전배재 8-7 전중양</p> <p>▲ 2차전=전희문 17-6 전경신, 전중양 18-14 전경신, 전배재 14-1 전경신, 전중양 12-8 전배재, 전희문 6-2 전중양, 전배재 3-2 전희문</p> <p>◇ 종합 성적=①전희문(5승1패) ②전배재(4승2패) ③전중양(3승3패) ④전경신(1승5패)</p> <p>◇ 개인상 ▲ 타격상=①이영민(전배재 .619) ②민용규(전희문 .429) ③김수영(전중양 .369) ④손희준(전희문 .348) ⑤김일배(전배재 .333)</p> <p>▲ 전희문=이경구(중견수겸 투수 및 3루수), 손희준(2루수겸 3루수), 김정식(1루수겸 3루수 및 투수), 오용건(좌익수), 안복암(포수겸 우익수), 이신득(중견수), 최재은(투수겸 우익수 및 2루수), 손문창(1루수), 김규진(金奎鎭 3루수), 민용규(유격수겸 1루수), 강세희(3루수겸 2루수 및 우익수), 신형균(우익수겸 포수), 이쾌대(2루수겸 유격수), 송재경(宋在暲 2루수), 배기협(좌익수)</p> <p>▲ 전배재=백기주(유격수겸 중견수 및 좌익수겸 투수), 조한봉(趙漢鵬 유격수), 나조화(2루수겸 우익수), 배한증(裴漢增 2루수겸 좌익수), 오윤환(좌, 우익수겸 1, 3루수 및 유격수), 이영민(투수겸 유격수 및 중견수), 조점룡(포수겸 1루수), 함용화(좌익수겸 1루수 및 포, 투수), 엄점득(좌익수겸 중견수), 김인식(金仁植 1루수겸 우익수), 지성룡(투수겸 1, 2루수), 김일배(3루수겸 좌, 우익수 및 1루수), 장귀남(중견수), 이명복(포수겸 대타), 김영석(1루수겸 투수 및 좌익수), 김태봉(좌익수), 원소자(元小者 좌익수겸 우익수)</p> <p>▲ 전중양=김태호(유격수), 김문량(중견수겸 우익수), 김수영(우익수겸 투수), 김영길, 김동석(金東石), 구자정(이상 포수), 이준용(좌익수겸 중견수), 이세화(李世華 투수겸 2루수), 유초덕(劉初德 우익수), 이기경(투수겸 우익수 및 1, 2루수), 조종표(趙鍾杓 1루수), 최용준(1루수겸 우익수), 이두만(3루수), 박경원(우익수겸 좌익수), 박용상(朴容祥 유격수), 임성옥(1루수겸 우익수 및 유격수), 박칠복(2루수겸 포수)</p> <p>△ 전경신=최해룡(崔海龍 1루수겸 2루수), 문이봉(文二峯 좌, 우익수겸 2루수 및 포수), 박임서(朴林瑞 우익수), 김동석(金東石 3루수), 이영선(중견수겸 좌, 우익수 및 투수겸 3루수), 유약한(우익수겸 좌익수 및 투수), 김귀남(金貴男 투수겸 좌익수 및 1, 2루수), 이창선(李彰善 유격수), 이수찬(李壽讚 우익수겸 좌익수), 이덕윤(李德潤 우익수), 이창준(李昌俊 우익수겸 2루수 및 포수), 오상기(吳相麒 좌익수겸 중견수), 최준동(崔後童 포수)</p>	  <p>제7회 4구락부춘계연맹전 입장식(위)과 첫날 열린 전배재-전경신의 경기.</p>  <p>구락부연맹전 3일째인 경신-중양의 경기 장면</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6.02	<p>■ 미국 알라메다야구단초청경기 일본인 단체 조선체육협회 초청으로 6월 1일 입경, 6월 2일부터 14일까지 경성을 비롯해 인천, 용산, 평양 운동장에서 8차전 끝에 6승 2패 ▲1차전=알라메다 7-4 경성전기 ▲2차전=알라메다 6-5 철도국 ▲3차전=알라메다 4-5 식산은행 ▲4차전=알라메다 7-5 체신국 ▲5차전=알라메다 6-5 경성전기 ▲6차전=알라메다 4-11 간사이대 ▲7차전=알라메다 7-5 평양철도 ▲8차전=알라메다 6-4 전신의주</p>	
06.11	<p>■ 제12회 전조선야구대회 조선체육회 주최 동아일보 후원으로 6월 11일부터 3일간 11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6월 13일 징계에서 풀린 배재고보가 중학단 결승전에서 중앙고보를 18-1로 격파하고 6년 만에 패권 탈환 ▲소학단=교동공보, 재동공보, 공옥보교 등 3개 교가 출전, 결승전에서 공옥보교가 재동공보를 8-5로 물리치고 우승 △공옥보교=정기창(鄭基昶 좌익수), 이재래(李在來 3루수), 백용주(白用珠 투수), 박용채(朴鏞采 포수겸 1루수), 박영기(朴榮基 1루수겸 포수), 김봉식(金鳳植 우익수), 양은석(梁殷錫 2루수), 하준일(河準一 중견수), 최경옥(崔慶玉 유격수) ▲중학단=휘문고보, 중앙고보, 배재고보, 경신학교 등 4개 교가 출전, 결승전에서 배재고보가 18-1로 중앙고보를 꺾고 우승 △배재고보=원소자 임명옥(林命玉 이상 좌익수), 나조화(중견수), 김일배(3루수겸 투수), 오윤환(투수겸 3루수), 김인식(3루수), 이은제(李殷濟 우익수), 조한봉(유격수), 안송죽(安松竹 2루수), 이명복(포수) ▲청년단=경전전차, 연희전문, 월성단, 전배재 등 4개 팀이 출전, 결승전에서 전배재가 9-4로 연희전문을 제치고 우승 △전배재=김영석(투수), 박점수(1루수), 이영민(유격수), 함용화(포수), 장귀남(중견수), 정원복(鄭元福 2루수), 이태순(李泰淳 좌익수), 오경환(吳庚煥 우익수), 송의래(宋義來 3루수)</p>	 <p>제12회 전조선야구대회 청년단부에서 우승을 차지한 전배재 선수들.</p>
06.14	<p>■ 간사이(關西)대초청경기 '조선공론사' 초청으로 6월 14일부터 경성운동장에서 경성부청, 고려군, 경성의전 등과 3차전을 개최한 끝에 전승을 기록 ▲1차전(6월 14일)=간사이대 9-1 경성부청 ▲2차전(6월 15일)=간사이대 9-2 고려군 ▲3차전(6월 17일)=간사이대 10-0 경성의전 △고려군=김정식(중견수), 백기주(2루수), 이영민(좌익수겸 투수), 함용화(포수), 김수영(1루수), 김영석(투수겸 좌익수), 오명오(좌익수), 민용규, 손희준(이상 유격수), 강세희(3루수), 이경구(우익수)</p>	
06.20	<p>■ 제3회 전조선고등·전문(高等·專門)학교대회 경성제대 야구부 주최로 6월 20일부터 3일간 연희전</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문, 치의전, 경성대예과, 평양의학강습 등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6월 22일 열린 결승전에서 경성대 예과가 연희전문을 6-1로 격파하고 우승</p> <p>△연희전문=백기주(투수), 심운영(유격수), 김수영(3루수), 안복암(포수), 오용건(좌익수), 백순성(白順星 1루수), 배한증(裴翰增 2루수겸 우익수), 엄점득(嚴點得 중견수), 민영선(閔泳善 우익수겸 2루수)</p>	
06.23	<p>■ 제4회 연희전문-경성의전 정기대항전</p> <p>연희전문 경성의전 주최로 6월 23일부터 이틀간 경성운동장에서 연전-경의전 대항전을 개최, 6월 24일 연희전문의 1-4로 패해 2전 전패</p> <p>▲1차전(6월 23일)=연희전문 2-4 경성의전 ▲2차전(6월 24일)=연희전문 1-4 경성의전</p> <p>△연희전문=백기주(투수겸 3루수), 오용건(좌익수), 김수영(3루수겸 투수), 심운영(유격수), 백순성(1루수), 안복암(포수), 배한증(우익수겸 2루수), 엄점득(중견수), 민영선(2루수겸 우익수)</p> <p>(연희전문이 2년 연속 완패를 당하자 7월 1일부터 이영민(식산은행)의 지도로 하계 합숙훈련에 돌입)</p>	
06.27	<p>■ 제1회 전조선중등학교야구대회</p> <p>연희전문이 전조선중등학교야구대회를 창설, 제1회 대회에 배재고보와 중앙고보 두 팀만 출전한 가운데 연희전문 운동장에서 개최, 6월 26~27일 개최 예정이던 일정을 변경해 27일 단판 승부로 치른 결승전에서 배재고보가 13-5로 중앙고보를 꺾고 첫 우승</p> <p>△배재고보=원소자(좌익수), 나조화(중견수), 김일배(3루수), 오윤환(투수), 이은제(우익수), 김인식(1루수), 안송죽(2루수), 조한봉(유격수), 이명복(포수)</p> <p>△중앙고보=이준용(중견수), 박경원(우익수), 이두만(포수), 구자정(1루수), 이기경(투수겸 2루수), 조종표(3루수), 황영복(黃永福 좌익수), 박용상(유격수), 이세화(2루수겸 투수)</p>	 <p>제1회 전조선중등학교야구대회에서 중앙고보를 꺾고 우승을 차지한 배재고보 나인들</p>
07.10	<p>■ 제4회 전조선실업연맹경 제5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조선예선전</p> <p>오사카(大阪) 마이니치(毎日)신문사 경성지국 주최로 7월 10일부터 전국 4개 지역 우승 팀인 용산철도(경성), 전대구(남선), 미쓰비시(서선) 전목포(호남)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7월 12일 끝난 최종일 경기에서 용산철도가 전대구를 9-3으로 꺾고 3전 전승으로 우승, 8월 4일부터 일본 도쿄 메이지 진구(明治 神宮)구장에서 열리는 매일신문사 주최 제5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진출 티켓 확보</p> <p>◇종합 순위=①용산철도(3승) ②전대구, 전목포, 미쓰비시(이상 1승2패)</p>	
07.26	<p>■ 제11회 조선중등학교대회경 제17회 전국중등우승대회 조선예선전</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조선체육협회 주최로 7월 26일부터 36개 중학 팀이 4개 권역(남선, 호남, 중부, 서북)으로 나누어 1차 예선과 2차 예선을 개최, 8월 5일 끝난 2차 예선 결승전에서 경성상업이 평양중을 7-1로 격파하고 우승</p> <p>▲준결승전=경성상 7-2 전주고보, 평양중 6-0 대구상 ▲결승전=경성상 7-1 평양중</p> <p>△경성상업=호우노(法野 3루수), 가가(加賀 중견수), 야마나카(山中 1루수겸 투수), 다나카(田中 포수), 야마모토(山本 투수겸 1루수), 오카모토(岡本 2루수), 요코데(横手 우익수), 하야시(林 좌익수), 이노우에(井上 유격수)</p>	
08.04	<p>■제5회 흑사자기쟁탈 전국도시대항대회</p> <p>오사카(大阪) 마이니치(毎日)신문사 주최로 8월 4일부터 9일까지 메이지 진구(明治 神宮)구장에서 열린 제5회 전국도시대항대회에 용산철도가 조선대표로 출전, 1회전에서 대만대표 대북교통에게 12-2로 패해 탈락</p>	
08.13	<p>■제17회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p> <p>아사히신문사 주최로 8월 13일부터 고시엔구장에서 개최한 제17회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에 경성상업이 조선대표로 출전, 1차전을 부전 승으로 2차전에 진출, 타이샤(大社)중학에 11-12로 패해 탈락</p>	
08.18	<p>■제2회 조선중등학교선발대회</p> <p>경남체육협회 주최로 8월 16일부터 일본의 사가(佐賀)상업, 도쿠야마(徳山)상업, 나카스(中津)중을 비롯해 대구상업, 부산2상, 용산중 등 6개 중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 8월 19일 열린 결승전에서 사가상업이 용산중을 3-2로 누르고 우승</p>	
08.23	<p>■제8회 전조선야구쟁패전</p> <p>경성일보 매일신보사 공동 주최로 8월 23일부터 10개 팀(경성부청, 체신국, 전대구, 부산철도, 조선질소, 전이리, 평양실업, 전신의주, 경희구락부, 대전철도)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8월 26일 끝난 결승전에서 체신국이 전대구를 10-9로 제치고 우승</p> <p>▲준결승전=전대구 14-5 조선질소, 체신국 9-0 경희 ▲결승전=체신국 10-9 전대구</p> <p>◇개인상 ▲타격상=마쓰무라(松村 조선질소) ▲파인플레이상=히가시(東 신의주)</p> <p>△체신국=사다케(佐武 3루수), 기타야마(北山 2루수), 함용화(咸龍華 포수), 오카자키(岡崎 우익수겸 투수), 다오카(田岡 1루수), 난조(楠城 우익수), 야나기(柳 대타), 다카노(高野 투수), 김영석(金永奭 우익수겸 투수), 시미즈(清水 중견수), 다나카(田中 좌익수), 아사노(淺野 유격수)</p>	
08.28	<p>■도쿄(東京)제국대초청경기</p> <p>일본인 단체 조선체육협회 초청으로 8월 26일 입경, 8월 28일부터 경성실업 팀들과 4차전을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9월 1일 열린 최종일 경기에서 식산은행을</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5-4로 꺾고 2승2패를 기록 ▲1차전=도쿄제대 0-2 체신국 ▲2차전=도쿄제대 4-3 경성전기 ▲3차전=도쿄제대=4-5 철도국 ▲4차전=도쿄제대 5-4 식산은행	
09.06	■ 경성실업추계연맹전 경성실업연맹 주최로 9월 6일부터 경성전기, 체신국, 식산은행, 철도국 및 부활한 경성부청 등 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9월 20일 끝난 추계리그에서 철도국이 4전 전승으로 우승 ◇종합 순위=①철도국(4승) ②식산은행(3승1패) ③체신국, 경성전기, 경성부청(이상 1승3패) ◇개인상 ▲타격상=①나가타(永田 철도 .643) ②스즈키(鈴木 忠 식산은), 야스다(安田 철도 이상 .500) ④니시무라(西村 철도 .400) ⑤쓰시마(津島 경성전기 .387)	
09.10	■ 부산중등학교추계리그 부산중등학교야구연맹 결성 기념 부산체육협회 주최로 9월 10일부터 부산중, 동래고보, 부산1상업(현 부경고), 부산2상업(현 개성고) 등 부산부내 4개 중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 9월 15일 끝난 최종일 경기에서 부산중이 부산2상에 2-3으로 패해 동률이 됐으나 득실점에서 9-4로 앞서 2승1패로 우승 ◇종합 순위=①부산중(2승1패) ②부산2상(2승1패) ③부산1상(1승2패) ④동래고보(1승2패)	■ 09.18 만주사변 발발 일본 관동군이 군사를 일으켜 만주를 침략, 만주사변 발발
09.21	■ 제5회 중등학교야구리그 조선일보사 주최로 9월 21일부터 경신, 배재, 중앙, 휘문고보 등 4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9월 28일 배재 응원단의 심판폭행 5년 제재 2년만에 복귀한 배재고보가 3전 전승으로 우승	
10.14	■ 제5회 조선신공중등학교대회 조선체육협회 주최로 10월 14일부터 전국에서 8개 중학 팀(경성상업, 경성중, 대구상업, 배재고보, 용산중, 인천상업, 전주고보, 평양중)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10월 18일 열린 결승전에서 대구상업이 경성상업을 6-5로 누르고 우승 ▲준결승전=대구상업 4-1용산중, 평양중 1-2 경성상업 ▲결승전=대구상업 6-5 경성상업 △대구상업=다카노(高野 유격수), 카메이시(龜石 좌익수), 니헤이(二瓶 투수), 나이토(内藤 2루수), 편순윤(3루수), 야다(矢田 1루수), 다나카(田中 포수), 서병수(徐丙洙 우익수), 미토(三戸 중견수)	
10.16	■ 제4회 전조선보통학교아동대회 중앙고보 주최로 10월 16일부터 중앙고보 운동장에서 열린 이 대회에 재동, 죽참, 용산, 교동, 정동공보 등 5개 교가 출전, 10월 18일 열린 결승전에서 재동공보가 1-0으로 용산공보를 제치고 우승	■ 미국야구기자협회에 MVP 선출권 메이저리그 최우수선수(MVP) 선출권을 부여 받은 미국야구기자협회 소속 기자들이 아메리칸리그에서 레프티 그로브 내셔널리그에서 프랭크 프리시를 MVP로 각각 선정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재동공보=김봉룡(2루수겸 투수), 김병호(투수겸 3루수), 배한렬(포수), 이종국(유격수), 이일웅(1루수), 오치환(중견수), 장석원(3루수겸 2루수), 홍의표(좌익수), 한성진(우익수)</p>	
1932. 04.15	<p>■ 일본 모지(門司)철도초청경기 경성일보사 초청으로 4월 15일부터 국내 5개 실업 팀들과 경성운동장에서 5차전을 개최한 끝에 모지철도가 4승1패를 기록 ▲1차전=모지철도 2-3 경성전기 ▲2차전=모지철도 14-5 식산은행 ▲3차전=모지철도 8-1 경성부청 ▲4차전=모지철도 3-1 체신국 ▲5차전=모지철도 11-7 용산철도</p>	
04.29	<p>■ 경성실업준계연맹전 경성실업연맹 주최로 4월 29일부터 체신국(포수 함용화), 식산은행(투수 이영민), 경성부청(1루수 김정식, 우익수 오명오), 경성전기, 철도국 등 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6월 1일 끝난 최종일 경기에서 철도국이 체신국에게 0-4로 패했으나 종합 전적 6승3패로 우승 ◇종합 순위=①철도국(6승3패) ②경성전기(5승4패) ③체신(6승5패) ④식산은행(4승4패) ⑤경성부청(2승7패)</p>	<p>■ 02.15 조선실업야구연맹 해체 조선실업야구연맹이 이사회를 열고 재정적인 결손으로 해체를 의결 ■ 04.17 소년운동협회 결성 천도교소년회 사무실에서 방정환(方定煥), 조철호(趙喆鎬) 등 경성부내 소년단체 대표들과 각 신문사 기자들이 모여 결성.</p>
05.15	<p>■ 제2회 경성중등학교준계리그 경성중등학교야구연맹 주최로 5월 15일부터 경성부내 6개 중학 팀(경성중, 경성사범, 경성상업, 선린상업, 용산중, 철도학교)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6월 19일 전 경기를 끝낸 상태에서 경성중과 경성상업이 4승1패로 동률, 6월 29일 치른 순위 결정전에서 경성상업이 경성중학을 5-1로 물리치고 우승 ◇종합 순위=①경성상업(4승1패) ②경성중(3승2패) ③용산중(3승2패) ④선린상업, 경성사범(이상 2승3패) ⑥철도학교(5패)</p>	<p>■ 04.29 윤봉길 의사, 홍구공원 폭탄 투척 윤봉길 의사가 일왕(日王) 생일인 천장절(天長節) 축하식장(중국 상하이 홍구공원)에 잠입, 단상 위로 폭탄을 던져 일본 상하(上海)이 파견군 대장 등을 즉사시키는 거사를 감행</p>
05.23	<p>■ 제5회 연희전문-경성의전 정기대항전 연희전문-경성의전 정기대항전을 5월 23일부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연희전문이 1차전에서 12회 연장전 끝에 경성의전을 8-7로 누르고 첫 승을 올렸으나 2, 3차전에서 무릎을 꿇어 종합 성적 1승 2패로 패배 ▲1차전(5월 23일)=연희전문 8-7 경성의전(연장 12회) ▲ 2차전(5월 24일)=경성의전 7-3 연희전문 ▲ 3차전(6월 3일)= 경성의전 9-8 연희전문 △연희전문=김수영(1루수), 안복암(포수), 백기주(3루수겸 투수및 유격수), 이동수(李東壽 투수겸 3루수), 이준용(우익수겸 중견수), 문택호(文宅鎬 2루수겸 우익수및 중견수), 박원철(朴源轍 좌익수), 정용수(鄭龍洙 중견수겸 2루수), 손희준(유격수겸 투수)</p>	
06.04	<p>■ 간사이(關西)대초청경기 조선신문사 초청으로 내한, 6월 4일부터 체신국(17-</p>	<p>■ 05.25 제10회 올림픽예선 마라톤대회 일본에서 벌어진 올림픽예선 마라톤대회</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1), 철도국(5-4), 경성부청(29-3), 경성전기(1-4), 전경성(5-2) 등과 5차전 끝에 4승1패	에서 권태하(權泰夏), 김은배(金恩培)가 1, 2위를 차지
06.10	<p>■연희전문, 대전·대구 원정경기</p> <p>연희전문 야구부가 6월 9일 경성역을 출발하는 열차편을 이용, 대전과 대구에서 원정 야구 경기를 개최</p> <p>▲6월 10일(대전)=연희전문 4-6 대전철도 ▲6월 11일(대구)=연희전문 (미상) 전대구</p> <p>△연희대=백기주(투수), 안복암(포수), 김수영(1루수), 문택호(2루수), 이동수(3루수), 손희준(유격수), 정용수, 이준용, 박원철, 변홍석(卞洪錫 이상 외야수)</p>	<p>■06.03 루 게릭 한 경기 4홈런</p> <p>뉴욕 양키스의 루 게릭이 필라델피아 에이스전에서 메이저리그 사상 3번째로 한 경기에서 4홈런을 기록(첫 번째는 1894년 5월 30일 보스턴 빈이터스의 보비 로가 신시내티 레즈전에서, 두번째는 1896년 7월 13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에드 델레한티가 시카고 콜츠전에서 기록)</p>
06.11	<p>■제2회 전조선중등학교대회 최장 연장전</p> <p>연희전문 주최로 6월 11일부터 중앙고보, 휘문고보가 출전한 가운데 연희전문 운동장에서 단판 승부로 개최, 중학 사상 최장 17회 연장전 끝에 중앙고보가 8-3으로 이겨 대회 첫 우승</p> <p>△중앙고보=박경원(중견수), 김태하(대타), 조종표(3루수), 이두만(포수), 이기경(우익수겸 투수), 이규동(李揆東 투수겸 우익수), 황영복(좌익수), 정인영(鄭寬永 유격수), 최재홍(崔載弘 2루수), 이세화(1루수)</p> <p>△휘문고보=이쾌대(유격수), 송재경(2루수), 신형균(투수), 이신득(포수), 임경학(林慶鶴 3루수), 김동권(金東勸 좌익수), 김경복(金慶復), 최경수(崔景洙 이상 우익수), 정재선(鄭在善 중견수), 김용의(金容義 투수)</p>	<p>■뉴욕 자이언츠 감독 30년 만에 은퇴</p> <p>1902년부터 뉴욕 자이언츠를 30년간 이끌어온 존 맥그로 감독이 시즌 40경기를 치른 시점에서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자 빌 테리에게 지휘봉을 넘긴 뒤 은퇴</p>
06.16	<p>■제13회 전조선야구대회</p> <p>일본이 야구통제안을 발효시킨 가운데 조선체육회 주최로 6월 16일부터 3일간 10개 교가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공옥보교(소학단), 중앙고보(중학단), 월성단(청년단)이 각각 우승</p> <p>▲소학단=공옥보교, 효창공보, 주교공보, 재동공보 등 4개 교가 출전, 결승전에서 공옥보교가 재동공보를 2-1로 누르고 대회 4연패 달성</p> <p>△공옥보교=김학근(金學瑾 투수겸 유격수), 백원기(白元基 2루수), 양은석(梁殷錫 유격수겸 투수), 박인호(朴仁鎬 1루수), 유상룡(劉祥龍 포수), 태윤문(太潤文 좌익수), 이은봉(李銀奉), 조영행(趙永行 이상 중견수), 신형균(申瑩均 우익수), 전병갑(全秉鉀 3루수)</p> <p>△재동공보=장석원(張錫源 투수), 윤치복(尹致福 3루수), 김문현(金文鉉 유격수), 전인수(全仁洙 포수), 전창수(全昌洙 1루수), 이종택(李鍾澤 중견수), 김성진(金成鎭 2루수), 천진영(千鎭英 우익수), 문영우(文泳祐 좌익수)</p> <p>▲중학단=경신고보, 송도고보, 중앙고보, 휘문고보 등 4개 교가 출전, 결승전에서 중앙고보가 휘문고보를 15-0으로 격파하고 우승</p> <p>△중앙고보=박경원(중견수), 이세화(투수겸 1루수), 이두만(포수), 이기경(1루수겸 투수), 이규동(1루수), 김영하(金永河 우익수), 정관영(鄭寬永 유격수), 황영복(좌익수), 최재홍(2루수), 조종표(3루수)</p>	 <p>휘문고보 운동장에서 열린 제13회 전조선 야구대회 입장식 광경</p>  <p>중학단 첫 경기에서 중앙고보가 송도고보를 18-4로 꺾고 2회전에 진출했다.</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휘문고보=이쾌대(유격수겸 투수), 노영윤(盧英允 2루수), 송재경(투수겸 유격수및 3루수), 신형균(3루수겸 2루수), 이신득(포수), 임경학(3루수겸 투수및 유격수), 최경수(중견수), 김동권(좌익수), 김경복(우익수), 김용의(1루수)</p> <p>▲청년단=전연희, 월성구락부 등 2개 팀이 출전, 단판승부로 벌어진 결승전에서 월성구락부가 15-5로 전연희를 꺾고 우승</p> <p>▲월성구락부=최재은(2루수겸 투수및 3루수), 이경구(좌익수), 김정식(3루수겸 포수), 함용화(포수겸 3루수및 1루수겸 투수), 오명오(1루수겸 2루수), 김영석(투수겸 1루수), 이동윤(李東倫 유격수), 유응호(柳應浩), 이귀남(李貴男 이상 우익수), 원소자(중견수)</p> <p>△전연희=김영길(포수겸 1루수), 김태호(우익수), 이영민(투수겸 포수), 이영선(좌익수겸 1루수및 중견수), 유약한(중견수겸 우익수및 투수), 지운영(池云永 1루수), 엄점득(우익수겸 1루수및 좌익수), 조원형(趙源衡 2루수겸 우익수), 송세범(3루수)</p>	 <p>조선체육회 윤치호 회장이 중학부 결승전에서 휘문고보를 꺾고 우승을 차지한 중앙고보 주장에게 우승기를 건네고 있다. 중앙고보는 앞서 열린 연희전문 주최 중등야구대회에서도 17회 연장전 끝에 휘문고보를 물리치고 우승</p>
06.18	<p>■제7회 호남중등학교대회</p> <p>익산군체육협회 주최로 6월 18일부터 목포상업, 대전중, 군산중, 전주고보, 이리농림 등 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이리 철도구장에서 개최, 6월 19일 열린 결승전에서 군산중이 이리농림을 4-1로 꺾고 우승</p> <p>▲준결승전=이리농림 4-3 대전중, 군산중 5-2 목포상 ▲결승전=군산중 4-1 이리농림</p> <p>△군산중=야마나카(山中 유격수), 미즈노(水野 투수), 야마자키(山崎 3루수), 쿠아나(桑名 포수), 하마다(濱田 1루수), 후지다(藤田 좌익수), 야마모토(山本 중견수), 오사카(大阪 우익수), 지미(自見田 2루수)</p>	
06.25	<p>■제5회 전조선보통학교아동야구대회</p> <p>중앙고보 주최로 6월 25일부터 공옥, 용강, 재동, 정동, 교동, 효창, 혜화, 주교, 청운, 수하공보 등 10개 보통학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중앙고보 운동장에서 개최, 6월 28일 열린 결승전에서 주교공보가 5-3으로 교동공보를 꺾고 대회 첫 우승</p> <p>▲준결승전=주교공보 12-5 수하공보, 교동공보 9-5 제동공보 ▲결승전=주교공보 5-3 교동공보</p> <p>△주교공보=김병욱(金炳旭 2루수), 박용태(朴容兌 좌익수), 조정상(趙禎相 유격수), 서정상(徐廷相 투수), 김병환(金炳煥 포수), 이희철(李熙喆 중견수), 양중현(梁重鉉 1루수), 허영(許榮 우익수), 원기준(元基俊 3루수)</p> <p>△교동공보=김철구(金澈龜 유격수), 김영배(金英培 3루수), 방인식(方仁植 투수), 이위재(李渭載 포수), 이종섭(李鍾燮 1루수), 변규석(卞圭錫 우익수), 홍순희(洪淳熹 중견수), 강윤진(姜允鎭 좌익수), 구연묵(具然睦 2루수)</p>	 <p>중앙고보 운동장에서 열린 제5회 보통학교 아동야구대회 입장식 장면</p>
07.08	<p>■제5회 전조선실업연맹전경 제6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조선예선전</p>	<p>■07.10 방응모(方應謨) 조선일보 인수 광산왕 방응모가 경영난에 빠진 조선일보</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오사카 마이니치신문사 경성지국 주최로 7월 8일부터 전국 5개 지역 우승 팀인 청진철도(북선), 평양철도(서선), 전경성(중선), 전대구(남선), 대전철도(호남) 등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7월 11일 열린 결승전에서 전경성이 청진철도를 7-4로 물리치고 우승, 8월 4일 일본에서 열린 전국도시대항대회 출전권 확보</p> <p>▲준결승전=청진철도 4-0 대전철도, 전경성 11-2 전대구 ▲결승전=전경성 7-4 청진철도</p> <p>△전경성=류(柳 1루수), 사타케(佐武), 하세가와(長谷川 이상 3루수), 사쿠라이(櫻井 중견수), 이영민(李榮敏), 시라마츠(白松 이상 좌익수), 마쓰모토(松本 우익수), 함용화(咸龍華 1루수겸 포수), 세구치(瀬口 포수), 니시무라(西村), 이쿠노(生乃 이상 2루수), 스즈키(鈴木 유격수겸 2루수), 츠츠이(筒井 유격수), 야스다(安田), 하시모토(橋本 이상 투수)</p>	<p>를 인수, 조만식(曹晩植)을 사장으로 추대하고 부사장겸 전무로 활동</p>
07.14	<p>■부산중등학교춘계리그</p> <p>부산체육협회 주최로 7월 14일부터 부산1상(현 부경고), 동래고보, 부산중, 부산2상(현 개성고) 등 4개 중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 7월 16일 최종일 경기에서 동래고보가 부산2상을 8-2로 꺾고 3전 전승으로 우승</p> <p>◇종합 순위=①동래고보(3승) ②부산2상(2승1패) ③부산중 1승2패) ④부산1상(3패)</p> <p>△동래고보=김영대(金榮大 3루수), 김춘생(金春生 우익수겸 투수), 문작지(文作之 유격수), 이사영(李四英 포수), 김복만(金福萬 2루수), 김남귀(金南貴 중견수), 공지운(孔智運 1루수), 박동훈(朴東勳 좌익수), 김종만(金鍾萬 투수겸 우익수)</p>	
07.18	<p>■중앙고보 야구부, 황해도 순회경기</p> <p>중앙고보 야구부가 7월 18일 황해도로 출발, 여름 합숙을 겸해 신천, 해주에서 순회경기 끝에 5전 전승</p> <p>▲중앙고보 5-3 전신천 ▲중앙고보 4-2 조선철 ▲중앙고보 8-4 해주실업 ▲중앙고보 11-8 해주금융 ▲중앙고보 3-2 해주도청</p> <p>△중앙고보=감독 이찬(李燦) 및 이기경(李起卿), 이규동, 이정혁(李正革 이상 투수), 이두만 김영간(金翎干 이상 포수), 박경원(중견수), 황영복(좌익수), 오응화(吳應華), 김영해(이상 우익수), 조종표(趙鍾杓 3루수), 이세화(李世華 1루수), 정관영(유격수), 최재홍(2루수), 이양선(李養善 후보)</p>	
07.24	<p>■제12회 조선중등학교대회겸 제18회 전국중등우승대회 조선예선전</p> <p>조선체육협회 주최로 7월 24일부터 전국에서 35개 중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4개권역(중부, 호남, 남선, 서북)에서 1, 2차 예선대회를 개최, 7월 31일 끝난 2차 예선대회 결승전에서 평양중이 동래고보를 13-8로 물리치고 우승</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준결승전=동래고보 8-4 경성상, 평양중 5-0 목포상 ▲결승전=평양중 13-8 동래고보 △평양중=고토(五島 유격수), 후시오(伏尾 2루수), 가네오야(金親 3루수겸 투수), 오가와(小川 포수), 박만경(朴萬慶 투수겸 3루수), 아시카리(蘆刈 우익수), 다케나가(竹中 1루수겸 3루수), 하야세(早瀬 중견수), 다카다(高田 좌익수)</p>	
08.04	<p>■제6회 흑사자기쟁탈 전국도시대항대회 오사카 마이니치신문사 주최로 8월 4일부터 11일까지 메이지 진구(明治 神宮)구장에서 열린 제6회 전국도시대항대회에 전경성이 조선대표로 출전, 1회전에서 히로시마(廣島)를 12-6으로 격파하고 2회전(준준결승)에 진출했으나 대만대표 타이베이(臺北)에 4-5로 패해 탈락 ▲1회전=전경성 12-5 히로시마 ▲2회전=전경성 4-5 타이베이</p>	
08.13	<p>■제18회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 일본 오사카 아사히신문사 주최로 8월 13일부터 열린 제18회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8월 13~21일 고시엔)에 평양중이 조선대표로 출전, 1회전에서 일본 토오노(遠野)중학에 2-4로 패해 탈락</p>	
08.14	<p>■제1회 전조선연식우승대회 조선연식야구연맹 주최로 8월 14일부터 식산은행, 철도국, 총독부 상공과, 평양부청, 경성전기 전차과, 전광주, 대구기관구, 사리원철도 등 8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8월 16일 열린 결승전에서 경성전기 전차과가 대구기관구를 4-1로 물리치고 우승 ▲준결승전=대구기관구 3-2 사리원철도, 경성전기 전차과 5-2 평양부청 ▲결승전=경성전기 전차과 4-1 대구기관구 △경성전기 전차과=장정환(유격수), 최인기(崔麟基 2루수), 강세희(1루수), 위명환(중견수), 김점만(포수), 나규연(3루수), 김낙현(우익수), 이태준(李泰俊 좌익수), 야노(矢内 1루수) △대구기관구=안용만(安龍萬 1루수), 야마모토(山本 중견수), 사사부치(笹淵 유격수), 이봉웅(李奉雄 2루수), 후지하라(藤原 3루수), 박무학(朴戊學 포수), 다케다(武田 좌익수), 백상기(白商基 투수), 이시카와(石河 우익수)</p>	
08.21	<p>■제3회 조선중등학교선발대회 경남체육협회 주최로 8월 21일부터 경성상업, 용산중, 대구상업, 목포상업, 일본의 사카이데(坂出)상업 및 부산중, 부산1상, 부산2상, 동래고보 등 7개 중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 8월 25일 열린 결승전에서 사카이데상업이 경성상업을 4-0으로 격파하고 우승</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준결승전=용산중 0-9 사카이대상, 동래고보 5-6 경성상 ▲결승전=사카이대상 4-0 경성상</p>	
08.28	<p>■제9회 전조선야구쟁패전 경성일보 매일신보사 공동 주최로 8월 28일부터 13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입장료 네트 뒤 1원, 보통 50전, 학생 30전), 9월 2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함용화(좌익수)가 뒀 체신국이 이영민(투수겸 중견수)이 속한 식산은행을 5-4로 누르고 우승 ▲준결승전=식산은행 8-3 함흥, 체신국 5-4 용산철도 ▲결승전=체신국 5-4 식산은행</p>	
09.10	<p>■경성실업추계연맹전 경성실업연맹 주최로 9월 10일부터 철도국, 체신국, 경성전기, 식산은행, 경성부청 등 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9월 28일 열린 최종일 경기에서 3승1패로 동물인 체신국이 경성전기를 10회 연장전 끝에 6-2로 꺾고 4승1패로 우승 ◇종합 순위=①체신국(4승1패) ②경성전기(3승2패) ③철도국 식산은행(이상 2승2패) ⑤경성부청(4패) △체신국=타시로(田代 유격수), 아사노(淺野 2루수), 미쓰타게(光武 중견수), 오시마(大島 3루수겸 우익수), 함용화(우익수겸 좌익수), 다오카(田岡 1루수), 시미즈(清水 좌익수), 가토다(門田 대타), 사타케(佐武 3루수), 이시이(石井 포수), 다카노(高野 투수)</p>	<p>■09.01 '야구통제안' 발령 초·중·고·대학(전문 포함) 학생 팀의 직업적(유료) 경기 출전 금지를 목적으로 총독부 학무국장 훈령으로 야구통제안을 발령</p>
10.07	<p>■흑인야구단 '로얄 자이언츠' 초청경기 일본인이 운영하는 조선신문사가 흑인들로 구성된 야구단을 초청, 10월 7일부터 9일까지 경성운동장에서 국내 실업 팀과 4차전을 개최한 끝에 4전 전승 ▲1차전=흑인구단 4-2 경성전기 ▲2차전=흑인구단 3-2 체신국 ▲3차전=흑인구단 6-0 체신국 ▲4차전=흑인구단 2-7 식산은행</p>	 <p>'로얄 자이언츠' 선수들과 다카라즈카 선수들이 경기가 끝난 뒤 기념 촬영을 했다</p>
10.15	<p>■제6회 조선신궁중등학교대회 조선체육협회 주최로 10월 15일부터 전국에서 9개 중학 팀(경성상업, 경성중, 대구상업, 동래고보, 목포상업, 선린상업, 용산중, 인천남상, 평양중)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10월 19일 열린 결승전에서 인천남상업이 경성상업을 8-3으로 꺾고 우승 ▲준결승전=평양중 1-4 경성상업, 선린상업 0-4 인천남상 ▲결승전=인천남상 8-3 경성상업 △인천남상업=야마모토(山本 우익수겸 좌익수) 소다(曾田 포수), 아리타(有田 유격수), 이케자키(池崎 투수), 시카노(鹿野 3루수), 후지모토(藤本 중견수), 에토(江藤 2루수), 야마사키(山崎 좌익수), 미츠이(光井 우익수), 기요우야(郷矢 1루수)</p>	
11.03	<p>■제1회 관서연식야구대회 관서체육회 주최, 동아일보사 평양지국 후원으로 11</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월 3일 상오 10시 평양 광성고보 운동장에서 4개 팀 (곤 제분, 백호군, 병우군, 평양부청)이 출전한 가운데 개최, 평양부청의 기권으로 3개 팀이 토너먼트로 경기를 진행한 결승전에서 백호군이 미국인 회사 사원들로 구성된 곤 제분을 7-6으로 물리치고 우승, 하오 5시 열린 시상식에서 우승한 백호군에게 조만식(曹晩植) 선생이 우승컵을 수여</p> <p>▲준결승전=백호군 19-3 병우군 ▲결승전=백호군 7-6 곤 제분</p> <p>△백호(白虎)군=김재신(金載辛 좌익수), 김신복(金信福 유격수), 홍정옥(洪正玉 3루수), 김남전(金南全 포수), 최보국(崔保國 1루수), 장병오(張炳五 우익수), 박송목(朴松木 투수), 김신덕(金信德 중견수), 정주찬(丁柱燦 2루수)</p> <p>△병우(兵友)군=노시일(盧時日 투수겸 유격수), 스타(壽田 유격수겸 투수), 기시다(岸田 1루수), 김승관(金承官 3루수), 전남하(田南夏 우익수), 김문화(金文華 중견수), 이와하라(岩原 2루수), 고정서(高貞瑞 포수), 가키모토(柿元 좌익수)</p>	 <p>평양에서 처음 열린 관서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조선인들로 구성된 백호군 선수들</p>
11.03	<p>■부산중등학교추계리그</p> <p>경남체육회 주최로 11월 3일부터 동래고보, 부산중, 부산1상업, 부산2상업 등 4개 중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 11월 5일 끝난 결승전에서 동래고보가 3전 전승으로 우승</p> <p>▲동래고보 9-2 부산중 ▲동래고보 4-3 부산2상(현 개성고) ▲동래고보 8-2 부산1상(현 부경고)</p> <p>△동래고보=문작지(유격수), 김영대(3루수), 김춘생(1루수겸 투수), 이사영(포수), 김복만(2루수), 김남귀(중견수), 김동석(金東石), 이인홍(李仁洪 이상 우익수), 공지운(좌익수겸 1루수), 김종만(투수겸 1루수)</p>	
12.25	<p>■일본어판 '朝鮮野球史(조선야구사)' 발간</p> <p>일본인 오시마(大島勝太郎)가 '조선신문(朝鮮新聞)' 광고부장으로 있으면서 용산철도국 도서관장으로 일한 하야시(林靖一)의 도움을 받아 일본인들의 조선국내 야구 활동 기록을 수집하고 일본인 기자들로부터 자료를 얻어 편찬한 최초의 일본어판 야구 역사서를 발간</p>	
1933. 04.27	<p>■부산중등학교추계리그</p> <p>경남체육협회 주최로 4월 27일부터 부산 4개 중학팀 (동래고보, 부산중, 부산1상업, 부산2상업)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 5월 7일 끝난 최종일 경기에서 부산1상이 동래고보를 12-0으로 격파하고 3전 전승으로 우승</p> <p>◇종합 순위=①부산1상업(3승) ②부산중(2승1패) ③부산2상업(1승2패) ④동래고보(3패)</p>	<p>■02.05 조선체육협회 개편</p> <p>일본체육단체인 조선체육협회를 민간 임의 단체에서 총독부 학무국 산하 단체로 개편, 협회장도 학무국장이 겸임기로 결의</p> <p>■04.14 조선 최초 스포츠 중계방송</p> <p>장곡천(長谷川) 공회당(현재 소공동에 위치)에서 벌어진 센슈(專修)대 권투부와 조선권투구락부의 권투 실황을 경성방송국 박충근(朴忠根) 아나운서가 최초로 조선말 중계 방송</p>
04.27	<p>■제3회 경성중등학교추계리그</p> <p>경성중등학교야구연맹 주최로 4월 27일부터 경성부</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내 7개 중학 팀(선린상업, 경성공업, 경성사범, 경성상업, 경성중, 용산중, 철도학교)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6월 16일 열린 우승 결정전에서 경성상업이 5승1패로 동률인 경성사범을 8-4로 꺾고 6승1패로 우승</p> <p>◇종합 순위=①경성상업(6승1패) ②경성사범(5승2패) ③선린상업(4승2패) ④용산중(3승3패) ⑤경성중(2승3패) ⑥철도학교(1승5패) ⑦경성공업(6패)</p>	
05.07	<p>■ 경성실업준계연맹전 경성실업연맹 주최로 5월 7일부터 경성부청, 경성전기, 체신국, 식산은행, 철도국 등 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6월 14일 식산은행이 8전 전승으로 우승한 가운데 끝난 최종일 경기에서 경성부청이 경성전기를 1-0으로 물리치고 4승5패로 체신부와 공동 준우승</p> <p>◇종합 순위=①식산은행(8전 8승) ②체신국, 경성부청(이상 9전 4승) ④경성전기(10전 4승6패) ⑤철도국(8전 2승6패)</p>	<p>■ 05.30 조선체육회 정기총회 조선체육회가 경성 교외 청량관에서 제1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임원을 개설했다</p> <p>△회장=윤치호 △부회장=유억겸 △이사=박승빈, 여운형(呂運亨), 송진우(宋鎭禹), 백관수(白寬洙), 김성수(金性洙), 현동완(玄東完), 주요한(朱耀翰), 김규면(金圭冕), 김종선(金鍾善), 서병의(徐丙義), 최재환(崔在煥), 구자옥(具茲玉), 김동철(金東轍), 이원상(李元相), 김영술(金永述), 및 보성전문, 연희전문세브란스의전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 조선일보, 배재, 양정, 휘문, 경신, 중동, 대동, 상업, 조선농구협회, 고려육상경기회, 조선권투구락부</p>
06.08	<p>■ 제6회 연희전문-경성의전 정기대항전 연희전문-경성의전의 정기대항전이 6월 8일 1차전을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6월 9일 끝난 2차전에서 경성의전이 연희전문을 6-3으로 꺾고 2전 전승으로 우승</p> <p>▲1차전(6월 8일)=연희전문 7-12 경성의전 ▲2차전(6월 9일)=연희전문 3-6 경성의전</p> <p>△연희전문=원소자(좌익수), 손희준(중견수), 이동수(투수겸 1루수), 오윤환(2루수겸 1루수및 투수), 김일배(3루수), 안복암(포수), 이준용(우익수), 변태순(1루수), 김종만(투수), 신형균(중견수겸 2루수)</p>	
06.24	<p>■ 제3회 전조선중등학교야구대회 연희전문 주최로 5월 24일부터 4일간 평양 광성고보를 비롯해 배재고보, 중앙고보, 휘문고보 등 4개 중학팀이 출전한 가운데 연희전문 운동장에서 개최, 5월 27일 열린 결승전에서 휘문고보가 11-3으로 배재고보를 격파하고 우승</p> <p>▲휘문고보=최경수(중견수), 김용의(1루수), 임경학(유격수), 이해주(李海柱 3루수), 김경복(포수), 강성일(姜聲一 투수), 송재경(2루수), 김동권(좌익수), 정재선(우익수), 노영운(盧英允 대타)</p> <p>▲배재고보=주수찬(朱壽燦 2루수), 박준희(朴峻熙 포수), 이기준(李基濬 우익수겸 투수), 김한우(金 翊 대타), 김동환(金東煥 투수겸 중견수), 이상우(李相雨 중견수겸 1루수), 김여식(金汝植 3루수), 하종용(河宗容 1루수겸 우익수), 김상원(金相元 1루수), 김옥현(金鈺鉉 좌익수), 노단영(盧丹永 우익수), 김봉선(金奉善 유격수)</p>	 <p>쏟아지는 빗속에 열린 중학단 결승전. 휘문고보가 배재고보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p>
06.25	<p>■ 제1회 전조선대학-전문학교연맹전 조선대학-전문학교야구연맹 주최로 6월 24, 26일 2일</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간 용산 철도구장에서 1부 리그를 개최, 결승전에서 연희전문이 경성제대를 10-6으로 물리치고 우승 ▲1회전=경성제대 11-0 경성대여과, 연희전문 11-1 약학전문 ▲결승전=연희전문 10-6 경성제대</p>	
07.07	<p>■제6회 전조선실업연맹전겸 제7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조선예선전 오사카 마이니치신문사 경성지국 주최로 7월 7일부터 전경성, 대전철도, 부산철도, 청진철도, 평양실업 등 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7월 9일 끝난 결승전에서 이영민이 마운드를 지킨 전경성이 박상화(朴祥和 유격수), 이상문(李尙文 우익수)이 뽐 부산철도를 9-5로 꺾고 우승, 조선대표권 획득 ▲준결승전=전경성 6-2 대전철도, 부산철도 16-6 평양실업 ▲결승전=전경성 9-5 부산철도 △전경성(全京城)=나카지마(中島 중견수), 야마타니(山谷 2루수), 이영민(李榮敏 투수), 마츠모토(松本 우익수), 아사하라(淺原 1루수), 스즈키(鈴木 政 3루수), 오가사와라(小笠原 포수), 야스다(保田 유격수), 스즈키(鈴木 忠 좌익수), 우에노(上野 투수)</p>	<p>■07.01 이원용, '조선체육계' 창간 이원용이 4월 조선일보사 운동기자를 사직하고 최성면(崔成冕)과 조선체육계사를 설립, 7월 1일 조선 최초 체육 월간 잡지 "조선체육계" 창간호를 발간했으나 자금난으로 2호 발간 후 휴간</p> <p>■07.06 메이저리그 첫 올스타전 시카고 코미스키 구장에서 개최, 베이브 루스가 2점 홈런을 터트려 아메리칸리가 4-2로 승리</p>
07.23	<p>■제13회 전조선중등학교대회겸 제19회 전국중등우승대회 조선예선전 조선체육협회 주최로 7월 23일부터 전국에서 31개 중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1차 예선을 4개 지역(경성, 대구, 평양, 광주)에서 개최, 8월 1일 경성운동장에서 끝난 2차 예선 결승전은 선린상업이 준결승전에서 평양중을 최단시간(1시간 17분) 끝에 7-0으로 꺾고 올라온 목포상업을 5-1로 격파하고 우승 △선린상업=이연성(李連成 좌익수), 네코오키(猫沖 유격수), 니시카와(西川 우익수), 이노우에(井上 중견수), 가와이(河合 1루수), 가와시마(川島 투수), 야스다(安田 2루수), 오이데(大井手 포수), 이케지리(池尻 3루수) △목포상업=이지마(飯島 유격수), 다나카(田中 2루수), 가몬(加門 포수), 노창호(盧昶鎬 투수), 사사대(笹田 중견수), 사이토(齊藤 1루수), 마쓰모토(松本 3루수), 오니키(鬼木 우익수), 무라카미(村上 좌익수)</p>	<p></p> <p>제13회 전조선중등대회에서 목포상업을 5-1로 격파하고 우승을 차지한 선린상업 선수들. 뒷줄 왼쪽에서 두번째가 공창순, 일곱번째가 이연성이다.</p> <p></p> <p>제19회 전국중등우승대회 조선예선 결승전에서 선린상업에 패해 준우승, 본선 진출권을 놓친 목포상업 선수들. 왼쪽 우승기를 잡고 있는 이가 노창호(盧昶鎬).</p>
07.31	<p>■한 경기 최단시간(1시간 17분) 경기 기록 제13회 전조선중등학교대회겸 제19회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 조선예선대회 2차 예선 준결승전에서 목포상업과 평양중이 9이닝 경기를 1시간17분 만에 끝내 조선에서 열린 중학 경기로는 가장 짧은 신기록을 수립</p>	
08.04	<p>■제7회 흑사자기쟁탈 전국도시대항대회 마이니치신문사 주최로 8월 4일부터 11일까지 메이지 진구(明治 神宮)구장에서 열린 제7회 전국도시대항대회에 전경성(全京城)이 조선대표로 출전, 1회전에서 가와사키(川崎), 2회전에서 나고야(名古屋), 준결승</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전에서 스이타(吹田)를 꺾고 결승전에 진출했으나 도쿄(東京)구락부와 10회 연장전 끝에 6-5로 패해 사상 첫 준우승</p> <p>▲1회전=전경성 7-5 가와사키 ▲2회전=전경성 6-0 나고야 ▲준결승전=전경성 8-6 스이타 ▲결승전=전경성 5-6 도쿄구락부</p>	
08.12	<p>■ 제19회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p> <p>오사카 아사히신문사 주최로 8월 12일부터 고시엔(甲子園)구장에서 열린 제19회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에 선린상업이 조선대표로 출전, 1회전에서 일본 주교(中京)상업에게 No Hit No Run을 당한 끝에 0-11패해 탈락</p> <p>△선린상업=이연성(李連成 좌익수), 네코오키(猫沖 유격수), 니시카와(西川 우익수), 이노우에(井上 중견수), 가와이(河合 1루수), 가와시마(川島 투수), 야스다(安田 2루수), 오이데(大井手 포수), 이케지리(池尻 3루수), 공창순(孔昌淳 우익수)</p>	 <p>선린상업이 출전한 제19회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 고시엔(甲子園)구장 전경</p> 
09.07	<p>■ 제10회 전조선야구쟁패전</p> <p>경성일보사 매일신문사 공동 주최로 식산은행, 전목포, 전대구, 평양실업, 체신국, 부산철도, 신의주, 대전철도, 조선질소 등 9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9월 11일 열린 결승전에서 식산은행이 체신국을 5-0으로 격파하고 우승</p> <p>▲준결승전=체신국 11-7평양실업, 식산은행 14-8대전철도 ▲결승전=식산은행 5-0 체신국</p>	<p>제19회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 1회전에서 주교상업에 0-11로 패한 선린상업 선수들(왼쪽부터 7번째가 이연성, 8번째가 공창순)</p>
09.09	<p>■ 경성실업추계연맹전</p> <p>경성실업야구연맹 주최로 9월 9일부터 식산은행, 철도국, 체신국, 경성전기 경성부청 등 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9월 23일 경성실업야구연맹이 심판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경성부청과의 경기를 보류, 대회 진행을 사건 해결 때까지 무기연기</p>	<p>■ 09.19 조선축구협회 창립</p> <p>조선축구협회가 창립 총회를 열고 초대 회장으로 박승빈(朴勝彬)을 선임</p>
09.09	<p>■ 부산중등학교추계리그</p> <p>경남체육협회 주최로 9월 16일부터 부산부내 4개 중학 팀(부산중, 부산2상, 동래고보, 부산1상)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 9월 30일 벌어진 최종일 경기에서 부산1상이 부산중을 4-0로 꺾고 3전 전승으로 우승</p> <p>◇종합 순위=①부산1상(3승) ②부산2상(2승1패) ③동래고보(1승2패) ④부산고(3패)</p>	<p>■ 메이저리그 타격 3관왕 양 리그 동시 탄생</p> <p>필라델피아 필리스의 척 클라인이 타율 .368, 홈런 28, 타점 120으로 내셔널리그 타격 3관왕에, 아메리칸리그에서는 필라델피아 어슬레틱스의 지미 팩스가 타율 .356, 홈런 48, 타점 163으로 타격 3관왕에 등극</p>
10.12	<p>■ 제7회 조선신궁중등학교대회</p> <p>조선체육협회 주최로 10월 12일부터 전국에서 8개 중학 팀(경성사범, 경성상업, 대구중, 목포상업, 부산1상, 선린상업, 인천상업, 평양중)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10월 17일 끝난 결승전에서 경성상업이 경성사범을 5-1로 물리치고 우승</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준결승전=선린상업 0-3 경성사범, 경기상업 9-7 부산1상업 ▲결승전=경성상업 5-1 경기사범 △경성상업=이노우에(井上武 2루수), 오카모토(岡本 正 중견수), 오카모토(岡本良 유격수), 세이케(清家 포수), 나가오(長尾 우익수), 이노우에(井上 賢 좌익수), 쿠니유키(國行 투수), 나가지마(中島 1루수), 요코테(横手 3루수)</p>	
1934. 05.05	<p>■부산중등학교춘계리그 경남체육협회 주최로 5월 5일부터 부산부내 4개 중학 팀(동래고보, 부산중, 부산1상, 부산2상)이 출전한 가운데 구덕산 기슭 공설운동장에서 개최, 5월 11일 열린 최종일 경기에서 부산1상이 동래고보를 11-0으로 격파하고 3전 전승으로 우승 ◇종합 순위=①부산1상(3승) ②부산중(2승1패) ③부산2상(1승2패) ④동래고보(3패)</p>	
05.06	<p>■경성실업춘계연맹전 경성실업연맹 주최로 5월 6일부터 경성부청, 경성전기, 식산은행, 체신국, 철도국 등 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6월 16일 끝난 최종일 경기에서 철도국이 15회 연장전 끝에 경성부청을 7-6으로 물리치고 우승 ◇종합 순위=①철도국(8승2패) ②식산은행(7승3패) ③경성부청(5승6패) ④체신국(3승7패) ⑤경성전기(2승4패) △철도국=시라이시(白石 좌익수), 사이가(雜賀 3루수), 고노(河野 중견수), 나가타(永田), 센다(千田 이상 우익수), 니시다(西畑 1루수), 히라이(平井 우익수), 나카무라(中村 포수), 사토(佐藤 2루수), 오카모토(岡本), 아소(麻生 이상 유격수), 우에노(上野), 모리타(森田 이상 투수)</p>	
05.11	<p>■대구중등학교리그 대구중등학교야구연맹 주최로 5월 11일부터 대구고보, 대구상업, 대구중 등 3개 중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대구공설운동장에서 개최, 5월 14일 끝난 최종일 경기에서 대구고보(현 경북고)가 대구중을 12-1로 격파하고 2전 전승으로 우승 ◇종합 순위=①대구고보(2승) ②대구중(1승1패) ③대구상업(2패) △대구고보=최삭덕(崔朔德 3루수), 서진동(徐鎭東 2루수), 김두원(金斗元 포수), 김보암(金菩巖 중견수), 이상곤(李相昆 유격수), 김종찬(金鐘燦 투수) 박태정(朴泰政 1루수), 최종봉(崔鍾鳳 우익수), 이장환(李長煥 좌익수)</p>	
05.13	<p>■제4회 경성중등학교춘계리그 경성중등학교야구연맹 주최로 5월 13일부터 경성부내 6개 중학 팀(선린상업, 경성공업, 경성사범, 경성</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상업, 경성중, 용산중)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6월 21일 경성사범이 5전 전승으로 우승한 가운데 치른 마지막 경기에서 경성중이 선린상업을 13-1로 격파하고 3위</p> <p>◇종합 순위=①경성사범(5승) ②경성상업(4승1패) ③경성중(3승2패) ④용산중(2승3패) ⑤선린상업(1승4패) ⑥경기공업(5패)</p> <p>△경성사범=훈마(本間 우익수), 후쿠에(福江 3루수), 오기(小木 좌익수), 야마모토(山元 중견수), 오카모토(岡本 투수), 히로세(廣瀬 1루수), 하루가와(春川 2루수), 가시로(加城 유격수), 마쓰모토(2루수)</p>	
05.22	<p>■ 제2회 전조선대학·전문학교연맹전 조선학생야구연맹 주최로 5월 22일부터 용산 철도 구장에서 열린 1부 리그에서 연희전문이 경성제대에 2-5로 패해 준우승, 경성제대도 6월 1일 경성운동장에서 열린 1, 2부리그 승자 결승전에서 경성의전에 5-6으로 패해 준우승</p> <p>▲1부리그 결승전=경성제대 5-2 연희전문 ▲승자결승전=경성의전 3-1 경성제대</p>	<p>■ 인천공설운동장 개장 1934년 1만5,600여 평의 면적에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구장은 만든 뒤 1936년 5,000명 수용의 야구장, 400m 트랙을 갖춘 육상경기장을 완공</p>
06.11	<p>■ 제7회 연희전문-경성의전 정기대항전 6월 11, 15일 2일간 경성운동장에서 열린 정기전에서 연희전문이 1928년 제2회 대회 이후 6년 만에 우승</p> <p>▲1차전=연희전문 9-7 경성의전 ▲2차전=연희전문 3-1 경성의전</p> <p>△연희전문=원소자(좌익수), 손희준(유격수), 김일배(포수), 오윤환(투수), 변태순(1루수), 이세화(우익수), 이신득(중견수), 유희춘(劉禧春 3루수), 한성복(韓誠福 2루수)</p>	
07.04	<p>■ 일본 모지(門司)철도초청경기 최학기(崔學基)운동구점 주선으로 7월 4일 고려군-모지철도전을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고려군이 12-6으로 패배</p> <p>△고려군=백기주(유격수), 김정식(우익수), 이영민(투수), 함용화(3루수), 노창호(중견수), 장경환(張慶煥 2루수), 강세희(3루수), 김영석(1루수), 조점룡(포수), 최종을(崔仲乙 좌익수)</p>	<p>제8회 연전-경의전 정기대항전에서 6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연희전문 선수들이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동문들과 교가를 합창하고 있다</p>
07.13	<p>■ 제7회 전조선실업연맹전경 제8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조선예선전 오사카 마이니치신문사 경성지국 주최로 7월 13일부터 전국 5개 지역 우승 팀인 전경성(중부), 전함흥(북부), 겸이포(서부), 전대구(남부), 전주전매국(호남) 등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7월 15일 열린 결승전에서 용산철도를 주축으로 한 전경성이 겸이포를 8-1로 격파하고 우승, 조선대표권을 획득</p> <p>▲준결승전=전경성 12-0 전함흥, 겸이포 3-2 전대구 ▲결승전=전경성 8-1 겸이포</p>	<p>■ 07.10 허벨, 올스타전서 연속 삼진 사냥 올스타전에서 뉴욕 자이언츠의 투수 칼 허벨이 아메리칸리그의 베이브 루스, 루 게릭, 지미 팍스, 앨 시먼스, 조 크로닌 등 강타자 5명을 연속 삼진으로 처리</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7.19	<p>■ 일본 릿쿄대(立教)초청경기 경성실업연맹이 도쿄6대학리그 우승 팀 릿쿄대를 초청, 7월 19일부터 경성운동장에서 2연전을 개최, 릿쿄대가 2전 전승을 기록 ▲ 1차전(7월 19일)=릿쿄대 4-0 경성전기 ▲ 2차전(7월 21일)=릿쿄대 3-0 전경성</p>	
07.23	<p>■ 제14회 조선중등학교대회 제20회 전국중등우승대회 조선예선전 조선체육협회 주최로 6월 23일부터 34개 중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4개권역(중부, 남선, 호남, 서북부)에서 1차 예선전을 개최, 중부에서 경성상업, 남선에서 부산1상, 호남에서 목포상업, 서북부에서 신의주상업이 우승, 8월 3일 열린 2차 예선 결승전에서 경성상업이 신의주상업을 6-5로 누르고 우승 ▲ 준결승전=신의주상 8-4 목포상, 경성상 5-3 부산 1상 ▲ 결승전=경성상업 6-5 신의주상업 △ 경성상업=이노우에(井上 중견수), 오카모토(岡本 宣 3루수), 요코테(横手 포수), 나카지마(中島 1루수), 쿠니유키(國行 투수), 세토(瀬戸 崎 2루수), 나가노(長野 좌익수), 혼다(本田), 나카무라(中村 이상 우익수), 이리에(入江 대타), 오카모토(岡本 正 유격수)</p>	
08.05	<p>■ 제8회 흑사자기쟁탈 전국도시대항대회 일본 마이니치신문사 주최로 8월 5일부터 도쿄 메이지 진구구장에서 열린 제8회 흑사자기쟁탈 전국도시대항대회(8월 5~11일)에 용산철도를 주축으로 한 전경성(전원 일본인 선수)이 조선대표로 출전, 1회전에서 스이타(吹田), 2회전에서 니가타(新潟), 3회전(준준결승)에서 요코하마(横濱)를 꺾고 준결승전에 진출했으나 야와타(八幡)제철에 4-10으로 패해 탈락 ▲ 1회전=전경성 15-10 스이타 ▲ 2회전=전경성 12-0 니가타 3회전=전경성 10-1 요코하마 ▲ 준결승전=전경성 4-10 야와타</p>	
08.13	<p>■ 제20회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 오사카 아사히신문사 주최로 8월 13일부터 고시엔구장에서 열린 제20회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에 경성상업이 조선대표로 출전, 1회전에서 부전승으로 2회전에 진출, 삿포로(札幌)상업을 9-8로 꺾고 3회전(준준결승전)에 진출했으나 이치오카(市岡)중학에 4-13으로 패해 탈락</p>	
09.02	<p>■ 제11회 전조선야구쟁 패전, 고려구락부 첫 출전 경성일보사 매일신보사 공동 주최로 9월 7일부터 조선인 팀으로 대회 첫 참가하는 고려구락부를 비롯해 대전철도, 부산철도, 식산은행, 전대구, 전목포, 전인천, 전함흥, 평양실업 등 9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9월 11일 열린 결승전에서 이영민(좌익수)이 활약한 식산은행이 백기주(포수) 최세원(우</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익수)이 활약한 평양실업을 7-6으로 누르고 우승 ▲준결승전=식산은행 14-2 전함흥, 평양실업 16-6 고려구락부 ▲결승전=식산은행 7-6 평양실업 ◇개인상 ▲타격상=이영민(식산은행 .563) ▲본루타 상=쿠마가야(熊谷 평양실업) 최종을(崔仲乙 고려구락부) ▲미기상=야와타(八幡부산철도) △식산은행=나카지마(中島 중견수), 타하라(田原 2루수), 야마타니(山谷 대타겸 2루수), 이영민(李榮敏 좌익수), 마쓰모토(松本 우익수), 스즈키(鈴木 3루수), 야스다(保田 유격수), 사토(佐藤 포수), 요시모토(吉本 투수), 우치노마키(内牧 1루수)</p>	
09.08	<p>■ 경성실업추계연맹전 경성실업연맹 주최로 9월 8일부터 경성부청, 경성전기, 식산은행, 철도국, 체신국 등 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리그전으로 개최, 9월 19일 경성전기, 철도국, 식산은행이 3승1패로 동률, 철도국과 식산은행이 재경기 포기로 경성전기가 우승 ◇종합 순위=①경성전기, 철도국, 식산은행(이상 3승 1패) ④체신국, 경성부청(이상 3패)</p>	
09.23	<p>■ 제2회 관서연식야구대회 관서체육회 주최로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평양철도 구장에서 11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개최, 결승전에서 진남포군이 상우(商友)센터를 13-7로 물리치고 우승</p>	
09.29	<p>■ 부산중등학교추계리그 경남체육협회 주최로 9월 29일부터 부산부내 4개 중학 팀(동래고보 부산중, 부산1상, 부산2상)이 출전한 가운데 구덕 공설운동장에서 개최, 10월 2일 열린 최종일 경기에서 부산1상이 동래고보를 6-0으로 격파하고 3전 전승으로 우승 ◇종합 순위=①부산1상(3승) ②부산2상(2승1패) ③부산중(1승2패) ④동래고보(3패) △김○○(좌익수), 김학수(金學壽 포수), 김주연(金注淵 유격수), 박인홍(朴麟泓 투수), 한경석(韓景錫 1루수), 강태천(姜泰天 2루수), 한대진(韓大晉 3루수), 이영대(李英大 중견수), 정명우(鄭明祐 우익수)</p>	
10.09	<p>■ 이영민, 전일본 국가대표로 발탁 11월 4일 일본 요코하마(横浜)를 방문하는 미국 프로야구 팀과의 대전을 앞두고 주최 측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제1차 전일본 대표선수의 명단을 발표, 1차 전형(14명)과 2차 전형(10년)에서 조선인 선수로는 유일하게 이영민이 외야수로 발탁, 11월 4, 5일 열린 1, 2차전에서 대타로 출전, 전일본대표팀이 2전 2패 ▲1차전(11월 4일)=일본 1-5 미국 ▲2차전(11월 5일)=도쿄구락부 1-17 미국 △전일본대표=마키노(牧野 3루수), 가리타(苅田 유격수), 마하라(三原 2루수), 호리오(堀尾 중견수) 야마시</p>	<p>일본대표선수로 출전한 이영민이 미국프로야구 베이브 루스와 기념 촬영</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타(山下 1루수), 야지마(矢島 우익수), 푸마(夫馬 좌익수), 이영민(대타), 구지(久慈 포수), 다테(伊達 투수)</p>	
10.12	<p>■ 제8회 조선신궁중등학교대회 조선체육협회 주최로 10월 12일부터 전국에서 8개 중학 팀(경성사범, 경성상업, 경성중, 목포상업, 부산1상, 부산중, 인천상업, 평양중)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10월 17일 끝난 결승전에서 인천상업이 경성중을 5-4로 제치고 우승 ▲준결승전=경성사범 1-4 경성중, 인천상업 2-0 경성상업 ▲결승전=인천상업 5-4 경성중 △인천상업=보리(堀 우익수), 야마사키(山崎 유격수), 나카무라(中村 3루수), 아마구치(山口 투수겸 1루수), 아칸(阿閑 2루수겸 1루수), 하사마(波佐間 중견수), 아리카와(有川 포수) 테시마(豊島 1루수), 나카모토(長本 투수), 소다(曾田 2루수), 미츠이(光井 좌익수)</p>	
10.20	<p>■ 제4회 전조선중등학교야구대회 연희전문 주최로 10월 20일 2개 팀(대동고보, 휘문고보)만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단판 승부로 승자를 결정, 휘문고보가 대동상업을 11-3으로 꺾고 우승 ▲우승 결정전=휘문고보 11-3 대동상업 △휘문고보=노영운(유격수), 정헌모(鄭獻模 2루수), 김순모(金舜模 3루수겸 포수), 김경복(포수겸 투수), 송재경(투수겸 3루수), 이춘대(李春大 좌익수), 박수순(朴壽淳 1루수), 김우석(金禹錫 중견수), 정찬주(鄭燦柱 우익수) △대동상업=이문수(李文洙 3루수), 정학진(丁鶴鎭 유격수), 서영환(徐永煥 1루수), 양재선(梁在善 투수), 구분환(具本煥 포수), 김연구(金連九 우익수), 이승조(李承祚 좌익수), 이태영(李泰榮 대타), 박일동(朴一同 2루수), 왕옥이(王玉伊 중견수)</p>	<div data-bbox="970 855 1474 1182" data-label="Image"> </div> <p>제4회 전조선야구대회 중등부 결승전에서 대동상업을 11-3으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한 휘문고보 선수들</p> <p>■ 12.06 일본 다이닛폰도쿄클럽 탄생 일본 프로야구의 원조인 현 요미우리 자이언트의 전신 다이닛폰도쿄클럽(大日本東京俱樂部) 결성</p>
11.02	<p>■ 제15회 전조선야구대회(전조선종합경기대회) 전년도 제14회 대회가 야구통제안 휴회된 가운데 1년 만에 열린 15회 대회는 종합경기 형식으로 청년단에서 두 팀(월성, 멕시코)만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11월 4일 열린 결승전에서 멕시코가 월성을 9-4로 물리치고 우승 △멕시코=이경구(포수), 이순재(3루수), 이진우(李璉祐 유격수), 이영선(1루수), 유약한(중견수), 강세희(투수), 최재수(崔在洙 2루수), 김충배(金忠培 우익수), 김수환(金脩桓 좌익수) △월성=박찬룡(朴讚龍 중견수), 이귀성(李貴成 좌익수), 김용의(金用義 포수), 김영식(金永植 1루수겸 투수), 나주운(羅柱運 투수겸 3루수), 이규일(李揆一 2루수), 송호성(宋虎星), 김규진(金奎鎭 이상 우익수), 안명준(安明俊 3루수겸 1루수및 투수), 박난일(朴暖一 유격수)</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1935. 04.27	<p>■ 부산중등학교춘계리그 경남체육협회 주최로 4월 27일부터 부산 4개 중학 팀 (동래고보, 부산중, 부산1상, 부산2상)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 4월 29일 열린 최종일 경기에서 부산1상이 부산중을 5-2로 물리치고 3전 전승으로 우승 ◇종합 순위=①부산1상(3승) ②동래고보(2승1패) ③부산중(1승2패) ④부산2상(3패)</p>	
04.28	<p>■ 제5회 경성중등학교춘계리그 경성중등학교야구연맹 주최로 4월 28일부터 경성공업, 경성사범, 경성상업, 선린상업, 용산중 등 4개 중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6월 2일 열린 최종일 경기에서 경성상업이 선린상업을 12-7로 격파하고 4전 전승으로 우승 ◇종합 순위=①경성상업(4승) ②용산중(3승1패) ③선린상업(2승2패) ④경성사범(1승3패) ⑤경성공업(4패)</p>	
05.04	<p>■ 경성실업춘계연맹전 경성실업야구연맹 주최로 5월 4일부터 경성부청, 경성전기, 식산은행, 철도국, 체신국 등 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6월 12일 끝난 결승전에서 식산은행이 투수 이영민의 홈런에 힘 입어 경성전기를 2-1로 물리치고 우승 ◇종합 순위=①식산은행(8승2무) ②경성전기(5승1무4패) ③철도국(4승5패) ④체신국(2승1무6패) ⑤경성부청(1승1무7패) ◇개인상 ▲타격 1위상=최중을(경성부청 .423) ▲타격 2위상=고노(河野 경성전기 .357) ▲타격 3위상=이영민(식산은행 .353) △식산은행=나카지마(中島 중견수), 타하라(田原), 야마타니(山谷 이상 2루수), 이영민(투수), 마쓰모토(松本 우익수), 스즈키(鈴木 3루수), 시마바라(島原 1루수), 야스다(保田 유격수), 사토(佐藤 포수), 야마자키(山崎 좌익수)</p>	<p>■ 02.05 베이브 루스 방출 뉴욕 양키스가 15년간 659홈런을 날린 베이브 루스를 방출</p> <p>■ 05.24 메이저리그 첫 야간경기 신시내티 레드랜드 필드에서 벌어진 신시내티 레즈-필라델피아 필리스의 야간경기를 앞두고 루스벨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조명 스위치를 눌러 불을 밝힌 가운데 열린 이 경기에서 신시내티가 2-1로 승리</p> <p>■ 05.25 베이브 루스의 마지막 홈런 뉴욕 양키스에서 계약이 해지된 뒤 보스턴 브레이브스와 3년 계약을 맺은 베이브 루스는 5월 25일 피츠버그전에서 3개의 홈런을 날려 714개를 기록</p>
05.20	<p>■ 제3회 전조선대학·전문학교연맹전 조선대학전문학교야구연맹 주최로 1부 리그를 5월 20일 용산 철도구장에서 개최, 22일에 열린 결승전에서 연희전문이 경성제대를 14-5로 격파하고 우승 ▲준결승전=경성제대 14-6 경성대예과, 연희전문 23-2 약학전문 ▲결승전=연희전문 14-5 경성제대 △연희전문=원소자(좌익수), 나조화(羅朝華), 이세화(이상 우익수), 안병근(安炳根 대타), 김일배(포수), 이동수(李東壽 유격수), 오윤환(투수), 이신득(중견수), 변태순(1루수), 유희춘(3루수), 한성복(2루수)</p>	 <p>경성제대를 꺾고 우승을 차지한 연희 전문 선수들</p>
06.14	<p>■ 제8회 연희전문-경성의전 정기대항전 연희전문-경성의전 정기대항 1, 2차전을 6월 14~15일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6월 19일 끝난 3차전에서</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연희전문이 9-7로 경성의전을 꺾고 2승1패로 우승 ▲1차전=경성의전 5-0 연희전문 ▲2차전=연희전문 7-6 경성의전 ▲3차전=연희전문 9-7 경성의전 △연희전문=원소재(좌익수), 나조화(우익수), 오윤환(투수), 김일배(포수), 이신득(중견수), 이동수(2루수겸 우익수 및 3루수), 안병근(유격수), 유희춘 이선근(李先根 이상 3루수), 한성복(2루수), 변태순(1루수), 이세화(대타)	
06.22	■ 제5회 전조선중등학교야구대회 연희전문 주최로 6월 22일부터 3일간 연희전문운동장에서 경신고보, 배재고보, 중앙고보, 휘문고보 등 4개 중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개최, 결승전에서 휘문고보가 중앙고보를 15-2로 격파하고 우승 ▲예선전=휘문고보 13-0 배재고보, 중앙고보 15-4 경신고보(이상 7회 콜드 게임) ▲결승전=휘문고보 15-2 중앙고보 △휘문고보=김순모(3루수), 노영윤(유격수), 김경복(포수), 최경수(崔旻洙 중견수), 송재경(투수), 박수순(1루수), 이춘대(우익수), 김우석(좌익수), 정헌모(2루수) △중앙고보=이재찬(李載瓚 유격수), 심용현(沈龍鉉 중견수), 강대관(姜大觀 포수), 이강래(李康來 1루수), 김귀석(金貴錫 좌익수), 심석기(沈錫基 투수), 한기성(韓基星 2루수), 박병수(朴炳洙 우익수), 박희일(朴禧一 3루수)	 <p>6월 22일 연희전문 운동장에 열린 제5회 전조선중등학교야구대회 개최식 장면</p>
06.22	■ 조선 최초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제5회 전조선중등학교야구대회 1회전에서 휘문고보 송재경(宋在曠)이 배재고보를 상대로 7이닝 동안 삼진 6개를 잡으며 5사사구 1실책으로 6명의 주자를 출루시켰으나 무안타 무실점 끝에 13-0으로 이겨 조선 최초 노히트노런을 기록	
06.25	■ 제9차 도쿄유학생모국방문경기 야구통제안으로 국내 야구가 위축된 가운데 6월 22일 도쿄를 출발, 6월 25일 대구에 도착했으나 우천으로 대구경기를 취소,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군산, 경성, 해주를 돌며 순회 경기를 가져 2승3패를 기록 ▲1차전=유학생 8-8 전군산 △유학생=고문 김수영(金壽永), 단장 박용수(朴龍水), 감독 이준용(李駿鎔 중견수) 매니저=박경원 및 진성섭(陳性燮 유격수), 김태호(3루수), 이기경(李起卿 1루수), 박만경(朴萬慶 투수), 김영규(金泳圭 포수), 손해룡(2루수), 김영하(金永河 우익수), 배기협(裴基協 좌익수), 박병기(朴炳驥), 이은제(李殷濟 이상 후보) △전군산=김수복(金壽福 포수), 김동극(金東極 중견수) 박상석(朴尙錫 2루수), 황동(黃童 투수), 김귀성(金貴成 유격수), 김행규(金幸奎 3루수), 김구영(金九榮 1루수), 김수련(金洙連 우익수), 양태근(梁泰根 좌익수), 전의용(대타) ▲2차전=유학생 12-1 휘문고보 △휘문고보=김순모(유격수겸 투수), 노영윤(3루수겸	 <p>7월 1일 군산공립보통학교 운동장에서 전군산군과 모국 방문 첫 경기를 가진 동경 유학생들. 9회 8-8 동점, 일몰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채 무승부</p> <p>■ 06.25 영남체육회 창립 대구 조선인 유지들이 모여 영남(嶺南)체육회를 창립하고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출 ▲총무=윤용기(尹龍基) ▲상무이사=김영제(金永濟) ▲이사=서병언(徐炳彦), 전극</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투수), 김경복(포수겸 우익수), 최경수(중견수) 송재경(투수겸 3루수), 박수순(1루수), 김우석(좌익수), 정려모(鄭麗模 2루수), 정찬주(우익수겸 포수)</p> <p>▲3차전=유학생 3-7 전취문 △전취문=민용규(3루수), 이경구(좌익수), 손희준(유격수), 김정식(포수), 이진형(중견수), 심운영(2루수), 이순재(우익수), 유재춘(1루수), 강세희(투수)</p> <p>▲4차전=유학생 6-4 해주군 ▲5차전=유학생 3-8 전해주 △전해주=마쓰마루(松丸 우익수), 히사시게(久重 유격수), 구기(工木 1루수), 김병섭(金秉燮 3루수), 홍문길(중견수), 고미야마(小宮山 투수), 이두만(포수), 사사키(佐佐木 2루수), 마쓰오(松尾 좌익수)</p>	<p>민(全極珉), 배일우(裵日佑), 이능식(李能植), 송기찬(宋箕贊)</p>
06.29	<p>■ 대구중등학교리그 대구중등학교야구연맹 주최로 6월 29일부터 3개 중학 팀(대구고보, 대구상업, 대구중)이 출전한 가운데 대구공설운동장에서 개최, 7월 1일 대구상업이 2전 전승으로 우승이 확정된 가운데 열린 최종일 경기에서 대구고보가 대구중을 2-0으로 1승1패로 준우승 ◇종합 순위=①대구상업(2승) ②대구상업(1승1패) ③대구중(2패)</p>	
07.01	<p>■ 연희전문, 함남(咸南)원정경기 연희전문 야구부가 함남에 원정, 7월 1일부터 3일까지 흥남운동장에서 일본인들로 구성된 조선질소(3-1)를 격파한 뒤 전함흥(7-1, 4-1)을 연파하고 3전 전승으로 7월 5일 귀경 △연희전문=원소자(좌익수), 나조화(우익수), 김일배(포수), 오윤환(투수), 이동수(유격수겸 3루수), 이신득(중견수), 안병근(유격수), 유재춘(3루수), 한성복(2루수), 변태순(1루수)</p>	
07.05	<p>■ 제8회 전조선실업연맹전경 제9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조선예선전 오사카(大阪) 마이니치(毎日)신문사 경성지국 주최로 7월 5일부터 성진(城津)철도(북부), 평양실업(서부), 전경성(중부), 대전철도(호남), 부산철도(남부) 등 조선 5개 지역예선 우승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7월 7일 끝난 결승전에서 이영민(李榮敏)의 전경성이 백기주(白基珠)의 평양실업을 4-2로 제치고 우승, 제9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출전 조선대표권 확보 ▲준결승전=전경성 10-4 대전철도, 평양실업 12-1 부산철도 ▲결승전=전경성 4-2 평양실업 △전경성=나카지마(中島 중견수), 다하라(田原) 야마타니(山谷 이상 2루수), 이영민(투수겸 좌익수), 마쓰모토(松本 우익수), 아사하라(淺原 1루수), 스즈키(鈴木 3루수), 호타(保田 유격수), 사토(佐藤), 오가사와라(小笠原 이상 포수), 야마사키(山崎 좌익수), 요시모토(吉本 투수)</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7.22	<p>■ 제15회 조선중등학교대회겸 제21회 전국중등우승대회 조선예선전</p> <p>아사히신문사 경성지국 주최로 7월 22일부터 4개 지역에서 33개 중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1차 예선전을 개최, 서북지역에서 신의주상업, 중부지역에서 경성상업, 호남지역 대전중, 남선지역 대구상업이 우승, 7월 31일 끝난 2차 예선 결승전에서 신의주상업이 대구상업을 22-3으로 격파하고 우승</p> <p>▲준결승전=대구상업 12-9 대전중, 신의주상업 4-3 경성중 ▲결승전=신의주상업 22-3 대구상업</p>	
08.03	<p>■ 제9회 흑사자기쟁탈 전국도시대항대회</p> <p>오사카 마이니치신문사 주최로 8월 3일부터 일본 도쿄 메이지 진구구장에서 열린 제9회 흑사자기쟁탈 전국도시대항대회(8월 3~11일)에 식산은행을 주축으로 선발한 전경성이 조선대표로 출전, 1회전에서 긴키(近畿)대표 천리산철도를 꺾고 2회전인 준준결승전에 진출했으나 도쿄구락부에 6-5로 패해 탈락</p> <p>▲1회전=전경성 5-6 천리산철도 ▲2회전(준준결승)=전경성 5-6 도쿄구락부</p>	<p>제21회 전국중등우승대회 조선예선전 출전을 앞두고 찍은 인천상업 선수들의 기념사진(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장영식, 뒷 줄 오른쪽에서 첫번째가 김선웅). 인천상업은 이 대회 중부 예선 2회전에서 경성상업에 2-4로 패해 탈락했다.</p>
08.13	<p>■ 제21회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p> <p>오사카 아사히신문사 주최로 8월 13일부터 고시엔구장에서 열린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8월 13~21일)에 신의주상업이 조선대표로 출전,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뒤 2회전에서 아이치(愛知)상업에 13-0으로 패해 탈락</p> <p>△신의주상업=독고원민(獨孤元敏 유격수), 하야시(林 2루수), 오바타(小畑 1루수), 오노(小野 3루수겸 투수), 오오타(太田 투수겸 3루수), 기타우라(北浦 중견수겸 좌익수), 최병시(崔炳時 우익수), 사토(佐藤 좌익수), 가토(加藤 중견수), 요코모토(横本 포수)</p>	
08.31	<p>■ 일본 간사이(關西)대초청경기</p> <p>조선신문사 초청으로 8월 31일부터 경성운동장에서 5차전을 개최, 간사이대가 4승1패를 기록</p> <p>▲1차전=간사이대 6-7 가와사키(川崎) ▲2차전=간사이대 5-0 철도국 ▲3차전=간사이대 5-3 식산은행 ▲4차전=간사이대 11-5 가와사키 ▲5차전=간사이대 2-1 경성부청</p> <p>△경성부청=손희준(孫禧俊 유격수), 최중을(崔仲乙 포수), 가메이(龜井 3루수), 아리무라(有村 우익수), 칸(關 투수), 사이토(齊藤 좌익수), 다가미(田上 중견수), 오모리(大森 2루수), 사다(佐田 1루수)</p>	
09.07	<p>■ 제12회 전조선야구쟁패전</p> <p>경성일보사 매일신문사 공동 주최로 9월 7일부터 11개 팀(경성부청, 전대구, 평양실업, 검이포, 대전철도, 전함흥, 식산은행, 전인천, 부산철도, 전전주, 신의주)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5월 11일 열</p>	<p>■ 11.03 손기정, 마라톤서 세계신기록</p> <p>베를린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일본 도쿄에서 열린 마라톤 최종 예선전에서 손기정(孫基禎)이 2시간26분41초로 세계 신기록 수립</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린 결승전에서 이영민이 좌익수와 투수로 똬 식산은행이 경성부청(포수 최중을, 유격수 손희준)을 2-1로 제치고 우승</p> <p>▲준결승전=신의주 1-4 경성부청, 식산은행 13-0 부산철도 ▲결승전=식산은행 2-1 경성부청</p> <p>△식산은행=야마자키(山崎 중견수), 야마다니(山谷 포수), 이영민(李榮敏 투수겸 좌익수), 아사하라(淺原 1루수), 마쓰모토(松本 우익수), 야스다(保田 우익수), 타하라(田原 좌익수), 요시모토(吉本 투수) 사토(佐藤), 오가사와라(小笠原 이상 포수), 사다(佐田 3루수)</p>	
09.14	<p>■ 경성실업추계연맹전</p> <p>경성실업연맹 주최로 9월 14일부터 경성부청, 경성전기, 식산은행, 철도국, 체신국 등 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9월 24일 끝난 리그전에서 철도국과 식산은행이 동률(3승1패)로 공동 우승</p> <p>◇종합 순위=①철도국, 식산은행(이상 3승1패) ③경성부청(2승2패) ④경성전기, 체신국(이상 1승3패)</p>	
09.28	<p>■ 제3회 관서연식야구대회</p> <p>관서체육회 주최로 9월 28, 29일 1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평양철도와 서조선전기 운동장에서 개최, 결승전에서 전년도의 패자 진남포군이 처녀 출전한 일본인 팀 서조선전기군을 8-4로 격파하고 우승</p> <p>△진남포군=이광호(李光鎬 유격수), 고운환(高雲煥 포수), 황순상(黃淳相 투수), 이동고(李東古 2루수), 강지수(姜志洙 좌익수), 김원모(金元模 우익수), 김규남(金奎男 3루수), 오명환(吳明煥 1루수), 박응봉(朴應鳳 중견수)</p>	
10.15	<p>■ 제9회 조선신궁중등학교대회</p> <p>조선체육협회 주최로 10월 15일부터 전국에서 7개 중학 팀(경성사범, 경성상업, 대전중, 동래고보, 인천상업, 진남포상공, 평양중)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10월 20일 열린 결승전에서 용산중이 경성상업을 5-4로 제치고 우승</p> <p>▲준결승전=경성상업 8-2 평양중, 인천상업 3-4 용산중 ▲결승전=용산중 5-4 경성상업</p>	
10.27	<p>■ 제16회 전조선야구대회(전조선종합경기대회)</p> <p>전조선종합대회 형식으로 열린 전조선야구대회에 청년단에 두 팀(조선중앙일보, 멕시코)만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전년도 우승 팀 멕시코가 조선중앙일보를 19-6(7회 콜드 게임)으로 꺾고 우승</p> <p>△멕시코=김충배(유격수겸 1루수), 경재창(景在昶 3루수), 김정식(1루수겸 투수), 이경구(포수), 강세희(투수겸 1루수및 유격수), 방한준(方漢駿), 박창혁(朴昌赫 이상 우익수), 이정우(李正雨), 양태환(梁泰煥 이상 중견수), 박건서(朴健緒 2루수)</p> <p>△조선중앙일보=이순재(3루수겸 유격수), 현정주(玄正柱 좌익수), 이영선(투수겸 1루수및 포수), 유약한</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1루수겸 투수), 이정순(포수겸 1루수), 한전훈(韓典勳 유격수겸 3루수), 이상도(李相燾 우익수), 백파(白波 2루수), 김원태(金源泰), 이태우(李台雨 이상 중견수), 장진환(張振煥 1루수겸 2루수및 우익수)	
1936. 04.29	■ 제6회 경성중등학교춘계리그 경성중등학교야구연맹 주최로 4월 29일부터 경성부내 6개 중학 팀(경성공업, 경성사범, 용산중, 경성중, 경성상업, 선린상업)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6월 12일 열린 우승 결정전에서 용산중이 경성상업은 2-1로 누르고 우승 ◇종합 순위=①용산중(4승1패) ②경성상업(3승1패) ③선린상업(2승2패) ④경성사범(1승3패) ⑤경성공업(1승3패) ⑥경성중(5패) △용산중=야마조에(山添 유격수), 곤노(金野 3루수), 아키히로(坂元 좌익수), 야마자키(山崎 2루수), 야마모토(山本 중견수), 쿠보(久保 우익수), 타카모토(高本 투수), 미야무라(宮村 포수), 토오야(遠矢 1루수)	■ 01.11 인천체육회 창립 1월 11일 오후 7시 30분 인천공회당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강령과 규약을 심의한 뒤 임원을 선출 ▲회장=김윤복(金允福) ▲부회장=홍재범(洪在範) ■ 01.29 명예의 전당 첫 헌액 선수 타이 콕, 베이브 루스, 호너스 와그너, 크리스티 매튜슨, 월터 존슨 등 5명이 명예의 전당에 처음으로 헌액 ■ 02.06 제4회 동계올림픽대회 독일 가르미슈 파르텐키르헨에서 28개국, 5종목에 837명 출전한 가운데 개최 ■ 04.14 메이저리그 첫 대다 홈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에디 모건이 메이저리그 데뷔전 첫 타석에서 사상 첫 대타 홈런을 기록 ■ 일본직업야구연맹 조직 오사카, 타이거스, 세너터스, 한큐(阪急), 긴코(金鑽), 다이도쿄(大東京), 나고야(名古屋) 등 7개 팀이 일본직업야구연맹을 조직해 정식 출범, 제2차 세계대전으로 44년 11월부터 1년간 중지, 46년 3월부터 페넌트레이스 형식으로 리그전을 도입
05.02	■ 경성실업춘계연맹전 경성실업연맹 주최로 5월 2일부터 식산은행, 경성전기, 철도국, 체신국, 경성부청 등 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6월 3일 끝난 최종일 경기에서 체신국이 식산은행을 8-6으로 꺾었으나 식산은행이 10전 7승3패로 우승 ◇종합 순위=①식산은행(7승3패) ②경성전기(6승4패) ③철도국 ④체신국 ⑤경성부청 ◇개인상 ▲타격상=①오가사와라(小笠原 식산은행 .375) ②나카지마(中島 식산은행 .341) ③후지이(藤井 체신국 .321) ④고가(古賀 체신국 .308) ⑤하야가와(早川 식산은행 .308)	
05.18	■ 제4회 전조선대학·전문학교연맹전 조선학생야구연맹 주최로 5월 18일부터 용산 철도구장에서 1회전을 개최, 5월 19일 경성운동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경성대가 17-12로 경성대 예과를 제치고 우승 ▲1회전=경성대 9-8 약학전문, 경성대 예과 9-3 연희전문 ▲결승전=경성대 17-12 경성대 예과	
06.16	■ 평남중등학교춘계리그 평남중등야구연맹 주최로 6월 16일부터 9일간 평양중, 평양고보, 광성고보, 진남포상공, 평양상업 등 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평양중운동장에서 개최, 6월 27일 열린 결승전에서 광성고보가 평양고보를 21-5로 격파하고 4전 전승으로 우승 ◇종합 순위=①광성고보(4승) ②진남포상공(3승1패) ③평양중(2승2패) ④평양고보(1승3패) ⑤평양상업(4패) △광성고보=김지광(金智鑛 유격수), 최재복(崔在福 1루수), 김용구(金龍龜 좌익수), 김현봉(金顯鳳 투수), 이창영(李昌榮 2루수), 고종훈(高宗訓 중견수), 김삼국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金三國 3루수), 계연휘(桂連彙 우익수), 김원모(金元模 포수)	
06.17	<p>■ 일본 메이지(明治)대초청경기 조선체육협회 초청으로 6월 17일부터 경성전기, 전경성과 경성운동장에서 3차전을 개최, 6월 19일 끝난 최종일 경기에서 경성전기를 10-0으로 꺾어 3전 전승을 기록 ▲1차전=메이지대 13-0 경성전기 ▲2차전=메이지대 15-9 전경성 ▲3차전=메이지대 10-0 경성전기 △전경성=미쓰타게(光武 좌익수) 나카지마(中島 중견수), 이영민 토쿠시마(德島 이상 투수), 아사하라(淺原 1루수), 후지이(藤井 우익수) 하야카와(早川 3루수), 호타(保田 유격수), 오가사와라(小笠原 포수), 타하라(田原 대타), 야마타니(山谷 2루수)</p>	
07.03	<p>■ 제9회 전조선실업연맹전경 제10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조선예선전 마이니치(毎日)신문사 경성지국 주최로 7월 3일부터 조선 5개 지역예선에서 우승한 전경성(중앙), 청진철도(북조선), 평양실업(서조선), 대전철도(호남), 전대구(남조선) 등 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7월 5일 열린 결승전에서 전경성이 평양실업을 8-0으로 격파하고 우승, 본선 진출권 획득 ▲준결승전=전경성 13-4 전대구, 평양실업 10-4 대전철도 ▲결승전=전경성 8-0 평양철도 △평양실업=마쓰모토(松本 포수), 와타나베(渡邊 2루수), 쿠라다(倉田 유격수), 구마가야(熊谷), 기쿠치(菊池 이상 중견수), 백기주(좌익수), 오용건(吳龍乾 우익수), 와타(渡 3루수) 다카다(高田 1루수), 박현명(朴賢明 투수)</p>	 <p>제10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조선선발대회에서 우승한 전경성 선수들. 전경성은 일본에서 열린 본선 1회전에서 콜롬비아에 2-8로 패해 탈락했다.</p>
07.04	<p>■ 제6회 전조선중등학교야구대회 연희전문 주최로 7월 4일부터 3일간 대동상업, 선린상업, 중앙고보, 휘문고보 등 4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연희전문 운동장에서 개최, 7월 6일 열린 결승전에서 선린상업이 휘문고보를 20-4로 격파하고 우승 ▲1회전=중앙고보 2-18 휘문고보, 대동상업 1-13 선린상업 ▲결승전=선린상업 20-4 휘문고보 △대동상업=정학진(丁鶴鎭 중견수), 이연구(李淵龜 유격수), 김재형(金載滢 3루수겸 좌익수), 이우수(李又洙 좌익수겸 3루수), 박일동(朴一同 투수), 왕옥이(王玉伊 1루수), 최순익(崔淳翊 2루수), 이정주(李定柱 우익수), 구동식(具東植 포수) ▲선린상업=유득현(劉得鉉 중견수), 요시사카(吉坂 유격수), 오노(大野 1루수), 우메즈(梅津 투수), 오타(太田 포수), 마쓰모토(松本 좌익수), 스기하라(菅原 우익수), 유봉룡(劉福龍 2루수), 와타나베(渡邊 3루수) ▲중앙고보=김홍정(金弘楨 투수겸 유격수), 유춘배(柳春培 유격수), 지용현(중견수), 김봉은(金奉殷 포수), 주세환(朱世煥 유격수겸 투수), 송명호(宋明鎬 우</p>	 <p>제6회 전조선중등학교야구대회 입장식. 경성 4개 중학이 출전한 가운데 열린 이 대회에서 유득현(중견수) 유복룡(2루수)이 출전한 선린상업이 사상 첫 우승</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익수), 한태동(韓泰東 1루수겸 2루수), 정병호(鄭秉浩 1루수), 홍필훈(洪弼勳 2루수), 박병수(좌익수) ▲ 휘문고보=노영운(유격수), 이봉우(李鳳雨 중견수), 정현모(3루수), 이준대(포수겸 좌익수) 박찬욱(朴贊郁 포수), 민경화(閔庚華 좌익수겸 우익수), 임두호(任斗鎬 1루수), 곽복록(郭福祿 2루수), 강영석(姜永錫 우익수), 김순모(투수)</p>	
07.22	<p>■ 제16회 조선중등학교대회겸 제22회 전국중등우승대회 조선예선전 오사카 아사히신문사 경성지국 주최로 7월 22일부터 5개 지역(북선, 서선, 남선, 중부, 호남)에서 38개 중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1차 예선전을 개최, 함흥상업(북선), 광성고보(서선), 대구상업(남선) 인천상업(중부), 광주중(호남)이 우승, 7월 31일 경성운동장에서 열린 2차 예선 결승전에서 인천상업이 대구상업을 8-4로 꺾고 우승 ▲ 준결승전=인천상업 13-1 광주중, 대구상업 7-5 함흥상업 ▲ 결승전=인천상업 8-4 대구상업 △ 인천상업=시모카도(下門 유격수), 소다(曾田 2루수) 나카무라(中村 3루수), 야마구치(山口 투수겸 1루수) 나가모도(長本 1루수겸 투수), 사토(佐藤 포수), 가츠라(桂 중견수), 장영식(張榮植), 김선웅(金善雄 이상 좌익수), 하시모토(橋本 우익수), 김영택(金永澤 후보) △ 대구상업=안도(安東 중견수), 다케시다(竹下 유격수), 한창진(韓昌鎭 좌익수), 오원호(吳元昊 투수), 하부남(河富男 3루수), 아리가(有我 1루수), 요시다(吉田 우익수), 호시데(星出 2루수), 이종대(李鍾大 포수)</p>	 <p>제16회 조선중등대회에서 우승 제22회 전국중등우승대회 출전권을 획득한 인천상업 선수들.</p>  <p>인천상업에서 장영식과 좌, 우익수를 맡았던 김선웅. 해방 후에는 모교 감독으로 후진을 양성했다.</p>
08.01	<p>■ 제10회 흑사자기쟁탈 전국도시대항대회 마이니치(毎日)신문사 주최로 8월 1일부터 일본 메이지(明治) 진구(神宮)구장에서 열린 제10회 흑사자기쟁탈 전국도시대항대회(8월 1~10일)에 전경성이 조선대표로 출전, 1회전에서 야마시즈(山靜)대표 가와사키(川崎) 콜럼비아에 2-8로 패해 탈락 △ 전경성=나카지마(中島 중견수), 미쓰타케(光武 좌익수) 이영민(투수겸 포수), 후지이(藤井 우익수), 아사하라(淺原 1루수), 하야카와(早川 3루수), 호타(保田 유격수), 오가사와라(小笠原 포수), 야마타니(山谷 2루수)</p>	 <p>제22회 전국중등우승대회 개막식에 인천상업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다.</p>
08.13	<p>■ 제22회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 아사히신문사 주최로 8월 13일부터 고시엔구장에서 열린 제22회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8월 13~20일)에 인천상업이 조선대표로 출전,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뒤 8월 16일 열린 2회전에서 헤이안(平安)중에 0-17로 패해 탈락 △ 인천상업=시모카도(下門 유격수), 소다(曾田 2루수), 나카무라(中村 3루수), 야마구치(山口 투수겸 1루수), 나가모도(長本 1루수겸 투수), 사토(佐藤 포수), 가츠라(桂 중견수), 김선웅(金善雄 좌익수), 하시모토</p>	 <p>제22회 전국중등우승대회 개막식에 인천상업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橋本 우익수)	
08.16	■ 제1회 전조선연식도시대항대회 조선연식야구연맹 주최로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결승전에서 함용화가 포수로 뛴 경성이 부산을 5-0으로 꺾고 우승 ▲준결승전=부산 6-4 전주, 경성 9-0 해주 ▲결승전=경성 5-0 부산	■ 08.09 손기정 올림픽 금메달 제11회 베를린 올림픽대회(독일) 마라톤 경기에서 세계신기록(2시간 29분 19초2)으로 금메달 획득 ■ 08.27 동아일보 무기정간 손기정 선수의 유니폼 가슴에 박힌 일장기를 말살했다는 이유로 조선총독부가 8월 27일 석간부터 무기 정간 조치
09.05	■ 제13회 전조선야구쟁패전 경성일보사 매일신문사 공동 주최로 9월 5일부터 고려군 등 11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2회전에서 조선인 선수들로 구성된 고려군이 경성부청에 0-6으로 패해 탈락, 결승전에서 손희준(2루수) 최중을(포수)이 활약한 경성부청이 겸이포를 꺾고 우승 ▲준결승전=경성부청 6-4 전인천, 겸이포 4-3 식산은행 ▲결승전=경성부청 3-0 겸이포 △고려군=원소재(좌익수), 김일배(2루수), 오윤환(투수), 이신득(중견수), 함용화(포수), 이동수(유격수), 나조화(우익수), 김복만(3루수), 김영석(1루수)	
09.12	■ 경성실업추계연맹전 경성실업연맹 주최로 9월 12일부터 경성전기, 식산은행, 철도국, 체신국, 경성부청 등 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10월 3일 최종 결승전에서 경성전기가 경성부청을 7-3으로 꺾고 우승	■ 09.23 아메리칸리그 최다 탈삼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18살짜리 투수 밥 펠러가 17탈삼진으로 아메리칸리그 1게임 최다 탈삼진 신기록 수립
10.12	■ 제10회 조선신궁중등학교대회 조선체육협회 주최로 10월 12일부터 전국에서 9개 중학 팀(경성사범, 경성상업, 부산중, 선린상업, 용산중, 이리농림, 인천상업, 진남포상공, 함흥상업)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10월 18일 열린 결승전에서 인천상업이 용산중을 8-0으로 격파하고 우승 ▲준결승전=인천상업 5-2 경성사범, 용산중 4-3 선린상업 ▲결승전=인천상업 8-0 용산중 △인천상업=시모카도(下門 유격수), 소다(曾田 2루수), 나카무라(中村 3루수), 야마구치(山口 1루수겸 투수), 나가모토(長本 투수겸 1루수), 장영식(張榮植 포수겸 좌익수), 사토(佐藤 포수), 김선웅(좌익수), 하시모토(橋本 우익수), 가츠라(桂 중견수), 이와사키(岩崎 투수)	
1937. 04.29	■ 제7회 경성중등학교추계리그 경성중학교야구연맹 주최로 4월 29일부터 경성사범, 경성상업, 용산중, 경성공업, 선린상업 등 5개 중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6월 11일 대회 도중 선린상업 선수의 불상사로 대회를 중단	
05.22	■ 제5회 전조선대학·전문학교연맹전 조선학생야구연맹 주최로 5월 22일부터 연희전문, 경성대, 경성의전, 약학전문, 경성치전, 경성고공, 수원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고농, 대구의전, 경성대예과 등 9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용산구장에서 개최, 결승전에서 경성의전이 경성고상을 꺾고 우승, 연희전문은 1회전에서 경성대예과에 8-9로 패해 탈락	
06.05	■ 경성실업준계연맹전 경성실업연맹 주최로 6월 5일부터 경성전기, 체신국, 철도국, 식산은행, 경성부청 등 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6월 20일 경성전기-철도국의 결승전을 주최측 사정으로 중지. 경성전기에 우승배를 수여하고 폐막	
06.06	■ 평남중등학교준계리그 평남중등학교야구연맹 주최로 6월 6일부터 5개 중학팀(광성고보, 진남포상공, 평양고보, 평양상업, 평양중)이 출전한 가운데 평양중 운동장에서 개최, 평양상업이 4전 전승으로 우승이 확정된 가운데 7월 4일 열린 최종일 경기에서 진남포상공이 광성고보를 29-0으로 격파하고 승리를 챙겨 3승1패로 준우승 ◇종합 순위=①평양상업(4승) ②진남포상공(3승1패) ③평양고보(2승2패) ④평양중(1승3패) ⑤광성고보(4패)	
06.12	■ 부산중등학교준계리그 경남체육협회 주최로 6월 12일부터 부산 4개 중학팀(동래고보, 부산중, 부산1상, 부산2상)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 6월 20일 열린 최종일 경기에서 부산1상이 동래고보를 13-5로 격파하고 3전 전승으로 우승 ◇종합 순위=①부산1상(3승) ②부산중(2승1패) ③부산2상(1승2패) ④동래고보(3패)	
06.25	■ 제7회 전조선중등야구대회 연희전문 주최로 6월 25일부터 2일간 선린상업, 중앙고보, 휘문고보 등 3팀이 출전한 가운데 연희전문 운동장에서 개최, 결승전에서 선린상업이 중앙고보를 22-8로 격파하고 우승(제7회 대회 이후 여건 악화로 연희전문이 대회 개최를 포기) △선린상업=기야노(茅野 우익수), 유복룡(2루수), 마쓰모토(중견수), 우메즈(유격수), 오오노(1루수), 권태용(權太容 포수), 이종석(李鍾石 좌익수), 와다나베(3루수), 요시사카(투수) △중앙고보=유춘배(유격수), 이재찬(3루수 박병수(좌익수), 김봉은(포수), 송명호(우익수), 한태동(투수), 홍필훈(2루수), 이종문(李鍾文 1루수), 강대관(중견수) △휘문고보=곽복록(1루수), 민경화(유격수), 박수순(포수), 임두호(투수), 이봉우(중견수), 유상현(柳商鉉 3루수), 이정복(李廷馥 2루수), 최종완(崔鍾完 우익수), 김석근(金錫根)	 <p>제7회 전조선중등학교대회 입장식 광경</p>  <p>제7회 전조선중등학교대회에서 제6회 대회에 이어 2연패를 달성한 선린상업 선수들. 일본 학생들 속에서 유복룡(2루수), 권태용(포수), 이종석(좌익수) 등이 우승에 한몫을 했다.</p>
07.02	■ 제10회 전조선실업연맹전 겸 제11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조선예선전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오사카(大阪) 마이니치(毎日)신문사 경성지국 주최로 7월 2일부터 전경성(중부), 전원산(북조선), 부산철도(남조선), 평양실업(서조선), 대전철도(호남) 등 5개 도시 대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7월 4일 끝난 결승전에서 전경성이 부산철도를 6-3으로 물리치고 우승, 본선 출전권을 확보했으나 중·일(中·日)전쟁 발발로 만주대표와 불참</p> <p>▲준결승전=부산철도 7-6평양철도, 대전철도 4-18전경성 ▲결승전=전경성 6-3 부산철도</p>	<p>■07.03 조선체육회 조선체육회가 이사회를 열고 제10대 회장에 유억겸을 선임</p> <p>■07.07 중·일전쟁 발발 중국 베이징(北京) 교외 루거우차오(蘆溝橋)에서 일본군이 일으킨 군사행동으로 말미암아 확대된 전쟁</p>
07.13	<p>■제10차 도쿄유학생모국방문경기 도쿄유학생야구단의 마지막 모국 방문으로 7월 11일 목포에서 열릴 예정이던 첫 경기는 비로 취소, 7월 13일 광주를 시작으로 대구(17일), 경성(20~21일)에서 4차전 끝에 1승3패</p> <p>▲1차전(7월 13일 광주)=유학생 5-6 전광주 △유학생=단장 김승태(金昇泰), 상담역 호정환(扈定煥), 박용칠(朴容七), 강대성(姜大成), 감독 홍문길 및 나조화(중견수), 박경원(2루수) 오윤환(투수), 이기경(1루수), 한용대(韓龍大 3루수), 박장환(포수), 이준용(우익수), 배기협(좌익수), 진성섭(유격수) △전광주=최숙(崔淑), 정성태(鄭成太 이상 투수), 문윤구(文潤龜 포수), 이승우(1루수), 김희룡(金熙龍 2루수), 백흥기(白洪基 3루수), 박신영(朴信英 유격수), 김갑현(金甲鉉 좌익수), 김태봉(중견수), 서치열(徐致烈 우익수)</p> <p>▲2차전(7월 17일 대구)=유학생 9-10 전대구 ▲3차전(7월 20일 경성)=유학생 2-13 고려군 △고려군=최중을(포수겸 2루수), 이신득(중견수겸 우익수), 이영민(투수겸 중견수), 함용화(2루수겸 1루수), 손희준(유격수), 박현명(朴賢明 1루수겸 투수), 김일배(3루수), 조점룡(우익수겸 포수), 이경구(좌익수)</p> <p>▲4차전(7월 21일 경성)=유학생 10-7 전취문 △전취문=김정식(중견수겸 포수), 이경구(좌익수) 손희준(투수), 이신득(포수겸 중견수), 이진형(우익수), 김영희(金永羲 1루수), 강세희(유격수), 송재경(3루수), 민용규(2루수)</p>	 <p>제10차 도쿄유학생모국방문야구단 선수들</p>
07.13	<p>■제17회 조선중등학교대회겸 제23회 전국중등우승대회 조선예선전 아사히신문사 경성지국 주최로 7월 22일부터 조선 5개 지역(남선, 호남, 중부, 북선, 서선)에서 35개 중학팀이 출전한 가운데서 1차 예선전을 개최, 대구상업(남선), 이리농림(호남), 용산중(중부), 함흥농업(북선), 평양고보(서선)등 2차 예선 끝에 7월 30일 열린 결승전에서 용산중이 김상현(金相鉉 투수), 김현태(金鉉泰 좌익수), 신순동(申順童 중견수)이 활약한 이리농림을 8-1로 격파하고 우승</p> <p>▲준결승전=이리농림 19-3 함흥농업, 용산중 6-5 대구상업 ▲결승전=용산중 8-1 이리농림 △이리농림=노무라(野村 유격수), 히로야스(土江 3루</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수), 시미즈(清水 포수), 김상현(金相鉉 투수), 오가미(尾上 1루수), 김현태(金鉉泰) 마쓰야마(松山 이상 좌익수), 하라다(原田 우익수), 신순동(申順童 중견수)	
08.13	■ 제23회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 일본 아사히신문사 주최로 8월 13일부터 오사카 고시엔구장에서 열린 제23회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8월 13~20일)에 용산중이 조선대표로 출전, 1회전에서 주쿄(中京)상업에 1-12로 패해 탈락 △용산중=토우보우(當房 3루수), 노부히로(信廣 2루수), 야마조에(山添 유격수), 우에노(上野 대타), 쿠보(久保 좌익수), 시오야(鹽谷 대타), 미야무라(宮村 포수), 다카시마(高島 우익수), 타카모토(高本 투수), 후지이(藤井 중견수), 도키에다(時枝 1루수)	
09.04	■ 경성실업추계연맹전 경성실업야구연맹 주최로 9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결승전에서 손희준(2루수) 최종을(포수) 김일배(좌익수) 등이 활약한 경성부청이 식산은행에 0-4로 패해 준우승 ▲준결승전=식산은행 6-5 경성전기, 경성부청 7-6 철도국 ▲결승전=식산은행 4-0 경성부청	
09.23	■ 평남중등학교추계리그 평남중등야구연맹 주최로 9월 23일부터 광성고보, 평양고보, 평양상업, 평양중 등 4개 중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평양중 운동장에서 개최, 10월 2일 열린 우승 결정전에서 평양중이 평양고보를 15-4로 격파하고 우승 ◇종합 순위=①평양중(2승1패, 득실점 +9) ②평양고보(2승1패, +4) ③평양상업(1승2패, -4) ④광성고보(1승2패, -9) △평양중=미카미(三上 유격수), 사이토(齊藤 좌익수), 히라모토(平本 포수), 스즈키(鈴木 중견수), 야토(矢藤 2루수), 이나다(稻田 우익수겸 투수), 아라이(荒井 1루수), 고하라(小原 3루수), 이노시카(猪鹿 투수겸 우익수) △평양고보=이환주(李煥周 유격수), 김진문(金鎭汶 좌익수겸 포수), 유종근(柳宗根 1루수), 박현덕(朴賢德 투수), 최규황(崔圭璜 중견수), 조성복(趙成福 포수겸 좌익수), 노영균(盧永均 3루수), 김도영(金道榮 2루수), 정송협(鄭崇浹 우익수)	
10.01	■ 체육데이 보통학교야구대회 체육데이를 맞아 10월 1일 열린 보통학교야구대회 결승전에서 주교보교가 용산보교를 7-0으로 격파하고 우승 ▲소년단 결승전=주교보교 7-0 용산보교 △주교보통학교=이병호(李秉湖 1루수), 최진영(崔鎭榮 좌익수), 윤건철(尹建喆 포수), 배갑준(裴甲俊 투수), 김인식(金仁植 중견수), 김정필(金正弼 유격수), 이진우(李鎭雨 3루수), 이순영(李珣永 우익수), 김태경(金台卿 2루수)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용산보통학교=임병덕(林炳德 포수), 송병두(宋秉斗 좌익수), 김이봉(金二奉 투수), 김영제(金永濟 1루수), 박상근(朴相根 3루수), 홍창길(洪昌吉 2루수), 박정길(朴貞吉), 이문백(李文白 이상 중견수), 권문용(權文用 우익수), 함수복(咸壽福 유격수)</p>	
10.13	<p>■ 제11회 조선신궁중등학교대회 조선체육협회 주최로 10월 13일부터 전국에서 8개 중학 팀(경성사범, 경성상업, 부산1상, 선린상업, 용산중, 이리농림, 인천상업, 함흥고보)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10월 17일 열린 결승전에서 용산중이 인천상업을 6-3으로 물리치고 우승 ▲준결승전=인천상업 8-1 경성상업, 용산중 8-4 이리농림 ▲결승전=용산중 6-3 인천상업</p>	
1938. 04.30	<p>■ 부산중등학교춘계리그 경남체육협회 주최로 4월 30일부터 동래고보, 부산중, 부산1상, 부산2상 등 4개 중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 5월 8일 열린 최종일 경기에서 동래고보가 부산2상을 6-5로 꺾고 3전 전승으로 우승 ◇종합 순위=①동래고보(3승) ②부산2상(2승1패) ③부산1상(1승2패) ④부산중(3패) △동래고보=윤천주(尹天柱 유격수), 박만우(朴萬祐 좌익수), 장형기(張馨基 3루수), 박봉조(朴奉租 포수), 장종기(張鐘基 투수), 김두식(金斗植 1루수), 가야(嘉屋 敎 대타겸 2루수), 김성렬(金星烈 2루수), 성도호(成道浩 좌익수), 성태수(成太秀 중견수)</p>	 <p>경남체육협회 주최로 열린 부산중등학교춘계리그에서 3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한 동래고보 선수들.</p>
05.07	<p>■ 경성실업춘계연맹전 경성실업연맹 주최로 5월 7일부터 경성부청, 경성전기, 식산은행, 철도국, 체신국 등 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과 용산구장에서 개최, 6월 16일 이영민이 활약한 식산은행이 8승2패로 우승 ◇종합 순위=①식산은행(8승2패) ②체신국(7승3패) ③경성전기(6승4패) ④철도국(3승7패) ⑤경성부청(2승8패)</p>	
05.23	<p>■ 제8회 경성중등학교춘계리그 경성중등야구연맹 주최로 5월 23일부터 경성부내 4개 중학 팀(경성사범, 경성상업, 선린상업, 용산중)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더블 리그로 개최, 6월 26일 열린 최종일 경기에서 선린상업이 용산중을 4-3으로 누르고 6전 전승으로 우승 ◇종합 순위=①선린상업(6승) ②용산중(4승2패) ③경성사범, 경성상업(이상 1승5패) △선린상업=와타나베(渡邊 유격수겸 투수), 이케모토(池本 3루수), 유득현(劉得鉉 중견수), 요시사카(吉坂 투수겸 유격수), 오오노(大野 1루수), 산나이(山内 포수), 하시모토(橋本 2루수), 백(白 1루수), 사쿠라기(櫻木 우익수)</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6.12	<p>■ 평남중등학교춘계리그 평남중등야구연맹 주최로 6월 12일부터 도내 5개 중학 팀(광성중, 송인상업, 평양상업, 평양1중, 평양2중)이 출전한 가운데 평양1중 운동장에서 개최, 6월 27일 열린 최종일 경기에서 평양1중이 송인상업을 제치고 4전 전승으로 우승 ◇종합 순위=①평양1중(4승) ②평양상업(3승1패) ③평양2중(2승2패) ④광성중(1승패) ⑤송인상업(4패)</p>	<p>■ 06.11 2연속경기 No Hit No Run 신시내티 레즈의 조니 밴더 미어가 보스턴 브레이브스를 상대로 No Hit No Run(5-0)을 기록한 뒤 4일 뒤 브루클린 다저스를 상대로 또 한번 No Hit No Run(6-0)을 기록, 메이저리그 사상 유일하게 2연속경기 노히트노런을 기록한 주인공이 된다.</p>
06.17	<p>■ 제6회 전조선대학·전문학교연맹전 조선학생야구연맹 주최로 5월 21일부터 6월 17일까지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2차대회 결승전에서 연희전문이 경성치전을 6-5로 제치고 우승</p>	
07.01	<p>■ 일본 메이지(明治)대초청경기 경성일보사 초청으로 7월 1일부터 부산, 경성, 인천, 평양을 순회하며 7차전을 개최, 7월 9일 평양에서 열린 최종일 경기에서 평양실업에 1-4로 패해 6승1패를 기록 ▲1차전=메이지대 7-0 부산철도 ▲2차전=메이지대 1-0 철도국 ▲3차전=메이지대 9-1 경성부청 ▲4차전=메이지대 10-4 경성전기 ▲5차전=메이지대 5-1 전경성 ▲6차전=메이지대 12-5 전인천 ▲7차전=메이지대 1-4 평양실업</p>	
07.08	<p>■ 제11회 전조선실업연맹전 제12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조선예선전 마이니치신문사 주최로 7월 8일부터 전국 5개 지역 1차 예선에서 우승한 전경성(중부), 성진철도(북조선), 평양실업(서조선), 전대구(남조선), 대전철도(호남) 등이 출전한 가운데 2차 예선대회를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7월 11일 열린 결승전에서 전경성이 대전철도를 9-0으로 격파하고 우승, 제12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출전권 획득 ▲준결승전=전경성 10-1 평양실업, 대전철도 1-0 성진철도 ▲결승전=전경성 9-0 대전철도</p>	
07.22	<p>■ 제18회 조선중등학교대회 제24회 전국중등우승대회 조선예선전 일본 오사카 아사히신문사 주최로 7월 22일부터 전국 5개 지역(남선, 호남, 중부, 북선, 서선)에서 32개 중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1차 예선전을 개최, 대구상업(남선), 이리농림(호남), 인천상업(중부), 함남중(북선), 평양상업(서선)이 우승한 가운데 8월 30일 열린 2차 예선 결승전에서 인천상업이 평양상업을 7-0으로 격파하고 우승 ▲준결승전=인천상업 4-3 대구상업, 평양상업 4-2 함남중 ▲결승전=인천상업 7-0 평양상업 △인천상업=이와미(岩見 3루수), 마츠모토(松本 유격수), 츠지(辻 포수), 이와사키(岩崎 투수), 고가(古賀 중견수), 이토(伊藤 좌익수), 가계야마(影山 우익수), 이즈미가와(泉川 2루수), 노하타(野畑 1루수)</p>	<p>■ 조선체육회 해체 7월 4일 오후 4시30분 조선총독부의 억압으로 조선일보사 3층 소강당에서 조선체육회가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일본인 단체 조선체육협회와 합체를 의결</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8.13	<p>■ 제24회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 오사카 아사히신문사 주최로 8월 13일부터 고시엔(甲子園)구장에서 열린 제24회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8월 13~21일)에 인천상업이 조선대표로 출전, 1회전에서 천진(天津)상업을 3-2로 누른 뒤 2회전에 진출, 8월 17일 시모노세키(下關)상업에 6-1로 패해 탈락</p>	
08.04	<p>■ 제12회 흑사자기쟁탈 전국도시대항대회 첫 준우승 오사카 마이니치(毎日)신문사 주최로 8월 4일부터 도쿄 고라쿠엔(後樂園)구장에서 열린 제12회 전국도시대항대회(8월 4~11일)에 전경성이 조선대표로 출전, 1회전에서 하코다테(函館)의 타이요(太洋), 2회전에서 구라야마(鞍山)의 쇼와(昭和)제철, 준결승전에서 야와타를 차례로 제치고 결승전에 진출했으나 도쿄(東京) 후지쿠라(藤倉)전선에 1-4로 덜미를 잡혀 준우승 ▲준결승전=전경성 6-4 야와타, 도쿄 5-2 다렌(大連) ▲결승전=도쿄 4-1 전경성 △전경성=오가와(小川 2루수), 마노(眞野 우익수), 기쿠야(菊谷 중견수), 다사카(田坂 좌익수), 구로다(黒田 1루수), 도이(土井 투수), 아라카와(荒川 포수), 나스(那須 3루수), 이치가와(市川 유격수)</p>	<p>8월 13일 고시엔(甲子園)구장에서 열린 제24회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 개막식. 인천상업은 2회전에서 시모노세키중에 1-6으로 패해 탈락</p>
09.04	<p>■ 경성실업추계연맹전 경성실업야구연맹 주최로 9월 4일부터 식산은행, 체신국, 경성전기, 철도국, 경성부청 등 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9월 17일 끝난 추계리그에서 체신국이 4전 전승으로 우승 ◇종합 순위=①체신국(4승) ②식산은행(3승1패) ③철도국(2승2패) ④경성전기(1승3패) ⑤경성부청(4패)</p>	
10.14	<p>■ 제12회 조선신궁중등학교대회 조선체육협회 주최로 10월 14일부터 전국에서 6개 중학 팀(경성사범, 대구상업, 동래중, 선린상업, 이리농림, 인천상업)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10월 18일 열린 결승전에서 인천상업이 경기상업을 4-1로 꺾고 우승 ▲준결승전=선린상업 12-1 용산중, 경기상업 9-8 동래중 ▲선린상업 4-1 경성상업 △선린상업=산나이(山内 포수), 와타나베(渡邊 유격수), 오노(大野 좌익수) 요시사카(吉坂 투수), 유득현(중견수), 백○○(白○○ 1루수), 이케모토(池本 3루수), 무라카미(村上), 사쿠라모토(櫻本 이상 우익수), 하시모토(橋本 2루수)</p>	
10.25	<p>■ 박현명(朴賢明), 오사카 타이거스 입단 오사카 타이거스(현 한신) 입단 테스트에 합격, 계약금 150엔에 입단. 12월부터 시작된 동계훈련에서 배팅볼을 던지다 어깨를 다쳐 39년 시즌에서 2경기 등판 후 퇴출</p>	<p>■ 12.26 부산체육회 해체 일본인 체육단체 부산부체육협회에 합류</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1939. 02.08	<p>■ 유완식(劉完植), 한큐(阪急) 브레이브스 입단 1939년 2월 8일 한큐에서 테스트를 받은 뒤 입단, 2군 생활을 거쳐 1942년 1군 무대에 진출, 3년 간 1군에서 포수로 활동하다 1945년 8월 해방을 맞아 귀국</p>	
04.30	<p>■ 제9회 경성중등학교춘계리그 경성중등야구연맹 주최로 4월 30일부터 경성부내 6개 중학 팀(경성사범, 경성상업, 선린상업, 성동중, 용산중, 중앙중)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경성사범이 5전 전승으로 우승이 확정된 가운데 5월 18일 열린 최종일 경기에서 용산중이 경성상업을 5-4로 눌러 4승1패로 준우승 ◇종합 순위=①경성사범(5승) ②용산중(4승1패) ③선린상업(3승2패) ④성동중(2승3패) ⑤경성상업(1승4패) ⑥중앙중(5패)</p>	<p>■ 04.30 루 게릭 최다 경기 연속 출전 1925년 6월 1일~1939년 4월 30일까지 15시즌에 걸쳐 이어져 온 연속경기 출전 기록이 2,130경기에서 마감(1995년 9월 5일 칼 립칸 주니어가 2,632경기로 경신)</p>
05.07	<p>■ 경성실업춘계연맹전 경성실업야구연맹 주최로 5월 7일부터 경성전기, 철도국, 체신국, 경성부청, 식산은행 등 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용산구장에서 개최, 6월 10일 체신국이 7승2패로 우승이 확정된 가운데 6월 11일 열린 최종일 경기에서 철도청이 식산은행을 5-2로 꺾고 6승5패로 준우승 ◇종합 순위=①체신국(7승2패) ②철도국(6승5패) ③경성전기(5승9패) ④식산은행(3승6패) ⑤경성부청(4승7패) △체신국=니시다(西田 유격수), 하야카와(早川 중견수), 오윤환(吳潤煥 3루수), 사나다(眞田 좌익수), 마토야마(的山 포수), 다시로(田代 1루수), 스즈키(鈴木 투수), 이신득(李辛得 우익수), 우치다(内田 2루수)</p>	
05.20	<p>■ 제7회 전조선대학·전문학교연맹전 조선학생야구연맹 주최로 12개 대학과 전문학교가 출전한 가운데 5월 20일부터 9일간 경성 및 용산 철도구장에서 개최, 5월 28일 끝난 결승전에서 연희전문이 경성대를 13-6으로 격파하고 우승 △연희전문=윤지현(尹智鉉 2루수), 정헌모(좌익수), 박현덕(중견수), 황문중(黃文中 1루수), 박수돈(포수), 김지권(金志權 유격수), 임두호(투수), 최중을(崔仲乙 3루수), 이봉우(우익수)</p>	<p>■ 05.16 아메리칸리그 최초 야간경기 필라데피아 쉬브 스타디움에서 아메리칸리그 최초로 야간경기를 개최</p>
05.27	<p>■ 평남중등학교춘계리그 평남중등야구연맹 주최로 5월 27일 평남 도내 5개 중학 팀(광성중, 송인상업, 평양상업, 평양1중, 평양2중)이 출전한 가운데 평양1중 운동장에서 개최, 6월 4일 열린 최종일 경기에서 평양2중이 광성중에 기권 승, 4전 전승으로 우승 △평양2중=박은채(朴恩采 1루수), 이성근(李誠根 중견수), 조성복(趙成福 포수), 김도영(金道榮 투수), 김준용(金濬鏞 3루수), 박승식(朴承植 5루수), 김상만(金相萬 2루수), 차상진(車相珍 좌익수), 김성연(金聖淵 우익수)</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6.24	<p>■ 일본 모지(門司)철도초청경기 경성일보사 초청으로 6월 24일부터 철도국, 전경성과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6월 25일 열린 철도국과의 경기에서 2-4로 패해 3전 2승1패를 기록 ▲1차전=모지철도 6-5 철도국 ▲2차전=모지철도 5-3 전경성 ▲3차전=모지철도 2-4 철도국 △전경성=니시다(西田 2루수), 나카시마(中島 중견수), 마스다(増田 유격수), 사나다(眞田 1루수), 아키야마(秋山 좌익수), 오가와(小川 대타), 야마구치(山口 우익수), 마토야마(的山 포수), 스즈키(鈴木), 도쿠시마(徳島 이상 투수), 다카다(高田 3루수), 오윤환(吳潤煥 대타)</p>	<p>■ 06.12 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 건립 1839년 애브너 더블데이가 미국 뉴욕주 쿠퍼스 타운에서 야구를 창시했다는 유래에 따라 명예의 전당 건립</p>
07.08	<p>■ 제12회 전조선실업연맹전경 제13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조선예선전 오사카(大阪) 마이니치(毎日)신문사 경성지국 주최로 7월 8일부터 전국 5개 지역 우승 팀인 전경성(중앙), 검이포 일철(日鐵 서선), 성진철도(북선), 전대구(남선), 대전철도(호남) 등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7월 11일 열린 결승전에서 전경성이 전대구를 4-0으로 물리치고 우승, 전국도시대항대회 출전권 확보 ▲준결승전=전경성 9-3 대전철도, 전대구 12-4 성진철도 ▲결승전=전경성 4-0 전대구 △전경성=니시다(西田 2루수), 마스다(増田 유격수), 아키야마(秋山 우익수겸 중견수), 사나다(眞田 좌익수), 오윤환(吳潤煥 1루수), 오가와(小川 포수), 도쿠시마(徳島 투수), 하야카와(早川 중견수), 카도무라(門村 대타), 이영민(李榮敏 우익수), 다카다(高田 3루수)</p>	<p>■ 07.04 메이저리그 최초 영구 결번 뉴욕 양키스의 루 게릭이 병으로 시즌중 은퇴, 양키스 구단이 메이저리그 최초로 그의 등번호(4번)를 영구 결번으로 지정</p>
07.22	<p>■ 제19회 조선중등학교대회경 제25회 전국중등우승대회 조선예선전 오사카 아사히신문사 주최로 7월 22일부터 조선 전국에서 26개 중학 팀이 5 지역(남선, 중부, 북선, 서선, 호남)으로 나누어 1차 예선전을 개최, 대구상업(남선), 인천상업(중부), 함흥상업(북선), 평양1중(서선), 이리농림(호남)이 우승, 7월 30일 열린 2차 예선 결승전에서 인천상업이 평양1중을 1-0으로 누르고 우승 ▲준결승전=인천상업 6-4 함흥상업, 평양1중 26-6 이리농림 ▲결승전=인천상업 1-0 평양1중</p>	 <p>인천상업은 제25회 전국중등우승대회 조선예선전에서 우승, 일본 고시엔(甲子園)에서 열린 본선에 진출했으나 1회전에서 교토상업에 패해 탈락했다.</p>
07.30	<p>■ 제13회 흑사자기쟁탈 전국도시대항대회 마이니치(毎日)신문사 주최로 7월 30일부터 일본 고라쿠엔(後樂園)구장에서 열린 제13회 흑사자기쟁탈 전국도시대항대회(7월 30일~8월 7일)에 전경성이 조선대표로 출전, 1회전에서 12회 연장전 끝에 가와사키(川崎) 콜럼비아, 2회전(준결승)에서 일본 기타간토(北關東)대표 오타(太田)를 제치고 준결승전에 진출했으나 긴키(近畿)지역대표 쇼나이(庄内)에 3-8로 패해 탈락 ▲1회전=전경성 3-2 가와사키 ▲2회전=전경성 6-2 오타 ▲준결승전=전경성 3-8 쇼나이</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8.13	<p>■ 제25회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 오사카 아사히신문사 주최로 8월 13일부터 고시엔 구장에서 열린 제25회 전국중등학교 우승대회(8월 13~20일)에 인천상업이 조선대표로 출전, 1회전에서 교토(京都)상업에 1-3으로 패해 탈락 △인천상업=이와미(岩見 3루수겸 유격수), 노하타(野畑 1루수), 츠지(辻포수), 마츠모토(松本 유격수겸 투수), 아베(阿部2루수), 미야모토(宮本 투수겸 3루수), 이토(伊藤 중견수), 사사키(佐佐木 좌익수), 가게야마(影山 우익수)</p>	<p>■ 08.26 메이저리그 사상 첫 TV중계 뉴욕 에버츠필드에서 벌어진 신시내티 레즈-브루클린 다저스의 경기를 메이저리그 사상 최초로 TV중계</p>
09.02	<p>■ 경성실업추계연맹전 경성실업연맹 주최로 9월 2일부터 경성부청, 경성전기, 식산은행, 철도국, 체신국 등 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9월 16일 결승전에서 철도국이 식산은행을 6-5로 꺾고 3승1패로 동률, 9월 17일 열린 우승 결정전에서 식산은행이 철도국을 7-0으로 격파하고 우승 ▲결승전=철도국 6-5 식산은행 ▲우승 결정전=식산은행 7-0 철도국 ◇개인상 ▲타격상=①오가와(小川 식산은행 .500) ②하리모토(橋本 식산은행 .500) ③이시하라(石原 철도국 .357) △식산은행=타하라(田原 좌익수), 다카다(高田 3루수), 하리모토(2루수), 오가와(포수), 도쿠시마(徳島 투수), 오노(大野 1루수), 이케다(池田 중견수), 다케다(武田 우익수), 가지와라(梶原 유격수)</p>	<p>■ 09.01 제2차 세계대전 발발 독일군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이 1945년 9월 2일 일본의 항복 문서 조인으로 종료</p>
09.16	<p>■ 평남중등학교추계리그 평남중등야구연맹 주최로 9월 16일부터 평남 도내 4개 중학 팀(평양1중, 평양2중, 평양상업, 송인상업)이 출전한 가운데 평양1중 운동장에서 개최, 평양1중이 3전 전승으로 우승이 확정된 가운데 10월 4일 열린 송인상업-평양상업 경기는 기록 불명 ◇종합 순위=①평양1중(3승) ②평양2중, 평양상업, 송인상업(이상 1승2패)</p>	
10.12	<p>■ 제13회 조선신궁중등학교대회 조선체육협회 주최로 10월 12일부터 전국에서 9개 중학 팀(경성사범, 경성상업, 동래중, 선린상업, 용산중, 인천상업, 평양1중, 함흥상업, 휘문중)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10월 17일 열린 결승전에서 인천상업이 용산중을 4-2로 꺾고 우승 ▲준결승전=함흥상업 7-8 용산중, 평양1중 0-1 인천상업 ▲결승전=인천상업 4-2 용산중</p>	
1940. 04.27	<p>■ 제10회 경성중등학교추계리그 경성중등야구연맹 주최로 4월 27일부터 경성부내 6개 중학 팀(경성사범, 경성상업, 선린상업, 성동중, 용산중, 중앙중)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6월 25일 열린 우승 결정전에서 성동중이 선린상업을 6-1로 물리치고 우승, 3승2패로 동률인 선린상업과 경성상업의 2위 결정전은 7월 16일 열려 선린상업이 13-1로 승리</p> <p>◇종합 순위=①성동중(4승1무) ②선린상업(3승2패) ③경성상업(3승2패) ④중앙중(2승1무2패) ⑤용산중(1승4패) ⑥경성사범(1승4패)</p>	
04.28	<p>■ 평남중등학교춘계리그</p> <p>평남중등야구연맹 주최로 4월 28일부터 평남 도내 6개 중학 팀(광성중, 송인상업, 진남포상공, 평양상업, 평양1중, 평양2중)이 출전한 가운데 평양1중 운동장에서 개최, 6월 9일 열린 최종일 경기에서 평양1중이 평양2중을 9-1로 격파하고 5전 전승으로 우승</p> <p>◇종합 순위=①평양1중(5승) ②평양상업(4승1패) ③송인상업(3승2패) ④진남포상공(2승3패) ⑤평양2중(1승4패) ⑥광성중(5패)</p>	<p>■ 아메리칸리그 개막전 노히트노런</p> <p>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4년짜리 투수 밥 펠러가 아메리칸리그 개막전에서 시카고 컵스를 노히트노런 끝에 1-0으로 물리쳐 사상 유일하게 개막전 No Hit No Run (노히트노런)을 기록</p>
05.04	<p>■ 경성실업춘계연맹전</p> <p>경성실업연맹 주최로 5월 4일부터 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6월 9일 끝난 경기에서 경성부청과 식산은행이 3승1패로 동률, 6월 12일 우승 결정전에서 경성부청이 식산은행을 8-1로 꺾고 4승1패로 우승</p> <p>◇종합 순위=①경성부청(4승1패) ②식산은(3승2패) ③철도, 체신국(이상 2승2패) ⑤경성전기(4패)</p>	
07.13	<p>■ 제13회 전조선실업연맹전겸 제14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조선예선전</p> <p>오사카(大阪) 마이니치(毎日)신문사 경성지국 주최로 7월 13일부터 3일간 전국 5개 지역 우승 팀인 전경성(중부), 원산철도(북조선), 전대구(남조선), 평양실업(서조선), 대전철도(호남)가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결승전에서 오윤환(우익수) 최중을(포수)이 출전한 전경성이 평양실업을 2-0으로 누르고 우승, 제14회 흑사자기쟁탈 전국도시대항대회 출전권 획득</p> <p>▲준결승전=평양실업 5-1 대전철도, 전경성 8-0 원산철도 ▲결승전=전경성 2-0 평양실업</p>	
07.20	<p>■ 제20회 전조선중등학교대회겸 제26회 전국중등우승대회 조선예선전</p> <p>아사히신문사 주최로 7월 20일부터 전국에서 28개 중학 팀이 5개 지역(호남, 남선, 서선, 중부, 북선)으로 나누어 1차 예선전을 개최, 동래중(남선), 광주농업(호남), 선린상업(중부), 함흥상업(북선), 평양1중(서선)이 우승, 7월 29일 열린 2차 예선 결승전에서 평양1중이 선린상업을 3-1로 제치고 우승</p> <p>▲준결승전=평양1중 10-2 동래중, 선린상업 4-0 함흥상업 ▲결승전=평양1중 3-1 선린상업</p>	 <p>제26회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 조선예선전에서 평양1중에 패해 준우승에 그친 선린상업 선수들. 이들은 10월 경성운동장에서 열린 조선신궁대회에서 경성사범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8.05	<p>■ 제14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전경성 첫 우승 일본 마이니치(毎日)신문사 주최로 8월 5일부터 고라쿠엔구장에서 열린 제14회 흑사기쟁탈 전국도시대항대회에 전경성 대표로 최종을(포수) 오윤환(우익수) 등이 일본인 선수들과 함께 출전,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뒤 2회전에서 대만대표 가오슝(高雄)을 4-3, 3회전에서 일본 도호쿠(東北)대표 센다이(仙台)철도를 8-1, 준결승전에서 오사카 나카야마(中山)제철을 5-1로 꺾고 결승전에 진출, 만주대표 다렌(大連)실업을 4-0으로 격파하고 대회 첫 우승</p> <p>▲준결승전=다렌실업 6-3 야와타, 전경성 5-1 오사카 ▲결승전=전경성 4-0 다렌실업</p> <p>△전경성=이에무라(家村 1루수), 마스다(増田 유격수), 가와세(川瀬 중견수), 카도무라(門村 투수겸 3루수), 오윤환(吳潤煥), 야시마(八島 이상 우익수), 사나다(真田), 호사카(保坂 이상 좌익수), 최종을(崔仲乙 포수), 다나카(田中), 스키다(次田 이상 2루수), 노무라(野村 3루수겸 투수)</p>	 <p>제14회 흑사자기쟁탈 전국도시대항대회 결승전에서 만주 다렌(大連)실업을 4-0으로 격파하고 우승을 차지한 전경성(全京城) 팀이 숙소 앞에서 흑사자기를 앞세우고 기념 촬영했다.</p>
08.12	<p>■ 제26회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 아사히신문사 주최로 8월 12일부터 고시엔구장에서 열린 제26회 전국중등학교우승대회(8월 12~19일)에 평양1중이 조선대표로 출전, 1회전을 부전 승으로 통과한 뒤 2회전에서 카이소우(海草)중에 1-12로 패해 탈락</p> <p>△평양1중=아사이(淺井 중견수), 하리카와(平川 유격수), 우에다(上田 2루수), 다케시마(竹島 포수), 우에노(上野 1루수), 쿠로즈(坂元 우익수), 니시자와(西澤 좌익수), 야마시타(山下 2루수), 이시이(石井 투수)</p>	<p>■ 08.12 동아일보, 조선일보 강제 폐간 8월 11일자 신문 발행을 끝으로 조선총독부가 강제 폐간</p>
09.15	<p>■ 평남중등학교추계리그 평남중등야구연맹 주최로 9월 15일부터 평남 도내 6개 중학 팀(광성중, 송인상업, 진남포상공, 평양상업, 평양1중, 평양2중)이 출전한 가운데 평양1중 운동장에서 개최, 10월 1일 열린 최종일 경기에서 평양1중이 평양상업을 9-0으로 격파하고 5전 전승으로 우승</p> <p>◇종합 순위=①평양1중(5승) ②평양상업(4승1패) ③진남포상공(3승2패) ④송인상업(2승3패) ⑤평양2중(1승4패) ⑥광성중(5패)</p>	
09.26	<p>■ 경성실업추계연맹전 경성실업연맹 주최로 9월 2일부터 5개 팀(경성부청, 경성전기, 식산은행, 철도국, 체신국)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9월 26일 철도국이 4승1패로 우승한 가운데 종료</p> <p>◇종합 순위=①철도국(4승1패) ②체신국(3승2패) ③식산은행(2승2패) ④경성부청, 경성전기(1승3패)</p>	<p>■ 신시내티, 21년 만에 월드시리즈 정복 내셔널리그 우승 팀 신시내티 레즈가 아메리카리그 우승 팀 뉴욕 양키스를 월드 시리즈에서 4승3패로 물리치고 21년 만에 정상 정복</p>
10.12	<p>■ 제14회 조선신궁중등학교대회 조선체육협회 주최로 10월 12일부터 전국에서 10개 중학 팀(경성사범, 경성상업, 대구상업, 선린상업, 성동</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중, 용산중, 인천상업, 중앙중, 평양1중, 함흥상업)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10월 17일 열린 결승전에서 선린상업이 경성사범을 8-3으로 꺾고 우승</p> <p>▲준결승전=용산중 0-2 선린상업, 경성사범 1-0 성동중 ▲결승전=선린상업 8-3 경성사범</p>	
1941. 05.10	<p>■ 경성실업춘계연맹전 경성실업연맹 주최로 5월 10일부터 6월 22일까지 경성전기, 경성부청, 식산은행, 철도국 등 4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식산은행이 8승1무로 우승</p> <p>◇종합 순위=①식산은행(8승1무) ②철도국(5승1무2패) ③경성전기 ④경성부청</p>	<p>■ 메이저리그 첫 헬멧 착용 브루클린 다저스의 피트 라이저와 피 위리지가 머리에 공을 맞은 뒤부터 다저스 선수들이 플라스틱 재질의 헬멧을 착용</p>
05.29	<p>■ 평남중등학교춘계리그 평남중등야구연맹 주최로 5월 29일부터 도내 4개 중학 팀(광성중, 송인상업, 평양상업, 평양1중)이 출전한 가운데 평양1중 운동장에서 개최, 6월 1일 열린 최종일 경기에서 평양1중이 평양상업을 9-5로 꺾고 3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해 대회 4연패 달성</p> <p>◇종합 순위=①평양1중(3승) ②송인상업(2승1패) ③평양상업(1승2패) ④광성중(3패)</p>	
06.07	<p>■ 제11회 경성중등학교춘계리그 경성중등야구연맹 주최로 6월 7일부터 경성부내 4개 중학 팀(경성상업, 선린상업, 용산중, 중앙중)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선린상업이 4승1패로 우승이 확정된 가운데 6월 26일 열린 순위(2, 3위) 결정전에서 용산중이 16회 연장전 끝에 중앙중을 2-1로 제치고 준우승</p> <p>◇종합 순위=①선린상업(4승1패) ②용산중(3승2패) ③중앙중(2승3패) ④경성상업(3패)</p>	<p>■ 06.02 루 게릭 사망 근육위축성 측색 경화증(일명 루게릭병)이 악화, 38세를 일기로 사망</p>
07.12	<p>■ 제14회 전조선실업연맹전겸 제15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조선예선전 마이니치(毎日)신문사 경성지국 주최로 7월 12일부터 전국 4개 지역 우승 팀인 전경성(중부), 부산철도(남조선), 철진철도(북조선), 평양실업(서조선) 등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7월 14일 열린 결승전에서 전경성이 평양실업을 11-6으로 꺾고 우승(본선은 태평양전쟁 발발로 중지)</p> <p>▲준결승전=전경성 17-0 부산철도, 평양실업 7-5 청진철도 ▲결승전=전경성 11-6 평양실업</p> <p>△전경성=아로즈(有津 우익수), 니시다(西田 2루수), 코노하라(木原 3루수겸 1루수), 하야가와(早川), 고노(河野 이상 포수), 히라야마(平山 유격수), 나카다(中田 3루수), 김옥희(金玉熙 좌익수), 나카무라(中村 중견수), 야마모토(山本 1루수), 야시마(八島 투수)</p>	<p>■ 07.17 조 디마지오 56경기 연속 안타 5월 15일부터 시작, 7월 17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경기에서 56경기 연속 안타 기록 달성</p>
10.24	<p>■ 제15회 조선신궁중등학교대회 (조선 마지막 공식대회)</p>	<p>■ 12.08 태평양전쟁 발발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태평양전쟁 발발</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조선체육협회 주최로 10월 24일부터 대구상업, 선린상업, 신의주상업, 용산중, 평양1중 등 5개 중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10월 26일 열린 최종 일 경기에서 용산중이 선린상업을 8-7로 누르고 우승</p> <p>▲준결승전=용산중 16-12 대구상업, 선린상업 2-0 평양1중 ▲결승전=용산중 8-7 선린상업</p> <p>△용산중=야마조에(山添 유격수), 미야시게(宮重 2루수), 우에마쓰(植松 좌익수), 코지마(小島 1루수) 마쓰오(松尾 중견수), 가노(狩野 좌익수), 와타나베(渡邊 투수), 기요미즈(清水 포수), 토다(藤田 3루수), 타케이(建井 투수겸 2루수)</p>	
1942. 07.11	<p>■ 제15회 전조선실업연맹전경 제16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조선예선전</p> <p>마이니치(毎日)신문사 경성지국 주최로 7월 11일부터 조선 3개 지역 우승 팀인 부산철도(남조선), 전경성(중앙) 겸이포 닛데츠(日鐵 서조선) 등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7월 13일 열린 결승전에서 전경성이 닛데츠를 7-0으로 격파하고 우승, 전일본도시대항대회 출전권 획득</p> <p>▲1회전=부산철도 0-6 전경성 ▲결승전=전경성 7-0 겸이포 닛데츠(日鐵)</p> <p>△전경성=가와가미(川上 좌익수겸 우익수), 시마바라(島原 2루수), 사나다(眞田 3루수겸 좌익수), 다무라(田村 중견수), 우치코(内校 1루수), 이영민(李榮敏 우익수), 마스다(増田 3루수), 오가와(小川 포수), 야스다(保田 유격수), 나카무라(中村), 아베(阿部 이상 투수)</p>	<p>■02. 조선체육협회 해체</p> <p>조선총독부가 관제 조선체육협회를 해체하고 조선체육진흥회와 체육 활동을 통제</p>
08.07	<p>■ 제16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전경성 2연패</p> <p>마이니치신문사 주최로 8월 1일부터 열린 제16회 측사자기쟁탈 전국도시대항대회에 전 대회(40년) 우승 팀의 자격으로 자동 출전, 8월 7일 끝난 결승전에서 전경성이 오사카(大阪) 다이도(大同)제강을 12-6으로 격파하고 대회 2연패, 이후 태평양전쟁 격화로 대회 무기한 중지</p> <p>▲준결승전=전경성 11-6 야와타(八幡)제철, 오사카 다이도(大同)제강 6-5 다렌(大連)실업 ▲결승전=전경성 12-6 오사카 다이도제강</p> <p>△전경성=아로즈(有津 우익수), 니시다(西田 2루수), 기하라(木原 3루수겸 1루수), 하야카와(早川), 코노(河野 이상 포수), 히라야마(平山 유격수), 야마나카(山中 투수겸 1루수), 나카가와(中川 3루수), 김옥희(金玉熙 좌익수), 다무라(田村 중견수), 야마모토(山本 1루수), 야시마(八島 투수)</p>	 <p>전경성이 도시대항대회에서 우승후 차지한 흑사자기. 현해탄을 건너온 이 흑사자기는 경성전기 사장실에 보관중 8.15해방을 맞아 일본인들이 후퇴할 때 경성 팀의 주장 아키야마(秋山 光夫)가 훔쳐 몸에 감고 탈출, 주최 측인 마이니치신문사에 전달해 현재 일본 야구박물관에서 보관 전시중</p>
1943. 01.00	<p>■ 스포츠 활동 정지</p> <p>태평양전쟁 격화로 국내 모든 스포츠를 '전투훈련용'으로 대체,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을 때까지 프로야구를 제외한 야구활동 중지</p>	<p>■05.22 이팔룡, No Hit No Run</p> <p>요미우리 투수 이팔룡(李八龍=일본명 후지모토 히데오)이 나고야전에서 일본 프로야구 사상 첫 노히트 노런(No Hit No Run) 기록</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1945. 08.15	■ 8.15 해방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모든 스포츠 활동 재개	■ 08.14 일본 천황 무조건 항복 일본 천황 히로히토(迪官裕仁)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항복 연설
09.05	■ 조선체육동지회 결성 9월 5일 체육인들이 조선체육회 재건을 위한 ‘조선체육동지회’를 결성, 서울 종로 기독교청년회(YMCA)에 사무소 개소, 9월말 을지로 6가 약학전문 옆 전 군사원호처 자리로 이전한 뒤 첫 행사로 미군과의 친선 경기 추진 △위원장=이상백(李相佰) △총무위원=장권(張權), 이영민(李榮敏), 이종구(李鍾九), 권태하(權泰夏), 정상희(鄭商熙), 정상윤(丁相允), 임동수(林東洙) △평의원=김규면(金圭冕), 이길용(李吉用), 조동식(趙東植), 안동원(安東源), 이춘호(李春昊), 이운용(李潤鎔), 홍성하(洪性夏), 이세정(李世禎), 조병학(趙炳學), 김동철(金東轍), 서상국(徐相國), 이병학(李丙學), 서상천(徐相天), 임병혁(林炳赫), 김기도(金基道), 이여성(李如星), 손효준(孫孝俊), 김영술(金永述), 성의경(成義慶) △상무간사=염은현(廉殷鉉), 김관우(金寬羽) △간사=김화집(金和集), 김은배(金恩培), 조인상(趙寅相), 이윤용(李尹鎔), 최해룡(崔海龍), 안중희(安重熙), 안영식(安榮植), 김영식(金永奭), 신기원(辛基源), 손기정(孫基禎) △사무국장=최감(崔橄) △총무부=김용구(金龍九), 장일강(張日剛), 유해봉(柳海鵬), 김재홍(金在弘) △재무부=박영진(朴榮鎭), 민용규(閔鏞奎), 손희준(孫禧俊), 이상훈(李相勛) △기획부=안중희, 조인상, 김복향(金福鄉), 손광식(孫光植) △서무부=이순재(李櫟宰), 권철업(權喆業), 이석환(李錫漢), 조동환(曹東煥) △연락부=진번(秦藩), 유장춘(柳長春), 임창식(林暢植), 이혜택(李惠澤)	■ 09.07 맥아더 군정 발표 태평양미육군총사령부(맥아더사령부)가 남한에 군정(軍政)을 발표 ■ 09.09 미군정청 설치 서울에 조선 주재 미육군사령부 군정청 약칭 ‘미군정청(USAMGLK)’ 설치
10.14	■ 전배재-전휘문 올스타대항전 자유신문사 주최로 10월 14일 오후 1시 경성운동장에서 해방 후 처음으로 전배재-전휘문 올스타대항전을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전배재가 10-7로 첫 승리 ▲ 1차전(10월 14일)=전배재 10-7 전휘문 △전배재=감독 이건춘(李健春) 및 박점도(朴點道 2루수), 나조화(羅朝華 우익수), 이영민(李榮敏 중견수), 유정식(柳定植 좌익수) 오윤환(吳潤煥 투수), 박상규(朴象圭 유격수), 조점룡(趙點龍 포수), 박장환(朴章煥 3루수), 함용화(咸龍華 1루수) △전휘문=남원유(南遠裕) 및 손희준(유격수), 김정식(金貞植 1루수), 최중을(崔仲乙 포수), 유복룡(劉福龍 투수), 이신득(李辛得 중견수), 장석화(張錫華 3루수), 강영석(姜永錫 2루수), 정인환(鄭仁煥 좌익수), 이경구(李鯨九 우익수)	■ 10.05 자유신문 창간 정인익(鄭寅翼)을 중심으로 정진석(鄭鎭石), 이정순(李貞淳), 배은수(裴恩受), 금철(琴澈), 마태영(馬泰榮), 이원영(李元榮) 등 진보주의적 사상을 가진 20여 명의 젊은 기자들이 자유신문을 창간. ■ 10.16 이승만(李承晩) 박사 환국 10월 4일 미 군용기 편으로 워싱턴을 출발, 샌프란시스코, 하와이, 괌을 거쳐 10월 12일 일본에 도착, 미군정 장관 존 하지 중장 및 더글러스 맥아더 사령관과 회담을 가진 뒤 10월 16일 귀국
10.14	■ 조-미친선대회(조선올스타-미101부대대항전) 조선체육회 주최로 10월 14일 오후 4시 전배재-전휘문 올스타전이 끝난 뒤를 이어 조선군과 미제101부대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의 친선경기를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조선군이 7-5로 승리하자 미군의 요청으로 10월 17일 2차전을 열었으나 조선군이 4-3으로 승리해 2전 전승으로 우승</p> <p>▲1차전(10월 14일)=조선군 7-5 미제101부대 ▲2차전(10월 17일)=조선군 4-3 미주둔군</p> <p>△조선군=박점도(2루수), 유복룡(중견수), 이영민(투수), 유완식(劉完植), 최중을(이상 포수), 오윤환(3루수 겸 투수), 이신득, 나조화(이상 우익수), 장석화, 함용화(이상 1루수), 정인환(좌익수), 손효준(孫孝俊) 유격수 겸 좌익수, 박상규(유격수)</p>	
10.27	<p>■ 제26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자유해방 경축 전국종합경기대회' 라는 명칭이 붙은 제26회 전국체육대회가 10월 27일부터 5일간 경성운동장에서 육상, 축구, 농구, 야구, 사이클, 탁구 등 10개 종목에 4,100명이 출전한 가운데 개최, 야구경기는 일반부에 대구, 전인천, 전취문, 경성전기, 경성, 춘천, 대전, 군산, 계림구락부, 한영 등 10개 팀이 출전, 결승전에서 계림구락부가 대전을 16-3으로 격파하고 우승</p> <p>▲준결승전=계림 6-3 인천, 대전 10-4 군산 ▲결승전=계림 16-3 대전</p> <p>△계림구락부=감독 김영석 및 정헌모(鄭獻模 2루수), 유복룡(투수), 최중을(포수), 장석화(3루수 겸 투수), 손희준, 김봉강(金鳳綱 이상 유격수), 조점룡, 박장환(이상 1루수), 노정호(우익수), 박점도, 정태용(鄭泰容), 박수돈(朴壽敦 이상 중견수), 이영민, 박희영(朴熙英 이상 좌익수)</p>	 <p>자유해방 경축 전국종합경기대회(제26회 전국체육대회)에 기수로 태극기를 들고 입장한 손기정이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고 있다.</p> <p>■ 12.24 자유신문 4대회 창설 12월 24일 자유신문사 편집위원장 이정순과 정인익, 금철, 이영민을 만나 자유신문 주최 월계기 전국도시대항전(6월), 맹호기 대학야구선수권(7월), 조·미친선대회(7월), 청룡기 중등야구선수권(8월) 개최 합의</p>
11.03	<p>■ 조·미(朝·美)환영대회, 미24군단 승리 조선야구협회 주최로 11월 3일 미24군단-조선선발군 대항경기를 경성운동장에서 무료로 개최</p> <p>▲미24군단 14-2 조선군</p> <p>△조선선발군=박점도(2루수), 장석화(3루수), 나조화(우익수), 박상규(유격수), 손희준(좌익수), 유복룡(중견수), 함용화(1루수), 최중을(포수), 오윤환(투수)</p>	
11.26	<p>■ 조선체육회 부활 11월 26일 YMCA 체육관에서 제1회 평의회를 개최, 체육회 헌장을 제정하고 임원을 다음과 같이 선임</p> <p>△회장=여운형(呂運亨) △부회장=유억겸(俞億兼) 신국권(申國權) △이사장=이병학 △상무이사=이길용, 장일홍, 이종구 △이사=김영술, 이상백, 조영하, 조병학, 김정학, 이영민, 이운용, 김은배</p>	<p>■ 11.23 김구(金九) 환국 임시정부 부주석 김규식(金奎植)과 김구가 개인 자격으로 귀국</p> <p>■ 12.04 연·보 OB 축구전 해방 후 최초로 연희전문과 보성전문이 경성운동장에서 축구대항전 개최</p>
1946. 01.17	<p>■ 자유신문사 신년 사업 4대 야구대회 발표 자유신문사는 신년 사업으로 3개 야구대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확정 발표 ①월계기쟁탈 전국도시대항야구대회(8월 중순) ②맹호기쟁탈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7월 하순) ③청룡기쟁탈 전국중등학교야구선수권대회(8월 하순) ④조·미친선대회(8월 중순)</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2.25	<p>■ 서울야구구락부 결성 △고문=이길용 △부장=이태흥(李泰興) △감독=한중흙(韓種欽), 한진옥(韓振玉) △코치=함용화, 정인환 △주장=박지완(朴智完) △주무=임두호(任斗鎬), 원귀성 △선수=홍병창(洪丙昌), 이희경, 이인영(李仁榮), 안봉식, 안강희(安康熙), 조병주(曹秉周), 고원순(高元淳), 유득현(劉得鉉), 박상규</p>	<p>■ 02.09 조선소년체육회 창립 ▲회장=명제세(明濟世) ▲부회장=이영호(李瑩浩), 박기서(朴基錫) ▲이사장=권병연(權秉淵)</p>
03.18	<p>■ 조선야구협회 창립 안국동에 있는 식산은행 구락부에서 야구계 인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총회를 열고 임원을 선출한 뒤 사업으로 ①지도회(4월) 도시대항대회(6월 1~3일) ③각 지방 지도회(6월) ④중등야구대회(7월) ⑤지도회 개최(9월) ⑥외래야구 팀 초청 및 종합선수권대회(예정) 개최를 확정 △고문=박석윤(朴錫胤), 유억겸, 이범승(李範昇), 민규식(閔圭植), 허성(許城) △회장=사상국(徐相國) △부회장=이영민, 함용화 △이사장=이순재(李櫛宰) △상무이사=오윤환, 박장환 △이사=김영석(金永奭), 손희준, 최중을, 김태호(金泰浩), 민용규(閔鏞圭), 이경구, 김수영(金壽永), 김정식</p>	 <p>서상국 조선야구협회 초대 회장</p>
04.13	<p>■ 야구실전지도회 개최 조선야구협회 주최로 4월 13~20일까지 경성운동장에서 중학, 대학, 일반인을 대상으로 야구의 이론과 실기를 지도 △강사=회장 서상국, 부회장 이영민, 함용화 및 이시들</p>	
04.28	<p>■ 고 김정식추도대회 휘문구락부 주최로 3월 14일 타계한 휘문고보 출신 명포수 김정식(金貞植) 추도야구대회 개최, 이 대회 수입금(미상) 전액은 유가족에게 전달 ▲중학부=휘문중학 5-4 배재중학 ▲일반부=계림구락부 6-4 인천군</p>	
05.13	<p>■ 조선학생야구연맹 발족 오후 3시 약학전문(현 서울대 약대)에서 창립 총회를 갖고 회장에 이원용(李源容)을 선임</p>	
05.17	<p>■ 제1회 전국4도시대항대회, 경성군 우승 자유신문사 주최로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경성, 부산, 대구, 인천 등 4개 도시에서 대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경성군이 3전 전승으로 우승 ◇종합 성적=①경성군(3승) ②대구군(2승1패) ③부산군(1승2패) ④인천군(3패) △경성군=박점도(유격수겸 1루수), 박장환(1루수), 손희준(3루수겸 유격수), 이영민(중견수), 오윤환(1루수겸 투수및 우익수), 김일배(金日培 포수겸 2루수), 장석화(3루수), 노정호(盧禎鎬 좌익수), 김봉강(金鳳鋼</p>	 <p>해방 직후 야구경기에서 심판을 맡은 한국 야구의 개척자들. 뒷줄 왼쪽부터 이신득, 윤재준, 최인철, 노정호, 오윤환, 앞줄 왼쪽부터 김태호, 이규백</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2루수, 박지완(朴智完), 정인환(이상 우익수), 유복룡(중견수), 정성룡(鄭成鎔 투수), 최종을(포수) △대구군=배영암(裴榮岩 중견수), 서진영(徐鎭英 유격수), 고광적(高光籍 투수), 윤재준(尹在浚 1루수), 이종대(李鍾大 포수), 허곤(許琨 좌익수), 박춘득(朴春得 우익수), 편순윤(片順潤 2루수), 김보상(金輔相 3루수) 최세원(崔世元 우익수), 임형관(任亨寬 2루수) △부산군=이상문(李尙文 2루수), 김종만(金鍾萬 중견수), 장종기(張鍾基 투수), 박인홍(朴燐泓 좌익수), 김필수(金泌守 3루수), 박동섭(朴東燮), 조성훈(趙聖勳) 박규담(朴圭淡 이상 포수), 김복만(金福萬), 이정구(李定九 이상 우익수), 김학선(金學先), 김용진(金龍珍 이상 1루수), 박상화(朴祥和 유격수) △인천군=장영식(張榮植 좌익수), 김선웅(金善雄 2루수), 박현덕(朴賢德 우익수), 박근식(朴根植 3루수), 심연택(沈連澤 중견수), 유완식(투수), 유인식(劉仁植 1루수) 임복만(任福萬), 최문혁(崔文赫 이상 포수), 이연구(李淵龜 유격수)</p>	 <p>제1회 4도시대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경성군. 오른쪽이 단장 선우인서, 그 옆 우승기를 들고 있는 이가 노정호</p> 
05.20	<p>■ 조선학생야구연맹 창립 기념 춘계연맹전 조선학생야구연맹이 창립 기념으로 5월 20일부터 중학 11개 팀(경기공, 경기, 경동, 경북, 경성, 배재, 선린상, 영창, 조선전기, 중앙, 휘문중), 전문학교 5개 팀(건국기전, 경제전문, 공업전문, 국학전문, 약학전문)이 출전한 가운데 휘문중과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5월 28일 끝난 결승전에서 휘문중(중학부)과 약학전문(전문부)이 각각 우승 ▲중학 1회전=휘문중 4-3 중앙중, 경북중 17-10 영창중, 경기중 23-10 경동중, 경기공업 13-0 조선전기 ▲동 2회전=경기공업 15-14 선린상업, 경북중 13-3 경성중(기권), 휘문중 18-9 배재중 ▲동 준결승전=경기중 13-11 경북중, 휘문중 15-12 경기공업 ▲동 결승전=휘문중 16-4 경기중 ▲전문학교 1회전=국학전문 27-2 공업전문 ▲동 2회전=약학전문 12-11 건국기술전문, 국학전문 15-9 경제전문 ▲동 결승전=약학전문 13-9 국학전문</p>	<p>휘문중 운동장에서 열린 조선학생야구연맹 창립 기념 춘계중등연맹전 개막식 장면</p>  <p>춘계중등연맹전 결승전에서 라이벌 경기중을 16-4로 격파하고 우승, 본선 진출권을 획득한 휘문중 선수들(이상 휘문중 장영준씨 제공)</p>
05.30	<p>■ 중앙실업주식회사 야구부 창설 △감독겸 선수=오윤환 △매니저=유용희(柳容熙) △주장=김명배(金明培) △선수=이경서(李景瑞), 이규남(李圭男), 장기석(張奇石), 김일배, 김영규(金泳圭), 김명배, 박지완, 정만화(鄭萬和), 정인환, 이한용(李漢鏞), 홍병창(洪丙昌), 한인호(韓仁鎬), 김한룡(金漢龍), 이삼봉(李三奉), 나조화, 조병주</p>	
06.07	<p>■ 제1회 월계기쟁탈 전국도시대항대회 자유신문사 주최 조선야구협회 주관으로 6월 7일부터 경성,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전주 군산, 춘천, 개성, 마산 등 11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6월 12일 결승전에서 대구군이 경성군을</p>	<p>제1회 도시대항대회에서 서울군을 8-1로 꺾고 우승을 차지한 대구군 선수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8-1로 격파하고 우승 ▲준결승전=대구군 8-7 인천군, 경성군 4-0 부산군 ▲결승전=대구군 8-1 경성군 ◇타격 성적=①최수현(崔洙賢 대전 .500) ②윤재준(대구 .417) ③편순윤(대구), 유완식(인천), 백용득(白龍得 부산 이상 .400) ⑥최중을(경성), 오판수(吳判洙 대전), 이성기(李性基 마산 이상 .357) ⑨장석화(경성), 김보상(대구 이상 .333) △대구군=배영암(중견수겸 투수), 편순윤(2루수), 이종대(포수), 윤재준(1루수), 허곤(좌익수), 고광적(투수겸 우익수), 박춘득(중견수), 임형관(유격수), 김보상(3루수) △경성군=노정호(우익수), 김일배(2루수), 최중을(포수), 오윤환(투수), 장석화(3루수), 이신득(우익수) 안봉식(安奉植 포수), 유복룡(중견수), 조점룡(1루수), 정헌모(鄭獻模 2루수), 홍병창(좌익수), 김봉강(유격수)</p>	 <p>제1회 도시대항대회에 출전, 준결승전에서 대구군에 1점 차로 패해 탈락한 인천군 선수들.</p>
06.29	<p>■ 조선연식야구협회 창립 준비 총회 6월 29일 오후 3시 봉래정 조선운동 경기지점 회의실에서 창립 준비 총회를 열고 임원을 선임 △회장=보류 △이사장=이귀남(李貴男) △이사=박지완, 고원순, 허성덕(許成德), 이규동(李揆東), 이응준(李應俊), 안봉식</p>	
07.04	<p>■ 귀환군 환영 친선대회 자유신문사 주최 조선야구협회 주관으로 7월 4일 경성운동장에서 일본과 만주 등지에서 귀국한 야구인 환영 대회를 개최, 경성군이 귀환군을 7-0으로 격파하고 우승 △경성군=노정호(좌익수), 손희준(1루수), 오윤환(투수겸 유격수), 홍병창(洪丙昌 중견수), 장석화(유격수겸 투수), 안봉식(포수), 정인환(우익수), 박지완(3루수), 정헌모(2루수) △귀환군=김황룡(金黃龍 투수겸 중견수), 함종현(咸宗顯 좌익수), 박현덕(중견수겸 투수), 이정균(李正均 1루수), 김현수(金現洙 2루수), 김병준(金秉俊 좌익수), 김종철(金鍾喆 3루수), 김정연(金正演 유격수), 박근식(우익수겸 2루수), 이귀남(포수), 조점룡(1루수겸 포수), 이준용(李駿鎔 우익수)</p>	
07.05	<p>■ 한성실업야구연맹 창립 경성전기, 철도국, 체신부, 재우(財友)체육회, 금융조합, 서울구락부, 계림구락부, 삼국(三國)석탄, 중앙실업 등 9개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한성실업야구연맹을 조직하고 임원을 선출 ▲회장=(보류) ▲부회장=이길용, 함용화 ▲이사장=김상기(金相琦) ▲이사=김용배(金龍培), 최중을, 이신득, 이태흥, 한종흠, 석효징(石孝澄), 원소아(元素阿), 오영전(吳英田)</p>	<p>■ 07.09 윌리엄스 올스타전서 맹타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서 아메리칸리그의 테드 윌리엄스가 4타수 4안타(2홈런 포함)로 5타점을 뽑아 내셔널리그를 9-7로 물리치고 우승</p>
07.12	<p>■ 부·마(釜·馬)야구대항전 마산야구협회 주최로 7월 12, 13일 이틀간 이재동포</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구호금 모금을 위해 부산과 마산에서 1, 2차전을 개최, 전부산과 전마산이 1승1패로 무승부 ▲1차전(7월 12일 부산)=전부산 2-1 전마산(연장 12회) ▲2차전(7월 13일 마산)=전마산 7-5 전부산(연장 12회)</p>	
07.16	<p>■ 조선연식야구협회 창립 기념 대회 조선연식야구협회 주최로 7월 16일 오후 2시30분부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7월 18일 열린 결승전에서 명옥(鳴屋)군이 조선운수를 3-2로 제치고 우승 △명옥(鳴屋)군=이득수(李得洙 좌익수), 양인환(梁寅煥 2루수), 전장식(全張植 중견수), 김상기(金相基 유격수), 김종수(金鍾秀 1루수), 유호창(柳浩昌 투수), 윤민(尹珉 포수), 이수송(李壽松 3루수), 장일동(張一童 우익수) △조선운수=송영규(宋榮奎 2루수), 노승균(盧承均 유격수), 최이재(崔利載 우익수), 변우영(邊祐泳 투수), 조응순(趙應淳 좌익수), 우성인(禹成麟 3루수), 유흥구(柳興俱 포수), 김원경(金元慶 중견수), 김익수(金益洙 1루수)</p>	<p>■ 07.15 올림픽대책위원회 설치 일본 치하에서 올림픽에 출전했던 인사들이 모여 '올림픽 참가 준비위원회'를 발족한 뒤 조선체육회에 올림픽대책위원회 설치 ▲위원장=유억겸 ▲부위원장=전경무 이 상백 ▲상무위원=이병학 외 11명</p>
07.20	<p>■ 제1회 맹호기쟁탈 전국대학·전문선수권대회 자유신문사 주최 조선야구협회 주관으로 7월 20일부터 건국기술전문, 약학전문, 경제전문, 연희전문, 국학전문 등 5개 전문학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7월 22일 열린 결승전에서 건국기술전문학교(한양공대 전신)가 국학전문을 8-6으로 제치고 우승 ▲준결승전=건국기전 12-6 경제전문, 국학전문 13-4 연희전문 ▲결승전=건국기전 8-6 국학전문 ◇개인상 △타격상=①서대석(徐大錫 약학전문 5타수 2안타) ②김세진(金世珍 국학전문 11타수 4안타) ③최상호(崔相琥 국학전문 10타수 3안타) ④李河京 국학전문 8타수 2안타 ⑤이규태(李奎泰 건국전문 8타수 2안타) ⑥안철수(安喆洙 약학전문 5타수 1안타) △건국전문=이희경(李熙敬 2루수), 송옥순(宋鈺淳 중견수), 이규태(1루수), 정동렬(鄭東烈 유격수), 임창환(任昌煥), 김석규(金錫奎 이상 우익수), 박영호(朴榮浩 3루수), 원귀성(元貴成 포수), 정대일(鄭大一 좌익수), 신창근(申昌根 투수) △국학전문=최현(崔鉉), 이상준(李相俊 이상 2루수) 정기택(鄭箕澤 우익수), 김은식(金殷植 중견수), 김세진(투수), 나정균(羅禎均 유격수), 최상호(3루수) 이희태(李喜泰 포수), 홍성근(洪成根), 피상호(皮相鎬 이상 좌익수), 이하경(1루수)</p>	
07.21	<p>■ 조선연식야구협회 정식 발족 6월 29일 창립 총회에서 보류한 회장단과 이사를 추가로 선임한 뒤 정식 출범 △회장=최선익(崔善益) △부회장=독고선(獨孤璇) △이사=이삼봉(李三峰), 이희경(李熙敬), 맹인호(孟仁鎬), 김영목(金泳沐)</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7.25	<p>■ 한성실업연맹 창립 기념 춘계리그 한성실업야구연맹 주최로 7월 25일부터 군정청, 체신국, 서울구락부, 계림구락부, 재우체육회, 철도국, 중앙실업 등 7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7월 27일 열린 결승전에서 중앙실업이 계림구락부를 7-2로 꺾고 우승</p> <p>▲준결승전=중앙실업 4-0 철도국, 계림구락부 5-2 서울구락부 ▲결승전=중앙실업 7-2 계림구락부</p> <p>△중앙실업=감독 오윤환 및 나조화(우익수), 정인환(좌익수), 김일배(1루수), 흥병창(중견수), 오윤환(투수), 박지완(3루수), 정만화(유격수), 이규남(李圭男 포수), 김명배(金明培 2루수)</p> <p>△계림구락부=감독 김영석(金永奭) 및 노정호(좌익수), 정현모(3루수), 이영민(포수), 손희준(유격수), 유복룡(투수), 김봉강(2루수), 박장환(1루수), 정태용(鄭泰容 △중견수), 박수돈(朴壽敦 우익수)</p> <p>△군정청 체신국=감독 함용화, 부감독 이신득 및 선수=장석화, 배용준(裴用俊), 황연수(黃延秀), 김경복, 강진국(姜鎭國), 김경삼(金慶三), 김정필(金正弼), 정충진(鄭充鎭), 민계성(閔桂成), 노기영(盧基永), 김윤태(金允泰), 조동완(趙東完)</p> <p>△서울구락부=감독 이태흥(李泰興) 및 고원순, 임두호, 김황룡(金黃龍 이상 투수), 안봉식(포수), 한종흠, 한진옥(이상 1루수), 김성원(金性元 2루수), 김경한(金慶漢), 박근식(이상 3루수), 이길룡(李吉龍 유격수), 흥병창, 최성기(崔盛基 이상 좌익수), 유득현, 이귀복(李貴福 이상 중견수), 김정한(金正漢), 최성조(崔聖祚 이상 우익수)</p> <p>△철도국=감독 석효징(石孝澄) 및 김동진(金東珍), 박병익(朴炳翼 이상 투수), 지영우, 문윤구(文潤龜 이상 포수), 고상문(高相文 1루수), 주수찬(朱壽燦 2루수), 최명돈(崔明墩), 안경모(安慶模 이상 3루수), 심계택(沈啓澤), 최종민(崔鍾敏 이상 유격수), 양영환(梁榮煥 우익수), 이동규(李東珪), 이병위(李丙緯 이상 중견수), 장근식(張根植), 정재선(鄭在善), 강무회(姜武會), 오대균(吳大均 이상 우익수)</p> <p>△재우체육회=감독 원소아(元素阿) 및 김덕수(투수) 이원호(李源鎬 포수), 김완득(金完得 1루수), 김명동(金明東 2루수), 이규성(李揆聖 3루수), 홍승일(洪承一 유격수), 함동열(咸東悅 좌익수), 최원기(崔元基 중견수), 김진옥(金振玉 우익수), 서재익(徐載翼), 문영택(文永澤 이상 후보)</p>	 <p>주한미주둔군과의 친선경기에 앞서 미8군 사령관 밴플리트 장군이 전조선군 주장 노정호에게 대한체육회 이기봉 회장은 미군 팀 주장에게 각각 꽃다발을 건네고 있다.</p>  <p>조-미친선대회에서 시구를 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이기봉 회장. 그 옆에서 이신득 주심이 지켜보고 있다.</p>
08.16	<p>■ 8.15 경축 조-미친선대회 자유신문사 주최로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미주둔군(24군단, 31부대, 308부대)과 조선군이 경성운동장에서 3차전을 개최, 조선군이 2승1패로 우승</p> <p>▲1차전=전조선군 3-4 미24군단</p> <p>△전조선군=배성수(裴聖壽 중견수), 손희준(1루수), 김영조(유격수), 이영민(좌익수), 흥병창, 이신득, 한경</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열(韓璟悅), 노정호(이상 우익수), 오윤환(3루수겸 2루수), 장석화(3루수), 박점도(2루수), 유완식(포수겸 투수), 최종을(포수), 장종기(투수), 윤재준(대타)</p> <p>▲2차전=전조선군 3-1 미31부대 △전조선군=배성수(중견수), 손희준(유격수), 김영조(3루수), 이영민(좌익수겸 우익수), 오윤환(2루수) 윤재준(1루수), 장종기(투수), 이신득(우익수), 유완식(투수겸 포수), 노정호(좌익수), 최종을(포수)</p> <p>▲3차전=전조선군 10-6 미308부대 △전조선군=배성수(중견수), 손희준(유격수겸 1루수) 김영조(3루수겸 유격수), 이영민(우익수), 오윤환(2루수), 윤재준, 조점룡(이상 1루수), 최종을(포수), 장석화(3루수), 유완식(투수겸 포수), 노정호, 한경열(이상 좌익수)</p>	 <p>조·미친선대회에서 조선군에 4-3으로 이긴 미제24군단 정훈 장교 잉거프리센 소령이 3점을 잃은 대가로 자유신문사 이정순(李貞淳) 국장에게 야구볼 30다스를 제1회 청룡기 중등선수권대회 용으로 건네고 있다. 자유신문사는 이 볼을 담보로 경비를 조달 대회를 치렀다.</p>
08.29	<p>■ 전국도시대항연식대회 조선연식야구협회 주최로 8월 29일부터 3일간 지역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토너먼트로 개최, 8월 31일 열린 결승전에서 인천이 부산을 1-0으로 제치고 우승</p> <p>▲준결승전=인천 11-0 연안, 부산 4-2 수원 ▲결승전=인천 1-0 부산</p>	
09.11	<p>■ 제1회 청룡기쟁탈 전국중등선수권대회 자유신문사 주최로 9월 11일부터 24개 중학 팀(휘문, 개성, 경성, 광주서, 인천상업, 배재, 대전, 전주북, 선린상, 경동, 경남, 경기공, 부산상, 영창, 대전공, 경북, 양정, 인천공, 동산, 광주사범, 춘천, 여도, 춘천농, 경기중)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9월 18일 끝난 결승전에서 부산상업중이 경남중을 8-6으로 누르고 첫 우승</p> <p>▲준결승전=부산상업 11-6 경남중 12-4 휘문중 ▲결승전=부산상업 8-6 경남중 △부산상업=감독 김주연(金注淵) 및 강호경(姜鎬敬 3루수), 박상래(朴尙來 1루수), 조성제(曹聖濟 포수), 김상대(金相大 투수), 장상원(張祥遠 포수겸 좌, 우익수 및 중견수), 이종관(李鍾官), 장준식(張準植 이상 2루수), 민영주(閔永珠 유격수), 손두수(孫斗守 우익수겸 좌익수), 김태철(金泰哲 우익수), 배상대(裴相大 우익수), 차민규(車敏奎 좌익수겸 중견수)</p> <p>△경남중=감독 장종기(張鐘基) 및 정상규(鄭相奎 2루수), 장태영(張泰英 유격수), 황기대(黃基大 중견수), 조성일(趙性一 3루수), 정태수(鄭泰守 1루수), 정기철(鄭基徹 좌익수), 박정표(朴丁杓 우익수), 허종만(許宗萬), 송주창(宋柱昌 이상 포수), 장갑영(張甲英 투수)</p>	 <p>제1회 청룡기쟁탈 전국중등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부산상업(현 개성고) 선수들. 뒷줄 왼쪽 두번째가 부산상업 마운드를 지킨 김상대(金相大) 투수.</p>
09.12	<p>■ 연속 탈삼진(12) 신기록 제1회 전국중등야구선수권대회 2일째 경기, 경남고-경성공업 경기에서 경남고 투수 장갑영이 2회부터 5회까지 12타자를 상대로 12연속 탈삼진 기록</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9.13	<p>■ 광복 후 첫 No Hit No Run 기록 제1회 전국중등야구선수권대회 3일째 경기, 광주서중-인천상업전에서 광주서중 투수 김성중(金成中)이 인천상업을 상대로 광복 후 첫 노히트노런(No Hit No Run)을 기록</p>	
09.15	<p>■ 라디오 실황 중계 방송 제1회 전국중등야구선수권대회 준준결승전 경기중-동산중 경기를 경성방송 윤길구(尹吉九) 아나운서가 광복 후 최초로 라디오를 통해 중계방송</p>	
09.19	<p>■ 식산은행(한국산업은행 전신) 야구부 부활 9월 19일 이영민이 식산은행 감독을 맡아 일제 말엽 해산된 식산은행 야구부를 재건, 노정호(盧禎鎬) 주장 겸 좌익수, 김영조(金永祚) 포수, 백유현(白有鉉) 2루수, 유복룡(劉福龍) 중견수, 최정수(崔晶洙) 우익수 구학림(具學林) 유격수, 김흥수(金興洙) 3루수, 이영준(李榮俊) 1루수, 심재홍(沈在鴻) 포수, 김관수(金觀洙) 3루수 등과 정식 출범</p>	 <p>제1회 전국중등야구선수권대회에서 광복 후 최초로 라디오 중계방송을 하고 있는 윤길구(尹吉九 가운데) 아나운서</p>
09.21	<p>■ 4구락부연맹전 부활 동아일보사 주최로 9월 21일부터 2일간 경성운동장에서 휘문, 배재, 중앙, 경신중학의 올스타들이 출전하는 4구락부연맹전을 해방 후 최초로 개최, 경신이 학교 사정으로 불참한 가운데 배재구락부가 3전 전승으로 우승 ◇종합 순위=①배재(3전 3승) ②휘문(3전 1승) ③중앙(3전 3패) ▲배재 8-7 휘문 ▲중앙 7-8 휘문 ▲배재 8-2 중앙 ▲휘문 2-3 배재 △배재구락부=백기주(유격수), 김세환(金世煥) 우익수, 나조화(중견수겸 좌익수), 김일배(3루수, 이영민(유격수겸 포수), 오윤환(투수), 함용화(1루수, 배재수(裵在錫), 조한봉(趙漢鵬) 이상 2루수, 김인식(金仁植), 장귀남(張貴男) 이상 좌익수, 조점룡(1루수겸 포수) △중앙구락부=심영보(沈英輔) 1루수, 장재관(張在寬) 유격수, 전창일(全昌日) 좌익수, 지영우(池榮宇) 1루수겸 투수, 김봉은(金奉殷) 포수겸 1루수, 김태호(2루수), 김문환(金文煥) 우익수, 주세환(朱世煥) 투수겸 1루수, 오관영(吳寬永) 2루수겸 우익수, 안철수(3루수) △휘문구락부=정현모(3루수겸 유격수), 강영석(유격수겸 투수), 이신득(중견수겸 2루수 및 투수), 민용규(2루수), 손희준(유격수겸 투수 및 포수겸 1루수), 강인구(姜仁求) 우익수겸 좌익수, 김순모(金舜模) 좌익수, 박수돈(1루수겸 포수), 김경복(金慶復) 1루수, 송준(宋駿), 이진형(李璉亨) 이상 우익수, 강세희(姜世熙) 2루수겸 좌익수, 노영태(盧英台) 2루수겸 유격수, 임두호(투수겸 1루수)</p>	 <p>휘문고가 보관중인 4구락부연맹 우승기</p>  <p>해방 후 경성운동장에서 처음 열린 4구락부연맹전</p>
09.25	<p>■ 제2회 한성실업연맹전 추계 1, 2차리그 한성실업야구연맹 주최로 추계 1차리그(9월 25~29일)와 추계2차리그(10월 10~14일)를 서울구락부, 체</p>	<p>■ 09.28 서울특별시 승격 미군정청이 경성부를 경기도에서 분리, 서울특별시로 승격, 10월 1일부로 경성운동</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신국, 조선전업, 조선운수, 재우체육회, 중앙실업, 경성전기, 식산은행, 철도국, 경성부청, 조흥은행 등 11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경성운동장에서 개최, 1, 2차 결승전에서 식산은행이 기권승으로 조선운수와 체신부를 따돌리고 우승</p> <p>◇ 1차리그(9월 25~29일 경성운동장) ▲준결승전=조선운수 3-1 서울구락부, 식산은행 7-3 중앙실업 ▲결승전=식산은행 0-X 조선운수</p> <p>◇ 2차리그(10월 10~14일 경성운동장) ▲준결승전=식산은행 8-1 조선운수, 체신부 5-4 철도국 ▲결승전=식산은행 0-X 체신부</p>	<p>장도 서울운동장으로 개명</p> <p>■ 피트 라이저 홈스틸 신기록 브루클린 다저스의 피트 라이저가 한 시즌 7개의 홈 스틸을 성공시켜 이 부문 메이저 리그 신기록 수립</p>
10.16	<p>■ 제27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조선체육회가 제2차 조선올림픽대회 라는 명칭으로 주최,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육상, 축구, 농구, 야구, 연식야구, 럭비, 송구, 배구, 정구, 연식정구, 탁구, 역도, 권투, 자전거, 마술, 체조 등 16개 종목 4,950명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p> <p>▲중학야구 준결승전=경기중 6-4 인천상업, 경남중 6-3 휘문중 ▲동 결승전=경기중 9-5 경남중</p> <p>▲대학야구 준결승전=상과대 10-1 부산대, 남선대 12-7 국학대 ▲동 결승전=상과대 4-3 남선대</p> <p>▲일반야구 준결승전=전주 2-0 인천, 광주 2-0 서울 ▲동 결승전=전주 9-0 광주</p> <p>▲연식야구 일반 준결승전=부산 1-0 전인천, 연안 3-0 경성 ▲동 결승전=부산 7-0 연안(延安)</p>	<p>■ 메이저리그 사상 최초 플레이오프 내셔널리그의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브루클린 다저스가 정규 시즌서 동률, 메이저리그 사상 최초로 3전 2선승제의 플레이오프를 벌여 카디널스가 승리, 월드시리즈에서 해리 브리친의 3승에 힘입어 28년 만에 아메리칸리그서 우승을 차지한 보스턴 레드삭스를 4승3패로 제치고 우승</p>
10.21	<p>■ 조선학생추계연맹전 조선학생야구연맹 주최로 10월 21일부터 중학부와 대학부 경기를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1월 3일 끝난 결승전에서 경남중이 경기중을 7-3으로 물리치고 우승</p> <p>▲중학부 준결승전=경성중 8-2 영창중, 경남중 11-4 경동중 ▲동 결승전=경남중 7-3 경기중 ▲대학부 준결승전=한양공대 5-4 약학대, 중앙대 7-5 학생연합 ▲동 결승전=한양공대 (미상) 중앙대</p>	<p>■ 10.28 연(延)·고(高)전 부활 축구와 농구로 연 2회 대결</p>
1947. 03.05	<p>■ 남선전기 야구단 창단 남조선합동전기주식회사가 윤재준(尹在浚) 감독을 중심으로 야구단을 창단한 뒤 선수를 공개 모집</p>	<p>■ 01.21 조선올림픽 동계대회 조선체육회 주최로 제27회 조선올림픽대회 동계대회가 창경원 및 한강 특설 링에서 개최</p>
03.22	<p>■ 조선야구협회 임원 개선 대한야구협회가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임원을 개선, 명동에 있던 협회 사무실을 서울시 중구 저동 자유신문사 안으로 이전</p> <p>△회장=김동성(金東成) △부회장=최선익(崔善益), 이원용 △이사장=이영민 △상무이사=김태호, 이정순 △이사=김영석, 함용화, 최재은(崔在殷), 이경구</p>	
04.	<p>■ 조선연식야구협회 임원 개선 △회장=김영창(金永彰) △부회장=함용화, 장점동(張</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點同) △이사장=조원형(趙源衡) △이사=이규남, 박지완, 이삼봉, 이규태, 허성덕, 이규동, 나종철(羅鍾喆), 이응준, 김동우(金東愚), 윤길구, 고원순, 유호창, 박응주(朴應柱), 조병주(曹秉周)</p>	
04.12	<p>■ 대한야구구락부 결성 대한야구구락부가 오후 1시 종로 YMCA에서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을 선임 △상무=전의용(全義鎔), 김주호(金周鎬) △이사=신홍우(申鴻雨), 서상국, 최규남(崔奎南), 유용탁(柳容鐸) 이태웅(李泰雄), 김성호(金聖浩), 이원용 △주장=손희준 △매니저=함용화</p>	<p>■ 04.15 흑인 메이저리그 데뷔 재키 로빈슨(Jackie Robinson)이 흑인 최초로 브루클린 다저스(LA 다저스 전신)에 입단한 뒤 메이저리그 데뷔, 온갖 악조건 속에서 타율 .297, 도루 29개를 뽑아 신인상을 수상</p>
04.26	<p>■ 제3회 한성실업춘계연맹전 한성실업야구연맹 주최로 4월 26일부터 16일간 12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A조(남선전기, 경성전기, 삼국석탄, 조선전업, 식산은행, 체신부)와 B조(중앙실업, 서울시청, 운수국, 조선운수, 금융조합, 조흥은행)로 나누어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5월 11일 열린 최종 결승전에서 조선운수가 남선전기를 9-2로 격파하고 우승 ▲A조 예선 순위=①남선전기(5전 전승) ②식산은행(4승1패) ③체신부(3승2패) ④삼국석탄(2승3패) ⑤조선전업(1승4패) ⑥경성전기(5패) ▲B조 예선 순위=①조선운수(5전 전승) ②중앙실업, 조흥은행(이상 3승2패) ④운수국(2승3패) ⑤서울시청(1승4패) ⑥금융조합(5패) ▲A, B조 승자 결승전=조선운수 9-2 남선전기 △남선전기=김계현(金桂鉉 유격수), 박동섭(우익수) 이종대(포수), 윤재준(1루수), 고광적(중견수), 김상대(2루수), 이종구(3루수), 최문보(崔文甫 투수), 정동환(鄭東煥 좌익수) △조선운수=김선웅(중견수), 이정구(3루수), 박현덕(우익수), 박근식(유격수), 박지완(2루수), 유완식(투수), 유인식(1루수), 이동규(좌익수), 안봉식(포수)</p>	<p>■ 04.19 서윤복, 보스턴 마라톤 1위 서윤복(徐潤福)이 세계신기록(2시간25분39초)으로 해방 후 국제대회 첫 우승, 남승룡(南昇龍) 2시간48분40초로 10위</p> <p>■ 04.29조선체육회 임원 개선 기독교청년회(YMCA) 강당에서 총회를 개최 회장에 여운형(呂運亨), 부회장에 유억겸(俞億兼), 전경무를 선임</p>  <p>한성실업연맹전 춘계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한 조선운수 선수들</p>
05.14	<p>■ 조·미친선대회 조선야구협회 주최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5월 14일 고려구락부-미제24군단 특별부대 경기를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고려구락부가 8-4로 승리 △고려구락부=박근식(3루수), 박점도(2루수), 최중을(포수), 오윤환(유격수), 박현덕(1루수), 흥병창(좌익수 겸 중견수), 유완식(투수), 이신득(중견수), 김선웅(좌익수), 심연택(우익수)</p>	 <p>제2회 4도시대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인천군 선수들</p>
05.16	<p>■ 제2회 전국4도시대항대회 자유신문사 주최로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인천, 부산, 전주 등 4개 도시대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5월 19일 열린 결승전에서 인천이 서울을 2-1로 누르고 3전 전승으로 우승 ◇종합 전적=①인천군(3승) ②부산군(2승1패) ③서울</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군(1승2패), ④전주군(3패) △인천군=심연택(중견수), 김선웅(좌익수), 박현덕(우익수), 박근식(3루수) 홍병창(2루수), 유완식(투수) 최문혁(포수), 장영식(유격수) △서울군=노정호(좌익수), 박상규(2루수), 오윤환(투수), 최종을(포수), 손희준(유격수), 강대중(姜大中 1루수), 박점도, 유두현(劉斗鉉 이상 우익수), 장석화(3루수), 이신득(중견수) △부산군=이상문(2루수), 박상화(3루수), 배성수(중견수), 장종기(투수), 한경열(좌익수), 박인홍(1루수), 이정구(우익수), 박재영(포수), 김필수(유격수) △전주군=차재인(車在仁 중견수), 차재영(車在英 3루수), 남궁환(南宮環 2루수), 김영조(유격수), 유수복(柳壽福 우익수), 김두원(金斗元 1루수), 황병권(黃秉權 투수), 송창문(宋昌文 포수), 남궁용(南宮鏞 좌익수)</p>	
06.04	<p>■ 제2회 청룡기쟁탈 전국중등선수권대회 자유신문사 주최로 6월 4일부터 동산, 광주사범, 경남, 강원농, 경기, 전주북, 대구, 대전공업중 등 8개 중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8일 열린 결승전에서 경남중이 대구중을 2-0으로 물리치고 우승 ▲준결승전=경남중 3-0 동산중, 대구중 6-2 경기 ▲결승전=경남중 2-0 대구중 ◇개인상 ▲최우수상=장태영(경남중) ▲타격상=양재경(梁在昊 경기중 .400) ▲미기상=노대건(盧大建 경기중) △경남중=감독 고광적 및 정상규(2루수), 송주창(포수), 황기대(좌익수), 조성일(3루수), 장학원(鄭學源 우익수), 장태영(투수), 장갑영(중견수), 박정표(유격수), 정태수(1루수) △대구중=김원찬(金元贊 3루수), 이태학(李泰鶴 2루수), 이판춘(李判春 우익수), 김창기(金昌基 유격수), 김정식(金禎植 투수), 박석찬(朴錫燦 1루수), 김종수(金鍾守 중견수), 송안립(宋安立 좌익수), 김용곤(金容坤 포수)</p>	 <p>제2회 전국중등선수권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경남중 선수들</p>
06.10	<p>■ 전국대학춘계연맹전 조선학생야구연맹 주최로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한양공대, 약학대, 성균관대, 상과대, 남조선대, 문리과대, 국학대 등 7개 대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한양공대가 6전 전승으로 우승 ▲제1일(6월 10일)=한양공대 9-5 성균관대, 약학대 8-7 상과대, 국학대 13-6 문리과대 ▲제2일(6월 11일)=성균관대 12-5 약학대, 한양공대 6-2 국학대, 조선대 15-2 문리과대 ▲제3일(6월 13일)=한양공대 8-0 문과대, 성균관대 8-4 남조선대 약학대 7-0 국학대 ▲제4일=(이하 기록 전무)</p>	
06.14	<p>■ 제1회 마산4도시대항대회 마산야구협회 주최 조선야구협회 후원으로 6월 14일</p>	<p>■ 조선올림픽위원회 출범 6월 15일 조선올림픽위원회(KOC)를 발족,</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부터 16일까지 서울, 인천, 전주, 마산 등 4도시 대표 팀이 출전한 가운데 마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 6월 16일 열린 최종일 경기에서 서울이 전주를 3-1로 꺾고 3전 전승으로 우승</p> <p>▲제1일(6월 14일)=전주 6-3 인천, 서울 2-1 마산 ▲제2일(6월 15일)=전주 8-0 마산, 서울 4-1 인천 ▲제3일(6월 16일)=마산 4-3 인천, 서울 3-1 전주</p> <p>◇종합 전적=①서울(3승) ②전주(2승1패) ③마산(1승2패) ④인천(3패)</p> <p>△서울군=노정호(좌익수), 전현모(3루수), 이영민(중견수), 손희준(유격수겸 투수), 김봉강(2루수), 김세기(金世基 우익수), 김덕수(金德秀 대타), 이영준(1루수), 이인학(李仁鶴 대타), 유상현(柳商鉉 포수), 강대중(투수겸 유격수)</p> <p>△전주군=차재영(3루수), 차재인(중견수), 남궁환(2루수), 김영조(유격수겸 투수), 유수복(1루수), 김두원(金斗元), 황병권(이상 우익수), 송창문(포수), 곽병을(郭秉乙 유격수), 임영곤(林榮坤 투수), 남궁용(좌익수)</p> <p>△마산군=박상권(朴上權 2루수), 박동섭(포수), 김계현(유격수), 고광적(중견수), 이성기(투수), 김상대(1루수), 김준호(金準鎬 3루수), 서진택(徐振澤 우익수), 어영민(魚榮敏 대타), 윤종진(尹鍾振 좌익수), 서문두(대타)</p> <p>△인천군=심연택(중견수), 장영식(2루수), 박현덕(좌익수), 박근식(유격수), 유완식(투수), 한광희(韓光熙 3루수), 한득봉(韓得鳳 포수), 유인식(1루수), 김선웅(우익수)</p>	<p>초대 위원장에 여운형 취임</p>  <p>인천군의 박현덕(왼쪽)과 유완식</p> <p>■06.15 전경무 부회장 급서 전경무 대한체육회 부회장겸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이 스웨덴 올림픽위원회 회의 참석차 현지로 향하던 중 일본 도쿄근방 아쓰기(厚木)비행장 근처 산록에 탑승기가 추락 사망</p> <p>■06.20 국제올림픽위원회 가입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제40차 총회에서 신생 조선올림픽위원회 가입을 승인, 가입 명칭 Korean Olympic Committee(KOC), 국호 Korea. KOC 초대 위원장 여운형, 한국대표 이원순(李元淳)</p>
07.03	<p>■제1회 전국지구대표야구쟁패전 동아일보사 주최로 7월 3일부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군산, 대전, 광주 등 7개 지역 대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연기를 거듭한 끝에 7월 13일 열린 결승전에서 인천군이 5-4로 서울군을 제치고 우승</p> <p>▲1회전=인천 6-2 대구, 부산 9-1 군산, 서울 4-0 대전 ▲준결승전=인천 9-1 광주, 서울 1-0 부산 ▲결승전=인천 5-4 서울</p> <p>◇개인상 ▲타격 1위=박현식(인천 .385) ▲타격2위=유인식(인천 .364) ▲타격3위=한득봉(인천 .333) ▲타격4위=심연택(인천 .275), 유복룡(서울 .275)</p> <p>△인천군=감독 최문혁 및 심연택(중견수), 장영식(2루수), 박현덕(좌익수), 박근식(유격수), 유완식(투수), 한광희(3루수), 한득봉(포수), 유인식(1루수), 김선웅(우익수)</p> <p>△서울군=감독 함용화 및 노정호(좌익수), 유복룡(중견수), 박점도(우익수), 최중을(포수), 오윤환(투수) 손희준(1루수), 박지완(3루수), 강대중(유격수), 박상규(2루수)</p>	<p>■07.01올림픽준비위 구성 제24회 올림픽준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유억겸, 부위원장에 이상백, 이병학을 선임</p> <p>■07.01 서재필 박사 49년 만에 한국 7월 1일 하오 4시 갑신정변에 실패, 미국으로 망명한 뒤 독립운동으로 평생을 보낸 서재필 박사가 49년 만에 딸(무리엘)과 함께 남조선 최고 의정관 자격으로 인천항을 통해 한국, 김규식(金奎植) 박사를 비롯하여 김성수(金性洙), 여운형, 조병옥(趙炳玉) 경무부장 등 정계 대표와 관계 요인들이 영접</p>
07.08	<p>■제1회 조선연식야구협회 창립 기념대회 조선연식야구협회 주최로 7월 8일부터 6일간 13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서울공작소와 용산공작소의 결승전 전적 미상</p> <p>▲1회전=서울구락부 1-0 화재보험B, 효창동 5-2 명</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옥, 화재보험A 7-0 남대문시장, 중앙청 2-1 영등포, 삼선구락부 6-0 서울산업 ▲2회전=서울구락부 3-0 극동, 효창동 5-2 화재보험A, 용산공작소 7-0 중앙청, 삼선구락부 2-1 전매국 ▲준결승전=서울구락부 6-3(13회) 효창동, 용산공작소 3-2 삼선구락부 ▲결승전=서울공작소 (미상) 용산공작소</p>	
07.18	<p>■하와이교포회 초청 원정야구단 결단 하와이조선인국민회연합회가 조선야구협회에 동포 위문 모국야구단 파견을 의회, 해방 후 조선국가대표격인 조선야구단을 결단 △조선야구단=감독 김영석, 주무 김태호, 주장 배성수 및 유완식, 장종기, 이정구(이상 투수), 김영조, 이종대(이상 포수), 손희준(1루수), 오윤환, 김계현(이상 2루수), 박근식(3루수), 강대중, 김흥수(이상 유격수), 배성수, 노정호, 심연택, 유복룡(이상 외야수)</p>	<p>인천야구를 이끈 김선웅(왼쪽)과 유완식</p> <p>■07.05 아메리칸리그 첫 흑인선수 내셔널리그에 이어 아메리칸리그에서도 7월 5일 흑인 래리 도비(Larry Doby)를 정식 선수로 등록</p>
08.01	<p>■제1회 소년야구선수권대회 조선소년소녀체육회 주최로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제1회 대회에 국민학교와 소년단 및 중학 팀이 출전, 혜화국교와 광희소년단 및 경기중이 각각 우승 ▲국민교 준결승전=혜화 5-0 장충A, 무학 20-6 장충B ▲동 결승전=혜화국교 13-6 무학국교 ▲소년단 준결승전=광희소년 11-0 유락소년, 합동소년 13-0 경신소년 ▲동 결승전=광희소년 16-1 합동소년 ▲중학교 준결승전=경동중 10-9 개성상업, 경기중 2-0 선린상업 ▲동 결승전=경기중 10-7 경동중</p>	<p>■07.19 여운형(呂運亨), 피습 사망 조선체육회 회장겸 한국올림픽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중 오후 1시경 서울 혜화동 로타리에서 극우파 한지근(韓智根)에 의하여 피습 사망</p>
08.05	<p>■조선야구단 하와이 원정경기 연기 조선야구협회가 하와이교포연합회 초청 경기를 시일 촉박으로 1948년 2월로 연기</p>	
08.07	<p>■제2회 월계기쟁탈 전국도시대항대회 자유신문사 주최로 8월 7일부터 전국 10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8월 13일 열린 결승전에서 인천이 부산을 2-1로 누르고 우승 ▲1회전=부산 17-0 목포, 광주3-2 대전 ▲2회전=서울 4-0 마산, 부산 15-0 군산, 대구 7-0 전주, 인천 3-0 광주 ▲준결승전=인천 3-0 대구, 부산 3-2 서울 ▲결승전=인천 2-1 부산 △인천군=심연택(중견수), 장영식(2루수), 박현덕(우익수), 박근식(유격수), 유완식(투수), 한광희(3루수) 한득봉(포수), 유인식(1루수), 김선웅(좌익수) △부산군=이상문(2루수), 박상화(3루수), 배성수(중견수), 장종기(투수), 한경열(좌익수), 김필수(우익수), 이정구(유격수겸 투수), 김영규(1루수), 박재영(포수)</p>	 <p>인천군이 제2회 전국도시대항대회 결승전에서 부산군을 2-1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8.15	<p>■ 8.15해방 2주년 경축 한·미군친선대회 서울시 주최로 8월 15일부터 5일간 주한미군 4개 팀과 전한국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전한국 팀이 4전 전승으로 우승 ▲전한국 7-0 미함대 ▲전한국 6-1 미야포 ▲전한국 6-0 미야포 ▲전한국 20-3 미24군단</p>	<p>■ 0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해방 3주년을 맞아 정부 수립 선포식, 제1공화국 출범</p>
08.20	<p>■ ‘야구규칙’ 첫 발간 문교부 체육과 추천으로 최상준(崔相俊)이 발간, 임시정가 100원</p>	<p>■ 08 20올림픽파견 종목 선정 빙상, 육상, 축구, 농구, 역도, 권투 등 6종목을 1차로 선정</p>
08.21	<p>■ 제1차 전국지구대표중등쟁패전 동아일보사 주최, 조선야구협회 주관으로 8월 21일부터 서울(경기중), 경기(동상중), 강원(강원중 화재로 불참), 충청(대전중), 전북(군산중), 전남(광주사범), 경북(능인중), 경남(경남중)지구 대표들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8월 26일 열린 결승전에서 경남대표 경남중이 서울대표 경기중을 9-3으로 물리치고 우승 ▲제1회전=동산중 5-4 군산중, 광주사범 22-6 대전중, 경기중 2-0 능인중 ▲준결승전=경남중 5-1 동산중, 경기중 10-2 광주사범 ▲결승전=경남중 9-3 경기중 △경남중=감독 고평적 및 정상규(2루수), 박정표(유격수), 황기대(좌익수), 조성일(3루수), 장태영(투수) 정태수(1루수), 장갑영(우익수), 송주창(포수), 조성관(趙聖罐 중견수) △경기중=감독 오윤환 및 김용익(金用翼 유격수), 이기양(李起楊 중견수), 이종근(李鍾根 포수겸 투수) 양재경(梁在昊 좌익수), 김철(金哲 1루수), 김영제(金英濟 투수겸 포수), 김영호(金英浩 3루수), 김상진(金尙鎭 우익수), 노대건(盧大建 2루수) △동산중=감독 박현덕 및 하명호(河明鎬 3루수), 한명진(韓明珍 2루수), 이근배(李根培 포수), 박현식(朴賢植 투수), 윤태섭(尹台燮 좌익수), 황우겸(黃祐兼 3루수), 김용인(金容麟 2루수겸 우익수), 최광풍(崔光豊 중견수겸 좌익수), 문동현(文東鉉 우익수겸 중견수) △광주사범=감독 서영규(徐永奎) 및 문계성(文桂星 유격수), 김양중(金洋中 우익수겸 투수), 전양섭(全亮燮 2루수), 심재홍(沈在鴻 포수), 염형렬(廉炯烈 좌익수), 장복상(張福相 3루수), 최형수(崔亨洙 중견수), 유태신(劉泰信 1루수), 구학림(具學林 투수겸 우익수)</p>	 <p>인천야구를 빛낸 동산중의 박현덕 감독(오른쪽)과 박현식 형제</p>
09.06	<p>■ 제2회 맹호기쟁탈 전국대학선수권대회 자유신문사 주최 조선야구협회 주관으로 9월 6일부터 11일까지 약학대, 대구대, 사범대, 한양공대, 국학대, 성균관대, 상과대 등 7개 대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결승전에서 약학대가 성균관대를 3-2로 제치고 우승 ▲제1회전=약학대 6-3 대구대, 한양대 11-0 사범대</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5회 콜드 게임), 성균관대 10-1 국학대 ▲ 준결승전=약학대 5-1 한양공대, 성균관대 6-4 상과대 ▲ 결승전=약학대 3-2 성균관대 △약학대=장재관(張在寬 유격수), 한명수(韓明洙 우익수), 안철수(安喆洙 포수), 김수한(金洙漢 좌익수), 강선구(姜善求 1루수), 이조영(李祖永 중견수), 박윤덕(朴潤德 3루수), 이인호(李仁浩 2루수), 유우진(劉宇鎭 투수) △성균관대=강희철(康熙徹 3루수), 정종호(鄭鍾鎬 포수), 김성채(金聲採 좌익수), 이덕영(李德永 유격수), 김정환(金定煥 1루수), 신현철(申鉉哲 2루수), 심재오(沈載昨 우익수), 조규진(曹圭鎭 중견수), 정경현(鄭京鉉 투수)</p>	
09.12	<p>■ 제1회 인천4도시대항대회 인천야구협회 주최로 9월 12일부터 3일간 인천공설운동장에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이 출전한 가운데 개최, 12월 14일 열린 결승전에서 동률인 부산군과 대구군이 대결, 부산군이 대구군을 6-4로 물리치고 우승</p>	
09.15	<p>■ 제4회 한성실업추계연맹 한성실업야구연맹 주최로 9월 15일부터 서울운동장에서 2개 조로 예선전을 개최, 10월 1일 각조 1위가 맞붙은 우승 결승전에서 조선운수가 식산은행을 8-1로 격파하고 우승 ◇A조 순위=①조선운수(4승) ②체신부(3승1패) ③삼국석탄(2승2패) ④조선전업(1승3패) ⑤서울시청(4패) ◇B조 순위=①식산은행, 조흥은행, 중앙실업(이상 2승1패로 동률·순위 결정전에서 식산은행이 우승) ④운수국(4패) ○경성전기(기권) ▲A, B조 승자 우승 결정전=조선운수 8-1 식산은행 △조선운수=김흥수(유격수), 정병순(鄭丙杓 포수), 김일배(좌익수), 박점도(1루수), 박지완(3루수), 배용섭(裵龍燮 투수), 이장옥(李長玉 중견수), 김원섭(金元燮 우익수), 송재옥(宋在玉 2루수) △식산은행=노정호(좌익수), 백유현(2루수), 이영민(투수), 유복룡(중견수), 최정수(우익수), 구학림(유격수), 심재홍(포수), 김관수(3루수), 이영준(1루수)</p>	<p>■ 09.18 조선체육회 임원 개선 제12대 회장에 유억겸을 만장일치로 추대 부회장에 신기준(申基俊), 정항범을 선임</p> <p>■ 09.18 KOC 위원장 개선 제2대 대한올림픽(KOC) 위원장에 정항범 취임</p>
09.24	<p>■ 하와이원정야구단 환송경기 하와이 원정을 계획중인 조선대표군이 9월 24일부터 이틀간 서울운동장에서 한성실업연맹 선발군과 두 차례에 걸쳐 평가전을 개최한 끝에 대표군이 2전 전승 ▲ 1차전=대표군 1-0 선발군 ▲ 2차전=대표군 3-1 선발군 △조선대표군=심연택(우익수), 노정호(좌익수), 배성수(중견수), 오윤환(2루수), 손희준(1루수) 이종대(포수), 유완식, 장종기(이상 투수), 강대중(유격수) 박근식(3루수) △한성선발군=박점도(1루수), 박상규(유격수), 최중을 안봉식(이상 포수), 김일배(우익수), 이신득(좌익수), 정</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병순(3루수), 김봉강(2루수), 배용섭, 임형관(이상 투수)	
09.25	■ 조선연식야구협회 임원 개선 ▲ 회장=최선익 ▲ 부회장=이의조(李義朝), 함용화 ▲ 이사장=조원형(유임)	
10.01	■ 전국대학추계연맹전 조선학생야구연맹 주최로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상과대, 약학대, 성균관대 등 3개 대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3팀이 4승1패로 동률을 이뤄 승자 결정을 보류	■ 10.02 월드시리즈 최초 대타 홈런 월드시리즈 3차전에서 뉴욕 양키스의 요기 베라가 시리즈 사상 최초로 대타 홈런 기록
10.13	■ 제28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조선체육회 주최로 10월 13일부터 7일간 육상, 축구, 농구, 야구, 연식야구, 배구, 럭비, 송구, 하키, 정구, 연식정구, 탁구, 자전거, 권투, 역도, 레슬링, 조정, 궁도, 씨름 등 22개 종목에서 3,180명의 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경기중, 성균관대 및 조선화재(연식)가 각각 우승 ◇야구 ▲중학 준결승전=경기중 7-5 강원농업, 대구 상업 14-4 광주서중 ▲동 결승전=경기중 6-2 대구 상업 ▲대학 준결승전=성균관대 6-3 국학대, 약학대 9-4 상과대 ▲동 결승전=성균관대 9-3 약학대 ▲일반 준결승전=대전 6-5 전주, 광주 3-0 서울 ▲동 결승전=대전 5-4 광주 ◇연식야구 ▲일반 준결승전=조선화재 1-0 직우구락부, 강남구락부 5-1 효창구락부 ▲동 결승전=조선화재 3-2 강남구락부	■ 10.03 노히트노런 직전 역전패 뉴욕 양키스 투수 빌 베벤스가 월드시리즈 4차전에서 노히트노런에 1아웃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브루클린 다저스의 쿠키 라바게토에게 2타점 2루타를 얻어 맞아 1-2로 역전패 ■ 메이저리그, 도박 감독 1년간 출전 금지 브루클린 다저스 리오 듀로셔 감독이 야구 도박과 관련된 혐의로 해피 챌들러 커미셔너가 1년간 출전 금지 처분
10.23	■ 4구락부연맹전 4구락부연맹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10월 23일부터 4일간 경신이 불참한 가운데 전배재, 전중양, 전휘문 등 3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최종일 경기에서 전배재가 전휘문을 10-9로 물리치고 2전 전승으로 우승 ◇종합 전적=①전배재(2전 전승) ②전휘문(1승1패) ③전중양(2패) △전배재=감독 김영석 및 선수=이영민, 함용화, 백기주, 오윤환, 마춘식, 나조화, 심일배, 김인식, 김정환, 배재옥(裵在錫), 원소자(元小者), 조한봉, 장귀남, 조점룡, 백윤승(白允勝), 최인식(崔仁植), 김태봉 △전휘문=감독 손효준 및 선수=이순재, 손희준, 강세희, 이경구, 민용규, 최재은, 유학곤(柳學坤), 이신득, 김경복, 임두호, 강영석, 유상현, 정명진(鄭命鎭), 강인구, 장영준, 송준, 이윤근, 이소동, 오세용 백종현 △전중양=감독 이기경 및 선수=한태동, 김태호, 박칠복, 김대벽(金大壁), 전창일, 이준용, 구자정(具滋貞), 이기경, 진성섭(陳性燮), 김선균(金善均), 오응화(吳應華), 조종표(趙鍾杓), 오관영, 김봉은, 심영보, 주세환, 이세화(李世華), 지영우, 장재관, 이조영, 안	■ 테드 윌리엄스 또 타격 3관왕 보스턴 레드삭스 테드 윌리엄스가 1942년에 이어 타율 .343, 홈런 32, 타점 114로 또 다시 타격 3관왕에 등극, 그러나 아메리칸리그 MVP투표에서 무관의 조 디마지오에게 202-201로 밀려 탈락 ■ 일본 사와무라상 제정 일본 프로야구 초창기 최고의 투수였던 사와무라 에이지(澤村 榮治)를 기려 잡지 '熱球(열구)'가 1947년 10월에 제정, 처음엔 센트럴리그 투수들을 대상으로 시상했으나 1989년부터는 퍼시픽리그까지 포함해서 그 해 가장 뛰어난 투수에게 시상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철수, 이재호(李在浩), 김영하(金永河), 김문환, 박병수(朴炳洙), 양춘섭(梁春燮), 궁석윤(弓錫潤), 김대일(金大一)</p>	
<p>11.15</p>	<p>■ 하와이 원정 조선야구단 환송경기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11월 15~16일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차전에서 대표군이 3-0으로 승리한 뒤 2차전에서도 5-0으로 이겨 2전 전승 ▲ 1차전=대표군 3-0 잔류군 ▲ 2차전=대표군 5-0 잔류군 △조선대표군=노정호(좌익수), 심연택(좌익수겸 중견수), 배성수(중견수겸 우익수), 김영조, 이종대(이상 포수), 손희준(1루수), 오윤환(2루수), 유완식, 장종기(이상 투수), 김계현, 김흥수(이상 유격수), 유복룡(우익수), 박근식(3루수) △실업잔류군①=장석화(3루수), 김필수(유격수), 최중을(포수), 박현덕(우익수), 허곤(중견수), 한경렬(좌익수), 정현모(2루수), 배용섭(투수), 윤재준(1루수), 유인식(대타) △실업잔류군②=김필수(유격수), 허곤(우익수), 김보상(중견수), 한경렬(좌익수), 심양섭(沈亮燮 1루수), 이영준(대타), 한광희(3루수), 한득봉(포수), 송재옥(2루수), 최중을(대타), 임형관(투수), 정현모(2루수)</p>	<div data-bbox="970 371 1214 658" data-label="Image"> </div> <p>■ 11.08 유억겸 체육회장 사망 군정청 문교부장겸 제12대 조선체육회 유억겸(俞億兼) 회장 뇌일혈로 타계</p>
<p>1948. 03.13</p>	<p>■ 조선야구협회 임원 개선 조선야구협회가 조선식산은행에서 제2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이사진을 개선 △회장=김동성 △부회장=서민호(徐珉濤) △이사장=손효준 △상무이사=최재은, 이정순 △이사=이영민, 김영석, 이경구, 김태호, 노용호(盧龍鎬), 함용화, 최세원, 이신득 △감사=민용규, 성낙춘(成樂春)</p>	<p>■ 01.29 동계체육대회 조선체육회 주최로 제28회 조선올림픽대회 동계대회를 1월 29일부터 3일간 제2서울운동장과 창경원 및 한강 특설 링에서 개최</p> <p>■ 01.30 동계올림픽대회 최초 참가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스위스 생 모리츠에서 한국을 비롯 28개 국에서 6종목에 878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5회 동계 올림픽대회 개최, 한국은 5명의 선수단을 최초로 파견</p> <p>■ 02.06 체육회 임원 개선 제13대 대한체육회 회장에 정항범(鄭恒範) 취임</p>
<p>04.03</p>	<p>■ 금융조합 야구부 결성 야구 시즌을 앞두고 대한금융조합연합회에서 야구부를 결성 △감독=김필수 △매니저=최상준(崔相俊) △주장=장종기 △선수=임형관, 장종기(이상 투수), 김영조, 김덕수(이상 포수), 박준득, 박윤명(朴潤明 이상 1루수), 문태성(2루수), 김창기(3루수), 김필수(유격수), 남궁혁(南宮赫 좌익수), 허곤(중견수), 윤수용(우익수)</p>	<p>■ 04.03 제주 4·3민주항쟁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 7개월간 제주도에서 민중항쟁을 전개</p>
<p>04.09</p>	<p>■ 조선운수 영남원정경기 조선운수주식회사 야구부가 4월 9일부터 13일까지 대전, 대구, 부산에 원정, 4월 14일 3전 전승으로 귀경 ▲ 조선운수 10-8 전대구 ▲ 조선운수 2-0 전부산 ▲ 조선운수 17-1 전대전 △감독=김일배 △부감독=박점도 및 박지완, 배용섭, 김찬석(이상 투수), 오경선(吳敬善), 안봉식, 한득봉(이상 포수), 박점도, 유인식, 심양섭(이상 1루수), 송재옥, 정병순, 박근식(이상 2루수), 김흥수(유격수),</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안종태, 이장옥(이상 좌익수), 흥병창(중견수), 김원경(우익수)	
04.10	■ 제3회 전국연식춘계연맹전 조선연식야구협회 주최로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열린 제3회 대회 참가비로 1,000원을 징수	
04.21	■ 제5회 한성실업춘계연맹 한성실업야구연맹 주최로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식산은행, 조흥은행, 조선운수, 체신부, 전매국 등 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조선운수가 4전 전승으로 우승 ◇종합 순위=①조선운수(4전 전승) ②조흥은행(3승1패) ③전매국(2승2패) ④식산은행, 체신부(이상 3패)	
04.23	■ 서울6대학춘계연맹전 서울시대학야구연맹 주최로 4월 23일부터 서울상대, 약학대, 동국대, 연희대, 한양공대, 성균관대 등 6개 대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서울상대와 성균관대가 4전 4승으로 동률, 4월 30일 열린 최종 결승전에서 성균관대가 4-3으로 서울상대를 누르고 5전 5승으로 우승 ◇종합 순위=①성균관대(5승) ②서울상대(4승1패) ③약학대(3승2패) ④한양공대(2승3패) ⑤연희대(1승4패) ⑥동국대(5패)	
05.05	■ 전국실업춘계연맹전 전국실업연맹 주최로 5월 5일부터 3일간 조선운수, 금융조합, 남선전기 등 3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조선운수가 2전 전승으로 우승 ◇종합 순위=①조선운수(2승) ②금융조합(1승1패) ③남선전기(2패)	
05.09	■ 전국대학춘계연맹전 조선학생야구연맹 주최로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성균관대, 약학대, 국학대, 동국대, 한양공대가 참가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성균관대가 4전 전승으로 우승	
05.12	■ 하와이 원정야구단 해산 조선야구협회 사정으로 연기를 거듭한 끝에 5월 4일 한-미군친선경기를 가진 뒤 5월 12일 완전 해산	
05.22	■ 제3회 전국중등선수권대회 서울시예선 자유신문사 주최로 5월 22일부터 경기, 경북, 배재, 서울, 휘문중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5월 14일 끝난 결승전에서 경기중이 휘문중을 1-0으로 누르고 우승, 서울대표로 본선 진출 △경기중=심응준(沈應濬 3루수), 노대건(2루수), 이종호(포수), 양재경(좌익수), 박현식(투수), 김철(중견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수) 이영식(李泳植 1루수), 김용익(유격수), 김영제(우익수) △회문중=송준(1루수), 이소동(李蘇東 2루수), 백종현(白宗鉉 포수), 강인구(투수), 오세용(吳世用 유격수), 홍순하(洪淳畧 3루수), 장영철(張英哲 중견수), 이원석(李源哲 우익수), 장영준(張英俊 좌익수)</p>	
05.25	<p>■ 제3회 전국4도시대항대회 경남야구협회 주최로 5월 25일부터 3일간 인천, 대구, 서울, 부산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 부산-서울 결승전에서 서울이 2-6으로 리드 당하던 9회말 2사 만루에서 노정호가 날린 우월 홈런이 관중석으로 들어가 이것을 문제 삼자 서울이 경기를 포기, 부산이 기권 승으로 우승</p>	
06.03	<p>■ 제3회 청룡기쟁탈 전국중등야구선수권대회 자유신문사 주최로 6월 3일부터 4일간 동산중, 공주, 경남, 동래, 경기, 청주상, 강원농, 동산중 등 8개 중학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6일 끝난 결승전에서 경남중이 경기중을 1-0으로 누르고 2년 연속 우승 ▲1회전=동산중(부전승)-공주중(불참 패), 경기중 12-0 청주상업(5회 콜드 게임) ▲2회전=경남중 7-0 동래중, 강원농업 6-2 동산중 ▲준결승전=경남중 12-0 동산중, 경기중 2-0 강원농업 ▲결승전=경남중 1-0 경기중 ◇개인상 ▲우수상=이종호(李種浩 경기중) ▲타격상=①최종택(崔鍾澤 강원농업 .500) ②심응준(경기중 .400) ③정상규(경남중 .286) △경남중=허종만(중견수), 박정표(유격수), 정태수(1루수), 조성일(3루수), 장태영(투수), 송주창(포수) 이상재(李尙宰 좌익수), 조성관(우익수), 정상규(2루수) △경기중=김용익(유격수), 김철(중견수), 심응준(3루수), 양재경(좌익수), 박현식(투수), 이종호(포수), 이영식(1루수), 노대건(2루수), 김영제(우익수) △강원농업=정화섭(중견수), 송기원(1루수), 최종택(유격수), 양기석(포수), 임병엽(투수), 김재하(우익수), 조순섭(3루수), 이진섭(좌익수), 서경해(2루수) △동산중=한명진(2루수), 윤태섭(투수), 정진철(鄭鎭喆 유격수), 이근배(포수), 황우겸(3루수), 김영학(金永學 우익수), 문동현(좌익수), 최광풍(중견수), 김용인(1루수)</p>	 <p>제2회 대회에 이어 2연패를 달성한 경남중 주장에게 우승기인 청룡기를 수여하고 있다.</p>  <p>1948년 경남중은 청룡기를 비롯해 황금사자기 및 쌍룡기 등 전국 3대회 우승기를 거머 쥐었다.</p>  <p>서울운동장 야구장에서 딸 무리엘과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서재필 박사(앞줄 중앙). 왼쪽은 미군정청 정치고문 워스.</p>
06.16	<p>■ 제3회 월계기쟁탈 전국도시대항대회 자유신문사 주최로 6월 16일부터 4일간 서울, 부산, 인천, 마산, 대전, 대구 등 6개 지역 대표 팀들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결승전에서 대구가 서울을 6-4로 물리치고 우승 ◇개인상 ▲타격상=유복룡(서울) △대구군=김보상(중견수), 배영암(2루수), 박춘득(1루수)</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수), 이종대(포수), 허곤(좌익수), 임형관(투수), 임정도(林正道 3루수), 박경석(朴景錫 유격수), 정동환(우익수) △서울군=노정호(좌익수), 유복룡(중견수), 최종을(포수), 홍병창(우익수), 손희준(1루수), 박지완, 박점도(이상 2루수), 김흥수(유격수), 오윤환, 한태동(이상 투수), 장석화(3루수)	
06.18	<p>■ 이영민, 올림픽대회 참가 환송경기</p> <p>제14회 런던 올림픽대회에 임원으로 참가하는 이영민 환송 대회가 6월 18일 서울운동장에서 신문·방송기자 단대 대한구락부 대항전으로 개최, 대한구락부가 기자단을 13-9로 격파하고 승리</p> <p>△대한구락부=이경구(좌익수), 정인규(3루수겸 유격수), 이영민, 김영석(이상 투수), 함용화(포수), 백기주(유격수), 차세진(2루수), 서상국, 김주호(이상 1루수), 전의용, 김춘식(金春植), 이원용(이상 우익수), 손효준(3루수겸 중견수)</p> <p>△기자단=이용일(李容一 중견수), 최성복(崔成福 3루수), 임병칠(林炳七 유격수), 김동극(金東極 투수), 최인식(2루수), 이정순(李貞淳), 장용학(張用學 이상 1루수), 조동훈(趙東勳 3루수), 최경덕(崔慶德 좌익수겸 투수), 조원형(趙源衡), 한응태(韓應台 이상 포수), 윤길구(尹吉九 우익수)</p>	<p>제3회 월계기쟁탈 전국도시대학대회에서 서울군을 6-4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한 대구군.</p>
06.20	<p>■ 경기·영남선발대회</p> <p>경기지역 선발군과 영남지역 선발군이 6월 20일 서울운동장에서 대결, 영남 선발군이 6-3으로 우승</p> <p>△영남 선발군=박상권, 배영암(이상 2루수), 강대중(유격수), 배성수(우익수), 한경열, 허곤(이상 좌익수), 박춘득, 고광적(이상 1루수), 김계현, 이기역(李起驛 이상 3루수), 박재영(포수), 이정구(투수), 김보상(중견수)</p> <p>△경기 선발군=노정호(좌익수), 유복룡(중견수), 장석화(3루수), 이신재(우익수), 박점도(2루수겸 우익수), 홍병창(중견수겸 우익수), 정병순(3루수겸 2루수), 오윤환(2루수겸 3루수), 유인식, 손희준(이상 1루수), 김흥수(유격수), 한상현(韓尙鉉), 최종을(이상 포수), 배용섭, 한태동(이상 투수), 장종기(우익수겸 투수)</p>	
06.23	<p>■ 한·미친선대회</p> <p>대한야구협회 주최로 6월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운동장에서 고려구락부-미제24군단과 친선 경기를 개최, 고려구락부가 10-2로 승리</p>	
06.26	<p>■ 제1회 경·인정기대항대회</p> <p>6월 25일 서울운동장에서 1차전을 가진 뒤 2, 3차전은 7월 10일부터 인천공설운동장에서 개최, 서울군이 2승1패로 우승</p> <p>▲1차전=인천 8-2 서울 ▲2차전=서울 4-3 인천 ▲3차전=서울 3-2 인천</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서울군=감독 오윤환 및 장종기, 배용섭, 한태동(이상 투수), 정병순, 한상현(이상 포수), 박점도(1루수) 박지완(2루수), 장석화(3루수), 김흥수(유격수), 노정호(좌익수), 유득현, 이헌파(李憲波 이상 중견수), 홍병창, 이태신(李泰信 이상 우익수)</p> <p>△인천군=감독 최문혁 및 박근식(유격수), 김선웅(좌익수), 강희철, 김계현, 김태훈(金泰勳 이상 2루수), 박현덕(우익수), 유완식(투수), 한광희(3루수), 유인식(1루수), 이동규, 심연택(이상 중견수), 한득봉(포수)</p>	
07.02	<p>■한-미선발대항대회 조선야구협회 주최로 7월 2일 전조선선발군-미주둔군 선발대항대회를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차전에선 조선선발군이 6-1로 승리, 2차전은 우천으로 무기연기</p> <p>△조선 선발군= 장종기, 유완식(이상 투수), 김영조, 유상현(이상 포수), 손희준, 박춘득(이상 1루수), 박상권, 오윤환(이상 2루수), 박근식(3루수), 김흥수(유격수), 노정호, 유복룡, 김보상, 홍병창, 배성수(이상 외야수)</p>	<p>■07.01 국호 대한민국(大韓民國) 국회에서 국호는 '대한민국' 정체는 '민주공화국'으로 결정</p> <p>■07.29 조선올림픽 명칭 변경 조선올림픽위원회를 대한올림픽위원회로 개칭</p> <p>■07.07 월드시리즈 최초 흑인선수 흑인 투수 새철 페이지가 클리블랜드 입단, 10월에 열린 월드시리즈에 흑인 최초로 등판</p> <p>■07.29 하계올림픽대회 첫 참가 제14회 런던 올림픽대회(7월 29일~8월 14일)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7종목에 67명을 파견, 역도 김성집(金晟集), 권투 한수안(韓水安)이 동메달 획득, 종합 24위</p>
07.24	<p>■제2회 마산4도시대항대회 마산야구협회 주최로 7월 24일부터 4일간 서울, 대구, 부산, 마산이 출전한 가운데 마산중 운동장에서 개최, 부산과 마산이 2승1패로 동률을 이뤄 7월 27일 최종 결승전을 벌여 12회 연장전 끝에 마산이 부산을 1-0으로 제치고 우승</p> <p>◇종합 순위=①마산(3승1패) ②부산(2승2패) ③서울(1승2패) ④대구(3패)</p> <p>◇개인상 ▲우수상=이성기(마산) ▲타격상=장종기(서울) ▲미기상=이기역(마산)</p>	
08.07	<p>■조선연식야구협회 총회 8월 7일 오후 2시 대한화재 회의실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임원을 개선</p> <p>△회장=김영창 △부회장=함용화, 장점동 △전무이사=조원형 △이사=박정준(朴正俊), 이규태, 이삼봉, 허성덕, 이희경, 이규태(李奎泰), 신창근(申昌根), 이한용</p>	<p>■08.08 아시안게임 준비 회의 영국 런던에서 아시아 6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준비위원회 회의를 개최, 한국대표로 정항범, 신기준 참석</p> <p>■08.16 베이브 루스 사망 1935년 6월 2일 714홈런과 투수로 94승 46패의 기록을 남기고 은퇴한 뒤 인후암으로 사망</p>
08.20	<p>■제1회 정부수립 경축 전국선발국민학교대회 조선소년체육회 '소년체육사' 공동 주최, 조선체육회 경향신문사 공동 후원으로 8월 20일부터 3일간 서울(장충, 아현, 마포, 동대문국교), 부산(부산사범부속국교, 대신국교), 인천(창영국교)에서 7개 국민학교가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8월 22일 열린 결승전에서 부산사범부속국교와 장충국교가 7회까지 0-0 무승부, 연장 9회초 부산사범부속국교가 3번 공상태(孔相泰)의 3류간 적시타로 1점을 선취, 장충국교를 1-0으로 제치고 우승</p> <p>▲결승전=부산사범부속국교 1-0 장충국교</p> <p>◇개인상 ▲타격상=①정인호(鄭仁浩 동대문 .452)</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②이춘학(李春學 동대문 .500) ③서동준(徐東俊 창원 .400)</p> <p>△부산사범부속국교=헌부길(玄富吉 포수), 배용수(裴龍壽 유격수), 공상태(투수), 추헌출(秋憲出 3루수), 김봉식(金鳳植 좌익수), 장인식(張寅植 2루수), 박차룡(朴車龍 1루수), 이창규(李昌奎 우익수), 배중순(裴鍾順 중견수)</p> <p>△장충국교=엄익수(嚴益洙 포수), 오한수(吳漢洙 2루수), 이학관(李學寬 3루수), 신찬식(申贊湜 투수), 한흥석(韓興錫 1루수), 최태웅(崔泰雄 우익수), 이성학(李盛學 유격수), 이범준(李範俊 중견수), 박영준(朴映俊 좌익수)</p>	 <p>1948년 조선소년체육회와 소년체육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정부 수립 경축 전국선발국민학교야구대회 우승기.(부산공상대씨 제공)</p>
09.01	<p>■한·미친선대회</p> <p>조선야구협회 주최로 9월 1일 서울운동장에서 개막, 11일(부평), 12일(서울) 전한국 선발과 미주둔군이 3차전을 벌인 끝에 미주둔군이 1승2무로 우승</p> <p>▲1차전(서울)=전미군 2-2 전조선 ▲2차전(부평)=전미군 6-5 전조선, ▲3차전(서울)=전미군 3-3 전조선</p> <p>△전조선군=노정호(좌익수), 손희준(1루수), 배성수(중견수), 김영조(포수), 박근식(3루수), 유복룡(우익수), 오윤환(2루수), 유완식(투수), 강대중(유격수)</p>	
09.02	<p>■제6회 한성실업추계연맹전</p> <p>한성실업연맹 주최로 9월 2일부터 9일까지 조흥은행, 체신부, 경성전기, 식산은행, 교통부, 전매청, 서울시청, 조선전업 등 8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청·백 2개 조로 예선전을 치뤄 각조 1위 팀을 결정, 9월 8일 열린 우승 결정전에서 조선운수가 체신부를 3-0로 꺾고 우승</p> <p>◇청조 순위=①체신부, 조흥은행, 전매청(이상 2승1패) ④교통부(3패)</p> <p>◇백조 순위=①조선운수(3승) ②경성전기(2승1패) ③조선전업(1승1무1패) ④식산은행(1무2패)</p> <p>▲우승 결정전=조선운수 3-0 체신부</p>	
09.03	<p>■조선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개명</p> <p>조선체육회가 9월 3일 종로 YMCA 강당에서 임시 평의회를 열고 개정된 헌장을 통과시키고 대한민국 국호에 따라 단체 명칭을 '조선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로 개명, 산하 경기단체도 '대한'으로 개명을 의결, 9월 4일 대한체육회및 대한올림픽위원회 임원 개선</p> <p>▲회장=신익희(申翼熙) ▲부회장=김동성(金東成), 옥선진(玉璿珍)</p>	<p>■09.08 연호(年號)는 단기(檀紀) 국회 제60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연호로 사용하자는 안이 부결되고 단기(檀紀)로 사용하자는 안이 가결</p>
09.13	<p>■제3회 맹호기쟁탈 전국대학선수권대회</p> <p>자유신문사 주최로 9월 13일 동국대, 약학대, 동아대, 성균관대, 서울상대, 연희대 등 6개 대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9월 14일 준결승전을</p>	<p>■09.11 서재필 박사 미국으로 출국</p> <p>아침 7시 숙소인 조선호텔에서 김구(金九), 이용설(李容畵), 손원일(孫元一) 씨의 전송을 받으며 딸과 비서 임창영(林昌榮)</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치른 뒤 9월 28일 열린 결승전에서 성균관대가 서울 상대를 5-1로 제치고 우승</p> <p>▲준결승전=성균관대 5-3 동아대, 서울상대 8-5 동국대 ▲결승전=성균관대 5-1 서울상대</p> <p>◇개인상 ▲타격상=전은성(田銀成 동국대 .444)</p> <p>△성균관대=이길룡(유격수), 김윤환(金潤煥 3루수) 김정환(1루수), 김성채(우익수), 송옥순(宋鈺淳 중견수), 이동규(李東珪 좌익수), 신현철(2루수), 김진용(金振用 포수), 이팔관(李八官 투수)</p> <p>△서울상대=황창옥(黃昌玉 유격수), 황기대(黃基大 중견수), 김창환(金昌桓 포수), 박상규(朴象圭 투수), 김영욱(金榮旭 2루수), 이병곤(李炳坤 1루수), 김상철(金相澈 좌익수), 구창서(具昌書 우익수), 양재현(梁在賢 3루수), 유두현(劉斗鉉 투수)</p> <p>△동아대=정기철(鄭基徹 중견수), 김원찬(金元贊 3루수), 이판춘(李判春 좌익수), 이영희(李英熙 유격수), 홍순식(洪淳植 1루수), 어인영(魚仁泳 2루수), 김우경(金佑經 우익수), 변태열(邊泰烈 포수), 김정식(金禎植 투수)</p> <p>△동국대=문계성(文桂星 우익수), 이범태(李範泰), 심재홍(이상 포수), 홍승일(3루수), 전은성(중견수), 유백룡(柳白龍 좌익수), 백궁록(白宮錄 2루수겸 유격수), 김기수(金基洙 투수), 김종명(金鍾明 투수겸 2루수), 김종택(金鍾澤 1루수겸 투수), 구학림(유격수)</p>	<p>박사와 함께 자동차 편으로 서울을 떠나 인천에서 배편을 이용해 미국으로 출국</p>
09.18	<p>■ 전국실업추계연맹전</p> <p>전국실업연맹 주최로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금융조합, 남선전기, 전매청, 조선운수 등 4개 실업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조선운수가 3전 전승으로 우승</p> <p>◇종합 순위=①조선운수(3승) ②금융조합 남선전기, 전매청(이상 1승2패)</p> <p>△조선운수=강대중(유격수), 정병순, 안봉식(이상 포수), 박현덕(우익수), 박근식(3루수), 홍병창(중견수), 유완식(투수), 김흥수(2루수), 김선웅(좌익수), 유인식(1루수)</p> <p>△금융조합=김행철(金幸徹 유격수), 오윤환(좌익수) 박춘득(1루수), 김영조(포수), 장종기(투수), 허곤(중견수), 임형관(2루수), 이기역(3루수), 윤수용(尹洙鏞 우익수)</p>	
09.24	<p>■ 황금사자기쟁탈 제2회 전국지구대표중등쟁패전</p> <p>대한야구협회 주관 동아일보사 주최로 9월 24일부터 3일간 인천공업, 경남중, 강원농업, 경기중, 부산중, 능인중 등 6개 중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결승전에서 경남중이 경기중을 4-1로 물리치고 대회 2연패</p> <p>▲1회전=경기중 5-0 부산중, 경남중 6-0 강원농업</p> <p>▲준결승전=경기중 11-0 능인중, 경남중 4-0 인천</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공업 ▲결승전=경남중 4-1 경기중 △경남중=정상규(2루수), 박정표(유격수), 허종만(중견수), 조성일(3루수), 장태영(투수), 정태수(1루수), 송주창(포수), 이상재(좌익수), 이일봉(李一鳳 대타), 조성관(우익수) △경기중=노대건(2루수), 김용익(유격수), 이종호(포수), 박현식(투수), 김철(중견수), 심응준(3루수), 양재경(좌익수), 김상진, 김영제(이상 우익수), 이영식(1루수)</p>	 <p>제2회 전국지구대표중등야구쟁패전에서 경기중을 4-1로 꺾고 우승을 차지한 경남중 선수들</p>
09.24	<p>■ 제2회 인천4도시대항대회 인천야구협회 주최로 9월 24일부터 3일간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이 출전한 가운데 인천공설운동장에서 개최, 인천이 3전 전승으로 우승 ▲인천 7-3 대구 ▲부산 2-1 서울 ▲대구8-0 부산 ▲인천 6-2 서울 ▲서울 1-0 대구 ▲인천 9-2 부산</p>	
09.28	<p>■ 서울시대학추계연맹전 서울시대학야구연맹 주최로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연희대, 국학대, 동국대, 서울상대, 성균관대, 약학대, 한양공대 등 6개 대학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9일 열린 결승전에서 성균관대가 서울상대를 11-0으로 격파하고 우승</p>	
10.20	<p>■ 제29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대한체육회 주최로 10월 20일부터 7일간 벌어진 '8.15정부 수립 경축 제29회 전국체육대회'에 18종목에서 3,710명이 출전한 가운데 개최, 10월 26일 끝난 결승전에서 경남중(중등부), 성균관대와 상과대(대학부)가 공동 우승 ▲중등부 준결승전=경남중 6-0 경기중, 광주서중 5-4 휘문고 ▲동 결승전=경남중 7-0 광주서중 ▲대학부 준결승전=상과대 7-6 약학대, 성균관대 9-0 동국대 ▲동 결승전=성균관대 1-1 상과대(공동 우승) ▲일반부 준결승전=서울 15-0 강릉, 광주 2-0 인천 ▲동 결승전=광주 8-5 전서울 ▲연식 일반부 준결승전=대구 8-0 서울, 연안 1-0 화재보험 ▲동 결승전=대구 3-3 연안(공동 우승)</p>	
10.28	<p>■ 4구락부연맹전 동아일보사와 4구락부연맹 공동 주최로 10월 28일부터 4일간 배재, 중앙, 휘문등 3개 구락부가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31일 열린 마지막 경기에서 중앙이 휘문을 7-5로 꺾어 3팀이 각각 1승 1패로 동률, 승자 없이 무승부로 경기 종료</p>	
1949. 03.13	<p>■ 대한야구협회 임원 개선 대한야구협회가 3월 13일 하오 2시 식산은행 본점 회의실에서 전국대의원 총회를 열고 임원을 다음과 같이 개선</p>	<p>■ 02.13 아사아경기연맹 창립 인도 뉴델리에서 9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경기연맹(A.G.F:Asian Games Federation) 창립</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회장=임병직(林炳稷) △부회장=서민호(徐珉濤), 이원용(李源容) △이사장=이영민 △상무이사=손희준 오윤환 △이사=김영석, 함용화, 최문혁, 이경구, 최세원, 최재은, 김태호, 이신득, 배종하(裴宗河), 이정순 △감사=성낙춘, 유복룡 △심판장=손효준</p>	
04.09	<p>■ 제2회 경·인정기대항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4월 9일부터 3일간 서울운동장에서 3일간 개최, 4월 12일 열린 3차전에서 인천이 4-2로 서울을 꺾고 2승1패로 우승 ▲1차전=인천 2-1 서울 ▲2차전=서울 3-1 인천 ▲3차전=인천 4-2 서울</p>	
04.17	<p>■ 부·마(釜·馬)정기대항전 경남야구협회 주최로 부산공설운동장에서 열린 부산·마산정기대항전에서 전마산이 12-2로 전부산을 격파하고 우승</p>	<p>대한야구협회 임원들. 앞줄 왼쪽부터 선우인서, 임병직 회장, 이흥직. 뒤줄 왼쪽부터 한 사람 건너 이효, 손효준, 노정호, 오윤환, 김영석</p>
04.17	<p>■ 한·미친선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4월 17일 오후 2시 서울운동장에서 고려구락부-서울주둔미군(USA FIK)과 1차전을 가진 뒤 6월 5일 2차전을 개최, 고려구락부와 미주둔군이 1승1패로 공동 우승 ▲1차전(4월 17일)=고려구락부 3-2 미군 ▲2차전(6월 5일)=고려구락부 3-6 미군</p>	
04.22	<p>■ 전국대학춘계리그, 성균관대 우승 서울시대학야구연맹 주최로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내 6개대학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성균관대가 5전 전승으로 우승 ◇종합 전적=①성균관대(5승) ②서울상대(4승1패) ③약학대(2승3패) ④한양공대(2승3패) ⑤연희대(1승4패) ⑥동국대(5패) △성균관대=이길룡(유격수), 김윤환(3루수), 김정환(1루수), 김성채(좌익수), 송옥순(우익수), 신현철(2루수), 정기철(중견수), 김진용(포수), 이팔관(투수) △서울상대=황창옥(3루수), 황기대(중견수), 김영욱(좌익수), 박상규(유격수), 유두현(투수), 이병곤(1루수), 이재호(2루수), 구창서(포수), 김상철(우익수)</p>	
05.01	<p>■ 제7회 한성실업춘계연맹전 한성실업연맹 주최로 5월 1일부터 17일간 8개 팀이 A, B조로 나누어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5월 17일 A, B조 수위 팀이 치른 결승전에서 금융조합이 12-3으로 조선운수를 꺾고 우승 ◇A조 종합 순위=①조선운수(6승1패) ②조선전업(이상 5승2패) ③경성전기(2승4패) ④전매국(6패) ▲A조 순위 결정전=조선운수 3-2 조선전업 ◇B조 종합 순위=①금융조합(6승) ②체신부(3승3패) ③서울시청, 조흥은행(이상 1승5패)</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우승 결승전=금융조합 12-3 조선운수 △금융조합=남궁용(우익수), 김수한(2루수), 오윤환(투수), 김영조(3루수), 허곤(중견수), 한명수(1루수), 김윤관(金潤寬 유격수), 전은성(좌익수), 김창복(포수) △조선운수=김흥수(유격수), 박지완(2루수), 정병순(3루수), 홍병창(중견수), 안봉식(포수), 고병호(좌익수), 김원섭(우익수), 김정환(1루수), 배용섭(투수)</p>	
05.15	<p>■한·미친선대회(대학선발·미주둔군)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5월 15, 21일 대학선발과 미주둔군이 친선경기를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대학선발이 2연승으로 우승 ▲1차전=대학선발 6-1 미군 ▲2차전=대학선발 7-2 미군 △대학선발=감독 이영민 및 이팔관(성대), 유두현(상대), 김진용(성대), 안철수(약대), 김정환, 신현철(이상 성대), 이덕영(연대), 김윤환(성대), 박상규(상대), 이길룡(성대), 황기대(상대), 이조영(약대), 김성채, 정기철(이상 성대)</p>	
05.19	<p>■전국실업춘계연맹전 전국실업연맹 주최로 5월 19일부터 5일간 서울운동장에서 경성전기, 금융조합, 남선전기, 조선운수, 조선전업 등 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조선운수와 남선전기가 4전 3승1무로 공동우승 ◇종합 순위=①조선운수, 남선전기(이상 3승1무) ③금융조합(2승2패) ④경성전기(1승3패) ⑤조선전업(4패) ◇개인상 ▲타격상=①배용섭(조선운수 .714) ②홍병창(조선운수 .500) ③박동섭(남선전기 .400)</p>	
05.25	<p>■제4회 전국연식야구대회 대한연식야구연맹 주최로 5월 25일부터 3일간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결승전에서 남대문시장이 대한석유를 1-0으로 누르고 우승 ▲ 결승전=남대문시장 1-0 대한석유</p>	
05.27	<p>■제4회 전국4도시대항대회 경북야구협회 주최로 5월 27일부터 3일간 대구공설운동장에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이 출전한 가운데 개최, 서울군이 3전2승1패로 우승 ▲제1일=대구 7-0 부산, 서울 5-3 인천 ▲제2일=인천 10-6 부산, 서울 9-5 대구 ▲제3일=부산 5-4 서울, 인천 5-5 대구 ◇종합 성적=①서울(2승1패) ②대구, 인천(이상 1승1무1패) ④부산(1승2패) △서울군=감독 함용화 및 김영조, 이용훈(李容薰), 남궁용(南宮鏞), 정병순, 임영태(林永泰), 허곤, 홍병창, 박형만(朴亨萬), 유복룡, 손희준, 이규백, 노정호</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5.29	<p>■ 제4회 전국중등선수권대회 서울시에선 자유신문사 주최로 5월 29일부터 3일간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제4회 전국중등야구선수권대회 서울시에선에서 휘문중이 경기중을 4-2로 물리치고 우승 휘문중 우승</p> <p>▲ 1회전=서울중 8-0 교통중(8회) ▲ 2회전=경동중 6-3 경북중, 휘문중 17-1 서울상(5회 콜드 게임), 경기중 8-2 서울중, 선린중 5-4 배재중</p> <p>▲ 준결승전=휘문중 13-5 경동중, 경기중 4-9 선린중</p> <p>▲ 결승전=휘문중 4-2 경기중</p> <p>△ 휘문중=장영준(좌익수), 장은경(張恩慶 중견수), 백종현(우익수), 강인구(투수), 송준(유격수), 오세용(1루수), 홍순하(洪淳河), 이윤근(李潤根 이상 3루수), 이종익(李鍾益 포수), 박재권(朴在權 2루수)</p> <p>△ 경기중=김용익(유격수), 신해룡(申海龍 투수), 박영환(포수), 강위근(姜甯權 좌익수), 노대건(2루수), 양재경(중견수), 심용준(3루수), 이영식(1루수), 김상진, 김수경(金洙庚 이상 우익수)</p>	 <p>제4회 전국중등선수권대회 서울시에선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휘문중 선수들이 서울운동장에 입장하고 있다.</p> 
06.01	<p>■ 제3회 전국소년선수권대회 대한소년체육회 주최로 6월 1일부터 7일간 성남중, 성동공업, 개성중, 인천상업, 경기중, 의정부농업, 연백농업, 흥국공업, 휘문중, 경신중, 광신상업, 선린상업, 경성공업 등 13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결승전에서 경기중이 경성공업을 2-0으로 물리치고 우승</p> <p>▲ 준결승전=서울공업 6-0 성남중, 경기중 6-0 휘문중 ▲ 결승전=경기중 2-0 서울공업</p>	<p>서울시에선 결승전에서 경기중을 4-2로 제치고 우승, 본선 진출권을 확보한 휘문중 선수들.(이상 휘문중 장영준씨 제공)</p>
06.03	<p>■ 제4회 전국소년소녀체육대회 대한소년체육회 주최로 6월 3일부터 6일간 육상,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송구, 정구 등 7개 종목에 남녀 중학생들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야구경기에 광신상업, 성동공업, 경신중, 경기중, 개성중, 연백농업, 성남중, 선린상업 등 8개 중학이 출전, 결승전에서 광신상업이 경기중을 물리치고 우승</p> <p>▲ 준결승전=경기중 3-1 개성중, 광신상업 2-1 연백농업 ▲ 결승전=광신상업 2-1 경기중</p>	
06.08	<p>■ 제4회 청룡기쟁탈 전국중등선수권대회 자유신문사 주최로 6월 8일부터 6일간 9개 중학 팀(경남, 전주공, 대구상, 동산, 대전사범, 휘문, 부산, 춘천, 광주서중)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13일 끝난 결승전에서 11회 연장전 끝에 광주서중(투수 김양중)이 3연패를 노리던 경남중(투수 장태영)을 2-1로 누르고 첫 우승</p> <p>▲ 준결승전=경남중 2-1 대구상업, 광주서중 4-1 대전사범 ▲ 결승전=광주서중 2-1경남중(연장 11회)</p> <p>△ 광주서중=감독 심양섭 및 김의석(金儀錫 유격수), 이완재(李完宰 2루수), 염형렬(廉炯烈 포수), 정영상(鄭</p>	 <p>제4회 청룡기쟁탈 전국중등야구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주최자인 자유신문사가 제작한 기념 버클. 출전 선수 전원에게 제공.</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泳相 1루수, 정현성(鄭顯成 중견수), 최희준(崔熙俊 3루수), 김용욱(金用郁 우익수), 문택영(文澤永 좌익수) △경남중=감독 고평적 및 허종만(중견수), 정상규(2루수), 장태영(투수), 조성일(3루수), 정태수(1루수), 송주창(포수), 조성관(우익수), 이상재, 이일봉(좌익수), 박정표(유격수) △대구상업=감독 김종경(金鍾慶) 및 박상호(朴相浩 유격수), 윤세혁(尹世赫 포수), 김홍일(金洪一 투수), 문명채(文明彩 중견수), 손상룡(孫相龍 좌익수), 김인길(金麟吉 1루수), 강태환(姜泰煥 2루수) 박춘국(朴春國 우익수), 최중철(崔鍾喆 3루수) △대전사범=오경달(吳慶達 2루수), 오희성(吳熙星 유격수), 유수권(柳壽權 중견수), 김정기(金正基 1루수), 조종식(曹鍾植 투수), 김기형(金基亨 3루수), 신병일(申兵一 우익수), 서근우(徐根宇 포수), 정해숙(鄭海叔 우익수)</p>	 <p>제4회 전국중등선수권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광주서중 주장 정영상이 자유신문사 신익희 사장으로부터 우승기를 받아 들고 있다.</p>
06.16	<p>■ 제4회 월계기쟁탈 전국도시대항대회 대한야구협회 주관 자유신문사 주최로 6월 16일부터 5일간 서울, 인천, 마산, 대전, 대구 등 5개 도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결승전에서 서울이 3-2로 마산을 꺾고 우승 ▲준결승전=서울 2-0 대구, 마산 8-7 인천 ▲결승전=서울 3-2 마산 △서울=노정호(우익수), 유복룡(2루수), 김영조(포수) 흥병창(우익수), 오윤환(1루수), 허곤(중견수), 손희준(1루수), 최종을(타타), 남궁용(좌익수), 정병순(좌익수), 한태동(투수), 김흥수(유격수) △마산=박상권(2루수), 김준호(좌익수), 배성수(중견수), 김행철(유격수), 이성기(투수), 김상대(1루수), 이기역(3루수), 서진택(우익수), 박재영(포수)</p>	 <p>경남중의 3연패를 저지한 광주서중 선수들</p>  <p>1948년 당시의 서울운동장 스코어 보드. 광주서중이 11회말 1점을 뽑아 2-1로 경남중을 제치고 역전 우승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p>
07.15	<p>■ 제3회 경·인정기대항대회 한성실업야구연맹 주최, 대한야구협회 후원으로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인천과 서울을 오가며 1, 2차전으로 나누어 벌어진 1차전(7월 15~16일 인천)에서 1승 1패, 2차전(7월 23~24일 서울)은 서울이 2연승, 통산 3승1패로 서울이 우승 ▲1차전=서울 3-1 인천, 인천 8-6 서울 ▲2차전=서울 3-2 인천, 서울 5-4 인천</p>	
08.14	<p>■ 전서울 흥병창, 광복 후 서울운동장서 첫 홈런 대한야구협회 주최 건국1주년 기념 한·미고문단친선경기(8월 13~14일)에서 전서울군의 흥병창(洪丙昌)이 광복 후 최초로 서울운동장 야구장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기록</p>	
08.20	<p>■ 전연희·미고문단친선대회 연우(延友)체육회 주최로 8월 20일부터 이틀간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1, 2차전에서 전연희대와 미고문단</p>	<p>경남중의 3연패를 저지하고 첫 우승을 차지한 광주서중 선수들이 서울운동장 야구장 외야를 배경으로 야구협회 관계자들과</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이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1승1패 ▲1차전=전연희대 10-8 미고문단 ▲2차전=전연희대 2-4 미고문단 △전연희대=이영민, 서상국, 조병식(趙炳植 이상 투수), 김일배, 차남준(車南俊 이상 포수), 손희준, 정태수(이상 1루수), 이덕영, 백기주(이상 2루수), 오윤환, 정현직(鄭顯稷 이상 3루수), 박창남(朴昌男 유격수), 김종원(金鍾源), 이병하(李炳河 이상 좌익수), 이신득, 허종만(이상 중견수), 박현덕, 김중기(金鍾基 이상 우익수)</p>	기념 사진을 찍었다.
08.26	<p>■제3회 마산4도시대항대회 마산야구협회 주최로 8월 26일부터 3일간 서울, 부산, 대구, 마산 등 4개 도시 팀이 출전한 가운데 마산 중앙구장에서 개최, 서울이 3전 전승으로 우승 ▲서울 18-3 대구 ▲서울 5-3 부산 ▲서울 11-9 마산 ◇종합 순위=①서울(3승) ②마산(2승1패) ③부산(1승2패) ④대구(3패) ◇개인상 ▲우수상=김영조(서울) ▲타격상=홍병창(서울 .500) ▲미기상=배성수(마산)</p>	
09.07	<p>■제1회 쌍룡기쟁탈 전국중등대회 산업신보사 주최로 지방 유일의 전국규모 대회를 9월 7일부터 경남, 능인, 부산 광주서, 동래, 통영수산, 경기, 부산공, 부산상, 대구상, 마산상, 배재, 경남상업중 등 13개 중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 9월 14일 끝난 결승전에서 경남중이 부산상업을 꺾고 우승 ▲준결승전=부산상업 5-1 동래중, 경남중 6-0 부산중 ▲결승전=경남중 20-9부산상업 ◇개인상 ▲우수상=송주창(경남중) ▲타격상=어우홍(魚友洪 동래중 .550) ▲미기상=김정수(金正洙 부산상업) △경남중=감독 고광적(高光籍) 및 정상규(鄭相奎 2루수), 이일봉(李一鳳 1루수), 조성일(趙性一 3루수), 장태영(張泰英 우익수겸 투수), 송주창(포수), 박정표(朴丁杓 유격수), 김무복(金武福), 조성관(趙聖罐 이상 중견수), 이상재(李尙宰 좌익수), 정만오(鄭萬畚 투수겸 우익수)</p>	
09.13	<p>■제4회 맹호기쟁탈 전국대학선수권대회 자유신문사가 뇌염으로 연기를 거듭한 끝에 9월 13일부터 한양대, 상과대, 약학대, 동국대, 연희대, 성균관대, 동아대 등 7개 대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9월 28일 열린 결승전에서 상과대가 성균관대를 2-1로 제치고 우승 ▲준결승전=성균관대 3-2 동아대, 상과대 4-3 동국대 ▲결승전=상과대 2-1 성균관대 ▲타격상=①윤병각(尹炳珪 동국대 .400) ②김상철(서울상대 .300) ③유두현(서울상대 231)</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서울상대=황창옥(포수), 노대건(2루수), 김영욱(유격수), 유두현(투수), 이병곤(1루수), 박성재(朴聖在 우익수) 심응준(3루수), 구창서(중견수), 김상철(중견수)</p> <p>△성균관대=이길룡(유격수), 김윤환(3루수), 송옥순(좌익수), 김성채(중견수), 정경현(투수), 김진용(포수), 송석영(宋錫永 2루수), 양성호(梁成鎬 우익수), 유태신(1루수)</p>	
09.20	<p>■ 제8회 한성실업추계연맹전 한성실업연맹 주최로 9월 20일부터 금융조합, 경성전기, 식산은행, 교통부, 조선운수, 조선전업, 조흥은행, 체신부 등 8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9월 26일 청, 흥 우승 팀이 맞붙은 최종 결승전에서 조선운수가 금융조합을 5-1로 물리치고 우승</p> <p>◇청조 순위=①조선운수(3승) ②조선전업(2승1패) ③교통부(1승2패) ④식산은행(3패)</p> <p>△조선운수=김흥수(유격수), 정관칠(鄭寬七 좌익수), 김종배(金鍾培 2루수), 흥병창(우익수), 정병순(3루수), 이양옥(李亮玉 중견수), 김정환(1루수), 배용섭(투수), 박현식(포수)</p> <p>◇흥조 순위=①금융조합(3승) ②경성전기(2승1패) ③체신부(1승2패) ④조흥은행(3패)</p> <p>▲우승 결승전=조선운수 5-1 금융조합 △금융조합=박상규(유격수), 오윤환(3루수), 허곤(중견수), 김영조(포수), 장종기(투수), 한명수(1루수), 김수한(2루수), 전은성(좌익수), 김윤관(우익수)</p>	 <p>한성실업추계연맹전 결승전에서 흥조 1위 금융조합을 5-1로 꺾고 우승을 차지한 청조 1위 조선운수 선수들</p>  <p>제3회 전국지구대표중등쟁패전에서 우승, 대회 3연패를 차지한 경남중 선수들.</p>
10.01	<p>■ 제3회 황금사자기쟁탈 전국지구대표중등쟁패전 동아일보사 주최로 10월 1일부터 전국에서 7개 중학 팀(경기, 경남, 광주서, 군산, 능인, 동래, 동산중)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4일 끝난 결승전에서 경남중이 동래중을 7-3으로 격파하고 역전 우승, 대회 3연패 달성</p> <p>▲준결승전=경남중 16-0 능인중, 동래중 3-0 동산중 ▲결승전=경남중 7-3 동래중</p> <p>◇개인상 ▲우수상=어우홍(동래중) ▲타격상=황우겸(黃祐兼 .429) ▲미기상=이종규(李琮揆 동래중)</p> <p>△경남중=감독 고광적 및 정상규(2루수), 박정표(유격수), 조성일(3루수), 장태영(투수겸 우익수), 송주창(포수) 이일봉(1루수), 김무복(金武福 중견수), 이상재(좌익수), 조성관(중견수겸 우익수), 정만오(1루수겸 투수)</p>	<p>■ 10.09 뉴욕 양키스, 월드 시리즈 우승 뉴욕 양키스가 브루클린 다저스를 제치고 월드 시리즈 우승, 이후부터 양키스는 62년까지 9차례 우승</p>  <p>전국실업추계연맹전 최종일 경기에서 조선운수를 꺾고 4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한 금융조합 선수들과 관계자들.</p>
10.05	<p>■ 전국실업추계연맹전 전국실업연맹 주최로 10월 5일부터 4일간 서울운동장에서 경성전기, 금융조합, 조선전업, 조선운수, 남선전기 등 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9일 벌어진 최종일 경기에서 금융조합이 조선운수를 6-0으로 꺾고 4전 전승으로 우승</p> <p>◇종합 전적=①금융조합(4승) ②조선운수(3승1패) ③경성전기, 조선전업, 남선전기(이상 1승3패)</p> <p>◇개인상 ▲타격상=흥병창(조선운수)</p>	<p>전국실업추계연맹전 최종일 경기에서 조선운수를 꺾고 4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한 금융조합 선수들과 관계자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10.11	<p>■ 제1회 전국학도체육대회 야구경기 중앙학도호국단 주최로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서울운동장에서 육상, 축구, 야구, 농구 등 4종목에 1천여 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개최, 중학부 경기에서 동래중이, 대학부 경기는 동아대가 각각 우승 ▲중학부 준결승전=동래중 6-1 대전사범, 광주서중 1-0 경기중 ▲중학부 결승전=동래중 3-1 광주서중 ▲대학부 준결승전=성균관대 2-2 동국대(추첨 승), 동아대 2-1 연희대 ▲대학부 결승전=동아대 7-0 동국대</p>	
10.15	<p>■ 제30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대한체육회 주최로 10월 15일부터 21개 종목에 4천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야구경기는 동래중(중학부), 성균관대(대학부), 서울(일반부), 남대문시장(연식 일반부)가 우승 ▲중등부 준결승전=동래중 6-4 대구상, 휘문중(기권승) 0-X 광주서중 ▲동 결승전=동래중 15-3 휘문중 △동래중=감독 한경열(韓璟悅) 및 박내용(朴來用 중견수), 이종규(좌익수), 백만수(白萬壽 포수), 백기수(白基守 유격수), 어우홍(투수), 이종대(李鍾大 1루수), 이승우(李承雨 우익수), 백기우(白基右 대타), 안영필(安永弼 3루수), 곽성호(郭性鎬 2루수) ▲대학부 준결승전=성균관대 4-1 동국대, 한양공대 7-3 서울상대 ▲동 결승전=성균관대 10-4 한양공대 ▲일반부 준결승전=인천 4-0 대전, 서울 7-0 강릉(7회) ▲동 결승전=서울 7-6 인천 ▲연식 일반부 준결승전=연안 4-2 인천, 남대문시장 7-3 함남 ▲동 결승전=남대문시장 4-2 연안</p>	<p>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제1회 학도체육대회와 제3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쥔 동래중 선수들. 앞줄 왼쪽부터 이종규, 이승우, 어우홍, 안영필. 가운데 줄 왼쪽부터 백기수, 박내용, 백만수, 백기우, 이종대, 곽성호. 뒷줄 왼쪽 한 사람 건너 박차갑 야구부장, 한경열 감독, 훈련교관.</p>
10.28	<p>■ 제4회 전국대학추계리그 대한학생야구연맹 주최로 10월 28일부터 성균관대, 약학대, 연희대, 한양공대, 동국대, 동아대, 국학대등 7개 대학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연희대가 4승1무로 우승 ◇종합순위=①연희대(4승1무) ②한양공대(4승 1패) ③동아대, 국학대(이상 2승3패) ⑤약학대(1승3패1무) ⑥성균관대(1승4패) ⑦동국대(5패) ◇개인상 ▲투수상=구학림(동국대) ▲타격상=강인구(연희대) △연희대=허종만(許宗萬 중견수), 김종원(金鍾源 좌익수), 이덕영(李德永 유격수), 강인구(姜仁求 우익수), 이병하(李炳河 투수겸 3루수), 정태수, 정윤균(丁昇均 이상 1루수), 변종배(邊鍾培 포수), 박창남(2루수), 조병식(趙炳植 투수)</p>	<p>■ 10.29 대한체육회장 신흥우 제15대 대한체육회 회장겸 제4대 대한올림픽 위원장에 신흥우(申興雨) 취임</p>
11.20	<p>■ 시즌 업 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11월 20일부터 2일간 중학및 일반-대학선발 경기를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1월 21일 배재중과 일반및 대학선발이 공동 우승한 가운데 폐막 ▲중학경기=배재중 2-1 휘문중 ▲일반·대학경기=일</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반 4-4 대학선발 ◇대학선발 △감독 김일배 △투수=조병식, 이병하(이상 연대), 유우호(劉禹鎬 약대), 구학림(동대) △포수=김진용(성대), 변종배(연대) △1루수=정태수, 정승균(이상 연대) △2루수=이길룡(성대) 박창남(연대) △3루수=김윤환(성대) △유격수=이덕영(연대) △외야수=허종만, 강인구(이상 연대), 김대일, 변응원, 송옥순(이상 성대), 이조영(약대), 정경현(성대), 최진영(한대), 이동인(李東仁 국대)	
1950. 02.24	■ 대한연식야구협회 정기총회 대한연식야구협회가 2월 24일 하오 5시 회현동 협회 사무실에서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고 임원을 개선했다. △회장=이갑수(李甲秀) △부회장=함용화, 장점동 △전무이사=조원형 △이사=이규태, 박정준, 이규동 이삼봉, 허성덕, 이희경, 조병주, 신창근, 박응주, 김동우, 유호창, 김영목, 고원순, 윤길구, 이한용	
02.25	■ 대한야구협회 전국대의원대회 대한야구협회가 2월 25일 조선식산은행에서 제4회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임원을 개선했다. △회장=임병직 △부회장=이원용, 서민호 △이사장=이정순 △상무이사=금철(琴澈), 오윤환, 유복룡 △이사=김영석, 최재은, 김태호, 이영민, 함용화, 민용규, 이경구, 최세원, 박인갑(朴仁甲), 최문혁 △감사=성낙춘, 이신득	
04.10	■ 춘계소년리그 대한소년체육회 주최로 4월 10일부터 18일까지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결승전에서 광신상업이 경기중을 4-2로 물리치고 우승 ▲준결승전=광신상업 6-2 휘문중, 경기중 7-5 경기중 ▲결승전=광신상업 4-2 경기중	2월 25일 조선식산은행 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야구협회 제4회 전국대의원 대회 모습.
04.15	■ 제4회 경·인정기대항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서울이 3전 전승으로 3년 연속 우승 ▲1차전(4월 15일)=배재중 8-3 인천상업(오픈 게임), 전서울군 8-1 전인천군 ▲2차전(4월 16일)=배재고 6-8 휘문고(오픈 게임), 전서울군 6-1 전인천군	■ 04.20 한국, 보스톤 마라톤 제패 제54회 보스톤 마라톤대회에서 함기용(咸基鎔 2.32.39) 송길윤(宋吉允 2.32.58) 최윤칠(崔崙七 2.39.47) 등이 1, 2, 3위로 입상
05.06	■ 제9회 한성실업춘계연맹전 한성실업야구연맹 주최로 5월 6일부터 9일간 금융조합, 경성전기, 식산은행, 교통부, 조선전업, 조선운수 등 6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금융조합이 5전 전승으로 우승 ◇종합 순위=①금융조합(5승) ②조선운수(4승1패) ③식산은행 조선전업(이상 2승3패) ⑤교통부, 경성전기(이상 1승4패)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5.19	<p>■ 제5회 월계기쟁탈 전국도시대항대회 자유신문사 주최로 5월 19일부터 5일간 마산, 대전, 부산, 광주, 대구, 인천, 서울 등 7개 도시대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5월 23일 열린 결승전에서 서울이 9-2로 부산을 격파하고 우승 ▲준결승전=서울 11-0 대전(5회), 부산 2-0 대구(14회) ▲결승전=서울 9-2 부산</p>	
05.21	<p>■ 한 경기 최소 투구(74구) No Hit No Run 제5회 전국도시대항대회(5월 19~23일 서울운동장)에 대구군 투수로 등판한 김찬석(金瓚錫)이 인천군을 상대로 90닝 동안 29타자를 상대로 74구를 던진 끝에 탈삼진 10개에 볼넷 2개 만을 허용한 끝에 1-0으로 No Hit No Run 기록</p>	
05.22	<p>■ 세계야구대회 준비회의 참석 대한야구협회가 9월 일본 도쿄에서 열릴 세계대회 준비회의에 이영민, 김영석, 오윤환 이사를 파견</p>	
05.24	<p>■ 제5회 춘계연식야구대회 대한연식야구협회 주최로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재무부, 강남구락부, 조선운수, 온하(溫河)공업, 중앙청, 서울시청, 태극당, 대한인쇄 등 8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5월 26일 끝난 결승전에서 태극당이 조선운수를 6-4로 물리치고 우승 ▲준결승전=조선운수 5-0 재무부, 태극당 4-2 중앙청 ▲결승전=태극당 6-4 조선운수</p>	
05.26	<p>■ 전국실업춘계연맹전 전국실업연맹 주최로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운동장에서 금융조합, 남선전기, 조선운수등 3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더블 리그로 거행, 조선운수가 3승1패로 우승 ◇종합 순위=①조선운수(3승1패) ②금융조합(2승1무1패) ③남선전기(1무3패)</p>	<p>■ 06.08 레드삭스 최대 점수 차 승리 보스턴 레드삭스가 홈 구장인 팬웨이 파크에서 세인트루이스 브라운스를 29-4로 격파, 20세기 최다 점수 차 승리</p>
06.15	<p>■ 제5회 청룡기쟁탈 전국중등선수권대회 자유신문사 주최로 6월 15일부터 4일간 개성상업, 동래중, 대구상업, 동산중, 배재중, 광주서중, 대전사범, 등 7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18일 열린 결승전에서 대구상업이 동래중을 1-0으로 누르고 대회 첫 우승 ▲준결승전=대구상업 4-1 배재중, 동래중 15-4 광주서중 ▲결승전=대구상업 2-1 동래중 ◇개인상 ▲우수투수상=최명보(崔明甫 대구상) ▲우수선수상=문태성(文泰星 대구상) ▲타격상=백만수(白萬壽 동래중) △대구상업=감독 김중경(金鍾慶) 및 윤세혁(尹世赫 중견수), 손상룡(孫相龍 좌익수), 박상호(朴相浩 유격수겸 투수), 문태성(포수), 최명보(투수겸 3루수), 강태환(姜泰煥 2루수), 이문조(李文助 3루수겸 유격수), 윤</p>	 <p>제5회 전국중등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대구상업 주장이 우승상장을 받아 들고 있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태호(尹泰浩 우익수), 김인길(金麟吉 1루수) △동래중=감독 한경열(韓璟悅) 및 이종규(李琮揆 좌익수), 안영필(安永弼 3루수), 백기우(白基右 우익수), 백만수(포수), 김원규(金元珪 중견수), 어지홍(魚之洪 투수), 김종대(金鍾大 1루수), 설진(薛鎭 2루수), 김영석(金榮錫 유격수)</p>	<p>■뉴욕야구 전성시대 1959년까지 10년 동안 뉴욕 3개 팀이 도합 14차례 월드시리즈에 진출, 5차례 '지하철시리즈'를 거행, 뉴욕 양키스가 6차례, 뉴욕 자이언츠와 브루클린 다저스가 각각 한 차례 우승</p>
06.20	<p>■필리핀야구단초청경기 대한야구협회 서울신문사 공동 초청으로 6월 19일 내한,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전실업 등 7개 팀과 경기를 가진 끝에 3승2무2패를 기록 ▲1차전(6월 20일 서울)=필리핀 7-2 전실업 ▲2차전(6월 21일 서울)=필리핀 4-10 전한국 ▲3차전(6월 23일 대구)=필리핀 4-4 전육군 ▲4차전(6월 25일 부산)=필리핀 3-2 전부산 ▲5차전(6월 26일 인천)=필리핀 2-3 전인천 ▲6차전(6월 27일 서울)=필리핀 6-6 전국군 ▲7차전(6월 28일 서울)=필리핀 1-3 전한국 △전한국=성기영(2루수), 김정환(1루수), 장태영(중견수), 박현식(좌익수), 김희련(3루수), 진원주(우익수), 김양중(우익수겸 투수), 허호준, 김영조(이상 포수), 서동준(투수겸 우익수), 김진영(유격수)</p>	<p>■06.25 한국전쟁 발발 6월 25일 새벽 북한 인민군이 3·8선을 넘어 남침, 6월 28일 새벽 3시 육군공병감 최창식(崔昌植)대령이 한강 인도교를 폭파</p>
06.22	<p>■제2회 전국학도체육대회 야구경기 문교부 중앙학도호국단 공동 주최로 6월 22일부터 3일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우천으로 준결승(대구상업-동래중) 경기를 25일로 연기, 새벽 6.25전쟁 발발로 모든 경기를 중지</p>	
06.28	<p>■이팔룡, 일본 첫 Perfect Game 수립 요미우리(讀賣) 자이언츠 투수로 이팔룡이 아오모리(靑森)구장에서 열린 니시니혼(西日本) 파이레츠전에서 27타자를 상대로 삼진 7개를 잡은 끝에 4-0으로 일본 프로야구 사상 첫 퍼펙트 게임(Perfect Game·완전게임) 수립. ▲부산 태생으로 1960년 일본에 귀화한 이팔룡(李八龍=일본명 후지모토 히데오·藤本 英雄)은 1955년 200승(87패)을 올린 뒤 은퇴, 367경기 가운데 227경기를 완투하며 63경기에서 완봉승, 통산 방어율 1.90 및 시즌 방어율 0.73(1943년)은 일본 프로야구 역대 최고 기록, 1997년 심근경색으로 사망</p>	<p>일본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퍼펙트 게임을 수립한 이팔룡(李八龍)</p>
1951. 09.05	<p>■재일교포 가네다(金田正一) No Hit No Run 기록 일본 프로야구 고쿠데스(國鐵) 투수로 한큐(阪急) 32타자를 상대로 삼진 4개를 잡으며 볼넷 5개를 허용한 끝에 1-0으로 이겨 노히트 노런 기록</p>	<p>■03.04 제1회 아시아경기대회 3월4일부터 8일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 한국은 6.25전쟁으로 불참</p>
10.27	<p>■제32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대한체육회가 10월 27일부터 5일간 6.25전쟁에서 수복된 전남 광주공설운동장에서 야구를 비롯한 15</p>	<p>■06.17 대한체육회장에 조병옥(趙炳玉) 임시 수도 부산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평의회를 열고 제16대 대한체육회 회장 및 제5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에 조병</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종목에 2,239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 야구는 고등부(광주고-광주공고)와 일반부(조선운수-인천군)에 각각 2팀이 출전, 광주고와 조선운수가 우승(스코어 미상) ▲고등부 결승전=광주고 0-× 광주공고 ▲일반부 결승전=조선운수 0-× 전인천</p>	<p>옥(趙炳玉)을 선임</p> <p>■09.13 카디널스 변칙 더블 헤더 비로 연기된 경기를 치르기 위해 오후에는 자이언츠, 밤에는 브레이브스 등 두 팀을 상대하는 변칙 더블 헤더를 거행</p>
<p>1952. 03.16</p>	<p>■대한야구협회 전국대의원 총회 대한야구협회가 임시 수도 부산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제6회 전국대의원 총회를 열고 임원을 개설했다 △회장=서민호 △부회장=이홍직(李鴻植), 김예준(金禮俊) △이사장=이영민 △상무이사=금철, 오윤환, 노정호 △이사=김정렬(金正烈), 박인갑, 이경구, 최세원, 배영암, 김태호, 김영석, 최재은, 김재송(金載松), 손희준, 민용규 △감사=이신득, 성낙춘</p>	<p>■01.19 동계체육대회 대한체육회 주최로 수원 서호에서 제32회 전국체육대회 동계대회 개최</p> 
<p>10.04</p>	<p>■제7회 전국도시대항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10월 4일부터 피난지 대전 철도 구장에서 부산, 인천, 광주, 대구, 전주, 서울, 대전 등 7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개최, 10월 6일 열린 결승전에서 서울이 광주를 9-3으로 꺾고 우승 ▲1회전=부산 10-3 전주, 서울 6-3 대전, 인천 8-4 대구(연장 12회) ▲준결승전=광주 4-0 부산, 서울 2-1 인천 ▲결승전=서울 9-3 광주 ◇개인상 ▲우수상=배용섭(서울) ▲타격상=①김흥수(광주) ②심연택(인천) ▲미기상=정관철(서울)</p>	<p>대한야구협회 서민호 회장(왼쪽에서 두번째) 그 다음이 선우인사)</p> <p>■07.19 제15회 올림픽대회 핀란드 헬싱키에서 7월 19일부터 8월 3일까지 69개국에서 5천2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 41명이 참가한 한국은 동메달 2개로 종합 37위</p>
<p>10.18</p>	<p>■제33회 전국체육대회야구경기 대한체육회 주최로 야구경기는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고등부에서 7개 고교, 일반부에서 6개 팀 및 연식야구에서 2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중학 운동장에서 개최, 고등부에서 인천고, 일반부에서 인천이 각각 우승 ▲고등부 준결승전=인천고 9-3 부산일상, 경기고 3-2 광주고 ▲동 결승전=인천고 13-2 경기고 ▲일반부 준결승전=인천 11-2 남선전기, 금융조합 10-4 조선운수 ▲동 결승전=인천 5-1 금융조합 ▲연식 일반부 결승전=조선방적 9-3 서울</p>	<p>■07.24 아시아경기연맹 가입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제2회 AGF(아시아 경기연맹)에서 한국을 정회원국으로 승인</p> <p>■09.27 대한체육회장 이기봉 제17대 대한체육회 회장겸 제6대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 이기봉(李起鵬) 취임</p>
<p>1953. 03.22</p>	<p>■대한야구협회 제7회 전국대의원 총회 대한야구협회가 임시 수도인 부산시 국제전신전화국 회의실에서 7차 전국대의원 총회를 열고 임원을 개설했다 △회장=이홍직 △부회장=박서만(朴西萬) △이사장=이영민 △상무이사=오윤환, 노정호, 김재송, 모무열 △이사=김영석, 이경구, 최재은, 최세원, 손희준, 금철, 박인갑, 김정렬, 김태호, 배영암, 이신득, 박홍서(朴弘緒), 모무열(毛無說), 조점룡, 윤재준, 김용원(金容源), 성낙춘 △감사=민용규</p>	<p>■01.17 동계체육대회 제33회 전국체육대회 동계대회를 청주에서 개최</p> <p>■05.06 홀로먼 데뷔전서 노히트노런 세인트루이스 브라운스의 투수 보보 홀로먼이 메이저리그 사상 처음으로 데뷔전에서 필라델피아 필리스를 상대로 노히트노런을 기록</p>
<p>08.01</p>	<p>■제5회 쌍룡기쟁탈 전국고교대회 6.25전쟁으로 2, 3, 4회를 중지한 뒤 4년 만에 부활,</p>	<p>■6.18 메이저리그 한 이닝 3안타 보스턴 레드삭스의 진 스티븐스가 메이저</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국제신보사 주최로 8월 1일부터 부산상고, 동래고, 경남고, 마산고, 진주고, 경남상고, 경기고, 부산고, 대전고, 인천고 등 10개 고교가 출전한 가운데 개성중 운동장에서 개최, 8월 5일 열린 결승전에서 인천고가 경남고를 16-7로 격파하고 우승</p> <p>▲준결승전=경남고 13-4 경남상고 ▲인천고 13-5 부산고 ▲결승전=인천고 16-7 경남고</p> <p>◇개인상 ▲우수상=진원주(陳元柱 인천고) ▲타격상=서동준(徐東俊 인천고) ▲미기상=정병섭(丁炳燮 경남고)</p>	<p>리그 사상 유일하게 한 이닝에서 3안타를 기록</p> <p>■07.27 한국전쟁 휴전협정 조인 7월 27일 오전 10시 7분 판문점에서 휴전협정 조인식. 3년 1개월간 계속된 한국전쟁 휴전</p>
08.15	<p>■광복절 경축 한·미친선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8월 15일 미군선발군과 한국선발군이 서울운동장에서 단판 승부로 경기를 가졌으나 1-1로 무승부</p> <p>△한국선발군=감독 오윤환 및 유완식, 배용섭, 어우홍(이상 투수), 김영조, 송주창, 김창환(이상 포수), 유인식, 김정환(이상 1루수), 이덕영, 김선웅(이상 2루수), 박근식(3루수), 백기주(유격수), 노정호(좌익수), 홍병창(중견수), 박현덕, 이팔관(이상 우익수)</p>	 <p>제5회 전국고교대회에서 첫 우승을 낚은 인천고 서동준 투수</p>
08.27	<p>■제2회 광복절 경축기념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8월 27일부터 서울시 고교 팀과 실업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8월 29일 끝난 결승전에서 고교는 선린상고가 경동고를 9-7로 제치고 우승, 리그전으로 치른 실업연맹전에선 금융조합이 2승1무로 우승</p> <p>▲고등부 1회전=경동 10-4 경기 ▲고등부 2회전=선린상고 8-1 성남고(7회) ▲고등부 결승전=선린상고 9-7 경동고</p> <p>▲실업부 1회전=조선전업 1-0 남선전기, 금융조합 1-1 교통부 ▲실업부 2회전=교통부 12-3(7회), 금융조합 3-2 조선전업 ▲실업부 3회전=조선전업 8-6 교통부, 금융조합3-1 남선전기(일몰 기권 패)</p> <p>◇종합 순위=①금융조합(2승1무) ②조선전업(2승1패) ③교통부(1무2패) ④남선전기(3패)</p>	 <p>제2회 광복절기념대회에서 금융조합에 패해 준우승에 그친 조선전업 선수들</p>
09.01	<p>■대한연식야구협회 대한체육회 정식가입 대한연식야구협회가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로 정식 가입</p>	
09.19	<p>■제8회 전국중·고교야구선수권대회 서울시예선 조선일보사 주최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경기, 경동, 경북, 경신, 선린상고 등 5개 고교가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9월 21일 끝난 결승전에서 선린상고가 경기고를 10-5로 격파하고 우승</p> <p>▲준결승전=선린상고 10-0 경북고(7회 콜드 게임), 경기고 10-9 경동고 ▲결승전=선린상고 10-5 경기고</p> <p>△선린상고=전희성(全熙成 2루수), 신성철(申晟澈 우익수), 김효창(金孝昌 포수), 이필균(李弼均 유격수), 박종</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해(朴鍾海 1루수), 김재근(金在根 3루수), 신창식(申昌湜 투수), 김영수(金永壽 중견수), 한정노(韓鼎魯 좌익수) △경기도=독고우진(獨孤祐進 2루수), 정영섭(丁永燮 유격수), 최재선(崔在善 포수), 정태홍(鄭泰鴻 좌익수), 배병진(裴炳鎭 투수), 손익현(孫翼鉉 중견수) 정창근(鄭昌根 1루수), 김형기(金亨基 2루수), 이규홍(李圭泓), 방석훈(方錫勳 이상 3루수), 윤종석(尹鍾石 우익수)</p>	<p>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p> 
09.23	<p>■ 제8회 전국도시대항대회 대한야구협회와 대구일보사 공동 주최로 9월 23일부터 3일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마산 등 6개 도시가 출전한 가운데 대구종합운동장에서 개최, 9월 25일 열린 결승전에서 인천이 마산을 6-2로 격파하고 우승 ▲결승전=인천군 6-2 마산군</p>	<p>대구에서 열린 제8회 도시대항대회에서 인천군에 눌러 준우승에 그친 마산군 선수들(마산 김성길씨 제공).</p>
10.01	<p>■ 제8회 청룡기쟁탈 전국고교선수권대회 6.25전쟁으로 6, 7회를 중지, 제8회 대회부터 자유신문사에서 주최권을 인수한 조선일보사 주최로 10월 1일부터 4일간 전년도(50년) 우승 팀 대구상고를 비롯해 전주, 대전, 광주, 인천, 선린상, 경남상, 경남고 등 8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입장식에서 대구상고 김종경(金鍾慶) 감독이 6.25전쟁 중 3년간 보관한 우승기와 우승 트로피를 전 대회 우승 팀(대구상고) 주장 서영무(徐永武)가 반납 ▲준결승전=인천고 13-2 대구상고, 선린상업 5-4 경남상고 ▲결승전=인천고 5-1 선린상업 ◇개인상 ▲타격상=①이필균(선린상업) ②김윤근(金潤根 인천고) ③안두칠(安斗七 경남상업) ▲미기상=김흥기(金興基 인천고) ▲수비상=박종해(선린상고) △인천고=진호영(秦鎬永 우익수), 김영복(金永福 3루수), 김광택(金光澤 포수), 진원주(좌익수), 조영한(趙榮漢 2루수), 김흥기(중견수), 주세현(朱世鉉 유격수), 김윤근(1루수), 서동준(투수) △선린상업=전희성(2루수), 신성철(우익수), 김효창(포수), 이필균(유격수), 박종해(1루수), 김재근, 박진원(朴鎭源 이상 3루수), 신창식(투수), 김영수(중견수), 구찬금(具贊金), 한정노(이상 좌익수)</p>	<p>서울 환도 후 조선일보사 주최로 처음 열린 제8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에서 시구를 한 대한체육회 이기봉 회장. 그 옆에서 이신득(왼쪽) 주심이 주쳐보고 있다.</p> 
10.17	<p>■ 제34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대한체육회 주최로 10월 17일부터 6일간 4,980명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야구경기는 고등부 5개 고교, 일반부 9개 팀을 비롯해 연식야구 중등부에서 8개 중학, 일반부에서는 2개 팀만 출전, 인천고(고등부), 금용조합(일반부), 대신중(연식 중등부), 동양방직(연식 일반부)이 우승 ▲고등부 준결승전=인천고 7-1 부산제일상고, 선린상고 5-1 대전사범 ▲동 결승전=인천고 2-0 선린상업 ▲일반부 준결승전=인천 4-3 조선운수, 금용조합</p>	<p>인천야구 전성시대의 막을 연 인천고 선수들. 인천고는 이 해 쌍룡기, 청룡기, 전국체전 등 3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 왼쪽부터 조영한, 서동준, 김광택, 이기상, 김일겸, 김흥기, 박종규, 한 사람 건너 주세현, 앞줄 왼쪽부터 한 사람 건너 김용택, 김영복, 한학수, 한 사람 건너 진호영.</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10-3 조선전업 ▲동 결승전=금융조합 7-2 인천 ▲중학부 연식 준결승전=대신중 8-7 성남중, 동인천 중 8-4 경기중 ▲동 결승전=대신중 5-0 동인천중 ▲일반부 연식 결승전=인천 동양방적 5-0 대구 조 선방적	
1954. 03.14	■ 대한야구협회 전국대의원 총회 대한야구협회가 3월 14일 부산 남선전기 회의실에서 제8회 전국대의원 총회를 열고 임원을 개설했다 △회장=이흥직 △부회장=이영민, 손효준 △이사장 =김영석 △이사=최재은, 이경구, 금철, 최세원, 박인 갑, 이신득, 박홍서, 오윤환, 손희준, 노정호, 김일배, 조점룡, 모무열, 김재송 △감사=김수환(金脩桓), 민 용규	■ 01.30 동계체육대회 제34회 전국체육대회 동계대회를 한강 특 설 링에서 개최 ■ 02.12 한국체육상 제정 서울신문사가 국내 최초로 '한국체육상' 을 제정하고 2월 12일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제1회 시상식을 거행(야구 부문 수상자 무)
04.24	■ 제17회 한성실업춘계연맹 한성실업야구연맹 주최로 4월 24일부터 5일간 금융 조합, 조선방적, 조선운수, 조선전업, 체신부 등 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선린상고 운동장에서 개최한 뒤 대회를 폐지 ◇종합 순위=①금융조합(3승1무) ②조선운수(3승1 패) ③조선방적(2승2패) ④조선전업(1승1무) ⑤체신 부(4패)	■ 04.13 KOC상임위원 선임 △위원장=이기봉 △부위원장=이원순, 최 순주 △상임위원=이상백, 현정주, 정상희, 김명학
05.17	■ 아시아야구연맹 창립 총회 대한야구협회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 4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아시아 야구연맹 창립 총회에 한국대표로 이흥직(협회 회장) 이영민(협회 부회장)을 파견, 매년 아시아대회를 회원 국에서 개최키로 합의, 첫 대회는 12월 필리핀 마닐라 개최를 결정	■ 05.01 제2회 아시아경기대회 5월 1일부터 9일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18 개국 960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개최. 한국은 6개 종목에 58명 출전, 금메달 8개 로 3위 ■ 05.05 최충식(崔忠植) 육상 신기록 제2회 아시아경기대회 육상 1만m 경주에 서 최충식이 33분0초6으로 대회 신기록 수립
05.24	■ 제5회 경·인정기대항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5월 24일부터 이틀간 서울운동 장에서 개최, 서울이 2전 전승으로 우승 ▲1차전=전서울 14-0 전인천 ▲2차전=전서울 9-4 전인천 △전서울=단장 선우인서, 감독 오윤환, 김일배, 주장 =김영조, 주무=모무열, 선수=배용섭, 한태동, 이팔관, 김성수(金聖秀 이상 투수), 장석화, 김영조(이상 포수), 어우홍(1루수), 박상규, 이태신(이상 2루수), 김계현(3 루수), 강대중(유격수), 노정호, 홍병창(이상 좌익수), 조성일(중견수), 정관철(우익수) △전인천=단장 김재곤, 부단장=박홍서(朴弘緒), 주 무 박문원(朴文遠), 감독 박현덕, 조감독 김선웅, 선 수 유완식, 박현식, 서동준(이상 투수), 한득봉, 김광 택(이상 포수), 김정환, 유인식(1루수), 한광희(2루 수), 박근식(3루수), 이덕영(유격수), 김선웅(좌익수), 심연택(중견수), 박현덕, 진원주, 최진영(崔進永 이상 우익수)	 <p>경·인대항대회에서 우승한 인천야구의 숨 은 주역들. 왼쪽부터 유완식, 경기야구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재곤(金載坤) 국회의 원, 김선웅 인천고 감독</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5.27	<p>■ 제9회 전국중고교선수권대회 서울시예선 조선일보사 주최로 5월 27일부터 4일간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5월 30일 열린 결승전에서 선린상고가 경동고를 10-2로 격파하고 본선 진출권 확보 ▲준결승전=선린상 11-0 경신고(7회 콜드 게임), 경동고 9-8 경기고 ▲결승전=선린상 10-2 경동고</p>	
05.28	<p>■ 제2회 경남연식대회 국제신보사 주최로 5월 28일부터 3일간 6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마산상고 운동장에서 개최, 5월 30일 열린 결승전에서 마산 체신국이 동양주정을 6-3으로 물리치고 우승 ▲1회전=마산남전 4-1 산업은행, 진해공창 5-0 부산남전 ▲준결승전=마산우체국 2-0 마산남전, 동양주정 12-5 진해공창 ▲결승전=마산우체국 6-3 동양주정</p>	
06.07	<p>■ 자유중국초청경기 파견 대표선수선발전 대한야구협회가 대만 파견 선수선발을 위해 6월 7일부터 9일까지 백, 홍군으로 나눠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홍군이 2승 1패로 우승 ▲1차전=홍군 6-2 백군 ▲2차전=백군 9-5 홍군 ▲3차전=홍군 9-1 백군 △홍군=감독 손효준, 주장 김영조(포수) 및 유완식, 김양중, 이팔관, 서동준(이상 투수), 어우홍(1루수), 이덕영(2루수), 박근식(3루수), 강대중(유격수), 노정호(좌익수), 홍병창(중견수), 정관철(우익수) △백군=감독 이영민, 주장 장석화(포수) 및 박현식, 배용섭, 한태동, 정만오(이상 투수), 김정환(1루수), 김계현(2루수), 이기역(3루수), 백기주(유격수), 박상규(좌익수), 배성수(중견수), 허곤(우익수)</p>	 <p>6월 20일 자유중국(대만) 원정을 앞두고 주한 미군선발팀과 환송경기를 가진 대표팀 선수들. 2차전(6월27일)을 마친 뒤 7월 5일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협회 사정으로 중지.</p>
06.10	<p>■ 제9회 청룡기쟁탈전국중고교선수권대회 조선일보사 주최로 6월 10일부터 전주고, 대구상업, 대전공고, 인천고, 동산고, 경남고, 선린상업 등 7개 고교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14일 끝난 결승전에서 인천고가 선린상고를 5-2로 물리치고 우승 ▲준결승전=인천고 7-5 대구상고, 선린상고 5-0 경남고 ▲결승전=인천고 5-2 선린상고 ◇개인상 ▲우수상=박진원(朴鎭源 선린상고) ▲타격상=①조영한(趙榮漢 인천고) ②김용환(金容煥) 정병섭(이상 경남고) ④한학수(韓鶴洙 인천고) ⑤서영무(대구상고) ▲본루타상=박창룡(朴昌龍 대구상고) 손명석(孫命石 경남고) ▲미기상=손명석(경남고) △인천고=감독 김선웅 및 김영복(金永福 3루수), 한학수(포수), 진호영(중견수), 조영한(2루수), 김진영(金振榮 유격수), 김흥기(1루수), 이강호(李康鎬 우익수), 박종규(朴鍾奎 좌익수), 김일겸(金一謙 투수) △선린상고=감독 노정호 및 한정노(韓鼎魯 1루수) 최</p>	 <p>선린상고를 꺾고 대회 2연패를 달성한 인천고 선수들과 김선웅 감독(앞줄 왼쪽 양복 입고 앉은 이) 및 김두한 부장(김 감독 옆)</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석일(2루수), 이규일(포수), 박진원(3루수), 김재근(金在根 유격수), 신창식(申昌湜 투수), 김창성(우익수), 김형태(중견수), 전희성(全熙成 좌익수)	
06.10	■ 자유중국 원정야구단 대표선수 최종선발전 대한야구협회가 6월 10일 오후 6시 대표선수 명단 발표하고 6월 13일부터 합숙훈련, 대만 출발 7월 5일로 확정 △선수단=이영민(단장), 손효준(감독), 유완식, 박현식, 정만오, 김양중(이상 투수), 김영조, 장석화(이상 포수), 김정환(1루수), 박상규, 이덕영(이상 2루수), 박근식(유격수), 강대중, 이기역(이상 유격수), 노정호(좌익수), 흥병창, 정관철(이상 중견수), 허곤(우익수)	■ 06.16 월드컵 본선 첫 진출 스위스에서 열린 월드컵 축구대회에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본선에 진출
06.18	■ 제1회 전국초청도시대항대회 전남일보사 주최로 6월 18일부터 3일간 서울, 부산, 대전, 광주군이 출전한 가운데 광주서중 운동장에서 개최, 6월 20일 광주군이 3전 전승으로 우승. 서울, 부산, 대전군이 1승2패로 공동 준우승 ◇개인상 ▲타격상=어우홍(전남경찰국장배), 염형렬(대회장배) ▲수비상=심양섭(금융조합 지부장배), 장종기(화순광업소 소장배)	 <p>전남일보사 주최 제1회 전국초청도시대항 대회 기념 패너트</p>
06.20	■ 자유중국원정야구단 환송 한·미친선경기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6월 20, 27일 서울운동장에서 대만원정야구단과 주한미군선발 팀이 친선경기를 개최, 원정야구단이 1승1무로 승리를 거뒀으나 대만원정은 협회 사정으로 취소	
06.27	■ 제1회 대통령친서우승기쟁탈 전국중학선수권대회 대한연식야구협회 주최로 6월 27일부터 전국에서 10개 중학 팀(한밭, 배재, 선린, 대신, 동인천, 경동, 경기, 군산, 경남, 동산중)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7월 1일 열린 결승전에서 대신중이 경남중을 1-0으로 제치고 우승 ▲준결승전=경남중 3-0 경기중, 대신중 1-0 한밭중(연장 12회) ▲결승전=대신중 1-0 경남중	
08.12	■ 대한야구협회 이영민 부회장 피살 8월 12일 새벽 3시반 5남1녀중 셋째 아들 이인섭(李麟燮 19)이 망을 보고 그의 친구 조용호(趙龍鎬 18) 이재식(李在植 18)이 서울 종로구 필운동 자택에 침입, 돈을 훔치다 이영민 부회장에게 들키자 당황한 조용호가 권총을 발사, 이부회장이 총탄을 맞고 그 자리에서 절명. 향년 49세	
08.13	■ 제1회 인천4도시초청고교대회 '주간 인천사' 주최로 8월 13일부터 대구상고, 경남고, 경동고, 인천고 등 4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인천공설운동장에서 개최, 대구상고와 인천고가 2승	아들 친구가 쓴 총탄을 맞고 숨진 이영민 협회 부회장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1무로 동률, 8월 16일 끝난 결승전에서 대구상고가 3-2로 인천고를 제치고 우승 ◇종합 순위=①대구상고(3승1무) ②인천고(2승1무1패) ③경남고(1승2패) ④경동고(3패)</p>	<p>■08.12 국군체육회 발족 ▲회장=국방부 차관 이호(李濤) ▲부회장=육군 준장 김동해(金東河)</p>
08.16	<p>■광복절 경축 전국실업연맹전 대한실업야구연맹 주최로 8월 16일부터 5일간 조선전업, 금융조합, 남선전기, 교통부, 조선우수 등 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선린상고 운동장과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결승전에서 조선운수가 금융조합을 6-4로 물리치고 우승 ▲준결승전=남선전기 7-11 금융조합, 조선운수 18-2 교통부 ▲결승전=조선운수 6-4 금융조합 ◇종합 성적=①조선운수(4승) ②금융조합(3승1패) ③조선전업, 남선전기(이상 1승1무2패) ⑤교통부(4패)</p>	 <p>'주간인천사' 주최로 인천공설 운동장에서 열린 제1회 4도시초청고교대회 경남고-인천고의 경기 장면</p>
08.26	<p>■제6회 쌍룡기쟁탈 전국고교대회 국제신보사 주최로 8월 26일부터 5일간 부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 8월 30일 끝난 결승전에서 경남고가 경남상고를 2-1로 누르고 우승 ▲준결승전=경남상고 5-0 인천고, 경남고 4-0 대구상고 ▲결승전=경남고 2-1 경남상고 ◇개인상 ▲우수선수상=오덕환(吳德煥 경남고) ▲감투상=안두칠(경남상고) ▲타격상=박의택(朴義澤 경남상고 .600) ▲미기상=구상문(具相文 경남상고) △경남고=감독 고광적 및 이웅렬(李雄烈 2루수), 오덕환(투수), 정병섭(포수), 신명식(申明植 우익수), 김흥수(유격수), 김두산(金斗山), 최재호(崔在浩 이상 좌익수), 조상묵(曹相默 3루수), 김태호(金兌浩 1루수), 손명석(孫命石 중견수)</p>	 <p>제6회 전국고교대회 결승전에서 동향의 경남상고를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한 경남고 선수들이 교정에서 기념 촬영</p>
09.05	<p>■제1회 서울시중학연식연맹전 추계리그 대한연식야구협회 주최로 9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경기중이 4전4승으로 우승, 함께 열린 전국도시대항대회 예선전에선 중앙실업이 이영(二榮)상사를 4-1로 꺾고 우승 ◇중학 종합 순위=①경기중(4승) ②중앙중(3승1패) ③광희중(2승2패) ④서울중(1승3패) ⑤ 휘문중(4패) ▲도시대항=중앙실업 4-1 이영상사</p>	
09.10	<p>■제8회 전국지구대표고교쟁패전 서울시예선 동아일보사 주최로 9월 10일부터 서울공고, 휘문고, 경기고, 성남고, 경동고 등5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9월 12일 열린 결승전에서 경동고가 9-5로 경기고를 제치고 우승 ▲준결승전=경기고 4-1 성남고, 경동고 15-0 경기공고 ▲결승전=경동고 9-5 경기고 △경동고=이학관(李學寬 3루수), 박경흔(朴慶欣 포수), 추연풍(秋淵豊 유격수), 유낙겸(俞洛兼 중견수) 박성근(朴成根 투수), 문명기(文明基 2루수), 윤낙균</p>	 <p>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제8회 전국지구대표고교쟁패전 서울예선 입장식 광경</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尹樂均 1루수), 임여창(任汝昌), 김상학(金相鶴 이상 좌익수), 변세균(卞世均 우익수) △경기도=정영섭(유격수), 이명(李明 좌익수), 배병진(1루수), 민경훈(閔庚勳 중견수), 이한원(李漢元 투수) 조재풍(曺在豊 포수), 김응렬(金應烈 3루수), 최정연(崔正淵 2루수), 최재송(대타), 최용빈(崔龍彬 우익수)</p>	
09.20	<p>■ 제2회 전국도시대항연식대회 및 제35회 전국체육대회 서울시중학예선 대한연식야구협회 주최로 9월 20일부터 3일간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도시대항연식대회에서 인천고가 우승, 9월 28일 끝난 제35회 전국체육대회 서울시중학연식예선대회(9월 20~23, 27~28일)는 중앙중이 우승 ▲도시대항 결승전=인천 4-1 서울 ▲중학부 종합 성적=①중앙중(3승) ②경기중(2승1패) ③휘문중(1승2패) ④서울중(3패)</p>	
09.25	<p>■ 제9회 전국대학선수권대회 부활 자유신문사로부터 서울신문사가 대회 주최권을 인수, 9월 25일부터 이틀간 성균관대, 제주대, 서울상대, 한양공대, 해병사관교 등 4개 대학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9월 26일 열린 결승전에서 성균관대가 3-1로 한양대를 물리치고 우승 ▲준결승전=성균관대 28-0 제주대(3회 기권), 한양공대 3-2 서울상대 ▲결승전=성균관대 3-1 한양공대 ◇개인상 ▲우수상=서동준(한양대) ▲타격상=김기환(金基煥 한양대) ▲홈런상=정태원(鄭泰遠 성균관대) △성균관대=감독 이남순(李南淳), 코치 박점도 및 조달원(趙達元), 정태원(이상 좌익수), 신현철(2루수), 김상훈(金相勳), 이팔관(우익수), 어우홍, 이의춘(李宜春 이상 3루수), 이필균(유격수), 박장복(朴長福 포수), 정경현(鄭京鉉 투수), 김원규(金元珪), 홍순해(이상 중견수) △한양공대=감독 신창근, 코치 홍병창 및 김만근(金萬根 유격수), 김윤근(金潤根 1루수), 김기환(중견수) 김광택(포수), 최종빈(崔鍾斌 2루수), 심재원(沈載元 3루수), 이진협(李鎭浹 우익수), 홍성달(洪成達 좌익수) 서동준(투수) △서울상대=감독 박상규 코치, 김창근(金昌根) 및 김홍일(투수), 최경남(1루수), 박종해(좌익수), 김창근(포수), 김용규(金容龜 중견수), 김의석(유격수), 심응준(3루수), 서병인(우익수), 박은진(1루수) △제주대=감독 김승찬(金承贊 교수), 코치 현지락(玄芝樂) 및 이봉준(李鳳俊 투수 대전사범), 현무규(玄武圭 1루수 제주농고), 이창근(李昌根 포수 오현고), 박청훈(朴淸勳 좌익수 오현고), 송승규(宋升圭 3루수 제주농고), 허준(許濬 2루수 제주농고), 정길홍(鄭吉洪 유격수 오현고), 김승렬(金承烈 중견수 제주농고), 김영목(金永穆 우익수 배재고)</p>	 <p>제9회 전국대학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성균관대의 어우홍이 우승기를 앞세우고 기념 촬영</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9.29	<p>■ 고(故) 이영민 추도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8월 29일 하오 1시 이영민 타계 49일을 맞아 서울운동장 야구장에서 추도식을 거행한 뒤 추도야구경기를 개최 ▲경동고 9-2 성남고(7이닝) ▲서울선발 3-0 대학선발(정규 이닝)</p>	
10.01	<p>■ 제9회 전국도시대항대회 한국일보사 주최로 10월 1일부터 6일간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마산, 부산 등 7개 도시대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6일 열린 결승전에서 서울이 인천을 3-2로 누르고 우승 ▲준결승전=인천 9-1 마산, 서울 8-1 광주 ▲결승전=서울 3-2 인천 ◇개인상 ▲타격상=①유인식(인천.636) ②홍병창(서울 .500) ③최경남(崔景南 광주 .429) ④김영조(서울 .419) ⑤박현식(인천 .333) ▲홈런상=박현식(인천), 홍병창, 김영조(이상 서울) △서울=노정호(좌익수), 강대중(유격수), 홍병창(중견수) 김영조(포수), 어우홍, 정관철(이상 우익수), 박상규(2루수), 김정환(1루수), 이팔관, 배용섭(이상 투수) 김계현, 장석화(이상 3루수) △인천=박근식(3루수), 심연택(중견수), 박현덕, 최진영(이상 우익수), 이덕영(유격수), 박현식(좌익수), 정태원(좌익수겸 포수), 김광택, 김대식(金大植 이상 포수), 유인식(1루수), 김재섭(金載燮), 한광희, 신현철(이상 2루수), 유완식, 서동준(이상 투수), 이동훈(李東勳 중견수)</p>	 <p>제9회 전국도시대항야구대회에서 유인식(인천)이 타율 0.636을 기록, 타격상 상장과 트로피를 받고 있다.</p>
10.08	<p>■ 제8회 황금사자기쟁탈 전국지구대표고교쟁패전 동아일보사 주최로 10월 8일부터 3일간 인천고, 대구상고, 부산상고, 경동고, 경남고 등 5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10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인천고가 경남고를 10-2로 격파하고 우승 ▲준결승전=경남고 6-1 경동고, 인천고 15-0 부산상고 ▲결승전=인천고 10-2 경남고 ◇개인상 ▲우수상=정병섭(경남고) ▲타격상=①박종규(인천고 .545) ②김태호(경남고 .444) ③오덕환(경남고 .429) ▲미기상=김진영(인천고) △인천고=김영복(3루수), 조영한(2루수), 이병렬(李炳烈 2루수), 진호영(중견수겸 투수), 김진영(유격수), 박종규, 이응범(李應範 이상 좌익수), 김흥기(1루수), 한학수(포수), 김용택(우익수겸 3루수), 이강호(중견수겸 우익수), 김일겸(투수), 이기상(투수겸 우익수) △경남고=김흥수(유격수), 이웅렬(2루수), 오덕환(투수), 정병섭(포수), 신명식(우익수), 김두산, 최재호(이상 좌익수), 조상묵(3루수), 김태호(1루수), 손명석(중견수)</p>	 <p>1954년 제8회 전국지구별초청 고교쟁패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인천고 선수들.</p>  <p>제8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인천고 주장 김영복이 시상식에서 우승기를 받아들고 있다.</p>
10.10	<p>■ 대한야구협회 사무실 서울 환도 서울 수복 후 부산에서 서울 조선일보사 안으로 이전</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10.19	<p>■ 제35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대한체육회 주최로 10월 19일부터 7일간 서울운동장에서 21종목에 6,152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개최, 체전 사상 처음으로 우수선수 표창제도를 도입해 단체상으로 입장상에 재일동포, 마스게임상은 창덕여중고와 숙명여중고가 수상</p> <p>▲고등부 준결승전=인천고 7-3 부산상고, 대구상고 12-11 경동고 ▲동 결승전=인천고 4-3 대구상고</p> <p>▲대학부 준결승전=한양공대 2-0 부산대, 성균관대 9-4 전남대 ▲동 결승전=한양공대 3-2 성균관대</p> <p>▲일반부 준결승전=조선운수 3-1 공군, 인천 14-6 금융조합 ▲동 결승전=조선운수 7-3 인천</p> <p>▲중등부 연식 준결승전=한밭중 4-0 동산중, 경남중 7-0 군산중 ▲동 결승전=경남중 7-0 한밭중</p> <p>▲일반부 연식 결승전=인천 4-0 중앙실업</p>	
10.20	<p>■ 대한야구협회 헌장 개칭 대한야구협회가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조선야구협회 헌장을 대한야구협회 헌장으로 개칭</p>	
11.05	<p>■ 부산4도시대항대회 부산야구협회 주최로 11월 5일부터 3일간 전서울, 전인천, 전대구, 전부산 등 4개 도시 대표 팀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 전대구가 2승 1무로 우승</p> <p>◇종합 전적=①전대구(2승1무) ②전인천(2승1패) ③전서울(1승1무1패) ④전부산(3패)</p> <p>△전대구=김보상(중견수), 고병호(2루수), 박춘득(1루수), 허곤(우익수), 이기역(유격수), 안종태(좌익수), 송주창(포수), 김찬석(투수), 김홍일(3루수겸 투수), 문성태(3루수)</p> <p>△전인천=박근식(3루수), 심연택(중견수), 박현덕(우익수), 이덕영(유격수), 박현식, 정태원(이상 좌익수), 김광택(포수), 유인식(1루수), 김재복(2루수), 유완식(투수)</p>	
11.05	<p>■ 국제야구연맹(N.B.C)에 정식 가입 대한야구협회가 국제야구연맹(National Baseball Congress)에 정식 가입. 한국주재 커미셔너에 대한야구협회 김영석(金永奭) 이사장이 피선</p> <p>▲NBC배 대회 트로피 기증=국제야구연맹은 가입을 기념, 1955년부터 개최할 제1회 NBC배정탈 전국야구선수권대회에 NBC연맹 공인 은(銀) 트로피 기증</p>	
11.08	<p>■ 제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야구경기 대한소년체육회 주최로 11월 8일부터 3일간 1,8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국교부와 중학부 경기를 개최, 송의국교와 동인천중이 우승</p> <p>▲국교부 결승전=송의국교 기권 신흥국교</p> <p>▲중학부 결승전=동인천중 8-2 휘문중</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12.12	<p>■ 한국야구 최초 해외 원정 제1회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 파견 선수단(22명)이 12월 11일 상오 10시 서울 명동에 있는 시공관에서 환송식을 가진 뒤 12월 12일 밤 11시 대한민국 야구 사상 최초로 해외에서 자유중국(대만), 일본, 필리핀등과 야구 경기를 갖기 위해 대한국민항공(KNA)편으로 여의도공항을 통해 출국</p>	
12.18	<p>■ 제1회 아시아선수권대회 3위 12월 18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필리핀 마닐라 ‘리잘 메모리얼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1회 대회에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 4개국이 참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제대회에 첫 출전한 한국은 일본과 필리핀에 패한 뒤 자유중국(대만)을 꺾어 1승2패로 3위 ▲1차전=한국 0-6 일본 ▲2차전=필리핀 2-0 자유중국 ▲3차전=한국 4-5 필리핀 ▲4차전=일본 6-3 자유중국 ▲5차전=한국 4-2 자유중국 ▲6차전=필리핀 8-1 일본 ◇종합 순위=①필리핀(3승) ②일본(2승1패) ③한국(1승2패) ④대만(3패) ◇한국선수단 △단장=이흥직 △감독=김영석 △코치=오윤환 △심판연구=이신득 및 노정호(좌익수), 김정환, 심양섭(이상 1루수), 흥병창, 정관철(이상 우익수) 김영조, 장석화(이상 포수), 허곤, 장태영(이상 중견수) 박상규, 이덕영(이상 2루수), 이기역, 김계현(이상 3루수), 강대중(유격수), 유완식, 김양중, 서동준(이상 투수), 박현식(투수겸 좌익수)</p>	<p>제1회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전 경무대(景武臺)를 방문, 이승만(李承晩) 대통령과 기념 촬영을 한 대표선수단 일행</p>  <p>제1회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한 대한민국 첫 국가대표 야구선수들.</p>
1955. 02.10	<p>■ 대한연식야구협회 총회 서울 충무로 태극당에서 대한연식야구협회 대의원 총회를 열고 아시아연식야구연맹 가입을 토의한 뒤 임원을 개설했다 △회장=이갑수 △부회장=장훈(張勳), 박정준, 정석권(鄭石權) △전무이사=이순재 △이사=이삼봉, 박지완 이규태, 임춘실(林春實), 박응주, 이한용, 김명배, 이규동, 윤길구(尹吉九), 조점룡, 풍규명(馮圭明), 이희경 김동우, 이태흥, 신영성(申榮成), 박인규(朴麟圭), 안봉식, 고원순, 조병국 △감사=안강희(安康熙), 김영목, 유호창</p>	<p>■ 01.22 동계체육대회 대한체육회 주최로 1월 22일부터 2일간 제35회 전국체육대회 동계빙상대회를 한강 특설 링크에서 개최</p> <p>■ 01.30 한국체육상 시상 서울신문사 제정 제2회 한국체육상 시상식을 1월 30일 하오 2시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거행. ▲남자 개인상=유인호(劉仁鎬 역도) ▲여자 개인상=최영해(崔榮海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단체상=연세대 축구 팀 ▲여자 단체상=경기여자구락부 농구 팀 ▲공로상=이기봉(대한체육회 회장)</p>
03.13	<p>■ 대한야구협회 대의원 총회 대한야구협회가 3월 13일 오전 10시 한국산업은행 회의실에서 제9회 전국대의원 총회를 열고 임원을 다음과 같이 선임 △회장=이흥직 △부회장=손효준, 선우인서(鮮于麟瑞) △이사장=최재은(7월26일 사임), 김영석(7월26일 신임) △상무이사=김재송, 김태호, 이신득, 오윤환, 노정호 △심판부장=김영석 △이사=손희준, 김일배, 조점룡, 김수환, 박점도, 모무열, 최인철(崔寅哲), 이경구 김태봉(金泰奉), 이효(李曉), 박흥서, 박현덕, 곽철(郭轍), 김희룡(金熙龍), 윤재준, 최세원, 박인갑, 김광수</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金廣洙), 금철 △감사=민용규, 진성섭	
04.24	■ 제6회 경·인정기대항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4월 24일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서울이 인천을 7-1로 꺾고 우승 ▲오픈 경기=육군 3-2 미군 ▲정기전=서울 7-1 인천	■ 04.09 대한체육회 임원 개선 4월 9일 상오 10시 40분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평의회를 열고 새 임원을 선출 ▲회장=이기봉 ▲부회장=이상백, 임송본(林松本) ▲이사=이성구(李性求), 이재황(李濟晷), 김용구, 이종구(이상 유임), 김영술, 김관우, 김신실(金信實), 이순재, 이병학, 정상희, 이윤용, 유태영(劉泰榮), 오광섭(吳光燮), 조병학, 김성집, 이윤백(李潤白), 백승욱(劉泰榮 이상 신임) ▲감사=박영진(유임), 김재장(金載璋), 이인태(李仁泰 이상 신임)
04.25	■ 서울시중학연맹전 춘계리그, 경동중 우승 대한연식야구협회 주최로 4월 25일부터 서울시중학 춘계리그를 서울운동장및 경복고, 경동중 운동장에서 개최, 5월 6일 경동중이 6전 5승1패로 우승 ◇종합 전적=①경동중(5승1패) ②경기중(4승2패) ③휘문중, 경북중(이상 3승3패) ⑤서울중(2승4패) ⑥선린중, 광희중(이상 1승5패)	
04.30	■ 전국실업춘계연맹전 무기연기후 폐지 대한야구협회 서울지부 주최로 4월 30일부터 3일간 서울운동장에서 금융조합, 조선운수, 공군, 육군 등 4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첫 날 육군-금융조합 9회초 육군의 지연 작전으로 심판부가 심판을 거부, 서로 책임을 미루다 일몰로 경기가 중단 되는 불상사 발생, 협회가 대회 개최를 무기연기, 이후 대회를 폐지	
05.10	■ 대한학생야구연맹 발족 전국대학야구연맹이 대한학생야구연맹으로 개칭한 뒤 임원을 선출하고 신년 사업 계획을 확정 ▲회장=곽상훈 ▲부회장=문계식(文燾植) 윤길구 ▲이사장=김창환(金昌桓) ▲상무이사=김성채, 김영제 서명식(徐明植) ▲이사=박찬웅(朴贊雄), 이태신, 황우겸 김대식 ▲감사=안일선(安一善), 강진식(姜鎭植)	
05.14	■ 제9회 전국4도시대항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5월 14일부터 3일간 부산, 대구, 서울, 인천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3팀(인천, 대구, 부산)이 2승1패로 공동 우승, 서울 3전 전패 ▲제1일=인천 6-3 부산, 대구 4-3 서울 ▲제2일=대구 4-3 인천, 부산 9-3 서울 ▲제3일=부산 4-1 대구, 인천 12-5 서울 ◇종합 순위=①인천, 대구, 부산(이상 2승1패) ④서울 (3패)	
05.19	■ 제10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서울시예선 조선일보사 주최로 5월 19일부터 4일간 경동고, 선린상업, 휘문고, 배재고, 경기고, 중앙고, 경북고, 서울공고 등 8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5월 22일 열린 결승전에서 경동고가 경기고를 2-1로 누르고 우승 ▲준결승전=경동고 11-5 휘문고, 경기고 7-4 경북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고 ▲결승전=경동고 2-1 경기고 △경동고=이학관(유격수), 박성근(1루수), 황병호(黃炳浩 좌익수), 백인원(白仁源 포수), 이병수(李炳秀 중견수) 추연풍(투수), 이병식(李丙軾 우익수), 임여창(3루수) △경기고=김훈호(金勳浩 유격수), 최용빈(좌익수), 민경훈(중견수), 이한원(투수), 박민웅(朴敏雄 포수), 양규석(梁奎錫 1루수), 최정연(우익수), 조재풍(2루수), 김응렬(3루수)</p>	
05.29	<p>■제1회 백호기쟁탈 전국실업춘계쟁패전 경향신문사 주최로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공군, 금융조합, 남선전기, 육군, 조선운수 등 5개 군 실업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리그전으로 개최, 금융조합과 육군이 4전 3승1패로 공동 우승 ◇종합 전적=①육군, 금융조합(이상 3승1패) ③공군, 남선전기(이상 1승1무2패) ⑤조선운수(1승3패) ◇개인상 ▲우수상=김양중(육군) ▲타격상=정병순(금융) ▲미기상=정관철(조운) ▲훈련상=김영조(금융) △금융조합=김계현(유격수), 고병호(高炳鎬 2루수), 홍병창(우익수겸 좌익수), 이수진(李守珍 좌익수), 김영조(포수), 정병순(우익수), 심양섭(1루수), 홍병창(좌익수), 안두칠(安斗七 3루수), 이장옥(중견수), 김성채(金聲採 대타), 김정묵(金正默 투수) △육군=박상규(朴象圭 2루수), 허종만(許宗萬 좌익수), 김정한(金定煥 1루수), 박현식(3루수), 장태영(張泰英), 윤태섭(이상 우익수), 김양중, 한태동(韓泰東 이상 투수), 김광택(金光澤 포수), 김원규(金元珪 중견수) 조영한(趙榮漢 유격수), 김기두(金箕斗 2루수)</p>	 <p>제1회 전국실업춘계야구쟁패전 팸플릿</p> 
06.02	<p>■제10회 청룡기쟁탈 전국고교선수권대회 조선일보사 주최로 6월 2일부터 4일간 전년도 우승 팀 인천고를 비롯해 동산고, 경남고, 광주상고, 대구상고, 세광고, 대전고, 경동고 등 8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5일 열린 결승전에서 12회 연장전 끝에 동산고가 3연패를 노리던 인천고를 2-2로 누르고 대회 첫 우승 ▲준결승전=인천고 6-2 대구상고, 동산고 5-0 경남고 ▲결승전=동산고 2-1 인천고 ◇개인상 ▲우수선수상=신인식(申仁植 동산고) ▲타격상=이용규(李容奎 대전고 .600) ▲미기상=김진영(인천고) △동산고=감독 박현덕 및 이규정(李揆貞 좌익수), 임준호(林俊浩 포수), 이윤영(李潤永 1루수), 박하성(朴河星 유격수), 신인식(투수), 박의양(朴義陽 2루수), 고덕영(高德永 3루수) 김완형(金完衡), 곽인성(郭仁成 이상 중견수), 이길용(李吉溶 우익수) △인천고=한학수(포수) 고철호(高哲鎬 1루수), 이강호(1루수), 김진영(유격수), 박종규(중견수), 이병렬(2루수), 이일겸, 이기상(이상 투수), 오영근(吳英根 우익수)</p>	<p>육군 야구의 4총사 김정한(왼쪽부터) 박현식, 장태영, 김양중</p>  <p>용산 육군구장에서 벌어진 제10회 청룡기 전국고교선수권대회 동산과 인천고의 결승전</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수), 김용택(좌익수)	
06.06	<p>■ 제1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야구경기 대한소년소녀체육회 주최로 6월 6일 상오 10시 국민 학교 및 중학교 연식야구, 농구, 송구, 축구 등 4개 종목에 1천여 명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동인천중이 15회 연장전 끝에 서울중을 4-3으로 누르고 우승</p> <p>▲국교 준결승전=장충국교 4-1 송의국교, 대신국교 6-2 송현국 ▲동 결승전=대신국교 4-1 장충국교</p> <p>▲중학 준결승전=동인천중 16-0 경북중, 서울중 4-0 광희중 ▲동 결승전=동인천중 4-3 서울중</p>	 <p>제10회 청룡기를 움켜쥔 동산고 나인들. 뒷줄 왼쪽부터 이길용, 이완형, 조병국, 박의양. 앞줄 왼쪽부터 고덕영, 이규정, 이윤영</p>
06.11	<p>■ 제2회 전국초청도시대항대회 전남일보사 주최로 6월 11일부터 4일간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전주, 마산, 대구, 광주 등 8개 도시대표팀이 출전한 가운데 광주서중 운동장에서 토너먼트로 개최, 6월 14일 열린 결승전에서 서울군이 광주군을 5-0으로 격파하고 우승</p> <p>▲제1일(6월 11일)=인천 6-5 대전(연장 12회), 광주 14-6 부산 ▲제2일(6월 12일)=대구 15-4 전주, 서울 5-4 마산 ▲제3일(6월 13일)=서울 3-2 대구(연장 13회), 광주 4-1 인천 ▲제4일(6월 14일)=서울 5-0 광주</p> <p>◇개인상 ▲타격상=김양중(광주) ▲수비상=김영조(서울) ▲미기상=장복상(광주)</p>	 <p>전남일보사 주최로 광주에서 열린 제1회 전국도시대항대회 기념 패넛트</p>
06.15	<p>■ 전국학도체육대회 부활 6.25전쟁으로 중단되었던 중앙학도호국단 주최 전국 학도체육대회를 제3회 대회부터 부활, 6월 15일부터 5일간 서울운동장에서 야구를 비롯해 9개 종목에서 2천여 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개최, 6월 19일 인천고(고등부), 성균관대(대학부), 동인천중이 우승한 가운데 폐막</p> <p>▲고등부 결승전=인천고 4-1 대전고</p> <p>▲대학부 준결승전=부산대 6-2 한양공대, 성균관대 6-3 동아대 ▲동 결승전=성균관대 8-7 부산대</p> <p>▲중학부 연식 준결승전=동인천중 7-1 군산중, 경남중 4-1 경동중 ▲동 결승전=동인천중 3-2 경남중(연장 12회)</p>	<p>■ 6.13 이기봉 IOC위원 피선 6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올림픽 총회에서 IOC위원에 피선</p>
06.22	<p>■ 서울시춘계고교·대학연맹전 대한학생야구연맹 주최로 6월 22일부터 4개 대학(서울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공대)과 9개 고교(중앙고, 경동고, 경북고, 배재고, 서울공고, 선린상고, 경기공고, 휘문고, 경동고)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우천으로 연기를 거듭한 끝에 7월 8일 열린 대학부 최종 경기에서 성균관대가 중앙대를 8-1로 격파하고 3전 전승으로 우승, 7월 10일 열린 고교야구 우승 결승전에서 경기고가 경북고를 4-3으로 누르고 우승</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대학부 결승전=성균관대 5-1 서울대 ▲고등부 우승 결정전=경기고 4-3 경북고</p> <p>◇개인상 ▲타격상(대학)=①한정노(韓鼎魯 중앙대 .444) ②김재복(金載福 서울대 .400) ③어우홍(성균관대 .333) ▲타격상(고교)=①백인원(경동고 .545) ②이순석(李順石 배재고 .444) ③김용수(金龍洙 선린상고 .444)</p>	
07.02	<p>■자유중국 초청 한·중친선대회 자유신문사 초청으로 6월 30일 하오 2시 여의도공항을 통해 자유중국(대만)야구단 일행 20명이 내한, 7월 2일부터 19일까지 서울, 대구, 부산, 인천에서 육군및 전한국 팀을 비롯해 지역 대표 팀과 8차전 끝에 4승1무3패로 우승, 7월 21일 CAT편으로 여의도공항을 통해 출국</p> <p>▲1차전(7월 2일 서울)=육군 5-3 자유중국 △육군=허정규(좌익수), 김정환(1루수), 장태영(우익수), 박현식(3루수), 김양중, 한태동(이상 투수), 김원규(중견수), 김기두(2루수), 김광택(포수), 조영한(유격수)</p> <p>▲2차전(7월 4일 서울)=전서울 4-1 자유중국 △전서울=김계현(3루수), 김정환(1루수), 홍병창(우익수), 김영조(포수), 정관칠(좌익수겸 중견수), 허곤(중견수), 조성일(좌익수), 이기역(유격수), 한태동(투수), 강대중(2루수)</p> <p>▲3차전(7월 7일 대구)=전대구 0-2 자유중국 △전대구=김보상, 고병호, 안종태, 박춘득, 허정규, 윤재준, 최종철, 최문보, 손상룡, 정춘학, 김홍일</p> <p>▲4차전(7월 9일 부산)=전부산 0-8 자유중국 △전부산=백기수(유격수), 박내용(좌익수), 고광적(1루수), 배성수(중견수겸 우익수), 김원규(2루수), 장종기(우익수), 이일봉, 전명원(錢明源 이상 3루수), 정명현(鄭明賢 포수), 이재성(李在成), 정만오(이상 투수)</p> <p>▲5차전(7월 10일 부산)=전한국 1-1 자유중국</p> <p>▲6차전(7월 16일 서울)=전한국 3-4 자유중국</p> <p>▲7차전(7월 17일 서울) 전한국 8-1 자유중국 △전한국=김계현(2루수겸 3루수), 강대중(유격수), 박현식, 조성일(이상 우익수), 김영조, 송주창(이상 포수) 정관칠, 안종태(이상 좌익수), 장태영(중견수), 어우홍 김상대(이상 1루수), 백기수, 고병호, 조영한(이상 2루수), 이기역(3루수), 한태동, 김양중, 김정묵, 이재성, 서동준(이상 투수)</p> <p>▲8차전(7월 19일 인천)=전인천 1-11 자유중국 △전인천=심연택, 박근식, 박현식, 이덕영, 박현덕, 김광택, 유인식, 서동준, 진원주, 조영한, 유완식, 김윤근</p>	 <p>서울시내에 세워진 한중친선대회 환영 아치</p>  <p>자유신문사가 초청한 자유중국(대만) 야구 선수단</p>  <p>7월 2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육군-자유중국의 개막식 광경</p>
07.08	<p>■선린상고 최운식(崔雲植) 첫 빈볼 사망 서울시교고준계리그 경기고전 3회말 이한원(李漢元)이 던진 공에 선린상고 최운식이 머리를 맞아 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치료중 뇌출혈로 사망</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7.12	<p>■ 서울연식야구협회 창립 7월 12일 대한체육회 강당에서 대한연식야구협회 서울지부 창립 총회를 열고 임원을 다음과 같이 선출 ▲회장=유진산(柳珍山) ▲부회장=정홍교(丁洪敎), 이형호(李衡浩) ▲이사장=유승목(俞升穆) ▲상무이사=이한중(李漢鍾) ▲이사=박지완, 이삼봉, 이규태, 이희경, 임춘실, 김제윤(金濟允), 공창순 ▲감사=이태흥, 홍영표(洪永杓)</p>	
07.15	<p>■ 고(故) 최운식 선수 추도대회 대한학생야구연맹(회장 곽상훈) 주최로 하오 3시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서울 시내 고교에서 선발된 선수들이 흥·백 팀으로 나누어 대전, 백군이 10-4로 승리</p>	<p>7월 7일 대구경기에 앞서 군사령관이 시구를 하고 있다.</p>
07.16	<p>■ NBC 트로피 인수식 1955년 8월 NBC배쟁탈 제1회 전국야구선수권대회를 앞두고 NBC(National Baseball Congress·국제야구연맹)가 기증하는 NBC배(순은제로 금 도금한 높이 70cm의 트로피)를 오후 2시30분 서울운동장에서 한·중(韓·中)친선경기에 앞서 코카콜라 한국 지배인 조휴스테드가 한국 커미셔너인 김영석(金永奭)에게 전달하자 김 커미셔너는 이를 대한야구협회 선우인서(鮮于麟瑞) 부회장에게 인계</p>	 <p>국제야구연맹이 기증한 트로피</p>
07.19	<p>■ 제1회 서울시중학연식대회 대한연식야구협회 서울지부 창립 기념으로 7월 19일부터 4일간 서울운동장에서 제1회 서울시중학연식대회 겸 제3회 전국도시대항연식야구대회 서울시예선 리그전으로 개최, 7월 22일 열린 결승전에서 광희중이 서울중을 9-1로 격파하고 우승. 이어서 열린 도시대항 예선 결승전에서 동지구락부가 국정교과서를 4-0으로 꺾고 우승 ▲준결승전=광희중 1-0 경기중, 서울중 9-2 경동중 ▲결승전=광희중 9-1 서울중 ◇개인상 ▲타격상=김영국(金榮國 서울중) ▲미기상=윤정남(尹正男 휘문중) ▲응원상=광희중 ▲도시대항 예선 결승전=동지구락부 4-0 국정교과서 ◇도시대항 예선 순위=①동지구락부(3승) ②경동구락부(2승1패) ③국정교과서(1승2패) ④중부세무서(3패)</p>	
07.23	<p>■ 제3회 전국도시대항연식대회 대한연식야구협회가 아시아연식야구선수권대회 파견 선수 선발을 겸해 7월 23일부터 3일간 대구, 대전, 인천, 서울 등 4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대전이 2승1패로 우승 ◇종합 전적=①대전(2승1패) ②대구국제야구연맹이 기증한 트로피인천(이상 1승1무1패) ④서울 (1승2패)</p>	
08.03	<p>■ 제7회 쌍룡기쟁탈 전국고교대회 국제신보사 주최로 8월 3일부터 6일간 인천고, 부산</p>	<p>제3회 전국도시대항연식대회에 출전한 경북대표 선수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고, 마산고, 경기고, 동래고, 인천공업, 경남상업, 경남고, 마산상업, 경북고, 경동고, 부산상업, 광성공업, 동산고 등 14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 8월 8일 끝난 결승전에서 인천고가 부산상고를 4-1로 물리치고 우승</p> <p>▲준결승전=부산상고 2-1 경남고, 인천고 4-0 경남상고 ▲결승전=인천고 4-1 부산상고</p> <p>◇개인상 ▲우수상=이기상(인천고) ▲타격상=박성호(杻星昊 광성공업) ▲미기상=변종욱(邊鍾旭 경북고), 최용빈(崔龍彬 경기고) ▲감투상=황경조(黃敬祚 부산상고) ▲훈련상=김홍수(경남고), 김진영(인천고)</p> <p>△인천고=감독 김선웅 및 한학수(포수), 고철호(2루수), 이강호(3루수), 김진영(유격수), 박종규(중견수), 이병렬(2루수), 김일겸, 이기상(이상 투수), 오영근(우익수), 김용택(좌익수)</p>	
08.05	<p>■ 제2회 대통령친서우승기쟁탈 전국중학선수권대회 대한연식야구협회 주최로 8월 5일부터 5일간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8월 9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경남중이 동산중을 6-1로 격파하고 우승</p> <p>▲준결승전=경남중 1-0 동인천중, 동산중 13-6 서울중 ▲결승전=경남중 6-1 동산중</p> <p>◇개인상 ▲우수상=임소철(林小哲 경남중) ▲타격상=강경식(姜慶植 개성중) ▲미기상=김동주(金東柱 경남중)</p>	 <p>대한연식야구협회 주최 제2회 대통령친서우승기쟁탈 전국중학야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경남중 선수들</p>
08.06	<p>■ 사우스 캘리포니아대(USC)야구단 내한 8월 5일 오후 2시 사우스 캘리포니아대야구단 일행 22명이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 8월 6일부터 4일간 서울운동장과 오산 공군기지에서 육군 팀을 시작으로 미공군, 공군, 금융조합 팀과 대전, 남캘리포니아대가 월등한 실력으로 4전 전승(8월 10일 인천운동장에서 개최 예정이던 주한 미군과의 경기는 적성감시단 축출 데모로 중지)</p> <p>▲1차전=USC 4-0 육군 △육군=허정규(좌익수), 김정환(1루수), 장태영(우익수), 박현식(3루수), 김양중, 한태동(이상 투수), 김원규(중견수), 김기두(2루수), 조영한(유격수)</p> <p>▲2차전=USC 1-0 미공군 ▲3차전=USC 7-0 공군 △공군=이기역(유격수), 송주창(포수), 허곤(중견수) 조성일(우익수), 김창기(3루수), 정태수(1루수), 박창남(2루수), 박창룡(우익수), 이홍달(李洪達 좌익수), 정만오, 김홍일(이상 투수)</p> <p>▲4차전=USC 4-1 금융조합 △금융조합=김계현(유격수), 고병호(2루수), 홍병창(좌익수), 김영조(포수), 정병순(우익수), 심양섭(1루수), 이장욱(중견수), 김성채(대타), 안두철(3루수), 김정묵(투수)</p>	 <p>서울운동장에서 열린 남캘리포니아대-육군의 경기</p>  <p>남캘리포니아대 경기를 보기 위해 운집한 관중들</p>
08.13	<p>■ 8.15 경축 서울시 4고교리그 대한학생연맹 주최로 8월 13일부터 3일간 경동고, 경북고, 휘문고, 경기고가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서 개최, 경기고가 3전 전승으로 우승 ◇종합 성적=①경기고(3승) ②경동고(2승1패) ③경북고(1승2패) ④휘문고(3패)</p>	
08.14	<p>■대한야구협회 임원 개선 대한야구협회가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임원을 개선한 뒤 행사 일정을 확정 ▲이사장=김영석 ▲총무이사=김태호(전 김재승) ▲섭외이사=금철(전 이신득)</p>	
08.26	<p>■제1회 NBC배쟁탈 전국선수권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8월 26일부터 4일간 열린 세계야구연맹배쟁탈대회에 육군, 경기구락부, 전인천, 금융조합, 공군, 성군관대, 중앙대, 조선우수 등 8개 팀이 출전, 8월 29일 열린 결승전에서 조선운수가 10회 연장전 끝에 육군을 3-2로 물리치고 첫 우승 ▲준결승전=조선우수 4-3 공군, 육군 10-0 인천 ▲결승전=조선우수 3-2 육군(연장 10회) ◇개인상 ▲우수상=서동준(조선우수) ▲타격상=김진영(인천 .556) ▲미기상=김원규(육군), 정관철(조선우수) △조선우수=강대중(유격수), 이조영(우익수), 김성동(金成東 우익수), 정관철(중견수겸 1루수), 장석화(포수), 안종태(安鍾泰 좌익수), 유인식(1루수), 이조영(중견수), 이일봉, 손상룡(이상 2루수), 박점도(대타), 서동준(투수), 최종철(3루수)</p>	 <p>제1회 전국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조선우수 선수들</p>
09.06	<p>■서울시중학추계연맹전, 광희중 우승 대한연식야구협회 서울시지부 주최로 9월 6일부터 서울시내 11개 중학 팀(성동, 휘문, 중앙, 청운, 경동, 선린, 광희, 서울, 경북, 청운, 중앙중)이 출전한 가운데 A, B조로 나누어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5일 A, B조 승자가 맞붙은 우승 결정전에서 광희중이 서울중을 7-4로 꺾고 5전 전승으로 우승 ◇종합 순위=①광희중(5전 5승) ②서울중(4승1패) ③경동중(3승1패) ◇개인상 ▲우수상=김경순(金炯淳 서울중) ▲타격상=김창진(金昌鎭 경동중) ▲응원상=휘문중</p>	 <p>국제야구연맹(NBC) 한국위원인 김영석이 시상식에서 성적을 발표하고 있다.</p>
09.15	<p>■제2회 백호기쟁탈 전국실업추계쟁패전 경향신문사 주최로 9월 15일부터 남선전기, 조선우수, 금융조합, 육군, 해군 등 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9월 20일 열린 결승전에서 육군이 금융조합을 3-0으로 꺾고 우승 ◇종합 성적=①육군(4승1패) ②금융조합(3승2패 재무부 장관배) ③조선우수(2승2패) ④공군, 남선전기(이상 1승3패) ◇개인상 ▲우수상(부흥부장관배)=배용섭(조선우수 투수) ▲우수상(보사부장관배)=한태동(육군 투수) ▲타격상(무역협회장배)=조영한(육군 유격수 .412)</p>	 <p>제2회 전국실업추계쟁패전 팸플릿</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9.20	<p>■ 제9회 전국지구대표고교쟁패전 서울시예선 동아일보사 주최로 9월 20일부터 4일간 경동고, 중앙고, 경기고, 경북고, 서울공고, 선린상고, 휘문고, 서울고 등 8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9월 26일 열린 결승전에서 경동고가 경기고를 7-5로 물리치고 우승 ▲준결승전=경기고 8-2 중앙고, 경동고 2-0 휘문고 ▲결승전=경동고 7-5 경기고</p>	
09.23	<p>■ 제2회 아시아선수권대회 파견 선수선발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9월 23일부터 3일간 성균관대, 금융조합, 육군, 조선운수, 공군 등 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9월 25일 끝난 결승전에서 육군이 조선운수를 3-1로 물리치고 우승(국가대표 선수는 우승 팀 육군에서 11명, 기타 팀에서 5명을 선발) ▲준결승전=조선운수 4-0 공군, 육군 8-3 금융조합 ▲결승전=육군 3-1 조선운수 ◇개인상 ▲타격상=유인식(.500) ▲훈련상=김영조 △대표선수=한태동(육군), 김양중(육군), 서동준(조선운수 이상 투수), 김영조(금융조합), 허정규(육군 이상 포수), 김정환(육군 1루수), 박상규(육군), 백기수(해군 이상 2루수), 박현식(육군), 김영복(육군 이상 3루수) 강대중(조선운수), 조영한(육군 이상 유격수), 허종만(육군 좌익수), 정관철(조선운수), 김원규(육군 이상 중견수), 장태영(육군 우익수)</p>	<p>제2회 전국실업쟁패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육군 야구 선수들</p>
09.30	<p>■ 제10회 전국도시대항대회 한국일보사 주최로 9월 30일부터 서울, 인천, 대전, 전주, 군산, 광주, 대구, 부산, 마산 등 9개 도시대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5일 열린 결승전에서 서울이 6-5로 인천을 누르고 우승 ▲준결승전=인천 6-5 부산, 서울 12-5 광주 ▲결승전=서울 6-5 인천 ◇개인상 ▲우수상=장석화(서울) ▲타격상=김양중(광주 .571) ▲본루타상=김영조(서울) ▲미기상=주세현(인천) △전서울=감독 오윤환 및 김정환(1루수), 강대중(유격수), 정관철(좌익수), 김영조(3루수), 장석화(포수), 흥병창(우익수), 허근(중견수), 한태동(투수), 박상규(2루수) △전인천=감독 박현덕 및 김영복(3루수), 조영한(좌익수), 박근식(유격수), 이덕영(유격수), 심연택(중견수), 진원주(우익수), 박현식(대타), 유완식(투수), 주세현(1루수), 박현덕(대타), 김광택(포수)</p>	 <p>제10회 전국도시대항대회 개막식</p>  <p>이승만 대통령(중앙 본부석)이 김영석의 해설을 들으며 제10회 도시대항선수권대회 경기를 관전하고 있다.</p>
10.01	<p>■ 제2회 인천4도시초청고교대회 주간 인천사 주최로 10월 1일부터 경남상고, 대구상고, 경동고, 인천고 등 4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인천공설운동장에서 리그전으로 개최, 10월 6일 열린 최종일 경기에서 인천고와 경남상고가 3-3으로 비겨,</p>	<p>■ 10.04 브루클린 다저스 첫 우승 브루클린 다저스가 마이너리그 산하 트리플 A에서 올라온 무명의 월터 앨스턴 감독이 2년 만에 내셔널리그 우승을 따낸 뒤 월드시리즈에서 양키스를 4-3으로 제치고 우승</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2승1무로 재경기 끝에 인천고가 3-2로 경남상고를 제치고 우승 ◇종합 순위=①인천고(3승1무) ②경남상고(2승1무1패) ③대구상고, 경동고(이상 1무2패)</p>	
10.10	<p>■ 황금사자기쟁탈 제9회 전국지구대표고교쟁패전 동아일보사 주최로 10월 10일부터 광주상고, 인천공고, 경남고, 경동고, 대구상고, 대전공고, 인천고 등 7개 고교 팀이 지역 예선을 거쳐 출전, 10월 14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경남고가 인천고를 3-2로 제치고 우승 ▲준결승전=경남고 8-1 인천공고, 인천고 1-0 경동고 ▲결승전=경남고 3-2 인천고 ◇개인상 ▲우수상=김수갑(경남고 투수) ▲타격상=조상묵(경남고 3루수 .500) △경남고=감독 고광적 및 김수갑(金壽甲 투수), 이웅렬(李雄烈 1루수), 김흥수(金興洙 2루수), 김희련(金熿璉 유격수), 조상묵(曹相默 3루수), 신현갑(申鉉甲 포수), 김동진(金東鎭 중견수), 박종환(朴鍾煥 우익수) △인천고=감독 김선웅 및 고철호(투수겸 1루수), 한학수(포수), 이강호(3루수), 김진영(유격수), 김일겸(우익수), 박종규(중견수), 김용택(좌익수), 이기상(1루수겸 투수), 오영근(우익수), 이병렬, 김규성(金奎星 이상 2루수)</p>	 <p>10월 14일 제9회 전국지구대표 고교야구 쟁패전 결승전에서 인천고를 3-2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한 경남고 선수들</p>
10.15	<p>■ 제36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대한체육회 주최로 10월 15일부터 8일간 23개 종목에 7천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20일 끝난 고등부 결승전에서 충남 대전고가 서울 경동고를 8-7로 물리치고 사상 첫 우승 ▲고등부 준결승전=대전고 5-2 인천고, 경동고-미상 ▲동 결승전=대전고 8-7 경동고 △대전고=감독 민준기 및 이용규(투수), 조완호(趙完鎬 포수), 김영석(金永錫 1루수), 이연모(李彦模 2루수), 김한섭(金漢燮 유격수), 지민박(池敏博 3루수), 이보형(李寶衡 좌익수), 배창호(裴昌鎬 중견수), 김진철(金鎭哲 우익수), 곽건수(郭建守), 홍복동(洪福童 이상 후보) ▲대학부 결승전=동아대 4-3 성균관대 ▲일반 결승전=인천 6-4 서울 ▲중학부 연식 준결승전=부산 1-0 동인천, 광희 19-2 군산 ▲동 결승전=광희중 1-0 부산중(12회) ▲일반부 연식 준결승전=삼한공사 1-0 세계편리사, 중부세무서 1-0 경주 ▲동 결승전=경기 삼한공사 1-0 서울 중부세무서</p>	<p>■ 10.14 국내 최초 성화 봉송 하오 5시 강화도 마니산 첨성대에서 점화, 제1 주자 곽석근(郭奭根)을 거쳐 37구간 37명에 의해 최종 주자 손기정(孫基禎)에 의해 15일 하오 2시반 서울운동장 봉화대에 봉납</p>
10.28	<p>■ 제10회 전국대학선수권대회, 성균관대 우승 서울신문사 주최로 10월 28일부터 4일간 육사, 송실대, 성균관대, 중앙대, 서울대가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1월 1일 끝난 결승전에서 성균관대가 서울대(약대 상대 통합)를 7-5로 물리치고 우승 ▲준결승전=성균관대(기권 승) 송실대, 서울대 7-2</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중앙대 ▲결승전=성균관대 7-5 서울대 ◇개인상 ▲타격상=김의석(서울대 .625) △성균관대=감독 강대중 및 김인걸(金仁傑 유격수) 조달원, 김재은(金在銀 좌익수), 어우홍(1루수), 허호준, 이규일(李圭一 이상 포수), 어지홍(魚之洪) 김병선(金炳善 이상 투수), 홍순하(3루수), 이수극(李秀克 우익수), 김상훈, 박종길(朴鍾吉 이상 2루수), 손명석(孫命石 중견수) △서울대=장태근(張泰根 투수), 박종해(朴鍾海 포수) 최경남, 황덕관(黃惠寬 이상 1루수), 박은진(朴銀珍 2루수), 김재복, 김형호(金炯鎬 이상 3루수), 김의석(金儀錫 유격수), 심응준, 이명환(李明煥 이상 좌익수), 김태석(金泰奭), 김영길(金榮吉 이상 중견수), 서병인(徐炳寅 우익수)</p>	
10.28	<p>■부산4도시대항대회 부산야구협회 주최로 10월 28일부터 3일간 서울, 인천, 대구, 부산 팀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 인천과 부산이 2승1패로 공동 우승 ◇종합 전적=①인천, 부산(이상 2승1패) ③서울, 대구(이상 1승2패) ◇개인상 ▲우수상=유완식(인천) ▲타격상=이조영(서울) ▲미기상=안종태(대구) △인천=박근식(3루수), 심연택(중견수), 박현덕(우익수), 이덕영(유격수), 박현식(좌익수), 김광택, 정태원(이상 포수), 유인식(1루수), 김재복, 한광희(이상 2루수), 유완식(투수) △부산=김계훈(金桂薰 좌익수), 정기철(우익수), 장종기(1루수), 배성수(중견수), 김학선(투수), 김정선(金正善 포수), 김재영(金再泳 2루수), 전명원(유격수), 김정묵(2루수), 이일봉(3루수)</p>	<p>■월드시리즈 첫 MVP 시상 1955년 월드시리즈부터 MVP 시상 제도를 도입, 브루클린 다저스의 투수 조니 포드리스가 첫 수상</p>
10.29	<p>■호남3도시대항대회 군산체육회 주최로 10월 29, 30일 이틀간 대전, 전주, 군산 등 3개 도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군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 대전이 2전 전승으로 우승 △대전=감독 김갑찬(金甲瓚) 및 백봉조(白奉祚), 김기형(金基亨 이상 투수), 이태은(李泰 포수), 송춘기(宋春基 1루수), 오경원(吳慶遠), 송재옥(이상 2루수), 김순성(金純聲 유격수), 송인영(宋寅英 3루수), 민준기(閔俊基 좌익수), 정두영(鄭斗永 중견수), 조종식(曹鍾植 우익수), 오경선, 신조민(申朝民 이상 후보)</p>	 <p>호남3도시대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대전군 선수들</p>
11.01	<p>■서울시추계고교·대학연맹전 대한학생야구연맹 주최로 11월 1일부터 8일간 서울시 고교(A, B) 및 대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경동고와 서울상대가 우승 ◇A조 순위=①경기고(3승) ②경북고(2승1패) ③사대부고(1승2패) ◇B조 순위=①경동고(3승) ②중앙고(2승1패) ③성남</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고(1승2패) ▲고교 결승전=경동고 4-0 경기고 ◇종합순위=경동고(4승) ②경기고(3승1패) ③중앙고(2승1패) ◇개인상 ▲ 타격상=최중록(崔重錄 성남고) △경동고=이학관(유격수), 박성근(1루수), 황병호(3루수), 백인원(포수), 이병수(좌익수), 이영우(李泳雨 중견수), 추연풍(투수), 이병식(우익수), 임여창(3루수) ▲대학 결승전=서울상대 3-2 중앙대 △서울상대=김재복(3루수), 최경남(1루수), 박종해(포수), 장태근(투수), 심응준(중견수), 서병인(좌익수), 박은진(3루수), 한정준(韓貞俊 우익수), 김의석(유격수)</p>	
11.20	<p>■ 제2회 아시아선수권대회 파견 선수단 환송대회 대한학생연맹 주최로 11월 20일 하오 1시 40분 서울 운동장에서 개최, 파견군이 대학선발군에 10-0으로 대승 △대학선발군=단장 곽상훈 감독 김태봉 및 어우흥, 허호준, 손명석, 김병선, 김인걸, 홍순하, 이수극(이상 상대), 김홍일, 김재복, 김의양, 최경남, 박종해(이상 상대), 진호영, 김흥기, 민병태(閔丙泰), 김만근(이상 중대), 장태근(약대)</p>	
12.03	<p>■ 제2회 아시아선수권대회 파견 한국대표단 결단식 12월 3일 오후 2시 대한금융조합 강당에서 단장 손효준을 비롯, 22명의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단식을 거행</p>	
12.09	<p>■ 아시아야구연맹 부회장에 이흥직 회장 필리핀 마닐라시 국제호텔에서 아시아야구연맹 총회를 열고 한국대표 이흥직(李鴻植) 대한야구협회 회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하고 매년 개최하던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를 2년에 1회 개최기로 약관을 개정, 이에 따라 제3회 대회(1957년)는 서울, 제4회 대회(1959년)는 일본, 제5회 대회(1961년)는 자유중국(대만)에서 개최기로 결정</p>	
12.10	<p>■ 제2회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 한국 3위 필리핀야구연맹 주최로 12월 10일부터 한국, 일본, 자유중국(대만), 필리핀 등 4개국이 출전한 가운데 필리핀 수도 마닐라 '리잘 메모리얼 스타디움'에서 더블 리그로 개최, 12월 18일 끝난 마지막 경기에서 자유중국에 1-3으로 역전 패를 당해 2승4패로 2년 연속 3위 ◇1차리그 ▲1차전(12월 10일)=한국 7-3 자유중국 ▲동 2차전(12월 11일)=한국 0-7 일본 ▲동 3차전(12월 12일)=한국 4-6 필리핀 ◇2차리그 ▲4차전(12월 15일)=한국 7-5 필리핀 ▲동 5차전(12월 17일)=한국 5-6 일본 ▲동 6차전(12</p>	 <p>제2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한국야구 대표선수들. 한국은 이 대회에서 2승4패로 3위에 머물렀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월 18일)=한국 1-3 일본 ◇종합 순위=①일본(6전 전승) ②자유중국(3승3패) ③한국(2승4패) ④필리핀(1승5패) ◇한국선수단 ▲단장=손효준(협회 부회장) ▲섭외=김영석(협회 이사장) ▲심판=조점룡(협회 이사) ▲보좌관=유대식(俞大植 육군 외야수) ▲주무=김을룡(金乙龍 육군 주무) ▲감독=이효(육군 야구부장) ▲코치=김일배(육군 코치) 및 김정환(1루수), 강대중, 김영복(金永福 이상 3루수), 박현식(중견수겸 좌익수및 3루수), 김양중(투수겸 좌익수), 김영조(포수), 장태영(우익수), 정관철, 허종만(이상 좌익수), 백기수(유격수), 김원규, 허정규(許正奎 이상 중견수), 박상규, 조영한(이상 2루수), 한태동, 서동준(이상 투수)</p>	 <p>제2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입장식</p>
1956. 02.26	<p>■ 대한야구협회 대의원 총회 한국산업은행 회의실에서 제10회 전국 대의원 총회를 열고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임 △회장=이홍직 △부회장=선우인서, 손효준 △이사장=이신득 △이사=김태호, 손희준, 김일배, 조점룡, 박점도, 김영석, 최재은, 최인철, 김재송, 이규백(李圭伯), 황우겸, 유완식, 진성섭, 김태봉, 이경구, 최세원, 김형두(金炯斗) △감사=민용규, 이창근(李昌根)</p>	<p>■ 01.26 동계올림픽대회 1월 26일 이탈리아 코르티나 담페초에서 열린 제7회 동계올림픽대회에 한국은 선수 7명을 파견</p>
03.12	<p>■ 대한학생야구연맹 임원 개선 △회장=홍찬(洪燦 3월 22일 선임) △부회장=문계식(文燾植), 김동근(金東根) △이사장=황우겸 △상무이사=풍규명, 김경한, 변응원 △이사=김영제 외 10명</p>	
03.18	<p>■ 야구 규칙서 발간 대한야구협회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야구 규칙서 발간</p>	
03.21	<p>■ 대한연식야구협회 정기 총회 대한연식야구협회가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고 56년도 임원을 다음과 같이 개선 △회장=이갑수 △부회장=박정준, 서용기(徐龍基), 김신실 △전무이사=조점룡 △상무이사=이한용, 이태흥, 김명배, 박응주, 장병숙(蔣秉淑) △이사=이희경, 조병주, 임춘실(林春實), 김동우, 정만식(鄭萬植), 박지완, 안강희(安康熙), 정인환, 김제윤(金濟允) △감사=신영성(申榮成), 풍규명, 유재봉(俞在鳳)</p>	
04.23	<p>■ 서울시고교·대학준계리그 대한학생야구연맹 주최로 4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15일간 선린상고, 서울사대부고, 경북고, 경동고, 성남고, 중앙고, 경기고, 경기공고, 휘문고 등 9개 고교와 서울상대 및 성균관대가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고등부에서 중앙고가 8전 전승으로, 대학부에선 성균관대가 3차전 끝에 2승1패로 우승 ◇고교 종합 순위=①중앙고(8승) ②경기고(7승1패) ③휘문고(5승3패)</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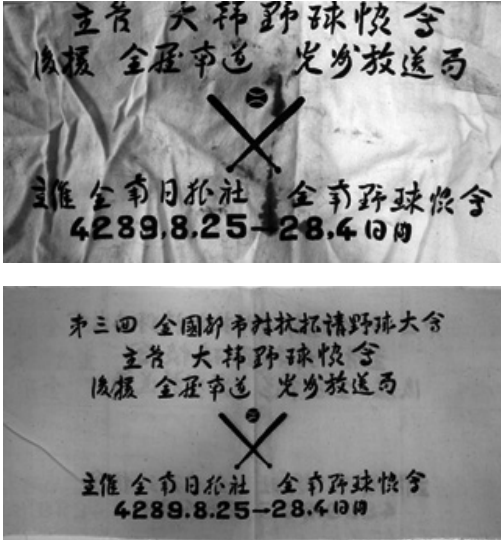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중앙고=천진환(千辰煥 3루수), 김익훈(金益勳 유격수), 박세훈(朴世勳 포수), 호창원(胡昌源 우익수), 조윤익(曹潤益 중견수), 정광석(鄭光錫 2루수), 이재영(李載榮 1루수), 김기열(金基烈 좌익수), 박용호(朴龍湖 투수), 고영환(高鎡煥 2루수)</p> <p>▲대학 1차전=성균관대 7-6 서울상대 ▲2차전=서울상대 2-0 성균관대 ▲3차전=성균관대 7-4 서울상대</p> <p>◇대학 종합 순위=①성균관대(2승1패) ②서울상대(1승2패)</p>	<p>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p>
05.22	<p>■서울시중학연맹전 춘계리그</p> <p>대한연식야구협회 서울시지부 주최로 5월 22일부터 8일간 서울, 청운, 보성, 중앙, 경동, 경기, 선린, 휘문, 광희, 보성, 경북중 등 11개 중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2개조로 나뉘어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7월 3일 속개된 결승전에서 선린중이 광희중을 2-1로 제치고 우승</p>	<p>■05.05 대통령 후보 신익희(申翼熙) 서거</p> <p>5월 5일 새벽 5시 20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호남지방 유세차 이동중 강경-이리간 열차 안에서 뇌일혈로 졸도, 새벽 5시 30분 이리 호남병원에서 치료중 사망</p>
05.27	<p>■한·미친선대회</p> <p>조선일보사 주최로 5월 27일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해군이 SMP를 6-5로 누르고 우승</p>	<p>■5.28 메이저리그 8연속경기 홈런</p> <p>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소속 데일 롱이 5월 19일부터 28일까지 8연속경기 홈런을 날려 메이저리그 최다 연속경기 홈런 기록 수립</p>
05.31	<p>■제11회 청룡기쟁탈 전국고교선수권대회</p> <p>조선일보사 주최로 5월 31일부터 4일간 부산고, 광주고, 대전고, 동산고, 중앙고, 세광고, 경북고, 인천고 등 8개 고교가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3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동산고가 신인식 투수의 노히트 노런(No Hit No Run)에 힘입어 중앙고를 1-0으로 누르고 대회 2연패</p> <p>▲준결승전=동산고 3-2 부산고, 중앙고 6-2 인천고</p> <p>▲결승전=동산고 1-0 중앙고</p> <p>◇개인상 ▲우수상=박세훈(중앙고) ▲타격상=김만규(金萬奎 부산고 .429) ▲미기상=이규정(李揆貞 동산고)</p> <p>△동산고=이규정(좌익수), 조병국(趙炳國 우익수), 이윤영(1루수), 박하성(유격수, 신인식(투수), 박의양(2루수), 김완형(중견수), 고덕영(3루수), 이길용(포수)</p> <p>△중앙고=(서울시고교춘계연맹전 참조)</p>	 <p>조선일보사가 선수들에게 나눠준 대회 출전 기념 버클(충북야구협회 곽완길 고문 제공)</p>
06.03	<p>■신인식, 노히트노런(No Hit No Run)</p> <p>제11회 청룡기쟁탈 전국고교선수권대회 결승전(동산고-중앙고)에서 동산고의 신인식이 중앙고 27타자를 상대로 탈삼진 11개를 잡으며 무안타 무실점 끝에 1-0으로 이겨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기록 수립</p>	
06.09	<p>■한·미친선대회</p> <p>대한야구협회 주최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6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미군 팀이 2전 전승으로 우승</p> <p>▲1차전=미24사단 8-7 조선운수 ▲2차전=미8군 3-1 전서울</p> <p>△전서울=감독 박점도 선수=김영조, 장석화, 배용섭</p>	<p>동산고 주장이 전국고교선수권대회 우승의 상징 청룡기를 펼쳐 들고 있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홍병창, 강대중, 이기역, 정관철, 이조영, 유인식, 안종태, 허곤, 김순성, 김성동	
06.15	<p>■ 제3회 백호기쟁탈 전국춘계군·실업쟁패전 경향신문사 주최로 6월 15일부터 육군, 해군, 공군, 조선운수 등 4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18일 열린 최종일 경기에서 공군이 육군을 4-3으로 제치고 첫 우승 ◇종합 순위=①공군(3승) ②육군(2승1패) ③해군(1승2패) ④조선운수(3패) ◇단체상 ▲우승=공군(수상품=백호기, 내무부장관배, 경향신문사장배) ▲준우승=육군(수상품=국방부장관배) ◇개인상 ▲우수상=허곤(공군 재무부장관배) ▲타격상=박현식(육군 상공부장관배) ▲미기상=장석화(조선운수 부흥부장관배) △공군=감독 백기주 조감독=허곤 및 송주창(포수), 김임렬(金任烈 중견수), 조성일(좌익수), 김영조(3루수) 허곤(우익수), 서영무(1루수), 정태수(2루수겸 포수), 이삼춘(李三春), 변세균, 김효창(金孝昌 이상 2루수), 주세현(유격수), 김홍일, 정만오(이상 투수) △육군=감독 한태동 코치 김일배(金日培) 및 장태영(우익수), 김정환(1루수), 박현식(3루수), 한태동, 김양중(이상 투수), 정주영(좌익수겸 우익수), 허종만(좌익수), 김진영(유격수), 김원규(중견수), 허호준, 김광택(이상 포수), 허정규(2루수) △해군=감독 김종관(金鍾寬) 코치 모무열(毛無說) 및 이수대(李秀大 중견수겸 좌익수), 이필균(우익수), 김계훈(좌익수), 백기수(유격수), 이덕영(투수겸 2,3루수), 김용구(1루수), 이의춘(3루수), 박진원(포수겸 3루수), 김길수(金吉秀 2루수), 유완식(투수겸 포수), 서동준(투수), 이팔관(1루수겸 우익수), 심연택(중견수겸 우익수)</p>	 <p>제3회 전국춘계군실업쟁패전에서 대회 사상 첫 우승을 차지한 공군 선수들</p>  <p>제3회 전국춘계군실업쟁패전 폐회식 장면</p>
06.24	<p>■ 한·미친선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 경향신문사 후원으로 6월 24일 미 1군단-전서울 경기를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전서울이 5-2로 미1군단을 물리치고 우승</p>	
07.06	<p>■ 제9회 전국도시대항연식대회 대한연식야구협회 주최로 7월 6일부터 4일간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결승전에서 대한도서(서울)가 해병대(파주)를 5-1으로 물리치고 우승</p>	
07.08	<p>■ 한·미친선대회 조선일보사 주최로 7월 8일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미 주둔군이 1승1무 ▲1차전=SMP 7-6 전서울군 ▲2차전=미1군단 1-1 육군</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7.17	<p>■ 제2회 서울시중학선수권대회 대한연식야구협회 서울시지부 주최로 7월 17일부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결승전에서 경동중이 선린중을 2-0으로 꺾고 우승 ▲준결승전=선린중 4-3 경북중, 경동중 1-0 보성중 ▲결승전=경동중 2-0 선린중</p>	
07.21	<p>■ 제1회 문교부장관배쟁탈 전국학생대회 대한학생야구연맹 주최 평화신문사 후원으로 7월 21일부터 선린상고, 경남상고, 경기고 부산상고, 동산고, 휘문고, 중앙고, 부산고, 경기공고, 경동고, 경북고, 서울사대부고, 인천공고, 부산공고, 경남고, 인천고, 배재고, 서울고 등 18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7월 31일 열린 결승전에서 동산고가 동향의 라이벌 인천고를 3-2로 누르고 우승 ▲준결승전=동산고 7-0 경남고, 인천고 12-2 인천공고 ▲결승전=동산고 3-2 인천고</p>	
07.29	<p>■ 오하이오주립대친선경기 7월 24일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야구선수단이 극동지역 주둔 미국 위문차 내한,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7월 29일 서울운동장에서 육군과 친선경기, 오하이오대가 12-2로 대승</p>	<p>서울운동장에서 경기를 앞두고 페넌트를 교환하고 있는 육군과 오하이오주립대 감독</p>
08.01	<p>■ 제3회 대통령친서우승기쟁탈 전국중학선수권대회 대한연식야구협회 주최로 8월 1일부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8월 6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부산 개성중이 인천 동산중을 6-0으로 격파하고 우승 ▲준결승전=동산중 4-2 성광중, 개성중 1-0 광희중 ▲결승전=개성중 6-0 동산중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이창근(李昌斤 개성중) ▲타격상=이창근(.385) ▲미기상=유병수(俞炳洙 개성중) ▲감투상=박명길(朴明吉 부산남중), 강봉식(康奉植 경동중)</p>	
08.01	<p>■ 중학야구 최장 연장전 32이닝 완투 신기록 대한연식야구협회 주최 제3회 대통령친서우승기쟁탈 전국중학선수권대회(8월 1~6일 서울운동장) 첫 경기 부산남중-경동중전이 9회 2-2로 동점, 부산남중이 32회에서 4점을 뽑아 경동중을 6-2로 꺾고 승리. 32이닝(투구수 377, 6시간 45분 소요)을 완투한 끝에 승리를 이끈 박명길(朴明吉)과 상대 투수 강봉식(康奉植)에게 연식협회가 감투상 수여</p>	
08.07	<p>■ 제1회 재일교포학생야구단 모국방문환영대회 한국일보사 초청으로 8월 4일 밤 10시30분 고교및 대학생들로 구성된 교포학생야구단 일행 25명이 일본 모지(門司)에서 해운공사 '알 마크' 편으로 출항, 항해중 '알 마크' 호 기관 고장으로 5일 밤 부산항 입항, 밤 9시 특별열차 편으로 부산역 출발, 6일 아침 9시5</p>	<p>32이닝을 완투한 박명길</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분 서울역 도착 즉시 자동차에 분승, 서울시내를 일주한 뒤 종로 해동여관에 투숙, 8월 7일부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마산, 인천을 순회하며 12차전을 치른 끝에 9승 3패를 기록</p> <p>◇재일교포학생야구단 △단장=김용석(金龍石 46) △임원=김갑수(金甲守 36) △감독=이수진(李壽鎭 33) △코치=최문도(崔文道 27) △투수=진태완(陳泰完 22), 최영도(崔泳道 20 금강金剛학원고), 권영환(權寧煥 18 한국韓國학원), 서명길(徐明九 19) △포수=최대길(崔大吉 21 메이지明治대), 송형두(宋形斗 18 나니와浪華상고) △1루수=김현대(金鉉大 18 아오야마靑山학원고) △2루수=오두수(吳斗洙 17 게이오京王고), 이성치(李盛治 18 토호東邦고) △3루수=나문규(羅文圭 18 스기나미杉竝고) △유격수=오양수(吳楊洙 20 메이지明治대), 박연홍(朴淵洪 21 사카이堺고) △외야수=김윤수(金允秀 24 메이지明治대), 엄익찬(嚴翼燦 19 순다이駿台고), 김만덕(金萬德 18 니시오西尾실업고), 배을룡(裴乙龍 21 고카쿠인工學院대)</p> <p>▲1차전(8월 7일 서울)=재일교포 6-1 경기고 △재일교포=감독 이수진 및 김현대(1루수), 김만덕(좌익수), 광영도(중견수), 최대길(포수), 배을룡, 김윤수(이상 우익수), 나문규(3루수), 오양수(유격수), 이성치(2루수), 송형두(대타겸 대주), 오두수(2루수), 진태완 권영환, 서명규(이상 투수) △경기고=감독 노정호 및 김응렬(좌익수), 김정중(金正中 유격수), 박민웅(포수), 이한원(1루수), 양규석(3루수), 정재문(鄭在文 2루수), 오대식(吳大植 2루수) 이진하(李震夏 우익수), 김동성(金東成 2루수), 김훈호(투수)</p> <p>▲2차전(8월 8일 서울)=재일교포 3-0 중앙고 △중앙고=감독 김영조 및 천진환(3루수), 이재영(1루수), 박세훈(포수), 호창원(우익수), 조윤익(중견수), 김기열(좌익수), 유재희(俞在禧 대타), 김익훈(유격수), 고영환(2루수), 박용호(투수)</p> <p>▲3차전(8월 16일 대전)=재일교포 4-2 대전학생선발 ▲4차전(8월 17일 대구)=재일교포 3-6 대구학생선발 ▲5차전(8월 19일 부산)=재일교포 6-3 경남상고 △경남상고=감독 최종을 및 장유복(張裕福 3루수) 박치명(朴治明 유격수), 구상문(具相文 중견수겸 투수) 임병호(林炳鎬 좌익수), 김장오(金章五 좌익수겸 중견수), 이재창(李在昌 포수), 주재민(朱載敏 2루수), 김용술(金容述 1루수), 이기락(李琪洛 투수), 고흥렬(高衡烈 우익수)</p> <p>▲6차전(8월 22일 마산)=재일교포 4-0 마산학생선발 ▲7차전(8월 24일 부산)=재일교포 1-3 경남고 △경남고=감독 고광적 및 김흥수(2루수), 문덕만(文德萬 좌익수), 김희련(유격수), 조상묵(3루수), 신현갑(포수), 김수갑(투수), 박태식(朴泰植 중견수), 심관섭(沈官燮 1루수), 박종환(우익수)</p> <p>▲8차전(8월 25일 부산)=재일교포 7-3 부산선발</p>	<p>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p>  <p>재일교포학생야구단 모국방문 팸플릿</p>  <p>통일호 열차편으로 서울역에 도착한 재일 동포학생야구 선수들과 대한야구협회 관계자들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p>  <p>8월 7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제1회 재일 교포 학생야구단 모국방문경기 입장식</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부산선발=정태수(鄭泰守), 임병호(이상 우익수), 김흥수(2루수), 이배근(李培根), 조상묵(이상 3루수), 성기영(成基泳), 김희련(이상 유격수), 구상문(중견수) 곽상령(郭相令), 정화집(鄭和集), 이기락, 김수갑(이상 투수), 박종환(좌익수), 이재창, 신현갑(이상 포수), 김용술, 장유복(이상 1루수)</p> <p>▲9차전(8월 30일 서울)=재일교포 1-2 휘문고 △휘문고=감독 장석화 및 김연수(金淵洙 좌익수), 윤용규(尹容圭 2루수), 김흥국(金興國 투수), 이병준(李炳準 포수), 황영흠(黃永欽 유격수), 차덕선(車德善 우익수), 김진모(金眞模 1루수), 김홍훈(金洪勛 3루수), 이태원(李台源 중견수)</p> <p>▲10차전(9월 1일 서울)=재일교포 3-0 인천고 △인천고=감독 김선웅 및 이강호(3루수), 김규성(金奎星 유격수), 배재호(裴材鎬 1루수), 이병렬(2루수), 고철호(투수), 박호성(朴好聲 포수) 이응범, 하덕준(이상 좌익수), 선우종(중견수), 장봉기(張鳳基 우익수)</p> <p>▲11차전(9월 2일 서울)=재일교포 7-3 동산고 △동산고=감독 박현덕 및 이규정(좌익수), 박의양(2루수), 이윤영(1루수), 박하성(유격수), 신인식(투수), 김완형(중견수), 김성문(金成文 대타), 조병국(우익수), 고덕영(3루수), 이길용(포수)</p> <p>▲12차전(9월 3일 인천)=재일교포 4-3 동산고</p>	 <p>8월 11일 상오 10시 경무대로 이승만 대통령을 예방한 재일교포 학생야구선수들</p>  <p>8월 12일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한 재일교포 학생야구선수들</p>
08.10	<p>■ 제8회 쌍룡기쟁탈 전국고교대회 국제신보사 주최로 8월 10일부터 6일간 인천고, 마산상고, 부산고, 휘문고, 부산공고, 서울고, 경남상고, 경동고, 경남고, 부산상고, 인천공고, 대전고, 동산고, 마산고 등 14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 8월 15일 열린 결승전에서 동산고가 2-0으로 인천고를 꺾고 대회 첫 우승</p> <p>▲준결승전=동산고 6-3 경남고, 인천고 3-1 경남고 ▲결승전=동산고 2-0 인천고</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고철호(인천고) ▲최우수투수상=신인식(동산고) ▲감투상=구상문(具相文 경남상고) ▲미기상=이강호(인천고), 김희련(경남고) ▲타격상=①김희련(경남고) ②선우종(鮮于鍾 인천고) ③신인식(동산고)</p> <p>△동산고=감독 박현덕 및 이규정(좌익수), 박의양(2루수), 이윤영(1루수), 박하성(유격수), 신인식(투수), 김완형(중견수), 조병국(우익수), 고덕영(3루수), 이길용(포수)</p> <p>△인천고=감독 김선웅 및 이강호(3루수), 김규성(유격수), 하덕준(河德俊 대타), 배재호(1루수), 이병렬(2루수), 고철호(투수), 박호성(포수), 이응범(좌익수), 선우종(중견수), 장봉기(우익수)</p>	 <p>청룡기, 문교부장관배, 쌍룡기, 인천4도시 등 4관왕을 차지한 동산고 선수들과 박현덕(朴賢德) 감독(왼쪽)</p>
08.11	<p>■ 한·미친선대회 조선일보사 주최로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미24사단, 미5공군, 공군, 해군, 조선운수 등 5개 팀이 출전</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미24사단과 미제5공군이 2전 전승으로 우승</p> <p>▲1차전=미24사단 10-1 공군 ▲2차전=미 제5공군 1-0 육군 ▲3차전=미 제5공군 2-0 조선운수 ▲4차전=미24사단 8-0 해군</p>	
08.14	<p>■ 제2회 NBC배쟁탈 전국선수권대회</p> <p>대한야구협회 주최로 8월 14일부터 6일간 육·해·공군 및 남선전기, 조선운수, 성균관대 등 6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8월 19일 열린 결승전에서 육군이 조선운수를 4-1로 꺾고 우승</p> <p>▲패자 1회전=성균관대 4-2 남선전기 ▲패자 2회전=성균관대 0-2 공군 ▲준결승전=조선운수 2-7 육군 ▲패자 결승전=조선운수 3-0 공군 ▲결승전=조선운수 1-4 육군</p> <p>◇개인상 ▲우수상=김양중(육군) ▲타격상=장태영(육군) .500(14타수 7안타) ▲홈런상=박현식(육군), 김영조(공군), 김창기(공군) 이기역(조선운수) 장태영(육군) ▲미기상=이필균(해군) ▲대표자상=이효(육군) ▲감독상=김일배(육군)</p>	<p>■ 1956. 사이영상 제정</p> <p>미국 프로야구에서 1890~1911년까지 활약한 투수 사이영(Cy Young)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상, 그 해 브루클린 다저스의 돈 뉴컴이 27승7패로 내셔널리그 MVP에 오른 뒤 사이영상까지 첫 수상(사이영상은 1966년까지 아메리칸리그와 내셔널리그 통틀어 1명에게 시상)</p>
08.23	<p>■ 제11회 전국대학선수권대회 중지</p> <p>서울신문사가 8월 23일부터 4일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9월 27일로 연기한 뒤 주최 측 사정으로 대회 개최를 중지</p>	
08.25	<p>■ 제3회 전국초청도시대항대회</p> <p>전남일보사 주최로 8월 25일부터 4일간 서울, 대전, 전주, 광주 등 4개 도 시대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광주일고 운동장에서 개최, 8월 28일 끝난 결승전에서 광주군이 대전군을 6-2로 물리치고 우승</p> <p>▲제1일(8월 25일)=대전 4-4 광주, 서울 8-3 전주 ▲제2일(8월 26일)=광주 13-2 전주, 대전 2-1 서울 ▲제3일(8월 27일)=대전 18-2 전주, 광주(기권 승)-서울 ▲결승전(8월 28일)=광주군 6-2 대전군</p> <p>◇우승=광주(3승1무) 준우승=대전(2승1무1패)</p> <p>◇개인상 ▲타격상=김기환(金基煥 서울 .570) ▲수비상=송춘근(대전) ▲감투상=심양섭(광주) ▲홈런상=김양중(광주)</p> <p>△광주군=감독 신현(申鉉) 및 김양중, 최정수(이상 투수), 심양섭, 염형렬(이상 포수), 구제민(具濟敏 1루수) 최정일(崔晶一), 전양섭(全亮燮 이상 2루수), 정병순(3루수), 김흥수, 전상면(全詳冕 이상 유격수), 김용욱(좌익수), 이장욱(중견수), 이종구(李鍾求 우익수)</p> <p>△대전군=감독 김갑찬 및 김기형, 송석형(宋錫瀼 이상 투수), 이태은(포수), 송춘근(1루수), 오경달, 이성범(李性凡 이상 2루수), 송인영(3루수), 김순성(유격수) 조종식, 정두영(이상 좌익수), 민준기(중견수), 백봉조 오경선(이상 우익수)</p>	 <p>제3회 전국도시대항초청대회 기념 패넌트 (위=전 대한야구협회 민준기 심판 제공, 아래=고 심양섭씨 손자 심호준씨 제공)</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9.07	<p>■ 제4회 백호기쟁탈 전국추계군·실업쟁패전 경향신문사 주최로 9월 7일부터 5일간 해병대, 해군, 조선운수, 육군 등 4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9월 11일 열린 최종일 경기에서 육군이 조선운수를 2-0으로 물리치고 3전 전승으로 우승 ◇종합 순위=①육군(3승) ②조선운수, 해군(이상 1승 1무1패) ③해병대(3패) ◇개인상 ▲우수선수상=김양중(육군) ▲타격상=김계훈(해군 .500) ▲홈런상=장태영(육군) ▲미기상=김재용(金載鏞 해병대)</p>	 <p>제4회 추계군실업쟁패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육군 선수들이 덕아웃에 느긋하게 앉아 있다.</p>
09.13	<p>■ 제11회 전국도시대항대회 한국일보사 주최로 9월 13일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마산, 부산, 대구 등 7개 도시 대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9월 16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인천이 서울을 4-2로 꺾고 우승 ▲준결승전=인천 2-0 대구, 서울 7-0 광주 ▲결승전=인천 4-2 서울 ◇개인상 ▲우수선수상=서동준(인천) ▲타격상=한태동(서울 .571) ▲미기상=김상대(마산) △인천=김영복(중견수), 김진영(유격수), 김광택(포수) 박현식(3루수), 심연택(우익수), 주세현(1루수), 박종규(좌익수), 한학수(2루수), 서동준(투수) △서울=강대중(유격수), 박상규(2루수), 김정환(1루수) 김영조(3루수), 한태동, 배용섭(이상 투수), 장석화(포수), 정관철(좌익수), 김용구(대타), 이조영(우익수), 이필균(중견수)</p>	 <p>제11회 전국도시대항대회를 찾은 이승만 대통령이 귀빈석에서 김영석 협회 이사의 해설을 들으며 경기를 관전하고 있다.</p>
09.28	<p>■ 제3회 인천4도시초청고교대회 '주간인천' 주최로 9월 28일부터 3일간 부산상고, 경북고, 동산고, 휘문고 등 4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인천공설운동장에서 개최, 9월 30일 동산고가 3승으로 우승한 가운데 폐막 ▲종합 순위=①동산고(3승) ②부산상고(2승1패) ③경북고, 휘문고(이상 1무2패)</p>	<p>■ 09.29 뉴욕 자이언츠 마지막 경기 뉴욕 자이언츠가 연고지 뉴욕에서 마지막 경기를 개최, 이듬 해부터 샌프란시스코로 이동, 팀 명칭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로 변경</p>
09.29	<p>■ 제10회 전국지구대표고교쟁패전 서울시예선 동아일보사 주최로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경북고, 경기공고, 중앙고, 휘문고, 서울고, 배재고, 경동고, 선린상고 등 8개 고교가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9월 30일 열린 결승전에서 중앙고가 경동고를 4-0으로 물리치고 우승(본선은 서울운동장 공사 관계로 본선 대회 중지) ▲준결승전=중앙고 10-0 서울고, 경동고 6-2 선린상고 ▲결승전=중앙고 4-0 경동고 △중앙고=천진환(3루수), 김익훈(유격수), 이재영(1루수), 호창원(우익수), 조윤익(중견수), 김기열(좌익수) 박세훈(포수), 박용호(투수), 고영환, 김연중(金連鍾 이상 2루수) △경동고=김상학(2루수), 이영우(중견수), 이병수(좌익수)</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수), 백인원(포수), 구태봉(具泰鳳 3루수), 정순방(鄭淳芳 유격수), 이기준(李起俊 1루수), 함해진(咸海鎭 우익수), 김창진(투수)	
09.29	■ 황금사자기쟁탈 제10회 전국지구대표고교쟁패전 서울운동장 공사 관계로 본선 대회 중지	
10.02	■ 서울운동장 야구장 개수 공사 착공 서울시가 '제3회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 개최를 목표로 2천만원의 예산과 2천7백만원 어치의 원조 시멘트로 개수 공사 착수	
10.03	■ 제37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대한체육회 주최로 10월 3일부터 9일까지 22개 종목에 5,950명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위 서울, 2위 경남, 3위 경북 ▲고등부 준결승전=동산고 8-0 대구상고, 중앙고 O-X 경남고(기권 패) ▲동 결승전=동산고(인천) 3-0 중앙고(서울) ▲대학부 결승전=동아대(경남) 7-2 중앙대(서울) ▲일반부 결승전=인천 3-2 서울 ▲중학부 연식 준결승전=경동중(서울) 1-0 한밭중(충남), 개성중(경남) 3-0 동인천중(인천) ▲동 결승전=경동중(서울) 1-0 개성중(부산) ▲일반부 연식 준결승전=부산(경남) 2-0 인천(경기), 대구(경북) 1-0 부산(경남) ▲동 결승전=대구(경북) 5-2 서울	 <p>제37회 전국체전에서 우승, 전성기를 이룬 동산고 멤버들. 왼쪽부터 조병국, 이길용, 고덕영, 이규정, 김완형, 박의양, 이윤영.</p>
10.08	■ 중학야구 37이닝 연속 완투 신기록 제37회 전국체육대회 중학부 야구경기 경동중과 한밭중의 준결승전, 서울운동장에서 하루, 선린중운동장에서 이틀을 싸운 끝에 37회 말 경동중이 한밭중의 실책으로 1점을 얻어 경기 종료. 이 경기에서 경동중은 강봉식(康奉植)과 백인천(白仁天)이 계투로 버틴 반면 한밭중은 이재환(李在煥)이 홀로 완투, 신기록 수립 (일본은 1933년 제19회 전국중등우승야구대회 준결승전에서 주쿄(中京)상업과 아카시(明石)중의 25회가 중학 최장 연장전)	<p>■ 10.08 월드시리즈 첫 퍼펙트 게임 뉴욕 양키스 돈 라슨이 양키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월드시리즈 5차전에 선발로 등판, 포수 요기 베라와 호흡을 맞춘 끝에 브루클린 다저스를 2-0으로 잠재우고 퍼펙트 게임을 수립</p> <p>■ 11. 22 제 16회 멜보른 올림픽대회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15일간 호주 멜보른에서 67개국 17개 종목에 3,184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개최, 한국 선수단은 57명이 출전해 송순천(宋順天)이 복싱에서 은메달, 김창희(金昌熙)가 역도 라이트급에서 동메달 획득</p>
10.27	■ 연·고(延·高)대항전 부활 연·고체육회 주최로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4종목(야구, 축구, 럭비, 농구)에 걸쳐 연고구장 및 서울운동장과 육군체육관에서 개최	
1957. 02.10	■ 대한야구협회 전국대의원대회 대한야구협회가 전국 2월 10일 상오 10시 서울체신청 회의실에서 제11회 대의원 총회를 열고 임원을 개선했다. △회장=이홍직 △부회장=선우인서 한홍(韓弘) △이사장=이신득 △상무이사=모무열, 오윤환, 금철, 노정호 △이사=김태호, 손희준, 김일배, 조점룡, 박점도,	<p>■ 메이저리그 규정 타석 제정 메이저리그가 게임 당 3.1 타석을 채워야 수위타자에 도전할 자격을 부여</p> <p>■ 메이저리그 골든글러브상 제정 포지션 별로 양대리그 통틀어 각 포지션</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김영석, 최재은, 최인철, 김재승, 이규백, 이효, 김수환, 백기주, 김선웅, 이경구, 진성섭, 노창호(盧昶鎬), 최세원, 김형두, 김태봉, 송찬문(宋昌文) △감사=민용규, 이창근	최고 수비수 1명에게 시상(1958년부터 양 리그 분리 시상)
02.10	■ 대한학생야구연맹 임원 개선 대한학생야구연맹이 2월 10일 오후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고 다음과 같이 임원을 개선 △고문=곽상훈 외 3명 △참여=이효 외 4명 △회장=이원용 △부회장=문계식, 배동환(裴東桓) △이사장=황우겸 △이사=풍규명 외 18인 △감사=김영제 외 1명	
03.	■ 고려대 야구부 창설 57년 3월 고려대 윤천주(尹天柱) 교수가 유진오(俞鎭午) 총장을 설득, 야구 동아리 수준에서 벗어난 정규 야구부를 창설해 김훈호(투수), 박민웅(포수), 김진모(金眞模 1루수), 김상학(金相鶴), 나종호(羅鍾浩 이상 2루수), 김응렬(좌익수), 정태현(鄭台鉉 중견수), 이웅렬(李雄烈 우익수) 등과 정식 출범	
04.13	■ 시즌 오픈 경기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오후 2시20분부터 용산 육군야구장에서 성균관대, 중앙대(이상 대학), 휘문, 경북, 중앙, 경기공고(이상 고교) 등 6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개최, 중앙대(대학부), 경북고, 경기공고(이상 고등부)가 각각 승리 ▲대학부=중앙대 4-3 성균관대 ▲고등부=경북고 4-3 휘문고, 경기공고 2-0 중앙고	■ 04.15 대한소년체육회 총회 대한소년체육회가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고 조경규(趙瓊奎)를 회장에 선임 ■ 04.19 보스턴 마라톤 3위 제61회 보스턴 마라톤대회에서 임종우(林鍾禹)가 2시간 24분 55초로 3위, 한승철(韓昇哲)은 2시간 28분 11초로 5위
04.27	■ 서울시고교·대학준계연맹전 대한학생야구연맹 주최로 4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울시 고교 및 대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용산 육군구장에 개최, 5월 8일 끝난 대학부 경기에서 성균관대가 2전 전승으로 우승. 고등부에서는 5월 30일 경북고가 10전 9승1무로 우승한 가운데 폐막 ▲대학부=①성균관대(2승) ②연세대(1승1패) ③중앙대(2패) ▲고등부=①경북고(9승1무)	■ 04.23 대한체육회 이사회 대한체육회가 반도호텔에서 첫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을 호선한 뒤 상무이사 진을 다음과 같이 결정 ▲이사장=정상희 ▲상무이사=이종구, 이순재, 이성구, 이윤용, 유태영
05.17	■ 제5회 백호기쟁탈 전국준계군·실업쟁패전 대한야구협회 경향신문사 공동 주최로 5월 17일부터 3일간 22사단, 육군, 공군, 조선운수 등 4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용산 육군야구장에서 개최, 최종일 경기에서 육군이 조선운수를 14-4로 격파하고 3전 전승으로 우승 ◇종합 성적=①육군(3승) ②조선운수(2승1패) ③공군(1승2패) ④22사단(3패) ◇개인상 ▲타격상=장태영(육군 .818) ▲미기상=정무궁(丁茂宮 22사단) ▲홈런상=박현식(육군)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6.25	<p>■ 제3회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 반납 대한야구협회가 9월 개최 예정인 제3회 아시아선수권대회를 서울운동장 확장 공사의 지연으로 '부득이 중지' 하기로 결정하고 대회를 반납</p>	
06.28	<p>■ 제12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동산고 3연패 조선일보사 주최로 6월 28일부터 4일간 세광고, 인천고, 경북고, 동산고, 부산상고, 전주고, 경북고, 세광고, 대전고, 광주상고 등 10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 7월 1일 열린 결승전에서 동산고가 인천고를 3-1로 꺾고 대회 사상 첫 3연패 달성 ▲준결승전=인천고 4-3 경북고, 동산고 2-0 부산상고 ▲결승전=동산고 3-1 인천고 ◇개인상 ▲우수투수상=신인식(동산고) ▲타격상=이주홍(李柱弘 경북고) ▲미기상=김규성(인천고)</p>	<p>제5회 전국춘계군실업쟁패전에서 11타수 9안타를 때려 타율 .818을 기록한 육군의 장태영</p>
07.05	<p>■ 제4회 전국초청도시대항대회 전남일보사 주최로 7월 5일부터 3일간 서울, 대전, 전주, 송정, 광주 등 4개 도시에서 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광주서중 운동장에서 개최, 서울이 2전 전승으로 우승 ▲제1일(7월 5일)=송정 4-0 전주, 광주 3-3 대전 ▲제2일(7월 6일)=서울 3-1 대전, 광주 6-0 송정 ▲제3일(7월 8일)=서울 4-2 광주 ◇종합 성적=①서울군(우승) ②대전군, 광주군(이상 준우승) ◇개인상 ▲타격상=김순성(서울) ▲감투상=김도영(金道英 전주) ▲미기상=김홍일(대전) ▲장려상=윤병재(尹炳在 송정) △서울군(조선운수)=감독 박점도 및 배용섭, 이기상 송석형(이상 투수), 김영조, 한학수(이상 포수), 송춘기(1루수), 고병호(2루수), 김순성(3루수), 이기역, 손상룡(이상 유격수), 안종태(좌익수), 이조영(중견수), 김성동, 서광덕(이상 우익수) △대전군(공군)=감독 김만식(金萬植) 및 정만오, 김길웅, 김홍일, 구상문(이상 투수), 송주창, 장유복(이상 포수), 서영무(1루수), 변세균(2루수), 이삼준(3루수) 주세현(유격수), 이홍진, 조성일, 민준기, 조종식, 정두영, 백봉조(이상 외야수) △광주군=감독 신현 및 김양중, 장복상, 최정일(이상 투수), 염형렬, 유태신(이상 포수), 심양섭(1루수), 김의석(2루수), 정병순, 김흥수(이상 3루수), 전상면(유격수), 강삼채, 정현성, 김용욱(이상 좌익수), 이장옥(중견수), 이종구, 박희옥(朴熙玉), 이승하(李承夏) 이상 우익수)</p>	 <p>전남일보사 주최로 광주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4회 전국도시대항초청대회 기념페넌트</p>
08.01	<p>■ 제9회 쌍룡기쟁탈 전국고교대회 국제신보사 주최로 8월 1일부터 7일간 동산고, 경기공고, 부산공고, 대구상고, 마신고, 배재고, 부산상고,</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중앙고, 경남상고, 대전사범, 경남고, 경북고, 인천고, 부산고 등 14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 결승전에서 경북고가 경기공고를 5-2로 제치고 우승</p> <p>▲준결승전=경기공고 4-1 대구상고, 경북고 4-2 중앙고 ▲결승전=경북고 5-2 경기공고</p> <p>◇개인상 ▲최우수투수상=임소철(林小哲 경북고) ▲우수상=박노학(朴魯鶴 경기공고) ▲타격상=최박지(崔博之 부산상고 .555) ▲미기상=김흥국(金興國 경기공고) ▲감투상=이주홍(경북고)</p> <p>△경북고=감독 이기역(李起驛) 및 이주홍(포수), 박주훈(朴疇薰 3루수), 김동엽(金東燁 2루수), 차중덕(車重德 중견수), 임소철(투수), 안수웅(安秀雄 1루수), 박중남(朴重男 우익수), 김동현(金東顯 좌익수), 임규한(林圭漢 유격수)</p> <p>△경기공고=감독 오윤환(吳潤煥) 및 박성덕(朴聖德 유격수), 김흥국(우익수), 김영빈(金榮彬 중견수), 박노학(투수), 김신하(金信河 포수), 임명선(任明先 3루수), 양상연(梁相然 좌익수), 김석환(金錫煥 2루수), 차일룡(車一龍 1루수), 정태길(鄭泰吉 대타)</p>	
08.10	<p>■한·미친선대회</p> <p>경남야구협회 주최로 8월 10~11일 해군-미SAC가 부산공설운동장에서 대결, 1승1무로 무승부</p> <p>▲1차전=해군 4-3 미SAC ▲2차전=미SAC 11-0 해군</p>	
08.10	<p>■제2회 재일교포학생야구단 모국방문환영대회</p> <p>한국일보사 초청으로 8월 6일 아침 9시 30분 일행 26명이 해운공사 소속 '알 마크' 호 편으로 부산항에 입항, 밤 9시 열차 편으로 부산을 출발, 7일 아침 9시 5분 서울역에 도착한 뒤 서울역-남대문-세종로-안국동(한국일보사 앞)-화신 앞-을지로1가-한국은행 옆-시청 앞-반도호텔-서울운동장 앞-동대문-종로3가-수도극장-대원호텔 코스로 카 퍼레이드, 8월 1일부터 서울, 광주, 대전, 대구, 부산, 마산, 인천을 순회하며 16차전을 개최한 끝에 13승2무1패를 기록</p> <p>◇재일교포선수단 △고문=권영섭(權寧燮 재일야구협회 회장), 김희명(金熙明 거류민단 사무총장) △단장=김정주(金正柱 재일야구협회 이사장) △부회장=김현성(金鉉成 동 부회장), 이오동(李五童 동 전무이사) △김기철(金己哲 동 이사) △섭외=채수인(蔡洙仁 동 이사) △보도=이지수(李志水 동 이사) △감독=이수진 △주무=최문도 △선수=진태완(고쿠가쿠인國學院고), 배수찬(裊壽讚 에바라荏原고), 김광삼(金光三 세이로西陵상고), 최대길(메이지가쿠인明治學院대), 손영근(孫英根 오하시大橋고), 곽영도(이쿠에이育英고), 황필룡(黃必龍 가나가와神奈川대), 이성치(토호東邦고), 오두수(게이오京王고), 이성현(李成鉉 테이교帝京상고), 나문규(스기나미杉並고), 황덕룡(黃德龍 지바千葉3고), 박명조(朴命祚 지바상고), (金景漢 무라노村野공</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고), 김현대(아오야마靑山학원고), 김육태(金陸泰 니시 오西尾고), 박득현(朴得鉉 리츠메이칸立命館대부고)</p> <p>▲1차전(8월 10일 서울)=교포선발 7-0 중양고 △교포선발=감독 이수진 및 곽영도(1루수), 이성현(유격수), 손영근(포수), 황덕룡(중견수), 배수찬(투수겸 우익수), 박명조(좌익수), 최대길(좌익수겸 포수), 진태완(대타겸 좌익수), 황필룡(우익수겸 1루수), 김현대(우익수겸 좌익수), 김육태(우익수), 나문규(3루수), 김광삼(투수), 이성치, 오두수(이상 2루수)</p> <p>△중양고=감독 김영조 및 홍선표(洪先杓 중견수), 유재희, 최영호(崔英浩 이상 1루수), 김익훈(유격수) 박세훈(포수), 박하일(朴河一 3루수), 고영환(2루수), 최화용(崔和勇 우익수), 박용호(투수), 정영보(鄭永保 좌익수)</p> <p>▲2차전(8월 11일 서울)=교포선발 12-3 경북고 △경북고=감독 이기역 및 이주홍(포수), 박주훈(3루수) 김동엽(2루수), 차중덕(중견수), 임소철(투수), 안수웅(1루수), 박중남(우익수), 원서성(元西星 대타), 김동현(좌익수), 임규한, 차희국(車熙國 이상 유격수)</p> <p>▲3차전(8월 15일 서울)=교포선발 2-2 동산고 △동산고=감독 박현덕 및 정인성(포수), 박기련(중견수), 신인식(투수), 박하성(유격수), 이강웅(李康雄 우익수), 염종운(廉鍾云 3루수), 김응회(金應會 2루수), 허명호(許明浩 1루수), 조한수(趙漢秀 좌익수)</p> <p>▲4차전(8월 17일 광주)=교포선발 10-1 광주선발 △광주선발=김의석(2루수), 이종구(우익수), 노일선(盧日先 3루수), 고현식(高鉉植 1루수), 구제민(포수겸 1루수), 염형렬, 임기만(林基萬 이상 포수), 최정일(투수), 정현성, 서용선(徐容善 이상 중견수), 전상면(유격수), 김용욱(좌익수)</p> <p>▲5차전(8월 19일 대전)=교포선발 12-4 대전선발 ▲6차전(8월 22일 대구)=교포선발 15-0 대구선발 ▲7차전(8월 24일 부산)=교포선발 10-8 부산상고 △부산상고=감독 박재영 및 한명복(韓命福 2루수), 이무웅(李茂雄 3루수), 문영철(文永哲 1루수), 안남수(安南洙 포수), 최박지(우익수), 이위재(李渭宰 좌익수), 남흥우(南興佑), 김부길(金富吉 이상 투수), 박명길(朴明吉 유격수), 양득모(梁得模 중견수)</p> <p>▲8차전(8월 25일 부산)=교포선발 15-1 경남고 △경남고=감독 고광적 및 김동진(金東鎭 중견수), 김동주(金東柱 3루수), 신현갑(포수), 김희련(유격수), 문덕만(2루수), 김수갑(투수), 박영길(朴永吉 우익수), 안이웅(安利雄 좌익수), 심관섭(1루수)</p> <p>▲9차전(8월 27일 부산)=교포선발 9-7 부산선발 △부산선발=한명복(유격수겸 2루수), 김동진(중견수) 김희련(유격수), 이위재(좌익수), 신현갑(대타), 문영철(1루수), 이재창(포수), 주재민(3루수), 문덕만(2루수겸 좌익수), 김수갑, 최박지(이상 우익수), 남흥우(투수)</p> <p>▲10차전(8월 29일 마산)=교포선발 2-0 마산선발 ▲11차전(8월 31일 서울)=교포선발 1-1 경기공고</p>	 <p>재일교포학생야구단 모국방문환영대회 개막식에서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다.</p>  <p>재일교포-중양고의 첫 경기를 축하하는 비행기가 서울운동장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p>  <p>개막식에서 재일교포를 대표해 답사를 하는 재일야구협회 권영섭 회장</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경기공고=감독 오윤환 및 박성덕(유격수), 양상연(좌익수), 김흥국(金興國 우익수), 김영빈(중견수), 박노학(朴魯鶴 투수), 김신하(포수), 임명선(3루수), 김석환(2루수), 정태길(대타), 차용호(車龍浩 1루수)</p> <p>▲12차전(9월 1일 서울)=교포선발 10-3 인천고 △인천고=감독 김선웅 및 심순철(沈順哲 2루수), 김규성(유격수), 박호성(포수), 장봉기(3루수), 지종걸(池宗杰 좌익수), 선우종(중견수), 배재호(1루수), 오영학(吳永學 우익수), 이선덕(李善德 우익수겸 투수), 이건부(李健夫), 김윤택(金潤澤 이상 우익수), 남창희(南昌熙 투수겸 우익수)</p> <p>▲13차전(9월 2일 서울)=교포선발 2-0 휘문고 △휘문고=감독 홍병창(洪丙昌) 및 차덕선(중견수), 안재수(安在洙 우익수), 강남규(姜南奎 투수), 김연수(金淵洙 좌익수), 백남식(白南植 3루수), 이병준(포수), 조창선(趙昌善 1루수), 황영흠(유격수), 김화영(金華泳 2루수)</p> <p>▲14차전(9월 2일 서울)=교포선발 8-1 서울선발 △서울선발=김흥국(우익수), 박주훈, 임명선(이상 3루수), 김동엽(1루수), 김영빈(좌익수), 차중덕(중견수), 박노학 김창진(金昌鎭), 임소철(이상 투수), 김익훈(金益勳 유격수), 김정중(金正中 2루수), 임규한(대타), 이주홍(포수)</p> <p>▲15차전(9월 4일 인천)=교포선발 6-2 인천고 ▲16차전(9월 5일 인천)=교포선발 0-1 동산고</p>	 <p>경기에 앞서 대한야구협회 이신득 이사장과 재일교포 이수진감독과 페넌트를 교환</p>  <p>8월 22일 대구를 찾은 재일교포 선수들이 대구공설운동장에서 대구선발과 경기에 앞서 입장식을 거행하고 있다.</p>
08.17	<p>■제4회 대통령친서우승기쟁탈 전국중학선수권대회 대한연식야구협회 주최로 8월 17일부터 전국에서 11개 중학 팀(경남, 마산동, 부산남, 경동, 동래, 광주북, 광희, 덕원德元, 선린, 한영, 부산중)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 8월 21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대신중이 17회 연장전 끝에 선린중의 실책으로 1점을 얻어 1-0으로 우승</p> <p>▲준결승전=대신중 1-0 경동중, 선린중 2-1 광희중(연장 18회) ▲결승전=대신중 1-0 선린중(연장 17회) ◇개인상 ▲우수상=김삼용(金三用 대신중) ▲타격상=이영희(李永熙 부산중 .429) ▲미기상=김정의(金正義 광희중)</p>	 <p>대구에서 열린 재일교포학생 환영대회 입장식에서 대표들이 기념품을 교환</p>
09.09	<p>■제3회 서울시중학선수권대회 대한연식야구협회 서울시지회가 9월 9일부터 제38회 전국체육대회 서울시중학예선대회를 겸해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9월 13일 열린 결승전에서 경동중이 10회 연장전 끝에 1-0으로 광희중을 꺾고 우승</p> <p>▲준결승전=광희중 1-0 중앙중, 경동중 1-0 한영중 ▲결승전=경동중 1-0 광희중</p>	<p>■08.21 가네다 퍼펙트 게임 수립 재일교포 가네다(金田正一)이 주니치(中日)전에 고쿠데스(國鐵) 투수로 등판, 27타자를 상대로 삼진 10개를 잡은 끝에 1-0으로 퍼펙트 게임(Perfect Game, 완전 경기) 수립</p>
09.21	<p>■제11회 전국지구대표고교쟁패전 동아일보사 주최로 9월 21일부터 전국 6개 고교 팀(경동, 부산상, 동산, 대전, 세광, 경북고)이 출전한 가운데 인천공설운동장에서 개최, 9월 23일 열린 결승</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전에서 동산고가 경북고를 3-2로 누르고 우승 ▲준결승전=경북고 4-3 경동고, 동산고 9-1 부산상고 ▲결승전=동산고 3-2 경북고 ◇개인상 ▲우수상=김창영(金昌永 경북고 투수) ▲타격상=박하성(동산고 유격수 .429) ▲미기상=조한수(동산고 좌익수) ▲본루타상=박하성(동산고 유격수)</p>	
10.11	<p>■ 제4회 인천4도시초청고교대회 주간 인천사 주최로 10월 11일부터 3일간 부산상고, 경북고, 경동고, 동산고 등 4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인천공설운동장에서 개최, 10월 13일 동산고가 3전 전승으로 우승 ◇종합 순위=①동산고(3승) ②경동고(2승1패) ③부산상고(1승2패) ④경북고(3패)</p>	<p>경북고-경동고의 준결승전 9회초 2사 주자 2루에서 포수 실책으로 경북고 김창홍(金昌弘)이 홈인, 결승점을 올렸다.</p> <p>■ 09.22 북한, 올림픽위원회 가입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제35차 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북한올림픽위원회는 한국을 통해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조건부로 가입을 승인</p> <p>■ 행크 에론 첫 홈런, 타점왕 등극 밀워키 브레이브스의 행크 에론이 1954년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홈런왕(44)과 타점왕(132)에 등극</p> <p>■ 메이저리그 최다 16연타석 출루 테드 윌리엄스가 메이저리그 사상 최초로 16연타석 출루로 최고 기록 수립</p>
10.18	<p>■ 제38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대한체육회 주최로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1주일간 서울을 비롯한 10개 시 도에서 5,579명의 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 고등부 결승전에서 인천고(경기)가 부산상고(부산)를 3-2로 누르고 우승 ▲고등부 준결승전=인천고(경기) 6-3 경북고(경북), 부산상(경남) 6-4 경동고(서울) ▲동 결승전=인천고(경기) 3-2 부산상고 ▲대학부 결승전=성균관대(서울) 13-5 동아대(부산) ▲일반부 결승전=남선전기(경남) 13-7 군산(전북) ▲중등부 연식 준결승전=경동중(서울) 7-2 신라중(전북), 대신중(경남) 1-0 동인천중 ▲동 결승전=경동중(서울) 1-0 대신중(경남) ▲일반부 연식 준결승전=남선전기(경북) 1-0 조선전업(서울), 부산전화국 9-0(기권) 인천 ▲동 결승전=남선전기(경북) 1-0 부산전화국</p>	
10.22	<p>■ 한국 최초 퍼펙트 게임(Perfect Game) 수립 제38회 전국체육대회 중학부 야구경기 준결승전에서 대신중의 김삼용(金三用)이 동인천중 27명의 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무사사구 무안타 무실점으로 막은 끝에 1-0으로 한국야구 사상 첫 퍼펙트 게임 수립</p>	
10.26	<p>■ 제3회 NBC배쟁탈 전국선수권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10월 26일부터 4일간 전인천, 해군, 공군, 동아대, 육군, 성균관대, 조선운수 등 7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용산 육군야구장에서 개최, 10월 29일 열린 결승전에서 육군이 조선운수를 3-0으로 꺾고 우승 ▲준결승전=육군 3-1 해군, 조선운수 3-0 해군(패자부활) ▲결승전=육군 3-0 조선운수 △육군=장태영(우익수), 김정환(1루수), 정두영(좌익수), 박현식(3루수), 김양중(투수), 김진영(유격수), 김원규, 진원주(이상 중견수), 허호준(포수), 성기영(2루수)</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조선운수=고병호(2루수), 안종태(좌익수), 이기역(유격수), 김영조(1루수), 정관철(우익수), 장석화(포수), 이조영(중견수), 서광덕(대타), 배용섭(투수), 김순성(3루수)	
10.31	■제12회 전국대학선수권대회 서울신문사가 대회 개최를 포기, 대한야구협회 단독 주최로 10월 31일 동아대와 성균관대, 두 팀만 출전한 가운데 용산 육군구장에서 개최, 성균관대가 4-1로 동아대를 물리치고 우승	
11.01	■제6회 백호기쟁탈 전국추계군·실업쟁패전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11월 1일부터 4일간 육군, 해군, 조선운수, 인천 등 4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용산 육군구장(서울운동장 공사 관계로)에서 개최, 조선운수가 3승1패로 우승 ◇종합 순위=①조선운수(3승1패) ②육군(2승2패)	
11.08	■제32회 4구락부연맹전 4구락부연맹이 주최하고 동아일보사가 후원한 제32회 4구락부 연맹전이 11월 8일부터 4일간 배재, 중앙, 휘문만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1월 11일 열린 결승전에서 중앙이 배재를 5-3으로 꺾고 1승 1무로 우승 ▲1차전(11월 8일)=배재 7-6 휘문 ▲2차전(11월 9일)=휘문 2-2 중앙 ▲3차전(11월 11일)=중앙 5-3 배재 ◇종합 순위=①중앙(1승1무) ②배재(1승1패) ③휘문(1무1패)	■자이언츠, 다저스 본거지 이전 1957 시즌을 끝으로 뉴욕 자이언츠는 샌프란시스코로, 브루클린 다저스는 로스앤젤레스로 본거지를 이전, 메이저리그가 활동 범위를 미국 대륙의 서부지역까지 확장
1958. 01.25	■대한연식야구협회 정기 총회 대한연식야구협회가 총무로 2가 태극당에서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임원을 개선한 뒤 2월 8일 오후 2시 태극당 홀에서 회장단 취임식을 거행 △회장=이갑수 △부회장=박정준, 김제운 △전무이사=신창근 △이사=이삼봉, 이태흥, 김명배, 박응주, 이희경, 조병주, 임춘실, 김동우, 정만식, 박지완, 안강희, 정인환, 풍규명, 이삼봉, 이규태, 유재봉	■01.25 동계체육대회 개최 대한체육회 주최로 한강 링에서 스피드, 피규어, 아이스하키 등 3개 부문에 3백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제39회 동계체육대회를 개최
02.23	■대한야구협회 전국대의원 대회 대한야구협회가 2월 23일 상오 10시 한국산업은행 회의실에서 제12회 전국대의원 대회를 열고 전년도 예산 결산 및 사업보고와 신년 사업계획안을 심의한 뒤 임원을 개선 △회장=이홍직 △부회장=선우인서 △이사장=이신득 △상무이사=모무열(총무), 오윤환(경기), 금철(섭외), 노정호(재무) △이사=김태호, 김일배, 박점도, 이효, 김영석, 최재은, 김재송 백기주 △감사=김수환, 김태봉 △심판장=김영석	■02.16 KNA 민간여객기 납북 2월 16일 부산 수영비행장을 떠나 서울로 향하던 KNA 민간 여객기 창랑호(DC 3)가 탑승객 34명과 함께 북한으로 납북 ■03.06 KNA 납북 승객 귀환 3월 6일 북한이 판문점을 통해 탑승객 34명중 26명만 송환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4.25	■ 서울시고교총계연맹전 서울운동장 확장 공사 관계로 중지	
05.22	■ 제13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서울시예선 조선일보사 주최로 5월 22일부터 6일간 휘문, 서울공, 선린상, 경기공, 배재, 경북, 한영, 중앙, 경기, 성동, 경동고 등 11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용산 육군구장에서 개최, 5월 27일 열린 결승전에서 경기공고가 경동고를 9-4로 제치고 우승 ▲준결승전=경기공고 3-1 선린상고, 경동고 7-0 중앙고 ▲결승전=경기공고 9-4 경동고	
05.22	■ 강남규(姜南奎), 고교야구 첫 퍼펙트 게임 제13회 청룡기 쟁탈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서울시예선에서 휘문고의 강남규가 용산 육군구장에서 서울공고를 상대로 무안타 무사사구 무실점으로 고교야구 사상 첫 퍼펙트 게임(Perfect Game) 수립	■ 05.24 제3회 아시아경기대회 일본 도쿄에서 15종목, 20개 국에서 1,408명이 출전, 한국은 156명이 출전, 금 8, 은 7, 동 12개로 종합 3위
06.05	■ 제13회 청룡기쟁탈 전국고교선수권대회 조선일보사 주최로 6월 5일부터 5일간 춘천고, 경기공고, 대구상고, 경남고, 인천고, 광주일고, 동산고, 대전사범, 세광고 등 9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용산 육군구장에서 개최, 6월 9일 열린 결승전에서 경기공고가 인천고를 2-1로 누르고 우승 ▲준결승전=경기공고 8-0 동산고, 인천고 4-2 경남고 ▲결승전=경기공고 2-1 인천고 ◇개인상 ▲우수선수상=김영빈(경기공고) ▲타격상=신이술(申二述 경남고 .500) ▲미기상=지종걸(인천고) △경기공고=감독 오윤환 및 정종태(鄭鍾泰 3루수), 최향렬(崔香烈 유격수), 김옥경(金玉經 포수), 김영빈(중견수), 박노학(투수겸 1루수), 천석규(千碩圭 투수겸 1루수), 정태길(좌익수), 최우상(崔雨相 2루수겸 우익수), 김태복(金泰福 우익수), 육덕룡(陸德龍 2루수) △인천고=감독 김선웅 및 김인택(金仁澤 중견수), 이선덕(투수), 오영학(吳永學 1루수), 박호성(포수), 남창희(유격수), 한수흥(韓洙興 3루수), 이양선(李良善 우익수), 김규화(金奎和 2루수), 은성식(殷成植 좌익수) 지종걸(좌익수)	 <p>1958년 제13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인천고를 2-1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한 경기공고 주장 박노학(朴魯鶴) 선수에게 청룡기를 수여하고 있다.</p>
06.14	■ 제4회 마산4도시대항대회 마산야구협회 주최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경주, 대구, 부산, 마산 등 4개 도시 대표 팀이 출전한 가운데 마산상고 운동장에서 개최, 최종일 경기에서 부산이 마산을 1-0으로 물리치고 3전 전승으로 우승 ◇종합 순위=①부산(3승) ②마산(2승1패) ③대구(1승2패) ④경주(3패)	
06.20	■ 제1회 전국4도시초청고교대회 부산일보사 주최로 6월 20일부터 3일간 동산, 인천,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대구, 부산상고 등 3도시 4개 고교팀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 6월 22일 끝난 최종일 경기에서 인천고가 부산상고를 5-3으로 꺾고 첫 우승</p> <p>▲제1일=부산상고 7-4 동산고, 인천고 4-3 대구상고 ▲제2일=부산상고 10-2 대구상고, 인천고 4-0 동산고 ▲제3일=인천고 5-3 부산상고, 대구상고 1-0 동산고</p> <p>◇종합 순위=①인천고(3승) ②부산상고(2승1패) ③대구상고(1승2패) ④동산고(3패)</p> <p>◇개인상 ▲우수상=남창희(인천고) ▲타격상=이무웅(李茂雄 부산상고) ▲미기상=이선덕(인천고)</p>	
06.20	<p>■ 제8회 백호기쟁탈 전국군실업쟁패전</p> <p>경향신문사 주최로 6월 20일부터 육군, 해군, 공군, 12사단, 조선운수 등 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용산 육군야구장에서 개최, 6월 23일 열린 결승전에서 육군이 해군을 6-1로 격파하고 대회 3연패</p> <p>▲준결승전=육군 9-4 조선운수, 해군 6-5 공군 ▲결승전=육군 6-1 해군</p> <p>◇개인상 ▲타격상=엄창섭(공군 .500) ▲홈런상=박현식</p> <p>△육군=감독 허종만 및 성기영(2루수), 김정환(1루수) 장태영(중견수), 박현식(좌익수), 김양중(투수), 진원주(우익수), 김진영(유격수), 김희련(3루수), 허호준(포수)</p> <p>△해군=감독 김종관 및 김길수(2루수), 김정오, 박진원(이상 좌익수), 이필균(우익수), 김용구(1루수), 정병섭(포수), 배동원(유격수), 이배근(3루수), 오덕환, 이병수(이상 중견수), 고익동(대타), 서동준(투수)</p>	
06.26	<p>■ 제5회 전국초청도시대항대회</p> <p>전남일보사 주최로 6월 26일 서울, 인천, 춘천, 대구, 부산, 군산, 광주 등 7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광주서중운동장에서 개최, 우천으로 2일간 연기한 끝에 7월 1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인천군이 6-3으로 광주군을 물리치고 우승</p> <p>◇우승(제1관구사령관상)=인천군 ◇준우승(육군보병학교장상)=광주군</p> <p>◇개인상 ▲타격상=염형렬(광주) ▲수비상=김흥수(광주) ▲미기상=이장욱(광주) ▲감투상=김양중(광주) ▲홈런상=박현식(인천) ▲장려상=김진영(인천)</p> <p>△인천군=김진영(유격수), 김광택(포수), 진원주(좌익수), 박현식(투수), 서동준(투수겸 중견수), 박하성(3루수), 이병렬(2루수), 장세문(우익수), 김점생(1루수)</p> <p>△광주군=이장욱(중견수), 김흥수(3루수), 김양중(투수), 심양섭(1루수), 염형렬(포수), 강삼채(좌익수), 정현성(우익수), 전상면(유격수), 최정일(2루수)</p>	 <p>전남일보사 주최로 광주에서 열린 제5회 전국초청도시대항대회에 투수로 출전, 우승을 뽑은 서동준(가운데)이 동료들과 우승기와 우승 컵을 들고 기념 촬영.</p>
07.20	<p>■ 이영민 타격상 제정</p> <p>대한야구협회가 한국야구에 큰 흔적을 남긴 고(故) 이</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영민(李榮敏)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허곤의 발의로 이영민 타격상을 제정, 58년부터 국내 3개 대회(조선일보사 주최 전국고교선수권대회, 동아일보사 주최 전국 지구대표고교쟁패전, 국제신보사 주최 전국고교대회)에서 종합 타율이 가장 높은 선수를 선정해 시상</p>	
07.23	<p>■제10회 쌍룡기쟁탈 전국고교대회 국제신보사 주최로 7월 23일 경북고, 성동고, 경남상고, 부산공고, 중앙고, 동산고, 경남고, 인천고, 부산고, 경기공고, 동아고, 배재고, 부산상고, 세광고, 경동고 등 15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 8월 7일 열린 결승전에서 10회 연장전 끝에 경남고가 3-2로 경기공고를 누르고 우승 ▲준결승전=경남고 10-7 경북고, 경기공고 3-0 부산상고 ▲결승전=경남고 3-2 경기공고 ◇개인상 ▲최우수투수상=심관섭(경남고) ▲우수상=박노학(경기공고) ▲타격상=박하일(중앙고) ▲미기상=최박지(부산상고) ▲감투상=박청광(朴淸光 경남고) △경남고=감독 고평적 및 박청광(3루수), 마동명(馬東明 유격수), 김동주(2루수), 박영길(1루수), 심관섭(투수), 김삼용(좌익수), 신이술(포수), 강기주(姜麒周), 최창호(崔昌浩 이상 우익수), 김창규(金昌圭 중견수) △경기공고=감독 오윤환 및 정종태(3루수), 최향렬(유격수), 김옥경(포수), 김영빈(중견수), 박노학(투수), 천석규(1루수겸 투수), 정태길(좌익수), 김태복(우익수), 육덕룡(2루수)</p>	<p>대한야구협회가 제작한 이영민 타격상 (제2회 수상자 백인천이 수상 보관중이다.)</p> 
08.01	<p>■제5회 대통령친서우승기쟁탈 전국중학선수권대회 대구일보사 주최로 8월 1일부터 5일간 전국에서 16개 중학 팀(경동, 동북, 성남, 한영, 동인천, 인천 성광, 개성, 부산, 대동, 대신, 덕원, 경주, 경북, 경상, 대구 중)이 출전한 가운데 칠성동 종합운동장에서 개최, 8월 5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경동중이 경주중을 4-1로 격파하고 우승 ▲준결승전=경동중 8-0 대구중, 경주중 4-2 대동중 ▲결승전=경동중 4-1 경주중 ◇개인상 ▲우수상=고정안(高貞安 경동중 투수) ▲감투상=김웅기(金雄基 경주중 투수) ▲타격상=김영준(대동중 .364) ▲미기상=김영민(金永敏 경동중 유격수) ▲최다량 안타상=이영기(李英基 경동중 1루수 5 안타) △경동중=유행신(柳行信 포수), 이영선(李永善 좌익수), 김희만(金輝滿 3루수), 김영민(유격수), 고정안(투수), 이영기(1루수), 현아남(玄雅男 2루수), 이영선(李永善 중견수), 김철한(金鐵漢 우익수)</p>	<p>제5회 대통령친서우승기쟁탈 전국중학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선수들이 경기 개막에 앞서 부산중을 선두로 대구시내를 가두 행진하고 있다.</p> 
08.15	<p>■제3회 재일교포학생야구단 모국방문환영대회 한국일보사 초청으로 8월 11일 정오 '노스 웨스트' 항공 편으로 김포공항 도착, 일행 29명이 '오픈 카'에 나눠 타고 서울역-남대문-중앙청 앞-한국일보사 앞-</p>	<p>제5회 전국중학선수권대회에 첫 출전, 돌풍을 일으키며 준우승을 차지한 경주중 선수들. 앞중 왼쪽부터 김웅식, 김충, 김영생, 최태조. 뒷줄 왼쪽부터 하일, 김웅기, 안민식, 김개일, 김태호, 이응렬.</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안국동-종로 화신 앞 네거리-동대문-을지로6가-을지로 입구-한국은행 앞-퇴계로-대원호텔 코스로 '카퍼레이드', 8월 15일부터 서울, 인천, 광주, 대전, 대구, 부산을 순회하며 13차전을 개최한 끝에 12승1무1패를 기록</p> <p>◇재일교포선수단 △단장=김정주(재일야구협회 이사장) △권영섭(재일야구협회 회장) △부단장=김현성(동 부회장) 이지수(동 전무이사) △보도=이수진(동 상무이사) △재무=김석원(金錫沅 동 이사) △기록=최태환(崔泰煥 동 이사) △감독=송태영(宋泰永 동 이사) △트레이너=배종득(裴鍾得 동 사무원) △주무=최문도 동 이사) △선수=장훈(張勳 나니와浪華상고), 현성호(玄成昊 아다치足立고), 김종일(金鍾一 오이타大分고), 이용득(李龍得 다이세이大成고), 박성일(朴誠一 고세이光星학원고), 이성현(테이쿄帝京고), 이승평(李勝平 에이치愛知학원고), 최수웅(崔秀夫 나니와浪華상고), 이총권(李總權 요코스카橫須고), 오두수(게이오京王고), 이경생(李京生 교토京都고), 박정일(朴正一 하야모토早鞆고), 이태사(李泰司 한국韓國학원), 이동철(李東喆 고코쿠興國고), 김현대(아오야마靑山학원고), 박추남(朴秋男 도쿄도립東京都立고), 권의소(權義昭 나가노中野고), 김창봉(金昌奉 미하라三原고), 안병원(安秉元 타케다이竹台고)</p> <p>▲1차전(8월 15일 서울)=교포선발 9-3 배재고 △교포선발=감독 송태영 및 이성현(2루수), 최수부(3루수), 이동철(우익수겸 좌익수), 장훈(중견수), 현성호(좌익수겸 투수), 이총권(1루수), 김종일, 이용득(이상 투수), 김현대(우익수), 박성일, 김창봉(이상 포수), 박정일(유격수) △배재고=감독 김일배 및 이광근(李光根 좌익수), 김창락(金昌洛 유격수), 조창령(趙昌鈴 중견수), 손흥기(孫洪基 3루수), 박인환(朴仁煥 투수), 정춘성(鄭春成 포수), 김기동(金琪東 우익수), 신성철(申性澈 2루수) 이영복(李永福 대타), 김중수(金鍾洙 1루수)</p> <p>▲2차전(8월 16일 서울)=교포선발 4-4 중양고 △중양고=감독 김영조 및 유재희(우익수), 김익훈(유격수), 최화용(3루수겸 중견수), 박하일(투수겸 3루수) 심익일(沈義一 포수), 정영보(좌익수), 김윤용(金倫容 1루수), 최광웅(崔光雄 2루수), 최영호(대타), 이근응(李根膺 중견수), 심익보(沈益輔 투수)</p> <p>▲3차전(8월 19일 인천)=교포선발 5-3 동산고 △동산고=감독 박헌덕 및 이강웅(유격수겸 투수), 김창구(金昌求 2루수겸 유격수), 허명호(1루수), 김성문(포수), 박성권(朴成權 3루수), 송인택(宋仁澤 우익수) 최관수(崔寬洙 2루수겸 우익수), 서덕성(徐德成 대타) 이창남(李昌男 좌익수), 최희철(崔喜喆 중견수), 고순선(高順先 투수겸 우익수)</p> <p>▲3차전(8월 20일 인천)=교포선발 5-3 인천고 △인천고=감독 김선웅 및 지종걸(2루수), 이선덕(유격</p>	<p>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p>  <p>제3회 재일교포학생야구단 모국방문 환영대회 팸플릿 표지</p>  <p>8월 14일 장기영 한국일보 사장(왼쪽에서 두번째)의 안내로 경무대를 찾은 재일교포 선수들을 이승만 대통령이 격려하고 있다.</p>  <p>8월 15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입장식에서 한국일보사 장기영 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수), 오영학(1루수), 박호성(포수), 남창희(투수, 김인택(중견수), 이양선(우익수), 김규화(2루수), 한수흥(3루수)</p> <p>▲4차전(8월 22일 광주서중)=교포선발 19-0 광주선발 △광주선발=감독 심양섭 및 최정일, 장복상(이상 투수), 염형렬, 구제민(이상 포수), 박철(차츰 1루수), 전양섭, 이동문(李東文 이상 2루수), 김의석, 박희옥(이상 3루수), 전상면(유격수), 이종구, 이창균(李昌均 이상 좌익수), 정현성, 민득기(閔得基 이상 중견수), 박평수(朴平洙 우익수)</p> <p>▲5차전(8월 24일 대전)=교포선발 8-0 대전선발 △대전선발=임명선(유격수), 박성덕(3루수), 김신하(포수), 이용규(1루수), 배창호(투수), 윤영두(尹泳斗 중견수), 이장세(李章世 우익수), 이보형(좌익수), 홍복동(洪福童 2루수)</p> <p>▲6차전(8월 26일 대구)=교포선발 7-3 대구상고 △대구상고=감독 정동환(鄭東煥) 및 천성민(千聖民 좌익수), 전진만(全辰滿 중견수), 신진병(辛鎭兵 포수) 이윤석(李潤錫 투수), 정순고(鄭淳皐 1루수), 김태하(金兌河 유격수), 박승룡(朴昇龍 3루수), 최종도(崔宗道 △2루수), 김종식(金琮植 우익수)</p> <p>▲7차전(8월 27일 대구)=교포선발 7-1 경북고 신재권(申在權 2루수), 유창수(俞昌秀 우익수)</p> <p>▲8차전(9월 2일 부산)=교포선발 1-4 부산상고 △부산상고=감독 박재영 및 최박지(좌익수), 박명길(유격수), 이무웅(2루수), 이위재(중견수), 김응룡(金應龍 1루수), 박중현(朴仲鉉), 유백만(俞百萬 이상 3루수), 남흥우(투수겸 우익수), 이형(李亨 포수), 김부길(우익수겸 투수), 한을룡(韓乙龍 투수)</p> <p>▲9차전(9월 3일 부산)=교포선발 7-2 경남고 △경남고=감독 고광적 및 박청광(朴淸光 3루수), 마동명(馬東明 유격수), 김동주(2루수), 박영길(1루수) 심관섭(투수겸 좌익수), 김삼용(좌익수겸 투수), 신이술, 최창호(崔昌浩 이상 포수), 강기주(姜麒周 우익수), 김창규(金昌圭 중견수)</p> <p>▲10차전(9월 6일 서울)=교포선발 4-1 경동고 △경동고=감독 한태동 및 이재정(李載 2루수), 구태봉(중견수), 백인천(포수), 이용숙(李鎔淑 1루수), 김창진(투수), 정순방(3루수), 이재환(유격수), 김정호(金正浩 좌익수), 정철훈(鄭哲勳), 박정선(朴正善 이상 우익수), 명정남(明正男 대타)</p> <p>▲11차전(9월 7일 서울)=교포선발 15-1 경기공고 △경기공고=감독 오윤환 및 정종태(3루수), 최향렬(유격수), 김옥경(포수), 김영빈(중견수), 박노학(투수겸 1루수), 천석규(1루수겸 투수), 정태길(좌익수), 육덕룡(2루수), 김태복(우익수)</p> <p>▲12차전(9월 12일 서울)=교포선발 8-0 경북고 △경북고=감독 이기역 및 차희국(유격수), 원서성(중견수), 임소철(2루수겸 투수), 안수웅(1루수), 박중남(우익수), 최청운(崔淸雲 투수겸 2루수), 김수웅(金秀雄 3루수), 김동현(좌익수), 김득중(金得中 포수)</p>	<p>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p>  <p>8월 26일 대구에서 대구상고와 6차전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한 재일교포 선수들</p>  <p>재일동포-대구상고의 경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기 위해 도열해</p>  <p>재일교포-대구상고 경기의 심판을 맡은 경북 심판들(검은 옷을 입은 왼쪽 첫번째부터 김재수, 박춘득, 김보상, 안용태 심판)</p>  <p>일본 나니와(浪華)상고에 재학중인 장훈(張勳 왼쪽)은 어머니와 함께 모국을 방문, 깊은 인상을 남겼다</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13차전(9월 13일 서울)=교포선발 12-0 휘문고 △휘문고=감독 손희준 및 김용술(우익수), 차덕선(중견수), 강남규(투수), 황영흠(유격수), 이병준(포수), 백남식(3루수), 문창관(文昌官), 이명우(李明右 이상 좌익수), 김화영(2루수), 조창선(1루수)</p>	
09.07	<p>■제1회 문교부장관기쟁탈 전국중학초청대회 대한연식야구협회 주최로 9월 7일부터부터 8개 중학팀(동북, 휘문, 대신, 덕원, 개성, 부산, 대동, 경남중)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 9월 9일 끝난 결승전에서 대신중이 경남중을 3-0으로 물리치고 첫 우승 ▲준결승전=경남중 5-2 덕원중, 대신중 5-2 부산중 ▲결승전=대신중 3-0 경남중 ◇개인상 ▲우수상=김재규(金在奎 대신중) ▲타격상=임무호(林茂好 대신중) ▲미기상=이우기(대신중) ▲감투상=유영명(경남중)</p>	
09.11	<p>■제12회 전국지구대표고교쟁패전 서울예선 동아일보사 주최로 9월 11일부터 선린상고, 성동고, 용산고, 동도고, 배재고, 휘문고, 경기고, 경동고, 중앙고, 경기고 등 10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휘문고 운동장에서 개최, 9월 15일 열린 결승전에서 경기공고가 성동고를 3-2로 제치고 우승 ▲준결승전=성동고 1-0 배재고, 경기공고 3-1 경동고 ▲결승전=경기공고 3-2 성동고</p>	
09.18	<p>■한-미친선대회(정부수립 10주년 기념) 조선일보사 주최로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미1기갑사단, 주일램블러, 미1군단, 미7사단, 한국 육, 해, 공군, 한국운수 등 8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용산 육군구장에서 거행, 결승전에서 미1군단이 미1기갑사단을 8-4로 물리치고 우승 ▲준결승전=미1기갑 1-0 램블러, 미1군단 4-3 한국운수 ▲결승전=1군단 8-4 미1기갑 △육군=감독 한태동 코치 김일배 및 김양중, 서영두(徐永斗), 한태동(이상 투수), 김광택, 허호준(이상 포수), 김정환(1루수), 박상규, 김기두, 허정규(이상 2루수), 박현식, 김영복(이상 3루수), 김진영(유격수), 허종만, 윤태섭, 진원주(이상 좌익수), 김원규, 유대식(이상 중견수), 장태영, 정두영(이상 우익수) △해군=감독 김종관 코치 모무열 및 유완식, 서동준, 이팔관, 박주홍(朴周洪), 김정묵, 김기환(이상 투수), 김진용, 박진원(이상 포수), 김용구, 김상준(金相俊 이상 1루수), 이덕영, 김길수(이상 2루수), 박근식, 이의춘(이상 3루수), 백기수, 김재근(이상 유격수), 김계훈, 김진명(金鎭明 이상 좌익수), 이수대(중견수), 심연택, 이필균(이상 우익수) △공군=감독 백기주 조감독=허곤 및 김홍일, 정만오, 김길웅(金吉雄), 최종빈(이상 투수), 송주창, 김효창.</p>	 <p>한-미친선대회를 앞두고 서울시내에 세워진 대회 기념 아치</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최원용(崔源容 이상 포수), 정태수, 서영무(이상 1루수), 박창남, 김창기(이상 2루수), 김영조, 이삼춘, 허현(許鉉 이상 3루수), 주세현, 변세균(이상 유격수), 조성일, 윤상균(尹相均 이상 좌익수), 김임렬, 이홍달(이상 중견수), 허곤, 이홍진(李洪珍 이상 우익수)</p>	
09.26	<p>■ 제4회 NBC배쟁탈 전국선수권대회 대한야구협회가 제3회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 파견 선수선발전을 겸해 9월 26일부터 7일간 공군, 전연세대, 한국운수, 부산구락부, 육군, 성균관대, 해군 등 7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26일은 육군구장)에서 개최, 10월 2일 열린 결승전에서 육군이 패자 부활전에서 올라온 부산구락부를 15-0으로 격파하고 우승 ▲준결승전=육군 6-4 한국운수 ▲패자 결승=부산구락부 6-4 한국운수 ▲결승전=육군 15-0 부산구락부 ◇개인상 ▲타격상=장태영(육군) ▲홈런상=허곤(공군) ▲대표자상=이효(육군) △육군=성기영(2루수), 김정환(1루수), 장태영(우익수) 박현식(3루수), 김양중, 한태동(이상 투수), 김희련, 김진영(이상 유격수), 허호준(포수), 진원주(중견수), 정두영(좌익수) △부산구락부=김원규(좌익수겸 중견수), 박내용(우익수겸 좌익수), 송주창(포수), 백기수(1루수), 안두칠(2루수), 김진미(金振美), 이재성(이상 투수), 박치명, 강태환(이상 유격수), 김계현(2루수), 주재명(朱在明 3루수), 이수대(중견수), 장태근(우익수)</p>	<p>용산 육군구장에서 열린 한미친선야구대회 개막식 풍경</p>  <p>미제7사단과 한국운수의 경기. 한국운수가 6-5로 이겨 준결승전에 진출했다.</p> <p>■ 09.20 선발 첫 경기서 노히트노런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구원전문 투수인 호이트 월헬름이 선발로 처음 등판한 뉴욕 양키스전에서 노히트노런을 수립</p>
09.27	<p>■ 서울운동장 야구장 개장 9월 27일 오후 1시 서울시가 총 공사비 3억3천4백여 만환을 들여 착공(56년 10월) 2년 만에 스코어 보드와 백 네트및 외야 스탠드가 미완인 채 2만3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현대적인 야구장으로 개장.</p>	
10.03	<p>■ 제39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대한체육회 주최로 새로 개장된 서울운동장 야구장에서 개최식을 갖고 10월 3일부터 9일까지 1주일간 야구를 비롯한 24개 종목에 7,210명이 출전한 가운데 개최, 야구경기에서 경기공고(고등부), 성균관대(대학부), 동인천중(연식 중등부), 부산전화국(연식 일반부)가 각각 우승 ▲고등부 준결승전=인천공고 2-1(10회) 부산상고, 경기공고(서울) 18-0 전주고 ▲동 결승전=경기공고 4-1 인천공고 ▲대학부 결승전=성균관대 6-5 신흥대(경희대 전신) ▲일반부 준결승전=전인천 9-0 강원, 전서울 12-3 이리(전북) ▲동 결승전=전인천 4-3 전서울 ▲중등부 연식 준결승전=동인천중(추첨 승) 3-3 대신중(경남), 동북중(서울) 2-0 경주중 ▲동 결승전=동인천중 4-2 동북중(서울) ▲일반부 연식 준결승전=부산전화국 1-0 인천세관,</p>	<p>대한민국 야구를 개척한 선구자들. 왼쪽부터 해군 모무열(毛無說), 육군 오윤환(吳潤煥), 공군 허곤(許琨) 감독이 자리를 같이 했다.</p>  <p>3억3천여 만환을 들여 완공을 본 서울운동장 야구장 전경</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남선전기(대구) 9-2 전대전 ▲동 결승전=부산전화국 3-1 남선전기(대구)	
10.10	<p>■ 제12회 황금사자기정탈 전국지구대표고교쟁패전 동아일보사 주최로 10월 10일부터 경남, 대구상, 춘천, 세광, 인천, 동산, 경기공고 등 6개 지역에서 7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12일 열린 결승전에서 경기공고가 5-0으로 경남고를 격파하고 우승</p> <p>▲준결승전=경기공고 5-1 대구상고, 경남고 6-1 인천고 ▲결승전=경기공고 5-0 경남고</p> <p>◇개인상 ▲우수상=박노학(경기공고 투수) ▲미기상=최향렬(경기공고 유격수) ▲타격상=김동주(경남고 2루수 .500)</p> <p>△경기공고=감독 오윤환 및 정종태(3루수), 최향렬(유격수), 김영빈(중견수), 박노학(투수), 김옥경(포수), 정태길(좌익수), 천석규(1루수), 육덕룡(2루수), 김태복(우익수)</p> <p>△경남고=감독 고광적 및 박청광(3루수), 김동주(2루수), 심관섭(좌익수겸 투수), 박영길(1루수), 김삼용(투수겸 좌익수), 신이술(포수), 마동명(유격수), 강기주, 최창호(이상 우익수), 김창규(중견수)</p>	<p>제39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고등부 경기공고와 인천고의 결승전</p> 
10.	<p>■ 제5회 인천4도시초청고교대회 주간 인천사 주최로 부산상고, 경북고, 경기공고, 인천고 등 4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인천공설운동장에서 개최, 인천고가 2승1무로 우승</p> <p>◇종합 순위=①인천고(2승1무) ②부산상고(2승1패) ③경기공고(1승1무1패) ④경북고(3패)</p>	<p>제12회 전국지구대표고교쟁패전에서 우승한 경기공고 주장에게 우승을 수여</p>
10.16	<p>■ 제13회 전국대학선수권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10월 16일부터 3일간 성균관대, 고려대, 동아대, 신흥대 등 4개 대학이 출전한 가운데 용산 육군야구장에서 개최, 성균관대가 2승1무로 대회 4연패</p>	
10.19	<p>■ 제13회 전국도시대항대회 한국일보사 주최로 10월 19일부터 5일간 군산, 광주, 서울, 대구, 마산, 인천, 대전, 부산, 춘천, 전주 등 10개 도시대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마지막 대회를 개최, 10월 23일 열린 결승전에서 부산이 대구를 13-1로 격파하고 13년 만에 우승</p> <p>▲준결승전=부산 14-4 대전, 대구 10-3 서울 ▲결승전=부산 13-1 대구</p> <p>◇개인상 ▲우수상=성기영(부산) ▲타격상=김정오(전주 .556) ▲미기상=임명선(대전)</p> <p>△부산=감독 배성수 및 성기영(2루수), 배용수(우익수겸 좌익수), 이배근(3루수), 허호준(포수), 문영철(1루수), 장태영(중견수), 이재성(우익수), 김희련(우익수겸 3루수), 배동원(유격수), 박치명(유격수겸 대</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타), 엄창섭(嚴昌燮 1루수), 정병섭(1루수겸 포수), 곽상령(투수), 오덕환(우익수겸 좌익수), 구상문(이상 대타)</p> <p>△대구=감독 정동환 및 허정규(중견수), 김임렬(우익수), 김홍일(투수), 강태환(포수), 안종태(좌익수), 김원태(3루수), 고병호(2루수), 허곤, 서영무(이상 1루수), 김찬석(우익수겸 투수), 고익동(우익수), 손상룡(유격수)</p>	
10.21	<p>■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초청경기, 대통령 시구 한국일보사 초청으로 미국 프로야구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21명)가 내한, 10월 21일 하오 3시 35분 서울운동장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시구로 막이 오른 한·미 친선경기에서 전서울이 카디널스에게 0-3으로 패배</p> <p>◇전서울=감독 오윤환 및 성기영(2루수), 김정환(1루수), 장태영(중견수), 박현식(좌익수), 김영조(포수), 김진영(유격수), 김희련(3루수), 배용섭, 김양중(이상 투수), 허정규(우익수), 진원주(좌익수), 이기역(대타), 외 후보, 한태동, 서동준, 구상문, 곽상령(이상 투수), 허호준, 정병섭(이상 포수), 김용구, 배동원(이상 내야수), 정두영(외야수)</p>	<p>김포공항에 도착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팀</p>  <p>경기를 앞두고 양 측 선수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올리고 있다.</p>
10.28	<p>■서울시고교추계리그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경동고, 휘문고, 배재고, 선린상고, 중앙고, 동도공고, 용산고 등 서울시 7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중앙고가 6전 전승으로 우승</p> <p>◇종합순위=①중앙(6승) ②휘문고(4승2패) ③경동고, 선린상고(3승1무2패) ⑤배재고(3승3패) ⑥동도공고(1승5패) ⑦용산고(6패)</p> <p>◇개인상 ▲우수상=심익보(沈益輔 중앙고 투수) ▲타격상=백인천(경동고 포수 .417) ▲미기상=김태희(金泰熙 동도공고 1루수)</p>	 <p>시구를 하기 위해 서울운동장 야구장에 모습을 보인 이승만 대통령(오른쪽)</p>
11.11	<p>■제33회 4구락부연맹전 4구락부연맹 주최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11월 11일 배재, 중앙, 휘문 등 3구락부만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우천으로 연기된 끝에 11월 18일 열린 최종일 경기에서 휘문이 배재를 5-0으로 꺾고 2전 전승으로 우승</p> <p>▲1차전(11월 11일)=중앙 2-1 배재 ▲2차전(11월 12일)=휘문 4-2 중앙 ▲3차전(11월 18일)=휘문 5-0 배재</p> <p>▲종합순위=①휘문구락부(2승) ②중앙구락부(1승1패) ③배재구락부(2패)</p> <p>△휘문=감독 이경구 코치, 정인규 및 차덕선(중견수) 김화영(2루수), 손희준(1루수), 흥병창(좌익수), 강남규(투수), 김용술(우익수), 문창관(포수), 백남식(3루수) 나중호, 이명우(이상 유격수)</p> <p>△중앙=감독 주왕산(周王山), 부감독 김태호 및 강대</p>	 <p>많은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탠 뮤지얼이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다.뮤지얼은 김양중 투수에게 삼진을 당해 장안의 화제가 됐다.</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중(유격수), 최화용(중견수), 박세훈(좌익수), 한태동(투수), 박하일(투수겸 중견수및 3루수), 고영환(3루수겸 2루수), 김익상(2루수), 심의일(포수), 이조영(우익수겸 1루수), 김영조(3루수겸 우익수), 모무열(1루수), 유재희(우익수)</p> <p>△배재=감독 마춘식 및 김정환(1루수겸 2루수), 김건택(金建澤 2루수), 오윤환(3루수), 김창락(유격수), 이광근(좌익수), 정춘성(포수), 이윤하(李潤夏 중견수겸 우익수), 김태봉(대타), 조윤식(趙潤植 우익수), 박인환(투수), 나조화(대타), 조창전(趙昌銓 중견수), 김종수(1루수), 배종우(裴宗禹 좌익수겸 2루수)</p>	<p>■ 메이저리그 유격수 최다 홈런 기록 1958 시즌서 시카고 컵스의 에니 뱅크스가 홈런(47), 장타율(.614) 1위를 기록, 메이저리그 유격수 사상 최다 홈런, 최다 장타율을 마크</p>
11.16	<p>■ 제1회 문화인자선야구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 경향신문사 후원으로 11월 16일부터 공보실, 영화배우, 만화가, 신문기자 팀이 출전, 2만여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아나운서와 신문기자팀이 각각 승리</p>	
1959. 01.13	<p>■ 육군야구단 필리핀원정경기 필리핀 전대통령 고(故) 막사아사이 미망인과 육군참모총장 파자르도 장군 초청으로 필리핀에 원정, 1월 13일 공군 C-46 수송기 편으로 서울을 떠나 1월 14일 아침 마닐라에 도착, 1월 17일부터 25일까지 7차전을 개최한 끝에 3승1무3패를 기록</p> <p>▲ 1차전(1월 17일)=육군 9-16 마닐라대학연합 ▲ 2차전(1월 18일)=육군 1-2 칸루방제당 ▲ 3차전(1월 20일)=육군 6-2 마닐라대학연합 ▲ 4차전(1월 22일)=육군 2-3 성 토마스대학 ▲ 5차전(1월 24일)=육군 2-1 칸루방제당 ▲ 6차전(1월 25일)=육군 0-0 마닐라 선발 ▲ 7차전(1월 25일)=육군 3-1 필리핀 극동대학</p> <p>◇ 육군야구단 △단장=이효 △임원=허곤 △감독 오윤환 및 김양중, 곽상령, 서동준, 신인식, 구상문(이상 투수), 허호준, 김광택(이상 포수), 김정환, 성기영, 김희련, 박하성, 김진영(이상 내야수), 허종만, 박현식, 장태영, 정두영, 진원주(이상 외야수)</p>	 <p>육군 팀이 C-46 수송기로 마닐라 공항에 도착</p>  <p>마닐라 메모리얼 리잘 스타디움에 도착한 육군 선수들.</p>
01.18	<p>■ 대한연식야구협회 임원 개선 대한연식야구협회가 1월 18일 하오 2시 협회 회의실에서 4292년도 전국 대의원 대회를 열고 다음과 같이 임원을 개선</p> <p>△회장=이갑수 △부회장=박정준, 이종준(李鍾駿), 김제윤, 강봉수(姜奉守) △이사장=신창근 △상무이사=풍규명, 이삼봉, 박응주, 이규태, 이태흥, 이희경 임춘실, 김동우, 정만식 △이사=박지완, 김두완(金斗完), 김명배, 조병주, 홍병창, 정동렬, 안강희, 정인환, 유호창, 황우겸, 안봉식, 고원순, 정상규, 백유현, 이춘기(李春基) △감사=유재봉, 박승규(朴升圭) △심판장=박지완</p>	 <p>박현식이 자신의 장외 홈런 기록이 새겨진 리잘구장을 이효 단장(왼쪽), 오윤환 감독과 함께 찾았다.</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1.19	<p>■ 김양중, 대한민국 체육상 최우수선수상 수상 대한체육회가 상오 10시 소공동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해 우수한 기량을 선보인 선수들을 각 종목 별로 선발, 최우수선수(3명) 및 우수선수와 우수단체에 대한민국 체육상을 시상 ◇수상자 ▲최우수선수상=야구 김양중(육군) ▲최우수단체상=육군야구단 ▲우수상=연식야구 김형만(金亨萬 부산전화국) ▲우수단체상=남선전기(대구)</p>	<p>■ 01.24 동계체육대회 제40회 전국체육대회 동계빙상대회가 1월 25일까지 한강 특설 링에서 스피드, 피규어, 아이스하키 경기를 실시, 스키대회는 2월 23일부터 대관령에서 개최</p>
02.15	<p>■ 대한야구협회 전국대의원 대회 대한야구협회가 오전 10시 한국산업은행 회의실에서 제13회 전국대의원 대회를 열고 58년도 결산 및 사업보고와 59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심의, 6월 필리핀 야구단 초청과 제1회 이영민 타격상 수상자로 김동주(경남고)를 선정한 뒤 임원을 개선 △회장=이흥직 △부회장=선우인서 △이사장=이신득 △상무이사=김재송(총무), 금철(섭외), 박점도(경기), 노정호(재무), 오윤환(지도), 손희준(기록) △이사=김영석, 김일배, 김선웅, 김영조, 김재수(金在守), 강대중, 모무열, 배성수, 박상규, 이경구, 이효, 이규백, 윤재준, 허곤, 한태동, 장석화, 정동환, 노창호 △감사=김수환, 김태봉</p>	<p>■ 02.27 조봉암(曹奉岩) 사형 언도 대법원(김세완 재판관)에서 조봉암에게 간첩 및 간첩방조죄를 적용 사형을 언도, 7월 31일 상오 11시 서대문형무소 형장에서 교수형으로 집행</p>
02.15	<p>■ 제1회 이영민 타격상 김동주(金東柱) 첫 수상 1957년 말 대한야구협회 이사회에서 결의한 '이영민 타격상' 첫 수상자를 선정한 뒤 2월 15일 10시에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경남고 김동주에게 이영민 타격상을 첫 시상</p>	
03.02	<p>■ 농업은행 야구단 창단 농업은행 강당에서 금융조합 선수들을 주축으로 야구단 결단식을 갖고 정식 출범 ◇농협야구단=부장 권영희(權寧熙), 감독 김영조(포수), 코치 심양섭 및 박노학, 주세현(이상 투수), 김옥경(포수), 김임렬(1루수), 김영복(2루수), 박하일(3루수), 허정규(유격수), 최화용(좌익수), 김영빈(중견수), 이필균(우익수)</p>	
03.05	<p>■ 교통부 야구단 창단 교통부가 육군, 해군, 공군에서 제대한 선수들을 주축으로 야구단을 창단 ◇야구단=부장 이동희(李東喜), 부장대리 황문중(黃文中), 총무 최명돈(崔明墩), 감독 모무열, 조감독, 한태동(투수) 및 김창진(투수), 박세훈, 이병준(이상 포수), 구상문, 김계훈, 이학관, 박진원, 정운철, 정순방, 구자일(具滋逸 이상 내야수), 민준기, 변세균, 최희준, 구태봉, 박장복(이상 외야수)</p>	
04.11	<p>■ 제2회 문화인자선대회 경향신문사 주최로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문</p>	<p>■ 장훈(張勳), 일본 프로야구 데뷔 한큐(阪神) 타이거스전에 첫 출전, 첫 타석</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총(文總), 만화가, 음악가, 아동문학가, 미술가, '씨네 시나리오', 영화배우, 공보실 소설가 등 8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7이닝 경기로 서울운동장에서 개최</p> <p>▲제1일=문총 15-4 만화가, 음악가 11-10 아동문학가 ▲제2일=씨네 시나리오 4-3 미술가, 공보실 9-7 영화배우</p>	에서 요네다(米田)에게 3구 삼진 아웃
04.14	<p>■ 서울시고교춘계연맹전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4월 14일 휘문, 동북, 한영, 성동, 중앙, 경기공, 경동, 동도공고 등 서울시 8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4월 23일 열린 결승전에서 경동고가 휘문고를 6-0으로 격파하고 우승</p> <p>▲A조 순위=①경동고(3승) ②경기공고(2승1패) ③동도공고(1승1패)</p> <p>▲B조 순위=①휘문고(4승) ②중앙고(3승1패) ③한영고(2승1패)</p> <p>▲A, B조 우승 결정전=경동고 6-0 휘문고</p>	
04.17	<p>■ 미국 소년야구연맹 유니폼 기증 미국 미조리주 소년야구연맹(회장 센트 죠셉)이 기증한 야구 유니폼이 세계기독교봉사회(CWS)를 통해 도착, 서울 시내 6개 중학(경기, 서울, 경북, 경동, 중앙, 광희중)과 3개 국민교(청계, 제동, 인천 송의국교)에 각각 14벌씩 전달</p>	
04.25	<p>■ 제1회 재일교포성인야구단 초청경기대회 자유신문사 초청으로 4월 22일 상오 11시 30분 서북항공기 편으로 여의도공항을 통해 일행 25명(임원 9명, 선수 16명)이 입국, 4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서울을 비롯해 대구, 부산에서 9차전을 치른 끝에 4승 2무3패를 기록</p> <p>◇재일교포 선수단 △단장=김정주(재일야구협회 부회장) △고문=최중수(崔鍾洙 동 부회장), 권정남(權正男 동 이사) △총무=박병호(朴秉昊 동 이사) △보도=나길호(羅吉鎬 동 이사) △재무=김재수(金在守 동 이사) △주무=최태환(崔泰煥 동 이사) △감독=진기연(陳琦淵 동 이사) △코치=권성수(權成洙 오사카 하도택시 감독) △투수=윤용남, 전대운(이상 하도택시), 배순희(간사이대), 김동식(법정대) △포수=최대길(메이지대), 김성범(하도택시) △내야수=조일량(도에이강선), 김한영(메이지대), 김용도, 김석조(이상 도에이강선), 신영성(간키대) △외야수=배수찬(후지코시정기) 현성호(호세이대), 최동섭(구라시키상공), 김원중(하도택시), 최경명(우전교통)</p> <p>▲1차전(4월 25일 서울)=재일교포 9-0 교통부 △교통부=감독 모무열 및 이학관(2루수), 최희준(우익수), 민준기, 구태봉(이상 중견수), 박진원(3루수), 김계훈(1루수), 한태동, 김창진(이상 투수), 변세균(좌익수), 정순방, 정운철(이상 유격수), 이병준, 박세훈(이상 포수)</p>	 <p>서울시내에 세워진 재일교포 성안야구단 환영 아치</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2차전(4월 28일 서울)=재일교포 6-4 한국운수 △한국운수=감독 장석화 및 고병호(2루수), 안중태(좌익수), 이기역(유격수), 김순성(3루수), 서광덕(중견수) 송춘기(1루수), 조성일(우익수), 배용섭(투수), 김원렬(포수) ▲3차전(4월 30일 대구)=재일교포 7-4 전대구 △전대구=감독 김찬석 및 허정규(2루수), 고병호(유격수), 강태환(포수), 허곤(1루수), 안중태(좌익수), 김임렬(중견수), 김창기(우익수), 김홍일(투수), 손상룡(3루수) ▲4차전(5월 2일 부산)=재일교포 2-6 남선전기 △남선전기=감독 김계현 및 안두철(유격수), 김원규(좌익수) 백기수(3루수), 어우홍(1루수), 이수대(중견수), 송주창(포수), 박내용(우익수), 이재성(투수), 김진미(투수겸 우익수), 박치명, 함명복(咸明福 이상 2루수) ▲5차전(5월 3일 부산)=재일교포 3-1 전경남 △전경남=김원규(좌익수), 배재호(3루수), 박의양(중견수), 어우홍(1루수), 남창희(투수), 배용수(우익수), 황경조(유격수), 이길용(포수), 박치명(2루수) ▲6차전(5월 5일 서울)=재일교포 2-8 농업은행 △농업은행=감독 김영조, 코치 심양섭 및 허종규(유격수), 김영복(3루수), 김영빈(중견수) 김영조(포수), 이필균(우익수), 주세현(투수), 김임렬(1루수), 박하일(2루수), 최화용(좌익수), 박노학(투수겸 우익수) ▲7차전(5월 7일 서울)=재일교포 2-2 공군 △공군=감독 허곤 및 김익훈(2루수), 이삼춘(3루수) 남갑균(南甲均 유격수), 박문규(朴文奎 좌익수), 엄창섭(1루수), 김흥기(우익수), 구상문(투수), 백인원(중견수), 박호성(포수), 배창호(투수겸 우익수) ▲8차전(5월 9일 서울)=재일교포 2-2 해군 △해군=감독 이팔관 및 배동원(유격수), 김길수(2루수), 정병섭(포수), 김용구(1루수), 고익동(우익수), 이병수(중견수), 오덕환(우익수), 김정오(좌익수), 이배근(3루수), 정태현(대타), 서동준(투수) ▲9차전(5월 10일 서울)=재일교포 3-13 육군 △육군=감독 오윤환, 조감독 허종만 및 성기영(2루수) 김정환(1루수), 장태영(중견수), 박현식(좌익수), 김양중(우익수), 김희련(유격수), 신인식, 곽상령(이상 투수) 진원주(우익수), 허호준, 김광택(이상 포수)</p>	 <p>재일교포 성인야구단원들이 여의도 공항에서 짚에 나눠 타고 송례문 앞을 지나고 있다.</p>  <p>재일교포 성인야구단 진기연 감독이 모국 방문 마지막 경기에 앞서 육군 오윤환 감독과 페넌트를 교환하고 있다.</p>  <p>경기를 앞두고 정렬해 있는 재일교포선수들</p> <p>■04.24 아시아청소년축구대회 우승 말레이시아 쿠아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회 라만컵쟁탈 아시아 청소년 축구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말레이시아 팀을 3-1로 꺾고 우승</p> <p>■04.30 경향신문 폐간 정부가 4월 30일 경향신문에 대해 군정 법령 제88호를 적용, 폐간령을 내리고 밤 10시 15분경 '발행허가 취소 통지서'를 정식 발송. 이로 인해 전국군·실업야구쟁패전 주최권을 대한야구협회가 인수</p>
05.01	<p>■서울시중학연맹전 춘계리그 5월1일부터 15일간 서울시 중학이 출전한 가운데 효창운동장에서 A, B조로 나누어 개최, 5월 15일 오후 5시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A, B조 승자 결승전에서 경동중이 경북중을 7-1로 격파하고 우승</p> <p>▲A조 종합 순위=①경북중(4승1패) ②경서중 ③취문중 ④한영중 ⑤선린중 ▲B조 종합 순위=①경동중(5승) ②동성중 ③동북중 ④서울중 ⑤강문중</p> <p>◇개인상 ▲우수상=고정안(高貞安 경동 투수) ▲타격상=①김영민(金永敏 경동 포수) ②차정남(車正男 경서중) ③박용민(朴容敏 동북중) ▲감투상=안무웅(安</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武雄 경복중) 외 11명	
05.16	■한·미친선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서울운동장과 용산 육군야구장에서 1, 2차전을 개최, 한국과 미군 팀이 1승1패 ▲1차전(서울운동장)=육군 6-1 미SAC ▲2차전(육군 야구장)=한국대표 2-4 미SAC	■05.26 13회에 날린 퍼펙트 게임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하비 해딕스가 밀워키 브레이브스 팀을 상대로 12회까지 퍼펙트게임을 기록, 그러나 13회말 3루수 앞 땅볼을 1루로 악송구하는 바람에 주자가 생환, 퍼펙트게임 만사휴이
05.21	■제14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서울시예선 조선일보사 주최로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결승전에서 경동고가 휘문고를 2-0으로 물리치고 우승 ▲준결승전=경동고 17-0 성남고(7회), 휘문고 3-1 성동고(14회) ▲결승전=경동고 2-0 휘문고 ◇개인상 ▲우수상=강남규(휘문고 투수) ▲타격상=백인천(경동고 포수) △경동고=오춘삼(유격수), 김정호(중견수), 이재환(투수), 백인천(포수), 이용숙(李鎔淑 1루수), 명정남(3루수), 정철훈(좌익수), 김승구(金承九 우익수), 김영호(金英鎬 2루수) △휘문고=주동구(朱東九 1루수), 김화영(2루수), 김용술(중견수), 강남규(투수), 김충환(金忠煥 3루수), 조복연(趙福衍 포수), 이병준(유격수), 유번영(柳繁榮 좌익수), 이명우(우익수)	
06.04	■제14회 청룡기쟁탈 전국고교선수권대회 조선일보사 주최 대한야구협회 주관으로 6월 4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경기공고, 세광고, 춘천고, 부산고, 동산고, 광주일고, 경북고, 경동고 등 8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12일 열린 최종 결승전에서 동산고가 경동고를 6-3으로 물리치고 우승 ▲승자 결승전=경동고 10-3 경기공고 ▲패자 결승전=동산고 6-2 경기공고 ▲결승전=경동고 2-5 동산고 ▲최종 결승전=동산고 6-3 경동고 ◇개인상 ▲우수상=백인천(경동고 포수) ▲타격상=조민영(趙敏榮 세광고 투수 .540) ▲미기상=허명호(동산고 1루수) △동산고=감독 박현덕 및 이강웅(유격수), 김창구(포수), 최희철(중견수), 허명호(1루수), 송인택(우익수), 이창남(좌익수), 오낙천(吳洛泉 3루수), 이의수(李義洙 2루수), 고순선(투수)	 <p>제14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결승전 동산고-경동고 경기가 벌어진 서울운동장 야구장 외야 풍경</p>  <p>일본 도쿄 메이지 진구(明治 神宮)구장에서 열린 제3회 아시아선수권대회 개막식</p>
06.07	■제3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첫 준우승 아시아야구연맹 주최로 6월 7일부터 14일까지 일본 도쿄 진구(神宮)구장에서 한국, 대만, 필리핀, 일본 등 4개 국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 1, 2차 리그에서 한국이 4승2패로 준우승 ◇종합순위=①일본(6전 6승) ②한국(4승2패) ③대만(1승1무4패) ④ 필리핀(1무5패)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한국선수단 ▲단장=선우인서 ▲총무=금철 ▲감독 =오윤환 및 장태영(중견수겸 우익수), 현성호(玄成昊 중견수겸 좌익수), 김정환(1루수), 김영조, 허호준(許鎬俊 이상 포수), 박현식(좌익수겸 투수), 김양중(투수겸 대타), 서동준, 신인식(申仁植), 곽상령, 배용섭(裴龍燮 이상 투수), 배수찬(裴壽讚), 진원주(이상 우익수), 김희련(3루수), 김진영(金振榮 유격수), 성기영, 박하성(朴河星 이상 2루수), 허종만(좌익수)</p>	
06.08	<p>■경기공고 어지홍(魚之洪) 감독 제명 대한야구협회가 6월 7일 오후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제14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경기공고-부산고 승자 준결승전에서 경기공고 정종태 외 수명이 부산고 선수들에게 난폭한 짓을 자행, 이를 수수방관한 책임을 물어 코치인 어지홍을 제명처분</p>	<p>아시아선수권대회 출전 3년 만에 준우승을 차지한 한국대표 선수들.</p>
06.09	<p>■고순선(高順先),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제14회 청룡기쟁탈 전국고교선수권대회 패자 준결승전에서 동산고 투수 고순선이 경북고 26명의 타자를 상대로 탈삼진 15개에 사사구 6개, 실책 2개를 허용한 끝에 2-0으로 이겨 노히트노런을 기록</p>	
06.20	<p>■필리핀야구단 초청경기 서울신문사가 제3회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한 필리핀 대표 팀(21명)을 초청,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서울을 비롯해 대구, 부산, 인천에서 7차전을 개최한 끝에, 3승2무2패를 기록 ▲1차전(6월 20일 서울)=필리핀 7-2 전실업 ▲2차전(6월 21일 서울)=필리핀 4-10 전한국 ▲3차전(6월 23일 대구)=필리핀 4-4 육군 ▲4차전(6월 25일 부산)=필리핀 3-2 전부산 ▲5차전(6월 26일 인천)=필리핀 2-3 전인천 ▲6차전(6월 27일 서울)=필리핀 6-6 전국군 ▲7차전(6월 28일 서울)=필리핀 3-1 전한국</p>	 <p>6월 26일 인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필리핀초청경기를 보기 위해 몰려 나온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사진은 필리핀 선수와 기념 촬영한 박현식(왼쪽)과 박현덕 동산고 감독</p>
07.03	<p>■제2회 전국4도시초청고교대회 부산일보사 주최로 7월 3일부터 3일간 인천고, 동산고, 대구상고, 경남고 등 4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구덕운동장에서 개최, 7월 5일 끝난 이 대회에서 동산고가 3전 전승으로 우승 ◇종합 순위=①동산고(3승) ②인천고(2승1패) ③경남고(1승2패) ④대구상고(3패) ◇개인상 ▲우수선수상=고순선(동산고) ▲감투상=박태일(朴泰一 대구상고) ▲타격상=이강웅(동산고) ▲미기상=이강웅(동산고) △동산고=감독 박현덕 및 이강웅(유격수), 김창부(포수), 최희철(중견수), 허명호(1루수), 송인택(우익수), 이창남(좌익수), 오낙천(3루수), 이익수(2루수), 고순선(투수) △경남고=감독 고광적 및 박청광(朴淸光 3루수), 김창규(金昌圭 1루수), 김동주(金東柱 유격수), 박영길(朴永吉 좌익수), 김삼용(金三用 우익수겸 투수), 신이</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술(申二述 포수), 김정태(金正泰 중견수), 심말룡(沈末龍 투수), 강기주(姜麒周 우익수), 최창호(崔昌浩 대타), 변용현(邊龍現 이상 2루수)	
07.09	■ 제5회 서울시중학연식선수권대회 대한연식야구협회 서울시지부 주최로 7월 9일부터 15일까지 동북, 청량, 휘문, 한영, 동성, 성남, 경동, 청운, 경서, 선린, 강문, 용산, 광희, 경북중 등 14개 중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7월 15일 열린 결승전에서 경동중이 청량중을 5-0으로 꺾고 우승 ▲준결승전=경동중 2-1 선린중, 청량중 4-1 휘문중 ▲결승전=경동중 5-0 청량중 ◇개인상 ▲우수상=고정안(高貞安 경동중 투수) ▲감투상=유무웅(柳武雄 청량중 투수) ▲타격상=유무웅(청량중 투수 .500)	
07.16	■ 제9회 백호기쟁탈 전국군·실업쟁패전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한국운수(전 조선운수), 교통부, 농업은행, 육군, 공군 등 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8월 11일 동일 승률로 승부를 가린 우승 결정전에서 육군이 교통부를 12-2로 꺾고 우승, 대회 4연패 달성 ▲우승 결정전=육군 12-2 교통부 ◇종합 순위=①육군(3승1무1패) ②교통부-2승1무2패 ③한국운수, 농업은행(2승2패) ⑤공군(1승3패) ◇개인상 ▲우수상=김창진(교통부) ▲타격상=장유복(공군 .460) ▲미기상=김원렬(金元烈 한국운수) △육군=성기영(2루수), 김진영(유격수), 허호준(포수) 장태영(중견수), 김양중(우익수겸 투수), 김희련(3루수) 진원주(우익수겸 좌익수), 곽상령(투수겸 우익수), 김점생(1루수), 이병렬(좌익수겸 우익수) △교통부=변세균(우익수), 정효순(鄭曉淳 좌익수), 박진원(3루수), 한태동(1루수겸 투수), 김광택(포수), 민준기(중견수), 박세훈(우익수), 이학관, 정순방(이상 2루수), 김창진(투수겸 1루수), 정운철(鄭雲哲 유격수)	■ 07.17 부산공설운동장 대참사 국제신보사 주최 '영화배우-만화가 야구대회'에 이어 제2회 시민위안회 행사 도중 갑자기 내린 소나기로 관중들이 소동, 67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
07.23	■ 제6회 대통령친서우승기쟁탈 전국중학선수권대회 대구일보사 주최로 7월 23일부터 전국에서 19개 중학 팀(경동, 덕원, 영신, 문화, 경남, 대구, 동성, 능인, 부산, 청운, 대동, 경상, 성광, 개성, 경주, 영남, 대신, 휘문, 경북중)이 출전한 가운데 칠성동 종합운동장에서 개최, 7월 28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경주중이 김용식의 솔로 홈런 2개(2회, 7회)에 힘 입어 대구중을 2-0으로 제치고 대회 첫 우승 ▲준결승전=대구중 4-1 덕원중, 경주중 3-2 대신중 ▲결승전=경주중 2-0 대구중 ◇개인상 ▲우수상=김태호(金泰浩 경주중 투수) ▲감투상=박동수(朴東洙 대구중 투수) ▲타격상=김개일(金介一 경주중 포수 .385) ▲최다량 안타상=김개일(경주중 포수) ▲미기상=우상태(禹尙泰 경북중 좌익	 <p>제6회 전국중학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경주중 선수들이 우승기를 비롯해 우승 컵 및 각종 트로피를 앞에 놓고 기념 사진을 찍었다.</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규화(2루수), 민산기, 정정길(이상 우익수), 은성식(1루수), 박정석(좌익수)</p> <p>▲5차전(8월 13일 인천)=재일교포 3-0 동산고 △동산고=이강웅(유격수), 김창구(金昌求 포수), 최희철(중견수), 허명호(1루수) 송인택(우익수), 서덕선(대타), 이창남(좌익수), 오낙천(3루수), 이익수(2루수), 고순선(투수)</p> <p>▲6차전(8월 15일 서울)=재일교포 15-3 배재고 △배재고=박병하(朴秉河 유격수), 이영복(중견수), 김종수(우익수), 김기동(투수), 박문기(朴文基 좌익수), 음명배(陰明培 포수), 신성철(3루수), 우영길(禹永吉 2루수), 조지연(趙之衍 1루수)</p> <p>▲7차전(8월 15일 서울)=재일교포 4-0 경동고 △경동고=김정호(중견수), 이재정, 김휘만(金輝滿 이상 우익수), 이재환(투수겸 3루수), 백인천(포수), 오춘삼(吳春三 유격수), 이용숙(1루수), 김영호(金英鎬 2루수) 명정남(3루수), 주성현(朱成鉉 투수), 현아남(玄雅男 좌익수) 유행신(柳行信 대타)</p> <p>▲8차전(8월 16일 서울)=재일교포 12-0 성동고 △성동고=백수웅(白秀雄 유격수겸 투수), 정황창(鄭晁昌 3루수겸 유격수), 임병원(林炳元 중견수), 오광소(吳廣昭 1루수), 한치복(韓致福 좌익수겸 3루수), 정효식(鄭孝湜 우익수), 정철교(鄭哲敎 투수), 김창광(金昌光 좌익수), 김성현(金聖鉉 포수), 김상현(金上鉉 2루수)</p> <p>▲9차전(8월 16일 서울)=재일교포 4-2 경기공고 △경기공고=정종태(3루수), 최향렬(유격수), 이종술(李終述 2루수), 정태길(좌익수), 신진병(辛鎭兵 우익수), 육덕룡(1루수), 최우상(崔雨相 포수), 정기완(鄭基完 중견수), 천석규(투수), 김태복(중견수)</p> <p>▲10차전(8월 20일 대전)=재일교포 1-4 대전선발 △대전선발=감독 김갑찬(金甲瓚) 및 정종태(鄭鍾泰 3루수), 박봉진(朴奉鎭 유격수), 이병준(李炳俊 포수) 윤영두(尹泳斗 중견수), 박인환(朴仁煥 투수), 육덕룡(陸德龍 1루수), 이태은(李泰 좌익수), 김진철(金鎭哲 우익수), 박성덕(朴聖德 2루수)</p> <p>▲11차전(8월 22일 대구)=재일교포 4-1 경북고 △경북고=이석문(李碩文 2루수), 박중의(朴重毅 중견수), 최경조(崔耕祚 좌익수), 박영웅(朴英雄 투수), 김중영(金忠永 포수), 원욱웅(元旭雄 유격수), 김판권(金判權 3루수), 신상수(申相洙 우익수), 유창수(俞昌洙 1루수)</p> <p>▲12차전(8월 23일 대구)=재일교포 15-0 대구상고 △대구상고=최효일(崔孝一 좌익수), 김사근(金四根 2루수), 김정부(金正夫 유격수), 박태일(朴泰一 투수) 하박소(河博素 1루수), 김진(金進 포수), 김영수(金榮洙 우익수), 손청길(孫淸吉 3루수), 박효식(朴孝植 중견수)</p> <p>▲13차전(8월 25일 부산)=재일교포 1-2 경남고 △경남고=박청광(3루수), 김창규(1루수), 김동주(유격수), 박영길(중견수), 김삼용(좌익수), 마동명(馬東明 2루수), 심말룡(투수), 최창호(포수), 강기주(우익수)</p>	 <p>서울운동장에서 휘문고와의 첫 경기에 앞서 열린 환영식에서 재일교포 선수들이 꽃다발을 들고 정렬해 있다.</p>  <p>휘문고와의 첫 경기에 앞서 두 팀 감독들이 기념 페넌트를 교환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14차전(8월 26일 부산)=재일교포 4-2 부산상고 △부산상고=감독 어우홍(魚友洪) 및 박명길(朴明吉 유격수), 최재봉(崔在奉 좌익수), 한을룡(韓乙龍 중견수), 김응룡(金應龍 1루수), 이형(李亨), 유백만(俞百萬 이상 투수), 강신두(姜信斗 포수), 이규직(李圭直 2루수), 주민리(朱敏里 3루수), 장세종(張世鍾 우익수)</p> <p>▲15차전(8월 29일 서울)=재일교포1-1 서울선발</p> <p>▲16차전(8월 30일 서울)=재일교포 5-4 서울선발 △서울선발=이종술(2루수), 김정호(중견수), 김충환(대타), 강남규(중견수겸 좌, 우익수), 심의일(대타), 백인천(포수), 정태길(좌익수겸 우익수), 박경철, 이재정 김병만(이상 우익수), 오춘삼(3루수), 이재환(대타겸 투수), 이용숙(1루수), 최향렬(유격수), 김용술(대타), 김윤용(투수)</p>	
08.25	<p>■ 서울실업야구연맹 발기인 총회 대한야구협회 회의실에서 한국운수, 남선전기, 농업은행, 교통부 등 4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서울실업야구연맹 발기인 총회를 열고 10월 17일부터 '대통령배쟁탈 실업야구연맹전' 개최에 합의한 뒤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임 △회장=박숙희(朴瑯熙) △부회장=이동희, 안무경(安戊慶), 이사장=김재송 △상무이사=김영조(총무), 모무열(경기), 장석화(재무) △이사=최명돈, 정태기(鄭泰麒), 김윤호(金潤昊), 이종대 △감사=황희린(黃熙璘) 원성희(元誠喜), 문용운, 정관칠 △참여=황문중, 전홍래(全洪來), 권영희(權寧熙), 조충희(趙忠熙) △사무국장=김익상(金益商) △참가단체=한국운수, 남선전기, 농업은행, 교통부 △사업계획=10월 17~23일 대통령배쟁탈 서울실업야구연맹전 개최</p>	<p>■08.27 하계유니버시아드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22개 국에 985명이 참가. 한국은 6명이 출전해 서영주(徐永珠 멀리뛰기) 임동실(林東實 해머던지기)이 각각 6위(F.I.S.U에서 1959년부터 월드 유니버시티 게임을 유니버시아드로 변경)</p>
08.31	<p>■ 한·미친선대회 조선일보사 주최로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육군, 농업은행, 한국운수, 교통부, 및 미1군단, 미1기갑사단, 미7사단 등 7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용산 육군구장(8월 31일)과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미주둔군이 3승1무로 우승 ▲제1일(8월 31일)=교통부 4-4 미1군단 ▲제2일(9월 3일)=미1군단 3-1 농업은행 ▲제3일(9월 9일)=미7사단 6-0 한국운수(제1경기), 미1기갑사단 8-4 육군(제2경기) △교통부=변세균(중견수), 정두영(좌익수), 박진원(3루수), 한태동(1루수), 김광택(포수), 박세훈(우익수), 정순방(2루수), 김창진(투수), 백문웅(대타), 정운철(유격수) △농업은행=김정환(1루수), 김영빈(중견수), 허정규(유격수), 박현식(좌익수겸 3루수), 이필균(우익수), 김영조(포수), 박하일(2루수), 김영복(3루수), 최화용(좌익수), 박노학(투수), 김임렬(대타), 주세현(투수) △한국운수=고병호(유격수겸 2루수), 손상룡(2루수), 김창락(유격수), 이기역(포수), 송춘기(1루수), 조성일(대</p>	<p>■08.31 쿠팩스 한 게임 18탈삼진 LA 다저스의 샌디 쿠팩스가 내셔널리그 사상 처음으로 한 경기에서 18탈삼진 기록</p>  <p>한·미친선대회 최종일 경기에서 만난 미제 1기갑사단과 육군 선수들이 서울운동장에서 기념 촬영</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타), 김순성(3루수), 서광덕(중견수), 김성동(우익수), 송석형, 임소철(이상 투수), 이광근, 김원렬(이상 좌익수) △육군=성기영(2루수), 김진영(유격수), 허호준(포수) 장태영(중견수), 김양중(우익수), 김희련, 박하성(이상 3루수), 진원주(좌익수), 남창희, 곽상령(이상 투수), 장태창(대타), 김점생(1루수), 이병렬(대타)</p>	
09.01	<p>■ 미국소년야구단 부에나 파크 올스타 내한경기 대한공론사 초청으로 8월 31일 12~14세 소년들로 구성된 미국 소년야구단 '부에나 파크' 올스타 팀이 내한, 9월 1일 대구에서 전경북 팀과 경구(硬球)로 1차전을 가진 뒤 상경, 9월 4일 서울운동장에서 경동중을 시작으로 전인천, 전서울 팀과 경기를 가졌으나 3전 전패 ▲1차전(9월 1일 대구)=부에나 파크(미상) 전경북 ▲2차전(9월 4일 서울)=부에나 파크 3-7 경동중 △경동중=임송우(유격수), 김영민(포수), 이영기(1루수), 고정안(투수), 이선안(중견수), 김철안(좌익수), 전국영(3루수), 이태순(우익수) ▲3차전(9월 5일 서울)=부에나 파크 1-10 전인천 ▲4차전(9월 6일 서울)=부에나 파크 5-14 전서울</p>	<p>서울운동장에서 열릴 경동중과의 경기를 앞두고 정렬해 있는 미소년야구단 부에나 파크 선수들.</p>  <p>경동중과의 경기에 앞서 양 팀 감독들이 페넌트를 교환하고 있다.</p>
09.16	<p>■ 제13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야구쟁패전 동아일보사 주최로 9월 16일 광주고, 부산상고, 경남고, 경북고, 춘천고, 세광고, 동산고, 인천고, 경동고, 휘문고 등 10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9월 21일 열린 결승전에서 경동고가 4-0으로 경기공고를 격파하고 우승 ▲준결승전=경동고 2-0 경남고, 경기공고 2-0 인천고 ▲결승전=경동고 4-0 경기공고 ◇개인상 ▲우수상=이재환(경동고 투수) ▲타격상=이선덕(인천고 투수 .400) ▲미기상=김정호(경동고 중견수) △경동고=감독 김일배 및 김정호(중견수), 김휘만(2루수), 오준삼(3루수), 백인천, 유행신(이상 포수), 이용숙(1루수), 이재환(우익수겸 투수), 주성현(투수), 이재정, 정철훈(이상 우익수), 김영호(유격수), 현아남, 김정선(이상 좌익수), 명정남(3루수겸 우익수및 좌익수) △경기공고=감독 어지홍 및 최향렬(유격수), 정기완(중견수), 정종태(3루수), 이종술(2루수), 정태길(좌익수), 육덕룡(1루수), 김병중(金炳鍾 우익수), 최우상(포수), 천석규(투수)</p>	 <p>미소년야구단 부에나 파크-경동중 경기</p> 
09.16	<p>■ 이선덕(李善德) No Hit No Run 제13회 전국지구별 초청 전국고교야구쟁패전 첫 날 인천고 투수로 경북고 34명의 타자를 상대로 90닝 동안 탈삼진 15개에 사사구7개와 실책2개 만을 허용한 끝에 4-0으로 이겨 노히트노런(No Hit No Run)을 기록</p>	<p>경동고 전성시대의 문을 연 제13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시상식 장면. 경동고는 이 대회 우승을 포함, 32연승(2무)의 신화를 남겼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9.25	<p>■ 제34회 4구락부연맹전 4구락부(중앙, 휘문, 배재, 경신)연맹 주최,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9월 26일부터 3일간 중앙, 휘문, 배재구락부만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3팀이 동률(1승1패)로 공동 우승 ▲1차전(9월 26일)=중앙 10-5 배재 ▲2차전(9월 27일)=배재 4-0 휘문 ▲3차전(9월 28일)=휘문 4-3 중앙 ◇개인상 ▲우수상=오윤환(배재) ▲타격상=김정환(배재 .875) △중앙=김태호 및 박세훈(1루수겸 우익수), 김익훈(3루수겸 유격수), 박하일(2루수), 최화용(좌익수), 최영호(1루수), 한태동(투수겸 1루수), 정정수(3루수), 김형수(유격수), 심의일, 최광웅(이상 포수), 심익보(투수) 최홍길(우익수겸 대타), 김윤용(1루수겸 투수), 홍선표 유재희(이상 중견수) △휘문=감독 이경구 및 차덕선(좌익수), 김충환(3루수), 황영흠(유격수), 강남규(투수), 김용술(중견수), 조창선, 문창관(이상 1루수), 이명우(우익수), 조복연(포수), 김화영(2루수) △배재=감독 마춘식 및 김정환(1루수), 윤건택(우익수겸 2루수), 음명배(포수), 박병하(유격수), 이광근(좌익수), 정춘성(우익수겸 포수), 이윤하(우익수), 신성철(3루수), 김기동(투수), 이영복(2루수겸 중견수), 김일배(대타), 배종우(중견수겸 우익수), 김태봉(대타)</p>	<p>■ 09.17 태풍 사라 남부지방 강타 사망 924명, 이재민 98만5,000명, 1,290억환 피해</p>  <p>4구락부연맹전 첫 날 벌어진 중앙구락부-배재구락부 경기. 중앙이 배재를 10-5로 꺾고 첫 승리를 낚았다.</p>
10.	<p>■ 제6회 인천4도시초청고교대회 주간 인천사 주최로 부산상고, 경북고, 경동고, 인천고 등 4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인천공설운동장에서 개최, 경동고가 3전 전승으로 우승 ◇종합 순위=①경동고(3승) ②인천고(2승1패) ③ 부산상고(1승2패) ④경북고(3패)</p>	
10.03	<p>■ 제40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대한체육회 주최로 10월 3일부터 야구를 비롯한 23개 종목에서 재일교포 177명을 포함, 7,530명의 각 시도 대표 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9일 열린 고등부 결승전에서 경기공고가 경동고를 8-0으로 격파하고 우승 ▲고등부 준결승전=경동고 8-0 인천고, 경기공고 2-0 부산고 ▲동 결승전=경기공고 8-0 경동고 ▲일반부 준결승전=서울 5-3 경북대, 인천 10-3 대전 ▲일반부 결승전=서울 4-4 인천(공동 우승) ▲중학부 연식 결승전=대신중(경남) 6-2 청량중(서울) ▲일반부 연식 결승전=경주(경북) 2-0 인천시청(경기)</p>	 <p>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제40회 전국체육대회 입장식 광경</p>
10.10	<p>■ 대통령배쟁탈 추계실업연맹전 1차리그 조선일보사 주최로 10월 10일 하오 2시 40분 한국운수, 교통부, 농업은행이 출전한 가운데 개막식을 개최한 뒤를 이어 3일간 열린 1차 리그에서 농업은행이 2전 전승으로 우승</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1차리그 ▲1회전=한국운수 7-0 교통부 ▲2회전=농업은행 5-3 한국운수 ▲3회전=교통부 2-7 농업은행</p> <p>◇종합 순위=①농업은행(4승) ②한국운수(2승2패) ③교통부(4패)</p> <p>◇개인상 ▲우수상=김양중(농은) ▲미기상=안종태(한운) ▲타격상=김임렬(농은 .500) ▲본루타상=박현식(농은)</p> <p>△농업은행=감독 김영조 코치 심양섭 및 허정규(유격수), 김영빈(중견수), 김양중(투수겸 대타), 김정환(1루수), 박현식(좌익수겸 3루수), 이필균(우익수), 최화용(우익수겸 좌익수), 김임렬, 박하일(이상 2루수), 김영조(포수), 김영복(3루수), 박노학(투수), 주세현(대타겸 투수)</p> <p>△한국운수=감독 장석화 및 김원렬(포수), 김창락(유격수), 안종태(좌익수) 이기역(유격수), 김순성(3루수) 김용구(우익수겸 3루수), 송춘기(1루수), 서광덕, 김성동(이상 중견수), 이기상, 임소철(이상 투수), 고병호, 손상률(이상 2루수)</p> <p>△교통부=코치 모무열 및 박진원(3루수), 변세균(중견수), 박세훈(중견수겸 우익수), 정두영(좌익수), 한태동(1루수겸 투수), 백문웅(1루수), 김광택(포수), 정운철(유격수), 이학관(2루수), 김창진(투수), 민준기(우익수겸 중견수), 추연풍(우익수)</p>	
10.18	<p>■ 제5회 NBC배쟁탈 전국선수권대회</p> <p>대한야구협회 주최로 10월 18일부터 9일간 교통부, 한국운수, 전인천, 성균관대, 농업은행, 육군, 공군, 해군 등 8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26일 열린 결승전에서 육군이 해군을 2-1, 4-0으로 꺾고 우승</p> <p>▲승자 준결승전=해군 4-2 전인천 ▲패자 결승전=육군 3-1 전인천 ▲결승전=육군 2-1 해군 ▲최종 결승전=육군 4-0 해군(패자 부활)</p> <p>◇개인상 ▲우수투수상=곽상령(육군) ▲타격상=박현식(농업은행) ▲미기상=고순선(전인천) ▲감독상=오윤환(육군)</p> <p>△육군=감독 오윤환 및 성기영(2루수), 김진영(유격수), 허호준(포수), 장태영(중견수), 김희련(3루수) 진원주(우익수), 박하성(3루수), 김점생(1루수)</p> <p>△해군=김길수(2루수), 오덕환(중견수), 이병수(우익수), 김정오(金正晔 대타겸 우익수), 이배근(3루수), 김수갑(대타), 고익동(高益東 좌익수겸 우익수), 서동준(투수), 정태현(鄭台鉉 대타), 배동원(裴東元), 박종길(朴鍾吉 이상 유격수), 장세문(張世文 대타), 김훈호(포수), 이윤영(우익수겸 좌익수), 이기락(1루수)</p>	<p>■ 10.07 월드시리즈 최다 관중 입장</p> <p>아메리칸리그 우승 팀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내셔널리그 우승 팀 LA 다저스가 콜리시엄에서 맞붙은 월드시리즈 5차전에 9만 2,706명이 입장, 사상 최다 관중 입장을 기록</p> <p>■ 10.08 월드시리즈 다저스 우승</p> <p>LA 다저스가 월드시리즈 6차전에서 시카고 화이트삭스를 9-3으로 꺾고 우승</p>
10.30	<p>■ 제3회 문화인자선대회</p> <p>동아일보사 주최로 10월 30일부터 문충, 자유문협, 영화배우, 미술가, 음악가, 만화가, 아동문협, KBS, 미</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협, 무대예술 등 10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1월 3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KBS가 무대미술을 4-3으로 제치고 우승</p> <p>▲준결승전=KBS 18-3 만화가, 무대예술 11-2 영화배우 ▲결승전=KBS 4-3 무대예술</p>	
11.03	<p>■ 서울시고교연맹전 추계리그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11월 3일부터 서울시 10개 고교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1월 15일 열린 A, B조 승자 결승전에서 경기공고가 경동고를 3-0으로 꺾고 우승</p> <p>▲A조 순위=①경기공고(3승1무) ②배재고(2승1무1패) ③중앙고(2승2패) ④선린상고(1승2무1패)</p> <p>▲B조 순위=①경동고(4승) ②동도공(3승1패) ③휘문고(2승2패) ④성동고(1승3패)</p> <p>▲A, B조 승자 결승전=경기공고 3-0 경동고 ◇개인상 ▲우수상=천석규(경기공고) ▲타격상=정종태(경기공고 .467) ▲미기상=김중환(휘문고)</p>	
11.06	<p>■ 대통령배쟁탈 추계실업연맹전 2차리그 조선일보사 주최로 1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교통부, 농업은행, 한국운수 등 3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더블 리그로 개최, 11월 8일 열린 최종일 경기에서 농업은행이 한국운수를 3-0으로 꺾고 우승</p> <p>◇2차리그 ▲1회전=농업은행 8-0 교통부 ▲2회전=한국운수 3-1 교통부 ▲3회전=농업은행 3-0 한국운수</p> <p>◇종합 순위=①농업은행(4승) ②한국운수(2승2패) ③교통부(4패)</p> <p>◇개인상 ▲우수상=김양중(농업은행 투수) ▲타격상=김임렬(농업은행 2루수 .500) ▲미기상=안종태(한국운수 좌익수)</p> <p>△농업은행=김정환(1루수), 김임렬(2루수), 허정규(유격수), 박현식(좌익수겸 3루수), 김양중(투수), 김영빈(중견수), 김영조(포수), 이필균(우익수), 김영복(3루수) 최화용(좌익수)</p> <p>△한국운수=고병호(2루수), 안종태(좌익수), 이기역(유격수), 김용구(우익수), 송준기(1루수), 손상룡(대타) 김순성(3루수), 김성동(대타), 서광덕(중견수), 임소철(대타), 배용섭(투수), 김원렬(포수)</p>	
11.12	<p>■ 서울시중학연맹전 추계리그 대한연식야구협회 주최로 11월 12일부터 육군구장및 여러 운동장에서 A, B조로 나누어 예선전을 개최, 11월 28일 하오 1시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A, B조 승자 결승전에서 B조 승자 청량중이 10회 연장전 끝에 A조 승자 경동중을 2-0으로 물리치고 우승</p> <p>▲A조 순위=①경동중(5승1무) ②동북중(4승2패)</p> <p>▲B조 순위=①청량중(6승1무2패) ②선린중(5승1무3패)</p> <p>▲A, B조 승자 결승=청량중 2-0 경동중(연장 10회)</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11.20	<p>■ 동도중개교기념 제2회 국민학교대항대회 동도중 주최로 11월 20일부터 서울시내 7개 국민학교가 출전한 가운데 동도중 운동장에서 개최, 11월 21일 끝난 결승전에서 금양이 10회 연장전 끝에 소의를 4-3으로 제치고 우승 ▲준결승전=금양 8-5 용산. 소의 3-1 공덕 ▲결승전=금양 4-3 소의(연장 10회) △금양국교=안계장(포수) 김용찬(유격수) 이관세(2루수) 이효성(중견수) 구본호(투수) 이은균(좌익수) 양광식(우익수) 백남천(1루수) 이용진(3루수)</p>	
12.23	<p>■ 김희련, 대한민국체육상 수상 대한체육회가 12월 23일 전체 이사회를 열고 각 산하 단체에서 추천한 59년도 우수선수를 승인한 뒤 최우수선수로 최경자(崔京子 탁구), 이창훈(李昌薰 마라톤), 김영기(金永基 농구)를 선정 ◇우수선수 ▲야구=김희련(육군) ▲연식야구=김태호(金泰浩 대구중) ▲단체상=대구중</p>	<p>■ 12.14 재일교포 복송 시작 일본 니카다(神瀨)항에서 재일동포 975명이 소련 수송선 2척에 나눠 타고 북한 청진(淸津)으로 항발</p>
1960 01.17	<p>■ 대한야구협회 전국대의원대회 서울중앙우체국 회의실에서 제14회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서울실업야구연맹을 산하 단체로 인준 ▲회장=이홍직(李鴻植) ▲부회장=선우인서(鮮于麟瑞) ▲이사장=이신득(李辛得) ▲이사=김태호(金泰浩), 오윤환(吳潤煥), 이규백(李圭伯), 손희준(孫禧俊), 박점도(朴點道), 허곤(許琨), 김일배(金日培), 김재송(金載松), 김태봉(金泰奉), 김영조(金永祚), 김선웅(金善雄), 김형두(金炯斗), 김재수(金在守), 강대중(姜大中), 노정호(盧禎鎬), 박상규(朴象圭), 박현덕(朴賢德), 모무열(毛無說), 이효(李曉), 이경구(李鯨九), 윤재준(尹在浚), 장석화(張錫華), 정동환(鄭東煥), 이지수(李志水) ▲감사=김수환(金脩桓), 백기주(白基珠), 이창근(李昌根)</p>	<p>■ 육군군수기지사령부 신설 초대 사령관에 육군 소장 박정희 취임, 7월에 열린 부산4도시고교대회에 타격상 트로피 기증</p> <p>■ 02.17 김포공항 청사 준공 2월 17일 오후 3시 대한민국 유일의 국제공항에서 종합청사 개관식</p> <p>■ 메이저리그에 세이브 규정 도입 시카고 선 타임스 제리 홀츠만 기자가 세이브 규정을 제정하자 메이저리그가 사상 처음 도입</p>
01.17	<p>■ 제2회 이영민 타격상 백인천(白仁天) 수상 1월 17일 상오 10시 중앙우체국 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야구협회 제14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경동고 포수 백인천에게 제2회 이영민(李榮敏) 타격상을 시상. 백인천은 전국고교선수권대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전국고교대회 등 3개 대회에서 33타수 10안타를 날려 타율 .333을 기록으로 영예의 대상 수상</p>	
02.05	<p>■ 청량중야구단, 자유중국 원정경기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2월 5일 상오 8시 청량중학야구단이 자유중국(대만) 원정 경기를 위해 여의도공항에서 KNA편으로 출국, 타이베이(臺北)에서 자유중국 중학(5년제) 팀들과 4차례 경기를 가진 끝에 1승3패를 기록 ◇청량중선수단 ▲단장=이갑수 ▲부단장=윤양모(尹亮模) ▲총감독=신창근(申昌根) ▲섭외=이소영(李韶</p>	<p>자유중국 대만으로 출국하기 앞서 여의도 공항에서 그들이 타고 갈 여객기 앞에서 기념 촬영한 청량중야구단 일행</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2차전(5월 28일 서울)=재일교포 6-4 한국운수 △한국운수=감독 장석화 및 고병호(高炳鎬 2루수), 장유복(張裕福 3루수), 정병섭(丁炳燮 포수), 김응룡(金應龍 1루수), 김용구(金容龜 좌익수), 배동원(裴東元 유격수), 김원렬(金元烈 우익수), 서광덕(徐光德 중견수), 손상룡(孫相龍 우익수), 서동준(徐東俊 투수)</p> <p>▲3차전(5월 29일 서울)=재일교포 2-7 농업은행 △농업은행=감독 김영조 및 김영빈(金榮彬), 최화용(崔和勇 이상 중견수), 김임렬(金任烈 좌익수), 박현식(朴賢植 포수), 김양중(金洋中 투수), 이필균(李弼均 우익수), 김동주(金東柱 유격수), 박하일(朴河一), 김영복(金永福 이상 3루수), 허정규(許正奎), 김길수(金吉秀 이상 2루수)</p> <p>▲4차전(5월 31일 인천)=재일교포 2-3 전인천 △전인천=감독 박현덕 및 김진영(金振榮 유격수), 김점생(1루수), 박하성(3루수), 이강웅(2루수), 박현식(좌익수), 진원주(우익수), 김광택(金光澤 포수), 신인식(申仁植 투수), 김영복(1루수겸 3루수), 이병렬(중견수), 서동준(1루수)</p> <p>▲5차전(6월 2일 서울)=재일교포 2-2 교통부 △교통부=감독 모무열 및 정순방(鄭淳芳 유격수), 김광택(포수), 박진원(朴鎭源 3루수), 정두영(鄭斗永 중견수), 백문웅(白文雄 좌익수), 김규화(金奎和 2루수), 허명호(許明浩 1루수), 민준기(우익수), 이선덕(李善德 투수), 변세균(卞世均 우익수), 정운철(鄭雲哲 대타)</p> <p>▲6차전(6월 4일 서울)=재일교포 4-4 전서울 △전서울=성기영(2루수) 김정환(1루수), 장태영(중견수), 김희련(3루수), 정두영(좌익수), 이필균, 허정규(이상 우익수), 배동원(유격수), 곽상령, 박노학(朴魯鶴), 김양중(이상 투수), 허호준(許鎬俊), 정병섭(이상 포수)</p> <p>▲7차전(6월 5일 서울)=재일교포 5-0 전서울 △전서울=성기영(2루수), 김정환(1루수), 장태영(중견수), 김희련(3루수), 김양중(투수), 이필균, 허정규(이상 우익수), 배동원(유격수), 김용구, 정두영(이상 좌익수) 허호준(포수), 박진원(대타), 정병섭(포수)</p> <p>▲8차전(6월 6일 서울)=재일교포 2-1 미7사단</p> <p>▲9차전(6월 9일 대구)=재일교포 5-1 전대구 △전대구=감독 김보상(金輔相) 코치 김찬석(金瓚錫) 및 김길웅(金吉雄), 박영웅(朴英雄), 김홍일(金洪一 이상 투수), 강태환(姜泰煥 포수), 서영무(徐永武 1루수), 김찬석, 박창룡(朴昌龍 이상 2루수), 백영태(白英泰), 허정규(이상 3루수), 김창홍(金昌弘 유격수), 배영환(裴寧煥 좌익수), 안종태(安鍾泰 중견수), 홍성덕(洪性德), 정순고(鄭淳皐 이상 우익수)</p> <p>▲10차전(6월 11일 부산)=재일교포 6-5 남선전기 △남선전기=감독 김계현(金桂鉉) 및 안두칠(安斗七 우익수), 강태환(姜泰煥 대타), 박치명(朴治明 2루수), 박내용(朴來用 대타), 백기수(白基守 3루수), 어우홍(魚友洪 투수겸 1루수), 김원규(金元珪 좌익수겸 중견수), 이재창(李在昌 포수), 박명길(朴明吉 유격수), 이</p>	 <p>허정(許政) 국무총리를 예방한 재일교포 성인야구단 선수들</p>  <p>재일교포성인야구단 모국방문경기 입장식</p>  <p>재일교포성인야구단 주장이 대한야구협회 이홍직(李鴻植) 회장에게 페넌트 증정</p>  <p>재일교포 선수들은 경기가 끝난 뒤 그들이 사용했던 야구장비 일체를 가난한 모국 선수들에게 기증하고 돌아갔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수대(李秀大 중견수), 최박지(崔博之 좌익수), 김수갑(金壽甲 투수), 윤경호(尹景浩 대타), 이재성(李在成 투수), 한명복(韓命福 대타)</p> <p>▲11차전(6월 12일 부산)=재일교포 0-0 동아대 △동아대=구상문(具相文 중견수), 지종걸(池宗杰), 양평작(梁平作 이상 우익수), 공삼식(孔三植 3루수) 정덕민(유격수), 정호균(鄭浩均 좌익수), 문영철(文永哲), 박호성(朴好聲 이상 1루수), 홍상길(洪尙吉 2루수), 김성근(투수), 이형(李亨 포수)</p> <p>▲12차전(6월 13일 부산)=재일교포 4-1 육군병기학교 △육군병기=감독 문장원(文長遠) 및 황경조(黃敬祚 유격수), 김규성(金奎星 대타), 장봉기(張鳳基 2루수), 박의양(朴義陽 중견수), 박민규(朴玟奎 우익수), 정화집(鄭和集 투수), 박영길(朴永吉 우익수), 김태훈(金泰勳 1루수), 이배근(李培根 3루수), 김일겸(金一謙), 김훈호(金勳浩 이상 투수), 김창규(金昌圭 대타), 이길용(李吉溶 포수), 김흥수(金興洙 대타), 배용수(裴龍壽 좌익수), 박종환(朴鍾煥 대타)</p>	
06.04	<p>■제15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부산예선 대한야구협회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6월 4일부터 5일간 부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 6월 8일 끝난 최종일 경기에서 부산상고가 동래고를 2-1로 꺾고 4전 4승으로 본선 진출권 확보</p> <p>▲우승=부산상고(4전 4승) ▲준우승=부산공고(1승2무1패), 부산고(2승2패)</p> <p>◇개인상 ▲우수상=한을룡(韓乙龍 부산상고) ▲타격상=한강웅(韓康雄 부산고)</p>	
06.08	<p>■제15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서울예선 대한야구협회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6월 8일부터 서울시내 9개 고교 팀(성동, 경기공, 배재, 성남, 경기, 선린상, 중앙, 휘문, 경동고)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우천으로 2일을 연기한 끝에 6월 15일 열린 최종 결승전에서 경동고가 경기공고를 9-1로 격파하고 우승</p> <p>▲승자 결승전=경동고 3-1 경기공고 ▲패자 결승전=경기공고 3-0 선린상고 ▲최종 결승전=경동고 9-1</p> <p>◇개인상 ▲타격상=김충환(金忠煥 휘문고 .417) ▲본루타상=백인천(경동고)</p>	
06.14	<p>■대통령배쟁탈 전국춘계실업연맹전 전국실업야구연맹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6월 14일부터 농업은행, 교통부, 한국운수, 남선전기 등 4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20일 벌어진 최종일 경기에서 한국운수가 남선전기를 7-1로 꺾고, 6전3승1무2패로 교통부, 농업은행과 동률, 7월 8일부터 10일까지 3팀이 결승리그 가진 끝에 한국운수가 2전 전승으로 우승</p> <p>▲결승리그 제1일(7월 8일)=한국운수 3-0 농업은행</p>	<p>■미네소타 트윈스 탄생 워싱턴 세너터스가 미니애폴리스 세인트 폴로 본거지를 옮기면서 팀 명칭도 미네소타 트윈스로 변경</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제2일(7월 9일)=농업은행 3-1 교통부 ▲제3일(7월 10일)=한국운수 3-1 교통부 ◇결승리그 종합 순위=①한국운수(2승) ②농업은행(1승1패) ③교통부(2패) ◇개인상 ▲우수상=서동준(한국운수) ▲미기상=김진영(교통부) ▲타격상=①박현식(농업은행 .435) ②허명호(교통부) ③허호준(교통부)</p>	
06.19	<p>■대한야구협회 임원 개선 대한야구협회가 서울체신청 회의실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임원 선출 △회장=서민호(徐珉濤) △부회장=선우인서, 이신득 △이사장=이효 △상무이사=오윤환(총무), 이규백(재무), 허곤(섭외), 김영조(지도), 박상규(경기), 강대중(기록) △이사=김태호, 손희준, 조점룡(趙點龍), 김태봉, 김일배, 노창호(盧昶鎬), 모무열, 박점도, 김재송, 장석화, 노정호, 김정렬(金正烈), 김선웅, 박현덕, 정동환, 김재수, 이창근, 이수진 △감사=윤재준, 정관칠(鄭寬七)</p>	<p>■06.19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 방한 6월 19일 하오 4시 김포공항 도착,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미국 대통령 방한, 28시간 체류한 뒤 20일 하오 8시 이한.</p>
06.21	<p>■제15회 청룡기쟁탈 전국고교선수권대회 대한야구협회 조선일보사 주최로 6월 21일 전년도 우승 팀 동산고를 비롯, 각 시 도 8개 고교대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7월 18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경동고가 부산상고를 4-0으로 꺾고 우승 ▲승자 준결승전=경동고 9-0 대구상고(7회 콜드 게임), 부산상고 3-0 동산고 ▲패자 준결승전=대구상고 3-0 동산고 ▲승자 결승전=경동고 2-1 부산상고 ▲패자 결승전=부산상고 5-2 대구상고 ▲최종 결승전=경동고 4-0 부산상고 ◇개인상 ▲우수상=이재환(李在煥 경동고) ▲타격상=오춘삼(경동고 .643) ▲미기상=이성규(부산상고) △경동고=감독 김일배 및 김정호(金正浩 중견수), 김휘만(金輝滿 2루수), 오춘삼(吳春三 3루수), 백인천(포수), 이용숙(李鎔淑 1루수), 이영기(우익수), 김영민, 현아남(玄雅男 이상 좌익수), 김영호(金英鎬 유격수), 주성현(朱成鉉, 이재환(이상 투수) △부산상고=감독 어우흥 및 최재봉(崔在奉 좌익수), 이성규(李成達 유격수), 김병기(金秉冀 중견수), 한을룡(우익수), 유백만(俞百萬 투수), 이규직(李圭直 2루수), 박영국(朴英國 포수), 주민리(朱敏里 3루수), 김의신(金義信 대타), 황종태(黃宗汰 1루수)</p>	 <p>제15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경동고 선수들이 김일배 감독을 행가래 치고 있다.</p>
07.02	<p>■미국 독립184주년기념 제4회 한·미친선대회 조선일보사 미8군사령부 공동 주최로 7월 2일부터 주한미군 1군단, 주한미군 서울기지사령부, 주일미군 후쥬(fuchu), 주일미군 요코스카해군기지사령부 및 교통부, 농업은행, 한국운수, 육군 등 8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7월 5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육군이 교통부를 5-4로 제치고 우승</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준결승전=교통부 6-5 후쥬, 육군 6-4 서울기지사령부 ▲결승전=육군 5-4 교통부</p> <p>△육군=감독 허종만 및 객상령, 신인식, 남창희(南昌熙 이상 투수), 최명섭, 김금현(金琴賢 이상 포수), 김점생, 조민영(趙敏榮 이상 1루수), 성기영, 고영환(高鎭煥 이상 2루수), 김희련(3루수), 박하성(유격수), 진원주, 이병렬, 배재호, 김용택, 김재영(金在榮 이상 외야수)</p>	
07.07	<p>■제7회 전국중학선수권대회</p> <p>대한연식야구협회 주최로 7월 7일 목포상고 운동장에서 개막, 7월 11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동인천중이 대구중을 물리치고 우승</p>	
07.08	<p>■제3회 전국4도시초청고교대회</p> <p>경남야구협회 부산일보사 공동 주최로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전년도 우승 팀 동산고를 비롯해 경동, 인천, 대구상, 부산고 등 4개 도시에서 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 7월 14일 벌어진 결승전 재경기에서 경동고가 3-1로 동산고를 물리치고 우승</p> <p>◇종합 순위=①경동고(3승2무) ②동산고(3승2패) ③부산상고(2승2패) ④대구상고(1승1무2패) ⑤인천고(1무3패)</p> <p>◇개인상 ▲우수상(부산시의회 의장배)=이재환(경동고 투수) ▲감투상(부산세관장배)=최관수(崔寬洙 동산고 투수) ▲타격상(육군군수기지사령관배)=백인천(경동고 포수 .421) ▲미기상(부산시장배)=유백만(부산상고 3루수)</p> <p>△경동고=제15회 청룡기쟁탈 전국고교선수권대회 참조 △동산고=감독 박현덕 및 이창남(李昌男 좌익수), 이창부(李昌夫 유격수), 최관수(투수), 최희철(崔喜喆 중견수), 오낙천(吳洛泉 3루수), 서덕성(徐德成), 이무일(李武一 이상 우익수), 강대진(姜大振 2루수), 김정일(金正逸 포수), 최실(崔實 대타), 이익수(李義洙), 김광웅(金光雄 이상 1루수)</p>	 <p>제3회 전국4도시고교선발대회에서 백인천이 타격상으로 받은 컵. 육군군수기지사령관 박정희 소장이 제공(백인천씨 소장)</p>
07.10	<p>■서울시고교연맹창립기념연맹전</p> <p>서울시고교야구연맹 주최로 7월 10일부터 서울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7월 24일 벌어진 최종 결승전에서 성동고가 경기공고를 6-0으로 격파하고 우승</p> <p>▲승자 결승전=성동고 7-0 휘문고 ▲패자 결승전=경기공고 9-0 휘문고 ▲결승전=경기공고 6-1 성동고 ▲최종 결승전=성동고 6-0 경기공고</p> <p>◇개인상 ▲우수상=백수웅(성동고) ▲감투상=김태령(金泰寧 경기공고) ▲타격상=이정웅(李正雄 선린상 .545) ▲최다량 안타상=이종술(李終述 경기공고) ▲홈런상=이종술(경기공고)</p>	
07.22	<p>■제15회 전국대학선수권대회</p> <p>대한야구협회 주최로 7월 22일부터 전년도 우승 팀 성균관대와 동아대만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개최, 7월 23일 열린 결승전에서 동아대가 6-1로 성균관대를 꺾고 2전 전승으로 우승 ◇개인상 ▲우수선수상=박정일(동아대 투수) ▲타격상=홍상길(동아대 3루수 .429) △동아대=감독 안영필(安永弼) 및 구상문(중견수), 지종걸, 김정화(이상 우익수), 정호균(좌익수), 정덕민(유격수), 공삼식, 양평작(梁平作 이상 2루수), 박정일(투수), 이형(포수), 배용수(裴龍壽 1루수)</p>	
07.23	<p>■서울시고교야구연맹 발족 서울시내 9개 고교의 발기로 서울시고교야구연맹 창립 총회를 열고 초대 회장에 선린상고 맹주천 교장을 선임 △회장=맹주천(孟柱天 선린상고) △부회장=주왕산(周王山 중앙고), 정헌갑(鄭憲甲 성동고) △이사장=원창(元滄 선린상고) △총무이사=풍규명(馮圭明) △재무이사=우동환(禹東煥 배재고) △기획이사=어지홍(魚之洪 경기공고) △섭외이사=이선룡(李善龍 경동고) △경기이사=정만식(鄭萬植 경기고) △이사=조예성(趙禮性 경북고), 유석흥(柳錫興 경기고), 이병국(李炳國 중앙고), 김헌욱(金憲郁 성남고), 이의령(李義寧 성동고), 유인갑(柳寅甲 휘문고), 박덕룡(朴德龍 서울공고), 김병권(金炳權 서울상고) △감사=김형태(金亨泰 경동고), 김영철(金泳哲 성남고)</p>	
07.27	<p>■제12회 쌍룡기쟁탈 전국고교대회 경남야구협회 국제신보사 공동 주최로 7월 27일부터 전국에서 18개 고교 팀(경기공, 성동, 경동, 배재, 중앙, 휘문, 선린상, 인천, 동산, 세광, 대구, 경남, 부산, 동래, 경남상, 부산공, 부산상, 마산고)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 8월 2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경동고가 경남고를 3-2로 누르고 우승 ▲준결승전=경동고 3-2 성동고, 경남고 8-1 선린상고 ▲결승전=경동고 3-2 경남고 ◇개인상 ▲우수선수상=이재환(경동고 투수) ▲감투상=김청옥(경남고 투수) ▲타격상=김삼용(金三用 경남고 좌익수) ▲미기상=백인천(경동고 포수) △경동고=제15회 청룡기쟁탈 전국고교선수권대회 참조 △경남고=감독 정태수(鄭泰守) 및 박청광(朴淸光 3루수), 변용현(邊龍現 2루수), 신이술(申二述 우익수), 김삼용(金三用 중견수), 김청옥(金淸玉 투수), 마동명(馬東明 유격수), 김정태(金正泰 좌익수), 최창호(崔昌浩 포수), 박문규(朴文奎 1루수)</p>	 <p>제12회 전국고교대회 결승전에서 경남고를 꺾고 우승을 차지한 경동고 선수들(뒷 줄 왼쪽 검은 점퍼를 입은 이가 김일배 감독)</p>
08.06	<p>■제5회 재일교포학생야구단 모국방문환영대회 대한야구협회 한국일보사 초청으로 8월 4일 재일교포 학생야구단(임원6명, 선수 16명) 22명이 내한, 8월 6일부터 서울을 비롯 인천, 청주, 부산, 대구, 대전에서 고교및 지역 고교선발 팀과 16차전을 개최한 끝에 13승2무1패를 기록</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교포야구단 △고문=김정주(金正柱 재일협회 부회장) △단장=이수진(동 이사장) △부단장=최태환(崔泰煥 동 이사) △총무=최문도(동 이사) △감독=배수찬(동 이사) △코치=이성현(동 회원) 및 △투수=심재길(沈載吉 아이치愛知학원고), 김영웅(金英雄 고코쿠興國고), 조용남(趙隆男 나니와浪華상고), 정승치(鄭勝治 츠시 카이세이逗子 開成고) △포수=임무평(林茂平 조세이長生고), 이칠랑(李七郎 오카자키岡崎고), 김봉일(金峰一 나니와浪華상고) △내야수=김철웅(金哲雄 일본대제2고), 김죽웅(金竹雄 하야토모早鞆고), 김정룡(金正龍 호세이法政1고) △외야수=송호사(宋孝司 이치오카市岡고), 송병주(宋晷周 아이치愛知학원고), 정의웅(鄭義雄 쓰시마津島고), 박희정(朴熙正 게이오京王고), 박보길(朴普吉 교에이亨榮고), 김정길(金政吉 이즈오泉尾고)</p> <p>▲1차전(8월 6일 서울)=재일교포 0-4 중양고 △중양고=김형수(金亨洙 유격수겸 중견수), 최홍길(崔弘吉 2루수), 김은하(金銀河 좌, 우익수), 정정수(鄭正洙 투수겸 유격수), 김윤용(金倫容 1루수겸 투수), 최광웅(崔光雄 포수), 최종수(崔宗洙 3루수), 이무천(李武天 우익수겸 1루수), 박경철(朴京澈 중견수겸 좌익수), 변원구(邊源九 우익수)</p> <p>▲2차전(8월 7일 서울)=재일교포 8-0 성동고 △성동고=조정일(趙正一 포수), 김창광(金昌光 좌익수), 정효식(鄭孝湜 중견수), 백수웅(투수), 오광소(吳廣昭 1루수), 정황창(鄭晁昌 3루수), 노재형(盧在炯 우익수), 김상현(金上鉉 유격수), 한치복(韓致福 2루수)</p> <p>▲3차전(8월 10일 인천)=재일교포 12-0 인천고 △인천고=박정석(朴貞石 유격수), 정정길(鄭正吉 좌익수), 김인걸(金仁杰 포수), 은성식(殷成植 1루수), 민산기(閔山基 중견수), 허경조(許鏡照 투수겸 우익수) 김영철(3루수), 윤태규(尹泰圭 우익수), 고인환(高仁煥 우익수겸 투수), 홍부웅(洪富雄 2루수)</p> <p>▲4차전(8월 11일 인천)=재일교포 6-4 동산고 △동산고=제3회 전국4도시고교선발대회 참조</p> <p>▲5차전(8월 13일 서울)=재일교포 20-0 배재고 △배재고=이영복(李永福 중견수), 김경서(金景瑞 3루수), 박병하(朴秉河 유격수), 박문기(朴文基 좌익수겸 투수), 음명배(陰明培 포수), 박용민(朴容敏 투수겸 우익수), 우영길(禹永吉), 임백생(林栢生 이상 2루수), 엄정남(嚴正男 우익수겸 좌익수), 양승덕(楊承德 1루수)</p> <p>▲6차전(8월 15일 서울)=재일교포 4-0 경기공고 △경기공고=최향렬(崔香烈 유격수), 김태동(金泰東 좌, 우익수), 정종태(鄭鍾泰 3루수), 이종술(포수), 정익완(鄭翼完 중견수), 육덕룡(陸德龍 1루수), 최경조(崔耕祚 2루수겸 좌익수), 정종운(鄭鍾云 2루수), 최우상(崔雨相 우익수), 천석규(千碩圭 투수)</p> <p>▲7차전(8월 16일 서울)=재일교포 7-3 선린상고 △선린상고=박영부(朴榮夫 중견수), 길무웅(吉武雄 좌익수), 손승호(孫勝浩 3루수), 김영부(金英夫 1루수)</p>	<p>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p>  <p>제5회 재일교포학생야구단 모국방문 환영 야구대회 팸플릿 표지</p>  <p>국내 고교 팀들과 경기에 앞서 장면 국무총리를 예방한 재일교포학생야구단</p> <p>■08.10 감독 맞 트레이드 메이저리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지미 다익스 감독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조 고든 감독이 MLB 사상 첫 맞 트레이드</p> <p>■08.13 윤보선 대통령 취임 제2공화국 초대 대통령으로 8월 13일 상오 국회 양원 합동 회의에서 취임</p> <p>■08.25 제17회 로마 올림픽대회 83개 국에서 5,338명이 출전, 한국은 총 67명(임원 31명, 선수 36명)이 출전. 9월 10일 개최된 마라톤에서 이창훈(李昌薰)이 2시간25분2초로 10위. 한국은 노 메달로 총점 6점을 얻어 베네수엘라와 공동 34위</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김정의(金正義 2루수), 유재성(俞在晟 유격수), 배성서(裴星瑞 포수), 김병만(金炳晩 투수), 이정웅(우익수) ▲8차전(8월 17일 청주)=재일교포 11-2 세광고 ▲9차전(8월 20일 구덕)=재일교포 5-2 부산상고 ▲10차전(8월 21일 구덕)=재일교포 1-1 경남고 △경남고=제12회 전국고교대회 참조 ▲11차전(8월 23일 대구)=재일교포 4-3 대구상고 ▲12차전(8월 25일 대전)=재일교포 6-1 대전선발 ▲13차전(8월 27일 서울)=재일교포 8-0 휘문고 △휘문고=이우가(李祐街 좌익수), 김건(金健 3루수) 김충환(金忠煥 투수), 이명우(李明右 우익수겸 2루수) 유번영(柳繁榮 중견수), 조복연(趙福衍 포수), 이종해(李鍾海 1루수), 박수연(朴壽淵 우익수), 이희수(李熙秀 2루수겸 우익수), 이병준(李炳俊 유격수) ▲14차전(8월 30일 서울)=재일교포 3-3 경동고 △경동고=김정호(중견수), 유행신(柳行信 대타), 이영기(이상 우익수), 주성현(투수), 오춘삼(3루수), 백인천(포수), 이용숙(1루수), 김휘만(2루수), 현아남(좌익수) 김영호(유격수), 이재환(우익수겸 투수) ▲15차전(8월 31일 서울)=재일교포 6-2 서울선발 ▲16차전(9월 1일 서울)=재일교포 2-4 경동고</p>	 <p>8월 10일 인천공설운동장을 찾은 재일교포 팀이 인천고와 경기에 앞서 상견례를 나눈 뒤 페넌트를 교환하고 있다.</p>
09.02	<p>■제10회 백호기쟁탈 전국추계군·실업쟁패전 대한야구협회 경향신문사 공동 주최로 9월 2일부터 육군, 한국운수, 농업은행, 교통부 등 4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9월 5일부터 3일간 열린 결승리그에서 교통부, 육군, 농업은행이 3승2패로 공동 우승 ▲결승리그=육군 4-3 교통부, 농업은행 2-1 육군, 교통부 5-1 농업은행 ◇종합 순위=①교통부, 육군, 농업은행(이상 5전3승2패, 공동 우승) ④한국운수(3전3패, 2차리그 불참) ◇개인상 ▲타격상=김금현(육군 .333) ▲미기상=최화용(농업은행) △교통부=감독 모무열 및 김진영(유격수), 허호준(포수겸 우익수), 정운철, 구옥진(具玉珍 이상 우익수), 허명호, 백문웅, 배수찬(이상 1루수), 민준기, 장태영(중견수), 박진원(3루수), 김광택(포수), 정두영, 변세균(이상 좌익수), 이선덕, 박인환(朴仁煥 이상 투수), 김규화 이학관(李學寬), 정순방(이상 2루수) △육군=감독 허종만 및 성기영(2루수), 박하성(유격수), 김희련, 장태창(張泰昌 이상 3루수), 진원주(陳元柱), 박의양(朴義陽 이상 중견수), 김점생(1루수), 이병렬(우익수), 최명섭(우익수겸 포수), 배재호, 김용택(이상 좌익수), 조민영(우익수), 남창희, 곽상령(이상 투수겸 우익수), 신인식(투수) △농업은행=감독 김영조 및 김영복, 박하일(이상 3루수), 허정규, 김영빈, 주세현(朱世鉉 이상 중견수), 김정환(1루수), 김영조, 김옥경(金玉經 이상 포수), 박현식(좌익수겸 포수), 최화용(좌익수), 김임렬, 이필균(이</p>	 <p>전국추계군실업쟁패전 첫날 두번째로 열린 교통부-농업은행 경기에서 농업은행이 4-3으로 첫 승리</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상 우익수), 김양중(우익수겸 투수), 김동주(유격수), 김길수(2루수), 고순선(高順先), 박노학(이상 투수)	
09.08	<p>■ 제14회 전국지구별고교쟁패전 서울예선대회 대한야구협회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9월 8일부터 서울시내 8개 고교 팀(경기, 경기공, 배재, 선린상, 성남, 성동, 중앙, 휘문고)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9월 11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성동고가 선린상고를 5-2로 물리치고 우승 ▲준결승전=성동고 6-0 성남고, 선린상고 6-5 중앙고 ▲결승전=성동고 5-2 선린상고</p>	
09.12	<p>■ 제6회 NBC배쟁탈 전국선수권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9월 12일부터 육군, 교통부, 농업은행, 한국운수, 전인천, 연세대, 동아대 등 7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9월 19일 벌어진 최종 결승전에서 농업은행이 육군을 10-6으로 제치고 우승 ▲패자 준결승전=육군 2-1 동아대 ▲승자 결승전=농업은행 2-0 한국운수 ▲패자 결승전=육군 7-5 한국운수 ▲최종 결승전=농업은행 10-6 육군 ◇개인상 ▲우수상=박노학(농업은행 투수) ▲타격상=김응룡(한국운수 1루수 .545) ▲미기상=성기영(육군 2루수) ▲감독상=김영조(농업은행) △농업은행=감독 김영조 및 김영복, 박하일, 허정규, 주세현, 김정환, 박현식, 김영조, 최화용, 김임렬, 이필균, 김동주, 김길수, 박노학, 김양중</p>	
09.22	<p>■ 제14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대한야구협회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9월 22일부터 전국에서 11개 고교 팀(경동, 세광, 보산공, 대구상, 광주, 동산, 성동, 춘천농, 부산상, 인천, 선린상고)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9월 26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경동고가 3-2로 부산상고를 제치고 우승 ▲준결승전=경동고 13-0 동산고, 부산상고 1-0 성동고 ▲결승전=경동고 3-2 부산상고 ◇개인상 ▲우수상=주성현(경동) ▲타격상=김정호(경동 .600) ▲미기상=최재봉(부산상) ▲본루타상=이재환(경동 런닝 홈런) △부산상고=감독 어우홍 및 최재봉(좌익수), 이성규(유격수), 이규직(2루수), 유백만(3루수), 한을룡(투수) 박영국(포수), 김병기(중견수), 주민리(우익수), 황종태(1루수)</p>	 <p>제14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결승전에서 경동고에 아깝게 패한 부산상고 선수들(왼쪽 2번째가 김응룡, 오른쪽 끝이 어우홍 감독)</p>
10.01	<p>■ 대통령배쟁탈 전국추계실업연맹전 한국실업야구연맹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10월 2일부터 한국운수, 농업은행, 교통부, 남선전기 등 4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1차리그(10월 2~4일)와 2차리그(10월 8~10일)로 나누어 개최, 10월 10일 끝난 2차리그 최종일 경기에서 농업은행이 교통</p>	<p>■ 09.26 데드 윌리엄스의 마지막 홈런 메이저리그 전설의 4할 타자인 보스턴 레드삭스 데드 윌리엄스가 친 마지막 홈런은 은퇴 경기 마지막 타석에서 날린 개인 통산 521호 홈런.</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부를 8-0으로 격파하고 5승1패로 우승 ◇종합 순위=①농업은행(5승1패) ②교통부(3승3패) ③한국운수, 남선전기(이상 2승4패) ◇개인상 ▲우수상=주세현(농업은행 투수) ▲타격상 =김진영(교통부 유격수 .348) ▲본루타상=박현식(농 업은행 좌익수)	
10.01	■ 제7회 인천4도시초청고교대회 주간인천사 주최로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인천공설운 동장에서 개최, 경동고가 6회 대회에 이어 대회 2연패	대통령배쟁탈 추계연맹전에서 5승1패로 우승을 차지한 농업은행 선수들.
10.05	■ 서울시고교연맹전 추계리그 서울시고교연맹 주최로 10월 5일부터 서울시 8개 고 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24일 열린 결승전에서 경동고가 성동고를 1-0으로 누르고 6승1무로 우승 ◇종합 순위=①경동고(6승1무) ②성동고(6승1패) ③ 휘문고(4승1무2패) ④배재고(3승4패), 경기공고(2승2 무3패) ◇개인상 ▲우수선수상=이재환(경동고) ▲타격상=① 오춘삼(경동고 .423) ②이영희(李永熙 경기공고 .421) ③박병하(배재고 .414)	■ 10.13 월드시리즈 첫 끝내기 홈런 피츠버그 파이러츠-뉴욕 양키스의 월드 시리즈 6차전까지 3승3패, 7차전에서도 9-9로 맞선 9회말 피츠버그의 선두타자 빌 마제로스키가 랠리 테리로부터 홈런을 뽑아 10-9로 이겨, 월드시리즈 사상 최초 의 끝내기 홈런을 기록
10.10	■ 제41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대한체육회 주최로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대전공 설운동장에서 개최, 서울대표인 성동고(고등부)와 농 업은행(일반부) 및 경남대표 동아대(대학부)가 우승, 연식야구에는 서울대표 경동중(중학부)와 코메디 코리 아(일반부)가 우승 ▲고등부 결승전=성동고(서울) O-X 동래고(경남) ▲대학부 결승전=동아대(경남) O-X 성균관대(서울) ▲일반부 결승전=농업은행(서울) O-X 전북(전북) ▲중학(연식)부 결승전=경동중(서울) O-X 동인천중 (경기) ▲일반(연식) 결승전=코메디 코리아(서울) O-X 대전 (충남)	■ 10.13 양키스에 월드시리즈 MVP 뉴욕 양키스의 1루수 바비 리처드슨이 월 드시리즈에서 패하고도 MVP 를 수상
10.22	■ 서울시중학연맹전 추계리그 대한연식야구연맹 주최로 10월 22일부터 11월 8일 까지 15개 서울시 중학 팀이 휘문고, 서울고, 서울운 동장에서 A, B조로 나누어 개최, 11월 10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청량중과 용산중이 0-0으로 승부를 가 리지 못한 채 재경기를 거듭, 11월 16일 4번째 열린 최종 결승전에서 청량중이 용산중을 4-0으로 꺾고 우승 ▲A조 순위=①청량중(5승1패) ②경기중, 휘문중(이상 4승2패) ▲B조 순위=①용산중(7승2패) ②경서중, 한영중(이상 5승3패) ▲결승 3차전=청량중 5-4 용산중 ▲최종 결승전=청	■ 뉴욕 양키스, 9차례 우승 감독 해임 뉴욕 양키스가 60년 월드 시리즈에서 피 츠버그에 타율 0.338-0.256, 득점 55-27 로 압도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3승4패로 패하자 71살의 캐시 스텡걸 감독을 즉각 해임. 스텡걸은 양키스 재임 12년간 월드 시리즈에서 9차례 우승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량중 4-0 용산중 ◇개인상 ▲우수상=황경일(黃京一 고흥중) ▲타격상=이덕치(李德致 휘문중 .421) ▲미기상=임명빈(任明彬 용산중) ▲감투상=김충(金忠 청량중), 여남수(呂南秀 용산중)</p>	
10.28	<p>■ 제35회 4구락부연맹전 동아일보사 4구락부연맹 공동 주최로 10월 28일부터 배재, 중앙, 휘문 등 3개 구락부만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30일 열린 3차전에서 배재가 5-2로 휘문을 꺾고 1승1패로 준우승, 중앙이 2전 전승으로 우승 ▲제1일=중앙 4-2 휘문 ▲제2일=배재 3-5 중앙 ▲제3일=배재 5-2 휘문 ◇종합 순위=①중앙(2승) ②배재(1승1패) ③휘문(2패) ◇개인상 ▲타격상=①우영길(배재 .667) ②조윤익(曹潤益 중앙 .500) △중앙구락부=감독 김태호 및 정정수, 김형수(이상 유격수), 심의일(沈義一 포수), 최화용(崔和勇 좌익수) 박하일(3루수), 고영환(2루수), 호창원(胡昌源), 조진영(趙振英 이상 우익수), 강대중(姜大中 대타), 최영호(崔英浩 1루수), 김옥수(金玉洙, 김윤용(이상 투수), 조윤익(중견수), 한태동(韓泰東 대타)</p>	 <p>휘문-중앙전 5회초 2사 주자 2루에서 휘문 1번 김충환(金忠煥)의 좌월 적시타로 2루 주자 이우가(李祐街)가 홈인, 1점을 만회했으나 중앙에 2-4로 패배</p>
11.01	<p>■ 연·고대체육대회 연세대와 고려대가 정기친선대항전을 11월 1일부터 야구, 축구, 농구, 럭비 등 4종목을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첫 경기인 야구경기는 연세대가 2-1로 승리 △연세대=천진환(千辰煥 유격수), 이민근(李旻根 포수), 김동성(金東成 3루수), 차중덕(車重德 중견수), 조창전(趙昌鎭 좌익수), 노상귀(盧相貴 2루수), 권혜안(權慧顏 1루수), 김창진(金昌鎭 투수), 김종수(金鍾洙 우익수) △고려대=김훈호(金勳浩 유격수), 김양남(金良男 좌익수), 김수웅(金秀雄 3루수), 안수웅(安秀雄 1루수), 임소철(林小哲 투수), 정태현(鄭台鉉 중견수), 김영식(金英植 2루수), 김응렬(金應烈 우익수), 박민웅(朴敏雄 포수)</p>	
11.12	<p>■ 제4회 문화인야구대회 대한연식야구협회 주최로 11월 12일부터 2일 동안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1월 14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KBS가 만화가협회를 6-4로 누르고 우승 ▲1회전=만화가협회 15-7 아동문협(文協), KBS 5-4 악극(樂劇)협회 ▲결승전=KBS 6-4 만화가협회 ◇개인상 ▲우수상=이대엽(李大燁 배우협회 유격수) ▲타격상=이주경(李周景 만화가협회 포수 .355) ▲감투상=박기정(朴基禎 만화가협회 투수) ▲미기상=최요안(崔要安 아동문협 유격수)</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11.20	<p>■ 동도중학교개교기념 제3회 국민학교대항대회 동도중학교 개최,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11월 20일 서울시 4개 국민학교 팀(금양, 서강, 소의, 용강)이 출전한 가운데 동도중 운동장에서 개최, 11월 21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서강국교가 소의국교를 5-3으로 물리치고 우승</p> <p>▲준결승전=서강국 22-8 용강국, 금양국 7-8 소의국 ▲결승전=서강국 5-3 소의국</p> <p>◇개인상 ▲우수상=김중환(金重煥 서강) ▲타격상=조남수(소의) ▲미기상=현복남(금양)</p>	
11.23	<p>■ 경동고야구단 고교 최초 일본원정경기 한국고교야구 사상 최초로 경동고야구단(임원 4, 선수 14명)이 일본고교야구연맹과 대한야구협회 재일지부 초청으로 11월 23일 하오 2시 서북항공기(NWA) 편으로 김포공항을 출국,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일본 고교와 8차례 친선경기를 가진 끝에 3승2무3패의 전적을 안고 12월 13일 하오 3시 NWA 편으로 귀국</p> <p>◇원정경기 전적(8전3승2무3패)</p> <p>▲1차전=경동고 2-0 진세이(鎭西)고 ▲2차전=경동고 2-2 가고시마(鹿兒島)실업고 ▲3차전=경동고 0-7 오요도(大淀)고 ▲4차전=경동고 1-8 시모노세키(下關)상고 ▲5차전=경동고 7-0 사쿠라가오카(櫻丘)고 ▲6차전=경동고 1-1 히메지(姫路)고 ▲7차전=경동고 0-0 헤이안(平安)고 ▲8차전=경동고 9-2 일본대 제2고</p> <p>◇경동고선수단 △고문=손희준(협회 이사) △단장=홍두표(洪斗杓 경동고 교장) 총무=이선룡 △감독=김일배 및 명정남(주장겸 좌익수), 이재환(투수겸 유격수), 최관수(동산고), 주성현(이상 투수), 고정안(高貞安 투수겸 외야수), 오춘삼(3루수), 백인천(포수), 김휘만(2루수), 이영기(좌익수), 김영호(2루수겸 유격수), 김정호(중견수), 현아남(포수), 이용숙(1루수), 김영민(우익수)</p>	 <p>일본 방문 8차전을 앞두고 일본대 제2고교야구장 덕 아웃 앞에서 기념 촬영한 경동고 선수들</p> <p>■ 12.30 경무대를 청와대로 개칭 12월 30일 상오 윤보선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통해 새해부터 경무대(景武臺)를 청와대(靑瓦臺)란 명칭을 사용키로 결정했다고 발표</p>
1961. 01.22	<p>■ 대한야구협회 전국대의원대회 대한야구협회 제15회 전국대의원대회를 서울 정동 밀크 홀에서 열고 현장을 개정한 뒤 임원을 같이 선임</p> <p>△회장=서민호 △부회장=선우인서, 이신득 △이사장=오윤환 △이사=이규백, 박상규, 김태호, 허곤, 김영조, 김재승, 윤재준, 정동환, 노정호, 김태봉, 김일배, 김선웅, 손희준, 장석화, 박점도, 모무열, 노창호, 김정렬, 박현덕, 최인철(崔寅哲)</p>	
01.22	<p>■ 제3회 이영민 타격상 최관수(崔寬洙) 수상 대한야구협회가 제3회 이영민 타격상 수상자로 전년도 3개 고교대회에서 타율 .478을 기록한 동산고 최관수를 선정</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3.09	■ 대한야구협회 사무실 이전 대한야구협회가 조선일보사에 있던 사무실을 서울 무교동 대한체육회 신축 건물로 이전	
04.10	■ 서울시중학춘계리그 대한연식야구협회 주최로 4월 10일부터 용산 육군구장에서 개최, 5월 9일 하오 2시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결승전에서 선린중이 경동중을 5-1로 격파하고 우승 ▲최종 순위=①경동중(5승2무) ②선린중(5승2무1패) ▲결승전=선린중 5-1 경동중 ◇개인상 ▲우수상=이성길(李成吉 선린중) ▲감투상=유장언(劉長彦 경동중) ▲특기상=이재창(李在昌 경동중) ▲미기상=어윤집(魚允集 동대문중) ▲타격상=전재성(鄭雲中), 이종우(曁書中), 조윤식(趙允植 배문중)	■아메리칸리그 162경기로 확장 아메리칸 리그에 LA 에인절스(1966년 캘리포니아 에인절스, 1997년 애너하임 에인절스로 변경)와 워싱턴 세너터스(종전의 워싱턴 미네아폴리스로 옮기고 나서 새로 생긴 팀. 1972년부터는 텍사스 레인저스로 변경)가 새로 가입하고 정규 시즌 팀당 경기 수도 154에서 162경기로 확장
04.21	■ 서울시고교춘계리그 서울시고교야구연맹 주최로 4월 21일부터 서울시 고교 10개 팀(경동, 성동, 휘문, 경기공, 중앙, 선린상, 성남, 성동상, 동도공, 배재고)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A, B조로 나누어 개최, 5월 1일 열린 A, B조 최종 결승전에서 휘문고가 선린상고를 3-2로 누르고 우승 ▲A조 1위=휘문고(3승1패) ▲B조 1위=선린상(4승) ▲A, B조 최종 결승전=휘문고 3-2 선린상	
05.02	■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춘계연맹전 한국실업야구연맹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5월 2일부터 농업은행, 남선전기, 교통부 등 3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1, 2차 리그로 나누어 개최, 5월 8일 벌어진 최종일 경기에서 농업은행이 교통부를 9-5로 물리치고 4전3승1패로 동률, 5월 9일 끝난 최종 결승전에서 농업은행이 교통부를 3-1로 꺾고 우승 ◇1차 리그 순위=①교통부(2승) ②농업은행(1승1패) ③남선전기(2패) ◇2차 리그 순위=①농업은행(2승) ②교통부(1승1패) ③남선전기(2패) ▲1, 2차 리그 우승 결정전=농업은행 3-1 교통부 ◇종합 순위=①농업은행(5전4승1패) ②교통부(5전3승2패) ③남선전기(4전4패) ◇개인상 ▲우수상=김양중(농업은행 투수) ▲타격상=김정환(농업은행 1루수 .385) ▲미기상=박치명(남선전기 2루수) ▲본루타상=백인천(농업은행 포수), 박진원(교통부 3루수)	 <p>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춘계연맹전에서 농업은행의 우승을 이끈 친구 홈런왕을 소개한 체육종합잡지 월간 스포츠 표지(왼쪽이 농업은행의 노장 박현식, 오른쪽이 새내기 백인천)</p>
05.10	■ 제1회 문교부장관기쟁탈 전국4도시선발고교대회 경북야구협회 매일신문사 공동 주최로 5월 10일부터 전국 4개 도시에서 7개 고교 팀(선린상, 중앙, 동산, 인천, 부산, 대구, 대구상고)이 출전한 가운데 대구공설운동장에서 개최, 5월 16일 열릴 예정이던 결승전은 5.16 군사 쿠데타로 무기연기된 가운데 예선전 성	■시카고 컵스 집단지도체제 도입 시카고 컵스의 구단주 윌리엄 리글리가 형편없는 팀 성적이 계속되자 특정 감독을 두지 않고 코치진 8명이 협의해서 팀을 이끄는 집단지도체제로 4년간 운영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적 순위로 우승(대구상고 3승)과 준우승(동산고 2승1패)을 결정 ▲승자 결승전=대구상고 3-2 동산고 ▲패자 결승전=동산고 9-3 중앙고 ▲최종 결승전=대구상고0-0 동산고(5.16으로 무산)</p>	
05.12	<p>■ 전국대학춘계연맹전 대학야구연맹 주최,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5월 12일부터 경희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 4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차리그 도중 5.16군사 쿠데타 발발로 연기를 거듭한 끝에, 5월 15일 1차리그 성적을 토대로 승자를 가려 3전 2승1패로 동률인 연세대와 성균관대가 공동 우승 ◇개인상 ▲타격상=배만호(裴萬鎬 성균관대 좌익수 .538) △2차리그는 5.16군사 쿠데타로 중지 △연세대=감독 김일배 및 김정호(중견수), 이재환(유격수), 오준삼(3루수), 김삼용(金三用 좌익수), 이광근(李光根 포수), 이용숙(1루수), 이근응(李根膺 좌익수) 김동성(金東成 우익수), 명정남(2루수), 노상귀(盧相貴 대타), 한을룡(투수겸 좌익수 및 1루수), 김창진(金昌鎭), 주세현(이상 투수) △성균관대=감독 이팔관(李八官) 및 이강웅(유격수), 이영우(李泳雨 대타), 배만호(좌익수), 서상현(徐相鉉 우익수겸 좌익수), 장세문(張世文 2루수), 최희철(우익수겸 중견수), 이박(李博 포수겸 우익수), 김동엽(金東燁 대타), 김원렬(포수겸 좌익수), 이윤영(李潤永 중견수겸 좌익수), 허명호(1루수), 박인규(朴仁奎 2루수겸 포수), 이의수, 박종길(朴鍾吉), 민산기, 신동렬(辛東烈 이상 투수), 은성식(대타), 정종태(3루수), 차덕선(대타)</p>	<p>■ 05.16 군사정변 5월 16일 새벽 3시, 제2군사령부 부사령관 박정희(朴正熙) 육군 소장 등 일부 장교들이 장면(張勉) 내각의 무능력과 사회 혼란을 명분으로 행정, 입법, 사법부를 장악하고 군사혁명위원회를 설치</p>  <p>군사쿠데타 직후 중앙청 앞에 나타난 박정희 소장(오른쪽)</p>
05.20	<p>■ 대한야구협회 서민호 회장 공직 박탈 5.16 군사 쿠데타로 대한야구협회 회장직 및 모든 공직을 박탈</p>	<p>■ 05.19 윤보선 대통령 하야 선언 5.16군사 쿠데타 3일 만에 하야를 선언</p>
06.09	<p>■ 제16회 전국대학선수권대회 대한야구협회 민국일보사 공동 주최로 6월 9일부터 연세, 경희, 동아, 한양, 성균관대 등 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13일 열린 결승전에서 연세대가 성균관대를 5-0으로 격파하고 우승 ▲승자 준결승전=연세대 6-0 한양대 ▲패자 준결승전=성균관대 7-3 동아대 ▲패자 결승전=성균관대 8-2 한양대 ▲최종 결승전=연세대 5-0 성균관대 ◇개인상 ▲우수선수상=주성현(연세대 투수) ▲미기상=이박(성균관대 포수) ▲타격상=이용숙(연세대 1루수 .583)</p>	
06.15	<p>■ 제16회 청룡기쟁탈 전국고교선수권대회 대한야구협회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6월 15일부터 8개 고교 팀(경동, 성동, 동산, 춘천농, 세광, 광주일,</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대구상, 부산상고)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21일 열린 최종 결승전에서 성동고가 동산고를 5-0으로 꺾고 우승</p> <p>▲승자 준결승전=성동고 3-2 경동고, 동산고 4-0 부산상고 ▲패자 준결승전=부산상고 1-0 경동고 ▲승자 결승전=성동고 9-0 동산고(몰수게임 패) ▲패자 결승전=동산고 3-1 부산상고 ▲최종 결승전=성동고 5-0 동산고</p> <p>◇종합 순위=①성동고(4전 전승) ②동산고(3승2패) ③부산상고(2승2패) ④경동고(1승2패) ⑤춘천농고, 대구상고, 세광고, 광주일고(이상 1패)</p> <p>◇개인상 ▲우수상=백수웅(성동고 투수) ▲타격상=이영기(경동고 .556) ▲미기상=이규직(李圭直 부산상고) △성동고=감독 백효득(白孝得) 및 한치복(2루수), 김창광(좌익수), 정황창(3루수), 백수웅(투수), 조정일(포수), 전효식(중견수), 오광수(1루수), 노재형(우익수), 김상현(유격수)</p> <p>△동산고=감독 박현덕 및 강대진(2루수), 이창부(유격수), 최관수(투수), 김정일(포수), 오낙천(3루수), 이창남(중견수), 김용우(金龍宇 좌익수), 김광웅(1루수), 최실(대타겸 투수)</p>	
06.23	<p>■제8회 서울시중학선수권대회</p> <p>대한연식야구협회 주최로 6월 23일부터 서울시 중학팀들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7월 7일 벌어진 최종 결승전에서 경동중이 12-0으로 휘문중을 격파하고 우승</p> <p>▲결승전 1차전=경동중 18-7 휘문중 ▲최종 결승전=경동중 12-0 휘문중</p> <p>◇개인상 ▲우수상=유장언(경동중) ▲타격상=김대환(金大煥 휘문중) ▲미기상=정근화(중앙중) ▲감투상=이수웅(李秀雄 경서중) ▲훈련상=이성길(선린중)</p>	
06.30	<p>■미국 독립185주년기념 제5회 한·미친선대회</p> <p>조선일보사 유엔군사령부 공동 주최로 6월 30일부터 주일미해군 '요코스카', 미공군 '요코다', 주한미제1군단, 부평부대를 비롯해 육군, 농업은행, 교통부 등 7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7월 4일 열린 최종 결승전에서 육군이 농업은행을 3-2로 누르고 우승</p> <p>▲승자 결승전=육군 5-0 농업은행 ▲패자 결승전=농업은행 1-0 요코다 ▲최종 결승전=육군 3-2 농업은행</p>	
07.08	<p>■대한야구협회 임원 개선</p> <p>대한야구협회가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집행부 임원을 새로 선출했으나 회장의 취임 거부로 부회장이 10월 2일까지 직무를 대행</p> <p>△회장=최두선(崔斗善 취임 거부) △부회장=이신득(회장 직무 대행) △이사장=오윤환 △상무이사=모무열, 노정호, 박상규, 허곤 △이사=김일배, 장석화, 김영조, 김선웅, 김정렬, 윤재준</p>	<p>■07.02 어네스트 헤밍웨이 사망</p> <p>미국의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2일 상오 7시 30분 사냥을 가기 위해 엽총을 소제하다 오발로 사망. 향년 62세.</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7.10	<p>■ 대한연식야구협회 임원 개선 대한연식야구협회가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이효(李曉), 부회장에 이경구(李鯨九)를 선출하는 등 임원을 개선 △회장=이효 △부회장=이경구 △이사=이삼봉(李三奉) 이태흥(李泰興), 이희경(李熙敬), 이한중(李漢鍾), 김두안(金斗安), 유재봉(俞在鳳), 유호창(柳浩昌), 홍병창(洪丙昌), 배종우(裴宗禹), 이윤하(李潤夏), 이형호(李滢浩)</p>	
07.15	<p>■ 제11회 백호기쟁탈 전국군·실업쟁패전 대한야구협회 경향신문사 공동 주최로 7월 15일부터 육군, 농업은행, 교통부, 한국운수 등 4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7월 18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농업은행이 교통부를 4-1로 격파하고 우승 ◇종합 순위=①농업은행(3승1패) ②교통부(2승2패) ③육군, 한국운수(이상 1승2패) ◇개인상 ▲타격상=김창락(金昌洛 한국운수 .444) ▲미기상=박진원(교통부)</p>	<p>■ 07.17 타이 콥 사망 1928년 통산 타율 0.367로 은퇴한 타이 콥이 61년 7월 17일 75세를 일기로 사망. 그의 장례식에 야구인은 단 3명만 참석</p> 
07.27	<p>■ 제13회 쌍룡기쟁탈 전국고교대회 경남야구협회 국제신보사 공동 주최로 7월 27일부터 전국에서 14개 고교 팀(경동, 부산공, 인천, 부산상, 세광, 휘문, 동래, 부산, 사레지오, 성동, 경남상, 동산, 대구상, 경남고)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 우천으로 연기를 거듭한 끝에 8월 5일 열린 결승전에서 동산고가 부산상고를 3-0으로 꺾고 우승 ▲준결승전=부산상고 8-2 경동고, 동산고 2-0 성동고 ▲결승전=동산고 2-0 부산상고 ◇개인상 ▲최우수상=최관수(동산고 투수) ▲감투상=김정일(동산고 포수), 김병기(부산상고 투수) ▲타격상=①박영국(부산상고 포수 .375) ②오광소(성동고 1루수 .363) ▲미기상=주민리(부산상고 3루수) ▲특별상=박현덕(동산고 감독), 최관수, 김정일(이상 동산고)</p>	<p>제11회 전국군실업쟁패전 승자에게 주어질 우승기와 각종 상배들.</p>
08.05	<p>■ 최관수(崔寬洙),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동산고 투수 최관수가 부산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13회 쌍룡기쟁탈 전국고교대회 결승전에서 부산상고 타자 27명을 상대로 9이닝 동안 무안타 무실점 끝에 3-0으로 No Hit No Run 기록</p>	
08.05	<p>■ 제6회 재일교포학생모국방문환영대회 대한야구협회 한국일보사 공동 초청으로 8월 2일 상오 11시50분 NWA기편으로 재일교포학생야구단 일행 21명(임원 5, 선수 16명)이 입국, 8월 5일부터 서울을 비롯 부산, 대구, 대전, 인천에서 고교 및 지역 고교선발 팀과 16차전을 가져 9승2무5패 ◇교포야구단 △단장=이지영(李志永 재일협회 부회장) △부단장=김석원(金錫沅 재일협회 이사) △총무=나길호(羅吉鎬 재일협회 이사) △매니저=배훈계(裴訓謙 재일협회 회원) △감독=이성현(재일협회 회원) △</p>	<p>1961년 재일교포학생야구단의 모국방문을 앞두고 한국일보사에서 발행한 야구대회 팸플릿 표지</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코치=김광남(재일협회 회원) △투수=권수부(權秀夫 옷카이치四日市공고), 권홍이(權弘二 리츠메이칸立命館고), 김정남(金正男 하나조노花園고), 이정언(李靖彦 교에이후榮상고), 신평길(申平吉 후쿠시마福島고) △포수=김정웅(金正雄 하나조노고), 김승일(金勝一 우베宇部상고) △내야수=김달부(金達夫 오카도고), 장정희(張正熙 히로시마廣島전기고), 최호림(崔虎林 리츠메이칸고), 양혜장(梁惠章 덴마天滿고), 김이웅(金利雄), 오정광(吳正光 이상 하나조노고) △외야수=조수남(趙秀男 우베상고), 김삼태(金三台 데마고), 황영남(黃榮男 지바千葉일고)</p> <p>▲1차전(8월 5일 서울)=재일교포 2-4 경기공고 △경기공고=감독 이기역(李起驛) 및 김태령(투수), 김개일(金介一 포수), 황병서(黃炳瑞 1루수), 남경석(南景錫 2루수), 이영(李榮 3루수), 정종운(유격수), 이일우(李一雨 좌익수), 이종술(중견수), 최경조(우익수)</p> <p>▲2차전(8월 6일 서울)=재일교포 3-0 선린상고 △선린상고=감독 박종해(朴鍾海) 및 김정익(2루수), 길무웅(좌익수), 유문식(유격수), 이정웅(1루수), 유재성(3루수), 천경수(千敬洙 중견수), 이광희(李光熙 투수), 서광신(徐光信 우익수), 여남수(대타), 배성서(포수)</p> <p>▲3차전(8월 6일 서울)=재일교포 0-0 휘문고 △휘문고=감독 정헌모(鄭獻模), 이병준(유격수), 이우가(좌익수), 이종해(1루수), 조복연(포수), 김건(투수), 김병우(金秉宇 3루수), 이영철(李永喆 2루수), 김준수(金駿洙 우익수), 이덕치(대타), 이희수(중견수)</p> <p>▲4차전(8월 8일 서울)=재일교포 0-4 중앙고 △중앙고=감독 한태동 및 최중수(3루수), 이무천(1루수), 하갑득(河甲得 유격수), 조진영(좌익수), 최홍길(2루수), 최순원(崔舜元 포수), 김옥수(투수), 김은하(중견수), 변원구, 권위종(權衛宗 이상 우익수)</p> <p>▲5차전(8월 10일 서울)=재일교포 1-2 배재고 △배재고=박병하(유격수), 우영길(중견수), 박용민(투수), 박문기(우익수), 김경서(3루수), 조지연(趙之衍 1루수), 양승덕(포수), 임백생(2루수), 엄정남(좌익수)</p> <p>▲6차전(8월 13일 서울)=재일교포 6-0 성남고 △성남고=감독 박선오(朴善燾) 및 황언용(黃彦隆 투수), 유희창(柳熙昌 포수), 이주환(李柱煥), 강원만(姜元萬 이상 1루수), 김성식(金聖植 2루수), 천창학(千昌學 3루수), 신경오(申敬五 유격수), 김상묵(金祥默 좌익수), 윤종화(尹鍾花 중견수), 황진렬(黃鎭烈 우익수)</p> <p>▲7차전(8월 13일 서울)=재일교포 1-0 경동고 △경동고=감독 박상규 및 김영호(유격수), 김영민(우익수), 김휘만(2루수), 이영기(좌익수), 현아남(포수), 고정안(1루수), 유행신(중견수), 김충남(우익수), 김설권(金雪權 투수), 권국용(權國勇 3루수)</p> <p>▲8차전(8월 15일 서울)=재일교포 1-3 성동고 △성동고=감독 백효득 및 정황창(3루수), 김창광(좌익수), 조정일(포수), 백수웅(투수), 정효식(중견수), 오광소(1루수), 한치복(2루수), 노재형, 정철규(鄭哲圭 이상</p>	 <p>청와대를 방문한 교포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는 윤보선 대통령(앞줄 왼쪽에서 첫번째)</p>  <p>윤보선 대통령과 기념 촬영을 한 재일교포 학생 선수들</p>  <p>재일교포 선수가 박정희 의장에게 기념 트로피 증정하고 있다.</p>  <p>8월 3일 하오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박정희 의장을 방문한 재일교포 학생 선수 일행.</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우익수, 김상현(유격수) ▲9차전(8월 17일 서울)=재일교포 1-6 동산고 △동산고=감독 박현덕 및 강대진(2루수), 이창부(유격수), 최관수(투수), 김정일(포수), 오낙천(3루수), 이창남(중견수), 김중회(金忠會), 최실(이상 좌익수), 김광웅(1루수), 이무일(우익수) ▲10차전(8월 19일 부산)=재일교포 2-7 경남고 △경남고=감독 고광적 및 윤명수(尹明洙 3루수), 김성오(金成五 포수), 박문규(朴文奎 좌익수), 정연회(鄭鍊恢 우익수), 김청옥(金淸玉 투수), 이환규(李畹圭 3루수), 한성수(韓聖洙 유격수), 김선장(金善璋 중견수), 정경일(1루수) ▲11차전(8월 20일 부산)=재일교포 2-1 부산상고 △부산상고=감독 어우홍 및 최재봉(좌익수), 이성규(유격수), 이규직(2루수겸 3루수), 박영국(포수), 김병기(중견수), 황종태(1루수), 이행수(李幸壽 우익수겸 투수), 주민리(3루수), 주용철(朱勇徹 2루수), 김재규(金在奎 투수겸 우익수), 송태원(宋泰源), 윤영삼(尹永三 이상 우익수) ▲12차전(8월 22일 대구)=재일교포 14-2 대구고 ▲13차전(8월 22일 대구)=재일교포 8-0 대구상고 △대구상고=감독 고익동(高益東) 및 김정부(金正夫 유격수), 박효식(朴孝植), 추민협(秋玟燦 이상 우익수), 유영수(柳永洙 투수), 박태일(朴泰一), 조원일(趙元駟 이사 좌익수), 장석준(張石俊 포수), 최효일(崔孝一 중견수), 하수룡(河秀龍 1루수), 장충남(張忠男), 양영수(楊永洙 이상 2루수), 정동진(丁東鎭 3루수) ▲14차전(8월 24일 대전)=재일교포 8-2 대전선발 ▲15차전(8월 25일 인천)=재일교포 6-0 인천고 △인천고=감독 김선웅 및 김영철(3루수), 윤태규(포수) 정신식(鄭信植 1루수), 박정석(유격수), 정정길(鄭正吉 중견수), 홍부웅(2루수), 고인환(좌익수), 송창근(宋昌根 우익수), 이광남(李光男 투수) ▲16차전(8월 26일 서울)=재일교포 3-3 서울선발 △서울선발=정황창(3루수), 김휘만, 한치복(이상 2루수), 백수웅(투수겸 1루수), 이종술(좌익수), 이영기(1루수), 김태령(투수), 조정일, 현아남(이상 포수), 정효식(중견수), 길무웅(우익수), 김영호, 하갑득(이상 유격수)</p>	<p>■08.12 왼손잡이 첫 300승 투수 밀워키 브레이브스의 워렌 스판이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를 승리로 이끌며 메이저리그 사상 13번째, 좌완 투수로는 처음으로 300승을 기록</p>
08.25	<p>■재일교포 신평길, No Hit No Run 재일교포 투수 신평길이 인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재일교포모국방문대회 인천고와의 제15차전에서 6-0으로 노히트 노런을 기록</p>	
08.28	<p>■아시아야구연맹 총회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아시아야구연맹 총회에 한국대표로 이신득(협회 부회장), 김영조(협회 이사)를 파견</p>	
09.15	<p>■제15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대한야구협회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9월 15일부터</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전년도 우승 팀 경동고를 비롯해 인천, 부산상, 세광, 춘천농, 중앙, 사레지오, 대구상, 성동, 동산, 경남고 등 전국에서 11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9월 19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성동고가 12회 연장전 끝에 2-0으로 중앙고를 누르고 우승</p> <p>▲준결승전=중앙고 5-0 경동고, 성동고 2-1 동산고 ▲결승전=성동고 2-0 중앙고(연장 12회)</p> <p>◇개인상 ▲우수상=백수웅(성동고 투수) ▲타격상=김영호(경동고 유격수 .375) ▲미기상=이무천(중앙고 1루수) △성동고=감독 백효득 및 정황창(3루수), 한치복(2루수), 조정일(포수), 백수웅(투수), 정효식(중견수), 오광소(1루수), 김창광(좌익수), 노재형, 정철교(鄭哲敎 이상 우익수), 김상현(유격수), 김종량(金鍾亮, 차중광(車重光), 유종남(柳鍾男), 송창일(宋昌一), 김기영(金基永), 최용부(崔龍富), 한은희(韓殷熙 이상 후보) △중앙고=감독 이조영(李祖永) 및 최중수(3루수), 이무천(1루수), 하갑득(유격수), 최홍길(2루수), 조진영(좌익수), 김은하(중견수), 변원구, 권위중(이상 우익수) 최순원(포수), 김옥수(투수)</p>	 <p>제15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입장식</p>  <p>서울운동장 야구장 스탠드를 가득 메운 관중들</p>
09.20	<p>■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추계연맹전 한국실업야구연맹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9월 20일부터 한국운수, 농협, 교통부 등 3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9월 27일 한국운수가 4전3승1패로 우승한 가운데 폐막</p> <p>◇종합 순위=①한국운수(3승1패) ②교통부(2승2패) ③농협(1승3패)</p> <p>◇개인상 ▲우수상=김응룡(한국운수 1루수) ▲미기상=박진원(교통부 3루수) ▲타격상=정병섭(교통부 포수 .545) ▲감독상=장석화(한국운수 감독)</p>	
09.28	<p>■ 전국대학연맹전 추계리그 전국대학야구연맹 주최,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9월 28일부터 고려대, 동아대, 연세대, 한양대 등 4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9월 30일 최종일 경기에서 동아대가 고려대를 9-2로 물리치고 2승1무로 우승</p> <p>◇종합 순위=①동아대(2승1무) ②연세대(2승1패) ③한양대(1승1무1패) ④고려대(3패)</p> <p>△동아대=감독 안영필 및 장유복(3루수), 박명길(유격수), 박민규(중견수), 엄창섭(嚴昌燮 1루수), 이형(포수 겸 투수), 홍상길, 강기영(姜基永 이상 2루수), 김정화 문정부(文政夫 이상 좌익수), 김창규, 이용규(李龍奎 이상 투수), 최창호(崔昌浩 포수), 장세중(張世鍾 우익수), 박종환(대타)</p>	<p>■ 09.30 메이저리그 최다 연패 1961년 시즌에서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23연패를 당해 메이저리그 최다 연패 기록을 경신</p>
10.01	<p>■ 제8회 인천4도시초청고교대회 주간인천사 주최로 10월 1일부터 3일간 인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동산고가 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폐막(1962년 9회 대회부터 64년 11회 대회까</p>	<p>■ 10.01 매리스, 시즌 첫 61홈런 기록 뉴욕 양키스의 로저 매리스가 보스턴 레드삭스전에서 61호 홈런을 날려 베이브 루스의 60홈런을 깨고 시즌 최다 홈런을 기록</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지 주최측 사정으로 중단)	
10.02	<p>■ 서울시고교 추계리그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10월 2일부터 서울운동장에서 리그전으로 개최, 11월 1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중앙고가 2-0으로 휘문고를 꺾고 우승 ▲A조 결승전=중앙고 12-0 휘문고 ▲B조 결승전=휘문고 8-2 경북고 ▲최종 결승전=중앙고 2-0 휘문고 ◇종합 전적 ▲우승=중앙고(5전 4승1무) ▲준우승=휘문고(6전 5승1패) ◇개인상 ▲우수선수상=김옥수(중앙고 투수) ▲타격상=김중(선린상고 3루수 .570) ▲최다량안타상=김중(선린상고 3루수 14안타)</p>	<p>■ 10.09 뉴욕 양키스, 월드시리즈 우승 뉴욕 양키스가 신시내티구장에서 열린 월드 시리즈 5차전에서 신시내티 레즈를 13-5로 꺾고 4승1패로 우승</p> <p>■ 10.10 재일교포 사와무라상 수상 일본 프로야구 주니치(中日) 드래곤스의 교포 투수인 곤도(權藤浩 25)가 일본 스포츠기자구락부에서 열린 야구기자단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사와무라(澤村英治)상 수상자로 선정</p>
10.02	<p>■ 대한야구협회 새 회장 선출 오후 5시 제6차 이사회를 열고 선우인서(鮮于麟瑞) 부회장을 새 회장으로 선출</p>	
10.11	<p>■ 제42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대한체육회 주최로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고등부에서는 경기대표 동산고, 대학부에서는 서울대표 연세대, 일반부에서도 서울대표인 한국운수가 각각 우승. 연식야구 중학부에서 경남대표 대신중이, 일반부에서는 경북대표인 한국전력이 우승 ▲고등부 2회전=성동고(서울) 4-2 세광고(충북), 사레지오고(전남) 1-6 동산고(경기) ▲동 결승전=동산고(경기) 1-0 성동고(서울) ▲대학부 결승전=연세대(서울) 5-0 동아대(경남) ▲일반부 결승전=서울 3-2 충남 ▲중학부(연식) 결승전=대신중(경남) 4-0 경북중(경북) ▲일반부(연식) 결승전=한국전력(경북) 1-0 대한석유(경남)</p>	<p>■ 10.09 양키스, 월드시리즈 19번 제패 뉴욕 양키스가 신시내티 크로스리구장에서 열린 월드시리즈 5차전에서 신시내티를 13-5로 격파하고 4승1패로 19번째 우승</p> <p>■ 월드시리즈 최다 연속이닝 무실점 뉴욕 양키스의 투수 화이트 포드가 월드시리즈에서 32연속이닝 무실점 기록을 세워 베이브 루스의 29와 2이닝을 경신</p>
10.17	<p>■ 서울시중학 추계리그 대한연식야구연맹 주최로 10월 17일부터 서울시 중학 10개 팀(대광, 동대문, 배문, 보성, 선린, 성남, 청량, 청운, 한영, 휘문중)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1월 7일 열린 최종일 경기에서 배문중이 동대문중을 4-1로 꺾어 9전 7승1무1패로 선린중과 동률(11월 11일 결승전 개최, 스코어 미상)</p>	
10.20	<p>■ 신미쓰비시(新三菱)중공업초청 한·일친선대회 신비쓰비시중공업야구단(일행 25명)이 대한야구협회 동아일보사 공동 초청으로 10월 17일 상오 11시 김포공항을 통해 내한, 10월 20일부터 서울, 부산, 대구를 돌며 국내 팀과 실업및 대학 팀과 9차전을 가진 끝에 7승1무1패를 기록 ▲1차전(10월 20일 서울)=신미쓰비시 10-4 육군 ▲2차전(10월 21일 서울)=신미쓰비시 8-5 교통부 ▲3차전(10월 22일 서울)=신미쓰비시 2-5 연세대</p>	<p>10월 22일 신미쓰비시-연세대의 3차전을 앞두고 양 팀 감독이 페넌트를 교환하고 있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연세대=감독 김일배 및 이재환(3루수겸 유격수), 김정호(중견수), 오춘삼(유격수겸 3루수), 김삼용(좌익수) 이광근(포수), 이용숙(1루수), 노상귀(2루수겸 우익수) 명정남(2루수), 김동성(우익수), 주성현, 김창진(이상 투수) ▲4차전(10월 22일 서울)=신미쓰비시 1-0 농협 ▲5차전(10월 24일 부산)=신미쓰비시 8-4 교통부 ▲6차전(10월 25일 부산)=신미쓰비시 4-0 전부산 ▲7차전(10월 27일 대구)=신미쓰비시 1-0 육군 ▲8차전(10월 28일 서울)=신미쓰비시 1-1 한국운수 △한국운수=양철혁(3루수), 고병호(2루수), 김용구(우익수), 김응룡(1루수) 김광택(포수), 서동준(투수), 손상룡(대타), 김원렬(중견수), 배재호(좌익수), 김창락(유격수) ▲9차전(10월 29일 서울)=신미쓰비시 8-1 실업선발</p>	<p>■10.21 도에이(東映) 일본시리즈 우승 오사카 고시엔(甲子園) 구장에서 열린 일본시리즈 7차전에서 도에이 플라이어스가 한신(阪神) 타이거스를 2-1로 물리치고 4승3패로 패권을 장악</p>
11.04	<p>■제7회 NBC배쟁탈 전국선수권대회겸 제4회 아시아선수권 파견 최종 선발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11월 4일부터 농협, 육군, 한국운수, 교통부, 한양대, 성균관대, 연세대, 동아대, 전인천 등 9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1월 13일 열린 최종 결승전에서 육군이 농협을 1-0으로 누르고 우승 ▲승자 결승전=육군 1-0 성균관대 ▲패자 준결승전=농협 2-0 교통부 ▲패자 결승전=농협 9-0 성균관대(4회 기권) ▲결승전=농협 3-1 육군 ▲최종 결승전=육군 1-0 농협 ◇개인상 ▲우수상=곽상령(육군 투수) ▲타격상=박현식(농협 좌익수, 438) ▲미기상=장태영(교통부 중견수) ▲홈런상=진원주(육군 우익수), 박현식(농협 좌익수) ▲감독상=허종만(육군 감독) ▲대표자상=서종철(徐鐘喆 육군 부장)</p>	
11.14	<p>■제36회 4구락부연맹전 4구락부연맹 주최,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11월 14일부터 배재, 중앙, 휘문 등 3개 구락부만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1월 16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배재구락부가 중앙구락부를 5-0으로 꺾고 2전 전승으로 우승 ◇종합 순위=①배재구락부(2승) ②중앙구락부(1승1패) ③휘문구락부(2패) ◇개인상 ▲타격상=박용민(배재 .500) ▲응원상=중앙구락부</p>	
12.10	<p>■제4회 이영민 타격상 조정일(趙正一) 수상 대한야구협회가 제4회 이영민 타격상 수상자로 61년도 전국 3개 고교대회에서 타율 .325를 기록한 성동고 포수 조정일을 선정</p>	
12.07	<p>■대한야구협회 규약 개정 서울운동장 기자실에서 제16회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규약을 개정된 뒤 임원을 개설했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회장=선우인서 △부회장=이신득 △전무이사(규약 개정으로 이사장을 전무이사로 대체) △상무이사=모무열(총무), 김희룡(재무), 박점도(지도), 박상규(경기), 허곤(섭외) △이사=노정호, 김일배, 장석화, 김영조, 윤재준, 김선웅, 김정렬 △감사=원창(元滄), 정동환</p>	
<p>1962. 01.02</p>	<p>■ 제4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준우승 자유중국봉구협회 주최로 1월 2일부터 9일까지 한국, 일본, 필리핀, 대만 등 4개국이 출전한 가운데 대만 송산구장에서 개최, 한국은 3승3패로 대만과 공동 준우승 ▲1차전=한국 0-2 일본, 한국 1-0 자유중국, 한국 3-1 필리핀 ▲2차전=한국 1-2 일본, 한국 1-2 자유중국, 한국 5-1 필리핀 ◇종합 순위=①일본(5승1무) ②한국, 자유중국(이상 3승3패) ④필리핀(1무5패) ◇한국선수단 ▲단장=선우인서 ▲총무=노정호 ▲섭외=허곤 ▲심판=모무열 ▲감독=김영조 ▲선수=박현식(주장), 김양중, 광상령, 김성근, 김수윤(金秀允), 최관수(이상 투수), 허호준, 백인천(이상 포수), 김정환(金定煥 1루수), 성기영(2루수), 남갑균(南甲均), 양철학(楊徹學 이상 3루수), 김희련, 박정일(유격수), 김응룡(좌익수), 김영빈(중견수), 배수찬(우익수)</p>	<p>제4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대만 타이베이(台北)공항에 도착한 국가대표 선수들.</p> 
<p>02.10</p>	<p>■ 오윤환, 국제야구연맹(NBC) 위원 피선 NBC(국제야구연맹)가 1962년도 국제야구연맹 위원으로 오윤환(吳潤煥 협회 이사장)을 지명, 대한야구협회에 통보</p>	<p>제4회 아시아선수권대회 개막식에서 우리 선수들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입장하고 있다. 앞에서부터 김양중, 김영조, 박현식, 김응룡, 김성근의 모습이 보인다.</p>
<p>02.23</p>	<p>■ 백인천(白仁天) 일본 프로야구 진출 일본 프로야구 도에이(東映) 플라이어스에 스카우트된 백인천(白仁天)이 2월 22일 하오 3시 30분 NWA기편을 이용 일본으로 출국, 2월 23일 도에이와 2년 간 계약금 300만엔(약 1,200만원), 연봉 96만엔(약 384만원)에 정식 입단 계약</p>	
<p>02.23</p>	<p>■ 배문중 농협 대한민국 체육상 우수단체상 수상 2월 23일 대한체육회 제정 대한민국 체육상 시상식에서 배문중및 농협야구단이 우수단체상 수상</p>	<p>도에이 플라이어스와 입단 계약을 하기 위해 출국하기 전 일본 진출에 힘을 써준 대한체육회 이주일(李周一 국가재건최고회의 부의장) 회장을 인사차 찾은 백인천(왼쪽에서 4번째)</p>
<p>04.09</p>	<p>■ 서울시고교 춘계리그 서울시고교야구연맹 주최로 4월 9일부터 서울시 13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A, B조로 나누어 개최, 5월 5일 36경기를 치른 끝에 A조 선린상고와 B조 배문고가 각각 우승 ▲ A 조 종합 순위=①선린상고(5승1무) ②경기공고(4승1무1패) ③중앙고, 경동고(이상 3승2무1패) ④취문고(1승1무3패) ⑥성동고(1승5패) ⑦성남고(1무5패) ▲ B 조 종합 순위=①배문고(5승) ②경기고(3승1무1패) ③청량중고(3승2패) ④서울고(2승1무2패) ⑤배재고(1승4패) ⑥서울공고(5패)</p>	<p>■ 01.01 공용 연호를 서기(西紀)로 군사정부가 공용 연호를 단기(檀紀)에서 서기로 변경</p> <p>■ 03.24 박정희, 대통령권한대행 취임 3월 23일 대통령을 사임한 윤보선의 뒤를 이어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대통령권한대행에 취임</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4.21	<p>■ 서울시중학총계리그 대한연식야구협회 주최로 4월 21일부터 서울시 중학 13개 팀(A조=경동, 고계, 광희, 동대문, 배문, 선린, 청량중 B조=경서, 덕수, 서울, 중앙, 청량, 휘문중)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상고 운동장에서 개최, 5월 14일 동대문중 운동장에서 열린 B조 결승전에서 청운중이 중앙중을 9-7로 제치고 우승 ◇B조 종합 순위=①중앙중, 청운중(이상 4승1패) ③경서중(2승2무1패) ④서울중(2승1무2패) ⑤덕수중(1승1무3패) ⑥휘문중(5패) ▲결승전=청운중 9-7 중앙중</p>	<p>■ 04.10 다저 스타디움 개장 LA 다저스가 신시내티전을 시작으로 홈구장 다저 스타디움을 개장</p> <p>■ 메이저리그 최고령 신인선수 피츠버그의 구원 투수 디오메네스 올리보가 메이저리그 사상 최고령인 43살에 신인선수로 데뷔</p>
05.04	<p>■ 제2회 문교부장관기쟁탈 전국4도시선발고교대회 경북야구협회 매일신문사 공동 주최로 5월 4일부터 경기공, 동산, 부산, 대구고 등 4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대구공설운동장에서 개최, 5월 6일 벌어진 마지막 경기에서 경기공고가 대구고를 5-2로 물리치고 3전 전승으로 우승 ◇종합 순위=①경기공고(3승) ②동산고(2승1패) ③부산고(1승2패) ④대구고(3패) ◇개인상 ▲우수상=김태령(경기공고 투수) ▲감투상=김개일(金圭一 경기공고 포수) ▲미기상=김광웅(동산고 1루수) ▲타격상=최실(동산고 투수)</p>	
05.06	<p>■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총계연맹전 한국실업야구연맹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5월 6일부터 인천시청, 미곡창고, 농협, 기업은행, 교통부 등 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5월 17일 최종일 경기에서 미곡창고와 교통부가 15회 연장전 끝에 5-5 동점으로 끝나 미창이 5승2무1패로 우승 ◇종합 순위=①미곡창고(5승2무1패) ②농협(5승1무2패) ③기업은행(5승3패) ④인천시청(2승6패) ⑤교통부(1승1무6패) ◇개인상 ▲우수상=김응룡(미창 1루수) ▲타격상=김희련(기은 3루수 .452) ▲감투상=백수웅(농협 투수) △미곡창고=감독 강대중 및 김삼용(중견수), 성기영(2루수겸 유격수), 김용구, 김원렬(이상 우익수), 김응룡(1루수), 김광택, 이광근(이상 포수), 진원주(좌익수), 양철학(3루수), 신인식(대타겸 투수), 김창락(유격수) 유백만(투수겸 2루수), 서동준(투수), 배재호(대주), 유재성(2루수겸 유격수)</p>	
05.18	<p>■ 제17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서울예선대회 대한야구협회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5월 18일부터 서울시 고교 10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5월 25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휘문고가 경동고를 4-3으로 제치고 우승 ▲결승 토너먼트=선린상고 3-2 휘문고, 경동고 부전승 ▲결승전=경동고 11-3 선린상고 ◇개인상 ▲타격상=권국용(경동고) ▲홈런상=김충남</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경동고), 이광희(선린상고)	
05.27	<p>■ 서울시실업연식야구대회 대한연식야구협회 주최로 5월 27일부터 조흥은행, 대한실업, 신한복무사, 고려모직 등 4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5월 29일 열린 마지막 경기에서 대한실업이 신한복무사를 12-2로 격파하고 우승 ◇종합 순위=①대한실업(3승) ②조흥은행(2승1패) ③고려모직(1승2패) ④신한복무사(3패) ◇개인상 ▲우수상=김상현(金上鉉 대한실업 유격수) ▲타격상=이팔관(고려모직 투수 .444) ▲감투상=한득봉(韓得鳳 신한복무 포수) ▲미기상=정기완(鄭基完 조흥은행 유격수)</p>	 <p>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시실업연식야구대회 입장식. 대한실업, 조흥은행, 신한복무사, 고려모직 등 4개 팀이 출전</p>
06.01	<p>■ 제17회 청룡기쟁탈 전국고교선수권대회 대한야구협회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6월 1일부터 경동, 성동, 동산, 춘천농, 세광, 대전상, 사레지오, 대구상, 부산고 등 9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8일 벌어진 최종 결승전에서 부산고가 대구상고를 6-0으로 격파하고 우승 ▲승자 결승전=대구상 2-1 부산고 ▲패자 결승전=부산고 7-2 동산고 ▲결승전=부산고 3-1 대구상고 ▲최종 결승전=부산고 6-0 대구상고 ◇개인상 ▲우수상=박명렬(朴明烈 부산고) ▲타격상=김수웅(金秀雄 동산고 .500) ▲미기상=조원일(대구상고) ▲홍련상=하일(河一 부산고) △부산고=감독 김계훈(金桂薰) 및 하일(유격수), 최영무(崔英武 중견수), 이중원(李仲源 1루수), 박명렬(포수), 이철화(李喆華 3루수), 홍수일(洪秀一 2루수), 고문호(高文浩 좌익수), 김명현(金明鉉 우익수), 김소식(金小植 투수)</p>	
06.09	<p>■ 일본 메이지(明治)대 초청경기 대한야구협회 초청으로 6월 7일 10시 50분 메이지대야구단 일행 22명이 CAT편으로 김포공항을 통해 내한,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인천, 대구 등지에서 국내 대학 및 실업 팀들과 14차전을 가진 끝에 13승1패를 기록 ▲1차전(6월 9일 서울)=메이지대 8-0 교통부 ▲2차전(6월 12일 서울)=메이지대 4-0 기업은행 ▲3차전(6월 13일 서울)=메이지대 5-0 육군 ▲4차전(6월 16일 부산)=메이지대 7-1 동아대 ▲5차전(6월 16일 부산)=메이지대 4-0 부산선발 ▲6차전(6월 17일 부산)=메이지대 2-0농협 ▲7차전(6월 18일 대구)=메이지대 8-7 기업은행 ▲8차전(6월 20일 인천)=메이지대 8-1 인천선발 ▲9차전(6월 22일 서울)=메이지대 5-3 미창 ▲10차전(6월 23일 서울)=메이지대 2-0 농협 ▲11차전(6월 24일 서울)=메이지대 7-0 성균관대 ▲12차전(6월 24일 서울)=메이지대 2-0 실업선발 ▲13차전(6월 26일 서울)=메이지대 13-0 대학선발 ▲14차전(6월 26일 서울)=메이지대 2-5 실업선발</p>	 <p>메이지대 시마오카(島岡) 감독이 대학선발팀과 경기에 앞서 이팔관 감독과 페넌트를 교환(뒷쪽 왼쪽부터 배용섭, 허곤, 김일배 심판, 앞줄 이팔관 감독(왼쪽), 시마오카 감독</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6.15	<p>■ 전국대학연맹전 춘계리그 전국대학연맹 주최,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6월 15일부터 8일간 경북대, 경희대, 동아대, 성균관대, 연세대, 육사, 한양대 등 7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거 개최, 6월 22일 열린 최종일 경기에서 성균관대가 한양대를 5-3으로 꺾고 6전 전승으로 우승 ◇종합 순위=①성균관대(6승) ②동아대, 한양대(4승2패) ③연세대, 경희대(3승3패) ④경북대(1승5패) ⑤육사(6패) ◇개인상 ▲우수상=한을룡(성대 투수) ▲타격상=박영길(동아대 좌익수 .611) ▲미기상=김쌍렬(金雙烈 육사) ▲홈런상=박영길(동아대 3), 최희철(성대 2), 김건(경희대), 이박, 은성식(이상 성대), 최정상(崔正相) 강기영(이상 동아대), 윤창섭(尹昌燮), 최고봉(崔高峰 이상 육사), 최우상(崔雨相 한양대), 김정부(金正夫) 김충영(金忠永 이상 경북대), 이용숙(연세대) △성균관대=감독 이팔관 및 이강웅(2루수), 배만호(중견수), 민산기(1루수), 이박(포수), 최희철(우익수겸 좌익수), 박인규(유격수), 신동렬(3루수), 차덕선(좌익수) 변용현(邊龍現 대타), 은성식(우익수), 한을룡(투수겸 우익수), 김일겸(金一謙 투수)</p>	<p>■ 06.10 화폐개혁, 10환=1원 군사정부가 종전의 '환' 통화를 10분지 1로 환가하여 '원' 단위로 개혁</p>  <p>경북대-동아대 경기 2회말 1사 주자 3루에서 3번 임무호(林茂好)의 좌전 적시타로 3루 주자 최정상(崔正相)이 훅 슬라이딩으로 홈인하고 있다.</p>
06.26	<p>■ 제9회 서울시중학선수권대회 대한연식야구협회 주최로 6월 26일부터 서울시 12개 중학 팀(대광, 성동, 청량, 배문, 경서, 선린, 청운, 경동, 광희, 고계, 덕수, 중앙중)이 출전한 가운데 용산 육군구장에서 개최, 7월 4일 열린 최종 결승전에서 배문중이 14회 연장전 끝에 선린중을 1-0으로 꺾고 우승 ▲승자 준결승전=중앙중 1-2 선린중, 경서중 3-9 배문중 ▲승자 결승전=선린중 3-2 배문중 ▲패자 준결승전=광희중 6-5 경서중 ▲패자 결승전=배문 4-3 광희 ▲결승전=배문중 2-2 선린중(14회 연장) ▲최종 결승전=배문중 1-0 선린중(연장 14회) ◇개인상 ▲우수상=박해원(朴海遠 배문중 투수) ▲감투상=김기성(金基成 선린중 투수) ▲타격상=김성국(金聲國 경서중 투수 .363) ▲미기상=유동식(俞東植 광희중 중견수)</p>	<p>■ 07.01 샌디 쿠팍스 노히트노런 LA 다저스 좌완 투수 샌디 쿠팍스가 뉴욕 메츠를 상대로 탈삼진 13개를 기록하며 5-0으로 노히트노런(No Hit No Run)을 기록</p>
07.02	<p>■ 제6회 한-미친선대회 대한야구협회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7월 2일부터 주한서울기지사령부(SAC), 주한제4유도탄부대, 주일요코스카, 육군, 농협, 미창 등 6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7월 7일 끝난 결승전에서 농협이 미창을 6-0으로 격파하고 우승 ▲승자 결승전=SAC 2-6 미창 ▲패자 결승전=농협 6-3 SAC ▲최종 결승전=농협6-0 미창</p>	 <p>7월 2일 열린 제6회 한-미친선대회 개막식에서 시타와 시구를 하기 위해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과 유엔군사령관 멜로이 대장이 서울운동장을 찾았다.</p>
07.06	<p>■ 제5회 문교부장관기쟁탈 전국중학초청대회 대한연식야구협회 주최로 7월 6일부터 9개 중학 팀(배문, 동인천, 한밭, 광주북, 대신, 대동, 경북, 경상,</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대구중)이 출전한 가운데 대구종합운동장에서 개최, 7월 10일 끝난 결승전에서 배문중이 동인천중을 4-0으로 격파하고 우승</p> <p>▲준결승전=배문중 2-1 대구중 ▲결승전=배문중 4-0 동인천중</p> <p>◇개인상 ▲우수상=박해원(배문중) ▲타격상=안선교(동인천중) ▲미기상=남효열(대구중) ▲감독상=황성칠(동인천중 감독)</p>	
07.12	<p>■제2회 서울시고교연맹창립기념대회</p> <p>서울시고교연맹 주최로 7월 12일부터 전년도 우승 팀 성동고를 비롯해 11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패자식 토너먼트로 개최, 7월 22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선린상고가 경동고를 5-3으로 물리치고 우승</p> <p>▲승자 결승전=선린상고 5-2 경동고 ▲패자 준결승전=경기공고 3-0 배문고 ▲패자 결승전=경동고 7-0 경기공고 ▲결승전=선린상고 5-3 경동고</p> <p>◇개인상 ▲우수상=이광희(선린상고 투수) ▲감투상=김인식(金寅植 배문고 투수) ▲타격상=천경수(선린상고 중견수 .571) ▲최다량안타상=김충(선린상고 3루수 9개) ▲홈런상=조정일(성동고 포수), 김대환(배문고 1루수)</p>	<p>한미친선대회 개막식에 앞서 박정희 의장이 포수 석에서 미트를 끼고 공을 받을 자세를 취하고 있다.</p> 
07.24	<p>■제12회 백호기쟁탈 전국군·실업쟁패전</p> <p>대한야구협회 경향신문사 공동 주최로 7월 24일부터 기업은행, 교통부, 농협, 미창, 육군, 인천시청 등 6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우천으로 연기를 거듭한 끝에 8월 4일 끝난 마지막 경기에서 농협이 교통부를 4-3으로 누르고 4승1무로 우승</p> <p>◇종합 순위=①농협(4승1무) ②미창(2승2무1패) ③기업은행(2승1무2패), 육군(2승1무2패) ⑤인천시청(1승1무3패) ⑥교통부(2무3패)</p> <p>◇개인상 ▲우수상=배수찬(기업은행 우익수) ▲타격상=박현식(농협 포수 .500) ▲미기상=안두철(육군 우익수) ▲본루타상=박현식(4), 배수찬, 김광택, 진원주(이상 1) ▲감독자상=김영조(농협 감독) ▲응원상=농협, 기업은행 응원단</p> <p>△농협=감독 김영조 및 윤경호(중견수), 김영복(2루수), 이재환(유격수), 이필균(우익수), 최정승(崔正勝 3루수), 주세현(朱世鉉 3루수겸 대타), 김동주(2루수겸 대주), 김임렬(좌익수) 박현식(좌익수겸 포수), 심의일(沈義一 포수), 김정환(1루수겸 좌익수), 김윤용(金倫容 대타겸 1루수), 김영조(대타, 김청옥(金淸玉), 백수웅(이상 투수)</p>	<p>제2회 서울시고교연맹 창립기념대회 결승전에서 경동고를 5-3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한 선린상고 선수들.</p>  <p>백호기쟁탈 전국군·실업쟁패전 입장식</p>
07.25	<p>■제14회 쌍룡기쟁탈 전국고교대회</p> <p>경남야구협회 국제신보사 공동 주최로 7월 25일부터 인천, 대구상, 부산, 휘문, 경남, 경동, 세광, 사레지오, 대전, 성동, 대구, 경기공, 경남상, 부산상, 동산, 경기, 부산공, 춘천농고 등 전국에서 18개 고교 팀이 출전한</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7월 31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부산고가 경남고를 2-1로 제치고 우승 ▲준결승전=부산고 3-1 경동고, 경남고 5-4 경기공고 ▲결승전=부산고 2-1 경남고 ◇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소식(부산고) ▲최고수훈선수상=정연회(경남고) ▲타격상=①박명렬(부산고) ②김영민(경동고) ▲미기상=김선장(경남고) ▲감투상=박명렬(부산고) ▲특별상=김계훈(부산고 감독) △부산고=감독 김계훈 및 최영무(중견수), 이철화(3루수), 하일(유격수), 박명렬(포수), 이종원(1루수), 김명현(좌익수), 김소식(투수), 박성호(朴誠孝 우익수), 홍수일(2루수)</p>	
08.10	<p>■제1회 재일교포중학야구단 모국방문대회 대한연식야구협회 초청으로 재일교포중학야구단(임원 9, 선수 17명)이 8월 9일 상오 10시반 CAT 편으로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 8월 10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춘천, 인천, 대전, 김천, 부산에서 국내 중학 팀들과 10차전을 가진 뒤 8월 28일 부산항에서 배편으로 출국 ◇교포야구단 ▲단장=이복남(李福男) ▲부단장=이상조(李尙祚) ▲총무=김수부(金秀夫) ▲서무=김갑수(金甲洙) ▲간호=김용일(金容一) ▲섭외=이성현 ▲감독=한양택(韓洋澤) ▲코치=이석봉(李石奉) ▲매니저=심구중(沈九鍾) ▲투수=정성근(鄭聖根 후쿠시마중) 오충웅(吳忠雄 건국중), 차주찬(車柱贊 건국중), 김송남(金松男 후쿠시마중) ▲포수=송석문(宋石文 나니와중) ▲내야수=박영식(朴榮植 금강중), 변영태(卞英泰 건국중), 현동호(玄東鎬 금강중), 이영기(李榮基) ▲외야수=서홍(徐弘 덴가차야중), 오평호(吳平好 건국중), 김덕봉(金德峰 금강중), 이정행(李正行 건국중), 전재주(全在注 덴가차야중), 강용구(康隆久 건국중), 민용(閔勇 금강중), 이양부(李良夫) ▲1차전(8월 10일 서울)=재일교포 0-6 선린중 ▲2차전(8월 12일 서울)=재일교포 0-5 배문중 △배문중=김덕재(金德在 3루수), 김창원(金昌源 우익수), 박완기(朴完基 3루수), 유대영(柳大榮 좌익수) 이도준(李道俊 중견수), 이천길(李千吉 포수), 박해원(투수), 김중환(2루수), 김용남(金用男 유격수), 김재식(金在植 1루수) ▲3차전(8월 14일 춘천)=재일교포 13-3 춘천중 ▲4차전(8월 15일 인천)=재일교포 0-3 남인천중 ▲5차전(8월 18일 서울)=재일교포 1-4 중학선발 △중학선발=감독 배종우(裴宗禹 연식협회 이사), 코치 고원순(高元淳 광희중 코치) 및 박해원(배문), 김기성(선린), 장중섭(張中燮 서울), 조행길(趙行吉 청량), 이종남(李鍾南 고계 이상 투수), 이천길(李千吉 배문) 최영훈(崔英勳 중앙 이상 포수), 구본호(具本浩 선린), 장관수(張官洙 청량), 김광철(金光哲 경동), 이용순(李鎔淳 선린), 구영곤(具永坤 동대문), 김중명(金重明 선린 이상 내야수), 유대영(柳大榮 배문), 유동식(광희) 이도준(李道俊 배문), 김성국(경서), 손혜택(孫惠澤 동대문), 주용</p>	 <p>내각수반실을 찾은 재일교포 중학선수들, 김현철 내각수반이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p>  <p>김현철 내각수반과 자리를 함께 한 재일교포 중학선수들</p>  <p>모국 방문 첫 경기인 선린중학전을 앞두고 서울운동장 야구장에서는 환영식이 열렸다.</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국(朱龍國 성동), 이원국(李源國 중앙 이상 외야수) ▲6차전(8월 20일 대전)=재일교포 (미상) 대전중 ▲ 7차전(8월 23일 김천)=재일교포 13-4 김천중 ▲8차 전(8월 24일 김천)=재일교포 5-4 대구중 ▲9차전(8 월 26일 서울)=재일교포 1-3 중학선발 ▲10차전(8월 31일 원주)=재일교포 (스코어 미상) 원주선발</p>	
08.11	<p>■ 제7회 재일교포학생모국방환영대회 대한야구협회 한국일보사 초청으로 8월 2일 상오 11 시50분 NWA기편으로 재일교포학생야구단 일행 21명 (임원 5, 선수 16명)이 입국, 8월 5일부터 서울을 비롯 부산, 대구, 대전, 인천에서 고교및 지역 고교선발 팀 과 16차전 끝에 9승2무5패를 기록 ◇교포야구단 ▲단장=김봉수(金鳳洙 재일협회장) ▲ 부단장=고상직(高相稷 재일협회 부회장) ▲섭외=김 시계(金始啓 재일협회 이사) ▲총감독=박상헌(朴相 憲 재일협회 이사) ▲감독=곽병득(재일협회 회원) ▲ 코치=김고의(金高義 재일협회 회원) ▲투수=강번웅 (姜繁雄 기시와다岸和田고), 김영이(金榮二 주쿄中京 상고), 이화희(李和熙 오카자키岡崎공고), 김의윤(金義 倫 미네야마峰山고), 김의일(金義一 교토니시京都西 고), 오강평(吳岡平 쓰津공고), 변암부(卞岩夫 나고야 名古屋전기고), 송상만(宋相萬 미요시三次고), 안일남 (安一男), 최의광(崔義光 이상 오사카大阪상대부고), 이충남(李忠男 헤이안平安고), 최명남(崔明男 하나조 노花園고), 조무남(趙武男 이즈오泉尾공고), 박절남 (朴節男 마쓰모토松本상고), 정신동(鄭新東 기류桐生 고), 유창수(俞昌洙 한국학원고) ▲1차전(8월 11일 서울)=재일교포 2-0 경동고 △경동고=감독 김일배 및 김영민(유격수), 권국용(3 루수), 김충남(좌익수), 이영기(1루수), 고정안(중견수), 김재일(金在一), 김상유(金商楡 이상 포수), 신윤섭(申 允燮 우익수), 김설권(투수), 이영선(李永善), 유장연 (이상 2루수) ▲2차전(8월 12일 서울)=재일교포 12-2 경기공고 △경기공고=감독 백효득 및 이영(중견수), 정종운(유 격수), 남경석(3루수), 김태령(투수), 김개일(포수), 방 동환(方東煥 우익수), 박건식(朴建植), 한동수(韓東洙 이상 좌익수), 황병서(1루수), 최정길(崔正吉 2루수) ▲3차전(8월 14일 서울)=재일교포 4-1 배문고 △배문고=감독 박지완 및 위만환(魏滿煥 중견수), 이지 찬(李枝贊 3루수), 김동호(金東鎬 2루수), 김대환(1루수 겸 우익수), 단희상(段禧相 포수), 곽영환(郭榮煥 좌익 수), 신용운(申龍雲 유격수), 엄영수(嚴永守 1루수), 윤 광만(尹廣萬 투수겸 좌익수), 김인식(투수겸 우익수) ▲4차전(8월 14일 서울)=재일교포 0-1 중양고 △중양고=김문량(金文亮) 및 최중수(3루수), 이무천(1 루수), 하갑득(유격수), 최순원(포수), 김옥수(투수), 김 은하(중견수), 신중문(申鍾文 2루수), 조윤향(趙潤鄉 좌익수), 정구영(鄭求榮 우익수)</p>	<div data-bbox="970 483 1302 922" data-label="Image"> </div> <p>제7회 재일교포학생야구단 모국방문 환영 야구대회를 앞두고 한국일보사가 발행한 팸플릿</p> <div data-bbox="970 1066 1474 1442" data-label="Image"> </div> <p>국가재건최고회의 이주일 부의장을 예방 한 재일협회 권영섭 회장과 재일교포 학생 대표</p> <div data-bbox="970 1585 1474 1895" data-label="Image"> </div> <p>재일교포학생들이 육군사관학교에 입교, 군사훈련을 받으며 병영생활을 체험했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5차전(8월 15일 서울)=재이교포 3-5 선린상고 △선린상고=감독 박종해 및 김중(3루수), 이성길(우익수), 유문식(유격수), 배성서(포수), 변무길(1루수), 길무웅(좌익수), 천경수(중견수), 한동화(韓東和 2루수), 이광희(투수)</p> <p>▲6차전(8월 18일 부산)=재일교포 10-3 경남고 △경남고=감독 김계현 및 윤명수(2루수), 김홍국(金洪國 1루수), 김성오(포수), 김선장(중견수), 정연희(투수겸 우익수), 전창웅(全昌雄 좌익수), 최흥표(崔興杓 우익수 겸 투수), 김성남(金誠男 유격수), 임재근(林在根 3루수)</p> <p>▲7차전(8월 19일 부산)=재일교포 3-3 부산고 ▲8차전(8월 21일 대구)=재일교포 9-2 대구고 ▲9차전(8월 21일 대구)=재일교포 4-2 대구상고 △대구상고=조원일(중견수), 정동진(포수), 박재영(朴栽永 유격수), 장중남(우익수), 유명수(투수), 추민협(좌익수), 신호식(申孝湜 3루수), 양영수(1루수), 강태정(姜泰貞 2루수)</p> <p>▲10차전(8월 23일 대전)=재일교포 0-12 대전선발 ▲11차전(8월 25일 서울)=재일교포 1-3 휘문고 ▲12차전(8월 25일 서울)=재일교포 14-0 동산고 △동산고=감독 박현덕 및 김수웅(金秀雄 우익수), 우승권(禹勝權 3루수), 최실, 장세진(張世辰 이상 투수), 김광웅(1루수), 이건웅(李健雄 유격수), 박관영(朴觀英 중견수), 권영무(權英武 포수), 이창운(李昌雲), 김중회(金忠會 이상 좌익수), 신광렬(申光烈 2루수)</p> <p>▲13차전(8월 26일 서울)=재일교포 1-3 서울선발 ▲14차전(8월 28일 서울)=재일교포 0-3 서울선발 ▲15차전(8월 29일 인천)=재일교포 4-2 인천고 △인천고=감독 고철호(高哲鎬) 및 김영철(유격수), 송창근(포수), 고인환(3루수), 정신식(1루수), 윤태규(좌익수), 이광남(투수), 김근식(金根植 우익수), 이인재(李仁宰 2루수), 한영천(韓永川 중견수)</p> <p>▲16차전(8월 31일 원주)=재일교포 9-0 원주선발</p>	 <p>재일교포학생들이 육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전시된 군장비들을 둘러보고 있다.</p>
08.28	<p>■ 제9회 전국중학선수권대회 대한연식야구협회 주최, 경향신문사 후원으로 8월 28일부터 전국 각 시도에서 12개 중학 팀(동대문, 대구, 대동, 동인천, 선린, 대신, 청량, 부산, 원주, 배문, 인천남, 춘천중)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9월 4일 용산 육군구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동대문중이 13회 연장전 끝에 배문중을 1-0으로 제치고 우승 ▲준결승전=배문중 5-0 청량중, 동대문중 3-2 대신중 ▲결승전=동대문중 1-0 배문중 ◇개인상 ▲우수상=구영곤(具永坤 동대문중 투수) ▲타격상=김건호(金健浩 부산중 .375) ▲감투상=박해원(배문중 투수) ▲미기상=조동묵(趙東默 선린중) ▲감독상=이정구(李定九 대신중 감독)</p>	
09.01	<p>■ 한·미 올스타전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9월 1일부터 실업선발과 미군선</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발 팀이 서울운동장에서 올스타전을 개최, 9월 3일 벌어진 2차전에서 실업선발이 미국선발을 5-1로 꺾어 1승1패로 무승부 ▲1차전=미군선발 11-5 실업선발 ▲2차전=실업선발 5-1 미군선발 ◇실업선발(농협, 기은, 교통, 미창) ▲단장=박동규(朴東奎) ▲부단장=김일배 ▲감독=김영조 △코치=강대중 ▲투수=김청옥, 백수웅, 서동준, 유백만, 박인환, 김성근, 최관수 ▲포수=정병섭, 허호준, 이광근 ▲내야수=김정환, 김응룡, 오춘삼, 성기영, 김희련, 남갑균, 이재환, 김진영 ▲외야수=박현식, 배수찬, 정두영, 김용구, 윤경호</p>	 <p>미군선발과 실업선발이 맞붙은 한-미올스타전이 1승1패로 무승부로 끝난 뒤 기념을 찍었다.</p>
09.04	<p>■제16회 전국지구별 초청고교쟁패전 대한야구협회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9월 4일부터 전년도 우승 팀 성동고를 비롯해 경기공, 중앙, 경동, 인천, 동산, 사레지오, 경남, 부산, 대구상, 세광, 대전공, 춘천농고 등 13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토너먼트로 개최, 9월 10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경기공고가 2-1로 중앙고를 누르고 우승, 동아일보사가 새로 만든 황금사자기와 순은제 대형 컵을 첫 수상 ▲준결승전=경기공고 11-1 성동고, 중앙고 6-2 경동고 ▲결승전=경기공고 2-1 중앙고 ◇개인상 ▲우수상=김태령(경기공고 투수) ▲미기상=신종문(중앙고 2루수) ▲타격상=남경석(경기공고 3루수 .500) △경기공고=감독 백효득 및 남경석(3루수), 김정식(金正植 2루수), 박건식(朴建植 좌익수), 김태령(투수), 정종운(유격수), 김개일(포수), 황병서(1루수), 최정길(崔正吉), 방동환(方東煥), 한동수(이상 우익수), 이영(중견수), 김호일(金虎逸), 황석중(黃錫重), 이수웅, 황갑순(黃甲淳), 최병만(崔炳晩), 김영일(金英一), 김종환(金鍾煥 이상 후보) △중앙고=감독 이조영 및 최중수(3루수), 이무천(1루수), 하갑득(유격수), 최순원(포수), 김옥수(투수), 정구영(鄭求榮 우익수), 신종문, 조윤식(이상 2루수), 조윤향(曹潤鄕 좌익수), 김은하, 한명식(韓明植), 최호립(崔浩立 이상 중견수)</p>	  <p>동아일보사가 제16회 대회를 앞두고 새로 만든 순은제 우승컵(위)과 황금 실로 수놓은 황금사자기</p>
09.13	<p>■오사카(大阪) 선발초청 한·일친선고교대회 대한야구협회 초청, 경향신문사 후원으로 해방 후 최초로 일본고교야구단(일행 23명)이 사이키(佐伯 達夫 일본고교연맹 부회장) 단장 인솔로 9월 13일 오전 10시 30분 CAT기 편으로 김포공항을 통해 내한,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서울을 비롯해 인천, 부산, 대전, 광주에서 국내 고교 팀과 14차전을 치른 끝에 11승3패를 기록 ▲1차전(9월 13일 서울)=오사카선발 4-0 성남고 △성남고=감독 박선오 및 황선오(黃善五 좌익수), 김윤겸(金允謙 1루수), 오갑수(吳甲洙 중견수), 최완근(崔完根 포수), 황진열(黃鎭說 3루수), 김재선(金在善 유격수), 주창균(朱昶均 2루수), 조성일(趙成一 우익수)</p>	 <p>일본 오사카선발초청 한·일친선고교대회를 앞두고 서울운동장 야구장 정문에 걸려있는 대회 현수막</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수), 이철구(李喆九 투수) ▲2차전(9월 13일 서울)=오사카선발 4-5 중양고 △중양고=감독 김문량(金文亮) 및 최순원(포수), 신종문(2루수), 조윤향(좌익수), 김은하(중견수) 조윤식(우익수), 최종수(3루수), 이무천(1루수), 하갑득(유격수), 김옥수(투수) ▲3차전(9월 14일 서울)=오사카선발 9-0 선린상고 △선린상고=감독 박종해 및 김충(3루수), 이성길(우익수), 유문식(유격수), 배성서(포수), 변무길(1루수), 김길복, 이광희(이상 투수), 천경수, 김석진(金石鎭 이상 중견수), 한동화(2루수), 박동수(朴東洙 투수) ▲4차전(9월 15일 서울)=오사카선발 4-7 경동고 ▲5차전(9월 16일 서울)=오사카선발 10-0 휘문고(7회 콜드 게임 패) ▲6차전(9월 16일 서울)=오사카선발 1-2 경기공고 ▲7차전(9월 18일 인천)=오사카선발 5-0 인천선발 ▲8차전(9월 22일 부산)=오사카선발 2-0 부산고 ▲9차전(9월 24일 부산)=오사카선발 8-0 부산선발 ▲10차전(9월 24일 부산)=오사카선발 3-0 부산선발 ▲11차전(9월 25일 대전)=오사카선발 2-0 충남 북선발 ▲12차전(9월 26일 광주)=오사카선발 10-0 광주선발 ▲13차전(9월 29일 서울)=오사카선발 7-3 서울고교선발 ▲14차전(9월 30일 서울)=오사카선발 4-1 서울고교선발</p>	 <p>한·일고교대회를 앞두고 서울운동장에 정렬해 있는 양 팀 선수들. 오른쪽이 오사카 지역 고교선발 팀</p>  <p>대한야구협회 선우인서 회장이 정렬해 있는 오사카선발 고교선수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며 격려하고 있다.</p>
10.01	<p>■ 제17회 전국대학선수권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10월 1일부터 성균관, 경희, 한양, 동아, 연세, 고려대 등 6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3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성균관대가 동아대를 3-0으로 꺾고 우승 ▲준결승전=동아대 4-3 연세대, 성균관대 6-5 한양대 ▲결승전=성균관대 3-0 동아대 ◇개인상 ▲우수선수상=한을룡(성균관대 투수) ▲미기상=차덕선(성균관대 좌익수) ▲타격상=박영길(동아대 1루수 .578) ▲홈런상=민산기(성균관대 1루수)</p>	
10.04	<p>■ 제1회 최고회의의장패쟁탈 3군대항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10월 4일부터 2일간 중앙정보부를 비롯해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5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공군이 해군을 8-7로 꺾고 우승 ▲최하위 결정전=육군 10-6 중앙정보부 ▲3, 4위 결정전=해병대 5-4 육군(연장 10회) ▲결승전=공군 8-7 해군(7회 일몰)</p>	
10.06	<p>■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추계연맹전 조선일보사 한국실업야구연맹 공동 주최로 10월 6일부터 미곡창고, 농협, 기업은행, 교통부, 인천시청, 국방부 등 6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1차리그(10월 6~13일)와 2차리그(10월 15~22일)로 나누어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22일 농협이 8승2패로 우승한 가운데 폐막</p>	<p>조선일보사가 추계실업야구연맹전을 앞두고 발행한 대회 팸플릿</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종합 순위=①농협(8승2패) ②미곡창고(7승3패) ③ 기업은행(6승4패) ④교통, 국방부(이상 4승6패) ⑥인천시청(1승9패)</p> <p>◇개인상 ▲우수상=백수웅(농협 투수) ▲타격상=김창락(미창 유격수 .434) ▲감투상=유백만(미창 투수) ▲본루타상=박현식(농협 좌익수) ▲감독상=김영조(농협)</p>	<p>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p> 
10.10	<p>■서울시중학추계리그 대한연식야구협회 주최로 10월 10일부터 서울시내 13개 중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성남중 운동장에서 개최, 11월 14일 고계중-성동중 경기를 끝으로 배문중이 12전 전승으로 우승한 가운데 폐막</p> <p>◇종합 순위=①배문중(12승) ②동대문중(10승1무1패) ③3위 선린중(9승3패) ④광희중(7승2무3패) ⑤대광중(6승3무3패)</p> <p>◇개인상 ▲우수상=박해원(배명 투수) ▲감투상=김동원(金東源 동대문 투수) ▲타격상=하일성(河日成 대광중 3루수 .405) ▲미기상=강진수(姜鎭洙 성남중 유격수)</p>	<p>서울시중학추계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한 배문중 선수들. 배문중은 62년 34전 31승 3패를 기록하는 막강한 실력을 과시했다.</p> <p>■10.16 양키스 월드시리즈 20번 제패 1962년 아메리칸리그를 3연패한 뉴욕 양키스가 월드시리즈에서 내셔널리그 챔피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4승3패로 제치고 우승, 최근 40년 사이 20번째 우승에 성공</p>
10.15	<p>■서울시고교 추계리그 서울시고교야구연맹 주최로 10월 25일부터 A, B조로 나누어 패자식 토너먼트로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A조에 중앙, 경기공, 성동, 배문 등 5개 팀이, B조에는 올해 처음으로 출전하는 동도공고를 비롯해 7개 팀이 출전, 10월 31일 열린 A, B조 결승전에서 배문고와 경기고가 각각 우승</p> <p>▲A조 결승전=배문고 6-2 중앙고</p> <p>◇개인상 ▲우수상=김인식(배문고 투수) ▲타격상=김충남(경동고 좌익수 .444) ▲최다량안타상=조병렬(趙炳烈 경동고 중견수) ▲감투상=최순원(崔舜元 중앙고 투수)</p> <p>▲B조 결승전=경기고 6-3 성남고</p> <p>◇개인상 ▲우수상=변재혁(邊在赫 경기고 투수) ▲타격상=함응렬(咸應烈 청량중고 좌익수 .409) ▲최다량안타상=함응렬 ▲감투상=박동식(朴東植 청량중고 투수) ▲유희창(성남고 포수)</p>	<p>■뉴욕 메츠, 시즌 최다 120패 1960년 뉴욕주를 연고지로 창단한 뉴욕 메츠가 첫 참가한 페넌트 레이스에서 120패를 당해 메이저리그 시즌 최다 패전을 기록</p> <p>■메이저리그 사상 104 도루 LA 다저스의 모리 월스가 메이저리그 사상 시즌 최다 도루인 104개를 기록, 1915년 타이 콥이 세운 96도루를 깨고 신기록 수립</p> 
10.24	<p>■제43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대한체육회 주최로 10월 24일 서울운동장을 비롯해 16개 경기장에서 일제히 개막, 10월 28일 끝난 일반부 결승전에서 서울(교통부)이 인천(인천시청)을 2-1로 제치고 우승, 10월 29일 열린 고등부및 중등부에서는 경북(대구상고)과 서울(배문중)이 각각 우승</p> <p>▲고등부 준결승전=부산고(경남) 8-5 선린상고(서울), 사레지오고(전남) 2-8 대구상고(경북) ▲동 결승전=대구상고(경북) 7-1 부산고(경남)</p> <p>▲대학부 1회전=전남대(전남) 2-11 동아대(경남), 경북대(경북) 0-11 성균관대(서울) ▲동 결승전=동아대(경남) 5-3 성균관대(서울)</p>	<p>창단 첫 해 전국체육대회 일반부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인천시청 선수들.</p>  <p>경기에 앞서 타이거스 팀과 서울선발 팀 선수들이 기념 촬영.</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일반부 준결승전=경남(경남) 1-2 교통부(서울), 인천시청(경기) 4-2 제2훈련소(충남) ▲ 동 결승전=교통부(서울) 2-1 인천시청(인천)</p> <p>▲중등부 연식 결승전=배문중(서울) 1-0 동인천중(경기 연장 10회)</p> <p>▲일반부 연식 결승전=재일교포 4-0 한국전력(경북)</p>	
10.24	<p>■디트로이트 타이거스 초청 한·미친선대회 대한야구협회 초청으로 일본에서 원정 경기를 마치고 귀국 길에 오른 미국 프로야구 디트로이트 타이거스가 10월 24일 상오 11시 50분 NWA 편으로 내한, 2시 45분부터 새로 확장한 서울운동장 야구장에서 2만 5천여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전서울군과의 친선경기에서 타이거스가 8-0으로 승리</p> <p>◇전서울군 ▲감독=김일배 ▲코치=김영조 ▲투수=김성근, 최관수(이상 기은), 김청옥, 백수웅(이상 농협) 유백만(미창) ▲포수=박현식(농협), 허호준(기은) ▲1루수=김응룡(미창) 김정환(농협) ▲2루수=성기영(미창), 오춘삼(기은) ▲3루수=양철학(미창) ▲유격수=이재환(농협), 박하성(기은) ▲좌익수=진원주(미창) ▲중견수=김삼용(미창), 김영빈(육군) ▲우익수=배수찬(기은)</p>	<p>스탠드를 가득 메운 관중들 앞에서 서울선발 팀은 0-8로 패해 월등한 실력 차를 실감나게 했다.</p>  <p>한·일친선경기에 앞서 도에이(東映)의 미즈하라(水原) 감독과 전서울군의 김일배(金日培) 감독이 페넌트를 교환하고 있다.</p>
11.02	<p>■제8회 NBC배쟁탈 전국선수권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11월 2일부터 농협, 교통부, 기업은행, 한국미창, 인천시청, 재일교포, 성균관대, 한양대 등 8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결승전에서 농협이 교통부를 6-0으로 꺾고 우승</p> <p>▲준결승전=농협 2-1 기업은행, 교통부 5-1 한국미창 ▲결승전=농협 6-0 교통부</p> <p>◇개인상 ▲우수선수상=김청옥(농협 투수) ▲타격상=김삼용(한국미창 .500) ▲홈런상=이재환(농협) 박현식(농협) ▲감독상=김영조(농협 감독) ▲대표자상=이정환(농협)</p>	 <p>도에이-전서울 선수들이 경기에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p>
11.10	<p>■일본 프로야구초청 한·일친선대회 대한야구협회 초청으로 63년도 일본 프로야구 챔피언 도에이(東映) 플라이어스와 고쿠데스(國鐵) 스왈로스가 11월 9일 내한, 11월 10일 낮 12시 1만여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된 첫 경기에서 전서울이 도에이에 1-5로 패배, 11월 11일 열린 경기에서도 고쿠데스에 0-4로 패해 2연패</p> <p>▲1차전(11월 10일)=도에이 5-1 전서울, 도에이 9-0 고쿠데스 ▲2차전(11월 11일)=고쿠데스 4-0 전서울, 도에이 9-1 고쿠데스</p>	 <p>경희대-동아대 경기. 동아대 2회말 1사후 주자 3루에서 3번 임무호의 좌전 적시타로 3루 주자 최정상이 홈인하는 순간.</p>
11.15	<p>■전국대학 추계연맹전 전국대학야구연맹 주최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11월 15일부터 경북, 경희, 고려, 동아, 성균관, 연세, 한양대 등 7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1월 19일 벌어진 마지막 경기에서 동아대가 한양대</p>	<p>■11.10 드라이브 데일 사이영상 수상 LA 다저스 투수 돈 드라이브데일이 내셔널리그 최다승인 25승(9패1세이브, 방어율 2.84)을 기록, 1962년도 사이영상 획득</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와 2-2로 비겨 3승2무로 우승 ◇종합 순위=①동아대(3승2무) ②한양대, 성균관대(이상 3승1무1패) ④경희대(2승3패) ⑤고려대, 연세대(이상 1승4패) ◇개인상 ▲우수상=이용규(동아대 투수) ▲감투상=이박(성균관대 투수) ▲미기상=이창남(한양대 중견수) ▲타격상=조지연(趙之衍 경희대 1루수 .400) ▲응원상=고려대 ▲응원 특별상=한양대 △동아대=감독 안영필 및 최정상(3루수), 박종환(좌익수), 박민규(중견수), 박영길(1루수), 임무호(林茂好 포수), 장유복(유격수), 장세중, 문정부(文正夫 이상 우익수), 강기영(2루수), 이용규, 박태일(이상 투수)</p>	 <p>일본 원정경기를 끝낸 서울시고교선발 선수들이 나고야(名古屋)에 있는 주니치 드래곤스의 전용 구장을 찾았다.</p>
11.17	<p>■ 서울시고교선발 일본원정경기 일본고교야구연맹 초청으로 11월 7일 대한체육회 회의실에서 서울시 고교선발야구단(일행 22명) 결단식을 갖고 11월 10일 CAT 편으로 향일, 11월 17일부터 29일까지 기후(岐阜), 교토(京都), 오사카(大阪), 오카야마(岡山), 다카마쓰(高松), 시모노세키(下關) 등지에서 친선경기를 가진 끝에 5승1무4패의 전적을 안고 12월 3일 배편으로 부산항을 통해 귀국 ▲1차전=서울선발 5-8 기후상고 ▲2차전=서울선발 2-1 헤이안(平安)고 ▲3차전=서울선발 2-3 PL학원 ▲4차전=서울선발 3-1 히메지(姫路)선발 ▲5차전=서울선발 4-3 오카야마(岡山)선발 ▲6차전=서울선발 3-4 가가와(香川)선발 ▲7차전=서울선발 0-0 마쓰야마(松山)상고 ▲8차전=서울선발 7-0 우베(宇部)선발 ▲9차전=서울선발 1-4 시모노세키(下關)상고 ▲10차전=서울선발 6-2 시모노세키선발 ◇서울시고교선발 ▲단장=이신득(李辛得) ▲총무=박점도(朴點道) ▲감독=박상규 ▲코치=윤재준(尹在浚) ▲투수=김옥수(金玉洙 중앙고), 김태령(경기공고), 김설권(경동고) ▲포수=배성서(선린상고), 조정일(趙正一 성동고) ▲1루수=이영기(李英基 경동고) ▲2루수=김영민(경동고), 하갑득(중앙고) ▲3루수=남경석(南景錫 경기공고), 김충(선린상고) ▲유격수=유문식(柳文植 선린상고), 이익수(李義洙 휘문고), 정종운(鄭鍾云 경기공고) ▲외야수=김충남(경동고), 김병우(휘문고), 천경수(선린상고), 고정안(高貞安 경동고), 이성길(선린상고)</p>	<p>■ 11.20 맨틀 아메리칸리그 MVP 미국 야구기자단이 뉴욕 양키스의 타격왕 미키 맨틀을 아메리칸리그 최우수선수(MVP)로 선정</p> <p>■ 11.23 최우수선수에 도루왕 윌스 LA 다저스 유격수로 104개의 도루를 기록한 모리 윌스가 미국기자단 투표에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타격왕 윌리 메이스를 209대 202표로 물리치고 62년도 최우수선수(MVP)에 선정</p>
12.10	<p>■ 대한야구협회 전국대의원대회 대한체육회 회의실에서 제17회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63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제5회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9월 21~29일) 개최를 확정하고 임원을 개선했다 △회장=선우인서 △부회장=김수환 △전무이사=노정호 △상무이사=허곤(총무), 윤재준(경기), 모무열(섭외), 박점도(지도) △이사=오윤환, 김영조, 김기훈, 박호규(朴豪圭), 이팔관, 허종만, 박현식, 장태영 △감사=원창, 이기역</p>	<p>■ 12.10 대한체육회 회장에 김용우 대한체육회 임원개편심임위원회가 전 국방장관인 김용우(金用雨)를 회장으로 추대하고 군인출신을 중심으로 한 17명의 이사를 선임 ▲회장=김용우 ▲부회장=이효(李曉) ▲이사=유창근(柳昌根) 외 16명</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12.10	<p>■ 제5회 이영민 타격상 정찬성(鄭燦聖) 수상 대한야구협회가 제5회 이영민 타격상 수상자로 62년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제신보 주최 3개 고교대회에서 타율 .325를 기록한 광주 사레지오고 3루수 정찬성을 선정</p>	
12.26	<p>■ 한국전력 야구단 결단식 한국전력이 12월 26일 오후 3시 부산 경남지점 강당에서 야구단 결단식을 갖고 정식으로 출범 ▲부장=이재인(李載仁 한전 상무) ▲감독=김계현 ▲코치=어우홍 ▲투수=한을룡(성균관대), 정연희(경남고) 이기원(李琪源 경남상고), 김준렬(동아대 중퇴) ▲포수=이배근(동아대 중퇴), 이박(성균관대) ▲내야수=최정상(동아대 중퇴), 박인규(성균관대) 한성수, 윤명수 전창웅(全昌雄 이상 경남고)</p>	
12.27	<p>■ 한일은행 야구단 창설 한일은행이 12월 27일 하오 3시 본점 강당에서 야구단 결단식을 갖고 정식 출범 ▲단장=김종락(金鍾珞) ▲감독=박상규 ▲주무=최은남(崔殷南) ▲투수=서동준 고순선, 최실, 김길복 ▲포수=배성서, 조정일 ▲내야수=김광웅, 김휘만, 김영호 유문식, 김건 ▲외야수=이창남, 천경수, 길무웅, 정효식, 정태현</p>	
12.27	<p>■ 상업은행 야구단 창단 상업은행이 12월 7일 장태영을 야구단 창단 감독으로 영입한 뒤 12월 27일 하오 3시 종로지점 강당에서 창단식을 갖고 정식 출범 ▲부장=서석호(徐錫浩) ▲감독=장태영 ▲투수=김설권, 김태령, 김소식 ▲포수=장정부(張政夫), 박명렬, 김재일 ▲내야수=황종태, 하일, 조성주(曹成周), 이희수(李熙秀), 최병수(崔炳洙) ▲외야수=조원일, 최영무, 김영민, 김명현</p>	
1963. 02.06	<p>■ 제일은행 야구부 결단 제일은행이 2월 6일 하오 5시 본점 강당에서 야구부 결단식을 갖고 정식 출범 ▲감독=박현식(朴賢植) ▲선수=진원주(陳元柱 주장 겸 외야수), 주세현(朱世鉉 주무 투수), 정조양(鄭朝陽 투수), 임무호(林茂好), 최순원(崔舜元 이상 포수), 정신식(鄭信植) 강태정(姜泰貞) 최주선(崔周善), 김영철(金永喆), 김창홍(金昌弘 이상 내야수), 조윤익(曹潤益), 천성민(千聖民), 은성식(殷成植), 윤태규(尹泰圭 이상 외야수)</p>	<p>■ 02.01 국내 최대 장충실내체육관 개관 1960년 공사비 9천2백만원을 들여 착공한 국내 최대 규모(대지 4,250평, 건평 1,200평, 수용 인원 8,000명)의 실내 경기장인 장충체육관을 개관</p>
02.25	<p>■ 대한연식야구협회 대의원 총회 대한연식야구협회가 2월 25일 대한체육회 강당에서 대의원 총회를 열고 회장에 김세영(金洗榮)을 유임시킨 뒤 부회장 이경구(李鯨九 유), 전무이사 신창근(유)</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및 이사로 이희경(유), 이삼봉(신), 박재영(朴在榮 신) 유재봉(俞在鳳), 안강희, 김두안(유), 홍병창(洪丙昌 유) 묵운정(墨雲晶 신), 김형태(金亨泰 신), 이학관(李學寬 신), 박성근(朴成根 신), 감사로 이응준(李應準 유), 김종해(金宗海 신)를 선임</p>	
03.23	<p>■ 대한해운공사 야구부 창설 3월 23일 대한해운공사가 서울운동장에서 야구부 결단식을 갖고 정식 출범 ▲대표=임광섭(任光燮) ▲부장=박승완(朴勝玩) ▲총무=한동욱(韓東昱) ▲감독=김일배 ▲조감독=김정환 ▲선수=박태일, 박용민, 양승덕(이상 투수) 정병섭, 이광근(이상 포수), 성기영, 박진원, 김경서, 배동원, 김창락, 최향렬(崔香烈 이상 내야수), 오영학(吳永學), 정운철(鄭雲哲), 김삼용, 노재형(盧在炯 이상 외야수)</p>	 <p>3월 23일 서울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린 해운공사야구단 결단식에 참석한 선수들</p>
04.01	<p>■ 서울시고교 춘계리그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4월 1일 서울시 고교 1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A, B조로 나누어 개최, 4월 28일 벌어진 최종일 경기에서 A조 선린상고와 경동고가 4승1무1패로 동률, 4월 30일 중앙고 운동장에서 열린 최종 결승전에서 선린상고가 경동고를 3-0으로 꺾고 5승1무1패로 우승 ◇A조 종합 순위=①선린상고(5승1무1패) ②경동고(4승1무2패) ③경기고, 경기공고(4승2패) ◇B조 종합 순위=①휘문고(7승) ②성남고(5승2패) ③청량중고(4승3패) ◇개인상 ▲우수상=A조 박동수(선린상 투수), B조 김병우(휘문고 투수) ▲감투상=A조 이영선(경동고 투수), B조 강석균(姜錫均 성남고 투수) ▲타격상=A조 박동수(선린상 .476), B조 남준집(南俊集 휘문고 .392) ▲최다량 안타상=A조 박동수(21타수 10안타), B조 김병우(휘문고 26타수 10안타)</p>	
04.05	<p>■ 서울시중학 춘계리그 대한연식야구협회 주최로 4월 5일부터 서울시 중학 12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선린중 운동장에서 개최, 5월 3일 용산 육군구장에서 벌어진 A, B조 결승 1차전에서 A조 배문중이 B조 동대문중을 6-0으로 격파하고 승리한 뒤 결승 3차전(5월 6일)에서도 3-0으로 물리치고 2승1패를 기록, 종합 전적 10승1패로 우승 ◇개인상 ▲우수상=김문규(金文奎 배문중 투수) ▲감투상=백길순(白吉淳 동대문중 투수) ▲타격상=장석준(張錫俊 송인중 우익수) ▲미기상=김중명(선린중 3루수)</p>	
04.19	<p>■ 전국대학연맹전 춘계리그 전국대학야구연맹 주최,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4월 19일부터 경북대, 경희대, 동아대, 부산대, 성균관대, 연세대, 육사, 한양대 등 8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4월 24일 벌어진 최종일 경기에서 동</p>	<p>6월 24일 열린 최종일 성균관대-동아대 경기에서 동아대가 5회말 1사후 주자 2, 3루에서 1번 최박지의 중견수 옆으로 빠지는 2루타로 김룡(앞)과 지경호가 홈인, 대세를 결정지었다.</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아대가 성균관대를 3-1로 꺾고 5승1패로 우승 ◇종합 순위=①동아대(6승1패) ②연세대(5승1무1패) ③경희대(5승2패) ④경북대(4승3패) ⑤한양대(3승4패) ⑥성균관대(2승1무4패) ⑦부산대(2승5패) ⑧육사(7패) ◇개인상 ▲우수상=이용규(동아대 투수) ▲타격상 =①김중량(金鍾亮 성균관대 .500) ②이영기(연세대 .435) ③김중영(경북대 .409) ▲미기상=박청광(朴淸 光 연세대 유격수) ▲감투상=심말룡(沈末龍 경북대 투수) ▲응원상=한양대 응원단 △동아대=감독 안영필 및 최박지(우익수), 문정부(좌익 수), 장세종(중견수), 김룡(유격수), 이용규(투수), 지경 호(3루수), 우달웅(포수), 송태원(1루수), 주민리(2루수)</p>	
04.28	<p>■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준계연맹전 대한야구협회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4월 28일부터 13개 팀(대한통운, 국방부, 제일은행, 한국전력, 인천 시청, 기업은행, 농협, 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조흥은행, 서울시청, 교통부, 체신부)이 출전한 가운데 용산 육군구장과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6일 기업 은행이 8승2무2패로 우승한 가운데 폐막 ◇종합 전적=①기업은행(8승2무2패) ②상업은행(7승 3무2패) ③제일은행, 교통부(이상 7승1무4패) ⑤한국 전력(7승5패) ⑥국방부(6승2무4패) ⑦대한통운, 한일 은행(이상 6승1무5패) ⑨조흥은행(6승6패) ⑩농협(4 승2무6패) ⑪서울시청(2승3무7패) ⑫인천시청(1승4 무7패) ⑬체신부(1승11패)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최관수(기은 투수) ▲감투 상=유백만(상은 투수) ▲타격상=①김응룡(국방 1루 수) ②김수갑(통운 투수) ③김영빈(상은 중견수) ▲홈 런상=김점생(기은 1루수), 김임렬(농협 좌익수), 박현 식(제일은 3루수), 진원주(제일은 중견수) ▲감독상= 김양중(기은 감독)</p>	 <p>준계연맹전 9일째 조흥은행-한일은행전 7 회초 1사 만루에서 조흥은행 핀치 히터 이 기혁이 1루수 앞 땅볼에 3루 주자 박영준 이 홈으로 뛰어들었으나 터치 아웃.</p>
05.03	<p>■ 제3회 문교부장관기쟁탈 전국4도시선발고교대회 경북야구협회 매일신문사 공동 주최로 5월 3일부터 경기공, 선린상, 동산, 동인천, 부산, 부산공, 대구, 대 구상고 등 4개 도시에서 8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대 구공설운동장에서 토너먼트로 개최, 5월 6일 열린 결 승전에서 대구상고가 선린상고를 3-1로 제치고 우승 ▲준결승전=대구상고 1-0 부산고, 선린상고 2-0 동 인천고 ▲결승전=대구상고 3-1 선린상고 ◇개인상 ▲우수선수상=유영수(대구상고 투수) ▲감 투상=변무길(선린상고 1루수) ▲미기상=정동진(대구 상고 포수) ▲타격상=박동수(선린상고 투수 .550)</p>	
05.11	<p>■ 일본 사회인 팀 도요(東洋)레이온초청경기 대한야구협회 초청으로 5월 10일 도에이 레이온야구 단(일행 21명)이 김포공항을 통해 내한, 5월 11일부 터 7차례에 걸쳐 대학선발 및 실업 팀들과 친선경기 를 개최, 5월 19일 열린 고별전에서 서울선발을 5-1</p>	 <p>한일야구 도요 레이온-실업선발 경기에서 7회초 다카하시(高橋)가 2루 도루에 성공 하는 순간</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로 꺾고 6승1무1패를 기록 ▲1차전(5월 11일 서울)=도요 레이온 8-0 기업은행 ▲2차전(5월 12일 서울)=도요 레이온 11-1 대학선발 ▲3차전(5월 12일 서울)=도요 레이온 12-0 실업선발 ▲4차전(5월 15일 서울)=도요 레이온 0-0 농협 ▲5차전(5월 16일 서울)=도요 레이온 6-0 금융선발 ▲6차전(5월 17일 서울)=도요 레이온 1-4 육군 ▲7차전(5월 19일 서울)=도요 레이온 4-1 서울선발(1차전) ▲8차전(5월 19일 서울)=도요 레이온 5-1 서울선발(2차전)</p>	
05.15	<p>■ 제6회 전국4도시초청고교대회 부산일보사가 5.16군사 쿠데타(61년)와 회사 사정(62년)으로 중단했던 대회를 부산야구협회와 공동으로 주최, 5월 15일부터 전국 4개 도시에서 8개 고교 팀(인천, 동인천, 경기, 경동, 대구, 대구상, 부산, 부산공고)이 출전한 가운데 구덕운동장에서 개최, 6월 22일 3팀(경기, 부산, 부산공고)이 2승1패로 결승 토너먼트를 치른 끝에 최종 결승전에서 부산공고가 부산고를 2-0으로 제치고 우승 ▲준결승전=경동고 4-5 경기고, 부산고 1-0 부산공고 ▲결승전=경기고 0-1 부산고 ▲최종 결승전=부산공고 2-0 부산고 ◇개인상 ▲우수상=김명성(부산공고 투수) ▲타격상=이재우(부산공고 유격수 .400) ▲미기상=이재우(부산공고) ▲감투상=장순조(부산고 투수)</p>	
05.22	<p>■ 제6회 문교부장관배쟁탈 전국중학대회겸 일본원정선수선발대회 대한연식야구협회 주최로 5월 22일부터 전년도 우승팀 배문중을 비롯해 13개 중학 팀(대동, 성광, 김천, 경서, 중앙, 대구, 부산동, 선린, 경상, 대전, 동대문, 인천남중)이 출전한 가운데 김천중운동장에서 개최, 5월 28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배문중이 인천남중을 3-0으로 물리치고 대회 2연패 ▲준결승전=배문중 1-0 대구중, 인천남중 10-5 경상중 ▲결승전=배문중 3-0 인천남중</p>	 <p>경북 김천중 운동장에서 열린 제6회 문교부장관배쟁탈 중학대회 개최식 광경</p>
05.31	<p>■ 제18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서울시예선 대한야구협회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5월 31일부터 경기공, 동대문상, 서울, 성동, 중앙, 휘문, 배문, 선린상, 성남, 서울상, 배재, 경기, 청량중, 동도공, 경동고 등 서울시 고교 1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16일 하오 2시 벌어진 결승전에서 휘문고가 12회 연장전 끝에 경동고를 3-1로 제치고 우승 ▲준결승전=휘문고 7-4 성동고, 경동고 3-1 성남고 ▲결승전=휘문고 3-1 경동고 △휘문고=감독 임두호(任斗鎬) 및 이해승(李海昇 1루수), 임왕(任汪 2루수), 이영철(유격수), 김병우(투수), 남준집(중견수), 나중수(羅鍾秀 좌익수), 백완용(白玩鏞</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3루수), 이경식(李庚植 우익수), 조광호(趙光鎬 포수)	
06.05	<p>■ 제18회 청룡기쟁탈 전국고교선수권대회 대한야구협회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6월 5일부터 춘천농, 청주, 부산공, 휘문, 사레지오, 동인천, 대전, 군산, 경동, 부산, 대구상고 등 전국 고교대표 11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12일 벌어진 최종 결승전에서 부산공고가 부산고를 5-3으로 물리치고 대회 첫 우승</p> <p>▲승자 준결승전=부산공고 2-0 부산고, 휘문고 5-1 경동고 ▲패자 결승전=부산고 2-0 휘문고 ▲결승전=부산고 4-0 부산공고 ▲최종 결승전=부산공고 5-3 부산고 ◇개인상 ▲우수상=김명성(金明成 부산공고) ▲타격상=신윤섭(경동고 .500) ▲미기상=고문호(부산고) △부산공고=감독 어지홍 및 김정호(金貞昊 중견수), 이건식(李建植 좌익수), 이재우(유격수겸 투수), 황성록(黃性錄 3루수겸 유격수), 김명성(투수겸 우익수), 김정섭(金貞燮 대타겸 우익수), 하병훈(河炳勳 1루수), 손병창(孫炳昌 2루수), 손진철(孫眞哲 3루수겸 대주) 이기태(李基泰 포수), 이봉(李鳳 우익수)</p>	 <p>제18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부산공고-부산고의 승자 결승전. 부산공고가 1회초 2사후 3번 고문호(高文浩)의 러닝 홈런으로 홈인, 선취점을 올렸다.</p> 
06.13	<p>■ 제18회 전국대학선수권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 경향신문사 후원으로 6월 13일부터 연세, 경북, 경희, 동아, 성균관, 한양대 등 6개 대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19일 열린 최종 결승전에서 성균관대가 7-4로 연세대를 물리치고 우승</p> <p>▲패자 준결승전=동아대 4-3 경희대 ▲승자 결승전=성균관대 9-1 연세대 ▲패자 결승전=연세대 8-3 동아대 ▲최종 결승전=성균관대 7-4 연세대 ◇개인상 ▲우수선수상=김용길(金容吉 성균관대 투수) ▲미기상=김동엽(성균관대 우익수) ▲타격상=이영기(연세대 1루수 .571)</p>	<p>제18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에서 동향의 부산고를 5-3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한 부산공고 선수들</p> 
06.14	<p>■ 제3회 서울시고교연맹 창립기념대회 서울시고교야구연맹 주최로 6월 14일부터 서울시 고교 1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용산 육군구장에서 개최, 연기를 거듭한 끝에 8월 23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성남고가 경기고를 3-2로 누르고 우승</p> <p>▲패자 준결승전=경동고 3-0 배문고, 경기고 4-2 휘문고 ▲패자 결승전=경기고 3-2 선린상고 ▲최종 결승전=성남고 3-2 경기고 ◇개인상 ▲우수상=김윤겸(성남 투수) ▲감투상=변재혁(경기 투수) ▲타격상=최완근(성남 우익수 .450) ▲최다량 안타상=변재혁(경기 투수 14안타) ▲홈런상=서헌석(徐玄錫 경기 포수), 최완근(성남 우익수)</p>	<p>성균관대-한양대전 2회말 성균관대 3번 신동렬(辛東烈)이 홈인하고 있다.</p> 
06.25	<p>■ 제13회 백호기쟁탈 전국군·실업쟁패전 대한야구협회 경향신문사 공동 주최로 6월 25일부터 15개 실업 팀(농협, 대한통운, 기업은행, 교통부, 상업</p>	<p>전국군·실업쟁패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농협 팀 주장 김영복이 우승의 상징 백호기를 받아들고 있다.</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은행, 조흥은행, 한일은행, 제일은행, 한국전력, 해운공사, 서울시청, 체신부, 인천시청, 육군, 해군헌병감실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7월 2일 끝난 결승전에서 농협이 해운공사를 5-1로 격파하고 우승 ▲준결승전=해운공사 7-0 통운, 농협 11-7 육군 ▲결승전=해운공사 1-5 농협 ◇개인상 ▲우수상=백수웅(농협 투수) ▲타격상=민산기(閔山基 해헌감실 좌익수 .500) ▲미기상=김광택(대한통운 포수) ▲감독상=김영조(농협 감독)</p>	<p>■06.30 교포 가네다(金田正一) 신기록 일본 프로야구 고쿠데쓰(國鐵) 스왈로스의 투수인 재일교포 김정일이 히로시마(廣島) 카프전에서 311승을 올려 대망의 일본 신기록 수립</p>
07.03	<p>■미국독립일 기념 제7회 한-미친선대회 대한야구협회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7월 3일 한국 4개 팀, 주한미군 4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막, 7월 10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상업은행이 0-2로 요코다에게 패한 뒤 최종 결승전에서 요코다를 3-0으로 꺾어 대회 첫 우승 ▲승자 준결승전=기업은행 3-4 상업은행 ▲패자 결승전=기업은행 2-3 요코다 ▲결승전=상업은행 0-2 요코다 ▲최종 결승전=상업은행 3-0 요코다</p>	
07.14	<p>■제3차 재일교포성인야구단초청대회 대한야구협회가 7월 11일 재일교포성인야구단(일행 22명)을 초청, 7월 14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에서 16차전을 가진 끝에 재일교포 팀이 9승3무4패를 기록 ◇재일교포 ▲단장=김정주(金正柱 재일협회 부회장) ▲총무=양회진(梁會珍 동 이사) ▲섭외=이윤태(李潤台 동 이사) ▲감독=박상헌(朴相憲 동 이사) ▲투수=신용균(申鎔均 회사원), 심재길(沈載吉 아지아대), 강번웅(姜繁雄 킨키대), 강진화(康鎭和 야하타대) ▲포수=서정리(徐廷利 회사원), 국춘부(鞠春夫 회사원), 내야수=김고의(金高義), 신영성(愼永成 이상 회사원) 김정룡(金正龍 법정대), 최의광(崔義光 오사카상대) 안일남(安一男), 이승웅(李勝雄 이상 킨키대) ▲외야수=오의웅(吳義雄), 현성호(玄成昊 이상 회사원), 오정태(吳廷泰 아이치대), 변암부(卞岩夫 회사원), 김광기(金光紀 메이지대) ▲1차전(7월 14일 서울)=재일교포 3-4 대학선발 ▲2차전(7월 14일 서울)=재일교포 2-1 상업은행 ▲3차전(7월 15일 서울)=재일교포 2-0 해군헌병감실 ▲4차전(7월 18일 서울)=재일교포 7-1 제일은행 ▲5차전(7월 18일 서울)=재일교포 7-2 해운공사 ▲6차전(7월 19일 서울)=재일교포 3-5 교통부 ▲7차전(7월 20일 대전)=재일교포 2-2 농협 ▲8차전(7월 22일 서울)=재일교포 2-2 대한통운 ▲9차전(7월 22일 서울)=재일교포 1-1 기업은행 ▲10차전(7월 23일 인천)=재일교포 5-1 인천시청 ▲11차전(7월 24일 대전)=재일교포 2-3 육군 ▲12차전(7월 27일 부산)=재일교포 3-0 동아대 ▲13차전(7월 27일 부산)=재일교포 5-0 조흥은행 ▲14차전(7월 28일 부산)=재일교포 2-1 전</p>	<div data-bbox="970 987 1474 1335" data-label="Image"> </div> <p>7월 18일 제일은행과의 경기를 앞두고 양 팀 감독이 페넌트를 교환하고 있다.</p> <div data-bbox="970 1451 1474 1749" data-label="Image"> </div> <p>제일은행과의 경기에서 재일교포팀이 6회 초 대거 4점을 뽑아 승세를 굳혔다.</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부산 ▲15차전(7월 28일 부산)=재일교포 0-2 한국전력 ▲16차전(7월 30일 대구)=재일교포 6-1 한일은행	
07.17	■제10회 전국중학선수권대회 대한연식야구협회 주최로 7월 17일 전국 각 시 도에서 13개 중학 팀(대구, 청운, 마산동, 대동, 김천, 경북, 배문, 대신, 선린, 부산, 경상, 고계, 동대문중)이 출전한 가운데 대구종합운동장에서 개최, 7월 21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대구 경상중이 부산 대동중을 3-0으로 물리치고 우승 ▲준결승전=대동중 3-0 대구중, 경상중 1-0 배문중 ▲결승전=경상중 3-0 대동중(연장 11회) ◇개인상 ▲우수선수상=김기조(金基祚 경상중 투수) ▲타격상=김태문(金泰汶 대구중 500) ▲미기상=김현남(金鉉男 경상중) ▲감투상=이종범(李鐘範 대동중 투수)	 <p>제10회 중학선수권대회에서 경상중이 첫 경기에서 고계중을 8-2로 크게 이겼다.</p>
07.30	■제15회 쌍룡기쟁탈 전국고교대회 경남야구협회 국제신문사 공동 주최로 7월 30일부터 전국에서 18개 고교 팀(경기, 대구, 휘문, 대전, 성동, 동산, 경남상, 춘천농, 부산, 경남, 인천, 부산상, 선린상, 대구상, 마산상, 세광, 부산공, 사레지오고)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 8월 6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부산고가 대구상고를 2-0으로 물리치고 우승 ▲준결승전=부산고 4-3 경기고, 부산상고-성동고 ▲결승전=부산고 2-0 부산상고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장순조(張淳祚 부산고) ▲감투상=유영수(대구상고) ▲타격상=①한동화(선린상고) ②추민엽(秋玟燁 대구상고) ▲미기상=박재영(대구상고) △부산고=감독 김계훈 및 이철화(3루수), 고문호(중견수), 홍수일(유격수), 박성호(좌익수), 장순조(투수), 이재원(李在源 2루수), 김영대(金永大 포수), 이강남(李康男 우익수)	
08.08	■제8회 재일교포학생야구단 모국방문환영대회 대한야구협회 한국일보사 초청으로 재일교포학생야구단이 8월 8일 오전 10시 10분 CAT편으로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 8월 9일부터 서울, 인천, 대구, 청주, 대구, 부산 등지를 돌며 17차전을 가진 끝에 13승3무1패를 기록 ◇재일교포야구단 ▲단장=권영섭(재일협회 회장) ▲부단장=최재유(崔在裕 재일협회 참여) ▲총무=최문도(재일협회 이사) ▲섭외=최학고(崔學畬 재일협회 이사) ▲감독=곽병득(재일협회 이사) ▲코치=김광남(재일협회 회원) ▲투수=최대식(崔大植 초후調布고), 이종호(李鍾浩 고쿠라小倉공고), 한광홍(韓光弘 오노미치尾道상고), 김영이(金榮二 주쿄中京상고), 이수한(李壽漢 게이오京王상고) ▲포수=홍해준(洪海俊 오카자키岡崎상고), 황호연(黃好淵 세라世羅고) ▲내야수=장재철(張在喆 아오야마青山학원), 유소현(柳昭鉉	 <p>제8회 재일교포학생야구단 모국방문 환영대회 팸플릿 표지</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후지모리(富士森고), 이민남(李敏男 호리카와堀川고), 최화림(崔花林 스자크朱雀고), 김형현(金亨鉉 히토츠바시一橋고), 이명부(李明夫 고세御所공고), 김승(金昇 나니와浪華고), 김성철(金性철 하야모토早鞆고)</p> <p>▲1차전(8월 9일 서울)=재일교포 0-0 휘문고 ▲2차전(8월 10일 서울)=재일교포 2-2 선린상고 ▲3차전(8월 11일 서울)=재일교포 11-4 배문고 ▲4차전(8월 11일 서울)=재일교포 3-0 경동고 ▲5차전(8월 13일 서울)=재일교포 8-0 중앙고 ▲6차전(8월 13일 서울)=재일교포 3-2 성남고 ▲7차전(8월 15일 서울)=재일교포 10-0 경기공고 ▲8차전(8월 15일 서울)=재일교포 3-4 경기고 ▲9차전(8월 18일 서울)=재일교포 3-0 서울선발 ▲10차전(8월 18일 서울)=재일교포 0-0 서울선발 ▲11차전(8월 20일 대전)=재일교포 12-1 대전선발 ▲12차전(8월 21일 청주)=재일교포 4-1 청주선발 ▲13차전(8월 23일 대구)=재일교포 1-0 대구상고 ▲14차전(8월 24일 부산)=재일교포 3-1 부산고 ▲15차전(8월 25일 부산)=재일교포 2-0 부산공고 ▲16차전(8월 25일 부산)=재일교포 5-1 경남고 ▲17차전(8월 27일 인천)=재일교포 4-1 인천선발</p>	 <p>성남고-재일교포전 1회말 2사에서 1루 주자 재일교포 마용석이 2루 도루에 성공하는 순간</p>
08.09	<p>■8.15경축 기념 서울시중학리고 대한연식야구협회 주최로 8월 9일부터 서울시 14개 중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성남중 운동장에서 A, B조로 나누어 개최, 8월 20일 벌어진 A조 최종일 경기에서 동대문중이 배문중을 1-0으로 꺾고 6승2패로 공동 우승</p> <p>◇A조 종합 순위=①배문중, 동대문중(이상 6승2패) ③중앙중(3승1무4패) ④고계중(3승5패) ⑤보성중(1승1무6패)</p> <p>◇ A조 개인상 ▲타격상=김창원(金昌源 배문중 좌익수 31타수 24안타 타율 .774)</p> <p>◇B조 종합 순위=①배명중(5승1패) ②성남, 휘문, 남산중(이상 3승1무2패) ⑤한양중(2승3무1패) ⑥송인중(1승2무3패) ⑦광희중(6패)</p> <p>◇B조 개인상 ▲타격상=신태우(辛泰祐 남산중 2루수 22타수 17안타, 타율 .772)</p>	<p>■08.30 샌디 쿠팍스 시즌 첫 20승 LA 다저스 투수 샌디 쿠팍스가 다저 스타디움에서 5만4천여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상대로 3안타 1실점 끝에 13-1로 이겨 시즌 첫 20승을 기록</p> 
08.31	<p>■일본 야마구치선발초청 한·일친선고교대회 대한야구협회 초청으로 일본 야마구치(山口)현고교선발 팀(일행 22명)이 8월 31일 새벽 배편으로 부산항에 도착한 뒤 KAL기를 이용, 낮 12시 20분 여의도비행장을 통해 내한, 오후 5시 서울운동장에서 경기기를 시작으로 9월 10일까지 국내 9개 고교 팀과 9차전을 가진 끝에 6승2무1패를 기록</p> <p>◇서울고교선발=감독 김상진(金尙鎭 경기) 및 박동수(선린), 변재혁(경기), 김인식(배문), 김병우(휘문 이상 투수), 최재봉(성남), 김석진(선린), 정찬성(鄭燦聖 배문 이상 포수), 김대환(배문), 이윤무(李潤茂), 주해룡(朱海龍 이상 경기), 한동화(선린), 권국용(경동), 이성길(선린), 황병서(기공 이상 내야수), 강창조(姜昌祚 경</p>	<p>한·일고교대회 최종전. 7회초 1사후 일본의 3루 주자 다카하라(高原)가 다카시마(高島) 안타로 홈에 뛰어 들었으나 간발의 차이로 아웃, 서울고교선발을 따라 잡지 못했다.</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기), 오갑수(성남), 조병렬(경동), 나중수(취문), 최완근(성남 이상 외야수) ▲1차전(8월 31일)=경기고 0-7 야마구치선발 ▲2차전(9월 1일)=성남고 3-3 야마구치선발 ▲3차전(9월 3일)=취문고 0-12 야마구치선발 ▲4차전(9월 3일)=선린상고 0-1 야마구치선발 ▲5차전(9월 5일)=인천선발 1-3 야마구치선발 ▲6차전(9월 7일)=경동고 0-6 야마구치선발 ▲7차전(9월 7일)=대구선발 0-2 야마구치선발 ▲8차전(9월 8일)=부산선발 6-6 야마구치선발 ▲9차전(9월 10일)=서울선발 4-2 야마구치선발</p>	 <p>제5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입장식 광경</p>  <p>아시아선수권대회 사상 첫 우승을 차지한 한국 팀의 박현식(가운데)과 박영길(왼쪽)이 시상식에서 대형 우승 컵을 받아 들고 있다.</p>  <p>아시아야구 정상에 오른 대표 팀이 대형 우승 컵을 들고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공관을 방문, 박정희 의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p>
09.21	<p>■제5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사상 첫 우승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9월 21일부터 29일까지 자유중국(대만), 일본, 필리핀, 한국 등 4개국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9월 29일 벌어진 2차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한국이 일본을 3-0으로 셋 아웃, 5승1패로 한국야구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꺾고 대회 첫 우승 ▲1차 리그=한국 6-2 필리핀, 한국 7-0 대만, 한국 5-2 일본 ▲2차 리그=한국 14-2 필리핀, 한국 0-2 대만, 한국 3-0 일본 ◇종합순위=①한국(5승1패) ②대만(3승1패1무) ③일본(3승1패1무) ④필리핀(6패) ◇개인상 ▲우수선수상=신용균(申鎔均) ▲타격상=김응룡(.391) ▲홈런상=김응룡 ▲감독상=박점도 ◇한국선수단 ▲단장=김수환 ▲총무=허곤 ▲심판=장석화 ▲감독=박점도 ▲코치=김영조 및 성기영(2루수), 배수찬(중견수겸 우익수), 박현식(좌익수), 김응룡(1루수), 서정리(徐廷利), 김금현(이상 포수), 박영길(우익수), 김희련(3루수), 오춘삼(대타겸 3루수), 김삼용(金三用 중견수), 박정일(유격수), 하일(대타겸 유격수), 신용균, 최관수, 백수웅, 김청옥(金淸玉), 김설권(이상 투수)</p>	
10.04	<p>■제44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대한체육회 주최로 10월 4일부터 9일까지 전주종합운동장에서 개최, 고등부에서 대구상고(경북), 대학부에서 동아대(부산), 일반부에서는 한국전력(부산)이 각각 우승 ▲고등부 1회전=경남상고(부산) 6-1 마산상고(경남), 동인천고(경기) 3-5 대구상고(경북) ▲동 결승전=경남상고(부산) 2-3 대구상고(경북) ▲대학부 1회전=전남대(전남) 0-17 동아대(부산), 경북대(경북) 3-1 연세대(서울) ▲동 결승전=동아대(부산) 5-2 경북대(경북) ▲일반부 1회전=제2훈련소(충남) 8-6 경북(경북), 한국전력(부산) 11-8 인천시청(경기) ▲동 결승전=제2훈련소(충남) 0-6 한국전력(부산) ▲중학부(연식) 1회전=경상중(경북) 1-3 충남중(충남), 동대문중(서울) 1-2 인천남중(경기) ▲동 결승전=충남중(충남) 0-2 인천남중(경기)</p>	<p>■09.29 스탠 뮤지얼, 최다 안타 기록 1941년 세인트루이스에 입단, 첫 경기에서 2개의 안타를 날렸던 스탠 뮤지얼이 은퇴 경기에서도 2개의 안타를 날려 통산 3,630안타로 내셔널리그 최다 안타를 기록</p> <p>■09.29 워렌 스판, 최다승 기록 경신 밀워키의 좌완 투수 워렌 스판(42)이 시즌 23승7패로 통산 328승을 올려, 에디 플랭크(327승)가 갖고 있던 좌완 투수 최다승을 경신하며 최고령 20승 투수 기록도 수립</p> <p>■09.29 메이저리그 최다연패 신기록 뉴욕 메츠의 투수 로저 크레이그가 18연패를 당해 메이저리그에서 최다 연패 신기록을 수립한 뒤 스플릿 핑거드 패스트 볼을 창안</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일반부(연식) 결승전=경북도청(경북) 7-3 인천시청(경기)	■10.06 LA 다저스 월드시리즈 우승 내셔널리그 우승 팀 LA 다저스가 샌디 쿠팩스 등의 활약으로 팀 방어율 1.00을 기록하며 아메리칸리그 우승 팀 뉴욕 양키스에 4연승으로 월드시리즈 제패. 뉴욕 양키스는 1922년 이래 41년 만에 월드시리즈에서 0승4패로 패배
10.12	■서울시고교 추계리그검 제38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서울예선 동아일보사 주최로 10월 12일부터 서울시 12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21일 열린 A조 최종 결승전에서 선린상이 패자전에서 올라온 경동고를 4-3으로 누르고 우승 ▲A조 결승전=선린상 4-3 경동고 ▲B조 결승전=성동고 2-1 청량중고 ◇개인상 ▲우수상=A조 박동수(朴東洙 선린 투수), B조 김상호(金相鎬 성동 투수) ▲감투상=A조 이영선(李永善 경동 투수), B조 김석기(金錫基 청량 투수) ▲타격상=A조 박무인(朴武仁 경기 3루수 .500), B조 지희삼(池熙三 동대문 .545) ▲최다량 안타상=A조 권국용(權國勇 경동 3루수 8안타) B조 박동식(朴東植 청량 중견수 9안타) ▲홈런상=변무길(卞武吉 선린 1루수)	■10.15 박정희, 5대 대통령에 당선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가 윤보선 후보를 15만표 차로 제치고 당선 ■10.18 일본 노무라, 홈런 52개 신기록 일본 프로야구 난카이(南海) 호크스의 포수 노무라(野村)가 긴테쓰(近鐵) 버펄로스전에서 52홈런을 터트려 종전 기록 50홈런을 경신.
10.17	■서울시중학추계리그 대한연식야구협회 주최로 10월 17일 서울시 중학 18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동대문중 구장에서 A, B조로 나누어 개최, 10월 31일 벌어진 A, B조 우승 결정전에서 B조 승자 선린중이 A조 승자 중앙중을 1-0으로 누르고 11전 전승으로 우승 ▲우승=선린중(11전 11승) ▲준우승=중앙중(11전 8승1무2패) ◇개인상 ▲우수상=주영택(朱榮澤 선린중 투수) ▲감투상=이원국(중양중 투수) ▲미기상=홍창선(洪昌善 동대문중 좌익수) ▲타격상=장용남(張龍男 동대문중 3루수 20타수 8안타 타율 .400)	
10.19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추계연맹전 대한실업야구연맹,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10월 19일부터 전국에서 14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흥군(기업은행, 상업은행, 해운공사, 인천시청, 서울시청, 해군헌병감실, 교통부)과 백군(농협, 조흥은행, 한국전력, 한일은행, 제일은행, 육군, 대한통운)으로 나누어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1월 15일부터 흥, 백군 1, 2위 4개 팀이 벌인 결승리그에서 상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동률, 11월 23일 열린 결승전에서 상업은행이 판정 시비 끝에 기권한 기업은행을 제치고 우승 ◇흥조 순위=①상업은행, 기업은행(이상 5승1패) ③서울시청(4승2패) ④철도청(3승3패) ⑤해운공사, 해헌감실(이상 2승4패) ⑦인천시청(6패) ◇백조 순위=①대한통운(6승) ②한국전력, 농협(이상 3승1무2패) ④조흥은행(3승3패) ⑤육군, 한일은행(이상 2승4패) ⑦제일은행(1승5패) ◇개인상 ▲타격상=①박민규(대한통운 .583) ②정병섭(해운공사 .455) ③오덕환(吳德煥 서울시청 .429)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상업은행=감독 장태영 및 김영민(중견수), 박명렬 최영무(이상 좌익수), 조원일(좌익수겸 중견수), 하일(유격수), 장정부(포수), 유백만(3루수겸 투수), 김태령(우익수), 이희수(2루수), 조성주(3루수), 황종태, 장태영(이상 1루수), 김설권(투수)</p>	
10.19	<p>■ 이영선(李永善),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경동고 투수 이영선이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시고 교추계리그 A조 패자 준결승전에서 경기공고 33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볼넷 6개를 허용한 끝에 3-0으로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기록</p>	
10.22	<p>■ 제17회 황금사자기쟁탈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대한야구협회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10월 22일부터 전국에서 15개 팀(경기공, 경동고, 배문, 선린상, 동산, 동인천, 춘천농, 대전, 세광, 군산, 대구상, 광주일, 마산상, 경남, 부산고)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27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선린상고가 경남고를 4-1로 꺾고 우승 ▲준결승전=선린상고 2-1 경기공고(연장 10회), 경남고 1-0 동산고(연장 11회) ▲결승전=선린상고 4-1 경남고 ◇개인상 ▲우수상=박동수(선린상고 투수) ▲감투상=이영희(李盈熙 경남고 투수) ▲타격상=이장길(李長喆 마산상고 3루수 .600) ▲미기상=이광희(선린상고 우익수) △선린상고=감독 박종해 및 이성길(유격수), 한동화(2루수), 김충(3루수), 변무길(1루수), 박동수(투수), 김석진(포수), 박병선(朴炳先 좌익수), 정영수(좌익수겸 우익수), 이창근(李昌根 중견수), 박영규(朴英圭 우익수겸 좌익수), 이광희(우익수겸 중견수)</p>	 <p>제17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에서 우승한 선린상고 주장 변무길이 황금사자기를 동아일보 고재욱(高在旭) 부사장으로 부터 받아들이고 있다.</p>
10.26	<p>■ 전국대학추계연맹전 전국대학야구연맹 주최,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10월 26일부터 동아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서울대, 경북대, 고려대 등 8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과 성대구장에서 개최, 11월 6일 벌어진 마지막 경기에서 연세대가 한양대에 5회 강우 콜드 게임으로 패했으나 종합 전적 6승1패로 우승 ◇종합 순위=①연세대(6승1패) ②한양대(5승2패) ③경북대(4승3패) ④동아대, 경희대(3승4패) ⑥고려대, 성균관대(2승5패) ⑧서울대(7패) ◇개인상 ▲우수상=김창진(연대 투수) ▲감투상=김병수(金炳秀 한양대 포수) ▲미기상=허경조(許鏡照 경희대 투수) ▲타격상=①김은하(연대 2루수 .520) ②조진영(연대 중견수 .435) ③신동렬(성대 3루수 .429) ▲응원상=한양대, 성균관대 △연세대=박청광(유격수) 김은하(2루수) 김충남(좌익수) 이영기(1루수) 조진영(중견수) 김성오(金成五 포수) 이근응 조윤희(이상 우익수) 명정남(3루수) 변용현(3루수겸 투수) 김창진(투수)</p>	<p>■ 10.30 샌디 쿠팩스, 사이영상 수상 LA 다저스의 샌디 쿠팩스가 25승5패, 11완봉승에 306탈삼진, 방어율 1.88로 내셔널리그 마운드를 석권한데 힘 입어 사상 처음으로 투표인단 만장일치로 사이영상을 수상</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11.01	<p>■ 일본 프로야구 도에이·다이요초청경기 대한야구협회 초청으로 11월 1일 일본 프로야구 도에이(東映) 플라이어스·다이요(大洋) 웨일스가 서북항공기편으로 내한, 11월 2일부터 도에이·다이요가 3차례에 걸친 시범경기과 국내 실업및 금융 팀과의 친선경기를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1월 5일 열린 시범경기 3차전에서 도에이가 다이요를 7-5로 꺾고 2승1패를 기록</p> <p>▲ 11월 2일=다이요 2-0 실업선발, 다이요 6-3 도에이 ▲ 11월 3일=도에이 8-2 금융선발, 도에이 3-2 다이요 ▲ 11월 4일=다이요 10-3 금융선발, 도에이 6-1 실업선발 ▲ 11월 5일=도에이 7-5 다이요</p> <p>△ 금융선발=감독 김영조, 조감독 박현식, 주무 이기역 및 백수웅, 최관수, 김설권, 유백만, 김성근(이상 투수), 배성서, 박영국(이상 포수), 김점생, 정신식, 이규직, 김희만, 하갑득, 김희련, 허일(이상 내야수), 배수찬, 진원주, 김태령, 김임렬, 김영빈(이상 외야수)</p> <p>△ 실업선발=감독 김일배, 조감독 허종만, 주무 모무열 및 신용균, 김청옥, 남창희, 박인환, 이선덕, 심재길(이상 투수), 김금현, 서정리(이상 포수), 김응룡, 성기영, 오춘삼, 박정일, 이재환(이상 내야수), 최화용, 정두영, 김삼용, 박영길, 어우홍(이상 외야수)</p>	<p>■ 11.04 요미우리, 일본 시리즈 제패 요미우리(讀賣) 자이언츠가 일본시리즈 7차전에서 니시데쓰(西鐵) 라이온스를 18-4로 격파하고 4승3패로 우승</p>  <p>11월 4일 열린 도에이-실업선발 경기에서 2회초 백인천(도에이)이 투런 홈런을 날린 뒤 장훈(배번 10) 등 동료들의 환영을 받으며 흠인하고 있다.</p>
11.09	<p>■ 일본여자연식야구 '사론 파스' 내한경기 11월 초 대한체육회(회장 이효)의 반대를 무릅 쓰고 모주간지 초청으로 일본 여자연식야구 '사론 파스'가 내한, 부산과 대구에서 5승2패를 한 뒤 11월 8일 새벽 열차 편으로 상경, 11월 9일부터 이틀간 영화배우, 동대문중, 방송, 중학선발과 경기를 개최(전적 미상)</p>	
11.12	<p>■ 유백만(俞百萬),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추계연맹전 17일째 경기 철도청전에서 상업은행 투수 유백만이 2-0으로 노히트노런(No Hit No Run)을 기록</p>	
11.13	<p>■ 김성근(金星根),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기업은행 투수 김성근이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추계연맹전에서 인천시청 27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탈삼진 13개, 볼넷 1개 만을 허용한 끝에 5-0으로 노히트노런(No Hit No Run)을 기록</p>	
11.24	<p>■ 제9회 NBC배쟁탈 전국선수권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11월 24일부터 철도, 한일은행, 조흥은행, 해운공사, 상업은행 대한통운, 기업은행, 해군헌병감실, 전인천, 한양대 등 10개 팀이 출전했으나 1회전이 끝난 뒤 흑한으로 대회 중지</p>	<p>■ 11.22 캐네디 대통령 피살 미국 대통령 존 F. 캐네디가 유세지인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카 퍼레이드 도중 저격범 오스월드가 쏜 총탄을 맞고 사망</p>
11.29	<p>■ 중학선발 일본원정경기 재일교포야구협회 초청으로 중학야구선발 팀이 11월 26일 부산에서 배편으로 출국, 11월 29일부터 히로시마(廣島), 교토(京都), 나고야(名古屋), 도쿄(東京) 등지</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에서 7차전 끝에 6승1패를 기록 ▲1차전(11월 29일 히로시마)=한국선발 8-0 히로시마(廣島)중학 선발 ▲2차전(12월 2일 교토)=한국선발 8-1 니조(二條)중학 ▲3차전(12월 3일 나고야)=한국선발 3-2 히비노(日比野)중학 ▲4차전(12월 8일 나고야)=한국선발 5-2 주쿄(中京)중학 ▲5차전(미상) ▲6차전(12월 10일 도쿄)=한국선발 2-1 도쿄 한국학원 ▲7차전(12월 10일 도쿄)=한국선발 0-6 교호(京寶)중학 ◇중학선수단 ▲단장=이경구(李鯨九) ▲총감독=신창근(申昌根) ▲감독=박지완 ▲선수=김창원, 김문규(金文奎), 김종환, 김기영(金基榮), 이상근(李相根), 서항석(徐恒錫), 박완기, 성우식(成愚植), 조성환(趙成桓) 중양중, 김민휘(金民彙), 진길원(秦吉源 동대문중), 김중명(金重明 선린중), 이은호(李銀澍), 장영수(張榮洙 동산중), 이기조(李起兆 성남중), 박인묵(朴仁默 선린중), 변건웅(卞健雄)</p>	 <p>경기를 마친 뒤 도쿄 관광중 일본 천왕이 거주하는 고쿄(皇居) 정면에 있는 니쥬바시(二重橋) 앞에서 기념 촬영(뒷줄 오른쪽부터 성우식, 진길원, 김창원, 이기조, 가운데 줄 왼쪽 안내양 다음부터 이상근, 김중명, 김기영, 조성환, 장영수, 김문규, 이은호, 박인묵, 김민휘, 박완기. 앞 줄 왼쪽부터 두번째부터 최계환 아나운서, 박지완 감독, 이경구 단장, 조서희 배문중 교장, 변건웅, 서항석, 김종환</p>
11.30	<p>■ 영남지구고교선발 일본원정경기 일본고교야구연맹 초청으로 영남지구고교선발야구단이 11월 29일 배편으로 부산을 출항,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일본 규슈(九州)지방에서 5차전 끝에 3승1무1패를 기록 ▲1차전=한국선발 7-0 도쿠야마(徳山)선발 ▲2차전=미야자키(宮崎)상고 ▲3차전=한국선발 2-1 덴파(電波)고 ▲4차전=한국선발 0-2 후쿠오카(福岡)선발 ▲5차전=한국선발 0-0 야와타(八幡)공고 ◇영남고교선발 ▲단장=김수환(협회 부회장) ▲감독=정동환(대구상고 감독) ▲코치=박내용(부산고 감독) ▲투수=유영수(대구상고), 장순조(부산고), 김명성(부산공고), 김봉연(金奉鍊 경남상고) ▲포수=정동진(대구상고), 최주억(崔周億 경남상고) ▲내야수=이중원(홍수일, 이철화(이상 부산고), 이장길(마산상고), 박재영(대구상고) ▲외야수=김홍국(경남고), 추민엽(대구상고), 김정호(부산공고), 박성효(부산고)</p>	
1964. 01.13	<p>■ 서울시고교연맹 정기대의원 총회 서울시고교야구연맹이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휘문고 서병성(徐丙瑗) 교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하는 등 임원을 개선</p>	
01.15	<p>■ 한일은행야구단 해체 1월 15일 하오 5시 한일은행 4층 회의실에서 김시종(金時鍾) 행장을 비롯, 임원과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해단식을 거행, 5월 8일 한일은행 선수들을 주축으로 크라운맥주 야구단을 창설</p>	
01.19	<p>■ 대한해운공사 대만원정경기 대한해운공사 야구팀이 대만에서 한-중친선대회를 갖기 위해 1월 10일 하오 7시 배편으로 부산항을 출항,</p>	<p>대만에 원정중인 해운공사 선수들이 첫 경기(합작공고)를 앞두고 열린 개막식에 태극기와 해운공사 깃발을 휘날리며 입장하고 있다.</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1월 19일부터 대만 육·해군 및 합작금고은행과 4차전을 가진 끝에 4전 전승 ▲1차전=해운공사 5-0 합작금고 ▲2차전=해운공사 4-3 육군(대만) ▲3차전=해운공사 4-0 대만전업 ▲4차전=해운공사 7-2 대만 해군(대만) ◇해운공사야구단 ▲단장=이화익(李化翼) ▲임원=백효득 ▲감독=김일배 ▲코치=김정환 ▲투수=박태일, 박용민, 박인환, 박진원 ▲포수=정병섭, 양승덕 ▲내야수=김정환, 성기영, 최향렬, 배동원, 김창락, 이위재(李渭宰) ▲외야수=정운철, 김삼용, 어우홍, 김경서, 노재형</p>	 <p>대만 원정경기에서 4전 전승을 올린 해운공사 선수들.</p>
02.21	<p>■ 전국실업연맹전 장기페넌트레이스 도입 한국실업야구연맹이 64년도 정기 총회를 열고 임원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 실업야구 경기 방식을 장기 '페넌트 레이스'로 전환, 5월 7일부터 10월 말까지 연맹 가입 13개 팀이 4경기씩 총 312경기를 서울과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회장=문방흠(文方欽 농협 중앙회 회장) ▲전무이사=김영조 ▲총무이사=장석화 ▲재무이사=이기역 ▲이사=박점도, 김재송, 김일배, 김계현, 손희준, 장태영, 허종만, 박현식, 김양중, 김상태(金尙泰) ▲감사=하명호(河明鎬) ▲사무국장=이정렬(李丁烈)</p>	
02.23	<p>■ 대한야구협회 임원 개선 한국산업은행 회의실에서 제18차 정기 대의원 대회를 열고 회장단을 포함한 이사진의 총사퇴를 만장일치로 수리하고 새 회장에 전의용, 부회장에 이신득을 선임. 전국고교선수권대회 및 전국지구별고교쟁패전 서울예선대회 개최권을 서울시고교연맹에 이관 및 아시아야구연맹 총회와 세계야구연맹 발기 총회에 전의용(全義鎔) 회장의 파견을 결정 ▲회장=전의용(전 협회 고문) ▲부회장=이신득(전 협회 부회장) ▲전무이사=오윤환 ▲상무이사=장석화(경기), 이규백(재무), 허곤(섭외) ▲이사=김일배, 백기주, 노정호, 윤재준, 모무열, 박점도, 허종만, 장태영, 이팔관, 김영조, 임두호 ▲감사=김용훈(金龍勳) 정기달(鄭琦達) ▲심판장=김태봉</p>	
02.23	<p>■ 제6회 이영민 타격상 이철화(李喆華) 수상 대한야구협회가 제6회 이영민 타격상 수상자로 63년도 전국 3개 고교대회에서 평균 타율 .345를 기록한 부산고 3루수 이철화를 선정</p>	
03.14	<p>■ 김응룡, 한국체육상 최우수선수상 수상 상오 9시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대한체육회 제정 한국체육상 최우수선수상을 김응룡(야구), 김영기(金永基 농구), 이종섭(李宗燮 역도) 및 한국전력(배구 단체상)과 함께 수상. 개인 우수선수상은 인천남중 이은호(연식야구) 외 20명, 단체 우수상은 배문중(연식</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야구) 외 5개 팀이 수상	
03.20	<p>■ 대한연식야구협회 대의원 총회 3월 20일 하오 2시 협회 사무실에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이경구(李鯨九)를 회장으로 선임하고 김세영(金洗榮) 전 회장을 고문으로 추대 ▲회장=이경구(전 부회장) ▲부회장=신창근(전 전무이사) 이봉근(李奉根 전 감사)</p>	
03.27	<p>■ 제2회 전국실업초청대회 부산야구협회 국제신보사 공동 주최로 3월 27일부터 한국전력, 서울시청, 철도청, 상업은행 등 4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구덕경기장에서 개최, 3월 30일 끝난 결승전에서 한국전력과 상업은행이 1-1 무승부로 공동 우승 ◇개인상 ▲감투상=김설권(상은 투수 부산시장상), 이기원(한전 투수 국제신보사장상) ▲타격상=①조원일(상은 한전경남지점장상) ②김동엽(한전 부산야구협회장상) ▲감독상=김계현(한전 미진화학사장상), 장태영(상은 미진화학사장상) △한국전력=감독 김계현 및 정연회(중견수겸 투수) 윤명수(2루수), 이종원(1루수), 김동엽, 한을룡(이상 우익수), 박영길(좌익수), 이박(2루수), 김원렬(중견수), 최정상, 배만호(이상 포수), 박인규(유격수), 이철화(3루수), 이기원, 장순조, 곽상령(이상 투수), 황성록(3루수겸 유격수)</p>	<p>대한연식야구협회 대의원 총회를 끝낸 관계자들. 앞줄 왼쪽부터 홍병창(洪丙昌), 이원용(李源容), 이경구(李鯨九), 김세영(金洗榮), 복혜숙(卜惠淑), 이태흥(李泰興)씨 등이다.</p>
03.29	<p>■ 서울시고교 춘계리그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3월 29일 서울시 고교 20개 팀 (배재, 장충, 청량중, 성남, 경기, 배문, 고명상, 동도공, 중앙, 선린상, 경기공, 휘문, 경희, 서울상, 경동, 성동, 서울, 배명, 동대문상, 이대부고)이 A, B조로 나누어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5월 4일 성남고구장에서 끝난 A조에서 배문고가 8승1패로 우승 ◇A조 순위=①배문고(8승1패) ②성남고(7승1무1패) ③경기공고(6승1무2패) ④중앙고, 경동고(이상 5승1무3패) ⑥청량중고(3승2무4패) ⑦선린상고(2승2무5패) ⑧경기고, 휘문고(이상 2승7패) ⑩성동고(1승8패) ◇개인상(A조) ▲우수상=김인식(배문고 투수) ▲감투상=김윤겸(성남고 투수) ▲타격상=김대환(배문고 1루수 30타수 13안타 타율 .433) ▲최다량 안타상=김대환 ▲홈런상=김대환 ▲런닝 홈런상=함응렬(청량중고 좌익수) ◇B조순위=①배재고(7승1패) ②동대문상고(7승1무1패) ③서울상고(6승1무2패) ④장충고(4승1무3패) ⑤서울고(4승4패) ⑥배명고(3승2무4패) ⑦동도공고(2승1무6패) ⑧경희고(2승2패) ⑨고명상고(1승8패) ◇개인상(B조) ▲우수상=유현구(柳鉉九 배재고 투수) ▲감투상=장효영(張孝英 동대문상고 투수), 김중수(金中洙 서울상고 투수) ▲타격상=지희삼(池熙三 동대문상고 2루수 34타수 15안타 타율 .441) ▲최다량 안타상=지희삼(15안타) ▲런닝 홈런상=이재국(李在</p>	 <p>서울시고교 춘계리그에서 경동고에게 7-0으로 리드 당하던 중앙고가 6회말 신동근의 중전 안타로 2루 주자 상인경이 홈인, 첫 득점에 성공</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國 경히고 1루수)</p>	
<p>04.02</p>	<p>■서울시중학 춘계리그 대한연식야구협회 주최로 4월 2일부터 서울시 중학 14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A, B조로 나누어 동대문중과 성남중 운동장에서 개최, 5월 5일 막을 내린 춘계 리그에서 배문중(A조)과 경동중(B조)이 각각 우승 ◇종합 순위 A조=①배문중(5승2무) ②선린중(4승2무1패) ③배명중(5승2패) B조=①경동중(8승2패) ②휘문중(7승1무2패) ◇개인상 ▲우수상=A조 윤승만(배문중), B조 박중국(경동중) ▲타격상=A조 정석규(선린중 .474), B조 한순복(휘문중 .452)</p>	
<p>04.24</p>	<p>■제14회 백호기쟁탈 전국군·실업쟁패전 대한야구협회 경향신문사 공동 주최로 4월 24일부터 12개 팀(서울시청, 제일은행, 농협, 철도청, 상업은행, 육군, 인천시청, 기업은행, 해군헌병감실, 조흥은행, 한국전력, 해운공사)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4월 30일 끝난 결승전에서 상업은행이 기업은행을 4-2로 물리치고 우승 ▲준결승전=농협 4-6 상업은행, 기업은행 7-2 해운공사 ▲결승전=상업은행 4-2 기업은행 ◇개인상 ▲우수상=김설권(상업은행 투수) ▲타격상=김삼용(해운공사 중견수 .500) ▲미기상=김광웅(해운공사 1루수) ▲감독상=장태영(상업은행 감독) △상업은행=감독 장태영 및 하일(유격수), 조원일(좌, 우익수), 김태령(투수겸 우익수), 최영무(우익수), 김설권(투수), 장정부(포수), 황종태(1루수), 박명렬, 박병선(이상 좌익수), 김충(3루수), 조성주(대타겸 3루수), 최종수 이희수(이상 2루수), 김영민(중견수)</p>	<p>■04.17 뉴욕 메츠 홈 구장 개장 뉴욕 퀸스 플래싱 메도스 코로나 파크 북쪽에 세워진 세이 스타디움이 뉴욕 메츠-피츠버그의 시즌 개막전으로 개장. 44년이 흐른 2009년 2월 18일 새 구장 건설로 해체</p>  <p>제14회 군실업쟁패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상업은행 주장 조성주(曹成周)가 백호기를 받아들고 있다.</p>
<p>05.02</p>	<p>■전국대학춘계연맹전 전국대학야구연맹 주최,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5월 2일부터 경희, 고려, 동국, 동아, 서울, 성균관, 연세, 한양대 등 8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5월 10일 벌어진 최종일 경기에서 성균관대가 연세대에 4-9로 패해 6승1패로 우승 ◇종합 순위=①성균관대(6승1패) ②고려대(5승1무1패) ③연세대(4승1무2패) ④경희대, 한양대(4승3패) ⑥동아대(3승4패) ⑦동국대(1승6패) ⑧서울대(7패) ◇개인상 ▲우수선수상=김용길(성균관대 투수) ▲감독상=변재혁(고려대 투수) ▲미기상=문정부(연세대) ▲타격상=변용현(연세대 .476)</p>	<p>■05.03 일본 최초 한 경기 4홈런 요미우리 자이언츠-한신 타이거스전에서 자이언츠의 오 사다하루(王貞治)가 일본 최초로 한 경기 4개의 홈런을 기록</p>
<p>05.07</p>	<p>■제4회 문교부장관기쟁탈 전국4도시선발고교대회 경북야구협회 매일신문사 공동 주최로 5월 7일부터 경동고, 성남고, 인천고, 동산고, 부산공고, 부산상고, 대구고, 대구공고, 대구상고 등 9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대구공설운동장에서 토너먼트로 개최, 5월 12일</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벌어진 결승전에서 성남고가 대구상고를 7-1로 격파하고 우승 ▲준결승전=성남고 2-1 인천고, 대구상고 9-0 대구공고 ▲결승전=성남고 7-1 대구상고 ◇개인상 ▲우수선수상=김윤겸(성남고 투수) ▲감투상=김영생(金榮生 대구상 투수) ▲미기상=신효식(대구상 3루수) ▲타격상=김영언(金榮彦 부산상 포수 .556)</p>	
05.08	<p>■ 크라운맥주 야구단 창단 조선맥주(주)가 5월 8일 하오 5시 한일은행 강당에서 지난 1월 해체된 한일은행 야구선수들을 주축으로 야구단 창단식을 갖고 정식 출범 ▲대표=홍청칠(洪淸七) ▲단장=김왕길(金旺吉) ▲부장=박문수(朴文秀) ▲주무=정태원(鄭泰遠) ▲감독=강대중 ▲조감독겸 투수=서동준 ▲선수=오덕환, 신용균, 고순선(이상 투수), 배성서, 조정일(이상 포수), 김응룡, 양영수, 김희만, 배재호, 장유복, 박정일, 황진열, 김건(이상 내야수), 정효식, 이재문, 추민엽, 김용택(이상 외야수)</p>	
05.11	<p>■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한국야구 사상 처음으로 도입한 실업야구 페넌트 레이스가 5월 11일부터 전국에서 13개 팀(철도청, 조흥은행, 인천시청, 상업은행, 제일은행, 기업은행, 서울시청, 한국전력, 해운공사, 해군헌병감실, 조선맥주, 한일은행, 육군)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을 비롯, 육군과 상업은구장에서 1~4차리그로 나누어 413경기를 개최, 10월 18일 기업은행이 32승5무11패로 우승한 가운데 폐막 ◇종합 순위=①기업은행(32승5무11패) ②조선맥주(31승5무12패) ③농협(31승4무13패) ④해운공사(28승9무11패) ⑤상업은행(27승6무15패) ⑥해헌감실(22승6무20패) ⑦제일은행(21승8무19패) ⑧한국전력(21승6무21패) ⑩철도청(17승4무27패) ⑪육군(16승4무28패) ⑫서울시청(7승5무36패) ⑬인천(3승7무38패)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신용균(조선맥주) ▲우수투수상=최관수(기업은행) ▲우수신인상=유영수(제일은행) ▲타격상=①배수찬(기업은행) ②김희련(기업은행) ③최정승(농협) ▲홈런상=진원주(제일은행) ▲타점상=진원주(제일은행) ▲도루상=하갑득(농협) ▲출루상=박현식(제일은행) ▲최다승리투수상=신용균(조선맥주) ▲방어율 1위상=김영덕(해운공사) ▲퍼펙트게임상=고순선(조선맥주), 김영덕(해운공사) ▲우승감독상=김양중(기업은행 감독) ▲준우승 감독상=강대중(조선맥주 감독)</p>	 <p>농협-상업은행전. 2회말 상은 7번 황종태의 유격수 앞 땅볼을 농협 김홍국이 낙구하는 사이 2루 주자 김금현이 홈인, 농협 포수 최정승이 터치 아웃을 시도했으나 실패, 선취점을 내줬다.</p>
05.21	<p>■ 박종길(朴鍾吉), 한 경기 최소 투구 신기록 조흥은행 투수 박종길(朴鍾吉)이 전국실업야구연맹전 해군헌병감실과의 경기에서 공 69개를 투구한 끝에 3-0으로 경기를 종료, 1950년 5월 21일 제5회 전국도</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시대항선수권대회에서 대구군의 김찬석(金瓚錫)이 인천군을 상대로 세운 한 경기 최초 투구인 74구를 경신</p>	
05.24	<p>■ 제1회 재향군인회장기쟁탈 전국국민학교대회 대한야구협회 재향군인회 공동 주최로 5월 24일부터 전국에서 12개 국민학교 팀(서울 동대문, 서울 송인, 전남 유달, 경북 자인, 강원 중앙, 충북 주성, 경남 무학, 전북 중앙, 경북 신암, 경기 서림, 경북 자인, 충남 문창)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7이닝 경기로 개최, 5월 27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서림국교가 문창국교를 1-0으로 제치고 우승 ▲준결승전=문창 4-2 대신, 서림 1-0 신암 ▲결승전=서림 1-0 문창 ◇개인상 ▲우수상=정해성(서림 투수) ▲감투상=김을중(문창 투수) ▲미기상=유지혁(문창 중견수) ▲타격상=박윤복(자인 .500) ▲장려상=장해웅(동대문 투수)</p>	
05.30	<p>■ 일본 프로야구 2군 초청 한·일친선대회 일요신문사 초청으로 5월 30일부터 서울, 대구, 부산을 돌며 국내 실업 팀(기업은행, 상업은행, 해운공사, 농협)과 4차전을 가진 끝에 3승1패를 기록. 도에이(東映)-다이요(大洋)의 친선경기에서는 다이요가 3승1무1패를 기록 ▲1차전(5월 30일 서울)=기업은행 1-5 다이요, 다이요 5-3 도에이 ▲2차전(5월 31일 서울)=상업은행 4-2 도에이, 도에이 4-15 다이요 ▲3차전(6월 2일 대구)=해운공사 2-3 도에이, 도에이 5-3 다이요 ▲4차전(6월 3일 부산)=농협 1-9 다이요, 다이요 8-2 도에이 ▲5차전(6월 6일 부산)=도에이 1-1 다이요</p>	
06.15	<p>■ 서울시여자대학연식야구연맹 결성 6월 15일 하오 5시 대한체육회 회의실에서 사상 처음 서울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외국여대, 수도여사대 등 6개 대학이 여자연맹을 결성</p>	<p>■ 06.03 서울 전역 비상계엄 선포 한·일회담 반대 데모로 박정희 대통령이 6월 3일 하오 10시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p>
06.17	<p>■ 제7회 전국중학초청대회 서울시예선 대한연식야구협회 주최로 6월 1일 서울시 12개 중학팀이 출전한 가운데 성균관대와 성남고 운동장에서 개최, 6월 3일 밤 계엄령선포로 대회를 중지한 뒤 6월 17일 계엄사령부의 허가로 성균관대구장에서 재개, 7월 21일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결승전에서 동대문중이 성남중을 3-0로 꺾고 우승 ▲준결승전=성남중 5-1 성동중, 동대문중 4-2 선린중 ▲결승전=동대문중 3-0 성남중</p>	<p>■ 06.04 대한체육회 체육행사 중지 대한체육회가 계엄령 선포로 각종 체육행사 중지 발표</p> <p>■ 06.15 계엄사령부 야구경기 첫 허가 계엄사령부가 처음으로 운동경기 개최 첫 케이스로 제7회 전국중학초청대회 서울예선대회를 허가</p>
06.23	<p>■ 제19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서울시예선 한국고교연맹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6월 23일부터 서울시 고교 20개 팀(배명, 고명상, 배문, 동대문상, 성동, 경기공, 이대부고, 경신, 배재, 선린상, 성남, 동도공, 장충, 경기, 휘문, 경동, 서울, 서울상, 중앙고)이 출전한</p>	<p>■ 06.21 짐 버닝, 42년만에 퍼펙트 게임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짐 버닝이 뉴욕 세아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욕 메츠전에서 27타자를 상대로 탈삼진 10개를 기록하며 무안타, 무실점, 무실책 끝에 6-0으로 메이</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7월 7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청량종고가 선린상고를 4-3으로 누르고 우승 ▲준결승전=선린상 7-1 동대문상, 청량종고 5-4 성남고 ▲결승전=청량종고 4-3 선린상고 ◇개인상 ▲우수상=박동식(청량종고 투수) ▲감투상=방한경(方漢慶 선린상고 투수) ▲최다량 안타상=박동식(청량종고 투수 7안타) ▲타격상=최완근(성남고 우익수 .600) △청량종고=감독 변응원(邊應源) 및 함응렬(중견수), 장관수(張官洙 1루수), 오형섭(吳亨燮 3루수), 박동식(투수), 김석기(金錫基 좌익수), 김동호(金東鎬), 김재화(金在和 이상 유격수), 김재홍(金在洪), 도상훈(都相勳 이상 2루수), 김영준(金英俊), 안희진(安熙鎭 이상 포수), 윤희준(尹熙俊 우익수), 정창현(鄭昌賢 대타) 전명훈(田明勳 유격수겸 대타)</p>	<p>저리그 페넌트 레이스 사상 42년만에 퍼펙트 게임(Perfect Game 1922년 4월 20일 시카고 화이트삭스 차리 로버트슨 이후)을 수립.</p>
07.03	<p>■일본 게이오(慶應)대초청 한·일친선대회 대한야구협회가 일본 도쿄6대학야구연맹 소속 게이오대를 초청, 7월 3일부터 12일까지 서울운동장을 비롯해 대전및 부산공설운동장에서 국내 실업및 대학 팀들과 8차전을 가진 끝에 6승2무를 기록 ▲1차전(7월 3일 서울)=게이오대 7-6 상업은행 ▲2차전(7월 4일 서울)=게이오대 5-5 성균관대 ▲3차전(7월 4일 서울)=게이오대 4-2 크라운맥주 ▲4차전(7월 6일 대전)=게이오대 11-6 한국전력 ▲5차전(7월 8일 부산)=게이오대 22-0 동아대 ▲6차전(7월 8일 부산)=게이오대 6-1 제일은행 ▲7차전(7월 11일 서울)=게이오대 4-4 대학선발 ▲8차전(7월 12일 서울)=게이오대 3-1 농협</p>	
07.08	<p>■제19회 청룡기쟁탈 전국고교선수권대회 대한야구협회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7월 8일부터 전국 10개 지역에서 12개 고교 팀(선린상, 청량종, 부산공, 부산상, 춘천, 군산, 세광, 대구상, 동인천, 마산상, 대전, 광주일고)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7월 19일 열린 최종 결승전에서 부산상고가 청량종고를 2-1로 제치고 제1회 대회 우승 이후 18년 만에 패권 탈환 ▲승자 준결승전=부산공고 2-0 대구상고, 청량종고 5-0 부산상고 ▲패자 준결승전=부산상고 2-1 대구상고 ▲승자 결승전=청량종고 2-0 부산공고 ▲패자 결승전=부산상고 3-2 부산공고(10회 연장) ▲결승전=부산상고 2-1 청량종고 ▲최종 결승전=부산상고 2-0 청량종고 ◇개인상 ▲우수상=강성환(姜聖煥 부산상고 투수) ▲타격상=김명성(부산공고 투수 .417) ▲미기상=전성욱(田成旭 마산상고 유격수) ▲지도상=백기수(부산상고 감독), 변응원(청량종고 감독) △부산상고=감독 백기수 및 장광주(張光柱 3루수), 장정호(張正浩 우익수), 강병철(姜秉徹 유격수), 김영언(포수),</p>	<div data-bbox="970 1352 1366 1630" data-label="Image"> </div> <p>조선일보사가 제작한 제19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출전 기념 버클.</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윤광부(尹光富 중견수), 박행남(朴幸男 좌익수), 강성환(투수), 김동수(金東洙 1루수), 이국건(李國建 2루수)	
07.13	■ 김병기(金秉冀),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조흥은행 투수 김병기(金秉冀)가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2차리그 철도청전에서 27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삼진 3개를 잡고 볼넷 2개(1회, 6회)를 허용한 끝에 2-0으로 No Hit No Run 기록	■ 07.16 재일교포 김정일 4천 탈삼진 일본 프로야구 센트럴리그 코쿠데스(國鐵) 스왈로스의 재일교포 투수 김정일(金正一)이 다이요(大洋) 웨일스를 상대로 탈삼진 8개를 기록, 개인 통산 4,002개로 탈삼진 부문 세계기록을 수립
07.22	■ 제16회 쌍룡기쟁탈 전국고교대회 부산야구협회 국제신보사 공동 주최로 7월 22일부터 전국에서 15개 고교 팀(춘천, 동대문상, 배문, 선린상, 성남, 청량, 동산, 세광, 군산상, 대구상, 마산상, 경남, 부산, 부산공, 부산상고)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 7월 27일 끝난 결승전에서 동대문상고가 배문고를 3-0으로 꺾고 우승 ▲준결승전=동대문상 2-0 부산상, 배문고 5-1 경남고 ▲결승전=동대문상 3-0 배문고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장효영(동대문상고 투수) ▲감투상=김인식(배문고 투수) ▲타격상=①신용운(배문고 유격수) ②임칠수(林七洙 동대문상고 포수) ▲미기상=이기태(부산공고 포수) ▲감독상=김진용(金振用 동대문상고 감독)	
07.23	■ 방한경(方漢慶),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선린상고 투수 방한경(方漢慶)이 부산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16회 쌍룡기쟁탈 전국고교대회에서 부산고 27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삼진 4개를 잡으며 볼넷 1개(잔루1, 실책1)만을 허용한 끝에 3-0으로 No Hit No Run	
07.26	■ 제8회 한·미친선대회 대한야구협회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7월 26일부터 미군 4팀(미제8군기지창, 미제4유도탄, 요코스카주일미해군, 아츠키주일해군)과 한국 4팀(육군, 해군헌병감실, 기업은행, 해운공사) 등 8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7월 30일 끝난 결승전에서 해운공사가 해헌감실을 5-1로 꺾고 우승 ▲승자 준결승전=해운공사 4-2 육군, 해헌감실 8-0 미제4유도탄 ▲패자 결승전=해운공사 7-0 주일아츠키해군 ▲결승전=해운공사 3-1 해헌감실 ▲최종 결승전=해운공사 5-1 해헌감실	
07.30	■ 유영수(柳永洙),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제일은행 투수 유영수가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에서 인천시청 27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탈삼진 12개에 볼넷 2개를 허용한 끝에 6-0으로 No Hit No Run 기록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8.13	<p>■ 제7회 문교부장관기쟁탈 전국중학초청대회 대한연식협회 주최로 8월 13일부터 지난 해 우승 팀 배문중을 비롯해 전국에서 17개 팀(김천, 제주 제일, 경남, 상인천, 오성, 경동, 마산, 전남, 동인천, 성남, 전주, 동대문중, 대동, 선린, 충남, 경상중)이 출전한 가운데 경북 김천중 운동장에서 개최, 8월 18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배문중이 경상중을 5-0으로 격파하고 대회 3연패</p> <p>▲준결승전=배문중 4-0 경남중, 경상중 1-0 성남중 ▲결승전=배문중 5-0 경상중 ◇개인상 ▲우수상=김중환(배문중 투수) ▲감투상=한장철(韓章哲 경상중 투수) ▲타격상=유형복(경동중 .500) ▲미기상=박천규(오성중 우익수) ▲감독상=박지완(배문중 감독)</p>	
08.13	<p>■ 제9회 재일교포학생야구단 모국방문환영대회 대한야구협회 한국일보사 공동 초청으로 8월 10일 재일교포학생야구단(일행 22명)이 권영섭 단장 인솔로 부산항을 통해 입국, 9월 1일까지 서울, 대구, 부산, 마산 등지에서 16차전 끝에 12승2무2패를 기록</p> <p>◇재일교포야구단 ▲단장=권영섭(재일협회 회장) ▲부단장=진동규(陳東圭 재일협회 참여) ▲총무=최문도(재일협회 이사) ▲섭외=이우경(李愚京 재일협회 이사) ▲감독=곽병득(재일협회 이사) ▲코치=황덕룡(黃德龍 재일협회 이사) ▲투수=송용(宋勇 미요시고, 연제국(延濟國 주쿄中京상고), 황영주(黃永珠 소노베園部고) ▲포수=송명문(宋明文 고베神戸시립상고), 송석문(宋石文 나니와浪華상고), 이철주(李鐵柱 니시마이즈루西舞鶴고) ▲내야수=공덕창(孔德昌 사기노미야鷺宮고), 신재기(辛載基 주쿄中京상고), 이경호(李慶鎬 다지미多治見공고), 김정일(金正一 메이조名城고), 오조웅(吳朝雄 가쓰시카葛飾고), 김헌숙(金憲淑 나니와浪華상고), 윤동강(尹東康 라쿠요洛陽공고) ▲외야수=하수홍(河壽泓 하나조노花園고), 최화림(崔花林 스자크朱雀고), 권천수(權千守 아베노阿倍野고)</p> <p>▲1차전(8월 13일 서울)=재일교포 1-2 경동고 △경동고=유장언(2루수), 박찬황(朴贊皇 3루수), 신윤섭(좌익수), 조병렬(중견수), 박흥길(朴興吉 유격수), 안준호(安俊鎬 1루수), 최희영(崔熙英 포수), 임선수, 이병수(이상 우익수), 이충순(李充淳 투수)</p> <p>▲2차전(8월 15일 서울)=재일교포 7-1 청량중고 △청량중고=함응렬(중견수겸 좌익수), 김동호(유격수), 오형섭(3루수), 박동식(투수겸 중견수), 김석기(좌익수겸 투수), 안희진(포수), 김재홍(2루수), 장관수(1루수), 윤희준(우익수)</p> <p>▲3차전(8월 16일 서울)=재일교포 6-2 선린상고 △선린상고=감독 박종해 및 이성길(유격수), 박찬형(朴贊亨 2루수), 김태석(金泰石 우익수), 이창근(중견수), 박영일(朴榮一 좌익수), 김규영(金圭瑩 1루수), 구본호(具本浩 대타겸 1루수), 방한경, 박인묵(이상 투수)</p>	<div data-bbox="970 779 1321 1256" data-label="Image"> </div> <p>제9회 재일교포학생야구단 모국방문 환영대회를 앞두고 한국일보사가 발행한 팸플릿 표지</p> <div data-bbox="970 1429 1474 1749" data-label="Image"> </div> <p>재일교포 학생 팀과 첫 경기를 앞두고 상견례를 하기 위해 서울운동장 야구장에 모여들고 있는 경동고 선수들</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수), 이용순(李鎔淳 3루수), 허희수(許喜洙 대타), 안계장(安啓漳 3루수), 박태윤(朴泰潤 포수)</p> <p>▲4차전(8월 16일 서울)=재일교포 1-0 성남고 △성남고=감독 박선오 및 최재봉(포수), 오갑수(중견수), 윤석균(尹錫均 1루수), 최완근(우익수겸 좌익수) 주창균(2루수), 강대길(姜大吉 좌익수), 김광철(金光哲 우익수), 이건철(李建哲 유격수), 김윤겸, 황석균(黃錫均 이상 투수), 신하섭(申夏燮 3루수)</p> <p>▲5차전(8월 18일 서울)=재일교포 4-3 경기공고 △경기공고=감독 오윤환 및 김정식(유격수), 이규석(李揆錫 3루수), 이수웅(1루수), 홍광표(洪光杓 우익수) 황석중(포수), 최병만(좌익수), 우종국(禹鍾國), 김영일(이상 투수), 박광중(朴光鍾 대타), 황갑순(중견수) 임동규(林東圭 2루수), 한욱(韓旭 대타)</p> <p>▲6차전(8월 20일 서울)=재일교포 1-0 중앙고 △중앙고=감독 이조영 및 유대영(중견수), 조윤식(유격수), 김길수(金吉洙 1루수), 이원호(李元浩 포수), 정동건(鄭東建 3루수), 이원국(투수), 이창구(李昌九 좌익수), 공성세(우익수), 신종문(2루수)</p> <p>▲7차전(8월 22일 서울)=재일교포 5-3 휘문고 △휘문고=감독 임두호 및 박종무(朴鍾武 우익수겸 중견수), 김원배(金源培 3루수겸 2루수), 임성호(任性鎬 포수), 백완용(3루수겸 3루수), 김택진(金澤鎭 투수) 김양수(金良洙 1루수), 박종우(朴鍾祐 중견수), 박재원(朴在元 우익수), 김철(金徹), 김풍삼(金豊三 이상 유격수), 강희득(姜熙得 좌익수)</p> <p>▲8차전(8월 22일 서울)=재일교포 8-3 동대문상고 △동대문상고=감독 김진용(金振用) 및 전이현(全以賢 3루수), 김진성(金振聲 유격수), 임칠수(林七洙 포수), 지희삼(1루수), 어윤집(좌익수), 한경복(韓慶福 우익수), 윤세영(尹世榮 투수), 김대환(중견수), 조옥상(趙玉相 대타), 김용필(金容弼 2루수), 장효영(투수겸 우익수), 오영민(吳永敏 대타)</p> <p>▲9차전(8월 23일 서울)=재일교포 1-1 배문고 △배문고=감독 이인규(李仁奎) 및 위만환(중견수), 이정남(李正男 좌익수), 신용운(유격수), 김대환(1루수겸 우익수), 이도준(우익수), 김인식(투수겸 1루수), 김기성(金基成 3루수), 김창원(우익수), 이지찬, 박완기(이상 2루수), 서항석(1루수), 박해원(1루수겸 투수), 엄영수(포수)</p> <p>▲10차전(8월 27일 대구)=재일교포 14-4 대구공고</p> <p>▲11차전(8월 27일 대구)=재일교포 8-3 대구상고 △대구상고=감독 서영무 및 신호식(3루수), 이정웅(李正雄 중견수), 현성철(玄聖哲 2루수), 김영생(우익수) 김동양(金東昂 투수), 서광렬(徐光烈 1루수), 최창우(崔昌友 좌익수), 이천길(포수), 이광환(李廣煥 우익수)</p> <p>▲12차전(8월 29일 부산)=재일교포 4-0 경남상고</p> <p>▲13차전(8월 29일 부산)=재일교포 7-1 경남고</p> <p>▲14차전(8월 31일 부산)=재일교포 7-3 부산상고 부산상고=감독 백기수 및 장광주(3루수), 장정호(우익수), 강병철(유격수), 강성환(투수겸 중견수), 김영언(포</p>	 <p>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재일교포-경동고의 경기. 경동고는 2년생 투수 이충순(李充淳)을 마운드에 세워 재일교포 공략에 나섰다지만 역부족, 1-2로 패했다(이상 이충순 전 한국전력 투수 제공)</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수), 윤광부(중견수겸 투수), 박행남(좌익수), 김동수(1루수), 윤병철(尹炳哲 2루수), 강병숙(姜秉淑 대타), 이국건(2루수겸 유격수)</p> <p>▲15차전(8월 31일 부산)=재일교포 4-5 부산공고 △부산공고=감독 장태창 및 김정호(金貞昊 중견수) 이건식(좌익수), 손병창(2루수), 김명성(투수), 하병훈 임태호(林泰好 이상 1루수), 손진철(3루수), 이기태(포수), 임홍연(林洪連 유격수), 이봉(우익수)</p> <p>▲16차전(9월 1일 마산)=재일교포 5-1 마산상고 △마산상고=감독 허두(許斗) 및 김유성(金遺成 포수), 김영현(金永鉉 중견수), 정성국(鄭成國 투수겸 우익수), 전성욱(유격수), 이승제(李昇諸 1루수), 전수웅(田秀雄 2루수), 최재출(崔載出 좌익수), 오을룡(吳乙龍 3루수), 김차열(金次烈 우익수겸 투수)</p>	
08.21	<p>■일본 지바겐선발초청 한·일친선고교대회 대한야구협회 초청으로 일본 지바겐(千葉縣)고교선발팀이 8월 20일 서북항공기(NWA) 편으로 내한, 9월 21일부터 9월 6일까지 대구, 부산, 서울에서 국내 고교 팀들과 13차전을 가진 끝에 10승3패를 기록</p> <p>▲1차전(8월 21일 대구)=지바 선발 9-2 대구상고 ▲2차전(8월 22일 부산)=지바선발 10-1 부산공고 ▲3차전(8월 23일 부산)=지바선발 10-5 경남상고 ▲4차전(8월 23일 부산)=지바선발 7-5 부산선발 ▲5차전(8월 26일 서울)=지바선발 7-2 경기공고 ▲6차전(8월 27일 서울)=지바선발 8-1 청량중고 ▲7차전(8월 29일 서울)=지바선발 6-3 배문고 ▲8차전(8월 30일 서울)=지바선발 5-0 휘문고 ▲9차전(8월 30일 서울)=지바선발 1-3 성남고 ▲10차전(9월 4일 서울)=지바선발 3-0 선린상고 ▲11차전(9월 4일 서울)=지바선발 3-4 서울선발 ▲12차전(9월 5일 서울)=지바선발 3-1 경동고 ▲13차전(9월 6일 서울)=지바선발 2-3 서울선발</p>	
09.04	<p>■제45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대한체육회 주최로 9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인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 고등부에서 마산상고(경남)와 성남고(서울)가 공동 우승, 대학부에서도 동아대(부산)와 경북대(경북)가 공동 우승, 일반부도 해군헌병감실(경남)과 제일은행(서울)이 공동 우승</p> <p>▲고등부 3회전=대전고(충남) 0-11마산상고(경남), 부산공고(부산) 0-5 성남고(서울) ▲동 결승전=우천으로 마산상고(경남)와 성남고(서울) 공동 우승</p> <p>▲대학부 1회전=동아대(부산) 3-0 성균관대(서울), 전남대(전남) 3-4 경북대(경북) ▲동 결승전=우천으로 동아대(부산)와 경북대(경북) 공동 우승</p> <p>▲일반부 2회전=한국전력(부산) 4-5 제일은행(서울), 해군헌병감실(경남) 3-2 경북도청(경북) ▲동 결승전=우천으로 해군헌병감실(경남)과 제일은행(서울)이 공동 우승</p>	<p>■09.01 일본 최초 메이저리거 탄생 일본 호세이(法政)대 제2고교 출신으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입단한 투수 무라카미 마사노리(村上 雅則). 2년 동안 54경기에 등판, 5승1패9세이브를 기록</p> <div data-bbox="970 1659 1474 2011" data-label="Image"> </div> <p>제45회 전국체육대회(인천) 식전 행사로 열린 여고생들의 매스 게임</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중학부(연식) 1회전=경상중(경북) 1-0 동인천중(경기), 청주중(충북) 0-1 경남중(부산) ▲동 결승전=우천으로 경상중(경북)과 경남중(부산) 공동 우승</p> <p>▲일반부(연식) 1회전=재일교포(추첨 승) 1-1 인천시청(경기), 유원산업(경남) 1-3 대전시청(충남) ▲동 결승전=우천으로 재일교포와 인천시청(경기) 공동 우승</p>	
09.12	<p>■제1회 실업야구 올스타전 실업야구연맹 주최로 9월 12일부터 실업단과 금용단이 실업야구 올스타 1~3차전을 개최, 9월 18일 끝난 3차전에서 실업단이 3전 전승으로 우승</p> <p>▲1차전(9월 12일)=실업단 2-1 금용단 ◇개인상 △수훈선수상=오덕환(실업) △우수투수상=신용균(실업) △감투상=김성근(금용) △승리투수상=김청옥(실업) △타격상=김희련(금용 .667)</p> <p>▲2차전(9월 13일)=금용단 1-5 실업단 ◇개인상 △수훈선수상=정병섭(실업) △우수투수상=김설권(금용) △승리투수상=신용균(실업) △감투상=하갑득(금용) △훈련상=김응룡(실업) △타격상=배수찬(금용 .500)</p> <p>▲3차전(9월 18일)=금용단 0-4 실업단 ◇개인상 △수훈선수상=박정일(실업) △승리투수상=신용균(실업) △우수투수상=김인식(실업) △감투상=김영빈(금용) △타격상=윤경호(실업 .750) △훈련상=박정일(실업) △감독상=강대중(실업)</p> <p>◇실업단=성기영 김희만(이상 2루수), 오춘삼(3루수), 정연회(대타), 안두칠(3루수), 박영길(좌익수겸 우익수), 최화용(좌익수), 김응룡(1루수), 김영덕(우익수겸 투수), 오덕환(우익수겸 좌익수), 남길상(南吉相 대타), 이재환, 박정일(이상 유격수), 강병철, 황성록(이상 2루수), 김삼용, 윤경호(이상 중견수), 정병섭, 이박(이상 포수) 이광근(대타), 신용균, 김소식, 남창희, 이선덕, 김청옥(이상 투수)</p> <p>◇금용단=한동화(2루수), 하갑득(2루수겸 대타), 김희련(3루수), 김중(대타), 박하일(3루수), 배수찬(우익수) 박현식(좌익수), 진원주(좌익수겸 대타), 조원일(우익수), 이건웅, 이재환, 이재우(이상 유격수), 김금현, 최정승, 심익일, 정동진(이상 포수), 하일(유격수), 김점생 황종태(이상 1루수), 김영빈(중견수), 김태령(대타겸 중견수), 김설권(투수), 백수웅(투수겸 대타), 김성근, 유백만, 유영수(이상 투수)</p>	
09.16	<p>■제18회 전국지구별초청 고교쟁패전 서울시예선 동아일보사 주최로 9월 16일부터 서울시 고교 13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9월 23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성남고가 동대문상고를 2-0으로 꺾고 우승</p> <p>▲준결승전=동대문상 6-3 배문고, 성남고 3-0 경동고 ▲결승전=성남고 2-0 동대문상 ◇개인상 ▲우수상=김윤겸(성남고 투수) ▲감투상=</p>	<p>동도공고-이대부고 5회초 1사 주자 2, 3루에서 동도공고 9번 변종환의 3유간 땅볼을 3루수가 1루로 악송구, 3루 주자 김기준에 이어 2루 주자 김재일까지 홈인.</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장효영(동대문상고 투수) ▲타격상=어윤집(동대문상고 좌익수 .462) ▲최다량 안타상=전이현(동대문상고 3루수 7안타)	
09.23	■ 고순선(高順先), 실업야구 첫 Perfect Game 크라운맥주 투수 고순선이 상은구장(서울 수유리)에서 열린 대통령배정탈 전국실업연맹전에서 철도청 27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탈삼진6, 내야 땅볼8, 내야 플라이4, 외야 플라이7, 파울 플라이 2개로 1시간 36분 만에 실업야구 최초로 Perfect Game(1-0)을 수립	
09.24	■ 제11회 전국중학선수권대회 대한연식야구협회 매일신문사 공동 주최로 9월 24일부터 전국 중학 17개 팀(동대문, 성동, 배문, 배명, 성남, 선린, 휘문, 경상, 대구, 오성, 성광, 대신, 부산 동성, 동산, 충남, 전주남, 마산중)이 출전한 가운데 대구 종합경기장에서 개최, 9월 30일 끝난 결승전에서 경상중이 배문중을 3-0으로 물리치고 우승 ▲준결승전=경상중 1-0 선린중, 배문중 1-0 대신중 ▲결승전=배문중 0-3 경상중 ◇개인상 ▲우수상=한장철(경상중 투수) ▲감투상=염태웅(배문중 투수) ▲타격상=김찬식(선린중 투수 .455) ▲미기상=김우열(선린중 3루수) ▲감독상=박창룡(경상중 감독)	
09.24	■ 한장철(韓章哲), 중학 두번째 퍼펙트 게임 대구 경상중 투수 한장철이 대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1회 전국중학선수권대회 첫 날 3시부터 시작된 세 번째 경기에서 서울 성동중 27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탈삼진 13개를 결들이며 무안타, 무실점, 무실책으로 호투한 끝에 6-0으로 중학야구 사상 두번째로 퍼펙트(Perfect Game) 게임 수립	
09.25	■ 김영덕(金永德), 실업야구 Perfect Game 수립 해운공사 투수 김영덕이 상업은행구장에서 열린 대통령배정탈 전국실업연맹전에서 조흥은행 27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삼진 5개를 잡고 8회 말에는 3점 홈런까지 터트려 11-0으로 실업야구 두 번째 Perfect Game(퍼펙트 게임) 수립	
09.27	■ 여자연식친선경기 인천연식야구협회 초청으로 서울대 사범대여자야구 팀과 서울여대 야구 팀이 9월 27일 인천종합운동장에서 맞 대결, 서울여대가 서울사대에 6-1로 승리	
09.29	■ 제18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대한야구협회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9월 29일부터 경남고, 부산공고, 대구상고, 광주일고, 전주상고, 대전고, 세광고, 춘천고, 동인천고, 인천고, 마산상고, 경동고, 동대문상고, 배문고, 성남고, 선린상고 등 16개 팀이 출전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5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성남고가 마산상고를 2-1로 누르고 우승</p> <p>▲준결승전=마산상고 3-1 선린상고, 성남고 4-0 경동고 ▲결승전=성남고 2-1 마산상고</p> <p>◇개인상 ▲우수상=김윤겸(성남고 투수) ▲감투상=김차열(마산상고 투수) ▲타격상=김차열(.385) ▲미기상=최재출(마산상고 좌익수)</p> <p>△성남고=감독 박선오 및 최재봉(포수), 오갑수(중견수), 윤석균(1루수), 최완근(우익수겸 좌익수), 주창균(2루수), 강대길(좌익수), 김광철(우익수), 이건철(유격수), 김윤겸, 황석균(이상 투수), 신하섭(3루수)</p> <p>△마산상고=김유성(포수), 전수웅(2루수), 김차열(투수겸 우익수), 전성욱(유격수겸 3루수및 우익수), 정성국(우익수겸 투수), 이승제(1루수), 오을룡(3루수), 고상원(高相元 유격수), 최재출(좌익수), 김영현(중견수)</p>	 <p>광주일고-성남고의 1회전 1회말 성남고의 오갑수가 광주일고의 포수 실책을 틈타 홈인하고 있다.</p>  <p>동아일보사가 제작한 제18회 전국지구별 초청고교쟁패전 본선 출전 기념 버클</p> <p>■ 10.08 IOC위원에 이상백(李相佰)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올림픽 총회에서 4년 만에 한국의 새 IOC위원으로 대한올림픽위원장 이상백 박사를 선임</p>
10.06	<p>■ 제19회 전국대학선수권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 경향신문사 후원으로 10월 6일부터 성균관, 연세, 경희, 고려, 동아, 한양, 동국대 등 7개 대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11일 열린 결승전에서 연세대가 동아대를 3-2로 제치고 3년 만에 우승</p> <p>▲패자 준결승전=고려대 5-4 경희대 ▲승자 결승전=연세대 3-2 동아대 ▲패자 결승전=동아대 3-0 고려대 ▲최종 결승전=연세대 3-2 동아대</p> <p>◇개인상 ▲우수선수상=김창진(연세대 투수) ▲미기상=김원영(金元永 경희대 좌익수) ▲타격상=김양남(金良男 고려대 중견수 .467) ▲홈런상=김충남(金忠男 연세대 우익수) ▲감독상=정태수(鄭泰守 연세대 감독)</p>	<p>■ 10.10 제18회 도쿄(東京)올림픽대회</p>  <p>제18회 올림픽대회가 10월 10일 오후 1시 94개 국에서 6천5백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개막</p>
10.06	<p>■ 제10회 NBC배쟁탈 전국선수권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10월 6일부터 한국전력, 해운공사, 상업은행, 제일은행, 육군, 해군헌병감실, 철도, 조흥은행, 서울시청, 기업은행, 크라운맥주, 농협 등 12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1월 9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한국전력이 해운공사를 6-3으로 물리치고 우승</p> <p>▲준결승전=상업은행 1-2 해운공사, 한국전력 3-0 서울시청 ▲결승전=한국전력 6-3 해운공사</p> <p>◇개인상 ▲우수선수상=박영길(한국전력) ▲감투상=김영덕(해운공사) ▲미기상=구상문(서울시청) ▲타격상=김금현(상업은행 .690) ▲홈런상=김영덕(해운공사) 박현식(제일은행) ▲감독상=김계현(한국전력) ▲대표자상=박영준(朴英俊 한국전력 사장)</p> <p>△한국전력=감독 김계현 및 김원렬(우익수), 윤명수(2루수), 정연회(중견수), 최정상(포수), 박인규(유격수), 한을룡, 이중원(이상 1루수), 이철화(3루수), 김봉연(金奉鍊), 장순조, 곽상령(郭相令), 이기원(李琪源 이상 투수)</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10.21	<p>■ 전국대학추계연맹전 전국대학야구연맹 주최,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10월 21일부터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동아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 8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25일 열린 최종일 경기에서 성균관대가 고려대를 3-2로 꺾고 3승1무1패로 경희대와 공동 우승 ◇개인상 ▲우수선수상=신동렬(성대 투수) 허경조(경희대 투수) ▲감투상=김병수(한대 포수) ▲타격상=이수한(성대 포수)</p>	<p>■ 10.15 카디널스, 월드시리즈 우승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월드시리즈 7차전에서 뉴욕 양키스를 7-5로 누르고 1946년 이후 첫 우승. 양키스가 월드시리즈에서 2년 연속 고배를 든 것은 1921~22년에 이어 2번째</p>
10.23	<p>■ 서울시고교야구연맹 창립기념대회 서울시고교야구연맹 주최로 10월 23일부터 서울시 17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1월 22일 열린 A 조 결승전에서 성남고가 중앙고를 3-0으로 꺾고 우승 ▲A조 결승전=성남고 3-0 중앙고 ▲B조 결승전=장충고 1-0 서울상고 ◇개인상 ▲우수상=A조 김윤겸(성남 투수), B조 김호(金浩 장충 투수) ▲감투상=A조 이원국(중앙 투수), B조 김종수(金中洙 서울상 투수) ▲타격상=A조 김광훈(金光薰 배재 중견수 .500), B조 이규성(李圭成 장충 중견수 .500) ▲최다량 안타상=A조 오갑수(성남 중견수 8안타), B조 윤혁(尹赫 서울 투수 9안타)</p>	
10.27	<p>■ 전미대학선발 초청 한-미친선대학대회 대한야구협회 초청으로 도쿄(東京) 올림픽대회 시범경기에 출전했던 전미대학야구단이 내한, 10월 27~29일 전서울선발 및 전서울대학선발, 전서울실업선발, 주한미군선발 팀과 4차례 경기를 개최, 전미대학선발 팀이 3승1패를 기록 ▲1차전(10월 27일 서울)=전미대학선발 4-2 전서울선발 ▲2차전(10월 28일 서울)=전미대학선발 8-3 전서울대학선발 ▲3차전(10월 28일 서울)=전미대학선발 6-8 전서울실업선발 ▲4차전(10월 29일 서울)=전미대학선발 6-1 주한미군선발</p>	 <p>전미대학선발 팀과 경기에 앞서 페넌트를 교환한 양쪽 대표들. 왼쪽에서 5번째가 전의용(全義鎔) 대한야구협회장</p>
10.31	<p>■ 이원국(李源國),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중앙고 투수 이원국이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시고교야구연맹 창립기념대회에서 배문고 28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삼진 12개를 탈취하고 볼넷 1개만을 허용한 끝에 1-0으로 No Hit No Run 수립</p>	
11.18	<p>■ 김호(金浩),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기록 장충고 투수 김호가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시고교야구연맹 창립기념대회 B조 을부 동도공고전에서 4-0으로 No Hit No RUN 기록</p>	
11.22	<p>■ 김윤겸(金允謙),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기록 성남고 투수 김윤겸이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제4회 서</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울시고교연맹창립기념대회 A조 최종 결승전에서 중앙고 26타자를 상대로 삼진 10개를 잡고 볼넷 1개만을 허용한 끝에 3-0으로 No Hit No Run 기록</p>	
12.19	<p>■ 상업은행야구단 필리핀 첫 원정경기 상업은행야구단이 필리핀야구협회 초청으로 12월 16일 출국, 12월 19일부터 27일까지 6차전을 치른 끝에 6전 전승을 기록 ▲1차전(12월 19일)=상업은행 2-0 칸루방 슈거 바론스 ▲2차전(12월 21일)=상업은행 3-0 극동대학 ▲3차전(12월 22일)=상업은행 5-0 3군선발 ▲4차전(12월 24일)=상업은행 8-1 토지등기소 ▲5차전(12월 26일)=상업은행 3-2 극동대학 ▲6차전(12월 27일)=상업은행 5-1 칸루방제당 ◇상업은행야구단 ▲단장=구연범(具然範) ▲고문=오윤환 ▲감독=장태영 ▲주무=김하봉(金河鳳) ▲투수=유백만, 김설권, 김태령, 김영덕(해운공사) ▲포수=김금현, 정병섭(해운공사), 조광호 ▲내야수=황종태, 이희수, 김영민, 김충, 하일 ▲외야수=박상열, 박병선, 김영빈, 조원일, 장정부</p>	 <p>상업은행을 주축으로 한 필리핀 원정야구단이 리잘 공원에서 기념 사진을 찍었다.</p>
12.19	<p>■ 대한연식야구협회 대의원 총회 대한연식야구협회가 12월 19일 협회 사무실에서 대의원 총회를 열고 현 집행부를 유임시키고 신임 이사와 감사를 보선 ▲회장=김세영 ▲부회장=신창근, 이봉근 ▲전무이사=이규태(李圭泰) ▲총무이사=박응주(朴應柱) ▲재무이사=조병주(曹秉周) ▲경기이사=이삼봉 ▲섭외이사=유재봉 ▲이사=이병수(李炳秀), 유호창(柳浩昌 이상 유), 안강희, 김명배, 태성범(太聖範 이상 신) ▲감사=김종해(유임), 송병하(宋炳燮 신)</p>	
1965. 01.01	<p>■ 상업은행야구단 자유중국 첫 원정경기 자유중국(대만)야구협회 초청으로 12월 31일 대만 타이베이에 도착한 상업은행야구단은 1월 1일 협동은행팀을 2-1로 꺾은 뒤 1월 4일 벌어진 마지막 경기에서 대만전력공사 팀을 1-0으로 물리치고 8전 8승을 기록</p>	
01.10	<p>■ 제7회 이영민 타격상 김영생(金榮生) 수상 대한야구협회가 1월 10일 상오 10시 신문회관에서 64년도 전국 규모 3개 대회에서 평균 타율 0.343을 기록한 대구상고 투수 김영생에게 제7회 이영민 타격상을 수여</p>	<p>■ 01.10 김기수(金基洙) 챔프 등극 1월 10일 밤 일본 고라쿠엔(後樂園) 링에서 벌어진 프로 권투 미들급 동양선수권 쟁탈전에서 가이즈(海)를 6라운드에서 KO로 눕히고 타이틀 획득</p>
01.25	<p>■ 대한해운공사 야구단 해체 대한해운공사가 재정적인 애로와 국영 기업체 감원 문제로 야구단 해체를 결정</p>	
03.29	<p>■ 서울시고교 춘계리그 서울시고교야구연맹 주최로 3월 29일부터 서울시 18</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A, B조로 나누어 개최, 4월 27일 열린 결승전에서 동대문상고가 10회 연장전 끝에 청량중고를 2-1로 누르고 우승 ▲결승전=동대문상 2-1 청량중고 ▲3, 4위전=경동고 2-1 중앙고 ◇개인상 ▲우수상=윤세영(尹世英 동대문 투수) ▲감투상=김재화(金在和 청량 투수) ▲타격상=공성세(孔聖世 중앙 우익수 .563) ▲최다량 안타상=공성세(9안타)</p>	<p>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p>
<p>04.02</p>	<p>■ 서울시중학준계리그 대한연식야구협회 주최로 4월 2일 서울시 16개 중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휘문중과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4월 28일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결승전에서 배문중이 장충중을 꺾고 우승 ▲A조 결승전=배문중 4-2 선린중 ▲ B조 결승전=장충중 2-1 동대문중 ▲최종결승전=배문중</p>	<p>■ 04.09 세계 최초 애스트로 돔 개장 1962년 창단한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3년 뒤 세계 최초로 전천후 애스트로 돔을 건설하여 4월 9일 뉴욕 양키스와의 시범경기에 맞춰 개장, 1999년 시즌을 끝으로 폐장</p>
<p>04.14</p>	<p>■ 제15회 백호기쟁탈 전국군·실업쟁패전 대한야구협회 경향신문사 공동 주최로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9개 팀(상업은행, 제일은행, 한국전력, 육군, 기업은행, 해병대, 크라운맥주, 철도청, 농협)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예선리그를 개최,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벌어진 결승리그에서 기업은행, 상업은행, 농협, 크라운맥주이 각축전을 벌인 끝에 크라운맥주가 4전 3승1무로 첫 우승 ◇결승리그 순위=①크라운맥주(3승1무) ②농협(2승1무1패) ③기업은행, 상업은행(이상 2승2패) ◇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영덕(크라운 투수) ▲우수선수상=정병섭(크라운 포수) ▲감투상=이선덕(농협 투수), 유백만=상은 투수) ▲타격상, 최다 안타상, 최다 득점상=최홍길(기은 2루수 12타수 5안타 5타점 타율 0.417) ▲미기상=하일(상은 유격수) ▲본루타상=정병섭, 박정일, 성기영(이상 크라운), 김윤겸(상은) ▲감독상=강대중(크라운 감독) ▲공로상=홍순칠(洪淳七 크라운 단장) △크라운맥주=감독 강대중 및 오덕환(중견수), 성기영(2루수), 박정일(유격수), 김응룡(1루수), 정병섭(포수), 오형섭(4루수), 신용균(대타겸 좌익수), 강병철(3루수), 배재호(우익수), 추민엽, 정효식(이상 좌익수겸 우익수), 정찬성(우익수), 김영덕, 김인식, 김석기(이상 투수)</p>	<div data-bbox="970 855 1474 1115" data-label="Image"> </div> <p>제15회 전국군·실업쟁패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크라운맥주 선수들이 강대중 감독을 행가래치고 있다.</p> <div data-bbox="970 1339 1474 1975" data-label="Image"> </div>
<p>04.15</p>	<p>■ 김설권(金雪權),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상업은행 투수 김설권이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제15회 백호기쟁탈 전국군·실업쟁패전에서 제일은행 27타자를 상대로 무안타 무실점 끝에 3-0으로 No Hit No Run 기록</p>	
<p>04.16</p>	<p>■ 제12회 인천4도시초청고교대회 인천신문사가 대회를 인수,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인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경남고가</p>	<p>내한 전적 14전13승1패를 기록한 다이쇼 와제지와 국내 대학및 실업 팀이 주고 받은 각종 페넌트.</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우승한 가운데 폐막	
05.01	<p>■ 다이쇼와(大昭和)제지초청 한·일친선대회 대한야구협회 초청으로 5월 1일부터 서울을 비롯해 인천, 대구, 부산을 돌며 국내 대학(성균관, 연세대) 및 실업 팀과 14차전을 개최, 5월 15일 열린 고별전에서 금융선발을 5-3으로 꺾고 내한 전적 13승1패를 기록</p> <p>▲1차전(5월 1일 서울)=다이쇼와제지 5-1 기업은행 ▲2차전(5월 2일 서울)=다이쇼와제지 7-2 성균관대 ▲3차전(5월 2일 서울)=다이쇼와제지 7-0 농협 ▲4차전(5월 4일 서울)=다이쇼와제지 3-1 해병대 ▲5차전(5월 5일 인천)=다이쇼와제지 7-5 전인천 ▲6차전(5월 6일 서울)=다이쇼와제지 9-0 육군 ▲7차전(5월 8일 서울)=다이쇼와제지 18-1 연세대 ▲8차전(5월 8일 서울)=다이쇼와제지 3-0 상업은행 ▲9차전(5월 9일 서울)=다이쇼와제지 1-0 상업은행 ▲10차전(5월 9일 서울)=다이쇼와제지 1-3 크라운맥주 ▲11차전(5월 11일 대구)=다이쇼와제지 11-4 제일은행 ▲12차전(5월 12일 부산)=다이쇼와제지 8-1 한국전력 ▲13차전(5월 13일 부산)=다이쇼와제지 5-2 크라운맥주 ▲14차전(5월 15일 서울)=다이쇼와제지 5-3 금융선발</p>	 <p>다이쇼와제지와 맞붙은 10차전 8회말 크라운맥주 오덕환의 우익수 희생 플라이로 3루 주자 성기영이 슬라이딩으로 홈인하자 타석에 있던 정병섭이 세이프를 선언하고 있다.</p> <p>■ 05.05 메이스 내셔널리그 최다 홈런왕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홈런왕 윌리 메이스가 LA 다저스전에서 생애 512호 홈런을 날려 내셔널리그 사상 최다 홈런을 기록</p>
05.11	<p>■ 제2회 재향군인회장기쟁탈 전국국민학교대회 대한야구협회 재향군인회 공동 주최로 5월 11일부터 전국 각 시·도에서 16개 팀(대구 명덕, 서대전, 전주 중앙, 서울 장충, 여수 중앙, 부산 남부민, 진해 대야, 인천 서림, 대전 문창, 마산 무학, 춘천교대부곡, 서울 송례, 대구 신암, 인천 창영, 청주 중앙, 서울 동대문)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70닝 경기로 개최, 5월 14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인천 서림국교가 대구 신암국교를 5-3으로 물리치고 대회 2연패</p> <p>▲준결승전=무학 3-4 신암, 서대전 0-3 서림 ▲결승전=서림 5-3 신암</p> <p>◇개인상 ▲우수상=이병철(서림 투수) ▲감투상=박인식(신암 투수) ▲타격상=김지흥(신암 투수 .750) ▲홈런상=손광배(서대전 2루수) ▲미기상=박순철(서림 유격수) ▲장려상=조성재(무학 포수)</p>	
05.18	<p>■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대한실업야구연맹 주최로 5월 18일부터 전년도 우승 팀 기업은행을 비롯해 크라운맥주, 농협, 상업은행, 제일은행, 철도청, 육군, 한국전력 등 8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과 육군, 상은구장에서 개최, 10월 28일 5차리그를 통해 70일간 140경기(팀당 35경기)를 소화한 끝에 크라운맥주가 26승 9패로 우승</p> <p>◇종합 순위=①크라운맥주(26승9패) ②농협(21승1무13패) ③상업은행(19승3무13패), 기업은행(20승1무14패) ⑤제일은행(19승2무14패) ⑥한국전력(18승1무16패) ⑦육군(9승26패) ⑧철도청(4승31패)</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최관수(기업은행) ▲최다</p>	 <p>실업야구 개막 첫날 기업은행-농협 경기 8회초 주자 1루에서 기업은행 대타 최홍길이 땅볼로 병살.</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승리투수상=최관수(기업은행 15승8패) ▲우수선수상=김영덕(크라운맥주) ▲방어율우수투수상=유백만(상업은행 0.90) ▲최우수타격상=추민엽(크라운맥주 .366) ▲최다출루율상=추민엽(크라운맥주 .464) ▲최우수신인상=김인식(크라운맥주 9승2패, 방어율 1.49) ▲최다홈런상=김응룡(크라운맥주 8개) ▲최다타점상=진원주(제일은행 34점) ▲최다도루상=하갑득(농협 36개) ▲최우수감독상=강대중(크라운맥주 감독), 우수감독상=김영조(농협 감독)</p>	
05.24	<p>■ 전국대학춘계연맹전 전국대학야구연맹 주최,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동아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 8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30일 벌어진 최종일 경기에서 성균관대가 고려대를 2-1로 제치고 7전 전승으로 우승 ◇종합 순위=①성균관대(7승) ②경희대, 고려대(4승3패) ④연세대, 동아대(3승1무3패) ⑥한양대(3승4패) ⑦서울대(2승5패) ⑧동국대(1승6패) ◇개인상 ▲우수선수상=한광홍(성대 투수) ▲감투상=이관호(李寬鎬 서울대 투수) ▲미기상=조일수(曹日水 성대 좌익수) ▲타격상=①조일수(성대 좌익수 .425) ②이두호(李斗鎬 서울대 3루수 .388) ③한광홍(성대 투수 .368) ※추계연맹전은 주최측 사정으로 중지</p>	
05.28	<p>■ 제20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서울시예선 한국고교야구연맹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5월 28일부터 서울시 고교 17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성남고 운동장에서 개최, 6월 7일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결승전에서 동대문상고가 중앙고를 1-0으로 누르고 우승 ▲준결승전=중앙고 3-0 성남고, 동대문상 2-1 청량중고 ▲결승전=동대문상 1-0 중앙고 ◇개인상 ▲우수상=정순룡(鄭淳龍 동대문상 투수) ▲감투상=이원국(중앙고 투수) ▲타격상=김성섭(金星燮 청량중고 우익수 .583) ▲최다안타상=김유현(동대문상 중견수, 구본호(선린상 1루수 이상 10안타)</p>	
06.04	<p>■ 최관수(崔寬洙),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기업은행 투수 최관수(崔寬洙)가 용산 육군구장에서 열린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1차리그에서 철도청 27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탈삼진 8개에 볼넷 1, 도루 1개를 허용한 끝에 3-0으로 No Hit No Run 기록</p>	<p>■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 도입 메이저리그가 뉴욕 양키스의 전력 편향을 막기 위해 신인 드래프트 제도를 도입</p>
06.05	<p>■ 서울시여자대학춘계연맹전 서울시여자대학야구연맹 주최로 6월 5일부터 경희대, 서울대, 서울여대 등 3개 여대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대 운동장에서 더블 리그로 개최, 6월 10일 끝난 최종일 경기에서 서울여대가 서울대를 10-8로 물리치고 4전 전승으로 우승</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종합 순위=①서울여대(4승) ②경희대(1승1 무2패) ③서울대(1무3패)	
06.14	<p>■제20회 청룡기쟁탈 전국고교선수권대회 대한야구협회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6월 14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 17개 고교대표 팀(동대문상, 경남, 성남, 부산, 중앙, 인천, 대구공, 동산, 춘천, 대전, 광주일, 대구상, 청량중, 동인천, 마산상, 전주상, 부산상고)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22일 열린 최종 결승전에서 동대문상고가 중앙고를 5-0으로 꺾고 우승</p> <p>▲승자 준결승전=부산상 8-2 중앙고, 동대문상 7-1 성남고 ▲패자 준결승전=중앙고 4-1 성남고 ▲승자 결승전=동대문상 3-2 부산상(연장 11회) ▲패자 결승전=중앙고 7-2 부산상 ▲최종 결승전=동대문상 5-0 중앙고</p> <p>◇개인상 ▲우수상=정순룡(동대문상 투수) ▲감투상=이원국(중앙고 투수) ▲미기상=진길원(동대문상 우익수) ▲타격상=최창우(대구상 좌익수 .556) ▲지도상=김진용(동대문상 감독), 이조영(중앙고 감독)</p> <p>△동대문상고=감독 김진용 및 전이현(3루수), 김진성(유격수), 김유현(金裕鉉), 오영민(이상 중견수), 임철수(포수), 백길순(白吉淳 2루수), 진길원(우익수), 조옥상(1루수), 정순룡(투수), 한경복(좌익수)</p>	 <p>동대문상-중앙고의 결승전 6회초 동대문 임철수(22번)의 적시타로 3루 주자 김진성이 홈인, 추가점을 올려 5-0으로 중앙고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p>
06.19	<p>■제8회 문교부장관기쟁탈 전국중학초청대회 대한연식야구협회 주최로 6월 19일부터 전국 각 시도 15개 중학 팀(천안북, 전남, 대신, 동인천, 광희, 경남, 인천남, 선린, 김천, 성광, 배문, 충남, 동성, 장충, 성남중)이 출전한 가운데 김천중 운동장에서 개최, 6월 24일 열린 결승전에서 11회 연장전에서 신근식(申根植)이 터트린 만루홈런으로 배문중이 장충중을 6-2로 물리치고 우승</p> <p>▲준결승전=장충중 1-10 성남중(몰수 게임 패), 선린중 6-7 배문중(연장 13회) ▲결승전=배문중 6-2 장충중(연장 11회)</p> <p>◇개인상 ▲우수상=신근식(배문중 투수) ▲감투상=박남수(朴南洙 장충중 투수) ▲타격상=김원철(金元哲 선린중) ▲미기상=김성배(金聖培 천안북중) ▲감독상=박환근(朴桓根 배문중)</p>	 <p>조선일보사가 제작한 제20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출전 기념 버클</p>
06.22	<p>■김윤겸(金允謙),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기록 상업은행 투수 김윤겸(金允謙)이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2차리그에서 철도청 27타자들을 상대로 신인 최초 No Hit No Run 기록</p>	<p>■06.22 한·일협정 체결 한국 외무장관 이동원(李東元), 한·일회담 수석대표 김동조(金東祚)와 일본 외무장관 시나이(推名 悅三), 수석대표 다카스키(高杉 晋一) 사이에 조인</p>
06.26	<p>■제5회 문교부장관기쟁탈 전국4도시선발고교대회 경북야구협회 매일신문사 공동 주최로 6월 26일부터 경동, 성남, 동산, 경남, 부산, 대구공, 대구상고 등 7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대구공설운동장에서 토너먼트</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트로 개최, 6월 28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대구상고가 7-3으로 성남고를 꺾고 우승 ▲준결승전=대구상 11-3 부산고, 성남고 6-3 경남고 ▲결승전=대구상 7-3 성남고 ◇개인상 ▲우수선수상=최종기(崔宗基 대구상 투수) ▲감투상=이종범(李鐘範 성남고 투수) ▲미기상=최창형(崔昌滢 대구상 우익수) ▲감독상=김재수(金在守 대구상 감독)</p>	
06.30	<p>■제8회 전국4도시초청고교대회 부산일보사 주최로 6월 30일부터 동대문상고, 동인천고, 대구상고, 부산상고, 부산고 등 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 7월 4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부산고가 7-2로 동대문상고를 물리치고 우승 ▲3, 4위 결정전=부산상고 2-1 동인천고 ▲결승전 부산고 7-2 동대문상고 ◇개인상 ▲우수선수상=진걸(陳傑 부산고) ▲타격상=김철오(金哲五 부산고 .538) ▲미기상=임철수(동대문상) ▲감투상=이재원(부산고) ▲지도상=박내용(부산고)</p>	<p>■06.30 大韓體育會史 발간 대한체육회가 한국 체육의 요람기로부터 조선체육회시대, 해방후 20년간의 체육행정과 경기 등을 집대성한 대한체육회사(大韓體育會史)를 편찬, 6월 30일 4x6배판 850쪽으로 2,000권을 발간, 배매품</p>
07.01	<p>■제11회 서울시중학선수권대회 한국중고야구연맹 주최로 7월 1일부터 서울시내 9개 중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7월 5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배문중이 15회 연장전 끝에 선린중을 1-0으로 제치고 우승 ▲준결승전=선린중 5-0 광희중, 배문중 1-0 성남중 ▲결승전=배문중 1-0 선린중(15회) ◇개인상 ▲우수상=염태웅(廉泰雄 배문중 투수) ▲감투상=박춘건(朴春建 선린중 투수) ▲타격상=최영식(崔永植 성남중 좌익수 .625)</p>	
07.04	<p>■일본 게이오(慶應)대초청경기 대한야구협회 초청으로 7월 3일부터 국내 대학및 실업 팀과 서울운동장에서 8차전을 개최, 7월 12일 끝난 마지막 경기에서 농협을 3-1로 꺾어 내한 전적 6승2무를 기록 ▲1차전(7월 3일 서울)=게이오대 7-6 상업은행 ▲2차전(7월 4일 서울)=게이오대 5-5 성균관대(7회) ▲3차전(7월 4일 서울)=게이오대 4-2 크라운 ▲4차전(7월 6일 대전)=게이오대 11-6 한국전력 ▲5차전(7월 8일 서울)=게이오대 22-0 동아대(7회 콜드 게임) ▲6차전(7월 8일 서울)=게이오대 6-1 제일은행 ▲7차전(7월 11일 서울)=게이오대 4-4 대학선발 ▲8차전(7월 12일 서울)=게이오대 3-1 농협</p>	 <p>상업은행과의 첫 경기에 앞서 덕 아웃 앞에서 방한 기념 촬영을 한 게이오대 선수들.</p>
07.12	<p>■제9회 한-미친선대회 대한야구협회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7월 12일부터 미군 4개 팀(미제2사단, 미제7사단, 미제1군단, 미부평부대)과 한국 4개 팀(육군, 해병대, 농협, 크라운맥주) 등 8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p>	<p>■07.19 이승만 초대 대통령 사망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이 하와이 망명지에서 90세를 일기로 타계. 유해는 7월 23일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 이효상 국회의장 등 정부 요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입국, 가족장으로 국립묘지에 안장</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7월 18일 끝난 결승전에서 크라운맥주가 미제1군단을 8-2로 물리치고 우승 ▲준결승전=미1군단 4-1 해병대, 크라운맥주 5-1 미제7사단 ▲결승전=크라운맥주 8-2 미제1군단</p>	
07.28	<p>■제17회 쌍룡기쟁탈 전국고교대회 부산야구협회 국제신보사 공동 주최로 7월 28일부터 전국에서 16개 고교 팀(춘천농, 동대문상, 선린상, 성남, 장충, 중앙, 인천, 대전, 전주상, 대구공, 광주일, 마산상, 경남, 경남상, 부산, 부산상고)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 8월 2일 끝난 결승전에서 부산고가 장충고를 2-1로 제치고 우승 ▲준결승전=장충고 4-1 성남고, 부산고 6-1 선린상고 ▲결승전=부산고 2-1 장충고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진걸(부산고 투수) ▲감투상=김호(장충고 투수) ▲타격상=①김호관(金浩官 부산상고 좌익수 .500) ②이희수(李熙守 성남고 유격수 .417) ▲미기상=김철오(부산고 투수) ▲감독상=박내용(부산고 감독)</p>	
08.05	<p>■제10회 재일교포학생 모국방문환영대회 대한야구협회 한국일보사 공동 초청으로 8월 3일 광병득 코치 인솔로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 8월 5일부터 서울, 대구, 부산, 마산, 춘천, 인천 등지에서 17차전 끝에 10승3무4패를 기록 ◇교포선수단 ▲단장=권영섭(재일협회장) ▲총무=이용수(李庸洙 재일협회 이사) ▲감독=황덕룡(재일협회 이사) ▲매니저=곽병득(재일협회 이사) ▲투수=김박(金博 마츠도松戸고), 박수부(朴秀夫 히로시마廣島3고), 고광철(高光鐵 다이센大扇고), 권상태(權相泰 다나베田邊고), 이장춘(李長春 고노하나此花공고) ▲포수=이준오(李俊吾 후쿠오카福岡전파고), 손승길(孫勝吉 게이오京王고), 신성기(辛成基 주쿄中京상고) ▲내야수=윤성재(尹聖宰 와세다早稻田실업고), 권성국(權相國 츠루오카鶴田고), 박영수(朴永秀 마츠키松木상고), 김차준(金且俊 한다半田공고), 김영순(金榮淳 이마미야스宮공고) ▲외야수=오성룡(吳成龍 주쿄中京상고), 연제웅(延濟隆 주쿄中京상고), 이종성(李總星 이즈카飯塚고), 김용남(金龍男 나라시노齋志野고), 김진학(金鎭學 오사카大阪무역학원) ▲1차전(8월 5일 서울)=재일교포 2-3 동대문상고 △동대문상고=감독 김진용 및 전이현(3루수, 진길원(우익수), 백길순(2루수), 임철수(포수), 김유현(중견수) 정순룡(투수), 한경복(좌익수), 조옥상(1루수), 김진성(유격수) ▲2차전(8월 5일 서울)=재일교포 15-0 선린상고 △선린상고=감독 박종해 및 김태석(포수), 안계장(安啓 3루수), 김종명(2루수), 구본호(1루수), 박인묵(투수 겸 우익수), 이용순(李鎔淳 유격수), 조용택(趙庸澤 대타), 정재화(鄭在和 우익수), 양흥근, 신성규(申聖圭 이</p>	<div data-bbox="970 981 1331 1482" data-label="Image"> </div> <p>제10회 재일교포학생야구단 모국방문 환영대회 팸플릿 표지</p> <div data-bbox="970 1626 1473 1935" data-label="Image"> </div> <p>동대문상고와의 첫 경기에 앞서 열린 환영식에서 여학생이 재일교포 황덕룡 감독에게 꽃다발을 목에 걸어주고 있다.</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상 투수), 김한식(金漢植 우익수), 함병일(咸炳日 좌익수), 최광복(崔光復 중견수)</p> <p>▲3차전(8월 7일 서울)=재일교포 4-1 성남고 △성남고=감독 박상규 및 이희수(李熙守 유격수), 김상근(金相根 좌익수), 손병창(孫炳昌), 장진섭(張震燮 이상 2루수), 김광철(우익수), 이기조(포수), 안만길(安萬吉 3루수), 이종진(李種進 1루수), 한장철(투수), 정진구(鄭鎭邱 중견수)</p> <p>▲4차전(8월 8일 서울)=재일교포 7-4 중앙고 △중앙고=감독 이조영 및 이광환(유격수), 김길수(1루수겸 투수), 이원호(포수), 정동건(3루수), 이원국(투수겸 1루수), 공성세, 최영훈(崔英勳 이상 우익수), 이창훈(李昌勳 중견수), 김재철(金載澈 좌익수), 조성환(趙成桓 2루수)</p> <p>▲5차전(8월 10일 서울)=재일교포 9-0 성동고 △성동고=감독 백효득 및 주용국(3루수), 정두용(鄭斗鎔 유격수), 김용현(金容鉉 포수), 백대삼(白大三 투수겸 1루수 및 중견수), 서천웅(徐天雄 중견수겸 유격수), 장석원(張錫源 좌익수), 이준규(李俊珪 우익수), 이한식(李漢植 1루수겸 투수), 이지홍(李智弘 2루수)</p> <p>▲6차전(8월 10일 서울)=재일교포 1-6 장충고 △장충고=감독 신현철(申鉉哲) 및 이규성(李圭成 유격수), 이흥기(李弘基 중견수), 박찬호(朴贊鎬 2루수), 김희명(金熙明 1루수), 장연택(張連澤 우익수), 이인주(李仁周 3루수), 정성철(鄭聖喆 포수), 김호(투수), 최종혁(崔鍾赫 좌익수)</p> <p>▲7차전(8월 12일 서울)=재일교포 10-1 경동고 △경동고=감독 추연풍(秋淵豊) 및 김종호(金鍾浩 좌익수), 홍용의(洪用儀 2루수), 이용우(李龍雨 중견수), 이충순(투수), 최희영(崔熙英 포수), 김동훈(金東勳 3루수), 안준호(安俊鎬), 강완중(姜玩中 이상 1루수), 송재철(宋在哲 우익수), 박찬황(朴贊皇 유격수)</p> <p>▲8차전(8월 13일 서울)=재일교포 2-2 배문고 △배문고=감독 이인규 및 박완기(유격수), 김덕재(2루수), 이도준(좌익수), 김기성(3루수), 박해원(투수), 도중연(都重淵 우익수), 서항석(1루수), 김중환(포수), 박귀선(朴貴善 중견수)</p> <p>▲9차전(8월 14일 서울)=재일교포 0-0 청량중고 △청량중고=감독 김재복(金載福) 및 정창현(유격수), 전명훈, 김재홍(2루수), 안희진(포수), 이성대(李成大 중견수), 김성섭(3루수), 이광운(李光雲 우익수), 윤희준(좌익수), 장관수(1루수), 이동원(李東源 투수)</p> <p>▲10차전(8월 15일 서울)=재일교포 2-2 배명고 △배명고=감독 고원순 및 이휘영(李輝英 유격수), 이상근(李相根 3루수), 백상선(白相善 1루수), 유대원(劉大元 좌익수), 김인기(金寅基 중견수), 윤정현(尹晶鉉 2루수), 박병규(朴炳奎 우익수), 최남수(崔男洙 투수), 왕상균(王相均 포수)</p> <p>▲11차전(8월 17일 대구)=재일교포 4-1 대구상고 △대구상고=감독 강태정 및 이정웅(중견수), 도성세</p>	 <p>8월 5일 2차전에서 빈타에 허덕이던 선린상고는 재일교포 팀에 0-15로 참패를 당했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都聖世 유격수), 김정룡(2루수), 장영호(張永浩 3루수), 최창우(좌익수), 서광렬(徐光烈 1루수), 최창형(우익수), 이원석(李元石 2루수겸 유격수), 최종기(투수), 이천길(포수)</p> <p>▲12차전(8월 19일 부산)=재일교포 8-3 부산고 △부산고=감독 박내용 및 김철오(좌익수), 안효수(安孝秀 2루수), 최인희(崔仁熙 1루수), 진걸(투수겸 3루수), 이재원(포수), 오두환(吳斗煥 3루수겸 투수), 송윤엽(宋允燁 유격수), 이시형(李始炯 중견수), 손인철(孫寅哲 우익수)</p> <p>▲13차전(8월 20일 부산)=재일교포 3-0 경남상고 △경남상고=감독 최종을(崔仲乙) 및 김남윤(金南允 좌익수), 하병국(河炳國 중견수), 김준찬(金俊燦 유격수), 조문길(趙文吉 투수), 손태호(孫泰浩 2루수), 공철수(孔鐵秀 포수), 김상호(金相鎬 3루수), 김구호(金九浩 1루수), 김정길(金正吉 대타), 안기룡(安淇龍 우익수)</p> <p>▲14차전(8월 20일 부산)=재일교포 2-4 경남고 △경남고=감독 김무복(金武福) 및 고중구(高重久 좌익수), 안석인(安碩寅 유격수), 이기만(포수), 이철복(중견수), 최광수(3루수), 박종락(1루수), 박성배(朴成培 2루수), 팽광현(투수겸 우익수), 조홍기(趙洪基 우익수겸 투수)</p> <p>▲15차전(8월 21일 마산)=재일교포 3-2 마산상고 △마산상고=감독 고창렬 및 고상원(유격수), 정이수(우익수), 손효진(투수겸 1루수), 이승제(1루수겸 투수), 우남대(3루수), 정흥근(포수), 윤병찬(2루수), 박성택(중견수), 김정길(좌익수)</p> <p>▲16차전(8월 23일 춘천)=재일교포 6-0 춘천고 △춘천고=감독 이태우(李泰雨) 및 김응오(1루수), 송만수(2루수), 김원규(유격수), 박영호(우익수겸 포수), 최영(중견수), 이노택(포수겸 중견수), 천성환(투수), 원병흠(3루수겸 2루수), 장동윤(3루수), 박조영(좌익수)</p> <p>▲17차전(8월 25일 인천)=재일교포 2-4 인천선발</p>	 <p>인천운동장에서 열린 인천선발과의 17차전에 앞서 기념 페넌트를 교환하고 있다. 인천선발이 2-4로 패배</p>
08.08	<p>■ 김영덕(金永德), 노히트노런(No Hit No Run)① 크라운맥주 투수 김영덕이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4차리그에서 제일은행 27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탈삼진 없이 박현식에게 볼넷 1개 만을 허용한 끝에 3-0으로 No Hit No Run(노히트노런) 기록</p>	
08.18	<p>■ 제2회 실업야구 올스타전 대한실업야구연맹 주최로 8월 18일 실업야구가 금융단과 실업단으로 나누어 서울운동장에서 1차전을 거행한 뒤 강우로 8월 21~22일 2, 3차전을 개최, 실업단이 금융단을 2승1패로 물리치고 우승</p> <p>▲1차전(통산 4차전 8월 18일)=실업단 4-0 금융단 ◇개인상 △수훈선수상=박정일(크라운) △승리투수상=신용균(크라운) △우수투수상=김인식(크라운) △타격상=윤경호(한국전력 .750) △감투상=김영빈(농</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협) △감독상=강대중(크라운 감독) ▲2차전(통산 5차전 8월 21일)=실업단 4-5 금용단 ◇개인상 △수훈선수상=이재우(제일은) △승리투수상=김설권(상은) △우수투수상=김영덕(크라운) △타격상=김점생(기은 1,000) △감투상=정병섭(크라운) △감독상=김일배(제일은행 감독)</p> <p>▲3차전(통산 6차전 8월 22일)=금용단 0-1 실업단 ◇개인상 △수훈선수상=김태령(육군) △승리투수상=김영덕(크라운) △우수투수상=신용균(크라운) △타격상=진원주(제일은 .667) △감투상=오춘삼(육군) △감독상=허종만(육군 감독)</p> <p>◇금용단=감독 김일배(제일은) 코치 장태영(상은), 주무, 김양중(기은) 및 한동화(2루수), 하갑득(대타겸 2루수), 김희련(3루수), 김충(대타겸 3루수), 김점생(1루수), 박현식(좌익수겸 포수), 김영빈(중견수), 배수찬(우익수), 조원일(대주), 진원주(대타겸 좌, 우익수), 이재환, 이재우(이상 유격수), 심의일, 정동진(이상 포수), 최관수, 김성근, 김설권(이상 투수), 유백만(대타겸 투수)</p> <p>◇실업단=감독 강대중(크라운) 코치 허종만(육군), 주무, 정두영(철도) 및 오춘삼(3루수), 윤경호, 정연희(이상 중견수), 박영길(좌익수), 김응룡(1루수), 김태령, 추민엽(이상 우익수), 박정일(유격수), 강병철, 황성록, 유문식(이상 2루수), 정병섭, 이박(이상 포수), 신용균, 김인식, 김영덕, 김병기, 김영일, 곽상령(이상 투수)</p>	
08.28	<p>■ 후쿠오카(福岡)선발초청 한·일친선고교대회 대한야구협회 초청으로 8월 26일 일본 후쿠오카현선발고교팀이 내한,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서울운동장에서 국내 고교 팀과 8차례 친선경기를 가진 끝에 7승1무를 기록</p> <p>▲1차전(8월 28일 서울)=후쿠오카 11-0 장충고 ▲2차전(8월 29일 서울)=후쿠오카 2-1 성남고 ▲3차전(8월 29일 서울)=후쿠오카 9-0 동대문상고(6회 강우 콜드 게임) ▲4차전(8월 31일 서울)=후쿠오카 1-0 중앙고 ▲5차전(9월 1일 서울)=후쿠오카 1-1 인천선발 ▲6차전(9월 2일 서울)=후쿠오카 12-4 청량중고(8회 일몰 콜드 게임) ▲7차전(9월 5일 서울)=후쿠오카 6-0 인천선발 ▲8차전(9월 5일 서울)=후쿠오카 2-0 부산선발</p>	
08.31	<p>■ 박현식(朴賢植), 실업야구 첫 통산 100호 홈런 8월 31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실업야구 4차리그 14일째 제일은행-한국전력전 8회말 제일은행의 박현식이 솔로 홈런을 날려 통산 100호 홈런(비공식 집계) 달성</p>	<p>■ 08.30 최고령 감독 캐시 스텡겔 은퇴 올해 나이 75세로 내셔널리그 최고령 감독인 뉴욕 메츠의 캐시 스텡겔이 은퇴.</p>
09.15	<p>■ 제1회 대통령기쟁탈 전국대학초청대회겸 일본 파견 선수선발대회 대한야구협회 대한일보사 공동 주최로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성균관대, 동국대, 서울대, 한양대, 동아대, 경희대 등 6개 대학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p>	<p>■ 09.09 쿠팩스, 네번째 노히트노런 LA 다저스의 샌디 쿠팩스가 시카고 컵스를 상대로 자신의 4번째 노히트노런(1-0)을 기록</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장에서 개최, 9월 21일 연린 최종 결승전에서 한양대와 성균관대가 6-6으로 비겨 공동 우승</p> <p>▲승자 결승전=한양대 4-1 성균관대 ▲패자 결승전=성균관대 5-0 동국대 ▲결승전=성균관대 4-2 한양대 ▲최종 결승전=성균관대 6-6 한양대(공동 우승)</p> <p>◇개인상 ▲우수선수상=김동양(성균관대 투수), 전기만(한양대 투수) ▲타격상=한광홍(성균관대 투수 .450) ▲미기상=신윤섭(한양대 우익수) ▲감독상=이팔관(성균관대 감독), 차중덕(車重德 한양대 감독)</p> <p>△성균관대=감독 이팔관 및 한동수(유격수), 정영수 김광훈(金光薰 이상 우익수), 한광홍(투수겸 2루수), 이수한(포수), 조일수(좌익수), 고원일(高元一 1루수), 한태훈(韓泰勳 중견수), 송창일(宋昌一 2루수), 김동양(투수), 김종수(3루수)</p> <p>△한양대=감독 차중덕 및 유장언(劉長彦 1루수), 이재창(李在昌 2루수), 이창근(李昌根 좌익수), 신윤섭(申允燮 우익수), 조병렬(중견수), 조윤식(한양대), 김정일, 김수웅(金秀雄 이상 포수), 윤수명(尹秀明 3루수), 김형삼(金炯三 대타), 전기만(田基萬), 이행수(李幸壽 이상 투수), 위만환(3루수)</p>	<p>■09.13 윌리 메이스 500홈런 기록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윌리 메이스가 휴스턴 애스트로스전에서 홈런을 날려 멜 오프트(511), 테드 윌리엄스(526), 지미 팍스(534), 베이브 루스(714)에 이어 5번째로 500홈런을 기록</p> <p>■09.17 작곡가 안익태(安益泰) 별세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가 스페인에서 61세를 일기로 타계</p>
09.21	<p>■제11회 NBC배쟁탈 전국선수권대회겸 제6회 아시아선수권 파견 선수 최종선발전</p> <p>대한야구협회 주최로 9월 21일부터 한국전력, 기업은행, 상업은행, 농협, 제일은행, 성균관대, 육군, 한양대, 철도청, 크라운맥주 등 10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9월 26일 열린 최종일 경기에서 기업은행이 상업은행을 4-1로 꺾고 2승1패로 동률, 10월 11일 끝난 최종 결승전에서 기업은행이 상업은행을 5-0으로 격파하고 우승</p> <p>▲결승리그=기업은행 1-3 농협, 기업은행 2-1 제일은행, 상업은행 3-0 농협, 상업은행 1-0 제일은행, 농협 5-6 제일은행, 기업은행 4-1 상업은행</p> <p>▲결승전=기업은행 5-0 상업은행</p> <p>◇개인상 ▲우수선수상=최관수(기업은행) ▲미기상=한동화(제일은행) ▲타격상=허명호(농협 .500) ▲홈런상=박현식(제일은행 2개), 황종태(상업은행 1개) ▲감독상=김양중(기업은행) ▲대표자상=서진수(徐軫銖 기업은행)</p>	<p>■09.25 메이저리그 최고령 투수 캔자스시티 소속인 65살의 새철 페이지가 보스턴전에서 마운드에 올라 3이닝을 무실점으로 호투한 뒤 강판. 메이저리그 사상 최고령 투수로 기록</p>
10.05	<p>■제46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p> <p>대한체육회 주최로 10월 5일부터 10일간 광주공설운동장에서 개최, 10월 14일 열린 결승전에서 배문중, 대구상고, 한양대, 철도청이 각각 우승</p> <p>▲중학부(연식) 결승전=배문중(서울) O-X 대구중(경북)</p> <p>▲고등부 3회전=대구상고(경북) 17-1 전주상고(전북 5회 콜드 게임), 중앙고(서울) 4-1 경남고(부산)</p> <p>▲동결승=대구상고(경북) 1-9(7회 콜드 게임) 중앙고(서울)</p> <p>▲대학부 2회전=경북대(경북) 7-5 동아대(부산), 한양대(서울) 8-1 전북대(전북) ▲동 결승전=경북대(경북) 7-5 동아대(부산)</p>	 <p>제46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90%의 공정이</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북) 2-13 (5회 콜드 게임) 한양대(서울) ▲일반부 2회전=육군헌병학교(경북) 5-0(6회) 진해(경남), 크라운맥주(서울) 11-4(8회) 인천OB(경기) ▲ 동 결승전=육군헌병교 0-7(7회) 크라운맥주 ▲일반부(연식) 결승전=철도청(서울) 0-X 병기창(부산)	끝난 광주 무등경기장 조감도. 야구장의 모습도 앞쪽에 보인다.
10.14	■제19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대한야구협회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10월 14일부터 성남, 중앙, 장충, 청량중, 배명, 배문, 선린상, 경남, 부산, 경남상, 부산상, 마산상, 대구상, 인천, 동산, 대전, 춘천, 전주상, 광주일고 등 전국에서 19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20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중앙고가 부산고를 7-0으로 격파하고 우승 ▲준결승전=동산고 1-2 부산고, 배문고 1-2 중앙고 ▲결승전=중앙고 7-0 부산고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이원국(중앙고 투수) ▲감투상=이재원(부산고 투수) ▲타격상=이춘근(李春根 동산고 3루수 .455) ▲미기상=하병국(경남상고 중견수) ▲홈런상=이광환(중앙고 유격수), 정동건(중앙고 3루수) △중앙고=감독 이조영 및 공성세(우익수), 김길수(1루수), 이광환(유격수), 정동건(3루수), 이원호(포수), 이원국(투수), 조성환(2루수), 이창훈(중견수), 이창구(좌익수), 김재철(대타)	 <p>제19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우승 투수인 중앙고의 이원국(李源國)이 준결승전 7회초 성남고의 김상진(金尙鎭)을 삼진으로 잡는 순간</p>
10.20	■제12회 전국중학선수권대회 대한연식야구협회 대구일보사 공동 주최로 10월 20일부터 전국 17개 중학 팀(동대문, 배명, 배문, 선린, 장충, 휘문, 동산, 상인천, 충남, 대동, 대신, 경주, 경북, 경상, 대구, 성광, 오성중)이 출전한 가운데 대구종합경기장에서 개최, 10월 25일 열린 결승전에서 대구중이 선린중을 5-0으로 격파하고 우승 ▲준결승전=대구중 2-0 배문중, 선린중 3-1 대동중 ▲결승전=대구중 5-0 선린중 ◇개인상 ▲우수상=김창고(金倉高 대구중 투수) ▲감투상=한진성(韓珍聖 선린중 투수) ▲타격상=이강민(李康敏 동대문중 .355) ▲미기상=최영일(崔永逸 대구중 유격수) ▲지도상=안종태(安鍾泰 대구중 감독)	■10.04 쿠팩스, 최다 탈삼진 기록 10월 4일 끝난 1965년 시즌에서 샌디 쿠팩스가 26승으로 내셔널리그 최다승을 기록하고 382탈삼진으로 20세기 시즌 최다 탈삼진 기록을 수립, 방어율도 2.04로 리그 1위를 마크. 덕분에 1963년에 이어 또 한번 만장일치로 사이영상 수상 ■10.14 LA 다저스 월드시리즈 제패 내셔널리그 우승 팀 LA 다저스가 아메리칸 리그 우승 팀 미네소타 트윈스와 맞붙은 월드시리즈에서 1, 2차전을 패한 뒤 쿠팩스의 2완봉승에 힘 입어 7차전까지 간 끝에 4승3패로 역전 우승.
11.01	■서울시고교 추계리그 서울시고교야구연맹 주최로 11월 1일부터 서울시 18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1월 27일 열린 A조 결승전에서 성남고가 경동고를 3-2로 누르고 5전 전승으로, B조에서는 성동고가 6전 전승으로 우승 ◇A조(갑부) 순위=①성남고(5승) ②중앙고(4승1패) ③배명고(3승2패) ④배문고(2승3패) ⑤동대문상고(1승4패) ⑥고명상고(5패) ◇A조(을부) 순위=①경동고(4승) ②청량중고(2승1무1패) ③휘문고(1승2무1패)	■시카고 컵스 리오 듀로셔 감독 영입 4년에 걸쳐 집단지도체제로 팀을 운영한 시카고 컵스가 실패를 자인하고 리오 듀로셔를 감독으로 영입 ■11.05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츠 우승 요미우리(讀賣) 자이언츠가 재팬시리즈 5차전에서 난카이(南海) 호크스를 3-2로 물리치고 통산 전적 4승1패로 우승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④선린상고(1승1무2패) ⑤경기공고(4패) ◇B조 순위=①성동고(6승) ②장충고(5승1패) ③동고 공, 서울상(3승3패) ⑤경희고(2승1무3패) ⑥광신상(1 승5패) ⑦배재고(1무5패) ◇개인상 ▲우수상=A조 한장철(성난고 투수), B조 서 천웅(徐天雄 성동고) ▲감투상=A조 이충순(경동고 투 수), B조 김호(장충고 투수) ▲타격상=A조 홍용의(경 동고 중견수 .467), B조 백대삼(성동고 유격수 .500) ▲최다안타상=A조 이광환(중앙고 유격수 9안타), B조 백대삼(성동고 유격수 8안타)	
11.08	■대학선발 첫 일본 원정 한·일친선대학대회 일본 간사이(關西)지방 6대학연맹 초청으로 광복 후 최초로 대학 팀이 일본에 원정, 11월 8부터 25일까지 오사카(大阪), 교오토(京都), 고베(神戸)에서 일본 대학 및 사회인 팀과 10차전을 치른 끝에 4승6패를 기록 ◇대학선발 ▲단장=이정규(李丁奎 성균관대 총장) ▲ 부단장=허곤(협회 이사) ▲총무=박용훈(朴龍勳 대학 연맹 전무이사) ▲감독=이팔관(성균관대 감독) ▲코 치=정태수(鄭泰守 연세대 감독) 및 ▲투수=박동수(고 려대), 윤혁(尹赫 연세대), 김동양, 한광홍(이상 성균관 대) ▲포수=이수한(성균관대), 유희창(경희대) ▲내야 수=이영기, 권국용(이상 연세대), 유장언(한양대) 한동 수, 김민태(金敏泰 이상 성균관대), 전성욱(고려대) ▲ 외야수=조진영, 김충남, 최완근(이상 연세대), 조일수 (성균관대), 배승대(裵勝大 동아대)	
11.27	■전국고교야구연맹 창립 서울시교야구연맹이 중심이 되어 추진해 온 전국고 교야구연맹이 11월 27일 하오 2시 휘문고 강당에서 전국 각 지역 고교야구 대표(교장)들이 모인 가운데 창립 총회를 열어 연맹 규약을 통과시키고 회장에 휘 문고 교장을 선임하는 등 임원을 선출 ▲회장=서병성(휘문) ▲부회장=조용구(趙鏞九 배명 남상협(南相協 동산) 박경원(朴敬源 경남) ▲총무=김 장억(金長億 성동) ▲경기=조병의(趙秉懿 성남) ▲재 무=권상철(權相澈 청량중) ▲섭외=이인근(李仁根 동 대문상) ▲후생=정연규(鄭淵奎 선린상) ▲상무=한경 수(韓慶洙 전주상), 이장원(李章源 마상상), 박상희(朴 尙熙 대구상), 대전상 교장 ▲감사=인천고 교장 강정희 (康晶熙 경동 야구부장)	
12.01	■경기지구고교선발 일본 원정 한·일친선고교대회 일본고교야구연맹 초청으로 경기지역을 주축으로 구 성된 고교선발 팀이 방일,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일 본 혼주(本州)지역에서 8차전 끝에 1승1무6패를 기록 ▲1차전=고교선발 5-6 다이데쓰(大鐵)고 ▲2차전= 고교선발 0-7 초시(銚子)상고 ▲3차전=고교선발 1-1 지바(千葉)선발 ▲4차전=고교선발 4-11 지바선발 ▲ 5차전=고교선발 4-2 이와쿠니(岩國)고 ▲6차전=고교	 <p>경기지구 고교선발 팀이 일본에 원정, 8차 전 끝에 1승1무6패를 기록했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선발 3-6 시모노세키(下關)고 ▲7차전=고교선발 0-6 고쿠라(小倉)고 ▲8차전=고교선발 0-6 고쿠라고 ◇한국고교선발 ▲감독 박현덕(동산고 감독) ▲코치 지종걸(인천고 감독) ▲투수=백석중(인천고), 최병진 (崔炳珍 동산고), 조문길(경남상고), 진걸(부산고) ▲ 포수=임철수(동대문상고), 최남수(崔南洙 인천고), 이 재원(부산고) ▲내야수=진용준(陳庸準 동산고), 황성 칠(黃星七) 안선교(安善敎 이상 인천고), 이춘근(동산 고), 김호(장충고) ▲외야수=김수겸(金守謙 동산고), 최창우(대구상고), 이교철(李教喆), 유병곤(劉丙坤 이 상 동산고)</p>	
12.04	<p>■ 제6회 아시아선수권대회 12월 4일 12시 반 한국, 일본 자유중국(대만), 필리핀 등 4개 국이 출전한 가운데 필리핀 마닐라 '리잘' 경 기장에서 더블리그로 개최, 12월 12일 벌어진 최종일 경기에서 일본에 0-7로 패해 준우승 ▲1차 리그=한국 2-4 일본, 한국 1-0 자유중국, 한 국 5-4 필리핀 ▲2차 리그=한국 0-7 일본, 한국 0-0 자유중국, 한국 10-0 필리핀 ◇종합 순위=①일본(5승1패) ②한국(3승1무2패) ③ 자유중국(1승2무3패) ④필리핀(1승1무4패)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에토(江藤 일본) ▲우수 투수상=미와타(三輪田 일본) ▲수위타자상=김응룡 (21타수 9안타 .429) ▲최다 홈런상=히로노(廣野 일 본) ▲타점상=다부치(田淵 일본) ▲우수타자상=히로 노(일본) ▲특별상(철인상)=박현식(1~6회까지 출전) ▲감독상=이시이(石井 일본) ◇한국선수단 ▲단장=전의용 ▲총무=모무열 ▲섭외 =장태영 ▲심판=박점도 ▲재무=조삼식(趙三植) ▲ 감독=김일배 ▲투수=김영덕, 유백만, 신용균, 최관수, 김설권 ▲포수=정병섭, 정동진 ▲내야수=김응룡, 하 갑득, 한동화, 오춘삼, 이재환, 이재우(李載雨) ▲외야 수=박현식, 김영빈, 김태령, 박영길</p>	
1966. 01.16	<p>■ 대한야구협회 김종락 회장 취임 대한야구협회가 대한체육회 회의실에서 대의원 대회를 열고 고교야구연맹 분규및 제6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출한 일괄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회장에 김종락(金鍾瑢) 한일은행 이사를 선임 ▲회장=김종락 ▲이사=김영조, 이팔관, 백기수, 허종만(이상 유임), 손희준, 유완식, 이기역, 김상태(이상 신임), 박점도, 윤재준(이상 유임) ▲감사=정동환(유임), 김재송(신임)</p>	<p>■ 브레이브스 본거지 이동 브레이브스가 밀워키에서 애틀랜타로 본거지를 이동,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탄생</p>
01.16	<p>■ 제8회 이영민 타격상 이광환(李廣煥) 수상 대한야구협회가 전국대의원 총회에서 65년도 전국 규모 3개 대회에서 타율 0.333를 기록한 중앙고 2루수 이광환에게 제8회 이영민 타격상을 수여</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2.06	<p>■ 대한연식야구협회 상임이사 개선 대한연식야구협회가 2월 6일 이사회를 열고 임광정(林光廷)을 전무이사로 선출하고 6명의 상임이사를 새로 선출 ▲전무이사=임광정 ▲총무이사=김명배(金明培) ▲재무이사=유재봉(俞在鳳) ▲경기이사=이태흥(李泰興) ▲기획이사=장병숙(蔣秉淑) ▲섭외이사=조병주(曹秉周) ▲심판위원장=이규태(李奎泰)</p>	
04.08	<p>■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대한실업야구연맹 주최로 4월 8일 육군, 해병대, 기업은행, 농협, 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철도청, 한국전력 등 9개 팀이 5차전을 통해 172경기를 소화하는 장기 페넌트 레이스가 서울운동장에서 개막, 10월 23일 끝난 최종일 경기에서 제일은행이 한일은행을 6-1로 꺾고 28승3무9패로 대회 첫 우승 ◇종합 순위=①제일은(28승3무9패) ②한일은(25승4무11패) ③기은(22승4무14패) ④농협(20승7무13패) ⑤상은(22승2무16패) ⑥육군(17승23패) ⑦철도(13승1무26패) ⑧한전(12승1무27패) ⑨해병(10승30패)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없음 ▲최우수신인상=없음 ▲우수투수상=①최관수(기은 17승9패) ②신용균(한일은 14승5패) ③김동률(제일은 13승3패) ▲방어율우수투수상=①신용균(한일은 1.14) ②유백만(상은 1.16) ③김병우(제일은 1.25) ▲타격상=①박영길(육군 .341) ②배수찬(기은 .331) ③한동화(제일은 .318) ▲홈런상=①박현식(제일은 5개) ②김응룡(한일은), 김영빈(농협), 유백만(상은 이상 4개) ▲타점상=①최흥표(상은 31점) ②박현식(제일은 28점) ③배수찬(기은 26점) ▲출루상=①박영길(육군 .465) ②배수찬(기은 .400) ③하갑득(농협 .392) ▲도루상=①하갑득(농협 32개) ②박재영(상은 28개) ③함응렬(상은 26개) ▲최우수감독상=김일배(제인은 감독) ▲우수감독상=강대중(한일은 감독) ▲특별상=이보형(李寶衡 제일은행장) ▲공로상=장관식(張寬植 제일은행야구단장)</p>	 <p>농협 투수 이재환(李在煥)의 역투, 육군에의 경기에서 7회말 무사 주자 1, 2루에 등판,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 5-1로 승리, 농협에 1승을 보탤다.</p>
04.15	<p>■ 제13회 인천4도시고교초청대회 인천신문사 주최로 4월 15일부터 4개 도시에서 6개 팀(경남, 대구상, 중앙, 인천, 동산, 동인천고)이 출전한 가운데 인천종합경기장에서 개최, 4월 18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경남고가 동산고를 9-2로 물리치고 우승 ◇개인상 ▲우수상=조흥기(경남고) ▲감투상=이은호(동산고) ▲미기상=지원우(池元宇 동산고) ▲타격상=장성환(張星煥 경남고 .444) ▲감독상=김무복(경남고 감독) △경남고=감독 김무복 및 장성환(3루수), 신영수(申英秀 좌익수), 박성배(포수), 이대섭(李大燮 유격수), 고중구(중견수), 정기태(鄭琪泰 우익수), 조흥기, 김영목(金永穆 이상 투수), 김남일(金南一 1루수), 권칠현(權七鉉), 송성민(宋聖敏 이상 2루수), 지경표(池景杓 후보)</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4.16	■ 서울시중학 춘계리그 대한연식야구협회 주최로 4월 16일부터 A, B조로 나누어 휘문중 운동장에서 개최, 5월 22일 끝난 결승전에서 B조의 성남중이 A조의 휘문중을 2-0으로 물리치고 우승	
04.22	■ 서울시고교 춘계리그 서울시고교야구연맹 주최로 4월 22일부터 서울시내 17개 고교 팀(청량중, 중앙, 동대문상, 장충, 배명, 경동, 성남, 배문, 선린상, 성동, 휘문, 경기, 경희, 고명상, 서울상, 광신상, 동도공고)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5월 9일 열린 A조 결승전에서 중앙고의 부정선수 문제로 기권, 성남고가 기권 승으로 우승 ▲A조 갑부 결승=중앙고 3-0 배명고 ▲A조 을부 결승=성남고 4-2 선린상 ▲A조 결승전=성남고 9-0 중앙고(기권 패)	
05.04	■ 제3회 재향군인회장기쟁탈 전국국민학교대회 대한야구협회 재향군인회 공동 주최로 5월 4일부터 전국에서 15개 국민학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토너먼트로 개최, 5월 8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서대전국민학교가 청주 중앙국민학교를 3-0으로 물리치고 우승 ▲준결승전=서대전 1-0 대신, 중앙(청주) 8-2 동인천 ▲결승전=서대전 3-0 중앙 ◇개인상 ▲최우수상=손광배(서대전 투수) 이광식(서대전 포수) ▲감투상=김광득(중앙 투수), 최영순(중앙 포수) ▲타격상=강내갑 중앙 좌익수 600) 이광식(서대전 포수 .550) ▲미기상=최영순, 강내갑(이상 중앙) ▲장려상=허정만(대신 투수) 홍재록(동두천 투수) ◇단체상 ▲우승=서대전국교 ▲준우승=청주 중앙국교 ▲감투상=부산 대신국교 ▲장려상=동두천국교	
05.04	■ 일본 혼다(本田)기연초청 한·일친선대회 대한야구협회 초청으로 5월 4일부터 부산과 대구를 비롯해 서울운동장에서 국내실업 팀과 11차전을 개최, 5월 15일 벌어진 고별전에서 금웅선발을 11-3으로 꺾어 7승1무3패를 기록 ▲1차전(5월 4일 부산)=혼다 5-7 기업은행 ▲2차전(5월 5일 대구)=혼다 3-0 철도청 ▲3차전(5월 7일 서울)=혼다 7-2 제일은행 ▲4회전(5월 8일 서울)=혼다 3-6 상업은행 ▲5회전(5월 8일 서울)=혼다 7-3 실업선발 ▲6차전(5월 11일 서울)=혼다 9-4 육군 ▲7차전(5월 12일 서울)=혼다 2-5 한일은행 ▲8차전(5월 13일 서울)=혼다 2-2 농협 ▲9차전(5월 14일 서울)=혼다 7-5 성균관대 ▲10차전(5월 15일 서울)=혼다 5-0 한국전력 ▲11차전(5월 15일 서울)=혼다 11-3 금웅선발	 <p>5월 8일 5차전을 끝내고 혼다와 실업선발이 서울운동장 본부석 앞에서 기념 촬영</p>
05.07	■ 제6회 문교부장관기쟁탈 전국4도시선발고교대회 경북야구협회 대구매일신문사 공동 주최로 5월 7일부	■ 05.05 윌리 메이스 512호 홈런 샌프란시스코 자이안츠의 윌리 메이스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터 동대문상, 성남, 동산, 부산, 부산상, 경북, 대구공, 대구상고 등 8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대구공설 운동장에서 토너먼트로 개최, 6월 10일 끝난 결승전에서 동상고가 6-5로 동대문상고를 누르고 우승</p> <p>▲준결승전=동산고 2-0 부산고, 동대문상 4-0 부산상 ▲결승전=동산고 6-5 동대문상</p> <p>◇개인상 ▲우수선수상=이은호(동산고 투수) ▲감투상=정순룡(동대문상 투수) ▲미기상=박용주(朴龍柱 동산고 3루수) ▲타격상=김유현(金裕鉉 동대문상 중견수) ▲감독상=박현덕(동산고 감독)</p>	<p>가 LA 다저스전에서 선수생활 15년 만에 512호 홈런을 날려 내셔널리그 최다 홈런을 기록</p>
05.16	<p>■제21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서울시예선</p> <p>서울시고교야구연맹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5월 16일부터 서울운동장에서 개막, 5월 21일 열린 결승전에서 선린상고가 중앙고를 5-4로 누르고 우승</p> <p>▲준결승전=선린상고 4-3 성남고, 중앙고 6-1 배문고 ▲3, 4위전=배문고 1-0 성남고(연장 12회) ▲결승전=선린상고 5-4 중앙고</p>	
05.20	<p>■전국대학연맹전 춘계리그</p> <p>전국대학야구연맹 주최로 5월 20일부터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동아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 9개 대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성대구장과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5월 28일 벌어진 마지막 경기에서 연세대가 성균관대를 4-1로, 한양대는 고려대에 0-1로 패해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가 동률 1위(6승2패)로 6월 27일부터 시작되는 결승리그에 진출, 6월 29일 서울운동장에서 막을 내린 결승리그에서 성균관대가 2전 전승으로 우승</p> <p>◇예선리그 순위=①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6승2패) ④고려대(5승3패) ⑤경북대(4승4패) ⑥서울대(3승5패) ⑦동국대, 경희대, 동아대(이상 2승6패)</p> <p>◇결승리그 순위=①성균관대(2승) ②한양대(1승1패) ③연세대(2패)</p> <p>△성균관대=감독 이팔관 및 박수부(朴秀夫 유격수), 신재기(3루수), 한광홍(투수), 이수한(포수), 윤성재(尹聖宰 1루수), 조일수(좌익수), 이성대(우익수), 전이현(2루수), 김민태(金敏泰 중견수겸 우익수), 한태훈(중견수), 김동양(투수겸 우익수)</p>	
05.29	<p>■제16회 백호기쟁탈 전국군·실업쟁패전</p> <p>대한야구협회 경향신문사 공동 주최로 5월 29일부터 9개 팀(육군, 해병대, 철도청, 한국전력, 농협, 기업은행, 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2일 끝난 결승리그 최종일 경기에서 한일은행이 한국전력을 1-0으로 누르고 우승</p> <p>◇결승리그 순위=①한일은행(3승) ②한국전력(1승1무1패) ③육군(1승2패) ④제일은행(1무2패)</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신용균(한일은행 투수) ▲우수선수상=장순조(한전 투수) ▲감투상=김동률(제일은행 투수)</p>	<p>제16회 군실업쟁패전 결승리그 한일은행-육군전 8회말 육군 하일이 이규직의 희생 플레이로 홈에 슬라이딩 1점을 추가했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투수) ▲타격상=김응룡(한일은 1루수 .533) ▲미기상=박정일(한일은 3루수) ▲감독상=강대중(한일은 감독) ▲공로상=이종철(李鍾喆 한일은 단장)</p> <p>△한일은행=감독 강대중 및 성기영(2루수), 오덕환(중견수), 김응룡(1루수), 정병섭(포수겸 좌익수), 임철수(포수), 박정일(3루수), 정찬성(우익수), 강병철, 김영호(이상 유격수), 최창우, 추민엽, 고정안(이상 좌익수) 신용균, 김인식(이상 투수)</p>	
06.04	<p>■제3회 실업야구 올스타전</p> <p>대한야구협회 주최로 6월 4일부터 3일간 금용단과 실업단이 대결, 6월 7일 끝난 3차전(통산 7차전)에서 실업단이 금용단을 6-4로 꺾고 2승1패로 우승</p> <p>▲1차전(통산 7차전 6월 4일)=금용단 6-1 실업단 ◇개인상 △수훈선수상=최흥표(상은) △승리투수상=최관수(기은) △승리투수상=이선덕(농협) △타격상=한동화(제일은 1.000) △감투상=박현식(제일은) △감독상=강대중(한일은 감독)</p> <p>▲2차전(통산 8차전 6월 6일)=실업단 6-3 금용단 ◇개인상 △수훈선수상=박영길(육군) △승리투수상=김소식(상은) △우수투수상=김병기(육군) △타격상=박영길(육군 .750) △감투상=진원주(제일은) △감독상=김계현(한국전력 감독)</p> <p>▲3차전(통산 9차전 6월 7일)=금용단 4-6 실업단 ◇개인상 △수훈선수상=박영길(육군) △승리투수상=김설권(육군) △우수투수상=유백만(제일은) △타격상=하일(육군 1.000) △감투상=박현식(제일은) △감독상=허종만(육군 감독)</p>	 <p>실업야구 올스타 2차전에서 실업선발 박영길이 연장 10회 3점 홈런을 날린 뒤 나인들의 환영을 받으며 흠인하고 있다.</p>
06.08	<p>■제21회 청룡기쟁탈 전국고교선수권대회</p> <p>대한야구협회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6월 8일부터 전국에서 8개 고교 팀(부산상, 전주상, 대구상, 동대문상, 동산, 춘천, 대전, 선린상고)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16일 벌어진 최종 결승전에서 동산고가 대구상고를 6-5로 꺾고 우승</p> <p>▲승자 준결승전=동산고 4-3 동대문상고, 대구상고 7-1 선린상고 ▲패자 준결승전=동대문상고 5-2 선린상고 ▲승자 결승전=동산고 2-1 대구상고 ▲패자 결승전=대구상고 1-0 동대문상고 ▲결승전=대구상고 5-3 동산고 ▲최종 결승전=동산고 6-5 대구상고</p> <p>◇개인상 ▲우수선수상=이기호(李基浩 동산고 투수) ▲감독상=최종기(대구상 투수) ▲타격상=박용진(朴容震 선린상 3루수) ▲미기상=김현남(대구상 3루수) ▲홈런상=이기호(동산고 투수)</p> <p>△동산고=감독 박현덕 및 장원순(張元淳 1루수), 조규현(曹圭憲 중견수), 이은호(투수겸 우익수), 장영수(유격수), 정용택(鄭龍澤 포수), 최치남(崔致南), 고영국(高泳國 이상 2루수), 마훈영(馬壘泳 우익수), 이기호(투수겸 중견수), 박용주(3루수), 지원우(좌익수)</p>	 <p>제21회 고교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대구상고를 6-5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한 동산고 선수들이 브라스 밴드를 앞 세우고 인천 시가지를 행진하고 있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6.24	<p>■ 이원국(李源國), 도쿄(東京) 오리온스와 입단 계약 5월 17일 중앙고 투수 이원국(李源國)과 도쿄 오리온스가 계약금 1만5,000달러, 연봉 180만엔 및 일본 체류 경비 일체를 구단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입단 합의, 6월 24일 오후 2시 오리온스와 입단 계약 차 JAL기편으로 향일, 일본 도착 즉시 도쿄(東京)에 있는 오리온스구단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입단 계약을 마쳐 건국 후 백인천(白仁天 62년)에 이어 2번째로 일본 프로야구 진출</p>	
06.29	<p>■ 제10회 한·미친선대회 대한야구협회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6월 29일부터 미군 4개 팀(미제1군단, 재일요코스카, 미7사단, 미2사단)과 한국 4개 팀(해병대, 육군, 제일은행, 기업은행) 등 8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7월 4일 끝난 최종 결승전에서 미2사단이 육군을 4-1로 제치고 우승 ▲승자 준결승전=육군 7-6 해병, 미2사단 8-4 제일은행 ▲승자 결승전=미2사단 5-4 육군 ▲패자 준결승전=제일은행 3-2 미1사단 ▲패자 결승전=육군 6-1 제일은행 ▲최종 결승전=미2사단 4-1 육군</p>	<p>일본 프로야구 도쿄 오리온스와 입단 계약을 끝낸 이원국이 배번 29번의 유니폼을 입어보고 있다.</p> <p>■ 06.12 정기선, 27년 만에 기록 경신 석탄공사의 정기선(鄭奇善)이 제20회 육상경기선수권대회 1백m 달리기에서 10초 4를 기록, 27년전 김유택(金裕澤)이 세운 10초5의 기록을 경신</p> <p>■ 06.16 장창선, 최초 금메달 획득 미국 톨레도에서 열린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 자유형 플라이급에서 장창선(張昌宣)이 한국 스포츠 사상 최초로 금메달 획득</p>
06.30	<p>■ 제9회 전국4도시초청고교대회 부산야구협회 부산일보사 주최로 6월 30일부터 전국에서 8개 고교 팀(선린상, 청량중, 동산, 인천, 대구상, 성광, 경남상, 부산상고)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개최, 7월 8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대구상고가 5-0으로 동산고를 격파하고 우승 ▲패자부활 1회전=부산상고 1-0 부산고 ▲패자부활 2회전=동산고 5-3 부산상고 ▲결승전=대구상고 5-0 동산고 ◇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춘길(金春吉 대구상 투수) ▲감투상=이기호(李起浩 동산고 투수) ▲미기상=고중구(경남고 중견수) ▲타격상=정용택(동산고 포수 .368)</p>	<p>■ 06.25 김기수, 세계 타이틀 획득 6월 25일 밤 장충체육관에서 벌어진 세계 주니어 미들급 타이틀 매치에서 이탈리아의 니노 벤베누치를 15라운드 판정으로 이겨 50년 권투 사상 처음으로 세계 타이틀 획득</p>
06.30	<p>■ 와세다(早稻田)대초청 한·일친선대회 대한야구협회 동아일보사 공동으로 초청한 와세다대의 한·일친선대회 첫 경기가 6월 30일 인천종합경기장에서 개최, 7월 9일 끝난 11차전에서 국군선발에 3-4로 패해 내한 전적 9승2패를 기록 ▲1차전(6월 30일 인천)=와세다대 6-4 해병대 ▲2차전(7월 1일 서울)=와세다대 11-0 한양대 ▲3차전(7월 1일 서울)=와세다대 3-1 육군(8회 일몰) ▲4차전(7월 3일 서울)=와세다대 10-1 성균관대 ▲5차전(7월 3일 서울)=와세다대 6-3 한일은행 ▲6차전(7월 4일 대구)=와세다대 4-6 기업은행 ▲7차전(7월 6일 대전)=와세다대 6-2 한국전력 ▲8차전(7월 8일 서울)=와세다대 6-0 연세대 ▲9차전(7월 8일 서울)=와세다대 8-0 농협 ▲10차전(7월 9일 서울)=와세다대 8-1 고려대 ▲11차전(7월 9일 서울)=와세다대 3-4 국군선발</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7.09	<p>■ 긴키(近畿)대 초청 한·일친선대회 대한야구협회 초청으로 7월 7일 일본 긴키대야구단이 내한, 7월 9일부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에서 국내 대학 및 실업 팀들과 11차전 끝에 10승1무를 기록 △긴키대=가네시게(兼重 중견수겸 좌익수), 츠지구치(辻口 2루수), 야부타(藪田 우익수), 하시모토(橋本), 도이(土井 이상 포수), 미치요(有藤 3루수), 타케치(武市 대주), 하라다(原田 중견수), 야마우치(山内 1루수) 후지와라(藤原 유격수), 다카하시(高橋), 가노(加納), 사토(佐藤), 야마시타(山下 투수) △한일은행=박정일(3루수), 정동건(대타), 오덕환(중견수겸 우익수), 고정안(대타), 허종만(許鍾萬), 오형섭(이상 2루수), 김응룡(1루수), 정병섭(좌익수), 임철수(포수), 정찬성(우익수), 강영호, 강병철(이상 유격수), 추민엽(우익수겸 중견수), 김영덕, 신용균(이상 투수) 성기영(대타) ▲1차전(7월 9일 서울)=긴키대 2-1 연세대 ▲2차전(7월 9일 서울)=긴키대 8-3 기업은행 ▲3차전(7월 10일 서울)=긴키대 11-1 성균관대 ▲4차전(7월 10일 서울)=긴키대 1-0 한일은행 ▲5차전(7월 13일 부산)=긴키대 2-2 한국전력 ▲6차전(7월 13일 부산)=긴키대 10-2 동아대 ▲7차전(7월 14일 대구)=긴키대 3-1 육군 ▲8차전(7월 16일 서울)=긴키대 8-2 농협 ▲9차전(7월 18일 서울)=긴키대 6-0 한양대 ▲10차전(7월 18일 서울)=긴키대 4-0 제일은행 ▲11차전(7월 20일 인천)=긴키대 9-0 상업은행</p>	<p>■ 07.03 투수가 2개의 만루 홈런 브레이브스의 토니 클로닝어가 투수로서 2개의 만루 홈런을 기록</p>
07.24	<p>■ 제9회 문교부장관기쟁탈 전국중학대회 대한연식야구협회 주최로 7월 24일 오전 10시 전국에서 15개 중학 팀(충남, 부산 동성, 대동, 선린, 동인천, 군산, 동대문, 동산, 성남, 경상, 장충, 배문, 대구, 천안북, 김천중)이 출전한 가운데 김천중 운동장에서 개최, 7월 29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부산 동성중이 충남중을 2-0으로 제치고 우승 ▲준결승전=충남중 2-1 경상중, 동성중 7-4 성남중 ▲결승전=동성중 2-0 충남중 ◇개인상 ▲우수상=박길성(朴吉成 동성중 투수) ▲감투상=김윤중(충남중 투수) ▲타격상=최영국(崔榮國 장충중 유격수) ▲감독상=안남수(安南洙 동성중 감독)</p>	
08.05	<p>■ 제18회 쌍룡기쟁탈 전국고교대회 부산야구협회 국제신보사 공동 주최로 8월 5일부터 전국에서 16개 고교 팀(춘천, 경희, 동도공, 배명, 성남, 장충, 동산, 동인천, 대전, 전주, 경북, 대구상, 경남, 경남상, 부산, 부산상고)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개최, 8월 9일 끝난 결승전에서 부산고가 부산상고를 3-1로 물리치고 우승 ▲준결승전=부산고 2-1 경남고, 부산상고 8-1 동산고 ▲결승전=부산고 3-1 부산상고 ◇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철오(부산고 투수) ▲감</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투상=오두환(부산고 3루수) ▲타격상=①안효수(부산고 2루수) ②하영발(河永潑 부산상고 포수) ▲미기상=김정호(金正浩 부산상고 투수) ▲훈련상=이인태(李仁泰 성남고 중견수)</p>	
08.12	<p>■8.15해방 경축 서울시장기쟁탈 중학대회 대한연식야구협회 주최로 8월 12일부터 선린중 운동장에서 개최, 8월 16일 막을 내린 결승전에서 선린중이 장충중을 1-0으로 누르고 우승 ▲준결승전=선린중 7-3 배문중, 장충중 5-2 성남중 ▲결승전=선린중 1-0 장충중 ◇개인상 ▲우수상=박준영(선린중 투수) ▲감투상=임은배(장충중 투수) ▲타격상=임봉기(배문중 1루수 .500) ▲미기상=홍창권(선린중 유격수)</p>	<p>■08.11 이원국, 이스턴리그 첫 등판 일본 프로야구 도쿄 오리온스에 입단, 2군에서 훈련 중인 이원국(李源國)이 이스턴리그에 첫 등판, 도에이(東映) 플라이어스 2군을 8-2로 꺾어 첫 승을 기록. 이원국은 7회까지 홈런 1개를 포함, 7안타와 볼넷 2개를 허용하고 탈삼진 5개를 기록.</p>
08.23	<p>■제1회 세계야구선수권대회 국제야구협회(NBC) 주최로 8월 23일부터 한국, 미국, 일본, 필리핀 등 4개국이 출전한 가운데 하와이에서 개최, 8월 25일 끝난 최종일 경기에서 한국이 일본에 4-5로 역전패를 당해 3전 전패로 최하위 ▲1차전(8월 23일)=한국 5-11 미국 ▲2차전(8월 24일)=한국 1-2 필리핀 ▲3차전(8월 25일)=한국 4-5 일본 ◇종합 순위=①일본(3승) ②미국(2승1패) ③필리핀(1승2패) ④한국(3패) ◇한국대표선수단 ▲단장=김종락(협회 회장) ▲부단장=이동진(李東鎭 협회 부회장) ▲총무=박점도(협회 전무이사) ▲감독=김영조(농협 감독) 및 배수찬(우익수), 한동화(2루수), 김동률(3루수), 김응룡(1루수), 박영길(좌익수), 이건웅(유격수), 김영빈(중견수), 정병섭(포수), 하갑득(대타겸 2루수), 정동진(포수겸 대타), 최흥표(대타), 신용균(최관수), 김영덕(이상 투수), 박정일(대타겸 대주), 유백만(투수)</p>	
08.25	<p>■세계아마추어야구연맹 결성 8월 25일 제1회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한국, 미국, 일본, 필리핀 대표들이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세계 아마추어야구연맹을 결성, 동 연맹 이사장에 미국 스탠포드대 코치인 더치 페링을 선출한 뒤 제1 부이사장에 일본의 아오키 긴이치, 제2 부이사장에 필리핀의 콘디도 바르롤롬, 제3 부이사장에 한국의 김종락 대한야구회장을 선임</p>	
09.12	<p>■제13회 전국중학선수권대회 대한연식야구협회 영남일보사 공동 주최로 9월 12일부터 전국에서 17개 중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대구종합경기장에서 개최, 9월 19일 열린 결승전에서 대구중이 경상중을 1-0으로 제치고 우승 ▲준결승전=대구중 1-0 부산 동성중, 경상중 2-0 대동중 ▲결승전=대구중 1-0 경상중</p>	<p>■샌디 쿠팍스 투수3관왕 등극 LA 다저스의 샌디 쿠팍스가 27승에 방어율 1.74, 탈삼진 317개로 내셔널리그 투수 3관왕에 올라 사이영상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세번째 수상</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개인상 ▲우수상=김창고(대구중 투수) ▲감투상=박현근(경상중 투수) ▲타격상=박길성(동성중 .461) ▲미기상=정광해(경상중 중견수) ▲장려상=최영일(대구중 2루수) ▲감독상=박춘득(대구중 감독)</p>	
09.17	<p>■제20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대한야구협회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9월 17일부터 중앙, 배문, 선린상, 배명, 성남, 동산, 인천, 춘천, 세광, 대전, 전주상, 경북, 대구상, 경남, 부산, 부산상고 등 16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준결승전부터 패자 부활제도를 채택, 최종 결승전에서 선린상고가 부산고를 4-0으로 물리치고 우승 ▲승자 결승전=선린상고 1-3 부산고 ▲패자 결승전=선린상고 2-1 중앙고(연장 12회) ▲결승전=부산고 0-1 선린상고(연장 11회) ▲최종 결승전=선린상고 4-0 부산고 ◇개인상 ▲우수선수상=윤효상(尹孝相 선린상 투수) ▲감투상=김철오(부산고 투수) ▲타격상=박용진(朴容震 선린상 3루수 .400) ▲미기상=김기영(金基榮 중앙고 중견수) ▲훈련상=김태석(선린상 포수) △선린상고=감독 박종해 및 함병일(좌익수), 조용택(2루수), 김태석(포수), 박용진(3루수), 김중명(우익수), 최광복(중견수), 남창인(南昌仁), 심형택(沈炯澤 이상 1루수), 윤효상(투수), 박지환(朴智煥 유격수)</p>	 <p>부산고와 맞선 결승전에서 선린상고 3번 김태석(金泰石)이 연장 11회말 굿바이 홈런을 날리는 순간</p> <p>■형제가 타격 1, 2위 피츠버그의 매티 알루가 타율 0.342로 내셔널리그 타격왕에 오르자 그의 형 펠리페 알루(애틀랜타)는 0.327로 타격 2위를 마크</p>
09.25	<p>■전국대학연맹전 추계리그 전국대학야구연맹 주최로 9월 25일부터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 7개 대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9월 30일 끝난 결승리그에서 연세대가 2승1무로 우승 ◇1차리그(A조) 순위=①고려대, 한양대(2승1패) ③서울대(1승1무1패) ④경희대(1무2패) ◇1차리그(B조) 순위=①성균관대(2승) ②연세대(1승1패) ③동국대(2패) ◇결승리그 순위=①연세대(2승1무) ②한양대(2승1패) ③고려대(1승1무1패) ④성균관대(3패)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이환규(李煥圭 연대 투수) ▲감투상=이행수(李幸壽 한대 투수) ▲미기상=최재봉(고대 포수) ▲타격상=신재기(辛載基 성대 3루수 .421) △연세대=이성길(2루수), 임재근(林在根 유격수), 윤혁(1루수겸 투수), 이영노(李永老 1루수), 권국용(3루수), 김재홍(1루수), 김규영(포수), 조진영(대타겸 중견수), 공성세(우익수), 김충남(대타겸 우익수), 최완근(좌익수), 이영선(李永善 중견수), 이영기(대타), 이환규(투수겸 1루수)</p>	<p>■09.24 정기선 100m에 10초 3 6월 12일 육상 100m 달리기에서 10초3으로 자신의 기록을 0.1초 단축, 한국신기록 경신</p>
10.07	<p>■서울운동장 야구장 나이더 점등, 정병섭 첫 홈런 10월 7일 하오 7시 박정희 대통령과 정일권 국무총리를 비롯한 3부 요인 및 1만5천여 명의 관중이 운집한</p>	<p>■10.02 양키스 54년 만에 꼴찌 뉴욕 양키스가 1912년 이후 54년 만에 꼴찌로 전락</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가운데 점등식을 가진 뒤 박정희 대통령 시구로 제일은행-한일은행의 첫 야간경기를 개최, 한일은행의 정병섭(丁炳燮 포수)이 8회말 1사후 1-1 동점에서 국내 야간경기 첫 홈런을 날려 제일은행에 4-1로 역전 승</p>	<p>■ 10.06 월드시리즈 최연소 완봉승 볼티모어의 20살짜리 짐 파머가 월드시리즈 2차전에서 샌디 쿠팍스와 맞붙어 6-0으로 승리, 사상 최연소 투수로 완봉승을 기록</p>
10.10	<p>■ 제47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대한체육회 주최로 10월 10일부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16일 끝난 결승전에서 대구상고, 한양대, 한일은행이 각각 우승</p> <p>▲고등부 3회전=동산고(경기) 10-0 경남고(부산), 대전고(충남) 0-7 대구상고(경북) ▲동 결승전=동산고(경기) 0-2 대구상고(경북)</p> <p>▲대학부 2회전=한양대(서울) 1-0 동아대(부산), 경북대(경북) 10-3 전남대(전남) ▲동 결승전=한양대(서울) 8-1 경북대(경북)</p> <p>▲일반부 2회전=전인천(경기) 0-3 한일은행(서울), 한국전력(부산) 1-1 해병대(경북 추첨 승) ▲동 결승전=한일은행(서울) 2-0 해병대(경북)</p> <p>▲중학부(연식) 결승전=대구중(경북) 0-0(공동 우승) 대신중(부산)</p> <p>▲일반부(연식) 결승전=재일교포 4-3 해병기지(경남)</p>	<p>■ 10.09 LA 다저스 33이닝 무득점 LA 다저스가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 2점을 뽑은 이후 33이닝 무득점 끝에 오리올스에 4전 전패로 패배</p> <p>■ 10.09 오리올스 월드시리즈 제패 오리올스가 1954년 볼티모어로 본거지를 옮긴 이후 아메리칸리그를 제패한 뒤 월드시리즈에서 LA 다저스에 4전 전승으로 우승</p>
10.22	<p>■ 제1회 전국고교왕자전 경북야구협회 매일신문사 공동 주최로 10월 22일부터 전국 대회 우승 4개 팀(성남, 동산, 부산, 대구상고)이 출전한 가운데 대구종합운동장에서 개최, 10월 24일 열린 최종일 경기에서 성남고가 부산고를 3-0으로 꺾고 2승1무로 우승</p> <p>◇종합 순위=①성남고(2승1무) ②대구상고(1승1무1패) ③부산고, 동산고(1무2패)</p> <p>◇개인상 ▲우수선수상=한장철(성남고 투수) ▲감투상=최종기(대구상고 투수), 이은호(동산고 투수) ▲미기상=이원석(李元石 대구상고 좌익수) ▲타격상=최창형(대구상고 중견수) ▲최다안타상=이희수(李熙守 성남고 유격수) ▲감독상=박선오(성남고 감독)</p>	
10.24	<p>■ 제12회 NBC배쟁탈 전국선수권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10월 24일부터 제일은행, 상업은행, 농협, 기업은행, 한일은행, 육군, 해병대, 철도청, 한국전력, 한양대 등 10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29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한일은행이 10회 연장전 끝에 기업은행을 3-2로 누르고 우승</p> <p>▲준결승전=기업은 2-1 제일은, 한일은 4-1 상업은</p> <p>▲결승전=한일은 3-2 기업은</p> <p>◇개인상 ▲우수선수상=백석종(한일은행) ▲미기상=김병우(제일은행) ▲타격상=김점생(기업은행 .857) ▲홈런상=하갑득(농협), 김동률(金東律 제일은행) ▲감독상=강대중(한일은행) ▲대표자상=이종철(李鍾喆 한일은행)</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10.26	<p>■ 김윤겸(金允謙),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기록 상업은행 투수 김윤겸이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제12회 전국선수권대회 육군전에서 26명 타자를 상대로 탈삼진4, 볼넷 2개를 허용한 끝에 3-0으로 No Hit No Run 기록</p>	
11.02	<p>■ 제6회 서울시고교연맹 창립기념대회 서울시고교야구연맹 주최로 11월 2일부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1월 7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배명고가 13회 연장전 끝에 성남고를 1-0으로 누르고 우승 ▲준결승전=배문고 2-4 성남고, 선린상고 0-4 배명고 ▲결승전=배명고 1-0 성남고 ◇개인상 ▲우수상=최남수(배명고 투수) ▲감투상=한장철(성남고 투수) ▲타격상=김상민(金湘民 성남고 외야수 .400) ▲최다 안타상=백기성(白基成 배문고 유격수 4개) ▲감독상=고원순(배명고 감독)</p>	
11.03	<p>■ 일본 니혼(日本)대학초청 한·일친선대회 대한야구협회 초청으로 11월 1일 일본대학 팀이 내한, 11월 3일부터 8일까지 국내 대학및 실업 팀과 8차전 끝에 5승1무2패를 기록 ▲1차전(11월 3일 서울)=니혼대 1-0 고려대 ▲2차전(11월 3일 서울)=니혼대 9-2 제일은행 ▲3차전(11월 5일 서울)=니혼대 0-1 농협 ▲4차전(11월 5일 서울)=니혼대 2-1 상업은행 ▲5차전(11월 8일 서울)=니혼대 10-2 한양대 ▲6차전(11월 8일 서울)=니혼대 3-3 한일은행 ▲7차전(11월 9일 서울)=니혼대 2-3 육군 ▲8차전(11월 9일 서울)=니혼대 2-0 기업은행</p>	<p>■ 11.18 샌디 쿠팍스 은퇴 1966 시즌이 끝난 뒤 31살의 젊은 나이에 팔꿈치 관절염으로 은퇴를 발표.</p>
11.23	<p>■ 대한야구협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대한야구협회가 11월 23일 오후 11시 대한체육회 강단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갖고 야구발전에 공로가 큰 33명에게 표창장, 23개 단체 및 인사에게 감사장을 수여 ▲표창장=서상국, 김동성, 임병직, 서민호, 이홍직, 선우인서, 전예용, 이효, 이원용, 노용호, 마춘식(이상 협회 고문) 권영섭(재향협회장), 신현(전남협회장), 조삼식(충남협회장), 박점도(협회 전무), 박현덕(동산고 감독), 조점룡(협회 심판), 박현식(제일은 포수), 하상용(석탄공사 사장), 이신득(참여), 오윤희(협회 심판), 김영석(참여), 김태호(참여), 이경구(참여), 모무열(협회 심판), 김일배(제일은 감독), 노정호(협회 부회장), 손희준(협회 이사), 김재송(협회 감사), 고 이영민(협회 전 부회장), 고 손효준(협회 전 부회장), 고 최재은(협회 전 이사장), 고 임봉준(협회 전 고문)</p>	
12.22	<p>■ 대한야구협회 대의원 총회 12월 22일 대한야구협회가 대전 유성온천 만년장에서 67년도 대의원 대회를 열고 김종락 회장과 감사(정동환, 김재송)를 유임시키고 부회장과 이사는 7인 전형위</p>	<p>■ 12.17 김기수 세계 타이틀 방어 12월 17일 밤 세계주니어 미들급 타이틀 매치에서 도전자 'S 해링턴'을 15회 판정승으로 물리치고 타이틀을 방어</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원회에 일임, 1월 7일 서울에서 일괄 선출기로 결정	
12.22	■ 제9회 이영민 타격상 박용해(朴龍海) 수상 대한야구협회가 66년도 이영민 타격상 수상자로 전국 고교대회에서 39타수 13안타로 타율 0.333을 기록한 대구상고 포수 박용해를 선정	■ 12.22 한국대학체육연맹 발족 한국대학체육연맹이 12월 22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창립 총회를 갖고 정식 발족
1967. 01.07	■ 대한야구협회 집행부 선임 대한야구협회 7인전형위원회가 1월 7일 새집행부 명단을 다음과 같이 발표 ▲ 회장=김종락(유임) ▲ 부회장=이동진, 노정호(이상 유임) ▲ 이사=박점도, 윤재준, 손희준, 유완식, 이팔관, 허종만(이상 유임), 이인근, 김계현, 허곤, 정두영(이상 신임) ▲ 감사=정동환, 김재송(이상 유임)	
01.08	■ 대한연식야구협회 임시 대의원 총회 1월 8일 열린 대한연식야구협회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유임시키고 3명의 이사를 새로 선임한 뒤 67년도 사업계획을 승인 ▲ 회장=김세영 ▲ 부회장=김재곤(金載坤), 박수웅(朴秀雄) ▲ 이사=임광정, 김명배, 유재봉, 김태휘(金太暉), 장병숙(蔣秉淑), 태성범(이상 유임), 김두안, 박희영(朴熙榮), 고병국(高秉國 이상 신임) ▲ 감사=정원섭(鄭元燮 중교연맹 이사 신임)	■ 02.27 국산 피칭 머신 첫 선 선일산업(주)이 개발한 국산 피칭 머신이 2월 27일 휘문고 운동장에서 시범 피칭. 값 16만5,000원(쌀 한가마 3,500원)
03.30	■ 서울시고교 춘계리그 서울시고교야구연맹 주최로 3월 30일부터 서울시 17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A조(성남, 선린상, 배문, 중앙, 휘문, 고명, 청량중, 동대문상, 배명, 장충고)와 B조(경기, 경동, 서울상, 성동, 광신, 동고, 배재고)로 나누어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4월 17일 벌어진 B조 최종 경기에서 광신상고가 경기고를 11-5, 6회 콜드게임으로 물리치고 4승1무로 우승. ◇ B조 종합순위=①광신상고(4승1무) ②성동고(3승1무1패) ③경동고, 동도공고(2승2무1패) ⑤경기고(1승4패) ⑥서울상고(5패)	
04.11	■ 김영찬(金永燦), Perfect Game(완전경기) 수립 인천고 투수 김영찬이 인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1회 대통령배쟁탈 전국고교대회 인천예선전에서 남인천고 27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공 99개를 던져 탈삼진 14개를 기록하며 무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한 끝에 2-0으로 Perfect Game 수립	
04.17	■ 전국대학연맹전 춘계리그 전국대학야구연맹 주최로 4월 17일부터 성균관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인천체전, 경희대, 한양대, 동국대, 동아대, 중앙대 등 10개 대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창동 성대구장과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3일 끝난 마지막 경기에서 성균관대가 동국대를 3-2로 제치고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통산(1차리그 7승, 2차리그 3무1무2패) 10승1무2패로 우승 ◇종합 순위=①성균관대(10승1무2패) ②고려대(9승1무3패) ③한양대(9승4패) ④연세대(8승5패) ⑤경희대(5승1무7패) ⑥동국대(4승1무8패) ⑦서울대(13패) ⑧동아대(2승5패 2차리그 불참) ◇개인상 ▲최우수상=한광홍(성균관대 투수) ▲감투상=임경묵(林景默 고려대 투수) ▲미기상=이성대(성대 우익수) ▲타격상=①박수부(성대 유격수 .362) ②최재봉(고대 포수 .333) ③권국용(연대 3루수 .310) ※추계연맹전은 당국의 지시로 중지</p>	
04.21	<p>■제14회 인천4도시초청고교대회 인천신문사 주최로 4월 21일부터 서울(성남고), 부산(경남고, 부산고), 대구(경북고), 인천(동산고, 인천고) 등 4개 도시에서 6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인천도원구장에서 개최, 4월 23일 끝난 결승전에서 인천고가 동산고를 3-1로 물리치고 우승 ▲준결승전=인천고 1-0 경남고, 동산고 3-2 부산고 ▲결승전=인천고 3-1 동산고 ◇개인상 ▲우수상=김영찬(인천고 투수) ▲타격상=유호빈(柳浩斌 인천고 포수 .429) 감독 임복만(任福萬) 및 이재돈(李在敦 2루수), 이재원(李載元 중견수), 유호빈(포수), 장천기(張天基 유격수), 태수일(太秀一 1루수), 김기환(金起煥 3루수), 김영찬(투수), 차경룡(車庚龍 우익수), 서영일(徐榮一 좌익수)</p>	<p>■04.22 여자농구 세계대회 첫 준우승 4월 21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제5회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 결승리그 3차전 소련과의 경기에서 50-83으로 패한 뒤 4월 22일 밤에 열린 유고전에서 78-71로 이겨 4승1패로 대회 사상 첫 준우승</p>
04.25	<p>■제1회 대통령배쟁탈 전국고교야구대회 대한야구협회 중앙일보·동양방송 공동 주최로 4월 11일부터 중앙, 장충, 성동, 선린상, 배명, 서울상, 청량중, 배문, 동대문상, 경기, 고명상, 경희, 동도공, 성남고 등 17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토너먼트로 개최, 5월 2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경북고가 선린상고를 3-0으로 꺾고 개교 51년, 야구부 창설 2년 3개월 만에 첫 우승 ▲준결승전=선린상고 6-0 성남고, 경북고 4-3 배문고 ▲결승전=경북고 3-0 선린상고 ◇개인상 ▲우수상=임신근(林信根 경북고 투수) ▲감투상=윤효상(선린상고 투수) ▲타격상=한장철(성남고 투수 .667) ▲미기상=조창수(趙昌秀 경북고 좌익수) ▲홈런상=이영완(李英玩 선린상고 좌익수) ▲감독상=서영무(경북고 감독) △경북고=감독 서영무 및 김창고 윤준택(尹俊澤 이상 우익수), 신주철(申周喆 2루수), 조창수(좌익수), 강문길(姜文吉 유격수), 양창의(梁昌義), 김태조(金泰造 이상 포수), 이병재(李炳載 3루수), 임신근(투수겸 1루수), 김민기(金玟基 중견수), 한주수(韓珠秀 1루수), 장중식(張仲植 투수) △선린상고=감독 박진원(朴鎭源) 및 이웅재(李雄載 2</p>	 <p>제1회 대통령배쟁탈 전국고교대회 개막식에서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중앙)이 대한야구협회 김종락(金鍾珞) 회장에게 대통령배를 하사하고 있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루수), 심형택(沈炯澤 중견수), 김우열(金宇烈 3루수), 김중명(우익수), 박지환(朴智煥 유격수), 이영완(좌익수), 신광진(申光鎭 1루수), 허철(許鐵 포수), 윤효상(투수)</p>	
05.03	<p>■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대한실업야구연맹 주최로 5월 3일부터 한일은행, 제일은행, 기업은행, 농협, 상업은행, 철도청, 한국전력, 육군, 해병대 등 9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연 72일간 4차리그(1차=5월 3~19일, 2차=5월 30일~6월 13일, 3차=9월 15~29일, 4차=10월 16~26일) 144경기를 치르는 장기 페넌트 레이스에 돌입, 10월 26일 오후 최종 경기를 끝으로 한일은행이 22승3무7패로 우승한 가운데 폐막</p> <p>◇종합 순위=①한일은행(22승3무7패) ②육군(18승4무10패) ③기업은행(16승6무10패) ④농협(17승2무13패), 상업은행(17승2무13패), 해병대(16승4무12패) ⑦한국전력(9승1무22패) ⑧제일은행, 철도청(이상 9승23패)</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이재우(육군) ▲최우수신인상=김태석(제일은행) ▲최고수훈선수상=김영덕(한일은행) ▲최다승리투수상=①김영덕(한일은행 17승1패) ②김설권(육군 16승5패) ③최관수(기은 12승6패) ▲방어율투수상=①김영덕(한일은행 0.49) ②유백만(상은 0.87) ③김청옥(농협 1.11) ▲출루율상=①이재우(육군 .481) ②하갑득(농협 .450) ③정찬성(해병 .421)▲타격상=①이재우(육군 .318) ②배수찬(기은 .331) ③하갑득(농협 .330) ▲타점상=①박영길(육군 26점) ②최흥표(상은 24점) ③배수찬(기은), 최화용(농협), 김응룡(한일은 이상 18점) ▲도루상=①하갑득(농협 24개) ②한동화(해병 22개) ③이재우(육군 20개) ▲홀런상=김응룡(한일은행 7개) ▲최우수감독상=강대중(한일은행 감독) ▲우수감독상=허종만(육군 감독) ▲특별상=전신용(全信鎔 한일은행장) ▲공로상=김왕길(한일은행 부장)</p>	<p>박정희 대통령이 시구 자세를 취하고 있다. 왼쪽은 민준기 주심</p> <p>■05.03 박정희 대통령 재선 5월 3일 실시된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박정희(朴正熙) 후보가 신민당의 윤보선(尹潽善) 후보를 1백16만표 차로 제치고 대통령에 재선</p> 
05.11	<p>■ 제7회 문교부장관기쟁탈 전국4도시선발고교대회 경북야구협회 매일신문사 공동 주최로 5월 11일부터 배문, 성남, 동산, 인천, 부산, 경남, 경북, 대구상, 성광고 등 9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대구공설운동장에서 개최, 5월 16일 벌어진 최종 결승전에서 성남고가 대구상고를 2-1로 제치고 우승</p> <p>▲승자 결승전=성남고 7-0 경북고 ▲패자 결승전=대구상고 4-2 경북고 ▲최종 결승전=성남고 2-1 대구상고</p> <p>◇개인상 ▲우수선수상=한장철(성남고 투수) ▲감독상=김춘길(대구상 투수) ▲미기상=강송대(姜松大 성남고 좌익수) ▲타격상=우용득(禹龍得 대구상 포수 .421) ▲감독상=박선오(朴善翀 성남고 감독)</p>	<p>실업연맹전 4차리그 첫 날(10월 16일) 한일은행-육군전 4회초 주자 만루에서 한일은행 김응룡이 육군 투수 김설권을 난타, 백 스크린을 때리는 만루 홀런을 날린 뒤 동료들의 환영을 받으며 흡인하고 있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5.21	<p>■ 제22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서울시예선 서울시고교야구연맹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5월 21일부터 서울시 고교 16개 팀(고명상, 광신상, 서울상, 성동, 선린상, 휘문, 성남, 장충, 경희, 청량종합, 동도공, 배문, 배명, 경동, 배재, 경기고)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28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성남고가 배문고를 3-2로 누르고 우승</p> <p>▲승자 준결승전=중앙고 8-1 고명상, 배문고 4-0 성남고 ▲패자 준결승전=성남고 1-0 선린상 ▲승자 결승전=배문고 6-3 중앙고 ▲패자 결승전=성남고 3-0 중앙고 ▲최종 결승전=성남고 3-2 배문고</p>	 <p>10월 26일 열린 실업야구 폐회식에서 22승3무7패로 우승한 한일은행 주장 김영덕(金永德)이 실업연맹 김종민(金鍾敏) 부회장으로부터 우승기를 받아 들고 있다.</p>
05.26	<p>■ 제4회 전국여자대학연식연맹전 서울시여자대학연식야구연맹 주최로 5월 26일부터 경희대, 서울대사대, 서울여대 등 3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동덕및 풍문여고 운동장에서 개최, 5월 31일 서울여대가 2전 전승을 올린 가운데 폐막</p> <p>◇종합 순위=①서울여대(2승) ②경희대(1승1패) ③서울대사대(2패)</p> <p>◇개인상 ▲우수선수상=전용자(서울여대 투수) ▲감투상=김현숙(金賢淑 경희대 3루수) ▲타격상=김정희(金貞姬 서울대사대 유격수 .660)</p>	<p>■ 05.14 양키스 미키 맨틀 500홀런 뉴욕 양키스의 미키 맨틀이 볼티모어전(투수 스투 밀러) 담장을 넘기는 시즌 4호 홀런으로 메이저리그 사상 여섯번째로 500홀런 달성</p>
06.03	<p>■ 제10회 전국4도초청고교대회 부산야구협회 부산일보사 공동 주최로 6월 3일부터 전국에서 6개 고교 팀(청량중, 인천, 경북, 대구상, 경남, 부산고)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개최, 6월 6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대구상고가 5-0으로 경남고를 격파하고 우승</p> <p>▲준결승전=대구상고 2-1 청량중고, 경남고 2-0 인천고 ▲결승전=대구상고 5-0 경남고</p> <p>◇개인상 ▲우수선수상=김준길(대구상고) ▲감투상=오기봉(吳基峯 경남고) ▲미기상=김정룡(金正龍 대구상고) ▲타격상=유호빈(柳浩斌 인천고 .375) ▲감독상=고병호(대구상고)</p>	
06.16	<p>■ 제13회 NBC배쟁탈 전국선수권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6월 16일부터 상업은행, 농협, 제일은행, 한일은행, 기업은행, 철도청, 해병대, 육군, 한국전력, 연세대, 성균관대 등 11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7월 15일부터 3일간 열린 결승리그에서 한일은행이 3전 전승으로 우승</p> <p>◇종합 순위=①한일은행(3승) ②육군(2승1패) ③상업은행(1승2패) ④농협(3패)</p> <p>◇개인상 ▲우수선수상=김영덕(한일은행 투수) ▲타격상=허종만(한일은행 유격수 .500) ▲미기상=허종만(한일은행 유격수) ▲감투상=김태령(육군 우익수) ▲홀런상=장정부(상업은행), 박정일, 김영덕, 허종만(이상 한일은행)</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6.24	<p>■ 제22회 청룡기쟁탈 전국고교선수권대회 대한야구협회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6월 24일부터 전년도 우승 팀 인천고를 비롯해 10개 고교 팀(춘천, 대전, 세광, 전주상, 성남, 동산, 경북, 배문, 경남고)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30일 열린 최종 결승전에서 경북고가 배문고를 5-2로 물리치고 우승</p> <p>▲승자 준결승전=경북고 3-2 배문고, 성남고 5-0 경남고 ▲패자 준결승전=배문고 9-4 경남고 ▲승자 결승전=경북고 2-1 성남고 ▲패자 결승전=배문고 8-4 성남고 ▲최종 결승전=경북고 5-2 배문고</p> <p>◇개인상 ▲우수선수상=임신근(경북고 투수) ▲감투상=이영배(李英培 배문고 투수) ▲타격상=한장철(성남고 투수 .533) ▲미기상=김창고(경북고 1루수)</p> <p>△배문고=감독 박상규 및 김종환(포수), 박상규(朴尙圭 중견수), 백기성(유격수), 도중연(좌익수), 오경수(吳慶洙 3루수), 윤상인(尹相仁 1루수), 박두혁(朴斗赫 2루수), 정창수(鄭昌壽 우익수), 김대권(金大權 포수겸 대타), 김기주(金基柱 우익수), 이영배(투수)</p>	
06.30	<p>■ 와세다(早稻田)대학초청 한·일친선대회 대한야구협회 동아일보사 공동 초청으로 6월 29일 내한, 6월 30일부터 국내 대학 및 실업 팀과 11차전 끝에 9승2패를 기록</p> <p>△와세다대=아라카와(荒川 유격수), 센토(千藤 우익수 겸 좌익수), 오찌(越智 좌익수겸 3루수), 야자와(谷澤 1루수겸 우익수), 하야시다(林田 중견수) 나가쿠라(長倉 포수), 아키요시(秋吉 2루수), 오다(小田 1루수) 마츠시마(松島 좌익수), 오가와(小川 투수), 미노와(蓑輪 3루수), 미와다(三輪田), 모리(森), 야스다(安田 이상 투수)</p> <p>▲1차전(6월 30일 서울)=와세다대 6-4 해병대 ▲2차전(7월 1일 서울)=와세다대 11-0 한양대 ▲3차전(7월 1일 서울)=와세다대 3-1 육군 ▲4차전(7월 3일 서울)=와세다대 10-1 성균관대 ▲5차전(7월 3일 서울)=와세다대 6-3 한일은행 ▲6차전(7월 4일 대구)=와세다대 4-6 기업은행 ▲7차전(7월 6일 대전)=와세다대 6-2 한국전력 ▲8차전(7월 8일 서울)=와세다대 6-0 연세대 ▲9차전(7월 8일 서울)=와세다대 8-0 농협 ▲10차전(7월 9일 서울)=와세다 8-1 고려대 ▲11차전(7월 9일 서울)=와세다대 3-4 국군선발</p>	 <p>와세다대의 9번 오다(小田)가 해병대와와의 첫 경기에서 8회초 2사후 투런 결승 홈런을 날린 뒤 홈인하고 있다.</p>
07.10	<p>■ 제11회 한·미친선대회 대한야구협회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7월 10일부터 미군 4개 팀(미7사단, 주일미공군다치가와, 미2사단, 미부평에스컴)과 한국 4개 팀(제일은행, 해병대, 철도청, 육군) 등 8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7월 14일 끝난 결승전에서 미2사단이 제일은행을 8-6으로 물리치고 우승</p> <p>▲준결승전=제일은 7-4 다치가와, 미2사단 6-2 에스컴 ▲결승전=미2사단 8-6 제일은행</p>	<p>■ 07.04 니크로 형제 선발 맞 대결 시카고 컵스의 조 니크로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필 니크로는 형제로 메이저리그 사상 41년 만에 형제가 선발로 맞 대결. 최초는 1926년 제시 버질과 제시 반즈 형제의 대결</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7.15	<p>■ 대구·부산고교교환경기 경북야구협회 매일신문사 공동 주최로 7월 15일 대구와 부산에서 4개 고교(경남, 부산, 경북, 대구상고)가 출전한 가운데 대구 동운운동장에서 개최, 7월 16일 벌어진 마지막 경기에서 대구상고가 경남고를 3-1로 꺾고 2전 전승으로 우승 ▲1차전(7월 15일)=부산고 5-0 경북고, 대구상 3-1 경남고 ▲2차전(7월 16일)=대구상 1-0 부산고, 경북고 3-0 경남고 ◇종합 순위=①대구상고(2승) ②부산고, 경북고(이상 1승1패) ④경남고(2패)</p>	
07.26	<p>■ 제19회 쌍룡기쟁탈 전국고교대회 부산야구협회 국제신문사 공동 주최로 7월 26일부터 전국 각 시 도에서 16개 팀(선린상, 전주상, 동산, 대구상, 부산상, 세광, 경남상, 경희, 중앙, 경북, 부산, 대전, 인천, 성동, 경남, 춘천고)이 출전한 가운데 구덕구장에서 개최, 7월 31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대구상고가 부산상고를 3-1로 제치고 우승 ▲준결승전=대구상고 1-0 부산고, 부산상고 5-3 경남고 ▲결승전=대구상고 3-1 부산상고 ◇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춘길(대구상고) ▲감투상=윤동복(尹東福 부산상고) ▲타격상=①김철오(부산고 .416) ②하영발(부산상고 .416) ▲미기상=김정룡(金正龍 대구상고 2루수)</p>	
07.30	<p>■ 제1회 김세영회장기쟁탈 전국중학연식초청대회 대한연식야구협회 주최로 7월 28일부터 전국 17개 중학 팀(김천, 경상, 대구, 경북, 동산, 중앙, 군산, 부산, 충남, 대전동, 부산 동성, 배명, 인천남, 휘문, 선린, 동인천, 대전중)이 출전한 가운데 김천중 운동장에서 개최, 8월 1일 열린 결승전에서 부산 동성중이 9회말 신중국(辛重國)의 굿바이 2점 홈런에 힘 입어 선린중을 3-2로 물리치고 우승 ▲준결승전=선린중 4-3 경상중, 부산 동성중 3-1 대구중 ▲결승전=동성중 3-2 선린중 ◇개인상 ▲우수상=홍일룡(洪一龍 동성중 투수) ▲감투상=김귀태(金貴泰 선린중 3루수) ▲타격상=김기석(金基奭 동성중 2루수) ▲미기상=주규식(朱圭植 선린중 유격수)</p>	
08.06	<p>■ 서울시고교선발초청 한·일친선고교대회 일본고교야구연맹 초청으로 8월 4일 배문고를 주축으로 한 서울시고교선발 팀이 일본에 원정, 8월 6일부터 17일까지 일본 고교선발 팀들과 7차전을 가진 끝에 4승3패를 기록 ▲1차전(8월 6일)=서울선발 6-11 시마네(島根)선발 ▲2차전(8월 6일)=서울선발 9-3 시마네동부선발 ▲3차전(8월 9일)=서울선발 9-6 구라시키(倉敷)선발 ▲4차전(8월 13일)=서울선발 0-4 나라(奈良)선발 ▲</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5차전(8월 14일)=서울선발 2-1 미야즈(宮津)고 ▲5차전(8월 14일)=서울선발 2-1 미야즈(宮津)고 ▲6차전(8월 16일)=서울선발=3-9 야마구치(山口)선발 ▲7차전(8월 17일)=서울선발 3-2 고쿠라(小倉)선발 ◇서울시교선발 ▲단장=이인근(연맹 회장) ▲섭외=풍규명(馮圭明 서울협회 사무국장) ▲총무=이기영(李基英 배문고 야구부장) ▲감독=박상규(배문고 감독) ▲투수=한장철(성남고), 최주현(崔柱鉉 청량중고) 정두용(성동고), 이성수(李聖洙 배문고) ▲포수=임상준(林相俊 장중고), 김중환(배문고) ▲내야수=박노국(朴魯國 중앙고), 송영철(宋永哲 성남고), 박두혁, 윤상인, 오경수, 백기성(이상 배문고), 김휘태(金輝泰 서울상고) ▲외야수=도중연 박상규(이상 배문고), 정진구(성남고) 김유현(동대문상고)</p>	
08.19	<p>■ 시마네(島根)선발초청 한·일친선고교대회 대한야구협회 초청으로 8월 19일 일본 시마네현 고교 선발 팀이 내한, 9월 3일까지 국내 고교 팀과 부산, 대구, 대전, 인천, 서울에서 9차전 끝에 7승1무1패를 기록 ▲1차전(8월 19일 부산)=시마네선발 0-1 부산선발 ▲2차전(8월 20일 대구)=시마네선발 7-4 경북고 ▲3차전(8월 22일 대전)=시마네선발 9-2 대전고·전주상고선발(8회 일몰 게임) ▲4차전(8월 24일 인천)=시마네선발 15-1 인천선발 ▲5차전(8월 26일 서울)=시마네선발 0-0 선린상고 ▲6차전(8월 26일 서울)=시마네선발 4-0 서울선발 ▲7차전(8월 30일 서울)=시마네선발 1-0 배문고 8차전(9월 1일 서울)=시마네선발 4-1 중앙고 ▲9차전(9월 4일 서울)=시마네선발 9-6 서울선발</p>	 <p>부산을 찾은 일본 시마네현고교선발 쿠사(久佐) 단장에게 부산야구협회 이학만(李鶴晩) 회장이 꽃다발을 증정하고 있다.</p>
08.25	<p>■ 제7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일본야구연맹 주최로 8월 25일부터 한국, 자유중국(대만), 필리핀, 일본 등 4개국이 출전한 가운데 일본 도쿄(東京) 메이지(明治)구장에서 더블리그로 개최, 9월 2일 벌어진 2차리그 최종일 경기에서 일본에 3-15로 패해 준우승 ▲1차리그=한국 13-1 필리핀, 한국 2-2 자유중국, 한국 2-3 일본 ▲2차리그=한국 9-4 필리핀, 한국 4-2 자유중국, 한국 3-15 일본 ◇종합 순위=①일본(6승) ②한국(3승1무2패) ③자유중국(1승1무4패) ④필리핀(1승5패)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에다마쓰(枝松 道輝) ▲수위타격상=김동률(.536) ▲홈런상=관대전(官大奎 2개) ▲감독상=이나바(稻葉 誠治) ◇한국대표단 ▲감독=강대중(한일은 감독) ▲코치=김계현(한전 감독) ▲투수=김영덕, 김인식(이상 한일은), 김설권(육군), 최관수(기은), 유백만(상은), 김청옥(농협) ▲포수=정동진(해병대), 임철수(한일은) ▲내야수=김응룡(한일은 1루수), 김휘만, 허종만(許鍾萬 이상 한일은 2루수), 박정일(한일은), 김동률(제일은), 이</p>	<p>■ 08.23 FISU한국 가입 승인 국제대학스포츠위원회(FISU)가 일본 도쿄(東京)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한국 가입을 승인</p>  <p>제7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에 그친 한국대표 팀의 강대중(姜大中) 감독(가운데)이 현지에서 일본 방송과 인터뷰하고 있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재우(육군 이상 3루수), 이건웅(李健雄 해병 유격수) ▲외야수=박영길(육군 좌익수), 정찬성(해병 중견수), 김태령(육군), 정동건(한일은 이상 우익수)	■08.26 제5회 유니버시아드 동경대회 출전 FISU 가입에 따라 8월 26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유니버시아드에 117명 선수들이 8개 종목에 출전
09.10	■제21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서울시에선 동아일보사 주최로 9월 10일부터 중앙, 성남, 경동, 휘문, 서울, 성동, 경희, 배문, 장충, 동대문상, 청량중, 고명, 동도공, 배명고 등 서울시 1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9월 16일 열린 결승전에서 성남고가 중앙고를 3-0으로 꺾고 우승 ▲패자 준결승전=동대문상 8-3 배명고 ▲승자 결승전=성남고 1-0 중앙고 ▲패자 결승전=중앙고 10-6 동대문상 ▲결승전=성남고 3-0 중앙고	
09.12	■한장철(韓章哲), Perfect Game(완전경기) 수립 성남고 투수 한장철이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제21회 전국지구별초청전국고교쟁패전 서울시에선 승자 준결승전에서 서울상고 27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공 101개를 던져 삼진 11개를 잡으며 8-0으로 57년 휘문고 강남규(姜南奎) 이후 10년 만에 Perfect Game 수립	
09.16	■제1회 전국4도시고교초청대회 충남야구협회 대전일보사 공동 주최로 9월 16일부터 4개 고교 팀(경남, 경북, 배문, 대전고)이 출전한 가운데 대전공설운동장에서 토너먼트로 개최, 9월 17일 열린 결승전에서 경남고가 경북고를 3-0으로 꺾고 우승 ▲1차전=경북고 3-1 대전고, 경남고 3-2 배문고 ▲결승전=경남고 3-0 경북고 ◇개인상 ▲최우수상=조흥기(경남고 투수) ▲타격상=조흥기(경남고 투수) ▲미기상=박두혁(배문고 2루수)	
09.17	■김영덕,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② 한일은행 투수 김영덕(金永德)이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3차리그에서 농협 선수들을 상대로 볼넷 4개와 사구 1개 만을 허용한 끝에 1-0으로 개인 통산 두번째로 No hit No Run(노히트노런) 기록	
09.20	■제14회 전국중학선수권대회 대한연식야구협회 매일신문사 공동 주최로 9월 20일부터 전국에서 12개 중학 팀(대구, 경남, 충남, 천안북, 대신, 경상, 경북, 대성, 성광, 중앙, 부산, 휘문중)이 출전한 가운데 대구종합경기장에서 개최, 9월 24일 열린 결승전에서 경북중이 경상중을 3-1로 꺾고 우승 ▲준결승전=충남중 0-1 경상중, 경북중 5-0 부산중 ▲결승전=경북중 3-1 경상중 ◇개인상 ▲최우수선수상=남우식(南宇植 경북중 투수) ▲감투상=정기혁(鄭基赫 경상중 투수) ▲타격상=	■칼 야스트르젠프스키 타격 3관왕 차지 보스턴 레드삭스의 칼 야스트르젠프스키가 타율 .326, 홈런 44, 타점 121로 타격 3관왕에 올라 만장일치로 아메리칸리그 MVP에 선정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남우식(경북중 .500) ▲미기상=윤병운(尹炳雲 경북중 유격수) ▲지도상=조종식(曹鍾植 대성중 감독) ▲감독상=박창룡(경북중 감독)</p>	
09.22	<p>■ 제21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대한야구협회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9월 22일부터 전년도 우승 팀 선린상고를 비롯해 전국에서 15개 고교 팀(성남, 동대문상, 배명, 중앙, 동산, 인천, 경남, 부산, 경북, 대구상, 전남, 전주상, 대전, 세광고)이 출전, 준결승부터 패자 부활전이 있는 닉 아웃 시스템으로 9일간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2일 벌어진 최종 결승전에서 경남고가 3-2로 경북고를 제치고 12년 만에 패권 탈환</p> <p>▲승자 결승전=경북고 2-0 경남고 ▲패자 결승전=경남고 4-3 성남고 ▲결승전=경남고 7-0 경북고 ▲최종 결승전=경남고 3-2 경북고</p> <p>◇개인상 ▲우수선수상=조흥기(경남고 투수) ▲감독상=임신근(경북고 투수) ▲타격상=이종진(李種進 성남고 1루수) ▲미기상=고재백(高在伯 경남고 우익수) △경남고=감독 어우홍 및 송성민(宋聖敏 2루수겸 유격수), 권철현(3루수), 정기태(포수), 이대섭(李大燮 중견수), 조흥기(투수), 김영목(우익수겸 1루수), 허구연(許龜淵 1루수겸 2루수), 오기봉(유격수), 고재백(우익수), 이민성(李民星 대타겸 우익수), 남홍기(南洪基 좌익수)</p>	 <p>제21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개막식</p>  <p>김상만(金相萬 동아일보 부사장) 대회 부회장이 우승 팀인 경북고 주장에게 황금사자를 수여하고 있다.</p>
10.05	<p>■ 제48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대한체육회 주최로 10월 5일부터 7일간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10일 열린 결승전에서 중앙고(서울), 고려대(서울) 및 연식부에서 개성중(부산), 재일교포가 우승</p> <p>▲고등부 3회전=동산고(인천) 0-1 대구상고(경북), 중앙고(서울) 5-3 부산고(부산) ▲동 결승전=대구상고(경북) 0-6 중앙고(서울)</p> <p>▲대학부 1회전=동아대(부산) 0-X 경북대(경북 기권 패), 고려대(서울) 0-X 전남대(전남 기권 패) ▲동 결승전=고려대(서울) 5-3 동아대(부산)</p> <p>▲중등부(연식) 결승전=개성중 1-0 인천남중 ▲일반부(연식) 결승전=재일교포 2-0 한국전력</p>	<p>■ 10.12 카디널스 월드시리즈 제패 월드시리즈 7차전에서 내셔널리그의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아메리칸리그의 보스턴 레드삭스를 7-2로 격파하고 4승3패로 우승</p> <p>■ 10.12 월드시리즈 우승 트로피 첫 시상 월드시리즈에 우승 트로피(일명 메이저리그 커미셔너 트로피)가 등장한 것은 1967년. 이 해 첫 우승의 영광을 차지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은제 기둥에 순금 깃발로 치장된 트로피를 첫 수상</p>
10.13	<p>■ 제4회 실업야구 올스타전 한국실업야구연맹 주최로 10월 13일부터 3일간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15일 더블 헤더로 열린 2, 3차전에서 실업단이 이겨 3전 전승으로 우승</p> <p>▲1차전(통산 10차전 10월 13일)=금용단 2-3 실업단 ◇개인상 △수훈선수상=이박(한전) △승리투수상=남궁택경(철도) △우수투수상=김설권(육군) △타격상=박영길(육군 1.000) △감독상=허종만(許鍾萬 한일은) △훈련상=이재우(육군) △감독상=허종만(許宗萬 육군 감독)</p>	<p>■ 사이영상 메이저리그 양 리그 첫 시상 1967년부터 사이영상을 양 리그로 분리 시상, 아메리칸리그에서는 보스턴 레드삭스의 짐 론보그, 내셔널리그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마이크 매코믹이 수상</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2차전(통산 11차전 10월 15일)=실업단 5-2 금용단 ◇개인상 △수훈선수상=정찬성(육군) △승리투수상=김설권(육군) △우수투수상=이충순(한전) △타격상=김영빈(농협 .665) △감투상=김동률(제일은) △감독상=김진영(해병대 감독)</p> <p>▲3차전(통산 12차전 10월 15일)=금용단 5-6 실업단 ◇개인상 ▲수훈선수상, 승리투수상=남궁택경(철도) ▲우수투수상=김소식(상은) ▲타격상=배수찬(기은 1.000) ▲감투상=한동화(해병) ▲감독상=허종만(육군 감독)</p>	
10.28	<p>■일본 프로야구초청 한·일친선대회 대한야구협회가 일본 프로야구 도에이(東映) 플라이어스와 주니치(中日) 드래곤스를 초청, 10월 28, 29일 서울운동장에서 실업선발과 친선경기 끝에 1승1패를 기록 ▲1차전(10월 28일 서울)=실업선발 9-4 주니치, 주니치 5-4 도에이 ▲2차전(10월 29일 서울)=실업선발 1-9 도에이, 주니치 9-11 도에이</p>	
11.01	<p>■제10회 문교부장관기쟁탈 전국중학초청대회 대한연식야구협회 주최로 11월 1일부터 전국에서 14개 중학 팀(동대문, 배명, 배문, 선린, 휘문, 동산, 동인천, 상인천, 인천남, 대전동, 경남, 대신, 경상, 대구중)이 출전한 가운데 인천 도원구장에서 개최, 11월 5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부산 대신중이 부산 동성중을 2-1로 물리치고 우승 ▲준결승전=부산 동성중 1-0 선린중, 대신중 1-0 충남중 ▲결승전=대신중 2-1 동성중</p>	
11.01	<p>■제17회 백호기쟁탈 전국군·실업쟁패전 대한야구협회 경향신문사 공동 주최로 11월 1일부터 실업야구 9개 팀(한일은행, 육군, 기업은행, 상업은행, 농협, 해병대, 한국전력, 제일은행, 철도청)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1월 5일 끝난 결승전에서 육군이 10회 연장전 끝에 농협을 1-0으로 누르고 우승 ▲준결승전=육군 1-0 한국전력, 상은 2-8 농협 ▲결승전=육군 1-0 농협(연장 10회) ◇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설권(육군 투수) ▲감투상=이계영(농협 투수) ▲타격상=최치남(농협 좌익수 .364) ▲승리감독상=허종만(육군 감독) △육군=감독 허종만 및 황성록, 황종태(이상 1루수) 강태정, 이희수(이상 2루수), 이재우, 김충(이상 3루수) 박영길(좌익수), 박병선(대타겸 좌익수), 정연희, 조원일(이상 중견수), 김태령(우익수), 박인규, 하일(이상 유격수), 최주억(포수), 배성서(대타겸 포수), 김설권 김병기, 유영수, 김봉련(金奉鍊 이상 투수)</p>	<p>제17회 백호기쟁탈 전국군·실업 쟁패전에서 우승한 육군 팀의 주장 박영길에게 경향신문사 박찬현(朴瓚鉉) 사장이 우승의 상징인 백호기를 수여하고 있다</p>  <p>제17회 백호기쟁탈 전국군·실업 쟁패전 결승전에서 육군이 농협을 10회 연장전 끝에 1-0으로 제치고 우승, 두 팀 선수들이 도열한 가운데 시상식을 거행</p>
11.20	<p>■서울시대학선발 일본원정 한·일친선대학대회 일본 규슈(九州)6대학연맹 초청으로 서울시대학선발</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팀이 일본에 원정, 12월 1일까지 규슈지방에서 8차전을 치른 끝에 1승1무6패를 기록</p> <p>◇서울시대학선발 ▲단장=박희성(朴希聖 고려대) ▲총무=김재송(협회 이사) ▲섭외=허곤 협회 이사 ▲감독=이팔관(성균관대 감독) ▲코치=고광적(고려대 감독) ▲투수=김상호, 한광홍(이상 성균관대), 박동수(고려대), 김인복(金仁福 한양대), 임경묵(고려대) ▲포수=최재봉(고려대), 이원호(李元鎬 연세대) ▲내야수=윤성재(성균관대), 주창균, 전성욱(이상 고려대), 박수부, 김중수(이상 성균관대) ▲외야수=김민태, 조일수, 이성대(이상 성균관대), 오갑수(고려대)</p>	
12.16	<p>■제10회 이영민 타격상 오금복(吳錫福) 수상</p> <p>대한야구협회가 이사회를 열고 제10회 이영민 타격상 수상자로 67년도 전국 3개 고교대회에서 평균 타율 .368을 기록한 대전고 중견수 오금복을 선정</p>	
1968. 01.08	<p>■대한연식야구협회 임시 대의원 총회</p> <p>대한연식야구협회가 1월 8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회장 김세영(金洗榮), 부회장 김재곤(金載坤), 박수웅(朴秀雄)을 유임시킨 뒤 새 임원을 선출</p> <p>△회장=김세영 △부회장=김재곤, 김수웅 △이사=임광정(林光廷), 김명배(金明培), 유재봉, 김태휘(金太彙), 장병숙(蔣秉淑), 태성범(太聖範) 이상 유임, 김두안(金斗安), 박희영(朴熙榮), 고병국(高秉國) 이상 신임</p>	<p>■01. 21 서울에 무장공비 침투</p> <p>1월 21일 밤 10시10분 서울근교에 30여 명으로 추산되는 북괴 무장간첩이 나타나 경찰과 교전, 간첩 1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p>
03.25	<p>■서울시고교 춘계리그</p> <p>서울시고교야구연맹 주최로 3월 25일부터 서울시 고교 1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A조(갑, 을부)와 B조로 나누어 서울운동장에서 풀 리그로 개최, 4월 11일 끝난 A조 마지막 경기에서 갑부 성남고와 을부 선린상고가 4승1무로 동률, 4월 12일 끝난 우승 결정전에서 선린상고가 성남고를 3-2로 누르고 우승</p> <p>▲A조(갑부) 결승전=성남고 1-0 장충고 ▲A조(을부) 결승전=선린상고 7-1 휘문고 ▲ 최종 결승전=선린상고 3-2 성남고</p> <p>◇A조 갑부 순위=①성남고(4승1패) ②장충고(3승2패) ③중앙고, 동대문상고(이상 2승2패) ④배명고(4패) ◇ 동 을부 순위=①선린상고(4승1무) ②휘문고(3승1무1패) ③배문고(3승2패) ④청량중고(1승3패) ⑤경희고(4패)</p> <p>◇A조 개인상 ▲우수상=임홍빈(任洪彬 선린상 투수) ▲감투상=조동완(曹東完 성남고 투수) ▲타격상=신광진(선린상 1루수 .417) ▲홈런상=안광진(安光辰 청량중 1루수), 이영완(선린상 좌익수), 최영권(崔英權 성남고 중견수), 양형오(梁炯五 성남고 포수)</p> <p>◇B조 순위=①성동고(3승1패) ②경동고, 경기상고(2승1무1패) ④동도공고(2승2패) ⑤경기고(5패)</p> <p>◇B조 개인상 ▲우수상=윤현묵(尹顯默 성동고 투수) ▲감투상=신남수(申南洙 경동고 투수), 배중순(裴重</p>	 <p>선린상고의 조원길이 장충고와의 A조(갑부) 결승전 8회초 우중간으로 빠지는 러닝 홈런을 날린 뒤 홈인하고 있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梅 경기상 투수) ▲타격상=전영국(全永國 성동고 투수 .467)</p>	
03.29	<p>■윤동균(尹東均),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동대문상고 투수 윤동균이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서울 시고교 춘계연맹전에서 배명고 28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삼진 8개를 잡으며 무안타 무실점 끝에 4-0으로 No Hit No Run 기록</p>	
04.05	<p>■전국대학연맹전 1차리그 전국대학야구연맹 주최로 4월 5일부터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연세대, 성균관대, 서울대, 한양대, 동아대 등 8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8일 최종일 경기에서 고려대가 연세대를 4-0으로 물리치고 13승1패로 우승 ◇종합 순위=①고려대(13승1패) ②연세대(9승1무4패) ③성균관대, 한양대(이상 7승2무5패) ⑤동국대, 동아대(이상 6승6패) ⑦경희대(4승3무7패) ⑧서울대(14패) ◇개인상 ▲우수상=이종만(李鍾萬 고려대 투수) ▲타격상=①황공렬(黃功烈 한양대 1루수 .379) ②윤희(尹赫 연세대 좌익수 .375) ③문동진(文東津 동아대 우익수 .350) ▲미기상=최남수(崔南洙 고려대 좌익수) ▲감투상=이상용(李祥庸 동아대 투수) △고려대=최남수(좌익수), 전성욱(3루수), 이광환(유격수), 최재봉(포수), 오갑수(중견수), 이기만(李基晩 1루수), 주창균, 조성환(이상 2루수), 함병일, 장제국(張濟國), 이창훈(이상 우익수), 사경만(史璟晩 투수겸 대타) 이종만, 임경묵(이상 투수) ※추계연맹전은 당국의 지시로 중지</p>	<p>■04.10 시즌 오픈 험프리 부통령 시구 워싱턴에서 열린 68 메이저리그 첫 경기인 워싱턴 세너터스-미네소타 트윈스전이 험프리 부통령의 시구로 개막</p>
04.13	<p>■제18회 백호기쟁탈 전국군·실업쟁패전 대한야구협회 경향신문사 공동 주최로 4월 13일부터 2일간 9개 팀(한국전력, 제일은행, 육군, 철도청, 상업은행, 한일은행, 농협, 기업은행, 해병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A, B, C, D 4개 조로 나누어 토너먼트로 예선전을 개최,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 결승리그에서 재경기 끝에 육군이 기업은행을 8-2로 꺾고 우승 ▲우승 결정전=육군 0-0 기업은행 ▲최종 결정전=육군 8-2 기업은행 ◇개인상 ▲우수선수상=김명성(육군 투수) ▲감투상=한광홍(기업은행 투수) ▲타격상=정연희(육군 .571) ▲감독상=허종만(육군 감독)</p>	 <p>경향신문사 박찬현(朴瓚鉉) 사장이 제18회 군·실업쟁패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육군 주장 박영길(朴永吉)에게 백호기를 수여하고 있다.</p>
04.19	<p>■제15회 인천4도시초청고교대회 경기연합일보사 주최로 4월 19일부터 3일간 인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 4월 21일 끝난 결승전에서 경북고가 11회 연장전 끝에 4-2로 부산고를 꺾고 우승 ◇개인상 ▲우수상=임신근(경북고 투수) ▲타격상=조창수(경북고 좌익수 .667)</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4.20	<p>■ 규슈6대학선발초청 한·일친선대회 대한야구협회 초청으로 규슈(九州)6대학선발이 내한, 4월 20일부터 서울을 비롯해 인천, 대전, 대구에서 국내 대학및 실업 팀들과 8차전을 개최, 4월 30일 대구에서 벌어진 한일은행과의 고별전에서 규슈선발이 4-3으로 이겨 종합 성적 4승4패를 기록</p> <p>▲1차전(4월 20일 서울)=규슈선발 1-6 대학선발 ▲2차전(4월 21일 서울)=규슈선발 2-4 기업은행 ▲3차전(4월 23일 인천)=규슈선발 6-0 대학선발 ▲4차전(4월 26일 서울)=규슈선발 2-4 대학연합(경희, 서울, 연세, 한양대) ▲5차전(4월 27일 서울)=규슈선발 12-1 대학연합(고대, 성대, 동국대) ▲6차전(4월 28일 서울)=규슈선발 3-1 육군 ▲7차전(4월 29일 대전)=규슈선발 3-6 상업은행 ▲8차전(4월 30일 대구)=규슈선발 4-3 한일은행</p>	
04.29	<p>■ 제2회 대통령배쟁탈 전국고교대회 대한야구협회 중앙일보·동양방송 공동 주최로 4월 29일 전년도 우승 팀 경북고를 비롯, 전국의 각 시도 고교대표 14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5월 6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경북고가 6-1로 배문고를 격파하고 우승</p> <p>▲준결승전=배문고 5-3 선린상고, 경북고 2-1 경남고 ▲결승전=경북고 6-1 배문고</p> <p>◇개인상 ▲우수상=임신근(경북고 투수) ▲타격상=권철현(경남고 중견수 .615) ▲미기상=조창수(경북고 좌익수) ▲감투상=김종인(金鍾仁 배문고 투수) ▲홈런상=김현태(金賢泰 배문고 1루수), 이영완(선린상고 좌익수), 조창수(경북고 좌익수) ▲감독상=서영무(경북고 감독)</p> <p>△경북고=감독 서영무 및 조창수(좌익수), 이병재(3루수), 양창의(포수), 강문길(유격수), 임신근(1루수겸 투수), 김창고(우익수), 김민기(중견수), 김태조(대타), 박명훈(朴明勳 중견수), 최영일(1루수겸 2루수), 김보연(金寶連 투수), 신준섭(申俊燮 2루수), 백찬영(白燦영 대타), 문영조(文英祚 1루수)</p> <p>△배문고=감독 박상규 및 박두혁(2루수), 김성배(金聖培 좌익수), 이영배, 백창현(白昌鉉 이상 투수), 차경찬(車京燦 투수겸 우익수), 백기성(유격수), 오경수(3루수), 김현태(金賢泰 1루수), 박태규(朴太圭 우익수겸 좌익수), 김대권(포수), 박상규(중견수), 조민기(趙玟冀 우익수겸 대타), 김종인(金鍾仁 투수겸 우익수), 임봉기(林奉基), 한명기(韓明基), 신화길(申華吉 이상 우익수)</p>	 <p>제1회 대통령배쟁탈 전국고교대회에 이어 제2회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경북고 주장 조창수(趙昌秀)가 우승 컵을 받아 들고 있다. 옆에서 모무열(毛無說) 심판이사가 지켜보고 있다.</p>
05.07	<p>■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한국실업야구연맹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5월 7일부터 육군, 해병대, 철도청, 한국전력, 기업은행, 농협, 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등 9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춘계(5월 7~20일), 하계(6월 18일~7월 26일), 추계(9월 19일~10월 1일) 등 3차리그로 나누어 개</p>	<p>■ 05.08 컷피시 헌터 퍼펙트 게임 어슬레틱스의 컷 피시 헌터가 미네소타 트윈스를 상대로 3안타 4타점을 올리며 퍼펙트 게임까지 수립</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최, 10월 2일부터 춘·하·추계 우승 팀이 거루는 결승 토너먼트를 개최한 뒤 10월 8일 벌어진 최종 결승전에서 육군이 한일은행을 4-0으로 꺾고 첫 우승</p> <p>◇춘계리그 순위=①한일은행(8승) ②해병대, 기업은행(이상 5승 3패) ④한국전력, 제일은행, 상업은행(이상 4승4패) ⑦육군(3승5패) ⑧농협(2승6패) ⑨철도청(1승7패)</p> <p>◇하계리그 순위=①육군(7승1패) ②기업은행, 해병대(이상 6승2패) ④상업은행, 한일은행, 제일은행(이상 4승4패) ⑦농협(3승5패) ⑧한국전력(2승6패) ⑨철도청(8패)</p> <p>◇추계리그 순위=①제일은행, 기업은행, 한일은행(이상 5승1무2패) ④상업은행, 한국전력(이상 4승1무3패) ⑥해병대(3승2무3패) ⑦육군(3승5패) ⑧농협(2승1무5패) ⑨철도청(1승7패)</p> <p>▲순위 결정 준결승=기업은행 5-1 한일은행 ▲순위 결정 결승전=제일은행 4-0 기업은행</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최흥표(육군) ▲최고수훈선수상=김명성(육군) ▲최우수신인선수상=한광홍(기업은행) ▲감투상=장원순(제일은행) ▲노히트노런상=김영덕(한일은행) ▲최우수감독상=허종만(육군) ▲우수감독상=강대중(한일은행) ▲특별상=박원근(육군야구부장) ▲공로상=김탁교(육군 야구부부장)</p>	 <p>실업연맹전 춘계리그 2일째 농협-한국전력전 6회말 한국전력의 5번 이박(李博)이 첫 홈런을 날린 뒤 홈인하고 있다. 이박은 다음 타석에서도 홈런을 기록, 2연타석 홈런을 기록</p>
05.17	<p>■제11회 전국4도시초청고교대회</p> <p>부산야구협회 부산일보사 공동 주최로 5월 17일부터 전국에서 6개 고교 팀(경북, 대구상, 동산고, 경남, 부산, 부산상고)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개최, 5월 22일 벌어진 최종일 경기에서 경북고가 경남고를 6-0으로 격파하고 3승2무로 우승</p> <p>▲3, 4위전=대구상고 4-0 동산고, 부산상고 2-1 부산고 ▲결승전=경북고 6-0 경남고</p> <p>◇종합 순위=①경북고(3승2무) ②경남고(3승 1무1패) ③대구상고(3승2패) ④부산상고(2승3패) ⑤동산고(1승4패) ⑥부산고(1무4패)</p> <p>◇개인상 ▲우수선수상=임신근(경북고 투수) ▲감투상=김영목(경남고 투수) ▲미기상=양창의(경북고 포수) ▲타격상=노회학(盧會鶴 부산상고 .437) ▲홈런상=임신근(경북고) ▲지도상=서영무(경북고 감독)</p>	
05.22	<p>■제23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서울시예선</p> <p>대한야구협회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5월 22일부터 서울시 고교 11개 팀(경동, 중앙, 경기상, 경희, 배명, 청량중, 장중, 성남, 휘문, 성동, 배문고)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5월 29일 끝난 결승리그에서 선린상고와 성남고가 2승1무로 공동 우승</p> <p>▲결승 1차리그=성남고 1-1 선린상고, 중앙 11-5 배문고 ▲결승 2차리그=선린상고 2-1 배문고, 성남고 13-0 중앙고 ▲결승 3차리그=성남고 7-2 배문고, 선린상고 8-1 중앙고</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종합 순위=①선린상, 성남고(이상 2승1무) ③중앙고(1승2패) ④배명고(3패)</p> <p>◇개인상 ▲우수상=박준영(朴俊英 선린상 투수) 노길상(성남고 투수) ▲타격상=박두혁(배문고 3루수 .429) ▲최다타점상=권백행(성남고 좌익수 5타점) ▲최다량 안타상=이무중(성남고 우익수 8안타) ▲홈런상=홍춘기(중앙고 좌익수), 안윤중(安潤鍾 동대문상 포수) ▲감독상=박진원(선린상 감독), 박선오(성남고 감독)</p>	
05.30	<p>■ 전국대학연맹전 2차리그</p> <p>전국대학야구연맹 주최로 5월 30일부터 전국 대학 8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8일 열린 최종일 경기에서 고려대가 연세대를 4-0으로 격파하고 13승1패로 우승</p> <p>◇종합 순위=①고려대(13승1패) ②연세대(9승1무4패) ③성균관대, 한양대(이상 7승2무5패) ⑤동국대, 동아대(이상 6승6패) ⑦경희대(4승3무7패) ⑧서울대(14패)</p> <p>◇개인상 ▲우수상=이종만(李鍾萬 고대 투수) ▲감독상=이상용(李祥庸 동아 투수) ▲타격상=①황공렬(黃功烈 한대 1루수 .379) ②윤혁(연대 좌익수 .375) ③문동진(文東津 동아 우익수 .350) ▲미기상=최남수(崔南洙 고대 좌익수)</p>	
06.02	<p>■ 제8회 문교부장관기쟁탈 전국4도시선발고교대회</p> <p>경북야구협회 매일신문사 공동 주최로 6월 2일부터 선린상, 성남, 경남, 경북, 대구상고 등 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대구공설운동장에서 토너먼트로 개최, 6월 5일 벌어진 최종 결승전에서 경북고가 3-0으로 대구상고를 물리치고 우승</p> <p>▲준결승전=대구상고 2-1 경남고, 경북고 9-0 선린상고 ▲결승전=대구상고 0-0 경북고 ▲최종 결승전=경북고 3-0 대구상고</p> <p>◇개인상 ▲우수선수상=임신근(경북고 투수) ▲감독상=김준길(대구상고 투수) ▲미기상=우용득(대구상고 포수) ▲타격상=양창익(경북고 포수) ▲감독상=서영무(경북고 감독)</p>	<p>■ 06.08 최다 연속이닝 무실점 기록</p> <p>LA 다저스의 투수 돈 드라이스데일이 5월 14일부터 6월 8일까지 58과 2/3이닝을 무실점으로 호투, 메이저리그 최다 연속이닝 무실점 신기록 수립</p>
06.10	<p>■ 제23회 청룡기쟁탈 전국고교선수권대회</p> <p>대한야구협회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6월 10일부터 전국 각 시도 고교대표 10개 팀(춘천, 인천, 선린상, 성남, 세광, 대전, 전주상, 경북, 대구상, 경남고)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17일 열린 결승전에서 경북고가 대구상고를 3-0으로 꺾고 대회 2연패</p> <p>▲승자 준결승전=대구상고 8-0 선린상고, 경북고 2-1 성남고 ▲패자 준결승전=선린상고 2-1 성남고 ▲승자 결승전=경북고 1-0 대구상고 ▲패자 결승전=대구상고 1-0 선린상고 ▲최종 결승전=경북고 3-0 대구상고</p>	 <p>제23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경북고 선수들이 대구시내에서 짚차 30대에 분승, 카퍼레이드를 벌였다.</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개인상 ▲우수투수상=임신근(경북고 투수) ▲우수선수상=강문길(경북고 유격수) ▲감독상=김춘길(대구상고 투수) ▲타격상=박재민(朴宰珉 전주상고 포수 .533) ▲미기상=김민기(경북고 중견수) ▲훈련상=조창수, 양창의(이상 경북고), 우용득(대구상고) ▲감독상=서영무(경북고 감독)</p>	<p>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p>  <p>日時・6月9日~6月16日(8日間) 場所・서울運動場 野球場 主催・朝鮮日報社・大韓野球協會</p> <p>조선일보사가 대회를 앞두고 발행한 제23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팸플릿</p>
06.13	<p>■제11회 문교부장관기쟁탈 전국중학초청대회 대한연식야구협회 주최로 6월 13일부터 전국 7개 시도에서 19개 중학 팀(선린, 주성, 대전동, 배문, 경북, 개성, 상인천, 전주북, 충남, 동대문, 동인천, 마산동, 휘문, 대전, 천안북, 대신, 대성, 부산 동성, 대구 중앙중)이 출전한 가운데 대전공설운동장에서 개최, 6월 17일 열린 결승전에서 경북중이 대신중을 3-1로 꺾고 우승 ▲준결승전=대신중 4-2 선린중, 경북중 7-0 동성중 ▲결승전=경북중 3-1 대신중 ◇개인상 ▲우수상=남우식(南宇植 경북중 투수) ▲감독상=유창준(俞昌濬 대신중) ▲수훈상=송범섭(宋範燮 충남중) ▲타격상=박성호(朴聖浩 선린중 .444) ▲미기상=전현동(全炫東 대신중) ▲장려상=임원식(任元植 대성중) ▲감독상=박창룡(경북중 감독)</p>	
06.28	<p>■제2회 전국6도시초청고교대회 충남야구협회 대전일보사 공동 주최로 6월 28일 전국 6개 시 도에서 8개 고교 팀(성남, 동산, 세광, 전주상, 경북, 전남, 대전, 대선상고)이 출전한 가운데 대전공설운동장에서 개최, 6월 30일 열린 결승전에서 경북고가 경남고를 3-2로 제치고 우승 ▲준결승전=경북고 1-0 성남고(연장 11회), 경남고 1-0 동산고(연장 10회) ▲결승전=경북고 3-2 경남고 ◇개인상 ▲우수상=임신근(경북고 투수) ▲감독상=김영목(경남고 투수) ▲타격상=최영일(경북고 1루수 .444) ▲미기상=양창의(경북고 포수) ▲감독상=서영무(경북고 감독)</p>	
06.29	<p>■와세다(早稻田)대초청 한·일친선대회 대한야구협회 초청으로 6월 29일부터 서울, 대구, 부산, 대전, 인천에서 국내 대학 및 실업 팀과 12차전을 개최, 7월 9일 인천공설운동장에서 벌어진 고별전에서 제일은행을 3-0으로 꺾고 9승1무2패를 기록 ▲1차전(6월 29일 서울)=와세다대 10-2 한양대 ▲2차전(6월 29일 서울)=와세다대 0-1 육군 ▲3차전(6월 30일 서울)=와세다대 5-1 고려대 ▲4차전(6월 30일 서울)=와세다대 5-4 한일은행 ▲5차전(7월 2일 대구)=와세다대 3-4 상업은행 ▲6차전(7월 3일 부산)=와세다대 7-1 육군 ▲7차전(7월 5일 대전)=와세다대 3-3 철도청 ▲8차전(7월 6일 서울)=와세다대 4-2 농협 ▲9차전(7월 6일 서울)=와세다대 4-1 해병대 ▲10차전(7월 8일 서울)=와세다대 2-0 국군선</p>	 <p>한일은행-와세다대 경기 2회말 한일은행 정동건이 안타를 치고 나간 뒤 2루 도루에 성공하는 순간.</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발 ▲11차전(7월 8일 서울)=와세다대 2-0 기업은행 ▲12차전(7월 9일 인천)=와세다대 3-0 제일은행</p>	
07.02	<p>■제8회 서울시고교연맹창립기념대회 서울시고교야구연맹 주최로 7월 1일부터 서울시내 15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8월 2일 끝난 결승전에서 성남고가 선린상고를 4-2로 물리치고 우승 ▲준결승전=성남고 1-0 장충고, 선린상고 8-6 중앙고 ▲결승전=성남고 4-2 선린상고 ◇개인상 ▲우수선수상=노길상(성남고 투수) ▲감투상=임홍빈(선린상고 투수) ▲타격상=이영완(선린상고 좌익수 .667)</p>	<p>■07.03 루이스 타이언트, 19탈삼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루이스 타이언트가 100이닝을 던진 끝에 19탈삼진 기록</p>
07.09	<p>■제12회 한·미친선대회 대한야구협회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7월 9일부터 미군 4개 팀(미2사단, 주일미요코스카해군기지, 다치가와주둔미공군, 부평주둔미에스컴)과 한국 4개 팀(육군, 기업은행, 한일은행, 해병대) 등 8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토너먼트로 개최, 7월 19일 끝난 결승전에서 한일은행과 미2사단이 우천으로 공동 우승 ▲승자 준결승전=미2사단 4-3 기업은행, 한일은행 1-0 해병 ▲패자 준결승전=육군 6-0 기업은행 ▲승자 결승전=한일은행 2-0 미2사단 ▲패자 결승전=미2사단 7-2 육군 ▲결승전=미2사단 1-0 한일은행 ▲최종 결승전=한일은행 (우천) 미2사단(공동 우승)</p>	 <p>기업은행이 요코스카전 3회초 한광홍의 적시타로 3루 주자 박용진이 홈인.</p>
07.17	<p>■제20회 쌍룡기쟁탈 전국고교대회 부산야구협회 국제신보사 공동 주최로 7월 17일부터 전국 각 시 도에서 14개 팀(전주상, 동산, 인천, 선린상, 중앙, 장충, 성남, 경남상, 부산상, 경남, 부산, 경북, 대구상, 춘천고)이 출전한 가운데 구덕구장에서 개최, 7월 22일 열린 결승전에서 경남고가 선린상고를 4-1로 꺾고 우승 ▲준결승전=경남고 1-0 대구상고, 선린상고 2-1 경남상고 ▲결승전=경남고 4-1 선린상고 ◇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영목(경남고 투수) ▲감투상=이종구(李鍾九, 경남상고 투수) ▲타격상=①이웅재(선린상고 유격수 .438) ②김영신(金永信, 대구상고 3루수 .417) ▲미기상=이영완(선린상고 좌익수) ▲감독상=어우홍(경남고 감독)</p>	
07.27	<p>■일본 긴키(近畿)대초청 한·일친선대회 대한야구협회 중앙일보사 공동 초청으로 7월 26일 내한, 7월 27일부터 서울에서 국내 대학및 실업 팀들과 12차전을 개최, 8월 4일 벌어진 고별전에서 긴키대가 한국전력을 7-2로 꺾고 7승5패를 기록 ▲1차전(7월 27일 서울)=긴키대 4-1 성균관대 ▲2차전(7월 27일 서울)=긴키대 4-0 기업은행 ▲3차전</p>	<p>일본 긴키대초청대회를 앞두고 중앙일보사가 발행한 대회 팸플릿</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7월 28일 서울)=긴키대 2-1 제일은행 ▲4차전(7월 28일 서울)=긴키대 2-1 육군 ▲5차전(7월 30일 서울)=긴키대 0-1 철도청 ▲6차전(7월 30일 서울)=긴키대 6-2 한일은행 ▲7차전(8월 1일 서울)=긴키대 2-4 상업은행 ▲8차전(8월 1일 서울)=긴키대 3-6 농협 ▲9차전(8월 3일 서울)=긴키대 4-5 한양대 ▲10차전(8월 3일 서울)=긴키대 1-3 해병대 ▲11차전(8월 4일 서울)=긴키대 7-2 한국전력 ▲12차전(8월 4일 서울)=긴키대 9-3 국군선발</p>	
07.27	<p>■ 제2회 김세영회장기쟁탈 전국중학연식초청대회 대한연식야구협회 주최로 7월 27일부터 전국에서 15개 중학 팀(대구 성광, 상인천, 경동, 배명, 선린, 신라, 대전 대성, 동산, 경상, 부산 대동, 인천동, 충남, 경북, 천안북, 김천중)이 출전한 가운데 김천중 운동장에서 개최, 8월 2일 열린 결승전에서 상인천중이 부산 대동중을 2-0으로 꺾고 우승 ▲준결승전=부산 대동중 5-0 충남중, 상인천중 7-1 경북중 ▲결승전=상인천중 2-0 대동중 ◇개인상 ▲우수선수상=전상준(상인천중 투수) ▲감투상=김성관(대동중 투수) ▲타격상=정영일(상인천중 우익수) ▲미기상=육강수(대동중 유격수) ▲감독상=임복만(상인천중 감독)</p>	 <p>제2회 전국중학연식초청대회에서 부산 대동중을 꺾고 우승한 상인천중 선수들(건국대 윤병선 전 감독 제공)</p>
08.08	<p>■ 제11회 재일교포학생야구단 모국방문 환영대회 대한야구협회 한국일보사 초청으로 8월 6일 재일동포 고교야구단이 65년 이후 3년 만에 내한, 8월 8일부터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전주에서 16차전을 개최한 끝에 4승7무5패를 기록 ◇교포선수단 ▲단장=권영섭(재일협회 회장) ▲부단장=양희진(재일협회 부회장) ▲임원=최종대(崔鍾大 재일협회 고문) ▲감독=최대길(재일협회 전무이사) ▲코치=김현길(金賢吉 사쿠라이상고 감독) ▲주무=정용덕(鄭容德 오사카경제대) ▲투수=이철령(李哲寧 타쿠쇼쿠拓殖대1고), 이웅정(李隆政 니혼日本대3고) 이영명(李英明 가쿠게이學藝고), 신규옥(申圭玉 도요東洋상고), 반정미(潘正美 오카야岡谷공고), 하영일(河榮一 호쿠요北陽고), 송일렬(宋一烈 한국학원고), 김권대(金權大 니혼日本대1고) ▲포수=김일평(金一平 오사카大阪무역고) ▲내야수=김민철(金民澈 니혼日本대3고), 백만신(白萬信 덴리天理고), 장소부(張昭夫 이사와石和고), 김청강(金淸降 PL학원고), 김방민(金邦敏 오사카大阪전기통신고), 현선윤(玄善允 기타노北野고), 백재덕(白在德 사쿠라이櫻井상고) ▲외야수=정용석(鄭容錫 모모야마桃山고), 문민부(文敏夫 고노하나此花고), 김맹호(金孟浩 고교쿠사攻玉社고) ▲1차전(8월 8일 서울)=재일교포 6-4 배문고 △배문고=감독 박지완, 코치 위만환 및 박상규(중견수), 박두혁(2루수), 박태규(좌익수), 오경수(3루수), 김대권(포수), 조문기(우익수), 이영배(투수), 신화길(우익</p>	 <p>1965년 이후 3년 만에 열린 재일교포학생 야구단 모국방문 환영대회 팸플릿 표지</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수), 김성배(1루수), 최한익(崔漢翼 유격수), 김종인(투수겸 우익수), 한명기(대타)</p> <p>▲2차전(8월 10일 서울)=재일교포 0-9 선린상고 △선린상고=감독 박진원 및 정장헌(鄭長憲), 전유섭(錢裕燮 이상 우익수), 고재백(중견수), 이웅재(유격수) 이영완(좌익수), 홍창권(洪昌權 2루수), 허찰(포수) 신광진(1루수), 윤학천(尹鶴天), 변동원(邊東園 이상 3루수), 임흥빈(투수)</p> <p>▲3차전(8월 10일 서울)=재일교포 11-7 중양고 △중양고=이조영 및 박춘건(朴春建 중견수), 이종도(李鍾道 3루수겸 유격수), 이강민(李康敏 유격수겸 투수), 정효현(鄭孝鉉 포수), 이원녕(李源寧 투수겸 우익수 및 1루수), 안창식(安昌植 투수겸 1루수), 홍춘기(洪春基 좌익수), 조병택(趙炳澤 우익수겸 1루수), 박형규(朴亨圭), 유승화(柳承和 이상 3루수), 김근후(金勤厚 대타), 반원식(潘元植 3루수), 구본수(具本守 2루수)</p> <p>▲4차전(8월 11일 서울)=재일교포 6-4 휘문고 ▲5차전(8월 11일 서울)=재일교포 4-4 서울선발(홍군) ▲6차전(8월 12일 서울)=재일교포 0-6 부산선발(경남, 경남상, 부산상) △부산선발=권칠현(중견수), 최태철(3루수), 박복룡(3루수겸 유격수), 정기태(포수), 허구연(2루수), 김종호(우익수), 김영목(투수), 박순철(1루수), 오기봉(유격수) 이종철(3루수), 황동훈(좌익수)</p> <p>▲7차전(8월 13일 서울)=재일교포 6-4 장충고 △장충고=감독 김일배 및 김광택(2루수), 박진관(朴鎭寬 우익수), 김기현(金起鉉 유격수), 박남수(중견수겸 투수), 윤종렬(尹宗烈 1루수), 함창길(咸昌吉 포수), 송태영(宋泰榮 좌익수), 권오범(權五範 3루수), 염태웅, 이인형(李仁亨 이상 투수), 이현순(李賢淳 중견수)</p> <p>▲8차전(8월 16일 서울)=재일교포 1-1 경북고 △경북고=감독 서영무 및 김창고(우익수), 이병재, 김태조(이상 3루수), 양창의(포수), 조창수, 하치형(河致亨), 문영조(이상 좌익수), 임신근(투수), 강문길(유격수), 최영일(1루수), 김민기, 박명훈(이상 중견수), 배인환(裴寅煥 대타), 신준섭, 백찬영(이상 2루수)</p> <p>▲9차전(8월 17일 서울)=재일교포 0-0 경기상고 △경기상고=감독 심영권(沈永權), 코치 배동원 및 김천수(金千守 좌익수) 조도경(趙道京 유격수), 최원태(崔源太 중견수), 김창중(金昌中 3루수), 배중순(裴重洵 투수), 신상돈(申相敦 1루수), 임상철(林相喆 우익수), 장병수(張炳洙 2루수), 최용성(崔龍成 포수)</p> <p>▲10차전(8월 17일 서울)=재일교포 2-3 성남고 △성남고=감독 박선오 및 최영권(중견수), 양형오(포수) 권백행(權百行 좌익수), 박춘응(朴春應 1루수), 송영철(宋永哲 유격수), 이무중(李武鍾 우익수), 오일석(吳一錫 2루수), 이희춘(李熙春 3루수), 노길상(투수)</p> <p>▲11차전(8월 18일 서울)=재일교포 1-1 청량중고 ▲12차전(8월 18일 서울)=재일교포 1-1 서울선발(백군) ▲13차전(8월 21일 인천)=재일교포 1-2 인천선발</p>	 <p>재일교포 고교모국방문 4차전 3회말 휘문고 공격에서 진기룡의 안타로 3루 주자 한승학이 홈인, 선취점을 올렸으나 4-6으로 패했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14차전(8월 22일 전주)=재일교포 0-0 전주상고 ▲15차전(8월 24일 대구)=재일교포 1-3 경북고 ▲ 16차전(8월 25일 대구)=재일교포 5-2 대구상고</p>	
08.14	<p>■ 부산지구고교선발 일본원정 한·일친선고교대회 일본고교야구연맹 초청으로 8월 14일 부산항에서 한수환(韓水丸) 편으로 향일,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일본 간사이(關西)지역을 순회하며 현지 고교 팀들과 8차전을 가진 끝에 4승2무2패를 기록</p> <p>▲1차전(8월 18일)=부산선발 10-3 코리야마(郡山)고 ▲2차전(8월 19일)=부산선발 2-2 히가시야마(東山)고 ▲3차전(8월 21일)=부산선발 1-1 아마가사키(尼崎)고 ▲4차전(8월 22일)=부산선발 3-2 오카야마(岡山)선발 ▲5차전(8월 24일)=부산선발 2-4 하기(萩)선발 ▲6차전(8월 25일)=부산선발 4-7 이와구니(岩國)선발 ▲7차전(8월 27일)=부산선발 9-7 고쿠라(小倉)선발 ▲8차전(8월 28일)=부산선발 3-2 시모노세키(下關)선발</p> <p>◇부산고교선발 ▲감독=어우홍(경남고 감독) ▲투수=황성동(黃盛東), 김영목(이상 경남고), 황동훈(黃東勳 부산상고), 임철규(林徹圭), 김종호(金鍾호 이상 부산고) ▲포수=정기태(경남고), 이희문(李熙文 부산고) ▲내야수=박순철(朴淳哲), 오기봉, 허구연(이상 경남고), 최태철(崔泰哲 경남상고), 이종철(李鍾喆 부산고), 박복룡(朴福龍 부산상고) ▲외야수=김지민(金智敏), 권철현, 남흥기(이상 경남고), 김휘태(경기상고)</p>	
08.23	<p>■ 일본 미에(三重)선발초청 한·일친선고교대회 대한야구협회 초청으로 일본 미에현고교야구선발 팀이 내한,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국내 고교 팀과 11차전을 가진 끝에 3승3무5패를 기록</p> <p>◇미에선발=타츠미(辰己 3루수겸 투수), 이와오(岩尾 3루수겸 투수), 타케우치(竹内 중견수겸 포수), 야마구치(山口 우익수), 아카사카(赤坂 좌익수), 타치(鎗 포수겸 우익수), 초지(辻 이상 포수) 마에가와(前川) 나카니시(中西 이상 투수), 마쓰오카(松岡 중견수), 니시야마(西山 유격수), 요시자와(吉澤), 나카하라(中原 이상 2루수), 야노(矢野 2루수겸 3루수), 스즈키(鈴木 1루수)</p> <p>▲1차전(8월 23일 서울)=미에선발 2-5 선린상고 △선린상고=이웅재(유격수), 정장현, 전유섭(이상 우익수), 홍창권(2루수), 이영완(좌익수), 허철(포수) 신광진(1루수), 고재백(중견수), 변동원, 윤학천(이상 3루수), 임흥빈(투수)</p> <p>▲2차전(8월 24일 서울)=미에선발 2-5 장충고 ▲3차전(8월 24일 서울)=미에선발 1-1 성남고 ▲4차전(8월 25일 서울)=미에선발 9-6 서울선발(흥군) △서울선발(흥군)=이웅재(유격수), 신광진(1루수), 안윤중(포수), 이영완(좌익수), 홍창권(2루수), 신광진, 정장현(이상 우익수), 최원태(중견수), 김원철(3루수), 배중순, 박준영, 임흥빈, 나유찬(羅有燦), 윤현묵(尹顯默)</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이상 투수) ▲5차전(8월 27일 대전)=미에선발 3-3 대전고 ▲6차전(8월 28일 대구)=미에선발 0-4 대구상고 ▲7차전(8월 30일 서울)=미에선발 6-6 인천선발 △인천선발=김기환(金起煥 3루수), 이동일(李東一 대타겸 3루수), 장천기(張天基 2루수), 황재철(黃載喆 유격수), 김천길(金千吉 포수겸 우익수), 차경룡(車庚龍), 남상관(南相寬 이상 1루수), 이성태(李成泰 좌익수), 백승선(白承善 중견수), 강희창(姜熙昌 대타겸 중견수), 정호택(鄭昊澤 중견수겸 투수), 박명도(朴明道), 고성기(高成基), 전택순(全澤純 이상 투수), 김학효(金學孝 중견수), 이재돈(李在敦 대타), 김종명(金鍾鳴), 신경하(辛慶夏 이상 우익수), 유호빈(포수), 김영진(金永震 우익수) ▲8차전(8월 31일 서울)=미에선발 7-5 서울선발(백군) △서울선발(백군)=최영권(중견수), 양형오(포수), 윤종렬(대타), 김광택(대주), 권백행(좌익수), 박춘응(1루수), 송영철(유격수), 이무중(우익수), 이승엽(李承燁 투수) 이희춘(3루수), 오경수(대타겸 3루수), 오일석(2루수) 염태웅(투수), 박남수(투수겸 우익수) ▲9차전(9월 1일 서울)=미에선발 7-0 중앙고 ▲10차전(9월 1일 서울)=미에선발 1-6 경북고 ▲11차전(9월 3일 부산)=미에선발 4-5 부산선발</p>	
08.31	<p>■ 제5회 실업야구 올스타전 한국실업야구연맹 주최로 8월 31일부터 금용단과 실업단이 대구(1~2차전)와 서울(3~5차전)에서 격돌, 9월 8일 끝난 5차전에서 실업단이 금용단에 3-6으로 패했으나 종합 성적 3승2패로 우승 ▲1차전(통산 13차전 대구 8월 31일)=금용단 4-9 실업단 ◇개인상 △최고수훈선수상=정동진(해병대) △승리투수상=김병우(해병대) △우수투수상=윤효상(제일은행) △타격상=이재우(육군) △감투상=김동률(제일은행) △승리감독상=허종만(육군 감독) ◇실업단=감독 허종만(육군), 코치 김진영(해병대), 남갑균(철도청) 및 강태정, 한동화(이상 2루수), 김광웅 이박(이상 1루수), 이재우, 정찬성(이상 중견수), 박영길, 윤경호(이상 좌익수), 최흥표, 김광철(이상 우익수), 강병철(3루수), 이건웅, 박재영(이상 유격수), 정동진(포수), 김병우(투수), 황석중(대타겸 포수), 유영수(투수), 최주억(대타겸 포수), 김명성, 남궁택경, 이춘순, 박성효(이상 투수) ▲2차전(통산 14차전 대구 9월 1일)=실업단 1-4 금용단 ◇개인상 △최고수훈선수상=이춘근(제일은행) △승리투수상(윤동복 한일은행) △우수투수상=김소식(상업은행) △타격상=김충(상업은행) 감투상=최흥표(육군) 승리감독상=장태영(상업은행 감독) ◇금용단=감독 강대중, 코치 장태영, 박현식 및 하갑득(2루수), 박용진(2루수겸 3루수), 김충(3루수), 권국</p>	 <p>대구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5회 실업야구 올스타전에 출전한 실업단 선수들.</p>  <p>올스타 5차전 9회초 금용단 2번 권국용이 중견수 키를 넘기는 2루타로 추가점을 올려 승리를 굳혔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용(3루수겸 대타), 박현식(2루수), 김동률(유격수), 김응룡(1루수), 배수찬(우익수), 함응렬, 김희련(이상 좌익수), 김태령(우익수), 김영빈, 김태석(이상 중견수), 이재환(포수), 이춘근, 하갑득(이상 대타), 임성호(포수), 최관수, 윤동복, 윤효상, 이계영(李桂永), 한장철(이상 투수), 김소식(대타겸 투수), 배성서(대주겸 포수)</p> <p>▲3차전(통산 15차전 서울 9월 6일)=금용단 6-7 실업단 ◇개인상 △최고수훈선수상=최흥표(육군) △승리투수상=남궁택경(철도청) △우수투수상=박성효(해병대) △타격상=김광철(철도청) △감투상=김동률(제일은행) △승리감독상=남갑균(철도청 감독)</p> <p>▲4차전(통산 16차전 서울 9월 7일)=실업단 3-0 금용단 ◇개인상 △최고수훈선수상=이박(한국전력) △승리투수상=남궁택경(철도청) △우수투수상=유영수(육군) △타격상=김응룡(한일은행) △감투상=한동화(해병대) △홈런상=이박(한국전력) △승리감독상=허종만(육군 감독)</p> <p>▲5차전(통산 17차전 서울 9월 8일)=금용단 6-3 실업단 ◇개인상 △최고수훈선수상=김영빈(농협) △승리투수상=최관수(기업은행) △우수투수상=김소식(상업은행) △타격상=이건웅(해병대) △감투상=강병철(해병대) △홈런상=김광철(철도청), 강병철(해병대) △승리감독상=장태영(상업은행 감독)</p>	
09.02	<p>■ 제22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서울시예선 대한야구협회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9월 2일부터 서울시 고교 12개 팀(성동, 선린상, 경희, 배명, 배문, 장충, 동대문상, 경기, 경동, 중앙, 휘문, 경기상고)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9월 10일 열린 결승전에서 성남고가 중앙고를 8-1로 격파하고 우승</p> <p>▲준결승전=중앙고 3-2 배문고, 성남고 2-0 청량중고 ▲결승전=성남고 8-1 중앙고</p> <p>◇개인상 ▲우수투수상=노길상(盧吉相 성남고 투수) ▲감투상=이강민(중앙고 투수) ▲타격상=이충무(李忠武 동대문상고 .600) ▲최다 안타상=이충무(동대문상고), 이강민(중앙고) ▲최다 타점상=이원녕(중앙고), 양형오(성남고) ▲홈런상=안윤중(동대문상고), 오경수(배문고), 양형오(성남고)</p>	
09.12	<p>■ 제49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대구상고(경북), 동아대(부산) 및 재일교포와 대전시청(충남)이 공동 우승</p> <p>▲고등부 3회전=대전고(충남) 0-1 인천고(경기), 부산상고(부산) 1-12 대구상고(경북) ▲동 결승전=대구상고(경북) 1-0 인천고(경기)</p> <p>▲대학부 1회전=고려대(서울) 9-0 경북대(경북 기권패), 전남대(전남) 7-0 동아대(부산) ▲동 결승전=동아대(부산) 2-0 고려대(서울)</p> <p>▲일반부 3회전=기업은행(충북) 5-6 한일은행(강원),</p>	<p>■ 09.14 34년 만에 30승 투수 탄생 아메리칸리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데니 매클레인이 1934년 디지 딘 이래 34년 만에 31승을 기록, 데니 매클레인은 이 해 아메리칸리그의 MVP는 물론 사이영상까지 수상</p> <p>■ 09.14 최저 방어율로 시즌 MVP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밥 김슨이 1914년 더치 레너드(1.01) 이래 시즌 최저 방어율(1.14)로 내셔널리그 MVP와 사이영상을 수상</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육군(경북) 4-3 제일은행(경기) ▲동 결승전=한일은행(강원) 4-2 육군(경북) ▲중등부(연식) 결승전=경북중(경북) 3-0 휘문중(서울) ▲일반부(연식) 결승전=재일교포 3-3 대구시청(충남) 공동 우승</p>	
10.03	<p>■김영덕(金永德),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③ 한일은행 투수 김영덕이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결승리그 육군전에서 9이닝 동안 28타자를 상대로 삼진 3개를 잡으며 5회초 박재영(朴裁永)에게 몸에 맞은 볼 1개 만을 내주는 완벽한 투구 끝에 4-0으로 개인 통산 3번째 No Hit No Run(노히트 노런) 수립</p>	<p>■10.10 디트로이트 월드시리즈 제패 아메리칸리그에서 12게임 차로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한 디트로이트 타이거스가 월드시리즈에서 1승3패의 열세를 딛고 5차전부터 3연승,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4승3패로 물리치고 3년 만에 패권 탈환</p>
10.05	<p>■제22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대한야구협회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10월 5일부터 전년도 우승 팀 경남고를 비롯해 15개 팀(성남, 중앙, 배문, 청량중, 경남, 춘천, 동산, 인천, 대전상, 세광, 경북, 대구상, 경남, 부산, 부산상고)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15일 벌어진 최종 결승전에서 경북고가 동산고를 7-2로 꺾고 우승 ▲승자 준결승전=경북고 1-0 중앙고 ▲패자 준결승전=경남고 5-2 중앙고 ▲승자 결승전=동산고 4-2 경북고 ▲패자 결승전=경북고 5-4 경남고 ▲결승전=동산고 0-3 경북고 ▲최종 결승전=경북고 7-2 동산고 ◇개인상 ▲우수상=임신근(경북고 투수) ▲감투상=박명도(동산고 투수) ▲타격상=김천길(동산고 포수 .476) ▲미기상=백승선(동산고 중견수)</p>	<div data-bbox="970 748 1476 1106" data-label="Image"> </div> <p>제22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에서 우승한 경북고가 황금사자기와 우승배를 받아 들고 있다</p> <p>■10.10 브런디지 IOC위원장 재선 1952년 헬싱키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에 선출되어 17년간 네차례에 걸쳐 중임해온 81세의 애버리 브런디지가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 IOC총회에서 위원장에 재선</p> <p>■10.12 제19회 멕시코 올림픽대회 10월 12일(한국시간 10월 13일) 108개국에서 7,800여 명이 출전한 가운데 멕시코 시티에서 개최, 한국은 10개 종목에 55명의 선수가 출전, 복싱에서 은, 동 각각 1개를 획득, 36위를 마크</p>
10.17	<p>■제3회 국회의장배쟁탈 전국6도시초청고교대회 전국고교야구왕자전을 국회의장배쟁탈 전국6도시초청고교야구대회로 개칭해 경북야구협회와 매일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 10월 17일부터 전국에서 7개 고교팀(성남, 중앙, 동산, 대전, 전주상, 경북, 대구상고)이 출전한 가운데 대구종합운동장에서 개최, 10월 20일 열린 결승전에서 대구상고가 10회 연장전 끝에 중앙고를 4-3으로 제치고 우승 ▲준결승전=대구상고 1-0 성남고, 중앙고 3-2 경북고 ▲결승전=대구상고 4-3 중앙고 ◇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준길(대구상고 투수) ▲감투상=안창식(중앙고 투수) ▲미기상=홍춘기(중앙고 좌익수) ▲타격상=한두진(韓斗鎭 대구상고 유격수 .538) ▲감독상=고병호(대구상고 감독)</p>	
10.17	<p>■제14회 NBC배쟁탈 전국선수권대회겸 제8회 아시아선수권 파견 선수 선발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10월 17일부터 한일은행, 상업은행, 기업은행, 한양대, 성균관대, 철도청, 농협, 제일은행, 육군, 해병대, 한국전력 등 11개 팀이 출전한 가</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운대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26일 벌어진 최종 결승전에서 해병대가 상업은행을 4-0으로 제치고 우승 ▲승자 결승전=해병대 5-2 상업은행(연장 23회) ▲패자 결승전=상업은행 5-0 한양대 ▲결승전=상업은행 3-0 해병대 ▲최종 결승전=해병대 4-0 상업은행 ◇개인상 ▲우수선수상=김병우(해병 투수) ▲감투상=김설권(상업 투수) ▲타격상=한동화(해병, 452) ▲미기상=한동화(해병) ▲감독상=김진영(해병 감독) ▲대표자상=강기천(姜起千 해병대사령관)</p>	
10.22	<p>■ 실업야구 최장 23회 연장전 10월 22일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제14회 전국선수권대회 승자 결승전인 해병대-상업은행전이 10월 21일부터 이틀간 23회 연장전(소요시간 5시간14분)을 전개, 해병대가 23회초 3점을 뽑아 5-2로 경기 종료(71년 제17회 NBC쟁탈 전국선수권대회에서 24회로 경신)</p>	
10.27	<p>■ 한·일친선실업대회 일본 간사이(關西)야구연맹 초청으로 육군을 주축으로 한 실업선발 팀이 일본에 원정,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일본 간사이지방에서 8차전을 가진 끝에 3승 2무3패 ▲1차전(10월 27일)=실업선발 4-2 일본생명·일본 열학연합 ▲2차전=(10월 28일)=실업선발 0-7 마쓰시다(松下)전기·일본전신전화연합 ▲3차전(10월 29일)=실업선발 1-0 고니시(小西)주조 ▲4차전(10월 30일)=실업선발 4-5 고베(神戸)선발 ▲5차전(11월 1일)=실업선발 x-0 구라사키 레이온 ▲6차전(11월 2일)=실업선발 6-5 도요(東洋) 레이온 ▲7차전(11월 5일)=실업선발 (우천 중지) 오카야마(岡山)선발 ▲8차전(11월 7일)=실업선발 3-3 야하다(八幡)제철 ◇실업선발 ▲감독=허종만(육군) ▲코치=강대중(姜大中 한일은행 감독) ▲투수=김호, 김명성 유영수(이상 육군), 이충순(李充淳 한국전력) ▲포수=최주억, 임칠수(林七洙), 김유성(이상 육군) ▲내야수=황성록 강태정, 박재영, 김삼용, 이재우(이상 육군), 김충(상업은행), 김응룡(한일은행) ▲외야수=최흥표, 박병선(朴炳先 이상 육군), 박영길(한국전력)</p>	 <p>육군 팀을 주축으로 한 실업선발 팀이 광복 후 처음으로 일본 원정경기에 나섰다. 사진은 첫 경기가 열린 고시엔(甲子園) 구장 정문 앞에서 찍은 실업선발 선수등. 왼쪽부터 황성록, 이충순, 김유성, 김명성, 일본선수, 강태정, 최흥표, 김삼용, 유영수 등이다(이충순 전 한국전력 투수 제공)</p> <p>■ 11.29 서울 전차(電車) 역사 속으로 구한말인 1898년 12월 25일 왕실의 왕릉 참배를 위해 광화문-홍릉간을 처음 달렸던 전차가 11월 29일 밤 8시 12분 승객 40명을 태우고 청량리-동대문으로 달려온 303호 전차를 마지막으로 퇴장</p>
11.25	<p>■ 제11회 이영민 타격상 김영신(金永信) 수상 대한야구협회가 이사회를 열고 제11회 이영민 타격상 수상자로 전국 3개 고교대회에서 평균 타율 .385를 기록한 대구상고 3루수 김영신을 선정</p>	
1969. 03.11	<p>■ 대한연식야구협회 심판위원장 선임 대한연식야구협회가 3월 11일 심판위원장에 임광정(林光廷), 부위원장에 박희영(朴熙榮), 태성범(太聖範)을 선임</p>	<p>■ 02. MLB 커미셔너에 보위 쿤 윌리엄 엘버트의 뒤를 이어 보위 쿤을 메이저리그 커미셔너로 선임. 이후 13년간 3차례 연임된 뒤 1982년 11월 1일 실시한 구단주들의 4차 신임 투표에서 내셔널리</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3.26	<p>■ 서울시고교 춘계리그겸 제3회 전국고교대회 서울시예선 서울시고교야구연맹 주최로 3월 26일부터 14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갑, 을, 병 3개 조로 나누어 개최, 4월 6일 열린 최종 결승전에서 성남고가 14회 연장전 끝에 선린상고를 3-2로 제치고 우승</p> <p>◇예선리그 종합 순위 ▲갑조=①선린상고(4승) ②경기상고, 배명고, 경동고(이상 2승2패) ⑤경기고(4패) ▲을조=①성남고(4승) ②배문고(3승2패) ③청량중고(2승3패) ④휘문고, 동대문상고(이상 1승3패) ▲병조=①중앙고(3승) ②성동고(1승1무1패) ③경희고, 장충고(이상 1승2패)</p> <p>▲준결승전=성남고 4-1 배문고, 선린상고 7-2 중앙고 ▲결승전=성남고 3-2 선린상고</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노길상(성남고 투수) ▲감투상=유남호(선린상고 투수) ▲타격상=최원태(崔源太 경기상고 중견수 .667) ▲타점상=김대권(金大權 배문고 포수) ▲최다 안타상=최영국(崔英國 성남고 유격수)</p>	<p>그 소속 구단주들의 불신임으로 1983년 8월 퇴진</p> <p>■02.10 고급담배 청자 판매 전매청이 최고급 새담배 '청자'를 출시, 한갑 100원에 판매</p> <p>■02.13 위장 귀순 간첩 이수근 체포 중앙정보부가 북괴로 탈출을 기도하던 이수근을 월남 사이공에서 체포, 한국 공군 군용기편으로 압송</p> <p>■03.01 새 대한체육회 발족 오랜 진통 끝에 체육회와 학교체육회 및 KOC(대한올림픽위원회)가 사단법인 대한체육회(회장 민관식)로 통합, 3월 1일을 기해 정식 발족</p> <p>■03.28 김수환 대주교 추기경 피명 로마 가톨릭 법황청 교황 바오로 6세가 서울대교구장 김수환(金壽煥) 대주교를 한국 최초 추기경에 임명</p> <p>■04.07 메이저리그 양대리그 팀 증설 메이저리그가 양대 리그를 모두 12개 팀씩 증설하고 6개 팀씩 동, 서부지구로 분할. 신생 팀으로 아메리칸리그의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시애틀 파일러츠, 내셔널리그의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몬트리올 엑스포스</p>
04.07	<p>■ 전국대학연맹전 춘계리그 전국대학야구연맹 주최로 4월 7일부터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동아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 7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25일 벌어진 마지막 경기에서 연세대가 고려대를 5-2로 눌러 6승1무5패로 경희대, 한양대에 이어 3위</p> <p>◇종합 순위=①경희대(10승2패) ②한양대(9승1무2패) ③연세대(6승1무5패) ④성균관대(5승1무6패) ⑤고려대(4승2무6패) ⑥동국대(2승2무8패) ⑦동아대(2승1무9패)</p> <p>◇개인상 ▲우수상=최주현(崔柱鉉 경희대 투수) ▲감투상=김인복(金仁福 한양대 투수) ▲미기상=이웅재(경희대 3루수) ▲타격상=①최주현(경희대 투수 .405) ②윤성재(尹聖宰 성균관대 1루수 .357), 박수부(성균관대 2루수 .357) ▲최다홈런상=이원호(李元鎬 연세대 포수 4개) ▲감독상=신인식(경희대 감독)</p> <p>△경희대=감독 신인식 및 안문광(安文光 2루수), 안선교(중견수), 이웅재(3루수), 조완원(趙完元 2루수), 최주현(투수), 김태형(金泰亨 1루수), 김영목(투수겸 1루수), 지원우(池元宇 좌익수), 이창운(李昌雲), 채금석(蔡錦錫 이상 우익수), 허철(포수)</p> <p>※추계연맹전은 9월 11일 연·고전을 앞두고 데모를 우려 대학연맹이 무기연기</p>	<p>■04.07 메이저리그 양대리그 팀 증설 메이저리그가 양대 리그를 모두 12개 팀씩 증설하고 6개 팀씩 동, 서부지구로 분할. 신생 팀으로 아메리칸리그의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시애틀 파일러츠, 내셔널리그의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몬트리올 엑스포스</p>
04.15	<p>■ 제19회 백호기쟁탈 전국군·실업쟁패전 대한야구협회 경향신문사 공동 주최로 4월 15일부터 9개 팀(육군, 한일은행, 기업은행, 해병대, 상업은행, 제일은행, 한국전력, 농협, 철도청)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4월 19일 끝난 결승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해병대가 김병우의 노히트노런에 힘입어</p>	<p></p> <p>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제19회 전국군·실업쟁패전 입장식</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제일은행을 6-0으로 격파하고 우승 ◇종합 순위=①해병대(3승) ②제일은행(2승1패) ③상업은행(1승2패) ④기업은행(3패) ◇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병우(해병대 투수) ▲우수투수상=박성호(해병대 투수) ▲감투상=유영수(제일은행 투수) ▲수훈상=이건웅(해병대) ▲타격상=정동식(해병대 .455) ▲미기상=강병철(해병대) ▲신인상=최완근(기업은행) ▲감독상=김진영(해병대 감독) △해병대=감독 김진영 및 한동화(2루수), 정동진(포수), 김차열(우익수), 강병철(유격수), 정동건(좌익수), 김광웅(1루수), 정찬성(중견수), 안윤종(대타), 함응렬(중견수), 이건웅(3루수), 김인식, 김병우, 박성호(이상 투수)</p>	 <p>결승리그 첫 날 벌어진 제일은행-기업은행전 9회말, 4-2로 리드 당한 기업은행의 마지막 공격에서 4번 배수찬이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날렸으나 후속타 불발로 무득점</p>
04.18	<p>■제16회 인천4도시초청고교대회 경기야구협회 경기연합일보사 공동 주최로 4월 18일 인천공설운동장에서 개막, 4월 21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성남고가 경남고를 2-1로 누르고 우승 ◇개인상 ▲우수상=노길상(성남고 투수) ▲타격상=양형오(성남고 포수 .500) △성남고=감독 한태동 및 이희춘(3루수), 정인용(鄭麟溶 좌익수), 이무중(중견수), 양형오(포수), 최영국(유격수), 강진규(姜晉圭 1루수), 박성수(朴性洙 2루수), 김수철(金守喆 좌익수), 양한철, 노길상(이상 투수)</p>	
04.19	<p>■김병우,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해병대 투수 김병우(金秉宇)가 제19회 백호기쟁탈 전국군·실업쟁패전 결승리그 최종일 경기에서 제일은행 27타자를 상대로 89구를 던진 끝에 6-0으로 이겨 백호기 사상 첫 No Hit No Run 기록</p>	
04.20	<p>■야와타(八幡)제철초청 한·일친선실업대회 대한야구협회 동아일보사 공동 초청으로 4월 19일 야와타제철야구단이 내한,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서울운동장에서 국내 군·실업 팀과 9차전을 개최한 끝에 4승1무4패를 기록 ◇야와타제철 ▲단장=도우사코(堂迫) ▲감독=이시즈미(石墨) ▲코치=아라이(荒井) ▲외야수겸 주무=야나기사와(柳澤) ▲코치겸 투수=고토(後藤) ▲코치겸 외야수=아리타(有田) ▲투수=소에지마(副島), 히구치(働口), 나와타(縄田), 히라노(平野) ▲포수=세도(瀬藤), 이나요시(稻吉) ▲내야수=미야조에(宮添), 요네무라(米村), 민타니(民谷), 아리도(有樋), 마쓰카와(松川), 나야마(生山) ▲외야수=토다(戸田), 고가(古賀) 다다(多田), 오카다(小形) ▲1차전(4월 20일 서울)=야와타 3-12 육군 ▲2차전(4월 22일 서울)=야와타 8-0 철도청 ▲3차전(4월 22일 서울)=야와타 7-4 상업은행 ▲4차전(4월 26일 서울)=야와타 1-1 기업은행 ▲5차전(4월 27일 서울)=야와타 1-3 농협 ▲6차전(4월 27일 서울)=야와타 2-3 한일은행 ▲7차전(4월 28일 서울)=야와타 0-4 해병대 ▲8차전(4월 29일 서울)=야와타 2-1 한국전</p>	 <p>8차전에서 한국전력이 2회말 4번 박영길의 우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으로 선취점을 뽑았으나 후속타 불발로 역전 패</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력 ▲9차전(5월 1일 서울)=아와타 12-3 제일은행</p>	<p>■04.30 제6회 아시아경기대회 반납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던 제6회 아시아경기대회를 1.21사태를 이유로 아시아경기연맹(AGF)에 반납</p>
<p>04.30</p>	<p>■제3회 대통령배쟁탈 전국고교대회 대한야구협회 중앙일보·동양방송 공동 주최로 4월 30일부터 성남, 선린상, 중앙, 배문, 성동, 경북, 대구상, 인천, 동산, 부산, 대전, 세광, 전주상고 등 14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토너먼트로 개최, 5월 7일 밤 야간경기로 벌어진 결승전에서 선린상고가 성남고를 3-0으로 제치고 우승 ▲준결승전=선린상고 2-1 부산고, 성남고 3-0 경남고 ▲결승전=선린상고 3-0 성남고 ◇개인상 ▲우수상=서종수(徐鍾守 선린상고 투수) ▲감투상=노길상(盧吉相 성남고 투수) ▲미기상=김수철(성남고 좌익수) ▲타격상=허철구(許哲九 경남고 3루수 .545) ▲홈런상=이종도(중앙고 포수), 오기봉(경남고 유격수) ▲감독상=박진원(선린상고 감독) △선린상고=감독 박진원 및 전유섭(좌익수), 박준영(중견수겸 투수), 홍창권(유격수), 임홍빈(우익수), 윤학천(3루수), 윤세종(尹世鍾 1루수), 정장현(포수), 변동원(2루수), 서종수, 유남호(柳南鎬 이상 투수), 조원길(曹元吉 중견수) △성남고=감독 한태동 및 이희춘(3루수), 최영국(유격수), 이무중(중견수), 양형오(포수), 정인용(우익수), 강진규(1루수), 박성수(2루수), 김수철(좌익수), 노길상(투수)</p>	<p>■04.30 노히트노런으로 장군명군 신시내티의 짐 말로니가 휴스턴을 상대로 노히트노런을 기록하자 이튿날(5월 1일)에는 휴스턴의 돈 월슨이 신시내티를 노히트노런으로 보복</p>  <p>제3회 대통령배쟁탈 전국고교대회에서 성남고를 꺾고 우승을 차지한 선린상고 선수들이 박진원 감독을 행가래 치고 있다.</p>  <p>3차리그 5일째 경기 상업은행-제일은행전 8회초 1사후 1루 주자 신광진(申光鎭 상업은행)이 히트앤드런 미스로 2루에서 터치 아웃되는 순간</p>
<p>05.08</p>	<p>■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한국실업야구연맹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5월 8일부터 9개 팀(육군, 해병대, 철도청, 기업은행, 제일은행, 농협, 상업은행, 한일은행, 한국전력)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실업야구 페넌트 레이스(총 144경기, 팀 당 32경기)에 돌입, 9월 25일 해병대가 팀 창설 3년 만에 23승1무8패로 우승한 가운데 폐막 ◇종합 순위=①해병대(23승1무8패) ②육군(19승4무9패) ③철도청(17승2무13패) ④한일은행(17승2무14패) ⑤상업은행(12승6무14패) ⑥제일은행(13승2무17패) ⑦한국전력(12승3무17패) ⑧농협(10승3무19패) ⑨기업은행(8승4무20패) ◇개인상 ▲최우수선수상=한동화(해병 2루수) ▲최고수훈선수상=김병우(해병 투수) ▲감투상=남궁택경(철도 투수) ▲신인선수상=임신근(한일은 투수), 최재봉(기업은 포수) ▲최다승리투수상=남궁택경(철도 투수 17승) ▲방어율 우수투수상=김윤겸(육군 투수 1.24) ▲노히트노런상=유백만(상업은 투수), 김윤겸(육군 투수) ▲타격상=①한동화(해병 2루수 .322) ②이재우(육군 3루수 .322) ③김응룡(한일은 1루수 .317) ▲타점상=김태령(상업은 우익수 22점) ▲홈런상=김우열(제일은 우익수 8개) ▲출루율상=김응룡(한일은 1루수 .444) ▲도루상=한동화(해병 2루수 24개) ▲최우수감독상=김진영(해병 감독) ▲우수감독상=허종만(육군 감독) ▲특별상=정</p>	 <p>9월 25일 끝난 실업연맹전에서 해병대가 팀 창설 3년 만에 23승1무8패로 우승, 우승기를 받아들고 있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광만(鄭光萬 해병대사령관) ▲공로상=홍사은(洪思殷 해병대 헌병차감)	
05.16	■제12회 전국4도시초청고교대회 부산야구협회 부산일보사 공동 주최로 5월 16일부터 전국에서 5개 고교 팀(부산, 인천, 성남, 대구상, 경북고)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개최, 5월 18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경북고가 6-2로 성남고를 물리치고 우승 ▲준결승전=경북고 4-3 부산고, 성남고 3-1 경남고 ▲결승전=경북고 6-2 성남고 ◇개인상 ▲우수선수상=양창의(경북고) ▲감투상=전상순(全相純 성남고) ▲미기상=이무종(성남고) ▲타격상=김보연(경북고 .600) ▲감독상=서영무(경북고)	
05.21	■필리핀 칸루방초청 한·비친선대회 중앙일보사 초청으로 필리핀 칸루방야구단(Canlubang)이 내한, 5월 21일부터 30일까지 국내 군·실업 및 대학 팀과 7차전을 가진 끝에 1승6패를 기록 ▲1차전=필리핀 2-14 육군 ▲2차전=필리핀 0-4 제일은행 ▲3차전=필리핀 7-9 기업은행 ▲4차전=필리핀 5-6 상업은행 ▲5차전(인천)=필리핀 1-11 해병대 ▲6차전=필리핀 5-4 한양대 ▲7차전=필리핀 3-6 한일은행	
05.23	■제9회 문교부장관기쟁탈 전국4도시선발고교대회 경북야구협회 매일신문사 공동 주최로 5월 23일부터 선린상, 동산, 부산, 경북, 대구상, 영남고 등 6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대구공설운동장에서 개최, 5월 25일 끝난 결승전에서 부산고가 대구상고를 14-2로 격파하고 우승 ▲준결승전=대구상고 3-2 선린상고, 부산고 2-1 경북고 ▲결승전=부산고 14-2 대구상고 ◇개인상 ▲우수선수상=주성노(朱性魯 부산고 투수) ▲감투상=정기혁(鄭基赫 대구상고 투수) ▲미기상=김태현(金泰現 부산고 유격수) ▲타격상=정동건(鄭東健 부산고 우익수 .545) ▲감독상=김계훈(부산고 감독)	
05.28	■실업야구 사상 첫 감독 퇴장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실업야구 6일째 기업은행-제일은행전에서 심판 판정에 강력하게 항의하던 기업은행 허호준(許鎬俊) 감독이 구심 변응원(邊應源) 심판에 의해 사상 첫 퇴장 조치(감독이 경기중 심판에 의해 퇴장 당하기는 실업야구가 풀 시즌제를 택한 64년 이후 최초)	
05.31	■제24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서울예선 대한야구협회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5월 31일부터 서울시 고교 13개 팀(성남, 경희, 경동, 휘문, 배명, 동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대문상, 청량종합, 경기상, 장충, 배문, 성동, 중앙, 선린상고)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6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성남고가 전년도 공동 우승 팀 선린상고를 2-0으로 제치고 2연패</p> <p>▲준결승=선린상고 7-0 배문고, 성남고 7-2 배명고 ▲결승전=성남고 2-0 선린상고</p> <p>◇개인상 ▲우수상=전상순(성남고 투수) ▲감투상=박준영(선린상고 투수) ▲타격상=김대권(배문고 포수 .600) ▲최다타점상=양형오(성남고 포수 8타점) ▲최다안타상=양형오(성남고 6안타)</p>	
06.06	<p>■유백만(俞百萬),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상업은행 투수 유백만이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부산)에서 한국전력 26타자 상대로 9이닝 동안 삼진 9개를 잡으며 볼넷4, 도루1, 희생타 1개를 허용한 끝에 5-0으로 No Hit No Run 기록</p>	
06.08	<p>■제24회 청룡기쟁탈 전국고교선수권대회 대한야구협회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6월 8일부터 전국 9개 시 도에서 11개 고교 팀(경북, 대구상, 부산상, 마산상, 재전, 세광, 군산상, 춘천, 인천, 선린상, 성남고)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15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선린상고가 대구상고를 6-0으로 격파하고 우승</p> <p>▲승자 준결승전=선린상고 6-1 경북고, 대구상고 1-0 성남고 ▲패자 준결승전=경북고 4-1 성남고 ▲승자 결승전=선린상고 4-2 대구상고 ▲패자 결승전=대구상고 1-0 경북고 ▲결승전=선린상고 6-0 대구상고</p> <p>◇개인상 ▲우수선수상=홍창권(선린상고 유격수) ▲우수투수상=박준영(선린상고 투수) ▲감투상=정기혁(대구상고 투수) ▲타격상=정장현(선린상고 포수 .538) ▲미기상=박명남(차명남 대전고 좌익수) ▲감독상=박진원(선린상고 감독)</p>	 <p>제23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대구상고를 6-0으로 격파하고 우승한 선린상고 주장 유남호(柳南鎬)가 우승의 상징 청룡기를 받아 들고 있다.</p>
06.14	<p>■제3회 김세영회장기쟁탈 전국중학연식초청대회 대한연식야구협회 주최로 전국에서 선발된 17개 중학팀이 출전한 가운데 6월 14일 김천중학 운동장에서 개최, 6월 21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경북중이 11회 연장전 끝에 대전 대성중을 1-0으로 꺾고 우승</p> <p>▲준결승전=경북중 1-0 경상중, 대전 대성중 2-1 대전동중 ▲결승전=경북중 1-0 대성중</p> <p>◇개인상 ▲우수상=구영석(具永錫 경북중 투수) ▲감투상=송광배(宋光培 대성중 투수) ▲타격상=도중업(都重業 대전동중) ▲미기상=황규봉(黃圭奉 경상중) ▲감독상=박창룡(경북중)</p>	
06.28	<p>■호세이(法政)대초청 한·일친선대회 대한야구협회 중앙일보사 공동 초청으로 6월 28일부터 서울을 비롯해 대전, 대구, 부산 등지에서 대학 및</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실업 팀과 12차전을 개최, 7월 9일 열린 고별전에서 호세이대가 금융·실업연합(농협, 상업은, 한국전력)을 3-0으로 꺾고 7승1무4패를 기록</p> <p>▲1차전(6월 28일 서울)=호세이대 4-2 대학선발 ▲2차전(6월 28일 서울)=호세이대 8-5 해병대 ▲3차전(6월 29일 서울)=호세이대 6-2 철도청 ▲4차전(6월 29일 서울)=호세이대 12-2 한일은행 ▲5차전(7월 1일 대전)=호세이대 7-4 상업은행 ▲6차전(7월 2일 대구)=호세이대 3-5 한일은행 ▲7차전(7월 3일 부산)=호세이대 14-2 해병대 ▲8차전(7월 5일 서울)=호세이대 2-3 육군 ▲9차전(7월 5일 서울)=호세이대 0-4 금융선발 ▲10차전(7월 6일 서울)=호세이대 6-6 금융연합(제일은, 기업은) ▲11차전(7월 6일 서울)=호세이대 3-5 실업선발 ▲12차전(7월 9일 서울)=호세이대 3-0 금융·실업연합(농협·상업은·한국전력)</p> <p>◇금융선발 ▲감독=허정규(농협) ▲코치=장태영(상은) ▲주무=강대중(한일은) 및 ▲투수=김청옥(농협) 유백만(상은), 윤희상(제일은), 윤동복, 임신근(이상 한일은) ▲포수=이재환(농협), 배성서(한일은) ▲1루수=김응룡(한일은), 장원순(제일은) ▲2루수=하갑득(농협), 백기성(한일은) ▲3루수=김동률, 김우열(이상 제일은) ▲유격수=하일(상은), 박용진(기은) ▲외야수=도중연(제일은), 최창형(상은), 조진영(한일은), 김태석(제일은), 김태령(상은), 박동석(朴東錫 농협), 김민태(한일은)</p> <p>◇실업선발 ▲감독=김계현(한전) ▲코치=김진영(해병) ▲주무=남갑균(철도) 및 ▲투수=김병우(해병) 김명성(육군), 이충순(한전), 남궁택경(철도), 김윤겸(육군) 박성효(해병) ▲포수=정동진(해병), 황석중(철도) 임철수(육군) ▲1루수=김광웅(해병), 황성록(육군) ▲2루수=강태정(육군), 한동화(해병) ▲3루수=강병철(해병), 이재우(육군) ▲유격수=박재영(육군), 이건웅(해병) ▲외야수=박영길(한전), 오두환(철도), 김삼용(육군), 최흥표(육군), 정연희(한전)</p>	 <p>호세이대-실업연합(상은, 한전, 농협)전 4회말 볼넷으로 2루까지 진루했던 하갑득이 김태령의 좌전 안타를 틈 타 홈으로 뛰어들다 터치 아웃, 호세이대에 0-3으로 패배</p>
07.01	<p>■ 제16회 전국중학선수권대회 서울시에선경 제7회 서울시중학선수권대회</p> <p>대한연식야구협회 주최로 7월 1일부터 전년도 우승 팀 선린중을 비롯해 13개 중학 팀(휘문, 경동, 중앙, 성남, 선린, 성동, 배명, 대광, 장충, 휘문, 동대문, 마포, 서울사대부중)이 출전한 가운데 선린상고와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7월 10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장충중이 배문중을 2-0으로 격파하고 우승</p> <p>▲준결승전=장충중 4-0 동대문중, 배문중 2-1 성동중 ▲결승전=장충중 2-0 배문중</p> <p>◇개인상 ▲우수상=현상룡(玄相龍 장충중 투수) ▲감독상=유희협(柳熙협 배문중 좌익수) ▲타격상=김정무(金正武 배문중 투수 .383) ▲미기상=박봉구(朴鳳九 중앙중 좌익수)</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7.05	<p>■ 유백만 투수, 실업야구 첫 100승 달성 1962년 조선운수 투수로 교통부를 상대로 첫 승을 올린 이후 7년 3개월 만인 7월 5일 일본 호세이(法政)대를 상대로 100승을 달성(289경기 출전, 100승14무53패, 1만8,038 투구, 1,358 이닝서 안타 887개를 허용, 평균자책점 1.24)</p>	
07.11	<p>■ 제13회 한·미친선대회 대한야구협회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7월 11일부터 미군 4개 팀(미군수기지사령부 패스컴, 미2사단, 미7사단, 미1군단)과 한국 4개 팀(육군, 철도청, 한일은행, 해병대) 등 8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7월 14일 끝난 결승전에서 한일은행이 패스컴(미군수기지사령부)을 4-2로 물리치고 우승 ▲준결승전=패스컴 10-3 철도청, 한일은행 2-0 해병대 ▲결승전=패스컴 2-4 한일은행</p>	
07.17	<p>■ 미국대학선발 빅토리초청 한·미친선대회 대한야구협회 초청으로 선교와 야구교류를 위해 미국 대학선발 '벤처 포 빅토리(Victory)'가 내한,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국내 실업 팀들과 서울운동장에서 8차전을 개최한 끝에 5승3패를 기록 ▲1차전(7월 17일)=빅토리 2-0 한일은행 ▲2차전(7월 17일)=빅토리 1-6 실업선발 ▲3차전(7월 21일)=빅토리 1-0 해병대(7회전) ▲4차전(7월 21일)=빅토리 3-2 금융선발 ▲5차전(7월 22일)=빅토리 0-5 한전·농협선발 ▲6차전(7월 23일)=빅토리 4-3 철도·제일은행선발 ▲7차전(7월 24일)=빅토리 2-0 상운·기은선발(7회) ▲8차전(7월 24일)=빅토리 4-12 실업선발</p>	<p>■ 07.21 인류 최초 달 착륙 미국의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과 앨드린이 7월 21일 오전 11시56분20초(한국시간 오전 2시56분20초) 우주선 아폴로 11호를 타고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착륙</p>
07.23	<p>■ 제21회 쌍룡기쟁탈 전국고교대회 부산야구협회 국제신보사 공동 주최로 7월 23일부터 전국 각 시 도에서 16개 고교 팀(부산, 동산, 배문, 경북, 부산상, 마산상, 대전, 선린상, 성남, 인천, 경남상, 군산상, 대구상, 동대문상, 세광, 경남고)이 출전한 가운데 구덕경기장에서 개최, 7월 28일 열린 결승전에서 선린상고가 대구상고를 4-0으로 꺾고 우승 ▲준결승전=선린상고 7-3 부산고, 대구상고 9-7 성남고 ▲결승전=선린상고 4-0 대구상고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유남호(선린상고 투수) ▲감투상=정기혁(대구상고 투수) ▲타격상=①정인용(성남고 좌익수 .600) ②노길상(성남고 투수 .429) ▲미기상=윤학천(선린상고 3루수) ▲지도자상=박진원(선린상고 감독)</p>	
08.12	<p>■ 제12회 재일교포학생야구단 모국방문환영대회 대한야구협회 한국일보사 공동 초청으로 8월 12일부터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지에서 16차전을 개최한 끝에 11승2무3패를 기록 ◇재일교포선수단 ▲단장=권영섭(재일협회 회장) ▲</p>	<p>■ 08.03 다저 스타디움 첫 장외 홈런 피츠버그의 윌리 스타젤이 1962년 완공된 LA 다저스의 홈 구장인 다저 스타디움에서 사상 최초로 장외 홈런을 기록</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부단장=진기연(陳琦淵 재일협회 이사) ▲총무=강철중(姜哲中 재일협회 이사) ▲섭외=최점민(崔點敏 재일협회 이사) ▲감독=한재우(韓在愚 재일협회 회원) ▲코치=신재기(재일협회 회원) ▲투수=강명호(姜明鎬 묘우조明星고), 장계록(張啓錄 하나조노花園고), 김기태(金基泰 고노하나此花고), 조선제(趙善濟 하야모토早柄고), 박재열(朴在烈 초시 銚子고) ▲포수=김상철(金相哲 주쿄中京상고) ▲내야수=김현조(金鉉朝 주쿄中京상고), 김민남(金敏男 쓰시마津島상공), 김정치(金政治 히로토시大鐵고), 최우광(崔友廣 토인桐陰고), 윤광남(尹光男 五敎고) ▲외야수=이호차(李浩次 헤이안平安고), 박행삼(朴幸三 미요시三次고), 봉창근(奉昌根 히에이잔比叡山고)</p> <p>▲1차전(8월 12일 서울)=재일교포 3-4 중앙고 △중앙고=감독 이조영 및 유승화(중견수), 구본수(2루수) 우익수, 이종도(포수), 김성환(金聖桓 유격수), 박형규(3루수), 이재형(李在亨 좌익수), 유광수(柳光洙), 안창원(安昌源 이상 투수), 김근후(1루수)</p> <p>▲2차전(8월 13일 서울)=재일교포 12-0 성동고 △성동고=감독 김재복 및 장영호(張英鎬 유격수), 김한기(金翰基 2루수), 김인진(金仁振 중견수), 유승묵(柳承默 포수), 이진훈(李辰薰 3루수), 권서문(權瑞文 1루수), 명노평(明魯平), 양락표(梁洛杓 이상 우익수), 윤현묵(투수), 이인홍(李仁洪 중견수), 김지태(金志泰 좌익수)</p> <p>▲3차전(8월 15일 서울)=재일교포 4-1 장충고 △장충고=김일배 및 송태영(좌익수), 김경남(중견수), 심형식(유격수), 이준석(투수), 최봉구(우익수), 김승규 김길남(이상 3루수), 전형배(포수겸 투수), 이상성(1루수), 현용철(2루수), 김문겸(유격수겸 포수)</p> <p>▲4차전(8월 15일 재일교포 1-1 선린상고) ▲5차전(8월 16일 서울)=재일교포 5-1 성남고 ▲6차전(8월 17일 서울)=재일교포 7-7 경희고 ▲7차전(8월 17일 서울)=재일교포 5-1 성남·선린 연합 ▲8차전(8월 20일 서울)=재일교포 3-1 경기상고 ▲9차전(8월 20일 서울)=재일교포 6-1 배문고 ▲10차전(8월 20일 서울)=재일교포 3-1 선린상고 ▲11차전(8월 21일 인천)=재일교포 0-1 인천선발 ▲12차전(8월 22일 대전)=6-2 대전선발 ▲13차전(8월 23일 대구)=재일교포 2-3 대구상고 ▲14차전(8월 24일 대구)=재일교포 11-0 경북고 ▲15차전(8월 26일 부산)=재일교포 8-3 부산상고 ▲16차전(8월 27일 부산)=재일교포 4-3 경남고</p>	 <p>日時·1969年 8月 12日 ~ 8月 20日 場所·서울·大邱·釜山·仁川·大田 主催·大韓野球協會·한국일보社</p> <p>제12회 재일교포학생야구단 모국방문 환영대회 팸플릿 표지</p>
08.16	<p>■제12회 문교부장관기쟁탈 전국중학초청대회 대한연식야구협회 주최로 8월 16일부터 전국 19개 중학 팀(경북, 장충, 대전 대성, 경상, 춘천, 묵호, 대구, 대구 중앙, 대전동, 충남, 상인천, 성남, 선린, 경남, 군산 남, 신라, 중앙, 동대문, 대신중)이 출전한 가운데 춘천 공설운동장에서 토너먼트로 개최, 8월 22일 열린 결승</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전에서 선린중이 경주 신라중을 1-0으로 꺾고 우승 ▲준결승전=선린중 5-2 상인천중, 경주 신라중 1-0 대신중 ▲결승전=선린중 1-0 신라중 ◇개인상 ▲우수선수상=서관용(선린중 투수) ▲감투상=권혁기(신라중 투수) ▲타격상=박청학(상인천중 투수) ▲미기상=엄성해(상인천중 좌익수) ▲감독상=송병섭(선린중 감독) ▲모범 감독상=이갑도(신라중 감독)</p>	
08.24	<p>■가고시마현고교선발초청 한·일친선고교대회 대한야구협회 초청으로 8월 23일 일본 가고시마(鹿兒島)상고를 주축으로 한 가고시마현 고교선발 팀이 내한,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국내 고교 팀들과 11차전을 가진 끝에 3승4무4패를 기록 ▲1차전(8월 24일 서울)=가고시마선발 3-3 경희고 ▲2차전(8월 24일 서울)=가고시마선발 0-0 선린상고 ▲3차전(8월 26일 서울)=가고시마선발 4-0 중앙고 ▲4차전(8월 28일 인천)=가고시마선발 9-0 인천선발 ▲5차전(8월 30일 서울)=가고시마선발 2-3 서울연합(장충고, 경기상, 성동고) ▲6차전(8월 30일 서울)=가고시마선발 0-2 성동고 ▲7차전(8월 31일 서울)=가고시마선발 0-0 배문고 ▲8차전(8월 31일 서울)=가고시마선발 0-2 서울선발 ▲9차전(9월 2일 대전)=가고시마선발 5-2 대전선발(7회 일몰 콜드 게임) ▲10차전(9월 3일 대구)=가고시마선발 2-3 대구상고 ▲11차전(9월 4일 부산)=가고시마선발 3-3 부산선발(8회 일몰 콜드 게임)</p>	 <p>1차전 7회말 경희고는 1사후 만루로 역전의 기회를 잡았으나 1번 광영일(郭英一)의 스윙 아웃, 3루에서 홈인하던 장덕필(張德泌)도 협살 당해 3-3으로 무승부</p>
08.27	<p>■국산 야구공 실업야구 올스타전에서 첫 사용 서울공영(工榮)공업이 4월 생산 설비를 갖추고 7월 시험 생산에 성공, 8월 27일 밤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실업야구 올스타전에서 첫 사용. 연간 3천타 이상 생산에 1타 당 가격은 6,000원 내외</p>	
08.27	<p>■제6회 실업야구 올스타전 한국실업야구연맹 주최로 8월 27일 실업단-금융단의 1차전(통산 18차전)을 개최, 8월 29일 끝난 3차전(통산 20차전)에서 금융단이 10회 연장전 끝에 2-1로 실업단을 눌러 2승1패로 우승 ▲1차전(통산 18차전 8월 27일)=실업단 4-3 금융단 ◇개인상 ▲최고수훈선수상=박재영(육군) ▲승리투수상=김윤겸(육군) ▲우수투수상=백수웅(농협) ▲감투상=왕상균(상은) ▲타격상=박재영(육군 .600) ▲승리감독상=김진영(해병대 감독) ▲2차전(통산 19차전 8월 28일)=실업단 1-5 금융단 ◇개인상 ▲최고수훈선수상=하갑득(농협) ▲승리투수상=윤동복(한일은) ▲우수투수상=유백만(상은) ▲타격상=강병철(해병 1.000) ▲감투상=김명성(육군) ▲홈런상=하갑득(농협) ▲승리감독상=허정규(농협 감독) ▲3차전(통산 20차전 8월 29일)=금융단 2-1 실업단(10회 연장)</p>	 <p>올스타 3차전 연장 10회초, 1사 만루에서 금융단 유백만의 적시타로 3루 주자 김태석이 홈인, 결승점을 올렸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개인상 △최고수훈선수상 △승리투수상=유백만(상은) △우수투수상=한광홍(기은) △타격상=김태석(제일은 .750) △감투상=하갑득(농협) △승리감독상=강대중(한일은 감독)	
09.06	■ 전국대학연맹전 추계리그 전국대학연맹 주최로 9월 6일 전국에서 7개 대학(경희, 고려, 동국, 동아, 성균관, 연세, 한양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9월 10일 대학연맹이 긴급 이사회를 열고 연세대-고려대전(9월 11일)을 앞두고 연·고생들의 삼선개헌 반대 데모를 우려해 5일째 경기를 끝으로 중지, 잔여 경기를 무기 연기하기로 결정	
09.13	■ 제1회 서울시국민학교연식연맹창립대회 서울시국민학교연식야구연맹 주최로 9월 13일부터 10일간 12개 팀(을지, 유석, 갈현, 전곡, 오류, 남산, 효제, 이문, 화계, 강남, 경희, 월계)이 출전한 가운데 을지국민학교 운동장에서 개최	9월 10일 벌어진 고려대-성균관대전의 한 장면. 대학야구연맹은 이 경기를 끝으로 연·고생들의 3선 개헌 반대 데모를 우려한 나머지 6경기를 남겨놓고 대회를 무기연기, 끝내 열리지 못했다.
09.19	■ 제4회 국회의장배쟁탈 전국6도시초청고교대회 경북야구협회 매일신문사 공동 주최로 9월 19일부터 배문, 중앙, 인천, 대전, 군산상, 부산, 경북, 대구상고 등 8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대구종합운동장에서 개최, 9월 22일 열린 결승전이 우천으로 연기된 끝에 경북고와 중앙고를 공동 우승으로 처리 ▲준결승전=중앙고 2-1 대구상고, 경북고 1-0 부산고 ▲결승전=경북고, 중앙고 공동 우승 ◇개인상=시상 없음	
09.22	■ 김윤겸, 노히트노런(No Hit No Run)④ 9월 22일 육군 투수 김윤겸이 대통령배 전국실업연맹전에서 육군 투수로 철도청 27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탈삼진10개를 기록하며 볼넷 3개를 허용한 끝에 8-0으로 개인 통산 4번째 No Hit No Run 기록	
09.24	■ 제23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서울시예선 동아일보사 주최로 9월 24일부터 서울시 고교 14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2일 끝난 결승전에서 선린상고가 중앙고를 5-0으로 격파하고 우승 ▲준결승전=선린상고 2-1 배문고, 중앙고 8-2 성남고 ▲결승전=선린상고 5-0 중앙고 ◇개인상 ▲우수선수상=유남호(선린상고 투수) ▲감투상=이원녕(중앙고 투수) ▲타격상=전유섭(선린상고 .538) ▲최다량안타상=전유섭(7) ▲홈런상=전유섭 ▲감독상=박진원(선린상고 감독)	
09.26	■ 네쓰가쿠(熱學)초청 한·일친선대회 대한야구협회 중앙일보사 공동 초청으로 내한,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국내 실업 팀과 9차전을 가	■ 09.26 일간 스포츠 창간 한국일보사(사장 장기영)가 자매지로 스포츠 연예 전문 신문인 '일간 스포츠'를 창간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진 끝에 6승1무2패를 기록 ▲1차전(9월 26일 서울)=네쓰가쿠 0-6 철동청(7회) ▲2차전(9월 26일 서울)=네쓰가쿠 6-2 한일은행 ▲ 3차전(9월 27일 서울) 네쓰가쿠 5-2 육군 ▲4차전 (9월 28일 서울)=네쓰가쿠 3-7 한국전력 ▲5차전(9 월 28일 서울)=네쓰가쿠 1-0 제일은행 ▲6차전(10 월 1일 서울)=네쓰가쿠 4-2 농협 ▲7차전(10월 3일 서울)=네쓰가쿠 1-1 기업은행 ▲8차전(10월 4일 서 울)=네쓰가쿠 15-1 해병대 ▲9차전(10월 4일 서울)= 네쓰가쿠 3-0 상업은행</p>	
10.05	<p>■ 제23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대한야구협회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10월 5일부터 전년도 우승 팀 경북고를 비롯해 15개 고교 팀(세광, 성남, 인천, 영남, 경남, 중앙, 부산, 마산상, 군산상, 배 문, 대전, 대구상, 동산, 선린상고)이 출전한 가운데 서 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13일 끝난 최종 결승전에서 선린상고가 경북고를 12-5로 격파하고 우승 ▲승자 준결승전=선린상고 5-1 배문고, 경남고 5-9 경북고 ▲패자 준결승전=경남고 5-3 배문고 ▲승자 결승전=경북고 5-2 선린상고 ▲패자 결승전=선린상 고 5-1 경남고 ▲결승전=선린상고 14-3 경북고 ▲ 최종 결승전=선린상고 12-5 경북고 ◇개인상 ▲우수선수상=박준영(선린상고 투수) ▲감 투상=남우식(南宇植 경북고 투수) ▲타격상=박순철 (경남고 .467) ▲미기상=우제호(禹濟鎬 경북고) ▲특 별상=전유섭(선린상고)</p>	 <p>선린상고 주장 유남호(柳南鎬)가 대회장인 고재욱(高在旭) 동아일보 사장으로부터 황 금사자기를 받아들였다.</p>
10.14	<p>■ 서울시고교 추계리그 서울시고교야구연맹 주최로 10월 14일부터 서울시내 15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23일 열린 결승리그 최종일 경기에서 동대문상 고가 중앙고를 4-3으로 제치고 우승 ◇결승리그 순위=①동대문상(3승) ②중앙고(1승1무1 패) ③경기상(2무) ④배문고(1무2패) ◇개인상 ▲우수상=이거수(李巨洙 동대문상 투수) ▲ 감투상=유광수(柳光洙 중앙고 투수) ▲타격상=박해 중(朴海鍾 동대문상 포수) ▲최다량 안타상=박해중 (11개) ▲훈련상=남현일(南賢一 선린상)</p>	
10.24	<p>■ 일본 프로야구 도에이초청 한·일친선대회 대한야구협회 초청으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간 한국대표 팀과 서울운동장에서 3차전을 개최, 도에 이(東映)가 3전 전승을 기록 ▲1차전(10월 24일 서울)=도에이 11-0 한국대표 ▲ 2차전(10월 25일 서울)=한국대표 5-7 도에이 ▲3차 전(10월 26일 서울)=도에이 12-6 한국대표</p>	
10.28	<p>■ 제50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대한체육회 주최로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p>	<p>10월 24일 도에이 팀과 함께 귀국한 장훈 (왼쪽), 김유광, 백인천 선수.</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울운동장에서 개최, 대구상고(경북), 한양대(서울)및 농협(전북)과 한국전력(부산)이 공동 우승 ▲고등부 준결승전=인천고(경기 기권 승) 0-X 배문고(서울), 대구상고(경북) 4-2 경남고(부산) ▲동 결승전=대구상고(경북) 3-2 인천고(경기) ▲대학부 1회전=동아대(부산 추첨 승) 0-0 경북대(경북), 한양대(서울) 21-2(5회 콜드게임) 전남대(전남) ▲동 결승전=한양대(서울) 8-2 동아대(부산) ▲일반부 준결승전=농협(전북) 4-2 철도청(충남), 육군(경북) 2-2 한국전력(부산 추첨 승) ▲동 결승전=농협(전북) 1-1 한국전력(부산) 공동 우승</p>	<p>■10.16 기적의 뉴욕 메츠 뉴욕 메츠가 전년도 9위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월드시리즈에 진출, 10월 16일 벌어진 5차전에서 오리올스를 5-3으로 꺾고 4승1패로 패권을 장악</p> <p>■10.17 대통령 3선 개헌 국민투표 대통령 3선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국민투표 결과 찬성 65%로 가결</p>
11.08	<p>■제8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대만봉구협회 주최로 11월 8일부터 한국, 일본, 필리핀, 자유중국 등 4개국이 출전한 가운데 대만 타이베이(臺北)에서 더블리그로 개최, 11월 16일 벌어진 최종일 경기에서 한국이 필리핀을 3-1로 눌러 1승1무4패로 최하위 ▲1차리그=한국 0-1 일본, 한국 0-0 자유중국, 한국 1-3 필리핀 ▲2차리그=한국 1-3 일본, 한국 1-3 자유중국, 한국 3-1 필리핀 ◇종합 순위=①일본(5승1무) ②자유중국(2승2무2패) ③2승4패) ④한국(1승1무4패)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사토(佐藤 道郎) ▲타격상=Calang(필리핀 .350) ▲홈런상=야자와(谷澤 健一 2개) ▲감독상=이와타(岩田 敏) ◇한국선수단 ▲단장=노정호(야협 부회장) ▲총무=이팔관 ▲섭외=이규백 ▲심판=김정환 ▲감독=김진영(해병 감독) ▲코치=박현식(제일은 감독) ▲투수=김병우(해병), 유백만(상업은), 윤동복(尹東福), 임신근(이상 한일은), 김명성(육군), 한광홍(기업은) ▲포수=최재봉(기업은), 정동진(해병) ▲내야수=한동화, 강병철(이상 해병), 김응룡(한일은), 김동률(제일은), 박재영 강태정(姜泰貞 이상 육군) ▲외야수=박영길(한국전력), 함응렬(해병), 김태령(상업은), 이재우(육군)</p>	 <p>대만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선수권대회 개막식에 한국대표단의 김진영 감독과 박현식, 김응룡, 박영길 선수가 입장하고 있다. 한국은 이 대회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p>
11.10	<p>■경북고교선발 일본원정 한·일친선고교대회 일본고교야구연맹 초청으로 11월 7일 오후 5시 부산에서 배편으로 출국, 11월 10일부터 20일까지 오사카(大阪)와 고치(高知) 등지에서 7차전을 개최한 끝에 3승1무3패를 기록 ▲1차전=경북선발 2-3 PL학원 ▲2차전=경북선발 1-1 다마시마(玉島)상고 ▲3차전=경북선발 4-2 고치(高知)상고 ▲4차전=경북선발 1-0 다카마쓰(高松), 규우류(九龜)상고선발 ▲5차전=경북선발 1-2 다카마쓰(高松)선발 ▲6차전=경북선발 0-1 마쓰야마(松山)선발 ▲7차전=경북선발 2-0 우베(宇部)선발 ▲단장=양재취(梁在暉 경북고 교장) ▲섭외=전정득(全貞得 경북협회 회장) ▲총무=박환규(朴煥圭 경북고 야구부장) ▲임원=김영호 ▲감독 서영무(경북고</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감독) 및 ▲투수=남우식(경북고), 정기혁(대구상고), 손정원(孫正元 영남고) ▲포수=양창의(경북고), 우용득(대구상고) ▲내야수=강병구(姜炳求), 천보성(千普成), 우제호, 최영일(이상 경북고), 이일복(李日馥), 노태익(盧泰益 이상 대구상고), 심영환(沈永煥 영남고) ▲외야수=김창고, 신동식(申東植), 신준섭, 김종대(金鍾大 이상 경북고)</p>	
11.25	<p>■제12회 이영민 타격상 정장헌(鄭長憲) 수상 대한야구협회(회장 김종락)가 11월 25일 동아일보사 주최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조선일보사 주최 전국고교선수권대회, 국제신보사 주최 전국대회에서 47타수 18인타를 날려 타율 0.383를 기록한 선린상고 포수 정장헌을 제12회 이영민 타격상 수상자로 선정</p>	
12.05	<p>■대한야구협회 집행부 총 사퇴 결의 대한야구협회(회장 김종락)가 12월 5일 이사회를 열고 제8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참패와 협회 운영에 따른 잡음에 책임을 지고 집행부 총 사퇴를 결의</p>	
12.28	<p>■대한야구협회 정기 대의원 총회 대한야구협회(회장 김종락)가 제24차 정기 대의원 대회를 열고 회장단 유임시키는 등 새 집행부를 다음과 같이 선임 ▲회장=김종락(유임) ▲부회장=최인철, 노정호(이상 유임) ▲이사=이팔관, 김계현, 유완식, 허종만, 김정환, 김기훈(이상 유임) 잔여 6명은 미정 ▲감사=한태동, 박내용(이상 신임)</p>	
1970. 03.22	<p>■서울시고교 춘계리그점 제4회 전국고교대회 서울시예선 서울시고교야구연맹 주최로 3월 22일부터 서울시 고교 16개 팀(배문, 대광, 청량공, 성남, 경동, 동대문상, 경기상, 배재, 선린상, 성동, 경희, 중앙, 배명, 장충, 휘문, 수도사대부고)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4월 2일부터 13일까지 5개 팀이 벌인 결승리그에서 선린상고가 장충고를 5-0으로 꺾고 5승1무로 우승 ◇종합 순위=①선린상고(5승1무) ②동대문상, 배명고(이상 4승1무1패) ④배문고(3승1무2패) ⑤청량공, 배재고(이상 1승5패) ◇개인상 ▲우수상=서종수(선린상고 투수) ▲감투상=이거수(李巨洙 동대문상고 투수), 임영식(林永植 배명고 투수) ▲타격상=정현석(鄭鉉奭 배문고 중견수 .438) ▲최다 안타상=이해창(선린상고 포수 17안타) ▲최다 타점상=이해창(선린상고) ▲감독상=유갑수(柳甲洙 선린상고 감독)</p>	<p>■01.16 FA제도의 문을 연 커트 플러드 세인트루이스의 커트 플러드가 구단이 일방적으로 트레이드를 발표하자 자신의 의사에 반한 트레이드에 응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 1972년 1월 연방 대법원은 구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5년 뒤 선수노조는 ‘한 팀에서 6시즌을 뛴 선수는 FA로 풀린다’는 조항 삽입에 성공</p> <p>■02. 시애틀 파일러츠 본거지 변경 1969년 창단한 시애틀 파일러츠가 시즌을 앞두고 1년 만에 프랜차이즈를 밀워키로 옮긴 뒤 ‘밀워키 브루어스’로 변경</p>
04.04	<p>■제20회 백호기쟁탈 전국군·실업쟁패전 대한야구협회 경향신문사 공동 주최로 4월 4일부터 9</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개 팀(해병대, 제일은행, 육군, 상업은행, 농협, 한일은행, 기업은행, 한국전력, 철도청)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A, B, C, D 4개 조별 토너먼트로 승자를 가린 뒤 4월 6일부터 3일간 결승리그를 개최, 4월 8일 끝난 최종일 경기에서 한국전력이 한일은행과 12회 연장전 끝에 3-3으로 비겨 2승1무로 우승</p> <p>◇결승리그 순위=①한국전력(2승1무) ②제일은행(2승1패) ③한일은행(1승1무1패) ④해병대 3패)</p> <p>◇개인상 ▲우수선수상=박영길(한전 좌익수) ▲우수투수상=이충순(한전 투수) ▲감투상=한동화(제일은행 2루수) ▲타격상=박영길(한전 600) ▲미기상=전성욱(한전 3루수) ▲신인선수상=최남수(한일은행 좌익수) ▲감독상=김계현(한전 감독)</p> <p>△한국전력=감독 김계현 및 강태정(2루수, 이승엽(李承燁) 유격수), 황성록(중견수), 박영길(좌익수), 최정상(1루수, 전성욱(3루수), 조일수(우익수), 임상준(포수) 강용수(姜龍洙, 이충순(이상 투수)</p>	 <p>4월 4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제20회 군산업쟁패전 개막식</p> <p>■04.08 마포 와우아파트 붕괴 서울 마포구 창전동 산 2번지 와우산 기슭 시민아파트 중 제15동 콘크리트 건물이 붕괴 33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중경상</p> <p>■04.14 소년체육대회 신설 대한체육회가 이사회를 열고 71년도 재51회 전국체육대회부터 소년그룹을 참가 대상으로 제외, 같은 해 5월 중으로 제1회 소년체육대회를 개최기로 결정</p>
04.12	<p>■구라시키(倉敷) 레이온초청 한·일친선실업대회 대한야구협회 초청으로 4월 11일 일본 사회인야구 랭킹 2위 구라시키(倉敷) 레이온 야구단(일행 25명)이 부산에 도착, 4월 12일부터 부산, 대구, 서울에서 국내 실업 팀들과 6차전을 개최, 4월 18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고별전에서 제일은행에 5-9로 패해 내한 전적 4승2패를 기록</p> <p>▲1차전(4월 12일 부산)=구라시키 레이온 4-0 상업은행 ▲2차전(4월 13일 대구)=구라시키 레이온 0-1 한일은행 ▲3차전(4월 15일 서울)=구라시키 레이온 5-0 해병대 ▲4차전(4월 16일 서울)=구라시키 레이온 4-0 한국전력 ▲5차전(4월 18일 서울)=구라시키 레이온 11-2 대학선발 ▲6차전(4월 18일 서울)=구라시키 레이온 5-9 제일은행</p>	<p>■04.22 톰 시버 10연속타자 탈삼진 뉴욕 메츠의 톰 시버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상대로 10연속타자 탈삼진으로 메이저리그 신기록을 세우고 총 19탈삼진으로 타이 기록을 수립</p>
04.17	<p>■제17회 인천4도시초청고교대회 경기연합일보사 주최로 4월 17일부터 3일간 6개 팀(부산, 경북, 선린상, 성남, 동산, 인천고)이 출전한 가운데 인천공설운동장에서 마지막 대회를 개최, 4월 19일 끝난 결승전에서 성남고가 15회 연장전 끝에 5-4로 선린상고를 제치고 우승(이후 대회폐지)</p> <p>▲준결승전=성남고 3-2 인천고, 선린상고 1-0 경북고 ▲결승전=성남고 5-4 선린상고(연장 15회)</p> <p>◇개인상 ▲우수상=노길상(성남고 투수)</p>	
04.23	<p>■전국대학연맹전 춘계리그 전국대학야구연맹 중앙일보사 공동 주최로 4월 23일부터 8개 대학 팀(경희, 고려, 동국, 동아대, 성균관, 연세, 중앙, 한양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1차(4월 23일~5월 1일)와 2차(6월 15~30일) 리그로 나누어 개최, 6월 30일 벌어진 최종일 경기에서 한양대가 성균관대를 1-0으로 누르고 12승1무1패로 우승</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종합 순위=①한양대(12승1무1패) ②경희대(10승4패) ③성균관대(9승1무4패) ④연세대(6승2무6패) ⑤동아대(6승1무7패) ⑥중앙대(4승2무8패) ⑦고려대(4승1무9패) ⑧동국대(1승13패)</p> <p>◇개인상 ▲최우수상=김인복(한양대 투수) ▲타격상=이광환(고려대), 최주현(경희대 이상 .383) ▲최다홈런상=서광렬(성균관대), 양형오(한양대 이상 4개)</p>	
04.30	<p>■제4회 대통령배쟁탈 전국고교대회 대한야구협회 중앙일보·동양방송 공동 주최로 4월 30일부터 전국에서 16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5월 7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경북고가 6-4로 동대문상고를 물리치고 우승</p> <p>▲준결승전=동대문상 9-8 부산고, 경북고 1-0 배문고 ▲결승전=경북고 6-4 동대문상</p> <p>◇개인상 ▲우수선수상=박용훈(朴容勳 경북고 포수) ▲우수투수상=남우식(경북고 투수) ▲타격상=남우식(경북고 투수 .462) ▲감투상=이거수(동대문상고 투수) ▲미기상=정현석(배문고 중견수) ▲홈런상=김종우(金鍾佑 대구상고 포수) ▲감독상=서영무(경북고 감독) ▲지도상=나운향(羅雲鄉 경북고 교장), 김병문(金炳文 군산상 교장), 이종호(李鍾皓 대전고 교장), 이태희(李泰熙 세광고 교장)</p> <p>△경북고=감독 서영무 및 천보성(유격수), 배대웅(裴大雄 2루수), 추경덕(秋京德 3루수), 김보연(1루수) 남우식(투수), 박용훈(포수), 정현발(鄭鉉發 좌익수), 최광수(崔光秀 중견수), 김철(金徹 우익수)</p> <p>△동대문상고=감독 김진용(金振用) 및 김인식(金仁植 유격수), 이길만(李吉萬 3루수), 김영도(金永道 1루수), 박해중(朴海鍾 포수), 이거수(투수겸 2루수), 김정택(金貞澤 우익수), 남영수(南永洙 2루수), 최은성(崔殷性 투수겸 우익수), 김용무(金龍茂 좌익수), 임완수(林完洙 2루수), 김경호(金景浩 투수겸 우익수), 강은철(姜殷哲 중견수)</p>	 <p>제4회 대통령배쟁탈 전국고교대회 경북고-부산고전 1회말 부산고의 톱 타자 조두복이 경북고 남우식 투수의 강속구를 받아치고 있다. 포수는 경북고 박용훈, 구심은 민준기 심판</p>  <p>70년 실업야구 페넌트 레이스에서 우승을 차지한 한일은행 주장 권국용(權國勇)이 우승 트로피를 받아들고 있다. 그 뒤로 홈런왕 강병철(姜秉徹)이 보인다.</p>
05.08	<p>■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한국실업야구연맹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5월 8일부터 실업야구 9개 팀(육군, 해병대, 한국전력, 철도청, 기업은행, 농협, 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이 144 경기를 소화하는 장기 페넌트 레이스를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9월 27일 밤에 열린 4차리그 최종일 경기에서 한일은행이 육군을 1-0으로 제치고 20승3무9패로 67년 이후 3년 만에 우승</p> <p>◇종합 순위=①한일은행(20승3무9패) ②육군(18승5무9패) ③제일은행(17승5무9패), 기업은행(18승3무10패) ⑤한국전력(16승4무12패) ⑥농협(13승4무15패) ⑦상업은행(10승5무16패) ⑧철도청(9승2무21패) ⑨해병대(4승4무24패)</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강병철(한일은행 3루수) ▲최고수훈선수상=김호중(金昊中 한일은행 투수) ▲최우</p>	 <p>70년 실업야구 페넌트 레이스에서 우승을 차지한 한일은행 주장 권국용(權國勇)이 우승 트로피를 받아들고 있다. 그 뒤로 홈런왕 강병철(姜秉徹)이 보인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수신인상=우용득(한일은 포수) ▲감투상=한광홍(기은 투수) ▲타격상=한광홍(기은 투수 .360) ▲승률 우수투수상=임신근(한일은 투수 .818) ▲방어율 우수투수상=김명성(육군 투수 1.18) ▲최다승리투수상=김병우(제일은 투수) ▲최다출루상=강병철(한일은 3루수) ▲최다타점상=이재우(제일은 우익수 23개) ▲최다도루상=김충(상은 3루수 29개) ▲최다홈런상=강병철(한일은 3루수 10개) ▲애석상=이춘근(해병 3루수) ▲최우수감독상=김영덕(한일은 감독) ▲우수감독상=허종만(육군 감독) ▲특별상=백남권(白南權 한일은 전무이사) ▲공로상=최동삼(崔東三 한일은 야구부장)	
05.16	■ 제1회 조서희기쟁탈 전국중학연식대회 창설 대한연식야구협회 배문고등학교 공동 주최로 5월 16일부터 전국에서 17개 중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배문중 운동장에서 개최, 5월 20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대전 대성중이 경상중을 1-0으로 제치고 우승 ▲준결승전=경상중 1-0 경북중, 대성중 3-0 군산남중 ▲결승전=대성중 1-0 경상중 ◇개인상 ▲우수상=조민형(趙敏衡 대성중 투수)	■ 05.16 국내 최장 서울대교 개통 서울 여의도를 경유, 마포구와 영등포구를 잇는 국내 최장의 다리인 서울대교(1,390m)가 착공 2년 2개월 만에 개통
05.16	■ 한국야구 사상 첫 3연타석 홈런 5월 16일 열린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상업은행전에서 제일은행 이재우(李載雨)가 1회와 3회 솔로 홈런을 터트린 뒤 5회에 3점 홈런을 날려 한국야구 사상 첫 3연타석 홈런 기록	
05.19	■ 이동수(李東秀), Perfect Game(완전경기) 수립 경상중 투수 이동수가 서울 배문중 운동장에서 열린 제1회 조서희기쟁탈 전국중학연식대회 4일째 경기에서 선린중 27명의 타자들을 상대로 무안타 무실점 무실책 끝에 1-0으로 퍼펙트 게임(Perfect Game) 수립	
05.20	■ 제25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서울시예선 대한야구협회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5월 20일부터 서울시 고교 1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5월 26일 열릴 예정이던 결승전이 강우로 취소되어 동대문상고와 중앙고가 공동 우승 ▲준결승전=동대문상 6-5 배명고, 중앙고 2-1 배명고 ▲결승전=동대문상-중앙고 공동 우승(강우로 경기 취소)	
05.29	■ 제10회 문교부장관기쟁탈 전국4도시선발고교대회 경북야구협회 매일신문사 공동 주최로 5월 29일부터 동대문상, 인천고, 부산고, 대구상, 부산상, 경북고 등 6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대구종합운동장에서 개최, 6월 2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경북고가 대구상고를 4-0으로 격파하고 우승 ▲준결승전=경북고 12-1 부산상고, 대구상고 4-3 부산고 ▲결승전=경북고 4-0 대구상고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개인상 ▲최우수상=남우식(경북고) ▲감투상=정기혁(대구상고 투수) ▲타격상=최광수(崔光秀 경북고 .583) ▲미기상=황상진(黃相鎭 대구상고) ▲홈런상=김보연(金寶連 경북고) ▲감독상=서영무(경북고 감독)</p>	
06.09	<p>■제25회 청룡기쟁탈 전국고교선수권대회 대한야구협회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6월 9일부터 전국 시 도에서 18개 고교 팀(경북, 학성, 전주상, 배명, 세광, 부산, 인천, 대전, 중앙, 대구상, 대전, 동대문상, 선린상, 마산상, 부산상, 군산상, 동산, 배문고)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17일 벌어진 최종 결승전에서 대구상고가 배문고를 2-1로 제치고 우승</p> <p>▲승자 준결승전=부산고 3-1 배명고, 대구상고 1-0 배문고 ▲패자 준결승전=배문고 5-2 배명고 ▲승자 결승전=대구상고 2-1 부산고 ▲패자 결승전=배문고 2-1 부산고 ▲결승전=대구상고 0-0 배문고(13회 연장) ▲최종 결승전=대구상고 2-1 배문고</p> <p>◇개인상 ▲우수선수상=김종우(대구상고 포수) ▲우수투수상=정기혁(대구상고 투수) ▲감투상=백창현(배문고 투수) ▲타격상=신중국(辛重國 부산고 .467) ▲수훈상=김종우(대구상고 포수) ▲미기상=신중국(부산고) ▲홈런상=추경덕(경북고), 이해창, 임광선(林光善 이상 선린상고), 신중국(부산고), 김종우, 황상진(이상 대구상고) ▲감독상=조원일(대구상고 감독)</p> <p>△대구상고=감독 조원일 및 이종훈(李鍾勳 중견수) 오명원(吳明元 2루수), 도유성(都有成 유격수), 김종우(포수겸 좌익수), 김영헌(金永憲 우익수), 황상진(3루수), 황기화(黃基和 포수), 도일권(都一權 좌익수겸 1루수) 정기혁(투수)</p> <p>△배문고=감독 박선오 및 강경구(姜敬九 좌익수), 박재규(朴在奎 우익수), 함상윤(咸尙潤 3루수), 백창현(투수겸 1루수), 정현석(중견수), 예형수(芮馨洙 포수), 권성태(權聖台 1루수), 나해룡(羅海龍 투수), 한형국(韓炯國 유격수), 나재선(羅在善 2루수)</p>	 <p>제25회 청룡기쟁탈 전국고교선수권대회 입장식에서 18개 고교 기수들이 교기를 앞 세우고 입장하고 있다.</p>
06.27	<p>■일본 주오(中央)대학초청 한·일친선대회 대한야구협회 동아일보사 공동 초청으로 6월 26일 내한, 6월 27일부터 서울, 대구, 부산 등지에서 국내 대학 및 실업 팀과 8차전을 개최, 7월 5일 벌어진 고별전에서 제일은행을 4-3으로 누르고 4승2무2패를 기록</p> <p>▲1차전(6월 27일 서울)=주오대 3-7 한국전력 ▲2차전(6월 28일 서울)=주오대 4-1 경희대 ▲3차전(6월 28일 서울)=주오대 2-0 육군 ▲4차전(7월 1일 인천)=주오대 2-2 해병대 ▲5차전(7월 2일 서울)=주오대 0-0 상업은행 ▲6차전(7월 2일 서울)=주오대 5-6 기업은행 ▲7차전(7월 5일 서울)=주오대 8-2 한양대 ▲8차전(7월 5일 서울)=주오대 4-3 제일은행</p> <p>△경희대=조완원(2루수), 채금석(좌익수), 허철(포수)</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최주현(1루수겸 투수), 이웅재(3루수), 정인용(우익수) 김영목(투수겸 1루수), 지영우(池榮宇 중견수), 안문광(유격수) △육군=박용진(3루수), 장진섭, 손병창(이상 2루수), 박재영(유격수), 최창형(1루수), 최창우(좌익수), 최흥표(우익수), 김삼용(중견수), 정진구(중견수겸 우익수) 임칠수, 백대삼(이상 포수), 김명성, 윤동복(이상 투수), 이영완(대타) △해병대=함응렬(중견수), 조윤식(유격수), 장원순(1루수), 이춘근(3루수), 이희수(李熙守 우익수), 김민태(金敏泰 좌익수), 하영발(河永潑 포수), 우시형(禹始亨 2루수), 안윤중(대타), 조흥기(투수), 김인식(대타) △상업은행=김충(3루수), 안철웅(安喆雄 대타), 신광진(중견수), 이원녕(좌익수), 왕상균(1루수), 오기봉(우익수), 유백만(투수), 양창의(포수), 허구연(2루수), 하일(유격수), 김철오(대타) △기업은행=박수부(2루수), 최완근(중견수), 최재봉(좌익수), 이건웅(유격수), 윤성재(1루수), 윤동균(尹東均 우익수), 최주억(崔周億 포수), 김천길(대주), 한광홍(투수겸 3루수), 장영수(張榮洙 3루수), 유태중(劉台中 투수), 주용국(朱龍國 3루수), 이종구(李鍾九 대타) △제일은행=김우열(3루수), 한동화(2루수), 김동률(유격수), 정동진(포수), 김차열(우익수), 도중연(좌익수), 김광웅(1루수), 박준영(투수), 정장현(대타)</p>	 <p>기업은행과의 6차전 6회초 주오대 7번 나가노(中野)가 홈런을 날린 뒤 홈인하고 있다.</p>
06.30	<p>■나유찬(羅裕燦),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한양대 투수 나유찬이 전국대학춘계연맹전 2차리그 최종일 경기에서 성균관대 27타자를 상대로 삼진 12개를 잡고 볼넷 2개를 허용한 끝에 1-0으로 No Hit No Run 기록</p>	<p>■06.30 리버프런트 스타디움 개장 신시내티가 홈 구장 리버프런트 스타디움을 개장. 1996년 시너지 코퍼레이션이 구장 명칭 사용권을 획득함에 따라 구장 명칭도 시너지 필드로 변경</p>
07.07	<p>■제14회 한·미친선대회(종료) 대한야구협회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7월 7일부터 미군 4개 팀(미2사단, 미7사단, 미코스컴, 미1군단)과 한국 4개 팀(육군, 해병대, 제일은행, 한국전력) 등 8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마지막 대회를 개최, 7월 11일 끝난 결승전에서 제일은행이 육군을 3-0으로 꺾고 우승(이후부터 대회 폐지) ▲준결승전=육군 4-3 미2사단, 제일은행 8-1 한국전력 ▲결승전=제일은행 3-0 육군</p>	<p>■07.07 경부고속도로 개통 1968년 2월 1일 착공한 서울-부산간 경부고속도로 428km가 7월 7일 오전 9시 50분 개통</p>
07.09	<p>■제13회 문교부장관기쟁탈 전국중학초청대회 전남연식야구협회 전남일보사 공동 주최로 7월 9일부터 18개 중학 팀(충남, 경상, 상인천, 대성, 청원, 인천남, 군산남, 진해, 광주 동성, 배문, 선린, 장충, 동대문, 대신, 대동, 대구, 대건, 전남중)이 출전한 가운데 광주공설운동장에서 개최, 7월 15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강우로 충남 대성중과 부산 대신중이 공동 우승 ▲준결승전=대성중 1-0 대건중, 대신중 1-0 동대문중 ▲결승전=대성중 0-0 대신중</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개인상 ▲우수상=조민형(趙敏衡 대성중 투수) ▲감투상=하기룡(河基龍 대신중 투수) ▲타격상=류상호(柳相浩 대성중 .400) ▲미기상=변대창(邊大昌 경상중) ▲장려상=임칠수(동대문중) ▲감독상=조종식(曹鍾植 대성중 감독), 안두칠(安斗七 대신중 감독)</p>	
07.12	<p>■ 제7회 실업야구 올스타전 한국실업야구연맹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7월 12일 금융-실업 올스타의 1차전이 서울운동장에서 개막, 7월 14일 끝난 3차전에서 금융 올스타가 5-4로 실업 올스타를 물리치고 2승1무로 우승 ▲1차전(통산 21차전 7월 12일)=실업 올스타 3-1 금융 올스타 ◇개인상 △최고수훈선수상=박영길(한국전력) △승리투수상=김명성(육군) △우수투수상=남궁택경(철도청) △타격상=박재영(육군) △감투상=유백만(상업은) △홈런상=박영길(한국전력) △승리감독상=허종만(육군) ▲2차전(통산 22차전 7월 13일)=금융 올스타 9-6 실업 올스타 ◇개인상 △최고수훈선수상=이재우(제일은) △승리투수상=김병우(제일은) △우수투수상=임신근(한일은) △감투상=박동수(한국전력) △타격상=권국용(한일은 .500) △홈런상=이재우(제일은) △승리감독상=박현식(제일은 감독) ▲3차전(통산 23차전 7월 14일)=실업 올스타 4-5 금융 올스타(연장 11회) ◇개인상 △최고수훈선수상=최주억(기업은) △승리투수상=유백만(상업은) △우수투수상=윤동복(육군) △감투상=장원순(해병대) △타격상=정동진(제일은 1.000)</p>	<p>■ 07.16 스리리버스 스타디움 개장 1968년 4월 25일 공사를 시작, 2년여 만인 7월 16일에 개장한 피츠버그의 홈 구장은 미식축구 경기장으로도 활용. 1971년 10월 13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월드시리즈 야간경기를 개최. 2000년 피츠버그가 새 구장인 PNC파크로 이전함에 따라 2001년 2월 11일 철거</p>
07.17	<p>■ 서울시고교야구연맹창립 10주년기념대회 서울시고교야구연맹 주최로 7월 14일 서울시 고교 17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선린상고와 성남고구장에서 1, 2회전을 토너먼트로 거행한 뒤 7월 17일 준준결승전인 3회전부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7월 24일 끝난 결승전에서 선린상고가 배명고를 5-4로 제치고 8년 만에 패권 탈환 ▲준결승전=배명고 7-0 중앙고, 선린상고 2-1 배명고 ▲결승전=선린상고 5-4 배명고 ◇개인상 ▲우수상=서종수(선린상고 투수) ▲감투상=임영식(배명고 투수) 타격상=신상돈(경기상 1루수 .714)</p>	
07.20	<p>■ 임영식(林永植),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배명고 투수 임영식이 서울시고교연맹 창립 10주년 기념대회(서울운동장)에서 중앙고 27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무안타 무실점 끝에 7-0으로 No Hit No Run 기록</p>	<p>■ 07.22 다저스의 빌 싱어 노히트노런 전염성 간장염으로 53일간 쉬고 있던 다저스의 빌 싱어가 첫 등판에서 필라델피아 필리스를 상대로 노히트노런을 기록하는 불굴의 투지를 과시</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7.25	<p>■ 일본 긴키(近畿)대초청 한·일친선대회 대한야구협회 중앙일보사 공동 초청으로 7월 24일 간사이(關西)6대학리그 준우승 팀 긴키대야구단이 요코야마(橫山) 단장 인솔로 내한, 7월 25일부터 국내 실업 및 대학선발과 10차전을 가진 끝에 3승3무4패를 기록 ▲1차전(7월 25일 서울)=긴키대 0-5 한일은행 ▲2차전(7월 25일 서울)=긴키대 0-4 농협 ▲3차전(7월 26일 서울)=긴키대 9-5 육군 ▲4차전(7월 28일 서울)=긴키대 0-1 해병대 ▲5차전(7월 28일 서울)=긴키대 2-2 한국전력 ▲6차전(7월 30일 서울)=긴키대 1-0 철도청 ▲7차전(7월 30일 서울)=긴키대 6-2 기업은행 ▲8차전(8월 1일 서울)=긴키대 상업은행 ▲9차전(8월 2일 서울)=긴키대 9-9 대학선발 ▲10차전(8월 2일 서울)=긴키대 2-3 제일은행</p>	
07.29	<p>■ 제22회 쌍룡기쟁탈 전국고교대회 부산야구협회 국제신보사 공동 주최로 7월 29일부터 전국 각 시도에서 16개 고교 팀(선린상, 경남상, 대구상, 배문, 중앙, 마산상, 대전, 부산, 부산상, 인천, 경북, 배명, 성남, 동산, 군산상, 경남고)이 출전한 가운데 구덕구장에서 개최, 8월 3일 끝난 결승전에서 경북고가 부산고를 2-0으로 물리치고 우승 ▲준결승전=부산고 3-2 배문고, 경북고 6-0 성남고 ▲결승전=경북고 2-0 부산고 ◇개인상 ▲최우수선수상=남우식(경북고 투수) ▲최우수포수상=박용훈(경북고 포수) ▲감투상=김정수(金貞洙 부산고 투수) ▲타격상=①김보연(경북고 1루수 .536) ②신중국(부산고 중견수 .417), 함상윤(배문고 3루수 .417) ▲미기상=홍일룡(洪一龍 부산고 1루수) ▲홈런상=김보연(경북고 1루수) ▲감독상=박창룡(경북고 감독) △경북고=제4회 대통령배쟁탈 전국고교대회 참조 △부산고=감독 김계훈 및 신중국(중견수), 유창준(2루수), 조두복(曹斗腹 유격수), 정동건(우익수), 홍일룡(1루수), 김규식(金奎植 3루수), 장세훈(張世勳 좌익수), 주성노(투수겸 좌익수), 김정수(좌익수겸 투수), 심재원(沈載元 포수)</p>	 <p>제22회 전국고교대회에 출전한 부산고 선수들이 응원석을 찾아 우승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고는 경북고에 밀려 준우승에 머물렀다.</p>
08.04	<p>■ 제16회 NBC배쟁탈 전국선수권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8월 4일부터 한국전력, 철도청, 제일은행, 한일은행, 상업은행, 농협, 기업은행, 육군, 해병대, 한양대 등 10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9월 9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기업은행이 한일은행을 5-4로 누르고 우승 ▲준결승전=한일은행 3-2 상업은행(연장 13회), 기업은행 4-1 제일은행 ▲결승전=기업은행 5-4 한일은행 ◇개인상 ▲우수선수상=한광홍(기업은행 투수) ▲우수투수상=한광홍(기업은행 투수) ▲수훈상=박준웅(기업은행) ▲타격상=이원녕(상업은행 .500) ▲미기상</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유백만(상업은행) ▲감독상=허호준(기업은행 감독) ▲대표자상=정우창(鄭遇昌 기업은행장)	
08.07	■ 유백만, 노히트노런(No Hit No Run)③ 8월 7일 상업은행 투수 유백만이 제16회 전국선수권 대회 이틀째 경기에서 농협을 5-0으로 꺾고 개인 통산 세번째 노히트노런을 달성	
08.09	■ 제13회 재일교포학생야구단 모국방문환영대회 대한야구협회 한국일보사 공동 초청로 8월 5일 하오 1시 일행 20명이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 8월 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등지를 순회하며 14차전을 치른 끝에 6승2무6패를 기록 ◇교포선수단 ▲단장=권영섭(재일협회장) ▲감독=한재우(재일협회 이사) ▲코치=안일성(安一成 재일협회 회원) ▲주무=김현성(金賢成) ▲투수=김기태(고노하나고), 김영규(金榮圭 오사카학원고), 유용남(劉勇男 덴리고) ▲포수=홍순을(洪淳乙 스케노공고), 안국웅(安國雄 오사카학원) ▲내야수=한이삼남(韓二三男 신코고), 김정국(金正國 기시와다고), 김현도(金玄道 기시와다고), 반정영(潘正永 오카야공고), 이증기(李鍾基 신코고) ▲외야수=백만수(白萬守 덴리고), 이만기(李萬基 덴리고), 박미근(朴米根 히로토시고), 박종률(朴鍾律 PL학원고), 손의규(孫義奎 히로토시고), 김정진(金整鎭 공예고), 김영찬(金泳讚 한국학원고) ▲1차전(8월 9일 서울)=재일교포 3-1 배재고 △배재고=감독 박용민 및 장재철(張在哲 1루수), 양효일(梁孝一 중견수), 이원행(李元宰 2루수), 정일기(丁日基 좌익수), 최성철(崔聖喆), 권오성(權吾聖 이상우익수), 윤흥기(尹興基 포수), 이화복(李和馥 유격수), 천재훈(千在薰 투수), 이위재(李偉宰 3루수) ▲2차전(8월 9일 서울)=재일교포 0-7 성남고 △성남고=감독 박점도 및 육강수(陸康洙 유격수), 전상순(3루수), 강진규(1루수), 김수철(포수), 노길상(투수), 차진성(車鎭成 2루수), 고병원(高炳遠 우익수), 이인식(李仁植 좌익수), 김인수(金寅洙 중견수) ▲3차전(8월 11일 서울)=재일교포 4-5 배명고 △배명고=감독 고재휘(高在徽) 및 이기룡(李起龍 2루수), 임영식(투수), 박양윤(朴陽潤 1루수), 김승호(金勝浩 3루수), 김정모(金正模 좌익수), 정윤덕(鄭允惠 유격수), 노상환(盧常煥 중견수), 박종환(朴鍾煥 우익수) ▲4차전(8월 11일 서울)=재일교포 1-1 중앙고 △중앙고=감독 이조영 및 구본수(2루수), 유승화(유격수), 윤몽룡(尹夢龍 투수), 이재형(우익수), 임건호(林建浩 중견수), 반원식, 홍재진(洪在鎭 이상 3루수), 정낙희(鄭樂喜), 박봉구(朴鳳九 이상 우익수), 김승수(金承洙 대타), 박종국(朴鍾國 포수), 안창원(1루수) ▲5차전(8월 12일 서울)=재일교포 3-0 선린상고 △선린상고=감독 유갑수(柳甲洙) 및 조원길(유격수), 조두현(曹斗鉉 좌익수), 남현일(南賢一 2루수), 임광	 <p>제13회 재일교포학생야구단 모국방문 환영대회를 앞두고 한국일보사가 발행한 대회 팸플릿 표지</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선(林光善 포수), 이해창(李海昌 중견수), 김귀태(金貴泰 우익수), 박태규(朴泰圭 1루수), 장운룡(張雲龍 3루수), 서중수(투수)</p> <p>▲6차전(8월 13일 서울)=재일교포 4-0 동대문상고 ▲7차전(8월 13일 서울)=재일교포 4-0 배문고 ▲8차전(8월 15일 서울)=재일교포 1-2 경북고 △경북고=감독 박창룡 및 천보성(유격수), 배대웅(2루수), 추경덕, 손상대(孫相大 이상 3루수), 김보연(1루수), 남우식(투수), 박용훈(포수), 정현발(우익수), 최광수(중견수), 김중대(1루수), 김철, 구영석(이상 우익수) ▲9차전(8월 16일 서울)=재일교포 3-7 대구상고 △대구상고=감독 서영무 및 도유성(유격수), 오명원(2루수), 김영현(우익수), 김종우(포수), 한성렬(韓星烈 1루수), 이종훈(중견수), 정기혁(투수), 윤재웅(尹載雄 좌익수), 황상진(3루수) ▲10차전(8월 16일 서울)=재일교포 6-2 서울선발 ▲11차전(8월 18일 인천)=재일교포 5-2 인천선발 ▲12차전(8월 20일 대구)=재일교포 1-2 경북고 ▲13차전(8월 21일 대구)=재일교포 1-1 대구상고 ▲14차전(8월 22일 부산)=재일교포 1-6 부산고</p>	 <p>정일권(丁一權) 국무총리가 재일교포학생 선수들을 총리 공관으로 초청, 격려하고 있다.</p> <p>■08.15 남산 1호 터널 개통 서울 도심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직결되는 남산 제1호 터널(필동-한남동) 1,530m(폭 7.88~10.8m)이 착공 517일 만에 개통, 통행료는 2륜차 30원, 3륜차와 승용차 60원, 버스와 트럭 90원, 특수차량 120원으로 한신부동산이 40년간 관리</p>
08.29	<p>■제1회 한·일고교대회 대한야구협회와 동아일보사가 일본 전국고교선수권대회 우승교 사가미(相模)고를 공동 초청, 8월 29일 서울운동장에서 한국대표 배문고와 첫 경기를 개최, 9월 1일 열린 3차전이 5회 강우 콜드 게임으로 처리되어 종합 전적 1승1무1패로 무승부 ▲1차전(8월 29일)=사가미고 5-0 배문고 ▲2차전(8월 30일)=사가미고 1-5 배문고 ▲3차전(9월 1일)=사가미고 0-0 배문고(5회 강우 콜드 게임) △사가미고=단장 사이키(佐伯), 임원 와타나베(渡邊), 감독 하라(原) 및 우에하라(上原 투수), 와카바야시(若林 포수), 와타나베(渡邊 1루수), 다나카(田中 2루수) 다나카(田中 3루수), 이지리(井尻 유격수), 오가와(小川 좌익수), 미요시(三好 중견수), 곤도(近藤 우익수), 고바야시(小林), 후쿠시마(福島), 오야기(大八木), 하기 와라(萩原), 모리(森), 다니이(谷井 이상 후보) △배문고=단장 조서희, 부장 이기영, 감독 박선오 및 백창현, 나해룡, 김정무(이상 투수), 예형수, 곽종환(郭鍾煥 이상 포수), 권성태, 나재선, 한형국, 함상윤(이상 내야수), 박재규, 정현석, 강경구(이상 외야수), 허민호(許民昊), 김종훈(金鍾勳), 신현석(辛鉉碩), 김민권(金珉權), 도중업, 유희협(柳熙협), 문의식(文義植), 송수경(宋秀京), 이갑중(李甲重 이상 후보)</p>	 <p>폭우 속에 벌어진 3차전. 자리를 뜰 줄 모르는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5회 0-0 강우 콜드 게임으로 경기를 마쳤다.</p>
09.08	<p>■대구중 일본 원정 한·일친선중학대회 재일대구중동창회 초청으로 9월 7일 대구지역 중학야구 사상 최초로 일본 규슈(九州)지방에 원정, 9월 8일부터 3일간 아리다(有田)중을 비롯해 규슈지방의 패자인 이마리(伊萬里)중과의 경기(7이닝)에서 3전 전승</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1차전(9월 8일)=대구중 2-1 아리다중 ▲2차전(9월 9일)=대구중 8-1 아리다선발 ▲3차전(9월 12일)=대구중 8-0 이마리중</p>	
09.17	<p>■ 한국리틀리그 창설 만 12살까지의 소년들이 출전하는 경식(硬式)야구연맹이 9월 17일 한국리틀리그(회장 이상구 李相龜 16개 팀)라는 명칭(가칭)으로 대한야구협회 가맹 경기단체로 정식 등록</p>	
09.19	<p>■ 가네후치(鐘淵)화학초청 한·일친선대회 대한야구협회 초청으로 일본 가네후치화학야구팀이 내한,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서울을 비롯해 전주, 대전, 대구, 부산 등지에서 국내 실업 팀과 9차전을 개최한 끝에 6승2무1패를 기록 △가네후치=타이가(大河 우익수겸 중견수), 나카무라(中村), 하시모토(橋本 이상 2루수), 마루노(丸野 중견수), 가타오카(片岡 1루수), 미즈다(水田 1루수겸 우익수), 미즈키(桑原 좌익수), 센카(千家), 데라오(寺尾), 다니와키(谷脇 이상 포수), 후쿠다(福田 우익수), 오카다(岡田 유격수), 스에나가(末永 3루수), 시로키(白木 3루수겸 투수), 미츠우치(光内), 마쓰시다(松下), 다니무라(谷村), 다니와키(谷脇), 마에다(前田), 이모토(井本 이상 투수) ▲1차전(9월 19일 서울)=가네후치화학 8-1 해병대 △해병대=장원순(1루수), 조윤식(유격수), 함응렬(중견수), 정동건(대타), 김태석(우익수), 이춘근(3루수), 김민태(우익수), 이희수, 우시형(이상 2루수), 하영발, 안윤종(이상 포수), 조흥기, 정순룡, 최남수, 윤희상(이상 투수) ▲2차전(9월 19일 서울)=가네후치화학 2-2 제일은행 △제일은행=한동화(2루수), 정동진(포수), 이재우(중견수), 김차열(우익수), 도중연(좌익수), 김광웅(1루수), 최영일(유격수), 박명도, 박준영(이상 투수) ▲3차전(9월 20일 서울)=가네후치화학 3-5 한국전력 △한국전력=강태정(2루수), 임상준(포수), 황성록(중견수), 박영길(좌익수), 최정상(1루수), 주창균(우익수), 전성욱(3루수), 이승엽(유격수), 강용수, 박동수(이상 투수) ▲4차전(9월 20일 서울)=가네후치화학 1-0 한일은행 △한일은행=권국용(중견수), 강문길(유격수), 강병철(3루수), 김응룡(1루수), 우용득(포수), 백기성(2루수), 최남수(좌익수), 김호중, 임신근(이상 투수), 강병구(姜炳求 대타), 정찬성(대타겸 좌익수), 김창고(우익수) ▲5차전(9월 22일 서울)=가네후치화학 1-0 육군 △육군=조창수(우익수), 김삼용(중견수), 박재영(유격수), 최창형(2루수), 최창우(좌익수), 박용진(3루수), 이영기(1루수), 임철수, 백대삼(이상 포수), 윤동복(투수) 최흥표(대타), 김명성(투수) ▲6차전(9월 24일 전주)=가네후치화학 1-1 농협 ▲</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7차전(9월 25일 대전)=가네후치화학 3-0 철도청 ▲8차전(9월 26일 대구)=가네후치화학 9-5 상업은행 ▲9차전(9월 27일 부산)=가네후치화학 5-2 기업은행	
09.21	■ 한국 고교야구 사상 27회 최장 연장전 제24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서울시에선 준결승 대광고-성남고전(서울운동장)에서 197명(대광 92, 성남 105명)의 타자들이 27이닝 동안 대광고 김광득(金光得 선발)-이동한(李東翰 8회 등판), 성남고 강진규(姜晉圭 선발)-노길상(盧吉相 9회 등판) 투수를 상대로 타구수 644구(대광 368, 성남 276구)를 기록하며 5시간 15분 동안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비겨 한국 고교야구 사상 최장 연장전 기록(한국기록 56년 8월 1일 대한연식야구협회 주최 제3회 대통령친서우승기쟁탈 전국중학연식야구선수권대회 부산남중-경동중전, 오후 1시 40분 경기 개시, 오후 8시 25분 경기 종료로 6시간 45분간 32이닝을 기록)	 <p>10월 2일 열린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성남고-대구상고의 결승전을 보기 위해 서울운동장 야구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p>
09.23	■ 제24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대한야구협회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9월 23일부터 전년도 우승 팀 선린상고를 비롯해 중앙, 성남, 배명, 대광, 경북, 대구상, 경남, 부산, 마산상, 대전, 세광, 군산상, 전주상, 인천, 동산고 등 16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2일 벌어진 최종 결승전에서 성남고가 6년 만에 패권 탈환 ▲승자 준결승=경남고 3-0 성남고, 대구상고 14-0 선린상고 ▲승자 결승전=대구상고 2-1 경남고 ▲패자 결승전=성남고 9-3 경남고 ▲결승전=성남고 4-1 대구상고 ▲최종 결승전=성남고 4-2 대구상고(연장 10회) ◇개인상 ▲최우수선수상=노길상(성남고 투수) ▲우수투수상=노길상(성남고) ▲최고수훈선수상=김수철(성남고 포수) ▲감투상=정기혁(대구상고 투수) ▲타격상=이성득(李成得 경남고 2루수 .421) ▲미기상=전상순(성남고 3루수) ▲지도상=박점도(성남고 감독) △성남고=감독 박점도 및 김수철(포수), 고병원(우익수), 전상순(3루수), 강진규(1루수), 노길상(투수), 차진성(2루수), 육강수(유격수), 이인식(좌익수), 김인수(중견수)	 <p>대구상고를 꺾고 우승을 차지한 성남고 선수들이 노길상 투수를 헝가래치고 있다.</p>
09.25	■ 노길상,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제24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야구쟁패전 준준결승전에서 성남고의 노길상(盧佳相)이 경북고를 상대로 무안타 무실점 끝에 1-0으로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기록	
10.06	■ 제51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대한체육회 주최로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경북고(경북), 한양대(서울), 한일은행(강원)이 우승 ▲고등부 준결승전=대전고(충남) 5-4 마산상고(경	■ 09. 형제가 양 리그에서 다승왕 등극 샌프란시스코의 게일로드 페리가 23승으로 내셔널리그에서, 그의 동생인 미네소타의 짐 페리는 24승으로 아메리칸리그에서 각각 최다승투수를 차지해 형제가 한 해에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남), 성남고(서울) 0-4 경북고(경북) ▲동 결승전=경북고(경북) 3-0 대전고(충남) ▲대학부 2회전=동아대(부산) 7-0(7회) 전남대(전남), 한양대(서울 기권 승) 0-X 춘천교대(강원) ▲동 결승전=한양대(서울) 2-0 동아대(부산) ▲일반부 준결승전=한일은행(강원) 1-0 상업은행(서울), 제일은행(경기) 5-4 한국전력 ▲동 결승전=한일은행(강원) 1-0 제일은행(경기)</p>	<p>양 리그에서 다승왕에 오르는 경사를 기록</p>
10.13	<p>■ 전국대학연맹전 추계리그 전국대학야구연맹 중앙일보사 공동 주최로 10월 13일부터 7일간 동아대, 한양대, 경희대, 동국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 6대학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19일 벌어진 최종일 경기에서 성균관대가 동국대를 5-0으로 격파하고 우승 ◇종합 순위=①성균관대(3승1무1패) ②경희대(3승2패) ③중앙대, 동아대, 한양대(이상 2승1무2패) ⑥동국대(1승4패) ◇개인상 ▲우수선수상=김영찬(성균관대 투수) ▲타격상=김성권(金星權 한양대 중견수 .500), 나유찬(한양대 투수 .500) ▲최다 홈런상=김흥채(金興采 동아대 2루수) △성균관대=코치 이수웅(李秀雄) 및 김정룡(金正龍 좌익수), 전변태(田邊太 대타), 배상홍(裴尙洪 좌익수), 배동철(裴東哲 유격수겸 투수), 한동수(2루수겸 유격수), 서광렬(중견수), 손영식(孫榮植 1루수), 이재원(李載元 2루수), 고재백(우익수), 김남일(金南一), 손인철(孫寅哲), 정우표(鄭佑杓 이상 포수), 조민기(趙玟冀 대주자), 이광선(李光善 3루수), 이규석(우익수겸 1루수), 김영찬(투수)</p>	
10.15	<p>■ 제17회 전국중학선수권대회 경북야구협회 주최로 10월 15일부터 전국에서 21개 중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대구종합운동장에서 개최, 10월 21일 열린 결승전에서 대구 대건중이 대전중을 1-0으로 제치고 대회 첫 우승 ▲준결승전=대전중 1-0 경북중, 대건중 4-0 선린중 ▲결승전=대건중 1-0 대전중 ◇개인상 ▲우수상=석주옥(대건중 투수) ▲감투상=박상열(대전중 투수) ▲타격상=이동수(경북중 투수) ▲미기상=김태수(대전중 유격수) ▲장려상=박재욱(경상중 1루수) ▲감독상=홍성덕(대건중 감독)</p>	<p>중앙대-동아대의 최종일 경기에서 7회초 중앙대의 스쿼즈 플레이 미스로 3, 본루간에서 협살 당하던 김기환(金起煥)이 홈을 지키던 동아대 투수 문영조(文英祚)의 낙구로 생환.</p> <p>■ 10.15 오리올스 월드시리즈 제패 볼티모어 오리올스가 10월 15일 열린 월드시리즈 5차전에서 신시내티 레즈를 9-3으로 물리치고 4승1패로 우승</p>
10.21	<p>■ 제4회 대통령기쟁탈 전국대학초청대회 1965년 제1회 대회 이후 5년 만에 대한일보사 주최로 10월 21일부터 6개 대학 팀(경희, 동국, 동아, 성균관, 중앙, 한양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29일 끝난 최종 결승전에서 경희대가 중앙대를 7-1로 격파하고 우승 ▲승자 결승전=경희대 4-3 성균관대 ▲패자 준결승</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전=중앙대 8-1 동아대 ▲패자 결승전=중앙대 3-1 성균관대 ▲결승전=중앙대 2-0 경희대 ▲최종 결승전=경희대 7-1 중앙대</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최주현(崔柱鉉 경희대 투수) ▲수훈상=허철(許鐵 경희대 포수) ▲감투상=노회학(盧會鶴 중앙대 투수) ▲타격상=양강석(梁康石 동아대 우익수), 김영찬(성균관대 투수), 윤희준(동국대 좌익수 이상 .500) ▲응원단상=한양대</p> <p>△경희대=감독 신인식 및 조완원(趙完元 2루수), 채금석(蔡錦錫 좌익수), 이웅재(李雄載 유격수), 최주현(투수), 허철(포수), 김영목(1루수겸 투수), 이창운(李昌雲 우익수), 장천기(3루수), 최영국(崔榮國 대타겸 3루수), 정인용(鄭麟溶 중견수)</p> <p>△중앙대=감독 김진영 및 박길성(朴吉成 2루수), 황동훈(우익수겸 투수), 조병택(투수), 김기환(3루수), 김원철(金元哲 1루수겸 포수), 박준건(좌익수), 한갑수(韓鉀洙 포수), 박상규(중견수), 박동호(朴東虎 유격수), 노회학(투수겸 우익수)</p>	
10.22	<p>■제5회 국회의장배쟁탈 전국6도시초청고교대회</p> <p>경북야구협회 매일신문사 공동 주최로 10월 22일부터 전국 6개 도시에서 10개 고교 팀(대광, 중앙, 인천, 군산상, 경남, 부산상, 대건, 경북, 대구상, 영남고)이 출전한 가운데 대구종합운동장에서 개최, 10월 26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경북고가 중앙고를 7-3으로 물리치고 우승</p> <p>▲준결승전=경북고 1-0 경남고(11회), 중앙고 3-1 대구상고 ▲결승전=경북고 7-3 중앙고</p> <p>◇개인상 ▲우수선수상=남우식(경북고 투수) ▲감투상=윤몽룡(중앙고 투수) ▲미기상=배대웅(경북고 2루수) ▲타격상=박종국(중앙고 포수) ▲홈런상=김종대 남우식, 김보연(이상 경북고) ▲감독상=박창룡(경북고 감독)</p>	<p>■11.02 요미우리 재팬시리즈 6연패</p> <p>10월 27일부터 일본 고라쿠엔(後樂園) 구장에서 열린 재팬시리즈 5차전에서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롯데를 6-2로 꺾고 4승1패로 우승, 재팬시리즈 6연패 달성</p>
10.31	<p>■서울시고교 추계리그</p> <p>서울시고교야구연맹 주최로 10월 31일부터 서울시 고교 1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1월 23일 끝난 최종 결승전에서 동대문상고와 성남고가 13회 연장전 끝에 0-0으로 비겨 공동 우승</p> <p>▲준결승전=동대문상 4-3 배명고, 성남고 4-2 장충고 ▲결승전=동대문상 0-0 성남고(연장 13회)</p> <p>◇개인상 ▲우수투수상=진종대(陳鍾大 동대문상 투수) 양한철(梁漢哲 성남고 투수) ▲타격상=박종환(朴鍾煥 배명고 .444) ▲최다 안타상=김유동(金裕東 동대문상 9개) ▲최다 타점상=전상순(全相純 9점) ▲홈런상=이홍범(李洪範 장충고), 명노평(明魯平 성동고), 김광득(金光得 대광고), 김종식(金宗植 성남고)</p>	
11.07	<p>■일본 프로야구 롯데초청 한·일친선대회</p> <p>대한야구협회가 일본 프로야구 패시픽리그 우승 팀 롯데 오리온스를 초청, 11월 7, 8일 이틀간 실업선발</p>	<p>■11.13 재단사 전태일 분신 자살</p> <p>11월 13일 낮 서울 청계6가 평화시장 거리에서 22살의 재단사 전태일이 '근로기</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과 서울운동장에서 3차전을 가진 끝에 롯데가 3전 전승을 기록 ▲1차전(11월 7일)=롯데 8-1 실업선발 ▲2차전(11월 8일)=롯데 5-3 실업선발 ▲3차전(11월 8일)=롯데 3-2 실업선발</p>	<p>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자살을 시도, 급히 병원에 옮겼으나 밤 10시 사망</p>
12.03	<p>■제13회 이영민 타격상 신중국(辛重國) 수상 대한야구협회가 제13회 이영민 타격상 수상자로 70년도 전국 5개 고교대회에서 평균 타율 .432를 기록한 부산고 중견수 신중국을 선정</p>	
12.27	<p>■대한연식야구협회·대한야구협회 통합 의결 12월 27일 대한연식야구협회(회장 임광정) 대의원 총회에서 대한야구협회(회장 김종락)와 통합을 의결한 뒤 대한체육회에 경기단체 해체 통보</p>	<p>■12.30 호남고속도로(대전~전주) 개통 호남고속도로 대전~전주구간(79.1km) 개통, 종전 2시간 20분에서 1시간에 주파</p>
1971. 01.24	<p>■대한고교야구연맹 발족 1월 24일 대한체육회 강당에서 25개 고교야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고교야구연맹 총회를 열고 조서희(배문고 교장)를 초대 회장으로 선임하고 임원을 다음과 같이 선출 ▲회장=조서희(배문고 교장) ▲부회장=김병문(金炳文 군산고 교장), 이수남(李壽南 경동고 교장), 나운향(羅雲鄉 경북고 교장) ▲이사=정신택(鄭信澤), 남주현(南周鉉), 원윤상(元潤常), 이기영(李基英), 김재복, 조경하(趙京夏), 이근기(李根基), 박현덕, 조종식, 이태희(李泰熙), 박종해(朴鍾海), 김기훈, 박상규, 김일배, 황우겸(黃祐謙) ▲감사=김창곡(金倉穀), 손만호(孫萬鎬)</p>	<p>■02.24 서독, 한국에 간호원 파독 요청 서독 정부가 오는 1974년까지 간호원 3,550명, 간호보조원 1만7,550명 등 모두 1만 7,550명의 의료요원을 파독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p>
01.31	<p>■통합 대한야구협회 출범 1월 31일 상오 10시 대한체육회 강당에서 대한야구협회·대한연식야구협회 통합 대의원 총회 개최, 회장으로 김종락(金鍾瑒)을 만장일치로 선임한 뒤 전형위원회에서 통합 야구협회 새 집행부 임원을 다음과 같이 선임 ▲회장=김종락(대한야구협회 회장) ▲부회장=임광정(林光廷 전 연식야구협회 회장), 최인철(동양맥주 부사장), 오탁근(吳鐸根 법무차관 전 야구협 부회장) ▲이사=이팔관(성균관대 감독), 김정환(유일체육상사 대표), 김계현(한국전력 감독), 송옥순(宋鈺淳 경남기업 상무이사), 박희영(전 연식야구협회 전무이사), 김영호(金榮鎬 철도청 경리국장), 홍사은(洪思殷 해병대 헌감차장), 김희두(金熙斗 육군 경리대장), 박승순(朴勝旬 한일은행 상무이사), 서덕인(徐德寅 상업은행 상무이사), 임광섭(任光燮 보이스카웃 회장), 박우식(朴雨植 농협 이사), 이수남(李壽南 경동고 교장) ▲감사=한태동(韓泰東), 박내용(朴來用)</p>	 <p>통합하기 전 연식야구협회 깃발</p>  <p>통합하기 전 대한야구협회 깃발</p>
03.20	<p>■서울시고교 춘계리그검 제5회 전국고교대회 서울시에선 서울시고교야구연맹 주최로 3월 20일부터 서울시 고</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교 16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A, B, C 3개조로 나누어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4월 3일 끝난 결승전에서 성남고가 충암고를 8-2로 물리치고 우승</p> <p>▲결승전=성남고 8-2 충암고 ▲3, 4위전=배문고 4-1 중앙고</p> <p>◇개인상 ▲우수상=양한철(성남고 투수) ▲감투상=정순명(鄭淳明 충암고 투수) ▲타격상=이규현(李揆玠 철도고 588) 최다안타상=육강수(陸康洙 성남고 11개) ▲최다타점상=고병원(高炳遠 성남고 9점)</p>	
03.25	<p>■정순명(鄭淳明), 고교야구 첫 21탈삼진</p> <p>3월 25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시고교야구연맹전 춘계리그 6일째 경기에서 A조의 충암고 투수 정순명이 청량공고를 상대로 고교야구 사상 최초로 탈삼진 21개를 기록(75년 6월 28일 철도고 이진우가 22개로 경신)</p>	
04.06	<p>■제21회 백호기쟁탈 전국군·실업야구쟁패전</p> <p>대한야구협회 경향신문사 공동 주최로 4월 6일부터 육군, 해병대, 한국전력, 철도청, 농협, 한일은행, 기업은행, 제일은행, 상업은행 등 9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4월 12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한국전력이 제일은행을 2-0으로 제치고 우승</p> <p>▲준결승전=한국전력 4-2 농협, 제일은행 2-0 한일은행 ▲결승전=한국전력 8-6 제일은행</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강태정(한전 2루수) ▲우수선수상=김명성(한전 투수) ▲타격상=강태정(한전) ▲감투상=김병우(제일은 투수) ▲미기상=김동률(제일은 유격수) ▲최고수훈상=전성욱(한전 유격수) ▲신인상=김종우(한전 포수)</p> <p>△한국전력=감독 김계현 및 황성록(黃性錄 중견수), 전성욱(유격수), 강태정(2루수), 박영길(좌익수), 최정상(1루수), 박순철, 최원태(이상 우익수), 김종우(포수), 최영철(崔榮哲), 한동수(韓東洙 이상 3루수), 이충순, 김명성(이상 투수)</p>	 <p>4월 12일 끝난 제21회 군·실업야구쟁패전 결승전에서 제일은행을 8-6으로 꺾고 우승한 한국전력의 주장 김상호가 백호기를 받아들고 있다.</p>
04.07	<p>■제1회 부산시장기쟁탈 전국대학대회</p> <p>부산야구협회 주최로 4월 7일부터 7개 대학 팀(경희, 고려, 동아, 성균관, 연세, 중앙, 한양대)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 구덕구장에서 개최, 4월 10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성균관대가 고려대를 5-2로 물리치고 우승(이후 대회 중단, 78년 6월 재개)</p> <p>▲준결승전=고려대 7-6 동아대, 성균관대 3-1 한양대 ▲결승전=고려대 2-5 성균관대</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영찬(성균관대 투수) ▲감투상=전이현(성균관대 3루수) ▲타격상=이종도(고려대 포수) ▲감독상=이팔관(성균관대 감독)</p> <p>△성균관대=감독 이팔관 및 배상홍(좌익수), 이광선(2루수), 손영식(1루수), 전이현(3루수), 김영찬(투수), 이규석(중견수), 최용성(포수), 이재원(유격수), 고재백(우익수)</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4.10	<p>■ 일본 네쓰가쿠(熱學)초청 한·일친선대회 대한야구협회 한국일보사 초청으로 4월 9일 부산에 도착, 4월 10일 부산에서 대학선발과 2차전을 가진 뒤 상경, 4월 14일부터 서울에서 국내 실업 팀들과 8차전을 개최한 뒤 4월 20일 열린 고별전에서 한국전력에 0-4로 패해 내한 전적 7승1무2패를 기록</p> <p>▲1차전(4월 10일 부산)=네쓰가쿠 4-2 대학선발 ▲2차전(4월 11일 부산)=네쓰가쿠 6-6 대학선발 ▲3차전(4월 14일 서울)=네쓰가쿠 1-0 해병대 ▲4차전(4월 15일 서울)=네쓰가쿠 3-1 철도청 ▲5차전(4월 15일 서울)=네쓰가쿠 5-3 농협 ▲6차전(4월 17일 서울)=네쓰가쿠 14-2 기업은행 ▲7차전(4월 17일 서울)=네쓰가쿠 3-1 제일은행</p> <p>▲8차전(4월 18일 서울)=네쓰가쿠 4-3 육군 ▲9차전(4월 18일 서울)=네쓰가쿠 1-4 한일은행 ▲10차전(4월 20일 서울)=네쓰가쿠 0-4 한국전력</p>	 <p>韓日親善野球競技 (일본네쓰가쿠 야구팀 초청)</p> <p>日時: '71. 4. 13 - 20 場所: 서울운동장 野球場 主催: 大韓野球協會 한국일보·日刊스포츠 -abc RADIO & TV</p> <p>일본 네쓰가쿠 초청 한·일친선대회를 앞두고 한국일보사가 발행한 대회 팸플릿</p>
04.16	<p>■ 제14회 전국4도시초청고교대회 부산야구협회 부산일보사 공동 주최로 4월 16일부터 전국에서 6개 고교 팀(성남, 인천, 경북, 대구상, 경남, 부산고)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개최, 4월 19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대구상고가 경북고를 3-1로 제치고 우승</p> <p>▲준결승전=경북고 9-0 인천고, 대구상고 4-3 부산고 ▲결승전=대구상고 3-1 경북고</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박경룡(朴慶龍 대구상고) ▲감투상=남우식(경북고) ▲미기상=석주옥(石柱玉 대구상고) ▲타격상=박경룡(대구상고 .556) ▲감독상=서영무(대구상고 감독)</p>	
04.21	<p>■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한국실업야구연맹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 4월 22일부터 페넨트 레이스(총 144경기, 팀당 32경기) 1차리그를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28일 끝난 4차리그에서 한일은행이 통산 20승2무10패로 대회 2연패</p> <p>◇종합 순위=①한일은행(20승2무10패, 승률 .656) ②상업은행(19승2무11패, 승률 .625) ③해병대(14승4무12패, 승률 .563) ④제일은행(15승4무13패, 승률 .531) ⑤농협(13승4무15패, 승률 .469) ⑥기업은행(14승2무16패, 승률 .469) ⑦육군(13승2무17패, 승률 .438) ⑧한국전력(13승1무18패, 승률 .422) ⑨철도청(10승1무21패, 승률 .328)</p> <p>◇개인상 ▲최우수감독상=김영덕(한일은행 감독) ▲우수감독상=장태영(상업은행 감독) ▲노히트노런상=김호중(한일은행 투수), 유백만(상업은행 투수) ▲최우수선수상=김호중(한일은행 투수) ▲최우수투수상=김호중(한일은행) ▲최고수훈선수상=김응룡(金應龍 한일은행 1루수) ▲신인상=이광환(한일은행 유격수) ▲BFC(야구팬클럽)상=하일(상업은행 유격수) ▲특별상=박승순(朴承琇 한일은행 단장) ▲공로상=주국보(朱國寶 한일은행 부장)</p>	 <p>71년 실업야구 페넨트레이스에서 상업은행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한 한일은행 팀에게 영예의 대통령배를 수여하고 있다.</p>  <p>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한일은행 선수들과 임원들.</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각 부문 랭킹 5 ▲최다승리투수=①김호중(한일은 17승4패) ②임신근(해병 13승5패) ③유백만(상업은 12승5패) ④김병우(제일은 11승8패) ⑤윤동복(육군 11승11패) ▲방어율우수투수=①김호중(한일은 0.67) ②임신근(해병 1.26) ③유백만(상업은 1.44) ④김윤겸(金允謙 상업은 1.67) ⑤윤동복(육군 1.72) ▲승률우수투수=①김호중(한은 .810) ②임신근(해병 .722) ③유백만(상업은 .706) ④이충순(한전 .625) ⑤김병우(제일은 .579)</p> <p>▲타격=①백대삼(상업은 .405) ②김응룡(한일은 .389) ③김우열(金宇烈 해병 .333) ④강태정(한전 .316) ⑤이광환(한일은 .305) ▲홈런=①황성록(한전 7) ②박영길(한전 5) ③김우열(해병) 박재영(상업은), 윤성재(尹聖宰 기업은), 이건웅(기업은), 최남수(崔南洙 한은 이상 4) ▲타점=①박영길(한전), 최남수(한일은 이상 18) ③최흥표(崔興杓 상업은 17) ④강태정(한전), 장원순(해병 이상 16) ▲출루율=①김응룡(한일은 .450) ②백대삼(상업은 .444) 김우열(해병 .444) ④한동화(제일은 .389) ⑤정진구(鄭鎭邱 육군 .387) ▲도루=①한동화(제일은 26) ②황성록(한전 17) ③하갑득(농협 13) ④최창형(崔昌滢 육군 12) ⑤박재영(상업은 11)</p>	
05.01	<p>■제1회 대통령기쟁탈 전국중학대회 대한야구협회 전남중고야구연맹 전남일보사 공동 주최로 5월 1일부터 전국 16개 중학 팀(조선대부속, 마산동, 군산, 선린, 대동, 경북, 춘천, 한밭, 군산남, 상인천, 대구, 토성, 배문, 충주, 대성, 동성중)이 출전한 가운데 광주공설운동장에서 개최, 5월 5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경북중과 경상중이 15회 연장전 끝에 일몰로 공동 우승</p> <p>▲준결승전=경상중 6-0 동성중, 경북중 1-0 마산동중 ▲결승전=경상중 0-0 경북중(15회)</p> <p>◇개인상 ▲우수상=이방우(李邦雨 경북중 투수) ▲감투상=이동수(李東秀 경상중 투수) ▲타격상=심상수(沈相洙 동성중 .500) ▲미기상=신승식(申勝湜 경북중 포수) ▲홈런상=김영수(동성중), 이창균(군산중) ▲감독상=김성진(경북중), 김충영(경상중)</p>	 <p>광주에서 열린 제1회 대통령기쟁탈 전국 중학대회 개최식 장면</p>
05.04	<p>■제5회 대통령배쟁탈 전국고교대회 대한야구협회 중앙일보·동양방송 공동 주최로 5월 4일부터 전국에서 18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5월 11일 열린 최종 결승전에서 경북고가 부산고를 1-0으로 누르고 우승</p> <p>▲승자 결승전=경북고 9-0 선린상고 ▲패자 준결승전=부산고 2-1 군산상고(연장 10회) ▲패자 결승전=부산고 14-1 선린상고 ▲최종 결승전=경북고 1-0 부산고</p> <p>◇개인상 ▲최우수상=남우식(경북고 투수) ▲감투상=김정수(부산고 투수) ▲타격상=정현발(경북고 중견</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수 .500) ▲미기상=나창기(羅昌起 군산상고 2루수) ▲훈련상=신현석(배문고 2루수), 김철(경북고 좌익수) ▲감독상=박창룡(朴昌龍 경북고 감독) ▲지도상=나운향(경북고 교장)</p> <p>△경북고=감독 박창룡 및 천보성(유격수), 배대웅(2루수), 김철(우익수), 구영석(대타) 정현발(중견수), 남우식(투수), 박용훈(포수), 추경덕(3루수), 최광수(좌익수), 손상대(1루수겸 포수), 김영세(金榮世 1루수)</p> <p>△부산고=감독 김계훈(金桂薰) 및 김기석(金基奭 중견수), 김명진(金明津 3루수), 김정수(투수겸 우익수), 유창준(俞昌濬 2루수), 주봉수(朱奉守 좌익수), 정태석(鄭泰錫 포수), 김일환(金一煥 투수겸 1루수), 김대업(金大業 우익수), 김량수(金亮銖 1루수), 전현동(全炫東), 김문희(金文熙 이상 유격수), 심재원(좌익수겸 포수), 이홍식(李洪植 좌익수)</p>	
05.04	<p>■ 이창희(李昌熙),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제5회 대통령배쟁탈 전국고교대회 첫 날(5월 4일) 세광고 투수 이창희가 대성고 28타자를 상대로 10회 연장전까지 탈삼진3, 볼넷3개만 허용한 끝에 2-0으로 이겨 대회 사상 첫 No Hit No Run 기록</p>	<p>준준결승 중앙고-군산상고전 4회말, 군산상고 2번 김성태(金聖泰)의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적시타로 1루와 2루에 있던 김용배(金容培), 나창기(羅昌起)가 사이좋게 홈인하고 있다</p>
05.12	<p>■ 제2회 조서희기쟁탈 전국국민학교대회 배문고교 주최로 5월 12일부터 전년도 우승 팀 대구 효성국교를 비롯해 전국에서 16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배문고 운동장에서 개최, 5월 17일 열린 결승전에서 대전 신흥국교가 부산 향도병설국교를 1-0으로 누르고 우승</p> <p>▲준결승전=신흥국 8-2 우암국, 향도병설 4-0 이문국 ▲결승전=신흥국 1-0 병설국</p>	
05.13	<p>■ 제5회 대통령기쟁탈 전국대학초청대회 대한일보사 주최로 5월 13일부터 9일간 동국, 경희, 한양, 동아, 고려, 연세, 성균관, 중앙대 등 8개 대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5월 21일 벌어진 최종 결승전에서 한양대가 고려대를 5-0으로 격파하고 우승</p> <p>▲승자 결승전=한양대 10-1 중앙대 ▲패자 결승전=고려대 7-4 중앙대 ▲결승전=고려대 5-4 한양대 ▲최종 결승전=한양대 5-0 고려대</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나유찬(한양대 투수) ▲감투상=노길상(盧吉相 고려대 투수) ▲수훈상=양형오(한양대 포수) ▲타격상=이종훈(한양대 중견수) 황동훈(중앙대 우익수 이상 .500) ▲응원단상=한양대, 고려대</p> <p>△한양대=송영철 박성수(이상 2루수), 이희춘(3루수), 김보연(우익수), 양형오(포수), 장성재(張成在 1루수), 김용진(金容震 대주), 박양윤(1루수), 권백행(좌익수), 이종훈(중견수), 김성권(대타), 이충무(유격수), 나유찬(투수), 김수철(대타), 정기혁(鄭基赫), 박영진(朴永眞</p>	<p>제5회 대통령기쟁탈 전국대학초청대회에 8개 대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개막식을 거행하고 있다.</p>  <p>대한일보사 김준연사장이 우승한 한양대에 우승기를 수여하고 있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이상 투수) △고려대=이강민(우익수), 조두복, 최남철(崔南哲 이 상 유격수), 홍춘기(좌익수), 허구연(2루수), 이종도(포 수), 이무중(중견수), 정을양(鄭乙陽 중견수겸 대주), 안창식, 사경만(이상 1루수), 김성환(金聖桓 대주겸 3 루수), 김승기(金勝起 1루수), 조성환, 이병재(李炳載 이상 3루수), 윤현묵, 노길상(이상 투수)</p>	
05.25	<p>■ 전국대학연맹전 1차리그 전국대학야구연맹 중앙일보사 공동 주최로 5월 25일 부터 7개 대학 팀(한양, 경희, 중앙, 연세, 고려, 성균 관, 동국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과 인천공설 운동장에서 1차리그를 개최, 6월 8일 끝난 마지막 경 기에서 한양대가 성균관대를 7-5로 눌러 6전 전승으 로 1차리그 우승 ◇종합 성적=①한양대(6승) ②경희대(3승2무1패) ③ 중앙대(3승1무2패) ④고려대(2승1무3패) ⑤연세대(2 승4패) 성균관대(1승2무3패) ⑦동국대(2승4패)</p>	
05.29	<p>■ 김호중(金昊中),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한일은행 투수 김호중이 인천공설운동장에서 벌어진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2차리그에서 기업은행 29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삼진 12개를 잡으며 볼 넷5, 실책1, 잔루3을 허용한 끝에 9-0으로 No Hit No Run기록</p>	
06.01	<p>■ 정기혁(鄭基赫), 대학 첫 Perfect Game수립 한양대 투수 정기혁이 전국대학야구연맹전 춘계리그 제8일째 경기에서 동국대 타자 27명을 상대로 공 91 개를 던져 삼진 5개를 잡은 끝에 4-0으로 대학야구 사상 첫 퍼펙트게임(Perfect Game, 완전경기) 수립</p>	
06.04	<p>■ 제26회 청룡기쟁탈 전국고교선수권대회 대한야구협회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6월 4일부터 전국 시도에서 12개 고교 팀(경남, 경북, 대구상, 마산 상, 광주상, 군산상, 대전, 세광, 춘천, 인천, 배재, 선 린상고)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토너먼트로 개최, 6월 9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경북고가 경남고를 1-0으로 누르고 우승 ▲승자 준결승전=대구상고 1-0 배재고, 경북고 2-1 경 남고(연장 11회) ▲패자 준결승전=경남고 2-1 배재고 ▲승자 결승전=경북고 3-1 대구상고 ▲패자 결승전= 경남고 6-2 대구상고 ▲결승전=경북고 1-0 경남고 ◇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성관(金成琯 경남고 투 수) ▲우수투수상=남우식(경북고 투수) ▲감투상=황 귀량(黃貴良 경남고 1루수) ▲타격상=정연식(鄭然植 선린상고 유격수 .500) ▲미기상=김철(경북고 좌익수) ▲홈런상=이해창(선린상고), 김성관(경남고 2개) ▲감 독상=서영무(경북고 감독) △경남고=감독 구상문 및 이성득(유격수), 배기용(裨</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基容 2루수), 박광용(朴宏庸 포수), 김성관(투수겸 우익수), 황귀량(1루수겸 우익수), 이영득(李永得 좌익수), 문상규(文相圭 중견수), 김현수(金賢壽 3루수), 소유남(邵有南 1루수)	
06.18	■ 제11회 문교부장관기쟁탈 전국4도시선발고교대회 경북야구협회 매일신문사 공동 주최로 6월 18일부터 배재, 동산, 부산, 경북, 대구상, 영남고 등 6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대구공설운동장에서 개최, 6월 20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경북고가 6-1로 동산고를 꺾고 우승 ▲준결승전=경북고 6-0 부산고, 동산고 5-4 배재고 (연장 11회) ▲결승전=경북고 6-1 동산고 ◇개인상 ▲우수선수상=남우식(경북고 투수) ▲감투상=최문준(崔文俊 동산고 투수) ▲미기상=김철문(金澈文 동산고 좌익수) ▲타격상=구영석(경북고 좌익수 .571) ▲감독상=서영무(경북고 감독)	
06.21	■ 유백만(俞百萬),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④ 상업은행 투수 유백만이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야구 연맹전 3차리그 11일째 경기에서 철도청 27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무안타 무실점 끝에 6-0으로 개인 통산 네번째, 실업야구 통산 11번째 노히트노런을 기록	
06.25	■ 제17회 NBC배쟁탈 전국선수권대회 겸 제9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출전 최종선발전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6월 25일부터 한일은행, 제일은행, 상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육군, 해병대, 한국전력, 철도청, 한양대, 경희대 등 11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7월 8일 벌어진 최종 결승전에서 한국전력이 3-1로 농협을 물리치고 우승 ▲승자 결승전=한국전력 1-0 농협(연장 24회) ▲패자 결승전=농협 1-0 제일은행 ▲결승전=한국전력 0-0 농협(연장 15회) ▲최종 결승전=한국전력 3-1 농협 ◇개인상 ▲우수선수상=강용수(한국전력 투수) ▲우수투수상=강용수 ▲감투상=김인복(金仁福 농협) ▲수훈상=황성록(黃性錄 한국전력) ▲미기상=홍창권(농협) ▲타격상=정진구(육군 .417) ▲Perfect Game(완전경기)상=김병우(제일은행) ▲감독상(김계현(한국전력 감독) ▲대표자상=심이섭(沈怡燮 한국전력 사장)	 <p>해병대-경희대의 패자전 6회초 해병 1루 주자 함응렬(咸應烈)이 후속 임상준(林相俊)의 안타로 2루에 진루하고 있다.</p>
07.03	■ 김병우(金秉宇), Perfect Game(완전경기) 수립 제일은행 투수 김병우가 제17회 전국선수권대회 패자 준결승전에서 철도청을 상대로 9이닝 동안 27타자에게 공 81구를 던져 삼진 2개를 잡으며 2-0으로 이겨 고순선(高順先), 김영덕(金永德)에 이어 실업야구 사상 3번째로 완전 경기(Perfect Game) 수립	
07.09	■ 제8회 실업야구 올스타전 한국실업야구연맹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7월 9일 올스타 1차전이 서울운동장에서 개막, 7월 12일 끝난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3차전에서 실업단이 금용단에 패해 통산 성적 2승1패로 우승</p> <p>▲1차전(통산 24차전 7월 9일)=실업단 3-1 금용단 ◇개인상 △최고수훈선수상=김우열(해병대) △승리투수상=임신근(해병대) △우수투수상=김병우(제일은) △타격상=강태정(한전 1.000) △감투상=강병철(한일은) △승리감독상=조해연(趙海衍 해병대 감독)</p> <p>▲2차전(통산 25차전 7월 11일)=금용단 1-2 실업단(연장 12회) ◇개인상 △최고수훈선수상=김우열(해병대) △승리투수상=이충순(한전) △우수투수상=이선덕(농협) △감투상=김인복(농협) △타격상=임칠수(한일은 1.000) △홈런상=이춘근, 김우열(이상 해병대) △승리감독상=김계현(한전 감독)</p> <p>▲3차전(통산 26차전 7월 12일)=실업단 2-3 금용단 ◇개인상 △최고수훈선수상=김응룡(한일은) △승리투수상=김윤겸(상은) △우수투수상=김병우(제일은) △감투상=황성록(한전) △타격상=이재우(제일은 .500) △미기상=김우열(해병) △홈런상=황성록(한전) △승리감독상=김영덕(한일은 감독)</p>	 <p>연장전 11회초 금용단의 한동화(韓東和 6번)가 강문길(姜文吉)의 투수 앞 땅볼에 홈인을 시도, 협살 직전 세이프.</p>
07.15	<p>■양한철(梁漢哲),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기록</p> <p>성남고 투수 양한철이 제11회 서울시고교연맹창립기념대회 결승리그 첫 경기에서 대광고 27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삼진 1개를 잡고 볼넷 3개 만을 허용한 끝에 3-0으로 No Hit No Run 기록</p>	
07.24	<p>■릿교(立敎)대학초청 한·일친선대회</p> <p>대학야구협회 초청으로 7월 23일 정오 KAL편으로 릿교대 야구단(일행 26명)이 내한, 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서울운동장에서 한국대표 청백 팀을 비롯해 대학 및 실업 팀과 10차전을 치른 끝에 4승1무5패를 기록</p> <p>▲1차전(7월 24일)=릿교대 1-0 경희대 ▲2차전(7월 24일)=릿교대 1-2 한국대표(청군) ▲3차전(7월 25일)=릿교대 4-4 농협 ▲4차전(7월 25일)=릿교대 3-4 한국대표(백군) ▲5차전(7월 27일)=릿교대 2-0 상업은행 ▲6차전(7월 27일)=릿교대 2-0 한양대 ▲7차전(7월 31일 서울)=릿교대 2-0 한국대표(백군) ▲8차전(8월 1일 서울)=릿교대 1-3 육군 ▲9차전(8월 1일)=릿교대 3-4 한국대표(청군) ▲10차전(8월 2일 서울)=릿교대 3-4 해병대</p>	
07.28	<p>■제23회 쌍룡기쟁탈 전국고교대회</p> <p>부산야구협회 국제신보사 공동 주최로 7월 28일부터 부산 구덕구장에서 개최, 8월 7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경북고가 부산상고를 6-1로 격파하고 우승</p> <p>▲승자 결승전=부산상고 2-0 경남고 ▲패자 결승전=경북고 4-1 경남고 ▲결승전=경북고 2-0 부산상고 ▲최종 결승전=경북고 6-1 부산상고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정현발(경북고) ▲우수투</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수상=황규봉(경북고) ▲우수포수상=박용훈(경북고) ▲감투상=최옥규(崔玉圭 부산상고) ▲타격상=①박 용훈(경북고 .474) ②정현발(경북고 .462) ▲미기상= 이중수(李忠錙 부산상고) ▲감독상=서영무(경북고 감 독) ▲지도상=배동원(부산상고 감독)	
08.03	■제14회 문교부장관기쟁탈 전국중학대회 강원야구협회 주최로 8월 3일부터 전국 12개 중학 팀 (군산남, 경상, 춘천, 광주 동성, 광주, 대신, 상인천, 마 산동, 선린, 청주남, 한밭, 배문중)이 출전한 가운데 4 개 조로 나누어 예선리그를 춘천공설운동장에서 개최, 8월 8일 4강(경상, 광주 동성, 선린, 상인천중)이 거른 토너먼트 결승전에서 경상중이 상인천중을 3-2로 누 르고 우승 ▲준결승전=경상중 8-0 광주 동성중, 상인천중 2-0 선린중 ▲결승전=경상중 3-2 상인천중 ◇개인상 ▲우수선수상=이동수(경상중 투수) ▲감투 상=박영문(상인천중) ▲타격상=손용범(선린중 .364) ▲미기상=정진호(丁震鎬 경상중) ▲장려상=춘천중 ▲감독상=김충영(경상중 감독)	
08.07	■제1회 봉황기쟁탈 전국고교대회 대한야구협회 한국일보사 공동 주최로 8월 7일부터 전국에서 37개 고교 팀(대광, 세광, 동산, 중앙, 대성, 부산, 배명, 춘천, 광주상, 중앙, 전주상, 전남, 경남상, 동대문상, 광주, 선린상, 경남, 휘문, 배재, 광주일, 대 구상, 장충, 성남, 부산상, 영남, 경동, 대전, 경기, 경 북, 철도, 인천, 군산상, 배문, 대건, 청량중, 성동, 미산 상고)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막, 8월 17 일 열린 결승전에서 경북고가 대광고를 1-0으로 꺾고 우승 ▲준결승전=대광고 3-0 중앙고, 경북고 3-1 대구상 고 ▲결승전=경북고 1-0 대광고 ◇개인상 ▲최우수선수상=남우식(경북고 투수) ▲감 투상=이동한(李東翰 대광고 투수) ▲수훈선수상=박 용훈(경북고 포수) ▲타격상=도유성(대구상고 중견수 .462) ▲최다 안타상=정현발(경북고 중견수 10안타) ▲최다 타점상=도유성(대구상고 5타점) ▲홈런상=도 유성(대구상고), 지원거(池源巨 성동고 2루수) ▲감독 상=서영무(경북고 감독) ▲공로상=전정득(全貞得 경 북협회장, 임승춘(林承春 고교연맹 경북회장) ▲장려 상=최관수(군산상고 감독) △경북고=제5회 대통령배쟁탈 전국고교대회 참조 △대광고=감독 선우중(鮮于鍾) 및 김정택(金定澤 중 견수), 김재박(金在博 2루수), 강일준(姜一俊 유격수), 백화룡(白和龍 포수), 김창수(金昌洙 3루수), 배장수 (裴壯洙), 이항구(李恒九 이상 우익수), 김광득(金光得 우익수겸 투수), 서승대(徐承大), 서수창(徐壽昌 이상 1루수), 이동한(투수겸 우익수)	<p data-bbox="970 1312 1474 1379">제1회 봉황기쟁탈 전국고교대회를 앞두고 한국일보사에서 발행한 대회 팸플릿</p>  <p data-bbox="970 1989 1474 2092">제1회 봉황기쟁탈 전국고교대회 개막경기에서 서상국(徐相國) 전 대한야구협회 회장이 시구를 했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8.27	<p>■ 전국대학연맹전 2차리그 전국대학야구연맹 중앙일보사 공동 주최로 8월 27일부터 8개 대학 팀(한양, 경희, 성균관, 연세, 고려, 동국, 중앙, 동아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9월 6일 열린 마지막 경기에서 한양대가 중앙대를 5-2로 물리치고 12승1무1패로 우승</p> <p>◇2차리그 성적=①고려대(6승1패) ②한양대(5승1무1패) ③동아대(5승2패) ④경희대, 중앙대, 동국대(이상 3승4패) ⑦연세대(2승1무4패) ⑧성균관대(7패)</p> <p>◇통산 성적=①한양대(12승1무1패) ②고려대(9승1무4패) ③경희대(6승4무4패) ④중앙대(7승1무6패) ⑤연세대(5승1무8패) ⑥동국대(4승2무8패) ⑦동아대(5승9패) ⑧성균관대(2승2무10패)</p> <p>◇개인상 ▲우수상=나유찬(한양대 투수) ▲타격상=①김보연(한양대 .375) ②양형오(한양대 .333) ③이무중(고려대 .326) ▲최다홈런상=양형오(한양대), 허구연(고려대 이상 2개)</p> <p>△한양대=송영철, 김종대(이상 2루수), 이충무(유격수) 김보연(우익수), 양형오(포수), 장성재, 박양윤(이상 1루수), 권백행(좌익수), 이종훈(중견수), 이희춘(3루수), 정기혁, 나유찬(이상 투수)</p>	<p>■08.23 실미도 특수대원 난동 실미도에서 훈련중이던 특수대원 24명이 무장 탈출, 서울로 침투하다 영등포구 대방동 유한양행 앞길에서 군경과 교전 끝에 14명은 자폭하고 4명은 피살, 6명은 부상을 입고 체포되어 압송</p> <p>■08.28 장발족 일제 단속 히피족 일제 소탕에 나선 서울시경은 관할 15개 경찰서 병력을 동원, 하룻밤 사이에 장발족 677명을 적발</p>
08.27	<p>■김영목(金永穆),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기록 경희대 투수 김영목이 전국대학연맹전 2차리그 첫 날 동아대 30타자를 상대로 볼넷 4개 만을 허용한 끝에 2-0으로 시즌 첫 노히트노런을 기록</p>	
09.09	<p>■ 제9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우승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9월 9일 오후 3시 저녁 출전한 호주를 비롯해 필리핀, 자유중국, 일본, 한국 등 5개국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더블리그로 개최, 9월 19일 벌어진 최종일 경기에서 한국이 일본을 8-3으로 꺾고 5승1무2패로 8년 만에 패권 탈환</p> <p>▲1차리그=한국 2-0 필리핀, 한국 0-0 자유중국, 한국 2-3 일본, 한국 4-5 호주 ▲2차리그=한국 5-1 필리핀, 한국 9-1 자유중국, 한국 4-0 호주, 한국 8-3 일본</p> <p>◇종합 순위=①한국(5승1무2패) ②일본(5승3패) ③필리핀(4승4패) ④호주(3승1무4패) ⑤ 자유중국(2무6패)</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박영길 ▲우수투수상=김호중 ▲타격상=박영길(.419) ▲홈런상=시마다(島田 일본) ▲감독상=김영조</p> <p>◇한국선수단 ▲단장=최인철(협회 부회장) ▲총무=장태영 ▲임원=허종만 ▲심판=모무열 ▲감독=김영조, 코치=김영덕 및 한동화, 강태정(이상 2루수), 하일(유격수), 황성록(중견수), 최주현(崔柱鉉 중견수겸 대타), 박영길(좌익수) 김응룡(1루수), 김우열(金宇烈 우익수), 하갑득(우익수겸 중견수), 강병철(3루수), 김동률(3루수겸 대타), 우용득(禹龍得), 정동진(이상 포수), 김인복, 유백만, 윤동복, 김명성.</p>	<div data-bbox="970 1243 1476 1444" data-label="Image"> </div> <p>제9회 아시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서울시내 곳곳에 걸려있는 대회 현수막</p> <div data-bbox="970 1541 1476 1975" data-label="Image"> </div> <p>박정희 대통령이 8년 만에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일본을 꺾고 우승을 차지한 선수단을 청와대로 초청, 격려하고 있다.</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김호중, 강용수(이상 투수), 한광홍, 최재봉, 장원순, 최흥표(이상 후보)	
09.27	<p>■ 제25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대한야구협회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9월 27일부터 성남, 배문, 선린상, 중앙, 철도, 동산, 인천, 춘천, 세광, 대전, 군산상, 경북, 대건, 전남, 마산상, 경남고, 경남상고 등 17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6일 벌어진 최종 결승전에서 경북고가 중앙고를 6-0으로 격파하고 우승</p> <p>▲승자 준결승전=중앙고 4-1 경남상고, 경북고 5-3 선린상고(연장 10회) ▲패자 준결승전=선린상고 9-0 경남상고 ▲승자 결승전=중앙고 2-1 경북고 ▲패자 결승전=경북고 4-0 선린상고 ▲결승전=경북고 4-1 중앙고 ▲최종 결승전=경북고 6-0 중앙고</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정현발(경북고 중견수) ▲우수투수상=남우식(경북고 투수) ▲타격상=정현발(경북고 중견수 .417) ▲감투상=윤몽룡(중앙고 투수) ▲수훈상=한경수(韓慶洙 중앙고 좌익수) ▲미기상=배대웅(경북고 2루수) ▲지도상=서영무(경북고 감독)</p>	<p>■ 09.30 관중 난동으로 경기 취소 워싱턴 새너터스가 텍사스로 이전한다는 발표가 있자 성난 팬들이 마지막 홈경기에서 그라운드로 난입, 경기가 취소되는 불상사 발생</p>  <p>제25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경북고 선수들에게 동아일보 김상만(金相萬) 사장이 황금사자기와 우승 배를 건네고 있다.</p>  <p>제26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에서 극적인 역전 승으로 우승을 차지한 군산상고 선수들이 최관수(崔寬洙) 감독을 행가래치고 있다.</p> <p>■ 10.17 피츠버그 월드시리즈 우승 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월드시리즈 7차전에서 2-1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4승3패로 11년 만에 정상 정복</p>
10.08	<p>■ 제52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대한체육회 주최로 10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군산상고(전북), 한양대(서울)와 동아대(부산), 한일은행(강원)이 각각 우승</p> <p>▲고등부 준결승전=배재고(서울) 6-1 경북고(경북), 마산상고(경남) 2-8 군산상고(전북) ▲동 결승전=군산상고(전북) 1-0 배재고(서울)</p> <p>▲대학부 준결승전=전남대(전남) 0-13(5회) 한양대9 서울, 영생대(전북) 0-10(6회) 동아대(부산) ▲동 결승전=한양대(서울) 1-1 동아대(부산) 공동 우승</p> <p>▲일반부 준결승전=해병대(경남) 0-2 한일은행(강원), 한국전력(부산) 5-0 제일은행(경기) ▲동 결승전=한일은행(강원) 5-4 한국전력(부산)</p>	
10.16	<p>■ 제6회 국회의장배쟁탈 전국6도시초청고교대회 경북야구협회 매일신문사 공동 주최로 10월 16일부터 전국 6개 도시에서 9개 고교 팀(배문, 성남, 인천, 대전, 군산상, 부산상, 대건, 대구상, 영남고)이 출전한 가운데 대구종합운동장에서 개최, 10월 19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배문고가 인천고를 3-1로 누르고 우승</p> <p>▲준결승전=인천고 5-1 군산상고, 배문고 1-0 경북고 ▲결승전=배문고 3-1 인천고</p> <p>◇개인상 ▲우수선수상=김정무(배문고 투수) ▲감투상=조창만(曹昌萬 인천고 투수) ▲미기상=임광주(林光柱 인천고 포수) ▲타격상=조흥운(趙興雲 인천고 유격수 .625) ▲감독상=박선오(배문고 감독)</p> <p>△배문고=감독 박선오 및 나재선(3루수), 한형국(유격수), 신현석(2루수), 예형수(포수), 나해룡(우익수겸 투수), 김정무(투수겸 우익수), 권성태, 최정우(崔正雨 이</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상 1루수, 허민호(중견수), 도중업, 유희협(이상 좌익수)	
10.20	■ 건국대 야구부 창설 10월 20일 건국대가 건대운동장에서 야구부 창단식을 갖고 정식 출범 ▲단장=한성균(韓成均) ▲부장=이방석(李邦錫) ▲감독=김동업 ▲선수=나해룡(배문고), 박공용(朴宏庸), 장덕필(張德必 이상 경남고), 안대룡(安大龍 전주상고), 김기석(金基奭), 유창준(俞昌濬 이상 부산고)	
10.23	■ 제18회 전국중학선수권대회 경북야구협회 한국일보 경북지사 공동 주최로 10월 23일부터 16개 중학 팀(중앙, 마산동, 대구, 한밭, 경북, 상인천, 영남, 대신, 남대문, 대건, 광운, 배문, 경상, 경구, 대전중)이 출전한 가운데 대구시민운동장에서 개최, 10월 27일 끝난 결승전에서 경상중이 마산동중을 4-1로 물리치고 우승 ▲준결승전=마산동중 1-0 한밭중, 경상중 5-0 상인천중 ▲결승전=경상중 4-1 마산동중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이동수(李東秀 경상중) ▲우수선수상=장정호(張正好 경상중) ▲감투상=배경환(裴景煥 마산동중) ▲타격상=김재선(상인천중) ▲미기상=김성규(경상중) ▲감독상=김충영(경상중 감독)	
10.29	■ 제1회 회장기쟁탈 전국국민학교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10월 29일부터 전국에서 국민학교 11개 팀(서울 봉천, 서울 이문, 흥천 화계, 광주 서림, 인천 신흥, 부산 대연, 대전 신흥, 군산남, 경북 영덕, 마산 월포, 청주 석교)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과 장충구장에서 개최, 11월 1일 장충구장에서 벌어진 결승전에서 서울 이문국교가 서울 봉천국교를 3-1로 물리치고 우승 ▲준결승전=봉천국 3-1 신흥국(9회), 이문국 2-1 신흥국 ▲결승전=이문국 3-1 봉천국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예종화(이문) ▲감투상=윤여원(봉천) ▲타격상=송석창(신흥 .750) ▲미기상=최광명(이문)	
11.03	■ 서울시고교 추계리그 서울시고교야구연맹 주최로 11월 3일부터 서울시 고교 16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1월 15일 열린 결승리그 최종일 경기에서 배명고가 배재고를 2-1로 누르고 2승1무로 우승 ◇결승리그 순위=①배명고(2승1무) ②휘문고(1승1무1패) ③철도고 3무) ④배재고 1무2패) ◇개인상 ▲우수선수상=김용운(金容允 배명 투수) ▲감투상=송범섭(宋範燮 휘문 투수) ▲타격상=김성렬(金成烈 배명 포수)	
11.05	■ 김정무(金正武),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기록 배문고 투수 김정무가 서울시고교추계리그 C조 중앙고전에서 30타자를 상대로 삼진3, 볼넷3, 잔루3을 허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용한 끝에 3-0으로 No Hit No Run을 기록	
11.11	<p>■ 한국고교선발 일본 원정 한·일친선고교대회 동아일보사가 황금사자기 우승 팀(경북고)을 주축으로 선발한 한국고교 팀이 일본에 원정,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규슈(九州)지방을 순회하며 6차전 가진 끝에 전승을 기록</p> <p>▲1차전(11월 11일 오노다구장)=한국선발 7-0 오노다(小野田)·우베(宇部)선발 ▲2차전(11월 12일 오다니구장)=한국선발 5-1 기타규슈(北九州)선발 ▲3차전(11월 13일 오이타구장)=한국선발 6-0 오이타(大分)선발 ▲4차전(11월 14일 미야자키구장)=한국선발 1-0 미야자키(宮崎)선발 ▲5차전(11월 16일 가고시마구장)=한국선발 4-0 가고시마(鹿兒島)선발 ▲6차전(11월 18일 후지시키다이구장)=한국선발 7-3 진사이(鎭西)선발</p> <p>◇한국고교선발 ▲감독=서영무(경북고 감독) ▲투수=남우식, 황규봉(이상 경북고), 김성관(경남고), 윤몽룡(중앙고) ▲포수=박용훈(경북고), 예형수(배문고) ▲내야수=손상대, 배대웅, 추경덕, 천보성(이상 경북고) 홍재진(중앙고), 전상순(성남고) ▲외야수=최광수, 김철, 정현발(이상 경북고), 임건호(중앙고)</p>	<p>■ 12.10 놀란 라이언 트레이드 뉴욕 메츠가 짐 프레고시를 영입하기 위해 놀란 라이언을 비롯해 4명의 선수를 캘리포니아 에인절스에 넘겨주는 트레이드를 단행</p> <p>■ 12.25 서울 대연각호텔 화재 서울 충무로1가에 있는 대연각호텔 2층 커피숍에서 화재가 발생, 22층 건물(객실 238실)이 모조리 타버리고 투숙객과 종업원 167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p>
12.15	<p>■ 제14회 이영민 타격상 정현발(鄭鉉發) 수상 대한야구협회가 이사회를 열고 제14회 이영민 타격상 수상자로 71년도 전국규모 5개 대회에서 평균 타율 .412를 기록한 경북고 중견수 정현발을 선정</p>	
1972. 01.26	<p>■ 한국국민학교야구연맹 발족 1월 26일 하오 한국국민학교야구연맹이 대한야구협회 회의실에서 전국 61개 국민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총회를 개최한 뒤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임</p> <p>▲회장=김종락(대한야구협회 회장) ▲부회장=송희택(宋熙澤 이문국 교장), 함신혁(咸臣赫 실업인), 이종문(李鍾文 중근당제약 전무이사) 외 1인(회장에게 일임)</p> <p>▲이사=이영구(李英求), 이신재, 이종천(李鍾千), 박희영, 박인필, 정두영(鄭斗永), 유재봉(俞在鳳), 여재근(呂載根), 이기흥, 이호갑(李浩甲) ▲감사=허상태(許相泰) 1명은 공석</p>	<p>■ 02.07 월남 파병부대 6년 만에 귀환 월남에 파병됐던 청룡부대 제1진이 6년 5개월 만에 부산으로 귀환</p>
03.19	<p>■ 서울시중·고교 춘계리그전 제6회 전국고교대회 서울시예선 서울시중고야구연맹 중앙일보사 공동 주최로 3월 19일부터 중학 11개 팀(경서, 성동, 장충, 선린, 남대문, 성남, 광운, 배문, 한영, 배명, 동대문중), 고교 17개 팀(휘문, 배재, 총암, 장충, 청량, 경동, 철도, 동대문, 성동, 배문, 선린, 대광, 성남, 배명, 경기상, 한영, 중앙고)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과 배문고 운동장에서 개최, 4월 11일 끝난 결승전에서 총암고가 성남고를 5-2로 제치고 우승</p>	<p>■ 03. 세인트루이스 스티브 칼튼 추방 세인트루이스가 시즌을 앞두고 꼴찌 팀 필라델피아에서 릭 와이즈를 영입하기 위해 메이저리그 8년생 스티브 칼튼과 트레이드</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개인상 ▲우수상=정순명(충암고 투수) ▲감투상=권혁기(權赫基 성남고 투수) ▲타격상=이규현(철도고 포수 .435) ▲타점상=정순명(충암고 투수 10점) ▲최다 안타상=김봉기(金奉起 휘문고 중견수 11개) ▲완전경기(Perfect Game)상=송범섭(宋範燮 휘문고 투수)</p>	
03.27	<p>■ 송범섭(宋範燮), Perfect Game(완전경기) 수립 휘문고 투수 송범섭이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시교촌계연맹전경 제6회 대통령배 전국고교대회 서울시예선에서 경동고 27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공 92개를 던져 삼진 13개를 잡으며 5-0으로 국내 고교 사상 3번째 Perfect Game 수립</p>	
04.05	<p>■ 제22회 백호기쟁탈 전국군·실업쟁패전 대한야구협회 경향신문사 공동 주최로 4월 5일부터 9개 팀(한국전력, 한일은행, 제일은행, 기업은행, 상업은행, 농협, 철도청, 육군, 해병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4월 9일 끝난 결승리그 최종일 경기에서 한일은행이 한국전력을 4-3으로 누르고 3전 전승으로 우승 ◇결승리그 순위=①한일은행(3승) ②한국전력, 해병대(이상 1승1무1패) ④농협(1승2패) ◇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호중(한일은행 투수) ▲우수선수상=김종우(한국전력 포수) ▲감투상=임신근(해병대 투수) ▲타격상=우용득(해병대 포수 .625) ▲타점상=김종우(한국전력) ▲미기상=이희수(해병대 2루수) ▲신인상=박노국(한일은행 중견수) ▲감독상=김영덕(한일은행 감독) △한일은행=감독 김영덕 및 최남수(좌익수), 정동건 최창우(이상 우익수), 권국용(중견수), 박노국(중견수 겸 우익수), 김응룡(1루수), 강병철(3루수), 임철수(포수), 강병구, 송정태(宋貞泰 이상 2루수), 우시형(유격수), 김호중, 주성노, 이종만, 박형돌(朴亨瓚 이상 투수)</p>	<p>■ 04.01 메이저리거 13일간 첫 파업 메이저리거들이 구단주들의 횡포에 맞서 메이저리그 사상 첫 파업에 돌입</p>  <p>제22회 백호기쟁탈 전국군실업쟁패전에서 6년 만에 패권을 차지한 한일은행 선수들</p>
04.16	<p>■ 일본 규슈6대학선발초청 한·일친선대학대회 대한야구협회 초청으로 4월 15일 내한,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국내 대학 및 실업 팀과 9차전을 가진 끝에 5승4무를 기록 ▲1차전(4월 16일 서울)=규슈선발 1-1 한양대 ▲2차전(4월 17일 서울)=규슈선발 3-1 고려대 ▲3차전(4월 18일 서울)=규슈선발 12-0 대학연합(연대, 중대, 경희대) ▲4차전(4월 18일 서울)=규슈선발 3-3 제일은행 ▲5차전(4월 20일 서울)=규슈선발 11-2 대학연합(건대, 동국대, 성대) ▲6차전(4월 20일 서울)=규슈선발 2-2 상업은행 ▲7차전(4월 22일 서울)=규슈선발 4-3 대학선발 ▲8차전(4월 23일 서울)=규슈선발 3-2 철도청 ▲9차전(4월 23일 서울)=규슈선발 2-2 대학선발</p>	<p>■ 04.19 대한항공 태평양 노선 첫 취항 4월 19일 하오 5시 대한항공(KAL) 707기가 승객 148명을 태우고 서울-도쿄-호놀룰루-로스앤젤레스를 잇는 태평양 횡단 노선에 첫 취항</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4.16	<p>■ 일본 고니시(小西)주조초청 한·일친선실업대회 대한야구협회 초청으로 4월 15일 일본 사회인야구 고니시주조 팀이 내한,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서울을 비롯해 대구와 부산에서 국내 대학 및 실업 팀들과 8차전을 가진 끝에 3승3무2패를 기록</p> <p>▲1차전(4월 16일 서울)=고니시 5-3 한일은행 ▲2차전(4월 17일 서울)=고니시 5-1 해병대 ▲3차전(4월 19일 대구)=고니시 3-3 한양대 ▲4차전(4월 19일 대구)=고니시 2-8 육군 ▲5차전(4월 20일 부산)=고니시 3-4 동아대 ▲6차전(4월 20일 부산)=고니시 7-7 기업은행 ▲7차전(4월 22일 서울)=고니시 1-0 농협 ▲8차전(4월 23일 서울)=고니시 3-3 한국전력</p>	
04.25	<p>■ 제6회 대통령배쟁탈 전국고교대회, 경북고 3연패 대한야구협회 중앙일보·동양방송 공동 주최로 4월 25일부터 충암고, 성남고, 철도고, 배문고, 경남고, 부산고, 경북고, 대건고, 대구상고, 마산상고, 군산상고, 광주일고, 대전고, 세광고, 인천고, 춘천일고 등 전국에서 16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토너먼트로 개최, 5월 1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경북고가 충암고를 8-0으로 격파하고 대회 3연패, 영예의 대통령배 영구 보관</p> <p>▲준결승전=충암고 1-0 철도고, 경북고 6-0 경남고 ▲결승전=경북고 8-0 충암고</p> <p>◇개인상 ▲우수상=구영석(경북고 3루수) ▲우수투수상=황규봉(경북고 투수) ▲감투상=정순명(충암고 투수) ▲미기상=정구왕(鄭邱旺 경북고 중견수) ▲타격상=황태환(黃泰煥 철도고 투수 .500) ▲홈런상=이춘태(李春泰 철도고 1루수) 구영석(경북고 3루수) ▲감독상=서영무(경북고 감독) ▲지도상=나운항(경북고 교장) ▲장려상=광주일고</p> <p>△경북고=감독 서영무 및 정구왕(중견수) 이선희(李善熙 투수겸 1루수), 함학수(咸學洙 유격수), 구영석(3루수), 박찬(朴燦 좌익수), 황규봉(우익수겸 투수), 김명준(金明俊 2루수), 권희수(權喜洙 포수), 노윤석(盧允錫), 서정환(徐定煥 이상 우익수), 변대창(1루수) △충암고=감독 오윤환 및 김왕배(金王培), 임춘한(林春漢 이상 우익수), 염필호(廉弼浩), 박종권(朴鍾權), 김태수(金泰洙 이상 2루수), 권기채(權基采), 이관희(李寬熙 이상 1루수), 김태호(金太鎬 대타), 윤주일(尹柱日 중견수), 정순명(투수), 강덕환(姜德煥 좌익수), 임원식(任元植 유격수), 김민권(金敏權 3루수), 김준영(金峻永 대타겸 3루수), 홍창수(洪昌秀 포수)</p>	<div data-bbox="970 676 1295 1111" data-label="Image"> </div> <p>중앙일보사가 제6회 전국고교대회를 앞두고 대회 2연패한 경북고 선수를 모델로 제작한 팸플릿 표지</p> <div data-bbox="970 1249 1474 1751" data-label="Image"> </div> <p>제6회 대통령배쟁탈 전국고교대회 우승기와 각종 개인상 트로피들이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다.</p>
05.02	<p>■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한국실업야구연맹 주최로 5월 2일부터 9개 실업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1일 해병대가 4차례에 걸쳐 144경기(팀 당 32경기)를 소화한 끝에 20승5무7패로 우승</p>	<p>■ 05.02 이후락 중정부장 북한 방문 이후락(李厚洛) 중앙정보부장이 극비리에 북한을 방문, 북한노동당 조직지도부장 김영주(金英柱)와 회담</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종합 순위=①해병대(20승5무7패) ②상업은행(17승5무10패) ③한일은행(18승2무12패) ④한국전력, 제일은행(이상 16승2무14패) ⑥육군(14승2무16패) ⑦기업은행(13승3무16패) ⑧농협(10승7무15패) ⑨철도청(5승2무25패)</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황성록(한국전력 중견수) ▲최고수훈선수상=임신근(해병 투수) ▲타격상=박해중(기업은 포수 .333) ▲최다홈런상=황성록(한국전력 중견수 7개) ▲최다타점상=황성록(한국전력 중견수 18점) ▲최다승리투수상=임신근(해병 투수 18승) ▲승률 우수투수상=임신근(해병 투수 .818) ▲방어율 우수투수상=김삼용(농협 투수 1.05) ▲최다출루상=박해중(기업은 포수 .404) ▲최다도루상=하갑득(농협 우익수 16개) ▲최우수신인상=최주현(기업은 중견수) ▲퍼펙트게임상=백창현(상업은 투수) ▲노히트노런상=한광홍(기업은 투수) ▲대회 700호 홈런상=강병철(한일은 3루수) ▲최우수감독상=조해연(趙海衍 해병 감독) ▲우수감독상=장태영(상업은 감독) ▲특별상=이병문(李丙文 해병대사령관) ▲공로상=심광섭(沈光燮 해병대야구부장)</p>	 <p>2차리그 마지막 날 열린 농협-해병대전. 7회초 농협 7번 박용훈이 투런 홈런을 날리고 홈인, 2-0으로 리드를 잡았으나 8, 9회에 따라잡혀 2-2 동점이 됐다.</p>
05.05	<p>■백창현(白昌鉉), Perfect Game(완전경기) 수립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3일째 경기에서 철도청 27타자를 상대로 공 83개를 던져 탈삼진3, 땅볼13, 내·외야 플라이 10, 파울 플라이 1개로 무안타, 무주자, 무실점으로 실업야구 사상 3번째 퍼펙트 게임 수립</p>	
05.12	<p>■제3회 조서희기쟁탈 전국국민학교대회 서울시중고야구연맹 배문고등학교 공동 주최로 5월 12일부터 16개 국민학교 팀(광주 중앙, 인천 신흥, 청주 우암, 서울 화계, 대구 수창, 서울 강남, 대전 신흥, 서울 유석, 효성, 청주 석교, 서울 효제, 강원 화계, 서울 이문, 삼랑진, 부산 향도, 대구)이 출전한 가운데 배문고 운동장에서 개최, 5월 17일 끝난 결승전에서 대전 신흥국교가 부산 향도국교를 1-0으로 누르고 우승 ▲준결승전=신흥국 1-0 우암국, 향도국 4-0 이문국 ▲결승전=신흥국 1-0 향도국</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종렬(대전 신흥) ▲감투상=허선동(부산 향도) ▲타격상=이명석(부산 향도 .455) ▲미기상=남정현(청주 우암) ▲장려상=예종현(서울 이문) ▲감독상=김기형(金基亨 신흥 감독) ▲지도상=최호태(崔鎬泰 신흥 교장)</p>	 <p>대통령기쟁탈 전국중학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경상중 주장이 우승기를 받아 들고 있다.</p>
05.16	<p>■제2회 대통령기쟁탈 전국중학대회 전남야구협회 전남일보사 공동 주최로 5월 16일부터 전국에서 16개 중학 팀(대전동, 군산남, 동인천, 대구, 동대문, 군산, 부산 대신, 춘천, 대건, 경상, 청주남, 선린, 광주 송의, 광주 동성, 전남, 조대부중)이 출전한 가운데 광주공설운동장에서 개최, 5월 20일 열린 결승전에서 경상중이 11회 연장전 끝에 대전동중</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을 1-0으로 제치고 우승 ▲준결승전=경상중 5-1 조대부중, 대전동중 1-0대구중 ▲결승전=경상중 1-0 대전동중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이동영(李東英 경상중 투수) ▲감투상=정선모(鄭善謨 대전동중 투수) ▲타격상=정국환(鄭國煥 조대부중 .500) ▲미기상=김기복(대전동중) ▲훈련상=이창균(李昌均 군산중), 홍희섭(洪熙燮 군산남중), 김원규(金元奎 대건중) ▲감독상=김충영(경상중 감독)</p>	
05.19	<p>■제3회 조서희기쟁탈 전국중학대회 서울시중고야구연맹 배문고등학교 공동 주최로 5월 19일부터 18개 중학 팀(한밭, 동두천, 춘천, 경동, 장충, 초량, 경상, 대구, 배문, 인천남, 경북, 대성, 상인천, 진해, 군산남, 남대문, 청주, 대신중)이 출전한 가운데 배문고 운동장에서 개최, 5월 25일 열릴 예정이던 결승전이 우천으로 취소, 경상중과 경북중이 공동 우승 ▲준결승전=경상중 1-0 대구중, 경북중 1-0 대성중 ▲결승전=경상중 (공동 우승) 경북중 ◇개인상 ▲우수선수상=이동수(경상중), 이방우(경북중) ▲미기상=김성규(경상중) ▲타격상=장효조(대구중 .500) ▲장려상=윤승구(대성중) ▲감독상=김충영(경상중, 김성진(경북중) ▲지도상=이학원(경상중 교장), 고봉설(경북중 교장)</p>	
05.20	<p>■전국대학연맹전 1차리그 전국대학야구연맹 중앙일보사 공동 주최로 5월 20일 고려대, 연세대, 동아대, 동국대, 중앙대, 경희대, 성균관대, 한양대, 건국대 등 9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2일 벌어진 1차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연세대가 신생 팀으로 첫 출전한 건국대에 1-4로 패했으나 종합 전적 5승3패로 우승 ◇종합 순위=①연세대(5승3패) ②동아대, 고려대, 경희대(4승1무3패) ⑤중앙대, 성균관대, 동국대, 한양대(3승2무3패) ⑨건국대(1승1무6패) △연세대=감독 배수찬 및 신중국(辛重國 좌익수), 김현도(金玄道 3루수), 박복룡(朴福龍 유격수), 윤학천(1루수), 전유섭(중견수), 강용준(姜龍峻), 이희문(李熙文 이상 포수), 이홍휘(李弘徽 우익수), 김홍곤(金鴻坤 대타), 윤세중, 박명남(朴明男 이상 우익수), 유남호(투수 겸 우익수), 양대철(梁大哲 투수), 차진성, 윤흥기(尹興基 이상 2루수), 한경수(韓慶洙 대타), 박종국(2루수)</p>	 <p>경희대-동국대전 4회말 2사후 9번 조두현(曹斗鉉)의 번트로 3루 주자 고병원(高炳遠)이 홈인했다.</p>
06.03	<p>■제27회 청룡기쟁탈 전국고교선수권대회 대한야구협회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6월 3일부터 전년도 우승 팀 경북고를 비롯해 17개 고교 팀(광주상, 춘천, 철도, 부산, 동대문상, 세광, 군산상, 대건, 배문, 대전, 대구상, 인천, 중앙, 마산상, 경남, 전남고)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8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중앙고가 경북고를 4-1로 꺾고 대회 첫 우승</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준결승전=경북고 1-0 동대문상고, 중앙고 3-1 대전고 ▲결승전=중앙고 4-1 경북고</p> <p>◇개인상 ▲우수선수상=홍재진(중앙 유격수) ▲우수투수상=윤몽룡(중앙 투수) ▲감투상=황규봉(경북 투수) ▲타격상=박상범(朴相範 대전 중견수) ▲미기상=김용일(金容一 마산상 우익수) ▲감독상=이조영(중앙 감독)</p> <p>△중앙고=감독 이조영 및 박종회(朴鍾會 3루수), 홍재진(유격수, 김승수(포수), 윤몽룡(투수), 박봉구(중견수), 선우영수(鮮于榮壽 1루수), 손원진(孫元鎭 좌익수), 김승수(金承洙 우익수), 김종수(金鍾洙 2루수)</p>	
06.16	<p>■제1회 전국스포츠소년대회 야구경기</p> <p>대한체육회 주최로 6월 16일부터 국민학교와 중학 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막, 6월 19일 끝난 야구부 결승전에서 창영국교(경기) 및 조대부중과 선린중이 공동 우승</p> <p>▲국교 준결승전=창영(경기) 1-0 회계(강원), 이문(서울) 1-0 대연(부산)</p> <p>▲동 결승전=창영(경기) 3-2 이문(서울)</p> <p>▲중학 준결승전=선린(서울) 5-1 상인천(경기), 조대부중(전남 추첨승) 1-1 대구(경북) ▲동 결승전=조대부중(전남) 0-0 선린(서울) 공동 우승</p>	<p>제27회 청룡기쟁탈 전국고교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강호 경북고를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한 중앙고 선수들.</p> 
06.24	<p>■제12회 문교부장관기쟁탈 전국4도시선발고교대회</p> <p>경북야구협회 매일신문사 공동 주최로 6월 24일부터 총암, 동산, 부산상, 경북, 대건, 대구상고 등 6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대구공설운동장에서 개최, 6월 28일 열린 결승전에서 대구상고가 3-1로 경북고를 물리치고 우승</p> <p>▲준결승전=경북고 8-1 동산고, 대구상고 3-2 총암고 ▲결승전=대구상고 3-1 경북고</p> <p>◇개인상 ▲우수선수상=이삼렬(李三烈 대구상 투수) ▲감투상=이선희(李善熙 경북고 투수) ▲미기상=서성제(徐聖濟 대구상 좌익수) ▲타격상=임원식(任元植 총암고 .667) ▲감독상=박창룡(朴昌龍 대구상 감독)</p>	<p>제1회 전국스포츠소년대회 입장식 열리고 있다.</p>
07.01	<p>■제9회 실업야구 올스타전</p> <p>한국실업야구연맹 주최로 7월 1일부터 3일간 금융단-실업단의 올스타전을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비로 연기된 끝에 7월 22일 열린 3차전(인천)에서 금융단이 5-3으로 실업단을 누르고 3전 전승으로 우승</p> <p>▲1차전(통산 27차전 7월 1일)=실업단 1-4 금융단</p> <p>◇개인상 △최고수훈선수상=한동화(제일은) △승리투수상=김호중(한일은) △우수투수상=이충순(한국전력) △타격상=한동화(제일은 .667) △감투상=조창수(육군) △훈련상=한동화(제일은) △승리감독상=김성근(기업은 투수)</p> <p>▲2차전(통산 28차전 7월 2일)=금융단 5-1 실업단</p> <p>◇개인상 △최고수훈선수상=김응룡(한일은) △승리</p>	<p>■07.04 남·북한공동성명 발표</p> <p>한국과 북한은 5월과 6월 서울과 평양에서 한국통일에 관한 비밀회담을 직접 갖고 조국의 통일을 외세의 간섭없이 평화적으로 실현키로 합의한 뒤 이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투수상=백창현(상업은) △우수투수상=김호중(한일은) △타격상=이원녕(상업은 .750) △감투상=김우열(제일은) △홈런상=김우열(제일은) △승리감독상=김영덕(한일은 감독)</p> <p>▲3차전(통산 29차전 인천 7월 22일)=실업단 3-5 금용단 ◇개인상 △최고수훈선수상=하갑득(농협) △승리투수상=김병우(제일은) △우수투수상=백창현(상업은) △감투상=최남수(한일은) △타격상=박용진(육군) △홈런상=조창수(육군) △승리감독상=김영덕(한일은 감독)</p>	
07.12	<p>■제26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대한야구협회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7월 12일부터 전국 10개 지역에서 18개 팀(성남, 대광, 철도, 충암, 경남, 부산, 마산상, 경북, 대건, 영남, 광주일, 송의중, 군산상, 대전, 세광, 인천, 동산, 춘천고)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7월 20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군산상고가 5-4로 부산고를 제치고 우승</p> <p>▲준결승전=부산고 4-2 마산상고, 군산상고 4-1 경남고 ▲결승전=군산상고 5-4 부산고</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양종수(楊宗秀 군산상고 포수) ▲우수투수상=송상복(宋相福 군산상고 투수) ▲감투상=편기철(片奇哲 부산고 투수) ▲타격상=주봉수(부산고 좌익수 .533) ▲미기상=김용일(金容一 마산상고 우익수) ▲수훈상=양기탁(梁基鐸 군산상고 중견수) ▲지도상=최관수(군산상고 감독)</p> <p>△군산상고=감독 최관수 및 김일권(金一權 유격수), 양기탁(중견수), 김준환(金準桓 2루수), 김봉연(金奉淵 1루수), 양종수(포수), 김우근(金宇根 좌익수), 조양연(趙洋衍 우익수), 정효영(鄭孝暎 3루수), 고병석(高炳錫 대타), 송상복(宋相福 투수)</p>	 <p>9회말 극적인 역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한 군산상고 주장 김준환(金準桓)이 김상만 대회장으로부터 우승의 상징인 황금사자를 받아 들고 있다.</p>
07.27	<p>■제24회 쌍룡기쟁탈 전국고교대회 부산야구협회 국제신보사 공동 주최로 7월 27일부터 전국에서 17개 고교 팀(부산, 대성, 광주일, 대광, 대건, 군산상, 세광, 경남상, 충암, 부산상, 영남, 경북, 철도, 마산상, 성남, 경남, 춘천고)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 구덕구장에서 개최, 8월 3일 열린 결승전에서 경북고가 대광고를 1-0으로 제치고 대회 3연패, 쌍룡기 영구 보관(제26회 대회부터 대회 명칭을 화랑기쟁탈 전국고교대회로 개명)</p> <p>▲준결승전=경북고 1-0 경남고, 대광고 3-2 충암고 ▲결승전=경북고 1-0 대광고</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황규봉(경북고) ▲최우수투수상=황규봉(경북고) ▲최우수포수상=권희수(權喜洙 경북고) ▲감투상=이동한(대광고) ▲타격상=①정순명(鄭淳明 충암고 .600) ②황규봉(경북고 .444) ▲미기상=김창수(金昌洙 대광고) ▲감독상=서영무(경북고 감독) ▲지도상=김홍식(金洪植 경북고 부장)</p>	 <p>경북고-대광고전 7회초 경북고 2번 이선희(李善熙)가 2루 스틸에 성공한 순간.</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7.29	<p>■ 긴키(近畿)대초청 한·일친선대회 대한야구협회 초청으로 긴키대야구단이 7월 27일 내한, 7월 29일부터 국내 대학및 실업팀과 10차례에 걸쳐 친선경기를 개최, 8월 6일 벌어진 고별전에서 긴키대가 상업은행을 2-0으로 꺾고 종합 전적 5승1무4패를 기록</p> <p>▲1차전(7월 29일 서울)=긴키대 3-4 대학선발 ▲2차전(7월 29일 서울)=긴키대 2-3 제일은행 ▲3차전(7월 30일 서울)=긴키대 3-2 대학선발 ▲4차전(7월 30일 서울)=긴키대 1-4 한일은행 ▲5차전(8월 1일 서울)=긴키대 3-2 육군 ▲6차전(8월 3일 부산)=긴키대 5-1 동아대 ▲7차전(8월 5일 서울)=긴키대-한국전력 ▲8차전(8월 5일 서울)=긴키대-해병대 ▲9차전(8월 6일 서울)=긴키대 0-0 한양대(7회) ▲10차전(8월 6일 서울)=긴키대 2-0 상업은행</p>	
07.29	<p>■ 제3회 세계리틀선수권대회 극동지역 예선대회 세계리틀야구연맹 주최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한국을 비롯해 자유중국(대만), 일본, 필리핀, 홍콩, 괌 등 6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괌에서 개최, 한국은 괌과 자유중국 등에 4패를 당해 1승4패로 5위</p>	
08.09	<p>■ 제2회 봉황기쟁탈 전국고교대회 대한야구협회 한국일보사 공동 주최로 8월 9일부터 재일교포를 비롯해 전국에서 41개 고교 팀(중앙, 대성, 경북, 인천, 한영, 군상상, 춘천일, 광주상, 동대문상, 장충, 전주상, 부산상, 충암, 전남, 경남, 휘문, 동산, 청량공, 배문, 경남, 성남, 경기상, 영남, 대전, 경동, 대광, 마산, 송의중, 마산상, 철도, 대건, 배재, 세광, 선린상, 부산, 성동, 춘천, 대구상, 광주일, 배명고)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8월 20일 끝난 결승전에서 배명고가 중앙고를 7-5로 물리치고 우승</p> <p>▲준결승전=중앙고 4-1 성남고, 배명고 2-1 대건고 ▲결승전=배명고 7-5 중앙고</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정남(金政男 배명고 투수) ▲감투상=윤몽룡(중앙고 투수) ▲수훈선수상=김용운(金容允 배명고 1루수) ▲타격상=송범섭(휘문고 투수 .556) ▲최다 안타상=김승수(중앙고 포수 11안타) 신영철(申永澈 배명고 좌익수 11안타) ▲최다 타점상=김승수(중앙고 7타점) 송한섭(宋漢燮 경기상고 중견수 7타점) ▲감독상=고재휘(배명고 감독) 이조영(중앙고 감독) ▲지도상=이명구(李明九 배명고 부장) 정신택(중앙고 부장) ▲공로상=조용구(趙鏞九 배명고 교장) ▲장려상=마산고 ▲응원상=성남고 △배명고=감독 고재휘 및 신영철(좌익수), 김성렬(金成烈 포수), 남태현(南台鉉 우익수), 김용운(1루수) 박종환(중견수), 하남섭(河男燮 유격수), 이신형(李信亨 3루수), 김정남(투수), 김중근(金重根 2루수)</p>	<div data-bbox="970 1048 1417 1339"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970 1348 1474 1415">한국일보사 주최 전국고교대회 우승 팀에게 주어진 우승의 상징 초록 봉황깃발</p> <div data-bbox="970 1473 1474 1863"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970 1872 1474 1984">제2회 봉황기쟁탈 고교대회 결승전에서 중앙고를 꺾고 우승한 배명고의 주장 김정남이 봉황기를 받아들고 있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8.10	<p>■강정일(姜正一),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마산고 1년생 투수 강정일이 제2회 봉황기쟁탈 전국고교대회 이틀째 경기에서 송의중고를 상대로 볼넷 3개만 허용한 뒤 1-0으로 노히트노런을 기록</p>	
08.15	<p>■한광홍(韓光弘),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기업은행 투수 한광홍이 전국실업연맹전 3차리그에서 한국전력 27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탈삼진 6개에, 볼넷만 2개를 허용한 끝에 No Hit No Run 기록</p>	
08.20	<p>■제18회 NBC배쟁탈 전국선수권대회겸 제20회 세계선수권대회 파견선수선발전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8월 20일부터 한국전력, 농협, 철도청, 해병대, 육군, 기업은행, 한일은행, 제일은행, 상업은행, 동아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연세대, 고려대 등 17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토너먼트로 개최, 8월 28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상업은행이 해병대를 2-1로 누르고 우승 ▲준결승전=상업은행 4-2 기업은행, 해병대 3-1 한국전력 ▲결승전=상업은행 2-1 해병대 ◇개인상 ▲우수선수상=최흥표(崔興杓 상업은행) ▲우수투수상=유백만(상업은행) ▲감투상=임신근(해병대) ▲수훈상=왕상균(王相均 상업은행) ▲미기상=장원순(해병대) ▲타격상=최흥표(.500) ▲감독상=장태영(상업은행 감독) ▲대표자상=김봉은(金奉殷 상업은행장)</p>	 <p>한국전력-농협전 7회초 한전 4번 박영길(朴永吉)이 1사후 솔로 홈런을 날린 뒤 동료들의 환영을 받으며 홈인하고 있다.</p>
08.24	<p>■제2회 회장기쟁탈 전국국민학교대회 한국국민학교야구연맹 주최로 8월 24일부터 전국에서 13개 국민학교 팀(청주 우암, 서울 봉천, 마산 월포, 대구 효성, 대전 자양, 광주 서림, 춘천 중앙, 서울 이문, 부산 대연, 전북 군산, 서울사대부국, 인천 신흥)이 출전한 가운데 장충소년구장에서 개최, 8월 29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서울사대부국과 부산 대연국교가 승부를 가리지 못해 공동 우승 ▲준결승전=서울사대부국 3-0 인천 신흥국, 대연국 2-0 우암국 ▲결승전=서울사대부국 0-0 대연국(공동 우승) ◇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정수(金貞洙 서울사대부국), 양상문(楊相汶 대연국교) ▲타격상=박철영(朴哲永 서울사대부국) ▲미기상=연요홍(우암국교)</p>	<p>■08.26 제20회 뮌헨올림픽대회 개막 8월 26일 하오 11시(한국시간) 한국을 비롯, 122개 국에서 1만3,0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독일 뮌헨에서 개막</p>
09.01	<p>■제2회 한·일고교대회 대한야구협회와 일본고교야구연맹이 한·일 고교올스타(일본은 고시엔대회 우승 팀을 주축으로 선발) 16명씩을 선발, 9월 1일부터 4일까지 서울운동장에서 3차전을 거행, 한국고교선발 팀이 3전 전패 ▲1차전(9월 1일)=일본선발 1-0 한국선발 ▲2차전(9월 3일)=일본선발 3-2 한국선발 ▲3차전(9월 4일)=일본선발 2-1 한국선발 ◇일본고교선발 ▲단장=사이키(佐伯 일본고교연맹</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회장 ▲부단장=아오키(靑木 동 이사) ▲총무=후지시로(藤城), 하마노(濱野) ▲감독=기시다(岸田 야나이 고 감독) ▲투수=미즈에(水江 쓰쿠미고), 스키모토(杉本 야나이 고), 마스나가(益永 고치상고) ▲포수=아다치(足立 쓰쿠미고), 오키다(沖田 고치상고) ▲내야수=사토(佐藤 靑) 마쓰요시(松好 이상 덴리고), 시오다(鹽田 야나이 고), 반토(坂東 쓰쿠미고), 오카모토(岡本 야나이 고), 야마우치(山内 쓰쿠미고) ▲외야수=요시지카(吉近 쓰쿠미고), 오카무라(岡村 야나이 고), 가타무라(北村 야나이 고), 신타니(新谷 덴리고), 미야자키(宮崎 고치상고)</p> <p>◇한국고교선발 ▲단장=최인철(협회 부회장) ▲섭외=이팔관(동 이사) ▲총무=남주현(동 이사) ▲감독=최관수(군산상 감독) 및 홍재진(유격수), 도영권(都榮權 중견수), 김봉연(좌익수), 윤몽룡(1루수), 김승수, 황귀양(黃貴洋 이상 포수), 정구왕, 주봉수(이상 우익수), 구영석(3루수), 이성득, 김준환(이상 2루수), 박상범(중견수), 정순명, 황규봉, 이선희(이상 투수), 김일권(대주)</p>	 <p>제2회 한·일고교대회에 일본고교선수단을 이끌고 온 사이키 일본고교연맹 회장이 김종필 국무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야구 발전기금을 전달</p>
09.05	<p>■ 전국대학연맹전 2차리그</p> <p>전국대학야구연맹 중앙일보사 공동 주최로 9월 5일부터 고려대가 불참한 가운데 연세대, 동아대, 동국대, 중앙대, 경희대, 성균관대, 한양대, 건국대 등 9개 팀이 서울운동장에서 2차리그를 개최, 9월 14일 벌어진 최종일 경기에서 한양대가 경희대를 4-2로 꺾고 종합 전적 10승3무3패로 대회 2연패</p> <p>◇종합 순위=①한양대(10승3무3패) ②중앙대(8승3무5패) ③경희대, 연세대(이상 8승1무7패) ⑤성균관대, 동아대(이상 7승2무7패) ⑦건국대(5승4무7패) ⑧동국대(5승3무8패) ⑨고려대(4승1무11패)</p> <p>△한양대=정현발(중견수겸 좌익수), 이희춘(3루수), 김보연(중견수겸 1루수), 양형오(우익수겸 포수), 이종무(유격수), 천보성, 박성수(이상 2루수), 이종훈(중견수), 권백행, 김창석(金昌錫 이상 좌익수), 박영진, 박양윤(이상 1루수), 손상대(포수), 남우식, 정기혁, 나유찬, 김정수(이상 투수)</p>	
09.03	<p>■ 제15회 문교부장관기쟁탈 전국중학초청대회</p> <p>전북야구협회 주최로 9월 3일부터 전국 16개 중학 팀(경상, 대전동, 동인천, 동대문, 군산남, 경북 중앙, 무등, 흥천, 배문, 조대부, 군산, 청주남, 성동, 대동, 선린, 포항중)이 출전한 가운데 전주공설운동장에서 개최, 9월 17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경상중과 선린중이 14회 연장전 끝에 1-1로 비긴 뒤 9월 18일 최종 결승전에서도 9이닝 동안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해 공동 우승</p> <p>▲준결승전=경상중 2-1 동대문중, 선린중 1-0 군산남중 ▲결승전=경상중 0-0 선린중</p> <p>◇개인상 ▲우수선수상=이창호(선린중), 이동영(경상중) ▲타격상=김철의(동인천중 .400) ▲미기상=이충</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일(동대문중) ▲장려상=김기문(군산남중) ▲감독상=송범섭(선린중 감독), 도성세(경상중 감독)</p>	
<p>09.15</p>	<p>■ 산교(三協)정기초청 한·일친선실업대회 대한야구협회 동아일보사 공동 초청으로 9월 13일 일본 산교정기(일행 25명)가 내한, 9월 15일부터 국내 실업 및 대학 팀들과 11차전을 개최, 9월 24일 고별전에서 한국전력에 2-4로 패해 내한 전적 8승2무1패를 기록 ▲1차전(9월 15일 서울)=산교정기 2-2 제일은행 ▲2차전(9월 15일 서울)=산교정기 3-3 기업은행 ▲3차전(9월 16일 서울)=산교정기 7-0 육군 ▲4차전(9월 17일 서울)=산교정기 5-1 농협 ▲5차전(9월 17일 서울)=산교정기 11-3 한일은행 ▲6차전(9월 19일 군산)=산교정기 11-4 기업은행 ▲7차전(9월 22일 서울)=산교정기 5-0 대학선발 ▲8차전(9월 22일 서울)=산교정기 9-0 해병대 ▲9차전(9월 23일 서울)=산교정기 11-0 상업은행 ▲10차전(9월 24일 서울)=산교정기 7-0 한양대 ▲11차전(9월 24일 서울)=산교정기 2-4 한국전력</p>	 <p>산교정기-제일은행의 1차전에 앞서 양측 감독들이 페넌트를 교환하고 있다. 왼쪽은 제일은행 박현식 감독.</p>
<p>09.18</p>	<p>■ 제6회 대통령기쟁탈 전국대학초청대회 대한일보사 주최로 9월 18일부터 4일간 건국, 동아, 성균관, 동국, 연세, 한양, 중앙, 고려, 경희대 등 9개 대학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9월 21일 열린 결승전에서 경희대가 한양대를 6-2로 꺾고 대회 첫 우승 ▲준결승전=경희대 2-0 연세대, 한양대 2-1 중앙대 ▲결승전=경희대 6-2 한양대 ◇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영목(경희 투수) ▲수훈선수상=최광수(崔光秀 경희 우익수) ▲감투상=양형오(한양 포수) ▲타격상=양한철(동국 투수 .714) ▲응원상=고려대 △경희대=감독 신인식 및 허철구(유격수), 채금석(좌익수), 이웅재(3루수), 강진규(1루수), 정인용(중견수), 김영목(투수), 장천기(2루수), 윤효실(尹孝實 포수), 최광수(우익수)</p>	 <p>제6회 대통령기쟁탈 전국대학초청대회 개막식 장면</p>
<p>09.23</p>	<p>■ 제7회 국회의장배쟁탈 전국6도시초청고교대회 경북야구협회 매일신문사 공동 주최로 9월 23일부터 전국 6개 도시에서 9개 고교 팀(배명, 배문, 중앙, 인천, 대전, 군산상, 부산상, 경북, 대구상고)이 출전한 가운데 대구종합운동장에서 개최, 9월 26일 열린 결승전에서 군산상고가 대전고를 4-1로 꺾고 우승 ▲준결승전=군산상고 4-3 경북고, 대전고 4-1 대구상고 ▲결승전=군산상고 4-1 대전고 ◇개인상 ▲우수선수상=김봉연(군산상고 투수) ▲감투상=이영국(李榮國 대전고 투수) ▲미기상=이은구(李殷龜 대전고 유격수) ▲타격상=정효영(군산상고 3루수 .444) ▲감독상=최관수(군산상고 감독) ▲지도</p>	<p>■ 09.19 내셔널리그 흑인 최초 심판 아트 윌리엄스가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LA 다저스-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야간경기에 3루심을 맡아 메이저리그 사상 최초의 흑인 심판이 된다.</p> <p>■ 09.30 홈런 없는 타격왕 또 탄생 미네소타의 로드 캐류가 1918년 자크 휘트 이래 처음으로 단 한 개의 홈런도 없이 타율 .318로 타격왕에 등극</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상=송경섭(宋經燮 군산상고 부장)	
10.06	■ 제53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대한체육회 주최로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군산상고(전북), 한양대(서울), 한국전력(부산)이 우승 ▲고등부 준결승전=대구상고(경북) 1-2 군산상고(전북), 인천고(경기) 1-4 경남고(부산) ▲동 결승전=군산상고(전북) 2-1 경남고(부산) ▲대학부 준결승전=한양대(서울) 8-1(8회) 청주대(충북), 인천공전(경기) 0-2 동아대(부산) ▲동 결승전=동아대(부산) 4-1 한양대(서울) ▲일반부 준결승전=제일은행(경기) 2-5 한국전력(부산), 해병대(경남) 2-6 제일은행(경기) ▲동 결승전=한국전력(부산) 3-2 한일은행(강원)	■ 09.30 로베르토 클레멘테 3천안타 1972년 시즌 중 3,000안타를 눈 앞에 두고 발목 부상으로 고생을 하다 시즌 마지막 경기인 뉴욕 메츠전에서 안타를 날려 대망의 3,000안타 달성
10.14	■ 제1회 전국우수고교초청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10월 14일부터 전국 4개 대회(대통령배, 청룡기, 황금사자기, 봉황기) 우승팀 8개 팀(배명, 부산, 충암, 군산상, 경북, 대전, 중앙, 대광고)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20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경북고가 3-0으로 대전고를 꺾고 우승 ▲준결승전=대전고 7-3 군산상고, 경북고 4-0 배명고 ▲결승전=경북고 3-0 대전고 ◇개인상 ▲타격상=①구영석(경북고 .421) ②정구왕(경북고 .368) ③이선희(경북고 .350)	■ 10.22 오클랜드 월드시리즈 제패 아메리칸리그의 오클랜드 어슬레틱스가 내셔널리그의 신시내티 레즈를 4승3패로 제치고 월드시리즈 3연패로 가는 첫 해를 장식 ■ 10.24 재키 로빈슨 심장마비로 사망 미국 프로야구 사상 흑인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던 브루클린 다저스의 타격왕 재키 로빈슨이 심장마비로 사망 ■ 10.31 스티브 칼튼 사이영상 수상 필라델피아로 추방되다 싶이 트레이드된 스티브 칼튼이 혼자 27승을 올려 팀이 올린 59승의 45.8%를 마크, 칼튼은 내셔널리그 최다승에 방어율(1.98), 탈삼진(310), 투구 이닝(346)에서도 1위를 차지한 끝에 사이영상 수상
10.23	■ 서울시중·고교 추계리그 서울시중·고야구연맹 주최로 10월 23일부터 서울시 중학 12개 팀과 고교 1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1월 19일 끝난 결승리그 최종일 경기에서 배명고가 한영고를 3-1로 물리치고 2승1무로 우승 ◇고교 결승리그 종합 순위=①배명고(2승1무) ②배문고(1승2무) ③한영고(1승1무1패) ④선린상고(3패)	
10.28	■ 제19회 전국중학선수권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10월 28일부터 12개 중학 팀(동대문, 청주남, 대전동, 동인천, 선린, 경주, 경상, 마산, 군산남, 춘천, 초량, 조대부중)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31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선린중이 동대문중을 6-0으로 격파하고 우승 ▲준결승전=선린중 0-0 대전동중(연장 15→24회 추첨 패), 조대부중 0-0 동대문중(연장 19→23회 추첨 승) ▲결승전=선린중 6-0 동대문중 ◇개인상 ▲우수선수상=이창호(李昌浩 선린중 투수) ▲감투상=미상 ▲타격상=미상 ▲미기상=미상 ▲감독상=송병섭(宋炳燮 선린중 감독)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11.11	<p>■ 한국고교선발 일본원정 한·일친선고교대회 황금사자기쟁탈 고교쟁패전에서 우승한 군산상고를 주축으로 구성된 한국고교선발 팀(임원 5, 선수 16명)이 일본 간사이(關西)지방에 원정,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히로시마(廣島), 오사카(大阪), 나라(奈良), 와카야마(和歌山), 야마구치(山口) 등지에서 5차전을 가진 끝에 4승1패를 기록</p> <p>▲1차전(11월 12일)=한국선발 4-1 히로시마상고 ▲2차전(11월 13일)=한국선발 1-5 메이세이(明星)고 ▲3차전(11월 14일)=한국선발 16-3 나라(奈良)선발 ▲4차전(11월 16일)=한국선발 5-0 와카야마선발 ▲5차전(11월 19일)=한국선발 6-5 야나이(柳井)연합</p> <p>◇한국고교선발 ▲단장=임광정(협회 부회장) ▲부단장=원용학(元容鶴 군산상 교장) ▲섭외=송옥순(협회 총무이사) ▲총무=남주현(중고연맹 전무) ▲감독=최관수(군산상고 감독) 및 ▲투수=김봉연(군산상고), 황규봉, 이선희(이상 경북고), 정순명(충암고) ▲포수=김승수(중앙고), 양종수(군산상고) ▲내야수=김준환, 김일권, 정효영(이상 군산상고), 구영석(경북고), 홍재진(중앙고) ▲외야수=윤몽룡(중앙고), 조양연(趙洋衍), 양기탁, 송상복, 김우근(이상 군산상고)</p>	
11.12	<p>■ 이창호(李昌浩), Perfect Game(완전경기) 선린중 투수 이창호가 서울시 중·고 추계연맹전 준준결승전에서 성남중 27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삼진 11개를 잡으며 외야 플라이 2개, 내야 플라이 5개, 내야 땅볼 8개, 파울 플라이 1개를 완벽하게 처리한 끝에 2-0으로 이겨 24연승을 올리며 중학 사상 3번째(①57년 대신중 김삼용 ②64년 경상중 한장철) 퍼펙트 게임(Perfect Game) 수립</p>	<p>■ 11.21 유신헌법 찬·반 국민투표 유신헌법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져 유권자 총수 90%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p>
11.22	<p>■ 이창호(李昌浩),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선린중 투수 이창호가 서울시 중·고 추계연맹전 중학부 결승전(서울운동장)에서 한영중 27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삼진 11개를 잡으며 2-0으로 No Hit No Run 기록</p>	<p>■ 12.27 박정희 제8대 대통령 취임 박정희 대통령이 12월 27일 상오 11시 장충체육관에서 6년의 임기를 갖는 제8대 대통령에 정식 취임하고 유신헌법을 공포</p>
12.05	<p>■ 제15회 이영민 타격상 정순명(鄭淳明) 수상 대한야구협회(회장 김종락)가 제15회 이영민 타격상 수상자로 대통령배쟁탈 전국고교대회와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및 쌍룡기쟁탈 전국고교대회에서 31타수 14안타로 타율 .452를 기록한 충암고 투수 정순명을 선정.</p>	<p>■ 12.31 로베르토 클레멘테 사망 로베르토 클레멘테가 지진으로 3만명이 숨지는 등 큰 피해를 입은 니카라과로 구호물자를 싣고 가다 비행기 충돌사고로 사망</p>
12.28	<p>■ 한국고교야구연맹 정기대의원 총회 한국고교야구연맹(회장 조서희)이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고 73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 통과시키고 집행부를 다음과 같이 개선</p> <p>▲회장=조서희(배명고 교장 유임) ▲부회장=김병문</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전주상고 교장 유임), 오세호(吳世豪 장충고 교장), 손만호(孫萬鎬 대구상고 교장 이상 신입) ▲이사=남주현, 정신타, 김재복, 원윤상, 위재열, 박상규, 박현덕, 조종식, 박종해(이상 유임), 이윤근(李潤根), 이명구, 이규성(李奎星), 이조영(李祖永), 민욱기(閔郁基), 박찬웅(朴贊雄 이상 신입) ▲감사=임승춘(林承春), 함흥수(咸興洙 이상 신입)</p>	
<p>1973. 03.19</p>	<p>■ 서울시중·고교 춘계리그 제7회 전국고교대회 서울시에선 중앙일보사 서울시중·고야구연맹 공동 주최로 3월 19일부터 중학 10개 팀, 고교 18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4월 21일 끝난 결승 토너먼트 최종일 경기에서 휘문고가 배문고를 3-1로 물리치고 3승1무1패로 우승 ▲중학 결승전=동대문중 1-1 선린중(연장 14회 공동 우승) ▲고교 최종일 경기=휘문고 3-1 배문고, 배명고 8-0 성남고(7회 콜드 게임) ◇결승리그 종합 순위=①휘문고(3승1무1패) ②배명고(3승1무1패) ③배문고(2승2무1패) ④중앙고(2승1무2패) ⑤성남고(2승3패) ⑥보성고(1무4패) ◇개인상 ▲우수상=조용선(趙容宣 휘문고 포수) ▲감투상=김정남(金政男 배명고 투수) ▲타격상=김성호(金聖鎬 배문고 포수 .469) ▲최다 안타상(김성호 15개) ▲타점상=김성호(9점) ▲홈런상=김성호</p>	<p>■ 01.03 스타인브레너 양키스 인수 선박왕 조지 스타인브레너가 CBS로부터 뉴욕 양키스를 1,000달러에 인수한 뒤 구단주로 취임</p> <p>■ MLB 지명타자제 채택 아메리칸리그가 공격적인 야구를 선호하는 팬들의 기대에 부응코져 3년 기한부로 지명타자제를 채택</p> <p>■ 03.02 일본 지명타자제 도입 프로야구 개막 경기인 히로시마(廣島)-다이헤이(太平洋)전에서 히로시마의 지명타자 후카사와(深澤)이 2점 홈런 포함 3안타로 3타점을 기록하자 히로시마의 나카무라(中村) 구단주가 퍼시픽리그 이사회에 지명타자 채택을 공식 제안</p>
<p>03.22</p>	<p>■ 황기선(黃起善),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경서중 투수 황기선이 서울시중·고 춘계리그 B조 3일째 경기에서 장충중을 상대로 무안타, 무실점 끝에 4-0으로 노히트노런을 기록</p>	
<p>03.24</p>	<p>■ 김정남(金政男), Perfect Game(완전경기) 수립 배명고 투수 김정남이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시중·고 춘계리그 제7회 대통령배 전국고교대회 서울시에선대회에서 배재고를 상대로 9이닝 동안 27명의 타자를 무안타, 무사사구, 무실책 끝에 2-0으로 이겨 고교야구 사상 5번째(58년 휘문고 강남규, 67년 인천고 김영찬, 67년 성남고 한장철, 72년 휘문고 송범섭)로 Perfect Game(완전경기) 수립</p>	
<p>03.26</p>	<p>■ 이자원(李滋源),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동대문중 투수 이자원이 서울시중·고 춘계리그전(3월 19일~4월 21일 서울운동장)에서 장충중 27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무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한 끝에 3-0으로 No Hit No Run 기록</p>	
<p>04.22</p>	<p>■ 제7회 대통령기쟁탈 전국대학초청대회 대한야구협회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4월 22일부터 전국 10개 대학 팀(건국, 인천체전, 동아, 성균관, 동국, 연세, 한양, 중앙, 고려, 경희대)이 출전한 가운데</p>	<p>■ 04.10 한국여자탁구 세계 제패 4월 10일 새벽 3시(한국시간) 유고 슬라비아 사라예보 스킨데리아 체육관에서 열린 제32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여자 단체전</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서울운동장에서 개최, 4월 30일 열린 최종 결승전에서 고려대가 건국대를 4-1로 꺾고 우승 ▲승자 준결승전=건국대 3-1 성균관대, 고려대 3-1 한양대 ▲패자 준결승전=성균관대 1-0 연세대 ▲승자 결승전=건국대 5-3 고려대 ▲패자 결승전=고려대 4-2 성균관대 ▲결승전=고려대 4-1 건국대 ▲최종 결승전=고려대 4-1 건국대 ◇개인상 ▲최우수선수상=노길상(고려대 투수) ▲감독상=이해창(건국대 중견수) ▲수훈상=김성관(고려대 좌익수) ▲타격상=천보성(千普成 한양대 2루수 .636), 김옥권(金玉權 중앙대 우익수 .400) ▲감독상=고광적(高光籍 고려대 감독) △고려대=감독 고광적 및 김성관(좌익수), 조두복(3루수), 이무종(중견수), 허구연(중견수), 이종도(1루수겸 포수), 김승수(포수), 구본수(대주) 박광용(1루수), 이성득(유격수), 최옥규(투수), 노길상(투수겸 1루수), 김철(金澈, 이상 우익수) △건국대=감독 김동엽 및 김호인(金浩仁 좌익수), 윤병선(尹秉善 유격수), 황기화(1루수), 이해창(중견수), 권오성(權吾聖 우익수), 방기만(房基萬 포수겸 대타), 심형식(沈亨植 포수겸 우익수), 한형국(3루수겸 2루수), 조흥운(3루수), 박영완(朴永完 2루수겸 우익수), 김진원(金辰元), 권혁기(權赫基 이상 투수), 장재철(張在哲 대타), 나해룡(투수)</p>	<p>결승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이에리사, 정현숙(鄭賢淑), 박미라(朴美羅)로 구성된 한국 여자 탁구가 세계 최강 일본을 3-1로 격파하고 8전 전승(예선 6승, 결승 2승)의 기록으로 사상 첫 우승</p>
04.28	<p>■ 제10회 아시아선수권대회 필리핀야구협회 주최로 4월 28일 오후 1시 한국을 비롯해 일본, 자유중국, 호주, 필리핀 등 5개국이 출전한 가운데 필리핀 마닐라 리잘경기장에서 개최, 5월 8일 벌어진 마지막 경기에서 한국이 자유중국과 3-3으로 비겨 4승3무1패로 준우승 ▲1차 리그=한국 5-4 필리핀, 한국 8-3 호주, 한국 5-5 자유중국, 한국 2-3 일본 ▲2차 리그=한국 7-3 호주, 한국 7-2 필리핀, 한국 2-2 일본, 한국 3-3 자유중국 ◇종합 순위=①일본(7승1무) ②한국(4승3무1패) ③자유중국(3승2무3패) ④필리핀(2승6패) ⑤호주(1승7패) ◇한국선수단 단장=▲임광정(협회 부회장) ▲총무=송옥순 ▲섭외=장태영 ▲심판=민준기 ▲감독=김계현(한국전력 감독) ▲코치=김성근(기업은 감독) ▲투수=윤동복(한일은), 윤몽룡(건국대), 황규봉(고려대), 김호중(한일은), 강용수(육군), 이충순(한국전력) ▲포수=박해중(육군), 우용득(해병), 양형오(한양대) ▲내야수=박순철(해병), 한동화(제일은), 강병철(한일은), 하일, 박재영(이상 상업은) ▲외야수=박영길(한국전력), 김우열(해병), 김차열(제일은), 황성록(한국전력)</p>	 <p>The 1973 Asian Baseball Championship Series 1973 PROFILE OF KOREAN DELEGATION</p> <p>제10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출전을 앞두고 대한야구협에서 발간한 팸플릿. 하단 사진은 국가대표 선수들과 임원들.</p> 
05.02	<p>■ 제7회 대통령배쟁탈 전국고교대회 대한야구협회 중앙일보·동양방송 공동 주최로 5월 2일부터 전국에서 17개 고교 팀(경북, 전남, 배문, 마산</p>	<p>필리핀 마닐라 리잘 메모리얼 구장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입장식에 태극기를 앞세우고 입장한 한국 대표선수들이 정렬해 있다(이충순 전 한국전력 투수 제공)</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상, 동산, 배명, 경남, 대건, 광주일, 세광, 휘문, 경남상, 대구상, 인천, 군산상, 대전, 중앙고)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토너먼트로 개최, 5월 8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대구상고가 경남고를 4-1로 물리치고 우승</p> <p>▲준결승전=경남고 1-0 배문고, 대구상고 3-1 인천고 ▲결승전=대구상고 4-1 경남고</p> <p>◇개인상 ▲우수상=석주옥(대구상 투수) ▲감투상=김영춘(金永春 경남고 투수) ▲미기상=김영일(金榮一 인천고 중견수) ▲타격상=①허욱(許旭 대구상고 2루수 .600) ②송용성(宋容成 세광고 투수 .400) ③장효조(張孝祚 대구상고 우익수 .364) ▲최고타점상=최근배(崔根培 인천고 유격수) ▲감독상=강태정(대구상고 감독) ▲지도상=손만호(孫萬鎬 대구상고 교장) ▲장려상=세광고</p> <p>△대구상고=감독 강태정(姜泰貞) 및 신승식(포수겸 좌, 우익수 및 중견수), 김종구(金鍾球 중견수), 허욱(2루수), 김한근(金漢根 2루수겸 좌, 우익수), 신춘식(申春湜 3루수), 서유태(徐允澤 유격수), 이승후(李承侯 좌익수겸 포수), 김승수(金勝秀 1루수), 박기수(朴基洙 투수), 최문호(崔文鎬 대타), 석주옥(투수겸 1루수), 권용득(權容得 대타), 유기봉(柳基鳳 포수), 장효조(우익수), 김운룡(金雲龍 투수), 최문호(崔文鎬 대타)</p> <p>△경남고=감독 어우홍 및 정기조(鄭箕祚 2루수), 이충원(李忠源 중견수), 소유남(1루수), 김용희(金用熙 유격수), 박학성(朴學星 3루수), 천창호(千昌浩 투수), 우영진(禹領珍 우익수), 김영춘(투수겸 우익수), 차동렬(車東烈 포수), 김동규(金東奎), 홍종진(洪鍾珍 이상 좌익수)</p>	 <p>대구상-세광고의 준결승전, 4회초 불넷으로 출루한 대구상의 3루 주자 신승식이 4번 유기봉의 중견수 희생 플라이로 홈인하고 있다.</p>
05.02	<p>■ 제3회 대통령기쟁탈 전국중학대회</p> <p>전남야구협회 전남일보사 공동 주최로 5월 2일부터 전국 16개 중학 팀(경상, 선린, 동대문, 배문, 부산 동성, 대동, 대현, 경주, 마산, 청주남, 군산, 군산남, 조대부중, 광주 동성, 송의, 무등중)이 출전한 가운데 광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 5월 6일 끝난 결승전에서 조선대부중이 배문고를 8-3으로 격파하고 우승</p> <p>▲준결승전=배문중 2-0 경상중, 조대부중 4-0 동성중 ▲결승전=조대부중 8-3 배문중</p> <p>◇개인상 ▲최우수상=차용갑(조대부중 투수) ▲타격상=김상완(광주 동성중 .700) ▲감투상=안원상(배문중 투수) ▲감독상=최길웅(조대부중 감독)</p>	
05.08	<p>■ 전국대학연맹전 춘계리그</p> <p>전국대학야구연맹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5월 8일부터 24일까지 17일간 한양, 건국, 경희, 동아, 동국, 성균관, 연세, 중앙, 고려대 및 인천체전 등 10개 대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풀 리그로 개최, 5월 24일 열린 최종일 경기에서 건국대가 동아대를 7-1로 꺾고 7승2무로 한양대와 공동 우승</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종합 성적=①건국대, 한양대(이상 7승2무) ③연세대(6승1무2패) ④고려대, 성균관대(이상 4승3무2패) ⑥중앙대(1승4무4패) ⑦경희대(2승1무6패), 동아대(1승3무5패), 동국대(2승1무6패) ⑩인천체전(1승8패)</p> <p>◇개인상 ▲타격상=①조흥운(건대 3루수 .360) ②김호인(건대 좌익수) ③이해창(건대 중견수) 김봉기(金奉起 성대 중견수)</p> <p>△건국대=감독 김동엽 및 김호인(좌익수), 윤병선(유격수), 황기화(1루수), 이해창(중견수), 윤몽룡(우익수 겸 투수), 조흥운, 한형국(이상 3루수), 방기만, 심형식(이상 포수), 박영완, 김무관(2루수), 기세인(奇世仁 우익수), 나해룡, 권혁기, 안대룡(安大龍 이상 투수)</p> <p>△한양대=감독 오춘삼 및 이희춘(3루수), 이종훈(좌익수), 김보연(우익수), 정현발(중견수), 이충무(유격수), 천보성(2루수), 김수철, 손상대, 양형오(이상 포수), 도영권(都榮權 1루수겸 중견수), 감유동(金裕東 대타), 박양윤(1루수), 정순명, 남우식, 정기혁(이상 투수)</p>	 <p>대학준계리그 7일째 경기에서 김봉연을 마운드에 세운 연세대가 6회말 전유섭의 좌전 안타와 9번 차진성의 보내기 번트에 이은 1번 신중국의 2루타로 홈을 밟아 고려대를 1-0으로 꺾고 노히트노런을 기록</p>
05.10	<p>■ 김홍곤(金鴻坤),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연세대 투수 김홍곤이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전국대학준계연맹전에서 인천체전 25 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탈삼진 7개와 사사구 5, 희생타 1개를 허용한 끝에 7-0으로 No Hit No Run 기록</p>	
05.15	<p>■ 김봉연(金奉淵),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연세대 1년생 투수 김봉연이 전국대학준계연맹전에서 고려대 29 타자를 상대로 삼진 4개를 잡으며 사사구 4개, 도루 2개를 허용한 끝에 1-0으로 No Hit No Run 기록</p>	
05.25	<p>■ 제4회 조서희기쟁탈 전국국민학교대회 서울시중고야구연맹 배문고등학교 공동 주최로 5월 25일부터 15개 국민학교 팀(광주 서림, 서울사대부국, 인천 창영, 부산 구덕, 강원 화계, 서울 유석, 부산 대연, 서울 봉천, 한양, 이문, 대구 옥산, 마산 월포, 청주 우암, 수원 남창, 대구 효성)이 출전한 가운데 배문고 운동장에서 개최, 5월 29일 끝난 결승전에서 인천 창영국민학교가 부산 대연국민학교를 2-0으로 꺾고 우승</p> <p>▲준결승전=창영국 1-0 효성국, 대연국 1-0 이문국 ▲결승전=창영국 2-0 대연국</p> <p>◇개인상 ▲우수선수상=정영철(창영) ▲감투상=양상문(대연) ▲타격상=김호근(대연) ▲미기상=김정수(서울사대부국) ▲장려상=김상훈(이문) ▲감독상=이무일(창영 감독)</p>	
05.25	<p>■ 제4회 조서희기쟁탈 전국중학대회 서울시중고야구연맹 배문고등학교 공동 주최로 5월 25일부터 16개 중학 팀(군산남, 대현, 경상, 영남, 동인천, 선린, 대구, 동대문, 대동, 배문, 성남, 진해, 춘</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천, 청주남, 한영, 조대부중)이 출전한 가운데 배문고 운동장에서 개최, 5월 29일 끝난 결승전에서 대구중이 경상중을 4-3으로 누르고 우승</p> <p>▲준결승전=경상중 2-0 군산남중, 대구중 2-0 선린중 ▲결승전=대구중 4-3 경상중</p> <p>◇개인상 ▲우수선수상=송진호(宋鎭浩 대구중) ▲감투상=이봉영(경상중) ▲타격상=김선중(군산남중) ▲미기상=이준석(경상중) ▲장려상=박종환(군산남중) ▲감독상=이광우(대구중 감독) ▲지도상=구수갑(대구중 야구부장)</p>	
05.25	<p>■제23회 백호기쟁탈 전국군·실업쟁패전</p> <p>대한야구협회 경향신문사 공동 주최로 5월 25일부터 9개 팀(한일은행, 해병대, 상업은행, 육군, 한국전력, 철도청, 농협, 기업은행, 제일은행)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4개 조로 나누어 예선전을 개최, 5월 29일 열린 본선리그 최종일 경기에서 제일은행이 농협을 4-2로 꺾고 2승1무로 우승</p> <p>◇본선리그 종합 순위=①제일은행(2승1무) ②한일은행(1승2무) ③육군(1승1무1패) ④농협(3패)</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차열(제일은 좌익수) ▲우수선수상=김호중(한일은 투수) ▲감투상=강용수(육군 투수) ▲타격상=이희수(李熙守 농협 2루수 .364) ▲타점상=김차열(제일은 좌익수 5타점) ▲신인상=김용윤(농협 1루수), 김덕렬(金德烈 제일은 투수) ▲미기상=장원순(제일은 1루수) ▲감독상=박현식(제일은 감독)</p> <p>△제일은행=감독 박현식 및 한동화(3루수), 정동진(포수), 장원순(1루수), 김차열(좌익수), 김태석(중견수), 최영일(유격수), 이춘근(2루수), 김우열, 이영완, 황재철(이상 우익수), 나유찬, 김덕렬, 김병우(이상 투수)</p>	 <p>대한야구협회 최인철 부회장이 제23회 백호기쟁탈 전국군실업쟁패전에서 첫 우승의 영광을 차지한 제일은행 주장 나창기 선수에게 우승의 상징 백호기를 수여하고 있다.</p>  <p>제23회 백호기쟁탈 전국군·실업쟁패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제일은행 선수들. 뒷줄 가운데 검은 양복을 입은 이가 박현식 감독.</p>
05.26	<p>■제13회 문교부장관기쟁탈 전국4도시선발고교대회</p> <p>경북야구협회 매일신문사 공동 주최로 5월 26일부터 전국 4개 도시에서 6개 고교 팀(배명, 동산, 경남, 경북, 대건, 대구상고)이 출전한 가운데 대구공설운동장에서 개최, 6월 2일 열린 결승전에서 대건고가 대구상고를 3-1로 제치고 우승</p> <p>▲준결승전=대구상고 3-0 경북고, 대건고 9-0 배명고 ▲결승전=대건고 3-1 대구상고</p> <p>◇개인상 ▲우수선수상=권영호(權永浩 대건고 투수) ▲감투상=석주옥(대구상고 투수) ▲미기상=김한근(대구상고 2루수) ▲타격상=신춘식(대구상고 3루수 .600) ▲감독상=김충영(金忠永 대건고 감독) ▲지도상=백인식(白仁植 대건고 부장)</p> <p>△대건고=감독 김충영 및 이종원(李鍾源 유격수), 신동배(申東培 1루수), 신준옥(3루수), 박근득(포수), 권영호(투수), 채임수, 최동섭, 최상점(이상 중견수), 허규옥(우익수), 김정길, 은종렬(이상 2루수), 이택우(좌익수)</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5.31	<p>■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춘계리그 한국실업야구연맹이 실업야구 경기 운영방식을 장기 페넌트 레이스에서 봄, 여름, 가을의 3시즌 제로 변경하고 매 시즌 마다 우승 팀을 시상하기로 결정한 뒤 춘계리그를 5월 31일부터 9개 실업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12일 육군이 7승1무로 우승</p> <p>◇종합 성적=①육군(7승1무) ②제일은행(5승1무2패) ③기업은행(4승1무3패), 상업은행(3승3무2패) ⑤한국전력(4승4패) ⑥농협, 한일은행(이상 3승1무4패) ⑧해병대(2승6패) ⑨철도청(1승7패)</p> <p>◇개인상 ▲최고수훈선수상=강용수(육군 투수) ▲우수투수상=강용수(육군 투수) ▲타격상=김태석(제일은행 중견수 .435) ▲감독상=허종만(육군 감독)</p>	
06.01	<p>■ 제2회 전국스포츠소년대회 야구경기 대한체육회 주최로 6월 1일 전국 12개 시 도의 국민학교 및 중학교 소년 소녀 선수단 7,240 명(임원 1,946명, 선수 5,294명)이 출전한 가운데 대전공설운동장에서 개최, 6월 4일 끝난 중학부 야구 결승전에서 대구중이 청주남중을 2-0으로 제치고 우승</p> <p>▲국민학교 준결승전=우암(충북) 3-0 송의(경기), 봉천(서울) 1-0 대구(경북) ▲동 결승전=봉천(서울) 0-0 우암(충북) 공동 우승</p> <p>▲중학교 준결승전=청주남중 2-0 충남중, 대구중 0-0 선린중(추첨 패) ▲동 결승전=대구중 2-0 청주남중</p>	 <p>대전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2회 전국스포츠소년대회 개회식 장면</p>
06.01	<p>■ 최형빈(崔亨斌),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군산중 투수 최형빈이 제2회 스포츠소년대회 야구경기 첫 날 동산중을 상대로 9이닝 동안 무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한 끝에 4-0으로 No Hit No Run 기록</p>	
06.12	<p>■ 조홍기(趙洪基),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한일은행 투수 조홍기가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춘계리그에서 기업은행 28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탈삼진2, 볼넷3, 희생타 1개를 허용한 끝에 7-0으로 No Hit No Run 기록</p>	
06.14	<p>■ 제28회 청룡기쟁탈 전국고교선수권대회 대한야구협회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6월 14일부터 전국 각 시 도 대표 12개 고교 팀(중앙, 배재, 동대문상, 춘천, 대건, 마산상, 경남, 광주상, 군산상, 대성, 세광, 인천고)이 출전한 가운데 개최, 6월 21일 열린 결승전에서 경남고가 중앙고를 4-3으로 누르고 25년 만에 패권 탈환</p> <p>▲승자 준결승전=중앙고 4-0 배재고(연장 20회), 경남고 5-1 군산상고 ▲패자 준결승전=군산상고 2-1 배재고(연장 15회) ▲승자 결승전=중앙고 2-1 경남고(연장 11회) ▲패자 결승전=경남고 3-1 군산상고 ▲결승전=경남고 4-1 중앙고 ▲최종 결승전=경남고</p>	<p>전국고교선수권대회에서 25년 만에 패권을 탈환한 경남고 선수들이 어우홍(魚友洪) 감독을 행가래치고 있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4-3 중앙고 ◇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용희(경남고 유격수) ▲우수투수상=천창호(경남고 투수) ▲감투상=이광은(李光殷 배재고 투수) ▲미기상=박영인(朴榮仁 중앙고 3루수) ▲타격상=①김용희(경남고 .545) ②김일권(군산상 .400) ③이철성(李哲聖 .385) ▲타점상=김용희(7타점) ▲감독상=어우홍(경남고 감독)</p>	
06.17	<p>■제3회 회장기쟁탈 전국국민학교대회 한국국민학교야구연맹 주최로 6월 17일부터 전국에서 11개 팀(전북 금광, 부산 대신, 대전 선화, 대구 효성, 춘천 중앙, 진해 도천, 광주 서림, 서울 신용산, 충북 삼보, 인천 신흥, 부산 대연)이 출전한 가운데 장충리틀구장에서 개최, 6월 20일 끝난 결승전에서 부산 대연국교가 대구 효성국교를 7-0으로 격파하고 우승 ▲준결승전=미상 ▲결승전=대연국교 7-0 효성국교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이동완(李東玩 대연 투수) ▲감투상=구동균(具東均 효성 투수) ▲미기상=이윤식(李潤植 대연) ▲타격상=조성옥(趙城玉 대연 .714) ▲장려상=진해 도천국교 ▲감독상=김강홍(金康弘 대연 감독)</p>	
06.24	<p>■일본체육대학초청 한·일친선대회 대한야구협회 초청으로 6월 23일 내한,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서울운동장에서 국내 실업 및 대학 팀들과 7차전을 개최한 끝에 종합 전적 4승1무2패를 기록 ▲1차전(6월 24일 서울)=체육대 3-3 연세대 ▲2차전(6월 24일 서울)=체육대 4-3 제일은행 ▲3차전(6월 27일 대전)=체육대 1-2 건국대 ▲4차전(6월 28일 광주)=체육대 2-0 상업은행 ▲5차전(6월 30일 서울)=체육대 2-1 한양대 ▲6차전(7월 1일 서울)=체육대 2-0 건국대 ▲7차전(7월 1일 서울)=체육대 0-1 상업은행</p>	
06.25	<p>■유종겸(柳種兼), 노히트노런(No Hit No Run)① 장충고 투수 유종겸이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제27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서울시에선에서 성남고 27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무안타, 무실점으로 역투, 6회 이창수(李昌洙 포수)의 솔로 홈런에 힘입어 1-0으로 No Hit No Run 기록</p>	
07.02	<p>■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하계리그 한국실업야구연맹 주최로 7월 2일부터 9개 실업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7월 24일 서울운동장에서 끝난 최종일 경기에서 한일은행이 제일은행을 6-2로 꺾고 6승2패로 우승 ◇종합 순위=①한일은행(6승2패) ②상업은행(5승1무2패) ③제일은행(5승3패) ④육군(4승1무3패) ⑤기업은행, 농협(이상 3승1무4패) ⑦한국전력(2승2무4패) ⑧해병대, 철도청(이상 2승1무5패)</p>	 <p>실업연맹 하계리그에서 철도청과 함께 꼴찌를 한 해병대 선수들. 해병대야구단은 10월 해체된 뒤 공군으로 새출발했다</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개인상 ▲최고수훈선수상=강병철(한일은 3루수) ▲최우수투수상=조흥기(한일은 투수) ▲타격상=최주현(기업은 중견수 .429) ▲감독상=김응룡(한일은 감독)</p>	
07.06	<p>■권영호(權永浩), Perfect Game(완전경기) 수립 대건고 투수 권영호가 제25회 쌍룡기쟁탈 전국고교대회 경북예선경 제6차 대구4고교리그전에서 경북고 27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무안타, 무실점, 무실책 끝에 2-0으로 퍼펙트 게임(Perfect Game) 수립</p>	<p>■07.15 한 시즌 두 차례 노히트노런 캘리포니아 에인절스의 놀란 라이언이 5월 15일 캔자스시티, 7월 15일에는 디트로이트를 노히트노런으로 잠재워 한 시즌에 두 차례 기록을 세운 5번째 투수가 되다.</p>
07.20	<p>■제10회 실업야구 올스타전 한국실업야구연맹이 9개 팀을 금융단(한일은, 제일은, 기업은, 농협, 상업은)과 실업단(육군, 해병대, 한전, 철도청)으로 나누어 각기 올스타(베스트 9은 팬 투표로 선출)를 뽑아 7월 20일부터 3차례에 걸쳐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7월 23일 끝난 3차전에서 실업단이 금융단을 5-2로 꺾고 2승1패로 우승 ▲1차전(통산 30차전 7월 20일)=실업 올스타 10-6 금융 올스타 ◇개인상 △최고수훈상=최한익(崔漢翼 실업) △승리투수상=황태환(실업) △우수투수상=김명성(실업) △타격상=강병철(금융), 최한익(실업) △감투상=임경고(林慶高 실업) ▲2차전(통산 31차전 7월 21일)=금융 올스타 2-0 실업 올스타 ◇개인상 △수훈선수상=정동진(금융) △승리투수상=이선희(금융) △우수투수상=김덕렬(金德烈 금융) △감투상=강용수(실업) △타격상=정동진, 한동화(이상 금융) ▲3차전(통산 32차전 7월 23일)=실업 올스타 5-2 금융 올스타 ◇개인상 △최고수훈상=박영길(실업) △승리투수상=이충순(실업) △우수투수상=나유찬(금융) 감투상=박재영(금융) △타격상=김차열(금융) △홈런상=박영길(실업) ◇금융단 올스타=감독 장태영(상업은 감독), 코치 김응룡(한일은 감독) 및 한동화(2루수), 최주현(우익수), 권국용(중견수겸 우익수), 강병철(3루수), 김차열(좌익수), 김태석(지명타자겸 중견수), 최흥표(우익수겸 지명타자), 장원순(1루수), 하일(대타), 정동진(포수), 하영발(대타), 최영일, 박재영(이상 유격수), 함응열(우익수겸 중견수), 김응룡(대타), 김호중, 이선희, 김덕렬, 나유찬(이상 투수) ◇실업단 올스타=감독 김용욱(金容旭 해병대 감독), 코치 김계현(金桂鉉 한전 감독) 및 백기성(2루수), 최한익(3루수), 황성록(1루수겸 중견수), 박영길(지명타자), 박해중(대타겸 포수), 김우열(우익수), 윤동균(우익수겸 좌익수), 이원녕(중견수겸 좌익수), 장진섭(포수), 우용득(포수겸 우익수), 홍창권, 강문길(이상 유격수), 임경고(좌익수겸 1루수), 박철순(1루수), 임신근, 김윤</p>	 <p>지명타자 첫 홈런-올스타 3차전 1회초 실업 올스타 지명타자인 4번 박영길이 3점 홈런을 날린 뒤 홈인하고 있다.</p>  <p>올스타전 시상식에서 금융단 강병철이 모무열 경기이사로부터 타격상 트로피를 받아 들고 있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규(金潤圭), 이충순, 김명성, 강용수(이상 투수)	
07.20	■ 실업야구 지명타자제 시범경기 서울운동장에서 야간경기로 열린 실업야구 올스타전(7월 20~23일)에 시범적으로 도입, 1차전에서 금융단은 김응룡(한일은행), 실업단은 박해중(육군)이 첫 지명타자로 출전, 9타수 1안타로 기대에 못미친 반면 3차전에서 실업단의 박영길(한국전력)이 1회초 1사 2루에서 3점 홈런을 터트렸으나 정규 대회 채택은 보류	
07.24	■ 제20회 전국중학선수권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7월 24일부터 11개 중학 팀(군산, 고덕, 성남, 마산, 배명, 대현, 선린, 부산 동성, 청주남, 대건, 조대부중)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7월 27일 열린 결승전에서 부산 동성중이 조선대 부중을 4-1로 꺾고 야구부 창설 10년 만에 대회 첫 우승 ▲준결승전=동성중 2-0 군산중, 조대부중 2-1 성남중 ▲결승전=부산 동성중 4-1 조대부중 ◇개인상 ▲최우수선수상=노상수(盧相守 동성중 투수) ▲감투상=차용갑(조대부중 투수) ▲타격상=김현기(金玄基 군산중 외야수 .667) ▲감독상=안남수(安南洙 동성중 감독)	
07.25	■ 전 국가대표 감독 김영조, '野球教室' 발간 원로 야구인 김영조(전 국가대표 감독)가 국내 최초 야구지도서 '야구교실(野球教室)'을 발간. 국판 269페이지로 엮은 이 책은 선수지도를 위한 경기 실재를 세목 별로 나누어 강좌식으로 설명.	
07.28	■ 제4회 세계리틀선수권대회 극동지역 준우승 세계리틀연맹 주최로 7월 28일부터 한국을 비롯 자유중국, 일본, 필리핀, 홍콩, 괌 등 6개국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8월 1일 대회 최종일 경기에서 동률(4승)인 자유중국과 우승을 놓고 다투으나 19-0(6회)으로 패해 준우승 ▲1차전(7월 28일)=한국 12-2 괌 ▲2차전(7월 29일)=한국 9-0 필리핀 ▲3차전(7월 30일)=한국 3-2 일본 ▲4차전(7월 31일)=한국 13-1 홍콩 ▲5차전(8월 1일)=한국 0-19 대만 ◇종합 성적=①자유중국(5승) ②한국(4승1패) ③일본(3승2패) ④필리핀(2승3패) ⑤괌(1승4패) ⑥홍콩(5패)	 <p>7월 30일 벌어진 세계리틀야구 극동지역 예선 일본전 3회초 결승 홈런을 날린 4번 최성모(崔誠模)가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흥인하고 있다.</p>
07.29	■ 주쿄(中京)대 초청 한-일친선대회 대한야구협회 초청으로 7월 29일부터 대구, 대전, 서울에서 국내 대학 및 실업 팀과 6차전을 거행, 8월 6일 최종전에서 제일은행을 3-1로 꺾어 2승1무3패를 기록 ▲1차전(7월 29일 대구)=주쿄대 0-1 육군 ▲2차전(7월 31일 대전)=주쿄대 3-2 상업은행 ▲3차전(8월 5일 서울)=주쿄대 0-1 한양대 ▲4차전(8월 5일 서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울)=주교대 0-1 한일은행 ▲5차전(8월 6일 서울)=주교대 1-1 연세대 ▲6차전(8월 6일 서울)=주교대 3-1 제일은행</p>	
08.07	<p>■ 제3회 봉황기쟁탈 전국고교대회 대한야구협회 한국일보사 공동 주최로 8월 7일부터 재일교포를 비롯해 43개 고교 팀(충암, 동산, 세광, 동대문상, 부산상, 전주상, 철도, 전남, 군산상, 성남, 인천, 경남, 배재, 진흥, 청량공, 부산, 청주, 경기상, 성동, 마산, 춘천, 장충, 광주상, 휘문, 마산상, 배문, 광주일, 중앙, 배명, 대건, 대광, 영남, 대전, 대구상, 경남상, 보성, 한영, 경북, 대성, 선린상, 경동, 송의실고)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8월 19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대구상고가 배재고를 4-3으로 물리치고 우승 ▲준결승전=배재고 3-0 동대문상고, 대구상고 8-0 재일교포 ▲3, 4위결전=동대문상고 2-0 재일교포 ▲결승전=대구상고 4-3 배재고 ◇개인상 ▲최우수선수상=박기수(대구상고 투수) ▲감투상=박상열(朴相悅 동대문상고 투수) ▲수훈상=이광은(배재고 투수) ▲타격상=장효조(대구상고 우익수 .563) ▲최다 타점상=조명현(趙明鉉 배재고 1루수 7타점) ▲최다 안타상=장효조(대구상고 9안타) ▲감독상=강태정(대구상고 감독), 신성철(申性澈 배재고 감독) ▲지도상=이호영(李浩榮 대구상고 부장), 박차웅(朴次雄 배재고 부장) ▲장려상=보성고, 청주고, 진흥고 ▲응원상=배재고 △대구상고=제7회 대통령배쟁탈 전국고교대회 참조 △배재고=감독 신성철 및 송기복(宋基福 좌익수), 조명현(1루수겸 우익수), 이광은(투수겸 3루수), 신언호(申彦皓 포수), 조선일(趙善一 유격수), 윤기상(尹基相 2루수겸 3루수), 박순철(朴淳哲 중견수), 안종두(安鍾斗 우익수겸 2루수), 김장순(金壯淳 1루수), 하기룡(투수겸 우익수)</p>	<p>■ 08.03 페리, 2천 탈삼진 기록 메이저리그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투수 게이로드 페리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경기에서 6개의 탈삼진을 기록, 메이저리그 사상 2천명의 타자를 삼진으로 잡은 21번째 투수가 됐다.</p>  <p>봉황기쟁탈 전국고교대회 경남고-인천고전 6회말 볼넷으로 출루한 인천고 3번 이철성(李哲聖)이 후속타로 홈인, 인천고가 전국고교선수권대회 패자인 경남고를 2-1로 물리치고 2회전에 진출했다.</p>  <p>제3회 봉황기 고교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인터뷰를 하고 있는 대구상고 강태정 감독. 대구상고는 이 해 대통령배, 황금사자기 고교대회 등 3개 대회에서 우승했다.</p>
08.12	<p>■ 김한용(金韓用),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인천고 투수 김한용이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제3회 봉황기쟁탈 전국고교대회 2회전에서 성남고 28타자를 상대로 90닝 동안 삼진 6개를 잡으며 볼넷1, 실책1, 잔루 1개를 허용한 끝에 5-0으로 No Hit No Run 기록</p>	
08.18	<p>■ 제16회 문교부장관기쟁탈 전국중학초청대회 충북야구협회 주최로 8월 18일부터 전국 20개 중학 팀(경서, 동대문, 배명, 배문, 선린, 성남, 동인천, 흥천, 고덕, 군산, 마산, 토성, 대동, 광주 동성, 경상, 영남, 대구, 포항, 청주남, 청주중)이 출전한 가운데 청주중 운동장에서 개최, 8월 23일에 끝난 결승전에서 선린중이 경상중을 1-0으로 제치고 우승 ▲준결승전=선린중 4-0 군산중, 경상중 1-0 청주남중 ▲결승전=선린중 1-0 경상중</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개인상 ▲우수선수상=이길환(李吉煥 선린중 투수) ▲감투상=배성환(裴晟煥 경상중 투수) ▲타격상=정혁진(鄭赫鎭 선린중 .545) ▲미기상=윤세정(尹世政 배문중) ▲감독상=정영수(선린중 감독)</p>	
08.18	<p>■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추계리그 한국실업야구연맹 주최로 8월 18일부터 실업야구 9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9월 27일 막이 내린 추계리그에서 한국전력이 5승3무로 우승 ◇종합 순위=①한국전력(5승3무) ②농협(4승3무1패), 한일은행(5승1무2패) ④상업은행(4승1무3패) ⑤제일은행(4승4패), 기업은행(3승2무3패) ⑦육군(2승1무5패) ⑧해병대(1승2무5패) ⑨철도청(1승1무6패) ◇개인상 ▲최고수훈선수상=김명성(한국전력 투수) ▲우수투수상=이선덕(농협 투수 10승) ▲타격상=백대삼(상업은행 중견수 .485) ▲감독상=김계현(한국전력 감독) ◇통산(춘·하·추계리그) 성적=①한일은행(14승2무8패) ②제일은행(14승1무9패) 상업은행(12승5무7패) 육군(13승3무8패) ⑤한국전력(11승5무8패) ⑥농협(10승5무9패) ⑦기업은행(10승4무10패) ⑧해병대(5승3무 16패) ⑨철도청(4승2무18패) ◇개인상(통산) ▲최우수선수상=이선덕(농협 투수) ▲최다승리투수상=이선덕(농협 투수 10승4패) ▲승률 우수투수상=조흥기(한일은행 투수 .750) ▲방어율 우수투수상=이선덕(농협 투수 0.61) ▲수위타자상=백대삼(상업은행 중견수 .336) ▲최다홈런상=강병철(한일은행 3루수 6개) ▲최다타점상=강병철(한일은행 3루수 13점) ▲최다출루상=하영발(한일은행 1루수 .404) ▲최다도루상=최창형(상업은행 좌익수 15개)</p>	 <p>전국실업연맹전에서 14승2무8패로 우승을 차지한 한일은행 선수들이 김응룡 감독을 행가래치고 있다.</p>
08.31	<p>■ 일본고교연맹 사이키(佐伯) 회장에 국민훈장 수여 8월 31일 오전 김종필 국무총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대리하여 62년부터 10년 동안 교환경기를 통해 한국고교야구 기술 향상에 기여한 일본고교야구연맹 사이키 다쓰오(佐伯 達夫) 회장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p>	 <p>김종필 총리가 사이키 일본고교연맹 회장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하고 있다.</p>
09.01	<p>■ 제3회 한·일고교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일본 전국고교선수권대회(일명 고시엔대회) 우승 팀 히로시마(廣島)상고를 주축으로 구성된 일본고교 선발 팀을 초청, 9월 1일부터 3일까지 한·일고교 선발 팀이 서울에서 공식 경기를 가진 뒤 9월 4, 5일부터 대전과 대구에서 비공식 경기를 가진 끝에 한국이 3승2패로 우승 ▲1차전(9월 1일 서울)=일본선발 1-2 한국선발 ▲2차전(9월 2일 서울)=일본선발 2-2 한국선발 ▲3차전(9월 3일 서울)=일본선발 0-1 한국선발 ▲4차전(9월 4일 대전)=일본선발 2-1 한국선발 ▲5차전(9월 5일 대구)=일본선발 5-3 대구선발 ◇일본고교선발 ▲단장=사이키(佐伯) ▲임원=나가노</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永野) 야마모토(山本) ▲감독=사코다(迫田) ▲선수=에가와(江川), 아키모토(秋本), 쓰쿠다(佃), 우시노(失野), 오쿠라(小倉), 미즈노(水野), 마치다(町田), 가와모토(川本), 야스다(安田), 나가시마(永島), 와타나베(渡部), 가네미쓰(金光 김흥욱金興旭), 하쿠시마(白島), 스나가(須長), 우에마쓰(植松), 쿠스하라(楠原)</p> <p>◇한국고교선발 ▲단장=최인철(崔寅哲 협회 부회장) 임원=이팔관(李八官 협회이사), 이명구(李明九 중고연맹이사) ▲감독=서영무(경북고 감독) ▲투수=권영호(대전고), 하기룡(배재고), 박상열(동대문상고), 김한용(金韓用 인천고), 이광은(투수겸 3루수) ▲포수=신언호(배재고), 양종수(군산상고) ▲내야수=선우영수(鮮于榮壽 중앙고 1루수), 김일권(군산상고), 이은구(대전고 이상 2루수), 변대창(경북고 3루수), 김용희(경남고 유격수) ▲외야수=이승후(대구상고 좌익수), 유대성(俞大成 중앙고 1루겸 중견수), 양기탁(중견수), 장효조(대구상고 우익수)</p>	 <p>서울운동장에서 열린 한일고교대회 1차전에서 유대성이 5회말 1-1 동점에서 일본의 괴물 투수 에가와(江川)로부터 우월 결승 솔로 홈런을 날린 뒤 동료들의 환영을 받으며 홈인하고 있다.</p> <p>■09.05 북한 평양지하철 개통 소련의 기술지원을 받아 1961년 착공, 12년 만인 1973년 9월 5일 남북노선인 천리마선(부흥역-붉은별역)을 개통</p>  <p>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에서 배명고를 꺾고 우승을 차지한 대구상고 주장이 우승의 상징 황금사자를 받아 들고 있다.</p>
09.07	<p>■제27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대한야구협회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9월 7일부터 전년도 우승 팀 군산상고를 비롯, 20개 팀(경기상, 대광, 배명, 배문, 선린상, 철도, 동산, 인천, 춘천, 대전, 세광, 전주상, 광주상, 전남, 대건, 대구상, 경남, 경남상, 마산상고)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9월 13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대구상고가 10회 연장전 끝에 배명고를 4-3으로 누르고 우승</p> <p>▲준결승전=배명고 3-1 대전고, 대구상고 4-0 경남고 ▲결승전=대구상고 4-3 배명고</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한근(대구상고 투수겸 2루수) ▲우수선수상=장효조(대구상고 우익수) ▲수훈상=이승후(대구상고 좌익수) ▲감투상=김정남(배명고 투수) ▲타격상=①장효조(대구상고), 조승현(曹承鉉 대전고 이상 .428) ③안익현(安義賢 대전고 .385) ▲최다안타상=조승현(대전고 6개) ▲미기상=신춘식(申春湜 대구상고 3루수) ▲감독상=강태정(대구상고 감독) ▲공로상=손만호(孫萬鎬 대구상고 교장)</p> <p>△대구상고=감독 강태정 및 신승식, 김종구(이상 중견수), 장효조, 서기웅(徐淇雄 이상 우익수), 이승후(좌익수), 신춘식(3루수), 김승수(1루수겸 2루수), 서유태(유격수), 우주환(禹柱煥 유격수겸 2루수), 석주옥(1루수겸 우익수및 투수), 유기봉, 권용득(이상 포수), 박기수(투수), 김한근(투수겸 2루수), 허욱(2루수겸 유격수)</p> <p>△배명고=감독 고재희(高在徽) 및 고광갑(高光甲 우익수), 김성렬(金成烈 포수), 김종근(金重根 유격수), 하남섭(河南燮 3루수), 이교준(李教俊 중견수), 김정남(투수), 나승인(羅承仁 1루수), 이동훈(李東勳 2루수), 유태형(柳台馨 좌익수)</p>	
09.14	<p>■전국대학연맹전 추계리그 전국대학야구연맹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9월 14일</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부터 전국 대학 10개 팀이 A조(건국대, 고려대, 연세대, 동국대, 동아대)와 B조(경희대, 성균관대, 인천체전, 중앙대, 한양대)로 나누어 서울운동장에서 예선리그를 개최,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린 결승리그에서 고려대가 2승1패로 우승,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벌어진 춘, 추계리그 우승 팀(건국대, 성균관대, 고려대)이 열린 패자 결정전에서 한양대가 2전 전승으로 우승</p> <p>▲A조 순위=①고려대(3승1패) ②연세대(3승1패 추첨) ③건국대, 동아대(2승2패) ⑤동국대(4패)</p> <p>▲B조 순위=①중앙대(3승1패) ②성균관대(2승1무1패) ③경희대(3무1패), 한양대, 인천체전(이상 1승1무2패)</p> <p>▲결승리그 순위=①고려대(2승1패) ②연세대, 성균관대(1승1무1패) ④중앙대(2무1패)</p> <p>△고려대=감독 고평적 및 조두복(3루수), 이성득, 육강수(이상 유격수), 허구연(2루수), 이종도(1루수), 김성관(좌익수), 이무중, 박봉구(이상 중견수), 박광용(포수), 김철, 백신현(白信鉉 이상 우익수), 노길상(투수겸 우익수), 최옥규, 황규봉(이상 투수)</p> <p>▲춘·추계 패자 결정전=①한양대(2승) ②고려대(1승1패) ③건국대(2패)</p> <p>◇개인상 ▲우수선수상=정기혁(한양대) ▲춘계 타격상=조흥운(건국대 .360) ▲추계 타격상=①김봉연(연세대 .462) ②조두복(고려대 .448) ③박종국(연세대 .381) ▲노히트 노런상=김봉연, 김홍곤(이상 연세대) ▲3연타석 홈런상=김봉연(연세대) ▲홈런킹상=김봉연(연세대 4개)</p>	<p>■09.14 해병대사령부 해체 해병대사령부가 창설 24년 만에 해체, 해병대야구단도 전국체육대회(10월 12~17일 부산)를 끝으로 해산</p>  <p>전국대학추계리그 원광대-영남대전 2회초 2번 김경수가 때린 내야 땅볼을 3루수가 빠트리자 2루 주자 박기수가 홈으로 파고 들었으니 태그 아웃.</p>
09.15	<p>■ 김봉연(金奉淵), 대학야구 첫 3연타석 홈런 연세대 투수 김봉연이 전국대학추계리그 2일째 동아대전에서 5회초 좌월 솔로 홈런, 7회초 좌월 2점 홈런, 9회초에도 좌월 2점 홈런을 날려 한국야구 사상 2번째, 대학야구 최초로 3연타석 홈런 기록</p>	
09.15	<p>■ 교토(京都)선발초청 한·일친선대회 대한야구협회 초청으로 일본교토선발 사회인야구팀이 내한,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서울운동장에서 국내 실업 5개 팀(제일은, 기업은, 상업은, 한일은, 한국전력)과 7차전을 개최한 끝에 5승2패를 기록</p> <p>▲1차전(9월 15일 서울)=교토선발 8-4 제일은행 ▲2차전(9월 16일 서울)=교토선발 7-1 기업은행 ▲3차전(9월 18일 대전)=교토선발 3-5 기업은행 ▲4차전(9월 20일 광주)=교토선발 0-11 농협 ▲5차전(9월 22일 서울)=교토선발 4-2 상업은행 ▲6차전(9월 23일 서울)=교토선발 9-3 한일은행 ▲7차전(9월 24일 서울)=교토선발 9-0 한국전력</p>	
09.21	<p>■ 제8회 국회의장배쟁탈 전국6도시초청고교대회 경북야구협회 매일신문사 공동 주최로 9월 21일부터 전국 6개 도시에서 8개 고교 팀(배명, 배재, 인천, 대</p>	<p>■9.25 강타자 윌리 메이스 은퇴 뉴욕 메츠의 홈런왕으로 평균 타율 .380, 홈런 660개를 날린 윌리 메이스(42)가 5</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전, 전주상, 경남상, 대건, 영남고)이 출전한 가운데 대구종합운동장에서 개최, 9월 24일 열린 결승전에서 대건고가 영남고를 4-3으로 누르고 우승</p> <p>▲준결승전=영남고 3-2 배재고, 대건고 3-0 배명고 ▲결승전=대건고 4-3 영남고</p> <p>◇개인상 ▲우수선수상=권영호(대건고 투수) ▲감투상=박형진(朴炯珍 영남고 투수) ▲미기상=고광현(高光鉉 영남고 유격수) ▲타격상=허규옥(許圭沃 대건고 우익수 .667) ▲감독상=김충영(대건고 감독) ▲지도상=백인식(대건고 부장)</p> <p>△영남고=고광현(유격수겸 투수), 박형진(투수겸 유격수),곽원중(郭元鍾 3루수), 김기호(金基浩 포수), 김진수(金鎭洙 좌익수), 김종진(金鍾震 1루수), 조규식(曹圭植 투수겸 1루수), 김영복(金永福 중견수), 박재천(朴在田 2루수), 이동해(李東海), 신성견(辛成見 이상 우익수)</p>	<p>만여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뉴욕 메츠구장에서 22년 간의 선수생활을 마감</p> <p>■09.30 애틀랜타 3명이 40홈런 타자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데이브 존슨(43), 대럴 에번스(41), 행크 에런(40) 등 3명의 40홈런 타자를 동시에 배출</p>
09.29	<p>■제2회 전국우수고교초청대회</p> <p>대한야구협회 주최로 9월 29일부터 전국고교대회 우승, 준우승 6개 팀(경북, 경남, 배재, 군산상, 대구상, 배명고)이 서울운동장에서 A, B조로 나누어 개최, 10월 3일 벌어진 결승 토너먼트 결승전에서 경북고가 배명고를 1-0으로 누르고 대회 2연패</p> <p>▲A조 순위=①배재고(1승1무) ②경북고(1승1패) ③경남고(1승1패) ▲B조 순위=①대구상고(2승) ②배명고(1승1패) ③중앙고(2패) ▲결승 토너먼트=경북고 4-1 대구상고, 배재고 3-2 배명고(연장 21회) ▲3, 4위전=배명고 2-5 대구상고 ▲결승전=경북고 1-0 배재고</p> <p>◇개인상 ▲타격상=①하기룡(河基龍 배재고 .333) ②나승인(羅承仁 배명고 .316) ③이승후(대구상고 .308)</p>	<p>■09.30 월버 우드 첫 20승20패 기록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월버 우드가 24승20패를 마크, 1916년 이후 처음으로 메이저 리그에서 한 시즌에 20승20패를 기록한 투수가 탄생.</p>
10.04	<p>■일본 에어로 마스터 초청 한-일천선대회</p> <p>대한야구협회 초청으로 일본 에어로 마스터(Aero Master) 사회인 팀이 내한, 10월 4일부터 9일까지 국내 대학 및 실업 팀과 7차전 끝에 4승2무1패를 기록</p> <p>▲1차전(10월 4일 서울)=에어로 마스터 1-0 농협 ▲2차전(10월 6일 서울)=에어로 마스터 4-2 한양대 ▲3차전(10월 6일 서울)=에어로 마스터 3-3 육군 ▲4차전(10월 7일 서울)=에어로 마스터 8-0 고려대 ▲5차전(10월 7일 서울)=에어로 마스터 1-1 해병대 ▲6차전(10월 9일 서울)=에어로 마스터 1-5 연세대 ▲7차전(10월 9일 서울)=에어로 마스터 2-0 전육군</p>	<p>■10.10 야기사와(八木澤) 퍼펙트 게임 일본 프로야구 롯데 오리온스의 투수 야기사와가 다이헤이요(太平洋)전에서 9이닝 동안 탈삼진 6개를 기록하며 내야 땅볼 7, 내야 플라이 3, 외야 플라이 4개를 허용한 끝에 1-0으로 일본 프로야구 사상 13번째로 퍼펙트 게임(Perfect Game 완전경기)을 수립</p> <p>■10.11 뉴욕 메츠 월드시리즈 진출 뉴욕 메츠가 시즌 82승79패로 간신히 5할이 넘는 승률(0.509)로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우승을 차지한 뒤 리그 우승 결정전에서 신시내티 레즈를 3승2패로 제치고 월드시리즈에 진출(뉴욕 메츠는 20승 투수, 3할 타자, 100타점 타자를 한 명도 보유하지 못한 채 월드시리즈에 진출한 최초의 팀)</p>
10.12	<p>■제54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p> <p>대한체육회 주최로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개최, 대전고(충남), 한양대(서울), 육군(서울)이 우승</p> <p>▲고등부 준결승전=경남고(부산) 1-0 세광고(충북), 대전고(충남) 4-3 군산상고(전북) ▲동 결승전=대전고(충남) 3-1 경남고(부산)</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대학부 준결승전=한양대(서울) 7-3 인천체전(경기), 동아대(부산) 13-0(6회) 영생대(전북) ▲동 결승전=한양대(서울) 3-2 동아대(부산)</p> <p>▲일반부 준결승전=해병대(경남) 5-3 경북OB(경북), 충북OB(충북) 1-9 육군(서울) ▲동 결승전= 육군(서울) 2-1 해병대(경남)</p>	
10.16	<p>■ 김영춘(金永春),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경남고 투수 김영춘이 제54회 전국체육대회 준결승전에서 충북대표 세광고 27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무안타 무실점 끝에 1-0으로 No Hit No Run 기록</p>	
10.18	<p>■ 윤병석(尹秉錫),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성남중 투수 윤병석이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시장 기점 교육감기쟁탈 중학대회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광운중 27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무안타 무실점 끝에 1-0으로 No Hit No Run 기록</p>	
10.20	<p>■ 이길환(李吉煥),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선린중 투수 이길환이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시장 기점 교육감기쟁탈 중학대회 준결승전에서 배문중 27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무안타 무실점 끝에 2-0으로 No Hit No Run 기록</p>	<p>■ 10.22 어슬레틱스 월드시리즈 2연패 오클랜드 어슬레틱스가 월드시리즈 최종 전인 7차전에서 뉴욕 메츠를 5-2로 물리치고 61, 62년 뉴욕 양키스 이후 11년 만에 4승3패로 월드시리즈 2연패</p>
10.24	<p>■ 제19회 NBC배쟁탈 전국선수권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10월 24일부터 육군, 한일은행, 성균관대, 인천체전, 농협, 상업은행, 연세대, 기업은행, 제일은행, 한국전력, 철도청, 한양대 등 12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토너먼트로 개최, 10월 29일 끝난 결승전에서 한일은행이 연세대를 4-0으로 격파하고 6년 만에 패권 탈환</p> <p>▲준결승전=한일은행 2-1 농협, 연세대 1-0 한국전력 ▲결승전=한일은행 4-0 연세대</p> <p>◇개인상 ▲우수선수상=김호중(한일은행 투수) ▲우수투수상=임신근(한일은행 투수) ▲감투상=유남호(연세대 투수) ▲수훈상=김홍곤(연세대 투수) ▲미기상=백기성(한일은행 2루수) ▲타격상=나재선(농협 좌익수 .417) ▲감독상=김응룡(한일은행 감독)</p>	 <p>대한야구협회 김종락(金鍾瑠) 회장이 우승한 한일은행 주장에게 우승기를 수여하고 있다</p>
10.25	<p>■ 공군 야구단 창단 공군이 해체된 해병대야구단의 김용욱(金用郁) 감독을 비롯해 임신근 등 16명을 흡수, 공군야구단을 창단한 뒤 실업야구연맹에 가맹</p>	
10.30	<p>■ 서울시 중·고 추계연맹전 대광고 첫 우승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10월 30일부터 서울시 중·고교 팀(중학 16, 고교 18교)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1월 22일 끝난 중학부 결승전에서 선린중이 투수 이길환의 퍼펙트 게임에 힘 입어 배명중을 4-0으로 꺾고 우승, 고등부 결승전에서 대광고가 보</p>	<p>■ 10.30 톰 시버 사이영상 획득 뉴욕 메츠의 톰 시버가 샌프란시스코의 론 브라이언트보다 5승이나 적은 19승을 올리고도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을 획득</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성고를 6-2로 꺾고 첫 우승 ◇중등부 ▲준결승전=선린중 3-0 광운중, 배명중 5-2 성남중 ▲결승전=선린중 4-0 배명중 ◇고등부 ▲준결승전=보성고 3-0 충암고, 대광고 2-0 성남고 ▲결승전=대광고 6-2 보성고</p>	
11.06	<p>■유종겸(柳種兼), 노히트노런(No Hit No Run)② 장충고 투수 유종겸이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시 중·고 추계연맹전 B조 8일째 경기에서 선린상고 27타 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무안타 무실점 끝에 1-0으로 두번째 No Hit No Run 기록</p>	<p>■11.01 요미우리 자이언츠 9연패 일본 고라쿠엔(後樂園)에서 열린 재팬시리즈 5차전에서 난카이(南海) 호크스를 5-1 로 물리치고 4승1패로 1965년 이후 9연 패 달성</p>
11.07	<p>■한·일친선대학대회 일본 아이치(愛知)대학연맹과 긴키(近畿)대 공동 초청 으로 한양대를 주축으로 한 대학선발 팀이 도일,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나고야(名古屋), 오사카(大阪), 교 토(京都) 등지 일본 대학 팀들과 6차전을 개최한 끝에 5승1패를 기록 ▲1차전=대학선발 3-4 나고야상대 ▲2차전=대학 선발 1-0 아이치(愛知)대 ▲3차전=대학선발 4-2 주 쿄(中京)대 ▲4차전=대학선발 6-3 긴키(近畿)대 ▲ 5차전=대학선발 8-3 오사카상대 ▲6차전=대학선발 5-2 교토산업대 ◇대학선발 ▲감독=태웅렬(太雄烈) 한양대 ▲코치= 김진영(중양대) ▲투수=정순명, 남우식, 정기혁(이상 한양대), 계형철(성균관대), 유남호(연세대) ▲포수= 양형오(한양대), 심재원(성균관대) ▲내야수=박양윤, 천보성, 이충무, 이희춘(이상 한양대), 이종도, 허구연 (許龜淵 이상 고려대), 권두조(權斗祚 중양대) ▲외야 수=이종훈, 정현발(이상 한양대), 김성관(고려대), 정 구왕(중양대)</p>	<p>■11.16 AGF 중공 가입, 대만 축출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아시아경기 연맹(AGF) 이사회가 중공 가입 및 자유중 국(대만) 축출 결의안을 찬성 38, 반대 13, 기권 5표로 가결</p>
11.19	<p>■한국 세계야구연맹 가입 아마야구 국제기구가 국제연맹(FIBA)과 세계야구연맹 (WABF)으로 양분, 대한야구협회는 11월 19일부터 3 일간 니카라과 마나과에서 미국, 남아연방, 이태리, 호 주, 필리핀 등 자유진영 국가 22개 국이 참가한 가운 데 열린 세계야구연맹 창립 총회에 김정환(金定煥) 전 무이사를 대표로 파견, 창설 회원국으로 등록하고 정 식 가입</p>	
11.22	<p>■이길환(李吉煥), Perfect Game(완전경기) 수립 선린중 투수 이길환이 서울시 중·고 추계연맹전 결승 전에서 배명중 27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무안타, 무실점, 무실점에 4-0으로 Perfect Game 수립</p>	
12.03	<p>■제16회 이영민 타격상 김일권(金一權) 수상 대한야구협회가 제16회 이영민 타격상 수상자로 73 년도 전국 4개 고교대회에서 평균 타율 .415를 기록 한 군산상고 좌익수 김일권을 선정</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1974. 03.16	<p>■ 서울시중·고연맹전 춘계리그 제8회 전국고교대회 서울시에선 중양일보사 서울시중·고야구연맹전 공동 주최로 3월 16일부터 중학 11개 팀, 고교 21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4월 27일 열린 중교 결승전에서 신일중과 중양고가 우승 ▲중학 결승전=신일중 12-8 중양중 ▲고교 준결승전=총암고 1-0 휘문고, 중양고 2-0 동대문상고 ▲동결승전=중양고 6-4 총암고</p>	<p>■ 02.13 소련, 슬제니친 시민권 박탈 소련 반체제 작가 ‘알렉산드로 슬제니친’이 반소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박탈하고 추방</p>
03.28	<p>■ 제1회 부산시장기쟁탈 전국실업대회 한국실업야구연맹·부산MBC-TV 공동 주최로 3월 28일부터 철도청, 한일은행, 한국전력, 농협, 육군, 공군, 제일은행, 기업은행, 상업은행 등 9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구덕구장에서 개최, 4월 1일 열린 결승전에서 한일은행이 육군을 8-4로 꺾고 첫 우승 ▲준결승전=한일은행 5-0, 육군 6-1 기업은행 ▲결승전=한일은행 8-4 육군 ◇개인상 ▲우수선수상=김호중(한일은행) ▲감투상=박해중(육군) ▲미기상=강병철(한일은행) ▲타격상=우시형(한일은행 .444) ▲감독상=김응룡(한일은행)</p>	
04.06	<p>■ 이진우(李振雨),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철도고 투수 이진우가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시고교 춘계연맹전겸 제8회 대통령배 전국고교대회 서울시에선에서 배문고 27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무안타 무실점 끝에 2-0으로 No Hit No Run 기록</p>	<p>■ 04.08 행크 에런 715홈런 폭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행크 에런이 LA 다저스 엘 다우닝으로부터 개인 통산 715호 홈런을 터트려 베이브 루스의 기록(714개)을 돌파</p>
04.09	<p>■ 박창선(朴昌善),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중양중 투수 박창선이 서울시중·고춘계리그(3월 16일~4월 9, 27일 서울운동장) 준결승전에서 배명중을 상대로 9이닝 동안 무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한 끝에 4-0으로 No Hit No Run 수립</p>	
04.10	<p>■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춘계리그 전국실업야구연맹 주최로 4월 10일부터 26일까지 9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26일 끝난 대회 마지막 경기에서 육군이 농협에 2-4로 패해 6승2패로 우승 ◇종합 순위=①육군(6승2패) ②한국전력(5승1무2패) ③제일은행, 공군, 농협(이상 5승3패) ④한일은행(4승1무3패) ⑤상업은행(2승6패) ⑥기업은행(2승6패 이상 승자 승) ⑦철도청(1승7패) ◇개인상 ▲최우수선수상=박해중(육군 포수) ▲우수투수상=주성노(공군 투수) ▲타격상=김우열(제일은행 외야수 .500)</p>	
04.19	<p>■ 제17회 전국4도시선발고교대회 부산일보사 주최로 4월 19일부터 전국에서 8개 고교 팀(부산, 인천, 경남상, 중앙, 경북, 경남, 부산상, 대구</p>	<p>국군재정관리단(전 육군중앙경리단) 역사 기념관에 전시중인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우승 트로피</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상고)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개최, 4월 21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중앙고가 인천고를 4-0으로 격파하고 우승</p> <p>▲준결승전=인천고 2-0 부산고, 중앙고 6-3 경남상고 ▲결승전=중앙고 4-0 인천고</p> <p>◇개인상 ▲우수선수상=문복기(文卜基 중앙고 투수) ▲감투상=임호균(任昊均 인천고 투수) ▲미기상=고용남(高龍男 경남상고 3루수) ▲타격상=김재상(金在相 경남상고 유격수 .500) ▲감독상=하갑득(중앙고 감독)</p> <p>△중앙고=감독 하갑득 및 김종수(유격수), 신현정(申鉉政 중견수), 정동인(鄭東仁 우익수), 강기섭(姜岐涉 포수), 이창현(李昌鉉 3루수), 홍희섭(洪熙燮 1루수), 문복기, 김기준(金基俊 이상 투수), 최동섭(崔東燮 좌익수), 강동균(姜東均 2루수)</p>	<p>■04.15 MLB 최우수선수에 스타겔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타자 윌리 스타겔이 야구기자들에 의한 73년도 내셔널리그 최우수선수 선정 투표에서 행크 에런을 제치고 수상</p> <p>■04.16 행크 에런에 파격적 특혜 미국 프로야구 '명예의 전당' 심사위원회는 은퇴 후 5년 후야라 등록 자격 심사를 하는 규정을 깨고 행크 에런 헌액을 의결</p>
04.20	<p>■ 주성노(朱性魯),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공군 투수 주성노가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 춘계리그(서울운동장)에서 제일은행 29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삼진 5개를 잡으며 볼넷 3개와 도루 1개를 허용한 끝에 2-0으로 No Hit No Run 기록</p>	 <p>제17회 4도시선발고교대회에서 인천고는 임호균을 앞세워 우승을 노렸으나 중앙고에 0-4로 달미를 잡혀 준우승에 머물렀다.</p>
04.24	<p>■ 전국대학연맹전 춘계리그 한국대학야구연맹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4월 24일부터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동아대, 성균관대, 연세대, 영남대, 인천체전, 중앙대, 한양대 등 11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5월 16일 벌어진 최종일 경기에서 고려대가 동국대를 3-1로 물리치고 8승1무1패로 우승</p> <p>◇종합 순위=①고려대(8승1무1패) ②건국대(6승2무2패), 한양대(7승3패) ④성균관대(5승2무3패) ⑤중앙대(4승2무4패), 연세대, 영남대(이상 5승5패) ⑧동아대(4승1무5패) ⑨경희대(3승1무6패) ⑩동국대(3승7패) ⑪인천체전(1무9패)</p> <p>◇개인상 ▲우수선수상=허구연(고려대) ▲타격상=①김봉기(성균관대 .417) ②김정태(金貞台 동아대 .385) ③김봉연(연세대 .371) ▲홈런상=김봉연(연세대 3개) ▲감독상=고광적(고려대 감독)</p> <p>△고려대=감독 고광적 및 박봉구(중견수겸 대주), 김승수(대타), 강경구, 유대성(이상 중견수), 신춘식(대타), 이성득(유격수), 육강수(유격수겸 대타), 허구연(2루수), 김성관(좌익수), 노길상(투수겸 우익수), 조두복(3루수) 김용희(1루수), 백신현(우익수겸 중견수), 박광용, 예형수(이상 포수), 최옥규(투수)</p>	 <p>춘계대학연맹전 8일째 중앙대-고려대 경기에서 고려대의 최옥규가 우중간 2루타를 날리자 3루 주자 김용희가 홈인, 3-3으로 타이틀 이뤘다.</p>  <p>전남일보 김남중(金南中) 사장이 우승을 차지한 송의중 주장에게 우승기를 수여하고 있다.</p>
05.03	<p>■ 제4회 대통령기쟁탈 전국중학대회 전남야구협회 전남일보사 공동 주최로 5월 3일부터 전국에서 13개 중학 팀(경상, 무등, 마산동, 서울 중앙, 동산, 조대부중, 청주, 군산, 송의, 대동, 춘천, 광주 동성, 신일중)이 출전한 가운데 광주공설운동장에서 개최, 5월 6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송의중이 경상중을</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3-2로 누르고 우승 ▲준결승전=송의중 6-4 신일중, 경상중 3-0 동산중 ▲결승전=송의중 3-2 경상중 ◇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재경(송의중 투수) ▲ 감투상=배성환(경상중 투수) ▲타격상=이광섭(송 의중 .500) ▲미기상=김현규(송의중 우익수) ▲흠 련상=이용주(조대부중) ▲감독상=허양욱(송의중 감독)	
05.03	■ 제14회 문교부장관기쟁탈 전국4도시선발고교대회 경북야구협회 매일신문사 공동 주최로 5월 3일부터 총암, 동산, 부산, 경북, 대건, 대구상 등 6개 팀이 출 전한 가운데 대구종합운동장에서 개최, 5월 5일 벌어 진 결승전에서 9회초 대구상이 심판 판정에 불복, 몰 수 패를 당해 대건고가 9-0으로 우승 ▲준결승전=대건고 4-3 경북고, 대구상고 9-4 동산 고 ▲결승전=대건고 9-0 대구상고 ◇개인상 ▲우수선수상=신준옥(申俊玉 대건고 투수) ▲감투상=김차봉(金且奉 대건고 유격수) ▲미기상= 이승후(대구상고 좌익수) ▲타격상=하광희(河光熙 대 구상고 중견수 .667) ▲감독상=홍성덕(洪性德 대건고 감독)	
05.05	■ 구종명(具鍾明),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경상중 투수 구종명이 제4회 대통령기쟁탈 전국중학 대회(광주) 준결승전에서 동산중 27타자를 상대로 9 이닝 동안 무안타 무실점 끝에 3-0으로 No Hit No Run 수립	
05.18	■ 제8회 대통령배쟁탈 전국고교대회 대한야구협회 중앙일보·동양방송 공동 주최로 5월 18 일부터 전년도 우승 팀 대구상고를 비롯해 부산, 부산 상, 송의실, 광주일, 군산상, 전주상, 인천, 동산, 마산 상, 대전, 세광, 대구상, 경북, 대건, 중앙, 휘문, 총암, 동대문상, 천호상, 장중, 철도고 등 21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토너먼트로 개최, 5월 27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경북고가 대구상고를 13-4로 격 파하고 우승 ▲준결승전=대구고 1-0 광주일고, 경북고 4-2 휘문 고 ▲결승전=경북고 13-4 대구상고 ◇개인상 ▲수훈선수상=정진호(丁震鎬 경북고 유격 수) ▲우수투수상=오태섭(吳泰燮 경북고 투수) ▲감 투상=김시진(金始眞 대구상고 투수) ▲우수선수상= 강만식(姜晩植 광주일고 투수) ▲미기상=서영태(徐泳 태 대구상고 유격수) ▲타격상=①장호조(대구상고 1 루수 .500) ②장정호(張正好 경북고 좌익수 .467) ③ 유제룡(柳濟龍 휘문고 투수 .454) ▲타점상=정진호 (경북고 유격수 6) ▲감독상=서영무(경북고 감독) ▲ 공로상=박상희(朴尙熙 경북고 교장), 전정득(全貞得 경북협회 회장) ▲장려상=광주일고, 전주상고	 <p>대통령배쟁탈 고교대회 철도고-광주일 고의 준결승전, 광주일고 3번 조재영이 0-1로 지고 있던 9회말 무사 주자 2, 3루 에서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적시타를 터트 려 주자를 일소, 2-1로 역전승</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경북고=감독 서영무 및 박해성(朴海成 우익수), 박병만(朴柄晩 중견수), 서상보(徐相輔 투수), 이오헌(李五憲 우익수겸 투수), 성낙수(成洛秀 투수), 정진호(유격수) 장정호(좌익수), 김대진(金大鎭 1루수), 손상득(孫祥得 포수), 임종호(林鍾豪 3루수), 김종기(金鍾起 3루수 겸 대타), 오태섭, 이동수(李東秀), 김무균(金武均 이상 투수), 이기호(2루수)</p> <p>△대구상고=감독 김광웅(金光雄) 및 신승식(포수겸 우익수), 서영태(유격수), 이승후(중견수), 장효조(1루수), 하광희(좌익수), 김한근(투수겸 3루수), 우주환(2루수), 진재현(陳在賢 우익수), 최문호(우익수겸 포수) 송진호(宋鎭浩), 김시진(이상 투수), 김기덕(金杞德 3루수), 나인호(羅仁浩), 김운룡(이상 투수), 김형무(金炯武 3루수겸 대타)</p>	
05.27	<p>■제24회 백호기쟁탈 전국대회(명칭 변경) 대한야구협회 경향신문사 공동 주최로 5월 27일부터 9개 군·실업 팀(육군, 공군, 철도청, 농협, 한일은행, 기업은행, 한국전력, 상업은행, 제일은행)과 11개 대학 팀(건국, 경희, 고려, 동국, 동아, 성균관, 연세, 영남, 인천체전, 중앙, 한양대) 등 20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3일 끝난 결승전에서 제일은행이 한일은행을 3-2로 꺾고 우승 ▲준결승전=한일은 5-0 농협, 제일은 5-2 공군 ▲결승전=제일은 3-2 한일은행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장원순(제일은) ▲우수투수상=나유찬(제일은) ▲감투상=임신근(한일은) ▲수훈상=김태석(제일은) ▲미기상=박준영(공군) ▲타점상=장원순(제일은) ▲타격상=①김차열(제일은 14타수 7안타) ②임신근(한일은 8타수 4안타) ③김우열(제일은 13타수 5안타) ▲감독상=박현식(제일은) △제일은행=감독 박현식 및 한동화(2루수), 정동진(포수), 김우열(3루수), 김차열(좌익수), 김태석(중견수), 장원순(1루수), 도중연, 이종도(이상 우익수), 최영일(유격수), 나유찬, 한덕표(韓德杓 이상 투수)</p>	 <p>제24회 백호기쟁탈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제일은행 선수들이 박현식 감독을 행가래 치며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p> <p>■06.04 행크 에런 만루홈런 신기록 애틀랜타의 행크 에런이 필라델피아전에서 16 호 만루홈런을 터뜨려 윌리 더코비가 보유하고 있던 15개를 경신</p>
06.04	<p>■제3회 전국스포츠소년대회 야구경기 대한체육회 주최로 6월 4일 재일교포선수단을 비롯해 전국 시·도 국민학교와 중학교에서 7,674명(임원 2,023명)의 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막, 6월 7일 열린 중학야구 결승전에서 선린중이 동산중을 3-0으로 꺾고 우승 ▲국민학교 준결승전=대신국교 3-0 우암국교, 신흥국교 4-0 가평국교 ▲동 결승전=대신국교(부산) 0-0 신흥국교(경기) 공동 우승 ▲중학 준결승전=선린중(서울) 0-0 청주중(충북), 동산중(경기) 1-0 군산중(전북) ▲동 결승전=선린중(서울) 3-0 동산중(경기)</p>	 <p>소년체전에 참석,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내외분</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6.08	<p>■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하계리그 한국실업야구연맹 주최로 6월 8일부터 실업연맹 소속 9개 팀(공군, 육군, 한국전력, 철도청, 기업은행, 농협, 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21일 끝난 마지막 경기에서 육군과 기업은행이 한국전력과 상업은행을 각각 물리치고 6승1무1패로 공동 우승 ◇종합 순위=①육군, 기업은(이상 6승1무1패) ③농협(5승3패) ④제일은(4승1무3패) ⑤한국전력, 한일은(이상 3승1무4패) ⑦상업은(2승2무4패) ⑧철도청(1승2무5패) ⑨공군(1승1무6패) ◇개인상 ▲최고수훈선수상=강용수(육군 투수), 박상열(기업은 투수) ▲우수투수상=이선희(농협 투수) ▲타격상=박영길(한국전력 우익수 .480) ▲감독상=허종만(육군 감독), 김성근(기업은 감독)</p>	 <p>전국실업연맹전 하계리그에서 6승1무1패로 육군과 공동 우승을 차지한 기업은행 선수들과 임원들</p>
06.22	<p>■ 제29회 청룡기쟁탈 전국고교선수권대회 대한야구협회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6월 22일부터 전국 각 시도에서 선발된 22개 고교 팀(경남, 전주상, 선린상, 보성, 충천, 경북, 인천, 대광, 경남상, 배명, 광주상, 경기상, 군산상, 부산상, 경동, 대건, 대전, 마산, 동산, 청주, 휘문, 광주일고)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토너먼트로 개최, 6월 28일 열린 결승전에서 경북고가 11회 연장전 끝에 군산상고를 4-3으로 제치고 우승 ▲준결승전=경북고 5-1 대광고, 군산상고 7-5 휘문고 ▲결승전=경북고 4-3 군산상고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장정호(경북고 좌익수) ▲감투상=조종규(趙鍾奎 군산상고 포수) ▲수훈상=이동수(경북고 투수) ▲미기상=이병주(李炳柱 대광고 중견수) ▲타격상=①배태욱(裴泰旭 대광고 좌익수 .562) ②박흥석(朴興錫 휘문고 3루수 .556) ③김대진(경북고 1루수 .533) ▲타점상=김성규(金誠圭 대광고 1루수), 손상득(경북고 포수), 이준석(李竣碩 2루수 이상 7타점) ▲감독상=서영무(경북고 감독) △경북고=감독 서영무 및 이기호(李起浩 2루수), 장성규(張聖圭), 허종철(許鍾喆 이상 우익수), 정진호(ユ격수), 장정호(좌익수), 김대진(1루수), 손상득(포수), 임종호(3루수), 김무균, 오태섭, 성낙수, 이동수(이상 투수), 박병만(중견수), 김종기(대타)</p>	 <p>전국고교선수권대회를 보기 위해 몰려든 관중들로 붐비고 있는 서울운동장 야구장 매표소</p>
07.05	<p>■ 지명타자제 정식 채택 7월 5일 한국실업야구연맹이 주최한 실업 올스타전에서 지명타자제를 정식으로 채택, 금융단에서는 김우열(제일은행), 실업단에서는 박영길(한국전력)이 첫 지명타자로 출전</p>	
07.05	<p>■ 제11회 실업야구 올스타전 한국실업야구연맹 주최로 7월 5일 금융단-실업단의 올스타전이 서울(1~3차전)과 부산(4~5차전)에서 개최, 7월 15일 부산에서 끝난 5차전에서 금융단이 실</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업단에 2-3으로 패했으나 종합 전적 4승1패로 우승 ▲1차전(통산 33차전 서울 7월 5일)=금용단 3-0 실업단 ◇개인상 △수훈선수상=김우열(제일은) △승리투수상=박상열(기은) △우수투수상=김명성(한전) △감투상=주성노(공군) △타격상=김우열(제일은 .667) △승리감독상=허정규(농협 감독)</p> <p>▲2차전(통산 34차전 서울 7월 6일)=실업단 4-5 금용단 ◇개인상 △수훈선수상=최주현(기은) △승리투수상=이선희(농협) △우수투수상=임신근(한일은) △감투상=황성록(한전) △타격상=김차열(제일은 1.000)</p> <p>▲3차전(통산 35차전 서울 7월 7일)=금용단 4-0 실업단 ◇개인상 △수훈선수상=이희수(농협) △승리투수상=이선희(농협) △우수투수상=김덕렬(제일은) △감투상=김병일(金炳日 철도청) △타격상=황성록(한전 1.000)</p> <p>▲4차전(통산 36차전 부산 7월 14일)=실업단 3-4 금용단 ◇개인상 △수훈선수상=김차열(제일은) △승리투수상=임신근(한일은) △우수투수상=강용수(한전) △감투상=장진섭(한전) △타격상=김차열(제일은 .500) △미기상=임신근(한일은) △승리감독상=허정규(농협 감독)</p> <p>▲5차전(통산 37차전 부산 7월 15일)=금용단 2-3 실업단 ◇개인상 △수훈선수상=최한익(육군) △승리투수상=김병일(철도청) △우수투수상=강용수(한전) △감투상=정동진(제일은) △타격상=박영길(한전 .500) △미기상=최주현(기은) △승리감독상=김동엽(공군 감독)</p>	 <p>■07.14 윌리엄스 감독 복귀 오클랜드의 괴짜 구단주 찰스 핀리와 대판 싸운 뒤 야구계를 떠났던 덕 윌리엄스 감독이 메이저리그 사상 최고액 연봉인 10만 달러에 캘리포니아 에인절스와 감독 계약, 윌리엄스는 67년 약체인 보스턴 레드삭스를 맡아 아메리칸리그에서 우승을 뽑았으나 구단주와 싸운 뒤 오클랜드로 옮겨 72, 73년 월드시리즈 2연패를 달성</p>
07.10	<p>■긴키(近畿)대초청 한·일친선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7월 10일부터 국내 대학및 실업팀과 10차전을 개최, 7월 18일 부산에서 벌어진 고별전에서 긴키대가 동아대를 7-1로 꺾어 통산 전적 5승 1무2패를 기록</p> <p>▲1차전(7월 10일 서울)=긴키대 0-3 육군 ▲2차전(7월 11일 서울)=긴키대 1-1 기업은행 ▲3차전(7월 13일 서울)=긴키대 4-2 중대·성대연합 ▲4차전(7월 13일 서울)=긴키대 0-1 한양대 ▲5차전(7월 14일 서울)=긴키대 6-3 건국대 ▲6차전(7월 14일 서울)=긴키대 4-2 고려대 ▲7차전(7월 17일 대구)=긴키대 5-1 영남대 ▲8차전(7월 18일 부산)=긴키대 7-1 동아대</p>	
07.15	<p>■제28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대한야구협회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7월 15일부터 전국지역 고교대표 21개 팀(휘문, 경동, 충암, 대광, 장충, 중앙, 선린상, 동산, 인천, 대전, 세광, 군산상, 전주상, 광주일, 송의, 경북, 대건, 대구상, 마산상, 경남, 부산상고)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7월</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21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경남고가 10회 연장전 끝에 대구상고를 3-1로 꺾고 7년 만에 패권 탈환 ▲준결승전=대구상고 3-0 부산상고, 경남고 6-1 광주일고 ▲결승전=경남고 3-1 대구상고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차동렬(경남고 포수) ▲우수투수상=정춘섭(鄭春燮 경남고 투수) 감투상=김한근(대구상고 투수) ▲미기상=김동희(金東熙 대전고 우익수), 김태수(충암고 3루수) ▲수훈상=배경환(裴景煥 경남고 좌익수) ▲타격상=①김동원(부산상고 포수 .556) ②김한근(대구상고 투수 .529) ③박민호(朴珉浩 경남고 좌익수 .467) ▲타점상=①김한근(대구상고 투수) ②박정웅(朴正雄 부산상고 우익수) ③김윤환(金允煥 광주일고 중견수) ▲지도상=김희련(경남고 감독) ▲공로상=노은식(盧殷植 경남고 교장), 김한민(金漢暻 부산협회장) △경남고=감독 김희련 및 김종권(金鍾權 3루수), 박민호(우익수), 정기조(2루수), 홍종진(1루수), 우경하(禹京夏 유격수), 차동렬(포수), 배경환(투수겸 좌익수), 이선광(李善光 좌익수), 정춘섭(투수), 이충원(중견수)</p>	 <p>전국지구별초청 고교쟁패권 경남고-대구상고의 야간경기 직전 불을 밝힌 서울운동장 야구장</p>  <p>황금사자기를 받고 있는 경남고 주장 차동렬</p>
07.23	<p>■제20회 NBC배쟁탈 전국선수권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7월 23일부터 육군, 공군, 철도청, 한국전력, 농협, 상업은행, 한일은행, 제일은행, 기업은행, 고려대, 경희대, 중앙대, 성균관대, 동아대, 건국대, 영남대, 인천체전, 한양대, 동국대 등 19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토너먼트로 개최, 7월 30일 열린 최종일 경기에서 기업은행이 농협은 6-3으로 깨고 우승(이 대회를 끝으로 폐지) ▲준결승전=기업은행 3-0 육군, 농협 3-0 한일은행 ▲결승전=기업은행 6-3 농협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윤동균(기업은행) ▲우수투수상=박상열(기업은행) ▲감투상=이선희(농협) ▲수훈상=박춘웅(기업은행) ▲미기상=한동화(제일은행) ▲타격상=조창수(趙昌秀 제일은행 .438) ▲감독상=김성근(기업은행 감독) ▲대표자상=배수곤(裴秀坤 기업은행장)</p>	<p>■07.23 내셔널리그 3연승 7월 23일 밤 피츠버그 쓰리리버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45회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서 내셔널리그가 7-2로 아메리칸리그를 격파하고 3연승, 통산 전적 26승1무18패를 기록</p>
07.24	<p>■제5회 세계리틀야구선수권대회 극동예선전 세계리틀야구연맹 주최로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한국을 비롯해 자유중국(대만), 일본, 필리핀, 홍콩, 괌 등 6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필리핀 마닐라 리잘구장에서 개최, 한국은 7월 28일 벌어진 최종일 경기에서 홍콩을 3-0으로 물리치고 종합 성적 3승2패로 일본, 필리핀과 공동 준우승</p>	<p>■07.24 미국여자프로야구 발기 총회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여자프로야구 발기 총회를 갖고 1975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기로 결정</p>
07.28	<p>■제26회 화랑기쟁탈 전국고교대회 부산야구협회 국제신보사 공동 주최로 7월 28일부터 전국 각 시 도에서 22개 고교 팀(경북, 인천, 중앙, 광주상, 휘문, 동신, 부산, 대전, 군산상, 대건, 대광, 경남상, 전주상, 충암, 선린상, 마산상, 대구상, 동산, 장충,</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청주, 경동, 부산고)이 출전한 가운데 구덕구장에서 개최, 8월 6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부산상고가 대광고를 4-2로 제치고 우승(제25회 대회는 구장 보수 관계로 중지)</p> <p>▲준결승전=대광고 4-3 인천고, 부산상고 3-0 충암고 ▲결승전=부산상고 4-2 대광고</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최영명(崔瑛明 부산상 투수) ▲최우수투수상=선우대영(鮮于大泳 대광고 투수) ▲감투상=신종세(辛宗世 부산상고 포수) ▲포수상=김용달(金龍達 대광고 포수) ▲타격상=①이창재(李昌宰 선린상고 유격수 .545) ②박명선(朴明善 인천고 유격수 .444) ▲미기상=문주언(文周彦 부산고 유격수) ▲감독상=이형(부산상고 감독) ▲지도상=이길상(李吉相 부산상고 야구부장)</p> <p>△부산상고=감독 이형 및 신종세(포수), 김영만(金榮萬 중견수), 김용철(金容哲 3루수), 박정웅(1루수), 문주언(유격수), 장민식(張玟植), 전광원(全光源 이상 우익수), 이윤섭(李潤燮 투수), 한철수(韓哲洙 좌익수) 김동원(포수), 최영명(투수겸 좌익수), 지대홍(池大洪 2루수), 노상수(투수)</p> <p>△대광고=감독 선우종 및 이준석(2루수), 이방우(李邦雨 3루수), 김용달(포수), 김성규(1루수), 배태욱(裴泰旭 우익수), 김진태(金珍太 우익수), 선우대영(투수겸 좌익수), 홍찬기(洪燦基 대타), 박완식(朴完植 유격수), 이동영(李東英 좌익수겸 투수), 이병주(중견수)</p>	 <p>화랑기쟁탈 전국고교대회 준준결승 인천고-휘문고전. 인천고의 3회말 공격에서 1사후 3번 이철성의 희생 플라이로 3루 주자 김영주가 홈으로 뛰어들어 결승점을 올렸다.</p>
07.31	<p>■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추계리그</p> <p>한국실업야구연맹 주최로 7월 31일 실업연맹 소속 9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9월 20일 끝난 최종일 경기에서 한일은행이 공군을 6-1로 꺾고 8전 전승으로 우승</p> <p>◇추계리그 순위=①한일은행(8승) ②제일은행(6승2패) ③기업은행, 상업은행(이상 5승3패) ④농협, 육군(이상 3승1무4패) ⑦철도청(1승2무5패) ⑧공군(3무5패), 한국전력(1승1무6패)</p> <p>◇종합 순위=①한일은행, 육군(이상 15승2무7패) ③제일은행(15승1무8패) ④농협, 기업은행(이상 13승1무10패) ⑥한국전력(9승3무12패) ⑦상업은행(9승2무13패) ⑧공군(6승4무14패) ⑨철도청(3승4무17패)</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최남수(한일은행 중견수) ▲우수투수상=김호중(한일은행 투수) ▲타격상=최주현(기업은행 중견수 .433) ▲신인상=박상열(기업은행 투수 11승6패), 홍경태(한일은행 우익수 타율 .330) ▲노히트노런상=주성노(공군 투수) ▲9백호 홈런상=임경고(한국전력 2루수)</p>	 <p>공군-기업은행전 9회초 2사후 주자 2, 3루의 찬스에서 공군 4번 김중구(金鍾球)가 스윙 아웃, 영패를 면할 절호의 찬스를 잃었다.</p>
08.02	<p>■임호균(任昊均), 노히트노런(No Hit No Run)①</p> <p>인천고 투수 임호균이 부산 구덕경기장에서 열린 제26회 화랑기쟁탈 전국고교대회 준준결승전에서 휘문고 27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삼진 3개를 잡고 볼넷 1</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개 만을 허용한 끝에 1-0으로 No Hit No Run 기록	
08.03	<p>■ 한신(阪神)지역선발초청 한·일친선대학대회 대한야구협회 초청으로 한신지역 대학선발 팀이 내한, 8월 3일부터 8일까지 부산, 대구, 서울에서 4차전을 가진 끝에 2승2패를 기록 ▲1차전(8월 3일 부산)=한신선발 7-2 동아대 ▲2차전(8월 4일 대구)=한신선발 1-0 영남대 ▲3차전(8월 7일 서울)=한신선발 1-2 건국대 ▲4차전(8월 8일 서울)=한신선발 1-3 한양대</p>	
08.05	<p>■ 한국고교선발 일본원정 한·일친선고교대회 일본고교야구연맹 초청으로 황금사자기쟁탈 고교쟁패전 우승(경남고), 준우승(대구상고) 팀을 주축으로 구성된 한국고교선발이 일본에 원정, 8월 5일부터 15일까지 간사이(關西)지방에서 5차전을 가진 끝에 3승2패를 기록 ▲1차전(8월 5일)=한국선발 2-7 오사카(大阪)선발 ▲2차전(8월 7일)=한국선발 2-0 오카야마(岡山)선발 ▲3차전(8월 8일)=한국선발 3-1 효고(兵庫)선발 ▲4차전(8월 10일)=한국선발 1-0 미에(三重)선발 ▲5차전(8월 11일)=한국선발 2-3 나고야(名古屋)선발 ◇한국고교선발 ▲단장=정기승(鄭起勝 협회 이사) ▲부단장=노은식(盧殷植 경남고 교장) ▲이명구(중고연맹 전무) ▲감독=김희련(경남고 감독) ▲투수=정춘섭 배경환(이상 경남고), 강만식(광주일고), 김운룡(대구상고) ▲포수=차동렬(경남고), 김동원(부산상고) ▲내야수=홍종진, 정기조, 우경하(이상 경남고), 김한근, 우주환(이상 대구상고) ▲외야수=이충원(경남고), 이승후, 장효조(이상 대구상고)</p>	<p>■ 08.09 닉슨, 워터게이트로 사임 미국의 제37대 대통령 ‘리처드 밀하우스 닉슨’이 8월 9일 상오 10시 전국 라디오와 TV방송망을 통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야기된 일련의 정치적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하야한다고 공식 발표</p>
08.12	<p>■ 제4회 봉황기쟁탈 전국고교대회 대한야구협회 한국일보사 공동 주최로 8월 12일부터 전년도 우승 팀 대구상고를 비롯해 47개 팀(경북, 동신, 휘문, 경기상, 마산, 광주일, 부산상, 배재, 인천, 경남, 천호상, 광주상, 공주, 충암, 동산, 영남, 배명, 대전, 상문, 성동, 세광, 진흥, 선린상, 대구상, 경남상, 청주, 중앙, 장충, 청량공, 마산상, 보성, 군산상, 성남, 유한공, 배문, 전주상, 철도, 대광, 송의실, 서울, 전남, 경동, 대건, 동대문상, 부산, 인천공, 재일교포)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8월 26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대구상고가 재일교포 팀을 10-5로 격파하고 대회 2연패 ▲준결승전=대구상고 9-2 광주상고, 재일교포 2-1 전주상고 ▲3, 4위 결정전=전주상고 3-2 광주상고 ▲결승전=대구상고 10-5 재일교포 ◇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한근(대구상고 3루수) ▲우수투수상=김운룡(대구상고 투수) ▲수훈선수상=장효조(대구상고 1루수) ▲감투상=최용측(崔龍則 재일교포 포수) ▲타격상=신승식(대구상고 포수 .550) ▲최다 안타상=신승식(대구상고 11안타) ▲최다 타점</p>	<p>■ 08.10 스타인브레너 집무정치 처분 뉴욕 양키스의 조지 스타인브레너 구단주가 워터게이트사건에 연루돼 보위 쿤 커미셔너에 의해 집무정치처분</p> <p>■ 08.15 서울지하철 1호선 개통식 1971년 4월에 착공, 3년 4개월 만에 완공을 본 서울지하철 1호선(9.54km)과 수도권 전철(98.6km)이 서울 영등포구 구로역에서 개통</p> <p>■ 08.15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 피살 8월 15일 상오 10시 23분 대통령 부인 육영수(陸英修) 여사가 광복절 경축식장인 국립극장에서 저격범 문세광(文世光)이 쏜 흉탄에 머리를 맞고 서울대부속병원에서 5시간40분간 수술을 받았으나 운명</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상=신승식(대구상고 10타점) ▲감독상=김광웅(대구상고 감독), 한재우(재일교포 감독) ▲지도상=이호영(대구상고 부장), 최태환(재일교포 부장) ▲장려상=서울고, 유한공고, 천호상전, 공주고, 인천공고, 동신고 ▲응원상=경동고</p> <p>△대구상고=제8회 대통령배쟁탈 전국고교대회 참조 △재일동포=감독 한재우 및 최용칙(포수), 한광일(韓光一 포수겸 우익수), 김순호(金順昊 포수), 김성길(金誠吉), 유경이(柳敬二 이상 투수), 차황백(車晃伯 중견수), 이순호(李順浩 투수겸 우익수), 최규치(崔珪治 유격수), 이용남(李隆男), 권영민(權寧敏 이상 좌익수), 김영태(金永泰 1루수), 박병재(朴炳在 3루수), 전승기(全勝己 2루수), 고수길(高秀吉 우익수겸 1루수), 허용태(許龍太 우익수)</p>	<p>■08.21 대통령 경호실장에 차지철 박정희 대통령이 박종규(朴鍾圭) 전경호실장 후임으로 차지철(車智澈) 국회내무위원장을 임명</p>
08.27	<p>■제4회 회장기쟁탈 전국국민학교대회</p> <p>한국국민학교야구연맹 주최로 8월 27일부터 전국에서 11개 국민학교 팀(대전 선화, 전남 송정, 군산 금광, 청주 우암, 전남 송정동, 대구 해서, 부산 대연, 서울 봉천, 부산 대신, 강원 단계, 서울 유석)이 출전한 가운데 장충리틀구장에서 개최, 8월 30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서울 봉천국교가 인천 신흥국교를 4-1로 물리치고 우승</p> <p>▲준결승전=봉천국 1-0 대신국, 신흥국 3-2 해서국 ▲결승전=봉천국 4-1 신흥국</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신현철(申懸哲 봉천국 투수) ▲감투상=심준기(신흥국 투수) ▲타격상=나성국(羅成國 봉천국 .714) ▲미기상=김범수(신흥국) ▲감독상=김길홍(金吉洪 봉천국 감독)</p>	
08.27	<p>■제21회 전국중학선수권대회</p> <p>대한야구협회 주최로 8월 27일부터 10개 중학 팀(부산 동성, 대동, 송의, 대건, 신일, 선린, 군산, 청주, 충남, 동산중)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8월 31일 끝난 결승전에서 선린중이 부산 동성중을 3-2로 제치고 우승</p> <p>▲준결승전=동성중 5-1 신일중, 선린중 4-0 군산중 ▲결승전=선린중 3-2 부산 동성중</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이길환(선린중 투수) ▲감투상=양상문(동성중) ▲타격상=신군식(申君植 선린중 .455) ▲미기상=이선웅(李善雄 선린중) ▲감독상=정영수(선린중 감독)</p>	
09.04	<p>■전국대학추계연맹전</p> <p>한국대학야구연맹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9월 4일부터 10개 팀이 A조(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동아대, 영남대)와 B조(경희대, 성균관대, 인천체전, 중앙대, 한양대)로 나뉘어 서울운동장에서 예선대회를 개최, A, B조 상위 2개 팀이 자웅을 겨룬 결승리그에서 한양대가 2승으로 우승</p>	<p>■09.07 MLB 최초 구속 100마일 돌파</p> <p>캘리포니아 에인절스의 놀란 라이언이 메이저리그 사상 최초로 100마일(약 161km)이 넘는 강속구(100.6마일)를 기록</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결승리그=①한양대(2승) ②건국대, 성균관대(1승1무1패) ④영남대(1무2패)</p> <p>◇개인상 ▲우수선수상=김정수(한양대 1루수) ▲타격상=김재박(영남대 유격수 .379) ▲홈런상=이해창(건국대 중견수) ▲노히트노런상=정성만(鄭成萬 성균관대 투수)</p>	
09.11	<p>■ 정성만(鄭成萬), 노히트노런(No Hit No Run)</p> <p>성균관대 투수 정성만이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전국대학 추계연맹전 예선리그 최종일 경기에서 경희대 27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삼진 4개를 잡고 사사구 4개를 허용한 끝에 4-0으로 No Hit No Run 기록</p>	
09.16	<p>■ 제17회 문교부장관기쟁탈 전국중학초청대회</p> <p>경북야구협회 대구일보사 공동 주최로 9월 16일부터 전국 12개 중학 팀(광주 동성, 송의, 군산, 경상, 경운, 대구, 영남, 동대문, 선린, 중앙, 동인천, 대신중)이 출전한 가운데 대구종합경기장에서 개최, 9월 21일 열린 결승전에서 대구중이 12회 연장전 끝에 경상중을 3-2로 누르고 우승</p> <p>▲준결승전=경상중 3-2 군산중, 대구중 5-1 광주 동성중 ▲결승전=대구중 3-2 경상중</p> <p>◇개인상 ▲우수선수상=임한우(대구중) ▲감투상=하태욱(경상중) ▲타격상=박철경(대구중 .625) ▲미기상=강호근(경상중) ▲감독상=허청길(대구중 감독) ▲지도상=최은진(대구중 교장)</p>	
09.21	<p>■ 제3회 전국우수고교초청대회</p> <p>대한야구협회 주최로 9월 21일부터 5개 전국대회(대통령배, 봉황기, 청룡기, 황금사자기, 화랑기) 우승, 준우승 8개 팀(경북, 경남, 광주일, 군산상, 대광, 대구상, 부산, 휘문고)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9월 27일 벌어진 최종 결승전에서 경북고가 6-4로 경남고를 꺾고 대회 3연패</p> <p>▲승자 결승전=경북고 4-0 대구상 ▲패자 준결승전=경남고 3-0 군산상 ▲패자 결승전=경남고 3-1 대구상 ▲결승전=경북고 3-6 경남고 ▲최종 결승전=경북고 6-4 경남고</p> <p>◇개인상 ▲타격상=①장정호(경북고 좌익수 .400) ②차동렬(경남고 포수 .348) ③우경해(禹京夏 경남고 유격수 .333)</p>	 <p>우수고교초청대회 결승전에서 경남고를 6-4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한 경북고 주장에게 대한야구협회 김종락(金鍾珞) 회장이 우승 트로피를 수여하고 있다.</p>
09.29	<p>■ 제8회 대통령기쟁탈 전국대학초청대회</p> <p>대한야구협회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9월 29일 전년도 우승 팀 고려대를 비롯해 영남, 서울, 한양, 건국, 경희, 인천체전, 동아, 연세, 성균관, 동국, 중앙대 등 12개 대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3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건국대가 성균관대를 1-0으로 누르고 대회 첫 우승</p> <p>▲준결승전=건국대 4-1 영남대, 성균관대 5-1 고려</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대 ▲결승전=건국대 1-0 성균관대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이해창(건국대 중견수) ▲감투상=계형철(桂滢鐵 성균관대 투수) ▲수훈상=김호인(건국대 좌익수) ▲타격상=이해창(건국대 중견수 .571) ▲지도상=강태정(건국대 감독) △건국대=감독 강태정 및 서정환(2루수), 윤병선(유격수), 김호인, 기세인(이상 좌익수), 이해창, 박영완(이상 중견수), 조흥운(3루수겸 우익수), 윤몽룡(우익수겸 투수), 황기화(1루수), 편기철, 박명수(朴明守 이상 투수겸 우익수), 한형국(3루수), 유기봉, 방기만(이상 포수)</p>	
10.01	<p>■ 제9회 국회의장배쟁탈 전국6도시초청고교대회 경북야구협회 매일신문사 공동 주최로 10월 1일부터 경동, 휘문, 인천, 대전, 군산상, 부산상, 경북, 대건, 대구상고 등 9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대구종합운동장에서 개최, 10월 4일 열린 결승전에서 경북고가 인천고를 3-0으로 물리치고 우승 ▲준결승전=경북고 8-3 대건고, 인천고 1-0 대구상고 ▲결승전=경북고 3-0 인천고 ◇개인상 ▲우수선수상=성낙수(경북고 투수) ▲감투상=임호균(인천고 투수) ▲미기상=정진호(경북고 유격수) ▲타격상=장정호(경북고 좌익수 .500) ▲감독상=서영무(경북고 감독) △인천고=유승욱(柳承旭 중견수겸 우익수), 김영주(金永柱 2루수), 양승관(梁承琯 유격수), 이철성(3루수), 박명선(유격수겸 중견수), 장정기(張貞起 우익수겸 2루수), 박성호(朴成鎬 1루수겸 투수), 김진철(金鎭喆 포수), 김동환(金東煥), 정인규(丁仁奎 이상 좌익수), 김진우(金鎭雨 대타겸 포수), 임호균(투수)</p>	<p>성균관대와 맞붙은 결승전 4회초 솔로 홈런을 날려 우승을 결정지은 건국대 김호인이 흥인하고 있다.</p>
10.04	<p>■ 임호균,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② 인천고 투수 임호균이 대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9회 국회의장배쟁탈 전국6도시고교초청대회 준결승전에서 대구상고 26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탈삼진2, 볼넷2, 잔루1로 1-0 생애 두번째 No Hit No Run 기록</p>	<p>■ 10.03 메이저리그 첫 흑인 감독 지난 20년간 메이저리그를 주름잡았던 프랭크 로빈슨(39)이 흑인으로는 최초로 클리블랜드와 연봉 18만 달러에 감독 계약</p>
10.08	<p>■ 제55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대한체육회 주최로 10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대구상고(경북), 영남대(경북), 경기OB(경기)가 우승 ▲고등부 준결승전=광주일고(전남) 3-4 휘문고(서울), 인천고(경기) 1-6 대구상고(경북) ▲동 결승전=대구상고(경북) 5-0 휘문고(서울) ▲대학부 준결승전=영남대(경북) 4-2 건국대(서울), 동아대(부산) 5-2 인천체전(경기) ▲동 결승전=영남대(경북) 1-0 동아대(부산) ▲일반부 준결승전=경기OB(경기) 1-0 육군(서울), 경남OB(경남) 7-2 전북OB(전북) ▲동 결승전=경기OB(경기) 2-0 경남OB(경남)</p>	<p>■ 10.13 일본 나가시마 현역 은퇴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나가시마(長嶋茂雄)가 74년도 시즌을 끝으로 현역에서 은퇴한 뒤 감독으로 새 출발</p> <p>■ 10.17 오클랜드 월드시리즈 3연패 오클랜드 어슬레틱스가 월드시리즈 5차전에서 8년 만에 메이저리그 정상에 노린 LA 다저스를 3-2로 누르고 4승1패로 우승, 월드시리즈 3연패 달성</p> <p>■ 10.23 롯데 재팬시리즈 장악 일본 프로야구 패시픽리그의 롯데 오리온스가 재팬시리즈 6차전에서 센트럴리그 주니치 드래곤스를 10회 연장전 끝에 3-2</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10.15	<p>■ 서울시중·고연맹전 추계리그 서울시중·고야구연맹 주최로 10월 15일부터 중학 14개 팀, 고교 18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1월 12일 열린 결승전에서 배문고가 선린상고를 8-0으로 격파하고 우승 ▲중학 결승전=배문중 9-3 중앙중 ▲고교 준결승전=선린상고 3-0 천호상전, 배문고 13-4 유한공고 ▲동 결승전=배문고 8-0 선린상고 ◇개인상 ▲우수상=김정태(金正泰 배문고 투수) ▲감투상=양재락(梁在洛 선린상 투수) ▲타격상=①이근우(李根雨 철도 .500) ②김용운(金容雲 천호상 .500) ▲최다 안타상=곽중근(郭仲根 유한공 10개) ▲타점상=김정태(10점)</p>	<p>로 제치고 4승2패로 우승</p> <p>■ 10.30 구원투수 첫 사이영상 수상 구원투수로 최다 등판(106게임) 신기록을 세우며 15승12패21세이브를 기록한 LA 다저스 마이크 마셜이 내셔널리그 최초로 사이영상 수상</p>
11.08	<p>■ 한국직업야구위원회 결성 재미교포 실업가 홍윤희(洪胤熹)가 한국실업야구연맹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칭 '한국직업야구추진위원회'를 결성, 위원장을 맡은 뒤 추진위원으로 장태영(張泰英 상업은행 야구부장), 허종만(許宗萬 육군 감독), 김계현(金桂鉉 한국전력 감독), 박현식(朴賢植 제일은행 감독), 허정규(許正奎 농협 감독), 정두영(鄭斗永 철도청 감독), 이호헌(李虎憲 실업연맹 사무국장)을 선임</p>	
12.12	<p>■ 제17회 이영민 타격상 박명선(朴明善) 수상 대한야구협회가 제17회 이영민 타격상 수상자로 74년도 전국 5개 고교대회에서 평균 타율 .440을 기록한 인천고 유격수 박명선을 선정</p>	
1975. 01.7	<p>■ 대한중·고야구연맹 신집행부 구성 대한중·고야구연맹이 1월 17일 연맹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 집행부를 구성 ▲회장=조서희 ▲부회장=손만호, 이창노, 유승덕 ▲이사=이명구(전무), 정신택(총무), 박태범(재무), 이규성(경기), 남주현(섭외), 박상규, 박찬웅, 오도광, 박선오, 민욱기, 공주열, 박현덕, 이길상, 김종태, 신해철 ▲감사=이종린</p>	<p>■ 01.05 짐 헌터 사상 최고 몸값 74년 아메리칸리그 최우수선수로 사이영상을 수상한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의 자유계약선수 짐 헌터가 메이저리그 105년 역사상 최고액 몸값인 375만 달러를 받고 뉴욕 양키스로 이적</p>
01.15	<p>■ 한국실업야구연맹 집행부 전원 유임 한국실업야구연맹이 정기 총회를 열고 집행부 개편을 논의한 끝에 상임이사 일부를 교체하고 김봉은(金奉殷)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전원 유임을 의결 ▲회장=김봉은 ▲부회장=김원(金洵), 이극호(李極浩), 공덕중(孔德鍾) ▲전무이사=허종만 ▲총무이사=허정규(이상 유임) ▲재무이사=장태영(신임) ▲이사=김계현, 정두영, 김응룡, 유백만, 남승진(南承晉), 강대중, 김영조, 박현식(이상 유임), 배수찬, 주세현(이상 신임) ▲감사=김재송(유임)</p>	<p>■ 02.10 앤드루스, 일본 프로야구 입단 메이저리그 오클랜드 어슬레틱스에서 방출 당한 내야수 마이크 앤드루스(31)가 일본 프로야구 퍼시픽리그의 긴테쓰(近鐵) 버팔로스와 1년 입단 계약.</p>
03.25	<p>■ 강만식(姜晩植), Perfect Game(완전경기) 수립 광주일고 투수 강만식이 광주일고 운동장에서 열린</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전남 중·고교 춘계연맹전겸 제9회 전국고교대회 전남예선에서 광주진흥고 27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10연속 탈삼진을 기록하며 삼진 18개를 잡은 끝에 4-0으로 생애 2번째 Perfect Game 수립</p>	
03.30	<p>■ 서울시중·고연맹전 춘계리그겸 제9회 전국고교대회 서울예선 서울시중고야구연맹 주최로 3월 30일부터 서울시 고교 22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4월 10일 끝난 결승전에서 보성고가 휘문고를 8-0으로 격파하고 팀 창설 2년 만에 첫 우승 ▲준결승전=보성고 5-4 동대문상, 휘문고 3-1 철도고 ▲결승전=보성고 8-0 휘문고 ◇개인상 ▲최우수선수상=박영민(朴永敏 보성고 3루수) ▲우수투수상=이창호(李昌浩 보성고 투수) ▲감투상=김현재(휘문고 투수) ▲수훈선수상=정동균(鄭東均 보성고 좌익수) ▲타격상=김인철(金仁哲 경기상고 포수 .625)</p>	
03.30	<p>■ 듀플로(Duplo)초청 한·일친선경기 대한야구협회가 제11회 아시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전력 점검차 일본 긴키(近畿)지방 사회인야구 듀플로 팀을 초청,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에서 실업선발 및 영남대와 4차전을 치른 끝에 1승 3패를 기록 ▲1차전(3월 30일 서울)=듀플로 6-1 실업선발 ▲2차전(4월 1일 부산)=듀플로 0-4 실업선발 ▲3차전(4월 2일 부산)=듀플로 5-6 실업선발 ▲4차전(4월 3일 대구)=듀플로 1-3 영남대 △듀플로=코이데(小出), 박창광(朴彰光 이상 우익수), 손연호(孫連浩 유격수), 다루모토(樽本 2루수), 안용길(安龍吉 대타), 노다(野田 2루수), 히라이(平井 3루수), 사사야마(笹山 1루수), 하마(浜 좌익수), 도비타(飛田 중견수), 하수칙(河秀則 투수), 모리카와(森川 대타), 구다니(九谷 투수), 후지와라(藤原 포수), 요시오카(吉岡 대타) △실업선발=윤동균(우익수), 이해창(중견수), 우용득(포수), 박해중(대타), 양형오(포수), 김차열(좌익수), 강병철(3루수), 김용운(金容允 1루수), 장호조(대주), 유대성(대타), 백기성(2루수), 김재박(유격수), 홍경태(대타), 배대웅(유격수), 강용수(투수), 허구연(대타), 주성노(투수), 천보성(대타), 김호중, 박상열(이상 투수)</p>	 <p>1차전에서 포구 실수로 대량 실점의 빌미를 제공한 윤동균(尹東均)이 2차전에서선 7회말 승리를 굳히는 2점 홈런을 날린 뒤 홈인하고 있다.</p> 
04.03	<p>■ 제2회 부산시장기쟁탈 전국실업대회 전국실업야구연맹 부산MBC-TV 공동 주최로 4월 3일부터 제일은행, 육군, 상업은행, 철도청, 농협, 기업은행, 한일은행, 한국전력, 공군 등 9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 구덕구장에서 개최, 4월 7일 열린 결승전에서 공군이 2-1로 제일은행을 누르고 우승 ▲준결승전=제일은행 4-1 농협, 공군 4-0 한일은행</p>	<p>제일은행-공군 결승전 6회말, 1사 만루에서 공군 7번 홍재진(洪在鎭)의 유격수 앞 땅볼로 3루 주자 박순철(朴淳哲)이 홈인, 2-0으로 리드를 잡아 팀 창설 이후 첫 우승</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결승전=공군 2-1 제일은행 ◇개인상 ▲우수선수상=김인복(공군) ▲우수투수상=주성노(朱性魯 공군) ▲감독상=김우열(金宇烈 제일은행) ▲타격상=홍경태(한일은행 .600) ▲감독상=김동엽(공군 감독) △공군=감독 김동엽 및 오명원(吳明元 3루수), 박준영(좌익수), 박순철(1루수), 박노국(朴魯國 중견수), 이종도(우익수), 김창식(金昌植 포수), 홍재진(유격수), 주성노, 김인복(이상 투수), 변동원(2루수) △제일은행=감독 박현식 및 한동화(2루수), 정동진(포수), 김우열(3루수), 김차열(좌익수), 장원순(1루수), 김태석(중견수), 도종연(우익수), 권두조(유격수), 김병우, 김덕렬(이상 투수), 김중환(金重煥 대타), 이영완(李英玩 대주)</p>	
04.11	<p>■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춘계리그 한국실업야구연맹 주최로 4월 11일 한일은행, 제일은행, 상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육군, 공군, 한국전력, 철도청 등 9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4월 22일 벌어진 최종일 경기에서 한국전력이 공군을 3-1로 꺾고 5승1무2패로 우승 ◇춘계리그 종합 순위=①한국전력(5승2무1패) ②기업은행(5승1무2패) ③공군, 한일은행, 육군(이상 4승1무3패) ⑥농협(4승4패) ⑦제일은행(3승1무4패) ⑧철도청(2승1무5패) ⑨상업은행(1승7패) ◇춘계리그 개인상 ▲최고수훈선수상=황성록(한전 중견수) ▲우수투수상=강용수(한전 투수 4승) ▲타격상=최재봉(기은 .370) ▲감독상=김계현(한전 감독) △한국전력=감독 김계현 및 양종수, 최정상(이상 좌익수), 박명선(2루수), 황성록(중견수), 박영길(우익수), 장진섭(유격수), 이충무(1루수), 유두열(柳斗烈), 임상준(이상 포수), 김준영(3루수), 김수찬(金秀燦 대주), 강용수, 김명성, 이광권(李光權 이상 투수)</p>	<p>우승을 차지한 한국전력 선수들이 김계현(金桂鉉) 감독을 행가래치고 있다</p> 
04.15	<p>■전국대학연맹전 춘계리그 전국대학야구연맹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4월 15일부터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동아대, 성균관대, 연세대, 영남대, 인천체전, 중앙대, 한양대 등 10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인천시리즈(15~22일)와 서울시리즈(4월 23일~5월 6일)로 나누어 개최, 5월 6일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종일 경기에서 영남대가 성균관대를 3-1로 물리치고 8승1패로 대회 첫 우승 ◇종합 순위=①영남대(8승1패) ②성균관대, 동국대, 한양대, 건국대(이상 5승2무2패) ⑥중앙대(4승1무4패) ⑦경희대(3승1무6패) ⑧연세대(2승1무6패) ⑨동아대(1승2무6패) ⑩인천체전(1무8패) ◇개인상 ▲우수선수상=김재박(영남대) ▲타격상=①김인식(성균관대 .417) ②장효조(한양대 .414) ③류상호(柳相浩 성균관대 .391) ▲노히트 노런상=석주옥(영남대) ▲감독상=배성서 △영남대=감독 배성서 및 권정화(權貞華 중견수), 전</p>	<p>창단 3년 만에 전국을 제패한 영남대에게 이봉모(李奉模) 대학연맹 부회장이 대형 트로피를 수여하고 있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기호(全基豪 2루수겸 유격수및 우익수), 김재박(유격수겸 투수), 박경룡(1루수), 김승환(金承煥 3루수), 김성호(金聖鎬 대타겸 우익수), 원상희(元常熙 우익수), 김기훈(金基勳 좌익수), 최상점(崔相点 대주겸 좌익수), 권희수(포수), 허욱(2루수), 석주옥, 최영철(崔永喆), 권영호(이상 투수)</p>	
04.17	<p>■ 석주옥(石柱玉),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영남대 투수 석주옥이 인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전국 대학 춘계연맹전에서 동아대 26타자를 상대로 탈삼진 6개에 볼넷 4개와 도루 1개를 허용한 끝에 8-0으로 No Hit No Run 기록</p>	<p>야구부 창설 2년만에 전국대학춘계연맹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영남대 선수들이 서울 운동장 야구장에서 기념 사진을 찍었다.</p>
04.18	<p>■ 제15회 문교부장관기쟁탈 전국4도시고교대회 경북야구협회 매일신문사 공동 주최로 4월 18일부터 보성, 동산, 부산, 경북, 대건, 대구상고 등 6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대구종합경기장에서 개최, 4월 19일 벌어진 준결승전에서 일몰로 게임이 연장된 뒤 22일 속개, 2일간(19일 9회, 22일 16회) 장장 6시간 45분에 걸친 25회 연장전 끝에 대건고가 대구상고를 3-2로 누르고 결승전(4월 23일)에 진출한 뒤 경북고를 2-0으로 제치고 대회 3연패 ▲준결승전=대건고 3-2 대구상고, 경북고 7-2 보성고 ▲결승전=대건고 2-0 경북고 ◇개인상 ▲우수상=원민구(元敏九 대건고 투수) ▲감투상=손상득(경북고 포수) ▲미기상=허규옥(대건고 중견수) ▲타격상=김차봉(金且奉 대건고 3루수 .500) ▲감독상=최주억(대건고 감독) △대건고=감독 최주억 및 장태수(張泰洙 유격수), 박원준(朴元準 포수), 허규옥(중견수), 박승호(朴承昊 1루수), 기세봉, 원민구, 정영수(鄭永壽 이상 투수), 김차봉(3루수), 박홍석(朴弘錫 2루수), 이유식(李有植) 석주호(石柱浩 이상 우익수), 김원규(金元奎), 이근식(李根植 이상 좌익수)</p>	<p>■ 04.20 장훈 사상 4번째 400홈런 일본 햄 파이터스의 장훈(34)이 롯데전에서 3점 홈런을 날려 왕정치(王貞治), 노무라(野村), 나가시마(長嶋)에 이어 일본 프로야구 사상 4번째로 400홈런 기록</p>
04.18	<p>■ 오탈(吳泰燮),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경북고 투수 오탈이 대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5회 문교부장관배 전국4도시고교대회에서 부산고 27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무안타 무실점 끝에 1-0으로 No Hit No Run 수립</p>	
04.23	<p>■ 롯데 자이언츠 창단 감독 김동업 내정 롯데제과주식회사가 창단한 세미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감독으로 전 공군 감독 김동업(37)을 내정</p>	
05.01	<p>■ 제5회 대통령기쟁탈 전국중학대회 대한야구협회 전남일보사 공동 주최로 5월 1일 전국 중학 14개 팀(대구, 인천남, 경기 동성, 군산, 배문, 충남, 신용산, 대신, 춘천, 송정, 청주남, 마산동, 송의, 정남중)이 출전한 가운데 광주공설운동장에서 개최, 5월</p>	<p>롯데 자이언츠 창단 감독으로 내정된 김동업(金東燮 오른쪽)과 신준호(辛俊浩 앉은 이) 야구단장</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6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송의중이 대구중을 3-0으로 격파하고 우승 ▲준결승전=송의중 5-3 대신중, 대구중 7-0 동신중 ▲결승전=송의중 3-0 대구중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전인수(全仁洙 송의중 투수) ▲감투상=양일환(梁日煥 대구중 투수) ▲타격상=박정후(朴楨厚 대신중 투수 .625) ▲미기상=김천규(金泉圭 송의중 유격수) ▲감독상=차길준(車吉春 송의중 감독)</p>	<p>■04.30 월남, 베트남에 무조건 항복 월남 정부가 4월 30일 상오 베트남 측에 무조건 항복, 이로써 30년에 걸친 월남전쟁에 종지부</p> <p>■05.04 보브 왓슨 1백만번째 득점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보브 왓슨이 메이저 리그 통산 1백만번째 득점</p>
05.07	<p>■제9회 대통령배쟁탈 전국고교대회 대한야구협회 중앙일보·동양방송 공동 주최로 5월 7일부터 휘문고, 대전고, 군산상, 광주상, 서울고, 부산상, 배문고, 철도고, 경북고, 마산상, 동대문상, 경남고, 배문고, 광주일고, 보성고, 춘천고, 세광고, 대구상, 동산고 등 전국 19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토너먼트로 개최, 5월 14일 야간경기로 벌어진 결승전에서 광주일고가 경북고를 6-2로 격파하고 26년만에 패권 탈환 ▲준결승전=경북고 4-3 군산상, 광주일고 10-1 세광고 ▲결승전=광주일고 6-2 경북고 ◇개인상 ▲수훈상=김윤환(광주일고 3루수) ▲우수투수상=강만식(광주일고 투수) ▲감투상=장성규(경북고 1루수) ▲타점상=김윤환(광주일고 3루수 9) ▲타격상=①김윤환(광주일고 3루수 .467) ②장성규(경북고 1루수 .462) ③문호승(文虎勝 철도고 유격수 .455) ▲도루상=문호승(철도고 4) ▲최다안타상=①김윤환(광주일고 3루수 7) ②김광석(金光石 광주일고 우익수 6) ③장성규(경북고 1루수 6) ▲지도상=이병렬(광주일고 감독) ▲공로상=천정복(千正福 광주일고 교장), 김종태(金宗太 전남협회 회장) △광주일고=감독 이병렬 및 차영화(車榮華 2루수), 이기중(李基鍾 1루수), 이현극(李現克 좌익수), 정영재(鄭永宰 대주), 김윤환(3루수), 강만식(姜晩植 투수), 정윤택(鄭允澤 중견수), 김광석(우익수), 조재영(曹在榮 포수), 방상훈(房相勛 유격수) △경북고=감독 서영무 및 박해성(좌익수), 임종호(3루수), 박정환(朴貞煥 우익수), 배성환(裵晟煥 투수), 황병훈(黃秉勳 우익수), 손상득(포수), 장성규(1루수), 오태섭(2루수겸 우익수 및 투수), 허종철(許鍾喆 중견수) 김중기(유격수), 서석진, 조영삼(曹永三 이상 2루수), 김휘욱(金輝旭 대타), 성낙수(투수겸 2루수)</p>	 <p>제6회 전국고교대회에서 26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한 광주일고 선수단 일행</p> 
05.14	<p>■ 김윤환(金允煥), 고교야구 사상 첫 3연타석 홈런 제9회 대통령배쟁탈 전국고교대회에 광주일고 3루수로 출전한 김윤환이 결승전에서 경북고 투수 성낙수를 상대로 5회 솔로, 6회 3점, 8회 솔로 홈런을 터뜨려 고교야구 사상 최초(국내 통산 3번째)로 3연타석 홈런 기록</p>	<p>제9회 전국고교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광주일고 선수들이 이병렬 감독을 행가래치고 있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5.16	<p>■ 제25회 백호기쟁탈 전국대회겸 제11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출전선수최종선발전 대한야구협회 경향신문사 공동 주최로 5월 16일부터 9개 대학팀(건국, 연세, 인천전문, 성균관, 중앙, 경남, 경희, 한양, 동국대)과 9개 군·실업(한일은, 한전, 육군, 상은, 농협, 철도청, 기은, 공군, 제일은행)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5월 23일 열린 결승전에서 육군이 기업은행을 5-1로 격파하고 7년 만에 우승</p> <p>▲ 준결승전=육군 4-2 건국대, 기업은행 15-0 영남대 ▲ 결승전=육군 5-1 기업은행</p> <p>◇ 개인상 ▲ 우수선수상=김봉연(육군 1루수) ▲ 우수투수상=강용수(육군 투수) ▲ 수훈상=유남호(육군 투수) ▲ 감투상=정기혁(기업은행 투수) ▲ 타격상=①윤몽룡(건국대 우익수 .625) ②강병철(한일은 3루수 .500) ③이해창(건국대 중견수 .444) ▲ 타점상=이해창(6) ▲ 감독상=허종만(육군 감독)</p> <p>△ 육군=감독 허종만 및 구영석(2루수), 최한익(3루수), 김봉연(1루수), 박해종(포수), 권백행(중견수), 이원녕(좌익수), 나재선(우익수), 서유태, 함상윤(이상 유격수), 유남호(투수)</p>	 <p>제25회 백호기대회에서 국내 야구 사상 4번째이자 개인 통산 2번째로 3연타석 홈런을 날린 육군의 김봉연(金奉淵)이 동료들의 환영을 받으며 흡인하고 있다.</p>
05.17	<p>■ 강용수(姜龍洙), Perfect Game(완전경기) 수립</p> <p>한국전력 투수 강용수가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백호기 전국대회겸 제11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출전선수 최종 선발전 2일째 경기에서 중앙대 27명 타자들을 상대로 75개의 볼을 던져 삼진 5개를 잡으며 외야 플라이6, 내야 플라이3, 내야 파울1, 내야 땅볼 12개를 유도한 끝에 4-0으로 Perfect Game 수립</p>	
05.21	<p>■ 김봉연(金奉淵), 3연타석 연속 홈런</p> <p>육군 소속 김봉연이 5월 20일 제25회 전국대회 준준결승 한국전력(투수 강용수)과의 경기에서 9회초 역전결승 홈런을 날린 뒤 5월 21일 벌어진 준결승전에서 건국대 윤몽룡, 박명수 투수로부터 2연타석 홈런을 뽑아 국내야구 사상 4번째로 3연타석 홈런 기록</p>	<p>■ 05.28 장훈(張勳), 4천루타 달성</p> <p>일본 프로야구 니혼 햄의 재일교포 선수 장훈이 한큐전에서 좌중간 2루타를 날려 일본 프로야구 통산 5번째로 4천루타를 달성.</p>
05.22	<p>■ 이길환(李吉煥), Perfect Game(완전경기) 수립</p> <p>선린상고 투수 이길환이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제30회 청룡기쟁탈 전국고교선수권대회 서울시예선 2일째 경기에서 상문고를 상대로 퍼펙트 게임(1-0)을 수립</p>	<p>■ 05.22 일본 노무라(野村) 600홈런 달성</p> <p>일본 프로야구 난카이(南海) 호크스의 감독겸 선수인 노무라 가쓰야가 일본 햄 파이터스전에서 600홈런을 날린 5번째 선수가 됐다.</p>
05.23	<p>■ 박인종(朴仁鍾), 노히트노런(No Hit No Run)</p> <p>천호상고 투수 박인종이 성남고 운동장에서 열린 제30회 청룡기 전국고교선수권대회 서울시예선에서 배재고 27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삼진 7개를 잡으며 볼넷 1개 만을 내주는 완벽한 피칭 끝에 6-0으로 이겨 No Hit No Run 기록</p>	
05.31	<p>■ 제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야구경기</p> <p>대한체육회 주최로 5월 31일 전국 시·도 국민학교와</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중학 선수단 7,583명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 구덕경기장에서 개최, 6월 3일 벌어진 국민학교 결승전에서 강원 교동국교와 전남 서석국교가 1-1로 비겨 공동 우승, 중학 결승전에서는 송의중이 신일중을 3-2로 누르고 우승</p> <p>▲국교 준결승전=교동국교(강원 추첨 승) 3-3 대신국교(부산), 서석국교(전남) 5-4 신흥국교(경기) ▲동 결승전=교동국교(강원) 1-1 서석국교(전남) 공동 우승</p> <p>▲중학 준결승전=송의중(전남) 3-2 대구중(경북), 신일중(서울) 7-0 마산동중(경남) ▲동 결승전=송의중(전남) 3-2 신일중(서울)</p> <p>△송의중=임창호(林蒼虎 중견수), 김천규(유격수), 장진범(張鎭凡 3루수), 이광석(李光錫 포수), 전인수(全仁洙 투수), 송주(宋周 좌익수), 정상평(丁商平 우익수) 김경수(金京洙 2루수), 최양식(崔陽植 1루수)</p>	 <p>제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장식 전경, 구덕구장에서 열린 중학야구는 전남 송의중이 서울 신일중을 3-2로 누르고 우승, 금메달을 땀다.</p>
06.05	<p>■제30회 청룡기쟁탈 전국고교선수권대회</p> <p>대한야구협회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6월 5일부터 성남, 대구상, 대전, 청주, 마산상, 군산상, 경북, 휘문, 동신, 세광, 부산상, 선린상고 등 12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11일 열린 결승전에서 경북고가 선린상고를 3-0으로 꺾고 우승</p> <p>▲승자 준결승전=경북고 5-2 세광고, 대전고 15-0 마산상고 ▲패자 준결승전=선린상고 7-3 마산상고</p> <p>▲승자 결승전=경북고 3-1 대전고 ▲패자 결승전=선린상고 3-2 대전고 ▲최종 결승전=경북고 3-0 선린상고</p> <p>◇개인상 ▲우수선수상=손상득(경북고 포수) ▲우수투수상=성낙수(경북고 투수)</p> <p>▲감투상=이길환(선린상고 투수) ▲타격상=①이효헌(李孝憲 마산상고 포수 .450) ②이강일(李康日 대전고 2루수 .421) ③김태호(金泰鎬 대전고 투수 .400) ▲최다 안타상=①이호영(李浩潑 선린상고 포수 10) ②이효헌(마상상고 9) ③정혁진(鄭赫鎭 선린상고 포수 9) ▲타점상=이강일(대전고 5) ▲도루상=임중호(경북고 3루수 6) ▲지도상=박호성(경북고 감독) ▲공로상=박상희(朴商熙 경북고 교장), 전정득(경북협회장) ▲장려상=대전고</p> <p>△선린상고=이호영(포수), 김광수(金光洙 2루수), 신군식(申君植 1루수겸 투수), 정혁진(좌익수), 이길환(우익수겸 투수), 이수찬(李秀贊 중견수), 양재락(梁在洛 투수) 정종현(鄭宗鉉 우익수), 이귀한(李貴漢 3루수), 김형곤(金亨坤 유격수), 임홍렬(任弘烈 대타겸 우익수)</p>	 <p>제30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경북고-선린상고의 결승전. 8회말 경북고 3루 주자 손상대(孫相大)가 천보성(千普成)의 2루수 앞 땅볼 때 홈인, 안타없이 결승점을 뽑았다.</p> <p>■06.01 놀란 라이언 4번째 노히트노런 캘리포니아 에인절스의 놀란 라이언(28)이 볼티모어 오리올스전에서 다저스의 샌디 쿠팩스 이후 메이저리그 사상 두번째로 개인 통산 네번의 노히트노런을 기록</p> <p>■06.07 유제두 주니어 미들급 정복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세계주니어 미들급 타이틀 매치에서 와지마 고이치(輪島功一)를 KO시키고 타이틀 획득</p>
06.14	<p>■제18회 전국4도시초청고교대회</p> <p>부산일보사 주최로 6월 14일부터 전국에서 6개 고교 팀(부산, 부산상, 휘문, 중앙, 경북, 경남고)이 출전한 가운데 구덕구장에서 개최, 6월 16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부산고가 경북고를 7-3으로 제치고 우승</p> <p>▲준결승전=부산고 3-2 경남고, 경북고 4-3 부산상</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결승전=부산고 7-3 경북고 ◇개인상 ▲우수선수상=백재일(白在日 부산고) ▲감투상=임중호(경북고) ▲미기상=이득재(李得宰 부산고) ▲타격상=백재일(부산고 .800) ▲감독상=김길수(부산고) △부산고=감독 김길수 및 이호(李鎬 3루수), 최영화(崔榮華 중견수), 김진근(金震根 유격수), 정인교(鄭仁敎 포수), 유우중(좌익수), 이득재(1루수), 최낙춘(崔洛春 2루수), 김병규(金炳圭 우익수), 최종욱(崔鍾旭), 백재일(이상 투수)</p>	
06.21	<p>■제11회 아시아선수권대회, 한국 우승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6월 21일부터 전 대회 우승 팀 일본을 비롯, 한국, 자유중국, 필리핀, 호주 등 5개국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더블리그로 개최, 7월 1일 한국이 7승1무로 일본을 제치고 우승 ◇1차 리그 ▲한국 13-0 필리핀 ▲한국 5-1 자유중국 ▲한국 8-1 호주 ▲한국 4-0 일본 ◇2차 리그 ▲한국 28-0 필리핀 ▲한국 15-4 호주 ▲한국 2-0 자유중국 ▲한국 0-0 일본 ◇종합 순위=①한국(7승1무) ②일본(4승2무2패) ③호주(4승1무3패) ④자유중국(2승1무5패) ⑤필리핀(1무7패) ◇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호중 ▲우수투수상=사토(佐藤 義則) ▲타격상=윤동균(.464) ▲홈런상=김봉연(3개) ▲감독상=김계현 ◇한국선수단 ▲단장=최인철(협회 부회장) ▲감독=김계현(한전 감독) ▲코치=김성근(기은 감독) 및 이해창, 황성록(이상 중견수), 배대웅(2루수겸 유격수), 김봉연(1루수), 김우열(우익수겸 좌익수), 윤동균, 김차열(이상 좌익수겸 우익수), 강병철(3루수), 우용득, 박해종(이상 포수), 조운식(유격수), 김재박(3루수겸 유격수 및 투수), 구영석(2루수), 박상열, 이선희, 강용수, 김호중 정기혁(이상 투수)</p>	<p>제18회 전국4도시선발고교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부산상고 선수들이 이형(李亨) 감독을 행가래치고 있다</p>  <p>제11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7승1무로 정상에 선 한국 팀 주장 김호중(金昊中)이 우승 컵을 받아들고 있다.</p>
06.28	<p>■고교야구 한 경기 최다 탈삼진(22개) 신기록 철도고 투수 이진우(李振雨)가 황금사자기쟁탈 전국 고교쟁패전 서울예선 대광고전에서 탈삼진 22개를 기록, 71년 충암고 정순명이 서울시고교춘계연맹전에서 청랑공고를 상대로 세운 21개를 깨고 한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을 경신</p>	
07.16	<p>■제29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대한야구협회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7월 16일부터 전국에서 20개 팀(보성, 성남, 중앙, 철도, 충암, 휘문, 인천, 공주, 대전, 세광, 춘천, 경북, 대건, 경남, 부산, 부산상, 마산상, 군산상, 동신, 광주일고)이 출전한 가운데 인천과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23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부산상고가 중앙고를 1-0으로 누르고 우승</p>	<p>제11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우승 후 청와대를 예방한 선수들을 박정희 대통령이 격려하고</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준결승전=중앙고 1-0 대건고, 부산상고 1-0 군산상고 ▲결승전=부산상고 1-0 중앙고</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영만(金榮萬 부산상고 중견수) ▲최우수투수상=노상수(盧相守 부산상고 투수) ▲감투상=이동영(李東英 중앙고 투수) ▲타격상=①허규옥(許圭沃 대건고 중견수 .429) ②이상래(李相來 부산상고 2루수 .385) ③이유식(李有植 대건고 우익수 .383) ▲타점상=김영만(부산상고 중견수) ▲최다안타상=①선우기(鮮于琦 중앙고 포수 8개) ②홍희섭(洪熙燮 중앙고 1루수 7개) ③허규옥(대건고 중견수 6개) ▲도루상=선우기(중앙고 포수 5개) ▲지도상=이형(부산상고 감독) ▲공로상=박지호(朴志鎬 부산상고 교장) 김용관(金容冠 부산협회장)</p> <p>△부산상고=감독 이형 및 김영만(중견수), 문주언(文周彦 유격수), 이윤섭(李潤燮 1루수), 김용철(金容哲 3루수), 한철수(韓哲洙 포수), 노상수(투수), 이상래(2루수), 최외석(崔外石 좌익수), 김종태(金鍾泰 우익수)</p>	 <p>제29회 황금사자기고교쟁패전 개회식에서 전년도 우승 팀 경남고가 황금사자기를 반납하고 있다.</p> <p>■07.15 제46회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밀워키의 카운티 스타디움에서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의 시구로 막이 오른 제46회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서 내셔널리그가 9회초 빌 매드로크의 2점짜리 결승 홈런에 힘입어 아메리칸리그를 6-3으로 물리치고 승리. 지금까지 통산 27승1무18패를 기록</p>
07.26	<p>■미국대학 올스타초청 한-미친선대회</p> <p>대한야구협회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대륙간 컵 세계대회를 앞두고 국가대표 팀의 전력 강화훈련 계획의 일환으로 미국 18개 대학에서 선발된 선수들로 구성된 올스타 팀을 초청,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4차전을 가진 끝에 한국대표 팀이 2승1무1패를 기록</p> <p>▲1차전(7월 26일 서울)=미대학올스타 3-4 한국대표 ▲2차전(7월 27일 서울)=미대학올스타 1-3 한국대표 ▲3차전(7월 28일 서울)=미대학올스타 0-0 한국대표 ▲4차전(7월 30일 서울)=미대학올스타 3-1 한국대표</p> <p>◇한국대표=이해창(중견수), 배대웅(2루수), 김봉연(1루수), 함학수(대주), 김우열(우익수), 황성록(좌익수), 윤동균(좌익수겸 우익수), 박영길(지명타자), 김차열(지명타자겸 좌익수), 강병철(3루수), 김재박(3루수겸 투수), 박해중(포수겸 지명타자), 구영석(대타) 우용득(포수), 조윤식(유격수), 강용수, 이선희, 김호중, 박상열, 정기혁(이상 투수)</p>	 <p>미대학올스타초청 마지막 경기가 열린 8월 30일 서울운동장 스탠드에서 벽안의 미국 스님이 성조기를 들고 미국 팀을 열렬히 응원하고 있다.</p> <p>■08.01 뉴욕 양키스 감독에 빌리 마틴 뉴욕 양키스가 빌리 마틴을 감독으로 영입. 이후 5번에 걸쳐 해임과 임명이 거듭되다</p>
07.30	<p>■제27회 화랑기쟁탈 전국고교대회</p> <p>대한야구협회 국제신문사 공동 주최로 7월 30일부터 전국에서 15개 고교 팀(세광, 충암, 마산상, 철도, 경남, 부산상, 휘문, 경남상, 인천, 중앙, 동신, 대전, 부산, 대구상, 군산상고)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 구덕구장에서 개최, 8월 8일 열린 결승전에서 경남상고가 경남고를 2-1로 제치고 29년 만에 대회 첫 우승</p> <p>▲준결승전=경남고 5-0 대구상고, 경남상고 11-1 충암고 ▲결승전=경남상고 2-1 경남고</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재상(경남상고 좌익수) ▲최우수투수상=전성수(田聖秀 경남상고 투수) ▲최우수포수상=허선중(許善重 경남상고 포수) ▲감투상=최동원(崔東原 경남고 투수) ▲타격상=①송진호(대구상고 중견수 .600) ②강동균(중앙고 2루수 .571) ▲</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감독상=이삼춘(李三春 경남상고 감독) ▲지도상=김명곤(金明坤 경남상고 야구부장) △경남상고=감독 이삼춘 및 김재상(좌익수), 정상희(鄭祥會 2루수), 안병환(安炳煥 1루수), 장덕희(張德熙 중견수), 허선중(포수), 유동백(柳東伯 우익수), 전성수(투수), 이병무(李炳武 3루수), 유경환(柳京煥 유격수)</p>	
08.07	<p>■제5회 봉황기쟁탈 전국고교대회 대한야구협회 한국일보사 공동 주최로 8월 7일 전국에서 49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8월 20일 열린 결승전에서 경북고가 대구상고를 1-0으로 누르고 우승 ▲준결승전=경북고 8-4 대전고, 대구상고 4-3 광주일고 ▲결승전=경북고 1-0 대구상고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장성규(경북고 1루수) ▲최우수투수상=성낙수(경북고 투수) ▲감투상=조규식(曹圭植 대구상 투수) ▲수훈상=박해성(경북고 좌익수) ▲타격상=①김광석(광주일고 1루수 .500) ②송진호(대구상고 중견수 .444) ③차영화(광주일고 2루수 .438) ▲타점상=①김윤환(광주일고 3루수 7) ②장성규(경북고 5) ③박해성(경북고 5) ▲안타상=①성기순(成基淳 대전고 유격수 11) ②김광석(광주일고 8) ③송진호(대구상고 8) ▲감독상=박호성(경북고 감독) 박재영(대구상고 감독) ▲지도상=김성진(金聲振 경북고 부장), 문인철(文仁哲 대구상고 부장) ▲장려상=운봉공고, 오산고, 목포상고, 심석중고, 강릉고 ▲응원상=서울고 △대구상고=김종성(金鍾聲 우익수), 우주환(유격수), 서영태(3루수), 송진호(중견수), 김기덕(2루수), 이만수(李萬洙 포수), 조규식(1루수겸 투수), 성정표(成政杓 좌익수), 나인호(투수겸 1루수), 오대석(吳大錫 1루수)</p>	<p>제27회 전국고교대회 경남고-중앙고의 준결승 3회말 2사에서 경남고의 3루 주자 최동원이 손승락의 땅볼로 홈인, 선취점을 뽑았다.</p> 
08.14	<p>■제2회 대륙간컵쟁탈 세계대회 예선 탈락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2회 대륙간컵쟁탈 세계대회(8월 14~28일)에 한국은 27명으로 구성된 선수단(단장1, 임원4, 심판1, 감독1, 코치1, 선수18명)을 파견, 8월 14일부터 주최국 캐나다를 비롯해 한국, 콜롬비아, 푸에르토리코, 일본, 미국, 이탈리아, 니카라과 등이 A, B조로 나누어 개최, 8월 28일 열린 예선 최종일 경기에서 A조의 한국은 나카라과를 5-2로 꺾었으나 종합 전적 3승4패(4위)로 예선 탈락 ▲1차전(8월 14일)=캐나다 4-2 한국 ▲2차전(8월 16일)=한국 12-7 콜롬비아 ▲3차전(8월 19일)=푸에르토리코 4-1 한국 ▲4차전(8월 21일)=한국 0-1 일본 ▲5차전(8월 23일)=한국 2-5 미국 ▲6차전(8월 27일)=이탈리아 4-11 한국 ▲7차전(8월 28일)=니카라과 2-5 한국 ◇예선리그 종합 순위=①미국(7승) ②일본(6승1패) ③캐나다(4승3패) ④한국, 푸에르토리코, 나카라과(이상 3승4패) ⑦이탈리아(2승5패) ⑧콜롬비아(7패)</p>	<p>제5회 봉황기쟁탈 전국고교대회에서 4년 만에 우승을 되찾은 경북고 선수들이 성낙수 투수를 헝가래치고 있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한국선수단 ▲단장=임광정(협회 부회장) ▲부단장=이홍영(李洪永 한일은 단장) ▲총무=허종만(협회 이사) ▲섭외=송옥순(협회 경기이사) ▲기술 연구=배수찬(협회 기술연구위원) ▲감독=김계현(협회 이사) ▲코치=김성근(협회 기술지도위원) ▲투수=김호중(한일은), 강용수(한국전력), 이선희(농협), 박상열(기업은), 정기혁(기업은) ▲포수=우용득(한일은), 박해중(육군) ▲내야수=김봉연(육군), 김재박(영남대), 배대웅(기업은), 강병철(한일은), 구영석(육군), 조윤식(농협), 함학수(기업은) ▲외야수=김우열(제일은), 윤동균(기업은), 황성록(한국전력), 이해창(건국대), 김차열(제일은), 박영길(한국전력)</p>	
08.20	<p>■ 제6회 세계리틀야구선수권대회 극동지역예선 세계리틀야구연맹 주최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대만 타이베이(臺北)에서 열린 극동지역 예선대회에 한국은 선명회 소속 리틀야구단을 파견, 4차전 끝에 2승 2패로 자유중국(4승), 일본(3승1패)에 이어 3위 ▲1차전(8월 20일)=한국 18-1 괄 ▲2차전(8월 21일)=자유중국 7-3 한국 ▲3차전(8월 23일)=한국 0-11 일본 ▲4차전(8월 24일)=홍콩 0-13 한국 ◇종합 순위=①자유중국(4승) ②일본(3승1패) ③한국(2승2패) ④괄(1승3패) ⑤홍콩(4패)</p>	
08.21	<p>■ 제5회 회장기쟁탈 전국국민학교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8월 19일부터 전국에서 11개 국민학교 팀(서울 봉천, 진주 배영, 대구 옥산, 인천 신흥, 전북 군산, 서울 화계, 대전 선화, 여수 중앙, 청주 우암, 서울 전곡, 부산 중앙국민학교)이 출전한 가운데 장충리틀구장에서 개최, 8월 24일 열린 결승전에서 군산 국교가 대전 선화국교를 12-0으로 격파하고 우승 ▲준결승전=군산국 10-0 배영국, 선화국 3-0 중앙국 ▲결승전=군산국 12-0 선화국 ◇개인상 ▲최우수선수상=함종현(咸宗鉉 군산) ▲감독상=박종호(朴鍾浩 선화) ▲타격상=①함종현(군산 .778) ②장일성(張日成 군산 .714) ③이상명(李相明 우암 .667) ▲장려상(3연타석 홈런)=전병혁(우암) ▲감독상=김기홍(金基洪 군산 감독)</p>	
08.21	<p>■ 제22회 전국중학선수권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8월 21일부터 전년도 우승 팀 선린중을 비롯해 11개 중학 팀(배명, 군산, 부산동성, 동인천, 마산동, 송의, 청주남, 신일, 대건, 충남중)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8월 24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부산 동성중이 충남중을 2-0으로 꺾고 대회 첫 우승 ▲준결승전=충남중 4-2 송의중, 부산 동성중 2-0 동인천중 ▲결승전=동성중 2-0 충남중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양상문(동성중 투수) ▲감독상=유석중(劉碩鍾 충남중 투수) ▲타격상=①유석중</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충남중 .600) ②양상문(동성중 .600) ③배정철(裴正哲 충남중 좌익수 .545) ▲장려상=최재필(崔在弼 동인천 중 유격수) ▲감독상=안남수(安南洙 동성중 감독)</p> <p>△동성중=김태룡(金泰龍 유격수), 조성옥(趙城玉 좌익수), 임대완(林大完 3루수), 양상문(투수), 김기웅(金基雄 포수), 신경식(申慶植 1루수), 윤석배(尹碩培 우익수), 임재근(任在權 2루수), 고석암(高石巖 중견수)</p> <p>△충남중=김광림(金光林 1루수), 임정철(林正哲 좌익수), 이영식(李永植), 한재열(韓宰烈 이상 3루수), 유창중(투수), 길준령(吉俊令 중견수), 김상규(金尙圭), 전대영(全大永 이상 유격수), 신광석(申廣奭 포수), 김철호(金哲鎬 우익수), 김태석(金泰錫 2루수)</p>	
08.25	<p>■ 전국대학연맹전 추계리그</p> <p>전국대학야구연맹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8월 25일부터 11개 팀이 A조(고려대, 동국대, 동아대, 성균관대, 연세대, 영남대)와 B조(건국대, 경희대, 인천체전, 중앙대, 한양대)로 나뉘어 서울운동장에서 예선대회를 개최, 9월 3일부터 5일까지 A, B조 1, 2위 팀이 벌린 결승리그에서 연세대가 3전 전승으로 우승</p> <p>▲A조 종합 순위=①영남대(4승1패) ②연세대(3승1무1패) ③고려대(2승2무1패) ④동국대(2승1무2패) ⑤성균관대(1승1무3패) ⑥동아대(1무4패)</p> <p>▲B조 종합 순위=①건국대(3승1무) ②한양대(2승2무) ③중앙대(1승1무1패) ④경희대, 인천체전(이상 1무3패)</p> <p>▲결승리그 순위=①연세대(3승) ②영남대, 한양대, 건국대(이상 1승2패)</p> <p>◇개인상 ▲우수선수상=이광은(李光殷 연세대) ▲타격상=①장정호(한양대 .454) ②전기호(영남대 .355) ③윤군필(尹君必 연세대 .346) ▲감독상=이재환(연세대 감독)</p> <p>△연세대=감독 이재환(李在煥) 및 서성제(徐聖濟 좌익수겸 우익수), 이교준(李敎俊 우익수), 김한용(金韓用 투수), 하태문(河泰文 유격수), 신언호(申彦皓 포수), 이홍희(李弘徽 1루수겸 우익수), 이광은(李光殷 3루수겸 투수), 윤군필(尹君必 우익수겸 좌익수), 진언근(陳彦根 2루수), 김홍곤(金鴻坤 투수겸 우익수), 김현도(金玄道 중견수), 정진호(유격수겸 대타), 소유남(1루수)</p>	 <p>연세대-한양대 결승전, 3회말 연세대 공격 때 한양대 1루수 장효조(張孝祚)가 1루심의 판정에 항의하는 틈을 타 연세 3루 주자 신언호(申彦皓)가 홈 스틸을 성공시켜, 3점째를 올렸다.</p>  <p>제4회 우수고교초청대회 첫 날 경북고-경남고전에서 6회초 경남고의 5번 박민호(朴珉浩)가 2점 홈런을 날린 뒤 홈인하고 있다. 최동원은 이 경기에서 4-0으로 노히트노런을 기록</p>
09.17	<p>■ 제4회 전국우수고교초청대회</p> <p>대한야구협회 주최로 9월 17일부터 5개 전국 규모 대회 우승 및 준우승 팀(경북, 대구상, 경남, 부산, 선린상, 중앙, 광주일고)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9월 19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경남고가 중앙고를 3-2로 제치고 우승</p> <p>▲준결승전=중앙고 1-0 대구상고, 경남고 2-0 선린상고 ▲3, 4위전=대구상고 1-0 선린상고 ▲결승전=경남고 3-2 중앙고</p> <p>◇개인상 ▲타격상=①홍희섭(중앙고 1루수 .429) ②우주환(禹柱煥 대구상고 유격수 .429) ③박민호(朴珉浩 경남고 1루수 .400)</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경남고=우경하(유격수), 이우상(李佑尙 중견수), 박민호(1루수), 이선광(포수), 손승락(孫丞洛 3루수), 임규영(林奎榮 2루수), 장제호(張帝豪 우익수), 이무환(李戊煥 좌익수), 최동원(투수)</p> <p>△중앙고=선우기(포수), 강동균(2루수), 조장현(曹章鉉 유격수), 홍희섭(1루수), 정국환(鄭國煥 3루수), 이동영(투수겸 우익수), 김기준(金基俊 우익수겸 좌익수), 최영한(崔榮翰 좌익수), 나광선(羅光善 투수), 함승철(咸承哲 좌익수), 한훈우(韓薰愚 대타겸 우익수), 이원호(중견수)</p>	
09.17	<p>■최동원(崔東原),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경남고 투수 최동원이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제4회 전국우수고교초청대회 첫 날 1회전에서 경북고를 상대로 No Hit No Run(4-0)을 기록</p>	
09.21	<p>■제12회 실업야구 올스타전 실업야구연맹 주최로 9월 21일부터 3차례에 걸쳐 금융단과 실업단으로 나누어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9월 23일 열린 3차전에서 실업단이 금융단을 4-1로 꺾고 승리했으나 1~2차전에서 승리한 금융단이 2승1패로 우승</p> <p>▲1차전(통산 38차전 9월 21일)=실업단 2-7 금융단 ◇개인상 △수훈선수상=배대웅(기업은) △승리투수상=김호중(한일은) △우수투수상=이선희(농협) △감투상=권백행(육군) △타격상=박준영(공군) △승리감독상=김응룡(한일은 감독)</p> <p>▲2차전(통산 39차전 9월 22일)=금융단 3-2 실업단(연장 14회) ◇개인상 △수훈선수상=양창의(상업은) △승리투수상=김호중(한일은) △우수투수상=하기룡(상업은) △감투상=강용수(한국전력) △타격상=양창의(상업은 .667) △승리감독상=김응룡(한일은)</p> <p>▲3차전(통산 40차전 9월 23일)=실업단 4-1 금융단 ◇개인상 △수훈선수상=이종도(공군) △승리투수상=김인복(공군) △우수투수상=박상열(기업은) △감투상=배대웅(기업은) △타격상=이종도(공군 .667) △승리감독상=김계현(한국전력 감독)</p>	 <p>올스타전 첫 경기 2회말, 금융단 홍경태의 안타로 2루 주자 윤동균이 단숨에 홈으로 뛰어들었으나 터치 아웃</p>  <p>일본 나라시노고 초청 한·일친선고교대회 개막 경기에서 김택수 대한체육회 회장이 시구를 하고 있다.</p>
09.25	<p>■제4회 한·일고교대회 대한야구협회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일본 전국고교 선수권대회(일명 갑자원甲子園대회) 우승 나라시노(翫志野)고교 초청 한·일고교대회를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3차례에 걸쳐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나라시노고가 2승1무를 기록</p> <p>▲1차전(9월 25일)=나라시노고 2-2 중앙고 ▲2차전(9월 27일)=나라시노고 5-1 서울선발 ▲3차전(9월 28일)=나라시노고 3-2 경남고</p> <p>◇나라시노고 ▲단장=사와다(澤田) ▲임원=나가타니(長谷) ▲감독=이시이(石井) ▲선수=오가와(小川), 카</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미코(神子), 히시키(菱木), 후쿠다(福田), 고바야시(小林), 시모야마(下山), 이와자키(岩崎), 엔도(圓藤), 오지(越智), 요시노(吉野), 후지다(藤田), 오시오(押尾), 시마다(嶋田), 구스다(楠田)</p> <p>◇서울시고교선발 ▲단장=이창노(李昌橈 중고연맹 부회장) ▲섭외=모무열(협회 이사) ▲총무=이명구(중고연맹 전무이사) ▲감독=하갑득(중앙고 감독) ▲투수=김현재(金鉉宰 휘문고), 이진우(철도고), 김상선(金尙宣 보성고), 박인종(천호상고) ▲포수=김순태(金順泰 휘문고), 선우기(중앙고) ▲내야수=조문행(趙文行 철도고), 강동균(중앙고), 박영민(朴永敏 덕수상고), 박재천(朴在天 휘문고), 문호승(철도고) ▲외야수=배태욱(裴泰旭 대광고), 김진중(金鎭中 휘문고), 홍관수(洪寬洙 배문고), 김철기(金哲基 성남고)</p> <p>◇중앙고=감독 하갑득 및 선우기(포수), 강동균(2루수), 조장현(유격수), 홍희섭(1루수), 김기준(좌익수), 정국환(3루수), 최영한(우익수), 박창선, 이동영(이상 투수), 이원호(중견수) 및 나광선, 윤동범(尹東範), 함승철, 한훈우, 임도건(任度建), 신현창(申鉉昶), 공재훈(孔在勳 이상 후보)</p> <p>◇경남고=감독 김희련 및 이우상(중견수), 장제호(1루수), 이선광(포수), 우경하(禹京夏 유격수), 손승락(3루수), 임규영(2루수), 최동원(투수), 주유정(周瑜禎), 배정호(裴政鎬), 이재영(李宰寧 이상 좌익수), 이무환(우익수), 정재곤(鄭宰坤 대타), 소세형(蘇世馨 대주), 김수득(金水得), 이환용(李煥鎔), 박민호(朴珉浩), 박종석(朴鍾碩), 하현보(河炫保 이상 후보)</p>	<p>■09.29 케이시 스텡걸 감독 사망 뉴욕 양키스 감독 12년(49~60년) 동안 10번의 아메리칸리그 챔피언과 7번에 걸쳐 월드시리즈를 제패했던 캐시 스텡걸 감독이 85세를 일기로 사망</p> <p>■09.30 메이저리그 연속 도루 신기록 LA 다저스의 데이브 로페스가 38연속 도루에 성공, 메이저리그 신기록을 수립</p>
10.01	<p>■제9회 대통령기쟁탈 전국대학초청대회 대한야구협회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10월 1일부터 11개 대학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6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한양대가 13회 연장전 끝에 연세대를 3-2로 제치고 우승</p> <p>▲준결승전=연세대 7-2 건국대, 한양대 3-2 동국대 ▲결승전=한양대 3-2 연세대</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정현발(한양대 중견수) ▲감투상=이광은(연세대 투수) ▲타격상=이광국(李光國 동국대 1루수 0.566) ▲수훈상=남우식(한양대 투수) ▲훈련킹상=이광은(연세대 투수 2개)</p> <p>△한양대=감독 서영무 및 장정호(좌익수), 김정수(1루수), 천보성(유격수), 정현발(중견수), 장효조(우익수), 김한근(3루수), 손상대(포수), 신승식(대타), 조용선(趙容宣 포수), 정순명, 남우식(이상 투수), 도영권(대타), 하대성(河大成 2루수), 김유동(金裕東 대타), 이기호(2루수), 하광희(대타)</p>	 <p>전국대학초청대회 결승전에서 연세대를 꺾고 우승을 차지한 한양대 선수들이 서영무 감독을 행가래치고 있다.</p>
10.03	<p>■김흥곤(金鴻坤),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② 연세대 투수 김흥곤이 10월 3일 제9회 전국대학초청대회에서 경희대 29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탈삼진 3, 볼넷 3개 만을 허용한 끝에 9-0으로 개인 통산 두</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번째 No Hit No Run 수립	
10.07	<p>■ 제56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대한체육회 주최로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대구시민운동장에서 개최, 군산상고(전북), 육군(서울)이 우승 ▲고등부 준결승전=경북고(경북) 0-0 군산상고(전북) 추첨 승, 대전고(충남) 2-0 경남고(부산) ▲동 결승전=군산상고(전북) 2-0 대전고(충남) △군산상고=감독 최관수 및 김성운(金聖雲 중견수) 김형득(金衡得 좌익수), 김성한(3루수), 김종진(金鍾振 1루수), 김용남(투수), 김현룡(金玄龍 우익수), 황인범(黃仁範 2루수), 신주현(辛周鉉 포수), 전효명(全孝明 유격수) △대전고=감독 이재환 및 성기순(유격수), 이강일(李康日 2루수), 김정표(金井杓 중견수), 정선모(鄭善模 좌익수), 홍순만(洪淳萬 포수), 곽영근(郭英根 3루수) 김태호(金泰鎬), 김연철(金淵喆 이상 투수겸 1루수), 이진호(李鎭湖 우익수) ▲일반부 준결승전=충남 0-1(7회) 육군, 전북 1-3 전경기 ▲동 결승전=육군 2-1 전경기 △육군=감독 허종만 및 구영석(3루수), 박복룡(2루수겸 유격수), 김봉연(1루수), 양형오(포수), 권백행(중견수), 배상호(좌익수), 함상운 나재선(이상 우익수), 서윤택(유격수겸 2루수), 한상진(대주겸 2루수), 백창현(투수) △전경기=박명선(朴明善 유격수), 최정우(崔正雨 좌익수), 선우영수(鮮于榮壽 1루수), 장원순(2루수), 금광옥(琴光玉 포수), 한동관(韓東寬 중견수), 이철성(李哲聖 3루수), 김재성(金在成 우익수), 박명조(朴明祚 대주), 강용수(투수)</p>	 <p>제56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린 대구시민운동장 전경. 4만여 시민들이 쏟아지는 비를 무릅 쓰고 관중석을 꽉 메웠다.</p> <p>■ 10.09 장훈, 롯데 오리온스 감독 취임 니혼(日本)함 파이터스의 제일교포선수인 장훈이 나카니시(中西) 후임으로 롯데오리온스 감독에 취임</p> <p>■ 10.12 신인상과 MVP 동시 수상 보스턴 레드삭스의 프레드 린이 메이저리그 사상 처음으로 신인상과 MVP 타이틀을 동시에 차지. 린은 득점(103), 타점(105), 장타율(0.566)에서 리그 1위를 기록하며 아메리칸리그 우승을 이끌었지만 월드시리즈에서는 신시내티 레즈에 패해 준우승</p> <p>■ 10.14 영동·동해고속도로 개통 영동·동해고속도로(새말~강릉 97km, 강릉~묵호 32km)가 착공 18개월 만에 개통, 이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서울~강릉간을 종전 8시간 30분대에서 3시간 30분대로 단축</p> <p>■ 10.15 히로시마 사상 첫 리그 우승 일본 프로야구 히로시마(廣島) 카프가 도쿄에서 열린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요미우리(讀賣) 자이언츠를 4-0으로 격파, 통산 71승11무47패(승률 .602)로 팀 창설 25년 만에 처음으로 센트럴리그 패권을 장악.</p>
10.15	<p>■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추계리그 한국실업야구연맹 주최로 10월 15일부터 9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4일간 36경기를 치른 끝에 10월 28일 상업은행이 종합 전적 7승1패로 우승 ◇종합 순위=①상업은행(7승1패) ②한국전력(5승1무2패) ③농협(4승1무3패) ④한일은행, 육군, 제일은행, 기업은행(이상 3승2무3패) ⑧공군, 철도청(이상 1승1무6패) ◇개인상 ▲최우수선수상=강용수(한국전력 투수) ▲최고수훈선수상=최창형(상업은) ▲우수투수상=하기룡(상업은 투수) ▲타격상=①김일권(상업은 0.462) ②서광렬(기업은 0.440) ③우용득(한일은 0.423) ▲감독상=유백만(상업은 감독)</p>	
10.17	<p>■ 전국대학초청대회 경북야구협회 한국대학야구연맹 공동 주최로 10월 17일부터 건국대, 영남대, 중앙대, 한양대 등 4개 대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대구종합경기장에서 개최, 10</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월 19일 끝난 결승리그에서 건국대가 2승1무로 우승 ◇종합 순위=①건국대(2승1무) ②영남대(2승1패) ③ 중앙대(1승2패) ④한양대(1무2패)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이해창(건국대) ▲우수투 수상=편기철(건국대) ▲우수선수상=정구왕(중앙대) ▲타격상=김호인(건국대 0.545) ▲미기상=김재박(영 남대) ▲감독상=강태정(건국대 감독) △건국대=서정환(2루수), 윤병선(유격수), 김무관(대 타), 김호인(좌익수), 이해창(중견수), 황기화(1루수) 유 기봉(대타), 강경원(姜曠元), 윤몽룡, 박영완(이상 투 수), 김승수(대타), 조흥운(3루수), 방기만, 조종규(이상 포수), 김우근(우익수)</p>	
10.22	<p>■제18회 문교부장관기쟁탈 전국중학초청대회 부산야구협회 주최로 10월 22일부터 전국 17개 중학 팀(부산 동성, 동산, 경상, 청주남, 초량, 광주 동성, 전 주남, 토성, 대신, 동인천, 배명, 대동, 경운, 대광, 송 의, 대구, 선린중)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 구덕경기장에 서 개최, 10월 27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부산 대신중 이 부산 초량중을 4-0으로 격파하고 우승 ▲준결승전=초량중 2-0 동성중, 대신중 2-0 선린중 ▲결승전=대신중 4-0 초량중 ◇개인상 ▲우수선수상=박정후(대신중 투수) ▲감투 상=김호근(金鎬根 초량중 투수) ▲타격상=김익상(金 益相 대신중 우익수 .583) ▲미기상=백홍문(白洪文 대신중 2루수) ▲감독상=김수갑(대신중 감독) △대신중=김동근(金東根 유격수), 김석일(金石鎰 좌 익수) 백홍문(3루수), 김종욱(金鍾旭 포수), 유영호(柳 永浩 3루수), 김호진(金昊振 1루수), 박정후(투수), 박 재찬(朴載燦 중견수), 김익상(우익수)</p>	
10.23	<p>■제10회 국회의장배쟁탈 전국6도시초청고교대회 경북야구협회 매일신문사 공동 주최로 10월 23일부 터 전국 6개 도시에서 10개 고교 팀(보성, 선린상, 인 천, 공주, 군산상, 경남, 경남상, 경북, 대건, 대구상고) 이 출전한 가운데 대구종합운동장에서 개최, 10월 26 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경남고가 3-1로 대구상고를 물 리치고 대회 첫 우승 ▲준결승전=대구상고 1-0 군산상고, 경남고 2-1 경 북고 ▲결승전=경남고 3-1 대구상고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최동원(崔東原 경남고 투 수) ▲우수투수상=조규식(曹圭植 대구상고 투수) ▲ 감투상=송진호(宋鎭浩 대구상고 투수) ▲타격상=이 만수(대구상고 포수 .500) ▲미기상=손승락(경남고 3 루수) ▲감독상=김희련(경남고 감독) ▲지도상=신창 영(辛昶永 경남고 부장)</p>	<p>■10.23 신시내티 35년 만에 우승 월드시리즈 7차전에서 메이저리그 내셔널 리그 우승 팀 신시내티 레즈가 6회초 4번 페레즈의 2점짜리 홈런에 힘 입어 아메리칸 리그 우승 팀 보스턴 레드삭스에 4-3으로 역전 승을 올려 4승3패로 35년 만에 우승</p>
10.24	<p>■일본 프로야구 및 재일교포선발모국방문경기 대한야구협회 한국일보사 공동 초청으로 10월 24일 부터 일본 프로야구 롯데 오리온스 및 재일교포선발</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팀이 서울과 광주에서 실업선발 팀과 3차전을 개최, 롯데 오리온스가 2승, 재일교포 팀이 2승1무를 기록</p> <p>▲1차전(10월 24일 서울)=재일교포 7-2 실업선발, 롯데 2-1 실업선발 ▲2차전(10월 25일 서울)=재일교포 4-2 실업선발, 롯데 7-4 실업선발 ▲3차전(10월 30일 광주)=재일교포 4-4 실업선발</p> <p>◇재일교포=감독 장훈(張勳 일본함), 코치 이충남(李忠男 山本忠男 난카이), 및 박종률(朴鍾律 新井宏昌 난카이 2루수), 이호차(李浩次 川本浩次 긴키 3루수), 백인천(白仁天 태평양 중견수), 장훈(좌익수), 김유광(金有光 有藤通世 롯데 유격수), 기쿠카와(菊川昭二郎 롯데 유격수겸 2루수), 조정차(趙正次 西澤正次 태평양 포수겸 1루수), 김무종(金戊宗 木本茂美 히로시마 1루수겸 우익수), 송일수(宋一秀 石山一彦 긴키 포수), 허영옥(許永鈺 陽田淺吉 긴키 대타겸 1루수), 김욱장(金郁將 大島郁將 한큐 3루수), 주동식(朱東植 宇田東植 일본함), 김일웅(金日融 新浦壽夫 거인), 장명부(張明夫 松原明夫 난카이 이상 투수)</p> <p>◇실업선발=감독 허종만 코치 허정규 및 이해창(중견수겸 좌익수), 김일권(유격수겸 2루수), 윤동균(우익수) 김봉연(1루수), 김차열(좌익수겸 대타), 이종도(우익수겸 좌익수), 박해중(포수), 배대웅(2루수), 황성록(중견수 1루수), 우용득(1루수겸 포수), 함학수, 조윤식(이상 유격수), 양창익, 박해중(이상 포수), 강병철(3루수), 홍경태(우익수), 이선희, 김명성, 김호중, 강용수, 정기혁, 백창현, 하기룡(이상 투수), 박영길(대타), 박상열(투수) 구영석(3루수겸 2루수)</p>	 <p>재일교포-실업선발전 8회말, 김봉연(金奉淵)의 3루타로 득점 찬스를 잡았으나 후속 타자 김차열(金次烈)의 번트 실패로 김봉연은 홈에서 터치 아웃.</p>  <p>재일 한국인선수단을 이끌고 모국을 찾은 백인천(왼쪽)과 장훈</p> <p>■11.02 일본 한큐(阪急) 사상 첫 우승 한큐 브레이브스가 11월 2일 오사카 니시노미야구장에서 열린 일본시리즈 6차전에서 히로시마 카프를 7-3으로 꺾고 4승2무로 사상 처음 패권을 장악</p> <p>■11.12 톰 시버 사이영상 3번째 수상 75 시즌에서 22승으로 내셔널리그 최다승과 최다탈삼진(243)을 기록하며 방어율(2.38) 3위를 마크한 뉴욕 메츠의 톰 시버가 사이영상 세번째 수상에 성공. 1969년과 73년에 수상의 기쁨을 맛본 톰 시버는 샌디 쿠팍스(63, 65, 66년)에 이어 메이저리그 사상 사이영상을 세차례 받은 두번째 선수가 된다.</p>
10.29	<p>■서울시중·고연맹 추계리그 서울시중·고야구연맹 주최로 10월 29일부터 서울시 중학 16개 팀과 고교 15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1월 11일 끝난 고교 결승전에서 유한공고가 선린상고를 5-2로 꺾고 우승</p> <p>▲중학 결승전=선린중 2-0 배명중 ▲고교 준결승전=서울고 1-6 선린상고, 동대문상 0-2 유한공고 ▲동결승전=유한공고 5-2 선린상고</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황기선(黃起善 유한공고 투수) ▲우수투수상=황기선 ▲감투상=이길환(李吉煥 선린상고 투수) ▲타격상=심낙정(성남고 투수 .500) ▲최다 안타상=서재진(徐在鎭 서울고 중견수 10개) ▲타점상=정종현(鄭宗鉉 선린상고 포수 7점) ▲도루상=김진학(金鎭鶴 유한공고 1루수 5개)</p>	
11.01	<p>■정순명(鄭淳明),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한양대 투수 정순명이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자유중국파견 선발전겸 전국대학왕위전에서 김홍곤(金鴻坤) 이광은(李光殷 5회)이 마운드를 지킨 연세대 31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탈삼진 7개에 볼넷 5개 만을 허용한 끝에 2-0으로 No Hit No Run 기록</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11.04	<p>■황기선(黃起善), Perfect Game(완전경기) 수립 유한공고 투수 황기선이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시 고교 추계연맹전에서 성동고 27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삼진 9개를 잡으며 내야 땅볼8, 내야 플라이7, 외야 플라이2, 파울 플라이 1개를 처리한 끝에 1시간 31분 만에 5-0으로 Perfect Game(완전경기) 수립</p>	
12.27	<p>■제18회 이영민 타격상 이효헌(李孝憲) 수상 대한야구협회(회장 김종락)가 12월 27일 제18회 이영민 타격상 수상자로 전국규모 3개 대회에서 33타수 11안타(타율 .333)를 기록한 마산상고 이효헌을 선정하고, 최우수 단체에 광주 송의중으로 결정</p>	
1976. 03.14	<p>■서울시 중·고연맹전 춘계리그컵 제10회 전국고교대회 서울시예선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3월 14일부터 서울시 14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3월 28일 끝난 결승전에서 신일고가 서울고를 3-2로 누르고 팀 창단 이후 첫 우승 ▲준결승전=서울고 3-1 중앙고, 신일고 7-0 선린상고 ▲결승전=신일고 3-2 서울고 ◇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경훈(金景勛 신일고 포수) ▲우수투수상=김정수(金貞洙 신일고 투수) ▲감투상=선우대영(서울고 투수) ▲수훈상=김수남(金洙男 신일고 투수) ▲타격상=①김경훈(신일고 .500) ②서재진(徐在鎭 서울고 중견수 .481) ③ 김홍현(金弘鉉 신일고 유격수 .478) ▲타점상=선우대영(서울고 10점) ▲감독상=한동화(신일고 감독), 구상문(서울고 감독)</p>	<p>■01.06 미 언론재벌 애틀랜타 인수 미국의 언론재벌 테드 터너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를 1천1백만 달러(약 1백32억원)에 인수 ■03.09 연방법원 자유계약선수 인정 미국 연방법원에서 자유계약선수(FA)를 인정함에 따라 시즌이 종료된 뒤 자유계약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 뉴욕 양키스가 레지 잭슨과 350만 달러로 FA계약</p>
03.28	<p>■제26회 백호기쟁탈 전국대회 대한야구협회 경향신문사 공동 주최로 3월 28일부터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동아대, 성균관대, 연세대, 영남대, 인천체전, 중앙대, 한양대 및 롯데, 상업은행, 기업은행, 제일은행, 육군, 철도청, 한국전력, 농협, 공군, 한일은행 등 21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4월 5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한일은행이 한양대를 2-1로 제치고 우승 ▲준결승전=한양대 3-1 육군, 한일은행 11-2 연세대 ▲결승전=한일은행 2-1 한양대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정순명(한양대 투수) ▲우수선수상=주성노(한일은행) ▲최고 수훈상=임신근(한일은행) ▲감투상=백창현(육군) 미기상=허구연(한일은행) ▲타격상=①장효조(한양대 .714) ②홍경태(한일은행 .500) ③최남수(한일은행 .471) ▲타점상=최남수(한일은행 8타점) ▲홈런상=김성관(롯데) 외 20명 ▲No Hit No Run 상=백창현(육군) ▲감독상=김응룡(한일은행 감독) △한일은행=감독 김응룡 및 홍경태(좌익수겸 우익수) 허구연(2루수), 우용득(포수), 김용철(3루수), 강병철(1루수), 최남수(중견수), 임신근(투수겸 좌,우익수), 강문길(유격수), 하영발(우익수), 김호중(투수)</p>	 <p>한일은행 주장 최남수(崔南洙)가 우승의 상징인 백호기를 받아들고 있다.</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한양대=장정호(좌익수), 김한근(3루수), 장효조(우익수겸 투수), 김유동(중견수), 도영권(1루수), 허규옥(許圭沃 우익수), 정순명(투수겸 1루수), 조용선(趙容宣 포수), 하대성(河大成 유격수), 하광희(대타), 이기호(2루수)</p>	
03.28	<p>■백창현(白昌鉉),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육군 투수 백창현이 제26회 백호기 전국대회 첫 날 경기에서 중앙대 27타자를 상대로 탈삼진 7개, 볼넷 3개와 도루 1개를 허용한 끝에 2-0으로 No Hit No Run 기록</p>	
04.05	<p>■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춘계1차리그 한국실업연맹 주최로 4월 5일부터 공군, 기업은행, 농협, 롯데, 상업은행, 육군, 제일은행, 철도청, 한국전력, 한일은행 등 10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4월 22일 벌어진 최종일 경기에서 한일은행이 제일은행을 5-2로 꺾고 7승1무1패로 우승 ◇종합 순위=①한일은행(7승1무1패) ②기업은행(5승3무1패) ③롯데, 육군(이상 5승1무3패) ④한국전력(3승4무2패) ⑤농협(5승4패) ⑥상업은행(3승1무5패) ⑦제일은행(2승1무6패) ⑧철도청, 공군(이상 1승2무6패) ◇개인상 ▲최고수훈선수상=최남수(한일은행) ▲우수투수상=박상열(제일은행) ▲타격상=임신근(한일은행 .512) ▲감독상=김응룡(한일은행 감독)</p>	 <p>실업야구 13일째 롯데-한일은행전 8회말 1사 2루에서 한일은행 5번 강병철(姜秉徹)의 희생 플라이로 3루 주자 김용철(金容哲)이 홈인, 6-2로 리드를 지켰다.</p>
04.20	<p>■전국대학연맹전 춘계리그 한국대학야구연맹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4월 20일부터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동아대, 성균관대, 연세대, 영남대, 인천체전, 중앙대, 한양대 등 11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인천(4월 20~26일)과 서울운동장(4월 27일~5월 12일)에서 개최, 5월 12일 벌어진 마지막 경기에서 영남대가 한양대를 3-0으로 꺾고 통산 성적 8승2패로 우승 ◇종합 순위=①영남대(8승2패) ②한양대, 성균관대(이상 7승1무2패) ④연세대(6승1무3패) ⑤중앙대, 동아대(이상 5승5패) ⑦고려대(4승1무5패) ⑧동국대(3승2무5패) ⑨건국대(2승2무6패), 경희대(이상 3승7패) ⑪인천체전(1승9패) ◇개인상 ▲우수선수상=권정화(영남대) ▲타격상=①장효조(한양대 .486) ②김재박(영남대 .472) ③정구왕(중앙대 .452) ▲홈런킹상=김용달(金龍達 중앙대 4개) ▲감독상=배성서(영남대 감독)</p>	 <p>전국대학연맹전춘계리그 최종일 경기 영남대-한양대전에서 4회말 1사후 영남대의 1루 주자 김기훈이 2루 스틸을 감행했으나 견제구에 걸려 아웃.</p>
04.23	<p>■제13회 실업야구 올스타전 한국실업야구연맹 주최로 4월 23일부터 3일간 금융단-실업단이 대결하는 올스타전을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4월 25일 열린 3차전에서 실업단이 금융단에 4-11로 패했으나 종합 전적 2승1패로 우승</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1차전(통산 41차전 4월 23일)=실업단 5-4 금용단 ◇개인상 △수훈선수상=구영석(상업은행) △승리투수상=백창현(육군) △우수선수상=강만식(농협) △감투상=강병철(한일은행) △타격상=구영석(상업은행 .667) △홈런상=구영석(상업은행) 황성록(한국전력) 김일권(상업은행) 강병철(한일은행) △감독상=김동엽(롯데)</p> <p>▲2차전(통산 42차전 4월 24일)=금용단 1-6 실업단 ◇개인상 △수훈선수상=김정수(롯데) △승리투수상=양한철(롯데) △우수투수상=최영명(崔瑛明 한국전력) △감투상=김호중(한일은행) △타격상=정현발(롯데) △홈런상=김정수(롯데), 신현석(공군), 정현발(롯데) △감독상=김계현(한국전력 감독)</p> <p>▲3차전(통산 43차전 4월 25일)=실업단 4-11 금용단 ◇개인상 △수훈선수상=이해창(농협) △승리투수상=주성노(한일은행) △우수투수상=주성노(한일은행) △감투상=황성록(한국전력) △타격상=이원녕(상업은행 1.000) △홈런상=최준상(崔竣相 한국전력) △감독상=배수찬(기업은행 감독)</p>	 <p>올스타 1차전 2회초 실업선발 8번 구영석(具永錫)이 선제 솔로 홈런을 날린 뒤 흡인하고 있다.</p>
05.01	<p>■ 제6회 대통령기쟁탈 전국중학대회 전남야구협회 전남일보사 공동 주최로 5월 1일부터 전국 14개 중학 팀(송의, 춘천, 한밭, 신용산, 동인천, 경운, 전남, 송정, 초량, 청주남, 군산남, 광주 동성, 마산동, 동대문중)이 출전한 가운데 광주공설운동장에서 개최, 5월 5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전남중이 광주 동성중을 2-1로 누르고 우승</p> <p>▲준결승전=한밭중 1-3 전남중, 송정중 5-11 동성중 ▲결승전=전남중 2-1 동성중</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박기동(전남중 1루수) ▲우수선수상=송영수(宋榮洙 전남중 투수) ▲감투상=강정남(姜政男 동성중 투수) ▲수훈상=이순철(李順喆 전남중 2루수) ▲타격상=심중섭(한밭중 .545) ▲미기상=박병권(朴炳權 송정중 유격수) ▲감독상=강의원(姜義遠 전남중 감독) ▲지도상=이봉규(전남중 부장)</p>	
05.01	<p>■ 제16회 문교부장관기쟁탈 전국4도시선발고교대회 경북야구협회 매일신문사 공동 주최로 5월 1일부터 전국 6개 고교 팀(신일, 동산, 경남, 경북, 대건, 대구상고)이 출전한 가운데 대구시민운동장에서 개최, 5월 3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경북고가 동산고를 1-0으로 누르고 우승</p> <p>▲준결승전=동산고 2-1 대구상고, 경북고 2-1 신일고 ▲결승전=경북고 1-0 동산고</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성낙수(경북고 투수) ▲감투상=김재현(金在峴 동산고 투수) ▲미기상=박경호(朴敬浩 동산고 3루수) ▲타격상=성낙수(경북고 투수 .385) ▲감독상=박호성(朴好聲 경북고 감독) ▲지도상=김성진(金聲振 경북고 부장)</p> <p>△경북고=감독 박호성 및 구명중(중견수), 배성환(우</p>	 <p>제6회 대회에서 우승한 전남중 주장에게 전남일보 김종태(金宗太) 사장이 우승기를 수여하고 있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익수), 성낙수(투수), 박정환(포수), 김휘욱(좌익수), 유현창(1루수), 조영삼(유격수), 서석진(3루수), 이동수(2루수)</p> <p>△동산고=감독 박의양 및 최영환(崔榮桓 포수), 허운(許云 유격수), 주임창(朱任昌 중견수), 강준선(姜俊善 좌익수), 이건복(李健福 1루수), 이경동(李暲東 우익수) 박경호(3루수), 김재현(투수), 한명진(韓明鎭 2루수)</p>	
05.13	<p>■제10회 대통령배쟁탈 전국고교대회 대한야구협회 동양방송·중앙일보사 공동 주최로 5월 13일부터 광주일고, 세광고, 대구상, 동산고, 충암고, 선린상, 송의실고, 상문고, 서울고, 부산상, 전남고, 대전고, 인천고, 중앙고, 춘천고, 신일고, 경남고, 마산상, 군산상, 배문고 등 전국 20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토너먼트로 개최, 5월 20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군산상고가 대구상고를 1-0으로 누르고 첫 우승</p> <p>▲준결승전=군산상 6-0 전남고, 대구상고 3-2 광주일고 ▲결승전=군산상 1-0 대구상고</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용남(金勇男 군산상고 투수) ▲우수투수상=김시진(대구상고 투수) ▲감투상=조호(趙濤 대구상고 2루수) ▲타격상=①이상윤(李相潤 광주일고 3루수 .500) ②안재홍(安在鴻 군산상고 1루수 .474) ③문형렬(文亨烈 전남고 중견수 .444) ▲최다안타상=①안재홍(군산상고 9) ②신주현(辛周鉉 군산상고 포수 6) ③김종성(대구상고 3루수5) ▲도루상=문형렬(전남고 7) ▲타점상=안재홍(군산상고 4) ▲미기상=김형중(金亨鍾 군산상고 우익수) ▲수훈상=김종윤(金鍾潤 군산상고 중견수) ▲감독상=최관수(군산상고 감독) ▲공로상=원용학(元容鶴 군산상고 교장), 이용일(李容一 전북협회 회장)</p> <p>△군산상고=감독 최관수 및 김종윤(중견수), 김형중(우익수), 김성한(金城漢 유격수), 김현룡(좌익수), 김용남(투수겸 3루수), 안재홍(1루수), 신주현(포수), 송승호(宋承鎬 대주), 박기수(朴起秀 2루수), 박헌창(朴憲昌 3루수), 김동철(金東澈 대타), 최형빈(崔亨斌 투수겸 3루수)</p> <p>△대구상고=감독 정동진(丁東鎭) 및 김정태(金定泰 우익수), 김종성(3루수), 이만수(포수), 송진호(중견수) 오대석(吳大錫 유격수), 김시진(투수), 조호(2루수), 이수빈(李壽彬 1루수), 신상순(申上淳 좌익수)</p>	 <p>제10회 대통령배쟁탈 전국고교대회 결승전에서 대구상고의 이수빈이 3회말 1사후 2루에서 김정태의 적시타로 홈으로 파고 들었으나 터치 아웃</p>  <p>전국실업연맹 2차리그 기업은-한일은전 7회초 기업은 3번 박해중(朴海鍾)이 좌월 홈런을 날려 홈런 11개로 연간 최다기록 (70년 한일은 강병철 10개)을 돌파</p>
05.14	<p>■제3회 부산시장기쟁탈 전국실업대회 부산야구협회 주최로 5월 14일부터 한일은행, 상업은행, 제일은행, 육군, 기업은행, 롯데, 철도청, 공군, 농협, 한국전력 등 10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개최, 5월 18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한일은행이 한국전력을 10-4로 물리치고 우승</p> <p>▲준결승전=한일은 10-6 기업은, 롯데 1-6 한국전력 ▲결승전=한일은 10-4 한국전력</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우용득(한일은 포수) ▲우</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수투수상=임신근(한일은 투수) ▲감투상=강용수(한국 전력 투수) ▲미기상=황성록(한국전력 중견수) ▲타격상=우용득(한일은 포수 .636) ▲타점상=박영길(한국전력 중견수 8타점) ▲감독상=김응룡(한일은 감독)	
05.20	■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춘계2차리그 한국실업연맹 주최로 5월 20일부터 10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5일 인천공설운동장에서 끝난 2차리그에서 롯데가 7승1무1패로 우승 ◇종합 순위=①롯데(7승1무1패) ②한일은행, 육군, 제일은행(이상 6승3패) ⑤기업은행(5승4패) ⑥상업은행(4승1무4패) ⑦한국전력(5승5패) ⑧농협(3승6패) ⑨공군(2승7패) ⑩철도청(1승8패) ◇개인상 ▲최고 수훈선수상=차영화(롯데) ▲우수투수상=계형철(롯데) ▲타격상=도유성(기업은행 .512) ▲감독상=김동엽(롯데 감독)	
05.26	■ 전국대학초청대회 경북야구협회 한국대학야구연맹 매일신문사 공동 주최로 5월 26일 한양, 동아, 고려, 연세, 인천체, 중앙, 건국, 성균관, 영남, 동국, 경희대 등 11개 대학이 출전한 가운데 대구 시민운동장에서 개최, 5월 31일 열린 최종 결승전에서 중앙대가 영남대를 3-2로 꺾고 팀 창단 이후 전국대회 첫 우승 ◇결승리그 순위=①중앙대, 영남대(2승1패) ③성균관대, 한양대(1승2패) ▲최종 결승전=중앙대 3-2 영남대 ◇개인상 ▲우수선수상=유종겸(중앙대 투수) ▲타격상=①장효조(한양대 .688) ②김용달(중앙대 .474) ▲타점상=김유동(한양대 9타점) ▲감독상=김진영(중앙대 감독) △중앙대=감독 김진영 및 정구왕(중견수), 김영주(金永柱 2루수), 김용달(포수), 장성규(1루수), 변규식(邊圭植 3루수), 문성태(文成泰 좌익수), 김원규(金元奎) 이충원(이상 우익수), 유종겸(투수겸 우익수), 김인태(金仁台 투수), 고명운(高明運 유격수)	
05.28	■ 제19회 전국4도시초청고교대회 부산일보사 주최로 5월 28일부터 전국에서 6개 고교 팀(서울, 인천, 대구상, 경남, 부산, 부산상고)이 출전한 가운데 구덕구장에서 개최, 5월 30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경남고가 대구상을 4-2로 물리치고 우승 ▲준결승전=대구상고 11-2 서울고, 경남고 3-0 부산고 ▲결승전=경남고 4-2 대구상고 ◇개인상 ▲우수선수상=최동원(崔東原 경남고 투수) ▲감투상=김시진(대구상고 투수) ▲미기상=이자원(李滋源 경남고 3루수) ▲타격상=선우대영(鮮于大泳 서울고 투수 .750) ▲지도상=김희련(경남고 감독)	
06.03	■ 제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야구경기 대한체육회 주최로 6월 3일 전국에서 6,422명의 선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6일 중학야구 결승전에서 서울선발과 경북선발이 0-0 무승부로 공동 우승(국민학교 제외) ▲중학 준결승전=경북선발 14-1 전남선발, 서울선발 3-1 부산선발 ▲ 동 결승전=서울선발 0-0 경북선발 (공동 우승)</p>	
06.09	<p>■제10회 대통령기쟁탈 전국대학대회 대한야구협회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6월 9일부터 전국에서 11개 대학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토너먼트로 개최, 6월 13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연세대가 고려대를 6-1로 격파하고 우승 ▲준결승전=연세대 3-1 한양대, 고려대 6-5 건국대 ▲결승전=연세대 6-1 고려대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이광은(연세대 투수) ▲감투상=황규봉(고려대 투수) ▲수훈상=김대진(연세대 1루수) ▲타격상=①조종규(건국대 포수 .571) ②김우근(건국대 외야수 .571) ③김용희(고려대 내야수 .538) ▲본루타왕상=김용희(고려대 3개) ▲감독상=이재환(연세대 감독) △연세대=감독 이재환 및 정진호(유격수), 하태민(3루수), 신언호(포수), 이광은(투수), 김대진(1루수), 윤균필(좌익수), 진언근(2루수), 배태욱(중견수), 서성제(우익수) △고려대=유대성(중견수), 김윤환(3루수겸 우익수), 김종수(2루수겸 투수), 김용희(1루수겸 3루수), 이성득(유격수), 이승후(좌익수), 김승수(포수), 황규봉(투수겸 우익수), 정윤택(대타), 우경하(우익수), 신춘식(3루수겸 2루수), 박봉구(대타), 홍종진(1루수), 손상득(대타)</p>	<p>소년체육대회 공개 행사에서 화곡여중생들이 매스게임을 선보이고 있다.</p>  <p>제10회 대통령기쟁탈 전국대학대회 입장식</p>
06.14	<p>■제31회 청룡기쟁탈 전국고교선수권대회 대한야구협회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6월 14일부터 전국 각 지역에서 선발된 14개 고교 팀(경북, 마산상, 신일, 공주, 상문, 인천, 군산상, 선린상, 춘천, 광주일, 세화, 경남, 청주, 대건고)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20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경남고가 군산상고를 5-0으로 격파하고 우승 ▲승자 준결승전=경북고 3-4 군산상고(연장 11회), 선린상고 0-1 경남고 ▲패자 준결승전=선린상고 6-4 경북고 ▲승자 결승전=경남고 9-1 군산상고 ▲결승전=경남고 5-0 군산상고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최동원(경남고 투수) ▲우수선수상=이우상(경남고 중견수) ▲감투상=김성한(군산상고 투수) ▲미기상=박기수(군산상고 2루수) ▲수훈상=이재영(경남고 포수) ▲타격상=①이우상(경남고 중견수 .474) ②이길환(선린상고 투수 .429) ③서석진(경북고 2루수) ▲안타상=①이우상(경남고 중견수 9개) ②김현룡(군산상고 좌익수 8개) ③김형중(군산상고 우익수 7개) ▲타점상=이우상(경남고 중견수 8타점) ▲도루상=이우상(경남고 중견수 2개) ▲지도상=</p>	 <p>제31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경남고 주장 최동원이 청룡기를 받아들고 있다.</p> <p>■06.15 애스트로 돔 폭우로 경기 취소 전천후 실내 구장인 애스트로 돔이 심한 폭우로 관중들은 물론 심판들도 경기장에 오지 못해 사상 최초로 경기를 취소</p> <p>■06.19 장훈, 28경기 연속 안타 신기록 요미우리(讀賣) 자이언츠의 강타자 장훈</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김희련(경남고 감독) ▲공로상=노은식(盧殷植 경남고 교장) △경남고=감독 김희련 및 배정호(좌익수), 김수득(우익수), 이재영(포수), 최동원(투수), 이우상(중견수), 이자원(3루수), 김규철(金圭哲 2루수), 정재곤(1루수), 이원혁(李元赫 1루수)</p>	<p>(張勳)이 고시엔(甲子園)에서 열린 한신(阪神) 타이거스전 1회초 홈런으로 28경기 연속 안타 신기록을 수립</p>
06.22	<p>■ 제6회 회장기쟁탈 전국국민학교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6월 22일부터 전국에서 10개 국민학교 팀(충북 이수, 서울 봉천, 경기 송의, 전북 군산, 부산 중앙, 전남 양동, 충남 전동, 서울 한양, 경북 옥산, 전북 군산남)이 출전한 가운데 장충리틀구장에서 개최, 6월 25일 열린 결승전에서 군산남국민학교가 충북 이수국민학교를 1-0으로 제치고 우승 ▲준결승전=이수국 3-2 군산국, 천동국 0-9 군산남국 ▲결승전=군산남국 1-0 이수국 ◇개인상 ▲우수선수상=조계현(趙啓顯 군산남국 투수) ▲김투상=박희홍(이수국 투수) ▲타격상=양진섭(전동국 .600) ▲미기상=최봉규(군산남국) ▲감독상=문철웅(文喆雄 군산남국 감독) ▲공로상=최규거(崔奎巨 군산남국 교장), 이용일(李容一 전북야구협회장)</p>	
06.22	<p>■ 제23회 전국중학선수권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6월 22일부터 전년도 우승 팀 부산 동성중을 비롯해 11개 팀(초량, 청주, 춘천, 동인천, 전라, 동성, 한밭, 선린, 송의, 대광, 경상중)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25일 끝난 결승전에서 선린중이 한밭중을 11-1로 격파하고 우승 ▲준결승전=초량중 1-2 한밭중, 선린중 3-1 경상중 ▲결승전=선린중 11-1 한밭중 ◇개인상 ▲우수선수상=유중갑(劉中甲 선린중 투수) ▲감독상=박동규(朴東圭 한밭중 투수) ▲타격상=이상걸(李相杰 경상중) ▲감독상=장운룡(張雲龍 선린중 감독) ▲공로상=송조준(宋조준 선린중 교장), 조서희(중고연맹 회장)</p>	
06.25	<p>■ 제9회 네덜란드초청 할렘 국제친선대회 준우승 네덜란드야구협회 초청으로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할렘시에서 벌어진 국제초청대회에 국가대표선수단 27명(임원7, 선수20명)을 파견, 네덜란드 대표팀을 비롯해 미국 실업팀 '셀레반스', 유럽주둔 미공군 선발팀 '유세이프', 미국대학대표 '와일드 컷' 등 5개 팀이 풀 리그 접전을 치른 끝에 한국이 6승2패로 준우승(우승 와일드 컷) ▲1차전(6월 25일)=한국 2-3 와일드 컷 ▲2차전(6월 26일)=한국 1-0 셀레반스 ▲3차전(6월 28일)=한국 15-0 유세이프 ▲4차전(6월 29일)=한국 1-2네덜란드 ▲5차전(6월 30일)=한국 5-3 유세이프 ▲6차전(7월 1일)=한국 2-1 와일드 컷 ▲7차전(7월 2일)=한국</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5-3 셀레반스 ▲8차전(7월 4일)=한국 2-0 네덜란드 ◇한국선수단 ▲단장=최인철, 임광정(이상 협회 부회장) ▲임원=이팔관(협회 이사), 김정환(협회 전무이사) ▲심판=박상규(협회 심판장) ▲감독=허종만(육군 감독) ▲코치=유백만(상은 감독) ▲투수=정순명(한양대), 김호중(한일은), 이선희(육군), 계형철(성균관대), 강용수(한전), 황태환(육군) ▲포수=우용득(한일은), 신언호(연세대), 박해중(기은) ▲내야수=김봉연(육군), 배대웅(기은), 김일권(상은), 김용철(한일은), 김재박(영남대), 구영석(육군) ▲외야수=장효조(한양대), 임신근(한일은), 김차열(제일은), 이해창(농협), 윤동균(기은)</p>	
07.07	<p>■ 긴키(近畿)대초청 한일친선대학대회 대한야구협회 중앙일보사 공동 초청으로 7월 5일 내한, 7월 7일부터 서울, 대구, 부산에서 국내 대학 팀들과 8차전 끝에 4승1무3패를 기록 ▲1차전(7월 7일 서울)=긴키대 1-6 고려대 ▲2차전(7월 8일 서울)=긴키대 8-6 중앙대 ▲3차전(7월 10일 서울)=긴키대 7-9 건국대 ▲4차전(7월 10일 서울)=긴키대 0-0 한양대 ▲5차전(7월 11일 서울)=긴키대 2-3 성균관대 ▲6차전(7월 11일 서울)=긴키대 3-0 연세대 ▲7차전(7월 13일 대구)=긴키대 5-2 영남대 ▲8차전(7월 14일 부산)=긴키대 3-1 동아대</p>	<p>긴키대-고려대전 7회말 고려대 1번 유대성(俞大成)이 우월 솔로 홈런을 날리고 홈인하고 있다.</p>
07.12	<p>■ 제30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대한야구협회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7월 12일부터 배명, 서울, 선린상, 성남, 신일, 철도, 춘천, 동산, 인천, 공주, 세광, 군산상, 광주상, 광주일, 마산상, 경남, 경남상, 부산상, 대구상고 등 19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7월 19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신일고가 선린상고를 2-0으로 제치고 우승 ▲준결승전=신일고 7-0 군산상고, 선린상고 3-2 마산상고 ▲결승전=신일고 2-0 선린상고 ◇개인상 ▲우수상=김남수(金男洙 신일고 1루수) ▲우수투수상=김정수(金貞洙 신일고 투수) ▲감투상=이길환(선린상고 투수) ▲수훈상=최홍석(崔洪錫 신일고 중견수) ▲타격상=①임정면(林禎勉 마산상고 유격수 .643) ②김남수(신일고 1루수 .533) ③김형곤(선린상고 유격수) ▲타점상=정혁진(선린상고 좌익수 5점) ▲안타상=①김형곤(선린상고 유격수 11개) ②임정면(마산상고 유격수 9개) ③김남수(신일고 1루수 8개) ▲미기상=임정면(마산상고 유격수) ▲도루상=김정수(신일고 투수 3개) ▲감독상=한동화(신일고 감독) ▲공로상=김삼열(金三悅 신일고 교장), 조서희(중고연맹 회장) ▲장려상=공주고 △신일고=감독 한동화 및 김홍현(金弘鉉 유격수), 박종훈(朴鍾勳 좌익수), 김경훈(金鏡勛 포수), 차용갑(車容甲 투수겸 우익수), 김정수(투수), 조성영(曹晟榮) 박천수(朴千洙 이상 우익수), 김남수(1루수), 최홍석(중견수), 양승호(梁承虎 3루수), 김수남(金洙男 투수겸 2루수)</p>	 <p>전국고교쟁패전에서 우승 황금사자기와 대형 우승컵을 받아든 신일고 선수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7.24	<p>■ 미국 독립 200주년기념 한·미친선대회 미국 독립 200주년을 맞아 아마추어 선발 팀인 '어슬레틱 메이슬리'가 내한,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서울을 비롯해 대전, 대구, 광주, 부산을 돌며 한국대표 및 대학선발 팀과 10차전을 가진 끝에 3승2무5패를 기록 ▲1차전(7월 24일 서울)=미국 5-5 한국 ▲2차전(7월 25일 서울)=미국 5-9 대학선발 ▲3차전(7월 25일 서울)=미국 6-13 한국 ▲4차전(7월 27일 대전)=미국 4-7 한국 ▲5차전(7월 28일 대구)=미국 9-7 한국 ▲6차전(7월 31일 서울)=미국 9-7 한국 ▲7차전(8월 1일 서울)=미국 6-5 한국 ▲8차전(8월 3일 광주)=미국 3-3 한국 ▲9차전(8월 5일 부산)=미국 5-19 한국 ▲10차전(8월 7일 서울)=미국 2-7 한국</p>	<p>■ 07.17 제21회 하계올림픽대회 제21회 하계 올림픽대회(7월 17~31일 한국시간 7월 18일~8월 1일)가 캐나다 몬트리얼 메인스타디움에서 119개국, 1만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개막, 한국은 5종목에 72명(임원 22, 선수 50명)의 선수단을 파견, 금 1, 은 1, 동 4개 획득</p>
07.28	<p>■ 세계리틀선수권대회 극동지역예선전 세계리틀야구연맹 주최로 7월 28일부터 한국, 일본, 자유중국(대만), 홍콩, 괌, 필리핀 등 6개국이 출전한 가운데 괌 아가나에서 개최, 8월 8일 일본이 전년도 세계 챔피언인 자유중국을 10-3으로 꺾고 우승 ◇종합 전적=①일본(5승) ②자유중국(4승1패) ③한국(3승2패) ◇한국선수단 △단장=모무열(毛無說 협회 이사) △총무=이영구(李英求 협회 이사) △심판=김종택(金鍾澤) △코치=김중훈(金鍾勛) △선수=조은영(趙殷瑩), 박노준(朴魯俊), 이재홍(李載弘), 천성호(千誠豪), 이민중(李旻鍾), 김진한(金鎭漢), 함수희(咸秀希), 김진(金鎭), 김건우(金健友), 황남식(黃南植), 김주열(金珠烈), 이왕진(李王珍), 노승구(盧承玖), 김항기(金恒基)</p>	
07.28	<p>■ 제28회 화랑기쟁탈 전국고교대회 부산야구협회 국제신문사 공동 주최로 7월 28일부터 전년도 우승 팀 경남상고를 비롯해 강릉, 신일, 대전, 부산, 광주일, 철도, 전주상, 경남, 선린상, 동산, 마산상, 청주, 광주상, 대건, 배명, 부산상고 등 17개 고교팀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 구덕구장에서 개최, 8월 4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부산상고가 신일고를 3-0으로 꺾고 2년만에 패권 탈환 ▲준결승전=신일고 2-0 경남고, 부산상고 6-1 선린상고 ▲결승전=부산상고 3-0 신일고 ◇개인상 ▲우수선수상=이윤섭(부산상고 투수) ▲감투상=김정수(신일고 투수) ▲타격상=①채희주(蔡熙柱 광주상고 .875) ②조충렬(趙忠烈 선린상고 .556) ▲미기상=곽동찬(郭東贊 부산상고 3루수) ▲지도상=성기영(부산상고 감독) ▲공로상=이수동(李水東 부산상고 교장)</p>	<p>■ 07.31 양정모, 올림픽 첫 금메달 몬트리얼 올림픽 폐막 하루 전인 7월 31일 열린 레슬링 자유형 페터급 결승전에서 몽고의 '오이도프'를 벌점 1점 차로 따돌리고 광복 31년 만에 처음으로 금메달 획득</p>
08.10	<p>■ 제6회 봉황기쟁탈 전국고교대회 한국중·고야구연맹 한국일보사 공동 주최로 8월 10일부터 제일교포를 비롯해 46개 팀(선린상, 성동, 대전, 장충, 부산, 군산상, 서울, 전남, 대구상, 노산, 목포상,</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경남상, 휘문, 보성, 심석중, 대광, 춘천, 광주상, 동산, 성남, 전주상, 경남, 유한공, 인천, 청주, 광주일, 세광, 배명, 배재, 대건, 마산상, 경기, 동대문상, 공주, 경동, 경북, 강릉, 철도, 상문, 중앙, 진흥, 배문, 인천체, 부산상고)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막, 8월 26일 끝난 결승전에서 부산상고가 선린상고를 4-0으로 꺾고 우승</p> <p>▲준결승전=선린상 1-0 인천고, 부산상 3-2 재일교포 ▲결승전=부산상고 4-0 선린상고</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이윤섭(부산상 투수) ▲최우수투수상=이길환(선린상 투수) ▲우수투수상=백의홍(白義弘 재일동포), 인호봉(印浩鳳 인천고) 선우대영(서울고) ▲감투상=신군식(선린상 투수) ▲수훈상=조호성(趙浩成 부산상 1루수) ▲타격상=①정인규(丁仁奎 인천고 좌익수 .375) ②홍신차(洪新次 재일동포 1루수 .375) ③ 최무웅(崔茂雄 3루수 .320) ▲최다 타점상=①이윤섭(부산상 투수 4점) ②정종현(선린상 포수 4점) ③박창언(朴彰彦 재일동포 유격수 4점) ▲최다 안타상=①홍신차(재일동포 9개) ②최무웅(재일동포 8개) ③김승명(金勝明 재일동포 2루수 7개) ▲감독상=성기영(부산상고 감독), 유문식(선린상고 감독) ▲지도상=문명득(文明得 부산상 야구부장), 이성하(李盛夏 선린상 야구부장) ▲응원상=배재고</p> <p>△부산상고=감독 성기영 및 김종태(우익수), 한철수(韓哲洙 포수), 김영만(金榮萬 중견수), 이윤섭(투수), 조호성(趙浩成 1루수), 최외석(좌익수), 광동찬(3루수) 이상래(李相來 2루수), 김구원(金求元 유격수)</p> <p>△선린상고=감독 유문식 및 김형곤(유격수), 김광수(2루수), 조총렬(3루수), 정종현(포수), 이길환(투수겸 우익수), 구석모(具碩謨 우익수), 김문수(金汶洙 투수), 이귀한(3루수), 이선웅(李善雄 투수겸 2루수), 신군식(1루수), 정혁진(좌익수), 유승철(柳承喆 대타), 임흥렬(중견수), 김문영(金文映 대타겸 좌익수)</p>	 <p>제6회 봉황기쟁탈 전국고교대회 결승전. 1회말 2사 3루에서 부산상고 4번 이윤섭의 우전 안타로 3루 주자 김종태가 홈인하고 있다.</p>
08.17	<p>■한·일친선고교대회</p> <p>대한야구협회가 일본고교야구연맹 초청으로 8월 15일 황금사자기고교쟁패전 우승 팀 신일고를 파견,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기후(岐阜)고교선발을 비롯해 치벤(智辨)및 다이데쓰(大鐵)고교와 3차전을 치른 끝에 1승2패를 기록</p> <p>▲1차전(8월 17일 기후구장)=신일고 2-0 기후고교 선발 ▲2차전(8월 18일 카시하라 橿原구장)=신일고 3-5 치벤(智辨)고교 ▲3차전(8월 18일 닛세이구장)=신일고 0-1 다이데쓰(大鐵)고교</p> <p>◇신일고선수단 ▲단장=정기승(鄭起勝 협회 이사) ▲부단장=김삼열(金三悅 신일고 교장) ▲섭외=송석영(宋錫英 신일고 야구부장) ▲감독 한동화 ▲투수=차용갑, 김정수, 김호근(金浩根) ▲포수=김경훈, 노승진(盧承珍) ▲내야수=김남수(1루수), 김수남(金洙男 투수겸 2루수), 양승호(3루수), 김홍현(金弘鉉 유격수)</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외야수=박종훈(좌익수), 최홍석(崔洪錫 중견수), 조성영(曹晟榮), 박천수(朴千洙 이상 우익수) ▲후보=이종호(李鍾浩 2루수), 남경현(南景鉉 3루수), 조용현(趙龍鉉 좌익수)</p>	
08.18	<p>■한국대학선발 일본원정 한·일친선대회 일본 간사이(關西)대학연맹 초청으로 8월 17일 한국 대학선발야구단(일행 23명)이 김상구(金相九 대학연맹 부회장) 단장 인솔로 향일,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간사이지방에서 7차전 끝에 3승1무3패를 기록 ▲1차전(8월 18일)=대학선발 1-2 고베(神戸)학원 ▲2차전(8월 19일)=대학선발 4-4 도요(東洋)대 ▲3차전(8월 21일)=대학선발 1-0 간사이(關西)대 ▲4차전(8월 22일)=대학선발 9-1 오사카(大阪)상대 ▲5차전(8월 24일)=대학선발 2-3 도시샤(同志社)대 ▲6차전(8월 24일)=대학선발 0-3 리츠메이칸(立命館)대 ▲7차전(8월 25일)=대학선발 6-4 긴키(近畿)대 ◇한국대학선발 △단장=김상구(대학연맹 부회장) △총무=이재환 △섭외=김진영 △감독=안영필(동아대 감독) △코치=배성서(영남대 감독) △선수=이광은, 오문현(吳文鉉), 유종천(柳鍾天), 유종겸(이상 투수), 심재원, 김용달(이상 포수), 김대진, 김일환, 허욱, 김종수, 김용희, 김한근, 정진호(이상 내야수), 장정호, 김유동 정구왕, 권정화, 유대성(이상 외야수)</p>	<p>■08.18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8월 18일 상오 10시45분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현장에 북한경비병 30여 명이 기습, 유엔군측 장교 2명을 도끼로 찍어 살해하고 미군 4명과 한국군 5명(장교 1명, 사병 4명) 등 9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만행을 자행</p>
08.25	<p>■도쿄(東京)올스타초청 한·일친선실업대회 대한야구협회 초청으로 일본 사회인야구 도쿄올스타팀이 내한, 8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국내 실업 팀과 9차전을 치른 끝에 도쿄올스타가 7승1무1패를 기록 ▲1차전(8월 25일 서울)=도쿄 올스타 3-1 한일은행 ▲2차전(8월 26일 서울)=도쿄 올스타 3-3 롯데 ▲3차전(8월 28일 서울)=도쿄 올스타 1-0 기업은행 ▲4차전(8월 28일 서울)=도쿄 올스타 0-1 실업선발 ▲5차전(8월 30일 서울)=도쿄 올스타 5-1 육군 ▲6차전(8월 30일 서울)=도쿄 올스타 5-1 실업선발 ▲7차전(8월 31일 대전)=도쿄 올스타 6-5 실업선발 ▲8차전(9월 1일 대구)=도쿄 올스타 8-0 롯데 ▲9차전(9월 2일 부산)=도쿄 올스타 7-1 한일은행</p>	
08.30	<p>■한국화장품 야구단 창단 한국화장품이 야구부장에 현 국가대표 팀 감독인 허종만(許宗萬), 감독에 유백만(俞百萬 전 상업은행 감독)을 영입하고 창설 팀 특혜 규정에 따라 지명한 15명의 선수들로 야구단 창단 발표 △투수=정순명(한양대) 오문현(吳文鉉 영남대), 황규봉(고려대) △포수=심재원(성균관대), 방기만(건국대) △내야수=김재박(영남대), 김일환(성균관대), 조흥운(건국대), 도영권(한양대), 임정면(林禎勉 마상상고) △외야수=김유동(한양대), 김호인(건국대), 정구왕(중앙대), 권정화(영남대), 배상홍(육군)</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9.01	<p>■ 제19회 문교부장관기쟁탈 전국중학초청대회 강원야구협회 주최로 9월 1일 전국에서 15개 중학 팀 (원주, 부산 동성, 광주 동성, 선린, 한밭, 대구, 설악, 중앙, 전남, 군산, 배명, 상인천, 춘천, 신일, 대신중)이 출전한 가운데 춘천공설운동장에서 개최, 9월 5일 열린 결승전에서 춘천중이 대구중을 5-1로 격파하고 강원도 야구 사상 첫 우승</p> <p>▲준결승전=대구중 3-1 선린중, 군산중 1-3 춘천중 ▲결승전=춘천중 5-1 대구중</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진욱(金鎭旭 춘천중 투수) ▲우수선수상=송상진(宋相振 대구중 투수) ▲감독상=조정구(曹廷球 대구중 투수) ▲타격상=①이보용(춘천중 중견수) ②김오웅(金五雄 대구중 우익수) ③김진욱(춘천중) ▲미기상=김용대(金容大 춘천중 좌익수) ▲최우수 감독상=김진경(金鎭耕 춘천중 감독) ▲우수 감독상=장우성(대구중 감독) ▲지도상=임기준(춘천중 야구부장)</p>	
09.02	<p>■ 제5회 한-일친선고교대회 대한야구협회 동아일보사 공동 초청으로 8월 31일 제 58회 고시엔(甲子園)대회 우승 팀 오비린(櫻美林)고를 주축으로 한 일본고교선발 팀이 내한, 9월 2일부터 5일까지 제30회 전국고교쟁패전 우승 신일고를 주축으로 선발한 한국고교 팀과 3차전을 치른 끝에 일본 선발이 1승2패를 기록</p> <p>▲1차전(9월 2일 서울)=일본선발 1-11 한국선발 ▲2차전(9월 4일 서울)=일본선발 2-3 한국선발 ▲3차전(9월 5일 서울)=일본선발 6-2 한국선발</p> <p>◇일본고교선발 ▲단장=사이키(佐伯) ▲임원=永井(나가이) ▲감독=하마다(浜田) ▲선수=마쓰모토(松本), 나카무라(中村), 사카이(酒井), 고마쓰(小松), 아카미네(赤嶺 이상 투수), 시브야(涉谷), 오오다케(應武 이상 포수), 츠쿠부(津久), 스즈키(鈴木), 미즈타(水田) 가타기리(片桐), 야마사키(山崎 이상 내야수), 기쿠치(菊地), 야마모토(山本), 구로다(黒田), 다케후지(武藤 이상 외야수)</p> <p>◇한국고교선발 ▲단장=최인철(협회 부회장) ▲총무=이명구(중고연맹 전무이사) ▲감독=한동화(신일고 감독) ▲투수=최동원(경남고), 김용남(군산상고), 선우대영(서울고), 김정수(신일고), 이길환(선린상고) ▲포수=김경훈(신일고), 정종현(선린상고) ▲내야수=이윤섭(부산상고), 김수남(신일고), 원민구(대건고), 임정면(마산상고), 양세종(楊世鍾 장충고) ▲외야수=이우상(경남고), 김종윤(군산상고), 이근식(대건고), 서재진(徐在鎭 서울고)</p>	 <p>한-일친선고교대회 1회말, 볼넷으로 출루한 김종윤(金鍾潤)이 4번 임정면(林禎勉)의 2루타로 홈인하면서 진로를 막아선 일본의 포수 시브야(涉谷)를 밀쳐내고 있다.</p>
09.09	<p>■ 제11회 국회의장배쟁탈 전국6도시초청고교대회 경북야구협회 매일신문사 공동 주최로 9월 9일부터 동대문상, 휘문, 심석중, 대전, 전주상, 경남상, 경북, 대건, 대구상고 등 9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대구시민</p>	<p>■ 09.09 중국 공산당 모택동 주석 사망 중국 대륙에 공산정권을 수립하고 27년간 8억 인구를 통치해온 중국공산당 주석 모택동(毛澤東)이 9월 9일 0시10분(현지 시</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운동장에서 개최, 9월 12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경북 고가 대구상고를 2-0으로 꺾고 우승 ▲준결승전=경북고 10-2 대건고, 대구상고 7-0 경남상고 ▲결승전=경북고 2-0 대구상고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장명조(張明祚 경북고 투수) ▲우수투수상=배성환(裴晟煥 경북고 투수) ▲감투상=김시진(金始眞 대구상고 투수) ▲미기상=정병삼(鄭丙三 대건고 1루수) ▲타격상=송진호(대구상고 중견수 .600) ▲감독상=박호성(경북고 감독) ▲지도상=김성진(경북고 부장) △경북고=감독 박호성 및 구종명(좌익수), 성낙수(우익수겸 투수), 유현창(柳顯昌 1루수), 장명조(투수), 박정환(포수), 김휘욱(중견수), 서석진(3루수), 배성환(투수겸 1루수), 조영삼(유격수), 이상봉(李相逢 2루수)</p>	<p>간) 베이징(北京)에서 사망</p>
09.10	<p>■한·미·니카라과3국친선대회 대한야구협회가 미국, 니카라과를 초청,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더블리그로 3국 친선대회를 개최, 미국이 3승1패로 우승 ◇종합 순위=①미국(3승1패) ②한국(2승2패) ③니카라과(1승3패)</p>	
09.14	<p>■전국대학연맹전 추계리그 한국대학야구연맹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9월 14일부터 11개 팀이 A조(고려대, 건국대, 동국대, 성균관대, 한양대)와 B조(경희대, 동아대, 연세대, 영남대, 인천체전, 중앙대)로 나누어 예선대회를 개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A, B조 1, 2위 팀이 벌인 결승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한양대가 고려대를 9-2로 격파하고 3전 전승으로 우승 ◇결승리그 순위=①한양대(3승) ②고려대(2승1패) ③경희대, 동아대(이상 1무2패) ◇개인상 ▲우수선수상=정순명(한양대 투수) ▲타격상=①김윤환(고려대 .500) ②김유동(한양대 .455) ③유대성(고려대 .385) ▲홈런킹상=김윤환 (고려대 2개) ▲감독상=서영무(한양대 감독) △한양대=감독 서영무 및 허규욱(우익수), 장정호(좌익수), 도영권(1루수), 김유동(중견수), 김한근(3루수), 조용선(포수), 하대성(유격수), 이종원(李鍾源), 이기호(이상 2루수), 차준섭(車濬燮), 정순명(이상 투수)</p>	 <p>전국대학추계연맹전 결승리그 첫 날 고려대 김윤환이 동아대전 7회초 2점 홈런을 날린 뒤 흥인하자 김용희가 반기고 있다.</p>
09.17	<p>■국제실업초청대회 국제야구연맹(AINBA) 주관 중화민국봉구협회 주최로 9월 17일부터 자유중국(대만)을 비롯해 한국, 미국, 일본, 니카라과, 필리핀 등 6개 국이 출전한 가운데 송산(松山)과 신죽(新竹)구장에서 더블리그로 개최, 9월 25일 한국이 5승4패로 일본(7승2패), 미국(6승3패)에 이어 3위를 차지한 가운데 폐막 ▲1차전(9월 17일 송산구장)=한국 1-2 일본 ▲2차전(9월18일 신죽구장)=한국 3-4 대만 ▲3차전(9월</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20일 신죽구장)=한국 2-7 니카라과 ▲4차전(9월 21일 신죽구장)=한국 8-3 미국 ▲5차전(9월 22일 송산구장)=한국 2-4 일본 ▲6차전(9월 23일 신죽구장)=한국 8-0 대만 ▲7차전(9월 24일 송산구장)=한국 13-1 필리핀(7회 콜드 게임) ▲8차전(9월 25일 송산구장)=한국 3-2 니카라과 ▲9차전(9월 26일 강우로 전 경기 취소, 각 팀 1승 추가)</p> <p>◇종합 순위=①일본(7승2패) ②미국(6승3패) ③한국(5승4패) ④자유중국(5승4패) ⑤니카라과(4승5패) ⑥필리핀(9패 2차 리그부터 출전)</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스미스(Osburn Smith 미국 유격수) ▲우수투수상=고영걸(高英傑 자유중국 투수) ▲타격상=①마에가와(前川 일본 외야수) ②김봉연(한국 1루수) ▲홈런상=사량귀(謝良貴 자유중국 외야수) ▲감독상=마쓰나가(松永 일본 감독)</p> <p>◇한국선수단 ▲단장=서덕인(徐德寅 협회 이사) ▲섭외=송옥순(협회 이사 ▲총무=김우덕(협회 사무국장) ▲감독=허종만(육군 감독) ▲코치=유백만(상업은 감독) ▲심판=민준기(협회 심판원) ▲투수=김호중(한일은), 이선희(육군), 계형철(롯데), 강용수(한국전력), 하기룡(육군), 이광은(연세대) ▲포수=우용득(한일은), 박종해(기업은) ▲내야수=김봉연(육군), 배대웅(기업은), 김재박(영남대), 김일권(상업은), 구영석(육군) ▲외야수=장효조(한양대), 김차열(제일은), 윤동균(기업은), 김정수(롯데), 최남수(한일은)</p>	 <p>자유중국(대만)이 개최한 국제실업초청대회 팸플릿</p> <p>■09.30 메이저리그에 신시내티 선봉 내셔널리그에서 102승60패를 거둔 신시내티 레즈가 20세기 후반부의 최강 팀으로 평가받으면서 '거대한 붉은 기관총'이란 별명까지 획득</p> <p>■09.30 조지 브레트 1리 차 타격왕 캔자스시티 로열스의 조지 브레트가 팀 동료 할 매크레이를 0.333-0.332라는 1리 차로 제치고 타격왕을 차지</p> <p>■10.02 대건고 야구부 해체 대건고가 재정난을 이유로 야구부 해체</p> <p>■10.03 홈런왕 행크 에런 은퇴 밀워키 브레이브스의 본거지 밀워키 구장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최종전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의 경기에서 앞서 행크 에런이 고별인사, 에런은 23년간 3,298경기에 출전, 755개의 홈런과 3,771안타(타율 .350)와 2,297타점 및 6,856루타를 기록</p>
10.01	<p>■제5회 전국우수고교초청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10월 1일부터 군산상, 부산상, 대구상, 경남, 선린상, 신일고 등 6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3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대구상고가 군산상고를 2-0으로 꺾고 우승</p> <p>▲준결승전=군산상고 3-2 경남고, 대구상고 1-0 부산상고 ▲3, 4위전=부산상고 4-1 경남고 ▲결승전=대구상고 2-0 군산상고</p> <p>◇개인상 ▲타격상=①김종윤(金鍾潤 군산상고 중견수 .500) ②김종태(金鍾泰 부산상고 우익수 .500) ③김시진(대구상고 투수 .429)</p> <p>△대구상고=송진호(중견수) 조호(유격수), 김정태(우익수), 이만수(포수), 김시진(투수), 박영진(朴英辰 1루수), 심정섭(沈貞燮 좌익수), 조차룡(趙車龍 3루수), 이재익(李在翼 2루수)</p>	
10.04	<p>■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추계리그 한국실업야구연맹 주최로 10월 4일 10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28일 벌어진 최종일 경기에서 육군이 한국전력을 10-3으로 눌러 롯데에 이어 준우승</p> <p>◇종합 순위=①롯데(5승2무2패) ②육군(5승1무3패) ③상업은행, 농협(이상 4승2무3패) ⑤기업은행, 공군(이상 4승1무4패) ⑦제일은행(4승5패) ⑨철도청(3승1</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무5패) ⑩한국전력(2승2무5패) ◇개인상 ▲최고 수훈선수상=차영화(롯데) ▲우수투수상=유남호(롯데) ▲타격상=임신근(한일은행 .440) ▲신인상=신현석(공군) ▲감독상=김동엽(롯데) △롯데 자이언츠=감독 김동엽 및 김인식(3루수), 김정수(우익수), 김성관(좌익수), 정현발(중견수), 천보성, 차영화(이상 2루수), 이수찬(대타), 황기화(1루수), 손상대(포수), 조창수(대타), 윤병선(유격수), 계형철, 남우식(이상 투수)</p>	
10.12	<p>■제57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대한체육회 주최로 10월 12일부터 부산 구덕운동장에서 개최, 10월 17일 군산상고(전북), 육군(서울)이 우승한 가운데 폐막 ▲고등부 준결승전=군산상고 2-1 경남고, 신일고 5-1 공주고 ▲동 결승전=전북 군산상고 4-3 서울 신일고 △군산상고=감독 최관수 및 김종윤(중견수), 김형중(우익수), 김성한(유격수겸 투수), 김용남(투수겸 3루수), 최병춘(崔炳春 3루수), 안재홍(1루수), 김현룡, 박양수(朴洋洙 이상 좌익수), 최형빈(3루수겸 유격수), 신주현(포수), 박기수(2루수) ▲일반부 준결승전=육군 6-4 영남대(6회), 충북OB 4-0 경기OB ▲동 결승전=육군(서울) 6-3 충북OB(8회말 선수 부상으로 기권) △육군=감독 허종만 및 구영석(3루수), 배대웅(2루수) 김준환(좌익수), 김봉연 정현발(이상 우익수), 권백행(중견수), 유승안(柳承安 포수), 김용운(1루수), 서윤택 함학수(이상 유격수), 하기룡, 이선희(이상 투수)</p>	<p>실업야구 데뷔 첫 해 우승을 차지한 롯데 선수들이 김동엽 감독을 행가래치고 있다.</p> 
10.29	<p>■제31회 전국대학선수권대회 대한야구협회 서울신문사 공동 주최로 11년 만에 부활, 10월 29일부터 고려, 경희, 성균관, 중앙, 동아, 영남, 동국, 한양, 건국, 인천체전 등 10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토너먼트로 개최, 11월 3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한양대가 고려대를 4-1로 꺾고 우승 ▲준결승전=고려대 9-2 성균관대, 한양대 13-9 동국대 ▲결승전=한양대 4-1 고려대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장효조(한양대) ▲우수투수상=정순명(한양대) ▲감투상=황규봉(고려대) ▲수훈선수상=김유동(한양대) ▲타격상=①장정호(한양대 .727) ②강기섭(姜岐涉 성균관대 .600) ③김유동(한양대 .500) ▲타점상=김유동(한양대 8) ▲미기상=이승후(고려대) ▲감독상=서영무(한양대 감독) △고려대=감독 하갑득 및 유대성(중견수), 임종호(3루수), 김윤환(우익수), 김용희(1루수), 이승후(좌익수), 김종수(2루수), 손상득(포수), 김승수(대타겸 포수), 황규봉(투수), 이성득(유격수)</p>	<p>제57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린 부산 구덕경기장 전경</p> <p>■10.10 양키스 월드시리즈 출전 티켓 뉴욕 양키스가 아메리칸리그 챔피언 결정 5차전 9회말 6-6에서 크리스 챔블리스의 균형을 깨는 끝내기 홈런으로 1964년 이후 12년 만에 월드시리즈 출전 티켓을 확보</p> <p>■10.16 요미우리 자이언츠 우승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히로시마 구장에서 열린 시즌 최종전에서 히로시마 카프에 5-3으로 역전승, 76승9무45패로 센트럴리그에서 우승</p> <p>■10.21 신시내티 월드시리즈 2연패 신시내티 레즈가 월드시리즈 4차전에서 12년 만에 패권을 노린 뉴욕 양키스를 7-2로 격파하고 4연승, 월드시리즈 54년 사상 처음으로 내셔널리그 팀이 2연패하는 영광을 차지</p>
11.05	<p>■서울시중·고야구연맹 추계리그 서울시중·고야구연맹 주최로 11월 5일 서울시 14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1월</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18일 열린 결승전에서 신일고가 총암고를 1-0으로 누르고 우승 ▲중학 결승전=선린중 7-0 동대문중 ▲고교 준결승전=신일고 4-2 동대문상, 총암고 3-2 배명고 ▲동결승전=신일고 1-0 총암고 ◇개인상 ▲우수선수상=김정수(金貞洙 신일고 투수) ▲우수투수상=김정수(신일고) 감투상=기세봉(奇世峰 총암고 투수) ▲타격상=①박철영(朴哲永 배명고 포수) ②조근규(曹根圭 서울고 유격수) ③이선웅(李善雄 선린상 유격수)</p>	<p>■10.30 짐 파머 사이영상 세번째 수상 아메리칸리그에서 22승으로 최다승 투수가 된 짐 파머가 사이영상까지 거머쥐어 4년 사이에 세번 수상하는 영광까지 획득</p>
11.12	<p>■ 김충렬(金忠烈),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기록 동대문상고 투수 김충렬(金忠烈)이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시고교추계연맹전에서 배재고 27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무안타, 무실점 끝에 2-0으로 No Hit No Run 기록</p>	<p>■11.02 한큐, 재팬시리즈 2연패 한큐 브레이브스가 재팬시리즈 7차전에서 요미우리 자이언츠를 4-2로 꺾고 통산 전적 4승3패로 지난 해에 이어 2연패 달성</p>
11.29	<p>■ 니카라과방문 친선경기 콜롬비아에서 열리는 제21회 세계야구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전력 점검차 니카라과를 방문,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니카라과 국가대표 팀과 세 차례에 친선경기를 가진 끝에 한국이 1승2무를 기록</p>	
12.06	<p>■ 제21회 세계야구선수권대회 제21회 세계선수권대회가 12월 5일 한국을 비롯해 일본, 자유중국, 쿠바 등 11개국이 출전한 가운데 콜롬비아 카르타헤나(Cartagena)에서 개최, 12월 20일 벌어진 대회 최종일 경기에서 한국이 네덜란드를 5-1로 꺾고 5승5패로 5위 ▲1차전(12월 6일)=한국 8-8(일몰 중지) 도미니카 ▲2차전(12월 7일)=한국 0-0 과테말라(불참) ▲3차전(12월 8일) 한국 1-3 푸에르토리코 ▲4차전(12월 10일)=한국 6-4 일본 ▲5차전(12월 11일) 한국 6-5 콜롬비아 ▲6차전(12월 12일)=한국 3-6 니카라과 ▲7차전(12월 14일)=한국 2-13 쿠바 ▲8차전(12월 15일)=한국 9-0 멕시코 ▲9차전(12월 17일)=한국 4-13 도미니카 ▲10차전(12월 18일)=한국 4-0 자유중국 ▲11차전(12월 19일)=한국 2-3 파나마 ▲12차전(12월 20일)=한국 5-1 네덜란드 ◇종합 순위=①쿠바(8승2패) ②푸에르토리코(8승2패) ③일본, 니카라과(이상 7승3패) ⑤한국, 자유중국, 콜롬비아, 도미니카(이상 5승5패) ⑨파나마(3승7패) ⑩멕시코(2승8패) ⑪네덜란드(1승9패) ◇한국선수단 ▲단장=최인철(협회 부회장) ▲섭외=박상규(협회 심판위원장) ▲감독=김계현 ▲코치=김진영, 김동엽 ▲선수=김호중, 이선희, 계형철, 유남호, 황규봉, 권영호(이상 투수) 박해중, 우용득, 이종도(이상 포수), 김봉연, 배대웅, 김일권, 김재박, 김인식, 구영석(이상 내야수), 윤동균, 이해창, 장효조, 김유동, 유대성(이상 외야수)</p>	<p>■12.02 중앙정보부장에 김재규 임명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으로 신직수(申植秀) 전 부장을 의원 면직시키고 김재규(金載圭) 차장을 승진 발령</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1977. 01.15	<p>■ 제19회 이영민 타격상 임정면(林禎勉) 수상 대한야구협회가 제19회 이영민 타격상 수상자로 76년도 전국 5개 고교대회에서 평균 타율 448을 기록한 마산상고 유격수 임정면을 선정</p>	<p>■ 01.05 일본 왕정치 첫 1억엔 돌파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트의 홈런 왕 오 사다하루(王貞治)가 구단과 77년 연봉으로 21만6,100달러에 계약, 일본 야구 사상 최초로 1억엔(20만 달러)을 돌파</p>
01.17	<p>■ 실업야구 풀 시즌제 환원 한국실업야구연맹이 대의원 총회를 열고 72년 이후 중단되었고 풀 시즌제를 5년 만에 부활하기로 결정</p>	
01.22	<p>■ 대한야구협회 전국대의원 대회 대한야구협회(회장 김종락)가 대한체육회 강당에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전무이사에 박상규(朴象圭) 심판위원장, 섭외이사에 정두영(鄭斗永) 철도청 감독을 각각 선임</p>	
01.30	<p>■ 중학야구 7이닝 경기 채택 한국중고야구연맹이 이사회를 열고 1977년부터 중학야구 9이닝 경기를 7이닝 경기로 단축하기로 결정</p>	
02.01	<p>■ 실업야구 코리언 시리즈제 채택 한국실업야구연맹이 2월 1일 오전 11개 팀 감독과 연맹 상임 이사진 회의에서 실업야구 경기 방식을 전기와 후기리그로 나누어 서울과 부산·대구·광주·인천에서 개최하고 각 리그 우승 팀이 패권을 가리는 5전3승제의 코리언 시리즈를 도입,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p>	
03.21	<p>■ 서울시고교 춘계리그 중앙일보사 서울시고교야구연맹 공동 주최로 3월 21일부터 서울시 18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3개 조로 나누어 개최, 4월 3일 결승전(신일고-선린상)을 예고한 뒤 폐막 ▲ 준결승전=신일고 5-3 총암고, 선린상 15-6 서울고 ▲ 결승전=신일고-선린상(마상)</p>	
03.24	<p>■ 제4회 부산시장기쟁탈 전국실업대회 한국실업야구연맹 부산 MBC TV 공동 주최로 3월 24일부터 공군, 육군, 롯데, 철도청, 한국전력, 한국화장품, 기업은행, 농협, 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등 실업야구 11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 구덕구장에서 개최, 3월 28일 끝난 결승전에서 한국화장품이 롯데를 7-0으로 격파하고 우승 ▲ 준결승전=롯데 2-1 한일은행, 한국전력 3-5 한국화장품 ▲ 결승전=한국화장품 7-0 롯데 ◇ 개인상 ▲ 최우수선수상=심재원(한국화장품 포수) ▲ 우수투수상=황규봉(한국화장품 투수) ▲ 감투상=양한철(롯데 투수) ▲ 타격상=김유동(한국화장품 우익수 .444) ▲ 타점상=김재박(한국화장품 유격수) ▲ 미기상=조흥운(한국화장품 3루수) ▲ 감독상=유백만(한국화장품 감독)</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한국화장품=감독 유백만 및 김재박(유격수), 김일환(1루수), 김호인(좌익수), 김유동(우익수), 조흥운(3루수), 심재원(포수), 권정화(지명타자), 박종희(2루수), 정구왕(중견수), 황규봉(투수)</p>	
03.24	<p>■황기선(黃起善),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상업은행 투수 황기선이 제4회 부산시장기쟁탈 전국 실업대회에서 철도청 28타자를 상대로 삼진 9개를 잡으며 볼넷4, 도루2, 실책4, 잔루 4개를 허용한 끝에 3-0으로 No Hit No Run 수립</p>	
04.04	<p>■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전기리그 한국실업야구연맹 주최로 4월 4일부터 군·실업 6개 팀(육군, 한국화장품, 롯데 자이언츠, 포항제철, 한국전력, 흥익회)과 금융 5개 팀(기업은행, 한일은행, 제일은행, 농협, 상업은행)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실업야구 전기 1차리그를 개최, 6월 27일 끝난 전기 플레이 오프 3차전에서 한국화장품이 롯데를 3-2로 누르고 2승1패로 우승 ◇전기리그 1차 결승리그 순위=①한국화장품(3승) ②육군(2승1패) ③한일은행(1승2패) ④상업은행(3패) ◇전기리그 2차 결승리그 순위=①롯데(2승1패) ②기업은행(2승1패 승자승) ③한국화장품, 기업은행(이상 1승2패) ◇전기리그 플레이 오프 ▲1차전=한국화장품 2-3 롯데 ▲2차전=한국화장품 9-4 롯데 ▲3차전=한국화장품 3-2 롯데</p>	
04.05	<p>■전국대학초청대회 경북야구협회 한국대학야구연맹 대구매일신문사 공동 주최로 4월 5일부터 13개 대학 팀(연세, 충남, 동아, 건국, 중앙, 고려, 경희, 영남, 동국, 인천체, 인하, 성균관, 한양대)이 출전한 가운데 대구시민운동장에서 개최,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벌어진 결승리그에서 연세대가 3전 전승으로 우승 ◇결승리그 순위=①연세대(3승) ②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이상 1승2패)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최동원(연세대) ▲감투상=김대진(연세대) ▲타격상=김형운(金炯雲 동국대 .421) ▲홈런상=김형운(동국대 3개) ▲감독상=이재환(연세대 감독) △연세대=감독 이재환 및 정진호(유격수), 이우상(우익수), 이광은(좌익수겸 중견수및 투수), 박해종(1루수), 함상윤(3루수겸 2루수), 조장현(3루수), 양세중, 진언근(이상 2루수), 신언호(포수), 김대진, 정선모(이상 좌익수), 배경환(투수), 박해성(대타), 김태호(金泰鎬 투수), 김광석(대타), 최동원(투수), 김무균(대타), 배태욱(중견수)</p>	<p>전국실업연맹전 전기리그우승한 한국화장품 선수들이 유백만 감독을 행가래치고 있다.</p>
04.08	<p>■제20회 전국4도시선발고교대회 부산일보사 주최로 4월 8일부터 전국에서 6개 고교</p>	<p>■04.11 장기영 한국일보 사주 별세 1971년 봉황기쟁탈 전국고교대회를 창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팀(서울, 심석종, 대구, 경남, 부산, 부산상고)이 출전한 가운데 구덕구장에서 개최, 4월 10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부산고가 경남고를 5-2로 꺾고 우승 ▲준결승전=부산고 4-1 서울고, 경남고 3-0 부산상고 ▲결승전=부산고 5-2 경남고 ◇개인상 ▲우수선수상=안창완(安倉完 부산고) ▲감투상=박정후(경남고) ▲타격상=양상문(부산고 .800) ▲감독상=박내용(朴來用 부산고) ※ 이 대회 이후 대회 폐지</p>	<p>한 한국일보사 장기영(張基榮) 사주가 61세로 별세</p>
04.19	<p>■ 전국대학연맹전 춘계리그 한국대학야구연맹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4월 19일부터 13개 팀이 A조(동국대, 동아대, 성균관대, 연세대, 인천체전, 충남대, 한양대)와 B조(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영남대, 인하대, 중앙대)로 나누어 인천과 서울운동장에서 예선대회를 개최, 5월 4일부터 9일까지 A, B조 1~3위 팀이 벌인 결승리그에서 연세대가 5전 전승으로 우승 ◇결승리그 순위=①연세대(5승) ②한양대(3승1무1패) ③고려대, 건국대, 동아대(2승3패) ④중앙대(1무4패) ◇개인상 ▲우수선수상=양세종(연세대 3루수) ▲타격상=①장효조(한양대 .418) ②김일권(한양대 .395) ③김종윤(金鍾潤 중앙대 .375) ▲홈런킹상=김일권(한양대 9개) ▲노히트 노런상=천창호(경희대) ▲감독상=이재환(연세대 감독) △연세대=감독 이재환 및 정진호(유격수), 이우상(李佑尙 우익수겸 대타), 함상윤(2루수겸 3루수), 조장현(2루수), 박해종(포수겸 1루수), 신언호(이상 포수), 이광은(투수겸 3루수및 좌익수), 김대진, 소유남(이상 1루수), 양세종(3루수), 최동원(투수), 진언근(陳彦根 2루수), 김광석, 정선모(이상 좌익수), 배태욱(중견수)</p>	 <p>연세대가 결승리그 2일째 고려대 경기에서 2회말 1사후 주자 만루에서 1번 정진호의 희생타로 2루에 있던 7번 신언호가 잇달아 홈인, 3점을 먼저 올렸다.</p>
04.19	<p>■ 천창호(千昌浩),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경희대 투수 천창호가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전국대학춘연맹전에서 인하대 28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삼진 10개를 잡으며 볼넷 3개를 허용한 끝에 4-0으로 생애 첫 No Hit No Run 기록</p>	
04.22	<p>■ 제17회 문교부장관기쟁탈 4도시선발고교대회 경북야구협회 매일신문사 공동 주최로 4월 22일부터 동대문상, 선린상, 부산상, 경북, 대건, 대구, 대구상고 등 6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대구시민운동장에서 개최, 4월 24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대구상고가 2-0으로 선린상고를 제치고 우승 ▲준결승전=대구상고 8-0 동대문상, 선린상고 4-3 경북고 ▲결승전=대구상고 2-0 선린상고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오대석(吳大錫 대구상고 유격수) ▲우수투수상=박영진(대구상고 투수) ▲감투상=신군식(申君植 선린상고 투수) ▲미기상=홍승규(洪勝奎 대구상고 좌익수) ▲타격상=정종현(鄭宗鉉 선린상고 포수 .692) ▲감독상=정동진(대구상고 감독)</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지도상=문인철(대구상고 부장) ※ 제17회 대회를 끝으로 대회 폐지</p>	
05.02	<p>■ 제7회 대통령기쟁탈 전국중학대회 대한야구협회 전남일보사 공동 주최로 5월 2일부터 전국에서 14개 중학 팀(대광, 배재, 동인천, 청주, 한밭, 경상, 초량, 마산동, 전라, 전남, 무등, 광주 동성, 진흥중)이 출전한 가운데 광주공설운동장과 전남중 운동장에서 개최, 5월 6일 광주공설운동장에서 벌어진 결승전에서 청주중이 진흥중을 2-0으로 물리치고 우승 ▲준결승전=진흥중 3-1 전남중, 청주중 8-1 동성중 ▲결승전=청주중 2-0 진흥중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이상군(李相君 청주중 투수) ▲감투상=한형윤(진흥중 투수) ▲타격상=황명주(전남중 .556) ▲홈런상=유창원(柳昌元 무등중), 김상국(金相國 한밭중) ▲감독상=이정석(李貞錫 청주중 감독)</p>	 <p>제7회 전국중학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청주중 주장이 대통령기를 받아 들고 있다.</p>
05.07	<p>■ 이선희(李善熙),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① 육군 투수 이선희가 광주공설운동장에서 열린 대통령배 전국실업연맹전 2차리그에서 박철순(朴哲淳)이 마운드를 지키는 공군 27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탈삼진 9개에 사사구9, 도루 2개를 허용한 끝에 No Hit No Run 기록</p>	
05.10	<p>■ 제11회 대통령배쟁탈 전국고교대회 대한야구협회 중앙일보사 공동 주최로 5월 10일부터 전년도 우승 팀 군상상고를 비롯해 신일고, 선린상, 서울고, 상문고, 충암고, 대광고, 부산고, 부산상, 광주일고, 광주상, 대구상, 군산상, 전주상, 공주고, 청주고, 강릉고, 동산고, 인천고 등 18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토너먼트로 개최, 5월 17일 열린 결승전에서 공주고가 4-3으로 부산고를 제치고 창단 3년 2개월 만에 전국대회 첫 우승 ▲준결승전=선린상 3-2 광주일고, 부산고 2-1 대구상 ▲결승전=공주고 4-3 부산고 ◇개인상 ▲우수선수상=김경문(金卿文 공주고 포수) ▲우수투수상=오영세(吳英世 공주고 투수) ▲감투상=양상문(부산고 투수) ▲미기상=김동우(金東佑 충암고 유격수) ▲수훈상=송석창(宋錫昌 공주고 좌익수) ▲타격상=①김경문(공주고 .467) ②김문수(선린상고 .429) ③송석창(.427) ▲최다안타상=①김경문(7) ②송석창(5) ③김동우(5) ▲타점상=송석창(7) ▲도루상=채희주(광주상고 좌익수 4) ▲감독상=김영빈(공주고 감독) ▲공로상=진성섭(陳性燮 공주고 교장), 남재두(南在斗 충남협회 회장) △공주고=감독 김영빈 및 이재우(李在雨 2루수), 박용환(朴勇煥 1루수), 이근식(李根植 중견수), 김경문(포수), 송석창(좌익수), 안의석(安義錫 우익수), 고경수(유격수), 이병훈(李秉勳 3루수), 오영세(투수) △부산고=감독 박내용(朴來用) 및 백성학(白聖鶴 좌</p>	<p>야구부 창설 3년 만에 전국을 제패한 공주고 선수들이 김영빈(金榮彬) 감독을 행가래치고 있다.</p>  <p>제11회 대통령배쟁탈 고교대회에서 무명의 공주고가 우승을 차지하자 대전역 광장에선 환영대회가 열렸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익수), 김동우(金東佑 중견수), 김호근(金鎬根 포수) 양상문(투수겸 1루수), 안창완(1루수겸 투수), 김성호(金聖豪 3루수), 김태룡(2루수), 최희석(崔熙錫 2루수 겸 대타), 장상철(張相澈 유격수), 조성옥(우익수), 황원준(黃元俊 우익수겸 대타)</p>	
05.18	<p>■ 제27회 백호기쟁탈 전국대회 대한야구협회 경향신문사 공동 주최로 5월 18일부터 전년도 우승 팀 한일은행을 비롯해 군·실업(11개) 및 대학(13개) 등 24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5월 25일 열린 결승전에서 창단 6개월된 한국화장품이 건국대를 6-2로 꺾고 우승 ▲준결승전=건국대 9-3 롯데, 한국화장품 5-1 육군 ▲결승전=한국화장품 6-2 건국대 ◇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재박(한국화장품 유격수) ▲우수투수상=황규봉(한국화장품 투수) ▲감투상=조종규(건국대 포수) ▲타격상=①박종회(한국화장품 2루수 .500) ②김재박(한국화장품 유격수 .455) ③김우근(건국대 중견수 .421) ▲타점상=김일환(한국화장품 1루수 10점) ▲미기상=서정환(건국대 유격수) ▲감독상=유백만(한국화장품 감독) △한국화장품=감독 유백만 및 김재박(유격수), 김일환(1루수), 김유동(우익수), 김호인(좌익수), 배상홍(대타), 조흥운(3루수), 최주현(중견수겸 우익수), 박재천(2루수), 도영권(대타), 박종회(2루수), 정구왕(중견수), 황규봉(투수), 문희근(대타), 정순명(투수), 심재원(포수), 방기만(대타)</p>	 <p>대한야구협회 김종락 회장이 백호기쟁탈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한국화장품 주장 배상홍에게 백호기를 수여하고 있다.</p>
06.01	<p>■ 제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야구경기 대한체육회 주최로 6월 1일 전국 11개 시 도에서 6,627명의 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4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전남이 경북을 2-1로 제치고 우승 ▲준결승전=경북 3-0 충북, 전남 2-1 서울 ▲결승전=전남선발 2-1 경북선발</p>	
06.05	<p>■ 제11회 대통령기쟁탈 전국대학초청대회 대한야구협회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6월 5일 전년도 우승 팀 연세대를 비롯해 성균관, 경희, 중앙, 인하, 동아, 충남, 고려, 인천체전, 건국, 서울, 동국, 영남, 한양대 등 14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9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연세대가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퇴장한 한양대에 몰수 게임 승(9-0)으로 대회 2연패 ▲준결승전=연세대 2-1 동아대, 한양대 5-4 건국대 ▲결승전=연세대 9-0 한양대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최동원(연세대 투수) ▲감투상=장효조(한양대 우익수) ▲수훈상=함상윤(연세대 2루수) ▲타격상=①김종기(건국대 유격수 .556) ②장효조(한양대 .545) ③함상윤(연세대 2루수 .500) ▲감</p>	 <p>전국대학초청대회 결승전에서 연세대 1번 정진호가 3회초 한양대 김시진의 제8구를 통타, 3점 홈런을 날린 뒤 동료들의 환호를 받으며 홈인하고 있다.</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독상=이재환(연세대 감독) △연세대=감독 이재환 및 정진호(유격수), 양세종(3루수) 함상윤(2루수), 박해중(포수겸 1루수), 김광석(우익수겸 좌익수), 이광은(좌,우익수겸 중견수및 투수), 이우상(중견수겸 우익수), 김대진(1루수겸 우익수), 신연호(좌익수겸 포수), 배경환, 최동원(이상 투수), 배태욱(중견수), 소유남(대타), 박해성(좌익수)</p>	
06.11	<p>■ 제32회 청룡기쟁탈 전국고교선수권대회 대한야구협회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6월 11일부터 전년도 우승 팀 경남고를 비롯한 13개 고교 팀(대구상, 광주일, 부산, 배문, 마산상, 청주, 강릉, 군산상, 대광, 동산, 북일, 동대문상고)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18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대구상고가 동산고를 7-2로 꺾고 7년 만에 패권 탈환 ▲승자 준결승전=광주일고 6-2 청주고, 동산고 2-1 대구상고 ▲패자 준결승전=대구상고 8-2 청주고 ▲승자 결승전=동산고 8-4 광주일고 ▲패자 결승전=대구상고 11-3 광주일고 ▲결승전=대구상고 3-1 동산고 ▲최종 결승전=대구상고 7-2 동산고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이만수(대구상고 포수) ▲우수투수상=박영진(대구상고 투수) ▲감투상=오세인(뫼世仁 동산고 투수) ▲타격상=①이만수(대구상고 .500) ②송일섭(청주고 좌익수 .500) ③윤광우(尹光禹 동산고 2루수 .480) ▲최다 안타상=①이만수(대구상고) ②윤광우(동산고 이상 12안타) ③박영진(대구상고 10안타) ▲타점상=이만수(대구상고 10타점) ▲도루상=임창호(광주일고 중견수 3개) ▲미기상=박경호(동산고 3루수) ▲감독상=정동진(대구상고 감독) ▲공로상=문인철(文仁哲 대구상고 교장) 대구상고=감독 정동진(丁東鎭) 및 신상순(申上淳 중견수), 홍승규(좌익수), 오대석(吳大錫 유격수), 이만수(李萬洙 포수), 박영진(투수), 양일환(우익수), 이수빈(李壽彬 1루수), 이재익(2루수겸 3루수), 조차룡(趙車龍 3루수), 최점동(崔點東 2루수)</p>	 <p>제32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최종 결승전에서 동산고를 7-2로 꺾고 우승이 확정되자 동문들이 야구장으로 몰려나와 선수들을 행가래치고 있다.</p>
06.23	<p>■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후기리그 한국실업야구연맹 주최로 6월 23일부터 서울운동장에서 후기 1차 리그를 개최, 10월 8일 끝난 후기 2차 결승리그 최종일 경기에서 육군이 롯데와 4-4로 비겨 2승1무로 우승 ◇후기 4차 결승리그 순위=①육군(2승1무) ②롯데(1승1무1패) ③농협, 제일은행(이상 1승2패)</p>	
07.11	<p>■ 제31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대한야구협회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7월 11일부터 전년도 우승 팀 신일고를 비롯해 성남, 동대문상, 중앙, 선린상, 서울, 중앙, 배문, 춘천, 인천, 공주, 세광, 전주상, 군산상, 광주상, 경북, 대구, 마산상, 경남, 부산고 등 20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최, 7월 17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광주상고가 3-2로 인천고를 누르고 첫 우승 ▲준결승전=광주상고 2-0 공주고, 인천고 3-2 신일고 ▲결승전=광주상고 3-2 인천고 ◇개인상 ▲우수선수상=박상진(朴相珍 광주상고 유격수) ▲우수투수상=김대식(金大植 광주상고 투수) ▲감투상=김경남(金慶男 인천고) ▲타격상=①김남수(신일고 .500) ②최광묵(崔光默 인천고 .467) ③이종호(李鍾浩 신일고 .429) ▲타점상=손영주(孫瑛周 인천고) ▲최다안타상=①최광묵(인천고 7개) ②손영주(인천고 6개) ▲수훈상=채희주(광주상고 좌익수) ▲미기상=허승문(許承汶 인천고) ▲도루상=박천수(朴千洙 신일고) ▲감독상=이한구(李漢九 광주상고 감독) ▲공로상=권남일(權南一 광주상고 교장), 김종태(金宗太 광주협회장) △광주상고=감독 이한구 및 박상진(유격수), 이군노(李軍魯 2루수), 진갑석(陳甲析 우익수), 채희주(좌익수), 강정남(중견수), 노숙복(魯塾福 3루수), 노영석(盧暎碩 1루수), 윤여국(尹汝國), 김대식(이상 투수), 최인수(崔仁洙 포수)</p>	<p>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p>  <p>제31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에서 인천고를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한 광주상고가 7년만에 황금사자기를 품에 안았다.</p>  <p>제31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결승전에서 인천고를 3-2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한 광주상고 선수들</p>
07.19	<p>■제20회 문교부장관기쟁탈 전국중학초청대회 경기야구협회 주최로 7월 19일부터 전국 18개 중학팀(대동, 초량, 경상, 대구, 전남, 전라, 춘천, 원주, 대광, 선린, 신일, 휘문, 대현, 동산, 동인천, 상인천, 한밭, 청주중)이 출전한 가운데 인천공설운동장에서 개최, 7월 24일 끝난 결승전에서 경상중과 대구중이 0-0으로 비겨 공동 우승을 노렸으나 승부 조작이 드러나 무효 ▲준결승전=대구중 10-5 동인천중, 경상중 2-0 선린중 ▲결승전=대구중 0 (무효) 0 경상중</p>	<p>제31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결승전에서 인천고를 3-2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한 광주상고 선수들</p>
07.23	<p>■제14회 실업야구 올스타전 한국실업야구연맹 주최로 7월 23일부터 금용단과 실업단이 올스타전을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7월 25일 열린 3차전에서 실업단이 금용단에 5-6으로 패해 2승1패로 우승 ▲1차전(통산 44차전 7월 23일)=금용단 0-7 실업단 ◇개인상 △수훈선수상=김봉연(육군) △승리투수상=황규봉(한국화장품) △우수투수상=백창현(상업은) △감투상=이선희(육군) △타격상=구영석(육군 1.000) △감독상=박영길(롯데 감독) ▲2차전(통산 45차전 7월 24일)=실업단 4-1 금용단 ◇개인상 △수훈선수상=유승안(경리단) △승리투수상=하기룡(경리단) △우수투수상=김윤규(한일은) △감투상=이원녕(상업은) △타격상=김유동(한국화장품 .750) △감독상=심말룡(경리단 감독) ▲3차전(통산 46차전 7월 25일)=금용단 6-5 실업단 ◇개인상 △수훈선수상=임신근(한일은) △승리투수상=박상돈(朴相敦 기업은) △우수투수상=박철순(공군) △감투상=김재박=한국화장품) △타격상=우용득</p>	 <p>올스타 3차전 9회초 1사후 금용단의 3루주자 임신근(林信根)이 후속 김우열(金宇烈)의 내야 땅볼을 틈 타 홈인했으나 터치 아웃.</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한일은 1,000) △Mr ALL STAR=김재박(한국화장품) △감독상=김응룡(한일은 감독)	
07.27	■ 제8회 세계리틀선수권대회 극동지역예선전 세계리틀야구연맹 주최로 7월 27일 한국, 자유중국, 일본, 홍콩, 광 등 5개 국 팀이 출전한 가운데 대만 타이베이(臺北) 시립구장에서 개최, 8월 1일 벌어진 3, 4 위 결정전에서 한국은 홍콩을 15-0으로 격파하고 3 위, 8월 2일 열린 결승전에서 자유중국이 일본을 4-1로 꺾고 우승	
07.27	■ 제29회 화랑기쟁탈 전국고교대회 부산야구협회 국제신문사 공동 주최로 7월 27일부터 전국 시도 16개 고교 팀(성남, 경북, 부산, 배명, 전주, 경남상, 심석중, 세광, 상문, 진흥, 경남, 춘천, 경기, 부산상, 중앙, 대전고)이 출전한 가운데 구덕구장에서 개최, 8월 2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세광고가 부산상고를 4-2로 물리치고 우승 ▲준결승전=세광고 7-3 배명고, 부산상고 6-4 경남고 ▲결승전=세광고 4-2 부산상고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진범탁(晉凡鐸 세광고 좌익수) ▲우수투수상=김영식(金永植 세광고 투수) ▲감투상=이상래(李相來 부산상 2루수) ▲타격상=①권정식(權精植 세광고 3루수 .571) ②배원영(裴元榮 세광고 포수 .545) ▲미기상=하연주(河演周 부산상 중견수) ▲감독상=왕상균(세광고 감독) ▲지도상=한기창(세광고 부장) △세광고=감독 왕상균 및 정영재(鄭永宰 2루수), 권정식(3루수), 김영식(투수겸 우익수), 진범탁(좌익수), 김장수(金長秀 1루수), 배원영(포수), 구자익(具滋益 유격수), 안창수(安昌洙 중견수), 정승배(鄭勝培 우익수), 서정찬(徐庭瓚 투수), 전용상(田溶祥 대타)	 <p>전국 규모 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세광고 선수들</p>  <p>청주시민환영대회에 참석하기 앞서 청주 시내를 카 퍼레이드하고 있는 세광고 선수들 (이상 권정식씨 제공)</p>
08.08	■ 제7회 봉황기쟁탈 전국고교대회 대한야구협회 한국일보사 공동 주최로 8월 8일부터 재일교포를 비롯해 전국에서 42개 고교 팀(광주일, 성동, 충암, 배명, 광주상, 경기, 신일, 청주, 배문, 공주, 서울, 부산상, 중앙, 세광, 대구상, 선린상, 인천, 동대문상, 춘천, 명지, 경남상, 대광, 진흥, 대구, 보성, 인천체, 성남, 목포상, 휘문, 전남, 전주, 대전, 신석중, 배재, 북일, 동산, 장충, 경북, 상문, 전주, 강릉고)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8월 22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충암고가 진흥고를 5-0으로 격파하고 사상 첫 우승 ▲준결승전=진흥고 3-2 재일교포, 충암고 5-3 서울고 ▲3, 4위 결정전=재일교포 3-1 서울고 ▲결승전=충암고 5-0 진흥고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조범현(曹凡鉉 충암고 포수) ▲최우수투수상=기세봉(忠암고 투수) ▲우수투수상=전인수(진흥고 투수), 김충부(金忠夫 재일교포 투수)	 <p>봉황기고교대회 결승전 4회말, 1사후 충암고 조범현(曹凡鉉)의 중견수 키를 넘기는 적시 2루타로 3루 주자 이태현(李泰鉉), 2루 주자 김경갑(金勳甲)이 홈인 5-0으로 진흥고를 꺾고 처음으로 봉황기를 안았다.</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수), 편은식(片垠植 서울고 투수) 감투상=김성영(金成泳 진흥고 포수) ▲수훈상=김동우(충암고 유격수) ▲타격상=①정용락(鄭鏞洛 충암고 2루수 .533) ②이근식(李根植 충암고 중견수 .500) ③차의철(車懿澈 진흥고 우익수 .471) ▲최다 타점상=①이승희(李承熙 서울고 유격수 7타점) ②이승홍(李勝弘 재일교포 좌익수 5타점) ③정용락(충암고 4타점) ▲최다 안타상=①김경치(金京治 재일교포 중견수 10안타) ②이승홍(재일교포 8안타) ③차의철(진흥고 8안타) ▲감독상=김성근(충암고 감독), 백대삼(진흥고 감독) ▲지도상=김태식(충암고 부장), 조호현(진흥고 부장) ▲장려상=대구고, 명지고, 신일고, 전주고, 북일고 ▲응원상=배재고 응원단</p> <p>△충암고=감독 김성근 및 이근식(중견수), 정용락(2루수), 이태현(李泰鉉 좌익수), 김경갑(金勅甲 3루수), 조범현(포수), 김동우(유격수), 정병규(鄭秉圭 1루수), 기세봉(투수), 한진용(韓鎭溶), 이성수(李成樹 이상 우익수)</p> <p>△진흥고=감독 백대삼 및 김성영(포수), 황영구(黃永求 중견수), 장진범(3루수), 최의호(崔義鎬 좌익수), 차의철(우익수), 김현귀(金鉉貴 2루수), 윤영률(尹泳律 1루수), 전인수(투수), 임삼길(林三吉 유격수)</p>	 <p>진흥고-충암고의 결승전 9회초 선두 타자로 나선 진흥고의 5번 차의철(車懿澈)이 센터 펜스에 맞는 3루타를 날린 뒤 홈까지 뛰어들다 아웃, 민준기(閔俊基) 주심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p>  <p>제7회 대통령기쟁탈 전국중학대회 우승에 이어 제24회 전국중학선수권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청주중 선수들.</p>  <p>청주시는 전국대회를 제패하고 개선한 청주중 선수들을 위해 시민환영대회를 열고 노고를 치하했다.</p>  <p>시민환영대회에 도열해 있는 청주중 선수들</p>
08.23	<p>■제7회 회장기쟁탈 전국국민학교대회</p> <p>대한야구협회 주최로 8월 23일부터 15개 국민학교 팀(서울 화계, 청주 우암, 경북 왜관, 서울 성동, 부산 중앙, 군산남, 경기 송의, 충남 당진, 광주 서림, 춘천, 서울 한양, 경북 옥산, 서울 봉천, 부산 동신, 전북 중앙)이 출전한 가운데 장충 리틀구장에서 개최, 8월 27일 열린 결승전에서 군산남국교가 광주 서림국교를 4-0으로 꺾고 대회 2연패</p> <p>▲준결승전=서림국 2-1 우암국, 군산남국 10-3 성동국 ▲결승전=군산남국 4-0 서림국</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장호익(張虎翼 군산남국 포수) ▲감투상=조계현(군산남국 투수) ▲타격상=강동기(성동국) ▲감독상=문철웅(군산남국 감독) ▲공로상=최규거(군산남국 교장)</p>	<p>제7회 대통령기쟁탈 전국중학대회 우승에 이어 제24회 전국중학선수권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청주중 선수들.</p>
08.23	<p>■제24회 전국중학선수권대회</p> <p>대한야구협회 주최로 8월 23일부터 전년도 우승 팀 선린중을 비롯해 15개 중학 팀(진흥, 진주 중앙, 선린, 청주, 전남, 대동, 대광, 명지, 동인천, 한밭, 경상, 신일, 배재, 대구, 전라중)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8월 27일 끝난 결승전에서 청주중이 대회 2연패를 노리던 선린중을 4-0으로 격파하고 우승</p> <p>▲준결승전=청주중 2-1 대광중, 진흥중 2-5 선린중 ▲결승전=청주중 4-0 선린중</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이상군(李相君 청주중 투수) ▲우수투수상=박노준(선린중 투수) ▲감투상=황종선(黃鍾先 청주중 유격수) ▲타격상=김경호(金敬鎬 진흥중 유격수 .556) ▲감독상=이정석(李貞錫 청주중</p>	<p>청주시는 전국대회를 제패하고 개선한 청주중 선수들을 위해 시민환영대회를 열고 노고를 치하했다.</p> <p>시민환영대회에 도열해 있는 청주중 선수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감독) ▲지도상=심봉진(沈鳳鎭 청주중 교장)	
08.23	<p>■ 한국화장품 일본원정 한·일친선대회</p> <p>일본사회인야구협회 초청으로 실업야구 전기리그 우승 팀 한국화장품야구단 26명(임원6, 한국화장품 15, 육군 3, 공군 2명)이 8월 23일 일본에 원정, 8월 24일 도쿄 덴덴(電電)구장에서 도쿄올스타 A팀을 시작으로 7차전 끝에 3승4패를 기록</p> <p>▲1차전(8월 24일)=한국 4-9 도쿄선발A ▲2차전(8월 26일)=한국 4-1 후지중공업 ▲3차전(8월 28일)=한국 0-2 스미모토금속 ▲4차전(8월 29일)=한국 2-3 지바선발 ▲5차전(8월 30일)=한국 3-4 일본석유 ▲6차전(8월 31일)=한국 8-1 도쿄선발B ▲7차전(9월 2일)=한국 3-1 도쿄선발</p>	 <p>한국화장품이 일본에 원정중 8월 28일 가고시마(鹿兒島)의 스미모토(住友)금속과 경기를 마친 뒤 기념 촬영.</p>
08.27	<p>■ 전국대학추계연맹전</p> <p>한국대학야구연맹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8월 27일부터 13개 팀이 A조(건국대, 성균관대, 연세대, 영남대, 인천체전, 중앙대, 충남대)와 B조(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동아대, 인하대, 한양대)로 나뉘어 서울운동장에서 예선대회를 개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A, B조 1~3위 팀이 벌인 결승리그에서 영남대가 3승1무1패로 우승</p> <p>◇결승리그 순위=①영남대(3승1무1패) ②건국대(3승2패) ③한양대, 동아대(2승1무2패) ⑤인하대(2승3패) ⑥연세대(1승1무3패)</p> <p>◇개인상 ▲우수선수상=김정호(金正鎬 영남대 투수) ▲타격상=①장정기(인하대 .472) ②양승관(梁承琯 인하대 .452) ③김승수(건국대 .407) ▲홈런킹상=양승관(인하대 3개) ▲감독상=배성서(영남대 감독)</p> <p>△영남대=감독 배성서 및 원민구(元敏九 2루수), 박진규(朴珍奎), 김성호(이상 좌익수), 전기호(우익수), 서영태(3루수), 박종범(朴鍾範 1루수), 조규식(투수) 정국환(鄭國煥), 권희수(이상 포수), 정영기(鄭永基 유격수), 윤철현(尹鐵鉉), 나인호(이상 투수), 권영호(투수겸 1루수), 김재상(중견수)</p>	<p>■08.31 왕정치 홈런 세계 타이 기록</p> <p>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오 사다하루(王貞治)가 도쿄 고락쿠엔(後樂園)구장에서 열린 다이요(大洋) 웨일스와의 경기에서 생애 통산 755호 홈런을 날려 미국의 행크 에런의 세계 최다 홈런 기록과 타이</p>  <p>중앙대-영남대 경기 6회말, 영남대 5번 서영태가 1루에서 후속 6번 박종범의 좌전 안타로 단숨에 3루까지 뛰어 들어 세이프.</p>
09.01	<p>■ 제6회 한·일고교대회</p> <p>대한야구협회와 동아일보사가 일본고교선수권대회(일명 고시엔대회) 우승 히메이지(姫路)고를 주축으로 선발한 일본고교선발 팀을 초청, 9월 1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서울운동장에서 3차전을 개최, 한국과 일본이 1승1무1패를 기록</p> <p>▲1차전(9월 1일)=일본 2-2 한국 ▲2차전(9월 2일)=일본 3-1 한국 ▲3차전(9월 4일)=일본 3-6 한국</p> <p>◇일본고교선발 ▲단장=마쓰이(松井 일본고교연맹 부회장) ▲히라이(平井 동 이사) ▲총무=이시가와(石川 아사히신문 기자), 오쿠(大久 히메지고 야구부장) ▲감독=우메타니(梅谷 히메지고 감독) ▲투수=마쓰모토(松本 히메지고), 사카모토(坂本 토호고), 마에다</p>	 <p>2회초 일본의 5번 야스이가 후속 타로 홈인, 1-1 동점을 만드는 순간</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前田 다이테쓰고), 미타니(三谷 이마바리니시고) ▲ 포수=야스이(安井 히메지고), 오야(大矢 토호고), 타쿠미(鍛冶 다이테쓰고) ▲내야수=다무라(田村), 하루이시(春石 이상 히메지고), 모리타(森田) 사토(佐藤 이상 토호고), 아베(阿部 이마바리니시고) ▲외야수=마쓰다(松田 히메지고), 아사이(淺井 토호고), 오치(越智 이마바리니시고), 가와바타(川端 다이테쓰고)</p> <p>◇한국고교선발 ▲단장=최인철(협회 부회장) ▲총무=이명구(중고연맹 전무이사) ▲섭외=정두영(협회 섭외이사) ▲감독=김성근(총암고 감독) ▲투수=박영진(대구상), 이길환(선린상), 양상문(부산고), 기세봉(총암고), 김성한(군산상) ▲포수=이만수(대구상), 김경문(공주고) ▲내야수=김남수(신일고), 오대석(대구상), 박기수(군산상), 김동우(총암고), 김정수(신일고) ▲외야수=박중훈(신일고), 김문영(선린상), 채희주(광주상), 이근식(총암고)</p>	<p>■09.03 왕정치 홈런 세계 신기록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트의 오사다하루(王貞治)가 5만5천여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라쿠엔 구장에서 열린 야쿠르트전에서 756호 홈런을 날려 행크 에런의 755개를 돌파하고 세계 신기록 수립</p> <p>■09.15 고상돈 에베레스트 정복 한국에베레스트원정대가 1차 도전에 실패한지 6일 만에 고상돈(高相敦 29) 대원과 세르파 '팸파 노르부'로 구성된 제2차 공격조가 8시간 50분간의 사투 끝에 한국 최초(세계 8번째)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정복</p>
09.24	<p>■제32회 전국대학선수권대회 서울신문사 주최로 9월 24일부터 영남, 고려, 연세, 충남, 중앙, 성균관, 동국, 인하, 인천체전, 한양, 경희, 건국, 서울, 동아대 등 14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토너먼트로 개최, 9월 29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연세대가 한양대를 3-2로 제치고 우승</p> <p>▲준결승전=연세대 8-3 성균관대, 한양대 8-4 건국대 ▲결승전=연세대 3-2 한양대</p> <p>◇개인상 ▲우수선수상=이광은(李光殷 연세대) ▲우수투수상=최동원(연세대) ▲수훈상=신언호(연세대) ▲감투상=황태환(한양대) ▲미기상=장정호(한양대) ▲타점상=김한근(한양대 8) ▲타격상=①김한근(한양대 .632) ②조종규(건국대 .625) ③홍희섭(성균관대 .556) ▲최다안타상=김한근(12) ▲도루상=김봉연(연세대), 송진호(건국대 이상 5) ▲감독상=이재환(연세대 감독)</p>	 <p>연세대-한양대의 결승전, 5회초 연세대 5번 이광은(李光殷)이 백 스크린을 맞히는 솔로 홈런을 날린 뒤 홈인하고 있다.</p>
10.10	<p>■제58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대한체육회 주최로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광주공설운동장에서 개최, 선린상고(서울), 경남OB(경남)가 우승</p> <p>▲고등부 준결승전=광주일고(전남) 1-0 군산상고(전북), 선린상고(서울) 4-1 인천고(경기) ▲동 결승전=선린상고(서울) 4-2 광주일고(전남)</p> <p>▲일반부 준결승전=경북OB 5-1 한국화장품(경기), 경남OB 5-4 육군(서울) ▲동 결승전=경남OB 2-0 경북OB</p>	<p>■10.18 양키스, 월드시리즈 우승 뉴욕 양키스가 월드시리즈 6차전에서 LA 다저스를 8-4로 물리치고 4승2패로 15년 만에 우승</p> <p>■10.18 월드시리즈 3연타석 홈런 뉴욕 양키스의 레지 잭슨이 월드 시리즈 6차전에서 사상 최초로 월드시리즈 3연타석 홈런을 기록</p>
10.16	<p>■서울시고교 추계리그 서울시고교연맹 주최로 10월 16일부터 서울시 고교 13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1월 9일 열린 결승리그 최종일 경기에서 신일고가 성남고를 7-0(8회 콜드 게임)으로 격파하고 3전 전승으로 우승</p> <p>◇결승리그 종합 순위=①신일고(3승) ②동대문상(2승</p>	<p>■10.26 스파키 라일 사이연상 수상 뉴욕 양키스를 15년 만에 정상에 올려 놓은 왼손잡이 투수 스파키 라일이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구원투수 최초로 미국야구평론가협회가 수여하는 사이영상을 수상</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1패) ③대광고, 성남고(이상 1무2패)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양승호(梁承虎 신일고) ▲우수투수상=송영수(宋榮洙 신일고) ▲감투상=김용수(金龍洙 동대문상) ▲타격상=①김정수(金貞洙 신일고 .520) ②이재혁(李載赫 성남고 .451) ③김남수(金男洙 신일고 .417) ▲최다안타상=김남수(신일고 15개) ▲최다타점상=김남수(신일고 13점) ▲최다루타상=김정수(신일고 30루타) ▲최다도루상=조용현(趙龍鉉 신일고 9개) ▲최다출루상=김정수 신일고 21회)</p>	<p>■10.27 한큐, 일본시리즈 3연패 일본 프로야구 퍼시픽리그 우승 팀 한큐 브레이브스가 재팬시리즈 5차전에서 센트럴리그 패자인 요미우리 자이언츠를 6-3으로 꺾고 4승1패로 3년 연속 우승</p> 
10.22	<p>■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코리언 시리즈 한국실업야구연맹 주최로 10월 22일부터 전기리그 우승 팀 한국화장품과 후기리그 우승 팀 육군이 실업야구 패권을 놓고 겨루는 코리언 시리즈가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27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5차전에서 육군이 6-3으로 한국화장품을 꺾어 3승1무1패로 우승 ▲1차전=육군 1-0 한국화장품 ▲2차전=육군 3-1 한국화장품 ▲3차전=육군 3-3 한국화장품 ▲4차전=한국화장품 6-5 육군 ▲5차전=육군 6-3 한국화장품 ◇개인상(코리언 시리즈) ▲최고수훈선수상=이선희(육군 투수) ◇개인상(페넌트 레이스) ▲최우수선수상=김재박(한국화장품 유격수) ▲최우수신인상=김재박(한국화장품 유격수, 황기선(상업은행 투수) ▲수위타자상=김재박(한국화장품 유격수 .439), 임신근(한일은행 투수 .405) ▲최다홈런상=김재박(한국화장품 13개), 이종도(제일은행 10개) ▲최다타점상=김재박(한국화장품 37점), 임신근(한일은행 31점) ▲최다도루상=김재박(한국화장품 24개), 도유성(기업은행 18개) ▲최다출루상=김재박(한국화장품 .515), 임신근(한일은행 .493) ▲3관왕(타율·타점·홈런)상=김재박(한국화장품) ▲만루홈런상=도영권(한국화장품) ▲노히트노런상=이선희(육군) ▲10년 베스트 나인상=강병철(한일은행) ▲최다승리투수상=유남호(롯데 투수 13승), 황기선(상업은행 투수 7승) ▲승률 우수투수상=이선희(육군 투수 .812), 김윤규(한일은행 투수 .600) ▲방어율 우수투수상=이선희(육군 1.91), 김윤규(한일은행 .3.21) ▲감독상=심말룡(육군 감독) ▲특별상=이세호(李世鎬 육군참모총장) ▲공로상=김탁교(金卓敎 육군야구단장, 김정세(金正世 육군야구부장) △육군=감독 심말룡 및 함학수(유격수), 유응삼(劉應三 대타겸 중견수), 구영석(2루수), 김봉연(1루수), 김준환(3루수), 유승안, 금광옥(이상 포수), 나재선(좌익수), 전명대(全明大 우익수겸 좌익수), 권백행(중견수겸 우익수), 하기룡, 박상열, 이선희(이상 투수), 김용윤(대타)</p>	<p>코리언시리즈 5차전 8회초 3루에 진루한 육군의 김준환이 이해창의 3루 앞 땅볼로 홈에 뛰어 들었으나 터치 아웃</p> <p>■11.11 이리역 화약운송열차 폭발 11월 11일 밤 9시15분 전북 이리시 이리역 구내에서 고성능 폭발물을 가득 실은 채 정차중이던 화차 1량이 폭발, 1천여 명의 사상자와 9천5백여 채의 가옥이 부서지는 대참사 발생</p> <p>■11.18 전 외무부장관 최덕신 망명 5.16혁명 직후 외무부장관을 지낸 전 천도교 교령 최덕신(崔德新)이 해외에서 반정부 활동에 가담하기 위해 미국으로 망명</p>
11.10	<p>■제3회 슈퍼 월드컵대회 첫 우승 제3회 슈퍼 월드컵 세계대회가 11월 10일부터 한국, 미국, 자유중국, 일본, 캐나다, 니카라과, 콜롬비아, 푸</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에르토리코, 베네수엘라 등 9개 국이 출전한 가운데 나카라과에서 개최,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6강(한국, 미국, 일본, 니카라과, 콜롬비아, 푸에르토리코)이 겨루는 결승리그에서 한국이 미국과 4승1패로 동률, 11월 26일 열린 최종 결승전에서 미국을 5-4로 물리치고 세계대회 사상 첫 우승</p> <p>◇예선리그 ▲1차전(11월 10일)=한국 4-5 미국 ▲2차전(11월 12일)=한국 4-0 푸에르토리코 ▲3차전(11월 13일)=한국 8-2 베네수엘라 ▲4차전(11월 14일)=한국 0-1 일본 ▲5차전(11월 15일)=한국 7-0 콜롬비아 ▲6차전(11월 16일)=한국 8-1 니카라과 ▲7차전(11월 17일)=한국 1-2 자유중국 ▲8차전(11월 18일)=한국 3-1 캐나다</p> <p>◇예선리그 순위=①미국(8승) ②한국(5승3패) ③일본, 니카라과, 콜롬비아(이상 4승4패) ⑥푸에르토리코, 자유중국, 캐나다(이상 3승5패) ⑨베네수엘라(2승6패)</p> <p>◇결승리그 ▲1차전(11월 21일)=한국 0-2 미국 ▲2차전(11월 23일)=한국 13-3 니카라과 ▲4차전(11월 23일)=한국 4-1 콜롬비아 ▲5차전(11월 24일)=한국 4-2 푸에르토리코</p> <p>◇결승리그 순위=①한국, 미국(이상 4승1패) ③일본, 니카라과(이상 3승2패) ⑤콜롬비아(1승4패) ⑥푸에르토리코(5패) ▲최종 결승전=한국 5-4 미국</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이선희 ▲최다승투수상=이선희 ▲최다구원투수상=이선희 ▲타격상=김재박(.426) ▲최다안타상=김재박(23) ▲도루상=김재박(6)</p> <p>◇한국선수단 ▲단장=박상규(협회 전무이사) ▲총무=정두영(협회 섭외이사) ▲감독=김응룡(한일은 감독) ▲코치=유백만(한국화장품 감독) 및 김재박(유격수), 배대웅(2루수), 김봉연(1루수겸 지명타자), 김정수(1루수겸 대타), 윤동균(우익수겸 좌익수), 장효조(지명타자겸 우익수), 구영석(3루수겸 중견수), 천보성(3루수겸 지명타자), 박해중(포수겸 지명타자), 이해창(중견수), 김일권(중견수겸 좌익수), 김우근(우익수겸 대타), 심재원(포수), 최동원, 이선희, 유남호, 방기만, 임호균, 유종겸, 김시진(이상 투수)</p>	 <p>슈퍼 월드컵 세계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선수들이 우승 트로피와 태극기를 앞세우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p>  <p>니카라과 슈퍼월드컵대회에서 우승한 대표선수단이 김포공항에서부터 서울시청까지 시민환영 개선 퍼레이드를 펼쳤다.</p> <p>■12.17 구마고속도로 개통 경북 대구와 경남 마산을 잇는 길이 84.5km의 구마고속도로가 착공 1년 반만에 준공을 보아 이날 오후 2시 8번째의 고속도로가 개통</p>
12.23	<p>■제20회 이영민 타격상 이만수(李萬洙) 수상 대한야구협회가 제20회 이영민 타격상 수상자로 77년도 전국 5개 고교대회에서 타율 .435를 기록한 대구상고 포수 이만수를 선정</p>	
1978. 03.19	<p>■서울시고교 춘계리그 한국중·고야구연맹 일간스포츠 공동 주최로 3월 19일부터 서울시 17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경기장 사정으로 무기연기된 끝에 열린 결승전(날짜 미상)에서 신일고가 서울고를 10-2로 격파하고 우승</p> <p>◇예선 순위 ▲A조 ①충암고(4승1무) ②서울고, 배명고(이상 3승1무1패) ④선린상(2승1무2패) ⑤휘문고(1</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승4패) ⑥장충고(5패) ▲B조 ①배문고, 동대문상, 대광고, 배재고(이상 3승2패) ⑤보성고(2승3패) ⑥중앙고(1승4패) ▲C조 ①신일고(4승) ②성남고(3승1패) ③경기고(1승1무2패) ④상문고(2무2패) ⑤명지고(1무3패) ▲준결승전=신일고 11-1 충암고, 서울고 4-3 성남고 ▲결승전=신일고 10-2 서울고</p>	
03.22	<p>■이선희(李善熙), 대한민국 체육상 수상 3월 22일 문교부 주관 대한민국 체육상 심사위원회에서 1977년 제1회 슈퍼 월드컵 세계야구대회(니카라과)에서 한국 우승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이선희를 포함, 6명의 수상자를 다음과 같이 확정 발표 ▲공로상=한준우(韓俊愚 대구문화방송 사장), 장희영(張喜榮 역도연맹 전무) ▲지도상=이창호(李昌浩 대농여자배구 감독), 김광선(金光善 경희대 체육대학장) ▲연구상=김중훈(金鍾勳 한양대 교수) ▲경기상=이선희(육군야구단 투수)</p>	<p>신일고-충암고 준결승전 6회초 1사후 볼넷으로 나간 신일고 4번 김정수(金貞洙)가 2루 스틸에 이어 3루 스틸에 성공하는 순간.</p>
03.22	<p>■제1회 통일대기쟁탈 전국대학대회 한국대학야구연맹 영남일보사 공동 주최로 3월 22일부터 전국 12개 대학 팀(연세, 충남, 성균관, 중앙, 건국, 인천체전, 인하, 한양, 동아, 동국, 영남, 경희대)이 출전한 가운데 대구시민운동장에서 개최, 3월 25일부터 시작된 결승리그에 건국대, 연세대, 영남대, 한양대가 진출, 3월 27일 끝난 최종일 경기에서 연세대가 한양대와 1-1로 비겨 2승1무로 우승 ◇종합 순위=①종합 순위=연세대(2승1무) ②한양대(1승1무1패) ③영남대, 건국대(이상 1승2패)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최동원(연세대 투수) ▲우수투수상=김시진(한양대 투수) ▲감투상=김정호(영남대 투수) ▲수훈상=이우상(연세대 우익수) ▲타격상=①장효조(한양대 중견수 .533) ②김재상(영남대 좌익수 .462) ③배태욱(연세대 중견수 .400) ▲타점상=장효조(한양대 7타점) ▲최다홈런상=장효조(한양대 2개) ▲미기상=정영기(영남대 유격수) ▲도루상=김우근(건국대 5개) ▲감독상=이재환(연세대 감독)</p>	
03.31	<p>■전국대학연맹전 춘계리그 한국대학야구연맹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3월 31일부터 13개 대학 팀이 A조(경희대, 성균관대, 동국대, 동아대, 연세대, 중앙대, 충남대)와 B조(건국대, 고려대, 영남대, 인천체전, 인하대, 한양대)로 나누어 한양대, 성균관대구장 및 서울운동장에서 예선대회를 개최,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A, B조 1~3위 팀이 벌인 결승리그에서 고려대가 5전 전승으로 우승 ◇A조 순위=①동국대(5승1패) ②연세대(4승1무1패) ③고려대(4승2패) ④중앙대(3승3패) ⑤성균관대(2승1무3패) ⑥경희대(1승1무4패) ⑦충남대(1무5패) ◇B조 순위=①건국대, 한양대(이상 4승1패) ③고려대</p>	<p>3월 24일 열린 통일대기 전국대학대회 예선 토너먼트 마지막 경기인 성균관대-연세대 경기에서 김대진이 5회에 2점, 6회에 솔로 홈런을 날려 연세대의 결승리그 진출을 견인.</p> <p>■03.30 일본고교 첫 퍼펙트 게임 제50회 고시엔(甲子園)구장에서 열린 일본고교선발대회 4일째 경기에서 군마(群馬)현의 마에바시(前橋)고교 에이스 마쓰모토(松本 稔)가 사가(佐賀)현 히에이잔(比叡山)고교를 상대로 일본 고교야구 사상 첫 퍼펙트게임 수립</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3승2패) ④영남대(2승1무2패) ⑤인하대(1승1무3패) ⑥인천체전(5패)</p> <p>◇결승리그 순위=①고려대(5승) ②연세대(4승1패) ③한양대(3승2패) ④건국대(2승3패) ⑤동아대(1승4패) ⑥동국대(5패)</p> <p>◇개인상 ▲우수선수상=노상수(고려대 투수) ▲타격상=①장효조(한양대 .520) ②이만수(한양대 .472) ③이호영(건국대 .458) ▲감투상=최동원(연세대 투수) ▲도루상=장효조(한양대 11개) ▲타점상=이만수(한양대 10점) ▲홈런상=이만수(한양대 4개) ▲특별상(3연타석 홈런)=박해중(연세대) 감독상=최남수(고려대 감독)</p> <p>△고려대=감독 최남수 및 이승후(좌익수), 노상수(투수겸 우익수), 손상득(포수), 박종훈(1루수겸 좌익수), 김윤환(우익수겸 1루수), 우경하(중견수), 임종호(林鍾豪 2루수), 곽동찬(3루수), 이윤섭(지명타자), 김동우(金東右), 김중수(金鍾洙 이상 유격수), 강만식(姜晩植 투수)</p>	 <p>고려대가 연세대를 제치고 4년 만에 전국대학 춘계연맹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p>
04.02	<p>■제5회 부산시장기쟁탈 전국실업대회</p> <p>한국실업야구연맹 부산 MBC TV 공동 주최로 4월 2일부터 실업야구 10개 팀(공군, 롯데, 농협, 제일은행, 포항제철, 한국전력, 상업은행, 한일은행, 흥익회, 한국화장품)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 구덕구장에서 개최, 4월 5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한국화장품이 공군을 10-3으로 꺾고 대회 2연패</p> <p>▲준결승전=공군 5-1포항제철, 한국전력 0-6 한국화장품 ▲결승전=한국화장품 10-3 공군</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권영호(한국화장품 투수) ▲우수투수상=박철순(공군 투수) ▲감투상=신춘식(한국화장품 3루수) ▲타격상=김정수(공군 1루수 .778) ▲타점상=최주현(한국화장품 우익수) ▲미기상=김재박(한국화장품 유격수) ▲감독상=김호중(한국화장품 감독)</p> <p>△공군=감독 김호중 및 김재박(유격수), 최주현(우익수), 김일환(1루수), 김호인(좌익수), 신춘호(3루수), 도영권(지명타자), 최순하(崔淳河 포수), 박재천(朴在天 2루수), 정구왕(중견수), 권영호(투수)</p>	<p>■04.01 왕정치(王貞治), 15호 만루홈런</p> <p>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왕정치가 한신 타이거스전 2회말 생애 15번째 만루 홈런을 터트리며 통산 홈런 767개를 기록</p> 
04.11	<p>■박해중(朴海鍾), 대학야구 3연타석 홈런</p> <p>연세대 포수 박해중이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전국대학춘계연맹전 중앙대전에서 4회말 선발 선우대영의 공을 받아쳐 좌월 홈런, 6회말과 8회말 중앙대 릴리프 유종검으로부터 솔로 홈런을 뽑아 73년 9월 15일 김봉연(연세대) 이후 대학야구 사상 두번째로 3연타석 홈런 기록</p>	<p>제5회 전국실업대회 8회말. 한국화장품의 정구왕이 2사 2루에서 중전 안타를 날리자 2루 주자 최순하(崔淳河)가 홈인하고 있다.</p>
04.18	<p>■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전기리그</p> <p>한국실업야구연맹 주최로 4월 18일부터 11개 팀(육군 경리단, 공군, 한국화장품, 롯데, 포항제철, 한국전력, 흥익회, 한일은행, 제일은행, 농협, 상업은행)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을 비롯한 지방에서 개최, 6</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월 11일 끝난 최종일 경기에서 육군 경리단이 농협을 5-2로 꺾고 종합 성적 16승1무3패로 우승 ◇종합 순위=①경리단(16승1무3패) ②포항제철(13승1무6패) ③한국화장품(11승3무6패) ④공군(10승3무7패) ⑤한국전력(10승1무9패), 농협(9승3무8패) ⑦제일은행(9승1무10패) ⑧롯데(7승2무11패) ⑨한일은행(7승1무12패) ⑩상업은행(6승1무13패) ⑪흥익회(3승1무16패)</p>	
04.25	<p>■계형철(桂潁鐵),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공군 투수 계형철이 전국실업연맹전 전기리그 8일째 경기에서 농협 28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볼넷 1개를 내준 뒤 4명을 삼진으로 잡은 끝에 4-0으로 No Hit No Run 기록</p>	<p>농협-한국화장품 경기 8회말, 한국화장품의 김재박(金在博)이 볼넷으로 걸어나가 2루를 훔쳤으나 터치 아웃, 농협이 5-4로 이겼다.</p>
04.26	<p>■제8회 대통령기쟁탈 전국중학대회 전남야구협회 전남일보사 공동 주최로 4월 26일부터 전국에서 15개 중학 팀(진흥, 영동, 대동, 신용산, 경포, 무등, 월성, 군산남, 동인천, 대광, 광주 동성, 한밭, 진주 중앙, 전남, 청주중)이 출전한 가운데 광주 무등 경기장에서 개최, 4월 29일 끝난 결승전에서 경북 월성중이 전남중을 7-1로 격파하고 우승 ▲준결승전=진흥중 2-8 월성중, 한밭중 4-6 전남중 ▲결승전=월성중 7-1 전남중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이만우(李滿雨 월성중 투수) ▲감투상=김정수(金正洙 전남중 투수) ▲타격상=조광덕(曹光德 월성중 .615) ▲미기상=배준형(裴峻亨 무등중 3루수) ▲감독상=장인명(張寅明 월성중 감독)</p>	
05.03	<p>■제12회 대통령배쟁탈 전국고교대회 대한야구협회 중앙일보·동양방송 공동 주최로 5월 3일부터 공주고, 배재고, 인천고, 강릉고, 마산상, 충암고, 선린상, 광주일고, 부산고, 군산상, 세광고, 광주상, 중앙고, 대구상, 배명고, 심석중고, 배명고, 경남고, 서울고, 신일고, 대전고 등 전국 21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토너먼트로 개최, 5월 9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부산고가 2-0으로 대구상고를 물리치고 우승 ▲준결승전=부산고 5-1 인천고, 대구상고 4-1 경남고 ▲결승전=부산고 2-0 대구상고 ◇개인상 ▲우수선수상=김호근(부산고 포수) ▲우수투수상=양상문(부산고 투수) ▲감투상=양일환(대구상 투수) ▲미기상=신상순(대구상 중견수) ▲수훈상=안창완(부산고 1루수) ▲타격상=①조현재(趙顯宰 부산고 중견수 .583) ②김상기(金相基 인천고 투수 .575) ③최점동(崔點東 대구상 3루수 .500) ▲최다안타상=①김상기(8) ②최점동(7) ③조현재(7) ▲타점상=김상기(6) ▲도루상=조성욱(부산고 우익수 4) ▲감독상=주성노(朱性魯 부산고 감독) ▲공로상=홍금술(洪金術 부산고 교장) △부산고=감독 주성노 및 조성욱(우익수), 김성호(3루수), 김호근(포수), 양상문(투수) 안창완(1루수), 이두환</p>	 <p>제12회 대통령배고교대회 결승전을 보기 위해 서울운동장 야구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p>  <p>16년 만에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부산고 동문들이 주성노 감독을 목마 태워</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李斗煥 우익수), 조현재, 이종운(李鍾雲 이상 중견수), 장상철(유격수), 김태룡, 한영준(韓英俊 이상 2루수) △대구상고=감독 박창룡 및 조차룡(趙車龍 2루수), 최규섭(崔圭燮 유격수), 홍승규(좌익수), 신상순(중견수), 권기홍(權奇弘 투수), 양일환(투수겸 1루수), 한대호(韓大鎬 우익수), 이상걸(李相杰 포수), 노정만(盧丁萬 1루수), 최점동(3루수)</p>	<p>그라운드를 누비고 있다.</p> 
05.05	<p>■ 김우열(金宇烈), 6경기 연속홈런 신기록 제일은행 김우열이 5월 5일 경기 고양 농협구장에서 열린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전기리그 육군전에서 9회초 솔로 홈런을 날려 77년 윤동균(尹東均)이 한국야구 사상 최초로 세운 5경기 연속 홈런을 6경기로 경신 ▲홈런 내용=①4월 26일 한국화장품전 3회말 좌월 3점 홈런 투수 권영호, 9회말 좌월 2점 홈런 투수 정순명 ②4월 27일 롯데전 7회초 좌중월 솔로홈런 투수 유남호 ③4월 30일 농협전 9회초 좌월 2점 홈런 투수 범홍진(范弘鎭) ④5월 2일 공군전 5회말 좌월 2점 홈런 투수 박철순 ⑤5월 4일 상업은행전 6회초 중월 2점 홈런 투수 박경호 ⑥5월 5일 육군전 8회말 좌월 솔로 홈런 투수 이선희</p>	 <p>전국규모 대회에서 16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부산고 선수들이 카 퍼레이드(위사진) 후 학교에 도착, 우승기와 우승 컵을 선보이고 있다.</p>
05.11	<p>■ 제28회 백호기쟁탈 전국대회 대한야구협회 경향신문사 공동 주최로 5월 11일부터 13개 대학 팀(건국, 경희, 고려, 동국, 동아, 서울, 성균관, 연세, 영남, 인천체전, 인하, 중앙, 한양대)과 11개 군 실업 팀(공군, 육군, 농협, 롯데, 상업은행, 제일은행, 포항제철, 한국정력, 한국화장품, 한일은행, 흥익회) 등 24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5월 21일 끝난 결승전에서 공군이 연세대를 2-0으로 물리치고 우승 ▲준결승전=연세대 4-1 경리단, 공군 8-0 건국대 ▲결승전=공군 2-0 연세대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천보성(공군 2루수) ▲우수투수상=박철순(공군 투수) ▲감투상=최동원(연세대 투수) ▲수훈상=이삼렬(공군 3루수) ▲미기상=김대진(연세대) ▲타격상=①송일섭(농협 .667) ②김무관(한일은 .636) ③이성득(한일은 .500) ▲타점상=양종수(공군 포수 7타점) ▲감독상=신중국(공군 감독) △공군=감독 신중국 및 김인식(유격수), 김정수(1루수) 천보성(2루수), 신현석(중견수), 김유동(우익수), 이삼렬(3루수), 김성관(좌익수), 차동렬(포수), 유지훤(柳志烜 지명타자), 박철순, 남우식, 계형철(이상 투수)</p>	 <p>1956년 우승 이후 22년 만에 백호기를 되찾은 공군 선수들이 신중국 감독을 행가래치고 있다(왼쪽부터 천보성, 김정무, 차동렬, 김정수, 김인식, 김유동 그리고 사진을 제공한 윤병선 선수의 등이 보인다)</p>
05.27	<p>■ 제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야구경기 대한체육회 주최로 5월 27일 전국 11개 시 도에서 6,526명의 임원과 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대구시민운동장에서 개최, 5월 30일 벌어진 중학야구 결승전에서 충북이 경북을 6-3으로 물리치고 우승</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준결승전=충북 3-0 전남, 경북 4-0 서울 ▲결승전=충북선발 6-3 경북선발</p>	
05.31	<p>■제12회 대통령기쟁탈 전국대학초청대회 대한야구협회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5월 31일부터 전국에서 14개 대학 팀(동아, 영남, 인하, 충남, 인천, 체전, 고려, 경희, 한양, 동국, 연세, 건국, 중앙, 서울, 성균관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5일 열린 결승전에서 연세대가 성균관대를 3-2로 제치고 우승, 대회 3연패 달성 ▲준결승전=성균관 3-2 건국대, 연세대 1-0 동아대 ▲결승전=연세대 3-2 성균관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최동원(연세대 투수) ▲감투상=유종천(성균관대 투수) ▲수훈상=박해종(연세대 포수) ▲타격상=①김진근(성균관대 유격수 .600) ②김광수(건국대 2루수 .571) ③조종규(건국대 포수 .556) ▲홈런킹상=조종규(건국대 포수) ▲감독상=이재환(연세대 감독) △연세대=감독 이재환 및 정진호(유격수), 양세종(3루수), 김봉연(1루수), 박해성(1루수겸 좌익수), 박해종(포수), 함상윤(2루수), 조충렬(대타), 손영주, 윤세정(이상 2루수), 주재창(朱在昌 좌익수), 김대진(좌익수겸 우익수), 배태욱(중견수), 최동원(투수겸 우익수), 정선모(우익수), 선우기(지명타자), 배경환(투수)</p>	 <p>전국대학초청대회 결승전에서 성균관대 2번 신현국(申鉉國)이 1회말 볼넷으로 출루한 뒤 도루에 성공, 선취점을 올렸으나 성균관대는 연세대에 1점 차로 패해 준우승.</p>
06.08	<p>■제25회 청룡기쟁탈 전국중학선수권대회 조선일보사가 주최권을 인수, 대한야구협회 공동 주최로 6월 8일부터 전국에서 14개 중학 팀(배재, 장흥, 충남, 진해, 영동, 동대문, 군산남, 상인천, 대구, 토성, 청주, 충남, 춘천, 선린중)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15일 끝난 결승전에선 충남중이 대구중을 4-3으로 꺾고 팀 창설 20년 만에 첫 우승 ▲준결승전=충남중 5-0 배재중, 대구중 4-0 선린중 ▲결승전=충남중 4-3 대구중 ◇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종남(金鍾男 충남중 2루수) ▲최우수투수상=하인수(河仁洙 충남중 투수) ▲감투상=성준(成竣 대구중 투수) ▲타격상=조영일(趙永一 선린중 좌익수) ▲감독상=이병기(李秉基 충남중 감독) ▲성단(成檀 충남중 교장)</p>	
06.08	<p>■제33회 청룡기쟁탈 전국고교선수권 대한야구협회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6월 8일부터 전년도 우승 팀 대구상고를 비롯해 13개 고교 팀(춘천, 대전, 충암, 청주, 부산, 선린상, 전주상, 경북, 인천, 상문, 동대문상, 광주일고)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16일 벌어진 고등부 결승전에서는 부산고가 경북고를 7-0으로 격파하고 16년만에 패권을 탈환 ▲승자 결승전=부산고 3-2 광주일고 ▲패자 결승전=경북고 3-1 광주일고 ▲최종 결승전=부산고 7-0 경북고</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호근(부산고 포수) ▲우수투수상=양상문(부산고 투수) ▲감투상=김동재(金東再 경북고 3루수) ▲수훈상=장상철(부산고 유격수) ▲미기상=이두환(부산고 우익수) ▲타격상=①김태룡(부산고 2루수 .412) ②양상문(부산고 투수 .389) ③이광석(광주일고 우익수 .389) ▲최다안타상=①김동재(경북고 3루수 8안타) ②양상문(부산고 투수 7안타) ③이광석(광주일고 우익수 7안타) ▲감독상=주성노(부산고 감독) ▲이영기(부산고야구후원회장) ▲김근준(金根俊 부산야구협회장)</p> <p>△부산고=감독 주성노 및 조성옥(좌익수), 김성호(3루수), 김호근(포수), 양상문(투수겸 1루수), 안창완(1루수겸 투수), 조현재(중견수), 이종운(대타), 이두환(우익수), 장상철(유격수), 김태룡(2루수)</p> <p>△경북고=감독 강문길 및 장성욱(張盛旭 2루수), 이정희(李正熙 포수), 김동재(3루수), 황병일(黃炳一 1루수), 김근석(金瑾錫 유격수), 장용석(張容碩 대주), 정성재(鄭成在 중견수), 하태욱(河泰旭 좌익수), 진동한(陳桐漢 투수), 구동균(具東均 대타), 박휘용(朴輝容 투수), 송상진(우익수겸 투수), 손태민(孫泰民 우익수)</p>	 <p>경북고-부산고의 결승전, 부산고 조성옥(趙城玉)이 5회말 김호근의 희생 플라이로 3루에서 홈인, 한 점을 더 보탤다.</p>
06.17	<p>■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후기리그</p> <p>한국실업야구연맹 주최로 6월 17일부터 11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을 비롯해 각 지방 운동장에서 개최, 10월 9일 경기 고양군 농협구장에서 롯데와 성무가 1, 2위를 차지한 가운데 후기리그 110경기를 마감</p> <p>◇종합 순위=①롯데(13승1무6패) ②성무(11승3무6패) ③경리단(11승2무7패) ④한국화장품(11승1무8패) ⑤상업은행(9승3무8패) ⑥포항제철, 한일은행(이상 9승1무10패) ⑧제일은행(8승2무10패) ⑨농협(7승3무10패) ⑩홍익회(7승1무12패) ⑪한국전력(4승4무12패)</p> <p>◇개인상 ▲최다승리투수상=이선희(경리단 투수 14승2패) ▲방어율 우수투수상=이선희(경리단 투수 2.78) ▲승률 우수투수상=경리단 투수 .879) ▲타격상=이원녕(상업은 우익수 .386) ▲홈런상=김우열(제일은 우익수 11개) ▲타점상=김준환(상업은 우익수 37점) ▲도루상=이원녕(상업은 우익수 26개)</p>	 <p>경리단-한일은행 경기 3회초, 1사후 경리단 허철구(許哲九)의 희생 플라이로 3루주자 이해창(李海昌)이 홈인, 2-1로 한일은행을 꺾었다.</p>
06.21	<p>■부산시장기쟁탈 전국대학초청대회</p> <p>부산야구협회 한국대학야구연맹 공동 주최로 6월 21일부터 13개 대학 팀이 A조(영남, 경희, 인하대) B조(고려, 동국, 중앙대) C조(충남, 인천체, 동아대) D조(건국, 연세, 성균관, 한양대)로 나누어 부산 구덕구장에서 예선리그를 개최, 장마로 14일간 연기된 끝에 7월 14일 치른 결승리그 최종 결승전에서 한양대가 동아대를 1-0으로 누르고 우승</p> <p>◇결승리그 순위=①한양대, 동아대(이상 2승1무) ③고려대(1승2패) ④인하대(3패)</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최종 결승전=한양대 1-0 동아대 ◇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시진(한양대 투수) ▲우수투수상=임호균(동아대 투수) ▲수훈상=장효조(한양대 중견수) ▲감투상=정기조(동아대 2루수) ▲미기상=오대석(한양대 유격수) ▲타격상=①허규옥(한양대 우익수 .445) ②양승관(인하대 중견수 .429) ③이철성(인하대 2루수 .375) ▲타점상=김윤환(고려대 우익수 6점) ▲홈런킹상=김윤환(고려대 우익수 2개) ▲감독상=김보연(한양대 감독) △한양대=감독 김보연 및 이기호(2루수), 허규옥(우익수), 이만수(포수), 장효조(중견수), 김한근(3루수), 장정호, 이근식(이상 좌익수), 김휘욱(대타), 박정환(지명타자), 정중현(대타), 서석진(지명타자겸 대타), 오대석(유격수), 신승식(1루수), 안재홍(대타), 황태환, 김시진, 김용남(이상 투수)</p>	
06.26	<p>■이선희(李善熙),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② 육군 경리단 투수 이선희가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전국실업연맹전 후기리그 제일은행전에서 34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삼진 7개를 뺏고 사사구 8개 허용한 끝에 7-0으로 생애 두번째 No Hit No Run 기록</p>	
07.01	<p>■제15회 실업야구 올스타전 한국실업야구연맹 주최로 7월 1일부터 올스타 58명을 청군(24세 이하)과 백군(24세 이상)으로 나누어 3일 동안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22일 경기장 사정으로 중단됐다가 더블 헤더로 열린 2, 3차전에서 백군이 모두 이겨 3전 전승으로 우승 ▲1차전(통산 47차전 7월 1일)=청군 2-4 백군 ◇개인상 △수훈선수상=이해창(백군) △승리투수상=정순명(백군) △우수투수상=방기만(백군) △감투상=심재원(청군) △타격상=배대웅(청군 .667) △감독상=심말룡(경리단 감독) ▲2차전(통산 48차전 10월 22일)=백군 4-0 청군 ◇개인상 △수훈선수상=윤동균(백군) △승리투수상=이광권(백군) △우수투수상=계형철(백군) △감투상=이원녕(백군) △타격상=김용희(청군) △승리감독상=한을룡(백군 감독) ▲2차전(통산 49차전 10월 22일)=청군 6-8 백군 ◇개인상 △수훈선수상=김재박(백군) △승리투수상=진종대(陳鍾大 백군) △우수투수상=박경호(청군) △감투상=김일권(청군) △타격상=김용희(청군 .667) △Mr ALL STAR=김재박(청군) △감독상=심말룡(백군 감독) ◇청군=정구왕, 조창수(이상 중견수), 유승안(대타겸 포수), 유대성(중견수), 배대웅(2루수), 차영화(대타), 정현발(좌익수겸 중견수), 김일환, 김용희(이상 1루수), 이종도, 심재원(이상 포수), 김준환, 박찬, 송일섭(이상 우익수), 김유동, 김호인(이상 지명타자), 박민호(대타), 조흥운(3루수), 이광은(3루수겸 지명타자), 함학수, 김</p>	 <p>경기장 사정으로 4달 가까이 중단됐다 10월 22일 속개된 올스타 3차전 7회말 무사 만루에서 백군 2번 천보성(千普成)의 3루 앞 땅볼로 2루 주자 이해창(李海昌)이 홈인했으나 청군 포수 심재원(沈載元)의 미트에 볼이 꽂힌 뒤, 그러나 김종택(金鍾澤) 주심의 세이프 선언으로 기사회생했다.</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인식(이상 유격수), 김봉기, 김일권(이상 좌익수겸 우익수), 이선희, 범홍진(范弘鎭), 박철순, 천창호, 박상열, 박인중, 최영철, 강철원(姜哲元 이상 투수)</p> <p>◇백군=이원녕(좌익수겸 우익수), 김태석(좌익수), 구영석, 이삼렬(이상 3루수), 윤동균, 이해창(이상 중견수), 우용득(포수), 양창의(포수겸 지명타자), 천보성, 허철구(이상 2루수), 김우열, 김차열, 유두열(이상 우익수), 유태중, 김정수(이상 1루수), 김종우(지명타자), 권백행(대타겸 지명타자), 임신근(대타), 김구길(대타), 이광은, 권영호, 방기만, 정순명, 이광권, 계형철, 진종대, 유남호, 강용수(이상 투수)</p>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7.08	<p>■ 킨키(近畿)대초청 한·일친선대학대회 대한야구협회 초청으로일본 킨키대야구단이 7월 7일 내한, 7월 8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을 돌며 국내 대학 팀들과 8차전을 가진 끝에 4승2무2패를 기록</p> <p>▲1차전(7월 8일 서울)=킨키대 10-2 성균관대 ▲2차전(7월 8일 서울)=킨키대 2-1 고려대 ▲3차전(7월 9일 서울)=킨키대 0-5 한양대 ▲4차전(7월 9일 서울)=킨키대 2-2 연세대 ▲5차전(7월 11일 인천)=킨키대 3-1 인하대 ▲6차전(7월 13일 대전)=킨키대 2-1 건국대 ▲7차전(7월 15일 대구)=킨키대-영남대 ▲8차전(7월 16일 부산)=킨키대 4-6 동아대</p>	
07.10	<p>■ 제32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대한야구협회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7월 10일부터 전년도 우승 팀 광주상고를 비롯해 21개 팀(신일, 선린상, 군산상, 마산상, 경남, 경북, 인천, 공주, 북일, 세광, 경남상, 성남, 대구상, 배명, 동산, 부산상, 철도, 서울, 춘천, 광주일고)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7월 18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신일고가 서울고를 6-0으로 격파하고 우승</p> <p>▲준결승전=신일고 5-1 북일고, 서울고 5-2 경남고 ▲결승전=신일고 6-0 서울고</p> <p>◇개인상 ▲우수선수상=김경표(金京杓 신일고) ▲우수투수상=김정수(신일고) ▲감투상=윤수봉(尹秀奉 서울고) ▲수훈상=노승진(盧承珍 신일고) ▲타격상=①김남수(신일고 .500) ②김한조(金漢兆 경남고 .455) ③김석일(경남고 .438) ▲타점상=김남수(신일고 4타점) ▲도루상=김종근(金鍾根 경남고 4개) ▲감독상=한동화(신일고 감독) ▲공로상=김삼열(신일고 교장)</p> <p>△신일고=감독 한동화 및 조용현(曹龍鉉 좌익수), 양승호(3루수), 김경표(유격수), 김정수(투수), 최홍석(중견수), 김남수(1루수) 노승진(포수), 박동규(朴東圭 우익수), 강창일(姜昌一 2루수)</p>	 <p>제32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이 열리고 있는 서울운동장 야구장. 2만5천여 관중이 몰려 고교야구의 인기를 실감나게 했다.</p>
07.21	<p>■ 제21회 문교부장관기쟁탈 전국중학초청대회 충남야구협회 대전일보사 공동 주최로 7월 21일부터 전국 15개 중학 팀(덕산, 충남, 한밭, 광주 동성, 충장,</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부산 동성, 경상, 대구, 동대문, 선린, 신일, 충암, 군산 남, 동인천, 경포중)이 출전한 가운데 대전공설운동장에서 개최, 7월 24일 열린 결승전에서 한밭중이 충남중을 7-0으로 격파하고 팀 창단 24년 만에 전국대회 첫 우승</p> <p>▲준결승전=충남중 3-2 대구중, 경상중 1-5 한밭중 ▲결승전=한밭중 7-1 충남중</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이강호(李康昊 한밭중 1루수) ▲우수투수상=유병로(兪炳魯 한밭중 투수) ▲감투상=윤홍식(尹洪植 충남중 좌익수) ▲타격상=이강호(한밭중 .636) ▲미기상=조형섭(趙亨燮 대구중 3루수) ▲감독상=기노봉(奇老鵬 한밭중 감독)</p>	
07.23	<p>■제30회 화랑기쟁탈 전국고교대회</p> <p>부산야구협회 국제신문사 공동 주최로 7월 23일부터 전국 각 시 도에서 16개 고교 팀(세광, 부산, 경남, 부산상, 경남상, 경기, 상문, 동대문상, 휘문, 동산, 북일, 전주상, 진흥, 대구, 마산상, 춘천고)이 출전한 가운데 구덕구장에서 개최, 7월 30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부산고가 경기고를 3-0으로 꺾고 우승</p> <p>▲준결승전=경기고 6-2 동산고, 부산고 1-0 북일고 ▲결승전=부산고 3-0 경기고</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호근(부산고 포수) ▲우수투수상=양상문(부산고 투수) ▲감투상=유성용(劉誠容 경기고 투수) ▲타격상=①장군길(張君吉 마산상 3루수 .700) ②김진동(金鎭東 경기고 포수 .533) ▲미기상=신계석(申桂錫 경기고 유격수) ▲감독상=주성노(부산고 감독) ▲공로상=이진우(李鎭雨 부산고동창회장) 정현규(鄭顯圭 부산야구협회장)</p> <p>△부산고=제33회 전국선수권대회 참조 △경기고=감독 박현식 및 유성용(투수겸 유격수), 신계석(유격수겸 투수), 김진동(포수), 송진선(宋珍善 중견수), 김기홍(金起弘 좌익수), 손상권(孫相權 2루수) 박회병(朴滄秉), 남석호(南奭浩 이상 우익수), 장두형(張斗衡), 송광진(宋光振 이상 1루수겸 우익수), 김정갑(金正甲), 박용남(朴鎔南 이상 3루수)</p>	<p>2년 만에 황금사자기를 되찾은 신일고 선수들이 한동화 감독을 행가래치고 있다.</p>
07.23	<p>■제1회 한·미대학선수권대회</p> <p>대한야구협회가 미국 11개 주 15개 대학에서 선발된 미국대학대표 팀이 한국 9개 대학에서 선발한 한국대학대표 팀과 7전 4선승 방식의 한·미대학대항대회를 창설, 7월 23일부터 30일까지 서울운동장에서 개최한 끝에 한국이 4승1무1패로 우승</p> <p>▲1차전(7월 23일)=미국 7-5 한국(패) ▲2차전(7월 24일)=미국 2-13 한국(승) ▲3차전(7월 25일)=미국 4-9 한국(승) ▲4차전(7월 26일)=미국 0-0 한국(무) ▲5차전(7월 27일)=미국 2-3 한국(승) ▲6차전(7월 29일)=미국 1-2 한국(승) ▲친선경기(7월 30일)=미국 5-2 한국(패)</p> <p>◇종합 전적=한국대표(4승1무1패), 미국대표(1승1무</p>	 <p>새로 창설된 한·미선수권대회 7차전에서 미국 8번 무어(오른쪽)가 4회초에 이어 7회초에도 홈런을 날린 뒤 동료들의 환영을 받으며 흠뻑 젖어 있다.</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4패) ◇개인상 ▲최우수선수상=Mickey Brusco ▲우수투수상=김시진 ▲타격상=송진호(.467) ▲타점상=김봉연(9) ▲홈런상=김봉연(4) ▲미기상=Steve Brigante △한국대표=감독 김진영(중앙대 감독), 코치 배성서(동국대 감독), 강태정(건국대 감독) 및 김우근(중견수), 박종훈(좌익수겸 대타), 김봉연(1루수), 장효조(우익수겸 지명타자), 박해중(포수겸 지명타자), 송진호(대주겸 좌익수및 중견수), 조종규(지명타자겸 포수), 김한근(3루수겸 대타), 양세종(3루수), 정진호(유격수), 김진근(유격수겸 대주), 양승관(대타겸 대주및 우익수), 정학수(鄭學守 2루수), 최동원, 김시진, 임호균, 선우대영(이상 투수)</p>	 <p>한·미대학선수권대회 3차전이 열린 7월 25일 저녁 서울운동장 야구장은 2년 6개월만에 불을 밝히고 야구를 했다.</p>
07.25	<p>■제9회 세계리틀선수권대회 극동지역예선전 제9회 세계리틀야구선수권대회 극동예선대회가 한국, 자유중국, 일본, 괌, 홍콩 등이 출전한 가운데 괌 아가나 파세오구장에서 풀 리그로 개최, 한국은 자유중국(4승)에 이어 3승1패로 일본과 공동 준우승</p>	 <p>극동지역 리틀야구예선 괌과의 경기에서 한국의 이명선이 괌 선수의 도루를 막으려다 실패.</p>
08.01	<p>■제8회 봉황기쟁탈 전국고교대회 대한야구협회 한국일보사 공동 주최로 8월 1일부터 지난 해 우승 팀 충암고를 비롯해 전국에서 42개 팀(선린상, 전남, 신일, 장충, 전주, 북일, 배명, 군산상, 인천체, 대광, 공주, 경남상, 대전, 배문, 명지, 심석중, 목포상, 춘천, 서울, 세광, 중앙, 재일교포, 휘문, 대구, 성남, 강릉, 마산상, 보성, 동산, 경기, 여수상, 동대문상, 경북, 진흥, 부산상, 상문, 전주상, 배재, 광주상, 청주고)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8월 17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서울고가 선린상고를 5-2로 꺾고 개교 이래 전국규모 대회 첫 우승 ▲준결승전=선린상고 5-4 충암고, 서울고 2-1 경기고 ▲결승전=서울고 5-2 선린상고 ◇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영균(金泳均 서울고 투수) ▲최우수투수상=윤수봉(서울고 투수) ▲우수투수상=김문수(선린상고 투수), 장호연(충암고 투수), 신계석(경기고 투수) ▲감투상=박순영(朴淳英 선린상고 투수) ▲수훈상=김남수(金南秀 서울고 2루수) ▲타격상=①장영민(張榮珉 휘문고 1루수 .538) ②김광철(金光哲 선린상고 1루수 .461) ③김동칠(金東七 대전고 좌익수 .444) ▲최다 타점상=①정용락(충암고 2루수 6타점) ②김광철(선린상고 5타점) ③이승희(서울고 유격수 .5타점) ▲최다 안타상=①전재형(全宰亨 서울고 중견수 12안타) ②정용락(충암고 8안타) ③윤필호(尹弼鎬 상문고 중견수 7안타) ▲감독상=서영무(서울고 감독), 박용진(선린상고 감독) ▲지도상=김재복(서울고 부장), 김남식(金南湜 선린상고 부장) ▲장려상=여수상고 ▲응원상=경기고 응원단 △서울고=감독 서영무 및 전재형, 한동익(韓東翼 이상 중견수), 김남수(2루수), 하재원(河再源), 엄종필(嚴鍾</p>	 <p>제8회 봉황기 고교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서울고 동문들이 뛰어난 활약으로 우승의 디딤돌이 된 김영균(金泳均) 선수를 행가래치고 있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弼 이상 좌익수), 이승희(유격수), 장훈(張勳 우익수겸 1루수), 김재운(金載潤), 조치주(趙治柱 이상 우익수), 김영택(金永澤 포수), 정충민(鄭忠珉 투수겸 우익수), 김영균(투수겸 1루수), 김동관(金東寬), 권영태(權寧台 이상 1루수), 신상민(申相珉 3루수), 윤수봉(투수) △선린상고=감독 박용진 및 손창규(孫昌奎 3루수), 이창헌(李昌憲 우익수), 박순영(중견수), 이선웅(李善雄 유격수), 김광철(1루수), 김문영(좌익수), 홍석우(洪碩佑 2루수), 윤석환(尹錫環 투수), 김태연(金泰淵), 김현성(金炫城 이상 포수), 김문수(투수겸 2루수)	
08.13	■ 제10회 네덜란드초청 할렘 국제친선대회 제25회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8월 13일 한국, 일본, 쿠바, 호주, 네덜란드 등 5개국이 출전한 가운데 네덜란드 할렘시에서 개최, 8월 22일 끝난 마지막 경기에서 일본에 6-8로 역전 패를 당해 5승3패로 준우승 ▲1차전(8월 13일)=한국 4-5 네덜란드 ▲2차전(8월 15일)=한국 6-3 쿠바 ▲3차전(8월 16일)=한국 2-0 호주 ▲4차전(8월 17일)=한국 0-14 일본 ▲5차전(8월 18일)=한국 9-8 네덜란드 ▲6차전(8월 19일)=한국 4-2 쿠바 ▲7차전(8월 21일)=한국 8-3 호주 ▲8차전(8월 22일)=한국 6-8 일본 ◇종합 순위=①일본(6승1무1패) ②한국(5승3패) ③쿠바(4승1무3패) ④네덜란드(3승5패) ⑤호주(1승7패) ◇한국선수단=제25회 세계선수권대회 참조	한국일보사 장강재 사장이 서울고 선수에게 우승의 상징 초록봉황대기를 수여하고 있다. ■ 08.03 기누가사, 1천경기 연속출전 일본 프로야구 히로시마(廣島) 카프의 3루수 기누가사(衣笠)가 오카야마에서 열린 주니치(中日)전에 출전, 1970년 10월 19일 요미우리(讀賣)전에 첫 출전한 이후 8년만에 1천경기 연속출전 대기록 수립.
08.22	■ 도쿄(東京) 올스타초청 한-일친선실업대회 대한야구협회 초청으로 일본 사회인야구 도쿄 올스타팀이 내한, 8월 22일부터 대구, 광주, 서울에서 6차전을 가진 끝에 4승1무1패를 기록 ▲1차전(8월 22일 대구)=도쿄 올스타 9-1 포항제철 ▲2차전(8월 24일 광주)=도쿄 올스타 7-2 한국화장품 ▲3차전(8월 26일 서울)=도쿄 올스타 3-0 롯데 ▲4차전(8월 26일 서울)=도쿄 올스타 1-1 국군선발 ▲5차전(8월 27일 서울)=도쿄 올스타 1-2 한국화장품 ▲6차전(8월 27일 서울)=도쿄 올스타 4-3 실업선발	 네덜란드 할렘 국제친선대회와 제25회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할 국가대표팀의 한을룡 코치, 김응룡 감독, 이재환 코치(왼쪽부터) ■ 08.23 레플로어, 27연속 도루 신기록 미국 프로야구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론 레플로어가 미네소타 트윈스전에서 27연속 도루에 성공, 아메리칸리그 최다 연속도루 기록을 경신
08.25	■ 제25회 세계선수권대회 제25회 세계선수권대회가 8월 25일 한국, 일본, 쿠바 등 11개국이 출전한 가운데 이탈리아 블로냐에서 개최, 9월 6일 열린 최종일 경기에서 한국이 쿠바에 11-0(7회 콜드 게임)으로 패해 8승2패로 3위 ▲1차전(8월 27일)=한국 7-1 벨기에 ▲2차전(8월 28일)=한국 0-2 미국 ▲3차전(8월 29일)=한국 7-4 캐나다 ▲4차전(8월 30일)=한국 5-4 일본 ▲5차전(8월 31일)=한국 0-2 니카라과(4회말 폭우로 노 게임) ▲6차전(9월 1일)=한국 3-2 이탈리아 ▲7차전(9월 2일)=한국 7-3 호주 ▲8차전(9월 3일)=한국 5-2 멕시코 ▲9차전(9월 4일)=한국 6-3(재경기) 니카라과 ▲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10차전(9월 5일)=한국 12-2 네덜란드 ▲11차전(9월 6일)=한국 0-11 쿠바 ◇종합 순위=①쿠바(10승) ②미국(9승1패) ③한국(8승2패) ④일본(7승3패) ⑤이탈리아, 니카라과(이상 5승5패) ⑦네덜란드(4승6패) ⑧멕시코(3승7패) ⑨캐나다, 호주(이상 2승8패) ⑩벨기에(10패) ◇한국선수단 ▲단장=이용일(협회 이사) ▲총무=정두영(협회 이사) ▲회의대표=박상규(협회 전무이사) ▲심판=정태수(협회 이사) ▲감독=김응룡(한일은 감독) ▲코치=한을룡(한전 감독), 이재환(연세대 감독) ▲투수=최동원, 김시진, 유남호, 권영호, 이광권, 임호균 ▲포수=심재원, 박해중 ▲내야수=김봉연, 천보성, 김재박, 배대웅, 김일환, 구영석 ▲외야수=장효조, 김일권, 이해창, 김준환, 김우열</p>	 <p>8월 9일 대한체육회 회의실(9층)에서 열린 한국야구선수단 결단식에서 대한야구협회 김종락 회장이 이용일 단장에게 단기를 수여하고 있다.</p> <p>■08.31 피트 로즈 44연속경기 안타 신시내티 레즈의 피트 로즈가 6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44경기 연속 안타를 날려 내셔널리그 최다 기록을 수립</p>  <p>서울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7회 한-일고교대회 입장식. 왼쪽이 일본고교선수권대회 우승 팀 미노시마고교 선수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일본대표 팀.</p>  <p>한국대표 팀의 김영덕(金永德) 감독(왼쪽)과 일본대표 팀의 쓰루오카(鶴岡) 감독이 경기에 앞서 기념 페넌트를 교환. 한국은 이 대회를 앞두고 20일간 김영덕 감독의 지도로 합숙훈련을 마쳤다.</p>
09.02	<p>■제7회 한-일고교대회 대한야구협회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9월 2일부터 3일간 일본고교선수권대회(일명 고시엔대회) 우승 팀 미노시마(箕島)고교의 주전 선수 10명을 주축으로 구성된 일본고교선발 팀과 서울운동장에서 한-일고교대회를 개최, 9월 5일 벌어진 3차전에서 한국이 일본을 1-0으로 꺾고 2승1패(통산 전적 8승4무9패)로 우승 ▲1차전(9월 2일)=일본 3-2 한국 ▲2차전(9월 4일)=일본 0-2 한국 ▲3차전(9월 5일)=일본 0-1 한국 ◇일본고교선발 ▲단장=사이키(佐伯 일본고교연맹 회장) ▲부단장=마쓰이(松井 동 연맹 부회장) ▲총무=스사키(須崎 동 연맹 이사) ▲임원=이즈카(飯塚 동 연맹 이사) ▲심판=미야케(三宅 동 연맹 심판) ▲감독=쓰루오카(鶴岡) ▲선수=니시타(西田), 모리(森), 쓰다(津田), 다카마쓰(高松), 사타가미(坂上), 아야노(綾野) 키도(木戸), 기다노(北野), 야마나카(山中), 묘진(明神), 야마니시(山西), 모리타(森田), 타니마쓰(谷松), 스즈키(栗岡), 다케노리(武乘), 야나가와(柳川)=유명홍(柳明弘) ◇한국고교선발 ▲단장=최인철(협회 부회장) 총무(이명구(중고연맹 전무이사) ▲감독=김영덕(북일고 감독) ▲투수=양상문(부산고), 양일환(대구상고), 이상윤(광주일고), 김상기(인천고), 신계석(경기고), 이상군(북일고), 김영식(세광고) ▲포수=김호근(부산고), 박명운(차명운 인천고), 한문연(韓文延 마산상고) ▲내야수=박정후(경남고), 김동재(경북고), 장상철(부산고), 박기수(군산상고), 장영안(張榮眼 휘문고), 한대화(韓大化 대전고) ▲외야수=최광목(인천고), 김석일(경남고), 홍승규(대구상고), 김문영(선린상고), 김광림(공주고)</p>	
09.04	<p>■전국대학연맹전 추계리그 대한야구협회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9월 4일부터 12개 팀이 A조(건국대, 동국대, 연세대, 인천체전, 인하대, 중앙대)와 B조(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성균관대, 영남대, 한양대)로 나뉘어 서울운동장에서 예선대</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회를 개최, 9월 16일부터 24일까지 서울과 대구 시민운동장에서 A, B조 1~3위 팀이 벌인 결승리그에서 고려대가 3승2무로 우승</p> <p>◇A조 예선 순위=①인하대(4승1무) ②건국대, 동국대(이상 3승2패) ④연세대(1승2무2패) ⑤중앙대(1승1무3패) ⑥인천체전(5패)</p> <p>◇B조 예선 순위=①한양대(5승) ②고려대(4승1패) ③성균관대(3승2패) ④영남대(1승1무3패) ⑤경희대(1승4패) ⑥동아대(1무4패)</p> <p>◇결승리그 종합 순위=①고려대(3승2무) ②건국대(3승1무1패) ③한양대(3승2패) ④인하대(2승1무2패) ⑤동국대, 성균관대(1승4패)</p> <p>◇개인상 ▲우수선수상=노상수(고려대 투수) ▲타격상=①이만수(한양대 포수 .474) ②임종호(고려대 2루수 .444) ③김한근(한양대 3루수 .395) ▲홈런상=양승관(인하대 중견수 7개) ▲타점상=양승관(인하대) ▲도루상=송진호(건국대 좌익수 8개) ▲감독상=최남수(고려대 감독)</p>	 <p>연세대-인하대 경기 4회말, 무사 주자 1루에서 인하대 9번 서상보(徐相輔)의 보내기 번트를 연세대 투수 배경환(裴景煥)이 야수선택으로 처리하는 틈에 1루 주자 인호봉(印浩鳳, 배번 16)이 2루에 세이프.</p> <p>■09.30 짐 라이스 MVP수상 보스턴 레드삭스의 짐 라이스가 홈런(46) 타점(139) 최다안타(213) 최다루타(406) 장타율(0.600)을 석권, 론 기드리를 근소한 차로 제치고 MVP를 수상</p>  <p>베네수엘라에서 열리는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국내에서 전술훈련 중인 청소년대표 선수들.</p>
09.29	<p>■제10회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준우승</p> <p>베네수엘라에서 열리는 제10회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한국대표(일행 27명) 팀이 9월 26일 하오 김포공항에서 KAL기편으로 출국,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까지 한국, 자유중국, 쿠바, 베네수엘라, 푸에르토리코, 콜롬비아, 도미니카, 안티라스 등 8개 국 청소년대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카라카스에서 개최, 10월 14일 열린 대회 최종일 경기에서 한국이 13회 연장전 끝에 쿠바를 3-1로 꺾고 11승 3패로 동률, 우승 결정전에서 쿠바에 1-6으로 패해 준우승</p> <p>▲1차전(9월 30일)=한국 9-4 도미니카 ▲2차전(10월 1일)=한국 5-8 쿠바 ▲3차전(10월 2일)=한국 6-3 안티라스 ▲4차전(10월 3일)=한국 2-1 베네수엘라 ▲5차전(10월 4일)=한국 5-4 자유중국 ▲6차전(10월 5일)=한국 4-6 푸에르토리코 ▲7차전(10월 6일)=한국 11-1 콜롬비아 ▲8차전(10월 7일)=한국 4-0 도미니카 ▲9차전(10월 9일)=한국 8-1 안티라스 ▲10차전(10월 10일)=한국 2-1 베네수엘라 ▲11차전(10월 11일)=한국 0-4 자유중국 ▲12차전(10월 12일)=한국 2-1 푸에르토리코 ▲13차전(10월 13일)=한국 8-0 콜롬비아 ▲14차전(10월 14일)=한국 3-1 쿠바(연장 13회) ▲우승 결정전(10월 15일)=한국 1-6 쿠바</p> <p>◇종합 순위=①쿠바, 한국(이상 11승3패) ③베네수엘라(10승4패) ④자유중국(9승5패) ⑤푸에르토리코(6승8패) ⑥콜롬비아(5승9패) ⑦도미니카(3승11패) ⑧안티라스(1승13패)</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이상윤 ▲최다승투수상=이상윤(6승) ▲베스트 나인=이상윤, 김문영, 김상훈</p> <p>◇한국대표선수단 ▲단장=조서희(중고연맹 회장) ▲</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섭외=이명구(중고연맹 전무이사) ▲총무=서영무(서울고 감독) ▲회의대표=박상규(협회 전무이사) ▲심판=민준기(협회 심판위원) ▲감독=김영덕(북일고 감독) ▲코치=김성근(충암고 감독) ▲투수=장호연(충암고), 양일환(대구상고), 양상문(부산고), 이상군(북일고), 이상윤(광주일고), 신계석(경기고) ▲포수=박철영(朴哲永 배명고), 김호근(부산고), 한문연(韓文挺 마산상고) ▲내야수=정용락(충암고), 양승호, 김경표(이상 신일고), 김동재(경북고), 한대화(韓大化 대전고), 장상철(부산고) ▲외야수=김정수(신일고), 김상훈(金相勳 동대문상고), 김문영(선린상고), 최광목(인천고), 김광림(金光林 공주고)	
10.05	■ 제33회 전국대학선수권대회 한국대학야구연맹 서울신문사 공동 주최로 10월 5일부터 경희, 고려, 동아, 인천체전, 서울, 성균관, 중앙, 한양, 연세, 인하, 영남, 건국대 등 12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10일 열린 결승전에서 한양대가 건국대를 1-0으로 제치고 우승 ▲준결승전=건국대 3-2 동국대, 한양대 4-1 중앙대(8회) ▲결승전=한양대 1-0 건국대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장호조(한양대) ▲우수투수상=김용남(한양대) ▲감투상=김병일(金炳日 건국대) ▲수훈상=장정호(한양대) ▲미기상=허규옥(한양대) ▲최다안타상=이기호(한양대 7) ▲타격상=①장호조(한양대 .455) ②이기호(한양대 .438) ③김용달(중앙대 .375) ▲타점상=이기호(한양대 6) ▲도루상=장호조(한양대 5) ▲감독상=김동엽(한양대 감독) ▲응원상=건국대	동아대-고려대 경기 2회초, 고려대 5번 김윤환이 좌중월 2점 홈런을 날린 뒤 홈인하고 있다. ■ 10.18 양키스, 월드시리즈 2연패 아메리칸리그를 3연패한 뉴욕 양키스가 로스앤젤레스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시리즈 6차전에서 LA 다저스를 7-2로 격파하고 2년 연속 우승
10.12	■ 제59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대한체육회 주최로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인천공설운동장에서 개최, 인천고(경기), 동아대(부산) 우승 ▲고등부 준결승전=인천고(경기) 3-2 부산고(부산), 광주일고(전남) 3-2 대구상고(경북) ▲동 결승전=인천고(경기) 4-0 광주일고(전남) ▲일반부 준결승전=경남OB(추첨 승) 3-3 충남OB, 포항제철(경북) 4-5 동아대(부산) ▲동 결승전=동아대(부산) 2-0 경남OB	■ 10.22 야쿠르트 29년만에 우승 일본 프로야구 야쿠르트 스왈로스가 재팬시리즈 7차전에서 한큐 브레이브스를 4-0으로 물리치고 4승3패로 29년만에 첫 우승 ■ 10.24 페리, 두 리그서 사이영상 수상 1972년 아메리칸리그 클리블랜드에서 사이영상을 수상한 게일로드 페리가 78년에는 내셔널리그 샌디에이고에서 21승6패(승률 1위)로 사이영상을 수상, 메이저리그 사상 최초로 양대 리그에서 수상하는 영광을 획득
10.18	■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코리언 시리즈 한국실업야구연맹 주최로 10월 19일 전기리그(경리단, 포항제철)와 후기리그(롯데, 성무)에서 우승과 준우승한 4강이 실업야구 패권을 놓고 겨루는 코리언시리즈가 서울운동장에서 개막, 10월 21일 끝난 마지막 경기에서 경리단이 롯데를 1-0으로 누르고 우승 ▲1차전=경리단 3-2 성무, 포철 6-5 롯데 ▲2차전=성무 6-3 롯데, 경리단 9-3 포철 ▲3차전=성무 5-2 포철, 경리단 1-0 롯데 ◇종합 순위=①경리단(3승) ②성무(2승1패) ③포항제	■ 11.05 론 기드리 사이영상 수상 뉴욕 양키스의 론 기드리가 25승3패로 0.893의 높은 승률을 올리면서 방어율 1.74로 아메리칸리그를 평정, 만장일치로 사이영상 수상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철(1승2패) ④롯데(3패)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이선희(경리단 투수) ▲최고수훈선수상=박상열(경리단 투수) ▲최우수신인선수상=이광권(한국전력 투수 12승17패), 이광은(포항제철 3루수 .310)	
10.23	■서울시고교 추계리그 서울시고교야구연맹 주최로 10월 23일부터 서울시고교 16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1월 19일 끝난 결승전에서 신일고가 상문고를 8-1로 물리치고 우승 ▲준결승전=신일고 7-2 동대문상, 상문고 4-3 서울고 ▲결승전=신일고 8-1 상문고 ◇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경표(金京杓 신일고 유격수) ▲우수투수상=송영수(신일고 투수) ▲감투상=김봉근(金奉根 상문고 투수) ▲타격상=①김영택(金永澤 서울고 포수 .423) ②구천서(具千晙 신일고 3루수 .405) ③김영균(金泳均 서울고 투수 .400) ▲최다안타상=구천서(신일고 15개) 타점상=김운영(金雲永 신일고 포수 18점) ▲최다출루상=구천서(신일고 19회) 최다루타상=김운영(신일고 25루타) ▲도루상=박흥식(朴興植 신일고 중견수 11개) ▲감독상=한동화(韓東和 신일고 감독), 김인식(金寅植 상문고 감독)	
12.22	■제21회 이영민 타격상 김남수(金男洙) 수상 대한야구협회가 제21회 이영민 타격상 수상자로 78년도 전국 5개 고교대회에서 평균 타율 467을 기록한 신일고 1루수 김남수를 선정	
1979. 01.15	■대한야구협회 통합 집행부 구성 대한야구협회가 1월 15일 대한체육회 강당에서 76년도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야구계 통합을 위해 자진 해체한 실업, 대학, 중·고교, 리틀연맹을 통합키로 의결한 뒤 통합집행부 회장으로 김종락 회장을 추대	
01.18	■대한야구협회 통합 새 집행부 구성 대한야구협회 산하 연맹체(실업, 대학, 중·고교, 리틀연맹)를 통합, 행정체계를 단일화한 대한야구협회가 새 집행부를 발표 ▲회장=김종락(유) ▲부회장=최인철, 임광정(이상 유임), 이봉모(李奉模 전 대학연맹 회장), 조서희(전 중고연맹 회장 이상 신임) ▲전무이사=이용일(李容一 신임) ▲이사=노창호, 정기승(鄭起勝), 박상규, 이팔관, 장태영, 이영구, 최태환, 김정세(金正世 이상 유임), 김상겸(金相謙), 이창로(李昌櫓), 이규성(李奎星), 이덕준(李德俊), 이흥영(李洪永), 김근준(金根俊), 김종태(金宗太), 안병화(安秉華), 한영국(韓英國), 이상황(李尙滉 이상 신임) ▲감사=김재송, 고철호(이상 신임) ▲운영위원장=이팔관 ▲상벌위원장=	1월 18일 대한야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부회장에 연임된 임광정(林光廷) 부회장이 김종락 회장(왼쪽)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정기승 ▲기술지도위원장=박상규 ▲총무부장=유백만 ▲기획부장=이호헌(李虎憲) ▲운영부장=풍규명(馮圭明) ▲국제부장=김우덕(金佑德) ▲기록부장=신현철 ▲심판부장=서영무</p>	
02.16	<p>■원광대 야구부 창설 전북 이리(현 익산)에 있는 원광대가 호남지방 대학 최초로 야구부를 창설 ▲단장=김삼룡(金三龍 교무처장) ▲부장=성종림(成鍾林 학생처장) ▲감독=강용수(姜龍洙) ▲선수=박양수, 황인국(黃仁國), 박헌창(朴憲昌), 김동철(金東徹), 박영식(朴榮植), 박기수(朴起秀 이상 군산상고), 김지현(金智顯), 김기웅(金基雄) 한현수(韓賢洙 이상 공주고), 백운섭(白雲燮 성남고) 이건복(李建福 북일고), 오동주(吳東周 충암고), 전인수(全仁洙 진흥고), 김동칠(金東七 대전고), 신덕균(申德均 서울고)</p>	<p>■02.06 메이저리그 1백만 달러 선수 탄생 내셔널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흑인 좌익수 데이브 파커(27)가 오는 83년까지 5년간 매년 연봉 1백만 달러(한화 약 5억 원)를 받고 83년 이후 55세가 되는 28년간은 연금 20만 달러를 받기로 하는 등 총액 672만 달러(한화 약 33억6천만원)의 계약을 체결.</p>
03.18	<p>■서울시고교춘계리그 제13회 전국고교대회 서울시예선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3월 18일부터 서울시 18개 고교 팀(경동, 서울, 장충, 대광, 배문, 충암, 명지, 경기, 보성, 배재, 휘문, 중앙, 우신, 성남, 동대문상, 선린상, 신일, 상문고)이 출전한 가운데 상업은행구장에서 A, B, C조로 나누어 예선대회를 개최, 경기장 사정으로 연기를 거듭한 끝에 4월 15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신일고가 보성고를 6-3으로 물리치고 우승 ▲준결승=신일고 1-0 대광고, 보성고 4-0 동대문상 ▲결승전=신일고 6-3 보성고 ◇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경표(신일고 유격수) ▲최우수투수상=송영수(신일고 투수) ▲감투상=김기탁(金基鐸 보성고 투수) ▲수훈상=김운영(金雲永 신일고 우익수) ▲타격상=①김주일(金胄一 보성고 유격수 .481) ②곽경탁(郭敬卓 서울고 1루수 .454) ③장훈(張勳 서울고 좌익수 .450) ▲미기상=김주일(보성고 유격수) ▲도루상=박흥식(朴興植 신일고 투수) ▲감독상=한동화(신일고 감독) ▲지도상=이금산(李錦山 신일고 야구부장) △신일고=감독 한동화 및 박흥식(투수겸 중견수), 구천서(具千晔 2루수), 김운영(우익수겸 포수), 이승한(李承漢 3루수), 박동규(좌익수), 최성원(崔城源 대타), 안대현(安大鉉 좌익수), 서효인(徐孝仁 포수겸 우익수), 김영수(金榮洙 우익수), 이덕규(李德奎 대타), 김형석(金亨錫 1루수), 이재홍(대타겸 투수), 민경삼(閔庚三), 김경표(이상 유격수), 구재서(具載晔 중견수), 최동명(崔東明), 송영수(이상 투수), 전병국(全炳國 대타) △보성고=감독 송병섭(宋炳燮) 및 박영신(중견수), 채병권(1루수), 김주일(유격수겸 투수), 전용규(3루수), 이상면(좌익수), 조진원(포수), 김영수(우익수), 신병윤</p>	<p>■03.07 스프링 캠프 기간 심판 파업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 기간 중 심판들이 파업을 일으켜 아마추어와 세미프로 심판들을 임시로 고용</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투수), 한길세(2루수), 김기탁(투수겸 우익수), 김훈(2루수), 양인모(2루수겸 유격수)	
03.18	<p>■ 제13회 대통령기쟁탈 전국대학초청대회 대한야구협회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3월 18일부터 전년도 우승 팀 연세대를 비롯 전국에서 13개 팀(인하, 동아, 영남, 한양, 동국, 원광, 연세, 인천체전, 중앙, 고려, 건국, 경희, 성균관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3월 23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한양대가 고려대를 2-1로 누르고 우승</p> <p>▲준결승전=고려대 5-4 건국대, 한양대 4-1 동국대 ▲결승전=한양대 2-1 고려대</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시진(한양대 투수) ▲수훈상=오대석(한양대 유격수) ▲감투상=양상문(고려대 투수) ▲타격상=①윤광우(한양대 .429) ②이만수(한양대 포수 .385) ③김형중(동국대 .375) ▲홈런킹상=이만수(1) ▲감독상=김동엽(한양대 감독)</p> <p>△한양대=감독 김동엽 및 서재진(중견수), 이근식(좌익수), 김휘욱(대타겸 좌익수), 허규욱(우익수), 이만수(포수), 박정환(1루수), 정종현(지명타자), 서석진(대타) 이재익(2루수겸 대주), 오대석(유격수), 이승희(2루수겸 3루수), 윤광우(3루수), 손문오(孫文五 대타), 장성욱(2루수), 황태환, 김용남, 김시진(이상 투수)</p>	 <p>한양대가 서석진(모자가 벗겨진 선수)의 홈인으로 2-1로 역전 우승을 차지하는 순간. 서재진(徐在鎭 1번)이 홈 플레이트를 밟은 서석진(徐錫珍)을 포옹하며 우승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p>
03.18	<p>■ 대학야구 지명타자제 첫 도입 3월 18일 오전 10시 서울운동장에서 막이 오른 제13회 대통령기쟁탈 전국대학초청대회 중앙대-인천체전 경기부터 지명타자(Designated Hitter:D.H) 도입</p>	
03.25	<p>■ 이석승(李錫承),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대광고 투수 이석승이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시교준계리그 및 제13회 대통령배쟁탈 전국교교대회 서울시예선에서 배문고 27타자를 상대로 9이닝 동안 삼진 12개를 잡고 볼넷 1개 만을 허용한 끝에 6-0으로 No Hit No Run 기록</p>	
03.27	<p>■ 아오야마(靑山)학원초청 한·일대학친선대회 인하대학 초청으로 3월 25일 내한,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인천, 서울에서 국내 대학 팀들과 5차전 치른 끝에 3승2무를 기록</p> <p>▲1차전(3월 27일 인천)=아오야마 2-2 인하대 ▲2차전(3월 28일 인천)=아오야마 0-0 건국대 ▲3차전(3월 28일 인천)=아오야마 4-1 인하대 ▲4차전(3월 31일 서울)=아오야마 3-1 연세대 ▲5차전(4월 1일 서울)=아오야마 1-0 한양대</p>	
03.28	<p>■ 제6회 부산시장기쟁탈 전국실업대회 대한야구협회 부산일보사 공동 주최로 3월 28일부터 11개 실업 팀(한국화장품, 농협, 제일은행, 흥익회, 성무, 포항제철, 롯데, 경리단, 한국전력, 한일은행, 상업</p>	<p>부산시장기 실업대회에서 우승한 성무 선수들이 신중국 감독을 행가래치고 있다.</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은행)이 출전한 가운데 구덕구장에서 개최, 4월 4일 끝난 결승전에서 성무가 경리단을 4-2로 꺾고 우승</p> <p>▲준결승전=한국화장품 0-8 성무, 경리단 3-2 한일은 ▲결승전=성무 4-2 경리단</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유동(성무 우익수) ▲우수투수상=계형철(성무 투수) ▲감투상=박상열(경리단 투수) ▲수훈상=정순명(성무 투수) ▲타격상=①권두조(성무 2루수 .572) ②정구왕(성무 중견수 .500) ▲타점상=권두조(성무 2루수 8점) ▲미기상=김일권(경리단 좌익수) ▲훈련왕상=우용득(한일은행 포수) ▲감독상=신중국(성무 감독)</p> <p>△성무=감독 신중국(성무 감독) 및 김재박(유격수), 권두조(2루수), 김정수(1루수), 김유동(우익수), 양종수(지명타자), 김성관, 유대성(이상 좌익수), 정구왕(중견수), 차동렬(포수), 김인식(3루수), 계형철, 정순명(이상 투수)</p>	
03.31	<p>■서울시중학 춘계리그</p> <p>대한야구협회 주최로 3월 31일부터 서울시 15개 중학 팀(중앙, 대광, 배재, 배문, 동대문, 배명, 보성, 선린, 중앙, 서대문, 휘문, 성남, 명지, 장충, 신일중)이 참가한 가운데 A, B, C조로 나누어 리그전으로 성남중구장에서 개최, 4월 6일부터 벌어진 결승 토너먼트 최종 결승전(4월 11일)에서 선린중이 신일중을 4-0으로 꺾고 우승</p> <p>▲준결승전=선린중 2-0 중앙중, 신일중 4-3 보성중</p> <p>▲결승전=선린중 4-0 신일중</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조재환(曹在煥 선린중 투수) 우수투수상=조재환(선린중 투수) ▲감투상=황준형(黃俊炯 신일중 투수) ▲수훈상=이병룡(李炳龍 선린중) ▲미기상=김형근(金亨根 신일중 우익수) ▲타격상=①김은수(金殷秀 중앙중 .625) ②정태준(鄭泰俊 선린중 .600) ③정찬구(鄭燦九 보성중 .474) ▲감독상=장운룡(張雲龍 선린중 감독) ▲지도상=김경남(선린중 야구부장)</p>	<p>■04.07 IOC, 중공 재가입 승인</p> <p>제81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연례 총회에서 장시간의 격론 끝에 36-28표로 중공의 재가입을 승인</p>
04.05	<p>■전국실업대회 춘계리그</p> <p>대한야구협회 주최로 4월 5일부터 11개 팀이 라이온스 리그와 타이거스 리그로 나누어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4월 17일 끝난 결승리그에서 롯데와 경리단이 각각 2승1패로 동률, 4월 25일 최종 결승전에서 경리단이 롯데를 7-2로 꺾고 우승</p> <p>◇라이온스 리그 종합 순위=①롯데(4승) ②포항제철(2승2패), 경리단(1승2무1패) ④상업은행(1승1무2패) ⑤한일은행(1무3패)</p> <p>◇타이거스 리그 종합 순위=①한국전력, 한국화장품(이상 4승1패) ③성무(3승2패) ④농협, 제일은행(이상 1승1무3패) ⑥홍익회(1승4패)</p> <p>◇결승리그 종합 순위=①롯데, 경리단(이상 2승1패) ③한국화장품, 한국전력(이상 1승2패)</p>	 <p>결승리그 첫 날 성무-롯데전 5회초 2사후 중전 안타로 출루한 성무 김성관(金成瑄)이 2루 스틸에 성공하는 순간.</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현재(경리단 투수) ▲우수투수상=정선두(鄭善斗 롯데 투수) ▲타격상=김인식(성무 3루수 .500) ▲감독상=심말룡(경리단 감독)</p>	
04.10	<p>■제1회 부산시장기쟁탈 전국대학대회 대한야구협회 부산일보사 공동 주최로 4월 10일부터 전국에서 14개 대학 팀(연세, 중앙, 인하, 원광, 영남, 서울, 한양, 건국, 성균관, 동아, 고려, 경희, 인천체, 동국대)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 구덕구장에서 개최, 4월 16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동아대가 한양대를 5-2로 꺾고 63년(추계대학연맹전) 이후 16년 만에 전국대회 첫 우승 ▲준결승전=한양대 4-3 인하대, 동아대 4-0 동국대 ▲결승전=동아대 5-2 한양대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임호균(동아대 투수) ▲우수투수상=김시진(한양대 투수) ▲수훈상=한문연(韓文延 동아대 포수) ▲감투상=김상기(인하대 투수) ▲타격상=①한대화(韓大化 동국대 유격수 .500) ②김진우(金鎭雨 인하대 포수 .462) ③서재진(한양대 중견수 .462) ▲타점상=성기순(동국대 2루수) ▲본루타상=홍순만(동국대 1루수) ▲미기상=정학수(동아대 3루수) ▲감독상=강병철(동아대 감독) △동아대=감독 강병철 및 정학수(유격수겸 3루수), 한문연(포수), 박용성(朴庸成 좌익수겸 지명타자), 이석규(李碩揆), 김상태(金相泰 이상 1루수), 엄태섭(嚴泰燮 우익수), 김민영(金珉永 지명타자겸 좌익수), 최영화(중견수), 박영태(朴榮泰), 이호(李鎬 이상 3루수), 정상희(2루수), 임호균, 박정후(이상 투수)</p>	 <p>제1회 전국대학대회 결승전 3회말 동아대 3번 엄태섭(嚴泰燮)이 우월 솔로 홈런을 날리고 홈인, 동아대가 한양대를 4-2로 누르고 우승</p>
04.12	<p>■대한야구협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대한야구협회가 4월 12일 하오 6시 대한체육회 강당에서 협회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갖고 초대 회장 서상국(徐相國), 3대 회장 임병직(林炳稷), 문화방송경향신문사 사장 이환의(李桓儀) 등 야구발전에 공이 많은 유공자 86명을 표창</p>	
04.18	<p>■제13회 대통령배쟁탈 전국고교대회 대한야구협회 중앙일보·동양방송 공동 주최로 4월 18일부터 부산고, 전주고, 경북고, 청주고, 서울고, 춘천고, 보성고, 광주일고, 선린상, 동산고, 신일고, 공주고, 인천고, 대광고, 동대문상, 경남고, 배재고, 부산상, 광주상, 마산상 등 전국 20개 고교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토너먼트로 개최, 4월 25일 열린 결승전에서 선린상고가 15-1로 부산상고를 격파하고 우승 ▲준결승전=선린상고 3-2 경북고, 부산상고 4-1 인천고 ▲결승전 선린상고 15-1 부산상고 ◇개인상 ▲최우수선수상=박노준(선린상고 우익수) ▲우수투수상=윤석환(선린상고 투수) ▲감투상=윤학</p>	 <p>부산상고-선린상고의 결승전 7회말, 선린상고 이정철의 적시 안타로 2루 주자 유지 흥이 홈인하는 순간, 점수를 12-0으로 벌려 놓았다.</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길(尹學吉 부산상고 투수) ▲타격상=①이동완(李東玩 부산상고 유격수 .538) ②최계훈(崔桂勳 인천고 투수), 이병억(李秉億 인천고 유격수 .500) ③방기정(方己禎 부산상고 포수 .462), 구희철(具熙喆 경북고 우익수 .462) ▲최다안타상=이동완(7) ▲최다타점상=이정철(李晶哲 선린상고 유격수 6) ▲수훈상=이정철(선린상고 유격수) ▲도루상=김이수(金利秀 부산상고 중견수 3) ▲미기상=손태민(경북고 2루수) ▲감독상=박용진(朴容震 선린상고 감독) ▲공로상=한용국(韓龍國 선린상고 교장), 문상철(文相哲 선린상고동창회장) ▲장려상=마상상고</p> <p>△선린상고=감독 박용진(朴容震) 및 박노준(우익수), 유지홍(柳志弘 1루수겸 우익수), 이정철(유격수), 윤석환(투수겸 1루수), 조영일(趙永一 좌익수), 정선채(鄭善採 중견수), 김건우(金健友 2루수), 김태연(金泰淵 포수), 김종호(金鍾浩 3루수)</p> <p>△부산상고=감독 성기영 및 김완수(金完洙 좌익수), 김관용(金寬湧 유격수), 김이수(중견수), 방기정(포수), 윤학길(1루수겸 투수), 임영삼(林榮森 투수겸 1루수), 김봉철(金鋒哲 투수겸 3루수), 한진수(韓鎭洙 우익수), 김만주(金萬柱 2루수), 함중수(咸重洙 대타), 이동완(3루수겸 투수), 임상근(林相根 1루수), 진용근(陳瑢根 대타)</p>	 <p>제13회 대통령배쟁탈 전국고교대회 결승전에서 부산상고를 15-1로 격파하고 우승을 차지한 선린상고 선수들이 박용진 감독을 행가래 치고 있다.</p>
04.26	<p>■ 전국대학 춘계리그</p> <p>대한야구협회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13개 팀이 A조(중앙대, 인천체전, 한양대, 원광대, 동국대, 경희대, 동아대)와 B조(영남대, 성균관대, 연세대, 인하대, 건국대, 고려대)로 나누어 서울운동장에서 예선리그를 개최, 5월 9일부터 13일까지 A·B조 1~3위 팀이 벌인 결승리그에서 고려대와 인하대가 4승1패로 동률, 연기를 거듭한 끝에 5월 24일 열린 최종 결승전에서 고려대가 인하대를 3-1로 제치고 우승</p> <p>◇A조 종합 순위=①고려대(4승2무) ②연세대(4승1무1패) ③중앙대(4승2패) ④영남대(3승1무2패) ⑤동국대(2승1무3패) ⑥원광대(1승 1무4패) ⑦인천체전(6패)</p> <p>◇B조 종합 순위=①인하대(3승1무1패) ②동아대(2승2무1패) ③한양대(1승3무1패) ④성균관대, 건국대(이상 2승3패), 경희대(1승2무2패)</p> <p>◇결승리그 종합 순위=①고려대(5승1패) ②인하대(4승2패) ③동아대(3승2패) ④한양대(2승3패) ⑤중앙대(1승1무3패) ⑥연세대(1무4패)</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손상득(고려대) ▲우수투수상=양상문(고려대) ▲수훈상=임종호(고려대) ▲타격상=①우경하(고려대 .471) ②손상득(.395) ③이석규(李碩揆 동아대 .379) ▲타점상=김윤환(고려대 10점) ▲도루상=우경하(7) ▲홈런킹상=우경하(3) ▲감독상=최남수(고려대)</p> <p>△고려대=감독 최남수 및 우경하(중견수), 손상득(포</p>	 <p>인하대-고려대 결승전 1회말, 고려대 3번 박종훈(朴鍾勳)이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적시타로 2루 주자 손상득(孫祥得)이 홈인, 1-1 동점을 이뤘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수), 박종훈(1루수), 김정수(투수겸 좌익수), 김윤환(우익수), 임종호(2루수), 곽동찬(3루수), 정혁진(좌익수), 김호근(대타), 양승호(대주), 오태섭(좌익수), 김근석(유격수), 양상문, 노상수, 이윤섭(이상 투수)	
04.27	<p>■ 전국실업대회 제1차 지방시리즈</p> <p>대한야구협회 주최로 4월 27일부터 11개 팀이 라이온스 리그(롯데, 경리단, 한일은, 포철, 상은)와 타이거스 리그(농협, 성무, 제일은, 학국화장품, 흥익회, 한전)로 나누어 인천공설운동장과 대구 시민구장에서 개최, 5월 4일부터 6일까지 대구 시민구장에서 벌어진 결승리그에서 성무가 3전 전승으로 우승</p> <p>◇라이온스리그 순위=①한일은행(2승2무) ②포항제철(2승1무1패), ③상업은행(2승1무1패·순위 결정전에서 포철에 3-4로 패) ④롯데(2승2패) ⑤경리단(4패)</p> <p>◇타이거스리그 순위=①농협(4승1패) ②성무(3승1무1패) ③제일은행(2승2무1패) ④한국화장품(1승3무1패) ⑤한국전력(1승2무2패) ⑥흥익회(5패)</p> <p>◇결승리그 종합 순위=①성무(3승) ②농협(2승1패) ③한일은(1승2패) ④상업은(3패)</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인식(성무) ▲우수투수상=하기룡(상업은) ▲타격상=장효조(포철 .538) ▲만루홈런상=김정수(성무) ▲감독상=신중국(상무 감독)</p>	 <p>우승을 차지한 고려대 선수들이 최남수 감독을 행가래치고 있다.</p>
05.01	<p>■ 제9회 대통령기쟁탈 전국중학대회</p> <p>전남야구협회 전남일보사 공동 주최로 5월 1일부터 전국 12개 중학 팀(경상, 전남, 군산, 초량, 선린, 무등, 한밭, 상인천, 동성, 신일, 총장, 마산동중)이 출전한 가운데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개최, 5월 4일 열린 결승전에서 경상중이 한밭중을 4-0으로 꺾고 우승</p> <p>▲준결승전=경상중 6-4 선린중, 한밭중 12-6 총장중 ▲결승전=경상중 4-0 한밭중</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이상훈(李常勳 경상중 투수) ▲우수투수상=안성수(安聖洙 한밭중 투수) ▲감독상=정창화(鄭昌和 경상중 투수) ▲타격상=박재현(朴宰현 한밭중 .538) ▲미기상=김충곤(金忠坤 총장중 좌익수) ▲감독상=도성세(경상중 감독)</p>	
05.01	<p>■ 제9회 회장기쟁탈 전국국민학교대회</p> <p>대한야구협회 소년동아일보 공동 주최로 5월 1일부터 전국 국민학교 18개 팀(군산남, 부산 대연, 서울 화계, 인천 송의, 이리 중앙, 마산 성호, 서산 언암, 대구 남도, 서울 이문, 서울 화곡, 공주 중동, 광주 학강, 서울 한양, 대구 옥산, 군산 중앙, 영동 이수, 춘천, 인천 서림국민학교)이 출전한 가운데 장충리틀구장에서 개최, 5월 5일 끝난 결승전에서 군산 중앙국교가 부산 대연국교를 3-0으로 제치고 우승</p> <p>▲준결승전=대연국 2-1 언암국, 중앙국 7-0 한양국 ▲결승전=중앙국 3-0 대연국</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형근(중앙국) ▲우수투수상=김형근(중앙국)</p>	 <p>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제7회 전국국민학교대회 개회식에 참석한 선수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수상=한상철(중앙국) ▲감투상=김시중(대연국) ▲수훈상=고진영(중앙국) ▲타격상=①박석봉(대연국 .571) ②심동섭(중앙국 .538) ③한상우(한양국 .500) ▲감독상=김기홍(중앙국 야구부장) ▲지도상=김예선(중앙국 교장)	
05.01	■ 이원녕(李源寧), 실업야구 31경기 연속안타 상업은행 이원녕이 인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전국실업대회 지방시리즈 4일째 라이온스리그 포항제철전에 우익수로 출전, 1회말 기세봉(奇世峰)의 제2구를 받아 쳐 좌전안타로 31경기 연속안타 최고기록을 달성(종전 기록은 상무 소속 정구왕(鄭邱旺)의 29개)	제9회 전국중학대회에서 우승한 경상중 주장에게 전남일보사 박진동 부사장이 우승기를 수여하고 있다.
05.09	■ 자유중국 합작금고초청 한·중친선대회 대한야구협회 초청으로 5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운동장에서 성무(星武), 전한국, 전롯데 팀과 3연전을 거행한 끝에 2승1패를 기록 ▲1차전(5월 9일)=중국 4-2 성무 ▲2차전(5월 11일)=중국 1-3 전한국 ▲3차전(5월 12일)=중국 9-4 전롯데	
05.14	■ 제29회 백호기쟁탈 전국대회 대한야구협회 문화방송·경향신문사 공동 주최로 5월 14일부터 14개 대학과 11개 군(2) 실업(9) 등 25개 팀(경리단, 롯데, 포항제철, 상업은행, 흥익회, 한국화장품, 농협, 성무, 제일은행, 한일은행, 한국전력, 연세대, 인하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한양대, 건국대, 인천체전, 동아대, 원광대, 영남대, 성균관대, 중앙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5월 22일 열린 결승전에서 성무가 경리단을 4-1로 꺾고 우승 ▲준결승전=경리단 9-0 한양대, 성무 8-2 동아대 ▲결승전=성무 4-1 경리단 ◇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재박(성무 유격수) ▲우수투수상=정순명(성무 투수) ▲수훈상=김유동(성무 우익수) ▲감독상=심재원(경리단 포수) ▲타격상=①차영화(경리단 .476) ②김재박(성무 474) ③허규옥(한양대 .417) ▲미기상=강기섭(한전 좌익수) ▲도루상=김일권(경리단 좌익수 9개) ▲만루 홈런상=김윤환(고려대) ▲감독상=신중국(성무 감독)	
05.25	■ 제1회 서라벌기쟁탈 전국실업대회 대한야구협회 대구매일신문사 공동 주최로 5월 25일부터 11개 팀(농협, 성무, 한국화장품, 롯데, 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한국전력, 포항제철, 흥익회, 경리단)이 출전한 가운데 대구시민운동장에서 개최, 5월 29일 열린 결승전에서 포항제철이 롯데를 5-3으로 물리치고 우승 ▲준결승전=한국화장품 3-5 롯데, 제일은 6-9 포항제철 ▲결승전=포항제철 5-3 롯데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종우(포철) ▲우수투수상=천창호(포철) ▲감투상=정선두(롯데) ▲타격상=①김한근(롯데 .625) ②김종우(포철 .500) ③김대진(포철 .454) ▲미기상=최정기(崔正基 롯데) ▲도루상=배대웅(포철) ▲만루홈런상=유두열(경리단), 김우열(제일은) ▲감독상=허정규(포철 감독) ▲공로상=박태준(朴泰俊 포철 회장), 안병화(安秉華 포철 단장)</p>	
05.30	<p>■제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야구경기 대한체육회 주최로 5월 30일부터 전국 시도에서 6천 300명(임원 1,830명)의 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충북 공설운동장에서 개최, 6월 2일 끝난 중학야구 결승전에서 부산이 충북을 1-0으로 누르고 우승 ▲준결승전=충북 1-0 전남, 부산 9-1 경남 ▲결승전=부산선발 1-0 충북선발</p>	
06.01	<p>■회장기쟁탈 전국실업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6월 1일부터 11개 팀이 타이거스 리그(성무, 한국화장품, 한국전력, 제일은행, 농협, 흥익회)와 라이온스 리그(경리단, 롯데, 포항제철, 한일은행, 상업은행)로 나누어 개최, 6월 13일 열린 결승리그에서 성무가 3전 전승으로 우승 ◇타이거스 리그 순위=①성무, 제일은행(이상 3승1무1패) ③농협(3승2패) ④한국화장품(2승1무2패) ⑤한국전력(1승1무3패) ⑥흥익회(1승4패) ◇라이온스 리그 순위=①포항제철(4승) ②경리단(3승1패) ③롯데, 한일은행, 상업은행(이상 1승3패) ◇결승리그 순위=①성무(3승) ②포철(2승1패) ③경리단(1승2패) ④제일은(3패)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정순명(성무 투수) ▲우수투수상=천창호(포철 투수) ▲타격상=유태중(劉台中 포철 1루수 .583) ▲감독상=신중국(포철 감독)</p>	 <p>롯데-포항제철 경기 8회초 1사후 중전 안타로 출루한 롯데 2번 김형운이 포철 포수 신언호의 견제 악송구를 틈타 2루 도루에 성공.</p> <p>■06.13 서말구 2백m서 한국신기록 제8회 전국종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일반부 2백m에서 국가대표 서말구(徐未九)가 21초1로 한국신기록을 0.2초 단축하며 우승</p>
06.08	<p>■제2회 한·미대학선수권대회 미국야구협회(USBF) 주최로 6월 8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미시칸주 그랜드 래피츠의 벨리구장과 김블구장에서 개최, 6월 14일 더블 헤더로 열린 마지막 경기에서 한국이 7-4, 6-3으로 이겨 종합 전적 5승1패로 대회 2연패 ▲1차전(6월 8일 벨리)=한국 4-0 미국 ▲2차전(6월 8일 벨리)=한국 2-6 미국 ▲3차전(6월 11일 벨리)=한국 8-1 미국 ▲4차전(6월 11일 벨리)=한국 7-1 미국 ▲5차전(6월 14일 김블)=한국 7-4 미국 ▲6차전(6월 14일 김블)=한국 6-3 미국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이만수(한양대 투수) ▲최우수투수상=김시진(한양대 투수) ▲타격상=박해중(연세대 포수 .478) ◇한국선수단 ▲단장=김상겸(고려대 교수) ▲총무=김진영(중앙대 감독) ▲섭외=김동엽(한양대 감독) ▲</p>	 <p>한국대학선발 1루수 김진우(金鎭雨)가 미국대학선발 주자인 테러 호프에게 태그 모션을 취하고 있다. 한국이 5-6으로 패배.</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감독=강태정(건국대 감독) ▲코치=최남수(고려대 감독), 강병철(동아대 감독) ▲투수=임호균(동아대), 김시진, 김용남(이상 한양대) 선우대영(중앙대), 박철순(연세대), 양상문(고려대) ▲포수=이만수(한양대), 김진우(인하대), 박해중(연세대) ▲내야수=박종훈(고려대), 정학수(동아대), 오대석(한양대), 정영기(영남대), 양세종(연세대), 곽동찬(고려대) ▲외야수=우경하(고려대), 박용성(동아대), 김종윤, 김석일(이상 중앙대), 김윤환(고려대 이상 외야수)</p>	<p>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p>
<p>06.15</p>	<p>■ 제34회 청룡기쟁탈 전국고교선수권대회 대한야구협회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6월 15일부터 전년도 우승 팀 부산고를 비롯해 20개 고교 팀(광주상, 심석중, 동대문상, 마산상, 선린상, 중앙, 강릉, 북일, 성남, 부산상, 경남, 인천, 세광, 배재, 상문, 대구상, 신일, 군산상, 광주일고)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26일 열린 결승전에서 부산고가 선린상고를 5-2로 물리치고 대회 2연패 ▲준결승전=선린상고 2-0 부산상고, 부산고 3-1 경남고 ▲결승전=부산고 5-2 선린상고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조성옥(부산고 좌익수) ▲최우수투수상=안창완(부산고 투수) ▲감투상=윤석환(선린상 투수) ▲수훈상=이재성(李在成 부산고 유격수) ▲타격상=①김이수(부산상 중견수 .545) ②김민호(金旻浩 부산고 1루수) 이재성(부산고 유격수 이상 .500) ▲미기상=김명성(金明星 인천고 좌익수) ▲도루상=조성옥(부산고 6개) ▲감독상=주성노(부산고 감독) ▲공로상=홍금술(洪金術 부산고 교장) ▲김근준(부산협회 회장) △부산고=감독 주성노 및 한영준(2루수), 이종운(중견수), 조성옥(좌익수), 안창완(투수), 이재성(유격수), 김성현(金成炫 포수), 유진석(劉進奭), 이용태(李龍泰), 한광석(韓光錫 이상 우익수), 이일용(李日鏞 3루수), 김민호(金旻浩 1루수)</p>	 <p>20개 고교 팀이 출전한 제34회 청룡기 고교선수권대회 입장식.</p>  <p>청룡기 고교선수권대회 개막 경기에서 김종필 국무총리가 시구를 하고 있다.</p>  <p>부산고-선린상고의 결승전. 1회초 2사 주자 2, 3루에서 이재성의 좌중월 2루타로 3루 주자 조성옥의 홈인에 이어 2루 주자 안창완도 홈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다.</p>
<p>06.16</p>	<p>■ 제26회 청룡기쟁탈 전국중학선수권대회 대한야구협회 조선일보사 공동 주최로 6월 16일부터 전국 중학 14개 팀(춘천, 마산동, 전남, 한밭, 상인천, 동대문, 초량, 휘문, 경상, 무등, 중앙, 군산, 충남, 영동중)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6월 22일 열린 결승전에서 경상중이 한밭중을 2-1로 누르고 우승 ▲준결승전=한밭중 12-1춘천중, 경상중 3-0 군산중 ▲결승전=경상중 2-1 한밭중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정창화(鄭昌和 경상중) ▲최우수투수상=이상훈(경상중) ▲감투상=안성수(한밭중) ▲타격상=박재현(한밭중 .615) ▲수훈상=박종철(朴鍾哲 경상중) ▲감독상=도성세(경상중 감독) ▲공로상=김섭동(金燮東 경상중 교장)</p>	<p>부산고-선린상고의 결승전. 1회초 2사 주자 2, 3루에서 이재성의 좌중월 2루타로 3루 주자 조성옥의 홈인에 이어 2루 주자 안창완도 홈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6.21	<p>■ 전국실업대회 하계리그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6월 21일부터 11개 팀이 라이온스 리그(경리단, 롯데, 포항제철, 한일은행, 상업은행)과 타이거스 리그(성무, 한국화장품, 한국전력, 제일은행, 농협, 흥익회)로 나누어 개최, 7월 4일 열린 결승리그에서 상업은행이 3승으로 우승 ◇라이온스 리그 순위=①포항제철(3승1무) ②상업은행(3승1패) ③롯데(2승2패) ④경리단(1승1무2패) ⑤한일은행(4패) ◇타이거스 리그 순위=①농협(4승1패) ②성무(3승2패) ③흥익회(2승1무2패) ④한국화장품, 제일은행(이상 2승3패) ⑥한국전력(1승1무3패) ◇결승리그 순위=①상업은행(3승) ②농협(2승1패) ③포항제철(1승2패) ④성무(3패) ◇개인상 ▲최우수선수상=구영석(상업은행) ▲우수투수상(이선희 농협) ▲타격상(이원녕 상업은행 .583) ▲감독상=김충(상업은행 감독)</p>	 <p>실업야구 하계리그 최종일 상업은행-성무 경기 4회초 상은 이원녕이 볼넷으로 출루한 뒤 2루를 훔치고 있다.</p>
06.30	<p>■ 카터 미대통령 방한 한-미친선대회 극동방송 아세아방송 초청으로 6월 29일 미국 선교 스포츠사절단인 빅토리(VICTORY) 팀(일행 23명)이 내한,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서울과 전주에서 고교, 대학및 실업선발 팀과 10차전을 개최한 끝에 빅토리 팀이 4승1무5패를 기록 ▲1차전(6월 30일 서울)=빅토리 1-3 대학선발 ▲2차전(7월 1일 서울)=빅토리 3-2 대학선발 ▲3차전(7월 2일 전주)=빅토리 4-5 전주고 ▲4차전(7월 3일 전주)=빅토리 3-1 원광대 ▲5차전(7월 3일 전주)=빅토리 13-1 전주상고 ▲6차전(7월 4일 군산)=빅토리 9-2 군산상고 ▲7차전(7월 6일 서울)=빅토리 4-5 대학선발 ▲8차전(7월 7일 서울)=빅토리 0-0 대학선발 ▲9차전(7월 8일)=빅토리 1-4 실업선발 ▲10차전(7월 9일)=빅토리 2-12 실업선발</p>	<p>■ 06.29 지미 카터 미대통령 방한 지미 카터 미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초청으로 33명의 공식 수행원과 함께 특별 전용기편으로 방한, 7월 1일 하오 두 차례에 걸쳐 박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은 뒤 하오 4시 김포공항을 통해 이한</p>
07.11	<p>■ 제22회 문교부장관기쟁탈 전국중학대회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7월 11일부터 전국 18개 중학 팀(한밭, 경상, 동인천, 군산남, 중앙, 세광, 광주 동성, 부산 대신, 휘문, 원주, 충장, 심석, 충암, 대구, 마산동, 초량, 공주, 선린중)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7월 16일 열린 결승전에서 선린중이 부산 대신중을 7-2로 격파하고 10년 만에 패권 탈환 ▲준결승전=대신중 2-1 경상중, 선린중 4-3 원주중 ▲결승전=선린중 7-2 대신중 ◇개인상 ▲최우수선수상=방덕용(方德容 선린중 포수) ▲최우수투수상=조재환(曹在煥 선린중 투수) ▲감투상=배시혁(裵時赫 대신중 투수) ▲수훈상=신현주(申鉉周 선린중 3루수) ▲미기상=송하궁(宋河宮 대신중 중견수) ▲타격상=①신현남(申鉉南 원주중 .545) ②이봉천(李鳳天 선린중 .500) ③박종철(경상중 .500) ▲No Hit No Run상=배시혁(대신중 투수, 이상</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훈(경상중 투수) ▲감독상=장운룡(張雲龍 선린중 감독) ▲지도상=김경남(선린중 야구부장) ▲공로상=권전택(權電澤 선린중 교장)</p>	
07.13	<p>■ 제2회 크라운(CROWN)배쟁탈 국제초청대회 한국실업선발 팀이 7월 9일 오후 6시30분 서울운동장에서 결단식을 갖고 7월 12일 오후 2시 40분 알래스카로 출국, 7월 13일부터 20일까지(한국시간) 앵커리지와 페어뱅크스에서 미국 및 캐나다, 중국 실업 팀과 6차례 경기를 가진 끝에 2승4패 ▲1차전(7월 13일)=골드 페너 3-4 한국 ▲2차전(7월 14일)=오일러스 10-5 한국 ▲3차전(7월 15일)=래피드 시티 10-6 한국 ▲4차전(7월 16일)=파일롯드 6-5 한국 ▲패자전(7월 17일)=빅토리 4-5 한국 ▲최종전(7월 20일)=자유중국 2-1 한국 ◇한국실업선발 ▲단장=임광정(협회 부회장) ▲총무=허정규(許正奎 포철 감독) ▲섭외=박현식(朴賢植 협회 심판위원장) ▲연구원=남갑균(南甲均 흥익회 감독) ▲감독=박영길(朴永吉 롯데 감독) 코치=김충(金忠 상은 감독), 김병우(金秉宇 제일은 감독) ▲투수=이선희(李善熙 농협), 계형철, 정순명(鄭淳明 이상 성무), 하기룡(상은), 권영호(權永浩 한국화장품) ▲포수=심재원(경리단), 차동렬(車東烈 성무) ▲내야수=김정수(성무), 김용희(金用熙 포철), 차영화(車榮華 경리단), 김인식(성무), 이광은(李光殷 포철), 김재박(金在博 성무), 배대웅(裴大雄 포철) ▲외야수=김일권(경리단), 이해창(李海昌 포철), 유두열(柳斗烈 경리단), 장효조, 윤동균(尹東均 이상 포철), 김봉연(金奉淵 한국화장품)</p>	
07.14	<p>■ 이상훈(李常勳),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경상중 투수 이상훈이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제22회 문교부장관기 전국중학대회 준준결승전에서 군산남중 21타자를 상대로 7이닝 동안 무안타 무실점 끝에 2-0으로 이겨 No Hit No Run 기록</p>	
07.15	<p>■ 배시혁(裴時赫),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대신중 투수 배시혁이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제22회 문교부장관기 전국중학대회 준준결승전에서 광주 동성중 21타자를 상대로 7이닝 동안 무안타 무실점 끝에 4-0으로 No Hit No Run 기록</p>	
07.15	<p>■ 박흥식(朴興植), 노히트노런(No Hit No Run) 신일고 투수 박흥식이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제60회 전국체육대회 서울시예선 고등부 결승전에서 선린상고 27타자를 상대로 삼진 4개를 잡고 내야 땅볼 10개, 외야 플라이 8개, 내야 플라이 5개와 내야 실책 1개(1회초 유격수 실책으로 이정철을 내보내 퍼펙트 게임 무산)를 허용한 끝에 3-0으로 No Hit No Run 기록</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7.17	<p>■ 전국대학 추계리그 대한야구협회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13개 팀이 A조(고려대, 동국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인천체전, 중앙대)와 B조(건국대, 경희대, 동아대, 성균관대, 인하대, 한양대)로 나뉘어 인천과 서울운동장에서 예선리그를 개최,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A, B조 1~3위 팀이 벌인 결승리그 최종일 경기에서 한양대가 고려대를 2-1로 꺾고 4승1패로 우승</p> <p>◇A조 순위=①한양대(5승1패) ②동아대(4승1무1패) ③동국대(4승2패) ④중앙대(3승1무2패) ⑤원광대(1승2무3패) ⑥경희대(1승5패), 인천체(2무4패)</p> <p>◇B조 순위=①고려대(5승) ②성균관대(4승1패) ③건국대(2승1무2패) ④연세대(1승1무3패) ⑤인하대(1승4패), 영남대(2무3패)</p> <p>◇결승리그 종합 순위=①한양대(4승1패) ②고려대, 동국대, 건국대(이상 3승2패) ⑤동아대(1승1무3패) ⑥성균관대(1무4패)</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시진(한양대) ▲우수투수상=양일환(건국대) ▲감투상=박영진(성균관대) ▲수훈상=이만수(한양대) ▲타격상=①정인교(鄭仁敎 성균관대 .424) ②우경하(고려대 .406) ③박승호(朴承昊 건국대 .375) ▲타점상=박전섭(朴田燮 동국대 10점) ▲도루상=송진호(건국대 5개) 홈런킹상=이만수(한양대 3개) ▲감독상=김동엽(한양대 감독)</p> <p>△한양대=감독 김동엽 및 허규옥(우익수), 오대석(유격수), 이근식(중견수), 이만수(포수), 박정환(1루수), 김희욱, 한재욱(韓載旭 아상 좌익수), 서석진(대타), 정종현(지명타자), 이재익, 장성욱(이상 2루수), 윤광우(대타), 이승희(대타겸 대주), 손문오(3루수), 이경수(李京洙 대주), 김용남, 김시진, 이상윤(이상 투수)</p>	 <p>결승리그 2일째 건국대-동국대전 1회말 1사후 건국대 3번 송진우(宋鎭浩)가 5번 황병일(黃炳一)의 스쿠즈 번트로 홈인, 건국대가 5-1로 승리.</p> <p>■ 07.17 미 프로야구 50회 올스타전 미국 프로야구 내셔널리그가 17일 밤 시애틀에서 열린 제50회 올스타전에서 접전 끝에 9회초 밀어내기로 한 점을 뽑아 아메리칸리그를 7-6으로 제치고 8연승을 기록</p>
07.23	<p>■ 한국실업선발 캐나다원정 한가(加)친선대회 캐나다야구협회 초청으로 7월 26일부터 8월 12일까지 제2회 크라운배쟁탈 국제초청대회에 출전했던 한국실업 팀이 캐나다에 원정, 현지 팀들과 15차전을 거행한 끝에 11승1무3패를 기록</p> <p>▲1차전(7월 26일 앨버타)=한국 2-3 블루 제이스 ▲2차전=(7월 26일 앨버타)=한국 24-4 피스 리버 ▲3차전(7월 27일 애드먼턴)=한국 5-0 애드먼터 타이거스 ▲4차전(7월 29일 앨버타)=한국 20-5 레드 라이온스 ▲5차전(7월 30일)=한국 6-2 블루 제이스 ▲6차전(7월 30일)=한국 8-6 브루 제이스 ▲7차전(8월 2일 브래튼)=한국 9-3 크로버</p> <p>*한국실업 팀 명단은 제2회 크라운배쟁탈 국제초청대회(7월 13일) 참조</p>	
07.24	<p>■ 제10회 세계리틀선수권대회 극동지역예선 세계리틀야구연맹 주최로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대만에서 열린 극동지역 예선대회에서 자유중국과 일본</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에 패해 4승2패로 3위 ▲1차전(7월 24일)=한국 13-1 괌 ▲2차전(7월 26일)=한국 0-14 대만 ▲3차전(7월 28일)=한국 9-0 인도네시아 ▲4차전(7월 28일)=한국 0-2 일본 ▲5차전(7월 29일)=한국 6-0 홍콩 ▲6차전(7월 30일)=한국 20-1 필리핀</p> <p>◇한국대표 ▲단장=김지명(金志明 전 리틀연맹 부회장) ▲총무=이영구(李榮求 협회 이사) ▲섭외=신현철(협회 기록부장) ▲코치=김광택(장충중 감독) ▲심판=김옥경(협회 심판원) ▲선수=박희만(朴熙萬 선린중), 윤형식(尹亨植), 정기원(鄭起源), 박근성(朴根成), 최규순(崔圭淳), 김화기(金華基 이상 휘문중), 이정헌(李政憲), 김풍기(金豊氣 이상 배재중), 윤혁(尹赫), 한상우(韓相宇 이상 한양국), 이용철(李龍澈 배문중), 김태회(金泰會 신일중), 조병일(趙柄一 도신국), 김재석(金在石 성남중)</p>	 <p>제9회 세계리틀야구극동지역예선에서 준우승한 한국은 제10회 대회에서 자유중국과 일본에 패해 3위에 머물렀다.</p>  <p>제9회 대회에서 준우승할 당시의 한국리틀야구대표 선수들.</p>  <p>제31회 전국고교대회에서 우승한 부산고 선수들과 동문들이 구덕야구장에서 우승 기념 사진을 촬영(주성노 감독 제공)</p>
07.25	<p>■제31회 화랑기쟁탈 전국고교대회</p> <p>대한야구협회 국제신문사 공동 주최로 7월 25일부터 전국 시 도 선발 17개 고교 팀(청주, 부산상, 경동, 동산, 경북, 명지, 부산, 동대문, 강릉, 경남, 상문, 경기, 군산상, 인천체, 북일, 광주상, 신일고)이 출전한 가운데 부산 구덕구장에서 개최, 8월 1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부산고가 군산상고를 2-0으로 제치고 7년 만에 우승</p> <p>▲준결승전=부산상고 1-4 부산고, 군산상고 2-1 광주상고 ▲결승전=부산고 2-0 군산상고</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안창완(부산고 투수) ▲우수투수상=노상화(盧相和 부산고 투수) ▲감투상=조도연(趙鎬衍 군산상고 투수) ▲수훈상=김성현(金成炫 부산고 포수) ▲타격상=①김완수(金完洙 부산상고 좌익수 .700) ②김이수(金利秀 부산상고 .500) ③강정남(강주상고 중견수 .462) ▲미기상=이재성(부산고 유격수) ▲감독상=주성노(부산고 감독) ▲지도상=홍금술(부산고 교장) ▲공로상=김근준(부산협회 회장)</p> <p>△군산상고=감독 최관수 및 차정득(車正得 유격수) 한길채(韓吉采 1루수) 연영철(延永喆), 김수홍(金秀洪 이상 2루수), 원웅재(元雄載 2루수겸 투수), 조도연(투수겸 우익수), 김성수(金聖秀 좌익수), 임혁(任赫 포수) 김중찬(金重燦 중견수), 최기남(崔起南 우익수), 강대호(姜大浩 투수), 김평호(金平鎬 우익수), 임동구(林東求 3루수), 국중련(鞠重鍊 대타)</p>	 <p>제31회 전국고교대회에서 우승한 부산고 선수들과 동문들이 구덕야구장에서 우승 기념 사진을 촬영(주성노 감독 제공)</p>  <p>第1回 大鵬旗爭奪 전국고교야구대회</p>  <p>대구 매일신문사가 제작한 제1회 대붕기쟁탈 전국고교대회 팸플릿</p>
07.25	<p>■제1회 대붕기쟁탈 전국고교대회</p> <p>대한야구협회 매일신문사 공동 주최로 7월 25일부터 전국에서 18개 고교 팀(마산상, 대구, 대구상, 목포상, 전주상, 인천, 보성, 대광, 충암, 대전, 심석중, 배재, 세광, 경남상, 춘천, 광주일, 장충, 중앙고)이 출전한 가운데 대구시민운동장에서 개최, 8월 1일 끝난 결승전에서 배재고가 인천고를 3-2로 제치고 우승</p>	 <p>第1回 大鵬旗爭奪 전국고교야구대회</p>  <p>대구 매일신문사가 제작한 제1회 대붕기쟁탈 전국고교대회 팸플릿</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준결승=인천고 2-0 충암고, 배재고 4-3 광주일고 ▲결승전=배재고 3-2 인천고 ◇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현찬(배재고 1루수) ▲ 우수투수상=김진원(배재고 투수) ▲감투상=최계훈(인 천고 투수) ▲수훈상=채태석(蔡泰錫 인천고 포수) ▲ 타격상=①이태봉(李泰奉 배재고 우익수 .500) ②소정 환(蘇貞煥 경남상고 중견수 .500) ③김철주(金喆柱 충 암고 투수 .444) ▲미기상=이창호(李昌浩 배재고 중 견수) ▲도루상=양후승(梁厚承 인천고 2루수) ▲감독 상=손흥기(孫洪基 배재고 감독) ▲지도상=김석만(金 錫萬 배재고 야구부장) ▲공로상=김학찬(金學燦 배재 고 교장), 김기환(金基煥 배재고 야구단장) △배재고=감독 손흥기 및 이태봉(중견수겸 우익수) 한상엽(韓相燁 우익수), 이창호(중견수), 안종만(安鍾 萬 유격수), 이종수(李鍾洙 좌익수), 이성윤(李成允 포 수), 이희종(李熙宗 3루수), 김현찬(1루수), 한희광(韓 熙廣), 이호준(李昊峻 이상 2루수), 김진원(투수)</p>	
07.27	<p>■스피드 건, 서울운동장에 첫 등장 과학기재상인 아시아과학(주)이 수입, 동아방송에 위 탁한 스피드 건이 전국대학추계연맹전 연세대-고려대 전에 첫 등장, 레이저 광선을 이용해 만들어진 이 스피 드 측정기에 나타난 국내 대학 주요 투수들의 볼 스피 드를 보면 ▲박철순(연세대)=강속구 135km, 변화 구 110km ▲노상수(고려대)=105km ▲최동원(연세 대)=140km ▲양상문(고려대)=125km</p>	
08.05	<p>■제9회 봉황기쟁탈 전국고교대회 대한야구협회 한국일보사 공동 주최로 8월 5일부터 재일교포 팀을 비롯해 전국에서 46개 고교 팀(춘천, 대구상, 서울, 강릉, 배명, 대구, 목포상, 우신, 배문, 휘 문, 광주일, 장충, 세광, 진흥, 경기, 인천, 배재, 경남, 대광, 전주, 선린상, 인천체, 영동, 북일, 신일, 경동, 군 산상, 대전, 중앙, 청주, 마산상, 충암, 심석중, 공주, 상 문, 동대문, 광주상, 경남상, 부산상, 성남, 명지, 동산, 보성, 경북, 전주상고)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 서 개최, 8월 21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광주상고가 인 천고를 5-0으로 격파하고 우승 ▲준결승=인천고 7-0 대구고, 광주상고 5-3 북일고 ▲3, 4위전=북일고 6-3 대구고 ▲결승전=광주상고 5-0 인천고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윤여국(광주상고 투수) ▲ 최우수투수상=최계훈(인천고) ▲감투상=김진욱(북일 고 투수) ▲수훈상=윤여국(광주상고) ▲타격상=①임 창호(林昌鎬 대구고 3루수 .600) ②전승희(全勝禧 대 구고 포수 .556) ③노영석(광주상고 1루수 .471) ▲도 루상=양후승(인천고 2루수 4개) ▲미기상=유우현(柳 又鉉 북일고 중견수) ▲감독상=강의선(姜義善 광주 상), 박정석(인천고) ▲지도상=전용현(全容現 광주상 야구부장), 이태운(李泰運 인천고 야구부장) ▲장려상</p>	 <p>결승전 7회초 광주상고 윤여국(尹汝國)의 우전 안타로 2루 주자 윤의요(尹義堯)가 홈을 밟자 먼저 홈인한 노영석(盧暎碩 15 번)이 좋아서 펄쩍 뛰고 있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영동고, 우신고 △광주상고=감독 강의선 및 강정남(중견수), 이군노(2루수), 이순철(유격수), 최인수(포수), 노영석(1루수), 윤의요(좌익수), 김치성(金致成 우익수), 윤여국(투수), 박병권(3루수), 박상진(3루수겸 유격수) △인천고=감독 박정석 및 양후승(2루수겸 3루수), 이병억(유격수), 민경식(閔京植 중견수), 채태석(포수), 김명성(좌익수), 정영만(鄭榮萬 우익수), 김재현(金宰鉉 2루수겸 대타), 정은배(鄭殷培), 이승중(李勝重), 최계훈(이상 투수), 노형근(盧亨根 3루수), 윤강노(尹康老 1루수)</p>	
08.10	<p>■ 성무(星武)야구단 교통사고 일본 원정을 앞두고 8월 19일 오전 경기 고양군 중일면 일산리 부근 도로에서 로드워크 중이던 성무의 정구왕, 남우식, 김유동, 박창수(朴昌洙) 등 4명이 뒤에서 덮친 타이탄 트럭에 부딪혀 1주일 가량의 부상을 입고 갈현동 청구성심병원에 입원</p>	<p>■ 08.13 루 브록 3천 안타 달성 세인트루이스의 루 브록이 8월 13일 야간 경기로 벌어진 시카고 컵스전에서 메이저 리그 사상 14번째로 생애 통산 3,000안타를 기록한 뒤 시즌이 끝나자 3,023안타와 938도루(메이저리그 개인 최다 2위)를 남기고 은퇴</p>
08.22	<p>■ 간사이(關西)선발초청 한·일친선실업대회 대한야구협회 초청으로 8월 19일 일본 간사이사회인 선발야구단이 내한,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서울과 부산에서 실업 팀과 5차전을 치른 끝에 5전 전승을 기록 ▲1차전(8월 22일 서울)=간사이 올스타 2-1 경리단 ▲2차전(8월 23일 서울)=간사이 올스타 6-2 금융선발 ▲3차전(8월 23일 서울)=간사이 올스타 6-1 실업선발 ▲4차전(8월 27일 부산)=간사이 올스타 7-1 한국전력 ▲5차전(8월 27일 부산)=간사이 올스타 3-1 한국화장품</p>	
08.25	<p>■ 제34회 전국대학선수권대회 서울신문사 주최로 8월 25일부터 전년도 우승 팀 한양대를 비롯해 13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8월 30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동아대가 한양대를 4-2로 물리치고 19년 만에 패권 탈환 ▲준결승전=한양대 8-3 인하대, 동아대 7-1 영남대 ▲결승전=동아대 4-2 한양대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임호균(동아대) ▲우수투수상=박정후(동아대) ▲감투상=김용남(한양대) ▲수훈상=엄태섭(동아대) ▲타격상=①김종모(金鍾模 영남대 .547) ②장성욱(한양대 .538) ③엄태섭(동아대 .500) ▲타점상=김종모(영남대) ▲미기상=정학수(동아대) ▲도루상=장성욱(한양대) ▲감독상=강병철(동아대 감독)</p>	 <p>동아대-건국대전 1회초 불넷으로 나간 동아대 정상희(鄭祥會)가 2루 스틸을 감행했으나 태그 아웃. 동아대가 4-3으로 승리.</p>
09.04	<p>■ 전국실업대회 추계리그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9월 4일부터 11개 팀이 타이거스 리그와 라이온스 리그로 나누어 개최, 9월 16일 끝난 결승리그에서 한국전력이 3전 전승으로 우승</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타이거스 리그 순위=①성무(4승1패) ②한국전력(3승1무1패) ③농협, 한국화장품(이상 3승2패) ⑤제일은행(1승4패) ⑥홍익회(1무4패)</p> <p>◇라이온스 리그 순위=①포항제철(2승1무1패) ②롯데, 한일은행, 경리단(이상 2승2패) ⑤상업은행(1승1무2패)</p> <p>◇결승리그 순위=①한국전력(3승) ②성무, 포항제철 롯데(이상 1승2패)</p> <p>◇개인상 ▲최고수훈선수상=강기섭(한전) ▲최우수 투수상=정순명(성무) ▲타격상=김재박(성무 .500) ▲감독상=한을룡(한전 감독)</p>	 <p>실업 추계리그 10일째 경기, 성무-제일은 행전 6회초 성무의 1루 주자 김재박이 제일은행 2루수 권두조가 손 쓸 틈도 없이 2루를 훔치는데 성공</p>
09.07	<p>■호주국가대표초청 한·호친선대회</p> <p>대한야구협회 초청으로 9월 7일~9일까지 서울운동장에서 3개 대학과 3연전을 개최, 호주 국가대표 팀이 2승1패를 기록</p> <p>▲1차전(9월 7일 서울)=호주 3-2 연세대 ▲2차전(9월 8일 서울)=호주 4-8 고려대 ▲3차전(9월 9일 서울)=호주 7-4 한양대</p>	
09.11	<p>■제2회 통일대기쟁탈 전국대학대회</p> <p>대한야구협회 영남일보사 공동 주최로 9월 11일부터 전국에서 12개 대학 팀(영남, 동아, 건국, 원광, 한양, 중앙, 연세, 인천체, 인하, 고려, 성균관, 동국대)이 출전한 가운데 대구시민운동장에서 개최, 9월 18일 열린 결승전에서 연세대가 동아대를 4-0으로 격파하고 대회 2연패</p> <p>▲준결승전=동아대 2-0 중앙대, 연세대 4-3 고려대</p> <p>▲결승전=연세대 4-0 동아대</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박해성(연세대 좌익수) ▲우수투수상=최동원(연세대 투수) ▲김투상=임호균(동아대 투수) ▲수훈선수상=박해중(연세대 포수) ▲타격상=①유성용(劉誠容 중앙대 3루수 .800) ②김민영(동아대 우익수 .583) ③박종훈(고려대 우익수 .417) ▲타점상=양세중(연세대 유격수 4타점) ▲홈런상=박용성(동아대 좌익수 2개) ▲도루상=박종훈(고려대 우익수 2개) ▲미기상=정학수(동아대 3루수) ▲감독상=이재환(연세대 감독)</p>	 <p>연세대-원광대전 7회말 1사후 원광대 1루 주자 박양수(朴洋洙)가 2루 스틸에 성공하는 순간. 원광대가 0-6으로 패배.</p>
09.12	<p>■제1회 전국국민학교선수권대회</p> <p>대한야구협회 중앙일보사 공동 주최로 9월 12일부터 전국 20개 국민학교 팀(이리 중앙, 서울 강남, 부산 대연, 대구 남도, 광주 학강, 서산 언암, 인천 신흥, 서울 영일, 마산 성호, 춘천, 군산 중앙, 인천 창영, 삼척 진주, 서울 충암, 신탄진, 대구 수창, 이리, 광주 서림, 서울 이문, 영동 이수국민학교)이 출전한 가운데 장충리틀구장에서 개최, 9월 16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부산 대연국교가 군산 중앙국교를 1-0으로 누르고 우승</p> <p>▲준결승=부산 대연국교 5-0 서산 언암국교, 군산 중</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양국교 4-2 영동 이수국교 ▲결승전=부산 대연국교 1-0 군산 중앙국교</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시종(金時鍾 대연국) ▲우수투수상=박동희(朴東熙 대연국) ▲감투상=한상철(韓相澈 중앙국) ▲타격상=한상철(중앙국 .429) ▲감독상=최병주(崔秉柱 대연국 감독)</p>	
09.16	<p>■제1회 서울시중학선수권대회</p> <p>대한야구협회 주최로 9월 16일부터 서울시 중학 15개 팀(선린, 배문, 성남, 장충, 보성, 휘문, 동대문, 대광, 배명, 충암, 중앙, 신일, 명지, 배재, 배재, 서대문중)이 출전한 가운데 성남고 운동장과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9월 26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충암중이 12-0으로 성남중을 격파하고 우승</p> <p>▲준결승=성남중 5-2 동대문중, 충암중 4-0 배재중</p> <p>▲결승전=충암중 12-0 성남중</p> <p>◇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은수(충암중) ▲최우수투수상=이국성(李國成 성남중) ▲수훈상=김창식(金昌植 충암중) ▲감투상=김성수(金聖秀 성남중) ▲타격상=①이철주(李哲柱 성남중 .556) ②임명선(任明善 충암중 .462) ③박수현(朴秀鉉 성남중 .455) ▲미기상=남재욱(南在昱 충암중) ▲감독상=정종태(충암중 감독) ▲지도상=최태인(崔泰仁 충암중 교장)</p>	
09.18	<p>■전국실업대회 코리안 시리즈</p> <p>대한야구협회 주최로 9월 18일부터 실업리그 5개 대회 우승 및 준우승 7개 팀(경리단, 성무, 상은, 한전, 롯데, 농협, 포철)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코리안 시리즈를 개최, 9월 20일 끝난 결승전에서 롯데가 8-6으로 포항제철을 물리치고 우승</p> <p>◇개인상(라이온스 리그) ▲최고수훈선수=이해창(롯데) ▲방어율우수투수=천창호(포철 2.03) ▲최다승리투수=천창호(포철 5승) ▲최우수구원투수=유남호(롯데 2승) ▲최우수신인상=장효조(포철) ▲타격상=이광은(포철 .406) ▲타점상=윤동균(포철 18점) ▲홈런상=이광은(포철), 우영석(상은), 유승안(한일은 이상 4개) ▲도루상=이해창(롯데 13개) ▲우수감독상=허정규(포철 감독)</p> <p>◇개인상(타이거스 리그) ▲최우수선수상=정순명(성무) ▲방어율우수투수상=황규봉(한화 1.59) ▲최다승리투수상=정순명(성무 10승) ▲최우수구원투수상=이선희(농협), 정순명(성무), 유종겸(제일은 이상 2승) ▲최우수신인상=강기섭(한전) ▲타격상=김인식(성무 .404) ▲타점상=박찬(농협), 김봉연(한화 이상 20점) ▲홈런상=이광국(한화), 김봉연(한화 이상 7개) ▲만루홈런상=김정수, 김재박(이상 성무) ▲도루상=김재박(성무 20개) ▲최우수감독상=박영길(롯데 감독) ▲지도상=한수길(롯데 부장) ▲공로상=한영국(롯데 단장) ▲특별상=신준호(롯데 사장)</p>	 <p>코리안시리즈 결승전, 3회말 2사후 김한근이 2루를 훔쳤으나 포항제철 포수 김종우의 견제구에 걸려 아웃됐다.</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09.22	<p>■ 제8회 한·일고교대회 대한야구협회 동아일보사 초청으로 9월 21일 일본 전국고교선수권대회(일명 고시엔대회) 우승 팀 미노시마(箕島)고교 주전 10명을 주축으로 오카야마(和歌山)상고와 다나베(田邊)상고에서 각각 2명, 신미야(新宮)상고에서 1명을 보강한 일본고교선발 팀이 내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고교선발 팀과 3연전을 가졌으나 3전 전패를 기록</p> <p>▲1차전(9월 22일 서울)=일본 1-2 한국 ▲2차전(9월 23일 서울)=일본 0-1 한국 ▲3차전(9월 23일 서울)=일본 2-5 한국</p> <p>◇일본고교선발 ▲단장=마쓰이(松井 일본고교연맹 부회장) ▲총무=후지시로(藤城 일본고교연맹 이사) ▲감독=비토(尾藤 미노시마고 감독) 및 시마다(嶋田 포수), 우에노야마(上野山 2루수), 니시오카(西岡 중견수), 기타노(北野 1루수), 우에노(上野 유격수), 구보(久保 우익수), 가미무라(上村 3루수), 에가와(江川 투수겸 대타), 에노모토(榎本 3루수), 미야모토(宮本 좌익수), 이시이(石井), 누마다(沼田 이상 투수)</p> <p>◇한국고교선발 ▲단장=최인철(대한야구협회 부회장) ▲총무=유백만(협회 총무부장) ▲감독=한동화(韓東和 신일고 감독) 및 심재혁(沈裁赫 중견수), 김경표(金京杓 3루수), 조성옥(趙城玉 좌익수), 김영균(金泳均), 구희철(이상 우익수), 이순철, 이재성(李在成 이상 유격수), 최계훈, 이정희(이상 포수), 노영석(1루수) 윤여국, 권기홍(權奇弘), 최계훈, 김봉근(金奉根 이상 투수)</p>	 <p>2차전 7회초 일본 2번 우에노야마(上野山)가 3번 니시오카(西岡)의 보내기 번트로 2루에 진루하는 순간, 후속타 불발로 무득점.</p>
09.27	<p>■ 제16회 실업야구 올스타전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9월 27일부터 3차례에 걸쳐 실업야구 라이온스-타이거스의 올스타전을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9월 30일 열린 3차전에서 라이온스가 타이거스에 2-6으로 패했으나 종합 전적에서 앞서 2승 1패로 우승</p> <p>▲1차전(통산 50차전 9월 27일)=라이온스 3-2 타이거스</p> <p>◇개인상 △최고수훈선수상=배대웅(라이온스) △승리투수상=정선두(라이온스) △우수투수상=이선희(타이거스) △감투상=김정수(타이거스) △타격상=차영화(라이온스) △감독상=김응룡(라이온스)</p> <p>▲2차전(통산 51차전 9월 29일)=타이거스 4-5 라이온스</p> <p>◇개인상 △최고수훈선수상=서정환(라이온스) △우수투수상=유남호(타이거스) △승리투수상=임신근(라이온스) △감투상=김재박(타이거스) △타격상=김준환(타이거스) △감독상=심말룡(라이온스)</p> <p>▲3차전(통산 52차전 9월 30일)=라이온스 2-6 타이거스</p> <p>◇개인상 △최고수훈선수상=박찬(타이거스) △승리투수상=정순명(타이거스) △우수투수상=황규봉(타이거스) △감투상=강기섭(타이거스) △타격상=송영운</p>	<p>■ 09.30 니크로 형제가 동시 최다승 9월 26일 애틀랜타의 필 니크로와 그의 동생인 휴스턴의 조 니크로가 사이 좋게 20승을 올린 뒤 시즌 막판 21승도 동시에 올려 내셔널리그 최다승을 기록</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宋榮雲 타이거스) △미스터 올스타(MVP)=배대웅(라이온스) △감독상=이선덕(타이거스)	
10.01	<p>■ 제33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대한야구협회 동아일보사 공동 주최로 10월 1일부터 전년도 우승 팀 신일고를 비롯해 지역 예선을 통과한 13개 팀 및 6개 초청 팀 등 20개 팀(부산, 경남, 마산상, 경북, 대구, 광주일, 전주, 군산, 강릉, 공주, 세광, 동산, 인천, 배재, 보성, 상문, 서울, 선린상, 신일, 중앙고)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8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경북고가 인천고를 1-0으로 제치고 7년 만에 패권 탈환 ▲준결승전=인천고 13-3 대구고, 경북고 4-1 상문고 ▲결승전=경북고 1-0 인천고 ◇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성래(金聲來 경북고) ▲우수투수상=진동한(경북고) ▲감투상=최계훈(인천고) ▲수훈상=진동한(경북고) ▲타격상=①한상천(韓相千 상문고 .545) ②김재현(金宰鉉 인천고 .500) ③정영만(인천고 .467) ▲타점상=김성래(경북고 8점) ▲미기상=김태석(공주고) ▲도루상=김성래(경북고 3개) ▲감독상=성기영(경북고) ▲지도상=권오갑(權五甲 경북고 교장) ▲공로상=김종하(金鍾夏 경북협 회장) △경북고=감독 성기영 및 한승남(韓承男 3루수), 정성재(중견수), 김순철(金淳喆 1루수), 이정희(포수), 김성래(3루수), 구희철(具熙喆 우익수), 송상진(2루수), 최무영(崔武永 좌익수), 진동한(투수)</p>	 <p>8년 만에 우승을 되찾은 경북고 선수들이 우승 컵과 황금사자기를 흔들고 있다.</p>
10.06	<p>■ 서울시국민학교 추계리그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10월 6일부터 서울시 19개 국민학교 팀(이문, 전곡, 충암, 화곡, 세곡, 영일, 장안, 효제, 강남, 도신, 사당, 청룡, 한양, 봉천, 용암, 성동, 선일, 도곡, 화계국민학교)이 출전한 가운데 장충리틀구장에서 개최, 11월 18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봉천국교가 한양국교를 7-3으로 물리치고 우승 ▲준결승=한양국 3-2 강남국, 봉천국 9-0 성동국 ▲결승전=봉천국 7-3 한양국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이호(봉천 포수) ▲우수투수상=이성필(봉천 투수) ▲감투상=성재승(한양 투수) ▲수훈상=이병훈(봉천 투수) ▲타격상=①미상 ②미상 ③한상욱(봉천 .581) ▲감독상=김길홍(봉천) ▲지도상=정성구(봉천)</p>	
10.09	<p>■ 서울시중학 추계리그 대한야구연맹 주최로 10월 9일부터 서울시 중학 15개 팀(배명, 서대문, 선린, 성남, 배문, 명지, 배재, 휘문, 충암, 장충, 신일, 중앙, 보성, 동대문, 대광중)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장에서 개최, 10월 19일 벌어진 결승전에서 휘문중이 충암중을 10-4로 물리치고 우승</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준결승=충암중 5-3 중앙중, 휘문중 12-1 선린중 ▲결승전=휘문중 10-4 충암중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이명섭(李明燮 휘문중) ▲ 최우수투수상=김은수(중암중) ▲감투상=이종용(李鍾 隆 충암중) 수훈상=김용재(金容載 휘문중) ▲미기상 =박완순(朴完淳 휘문중) ▲타격상=①이동훈(李東勳 .591) ②이옥진(李玉珍 중앙중 .500) ③길홍규(吉洪 圭 신일중 .500) ▲감독상=김종훈(휘문중) ▲지도상= 김홍규(휘문중 교장)</p>	
10.12	<p>■제60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대한체육회 주최로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대전공설운동장에서 개최, 고등부에서 인천대표 인천 고가, 일반부에서는 서울대표 육군 경리단이 우승 ▲고등부 준결승전=천안북일고(충남) 1-3 인천고(경 기) 부산상고(부산) 4-4 전주고(전북 추첨 승) ▲동 결 승=인천고(경기) 2-2 전주고(전북 추첨승) ▲일반부 준결승전=포항제철(경북 추첨 승) 2-2 동아 대(부산), 육군경리단(서울) 11-6 한국화장품(경기) ▲ 동 결승전=육군경리단(서울) 7-1 포항제철(경북)</p>	
10.18	<p>■미쓰비시(三菱)중공업초청 한-일친선대회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초청으로 10월 18일부터 20일 까지 포항제철과 서울운동장 및 대구시민운동장에서 3 연전을 가진 끝에 미쓰비시중공업이 3전 3패 ▲1차전(10월 18일)=미쓰비시 5-7 포항제철 ▲2차 전(10월 19일)=미쓰비시 2-3 포항제철 ▲3차전(10 월 20일)=미쓰비시 2-6 포항제철</p>	<p>■10.18 월드시리즈서 피츠버그 우승 1971년에 이어 또 다시 월드시리즈에서 볼티모어와 맞붙은 피츠버그가 초반 1승3 패의 열세를 딛고 5, 6, 7차전을 모두 이겨 71년과 똑 같이 4승3패로 우승</p>
10.20	<p>■제1회 야구대제전 대한야구협회가 야구계 통합 기념 사업으로 마련한 실업과 대학 및 고교 현역 선수들이 출신 학교 별로 출전하는 올 스타전이 10월 20일부터 전국 26개 고 교 팀(군산상, 성남, 신일, 선린상, 장충, 배재, 동산, 대구상, 보성, 광주상, 부산상, 상문, 마산상, 경북, 배 명, 중앙, 동대문상, 부산, 대전, 경남, 휘문, 충암, 인 천, 서울, 배문, 광주일고)이 출전한 가운데 서울운동 장에서 개최, 11월 11일 끝난 결승전에서 전경남고 가 전선린상고를 6-3으로 누르고 우승 ▲준결승전=전선린상 3-0 전대구상, 전부산고 1-4 전경남고 ▲결승전=전선린상 3-6 전경남고 ◇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용희(전경남) ▲우수투 수상=최동원(전경남) ▲방어율 우수투수상=이길환 (전선린) ▲수훈선수상=우경하(전경남) ▲감투상=유 남호(전선린) ▲타격상=김용희(전경남 .579) ▲최다 타점상=김우열(전선린 6점) ▲최다안타상=김용희(전 경남) ▲최다홈런상=우경하(전경남 4개) ▲최다도루 상=이해창(전선린 4개) ▲미기상=이해창(전선린) ▲ 최우수 OB상=허곤(전대구상) ▲최우수감독상=박영 길(전경남) ▲공로상=박찬오(朴贊晳 경남고 교장) ▲</p>	 <p>전경남고-전선린상 결승전. 1회초 1사후 경남 3번 우경하가 센터 펜스응 넘기는 솔 로 홈런을 날린 뒤 동료들의 환영을 받으 며 흡인하고 있다.</p>

날짜	내 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특별상=정상천(鄭相千 경남고동창회장) ▲응원상=부산상고동창회 △전경남고=감독 박영길 및 김성관(좌익수), 허철구(3루수), 우경하(중견수), 김용희(유격수), 박순철(1루수) 안영진(대주), 김석일(우익수), 차동렬(포수), 박광용(지명타자), 박민호(대타), 정기조(2루수), 최동원, 박정후(이상 투수) △전선린상=이해창(중견수), 이호영(포수), 박준영(1루수), 김우열(우익수), 정종현(지명타자), 김태석(좌익수), 정혁진(대타), 이길환(대타겸 투수), 김광수(2루수), 조총렬(유격수), 이선웅(3루수), 유남호(투수)</p>	<p>■ 1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 10월 26일 밤 19시50분 서울 종로구 궁정동 소재 중앙정보부 식당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38구경 리벌바로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뒤 박 대통령을 시해</p> <p>■ 10.29 양키스, 빌리 마틴 감독 해임 79 시즌 초반 64게임을 소화한 뒤 봄 레먼의 뒤를 이어 뉴욕 양키스 감독직을 승계, 그러나 빌리 마틴도 시즌 끝나기 무섭게 퇴출.</p> <p>■ 10.31 플래너건 사이영상 수상 미국야구기자협회가 79년도 사이영상 수상자로 아메리칸리그 최다승(23) 투수인 왼손잡이 마이크 플래너건(27)과 내셔널리그 구원투수로 37세이브를 기록한 시카고 컵스의 브루스 수터를 각각 선정 발표</p>
10.23	<p>■ 박철순(朴哲淳), 미 프로야구 스카우트 제의 미국 프로야구 아메리칸리그 밀워키 브루어스에서 계약금 1만달러(약 500만원), 월봉 7백달러(약 35만원)에 입단 제의. 박철순은 80년 1월 28일 하오 1시 서울 무교동 체육회관 강당(10층)에서 김종락(金鍾珞) 대한야구협회장 등 관계인사와 세계야구연맹 부회장 가르시아(니카라과), 미국야구협회장 니트 와일러가 지켜보는 가운데 국내 최초로 미국 프로야구 밀워키 브루어스와 계약금 1만 달러(약 2,700만원), 월봉 700달러에 마이너리그 입단 계약</p>	
11.12	<p>■ 서울시고교 추계리그 대한야구협회 주최로 11월 12일부터 서울시 고교 18개 팀이 A조(경동, 배문, 보성, 서울, 장충, 배재)와 B조(상문, 선린상, 성남, 명지, 휘문, 동대문상), C조(대광, 충암, 배명, 우신, 중앙, 신일)로 나누어 서울운동장과 성남고 구장에서 개최,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벌어진 결승 토너먼트에서 배재고가 중앙고를 4-2로 꺾고 우승 ▲준결승전=배재고 5-4 장충고, 중앙고 7-0 휘문고 ▲결승전=배재고 4-2 중앙고 ◇개인상 ▲최우수선수상=김현찬(배재고 1루수) ▲최우수투수상=김진원(배재고 투수) ▲감투상=주대중(朱大中 중앙고 투수) ▲수훈상=안종만(배재고 유격수) ▲타격상=①이희중(배재고 3루수) ②이현진(李顯振 장충고 1루수) ③김민관(金民觀 휘문고 포수) ▲도루상=손민성(孫敏盛 장충고 좌익수) ▲미기상=안언학(安彦學 중앙고 투수) ▲감독상=이영복(李永福 배재고 감독) ▲지도상=김석만(배재고 야구부장)</p>	<p>■ 11.04 재팬시리즈, 히로시마 우승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재팬시리즈 7차전에서 센트럴리그 우승 팀 히로시마(廣島) 카프가 패시픽리그 우승 팀 긴테스(近鐵) 버펄로스 4-3으로 꺾고 4승3패로 우승</p> <p>■ 11.14 내셔널리그 MVP공동 수상 월드시리즈에서 피츠버그 우승을 견인했던 39살의 윌리 스타젤과 세인트루이스의 1루수 커드 헤르난데스가 내셔널리그 MVP를 공동 수상. 미야구기자협회가 투표로 선정하는 MVP를 두 선수가 공동 수상하기는 1949년 시상을 시작한 이후 처음있는 일로 스타젤과 헤르난데스가 각각 216점을 획득</p> <p>■ 11.19 라이언, 100만 달러에 계약 캘리포니아 엔젤스에서 자유계약선수로 풀린 놀란 라이언이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연봉 100만 달러에 입단 계약</p>
11.17	<p>■ 한국대표 호주원정경기 대한야구협회가 80년 8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세계선수권대회에 대비해 국가대표 팀을 호주에 파견, 11월 17일부터 12월 3일까지 호주에서 10차례에 걸쳐 순회 경기를 가진 끝에 9승1패를 기록 ▲1차전(11월 17일 퍼드)=한국 5-2 호주대표 ▲2차전(11월 18일 퍼드)=한국 7-5 호주대표 ▲3차전</p>	

날짜	내용	미국, 일본야구 및 기타
	<p>(11월 20일 아드레이드) 한국 3-0 남호주대표 ▲4차전(11월 21일 아드레이드)=한국 3-1 남호주대표 ▲5차전(11월 24일 멜버른)=한국 4-2 호주대표 ▲6차전(11월 25일 멜보른)=한국 5-2 호주대표 ▲7차전(11월 27일 시드니)=한국 11-3 사우드 웨일즈선발 ▲8차전(11월 28일 시드니)=한국 4-0 사우드 웨일즈선발 ▲9차전(11월 30일 리스모어)=한국 15-1 킨즈랜드 선발 ▲10차전(12월 1일 브리즈번)=한국 6-3 호주대표</p> <p>◇한국 국가대표 ▲단장=최인철(협회 부회장) ▲감독=한을룡(한전 감독) ▲코치=강병철(동아대 감독) ▲투수=이선희(농협), 정순명(성무), 김현재(경리단), 최동원(연세대), 김시진, 김용남(이상 한양대), 양상문(고려대) ▲포수=차동렬(성무), 이만수(한양대) ▲내야수=박종훈(고려대), 김용희, 이광은(이상 포철, 차영화(경리단), 김재박(성무), 정영기(영남대) ▲외야수=김일권, 유두열(이상 경리단), 강기섭(한전), 박용성(동아대), 우경하(고려대)</p>	
11.26	<p>■ 한국고교선발 대만원정경기</p> <p>대한야구협회가 한·일고교대회 출전 선수들을 주축으로 한 고교선발 팀을 자유중국(대만)에 파견,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대북(臺北), 고웅(高雄), 대남(臺南)을 돌며 대만 고교 팀과 5차례 경기를 가진 끝에 2승1무2패를 기록</p> <p>▲1차전(11월 26일 대북)=한국 1-2 화흥(華興)고 ▲2차전(11월 27일 대북)=한국 1-2 영공(榮工)고 ▲3차전(11월 29일 고웅)=한국 1-1 미화청봉(美和晴棒)고 ▲4차전(12월 1일 대남)=한국 9-2 장영(長榮)고 ▲5차전(12월 3일 대북)=한국 3-0 대만고교대표</p> <p>◇한국 고교선발 ▲감독=한동화(신일고 감독) ▲코치=백기성(白基成 전주고 감독) ▲투수=최계훈(인천고), 권기홍(대구상고), 윤여국(광주상고), 김봉근(金奉根 상문고), 조도연(趙鎭衍 군산상고), 박노준(朴魯俊 선린상고) ▲포수=이정희(경북고), 최인수(광주상고) ▲내야수=김영균(서울고), 노영석(광주상고), 이군노(李軍魯 광주상고), 이재성(부산고), 김용국(金用國 대구상고) 이순철(광주상고), 김경표(신일고), ▲외야수=조성욱(부산고), 구희철(경북고), 심재혁(광주일고), 박흥식(朴興植 신일고)</p>	
12.28	<p>■ 제22회 이영민 타격상 김이수(金利秀) 수상</p> <p>대한야구협회가 제22회 이영민 타격상 수상자로 79년도 전국 5개 고교대회에서 평균 타율 .457을 기록한 부산상고 중견수 김이수를 선정</p>	<p>■ 12.06 10대 대통령에 최규하 선출</p> <p>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제10대 대통령보궐선거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 재적 대의원 2,560명중 2,465명의 압도적 지지로 제10대 대통령에 최규하(崔圭夏) 대통령 권한대행을 선출</p>

한국 야구사 연표

The Chronicles of Korea Baseball

색인표



한국야구연표 색인

- 1969 가고시마(鹿兒島)현고교선발초청대회 305
 1951 가네다(金田正一), 노히트노런 125
 1957 가네다, 퍼펙트 게임 수립 161
 1963 가네다, 311승 신기록 227
 1964 가네다, 4천 탈삼진 241
 1970 가네후치(鐘淵)화학초청대회 319
 1930 가이소우(海草)중학초청경기 43
 1931 간사이(關西)대초청대회 50
 1932 간사이대초청경기 54
 1935 간사이대초청경기 72
 1979 간사이선발초청대회 451
 1958 강남규(姜南奎), 고교 첫 퍼펙트 게임 164
 1975 강만식(姜晩植), 고교 퍼펙트 게임 376
 1975 강용수(姜龍洙), 실업 퍼펙트 게임 381
 1972 강정일(姜正一), 노히트 노런 343
 1973 강타자 윌리 메이스 은퇴 360
 1971 건국대 야구부 창설 334
 1973 게이로드 페리 2,000탈삼진 357
 1923 게이오(慶應)대·도쿄(東京)초청대회 17
 1925 게이오대유니온초청대회 22
 1964 게이오대초청대회 240
 1965 게이오대초청대회 254
 1948 경기·영남선발대회 111
 1959 경기공고 어지홍(魚之洪) 감독 제명 178
 1965 경기지구고교선발 일본원정대회 261
 1960 경동고 일본원정대회 199
 1960 경무대를 청와대로 개명 199
 1970 경부고속도로 개통 314
 1969 경북고교선발 일본원정대회 308
 1970 이동수(李東秀), 중학 퍼펙트 게임 312
 1973 황기선(黃起善), 중학 노히트 노런 348
 1927 경성방송국 첫 야구중계 방송 30
 1930 경성부청 야구부 해산 41
 1927경성실업추계연맹전 30
 1928경성실업추계연맹전 32
 1928경성실업추계연맹전 36
 1929경성실업추계연맹전 37
 1929경성실업추계연맹전 41
 1930경성실업추계연맹전 46
 1931경성실업추계연맹전 48
 1931경성실업추계연맹전 53
 1932경성실업추계연맹전 54
 1932경성실업추계연맹전 59
 1933경성실업추계연맹전 61
 1933경성실업추계연맹전 63
 1934경성실업추계연맹전 64
 1934경성실업추계연맹전 67
 1935경성실업추계연맹전 69
 1935경성실업추계연맹전 73
 1936경성실업추계연맹전 74
 1936경성실업추계연맹전 77
 1937경성실업추계연맹전 78
 1937경성실업추계연맹전 80
 1938경성실업추계연맹전 81
 1938경성실업추계연맹전 83
 1939경성실업추계연맹전 84
 1939경성실업추계연맹전 86
 1940경성실업추계연맹전 87
 1940경성실업추계연맹전 88
 1941경성실업추계연맹전 89
 1925경성운동장 공사 착공 19
 1925경성운동장 준공 22
 1927경성전기 야구부 창설 27
 1918경성중-경성구락부 야구경기 9
 1919경성중-동양협회 연습경기 9
 1919경성중-한양야구단 야구경기 9
 1931경성중등학교야구연맹 발족 48
 1941경성중등학교추계리그 89
 1911경신학교 야구부 창설 5
 1959경향신문 폐간 176
 1978계형철(桂潐鐵), 노히트 노런 424
 1946고 김정식(金貞植) 추도대회 93
 1954고 이영민 추도대회 134
 1955고 최운식선수 추도대회 141
 1975고교 한 경기 최다 탈삼진(22개) 383
 1969고급 담배 '청자' 판매 297
 1972고니시(小西)주조초청대회 337
 1957고려대 야구부 창설 157
 1977고상돈 에베레스트 정복 419
 1959고순선(高順先), 노히트노런 178
 1964고순선, 실업 첫 퍼펙트 게임 246
 1908고종(高宗) 황제 어장전(御場前) 시범경기 4
 1973공군 야구단 창단 362
 1962공용 연호를 서기(西紀)로 209
 1905관립중학(현 경기고) 야구 수업 개시 3
 1925관서(關西)체육회 창립 19
 1931관서체육회장에 조만식 47
 1954광복절 경축 전국실업연맹전 132
 1951광복절 경축 한·미친선대회 127
 1946광복후 김성중 첫 노히트노런 99
 1915광주 송일(崇一)학교 야구 도입 8
 1920광주조서희(趙瑞禧)기생탈소년대회 개최 10
 1929광주학생항일운동 42
 1895교육칙서 반포 2
 1963교토(京都)선발사회인초청대회 360
 1959교통부 야구단 창단 174
 1970구라시키(倉敷)레이온초청대회 310
 1977구마고속도로 개통 421
 1974구원투수 첫 사이영상 수상 376
 1974구종명(具鍾明), 노히트노런 366
 1954국군체육회 발족 132
 1963국내 최대 장충실내체육관 개관 222
 1970국내 최장 서울대교 개통 312
 1955국내 최초 성화 봉송 145
 1969국산 야구공 실업 올스타전 첫 사용 305
 1967국산 피칭 머신 첫 선 273

- 1976 국제실업초청대회 405
1954 국제야구연맹(N.B.C)에 정식 가입 135
1947 국제올림픽위원회 가입 103
1948 국호 대한민국 112
1973 권영호(權永浩), 퍼펙트 게임 355
1946 귀환군 환영친선대회 95
1968 규슈(九州)6대학선발초청대회 285
1972 규슈(九州)6대학선발초청대회 336
1948 금융조합야구부 결성 108
1978 기누가사(衣笠) 1천경기 연속 출전 432
1969 기적의 뉴욕 메츠 월드시리즈 우승 306
1966 긴키(近畿)대초청대회 268
1968 긴키대초청대회 289
1970 긴키대초청대회 316
1972 긴키대초청대회 342
1974 긴키대초청369
1976 긴키대초청대회 400
1978 긴키대초청대회 429
1966 김기수 세계 타이틀 획득 267
1964 김병기(金秉冀), 노히트노런 241
1969 김병우(金秉宇), 노히트 노런 298
1971 김병우, 퍼펙트 게임 수립 329
1973 김봉연(金奉淵), 노히트 노런 351
1973 김봉연, 대학 첫 3연타석 홈런 360
1975 김봉연, 대학 3연타석 홈런 381
1965 김설권(金雪權), 노히트노런 250
1963 김성근(金星根), 노히트 노런 233
1958 김양중, 대한민국 최우수선수상 수상 174
1964 김영덕, 실업 두번째 퍼펙트 게임 수립 246
1965 김영덕, 노히트노런① 257
1967 김영덕, 노히트 노런② 280
1968 김영덕, 노히트 노런③ 295
1971 김영목(金永穆), 노히트노런 332
1967 김영찬(金永燦), 고교 퍼펙트 게임 수립 273
1973 김영춘(金永春), 노히트노런 362
1978 김우열, 6경기 연속 홈런 신기록 425
1964 김윤겸(金允謙), 노히트노런 248
1965 김윤겸, 노히트 노런② 253
1966 김윤겸, 노히트 노런③ 272
1969 김윤겸, 노히트노런④ 306
1975 김윤환(金允煥), 고교 첫 3연타석 홈런 380
1964 김응룡, 한국체육상 최우수선수상 수상 235
1973 김정남(金正男), 퍼펙트 게임 수립 348
1971 김정무(金正武), 노히트 노런 334
1930 김좌진 장군 순국 42
1976 김충렬(金忠烈), 노히트노런 408
1960 김포공항 청사 준공 187
1973 김한용(金韓用), 노히트노런 357
1964 김호(金浩), 노히트노런 248
1971 김호중(金昊中), 노히트노런 328
1973 김홍곤(金鴻坤), 노히트노런 351
1975 김홍곤, 노히트노런② 389
1959 김희련 대한민국 체육상 수상 187
1970 나유찬(羅裕燦), 노히트 노런 314
1972 남·북공동성명 발표 340
1947 남선전기 야구단 창단 100
1924 내셔널리그 MVP시상 제도 채택 19
1930 내셔널리그 마지막 4할 타자 47
1972 내셔널리그 흑인 최초 심판 345
1969 네쓰가쿠(熱學)초청대회 306
1971 네쓰가쿠(熱學)초청대회 325
1948 년호(年號)는 단기(檀紀) 113
1970 노길상(盧佶相), 노히트 노런 320
1971 놀란 라이언 트레이드 335
1973 놀란 라이언 한 시즌 두번 노히트노런 355
1975 놀란 라이언 4번째 노히트노런 382
1959 농업은행야구단 창단 174
1962 뉴욕 메츠 시즌 최다 120패 219
1964 뉴욕 메츠 홈 구장 개장 237
1966 뉴욕 양키스 54년 만에 꼴찌 270
1960 뉴욕 양키스 9차례 우승 감독 해임 197
1975 뉴욕 양키스 감독에 빌리 마틴 384
1974 뉴욕 양키스 구단주 집무정지 처분 372
1979 뉴욕 양키스 빌리 마틴 감독 해임 457
1921 뉴욕 양키스 아메리칸리그 첫 우승 12
1961 뉴욕 양키스 월드시리즈 19번 제패 207
1962 뉴욕 양키스 월드시리즈 20번 제패 219
1923 뉴욕 양키스타디움 개장 15
1932 뉴욕 자이언츠 감독 30년 만에 은퇴 55
1976 니카라과방문 친선경기 408
1966 니혼(日本)대초청대회 272
1974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로 사임 372
1934 일본 다이닛폰도쿄클럽 탄생 68
1965 다이쇼와(大昭和)제지초청대회 251
1962 다저 스타디움 개장 210
1969 다저 스타디움 첫 장외 홈런 303
1970 다저스 빌 싱어 노히트노런 315
1925 다카라즈카(寶塚) 초청경기 21
1929 다카라즈카초청경기 37
1930 다카라즈카내한경기 43
1976 대건고 야구부 해체 406
1912 대구 계성(啓聖)학교 야구부 창설 6
1967 대구·부산고교교환경기 278
1920 대구고보(현 경북고) 야구부 창설 10
1928 대구상업 야구부 창설 31
1922 대구소년야구대회 13
1925 대구소년야구대회 개최 20
1921 대구연합야구대회 개최 12
1921 대구운동협회 창립 13
1970 대구중 일본원정 한·일친선대회 318
1934 대구중등학교리그 64
1935 대구중등학교리그 71
1920 대구청년회 마산 첫 원정경기 10
1920 대구청년회, 야구단과 축구단 조직 9
1928 대구준계야구쟁패전 33
1969 대통령 3선 개헌 국민투표 306
1969 대통령 3선개헌 투표 308
1974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 피살 372

- 1956 대통령 후보 신익희(申翼熙) 서거 149
1959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추계연맹전 184
1959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추계연맹전 186
1960 대통령배쟁탈 전국추계실업연맹전 190
1960 대통령배쟁탈 전국추계실업연맹전 196
1961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추계연맹전 200
1961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추계연맹전 206
1962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추계연맹전 210
1962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추계연맹전 218
1963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추계연맹전 224
1963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추계연맹전 231
1964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238
1965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251
1966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263
1967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275
1968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285
1969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299
1970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311
1971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325
1972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337
1973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춘계리그 353
1973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하계리그 354
1973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추계리그 358
1974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춘계리그 364
1974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하계리그 368
1974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추계리그 371
1975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춘계리그 378
1975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추계리그 390
1976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추계연맹전 394
1976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추계연맹전 397
1976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추계리그 406
1977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전기리그 410
1977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후기리그 414
1977 대통령배쟁탈 코리언 시리즈 420
1978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전기리그 423
1978 대통령배쟁탈 전국실업연맹전 후기리그 427
1978 대통령배쟁탈 코리언 시리즈 435
1979 전국실업대회 제1차 지방시리즈 442
1979 전국실업대회 하계리그 446
1979 전국실업대회 추계리그 451
1979 전국실업대회 코리안 시리즈 453
1964 전국실업연맹전 장기폐년트레이스 도입 235
1965 대학선발 첫 일본원정대회 261
1979 대학야구 지명타자 첫 도입 438
1971 대한고교야구연맹 발족 323
1947 대한민국 정부 수립 105
1947 대한야구구락부 결성 101
1961 대한야구협회 규약 개정 208
1966 대한야구협회 김종락 회장 취임 262
1955 대한야구협회 대의원 총회 136
1956 대한야구협회 대의원 총회 148
1966 대한야구협회 대의원 총회 272
1961 대한야구협회 사무실 이전 200
1961 대한야구협회 새 회장 선출 207
1961 대한야구협회 서민호 회장 공직 박탈 201
1954 대한야구협회 서울 환도 134
1956 대한야구협회 '야구규칙' 발간 148
1949 대한야구협회 임원 개선 115
1955 대한야구협회 임원 개선 143
1960 대한야구협회 임원 개선 191
1961 대한야구협회 임원 개선 202
1964 대한야구협회 임원 개선 235
1958 대한야구협회 전국대의원 대회 163
1977 대한야구협회 전국대의원 대회 409
1953 대한야구협회 전국대의원 총회 126
1954 대한야구협회 전국대의원 총회 129
1950 대한야구협회 전국대의원대회 123
1957 대한야구협회 전국대의원대회 156
1959 대한야구협회 전국대의원대회 174
1960 대한야구협회 전국대의원대회 187
1961 대한야구협회 전국대의원대회 199
1962 대한야구협회 전국대의원대회 221
1969 대한야구협회 정기 대의원 총회 309
1952 대한야구협회 제7회 전국대의원 총회 126
1967 대한야구협회 집행부 선임 273
1969 대한야구협회 집행부 총 사퇴 결의 309
1966 대한야구협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272
1979 대한야구협회 통합 집행부 구성 436
1979 대한야구협회 통합 새 집행부 구성 436
1979 대한야구협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440
1954 대한야구협회 헌장 개칭 135
1955 대한연식야구협회 대의원 총회 136
1963 대한연식야구협회 대의원 총회 222
1964 대한연식야구협회 대의원 총회 236
1964 대한연식야구협회 대의원 총회 249
1953 대한연식야구협회 대한체육회 가입 127
1966 대한연식야구협회 상임이사 개선 263
1969 대한연식야구협회 심판위원장 선임 296
1967 대한연식야구협회 임시 대의원 총회 273
1968 대한연식야구협회 임시대의원 총회 283
1959 대한연식야구협회 임원 개선 173
1961 대한연식야구협회 임원 개선 203
1956 대한연식야구협회 정기대의원 총회 148
1958 대한연식야구협회 정기대의원 총회 163
1950 대한연식야구협회 정기총회 123
1970 대한연식·대한야구협회 통합 의결 323
1975 대한중·고야구연맹 신 집행부 구성 376
1906 대한체육구락부 조직 4
1964 대한체육회 스포츠 행사 중지 239
1962 대한체육회 회장에 김용우 221
1965 대한체육회사(大韓體育會史) 발간 254
1955 대한학생야구연맹 발족 137
1956 대한학생야구연맹 임원 개선 148
1957 대한학생야구연맹 임원 개선 157
1972 대한항공 태평양 노선 첫 취항 336
1963 대한해운공사 야구부 창설 223
1964 대한해운공사 대만원정경기 234
1965 대한해운공사 야구단 해체 249

- 1839 더블데이 야구 창안 1
1960 데드 윌리엄스의 마지막 홈런 196
1919 도교유학생 독립선언서 발표 9
1961 도에이(東映) 일본시리즈 우승 208
1963 도요(東洋)레이온초청경기 224
1976도쿄(東京)실업선발초청대회 403
1978 도쿄(東京) 올스타초청대회 432
1931 도쿄(東京)제국대초청경기 52
1896 독립신문 야구경기 예고 기사 2
1896 독립신문 창간 2
1968 돈 드라이스데일 최다 연속이닝 무실점 286
1959 동도중개교기념 국민학교대항대회 187
1960 동도중개교기념 국민학교대항대회 199
1961 동산고 최관수(崔寬洙), 노히트노런 203
1936 동아일보 무기정간 77
1920 동아일보 창간 10
1940 동아일보·조선일보 강제 폐간 88
1975 듀플로(Duplo)초청대회 377
1962 드라이스데일 사이영상 수상 220
1968 디트로이트 월드시리즈 제패 295
1962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방한경기 220
1972 로베르트 클레멘테 3,000안타 346
1972 로베르트 클레멘테 사망 347
1978 론 레플로어 27연속 도루 신기록 432
1975 롯데 자이언츠 창단 감독 김동엽 내정 379
1974 롯데 재팬시리즈 장악 375
1941 루 게릭 사망 89
1939 루 게릭 최다 경기 연속 출전 84
1932 루 게릭 한 경기 4홈런 55
1979 루 브록 3,000안타 달성 451
1968 루이스 타이언트 한 경기 19탈삼진 289
1970 리버프런트 스타디움 개장 314
1930 릿쿄(立教)대초청경기 45
1934 릿쿄대초청경기 66
1971 릿쿄대초청경기 330
1923 마산소년야구대회 16
1922 마산체육회 창립 13
1928 마쓰야마(松山)고상초청경기 33
1970 마포 와우아파트 붕괴 310
1927 만주 다렌(大連)실업초청경기 30
1931 만주사변 발발 53
1945 맥아더 미군정청 설치 91
1972 메이저리거 13일간 파업 336
1938 메이저리거 2연속경기 노히트노런 82
1968 메이저리거 34년만에 30승 투수 탄생 294
1956 메이저리거 8연속경기 홈런 149
1957 메이저리거 골든글러브상 제정 156
1957 메이저리거 규정 타석 제정 156
1947 메이저리거 도박 감독 1년간 출전 정지 107
1939 메이저리거 사상 첫 TV중계 86
1960 메이저리거 사상 첫 감독 맞 트레이드 194
1946 메이저리거 사상 최초 플레이오프 100
1960 메이저리거 세이브 규정 도입 187
1930 메이저리거 시즌 최다 타점 47
1965 메이저리거 신인 드래프트 도입 252
1975 메이저리거 연속 도루(38) 신기록 389
1922 메이저리거 올스타 초청경기 14
1973 메이저리거 지명타자제 채택 348
1935 메이저리거 첫 야간경기 69
1933 메이저리거 첫 올스타전 62
1920 메이저리거 첫 커미셔너 탄생 9
1929 메이저리거 첫 타석 최초 홈런 37
1941 메이저리거 첫 헬멧 착용 89
1974 메이저리거 첫 흑인 감독 375
1962 메이저리거 최고령 신인 선수 210
1965 메이저리거 최고령(63) 투수 259
1963 메이저리거 최다 연패 신기록 230
1919 메이저리거 최단시간 경기 9
1923 메이저리거 최초 3,000탈삼진 17
1920 메이저리거 최초 빈볼 사망 사건 11
1921 메이저리거 최초 중계 방송 12
1928 메이저리거 타이 쿵 은퇴 35
1962메이지(明治)대 초청경기 211
1936 메이지대초청경기 75
1938 메이지대초청경기 82
1895 명성황후 시해 2
1936 명예의 전당 첫 헌액 선수 74
1932 모지(門司)철도초청경기 54
1934 모지철도초청경기 65
1939 모지철도초청경기 85
1910 미 대통령 윌리엄 태프트 첫 시구 4
1896 마·영(美·英) 야구경기 2
1960 미국 독립184주년 제4회 한·미친선대회 191
1961 미국 독립185주년 제5회 한·미친선대회 202
1939 미국 명예의 전당 건립 85
1925 미국 시카고대초청경기 23
1931 미국 알라메다야구단초청경기 50
1903 미국 월드시리즈 첫 선 3
1845 미국 최초 야구 팀 니커보커 탄생 1
1869 미국 최초 프로야구 팀 1
1927 미국 흑인야구단 로열 자이언츠 내한 28
1975 미국대학 올스타초청대회 384
1969 미국대학선발 빅토리(Victory)초청대회 303
1976 미국독립200주년기념 한·미친선대회 401
1963 미국독립일 기념 제7회 한·미친선대회 227
1959 미국소년야구 부에나파크 올스타경기 183
1959 미국소년야구연맹 유니폼 기증 175
1925 미국여자야구단 초청경기 24
1974 미국여자프로야구 발기 총회 370
1896 미국인 조선 최초 야구경기 2
1846 미국 최초 야구경기 1
1960 미네소타 트윈스 탄생 190
1979 미쓰비시(三菱)중공업초청대회 456
1968 미에(三重)현고교선발초청대회 292
1976 미연방법원 자유계약선수 인정 393
1967 미키 맨틀 500홈런 276
1920 미해군과 최초 야구경기 10
1904 미해병과 선교사들 야구경기 3

- 1896 미해병대와 미국거류민 야구경기 2
1975 박인중(朴仁鍾), 노히트노런 381
1963 박정희 5대 대통령 당선 231
1979 박정희 대통령 시해 457
1972 박정희 제8대 대통령 취임 347
1964 박종길, 한 경기 최소 투구(69) 신기록 238
1974 박창선(朴昌善), 노히트노런 364
1979 박철순, 미프로야구 스카우트 제의 457
1978 박해중(朴海鍾), 대학야구 3연타석 홈런 423
1938 박현명, 오사카(大阪) 타이거스 입단 83
1965 박현식, 실업야구 첫 100호 홈런 258
1979 박흥식(朴興植), 노히트노런 447
1932 방응모 조선일보 인수 56
1964 방한경(方漢慶), 노히트노런 241
1962 배문중, 농협, 대한민국 체육상 수상 209
1979 배시혁(裴時赫), 노히트노런 447
1929 배재고보 5년간 출전 정지 중징계 39
1920 배재고보 인천에 첫 원정 10
1925 배재고보 인천원정경기 20
1931 배재고보, 경기출전 정지 해제 48
1929 배재고보, 대구원정경기 41
1962 백인천(白仁天), 일본 프로야구 진출 209
1972 백창현(白昌鉉), 퍼펙트 게임 수립 338
1976 백창현, 노히트노런 394
1935 베이브 루스 마지막 홈런 69
1927 베이브 루스 메이저리그 첫 60홈런 31
1935 베이브 루스 방출 69
1948 베이브 루스 사망 112
1920 베이브 루스 트레이드 9
1975 보브 왓슨 1백만번째 득점 380
1946 부·마(釜·馬)야구대항전 95
1918 부산 최초 일본인야구대회 개최 8
1954 부산4도시대항대회 135
1955 부산4도시대항대회 146
1959 부산공설운동장 대참사 179
1919 부산중-부산세관 야구경기 9
1928 부산중등학교춘계대회 34
1931 부산중등학교추계리그 53
1932 부산중등학교춘계리그 57
1932 부산중등학교추계리그 60
1933 부산중등학교춘계리그 60
1933 부산중등학교추계리그 63
1934 부산중등학교춘계리그 64
1934 부산중등학교추계리그 67
1935 부산중등학교춘계리그 69
1937 부산중등학교추계리그 78
1938 부산중등학교춘계리그 81
1968 부산지구고교선발 일본원정경기 292
1928 부산체육회 창립 36
1938 부산체육회 해체 83
1973 북한 평양지하철 개통 359
1957 북한, 올림픽위원회 가입 162
1968 브런디지 IOC위원장 재선 295
1966 브레이브스 본거지 이동 262
1955 브루클린 다저스 월드시리즈 첫 우승 144
1919 블랙삭스 스캔들 9
1955 사우스 캘리포니아대(USC)내한경기 142
1897 사이영 첫 노히트노런 2
1911 사이영 511승 달성 5
1967 사이영상 양 리그 첫 시상 281
1956 사이영상 제정 154
1960 4.19학생 혁명 188
1972 산교(三協)정기초청대회 345
1919 3.1독립운동 9
1927 삼진의 제왕 윌터 존슨 은퇴 31
1962 상업은행 야구단 창단 222
1964 상업은행야구단 필리핀 첫 원정경기 249
1965 상업은행야구단 자유중국 첫 원정경기 249
1969 새 대한체육회 발족 297
1962 샌디 쿠팍스 노히트노런 212
1963 샌디 쿠팍스 사이영상 수상 232
1963 샌디 쿠팍스 시즌 첫 20승 229
1965 샌디 쿠팍스 네번째 노히트노런 258
1965 샌디 쿠팍스 최다 탈삼진 기록 260
1966 샌디 쿠팍스 은퇴 272
1966 샌디 쿠팍스 투수 3관왕 등극 269
1959 샌디 쿠팍스 한 게임 18탈삼진 182
1970 서울 남산 1호 터널 개통 318
1971 서울 대연각호텔 화재 335
1968 서울 무장공비 침투 283
1968 서울 전차(電車) 역사 속으로 296
1964 서울시 전역 비상계엄 선포 238
1948 서울시6대학춘계연맹전 109
1955 서울시춘계고교·대학연맹전 139
1955 서울시추계고교·대학연맹전 146
1956 서울시고교·대학춘계리그 148
1957 서울시춘계고교·대학연맹전 157
1958 서울시고교추계리그 172
1959 서울시고교춘계연맹전 175
1959 서울시고교연맹전 추계리그 186
1960 서울시고교야구연맹 발족 193
1960 서울시고교연맹전 춘계리그 188
1960 서울시고교연맹창립기념대회 192
1960 서울시고교연맹전 추계리그 197
1961 서울시고교연맹전 춘계리그 200
1961 서울시고교연맹전 추계리그 207
1962 서울시고교 춘계리그 209
1962 서울시고교연맹창립기념대회 213
1962 서울시고교 추계리그 219
1963 서울시고교연맹전 춘계리그 223
1963 서울시고교연맹 창립기념대회 226
1963 서울시고교 추계리그 231
1964 서울시고교연맹 정기대의원 총회 234
1964 서울시고교연맹전 춘계리그 236
1964 서울시고교야구연맹 창립기념대회 248
1965 서울시고교 춘계리그 249
1965 서울시고교연맹전 추계리그 260
1966 서울시고교 춘계연맹전 264

- 1966 서울시고교연맹 창립기념대회 272
1967 서울시고교연맹전 춘계리그 273
1967 서울시고교선발 일본원정경기 221
1967 서울시고교선발 일본원정경기 278
1968 서울시고교연맹전 춘계리그 283
1968 서울시고교연맹창립기념대회 289
1969 서울시고교춘계연맹전 297
1969 서울시고교 추계리그 307
1970 서울시고교춘계연맹전 309
1970 서울시고교연맹창립 10주년기념대회 315
1970 서울시고교 추계리그 322
1971 서울시고교 춘계리그 323
1971 서울시고교 추계리그 334
1972 서울시중·고연맹전 춘계리그 335
1972 서울시중·고연맹전 추계리그 346
1973 서울시중·고연맹전 춘계리그 348
1973 서울시중·고연맹전 추계리그 362
1974 서울시중·고연맹전 춘계리그 364
1974 서울시중·고연맹전 추계리그 376
1975 서울시춘계고교연맹전 377
1975 서울시중·고연맹전 추계리그 392
1976 서울시중·고춘계연맹전 393
1976 서울시중·고연맹전 추계리그 407
1977 서울시고교 춘계리그 409
1977 서울시고교 추계리그 419
1978 서울시고교연맹전 춘계리그 421
1978 서울시고교 추계리그 436
1979 서울시고교춘계리그 437
1979 서울시고교 추계리그 457
1948 서울시대학추계연맹전 115
1955 서울시연식야구협회 창립 141
1959 서울시추계중학연식야구연맹전 186
1962 서울시실업연식야구대회 211
1965 서울시여자대학 춘계연맹전 252
1964 서울시여자대학연식야구연맹 결성 239
1967 서울시대학선발일본원정대회 282
1955 서울시중학 춘계리그, 경동중 우승 137
1955 서울시중학추계, 광희중 우승 143
1956 서울시중학 춘계리그 149
1959 서울시중학 춘계리그 176
1960 서울시중학 추계리그 197
1961 서울시중학 춘계리그 200
1961 서울시중학 추계리그 207
1962 서울시중학 춘계리그 210
1962 서울시중학 추계리그 219
1963 서울시중학 춘계리그 223
1963 서울시중학 추계리그 231
1964 서울시중학 춘계리그 237
1965 서울시중학 춘계리그 250
1966 서울시중학 춘계리그 264
1979 서울시중학 춘계리그 439
1979 서울시중학 추계리그 455
1979 서울시국민학교 추계리그 455
1959 서울실업야구연맹 발기인 총회 182
1946 서울야구구락부 결성 93
1956 서울운동장 야구장 개수 공사 착공 156
1958 서울운동장 야구장 개장 170
1966 서울운동장 야구장 나이트 점등(點燈) 270
1974 서울지하철 1호선 개통 372
1947 서운복 보스톤 마라톤 1위 101
1947 서재필(徐載弼) 박사 49년 만에 한국 103
1948 서재필 박사 미국으로 출국 113
1896 서재필 박사 선수로 첫 출전 2
1898 서재필 박사 출국 3
1975 석주옥(石柱玉), 노히트 노런 379
1955 선린상고 최운식(崔雲植) 첫 빈볼 사망 140
1979 성무(星武)야구단 교통사고 451
1965 세계 최초 애스트로 돔구장 개장 250
1976 세계리틀선수권대회 극동지역예선전 401
1966 세계아마추어야구연맹 결성 269
1950 세계야구대회 준비회의 참석 124
1972 세인트루이스 스티브 칼튼 추방 335
1958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초청경기 172
1932 소년운동협회 결성 54
1970 소년체육대회 신설 310
1974 소련 솔제니친 시민권 박탈 364
1935 손기정 마라톤서 세계 신기록 73
1936 손기정 올림픽 금메달 77
1972 송범섭(宋範燮), 퍼펙트 게임 수립 336
1926 순종(純宗) 황제 승하 24
1970 스리서비스 스타디움 개장 315
1972 스티브 칼튼 사이영상 수상 346
1943 스포츠 활동 정지 90
1979 스피드 건, 서울운동장에 첫 등장 450
1967 시마네(島根)현고교선발초청대회 279
1949 시즌 업 대회 122
1957 시즌 오픈 경기 157
1946 식산은행 야구부 부활 99
1961 신(新)미쓰비시(三菱)중공업초청대회 207
1940 신시내티 21년만에 월드시리즈 정복 88
1975 신시내티 35년만에 월드시리즈 우승 391
1956 신인식(申仁植), 노히트노런 149
1927 신코(神港)상업초청경기 30
1971 실미도 특수대원 난동 332
1973 실업야구 지명대타자제 시범 356
1969 실업야구 첫 감독 퇴장 300
1968 실업야구 최장 23회 연장전 296
1977 실업야구 코리언 시리즈제 채택 409
1977 실업야구 풀 시즌제 환원 409
1922 아메리칸리그 MVP 첫 시상 14
1940 아메리칸리그 개막전 노히트노런 87
1904 아메리칸리그 첫 퍼펙트게임 3
1947 아메리칸리그 첫 흑인선수 104
1936 아메리칸리그 최다 탈삼진 77
1939 아메리칸리그 최초 야간경기 84
1901 아메리칸리그 탄생 3
1908 아메리칸리그 퍼펙트 게임 4
1952 아시아경기연맹 가입 126

- 1949 아시아경기연맹 창립 115
1954 아시아야구연맹 창립 총회 129
1961 아시아야구연맹 총회 205
1955 아시아연맹 부회장에 이흥직 회장 147
1959 아시아청소년축구대회 우승 176
1979 아오야마(青山)학원대초청대회 438
1960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 방한 191
1979 IOC 중공 재가입 승인 439
1964 IOC위원에 이상백(李相佰) 247
1922 안창남(安昌男) 고국 방문 비행 14
1976 애스트로 돔 폭우로 경기 취소 398
1955 NBC트로피 인수식 141
1947 야구규칙 첫 발간 105
1946 야구실전지도회 개최 93
1894 야구의 명칭 2
1932 야구통제안 발령 59
1963 야마구치(山口)현고교선발초청대회 229
1927 야와타(八幡)제철초청경기 29
1969 야와타제철초청대회 298
1976 양정모 올림픽 첫 금메달 401
1971 양한철(梁漢哲), 노히트 노런 330
1961 어네스트 헤밍웨이 사망 202
1973 에어로 마스터(Aero Master)초청대회 361
1973 아시아경기연맹 중공 가입, 대만 축출 363
1963 LA 다저스 월드시리즈 우승 231
1969 MLB 거미셔너에 보위 쿤 296
1979 MLB 스프링 캠프 기간 심판 파업 437
1962 MLB 최우수선수에 도루왕 월스 221
1974 MLB 최초 구속 100마일 돌파 373
1929 여의도비행장 개장 36
1967 여자농구 세계대회 첫 준우승 274
1964 여자연식친선경기 246
1946 연(延)·고(高)전 부활 100
1956 연·고(延·高)대항전 부활 156
1960 연·고대체육대회 198
1946 연속 탈삼진 신기록 98
1918 연식(軟式)야구 탄생 8
1922 연희전문 야구부 창설 13
1932 연희전문, 대전·대구원정경기 55
1935 연희전문, 함남(咸南)원정경기 71
1925 연희전문야구부 재결성 19
1897 영국 수병 조선에 축구 첫 선 3
1963영남지구고교선발 일본원정경기 234
1935 영남체육회 창립 70
1975 영동·동해고속도로 개통 390
1897 영어학교 대운동회 2
1966 오리올스 월드시리즈 제패 271
1970 오리올스 월드시리즈 제패 321
1926 오사카 마이니치(毎日)신문초청경기 27
1927 오사카 마이니치신문초청경기 29
1927 오사카 마이니치신문초청경기 31
1962 오사카지구고교선발초청대회 217
1914 오성구락부 탄생 7
1916 오성구락부 해체·YMCA야구단 재결성 8
1962 오윤환, 국제야구연맹(NBC) 위원 피선 209
1961 5.16 군사정변 201
1974 오클랜드 월드시리즈 3연패 375
1975 오태섭(吳泰燮), 노히트노런 379
1956 오하이오주립대친선경기 151
1966 와세다(早稻田)대초청대회 267
1967 와세다(早稻田)대초청대회 277
1968 와세다(早稻田)대초청대회 288
1911 YMCA야구단 지방 원정경기 5
1977 왕정치 홈런 세계 타이 기록 418
1977 왕정치 홈런(755) 세계 신기록 419
1961 왼손잡이 첫 200승 투수 탄생 205
1970 요미우리 자이언츠 재팬시리즈 6연패 322
1963 워렌 스판 최다승(328) 신기록 230
1979 원광대 야구부 창설 437
1928 원산공설운동장 개장 36
1924 월간 ‘朝鮮體育會(조선체육회)’ 창간 19
1929 월간 ‘체육계(體育界)’ 창간호 발간 37
1975 월남 베트콩에 무조건 항복 380
1972 월남파병 부대 6년만에 귀환 335
1948 월드 시리즈 첫 흑인선수 112
1977 월드시리즈 3연타석 홈런 419
1967 월드시리즈 우승 트로피 첫 시상 281
1955 월드시리즈 첫 MVP 시상 146
1961 월드시리즈 첫 끝내기 홈런 197
1956 월드시리즈 첫 퍼펙트게임 156
1954 월드컵 본선 첫 진출 131
1969 위장 귀순 간첩 이수근 체포 297
1965 윌리 메이스 500홈런 259
1966 윌리 메이스 512호 홈런 264
1963 유백만(俞百萬), 노히트 노런 233
1969 유백만, 노히트 노런 301
1969 유백만, 실업야구 첫 100승 달성 303
1970 유백만, 노히트 노런③ 317
1971 유백만, 노히트 노런④ 329
1972 유신헌법 찬반 국민투표 347
1964 유영수(柳永洙), 노히트노런 241
1939 유완식(劉完植), 한큐 브레이브스 입단 84
1973 유종겸(柳種兼), 노히트 노런① 354
1973 유종겸, 노히트 노런② 363
1959 육군 필리핀원정경기 173
1979 육상 서말구(徐末九) 200m 한국신기록 444
1966 육상 정기선 27년만에 100m 기록 경신 267
1926 6.10만세 사건 24
1950 6.25 한국전쟁 발발 125
1968 윤동균(尹東均), 노히트 노런 284
1973 윤병석(尹秉錫), 노히트 노런 362
1960 윤보선 대통령 취임 194
1961 윤보선 대통령 하야 선언 201
1932 윤봉길 의사 홍구공원 폭탄 투척 54
1955 이기봉 IOC위원 피선 139
1930 이길용, 조선야구사(朝鮮野球史) 연재 43
1973 이길환(李吉煥), 노히트노런 362
1973 이길환, 퍼펙트 게임 수립 363

- 1975 이길환, 퍼펙트 게임 수립 381
1977 이리역 화약운송열차 폭팔 420
1979 이상훈(李常勳), 노히트노런 447
1979 이석승(李錫承), 노히트노런 438
1959 이선덕(李善德), 노히트노런 183
1977 이선희(李善熙), 노히트노런 ① 412
1978 이선희, 대한민국 체육상 수상 422
1978 이선희, 노히트노런 ② 428
1960 이승만 대통령 하야 188
1965 이승만 초대 대통령 사망 254
1945 이승만(李承晩) 박사 환국 91
1954 이영민 대한야구협회 부회장 피살 131
1926 이영민 육상 400m 신기록 24
1924 이영민 전조선축구대회 출전 19
1948 이영민, 올림픽대회 참가 환송경기 111
1934 이영민, 전일본 국가대표 발탁 67
1958 이영민 타격상 제정 165
1963 이영선(李永善), 노히트 노런 232
1964 이원국(李源國), 노히트노런 248
1966 이원국, 도쿄(東京) 오리온스와 입단 267
1979 이원녕, 실업야구 31경기 연속안타 443
1933 이원용, '조선체육계(朝鮮體育界)' 창간 62
1973 이자원(李滋源), 노히트 노런 348
1974 이진우(李振雨), 노히트 노런 364
1972 이창호(李昌浩), 퍼펙트 게임 수립 347
1972 이창호, 노히트 노런 347
1971 이창희(李昌熙), 노히트 노런 327
1909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伊藤) 사살 4
1950 이팔룡, 일본 첫 Perfect Game 수립 125
1972 이후락 중정부장 북한 방문 337
1969 인류 최초 달 착륙 303
1920 인천 윗터골 운동장 준공 11
1920 인천 한용단(漢勇團) 조직 10
1934 인천공설운동장 개장 65
1936 인천체육회 창립 74
1969 일간 스포츠 창간 306
1978 일본 고교 첫 퍼펙트게임 422
1924 일본 고시엔(甲子園) 야구장 완공 19
1974 일본 나가시마 은퇴 375
1905 일본 독도 강점 3
1947 일본 사와무라상 제정 107
1973 일본 야기사와(八木澤) 퍼펙트 게임 361
1978 일본 야쿠르트 29년만에 우승 435
1977 일본 왕정치 연봉 첫 1억엔 돌파 409
1973 일본 지명타자제 도입 348
1945 일본 천황 무조건 항복 91
1964 일본 최초 메이저리거 탄생 244
1878 일본 최초 야구 팀 1
1964 일본 최초 한 경기 4홈런 237
1962 일본 프로야구 도에이·고쿠데스 초청경기 220
1963 일본 프로야구 도에이·다이요 초청경기 233
1964 일본 프로야구 2군 초청대회 239
1967 일본 프로야구 도에이·주니치 초청경기 282
1969 일본 프로야구 도에이(東映) 초청경기 307
1970 일본 프로야구 롯데 오리온스 초청경기 322
1975 일본 프로 및 재일교포모국방문경기 391
1910 일본 한·일합방 조약 체결 5
1975 일본 한큐(阪急) 재팬시리즈 첫 우승 392
1977 일본 한큐 재팬시리즈 3연패 420
1966 일본 혼다(本田)기연초청대회 264
1965 일본 후쿠오카(福岡)선발초청대회 258
1973 사이키(佐伯) 회장에 국민훈장 수여 358
1873 일본야구의 효시 1
1906 일본어-영어학교 야구경기 4
1932 일본어판 조선야구사(朝鮮野球史) 발간 60
1963 일본여자연식 '사론 파스' 내한경기 233
1899 일본인 조선 최초 야구경기 3
1936 일본직업야구연맹 조직 74
1973 일본체육대학초청대회 354
1970 임영식(林永植), 노히트노런 315
1974 임호균(任昊均), 노히트노런① 371
1974 임호균, 노히트 노런② 375
1945 자유신문 창간 91
1946 자유신문사 신년사업 4대 야구대회 발표 92
1979 자유중국 합작금고초청대회 443
1954 자유중국 원정경기 대표선수선발전 130
1954 자유중국 원정 대표선수 최종선발전 131
1955 자유중국초청 한·중친선대회 140
1965 작곡가 안익태(安益泰) 별세 259
1971 장발족 일제 단속 332
1966 장창선 레슬링 금메달 획득 267
1959 장훈, 일본 프로야구 데뷔 174
1975 장훈, 일본야구 4번째 400홈런 379
1975 장훈, 롯데 오리온스 감독 취임 390
1961 재일교포 곤도(權藤浩) 사와무라상 수상 207
1961 재일교포 신평길(申平吉), 노히트노런 205
1942 이팔룡(李八龍), 첫 노히트노런 90
1972 재키 로빈슨 심장마비로 사망 346
1973 전 감독 김영조, '野球教室' 발간 356
1977 전외무부장관 미국 망명 420
1965 전국고교야구연맹 창립 261
1947 전국대학춘계연맹전 102
1947 전국대학추계연맹전 107
1948 전국대학춘계연맹전 109
1949 전국대학 춘계리그 116
1961 전국대학춘계연맹전 201
1961 전국대학연맹전 추계리그 206
1962 전국대학연맹전 춘계리그 212
1962 전국대학연맹전 추계리그 220
1963 전국대학연맹전 춘계리그 223
1963 전국대학연맹전 추계리그 232
1964 전국대학연맹전 춘계리그 237
1964 전국대학연맹전 추계리그 248
1965 전국대학연맹전 춘계리그 252
1966 전국대학연맹전 춘계리그 265
1966 전국대학연맹전 추계리그 270
1967 전국대학연맹전 춘계리그 273
1968 전국대학연맹전 춘계리그 284

- 1968 전국대학연맹전 춘계2차리그 287
1969 전국대학연맹전 춘계리그 297
1969 전국대학연맹전 추계리그 306
1970 전국대학연맹전 춘계리그 310
1970 전국대학연맹전 추계리그 321
1971 전국대학연맹전 1차리그 328
1971 전국대학연맹전 2차리그 332
1972 전국대학연맹전 1차리그 339
1972 전국대학연맹전 2차리그 344
1973 전국대학연맹전 춘계리그 350
1973 전국대학연맹전 추계리그 359
1974 전국대학연맹전 춘계리그 365
1974 전국대학연맹전 추계리그 373
1975 전국대학연맹전 춘계리그 378
1975 전국대학연맹전 추계리그 387
1976 전국대학연맹전 춘계리그 394
1976 전국대학연맹전 추계리그 405
1977 전국대학연맹전 춘계리그 411
1977 전국대학초청대회 410
1977 전국대학연맹전 추계리그 418
1978 전국대학연맹전 춘계리그 422
1978 전국대학연맹전 추계리그 433
1979 전국대학 춘계리그 441
1979 전국대학 추계리그 448
1975 전국대학초청대회 390
1976 전국대학초청대회 397
1977 전국대학초청대회 410
1948 전국실업추계연맹전 114
1949 전국실업추계연맹전 121
1948 전국실업춘계연맹전 109
1949 전국실업춘계연맹전 117
1950 전국실업춘계연맹전 124
1955 전국실업춘계연맹전 폐지 137
1955 전국학도체육대회 부활 139
1964 전미대학선발초청대회 248
1945 전배재-전휘문 올스타대항전 91
1949 흥병창, 광복후 서울운동장서 첫 홈런 119
1949 전연화-미고문단 친선대회 119
1921 전조선소년대회 개최 11
1913 전조선야구대회(일본인 최초 공식 대회) 7
1925 전조선축구단 최초 일본 원정 23
1927 전후쿠오카(全福岡)초청경기 30
1909 제1차 도쿄유학생모국방문경기 4
1912 제2차 도쿄유학생모국방문경기 6
1914 제3차 도쿄유학생모국방문경기 7
1917 제4차 도쿄유학생모국방문경기 8
1920 제5차 도쿄유학생모국방문경기 10
1921 제6차 도쿄유학생모국방문경기 11
1923 제7차 도쿄유학생모국방문경기 16
1928 제8차 도쿄유학생모국방문경기 34
1935 제9차 도쿄유학생모국방문경기 70
1937 제10차 도쿄유학생모국방문경기 79
1959 제1회 이영민 타격상 김동주 첫 수상 174
1960 제2회 이영민 타격상 백인천 수상 187
1961 제3회 이영민 타격상 최관수 수상 199
1961 제4회 이영민 타격상 조정일 수상 208
1962 제5회 이영민 타격상 정찬성 수상 222
1964 제6회 이영민 타격상 이철화 수상 235
1965 제7회 이영민 타격상 김영생 수상 249
1966 제8회 이영민 타격상 이광환 수상 262
1966 제9회 이영민 타격상 박용해 수상 273
1967 제10회 이영민 타격상 오금복 수상 283
1968 제11회 이영민 타격상 김영신 수상 296
1969 제12회 이영민 타격상 정장현 수상 309
1970 제13회 이영민 타격상 신중국 수상 323
1971 제14회 이영민 타격상 정현발 수상 335
1972 제15회 이영민 타격상 정순명 수상 347
1973 제16회 이영민 타격상 김일권 수상 363
1974 제17회 이영민 타격상 박명선 수상 376
1975 제18회 이영민 타격상 이효헌 수상 393
1977 제19회 이영민 타격상 임정면 수상 409
1977 제20회 이영민 타격상 이만수 수상 421
1978 제21회 이영민 타격상 김남수 수상 436
1979 제22회 이영민 타격상 김이수 수상 458
1928 제2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조선예선전 34
1929 제3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조선예선전 39
1930 제4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조선예선전 44
1931 제5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조선예선전 51
1932 제6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조선예선전 56
1933 제7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조선예선전 62
1934 제8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조선예선전 65
1935 제9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조선예선전 71
1936 제10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조선예선전 75
1937 제11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조선예선전 78
1938 제12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조선예선전 82
1939 제13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조선예선전 85
1940 제14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조선예선전 87
1941 제15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조선예선전 89
1942 제16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전경성 2연패 90
1920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 개최 11
1921 제2회 전조선야구대회 12
1922 제3회 전조선야구대회 14
1923 제4회 전조선야구대회 15
1924 제5회 전조선야구대회 17
1925 제6회 전조선야구대회, 연희전문 첫 우승 23
1926 제7회 전조선대회(소학 연식 공 사용) 26
1927 제8회 전조선야구대회 28
1928 제9회 전조선야구대회 32
1929 제10회 전조선야구대회(전조선경기대회) 39
1930 제11회 전조선야구대회 43
1931 제12회 전조선야구대회 50
1932 제13회 전조선야구대회 55
1934 제15회 전조선대회(전조선종합경기대회) 68
1935 제16회 전조선대회(전조선종합경기대회) 73
1971 정기혁 대학야구 첫 퍼펙트 게임 328
1974 정성만(鄭成萬), 노히트노런 374
1971 정순명(鄭淳明), 고교야구 첫 21탈삼진 324
1975 정순명, 노히트 노런 392

- 1979 제10대 대통령 최규하 선출 458
1978 제10회 네덜란드초청 할렘 국제대회 432
1978 제10회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준우승 434
1966 제10회 한·미친선대회 267
1967 제11회 한·미친선대회 277
1967 제12회 한·미친선대회 289
1969 제13회 한·미친선대회 303
1970 제14회 한·미친선대회(종료) 314
1964 제18회 도쿄(東京) 올림픽대회 247
1968 제19회 멕시코 올림픽대회 295
1926 제1회 4구락부연맹전 25
1928 제2회 4구락부추계연맹전 31
1928 제3회 4구락부 추계연맹전 35
1929 제4회 4구락부 춘계연맹전 37
1929 제5회 4구락부 추계연맹전 42
1930 제6회 4구락부 추계연맹전 46
1931 제7회 4구락부 춘계연맹전 49
1946 4구락부연맹전 99
1947 4구락부연맹전 107
1948 4구락부연맹전 115
1957 제32회 4구락부연맹전 163
1958 제33회 4구락부연맹전 172
1959 제34회 4구락부연맹전 184
1960 제35회 4구락부연맹전 198
1961 제36회 4구락부연맹전 208
1955 제1회 NBC배쟁탈 전국선수권대회 143
1956 제2회 NBC배쟁탈 전국선수권대회 154
1957 제3회 NBC배쟁탈 전국선수권대회 162
1958 제4회 NBC배쟁탈 전국선수권대회 170
1959 제5회 NBC배쟁탈 전국선수권대회 185
1960 제6회 NBC배쟁탈 전국선수권대회 196
1961 제7회 NBC배쟁탈 전국선수권대회 208
1962 제8회 NBC배쟁탈 전국선수권대회 220
1963 제9회 NBC배쟁탈 전국선수권대회 233
1964 제10회 NBC배쟁탈 전국선수권대회 247
1965 제11회 NBC배쟁탈 전국선수권대회 259
1966 제12회 NBC배쟁탈 전국선수권대회 271
1966 제13회 NBC배쟁탈 전국선수권대회 276
1968 제14회 NBC배쟁탈 전국선수권대회 295
1970 제16회 NBC배쟁탈 전국선수권대회 316
1971 제17회 NBC배쟁탈 전국선수권대회 329
1972 제18회 NBC배쟁탈 전국선수권대회 343
1973 제19회 NBC배쟁탈 전국선수권대회 362
1974 제20회 NBC배쟁탈 전국선수권대회 370
1948 제1회 경·인정기대항대회 111
1949 제2회 경·인정기대항대회 116
1949 제3회 경·인정기대항대회 119
1950 제4회 경·인정기대항대회 123
1954 제5회 경·인정기대항대회 129
1955 제6회 경·인정기대항대회 137
1931 제1회 경성중등학교리그 48
1932 제2회 경성중등학교리그 48
1933 제3회 경성중등학교춘계리그 60
1934 제4회 경성중등학교춘계리그 64
1935 제5회 경성중등학교춘계리그 69
1936 제6회 경성중등학교 춘계리그 74
1938 제8회 경성중등학교춘계리그 81
1939 제9회 경성중등학교춘계리그 84
1940 제10회 경성중등학교춘계리그 86
1941 제11회 경성중등학교춘계리그 89
1924 제1회 고려-배재야구대항전 19
1932 제1회 관서연식대회 59
1967 제1회 김세영회장기쟁탈 전국중학대회 278
1968 제2회 김세영회장기쟁탈 전국중학대회 290
1969 제3회 김세영회장기쟁탈 전국중학대회 301
1979 제1회 대붕기쟁탈 전국고교대회 449
1965 제1회 대통령기쟁탈 전국대학초청대회 258
1970 제4회 대통령기쟁탈 전국대학초청대회 321
1971 제5회 대통령기쟁탈 전국대학초청대회 327
1972 제6회 대통령기쟁탈 전국대학초청대회 345
1973 제7회 대통령기쟁탈 전국대학초청대회 348
1974 제8회 대통령기쟁탈 전국대학초청대회 374
1975 제9회 대통령기쟁탈 전국대학초청대회 389
1976 제10회 대통령기쟁탈 전국대학대회 398
1977 제11회 대통령기쟁탈 전국대학대회 413
1978 제12회 대통령기쟁탈 전국대학대회 426
1979 제13회 대통령기쟁탈 전국대학대회 438
1971 제1회 대통령기쟁탈 전국중학대회 326
1972 제2회 대통령기쟁탈 전국중학대회 338
1973 제3회 대통령기쟁탈 전국중학대회 350
1974 제4회 대통령기쟁탈 전국중학대회 365
1975 제5회 대통령기쟁탈 전국중학대회 379
1976 제6회 대통령기쟁탈 전국중학대회 395
1977 제7회 대통령기쟁탈 전국중학대회 412
1978 제8회 대통령기쟁탈 전국중학대회 424
1979 제9회 대통령기쟁탈 전국중학대회 442
1967 제1회 대통령배쟁탈 전국고교대회 274
1968 제2회 대통령배쟁탈 전국고교대회 285
1969 제3회 대통령배쟁탈 전국고교대회 299
1970 제4회 대통령배쟁탈 전국고교대회 311
1971 제5회 대통령배쟁탈 전국고교대회 326
1972 제6회 대통령배쟁탈 전국고교대회 337
1973 제7회 대통령배쟁탈 전국고교대회 349
1974 제8회 대통령배쟁탈 전국고교대회 366
1975 제9회 대통령배쟁탈 전국고교대회 380
1976 제10회 대통령배쟁탈 전국고교대회 396
1977 제11회 대통령배쟁탈 전국고교대회 412
1978 제12회 대통령배쟁탈 전국고교대회 424
1979 제13회 대통령배쟁탈 전국고교대회 440
1954 제1회 전국중학선수권대회 131
1955 제2회 전국중학선수권대회 142
1956 제3회 전국중학선수권대회 151
1957 제4회 전국중학선수권대회 161
1958 제5회 전국중학선수권대회 166
1959 제6회 전국중학선수권대회 179
1960 제7회 전국중학선수권대회 192
1962 제9회 전국중학선수권대회 216
1963 제10회 전국중학선수권대회 228

- 1964 제11회 전국중학선수권대회 246
1965 제12회 전국중학선수권대회 260
1966 제13회 전국중학선수권대회 269
1967 제14회 전국중학선수권대회 280
1970 제17회 전국중학선수권대회 321
1971 제18회 전국중학선수권대회 334
1972 제19회 전국중학선수권대회 346
1973 제20회 전국중학선수권대회 356
1974 제21회 전국중학선수권대회 373
1975 제22회 전국중학선수권대회 386
1976 제23회 전국중학선수권대회 399
1977 제24회 전국중학선수권대회 417
1978 제25회 전국중학선수권대회 426
1979 제26회 전국중학선수권대회 445
1929 제1회 전마산소년야구대회 40
1947 제1회 마산4도시대항대회 102
1948제2회 마산4도시대항대회112
1949 제3회 마산4도시대항대회 120
1958 제4회 마산4도시대항리그 164
1946 제1회 전국대학·전문학교선수권대회 96
1947 제2회 맹호기쟁탈 전국대학선수권대회 105
1948 제3회 맹호기쟁탈 전국대학선수권대회 113
1949 제4회 맹호기쟁탈 전국대학선수권대회 120
1954 제9회 전국대학선수권대회 133
1955 제10회 전국대학선수권대회 145
1956 제11회 전국대학선수권대회 중지 154
1957 제12회 전국대학선수권대회 163
1958 제13회 전국대학선수권대회 171
1960 제15회 전국대학선수권 192
1961 제16회 전국대학선수권대회 201
1962 제17회 전국대학선수권대회 218
1963 제18회 전국대학선수권대회 226
1964 제19회 전국대학선수권대회 247
1976 제31회 전국대학선수권대회 407
1977 제32회 전국대학선수권대회 419
1978 제33회 전국대학선수권대회 435
1979 제34회 전국대학선수권대회 451
1956 제9회 전국도시대항연식대회 150
1928 제2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조선예선전 34
1929 제3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조선예선전 39
1930 제4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조선예선전 44
1931 제5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조선예선전 51
1932 제6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조선예선전 56
1933 제7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조선예선전 62
1934 제8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조선예선전 65
1935 제9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조선예선전 71
1936 제10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조선예선전 75
1937 제11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조선예선전 78
1938 제12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조선예선전 82
1939 제13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조선예선전 85
1940 제14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조선예선전 87
1941 제15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조선예선전 89
1942 제16회 전국도시대항대회, 전경성 2연패 90
1961 제1회 문교부장관기 전국4도시고교대회 200
1961 제1회 문교부장관기 전국4도시고교대회 200
1962 제2회 문교부장관기 전국4도시고교대회 210
1963 제3회 문교부장관기 전국4도시고교대회 224
1964 제4회 문교부장관기 전국4도시고교대회 237
1965 제5회 문교부장관기 전국4도시고교대회 253
1966 제6회 문교부장관기 전국4도시고교대회 264
1967 제7회 문교부장관기 전국4도시고교대회 275
1968 제8회 문교부장관기 전국4도시고교대회 287
1969 제9회 문교부장관기 전국4도시고교대회 300
1970 제10회 문교부장관기 전국4도시고교대회 312
1971 제11회 문교부장관기 전국4도시고교대회 329
1972 제12회 문교부장관기 전국4도시고교대회 340
1973 제13회 문교부장관기 전국4도시고교대회 352
1974 제14회 문교부장관기 전국4도시고교대회 366
1975 제15회 문교부장관기 전국4도시고교대회 379
1976 제16회 문교부장관기 전국4도시고교대회 395
1977 제17회 문교부장관기 전국4도시고교대회 411
1958 제1회 문교부장관기 전국중학초청대회 169
1962 제5회 문교부장관기 전국중학초청대회 212
1963 제6회 문교부장관기 전국중학초청대회 225
1964 제7회 문교부장관기 전국중학초청대회 242
1965 제8회 문교부장관기 전국중학초청대회 253
1966 제9회 문교부장관기 전국중학초청대회 268
1967 제10회 문교부장관기 전국중학초청대회 282
1968 제11회 문교부장관기 전국중학초청대회 288
1969 제12회 문교부장관기 전국중학초청대회 304
1970 제13회 문교부장관기 전국중학초청대회 314
1971 제14회 문교부장관기 전국중학초청대회 331
1972 제15회 문교부장관기 전국중학초청대회 344
1973 제16회 문교부장관기 전국중학대회 357
1974 제17회 문교부장관기 전국중학대회 374
1975 제18회 문교부장관기 전국중학대회 391
1976 제19회 문교부장관기 전국중학대회 404
1977 제20회 문교부장관기 전국중학대회 415
1978 제21회 문교부장관기 전국중학대회 429
1979 제22회 문교부장관기 전국중학대회 446
1956 제1회 문교부장관배 전국학생대회 151
1958 제1회 문화인자선대회 173
1959 제2회 문화인자선대회 174
1959 제3회 문화인자선대회 185
1960 제4회 문화인야구대회 198
1955 제1회 백호기쟁탈 전국실업춘계쟁패전 138
1955 제2회 백호기쟁탈 전국실업추계쟁패전 143
1956 제3회 백호기쟁탈 전국군·실업쟁패전 150
1956 제4회 백호기쟁탈 전국군·실업쟁패전 155
1957 제5회 백호기쟁탈 전국군·실업쟁패전 157
1957 제6회 백호기쟁탈 전국군·실업쟁패전 163
1958 제8회 백호기쟁탈 전국군·실업쟁패전 165
1959 제9회 백호기쟁탈 전국군·실업쟁패전 179
1960 제10회 백호기쟁탈 전국군·실업쟁패전 195
1961 제11회 백호기쟁탈 전국군·실업쟁패전 203
1962 제12회 백호기쟁탈 전국군·실업쟁패전 213
1963 제13회 백호기쟁탈 전국군·실업쟁패전 226
1964 제14회 백호기쟁탈 전국군·실업쟁패전 237

- 1965 제15회 백호기쟁탈 전국군·실업쟁패전 250
1966 제16회 백호기쟁탈 전국군·실업쟁패전 265
1967 제17회 백호기쟁탈 전국군·실업쟁패전 282
1968 제18회 백호기쟁탈 전국군·실업쟁패전 284
1969 제19회 백호기쟁탈 전국군·실업쟁패전 297
1970 제20회 백호기쟁탈 전국군·실업쟁패전 309
1971 제21회 백호기쟁탈 전국군·실업쟁패전 324
1972 제22회 백호기쟁탈 전국군·실업쟁패전 336
1973 제23회 백호기쟁탈 전국군·실업쟁패전 352
1974 제24회 백호기쟁탈 전국대회(명칭 변경) 367
1975 제25회 백호기쟁탈 전국대회 381
1976 제26회 백호기쟁탈 전국대회 393
1977 제27회 백호기쟁탈 전국대회 413
1978 제28회 백호기쟁탈 전국대회 425
1979 제29회 백호기쟁탈 전국대회 443
1971 제1회 봉황기쟁탈 전국고교대회 331
1972 제2회 봉황기쟁탈 전국고교대회 342
1973 제3회 봉황기쟁탈 전국고교대회 357
1974 제4회 봉황기쟁탈 전국고교대회 372
1975 제5회 봉황기쟁탈 전국고교대회 385
1976 제6회 봉황기쟁탈 전국고교대회 401
1977 제7회 봉황기쟁탈 전국고교대회 416
1978 제8회 봉황기쟁탈 전국고교대회 431
1979 제9회 봉황기쟁탈 전국고교대회 450
1978 부산시장기쟁탈 전국대학초청대회 427
1971 제1회 부산시장기쟁탈 전국대학대회 324
1979 제1회 부산시장기쟁탈 전국대학대회 440
1974 제1회 부산시장기쟁탈 전국실업대회 364
1975 제2회 부산시장기쟁탈 전국실업대회 377
1976 제3회 부산시장기쟁탈 전국실업대회 396
1977 제4회 부산시장기쟁탈 전국실업대회 409
1978 제5회 부산시장기쟁탈 전국실업대회 423
1979 제6회 부산시장기쟁탈 전국실업대회 438
1946 제1회 전국4도시대항대회, 경성군 우승 93
1947 제2회 전국4도시대항대회 101
1948 제3회 전국4도시대항대회 110
1949 제4회 전국4도시대항대회 117
1955 제9회 전국4도시대항대회 137
1958 제1회 전국4도시초청고교대회 164
1959 제2회 전국4도시초청고교대회 178
1960 제3회 전국4도시초청고교대회 192
1963 제6회 전국4도시초청고교대회 225
1965 제8회 전국4도시초청고교대회 254
1966 제9회 전국4도시초청고교대회 267
1967 제10회 전국4도시초청고교대회 276
1968 제11회 전국4도시초청고교대회 286
1969 제12회 전국4도시초청고교대회 300
1971 제14회 전국4도시초청고교대회 325
1974 제17회 전국4도시초청고교대회 364
1975 제18회 전국4도시초청고교대회 382
1976 제19회 전국4도시초청고교대회 397
1977 제20회 전국4도시초청고교대회 410
1967 제1회 전국4도시고교초청대회 280
1979 제1회 서라벌기쟁탈 전국실업대회 443
1969 제1회 서울시국교연식연맹창립대회 306
1954 제1회 서울시중학연식연맹전 132
1955 제1회 서울시중학연식대회 141
1956 제2회 서울시중학선수권대회 151
1957 제3회 서울시중학선수권대회 161
1969 제7회 서울시중학선수권대회 302
1961 제8회 서울시중학선수권대회 202
1962 제9회 서울시중학선수권대회 212
1965 제11회 서울시중학선수권대회 254
1979 제1회 서울시중학선수권대회 453
1966 제1회 세계야구선수권대회 269
1947 제1회 소년야구선수권대회 104
1964 제1회 실업야구 올스타전 245
1965 제2회 실업야구 올스타전 257
1966 제3회 실업야구 올스타전 266
1967 제4회 실업야구 올스타전 281
1968 제5회 실업야구 올스타전 293
1969 제6회 실업야구 올스타전 305
1970 제7회 실업야구 올스타전 315
1971 제8회 실업야구 올스타전 329
1972 제9회 실업야구 올스타전 340
1973 제10회 실업야구 올스타전 355
1974 제11회 실업야구 올스타전 368
1975 제12회 실업야구 올스타전 388
1976 제13회 실업야구 올스타전 394
1977 제14회 실업야구 올스타전 415
1978 제15회 실업야구 올스타전 428
1979 제16회 실업야구 올스타전 454
1949 제1회 쌍룡기쟁탈 전국중등대회 120
1953 제5회 쌍룡기쟁탈 전국고교대회 126
1954 제6회 쌍룡기쟁탈 전국고교대회 132
1955 제7회 쌍룡기쟁탈 전국고교대회 141
1956 제8회 쌍룡기쟁탈 전국고교대회 153
1957 제9회 쌍룡기쟁탈 전국고교대회 158
1958 제10회 쌍룡기쟁탈 전국고교대회 166
1960 제12회 쌍룡기쟁탈 전국고교대회 193
1961 제13회 쌍룡기쟁탈 전국고교대회 203
1962 제14회 쌍룡기쟁탈 전국고교대회 213
1963 제15회 쌍룡기쟁탈 전국고교대회 228
1964 제16회 쌍룡기쟁탈 전국고교대회 241
1965 제17회 쌍룡기쟁탈 전국고교대회 255
1966 제18회 쌍룡기쟁탈 전국고교대회 268
1967 제19회 쌍룡기쟁탈 전국고교대회 278
1968 제20회 쌍룡기쟁탈 전국고교대회 289
1969 제21회 쌍룡기쟁탈 전국고교대회 303
1970 제22회 쌍룡기쟁탈 전국고교대회 316
1971 제23회 쌍룡기쟁탈 전국고교대회 330
1972 제24회 쌍룡기쟁탈 전국고교대회 341
1974 제26회 화랑기쟁탈 전국고교대회 370
1975 제27회 화랑기쟁탈 전국고교대회 384
1976 제28회 화랑기쟁탈 전국고교대회 401
1977 제29회 화랑기쟁탈 전국고교대회 416
1978 제30회 화랑기쟁탈 전국고교대회 430
1979 제31회 화랑기쟁탈 전국고교대회 449

- 1951 제1회 아시아경기대회 개최 125
1954 제1회 아시아선수권대회 3위 136
1955 제2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선수선발전 144
1955 제2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선수단 결단식 147
1955 제2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선수단 환송대회 147
1955 제2회 아시아선수권대회, 한국 3위 147
1957 제3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반납 158
1959 제3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첫 준우승 177
1962 제4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준우승 209
1963 제5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사상 첫 우승 230
1965 제6회 아시아선수권대회 262
1967 제7회 아시아선수권대회 279
1969 제8회 아시아선수권대회 308
1971 제9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우승 332
1973 제10회 아시아선수권대회 349
1975 제11회 아시아선수권대회, 한국 우승 383
1979 제1회 야구대제전 456
1927 제1회 연희전문-경성의전 정기대항전 27
1928 이영민, 동양인 최초 경성운동장 첫 홈런 33
1929 제3회 연희전문-경성의전 정기대항전 38
1931 제4회 연희전문-경성의전 정기대항전 51
1932 제5회 연희전문-경성의전 정기대항전 54
1933 제6회 연희전문-경성의전 정기대항전 61
1934 제7회 연희전문-경성의전 정기대항전 65
1935 제8회 연희전문-경성의전 정기대항전 69
1946 제1회 월계기쟁탈 전국도시대항대회 94
1947 제2회 월계기쟁탈 전국도시대항대회 104
1948 제3회 월계기쟁탈 전국도시대항대회 110
1949 제4회 월계기쟁탈 전국도시대항대회 119
1950 제5회 월계기쟁탈 전국도시대항대회 124
1952 제7회 전국도시대항대회 126
1953 제8회 전국도시대항대회 128
1954 제9회 전국도시대항대회 134
1955 제10회 전국도시대항대회 144
1956 제11회 전국도시대항대회 155
1958 제13회 전국도시대항대회 171
1947 제1회 인천4도시대항대회 106
1948 제2회 인천4도시대항리그 115
1954 제1회 인천4도시초청고교대회 131
1955 제2회 인천4도시초청고교대회 144
1956 제3회 인천4도시대항고교대회 155
1957 제4회 인천4도시초청고교대회 162
1958 제5회 인천4도시초청고교대회 171
1959 제6회 인천4도시초청고교대회 184
1960 제8회 인천4도시초청고교대회 197
1961 제9회 인천4도시고교초청대회 206
1965 제12회 인천4도시초청고교대회 250
1966 제13회 인천4도시고교초청대회 263
1967 제14회 인천4도시초청고교대회 274
1968 제15회 인천4도시초청고교대회 284
1969 제16회 인천4도시초청고교대회 298
1970 제17회 인천4도시초청고교대회 310
1956 제1회 재일교포학생모국방문환영대회 151
1957 제2회 재일교포학생모국방문 환영대회 159
1958 제3회 재일교포학생모국방문환영대회 166
1959 제4회 재일교포학생모국방문 환영대회 180
1960 제5회 재일교포학생모국방문 환영대회 193
1961 제6회 재일교포학생모국방문환영대회 203
1962 제7회 재일교포학생모국방문환영대회 215
1963 제8회 재일교포학생모국방문 환영대회 228
1964 제9회 재일교포학생모국방문 환영대회 242
1965 제10회 재일교포학생모국방문대회 255
1968 제11회 재일교포학생모국방문대회 290
1969 제12회 재일교포학생모국방문대회 303
1970 제13회 재일교포학생모국방문대회 317
1959 제1차 재일교포성인야구단초청대회 175
1960 제2차 재일교포성인야구단 초청대회 188
1963 제3차 재일교포성인야구단초청대회 227
1962 제1회 재일교포중학야구단 방문경기 214
1964 제1회 재향군인회장이 전국국교대회 239
1965 제2회 재향군인회장이 전국국교대회 251
1966 제3회 재향군인회장이 전국국교대회 264
1966 제1회 전국고교왕자전 271
1968 제3회 국회의장배 전국6도시고교대회 295
1969 제4회 국회의장배 전국6도시고교대회 306
1970 제5회 국회의장배 전국6도시고교대회 322
1971 제6회 국회의장배 전국6도시고교대회 333
1972 제7회 국회의장배 전국6도시고교대회 345
1973 제8회 국회의장배 전국6도시고교대회 360
1974 제9회 국회의장배 전국6도시고교대회 375
1975 제10회 국회의장배 전국6도시고교대회 391
1976 제11회 국회의장배 전국6도시고교대회 404
1949 제4회 전국소년소녀체육대회 118
1954 제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야구경기 135
1955 제1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야구경기 139
1972 제1회 전국스포츠포소년대회 야구경기 340
1973 제2회 전국스포츠포소년대회 야구경기 353
1974 제3회 전국스포츠포소년대회 야구경기 367
1975 제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야구경기 381
1976 제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야구경기 397
1977 제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야구경기 413
1978 제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야구경기 425
1979 제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중학야구경기 444
1979 제1회 전국국민학교선수권대회 452
1972 제1회 전국우수고교초청대회 346
1973 제2회 전국우수고교초청대회 361
1974 제3회 전국우수고교초청대회 374
1975 제4회 전국우수고교초청대회 387
1976 제5회 전국우수고교초청대회 406
1947 제1회 전국지구대표쟁패전 103
1954 제1회 전국초청도시대항대회 131
1955 제2회 전국초청도시대항대회 139
1956 제3회 전국초청도시대항대회 154
1957 제4회 전국초청도시대항대회 158
1958 제5회 전국초청도시대항대회 165
1949 제1회 전국학도호국단 체육대회 122
1922 제1회 전인천소년대회 13
1926 제1회 전인천소년대회 개최 24

- 1927 제2회 전인천소년대회 28
1928 제3회 전인천소년대회 33
1928 제1회 전조선보통학교아동대회 개최 36
1929 제2회 전조선보통학교아동야구대회 42
1930 제3회 전조선보통학교아동대회 47
1931 제4회 전조선보통학교아동대회 53
1932 제5회 전조선보통학교아동대회 56
1924 제1회 전조선야구쟁패전 19
1925 제2회 전조선야구쟁패전 김종세 첫 홈런 22
1926 제3회 전조선야구쟁패전 26
1927 제4회 전조선야구쟁패전 30
1928 제5회 전조선야구쟁패전 35
1929 제6회 전조선야구쟁패전 41
1930 제7회 전조선야구쟁패전 46
1931 제8회 전조선야구쟁패전 52
1932 제9회 전조선야구쟁패전 59
1933 제10회 전조선야구쟁패전 63
1934 제11회 전조선야구쟁패전, 고려 첫 출전 66
1935 제12회 전조선야구쟁패전 72
1936 제13회 전조선야구쟁패전 77
1936 제1회 전조선연식도시대항대회 77
1932 제1회 전조선연식우승대회 58
1924 제1회 전조선육상대회 개최 18
1924 제1회 전조선전문학교대회 창설 18
1925 제2회 전조선전문학교대회 21
1931 제3회 전조선고등·전문학교대회 50
1933 제1회 전조선대학·전문학교연맹전 61
1934 제2회 전조선대학·전문학교연맹전 65
1935 제3회 전조선대학·전문학교연맹전 69
1936 제4회 전조선대학·전문학교연맹전 74
1937 제5회 전조선대학·전문학교연맹전 77
1938 제6회 전조선대학·전문학교연맹전 82
1939 제7회 전조선대학·전문학교연맹전 84
1931 제1회 전조선중등대회 51
1932 제2회 전조선중등대회 최장 연장전 55
1933 제3회 전조선중등대회 61
1934 제4회 전조선중등대회 68
1935 제5회 전조선중등대회 70
1938 제6회 전조선중등대회 75
1937 제7회 전조선중등대회 78
1921 제1회 전조선축구대회 개최 11
1948 제1회 정부수립 경축 전국선발국교대회 112
1970 제1회 조서희기쟁탈 전국중학대회 창설 312
1971 제2회 조서희기쟁탈 전국국민학교대회 327
1972 제3회 조서희기쟁탈 전국국민학교대회 338
1972 제3회 조서희기쟁탈 전국중학대회 339
1973 제4회 조서희기쟁탈 전국국민학교대회 351
1973 제4회 조서희기쟁탈 전국중학대회 351
1927 제1회 조선신궁중등학교대회 31
1928 제2회 조선신궁중등학교대회 36
1929 제3회 조선신궁중등학교대회 42
1930 제4회 조선신궁중등학교대회 47
1931 제5회 조선신궁중등학교대회 53
1932 제6회 조선신궁중등학교대회 59
1933 제7회 조선신궁중등학교대회 64
1934 제8회 조선신궁중등학교대회 68
1935 제9회 조선신궁중등학교대회 73
1936 제10회 조선신궁중등학교대회 77
1937 제11회 조선신궁중등학교대회 81
1938 제12회 조선신궁중등학교대회 83
1939 제13회 조선신궁중등학교대회 86
1940 제14회 조선신궁중등학교대회 88
1941 제15회 조선신궁중등학교대회 89
1947 제1회 조선연식야구협회 창립기념대회 103
1921 제7회 전국중등우승대회 조선예선전 12
1922 제8회 전국중등우승대회 조선예선전 13
1923 제9회 전국중등우승대회 조선예선전 16
1924 제10회 전국중등우승대회 조선예선전 18
1925 제11회 전국중등우승대회 조선예선전 22
1926 제12회 전국중등우승대회 조선예선전 25
1927 제13회 전국중등우승대회 조선예선전 29
1928 제14회 전국중등우승대회 조선예선전 34
1929 제15회 전국중등우승대회 조선예선전 40
1930 제16회 전국중등우승대회 조선예선전 44
1931 제17회 전국중등우승대회 조선예선전 51
1932 제18회 전국중등우승대회 조선예선전 57
1933 제19회 전국중등우승대회 조선예선전 63
1934 제20회 전국중등우승대회 조선예선전 66
1935 제21회 전국중등우승대회 조선예선전 72
1936 제22회 전국중등우승대회 조선예선전 76
1937 제23회 전국중등우승대회 조선예선전 79
1938 제24회 전국중등우승대회 조선예선전 82
1939 제25회 전국중등우승대회 조선예선전 85
1940 제26회 전국중등우승대회 조선예선전 87
1930 제1회 조선중등학교선발대회 45
1931 제2회 조선중등학교선발대회 52
1932 제3회 조선중등학교선발대회 58
1925 제1회 중등학교리그 창설 20
1926 제2회 중등학교리그 24
1929 제3회 중등학교리그 재개 38
1930 제4회 중등학교리그 휘문고보 우승 44
1931 제5회 중등학교리그 53
1923 제1회 중학육상경기대회 개최 17
1946 제1회 전국중등학교선수권대회 98
1947 제2회 전국중등선수권대회 102
1948 제3회 전국중등선수권대회 서울시예선 109
1948 제3회 전국중등선수권대회 110
1949 제4회 전국중등선수권대회 서울시예선 118
1949 제4회 전국중등선수권대회 118
1950 제5회 전국중등선수권대회 124
1953 제8회 전국중·고교선수권대회 예선 127
1953 제8회 전국중·고교선수권대회 128
1954 제9회 전국중·고교선수권대회 예선 130
1954 제9회 전국중·고교선수권대회 130
1955 제10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예선 137
1955 제10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138
1956 제11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149
1957 제12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158

- 1958 제13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예선 164
1958 제13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164
1959 제14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예선 177
1959 제14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177
1960 제15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부산예선 190
1960 제15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서울예선 190
1960 제15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191
1961 제16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201
1962 제17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서울예선 210
1962 제17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211
1963 제18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예선 225
1963 제18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226
1964 제19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예선 239
1964 제19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240
1965 제20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예선 252
1965 제20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253
1966 제21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예선 265
1966 제21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266
1967 제22회 전국고교선수권 대회 예선 276
1967 제22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276
1968 제23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예선 286
1968 제23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287
1969 제24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서울예선 300
1969 제24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301
1970 제25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예선 312
1970 제25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313
1971 제26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328
1972 제27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339
1973 제28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353
1974 제29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368
1975 제30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382
1976 제31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398
1977 제32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414
1978 제33회 전국고교선수권 426
1979 제34회 전국고교선수권대회 445
1962 제1회 최고회의의장패쟁탈3군대항대회 218
1978 제1회 통일대기쟁탈 전국대학대회 422
1979 제2회 통일대기쟁탈 전국대학대회 452
1978 제1회 한·미대학선수권대회 430
1979 제2회 한·미대학선수권대회 444
1970 제1회 한·일고교대회 318
1972 제2회 한·일고교대회 343
1973 제3회 한·일고교대회 358
1975 제4회 한·일고교대회 388
1976 제5회 한·일고교대회 404
1977 제6회 한·일고교대회 418
1978 제7회 한·일고교대회 433
1979 제8회 한·일고교대회 454
1928 제1회 호남중등학교대회 36
1929 제2회 호남중등학교대회 38
1929 제3회 호남중등학교대회 42
1930 제4회 호남중등학교대회 44
1930 제5회 호남중등학교대회 47
1932 제7회 호남중등학교대회 56
1971 제1회 회장기쟁탈 전국국민학교대회 334
1972 제2회 회장기쟁탈 전국국민학교대회 343
1973 제3회 회장기쟁탈 전국국민학교대회 354
1974 제4회 회장기쟁탈 전국국민학교대회 373
1975 제5회 회장기쟁탈 전국국민학교대회 386
1976 제6회 회장기쟁탈 전국국민학교대회 399
1977 제7회 회장기쟁탈 전국국민학교대회 417
1979 제9회 회장기쟁탈 전국국민학교대회 442
1972 제20회 뮌헨올림픽대회 개막 340
1976 제21회 세계야구선수권대회 408
1978 제25회 세계선수권대회 432
1945 제26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92
1946 제27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100
1947 제28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107
1948 제29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115
1949 제30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122
1951 제32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125
1952 제33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126
1953 제34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128
1954 제35회 전국체육대회 서울시중학예선 133
1954 제35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135
1955 제36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145
1956 제37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156
1957 제38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162
1958 제39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170
1959 제40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184
1960 제41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197
1961 제42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207
1962 제43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219
1963 제44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230
1964 제45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244
1965 제46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259
1966 제47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271
1967 제48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281
1968 제49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294
1969 제50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307
1970 제51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320
1971 제52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333
1972 제53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346
1973 제54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361
1974 제55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375
1975 제56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390
1976 제57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407
1977 제58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419
1978 제59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435
1979 제60회 전국체육대회 야구경기 456
1939 제2차 세계대전 발발 86
1954 제2회 경남연식대회 130
1934 제2회 관서연식대회 67
1953 제2회 광복절 경축 기념대회 127
1975 제2회 대륙간컵쟁탈 세계대회 탈락 385
1949 제2회 부·마(釜馬)정기대항전 116
1968 제2회 전국6도시고교야구대회 288
1954 제2회 전국도시대항연식대회 133

- 1955 제3회 전국도시대항연식대회 141
1964 제2회 전국실업초청대회 236
1979 제2회 크라운배쟁탈 국제초청대회 447
1950 제2회 학도호국단체육대회 야구경기 125
1935 제3회 관서연식대회 73
1977 제3회 슈퍼 월드컵대회, 첫 우승 420
1949 제3회 전국소년선수권대회 118
1948 제3회 전국연식춘계연맹전 109
1972 제3회 세계리틀선수권대회 예선대회 342
1973 제4회 세계리틀선수권대회 예선 준우승 356
1974 제5회 세계리틀선수권대회 예선전 370
1975 제6회 세계리틀선수권대회 예선전 386
1977 제8회 세계리틀선수권대회 예선전 416
1978 제9회 세계리틀선수권대회 예선전 431
1979 제10회 세계리틀선수권대회 예선 448
1967 제4회 전국여자대학연식연맹전 276
1949 제4회 전국연식야구대회 117
1959 제5회 서울시중학연식선수권대회 179
1950 제5회 춘계연식야구대회 124
1969 제6회 아시아경기대회 반남 299
1962 제6회 한-미친선대회 212
1937 제7회 경성중등춘계리그 77
1964 제7회 문교부장관기쟁탈 전국중학대회 242
1964 제7회 전국중학초청대회 서울예선 239
1921 제7회 전국중등우승대회 12
1922 제8회 전국중등우승대회 14
1923 제9회 전국중등우승대회 휘문고보 출전 17
1924 제10회 전국중등우승대회 19
1925 제11회 전국중등우승대회 22
1926 제12회 전국중등우승대회 25
1927 제13회 전국중등우승대회 29
1928 제14회 전국중등우승대회 35
1929 제15회 전국중등우승대회 41
1930 제16회 전국중등우승대회 45
1931 제17회 전국중등우승대회 52
1932 제18회 전국중등우승대회 58
1933 제19회 전국중등우승대회 63
1934 제20회 전국중등우승대회 66
1935 제21회 전국중등우승대회 72
1936 제22회 전국중등우승대회 76
1937 제23회 전국중등우승대회 80
1938 제24회 전국중등우승대회 83
1939 제25회 전국중등우승대회 86
1940 제26회 전국중등우승대회 88
1947 제1차 전국지구대표중등쟁패전 105
1948 제2회 전국지구대표중등쟁패전 114
1949 제3회 전국지구대표중등쟁패전 121
1954 제8회 전국지구대표고교쟁패전 예선 132
1954 제8회 전국지구대표고교쟁패전 134
1955 제9회 전국지구대표고교쟁패전 예선 144
1955 제9회 전국지구대표고교쟁패전 145
1956 제10회 전국지구대표고교쟁패전 예선 155
1956 제10회 전국지구대표고교쟁패전 중지 156
1957 제11회 전국지구대표고교쟁패전 161
1958 제12회 전국지구대표고교쟁패전 예선 169
1958 제12회 전국지구대표고교쟁패전 171
1959 제13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183
1960 제14회 전국지구별 고교쟁패전 예선 196
1960 제14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196
1961 제15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205
1962 제16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217
1963 제17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232
1964 제18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예선 245
1964 제18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246
1965 제19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260
1966 제20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270
1967 제21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예선 280
1967 제21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281
1968 제22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예선 294
1968 제22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295
1969 제23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예선 306
1969 제23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307
1970 제24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320
1971 제25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333
1972 제26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341
1973 제27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359
1974 제28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369
1975 제29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383
1976 제30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400
1977 제31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414
1978 제32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429
1979 제33회 전국지구별초청고교쟁패전 455
1964 제8회 한-미친선대회 241
1976 제9회 네덜란드초청 국제대회 준우승 399
1965 제9회 한-미친선대회 254
1946 한성실업연맹창립기념 춘계리그 97
1946 제2회 한성실업연맹전 추계1, 2차리그 99
1947 제3회 한성실업춘계연맹전 101
1947 제4회 한성실업추계연맹전 106
1948 제5회 한성실업춘계연맹전 109
1948 제6회 한성실업연맹전 추계리그 113
1949 제7회 한성실업춘계연맹전 116
1949 제8회 한성실업추계연맹전 121
1950 제9회 한성실업춘계연맹전 123
1954 제17회 한성실업춘계연맹전 129
1963 제일은행야구단 결단 222
1941 조 디마지오 56경기 연속 안타 89
1945 조-미친선대회(조선-미101부대대항전) 91
1945 조-미(朝-美)환영대회 92
1947 조-미친선대회 101
1896 조선 첫 근대 운동회 2
1927 조선 최초 경성방송국 개국 27
1935 조선 최초 노히트노런 70
1927 조선 최초 마라톤 공식 기록 30
1916 조선 최초 배구 도입 8
1923 조선 최초 빙상경기 15
1933 조선 최초 스포츠 중계방송 60
1910 조선 최초 야구 유니폼 착용 4

- 1929 조선 최초 야구감독 제명 39
1915 조선 최초 야구대회 개최 8
1925 조선 최초 야구심판 강습회 21
1925 조선 최초 여자야구경기 20
1912 조선 최초 일본원정경기 6
1906 조선 최초 자전거경기 4
1923 조선 최초 전조선여자정구대회 개최 16
1925 조선 최초 종합운동장(경성운동장) 준공 22
1915 조선 최초 중학대회 개최 8
1924 조선 최초 탁구대회 개최 18
1922 조선공술연구회 창립 13
1931 조선농구협회 창립 48
1931 조선농구심판협회 창립 48
1946 조선소년체육회 창립 93
1927 조선실업야구연맹 창립 28
1932 조선실업야구연맹 해체 54
1947 조선야구단 하와이원정경기 연기 104
1923 조선야구심판협회 결성 16
1930 조선야구심판협회 창립 46
1946 조선야구협회 창립 93
1947 조선야구협회 임원 개선 100
1948 조선야구협회 임원 개선 108
1946 조선연식야구협회 창립 준비총회 95
1946 조선연식야구협회 정식 발족 96
1946 조선연식야구협회 창립기념대회 96
1947 조선연식야구협회 임원 개선 100
1947 조선연식야구협회 임원 개선 107
1948 조선연식야구협회 총회 112
1947 조선올림픽 동계대회 100
1947 조선올림픽위원회 출범 102
1948 조선운수, 영남원정경기 108
1906 조선인 최초 야구경기 4
1920 조선일보 창간 10
1945 조선체육동지회 결성 91
1919 조선체육협회 발족 9
1942 조선체육협회 해체 90
1923 조선체육회 4차 대의원 총회 16
1945 조선체육회 부활 92
1933 조선체육회 정기총회 61
1920 조선체육회 창립 발기인대회 10
1920 조선체육회 창립 11
1938 조선체육회 해체 82
1948 조선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개명 113
1928 조선축구심판협회 창립 33
1933 조선축구협회 창립 63
1946 조선학생야구연맹 발족 93
1946 조선학생야구연맹 창립 기념 춘계연맹전 94
1946 조선학생추계연맹전 100
1973 조흥기(趙洪基), 노히트노런 353
1974 주성노(朱性魯), 노히트노런 365
1970 주오(中央)대학초청대회 313
1973 주쿄(中京)대학초청대회 356
1931주쿄(中京)상업초청경기 48
1937 중·일전쟁 발발 79
1976 중국 공산당 모택동 주석 사망 404
1913 중앙 YMCA 야구단 해산 7
1932 중앙고보 야구부, 황해도 순회경기 57
1926 중앙고보-취문고보대항경기 24
1924 중앙YMCA 하와이 원정 18
1946 중앙실업 야구부 창설 94
1963 중학선발 일본원정경기 233
1956 중학 최장연장전 32이닝 완투 신기록 151
1956 중학야구 37이닝 연속완투 신기록 156
1977 중학야구 70이닝 경기 채택 409
1974 지명타자 정식 채택 368
1979 지미 카터 미대통령 방한 446
1964 지바겐(千葉縣)고교선발초청대회 244
1925 지방 최초 대교(對校)경기 22
1964 짐 버닝 42년만에 퍼펙트 게임 239
1976 짐 파머 사이영상 세번째 수상 408
1977 천창호(千昌浩), 노히트노런 411
1960 청량중야구단 자유중국 첫 원정경기 187
1937 체육데이 보통학교야구대회 80
1965 최관수(崔寬洙), 노히트 노런 252
1977 최동원(崔東原), 노히트노런 388
1973 최형빈(崔亨斌), 노히트 노런 353
1950 춘계소년리그 123
1964 카디널스 월드시리즈 우승 248
1929 카이소우(海草)중학초청경기 36
1979 카터 미대통령 방한 한·미친선대회 446
1967 칼 야스트르젠스키 타격 3관왕 280
1963 캐네디 대통령 피살 233
1968 캣피시 헌터 퍼펙트게임 285
1958 KNA민간 여객기 납북 163
1926 코료(廣陵)중학초청경기 25
1928 코료(廣陵)중학초청경기 33
1964 크라운맥주 야구단 창단 238
1927 타이 콥 개인 통산 4,000안타 28
1961 타이 콥 사망 203
1941 태평양전쟁 발발 89
1959 태풍 사라 남부지방 강타 184
1970 톰 시버 10연속타자 탈삼진 310
1973 톰 시버 사이영상 획득 362
1975 톰 시버 사이영상 3번째 수상 392
1971 통합 대한야구협회 출범 323
1945 8.15해방 91
1946 8.15경축 조·미친선대회 97
1947 8.15해방2주년 경축 한·미친선대회105
1955 8.15경축 서울시4고교리그 142
1963 8.15경축 기념 서울시중학리그 229
1966 8.15해방 경축 서울시장기 중학대회 269
1936 평남중등학교춘계리그 74
1937 평남중등학교춘계리그 78
1937 평남중등학교추계리그 80
1938 평남중등학교춘계리그 82
1939 평남중등학교춘계리그 84
1939 평남중등학교추계리그 86
1940 평남중등학교춘계리그 87

- 1940 평남중등학교추계리그 88
1941 평남중등학교춘계리그 89
1911 평양 숭실학교 야구부 창설 5
1926 평양공설운동장 개장 26
1965 프로권투 김기수(金基洙) 챔프 등극 249
1975 프로권투 유제두 주니어 미들급 정복 382
1971 피츠버그 월드시리즈 우승 333
1978 피트 로즈 44연속경기 안타 433
1969 필리핀 칸루방(Canlubang)초청대회 300
1959 필리핀야구단 초청경기 178
1950 필리핀야구단초청경기 125
1901 필립 질레트 내한 3
1902 필립 질레트 평양에서 캐치 볼 3
1904 필립 질레트 조선에 야구 보급 3
1907 필립 질레트 농구 도입 4
1913 필립 질레트 선교사 추방 7
1947 하와이교포회초청 원정야구단 결단 104
1947 하와이원정 환송경기 106
1947 하와이원정 조선야구단 환송경기 108
1948 하와이원정야구단 해산 109
1928 한 경기 최다 탈삼진(22개) 기록 35
1933 한 경기 최단 시간(1시간17분) 기록 62
1950 한 경기 최소 투구(74) 노히트노런 124
1976 한·미·니카라과3국친선대회 405
1954 자유중국 원정 환송 한·미군친선대회 131
1948 한·미친선대회 111
1948 한·미선발대항대회 112
1948 한·미친선대회 113
1949 한·미친선대회 116
1949 대학선발·미주둔군대항 한·미친선대회 117
1956 한·미친선대회 149
1956 한·미친선대회 149
1956 한·미친선대회 150
1956 한·미친선대회 150
1956 한·미친선대회 153
1957 한·미친선대회 159
1958 정부수립 10주년기념 한·미친선대회 169
1959 한·미친선대회 177
1959 한·미친선대회 182
1962 한·미올스타전 216
1976 한·일친선고교대회 402
1965 한·일협정 체결 253
1968 한·일친선실업대회 296
1973 한·일친선대학대회 363
1979 한·호주친선대회 457
1979 한·중친선고교대회 458
1972 한광홍(韓光弘), 노히트 노런 343
1970 한국 고교야구 사상 27회 최장 연장전 320
1950 한국 보스톤 마라톤 제패 123
1973 한국 세계야구연맹 가입 363
1957 김삼용 한국 최초 퍼펙트 게임 수립 162
1954 한국 최초 해외 원정 136
1971 한국고교선발 일본원정대회 335
1972 한국고교선발 일본원정대회 347
1974 한국고교선발 일본원정대회 372
1972 한국고교야구연맹 정기 대의원 총회 347
1972 한국국민학교야구연맹 발족 335
1976 한국대학선발 일본원정대회 403
1966 한국대학체육연맹 발족 273
1970 한국리틀리그 창설 319
1979 한국실업선발 캐나다원정대회 448
1975 한국실업야구연맹 집행부 전원 유임 376
1970 한국야구 사상 첫 3연타석 홈런 312
1973 한국여자탁구 세계 제패 348
1962 한국전력 야구단 결단식 222
1953 한국전쟁 휴전협정 조인 127
1974 한국직업야구위원회 결성 376
1954 한국체육상 제정 129
1955 한국체육상 시상 136
1976 한국화장품 야구단 창단 403
1977 한국화장품 일본원정대회 418
1908 한성고(현 경기고) 야구부 결성 4
1946 한성실업야구연맹 창립 95
1974 한신(阪神)지역대학선발초청대회 372
1962 한일은행 야구단 창설 222
1964 한일은행야구단 해체 234
1964 한장철 중학 두번째 퍼펙트 게임 246
1967 한장철, 고교야구 퍼펙트 게임 280
1946 해방후 첫 라디오실황 중계방송 99
1973 해병대사령부 해체 360
1957 행크 에런 첫 홈런 162
1974 행크 에런 715 홈런 폭팔 364
1974 행크 에런 만루홈런 신기록 367
1976 홈런왕 행크 에런 은퇴 406
1923 허성(許城), YMCA 운동부 간사 취임 16
1955 호남3도시대항대회 146
1970 호남고속도로(대전~전주) 개통 323
1969 호세이(法政)대학초청대회 301
1979 호주국가대표초청대회 452
1923 화와이교포학생야구단 모국방문 16
1923 조선육상경기연구위원회 구성 16
1962 화폐개혁, 10환=1원 212
1975 황기선(黃起善), 고교야구 퍼펙트 게임 393
1977 황기선, 노히트노런 410
1903 황성 YMCA 창립 총회3
1909 황성 YMCA 운동부 설치 4
1909 황성 YMCA 야구단 결성 4
1910 황성 YMCA·대한의원부속학교 대전 5
1910 황성 YMCA·한성고 첫 야구경기 5
1910 황성 YMCA·한성고 2차전 5
1979 회장기쟁탈 전국실업대회 444
1929 휘문고보-대구상업 친선경기 42
1907 휘문의숙(徽文義塾) 야구부 결성 4
1911 휘문의숙·중앙 YMCA 야구경기 5
1947 흑인 메이저리그 데뷔 101
1932 흑인야구단 로얄 자이언츠 초청경기 59
1975 히로시마 사상 첫 리그 우승 390

한국야구사 연표

1896~1979



2013년 11월 25일 인쇄

2013년 11월 30일 발행

발행인 구분능

기획 양해영

편저자 홍순일

편집 주식회사 거빈

인쇄 주식회사 거빈

발행처 KBO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78 (02)3460-4600

이책의 판권은 KBO에 속해 있으므로
허가없이 복제, 전재할 수 없습니다.